CR 29 (CO 1)

칼빈의 기독교강요 1권

1536년판, 1539–1554년판

칼빈 전집 1권

AI 초벌 번역판 · 신학 감수 전

존 칼빈의『기독교 강요』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1 (Corpus Reformatorum 29), Brunsvigae 1863, coll. 1–1152. archive.org 구글 스캔본(ioanniscalvinio05calvgoog) OCR 기준.

AI 초벌 번역판 · 신학 감수 전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 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번역문은 CC0 1.0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합니다.

일러두기

- 원문은 칼빈 전집(Corpus Reformatorum) 1권(1863)이며, archive.org에 공개된 구글 스캔본(옥스퍼드 소장본)의 OCR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OCR 오류는 문맥으로 바르게 읽었고, 뜻이 갈리거나 읽기 어려운 곳은 [원문의 심] 각주로 밝혔습니다.
- 본문 사이의 작은 표시 CO 11 은 전집 1권의 단(column) 번호입니다. 한 쪽에 두 단이 있어 홀수만 표시했습니다(CO 11 = 11–12단). OCR에서 쪽머리를 찾지 못한 쪽(572쪽 가운데 57쪽)은 표시가 빠져 있습니다.
- 1권에 실린 순서대로 1536년 바젤 초판『기독교 강요』(프랑수아 1세에게 드리는 헌정 서문과 6장)와 1539–1554년판(독자에게 드리는 글, 헌정 서문, 21장과 1539년판에만 있는「교회의 권세에 관하여」)을 실었습니다. CO 편집자 서문(Prolegomena), 판 대조표, 1536년판 끝의 색인, 정오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 1539–1554년판은 CO 편집자들이 1539년판 본문에 1543·1545·1550·1553·1554년판에서 더한 글을 합쳐 실은 것입니다. CO는 뒤의 판에서 더한 글을 이탤릭으로 구분했지만 OCR에서는 그 구분이 사라졌으므로, 이 책은 판을 구분하지 않고 한 본문으로 옮겼습니다. 판별 이문 각주와 판별 절 번호 표시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 1536년판 본문의 [p. 42] 같은 초판 쪽 번호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절 번호(1., 2. ...)는 원문대로 두었습니다.
- 모든 글을 합쇼체로 옮겼습니다. 칼빈의 논쟁 어조는 다듬지 않았습니다.
- 번역 단위(편)는 원문 약 14단(7쪽)씩 나눈 것이며, 편 경계에서 문장이 이어지면 앞 편에서 문장 끝까지 옮기고 각주로 밝혔습니다.
- 신학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검토자 추천안대로 확정해 반영했습니다(2026-11-25 사용자 결정). 쟁점과 적용안은 부록 1에 실었습니다.
- 책 뒤의 부록에 이 책에 적용한 신학 쟁점과 그 적용안, 용어 대조표, 성경 구절 색인, 인명 색인을 실었습니다. 차례와 색인의 항목·쪽 번호를 누르면 해당 자

리로 갑니다.

차례

1536년판 · 표제, 장 목록, 프랑수아 1세에게 드리는 헌정 서문 10

1536년판 표제, 장 목록, 프랑수아 1세에게 드리는 헌정 서문 11

1536년판 · 제1장 율법에 관하여(십계명 해설) 35

1536년판 제1장 율법에 관하여(십계명 해설) 1 36

1536년판 제1장 율법에 관하여(십계명 해설) 2 56

1536년판 · 제2장 믿음에 관하여(사도신경 해설) 80

1536년판 제2장 믿음에 관하여(사도신경 해설) 1 81

1536년판 제2장 믿음에 관하여(사도신경 해설) 2 103

1536년판 · 제3장 기도에 관하여(주기도문 해설) 124

1536년판 제3장 기도에 관하여(주기도문 해설) 1 125

1536년판 제3장 기도에 관하여(주기도문 해설) 2 150

1536년판 · 제4장 성례에 관하여(세례와 주의 만찬) 158

1536년판 제4장 성례에 관하여(세례와 주의 만찬) 1 159

1536년판 제4장 성례에 관하여(세례와 주의 만찬) 2 180

1536년판 제4장 성례에 관하여(세례와 주의 만찬) 3 204

1536년판 · 제5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223

1536년판 제5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1 224

1536년판 제5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2 246

1536년판 제5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3 268

1536년판 제5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4 290

1536년판 · 제6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 통치에 관하여310

1536년판 제6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 통치에 관하여 1 311

1536년판 제6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 통치에 관하여 2 333
1536년판 제6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 통치에 관하여 3 357
1536년판 제6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 통치에 관하여 4 377

1539–1554년판 · 표제, 독자에게 드리는 글, 프랑수아 1세에게 드리는 헌정 서문 399

1539–1554년판 표제, 독자에게 드리는 글, 프랑수아 1세에게 드리는 헌정 서문 400

1539–1554년판 ·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427

1539–1554년판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1 428
1539–1554년판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2 449

1539–1554년판 ·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470

1539–1554년판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1 471
1539–1554년판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2 493
1539–1554년판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3 516
1539–1554년판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4 539
1539–1554년판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5 562

1539–1554년판 · 제3장 율법에 관하여 580

1539–1554년판 제3장 율법에 관하여 1 581
1539–1554년판 제3장 율법에 관하여 2 609
1539–1554년판 제3장 율법에 관하여 3 630
1539–1554년판 제3장 율법에 관하여 4 652
1539–1554년판 제3장 율법에 관하여 5 674

1539–1554년판 · 제4장 서원에 관하여 688

1539–1554년판 제4장 서원에 관하여 689

1539–1554년판 · 제5장 믿음에 관하여 716

1539–1554년판 제5장 믿음에 관하여 1 717
1539–1554년판 제5장 믿음에 관하여 2 739

1539–1554년판 · 제6장 사도신경 첫째 부분 해설 756

1539–1554년판 제6장 사도신경 첫째 부분 해설 1 757
1539–1554년판 제6장 사도신경 첫째 부분 해설 2 780
1539–1554년판 제6장 사도신경 첫째 부분 해설 3 807

1539–1554년판 · 제7장 사도신경 둘째 부분 해설 818

1539–1554년판 제7장 사도신경 둘째 부분 해설 1 819
1539–1554년판 제7장 사도신경 둘째 부분 해설 2 845

1539–1554년판 ·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859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1 860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2 880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3 902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4 927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5 950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6 974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7 997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8 1021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9 1051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10 1073

1539–1554년판 · 제9장 회개에 관하여 1100

1539–1554년판 제9장 회개에 관하여 1 1101
1539–1554년판 제9장 회개에 관하여 2 1125
1539–1554년판 제9장 회개에 관하여 3 1147
1539–1554년판 제9장 회개에 관하여 4 1170

1539–1554년판 ·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1182

1539–1554년판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1 1183
1539–1554년판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2 1206
1539–1554년판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3 1228
1539–1554년판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4 1251
1539–1554년판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5 1274

1539–1554년판 · 제11장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관하여 1289

1539–1554년판 제11장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관하여 1 1290
1539–1554년판 제11장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관하여 2 1311

1539–1554년판 · 제12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1332

1539–1554년판 제12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1333

1539–1554년판 · 제13장 사람의 전통에 관하여 1349

1539–1554년판 제13장 사람의 전통에 관하여 1 1350
1539–1554년판 제13장 사람의 전통에 관하여 2 1372

1539–1554년판 · 제14장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 1386

1539–1554년판 제14장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 1 1387
1539–1554년판 제14장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 2 1408
1539–1554년판 제14장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 3 1435

1539–1554년판 · 제15장 기도에 관하여(주기도문 해설) 1454

1539–1554년판 제15장 기도에 관하여(주기도문 해설) 1 1455
1539–1554년판 제15장 기도에 관하여(주기도문 해설) 2 1478
1539–1554년판 제15장 기도에 관하여(주기도문 해설) 3 1499

1539–1554년판 · 제16장 성례에 관하여 1510

1539–1554년판 제16장 성례에 관하여 1511

1539–1554년판 · 제17장 세례에 관하여 1540

1539–1554년판 제17장 세례에 관하여 1 1541

1539–1554년판 제17장 세례에 관하여 2 1561

1539–1554년판 제17장 세례에 관하여 3 1584

1539–1554년판 · 제18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593

1539–1554년판 제18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 1594

1539–1554년판 제18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2 1616

1539–1554년판 제18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3 1637

1539–1554년판 제18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4, 1539년판 제14장 교회의 권세에 관하여 1 1659

1539년판 · 제14장 교회의 권세에 관하여(77편 끝에서 시작) 1680

1539년판 제14장 교회의 권세에 관하여 2 1681

1539–1554년판 · 제19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1706

1539–1554년판 제19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1 1707

1539–1554년판 제19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2 1727

1539–1554년판 제19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3 1747

1539–1554년판 · 제20장 국가 통치에 관하여 1759

1539–1554년판 제20장 국가 통치에 관하여 1 1760

1539–1554년판 제20장 국가 통치에 관하여 2 1780

1539–1554년판 · 제21장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1797

1539–1554년판 제21장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1 1798

1539–1554년판 제21장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2 1819

부록 1843

부록 1. 신학 쟁점과 적용안 1843
부록 2. 용어 대조표 1883
부록 3. 성경 구절 색인 1901
부록 4. 인명 색인 1929

1536년판 · 표제, 장 목록, 프랑수아 1세에게 드리는 헌정 서문

1536년판 표제, 장 목록, 프랑수아 1세에게 드리는 헌정 서문

CO 1:1–2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 기독교 강요. 경건의 요체 거의 전부와 구원의 교리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경건에 힘쓰는 모든 이가 읽기에 지극히 합당한 책으로, 새로 펴냈습니다.

프랑스의 지극히 그리스도인다우신 왕께 드리는 서문.[1] 이 서문과 함께 이 책을 신앙고백으로서 왕께 바칩니다.

지은이 누아용 사람 요한 칼빈.

바젤, 1536년.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의 장 목록.

1. 율법에 관하여. 십계명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2. 믿음에 관하여. 여기서 사도신경(사람들이 사도적이라고 부르는 신경)도 해설합니다.

3. 기도에 관하여. 여기서 주기도문도 풀이합니다.

4. 성례에 관하여. 여기서 세례와 주의 성찬을 다룹니다.

5. 지금까지 흔히 성례로 여겨져 온 나머지 다섯 가지가 성례가 아님을 밝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입니다.

6.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 통치에 관하여.

CO 9 지극히 강력하시고 지극히 고명하신 군주, 프랑스인의 지극히 그리스도인다우신 왕이시며 제가 받들어 섬겨야 할 군주요 주인이신 프랑수아

1. “지극히 그리스도인다우신 왕”(Rex Christianissimus)은 프랑스 왕이 대대로 지닌 공식 칭호입니다. 여기서는 프랑수아 1세(François I, 1494–1547, 재위 1515–1547)를 가리킵니다.

께, 요한 칼빈이 주 안에서 평강과 구원을 빕니다.

지극히 명성 높으신 왕이여, 제가 처음 이 일에 손을 댔을 때, 폐하께 바칠 글을 쓰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건(religion)에 얼마간 열심을 품은 이들을 참된 경건으로 빚어 줄 기초 몇 가지를 전해 주려는 뜻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하여 이 수고에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주 많은 이가 그리스도께 주리고 목말라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분을 아는 지식에 조금이라도 젖어 든 이는 아주 적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운 방침이었음은 책 자체가 말해 줍니다. 이 책은 단순하고 초보적인 가르침의 꼴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악한 자들의 광포가 폐하의 왕국에서 얼마나 세력을 떨쳤는지, 그곳에는 건전한 교리가 설 자리가 전혀 없음을 보았을 때, 저는 같은 수고로 두 가지를 하면 보람이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곧 제가 가르치기로 맡은 이들에게는 가르침을 주고, 폐하 앞에는 신앙고백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폐하께서는, 오늘 칼과 불로 폐하의 왕국을 어지럽히는 저 미친 자들이 그토록 광분하며 불타오르는 그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바로 그 교리의 요체를 거의 다 담았다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이 교리를 감옥과 추방과 재산 몰수와 화형으로 벌해야 하며 땅과 바다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외쳐 댑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의 주장을 폐하께 될 수 있는 대로 가증스럽게 만들려고 얼마나 흉악한 고발로 폐하의 귀와 마음을 채웠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너그러우심을 따라 이것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고발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말에서도 행위에서도 무죄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누가 미움을 사게 하려고, 제가 지금 폐하께 그 근거를 아뢰려 애쓰는 이 교리가 이미 오래전에 모든 신분의 표결로 정죄되었고 법정의

많은 예단으로 찔려 쓰러졌다고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는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곧 이 교리가 한편으로는 적대자들의 당파와 권력에 의해 폭력으로 내던져졌고, 한편으로는 거짓말과 술책과 중상으로 교활하고 기만적으로 짓눌렸다는 말일 뿐입니다. 변론도 듣지 않은 채 이 교리를 거슬러 피비린내 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 교리가 부당하게 반란과 악행의 누명을 쓰는 것은 기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부당하게 불평한다고 아무도 여기지 않도록, 지극히 고귀하신 왕이여, 폐하께서 친히 우리의 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교리가 날마다 폐하 앞에서 얼마나 거짓된 중상으로 비방받는지 폐하께서 아십니다. 곧 이 교리가 노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왕국과 나라가 뒤엎어지고, 평화가 어지럽혀지고, 모든 법이 폐지되고, 영지와 재산이 흩어지고, 마침내 모든 것이 위아래로 뒤집히는 것이라는 비방입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 들으시는 것은 아주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간에는 끔찍한 말들이 퍼져 있으니, 그 말이 참이라면 세상이 이 교리를 그 주창자들과 함께 천 번의 화형과 천 번의 십자가에 마땅하다고 판단해도 옳을 것입니다.

그 지극히 부당한 고발들을 사람들이 믿는 판에, 이 교리에 대한 공공의 미움이 불타오른 것을 이제 누가 이상히 여기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때문에 모든 신분이 우리와 우리 교리를 정죄하는 일에 한뜻이 되어 공모합니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은 집에서 가지고 온 예단을 판결로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백이나 확실한 증언으로 유죄가 입증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형벌로 끌고 가라고 명하지 않으니, 자기 소임을 올바로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죄로 말입니까? 저 정죄받은 교리의 죄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무슨 권리로 그 교리가 정죄되었습니까? CO 11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변호의 방패였습니다. 교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된 것으로 지키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는 중얼거릴 자유조차 끊겨 버립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무적이신 왕이여, 제가 폐하께

이 사건을 온전히 심리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혼란스럽게, 법의 절차라고는 전혀 없이, 정당한 신중함보다는 억누를 수 없는 열기로 다루어졌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변명을 꾀하여 그것으로 조국에 안전하게 돌아갈 길을 마련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국을 저는 마땅한 인정으로 그리워합니다만, 지금 형편으로는 조국을 떠나 있는 것이 그리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모든 경건한 이들의 공통된 사건, 아니 그리스도 자신의 사건을 끌어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폐하의 왕국에서 온갖 방법으로 찢기고 짓밟혀, 가망 없는 것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폐하께서 아셔서라기보다 어떤 바리새인들의 폭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분명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이만큼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진리는 쫓겨나 흩어져 멸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 묻혀서 이름 없이 숨어 있고, 가련한 작은 교회는 잔인한 학살로 없어지거나, 추방으로 쫓겨나거나, 위협과 공포로 얻어맞아 입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하던 대로 미친 듯 사납게, 이미 기울어진 벽과 자기들이 만든 폐허를 힘껏 밀어붙이며 지금도 몰아칩니다. 그러는 동안 이런 광포에 맞서 자기의 변호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도 나서지 않습니다. 진리를 누구보다 편든다고 보이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의 오류와 경솔함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확실한 진리를 오류와 경솔함이라 부르고, 주님께서 하늘 지혜의 비밀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신 이들을 무지한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모두가 이토록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존엄하신 왕이여, 폐하께서 하실 일은 이토록 정당한 변호에서 귀도 마음도 돌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토록 큰 일이 걸려 있으니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어떻게 상하지 않고 보존되

며,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그 존엄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느냐 하는 일입니다. 이는 폐하의 귀에 합당한 일이요, 폐하의 심리에 합당한 일이요, 폐하의 법정에 합당한 일입니다. 참된 왕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생각, 곧 자기가 왕국을 다스리는 데서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려고 다스리지 않는 자는 더는 왕국이 아니라 강도질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왕국이 오래 번영하리라고 기대하는 자는 속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흩어지리라"(잠 29)고 선포한 하늘의 신탁은 폐하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비천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폐하를 이 일에서 떼어 놓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천한 하찮은 사람들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죄인들이요,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멸시받는 자들,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세상의 찌꺼기와 쓰레기, 혹은 그보다 더 천하게 부를 수 있는 무엇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무 공로 없이 그 자비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조차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리는 세상의 모든 영광 위에 높이, 모든 권세 위에 무너지지 않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다스리셔서, 온 땅을 그 쇠와 놋의 힘과 금과 은의 광채와 함께 오직 당신 입의 막대기로 쳐서 질그릇처럼 부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분 나라의 위엄에 관해 그렇게 예언합니다(단 2, 사 11, 시 2).

적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내세운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장 악하게 변질시키는 자들이라고 반박하며 외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의에 찬 중상일 뿐 아니라 얼마나 두드러진 뻔뻔함인지는, 폐하께서 우리의 신앙고백을 읽으시면 폐하의 지혜로 친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폐하께서 그것을 읽으실 길을 닦아 드리려고 여기서도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예언이 믿음의 분수(analogia)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때(롬 12), 성경 해석을 검증해야 할 가장 확실한 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을 이 믿음의 규칙에 대어 본다면, 승리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능력을 벗은 자임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입혀 주심을 받고, 모든 선이 비어 있는 자임을 인정하여 그분께 채워 주심을 받고, 죄의 종임을 인정하여 그분께 해방을 받고, 눈먼 자임을 인정하여 그분께 비추심을 받고, 저는 자임을 인정하여 그분께 인도를 받고, 약한 자임을 인정하여 그분께 붙드심을 받으며, 우리에게서 자랑할 거리를 모두 거두어 오직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랑하는 것보다 믿음에 더 잘, 더 알맞게 맞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CO 13 우리가 이런 말과 이런 종류의 나머지 말을 하면, 그들은 말을 가로막고 외칩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인지 모를 눈먼 본성의 빛, 꾸며 낸 준비, 자유의지, 공로가 뒤엎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과 덕과 의와 지혜의 칭송과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에서 너무 많이 길었다고 책망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 곧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자들이 무겁게 꾸지람을 듣습니다(렘 2). 또 그리스도를 형제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자기에게 약속하는 것, 우리를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당신의 친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기까지 이르신 그분께 기쁘고 형통한 모든 것을 안심하고 기대하는 것, 그토록 큰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주어지셨다고 생각할 때 구원과 영생을 확실

히 기대하며 안식하는 것보다 믿음에 더 맞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은 우리에게 손을 대며, 그런 신뢰의 확실성은 오만과 주제넘음이 없지 않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부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빼앗기는 것도 다른 까닭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지극히 용맹하신 왕이여, 우리 사건의 모든 부분을 두루 살펴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수고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시지 않거든, 우리를 어떤 부류의 범죄자보다 더 악한 자로 여기십시오. 곧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요,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딤전 4)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쇠사슬에 묶이고, 어떤 이들은 매로 맞고, 어떤 이들은 조롱거리로 끌려다니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떤 이들은 지극히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어떤 이들은 도망하여 빠져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곤경에 짓눌리고, 끔찍한 저주로 저주받고, 욕설로 찢기며, 가장 부당한 방식으로 취급당합니다. 이제 우리의 적대자들을 보십시오(저는 제사꾼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의 고갯짓과 뜻을 따라 우리에게 적의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열심을 내어 움직이는지 저와 함께 잠시 헤아려 보십시오. 성경에 전해졌고 모든 사람 사이에 확고해야 했던 참된 경건을, 그들은 자기와 남이 모르고 소홀히 하고 업신여기도록 쉽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붙들든 붙들지 않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암묵적 믿음(fides implicita)으로 자기 생각을 교회의 판단에 굴복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신성 모독으로 더럽혀지는 일이 생겨도 그리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미사와 연옥과 순례와 그런 종류의 헛것들을 위하여 그토록 사납고 모질게 싸워, 그것들에 대한

지극히 명시적인 믿음(이렇게 말해도 된다면)이 없으면 경건이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배가 하나님이요 부엌이 종교이기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을 없애 버리면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기는커녕 사람조차 되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화롭게 배를 채우고 어떤 이들은 얇은 빵 부스러기로 연명하지만, 모두 같은 솥에서 먹고삽니다. 그 솥은 저런 불씨가 없으면 식을 뿐 아니라 아주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저마다 자기 배를 가장 염려하는 만큼 자기 믿음을 위해 가장 사납게 싸우는 투사가 됩니다. 요컨대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나라를 온전히 지키든지 자기 배를 가득 채워 두든지, 오직 이 일에 매달립니다. 참된 열심의 조그만 표시라도 보이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교리를 공격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미움받게 하거나 의심받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온갖 이름으로 고발하고 헐뜯습니다. 그들은 이 교리를 새것이요 근래에 태어난 것이라 부르고, 의심스럽고 불확실하다고 트집 잡습니다. 어떤 기적으로 이 교리가 확증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이 교리가 그토록 많은 거룩한 교부들의 일치와 가장 오래된 관습을 거슬러 이기는 것이 옳으냐고 따집니다. 이 교리가 교회를 거슬러 싸움을 일으키니 분열적인 것임을 우리더러 고백하라고, 아니면 이런 것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여러 세기 동안 교회가 죽어 있었다고 고백하라고 다그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많은 논증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교리가 어떤 것인지는 그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그토록 많은 분파 무더기와 그토록 많은 반란의 소동과 그토록 방종한 악행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잘 믿고 무지한 무리 앞에서 버림받은 사건을 조롱하기란 그들에게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말할 차례가 주어진다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 볼이 터지도록 거품을 뿜어 대는 이

독설은 틀림없이 식고 말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이 교리를 새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큰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CO 15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새것이라는 누명을 쓸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새롭고 복음도 새로운 그들에게야 이 교리가 새롭다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바울의 저 설교(롬 4)가 오래된 것임을 아는 이들은 우리에게서 새로운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고 묻혀 숨어 있었던 것은 사람의 불경건이 지은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교리가 우리에게 돌려졌으니, 적어도 귀환권(postliminium)에 따라 그 옛 지위를 되찾아야 마땅합니다.[2] 같은 무지의 샘에서 그들은 이 교리를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신 것이 참으로 이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당신의 백성은 당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사 1). 그러나 그들이 이 교리의 불확실성을 두고 아무리 희롱한다 하더라도, 만일 자기들의 교리를 자기 피와 목숨을 잃는 것으로 인 쳐야 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값지게 여기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도, 하나님의 심판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새 복음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지키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일찍이 행한 모든 기적이 그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나은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곧 그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기적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세우는 기적들은 다른 때 같으면 잘 가다듬어져 있을 마음조차 흔들어 놓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만

2. 귀환권(ius postliminii)은 로마법에서 적에게 잡혀갔던 사람이나 빼앗긴 물건이 돌아오면 이전의 권리와 지위를 되찾게 하는 원칙입니다.

큼 그것들은 시시하고 우스꽝스럽거나, 헛되고 거짓됩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들이 몹시 놀라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데는 아무 무게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적으로든 사물의 자연 질서로든 어디서나 언제나 거룩히 여겨져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사탄에게도 그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참된 능력이라기보다 속임수이지만, 그래도 경솔하고 무지한 자들을 속일 만한 것들입니다. 마술사와 주술사는 언제나 기적으로 이름을 떨쳤고, 놀라운 기적들이 우상 숭배를 길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들이 마술사들의 미신이나 우상 숭배자들의 미신을 우리에게 인정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옛날 도나투스파도 자기들이 기적에 능하다는 이 성 망치로 무리의 단순함을 들이쳤습니다.[3]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적대자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때 도나투스파에게 대답한 것과 같은 것을 대답합니다. 곧 주님께서는 큰 표적과 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자들까지 미혹에 빠뜨릴 거짓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때(마 24), 이런 기적꾼들을 조심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모든 능력과 거짓 표적과 이적으로 오리라고 경고했습니다(살후 2). 그러나 그들은, 이 기적들은 우상이나 마술사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성인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사탄의 술수임을 우리가 모르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 땅에 묻힌 예레미야를 제사와 그 밖의 신적 영예로 높였습니다.[4]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우상 숭배에 악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무덤 숭배로 뱀에 물린 데서 낫는 효험을 얻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3. 도나투스파(Donatistae)는 4–5세기 북아프리카에서 박해 때 배교한 성직자의 성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갈라져 나간 분파입니다.

4.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죽어 묻혔고 그 무덤이 뱀에 물린 데 효험이 있다고 여겨졌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라 후대의 전승(위 에피파니우스, 『선지자들의 생애』 등)에 나옵니다.

것(살후 2),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운 보응이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리라는 것 말고 우리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적이 결코 모자라지 않으며, 그것도 확실하고 트집 잡힐 데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내세우는 것은 순전한 사탄의 환각입니다. 그것들은 백성을 그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에서 헛된 것으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그들은 중상하는 마음으로 교부들(저는 옛 저술가들, 아직은 더 나은 시대의 저술가들을 뜻합니다)을 우리에게 맞세웁니다. 마치 교부들이 자기들의 불경건을 지지해 주는 이들이기라도 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부들의 권위로 이 싸움을 판가름해야 한다면, 승리의 더 나은 몫은 우리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저 교부들은 많은 것을 훌륭하고 지혜롭게 썼지만, 어떤 것들에서는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아들들은, 과연 그들다운 재주와 판단과 마음의 솜씨로, 교부들의 실수와 오류만을 떠받듭니다. 잘 말한 것은 보지 않거나, 못 본 체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러니 금 속에서 똥을 줍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교부들을 멸시하는 자요 교부들의 적대자라고 부르며 뻔뻔한 고함으로 우리를 덮어씌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부들을 멸시하기는커녕, 그것이 지금 제 목적에 속한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의 더 나은 부분을 그들 자신의 지지로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저술을 다루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어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고전 3)을 늘 기억합니다. CO 17 그리스도께는 모든 일에서 예외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이 분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경건에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저 거룩한 사람들도 많은 것을 몰랐고, 자주 서로 부딪쳤으며, 때로는 자기 자신과도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이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고한 것(잠 22)은 까닭이 없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밭의 경계에 대한 규칙과 믿음의 순종에 대한 규칙은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시 45)는 말씀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풍유로 풀기를 좋아한다면, 어째서 다른 어떤 교부들보다 사도들을, 그들이 정해 놓은 경계를 뽑아 버리는 것이 불법인 그 조상들로 풀이하지 않습니까? 히에로니무스가 그렇게 풀이했고, 그들도 그의 말을 자기네 교회법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상들의 경계를 고정된 것으로 삼고자 한다면, 어째서 그들 자신은 마음 내킬 때마다 그토록 방자하게 그 경계를 넘어갑니까?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므로 잔도 접시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5] 다른 한 사람은 거룩한 일은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므로 금을 구하지도 않고 금으로 기쁨을 얻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6]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네 거룩한 예식에서 금과 은과 상아와 대리석과 보석과 비단을 그토록 즐거워하며, 모든 것이 사치로 넘쳐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로 예배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들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고기를 삼가던 날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다고 말한 이도 교부였습니다.[7] 그러므로 그들이 사순절 동안 고기를 맛본 영혼을 끔찍한 저주로 저주할 때, 그들은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제 손으로 일하지 않는 수도사는 강도와 같다고 판단된다고 말했고,[8] 다른 한 사람은 수도사들이 관상과 기도와 학업에 아무리 부지런하다 하더라도

5. 아미다의 감독 아카키우스(Acacius)의 말로, 『삼부사』(Historia tripartita) 11권 16장에 전합니다.
6. 암브로시우스, 『성직자의 직무에 관하여』(De officiis) 2권 28장의 말입니다.
7. 키프로스의 감독 스피리돈(Spyridon)의 이야기로, 『삼부사』 1권 10장에 전합니다.
8. 『삼부사』 8권 1장에 전하는 이집트 수도사들의 말입니다.

남의 것으로 먹고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9] 그런데 그들은 남의 재산으로 배를 불리는 수도사들의 게으른 배를 소굴과 사창가에 앉혀 놓았을 때 이 경계도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당에서 형상을 보는 것은 끔찍한 가증한 일이라고 말한 이도 교부였습니다.[10] 그런데 그들은 형상이 없는 구석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니, 이 경계 안에 머물기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또 다른 교부는 장례에서 죽은 이들에게 인정의 도리를 다한 뒤에는 그들을 쉬게 두라고 권했습니다.[11] 그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 끝없이 근심하게 만들 때, 이 경계를 깨뜨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성찬의 성례 안에 참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몸의 신비가 있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12]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실재적이고 실체적인 것으로 만들 때, 그들은 한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한 가지 형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한 가지를 삼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데서 아주 물리쳐야 한다고 정했습니다.[13]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백성이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 자기 피를 흘리도록 명령받는데, 그들에게 그 주님의 피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힘써 주장합니다.[14] 그들이 앞의 교부는 출교로 벌했고 뒤의 교부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물리쳤던 바로 그것을 범할 수 없는 법으로 명령했을 때, 이 경계들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분명하고 명백한 증언 없이 모호한 문제를 어느

9.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의 노동에 관하여』(De opere monachorum)의 가르침입니다.
10. 키프로스의 감독 에피파니우스(Epiphanius, 315경–403)가 예루살렘의 요한에게 보낸 편지로,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옮겼습니다(CO 편집자 각주).
11. 암브로시우스, 『아브라함에 관하여』(De Abraham) 1권 9장의 말입니다.
12. 크리소스토무스의 저술 가운데 실려 전하는 『마태복음 미완성 주해』(Opus imperfectum in Matthaeum) 11번째 설교입니다(CO 편집자 각주).
13. 교황 겔라시우스 1세(Gelasius I, 재위 492–496)입니다.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의 "Comperimus" 조항(De consecratione, 2구분)에 실려 있습니다(CO 편집자 각주).
14. 키프리아누스의 서신(1권 서신 2)과 『배교자들에 관하여』(De lapsis)입니다(CO 편집자 각주).

쪽으로든 정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고 주장한 이도 교부였습니다.[15]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토록 많은 법령과 그토록 많은 교회법과 그토록 많은 교권적 결정을 세웠을 때, 이 경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몬타누스를 다른 이단들과 함께 그가 처음으로 금식의 법을 부과했다고 책망한 이도 교부였습니다.[16] 그들이 가장 엄격한 법으로 금식을 정했을 때, 이 경계도 훨씬 넘어간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결혼을 금해서는 안 된다고 부인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자는 것을 정결이라고 선언한 이도 교부였고, 그의 권위에 동의한 이들도 교부들이었습니다.[17] 그들이 자기네 사제들에게 독신을 부과했을 때, 이 경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도 교부였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보다 앞서 다른 이들이 무엇을 말했거나 행했는지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모든 이보다 첫째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18] CO 19 그런데 그들은 이 경계를 자기들에게도 정하지 않고, 남에게 정해지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선생들을 자기와 남 위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부가 한마음으로 저주하고 한입으로 혐오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궤변가들의 교묘한 논법으로 더럽혀지고 변증가들의 말다툼에 얽혀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끝없는 논쟁과 궤변보다 더한 말싸움으로 성경의 단순함을 뒤덮고 가로막기만 하니, 그 경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교부들이 다시 살아나 이런 말싸움의 기술(그들은 이것을 사변 신학이라 부릅니다)을 듣는다면,

15.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CO 편집자 각주는 『신약의 은혜에 관하여』 마지막 장을 듭니다.
16. 아폴로니우스(Apollonius)입니다. 에우세비우스, 『교회사』 5권 18장에 전합니다(CO 편집자 각주). 몬타누스(Montanus)는 2세기 소아시아에서 새 예언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17.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발언한 이집트의 감독 파프누티우스(Paphnutius)입니다. 『삼부사』 2권 14장에 전합니다(CO 편집자 각주).
18. 키프리아누스의 서신(2권 서신 3)입니다(CO 편집자 각주).

하나님에 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교부들의 멍에를 얼마나 방자하게 벗어 던지는지(그들은 교부들의 순종하는 아들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하나 들추어내려 한다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길게 퍼져 나가겠습니까? 틀림없이 몇 달, 몇 해가 걸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뻔뻔함은 어찌나 타락하고 구제할 길이 없는지, 우리가 옛 경계를 넘어간다고 감히 우리를 꾸짖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관습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관습에 굴복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판단이 올바르다면, 관습은 선한 이들에게서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자주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관습의 권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 다수가 더 나은 것을 좋아할 만큼 잘되어 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개인적인 악덕에서 대개 공공의 오류가 생겨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악덕들의 공통된 합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분들은 지금 그것이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 있는 사람은 봅니다. 악의 바다 하나만 범람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역병이 여럿 세상을 덮쳤고, 모든 것이 곤두박질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일을 아예 단념해야 하든지, 아니면 이토록 큰 악에 손을 대야 하고, 아니 오히려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치료책을 쫓아내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악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공공의 오류가 자리를 차지해도 좋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그분의 영원한 진리만을 듣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세월의 연속도, 어떤 관습도, 어떤 공모도 그 진리를 거슬러 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도 옛날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사 8). 백성이 "반역"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두고 너희는 "반역"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 백성의 공모와 합의에 너희도 함께 공모하지 말며, 백

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고, 오히려 만군의 주를 거룩하다 하며 그분을 너희의 두려움과 너희의 놀람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지나간 세대든 지금의 본보기든 마음대로 우리에게 들이대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만군의 주를 거룩하다 하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세대가 비슷한 불경건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삼사 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은 강하십니다. 온 세상이 한꺼번에 같은 악에 공모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무리와 함께 죄짓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경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온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를 그 작은 가족과 함께 살려 두셨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창 7, 히 11). 노아는 자기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요컨대 악한 관습은 공공의 역병과 다를 바 없으니, 그 속에서는 무리 가운데 쓰러지는 자들도 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양도 논법으로 우리를 다그쳐서, 교회가 한동안 죽어 있었다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교회와 다투고 있다고 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고백하게 할 만큼 우리를 세게 몰아붙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참으로 살아 왔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오른편에서 다스리시는 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손에 붙들리고, 그분의 보호로 무장되며,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그분께서는 한번 맡으신 일, 곧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을 의심 없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28).[19] 우리는 지금 교회와 아무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자의 백성과 한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께서 언제나 모든 경건한 이들에게 경배받으셨던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눈앞에서 보이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결코 갇혀 있지 않은 경계 안에 교회를 가두려 애쓰니, 진리에서 적지 않게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의 논쟁은 이런

19. 원문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Matth. ult.)이라고 적었습니다.

돌쩌귀 위에서 돌아갑니다. 첫째, 그들은 교회의 형태가 언제나 드러나 보이며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그 형태 자체를 로마 교회의 좌(座)와 고위 성직자들의 서열에 둡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주장합니다. 교회는 아무 드러난 형태 없이도 존속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그들이 어리석게 감탄하는 저 외적인 광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표지, CO 21 곧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설교와 성례의 합당한 시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언제나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일 수 없으면 펄펄 뜁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 가운데서도 교회가 얼마나 자주 일그러져 아무 모습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탄식했을 때(왕상 19) 어떤 형태가 빛났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 교회는 얼마나 오랫동안 볼품없이 숨어 있었습니까? 그때 이후로도 교회는 얼마나 자주 전쟁과 반란과 이단에 짓눌려 어느 부분도 빛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이 보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뒤로 언제나 땅에서 다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경건한 이들이 눈으로 무슨 두드러진 형태를 찾았더라면, 곧바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은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오직 그분만이 누가 당신의 백성인지 아시므로(딤후 2), 그분께서는 때로 당신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사람들의 눈에서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고백하거니와, 그것은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경건이 그것을 받아 마땅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공의에 맞서려 애쓰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 이렇게 사람들의 배은망덕을 갚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진리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고 그분의 빛을 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이 눈이 어두워진 채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놀아나고 깊은

어둠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교회의 얼굴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분께서는 오류와 어둠 한가운데서 흩어지고 숨어 있는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바벨론의 혼란 속에서도, 타오르는 풀무 불꽃 속에서도 보존하실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형태를 무엇인지 모를 헛된 겉치레로 판단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는 말을 한없이 늘이지 않도록 자세히 늘어놓기보다 몇 마디로 가리켜 보이겠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좌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 교황과 다른 감독들이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회의 목자들이요 주님께 성별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도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미 제사장으로 지명되었는데도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오류를 범했습니다(출 31, 32). 이런 논리를 따르면, 아합에게 거짓말을 한 저 사백 명의 선지자들(왕상 22)이 교회를 대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미가야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였고 멸시받았지만, 그의 입에서 진리가 나왔습니다.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예레미야를 거슬러 일어나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질 리 없다"(렘 18)고 위협했을 때, 그들도 교회의 이름과 얼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홀로 선지자 무리 전체를 거슬러 보냄을 받아,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일 의논을 하려고 모은 그 공회(요 11)에도 그런 광채가 빛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은 가서 외적인 탈에 매달려, 그리스도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분열주의자로 만들고, 사탄의 일꾼들을 성령의 도구로 만들어 보라고 하

십시오.

그들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정직하게 제게 대답해 보십시오. 바젤 공의회의 결정으로 에우게니우스가 쫓겨나 교황직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아마데우스가 세워진 뒤로, 그들은 교회가 세상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20] 그들은 배가 터진다 해도, 그 공의회가 외적 예식에 관한 한 합법적이었고, 교황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소집한 것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에우게니우스는 그와 함께 공의회 해산을 꾀했던 추기경과 감독의 무리 전체와 더불어 분열과 반역과 완고함의 죄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군주들의 호의에 힘입어 교황직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총회요 지극히 거룩한 공의회의 권위로 정식으로 치러진 아마데우스의 저 선출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 자신은, 짖는 개에게 먹이 한 조각을 던져 주듯이, 추기경 모자를 받고 달래졌을 뿐입니다. 그 뒤에 있었던 교황, 추기경, 감독, 수도원장, 사제는 모두 저 이단자들, 반역자들, 완고한 자들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붙잡혀 꼼짝 못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어느 쪽에 돌리겠습니까? 외적 위엄에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던 그 공의회를 총회가 아니었다고 부인하겠습니까? 그 공의회는 두 칙서로 엄숙하게 소집되었고, 로마 교황청의 사절이 사회를 맡아 성별되었으며,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잘 짜였고, CO 23 끝까지 같은 위엄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에우게니우스를 그 무리 전체와 함께 분열주의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그 무리에게서 성별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의 형태를 달리 정의하든지, 아니면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분열주의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자원하여 이단자들에게서 서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외적인 겉치레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전에 전혀 밝혀지지

20. 교황 에우게니우스 4세(Eugenius IV, 재위 1431–1447)는 바젤 공의회(1431–1449)와 대립하다가 1439년 공의회에서 폐위 선언을 받았습니다. 공의회는 사보이아 공작 아마데우스 8세(Amadeus VIII)를 교황 펠릭스 5세로 세웠으나, 그는 1449년 물러나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이 우리에게 넉넉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그럴듯한 칭호 아래 그토록 오랫동안 거만하게 자기를 세상에 팔아 왔지만, 실은 교회의 치명적인 역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온 생애에 가득한 행실과 저 비극적인 악행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말은 들어야 하되 본받지는 말아야 할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교리, 곧 그들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 덕분이라고 말하는 교리가 영혼들을 죽이는 도살장이요, 교회에 불을 지르는 횃불이요, 교회의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을, 폐하께서 여가를 조금 떼어 우리의 글을 읽으신다면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우리 교리의 설교가 얼마나 큰 소란과 소동과 다툼을 몰고 왔는지, 또 지금 많은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악의적으로 늘어놓을 때 그리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의 책임은 사탄의 악의에 돌려져야 했는데, 부당하게도 이 교리에 떠넘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를테면 타고난 성질 같은 것이 있으니, 사탄이 잠잠히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결코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표지입니다. 이 표지로 말씀은 거짓 교리들과 구별됩니다. 거짓 교리들은 모든 사람의 호의적인 귀에 받아들여지고 박수 치는 세상에게 환영받는 데서 쉽게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던 여러 세대 동안, 사람들은 이 세상 주인의 장난감이요 놀잇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떤 사르다나팔루스처럼 깊은 평화 가운데 빈둥거리며 향락을 누렸습니다.[21] 자기 나라를 평온하고 평화롭게 차지하고 있었으니, 웃고 노는 것 말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위에서 비치는 빛이 그의 어둠을 얼마간 흩뜨렸을 때, 저 더 강한 자가 그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쳤을 때, 그제야 그는 늘 빠져 있던 무기력을 떨치고 무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의 손을 부추겨, 그 손으로 밝아 오는

21. 사르다나팔루스(Sardanapalus)는 그리스 전승에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지내다 나라를 잃은 앗시리아의 마지막 왕으로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진리를 폭력으로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것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자 그는 간계로 돌아섰습니다. 자기의 재세례파와 다른 괴물 같은 불량배들을 통해 분열과 교리 다툼을 일으켜, 그것으로 진리를 흐리게 하고 마침내 꺼버리려 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두 가지 공성 무기로 진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그는 한편으로 저 참된 씨를 사람들의 힘과 손으로 뽑아 버리려 하고, 한편으로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가라지로 그 씨를 질식시켜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모든 일은 헛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방심한 틈에 붙잡지 못하도록 그의 술책을 오래전에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그의 모든 공격 무기에 맞서 넉넉히 굳은 방비로 우리를 무장시키셨습니다. 더욱이 악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반란이나 사기꾼들이 진리를 거슬러 일으키는 분파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덮어씌우는 것은 얼마나 큰 악의입니까? 그러나 이는 새로운 본보기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가 아니냐는 물음을 받았습니다(왕상 18).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눅 23, 요 19). 사도들에게는 민중 소요의 죄가 씌워졌습니다(행 24). 오늘 우리를 거슬러 끓어오르는 모든 소란과 소동과 다툼을 우리에게 돌리는 자들이 하는 일이 이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는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류를 퍼뜨리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맞서 싸우는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로 그들의 무모함을 꺾기에 충분하듯이,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의 연약함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 걸림돌에 흔들리고 어지러워져 비틀거리는 일이 그들에게 드물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어지러움으로 흔들려 제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겪는 바로 그 일들을 사도들도 자기 시대에 겪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듯이(벧후 3),[22]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을 억지로 풀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롬 6) 고 끼어들었습니다. 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자"(롬 6:15)고 떠들었습니다.[23] 바울을 악을 권하는 자라고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롬 3:8).[24] 많은 거짓 사도가 몰래 들어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고후 11, 갈 1).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악의를 품었습니다(빌 1). CO 25 어떤 곳에서는 복음이 그리 많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뒤로 물러가,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에 뒹굴러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의 자유를 육신의 방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빌 2, 벧후 2). 많은 거짓 형제가 슬그머니 끼어들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경건한 이들에게 위험이 닥쳤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여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토록 많은 분쟁의 온상이요 그토록 많은 위험의 거리요 그토록 많은 걸림의 계기가 된다고 보이는 그 복음을, 한동안 감추어 두거나 아예 내버리고 떠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곤경에서 그들에게 힘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시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사 8, 롬 9, 눅 2, 벧전 2). 그들은 이 확신으로 무장하여 소동과 걸림의 온갖

22. 원문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2 Petr. ult.)이라고 적었습니다.
23. 원문은 "로마서 3장"(Rom. 3)으로 적었으나, 인용한 말은 롬 6:15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24. 원문은 "고린도전서 1장"(1 Cor. 1)으로 적었으나, 바울이 "악을 행하자"고 한다는 비방은 롬 3:8에 나오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위험을 뚫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힘을 얻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증언하듯이,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이 복음에 늘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고후 2).

그러나 너그러우신 왕이여, 이제 폐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적대자들이 폐하께 두려움을 불어넣으려고 애쓰는 저 헛된 고발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새 복음(그들이 그렇게 부릅니다)으로 노리고 구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반란의 기회와 온갖 악덕을 벌받지 않고 저지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죄를 섬기는 분이 아니시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고전 14, 갈 2, 요일 3). 우리는 그런 욕심을 품었다고 부당하게 고발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조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왕국을 뒤엎으려 꾀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는 당파적인 목소리가 한 번도 들린 적이 없고, 우리가 폐하 아래 살 때 우리의 삶은 늘 조용하고 소박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집에서 쫓겨난 신세인데도 우리는 폐하와 폐하의 왕국을 위해 모든 형통을 비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벌받지 않는 방자한 악덕을 노린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실에 책망받을 것이 많을 수 있지만, 이런 박해를 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그리 불행하게 나아가지 않았으니, 우리의 삶이 이 비방자들에게 정결과 친절과 자비와 절제와 인내와 겸손과 그 밖의 모든 덕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 자체가 증언합니다. 우리는 삶으로도 죽음으로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조차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 무죄와 시민으로서의 올곧음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죽음으로 벌받은 바로 그 한 가지는 오히려 특별한 칭찬을 받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복음을 핑계로 소동을 일으킨다면(폐하의 왕국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자가 있다고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은혜의 자유를 자기 악덕의 방종에 대한 핑계로 삼는다면(저는 그런 자를 아주 많이 압니다), 법이 있고 법의 형벌이 있으니, 그것으로 그들을 그 죄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면 됩니다. 다만 그러는 동안 악한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욕을 먹지 않게만 하십시오. 지극히 위대하신 왕이여, 폐하께서는 중상자들의 독기 어린 불의를 넉넉히 많은 말로 들으셨습니다. 이는 폐하께서 그들의 고발에 지나치게 잘 믿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나 두렵습니다.

이 서문이 이미 거의 온전한 변증의 분량에 이르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서문으로 변호를 엮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건의 변론 자체를 들으시도록 폐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애썼을 뿐입니다. 폐하의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서 돌아서고 멀어져 있으며, 덧붙이자면 노여움에 불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폐하 앞에서 변호로 삼고자 하는 이 우리의 신앙고백을 폐하께서 한 번만이라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읽어 주신다면, 우리는 폐하의 호의를 다시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악의 품은 자들의 속삭임이 폐하의 귀를 차지하여 피고들이 자기를 위해 말할 자리가 전혀 없고, 저 포악한 광포가 폐하의 묵인 아래 쇠사슬과 채찍과 고문대와 칼질과 화형으로 늘 사납게 날뛴다면, 우리는 도살할 양처럼 온갖 극한에 내몰릴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으며(눅 21), 주님의 강한 손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손은 때가 되면 의심 없이 나타나 무장한 채 드러날 것이니, 가난한 자들을 고난에서 건지시고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용맹하시고 지극히 고명하신 왕이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폐하의 보좌를 의로, 폐하의 왕좌를 공평으로 굳게 세우시기를 빕니다. 바젤, 9월 초하루 전 열째 날.[25]

25. 로마식 날짜 "X Calendas Septembres"는 8월 23일입니다. 이 서문은 1535년에 쓴 것입니다.

1536년판 · 제1장 율법에 관하여(십계명 해설)

1536년판 제1장 율법에 관하여(십계명 해설) 1

CO 1:25–4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25 기독교 강요. 요한 칼빈 지음.

율법에 관하여. 십계명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리의 요체는 거의 이 두 부분,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러합니다. 첫째, 우리는 굳은 믿음으로 이것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분 자신이 무한한 지혜, 의, 선하심, 자비, 진리, 능력, 생명이시므로, 그 밖에 다른 지혜, 의, 선하심, 자비, 진리, 능력, 생명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바룩서 3; 약 1).[26] 그리고 어디서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은 모두 그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잠 16). 다음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시 148; 단 3).[27] 그러므로 만물이 저마다 그 본성의 이치에 따라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위엄을 우러르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주님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마땅히 그분께 돌려야 할 일입니다(롬 1). 셋째,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므로, 당신의 규정에서 벗어난 자들, 모든 일에서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들, 당신의 영광에 속한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자들에게 엄하게 보응하실 것입니다(시 7; 롬 2). 넷째, 그분은 자비롭고 온유하신 분이어서, 당신의 관용으로 피하고

26. 바룩서는 개역한글판에 들어 있지 않은 외경입니다.

27. 다니엘 3장의 이 대목은 라틴어 성경(불가타) 다니엘서 3장에 들어 있는 “세 젊은이의 노래”(개역한글판에는 없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너그러이 받아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 그분께 용서를 구하면 너그러이 봐주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누구든 그분의 도움을 간청하면 구조하고 도움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누구든 모든 신뢰를 그분께 두고 박아 두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시 103; 사 55; 시 25, 85).

우리 자신을 확실히 알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창 1). 곧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갖추었고, 이 은혜의 선물들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이 본성의 온전함에 서 있었다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에 빠지자(창 3),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은 지워지고 말살되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모든 좋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갈라져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지혜와 의와 능력과 생명을 벗겨지고 빼앗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들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지와 불의와 무능과 죽음과 심판뿐이었습니다(롬 5).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이 재앙은 그 사람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씨요 후손인 우리에게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서 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며, 비뚤어지고 부패하였고, 모든 선이 없습니다. 특히 마음은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악한 욕망으로 가득하여 그것에 매여 있으며, 하나님을 거슬러 고집을 부립니다(렘 17). 우리가 때로 겉으로 무언가 선한 것을 내보이더라도, 속마음의 성향은 여전히 그 더러움과 굽은 비뚤어짐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바로 이것이 첫째가는 것, 아니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바깥의 광채를 대단히 여기지 않으시며, 마음의 은밀한 것을 보

시기 때문입니다(삼상 16; 렘 17).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빛나는 거룩함의 겉모양을 지녔더라도, 그것은 위선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기까지 합니다. 그 밑에는 언제나 악하고 부패한 마음의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능력에 있지 않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낼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여전히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그분의 영예와 영광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자면 파산한 채무자처럼 갚을 능력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CO 29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를 묶어 두어 무엇이든 선하게 하기를 원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게 하는 우리 죄의 탓이기 때문입니다(요 8; 롬).[28]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의롭게 보응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본분에 속한 일을 하기를 원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고, 우리가 모두 죽음과 멸망으로 곤두박질쳐 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엡 2; 롬 3).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서 자기의 의, 능력, 생명, 구원을 찾을 까닭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만 있고, 사람은 자기 죄로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갈라졌으므로(호 13), 자기 안에서는 불행과 연약함과 불의와 죽음과 마침내 지옥 자체밖에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고 말하자면 찍어 두셨습니다(롬 2). 이것은 다름 아니라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증언하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 앞에 내놓으며, 그리하여

28. 원문에는 “Rom.” 만 있고 장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알 때 우리를 고발하고 죄인으로 붙잡아 둡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교만과 야망으로 부풀어 있고 자기 사랑으로 눈이 멀어서, 자기를 꿰뚫어 보지도, 말하자면 자기 속으로 내려가 자기를 낮추고 굽히며 자기의 비참함을 고백하기를 배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의에 관하여, 곧 그 의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고 어떤 조목들로 완성되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박혀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고 행하고 말하든지 그분 말고 다른 데를 향하거나 겨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의의 가르침은 우리가 바른 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율법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모든 약속과 저주도 여기를 겨냥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누구든 당신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행위로 완전하고 빈틈없이 이루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상을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레 18). 이로써 그분은, 율법에서 가르치는 삶의 완전함이 참으로 의이며, 당신 앞에서 그렇게 여겨지고, 만일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상을 받을 만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다른 한편, 율법의 모든 의를 온전히, 아무 예외 없이 지키지 않은 모든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알리십니다(신 27; 갈 3). 이 형벌로 그분은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을 묶어 두십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이루도록 매여 있고 말하자면 빚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빈틈없이 해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도 없는지를 보여 주면서(롬 3, 7), 우리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보고 살필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거울에서 얼굴의 때와 얼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율법은 본디 자연법의 증언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을 자주 일깨우고, 자연법이 안에서

가르칠 때 우리가 넉넉히 배우지 못했던 것을 거듭 새겨 줍니다. 이제 율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곧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요 아버지이시라는 것, 이런 까닭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과 영예와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모두 저주와 심판과 마침내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행위의 의가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사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빚진 것을 갚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에 달려 있지 않으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과 굽힘으로 내려가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온유하고 용서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에 관하여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약 4; 벧전 5). 첫째, 우리가 신뢰를 품고 그분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빌며 용서를 구하면, 그분께서는 의심 없이 그것을 베푸시고, 우리 죄가 받아 마땅했던 모든 것을 사하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받아 주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보호로 무장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그분의 도움과 손길을 간구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원하게 하는 새 마음(겔 36)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행할 힘을 갖게 하는 새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한 하나님이시면서도(요 1)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 우리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결합시키려 하심이었습니다(사 53). 그분은 또한 당신의 죽음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빚을 갚으셨고, 우리가 매여 있던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죄의 형벌을 당신의 몸에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 형벌에서 우리를 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엡 2; 골 1). 그분은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의 모든 복의 풍성함을 함께 가져오셔서, 그것을 넉넉한 손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요 1, 7; 롬 8). 그것은 곧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하고, 마귀의 권세와 사슬에서 풀려나며,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음을 받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을 몸에 매여 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악한 욕망과 육의 소욕과 우리 본성의 뒤틀리고 부패한 비뚤어짐이 낳는 모든 것이 죽어 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의를 위하여 삽니다.

이 모든 것, 곧 값없는 죄 사함,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목, 성령의 선물과 은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주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그것을 껴안고 받아들이되, 큰 신뢰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고 말하자면 몸을 맡기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진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롬 3, 5). CO 31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성령의 선물을 그분 안에서 소유합니다. 이것은 오직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선이 그분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정할 때입니다(요 1; 롬 8).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몫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하든 꾀하든, 결국 멸망과 혼란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구원에 대한 모든 기대에서 끊어집니다(요 3; 요일 5).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궁핍과 재앙을 아는 이 지식,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그분의 자비를 구하도록 배우게 하는 지식(렘 31)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선하심과 자비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꾸미지 않은 회개로 우리 자신을 아는 저 지식으로, 굳은 믿음으로 당신의 온유하심과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시는 자애를 아는 이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인도자로 삼아 우리가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빌 1; 요 14; 롬 5). 율법의 열 계명은 두 돌판에 나뉘어 있었습니다(출 32, 34; 신 10). 첫째 돌판은 앞의 네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배웁니다. 곧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무엇보다, 모든 것보다 앞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며, 그분 한 분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힘을 두고, 언제나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돌판은 나머지 여섯 계명을 담고 있으며, 그것들로 사랑과, 하나님 때문에 이웃에게 행해야 할 사랑의 의무가 풀이됩니다. 이런 이치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대로) 율법 전체를 두 강령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전체가 저 두 강령에 담겨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핑계의 구실을 모조리 없애시려고, 당신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에 속한 모든 것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품으라고 명하시는 사랑에 속한 것을 열 계명으로 더 자세하고 더 분명하게 풀어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령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서두를 꺼내십니다(출 20; 신 5).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으로 그분은 당신이 명령할 권리를 지니시고 순종받으셔야 할 주님이심을 일깨우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에서 자유로 건져 내셨을 때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얼마나 장엄하게

드러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같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택하신 자들, 곧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표상되는 죄의 종노릇에서 건져 내시고, 영적인 바로요 애굽 사람들, 곧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의 주인인 마귀의 사슬에서 끌어내실 때입니다. 그다음에 첫째 계명을 이런 꼴로 덧붙이십니다.

첫째 계명.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계명으로 우리는, 전부 그분께 두어야 할 신뢰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 도움을 구하러 다른 데로 피하는 것, 오직 그분께만 속해야 할 모든 선과 능력의 찬양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금지당합니다(사 30, 31; 렘 2).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무엇보다 경외하고 사랑하여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신뢰를 그분께 박아 두어야 합니다(딤전 1; 신 6, 10).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무엇이든 그분에게서 온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공경받고 섬김받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고전 10). 혀와 몸짓과 모든 바깥 표시로 그분 말고 다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생각으로도, 온 마음과 온 열심으로도 그런 사람임을 보여야 합니다. 그분 앞에는 우리의 말과 바깥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과 속생각이 우리 자신에게보다 그분께 더 잘, 더 확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대상 28).

둘째 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은 모든 예배와 경배가 한 분 하나님께만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헤아릴 수 없고 형체가 없으며 보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

되 어떤 장소에도 갇히실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거나 어떤 형상으로 그려 낼 수 있다고 꿈꾸지 말고, 우상을 마치 하나님의 모양인 양 숭배하지 말며,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신 6, 10; 왕상 8; 요 1; 딤전 1; 요 4). 그러므로 첫째 계명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말고는 다른 신들을 생각하거나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계명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예배로 공경받으셔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께 무엇을 잘못 덧씌우거나, 그분을 우리의 감각 아래 두어 마치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양, 혹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양 여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CO 33 여러 세기 동안 참된 경건(religion)을 물에 잠기게 하고 뒤엎었던 저주받을 우상 숭배를 가련한 구실로 변호하려는 자들은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형상은 신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생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나무나 돌과는 다른 것임을 깨닫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형상을 바꾸었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같은 신들을 붙들고 있었고, 한 신에게 바친 형상이 많았어도 형상 수만큼 신들을 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새 형상을 봉헌했지만 그렇다고 새 신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 숭배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허망함이 지어낸 그대로의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허망함에 악함이 더해졌습니다. 속으로 지어낸 그대로 바깥에 새겨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런 형상 아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한 분 참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비록 거짓 신들이지만 하늘에 산다고 지어낸 자기 신들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면 자기들 곁에 계신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눈먼 욕망을 따르려고 그들은 표지들을 세웠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육신의 눈앞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자, 그 안에서 그분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마음과 눈을 온통 거기에 붙박은 채 더욱 우둔해지기 시작했고, 마치 거기에 무슨 신성이 깃들어 있기라도 한 듯이 넋을 잃고 감탄했습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들은 그것들 앞에 엎드립니까? 왜 기도하려 할 때 마치 하나님의 귀를 향하듯 그것들을 향합니까? 왜 마치 제단과 화덕을 지키듯 그것들을 위해 살육과 학살에 이르기까지 칼을 맞대어, 자기 우상을 빼앗기기보다 한 분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을 더 쉽게 참을 만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 거의 끝없이 많아서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무지한 백성의 조잡한 오류들을 열거하지도 않고, 다만 그들이 우상 숭배의 혐의를 가장 벗으려 할 때 스스로 내세우는 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다만 표지요 신들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과 성경 전체는 그들이 나무와 돌과 음행한다고 꾸짖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날마다 행하는 바로 그 일, 곧 나무와 돌 속에서 하나님을 육적으로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신 32; 사 40; 렘 2; 겔 6; 합 2). 마지막 빠져나갈 구멍은, 형상이 무식한 자들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헛된 말입니다. 형상이 숭배받는 것 말고 다른 쓰임을 위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특히 하나님을 그려 내려는 형상이 무식한 자들에게 무슨 열매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신인동형론자로 만드는 것 말고는 말

입니다. 그들이 성인들에게 세우는 형상은 지극히 타락한 사치와 음란의 본보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본떠 자기를 빚으려 한다면 몽둥이찜질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참으로 창녀촌이 보여 주는 창녀들도, 그들이 동정녀들의 형상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것을 예배당이 보여 주는 것보다 더 정숙하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 형상을 적어도 조금이나마 부끄러움을 아는 쪽으로 꾸며서, 그것이 무슨 거룩함의 책이라고 좀 더 염치 있게 거짓말하게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며, 주님께서는 이런 허튼 장난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그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셨고, 당신 말씀의 설교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가르침으로 내놓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자주 새겨 주었더라면, 나무와 돌, 심지어 은과 금으로 그토록 많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한 말씀에서 나무나 돌로 된 천 개의 십자가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된 십자가에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보다도 마음과 눈을 더 끈질기게 박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묻건대 그들이 무식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배운 자들(theodidactos)로 인정하시는 이들입니다(요 6).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보상으로도 메울 수 없는, 형상의 비길 데 없는 유익입니다! 그분은 모든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얼마나 무겁게 미워하시는지를 더 뚜렷이 드러내시려고 이 두 계명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강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당신의 이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에게 갚아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분은 당신 한 분뿐이시며, 당신은 짝을 견디지 못하시고, 누구든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새긴 우상이나 다른 것들에게 옮기면 그것을 보응하실 것이며,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에게, 곧 어느 때에나 그렇게 하실 것이고, 마찬가지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자비와 인자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 너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뜻은 이렇습니다. CO 35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므로,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어떤 식으로도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의 거룩하심에 걸맞게 그분을 무엇보다 높이며,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일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며, 그분 손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그분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삼가서, 그분의 높으신 위엄에 걸맞지 않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분에 관하여 말하지 말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그분이 원하신 쓰임과 다른 쓰임에 갖다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속되게 하고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레 20; 신 18). 그 이름을 강신술, 주문, 저주의 맹세, 불법한 귀신 쫓기, 그 밖의 불경건한 미신에 쓰이게 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약이나 맹세에 관해서는,[29] 어떤 맹세에서도 이 거룩한 이름을 거짓으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가 거짓의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것보다 더 심하게 모욕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형제들의 유익이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참된 맹세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우를 빼고는 어떤 종류의 맹세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이 조목을 풀이하시며 우리의 모든 말이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나온다고 증언하신 말씀이

29. 여기서 sacramenta는 성례가 아니라 옛 라틴어 뜻대로 "서약"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마 5).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누구든 자기 개인의 경솔함으로 어떤 맹세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정자가 맹세를 맡기고 요구할 때 우리가 하는 맹세는 이 계명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재판을 위해 진실의 증언을 요구해야 할 때 그들에게 맹세를 맡길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출 22; 히 6). 아니, 공적인 맹세는 모두 이 금지에서 빠집니다. 바울이 복음의 위엄을 세우려고 했던 맹세가 그런 것입니다(롬 1, 9). 사도들은 자기 직무에서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군주들이 조약을 맺을 때 할 수 있는 맹세나, 백성이 자기 군주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하는 맹세, 그 밖에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맹세는 제멋대로 하거나 즐기려고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허락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을 확증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르게 불러서는 안 되듯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이 진리의 유일한 증인이시며 또 그렇게 여겨지시는 것이 그분의 영예와 영광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이십니다(신 6, 10; 사 45, 48). 끝으로 주님께서는 당신 이름의 뛰어난 위엄을 더 힘 있게 드러내시려고 이 계명에 덧붙이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분은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특별한 보응을 선포하십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하여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짐승이나 네 문 안에 있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경건과 하나님 예배에 속합니다. 그것이 첫째 돌판 안에 들어 있고,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엄하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며(출 31; 민 15), 선지자들을 통해 모든 경건이 뒤엎어졌음을 나타내려 하실 때 당신의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속되게 되고 범해지고 지켜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렘 17). 마치 이 순종을 빼먹으면 그분이 공경받으실 수 있는 것이 더는 남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그림자였고, 의식의 시대 동안 유대인들에게 명령되어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바깥 준수 아래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들의 빛이요 표상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모세 율법의 다른 그림자들처럼 이 계명은 폐지되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증언하는 대로입니다(갈 4; 골 2).[30] 그러나 율법의 교사 노릇 아래 유대인들의 믿음을 훈련하던 의식과 바깥 예식은 폐지되었어도, 우리는 이 계명의 실체를 붙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영원하며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공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실체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악한 욕망을 완전히 끊어 버릴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욕망은 양심을 괴롭히고 뒤흔들고 들볶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사 35, 58; 히 3, 4). 또 우리가 우리 육의 악한 행위들, 곧 우리 정욕과 본성의 악함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지 않은 모든 행위를, 그것이 사람의 지혜의 겉모습을 아무리 내세우더라도 그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모두 참으로 종의 일이며, 안식일의 율법은 그것을 그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30. 원문에는 “Col. 3” 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장차 올 것의 그림자로 말하는 대목은 골로새서 2장(2:16–17)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거하시고 선한 것을 이루시며 당신의 거룩한 영의 인도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요 14; 엡 3; 고전 3; 롬 8). 그분의 나라는 양심의 평화와 고요를 가져다줍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일입니다. CO 37 저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 참된 안식일의 모형이요 말하자면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곱째 날에 배정되었습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어떤 끝으로도 마치지 않는 안식일을 명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온전히, 마땅한 정도로 거룩하게 지켜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히 4). 그 일곱째 날은 마지막이요 영원한 날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부분적으로는 그날에 들어갔지만, 아직 온전히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시작했고, 그 안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 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에 "안식일에서 안식일로"가 약속된 이사야의 말씀(사 66)이 이루어질 때, 곧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때(고전 15)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창조에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에서 쉬셨습니다. 그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우리 일을 그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구하며,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을 끊임없이 사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날은 우리가 그날을 다른 날보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곧 더 거룩하게 여기라고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날을 똑같이 영예롭게 하신 하나님 한 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갈 4). 그날은 교회가 그날 기도와 하나님 찬양과 말씀을 듣는 일과 성례를 시행하는 일을 위해 모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골).[31] 이 의무들에 더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려고, 우리는 기술과 손으로 하는 일과 이 세상 삶의 일에 속하는 모든 번거로움을 그칩니다.

31. 원문에는 "Col."만 있고 장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신비를 기억으로 되새기는 다른 엄숙한 날들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땅히 온 마음으로 들이마시고 그것으로 옛사람의 행위를 죽인다면, 우리는 축일에만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여기서 명령받은 대로 "안식일에서 안식일로"를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어떤 종교적 이유로 날과 날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질서를 위해 구별합니다. 우리가 어떤 날들을 정해 두는 것은 단지 쉬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일을 그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거나 기뻐하시기라도 하는 듯이 여겨서도 아니며, 어느 날엔가는 교회가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확정되어 정해진 날이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소란 없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고전 14). 이렇게 해서 궤변가들의 허튼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들은 유대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에서 의식에 속하는 것, 곧 그들의 말로 "일곱째 날의 지정"은 폐지되었지만, 도덕에 속하는 것, 곧 한 주에 하루를 지키는 것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을 모욕하려고 날을 바꾸었을 뿐, 날을 지키는 것은 그대로 붙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가 무슨 효과를 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봅니다. 그들의 규정에 매달리는 자들은 조잡하고 육적인 안식일 미신에서 유대인들을 세 배나 능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사야서에 있는 꾸짖음이(사 1, 58), 선지자가 자기 시대에 책망하던 자들에게만큼이나 이들에게도 들어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준수에서 살펴야 할 다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공평을 지키는 데 속한 것입니다. 이 공평은 종들과 짐승들의 일을 이따금 쉬게 해서, 인정 없는 감독자들이 끊임없이 다그쳐 마땅한 정도를 넘어 그들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모세가 이것을 이 제도를 세운 까닭이라기보다 제도의 유익으로 가리킨 것입니다(출 23; 신 5). 이 공평의

이치는 오늘날 우리도 헤아려야 합니다. 어떤 종살이 같은 강제가 아니라 사랑이 시키는 대로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정해 주는 앞의 네 계명이며, 이것으로 첫째 돌판이 끝납니다.

제가 흔히 거의 어디서나 쓰는 나눔과 달리 첫째 돌판에 네 계명을 넣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또는 가벼운 이유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나누는 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낭독한 둘째 계명을 수에서 지워 버립니다. 그것은 의심할 것 없이 주님께서 따로 한 계명으로 두신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열째 계명은 하나이자 같은 것인데, 어리석게도 둘로 찢어 놓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더 순수했던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리게네스가 아무 논란 없이 우리의 이 나눔을 내놓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이미 그 나눔이 생겨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지나치게 가벼운 이유로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첫째 돌판이 세 계명으로 이루어지면) 세 수에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더 빛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의 점에서는 우리의 나눔이 그에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미완성 주해』의 저자도 우리와 같이 생각했습니다.[32] 저는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로 된 일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토록 조심스럽게 금하는 그 계명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나눔을 새롭고 요즘 지어낸 것이라 하여 놀라거나 비웃지 않도록 이것을 지나가며 짚어 두어야 했습니다. 이제 둘째 돌판이 남았습니다.

다섯째 계명.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곧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므로,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무슨 일로든 거스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크게 받들며 존경하고 공경하

32. 『마태복음 미완성 주해』(Opus imperfectum in Matthaeum)는 크리소스토무스의 이름으로 전해진,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옛 라틴어 마태복음 주석입니다.

고, 주님의 뜻 아래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우리의 수고가 그들에게 쓸모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에서든 그들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엡 6; 마 15). CO 39 여기에 복이 덧붙습니다. 부모를 마땅한 공경으로 대한 자들은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특별한 권면의 구실을 하여,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밝히고, 우리의 굼뜸을 일깨우고 북돋웁니다. 동시에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고마움을 돌려드리기를 소홀히 한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가장 확실한 저주를 기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곧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므로, 어떤 종류의 해코지로도 누구를 상하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말며, 누구를 건드리지 말고, 누구에게도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친구든 원수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고, 양쪽 모두를 기쁘게 하기를 힘쓰며, 양쪽 모두 위험에 처해 있으면 도움의 손을 내밀고, 할 수 있는 한 양쪽 모두에게 선을 베풀기를 애써야 합니다(마 5).

일곱째 계명.

음행하지 말라.

여기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므로, 우리 평생에 모든 것을 정결하고 절제 있게 처리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므로, 각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마 5; 엡 5; 고전 6; 마 19; 고전 7).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육의 불결함에 대한 치료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요 그분이 정하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말하듯)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자기 길로 행하는 자들(시 91), 곧 자기 소명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그 소명에서 몸을 빼려 합니다. 이런 고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신 6; 마 4)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 주신 본성을 거슬러 애쓰고, 지금 주어진 그분의 선물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혼인, 모든 사람 가운데 귀히 여길 것이라고 선언하신 혼인,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임재로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첫 기적으로 영예롭게 하신 혼인(창 2; 히 13; 요 2)을, 어떤 독신 생활이든 놀라운 찬사로 치켜세우려고 감히 더러움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독신 생활과 동정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천사의 삶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크나큰 모욕을 줍니다. 천사들을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나쁘고 추한 무엇에 비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로 공공연히 논박당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논증이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교만과 당신의 선물에 대한 멸시를 얼마나 끔찍한 형벌로 곳곳에서 보응하시는지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도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허락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절제 있고 단정하게 대하여, 혼인의 정숙과 절제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전혀 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끝으로 자기들이 주 안에서 혼인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므로, 누구의

것이든 속임수로 가로채거나 손과 힘으로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거래와 계약에서 경험 없는 사람을 속이지 말고, 물건값을 모르는 사람에게 비싸게 팔거나 정당한 값보다 싸게 사지 말며, 그 밖의 어떤 수법과 속임수로도 남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힘을 다해 더욱 이 일에 마음을 쏟아, 할 수 있는 한 친구나 원수를 가리지 않고 조언과 도움으로 그들이 자기 것을 지키도록 돕고,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 차라리 우리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형편에 짓눌리면 그들의 쓸 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궁핍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사 58; 롬 12; 고후 8; 엡 4 등).

아홉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이 뜻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므로, 거짓 고발로 누구를 짓누르지 말고, 누구의 명예를 헐뜯지 말며, 욕설과 쓰라린 비꼼에 혀도 귀도 내주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것을 의심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럽게 생각하고 영예롭게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해석자가 되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마 7; 롬 13, 14). 이 계명은 이런 데까지 미칩니다. 곧 어떤 거짓말도 즐기지 말고, 상스러운 익살을 일삼지 말며, 세련되지만 쓸데없는 수다에 우리를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시 5; 마 12; 엡 4, 5).

1536년판 제1장 율법에 관하여(십계명 해설) 2

CO 1:41–5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41 열째 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주님께서는 이 계명으로 남의 아내나 식솔이나 재산이나 그 밖의 어떤 좋은 것에 대한 모든 욕망을 금하십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비록 그럴듯한 이름으로 둘러댈 수 있더라도 어떤 계략이나 속임수나 수법을 꾸며서, 아내가 남편과의 동거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의 종들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하거나 그의 다른 재물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달콤한 말로 아내와 종들을 남편이나 주인에게서 떼어 놓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 내쫓아 그 여자가 우리 것이 되게 하려고 남편을 아내에게서 떼어 놓지 말며, 주인에게서 쫓겨난 종들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하려고 주인을 종들에게서 떼어 놓지 말고, 끝으로 교활한 자들이 늘 쓰는 그런 속임수를 꾸며서 남의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 자체와 욕심과 가지려는 생각이 금지된 곳에서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 의심할 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각 사람의 아내와 그의 모든 것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남기를 바랄 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북돋우고, 종들에게 본분을 다하도록 권하며, 끝으로 우리 힘이 닿는 한 모든 방법으로 각 사람의 것을 지켜 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금지된 것은, 각 사람이 자기 소명에 따라

자기 몫을 다하고 남에게 자기 본분에 속한 것을 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엡 4). 자기 소명의 직무에 따라 남에게 빚진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남의 것을 탐내고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로 백성은 자기 왕들, 군주들, 위정자들, 그 밖에 자기 위에 세워진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다스림을 기꺼이 견디며, 법과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행할 수 있는 일이면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롬 13; 벧전 2; 딛 3). 반대로 저들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공의를 베풀며, 공공의 평화와 고요를 지키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며, 악한 자들을 억제해야 합니다. 마치 지극히 높은 왕이시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기 직무를 셈해 드릴 자처럼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신 17; 대하 19). 감독들과 교회의 사역자들은 신실하게 말씀의 사역에 힘쓰고, 구원의 교리를 변질시키지 말며, 그것을 순수하고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침으로만 아니라 삶의 본으로도 그들을 가르치며, 끝으로 선한 목자가 양들을 다스리듯 다스려야 합니다(딤전 3; 딤후 2, 4; 딛 1; 벧전 5). 백성은 그 대신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사도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영예를 그들에게 돌리며,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마 10; 롬 10, 15; 고전 9; 갈 6; 살전 5; 딤전 5).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로 받아 기르고 가르치고 다스려야 하며, 자기의 무정함과 사나움으로 자녀의 마음을 성나게 하여 자기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말고, 자기 위치에 어울리는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아끼고 품어야 합니다. 앞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존경을 드려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엡 6; 골 3). 젊은이들은 노년을 공경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나이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인들도 자기 지혜와, 젊은이들보다 경험이 많은 만큼 그 경험으로 젊음의 연약함을 이끌어 주되, 거칠고 소리 높인 꾸짖음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상냥함과 너그러움으로 엄격함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본분을 다하여 부지런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되,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 섬겨, 마치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주인들도 종들에게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사람으로 처신하지 말고, 지나친 가혹함으로 그들을 괴롭히지 말며, 모욕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 형제요 하늘에 계신 같은 주님의 동료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모든 온유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참아 주어야 합니다(엡 6; 골 3; 딛 2; 벧전 2; 골 4; 몬). 이런 식으로 각 사람은 자기 신분과 자리에서 이웃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헤아리고,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전체가 열 계명으로 풀이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곧 사랑을 가르치는 데로 향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부르고 찾으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기대하고, 그분 안에 우리의 보호를 두며, 그분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돌판의 요약이며, 이것으로 우리는 특별히 경건을 배웁니다(마 7). 다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되,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돌판의 요점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전체에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지에 관하여 규칙을 정하는 음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자기 사랑으로 온통 기울어지도록 태어났으므로, 이미 저절로 지나친 그 사랑을 더 불붙일 율법은 조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해 가장 적게 살고 힘쓰는 사람이 가장 잘, 가장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반대로 오직 자기를 위해 살고 힘쓰며 오직 자기 것만 생각하고 찾는 사람보다 더 나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깥 행위만 명하거나 금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와 마음 깊은 곳의 성향까지 명하고 금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손을 행위에서 멈추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CO 43 어떤 자들은 눈과 발과 손과 몸의 모든 지체를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는 데로 맞추어 놓으면서도, 그동안 마음은 모든 순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채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잘 감추기만 하면 자기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려고 칼을 빼지 않고, 창녀들과 몸을 섞지 않으며, 남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으로 살기를 내뿜고, 정욕으로 들끓으며, 모든 사람의 재물을 곁눈질로 보며 탐욕으로 삼킵니다. 이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힘차게 맞서서 율법은 신령하다고, 곧 마음 전체와 영혼 전체와 의지 전체가 순종하기를 요구한다고 단언합니다(롬 7). 우리가 이것이 율법의 뜻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머리에서 나온 새 해석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좋은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깥 행위로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은 자는 율법을 이룬 것이라는 비뚤어진 생각을 백성에게 물들였을 때(마 5),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극히 위험한 오류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자를 음란하게 바라보는 것이 음행이라고 선언하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음에 노여움을 품기만 한 자도 심판에 처하게 되고, 투덜거리거나 씩씩대어 성난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낸 자는 공회에 처하게 되며, 욕설과 저주로 드러난 노여움에 뛰어든 자는 지옥 불에 처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모세, 곧 저 모세 율법의 모자란 것을 채운 복음적 율법의 입법자로 지어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거짓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옛 율법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셨고, 다만 바리새인들의 거짓말로 흐려지고 누룩으로 더럽혀진 율법을 되찾아 깨끗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똑같은 무지 또는 악의로 그들은, 원수 갚기를 구하지 말라는 계명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 곧 옛적에 모든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그 당시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계명을 권고(consilia)로 만들어, 따르든 따르지 않든 자유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일은 수도사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수도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권고를 지키기로 자기를 묶는다는 이 한 가지 만으로도 단순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의롭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대기를, 그것이 특히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무겁고 버거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감히 폐지하려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들어(눅 10), 우리의 수고가 쓸모 있을 사람이라면 가장 낯선 사람이라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원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들이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잠 25; 롬 12)? 이를테면 우리는 굶주린 원수를 먹이고, 길 잃은 그들의 소와 나귀를 길로 돌려보내며, 짐에 눌려 쓰러진 짐승을 일으켜 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출 23).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것이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 아닙니까(신 32; 히 10)?

그리고 묻건대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마 5).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수도사들입니까? 오직 수도사들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형편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된 멍에를 이토록 방자하게 벗어던지는 자들은 자기가 사탄의 자녀임을 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논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니요. 마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기라도 하다는 듯합니다. 이 율법에 비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든 모든 원수 갚을 욕심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이든, 쉽게 여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는 율법의 가장 작은 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 있게 행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분께서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없이 고삐 풀린 채 헤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우며, 그분의 영으로 율법을 마음에 새겨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본뜻과 달리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조하려고 맞세운 하나님의 율법에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이자들은 법이라는 이름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앞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어느 부분에서라도 어기고 모든 일에서 이루지 않은 모든 자에게 무겁고 무서운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은 우리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긴 자로 정해지며, 율법에서 죄인들에게 선포된 저주는 우리 가운데 몇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땅하고, 우리 목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만 바라본다면 낙심하고 당황하고 절망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모두 정죄받고 저주받기 때문입니다(갈 3).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다” 고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고발하고 책망하고 죄를 밝혀 말하자면 현장에서 붙잡아 두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고 인정받으시고, 모든 육체는 그분 앞에서 잠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롬 3). 오늘날 많은 사람이 흔히 떠벌리는 것을 우리는 지껄이지 맙시다. 그들은 율법을 결코 온전히 이루지 못하므로 행위의 공로로 완전하고 궁극적인 의에 이르는 것이 자기들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영광을 빼앗긴 것으로, 곧 하나님께 완전히 양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율법을 부분적으로는 지키고 그 부분만큼은 의롭다고 내세웁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은 속죄 행위(satisfactio)와 의무 이상의 행위(opera supererogationis)로 채우고 갚는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결함을 메우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이 오류에 빠뜨린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망각, 하나님의 의에 대한 멸시, 자기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이 아담의 모든 자손을 묘사하는 것과 다르게 자기를 여기는 자들은 분명 자기를 아는 지식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CO 45 성경은 그들의 탁월함을 이런 찬사로 추어올립니다. 그들은 비뚤어지고 완고한 마음을 지녔고, 그들 마음의 계획은 어려서부터 악하며, 모든 생각이 헛되고, 그 빛이 어둠이며, 모두 양처럼 길을 잃어 각기 제 길로 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며, 한마디로 그들은 육이라는 것입니다(렘 17; 창 8; 시 94; 마 6; 사 53; 시 14; 창 6). 이 이름으로 바울이 열거하는 모든 행위가 이해됩니다(갈 5). 곧 음행, 더러움, 음란, 방탕,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싸움, 분열, 이단, 투기, 살인, 그리고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추악함과 가증함입니다. 이토록 대단한 품위를 믿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거슬러 교만합니다! 이것을 보편적 공리로 붙들어야 합니다. 누구든 자기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자랑할 거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이것을 세상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롬 3). 하나님께 이토록 큰 수치로 정죄받은 사람이 감히 자기에게 무엇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자기를 엎드리고 낮추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기를 배우지 못합니까? 아직도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를 배우지 못합니까? 자기에게 무엇이라도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을 겸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겸손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자들은 지금까지 해로운 위선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거짓말하는 것이요, 참으로 진지하게 우리에게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공로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요 그런 생각까지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그의 타고난 자질로 평가한다면,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선의 불티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 안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함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추함에는 언제나 핑계를 끌어대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칭찬으로 낚아챕니다. 하나님의 의도 멸시당합니다. 그 의가 온전하고 완전하며 아무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은 것만 받으실 만큼 그렇게 완전한 의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자체의 품위로 평가한다면, 더러움과 때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는 불의요, 우리의 온전함은 더럽힘이요, 우리의 영광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도 언제나 우리 육의 불결함이 어느 정도 묻어 있고 썩어 있으며, 말하자면 찌끼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비록 우리에게 아주 순수하고 의로운 행위가 얼마간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말하듯(겔 18) 죄 하나면 이전 의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꺼 버리기에 넉넉합니다. 야고보도 이에 동의하여 말합니다(약 2).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모든 것에 죄를 지은 자가 된다." 이 죽을 삶은 결코 죄에서 깨끗하지 않으므로(잠 24; 요일 1), 우리가 얻은 의가 무엇이든 뒤따르는 죄들로 썩고 눌리고 잃어버린 바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에게 의로 전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계명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의를 찾는다면, 이런저런 행위 하나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순종이 의롭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가증하고 그토록 무거운 것이어서, 사람들의 모든 의를 한 무더기로 모아도 죄 하나를 갚기에 모자랍니다. 우리가 보듯이 사람은 한 번의 범죄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쳐져서(창 3), 구원을 다시 받고 되찾을 모든 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행위를 할 능력은 없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우쭐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를 전가하시는 자들은 모두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돌아보시기 전에, 우리 죄가 덮이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죄 사함은 값없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속죄 행위를 들이미는 자들은 이 죄 사함을 흐리게 하고 모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의 본을 따라(빌 3)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우리의 경주장에서 달려갑시다. 그런데 의무 이상의 행위를 떠벌리는 것이, 우리가 명령받은 모든 것을 행한 뒤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마땅히 해야 할 것 이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라는 명령(눅 17)과 어떻게 맞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꾸미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붙들고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에 정하고 헤아리기를 명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빚 없이 거저 드리는 봉사는 하나도 없고, 빚진 순종을 갚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명령받은

모든 것을 행한 뒤에, 곧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체가 율법의 의무에 바쳐진다 해도, 또는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의가 있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데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자들이 감히 자기들이 마땅한 분량에 덤까지 얹었다고 자랑합니다. 물론 의자와 강단에 앉아 그늘 아래서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쉽고 누구에게나 손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 지극히 높으신 재판장께서 재판석에 앉으실 때, 모든 입은 막히고 모든 자랑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 이것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재판석에 어떤 변호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물어야지, 학교와 구석에서 무엇을 지껄일 수 있는지를 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자들이 하나님께 팔아넘기려는 의무 이상의 행위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명하신 적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으시며, 당신 앞에서 셈할 때 받아 주지도 않으실 허튼 것들입니다. CO 47 오직 이런 뜻으로만 우리는 의무 이상의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곧 선지자가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사 1)고 말한 그런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온 인류는 율법으로 책망받아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으며, 거기서 풀려나려면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 말하자면 그 종살이에서 자유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 육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곧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빼내고,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하도록 우리를 꾀며, 말하자면 빗장을 부수고 고삐를 풀어 우리 정욕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곧 얻어맞고 겁에 질린 양심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며, 율법이 그 양심을 묶고 옥죄어 짓누르던 저주와 정죄에서 양심이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유입니다. 율법에 대한 예속에서 벗어나는 이 해방, 말하자면 이 종의 놓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을 때 얻습니다. 그 자비로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해 안심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 죄를 느끼게 하여 우리를 찌르고 물어뜯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죄 사함을 우리에게 한 번만 베푸셔서, 지난 삶에 대한 용서를 얻은 뒤에는 율법에서 의를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거짓 소망으로 이끌어 비웃고 놀리시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완전함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데, 율법은 행위로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한 모든 자에게 죽음과 심판을 선포하므로, 주님의 자비가 맞서 나와 끊임없는 죄 사함으로 우리를 거듭 풀어 주지 않는다면,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고발하고 죄인으로 몰아세울 거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우리가 말한 것이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품위로 평가된다면, 무엇을 궁리하고 무엇을 꾀하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과 함께 죽음과 수치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이치로 율법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약속들도 모두 효력이 없고 헛됩니다. 그 약속들이 달려 있고 마침내 이루어질 조건, 곧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조건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논증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갑니다(롬 4). 그는 말합니다. “만일 상속의 약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다.” 그는 두 가지를 이끌어 냅니다. 첫째, 약속이 우리 행위의 공로를 바라보거나 율법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비워집니다. 아무도 그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거나 그 안에서 안심하고 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율법을 만족시켰다고 자기 안에서 확실히 정할 수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요, 참으로 아무도 행위로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증언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도록, 자기를 바른 눈으로 살펴보려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먼저 의심이, 마침내 절망이 밀려들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아직 얼마나 큰 빚더미에 눌려 있는

지, 자기에게 지워진 조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셈해 볼 때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믿음은 짓눌려 꺼져 버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흔들리고, 오락가락하고, 위아래로 휩쓸리고, 망설이고, 매달린 채 머물고, 마침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확실성과 단단한 안정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기대어 쉬고 발을 디딜 곳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고전 2; 고후 13). 여기서 둘째 것이 따라 나옵니다. 약속 자체도 폐하여지고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의심 없이 확신하는 자들, 한마디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너지면 약속의 힘은 조금도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어떤 소망이 제시되려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새 약속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33] 그것이 복음의 약속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품위나 선행을 조금도 따지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버지다운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제시하시는 약속들입니다(롬 10).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의 이토록 큰 은혜를 온 마음으로 껴안는 것 말고는 다른 조건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덧붙이는 말입니다(롬 4). 구원의 상속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약속이 굳게 서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믿음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났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에는 굳은 약속이 따릅니다. 그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시 85).

그러므로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고, 우리의 품위나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것에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 자비에 세우고 말하자면 깊이 박아

33. [원문의심] OCR이 깨져 “quae praestari no% po»sint”로 되어 있습니다. “nobis possint”(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로 읽었습니다.

두어야 하며, 우리 행위를 돌아보거나 거기서 어떤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본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귀를 세우고 눈을 감는 것, 곧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모든 품위나 공로에서 생각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불신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넉넉히 신뢰하지 못할 것이요, 먼저 우리 안에서 꺾이지 않으면 결코 그분 안에서 넉넉히 마음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서 위로를 잃지 않으면 결코 그분 안에서 넉넉히 위로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의 모든 영광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그분 안에서 넉넉히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버리되 그분의 선하심은 확실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얻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우리 공로를 잊고 그리스도의 선물을 껴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참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확실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복으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고 알려진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연약함 때문에, 거기서 자기 의를 얻으려는 자들에게 필요했던 대로 우리 행위로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분의 의로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고 율법을 이룬 자가 됩니다. CO 49 우리는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입으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 없는 자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이 이루어집니다(고전 1).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값없는 뜻대로, 진노와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너그러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받아 주십니다(롬 5, 6). 다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의 은사들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의 정욕은 날마다 더욱더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곧 우리 마음이 율법에 순종하도록 빚어져서 모든 삶의 순결로 주님께 바쳐집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뜻을 섬기고 모든 방법으로 오직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의 한 가지 뜻이 되고,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우리 육의 더러움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잊고 우쭐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는 불완전한 무엇이 남아 있어 우리에게 겸손의 근거를 줍니다. 그것으로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서 막히고, 우리는 모든 신뢰를 언제나 우리에게서 그분께로 옮기기를 배웁니다(롬 7).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달려갈 때 행하는 바로 그 행위들도, 믿음으로 행해지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 자체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은혜를 입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홀로 완전하고 홀로 하나님의 눈앞을 견딜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위해 세워지고, 보증인처럼 심판대에 나와야 합니다(히 11; 롬 8). 그리고 그 의가 하나님께 우리 것으로 인정되고, 마치 우리 것인 양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듭, 끊임없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 불완전함의 어떤 더러움이나 불결함도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과 완전함으로 말하자면 묻혀 덮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 안의 옛사람이 끝나고 완전히 꺼질 때가 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평화 속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고전 15).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립시다. 그날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을 다시 받아 하늘나라의 영광 속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로부터 율법의 직무가 어떠하며 그 쓰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보여 줌으로써 각 사람에게 자기의 불의를 일깨우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허망함을 책망하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자기 힘에 대한 미친 신뢰로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능력에 대한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만 서 있고 버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 행위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 일어서므로, 이 교만은 꺾이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벌거벗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피하고, 온전히 그 자비에 기대며, 그 안에 숨고, 오직 그것만을 의와 공로로 붙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참된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둘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어기는 자들에게 형벌을 정하며, 죽음과 심판으로 위협하는 한, 강제되지 않으면 의와 바름에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을 적어도 형벌의 두려움으로 억제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억제되는 것은 그들의 속마음이 움직이거나 감동되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재갈이 물려 바깥 행위에서 손을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방자하게 쏟아 냈을 자기 악함을 안에 가두어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더 나아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에 막혀 마음에 품은 것을 감히 행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날뛰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갖추어진 마음을 지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억누를수록 속에서는 더욱 불붙고 들끓고 끓어올라, 율법의 이 두려움이 막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하고 어디로든 터져 나갈 태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율법 자체를 몹시 미워하고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저주하여,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없애 버리기를 몹시 바랍니다. 바른 것을 명하시는 분도, 당신 위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분도 그들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강제되고 억지로 짜낸 의는 사람들의 공동 사회에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면 일어날 일, 곧 모든 것이 소란으로 뒤섞이는 일을 막음으로써 사회의 평온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율법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힘 있게 살아 다스리는 신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쓰임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르고 주님 앞에서 기

쁘게 여겨지는지를 그들에게 더욱더 끊임없이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고 새겨져 있지만(렘 31; 히 10), 곧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성향과 마음을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율법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율법으로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더 확실하고 더 잘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이 온 마음을 다해 자기 주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미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맞추고 적응시킬 주인의 성품을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아무리 기꺼이 서두르더라도, 육으로는 게으르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죄를 섬깁니다. 이 육에게 율법은 채찍입니다. 그것으로 이 육은 게으르고 굼뜬 나귀처럼 찔리고 재촉받고 일하도록 몰립니다. 요컨대 율법은 신자들에게 권면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저주로 묶는 권면이 아니라, 거듭 다그쳐 게으름을 털어 내고 불완전함을 꼬집는 권면입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이 해방을 나타내려고, 율법이 신자들에게는 폐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더는 그들에게 바른 것을 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전에 그들에게 그랬던 것이 더는 아니라는 뜻, 곧 죽음을 알리는 소식으로 그들의 양심을 당황하게 하고 겁에 질리게 하지 않으며, 정죄하고 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CO 51 마찬가지로 반대로, 칭의는 선행에서 떼어집니다. 선행이 하나도 행해지지 않게 하거나 있는 선행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구원을 선행에 돌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셨고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사 9; 살전 4), 우리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러움과 불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깨끗하고 흠 없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엡 1). 이런

것들이 지난 세대에 마땅한 순서대로 다루어지고 정리되었더라면 그토록 많은 소란과 다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교 교리의 건축에서는 그가 놓은 기초, 곧 그 밖에는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기초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고전 3).

그러면 그 기초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셨고, 우리에게 공로를 쌓을 기회를 공로로 얻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초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 전에 영원부터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목적을 따라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죽음의 정죄에서 구속되고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버지께 양자로 받아들여져 자녀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분께 맡겨 지키게 하셔서 우리는 결코 멸망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 접붙여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엡 1; 롬 9; 딤후 1; 요 1; 엡 1, 3; 롬 5, 8; 고후 5; 요 10, 17). 이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서는 어리석으나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가 죄인이나 그분은 우리의 의이시며, 우리가 더러우나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도 없이 사탄에게 드러나 있으나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분께 주어져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탄을 짓밟으시고 지옥의 문을 부수시며, 우리가 아직 사망의 몸을 지니고 다니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고전 1; 마 28; 골 1, 3; 롬 8; 엡 2). 한마디로,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 가려면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이 기초가 놓이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그 위에 세웁니다. 가르침과 권면이 필요하면 그들은 이렇게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므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이방인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는 지나간 때로 넉넉하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자비의 그릇이요 귀히 쓰이도록 택함받은 그릇이니 더러움에서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요일 3; 벧전 4; 딤후 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로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줄 때, 모든 것이 한 번에 말해집니다(마 16).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모든 악의 뿌리를 잘라 내어 더는 자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모든 인내와 온유를 갖출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본은 이것과 경건과 거룩함의 다른 모든 의무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온전히 몰두하셨습니다(빌 2; 눅 2; 요 4, 7, 8, 10, 15, 17). 그분은 온 가슴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숨 쉬셨고,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며,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눅 23).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들은 놀라운 위로를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수고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낮아져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심을 늘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빌 2; 고후 4; 딤후 2).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함께 고난받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당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셔서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빌 3; 롬 8).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 간다고, 그리고 이 증거로 자기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며, 나무처럼 열매로 판단받는다고 말합니다(벧후 1).

이 한마디로 어떤 불경건한 자들의 뻔뻔함을 논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헐뜯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든 노력을 정죄하니 선행을 없앤다고, 죄 사함을 값없는 것으로 만드니 너무 쉬운 죄 사함을 전파하여, 그렇지 않아도 저절로 죄로 기우는 사람들을 이 미끼로 죄짓게 꾄다고,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고 구원을 공로로 얻지 못한다고 가르치니 사람들을 선행에 힘쓰는 데서 떼어 놓는다고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모든 중상은 저 한마디로 넉넉히 반박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에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그분께 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모두 하나님의 영의 열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갈 5).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선행의 칭찬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누지 않고, 온전하고 흠 없이 그 전부를 주님께 남겨 드립니다. 선행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곧 선했던 바로 그것을 자기 불결함으로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가운데 어떤 얼룩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심판에 부르신다면, 그 안에서 당신의 의와 사람의 수치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CO 53 이런 이치로 우리는 사람의 노력을 정죄합니다. 곧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서 가지거나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저주받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르침으로 신자들의 마음은 남다른 위로를 받아 일어섭니다. 이 가르침은 그들에게, 이 선행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요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들 자신도 그 안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그것을 공로로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것에 이런 값을 매기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도 믿음 없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마음의 확실한 신뢰로 스스로 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행위도 시도하거나 착수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저들은 어떻습니까? 늘 입에는 선행을 달고 있지만, 그동안 양심을 이렇게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자기 행위에 대해 자비롭고 호의를 보이신다고 감히 결코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값없는 죄 사함을 단언할 때 사람들을 죄짓도록 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사함은 우리의 어떤 선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어서, 값없는 것이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값없지만 그리스도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께는 그토록 큰 값, 곧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피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갚을 만큼 넉넉히 가치 있는 값은 그 피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 지극히 거룩한 피를 쏟는다는 것을 일깨움 받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추함은 이 지극히 순결한 피의 샘이 아니면 결코 씻기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무엇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진흙탕에 뒹굴어 자기 힘이 닿는 만큼 이 샘의 순결을 더럽히는 것을 어찌 몸서리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글에서 신실한 영혼은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아 5)고 말합니다.

이제 누가 죄 사함을 더 값싸게 만드는지 분명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찮은 속죄 행위, 곧 똥 같은 것으로 달래진다고 허튼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죄의 해악이 그런 가벼운 허튼 것으로 속죄될 수 있는 것보다 무겁고, 하나님께 끼친 모욕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속죄 행위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보다 크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의 특권이라

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공로를 얻는다는 생각을 없앤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을 행하려는 성향에서 떼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내걸지 않으면 삶을 바르게 꾸릴 마음이 없어질 것이라는 저들의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상만 바라보고 그분께 자기 품을 빌려주거나 파는 것이 고작이라면,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값없이 섬김받기를 원하시고 값없이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거듭 말하지만, 상을 받으리라는 모든 소망이 잘려 나가도 그분 섬기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예배자를 그분은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선행으로 재촉해야 한다면, 바울보다 더 날카로운 박차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은 의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롬 6),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하며(롬 12),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 섬김으로 우리가 같은 몸의 지체임을 증언하라고 명하고(엡 4),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둠은 결코 어울릴 수 없다고 일깨우며(고후),[34]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니 불법한 욕망을 멀리하라고 보여 주고(살전 4),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것은 의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롬 6). 요한의 말보다 더 힘찬 논증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재촉받을 수 있겠습니까(요일 4)?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와 다른 것은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에게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모두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듣는 것보다(요일 3),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우리에게 본으로 내세우시며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요 15), 더 힘 있게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34. 원문에는 “2 Cor.”만 있고 장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맛보기로 몇 가지만 내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라가려 한다면 긴 책을 엮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선한 일을 위해 가르치려는 권고, 격려, 책망, 위로로 온통 가득하며, 그러면서도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이 한 가지 까닭으로 우리에게는 넉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그리 크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선을 행하도록 재촉하기에 넉넉합니다(마 5). 그러나 저들은 공로를 들이밀어 율법에 대한 어떤 종살이 같고 강요된 순종을 어쩌면 쥐어짜 내므로,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는 선행을 권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몹시 기뻐하시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분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밝히시고, 마치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듯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고후 9).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종류의 권면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시리라는 것도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 행위가 이 갚으심의 원인이라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종들의 품삯이 아니라 자녀들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업은 주님께서 자녀로 받아들이신 자들만, 그리고 다른 어떤 까닭도 아닌 이 양자 삼으심 때문에 누립니다(엡 1).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런 약속으로 우리 행위의 품위를 추어올리려 하셨다고, 마치 우리 행위가 그런 상을 공로로 얻기라도 하는 듯이 생각하지 맙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거리를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낮추고 엎드리게 하며, 완전히 부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 기대가 붙들어 주고 위로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은 곧 무너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모든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버리고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각 사람이

스스로 헤아려 보십시오. CO 55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첫 훈련으로 당신의 제자들, 곧 모든 경건한 자들을 입문시키십니다(마 16). 다음으로 그분은 그들을 평생 십자가의 훈련 아래 가르치셔서, 그들이 현재의 좋은 것들을 욕심내거나 신뢰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그들을 대개 이렇게 다루셔서, 이 세상이 펼쳐진 데까지 어디로 눈을 돌리든 사방에서 절망밖에 마주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바라는 자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고전 15). 이토록 큰 곤경에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 곁에 계셔서 머리를 더 높이 들고 눈을 더 멀리 던지라고 권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복락을 당신 곁에서 찾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복락을 상, 품삯, 갚으심이라고 부르십니다. 행위의 공로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환난과 고난과 모욕 등에 대한 보상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본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갚음이라고 부르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수고에서 안식으로, 환난에서 위로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고, 한마디로 그들이 견뎌 낸 모든 악을 더 큰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거룩함을 길이라고 여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그 길로 이끌려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따금 주님의 의라고 불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 의롭다 하시는, 곧 의인으로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은혜로 의롭다 하신 당신의 의인들을 그것으로 훈련하시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우리 구원의 아주 작은 몫이라도 행위로 돌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한 찬양을

돌리는 성경 전체를 뒤틀고 썩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로라는 이름을 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 모독을 일으킵니다. 은혜는 공로와 함께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 이름은 교만과, 하나님께 맞서 날뛰는 허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과 갚음을 약속하신다고요? 그 말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마땅히 받을 것이 전혀 아닌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하나님의 그토록 큰 은혜로운 베푸심에 감사드리는 것이었지, 마음이 우쭐해져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낚아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용익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땅의 소유권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배은망덕으로 자기가 누리던 바로 그 용익권마저 잃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신의 그토록 큰 은혜를 거슬러 이토록 배은망덕한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고 참으시겠습니까?

1536년판 · 제2장 믿음에 관하여 (사도신경 해설)

1536년판 제2장 믿음에 관하여(사도신경 해설) 1

CO 1:55–6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55 믿음에 관하여. 여기서 사람들이 사도적이라고 부르는 신경(사도신경)도 해설합니다.

앞의 논의에서 이제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율법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정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라도 넘어지면 진노와 영원한 죽음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는 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아예 우리 힘을 넘어서며 우리의 모든 능력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합당한지를 생각한다면, 선한 소망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에게는 죽음과 가장 확실한 수치만이 기다립니다. 이 재난을 피하고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길은 하나뿐이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곧 주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그 자비를 굳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쉰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도적이라고 부르는 신경에서 쉽게 배울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편 교회가 한마음으로 동의하는 믿음의 요약, 말하자면 믿음의 개요가 간략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기 전에, 믿음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일러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고, 그리스도에 관해 전해지는 역사가 참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

은 옛날에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일이나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서 본 일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무게도 없는 것이므로, 믿음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자랑한다면, 자기가 마귀들과 함께 가진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약 2). 그러나 마귀들은 그것으로 더 두려워하고 떨고 당황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으로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되었거나 말해지는 모든 것을 참되다고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소망과 신뢰를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두며, 이 생각으로 굳게 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영혼에 쓰이든 몸에 쓰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확실히 믿고, 성경이 그분에 관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실히 기다리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곧 구주이심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죄 사함과 성화를 얻듯이 구원도 주어졌으며, 마침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리라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미시고 약속하시는 모든 것의 머리이며 거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당신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워 두신 목표이며, 그분께서 내세우시는 과녁입니다.

CO 57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이 겨누어야 할 과녁이며, 믿음을 떠받치고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이것 없이는 믿음이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믿음,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 불릴 수 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굳은 확신입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도 확실하여, 당신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하겠다고 맡으신 일을 이루지 않으실 수 없다고 마음에 정합니다(롬 10). 바울은 믿음을 정의하면서(히 11)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부릅니다. 그는 실상, 곧 휘포스타시스(그리스어 본문은 이렇게 읽습니다)를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받침대처럼 이해합니다. 마치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는 책들이 펴질 마지막 날까지 그것들은 우리 감각으로 지각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으며,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재능의 모든 이해력을 넘어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위로 우리 눈길을 향하며, 마침내 우리 자신을 넘어서지 않고는 달리 그것들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는 이 소유의 안전함이 소망 속에 놓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쓰듯이(롬 8),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며, 아무도 자기가 보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표지 또는 증명(그리스어로는 엘렝코스입니다)이라고 부를 때,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명백함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요, 어두운 것들의 환함이요, 없는 것들이 곁에 있음이요, 숨겨진 것들의 드러남이라고. 하나님의 비밀들, 곧 우리 구원에 속한 비밀들은 그 자체로, 흔히 말하듯 그 본성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의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도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성격은 앞의 것과 아주 다릅니다. 누구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믿음 없이는 누구도 결코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히 11).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께서 우리에게 유익하

다고 보시는 한, 얻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비뚤어지고 그릇되며 꾸며 낸 마음에는 자리 잡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시작되거나 보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의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먼저 당신만이 주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뒤, 당신 앞에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덧붙이십니다. 곧 당신 한 분께만 드려져야 할 우리의 소망과 신뢰가 당신 한 분 말고 다른 데 머물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과 신뢰가 다른 데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는 것이라고 넌지시 알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이며, 이 믿음을 간략하게 가르치려고 사도신경이 쓰였습니다. 사도신경은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가운데 처음 세 부분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돌려져 있습니다. 이 세 위격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한 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돌아오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불경건한 자들은 우리 믿음을 그 뿌리째 뽑아 버리려고 맨 첫머리에서부터 떠들어 대며, 한 하나님을 세 위격 안에서 고백하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그들의 신성 모독을 막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하려는 것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이들의 손을 잡아 이끄는 것이지, 싸우기 좋아하고 거역하는 자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그들과 군대를 갖추어 맞서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몇 마디로 가리켜 보이겠습니다. 진리에 쉽고 열린 귀를 내준 이들이 확실한 발로 설 자리를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하나님을 전하지, 여러 신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신 6)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성경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조금도 모호하지 않게 단언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논증만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 가지 논증 몫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 이 셋을 서로 이어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추론합니다(엡 4). 곧 믿음이 하나이므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증명하고, 세례가 하나이므로 거기에서 믿음도 하나임을 보입니다. 믿음은 이리저리 둘러보거나 여러 데로 헤매서는 안 되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향하며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믿음이 여럿이라면 신들도 여럿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또 세례는 믿음의 성례이므로, 그것이 하나라는 사실로 믿음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믿음 안으로 세례를 받듯이, 우리 믿음은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도 한 분이시고 이 믿음도 하나입니다. 둘 다 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한 하나님 안으로가 아니면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원했을 때(마 28),[35] 동시에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한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분들을 믿는 믿음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한 믿음으로 섬김을 받으신다면, 그분들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뚜렷한 증언들도 있어서, 어떤 것은 세 분의 하나인 신성을, 어떤 것은 위격의 구별을 단언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이름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예레미야서에서 성자께 돌려집니다(렘 23; 33).

CO 59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사 42:8)[36]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35. 원문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Matth. ult.)입니다.

36. 원문에는 “Ies. 43”(사 4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 42:8(또 48:11)에 있으므로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께서 그분을 통해 세계를 지으셨다고 할 때, 또 그분 자신이 세상이 있기 전에 성부와 함께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고 증언하실 때, 구별이 드러납니다. 더욱 뚜렷하게는, 성부께서 오셔서 우리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지 않고, 성자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사람이 되시려고 성부에게서 나오셨다고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요 1; 히 1; 요 17; 요 16 그리고 다른 곳; 슥 13). 다른 선지자에게서는 이 둘이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성부께서는 그분을 짝 또는 친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한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친족이나 짝이 아닙니다. 또 짝이라면 구별되어야 합니다. 짝 됨은 둘 사이에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행 5). 그러면서도 성령이 그리스도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열 군데 넘는 곳에서 분명합니다(요 14; 15). 그러나 바울은 이 비밀 전체를 무엇보다 가장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롬 8). 그는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구별 없이 불렀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이 하나라면, 성부와 성자도 하나이셔야 합니다. 또 성령 자신도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심이 마땅합니다. 누구도 자기 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을 듣는다며, 그래서 영을 성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을 듣듯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 전체가 영적이고, 그 본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선하시다, 영광스러우시다, 자비로우시다고 불리시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유로 때로는 성부, 때로는 성자, 때로는 성령이라 불리신다고 말한 자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쉽게 논박됩니다. 저것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여 주는 형용어이고, 이 이름들은

바로잡았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밝히는 이름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고 고집스럽지 않은 이들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또 셋이 이름 불리고, 셋이 묘사되며, 셋이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이시면서 셋이시니, 한 하나님, 한 본질이십니다. 어떤 셋입니까? 세 신이 아니요 세 본질이 아닙니다. 옛 정통 교부들은 이 둘을 다 나타내려고, 한 우시아(οὐσία)와 세 휘포스타시스(ὑποστάσεις)가 있다고, 곧 한 실체(substantia)와 한 실체 안의 세 실재(subsistentia)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틴 사람들은 모든 점에서 뜻이 일치하면서도, 한 낱말만 그대로 옮기고 다른 낱말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을 표현했습니다. 곧 그들은 한 본질(essentia)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저 그리스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 위격(persona)이라고 했는데, 이 말로 어떤 관계를 나타내려 했습니다.

이단들은 우시아, 휘포스타시스, 본질, 위격이 사람의 생각대로 지어낸 이름이며 성경 어디에서도 읽거나 볼 수 없다고 짖어 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하나님이신 분들이 셋이라 불린다는 것을 우리에게서 떨쳐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하고 확정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낱말들을 배척하다니, 이 무슨 까다로움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낱말까지도 성경의 경계 안에 묶어 두는 것이, 분열과 다툼의 씨앗이 될 낯선 말들을 퍼뜨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낱말 싸움으로 지쳐 버리고, 이렇게 말다툼하다 진리를 잃으며, 이렇게 사랑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에서 그만한 음절로 짜인 그대로 보일 수 없는 말을 낯선 말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부당한 법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는 성경 본문을 이어 붙여 만들지 않은 모든 설교가 정죄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낯선 말이란 호기심으로 고안되어 미신적으로 변호되는 것, 덕을 세우기보다 다툼에 쓸모 있는 것, 때에 맞지

않게 쓰이거나 아무 열매 없이 쓰이는 것, 그 거칢으로 경건한 귀를 거스르는 것, 하나님 말씀의 단순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들의 절제를 온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할 때 못지않은 경건(religion)으로 하나님에 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관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리석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싱겁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도는 지켜야 합니다. 생각하는 일과 말하는 일의 규칙은 분명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먹줄에 마음의 모든 생각과 입의 모든 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이해력에 얽히고 막힌 것들을 더 평이한 낱말로 풀어 설명하는 것을 무엇이 막겠습니까? 다만 그 낱말들은 성경 자체의 진리를 경건하고 신실하게 섬겨야 하며, 아껴서 겸손하게 쓰여야 하고 계기 없이 쓰여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런 예가 나옵니다. 믿음의 의에 관해 자주 논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지 깨닫는 이는 적습니다. 여기에 이 말을 더해 봅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요 우리의 의가 아니며, 우리 안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지만, 우리 앞으로 돌려지므로 전가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전가로 의롭다는 것, 또는 우리가 의롭지 않으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한 전가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이 평이하고 명백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정죄받은 것입니다. 어렵고 얽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장본인이신가, 악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가, 불의를 그분의 일로 여겨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덧붙여 봅시다. 같은 행위 안에서 비뚤어진 사람의 일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살펴야 합니다. 유기된 사람은 악의 뿌리를 자기 안에 박아 두고 있어서, 스스로 악을 생각하고,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꾀하고, 스스로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그 일 안에 있는 악과 허물은 무엇이든 그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는 계획과 뜻과 행위로 하나님을

거슬러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뜻과 악한 꾀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데로 굽히시고, 때로는 억제하고 조절하시며, 때로는 성공을 주시고 힘을 더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바로와 느부갓네살과 산헤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거슬러 싸웠고, 그분의 권능을 비웃었으며, 할 수 있는 한 죄 없는 백성을 박해했고, 아무 권리도 없이 폭력으로 남의 땅에 쳐들어갔습니다. CO 61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일으키셔서(출 9; 렘 5) 이 모든 일을 저지르게 하셨습니다. 다만 이미 악하게 원하고 악하게 생각하던 그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악한 뜻과 악한 꾀를 이스라엘에게로 돌리시고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당신 백성의 불경건을 보응하시려고, 때로는 구원을 더 웅장하게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이자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마귀는 멸하려고 애썼으나,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셨기 때문입니다(욥 1–2). 이렇게 앗수르는 주의 진노의 막대기였고, 산헤립은 그분 손의 도끼였습니다(사 10). 모두 그분께 부름받고, 일으켜지고, 내몰린 자들이었고, 마침내 그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사나운 욕망을 따르는 동안,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의를 섬겼습니다(렘 27).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들이 같은 일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들의 불의가 빛납니다. 이 구별로 저 얽힌 매듭이 풀립니다. 누가 끼어들어, 궤변가들이 하찮은 구별들로 자기들의 다툼을 꾸며 내므로 구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으르렁거린다면, 누가 그런 성가심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낱말이 새롭다고 나무란다면, 진리가 평이하고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만을 나무라는 그는 진리의 빛을 못마땅히 여긴다는 판단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낱말의 새로움(그렇게 불러야 한다면)은 특히 진리를 이리저리 피해 빠져나가는 중상자들에 맞서 진리를 변호해야 할 때 쓰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넘치도록 겪

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원수들을 쳐부수는 데 아주 큰 수고를 합니다. 이 미끄러운 뱀들은 힘껏 눌러 붙잡아 몰아붙이지 않으면 그토록 비뚤고 재빠르게 몸을 꼬아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옛사람들도 사악한 교리들과의 여러 싸움에 시달려,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주 정밀하고 분명하게 풀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에게 비뚤어진 도피처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낱말의 덮개가 오류의 은신처였기 때문입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한 성경 말씀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할 일을 잘 마친 사람처럼, 다른 이들과 얼마간 일치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지음받으셨고 다른 피조물들처럼 시작이 있었다고 떠벌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리저리 휘는 교활함을 은신처에서 끌어내려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consubstantialis)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아리우스파의 불경건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은 호모우시오스(ὁμοούσιος)라는 이름을 지독히 미워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라면, 그분이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직한 사람들이 작은 낱말 하나 때문에 그토록 뜨겁게 논쟁하며 교회의 평온을 어지럽혔다 하여, 누가 감히 그들을 다툼꾼이요 싸움 좋아하는 자들인 양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낱말은 순수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과 신성을 모독하는 아리우스파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뒤에 사벨리우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들이 헛되며, 어떤 구별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로 다른 속성들이라고, 그런 속성은 아주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쟁에 이르면 그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빠져

나가며 하나님을 강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다고 부른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노래를 되풀이했습니다. 성부가 성자이고 성령이 성부이며, 아무 순서도 아무 구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건을 마음에 품었던 이들은 이 사람의 악함을 꺾으려고, 반대로 한 하나님 안에 세 고유성(proprietas)을 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진리로 비틀린 교활함에 맞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참으로 실재한다고, 또는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되심 안에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실재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들이 함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이름들이 묻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되, 그러면서도 성자가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성자가 아니며 어떤 고유성으로 구별되신다는 이 믿음이 모든 사람 사이에 확고하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아리우스파에, 다른 쪽으로는 사벨리우스파에 맞서야 할 때, 두 무리에게서 빠져나갈 손잡이가 잘려 나가는 것에 화를 내는 자들은 자기가 아리우스의 제자이거나 사벨리우스의 제자라는 의혹을 적지 않게 불러일으킵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만, 지음받으셨고 시작이 있었다고 웅얼거립니다. 성부와 하나이시라고 말하지만, 몰래 자기 무리의 귀에, 다른 신자들처럼 하나일 뿐이며 다만 특별한 특권이 있을 뿐이라고 속삭입니다. 본질이 같으시다고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두 얼굴을 가진 자의 가면을 벗기게 되고, 그러면서도 성경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구별된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셋이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세 신을 말한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 낱말로 말하고, 그의

헛된 수다를 막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이름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들이 배가 터지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기는 해야 합니다. 곧 "하나"라는 말을 들을 때는 실체의 하나됨을 이해해야 하고, "셋"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 한 본질 안에서 그럼에도 세 고유성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로 그것들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성부께는 일하심의 시작과 만물의 샘과 근원을 돌리고, 성자께는 일하심의 지혜와 계획을 배정하며, 성령께는 행하심의 능력과 효력을 돌립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말씀이라 불리십니다. 사람들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부에게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 손가락, 권능이라 불리십니다. 이제 진리의 단순한 고백을 들어 봅시다.

CO 63 사도신경의 첫째 부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뢰를 아버지 하나님께 굳게 두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지음받은 모든 것 전부의 창조주로 인정합니다. 그분은 이것들을 말씀과 당신의 영원한 지혜(이분은 성자이십니다)로,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분은 성령이십니다)으로 지으셨습니다(시 33; 시 104; 행 17; 히 1). 그리고 한 번 지으셨듯이, 지금도 당신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품으시고 움직이시고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곧 무너져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전능하신 분이요 만물의 창조주라고 부를 때, 그분의 전능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행하시는 그런 전능으로, 그분의 섭리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섭리로 생각해야 합니다(고전 12; 애 3). 저 궤변가들이 꾸며 내는 것처럼 헛되고 잠들어 있고 한가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역경이든, 몸에 관한 것이든 영혼에 관한 것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온다고(다만 우리의 악함에 돌려야 마땅한 죄만은 빼고)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보호로 안전하게 지켜지고 막아지고 보존되어 어떤 원수의 힘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호 13), 마침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서 받으므로) 비록 사람들 눈에 일이 때로는 형통하고 때로는 불리해 보이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확신해야 합니다(롬 8).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가치 때문도 아니고, 그분께서 이 은혜를 갚아 주셔야 할 어떤 공로 때문도 아니며, 우리가 그분의 베푸심에 맞갚음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아버지다운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까닭은 오직 그분의 선하심입니다(롬 11). 그러므로 우리는 그토록 큰 선하심에 감사를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선하심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혀로 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감사하는 경건과 불타는 사랑으로 섬겨,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는 데 바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역경까지도, 그분의 손에서 받듯이 평온하고 잔잔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환난을 주실 때에도 그분의 섭리가 이렇게 우리와 우리 구원을 돌보신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며 호의를 품고 계심을 결코 의심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되며, 그럼에도 그분께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참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믿음을 가지도록 사도신경의 이 첫째 부분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둘째 부분.

또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고, 사흘째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되, 신자들처럼 양자 됨과 은혜로만 아들이 아니라, 본성으로 아들이시며 영원부터 성부에게서 나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독생자"라고 부를 때, 이렇게 그분을 다른 모든 이와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한에서 성부와 함께 한 하나님이시며, 같은 본성과 실체 곧 본질을 가지시고, 위격으로만 구별되십니다. 그분은 성부와 구별되는 고유한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무엇이든 여기서 굴복하고 포로처럼 붙잡혀 있어야 마땅하며, 이런 비밀들은 호기심으로 따지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사람 감각의 모든 이해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마음에 품거나 느끼거나 말하지 않도록, 자기 생각에 넘치기를 원하다가 곤두박질쳐 떨어진 이단들의 본보기가 우리를 두렵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와 함께 한 분이시며 같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압니다(히 1).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신뢰를 성부께 두듯이, 성자께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성부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 불리시는 까닭은 앞에서 말한 고유성의 구별에 있습니다. 이 구별에 따라 일하심의 시작은 성부께 돌려집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고유하게 일하신다고 말하되, 당신의 말씀과 지혜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 위격의 공동 행위가 있었음은 성부의 저

말씀이 분명히 보여 줍니다(창 1).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으로 그분은 천사들과 의논하시는 것도, 당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부르십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폭정에 매여 있었고,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으며, 몸과 영혼의 죽음의 종살이에 빠져 있었고, 영원한 형벌에 넘겨져 있었으나, 거기서 벗어나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 능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거기서 풀어 주시려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 성부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 육신을 입으셔서 그것을 당신의 신성과 결합하셨다고 고백합니다. CO 65 장차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흩어져 버렸고 우리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구름을 가로막아 놓았을 때(사 59), 누가 그분께 닿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 조상 아담과 함께 주님의 눈앞에서 떨었습니다(창 3). 천사입니까? 그러나 천사들도 자기 하나님께 붙어 있을 머리가 필요했습니다(엡 1; 골 1).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엄 자체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일은 가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사 7). 또 우리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위엄과 모든 면에서 어긋나므로,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계시고, 자기와 함께 거하시며, 자기 곁에 계신다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결합하셨듯이 우리의 인성도 당신의 신성에 결합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움은 아직 충분히 가깝지 않고 친족 관계는 아직 충분히 굳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내세우면서(딤전 2) 분명히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적어도 이 이름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처럼 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를 어디서 찾아야 하며 어떻게 그분께 이를 수 있는지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도록, 곧바로 그분은 사람이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그분은 여러분 가까이, 아니 바로 맞닿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그가 다른 곳에서(히 4) 더 뚜렷하게 설명한 것을 가리키려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이루셔야 할 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곧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옥의 상속자들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들로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지 않았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것을 받으셔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옮기시고, 본성으로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은혜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께서 우리 몸에서 몸을, 우리 살에서 살을, 우리 뼈에서 뼈를 당신께 지으셔서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유한 것이 당신께 속하기를 원하셨고, 그리하여 당신께 고유한 것이 우리에게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온전한 유업을 지니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양자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라면 유업에도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또 장차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죽음을 삼키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생명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의 자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생명이시며 의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께서 우리가 구속받기를 원하셨을 때, 당신 자신을 우리의 구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구속의 또 하나의 요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불순종으로 자기를 멸망시킨 사람이 순종으로 자기의 수치를 없애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죄의 형벌을 다 치르는 것이었습니다(롬 5). 그러므로 참 사람이신 우리 주께서 나서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인격을 입으시고 그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성부께 순종하는 자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속상으로 세우시며, 우리 육신 안에서 죄의 형벌을 다 치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신성이나 인성을 빼앗는 자들은 그분의 위엄을 모독하거나 그분의 선하심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하고 뒤엎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 기초 위가 아니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한 분이시며 같은 분이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실체의 혼합으로가 아니라 위격의 하나됨으로 그러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자기 본성의 고유성을 지니지 못할 만큼 다른 것과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몸이 아니고, 몸이 영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관해서는 따로, 몸에는 결코 해당할 수 없는 것이 말해지고, 또 몸에 관해서는 영혼에 결코 맞지 않는 것이 말해지며, 사람 전체에 관해서는 영혼에 관해 따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몸에 관해서도 어색하지 않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말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에 고유한 것이 몸에 옮겨지고, 몸에 고유한 것이 영혼에 옮겨집니다. 그렇지만 이것들로 이루어진 이는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투들은 사람 안에 두 가지가 이어져 합쳐진 한 본성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이루는 서로 다른 두 본성이 그 밑에 있다는 것을 함께 나타냅니다. 성경도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오로지 인성에만 관련시켜야 할 것을 그분께 돌리고, 때로는 특별히 신성에 맞는 것을, 때로는 두 본성을 아우르되 어느 하나에 따로는 충분히 맞지 않는 것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속성의 교류(idiomatum communicatio)를 통해 인성에 고유했던 것을 그분의 신성에, 신성에 속했던 것을 인성에 돌립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제 생각이 아니며, 분명한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관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 8)고 하신 말씀은 그분의 인성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여러 세대 뒤에야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성에 고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성부의 종이라 불리시고, 나이와 지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라셨으며, 당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오직 인성에 속했습니다(사 42; 53; 눅 2; 요 8). 그분은 하나님이신 한에서 성부와 동등하시며, 아무것으로도 더해지실 수 없고, 모든 것을 당신 자신 때문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빌 2). 신성에만 고유한 것도 아니고 인성에만 고유한 것도 아니며 둘 모두에 함께 속한 것은, 그분이 성부에게서 죄를 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워지셨다는 것입니다(눅 5; 요 5; 6; 행 10). CO 67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런 특권들을 지니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성부와 함께 이것들을 소유하고 계셨고, 이것들은 사람일 뿐인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꼴의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신성에도 인성에도 잘 맞지 않지만, 하나님과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위격에는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바울에게서 읽는,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라는 말씀(고전 15)도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작이 없었던 하나님

의 아들의 나라가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의 낮아지심 뒤에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고 만물 위에 세워지셨듯이, 당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성부께 순종하신 뒤에 높아지시고 모든 무릎이 꿇게 될 이름을 받으셨듯이, 그때에는 그 이름 자체와 성부에게서 받으신 모든 것을 성부께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빌 2).

그리고 속성 곧 고유성의 교류란, 바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당신을 위해 사셨다고 말하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행 20; 고전 2). 하나님께서는 엄밀히 말해 피를 가지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분의 인성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신성에 옮겨집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인자 말고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요 3), 분명 그때 그분은 취하신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같은 분으로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으므로, 본성들의 하나됨 때문에 한쪽의 것을 다른 쪽에 돌리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길게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의 고유성을 살피도록 어떤 방법으로도 이끌 수 없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몰아붙여 보면, 그들이 그분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오직 그분이 동정녀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일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옛날 마니교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을 읽고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물려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허튼소리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오류를 변호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씀과, 동정녀에게서 나실 바로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부르라고

천사가 명했다는 말씀을 시끄럽게 내세웁니다. 우리는 결코 두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던 분이 우리 육신을 입으셔서, 한 분이며 같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되, 본성들이 혼합되지 않고 결합되었다고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인성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다투며 허망한 반론을 내세웁니다. 동정녀에게서 사람으로 나시고 고난받으신 바로 그분, 다른 이가 아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반론으로 더는 뽐내지 못하도록, 선지자의 한 대목에서 성경의 말하는 방식을 배우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미 5).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으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나오심은 처음부터, 영원한 날들로부터이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나오심이 영원한 날들로부터라는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저 영원한 날들을 바라본다면,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계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히 1).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분을 통해 세계도 지으셨다.” 그분을 통해 세계가 지어졌다면, 분명 그분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 아들이셨어야 합니다. 아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결론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하는 것을(요 1), 사도는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두 이름을 너무도 분명하게 구별하므로, 더 버티는 것은 눈멂일 뿐 아니라 고집일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합니다(롬 1).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시고 능력으로 하나

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당신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가 아님을 넌지시 알리려 하지 않았다면, 왜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시라고 구별해서 표시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롬 9). "그들에게서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시지만, 육신을 넘어서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을 그들은 원합니까? 다시 저는 이것을 증언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로써 그분의 신성이 인성에서 찢겨 나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잘 들어맞습니다. 그토록 큰 비밀들을 마땅한 경건으로 다루는 절제 있는 해석자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미쳐 날뛰는 광란의 영들이 어지럽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인성의 속성들을 붙잡아 신성을 없애고, 신성의 속성들을 붙잡아 인성을 없애며, 두 본성에 관해 함께 말해져서 어느 하나에 따로 맞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 둘 다 없앱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이시므로 하나님이 아니시며, 사람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이시므로 사람도 하나님도 아니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참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부의 음성과 하늘의 신탁으로 그분이 그렇게 불리셨듯이,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예수이심을 믿습니다(눅 1).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이 이름이요 다른 이름이 아님을 믿습니다(행 4).[37] 또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 곧 성령의 모든 은사로 부음 받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은사들이 기름이라 불리는 것은(시 45; 89), 이것들 없이는 우리가 메마르고 열매 없이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37. 원문에는 "(Act.." 로 장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행 4:12의 말씀이므로 채워 넣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 위에 머무셨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부으셔서, 누구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참여하는 우리는 모두 그분의 충만에서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사 11; 61; 요 1). 마침내 이 기름 부음으로 그분이 성부에게서 왕으로 세워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께 복종시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시 2).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왕이 되어,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 위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벧전 2).

1536년판 제2장 믿음에 관하여(사도신경 해설) 2

CO 1:69–8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69 [38]또 우리는 그분이 제사장으로 세워지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제사로 성부를 우리에게 누그러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을 간구하시는 분이요 중보자로 모시고, 우리는 기도와 감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성부께 드립니다(계 1; 시 110; 히 5; 13).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성부에게서 우리 위에 세움을 받으신 대로, 그분을 유일한 주로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성령의 놀랍고 우리로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능력으로 거룩한 동정녀의 태에서 사람으로 잉태되셨다고 믿습니다(눅 1; 2). 그분은 그 동정녀에게서 죽을 사람으로 나셨고, 당신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우리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몸을 가장 비참한 죽음에 내주셨으며, 당신의 피를 구속의 값으로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곧 재판관의 판결로 죄인이요 악행자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최고 재판관의 법정에서 그분의 정죄로 말미암아 무죄 방면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저주받은 것이었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받아 마땅했던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려는 것이었습니다(신 21; 갈 3).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닥쳐 있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삼키려던 죽음을 삼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호 13; 고전 15). 그분은 장사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

38.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서 해방되어 죄에 대하여 장사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히 2; 롬 6). 그런데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엄격함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서시고, 우리 이름으로 그분의 의를 만족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시 22; 사 53).[39] 이렇게 그분은 당신의 불의가 아니라 (그런 불의는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의 불의에 마땅한 형벌을 갚고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그분께 언젠가 진노하셨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마 3). 성부께서 어떻게 당신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하시겠으며, 그분은 어떻게 당신께 노여워하시는 성부를 당신의 간구로 누그러뜨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엄격하심의 무게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손에 맞고 고난을 당하셔서,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표지를 겪으셨고, 그리하여 극심한 괴로움에 몰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 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림보(limbus)라는 이름이 지어 붙은 어떤 특정한 장소로 옮겨 가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 아래 살았던 조상들이 마치 감옥에 갇히듯 그곳에 붙잡혀 사슬과 사로잡힘 가운데 자기들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 내시려고 그곳의 문을 힘으로 부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큰 권위자들을 등에 업고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진리로 변호하지만, 그래도 꾸며 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키려는 자들이 늘 들이미는 베드로의 대목(벧전 3), 곧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대목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려 한 것은 다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구속의 능력이, 그때 이전에 죽은 이들의 영들에게 보여지고

39. 원문에는 "Psal. 21"(시 21)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타 역의 시편 번호로 보이므로 개역한글의 시 22로 바꾸었습니다.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늘 그분에게서 자기 구원을 기다려 왔던 신자들은 그때 그분의 찾아오심을 분명하게, 눈앞에서 보듯 보았습니다. 반대로 유기된 자들은 그분이 유일한 구원이시며 자기들은 거기서 제외되었음을 너무 늦게 깨닫고서, 자기들에게 아무 소망도 남아 있지 않음을 그때 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 구별 없이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함께 옥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마치 경건한 자들이 어떤 곤경에 묶여 갇혀 있었다는 듯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구름 그늘 아래서 멀리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이 애타는 기다림을 일종의 비유로 옥이라 부릅니다. 또 성경은 그들이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곧 그들에게 복된 삶의 시작인 안식과 평온 가운데 있다고 증언합니다(눅 16; 계 6).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며 그분께 떼어질 수 없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뜻에서 그들은 복된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뛰어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구절은 몇몇 사람이 빼 버렸지만,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일들의 가장 큰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사흘째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믿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이 본성의 법에 따라 겪는 바로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며, 참 사람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되, 이제는 죽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몸과 영혼을 다시 받아 영화롭게 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이러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죽음에서 생명의 새로움과 의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롬 6). 또 동시에, 같은 죽음을 겪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안심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사람들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요 실상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5; 행 1).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믿습니다. 이 오르심으로 그분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닫혀 있던 하늘나라의 입구를 우리에게 여셨습니다(요 14). 그분은 우리 육신을 입고, 말하자면 우리 이름으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서 소망으로 하늘을 소유하고, 나아가 어떤 의미에서 하늘에 있는 이들 가운데 앉게 하셨습니다(히 2; 엡 2). 또 우리는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거기서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만물 위의 왕이요 심판자요 주로 세워지고 선포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들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적 은사들로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고전 15; 히 2; 엡 4).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의 더러움에서 씻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 당신께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불완전함에는 끝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얻을 복에는 시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며 지옥에 맞서는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CO 71 그리고 그분이 지금 성부 곁에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성부께 나아갈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를 성부께 드리시고, 성부에게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얻어 내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언자요 중보자로서 성부께 간청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위해 성부께 간구하시고, 쉬지 않고 성부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십니다(히 7; 9; 롬 8; 요일 2).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당신 몸의 임재를 우리 눈앞에서 거두셨지만, 도움과 권능으로 당신의 신자들 곁에 계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임재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이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것을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마 28)고 하십니다.[40]

40. 원문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Matth. ult.)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이 올라가시는 것이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형체로 거기서 내려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곧 마지막 날에 그분은 당신 나라의 말할 수 없는 위엄으로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행 1; 마 24). 곧 그날이 살아 있는 채로 맞이할 자들과 이미 그 전에 죽음으로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드러낸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살전 4; 마 16).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요점 전체와 그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음을 보므로, 우리 구원의 지극히 작은 조각이라도 다른 데 놓여 있다고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가 오직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기대를 다해 그분 한 분께 매달리는 이들은 바랄 수 있는 선한 것이면 무엇이든 그분에게서 배부르도록 길어 내기 바랍니다. 앞에서 적은 이 모든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 그분의 말씀에서 굳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기다린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선한 것도 그 한 조각조차 우리에게 모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부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셋째 위격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본질이 같으시며 함께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구별되는 세 위격이 계시고 한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높고 감추어진 비밀이므로, 캐내기보다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재능의 이치나 혀의 이치와 척도에 맞추어 재어서는 안 되고, 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신뢰를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께 두고 있듯이, 성령께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의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스

도 말고 다른 길이 없듯이, 성령 말고는 우리를 성부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다른 분이 없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가 조금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며 행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통하여 아들 안에서 어디에 있든 모든 선한 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통하여 만물을 움직이시고 붙드시고 생기를 주시고 살리시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당신께로 부르시고 이끄셔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롬 8; 엡 2; 고전 12).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얼마나 엄청난 부요함을 소유하고 있는지 배우고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고전 2; 고후 13). 그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로 우리 마음을 불태우시고, 날마다 더욱더 우리 정욕의 악들을 녹여 내시고 태워 버리십니다(롬 8). 그리하여 우리 안에 어떤 선행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은혜의 열매요 덕입니다. 그러나 그분 없이 우리가 지닌 자질은 마음의 어둠이요 심령의 비뚤어짐입니다(갈).[41] 그리고 이 모든 선물은 우리의 어떤 의무 이행이나 공로에 대한 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아낌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믿으며, 그분을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의 한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거룩한 말씀을 들은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지금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그분의 일이며 능력임을 확실하고 변함없는 사실로 여깁니다. 제가 말하건대, 그것은 값없는 일입니다. 우리 공로에 무엇 하나 돌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일어나므로, 이것이 모든 이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넷째 부분.

41. 원문은 “(Gal..” 로 장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장인지 확실하지 않아 책 이름만 적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곧 천사든 사람이든 택함받은 자들의 온 수(엡 1; 골 1), 사람 가운데서는 죽은 자든 아직 살아 있는 자든, 살아 있는 자 가운데서는 어느 땅에 살든 어느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든, 그들이 하나의 교회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의 인도자요 통치자이시며, 말하자면 한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로 모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공교회, 곧 보편적이라 함은, 둘이나 셋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결합되어, 한 머리에 매달려 있듯이 한 몸처럼 자라나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몸의 지체들처럼 서로 짜여 붙어 있으며,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살며, 영원한 생명의 같은 유업으로 부름을 받아 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롬 12; 고전 10; 12; 엡 4). CO 73 교회는 또한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지도록 택함받은 자들을 주께서 누구나 다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요 17; 엡 5).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의 이 순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합니다(롬 8).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로 이끄시며 당신을 그들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로 알려 주실 때 부르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셔서, 그들이 그 의를 자기들의 완전함으로 삼아 꾸며지고 자기들의 불완전함을 덮게 하실 때,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영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 적셔 주셔서, 그 복으로 그들이 날마다 자기 육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되고 생명의 새로

움으로 중생하여 마침내 그분 앞에 완전히 거룩하고 흠 없이 나타나게 하실 때, 의롭다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나라의 위엄이 모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날 때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 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선택을 밝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선택으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을 이리로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선택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 감각에 맞추어, 이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으로 이미 나타난 선택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그들 안에서 행하신 자들을, 비록 택함받은 자가 아니었는데도 자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셉니다. 또 참으로 택함받은 자들을, 아직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지 않습니다(호 2; 롬 9; 10; 11).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저 하나이며 변하지 않는 섭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로의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롬 8).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의 백성이므로, 참으로 그 지체인 자들이 마침내 멸망하거나 악한 파멸로 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너무도 확실하고 굳은 버팀목에 기대고 있어서, 비록 세상의 온 구조가 흔들린다 해도 그 구원은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첫째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서 있으며, 저 영원한 지혜와 함께가 아니면 바뀌거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틀거리고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롬 11)이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지키게 하셔서, 그분이 그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시게 하셨습니다(요 6). 그토록 선한 보호자 아래서 그들은 길을 잃고 미끄러질 수는 있어도 결코 멸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세상이 지어진 때부터 주께서 땅 위에 당신의 교회를 가지지 않으신 때는 한 번도 없었고, 그분 자신이 약속하시듯이 세상 끝날까지 가지지 않으실 때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욜 3; 시 89; 132). 사람의 족속이 처음부터 곧바로 아담의 죄로 부패하고 더러워졌지만, 그분은 이 더러워진 덩어리 같은 데서도 늘 어떤 그릇들을 귀히 쓰도록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자비를 경험하지 않는 시대가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우리도 그 교회에 속해 있음을 확실하게 여기고, 우리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이미 부분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다른 택함받은 자들과 함께 우리도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헤아릴 수 없고, 그것을 캐내어 누가 그분의 영원한 뜻으로 택함을 받았고 누가 유기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롬 11). 그러나 우리 믿음에는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 약속으로 넉넉히 안심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들을 자녀로 인정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요 1).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를 더 바랄 만큼 악한 욕심을 품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생명과 구원과 마침내 하늘나라 자체를 찾으므로,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고도 남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 구원과 유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그분께 기대고, 그분 안에서 쉬며, 그분 안에 구원과 생명과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고 확실히 기다린다면,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두 팔을 벌려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이 파고들려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 불러일으키며, 그분 위엄의 깊은 심연 속으로 뛰어들므로 그 영광에 짓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잠 25).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영원부터,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 교회의 양 무리에 들기를 원하신 자들을 그 안에서 택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가운데 있고 교회에 속해 있다는 충분히 분명한 증거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같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변함없고 바뀌지 않는 진리이시므로, 그분의 말씀이 처음부터 그러했고 앞으로도 늘 그러할 성부의 뜻을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 준다는 것을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요 1; 14).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유하므로, 이렇게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그분 자신이 성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이시듯이, 우리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심을 받았고, 그리하여 그분의 형제요 동료가 되어 같은 유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주께서 영원부터 택하시고, 늘 보호하실 것이며, 결코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자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롬 8).

그렇지 않다면, 각 사람이 자기가 보편 교회의 지체라고 믿지 않는 한, 우리가 보편 교회가 있다고 믿는 것은 헛되고 아무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관해 그들이 교회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판정하고, 택함받은 자들을 유기된 자들과 가려내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바울이 증언하듯이(딤후 2), 누가 당신의 백성인지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솔함이 그리로

내닫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 자체로, 주님의 판단이 우리 감각을 얼마나 멀리 넘어서는지 깨우침을 받습니다. 가장 타락해 보이고 아주 가망 없어 보이던 자들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길로 다시 부름을 받고, 다른 이들보다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던 자들이 자주 넘어집니다. 누가 끝까지 견딜지는 하나님의 눈만이 보십니다(마 24).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요점입니다(마 16). 그리스도께서 당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땅에서 푼 것과 맨 것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인다고 단언하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누가 교회에 속하고 누가 교회와 무관한지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약속으로 그분은 매인 자들과 풀린 자들을 공공연히 가리켜 우리 눈앞에 두는 어떤 외적 표지를 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을 약속하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과 해방으로 제시되는 복음의 약속을 땅에서, 곧 이 삶에서 사람에게서 전파받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제가 말하건대, 하늘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와 그분의 심판에서 참으로 풀리고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멸시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슬에, 나아가 자기 정죄에 머문다는 증언이 그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을 우리가 믿음의 확실성으로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표지들을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 표지로 택함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기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서 구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과 삶의 본과 성례 참여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일종의 사랑의 판단으로 택함받은 자들이요 교회의 지체들로 여겨져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품행에 어떤 불완전함이 남아 있더라도 그렇습니다(여기서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들이 자기 악에 지나치게 만족하고 우쭐해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의 인도로 늘 더 나아져서 마침내 모든 불완전함을 벗고 택함받은 자들의 영원한 복에 이르리라는 좋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표지와 증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규정해 줍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에서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 자들, 또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우리가 보는 바, 평생 흉악하고 타락하여 죄짓는 쾌락에 취하고 자기 악 속에서 잠든 자들처럼), 이런 자들은 모두 자기 표지로 자기가 지금으로서는 교회의 지체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출교는 이런 쓰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짓으로 내세우면서도 삶의 사악함과 고삐 풀린 죄의 방종으로 교회의 걸림돌일 뿐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자격이 없는 자들을, 출교로 신자들의 교제에서 끊어 내고 쫓아내려는 것입니다(고전 5; 마 18; 딤전 1).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름이 불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의 거룩한 교회가 악행자들과 공공연히 사악한 사람들의 결탁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잦은 사귐으로 비뚤어진 삶의 본을 보여 다른 이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자신이 부끄러움에 당황하여 자기 추함을 뉘우치기 시작하고, 그 회개로 마침내 정신을 차리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한 그 알아봄의 규칙에 따라, 그때에는 교회와 무관한 자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마치 하나님의 손 밖으로 내던져진 자들처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 택함받은 자들의 수에서 지워 버리거나 이미 멸망한 자처럼 포기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받은 것이 확실한 자들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일부러, 작정한 악의로 진리를 공격하여 복

음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꺼 버리며 성령을 거스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들에 관해서는 이미 주님의 입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드물어서(알아챌 수 있기나 하다면), 계시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함부로 앞지르지 않는 것이 더 건전한 판단입니다(마 12; 히 6; 10; 요 5; 고전 4).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긋고 그분의 자비에 법을 정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판단하는 데서 더 많은 방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맙시다. 그분께서는 좋게 여기실 때마다 가장 악한 자들을 가장 선한 자들로 바꾸시고, 남이던 자들을 접붙이시며, 이방인이던 자들을 교회에 받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사람들의 생각을 비웃으시고 그 경솔함을 꺾으셔서, 그들이 마땅한 것 이상으로 판단할 권리를 감히 가로채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행동과 말을 가장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의심 많은 자들이 늘 하듯이 비뚤게, 나쁜 쪽으로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마 7; 롬 12; 14; 살전 5; 히 12). 만일 어떤 이들이 너무 비뚤어져서 자기를 좋게 생각해 줄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에 부탁하며,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그들에게서 바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공평과 인내로 서로를 견디며 평화와 사랑을 기르고, 하나님의 더 은밀한 심판에 어리석게 뛰어들어 오류의 어둠에 우리 자신을 휘감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결정에 달려 있는 사람 자체를 죽음에 넘기지 말고, 다만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선과 악의 규칙인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평가합시다.

출교도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교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양무리에서 끊어지는 자들을 구원의 소망에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 삶의 더러움에서 돌이켜 길로 돌아올 때까지 다만 징계하는 것입니다. CO 77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고전 5). 그는 한 사람을 육신이 멸하도록 사탄에게 내주어 주의 날에 영이 구원을 얻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를 일시적인 정죄에 던져 영원히 구원을 얻게 했다는 뜻입니다(고전 5; 살후 3).[42]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으로 출교된 자들과 더 가까이 사귀거나 더 깊은 친교를 나누는 것은 허락되지 않지만, 우리는 권면과 가르침으로든, 너그러움과 온유함으로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힘써서, 그들이 더 나은 열매로 돌이켜 교회의 교제와 하나됨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만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튀르크 사람들과 사라센 사람들과 참된 경건(religion)의 다른 원수들도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43] 그러니 많은 이가 지금까지 그들을 우리 믿음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써 온 방법들은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곧 그들에게 물과 불과 저 공동의 원소들을 금하고, 인간다운 모든 도리를 거절하며, 칼과 무기로 박해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 불확실한 동안에는 누가 교회에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지 하나하나 판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들려지며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는 곳이면 어디서나,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교회가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약속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마 18).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 이보다 더 확실한 다른 앎은 가질 수 없고, 누가 교회에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지 달리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믿음으로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자체를 믿는다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눈앞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기 때문

42. 원문은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장"(2 Thess. ult.)입니다.
43. 사라센 사람들(Saraceni)은 중세 유럽에서 이슬람교도, 특히 아랍 사람들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우리 감각에 드러나거나, 일정한 공간에 갇히거나, 어떤 자리에 고정되어야 할 육적인 것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곧 보편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택함받은 자들 사이에 모든 좋은 것의 서로 나눔과 참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바울이 성령의 은사가 나뉘어 여러 가지로 나누어 주어졌다고 가르치듯이)(고전 12)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이 국가의 제도에 따라 소유한 자기 것을 바르고 질서 있게 가지는 것(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는 사람들 사이에 소유가 구별되어야 하므로)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들의 공동체가 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영과 몸의 이런 모든 좋은 것을 공평한 한에서, 그리고 필요가 요구하는 만큼, 너그럽게, 마땅한 사랑으로 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든 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비록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것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졌더라도, 모든 이가 참으로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롬 12; 고전 12). 한 몸의 지체들이 어떤 공동체로 서로 모든 것을 나누면서도 각각 자기의 고유한 자질과 구별된 직분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한 몸으로 모이고 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편 교회,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입니다(엡 1). 이렇게 우리는 바로 앞 조항에서 교회를 믿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하다고 믿는지를 참으로 밝힙니다. 이 부분을 어떤 이들은 건너뛰고, 어떤 이들은 다른 뜻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실하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믿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공로가 개입하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교회의 몸에 받아들여지고 접붙여진 우리에게 죄 사함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나,

다른 이들에게는 결코 죄 사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행 10; 요일 2; 사 33). 이 교회와 이 성도의 교제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자체가 이 죄 사함으로 서 있고 존속하며, 이것을 기초로 삼아 떠받쳐져 있습니다(호 2). 죄 사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사함만이 우리에게 교회(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당신의 거처로 거룩하게 하신 장막입니다)로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 주고, 우리를 그 안에 붙들어 두며 지켜 줍니다(시 46; 87; 딤전 3). 그런데 신자들이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이럴 때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를 의식하여 짓눌리고 괴로워하고 당황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느껴 놀라 떨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며, 마치 무거운 짐 아래서처럼 신음하고 애쓸 때, 그리고 죄에 대한 이 미움과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자기 육과 자기에게서 나온 모든 것을 죽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몸의 감옥에 머무는 동안 이 회개를 끊임없이 이어 가므로(그래야 마땅합니다), 거듭거듭 끊임없이 저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이렇게 공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이 순서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좋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자기 자신의 가난을 깨달아 모든 교만을 벗고 자기를 온전히 낮추어 자기 자신을 아주 하찮게 여길 때, 그때에야 비로소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내미시는 자비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면 그들은 숨을 돌리고 스스로 위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복된 구원을 안심하고 자기에게 약속합니다. 반대로, 이런 단계를 밟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돌쩌귀인 이 죄 사함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눅 16). 그들이 비록 행위의 찬란한 웅장함으로, 기적에 이를 만큼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더 큰 거룩의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일수록 더욱 그러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은 저 헛된 행위의 광채에 자주 멀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곧 모든 사람의 몸이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에서 죽지 않을 것으로 한꺼번에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고전 15; 살전 4; 행 23).[44] 그리고 전에 생을 마친 이들은, 그 몸이 벌레에게 갉아 먹혔든, 땅에서 썩었든, 재가 되었든, 다른 어떤 방식으로 흩어졌든, 자기 육신을 다시 받을 것입니다. 그때 살아 있는 채로 발견될 이들도 자기 육신의 썩음을 벗고, 모두 순식간에 변화하여 죽지 않는 본성으로 옮겨 갈 것입니다. 경건한 이들은 생명의 영광으로, 유기된 자들은 죽음의 정죄로 옮겨 갈 것입니다(마 25).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곧 그때 주께서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된 당신의 백성을 복 가운데로 받아들이시고, 그 복은 끝없이 이어지며 모든 변화나 썩음의 운명 밖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빛과 의에 이르는 참되고 온전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 떼어질 수 없이 붙어 있을 것인데,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것들의 충만을 당신 안에 품고 계십니다(고전 15). 그 복은 모든 광채와 기쁨과 능력과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사람의 감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며, 바울이 말하듯이(고전 2)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들입니다. 반대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섬기지도 않은 불경건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과 그분 나라에 아무 몫도 없을 것이므로,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기쁨과 능력과 하늘 나라의 다른 좋은 것들 밖에서,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고통으로 정죄받아, 죽지 않는 벌레에게 갉아 먹히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탈 것입니다(마 22; 사 66; 막 9).[45]

44. 원문에는 “1 Cor. 16”(고전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다루는 고전 15장의 잘못으로 보고 바로잡았습니다.
45. 원문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Ies. ult.)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마땅합니다. 곧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이 모든 일이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에게도 일어나리라고 확실히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변함없는지를 나타내고, 모든 사람이 각자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세우며 자기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으로 자기를 굳게 하도록, 고백 전체가 "아멘"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 말은 검증된 확실성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라고 보인 이 살아 있는 믿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 믿음은 결코 한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망과 사랑을 동반자로 함께 가집니다. 이것들이 아주 없다면, 우리가 믿음에 관해 아무리 유창하고 화려하게 논한다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소망이나 사랑에서 우리 안에 생겨나기 때문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이 늘 믿음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망에 관해 증명해 봅시다. 들은 바와 같이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며, 그 진리는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도, 우리를 속일 수도, 헛될 수도 없는 것이라면, 이 확실성을 품은 이들은 분명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 약속들은 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하셨다고 믿은 것들을 기다리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믿고, 소망은 그분께서 때가 이르면 당신의 진리를 보이시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라고 믿고, 소망은 그분께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고, 소망은 그것이 언젠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은 소망이 기대는 기초이며, 소망은 믿음을 기르고 떠받칩니다. 아무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서는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듯이,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참고 바라며 기다림으로 그것을 떠받치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에 관해서도 증명은 조금도 덜 분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부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부 앞에서 죄 사함이요 의요 평화요 화목이실 뿐 아니라 성화이시며 생수의 샘이시므로, 믿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 안에서 사랑을 찾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선물이요 열매이며 그분의 성화의 일입니다(갈 5). 보십시오, 소망과 사랑이 둘 다 똑같이 믿음에서 생겨나 자라나며, 떼어질 수 없는 끈으로 믿음에 결합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관해서는, 방금 소망에 관해 가르친 것, 곧 그것으로 믿음이 길러지고 보존되며 굳건해진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소망에 고유한 것입니다. 소망은 잠잠히 참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믿음을 붙들어 너무 서두르지 않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사 28).

사랑의 성격은 이와 아주 다르며, 이런 것과 닮은 데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고전 13), 곧 어떤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늘 들이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사랑 없이도 어떤 믿음, 그들이 "형태 없는 믿음"(fides informis)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증명하려 하지만, 그 대목에서 사도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앞 장에서 성령의 여러 은사를 논하며 그 가운데 능력, 각종 방언, 예언을 두었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더 좋은 것, 곧 하나님의 교회에 더 많은 열매가 돌아가는 것을 추구하라고 권한 뒤에, 자기가 더 뛰어난 길을 보여 주겠다고 덧붙입니다. 곧 이 모든 은사는 그 자체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랑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어졌으며, 거기에 쓰이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그는 나누어 열거하는 방식을 써서, 앞에서 하나

하나 들었던 바로 그 은사들을 다른 이름으로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그는 능력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곧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능력이든 기적의 믿음이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방언의 은사나 예언이나 다른 은사들처럼 누구든 남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아주 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의 예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졌지만 결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눅 10).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대목과 같은 장에 이어지는 다른 대목에서, 사랑이 소망과 믿음보다 크다는 것을 내세워, 우리가 믿음보다 오히려 사랑으로, 곧 그들 말로 더 뛰어난 덕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궤변은 아무 어려움 없이 씻겨 나갑니다. CO 81 우리는 처음에 말한 것이 참된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목은 우리도 참된 믿음에 관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가 사랑이 그 믿음보다 크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넓게 미치며, 더 많은 이를 섬기고, 늘 살아 있는 반면, 믿음의 쓰임은 한때만 있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 도대체 건전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누가, 거기에서 사랑이 더 의롭다 함을 얻게 한다고 추론하겠습니까? 의롭다 하는 힘은 행위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으며, 믿음은 이 자비를 붙잡으므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한다고 말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말다툼꾼이 아직도 끼어들어, 왜 제가 그토록 짧은 사이에 믿음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받아들이느냐고 묻는다면, 이 해석에는 가볍지 않은 이유가 제게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저 은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하므로 어떤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 아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모두 요약하여(κατ᾽ ἀνακεφαλαίωσιν)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름 아래 아우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통역의 은사도 지식도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에서 믿음과 소망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과 소망을 말할 때 이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른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이 남는다. 곧은사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모든 것이 이리로 돌아가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 등등.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령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자비로가 아니면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시작되거나 서 있을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고전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나 사랑이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끼면, 그 전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돌립시다. 그리고 마음과 입으로(특히 마음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날마다 더 낫게 자라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가 이 삶에 있는 동안 그것들이 끊임없이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은 우리에게 가장 좋게 될 때에도 길이요 나아감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완전함이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이를 때까지 그러합니다.

1536년판 · 제3장 기도에 관하여
(주기도문 해설)

1536년판 제3장 기도에 관하여(주기도문 해설) 1

CO 1:81–9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81 기도에 관하여. 여기서 주기도문도 풀이합니다.

지금까지 논한 것들에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모든 선한 것을 잃고 비어 있는지, 구원의 모든 도움이 그에게 얼마나 없는지를 분명히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궁핍을 도울 도움을 찾는다면, 자기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설명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기꺼이, 아낌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참 대신 모든 복을, 우리의 궁핍 대신 부요를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열어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 전체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대 전체가 그분께 달려 있으며, 우리의 소망 전체가 그분 안에 붙어 그분 안에서 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밀하고 감추어진 철학이며, 삼단논법으로 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당신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하신 사람들은 이것을 철저히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넉넉하심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으니, 이는 우리 모두가 가장 풍성한 샘에서 길어 내듯 거기서 길어 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골 1; 요 1).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분 안에 있다고 배운 것을 그분 안에서 찾고 기도로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이시고

베푸시는 분이시며 당신께 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께 나아가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가 땅에 묻혀 감추어진 보화를 누가 가르쳐 주었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것은 앞에서 지나가며 말했을 뿐이고 가볍게 건드렸을 뿐이므로, 이제 더 자세히 다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른 기도의 첫째 법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곧 우리는 우리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 존귀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벗어 버리며,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에서 물러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선지자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웁니다(단 9). "우리가 주 앞에 간구를 쏟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소서. 주의 이름이 주의 백성과 주의 거룩한 곳 위에 불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도 이렇게 씁니다(바룩 2).[46] "악이 너무 커서 슬프고 황폐한 영혼, 굽고 약한 영혼, 주린 영혼과 흐려지는 눈이, 주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47] 우리가 주 앞에 간구를 쏟고 주의 얼굴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의를 따라서가 아닙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긍휼하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 법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궁핍을 참으로 느끼고, 우리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그분께 얻으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다른 느낌이나 마음이 있다면, 우리 기도는 꾸민 것이요 불순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누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46. 바룩서는 로마 가톨릭이 정경으로 받는 외경 가운데 하나로, 개역한글판에는 없습니다.
47. 원문은 "anima ^Bunelica"로 깨져 있습니다. 바룩서 2:18의 "anima esuriens"(주린 영혼)로 보고 옮겼습니다. [원문의심]

확실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한다면, 그는 자기 위선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CO 83 다음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들은 큰 열망의 뜨거움과 열기로 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할 때, 우리는 그 거룩히 여김을 (말하자면) 뜨겁게 주리고 목말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의 짐에 눌려 허덕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얻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비어 있음을 본다면, 이 느낌이 우리를 겁주어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 자신을 그러한 자로 생각하고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눅 17).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것을 대단하게 여기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난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슬피 아뢰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허물없이 자기 하소연을 털어놓듯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 느낌은 우리를 더욱 기도로 몰아대는 박차와 채찍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 궁핍을 아는 지식에 두 가지를 더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기도에 힘쓰도록 세차게 재촉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계명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으리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계명은 거듭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내게로 오라”, “나를 찾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율법의 셋째 계명, 곧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금하는 계명에서도 그렇습니다(눅 11; 요 16; 마 7, 11; 슥 1; 시 50; 출 20). 우리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금지를 받음으로써, 동시에 그 이름을 영광 가운데 일컬으라는 명령도 받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능력과 선과 도움과 보호의 찬양을 그분께 돌리되, 바로 이것들을 그분께 구하고 기대함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필요가 우리를 몰아붙일 때 우리가 그분께 피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 내는 것과 다름없이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멸시할 때와 똑같이 그분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분을 부르고 찾고 찬양을 돌리는 사람들은 큰 위로를 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께 기쁘신 일을 하는 것이요 그분의 뜻을 섬기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이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풍족히 먹이리라”,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 7; 눅 11; 요 16; 막 11).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의심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한 것을 얻게 하는 것은 기도의 공로나 가치가 아니고, 얻을 소망 전체가 이런 약속에 놓여 있고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사 65; 렘 29; 시 50, 91; 마 11).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비록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어떤 성도가 우리보다 더 큰 삶의 거룩함을 갖추었더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 똑같이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도 그들이 들으심을 얻은 것 못지않게 들으심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라는 같은 계명과 얻으리라는 같은 약속으로 갖추어지고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값을 사람의 품위로 매기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매기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별로 안심하지 못하여 그분의 진실하심을 의심하고, 그리하여 들으심을 얻을지 의심하고 망설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입니다(약 1). 그는 그들을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 흔들리는 물결에 비

깁니다. 다음으로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되리라고 단언하시므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마 8, 9; 막 11). 그런데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 나설 만한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꺾을 수밖에 없던 이 낭패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와 중보자가 되시니, 우리는 그분의 인도로 아버지께 안심하고 나아갑니다(딤전 2; 요일 2; 히 8, 9). 또 우리는 이런 간구하시는 분을 신뢰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거절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께는 아무것도 거절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히 4). 또 하나님의 보좌는 위엄의 보좌일 뿐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니,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온갖 담대함을 품고 그 앞에 나타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법이 세워지고 부르는 자들이 들으심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요 14, 16).

여기서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을 완고하게 어기고 그분의 뜻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무엇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하나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듯이(고후 1)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그 약속들은 그분 안에서 확증되고 성취됩니다. 더욱이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도록 허락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통로이시니(요 14), 이 길에서 벗어나고 이 통로를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이르는 아무 길도 통로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분의 보좌에서 진노와 심판과 두려움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끝으로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우리의 머리와 인도자

로 인치셨으므로(요 6), 어떤 식으로든 그분에게서 벗어나거나 비껴가는 사람들은 힘닿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찍으신 표를 지우고 위조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살아 있는 성도들에 관해서는, 오직 길이신 그리스도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다른 길이 있다거나, 그들이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꿈꾸지 맙시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한 분께로 불러들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다시 모으기를 원하시므로(골 1; 엡 1), 성도들을 통한 통로를 우리에게 만들어 내려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 통로는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마련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CO 85 게다가 성도들은 자기들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한 뜻에 돌리고 그 뜻을 바라보며 그 뜻 안에서 쉬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기도 말고 다른 기도를 돌리는 사람은 그들에 관하여 어리석고 육적으로, 게다가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경건한 자들의 구원으로, 그리고 유기된 자들의 혼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몫을 가지고 그분 나라의 한 부분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의 기도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 편에 서 있으며, 저 성도들을 지체로 삼는 온 교회가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안심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의 기도에 자신을 부탁할 수 있다고 해서(딤전 2; 약 5), 곧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 일은 그들 안에 사랑을 기르는 직무에 이바지합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필요를 이를테면 나누어 지고 서로 떠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죽은

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사는 자리에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묶여 있으므로 우리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늘 살아 있지만, 혀로나 귀로나 주고받는 교통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고전 13). 달리 단언하는 것은 우리 머리의 술 취한 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분의 감추어진 판단 속으로 뚫고 들어가 부수고 들어가려 하고, 성경을 짓밟으려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육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원수라고 몇 번이나 선언하고, 우리 생각의 허망함을 송두리째 정죄하며, 우리의 모든 이성을 엎드러뜨린 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신 12). 그런데 바로 이 뜻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내놓고, 우리를 그분께 보내며, 그분 안에 세웁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입이시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시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봅니다. 우리의 오른손이시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분이 중보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과 상관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만의 수호자를 골라 뽑고, 그들의 어떤 특별한 추천으로 도움을 받으리라고 바라는 사람들은 그들을 적지 않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앞에서 말했듯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굳고 흔들림 없이 지니고 있는 저 유일한 소원, 곧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를 섬기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더 기울어지는 육적인 감정을 그들에게 덧씌우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자기의 중보자로 삼는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모자라시거나 자기들에게 너무 엄하시기라도 한 듯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유일한 중보자라는 칭호를 그분에게서 빼앗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한 특권으로 이 칭호를 받으셨으니, 이 칭호는 다른 누구에게로도 옮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으로 그들은 그분 탄생의 영광을 가리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며,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거나 당하신 모든 것에서 그 찬양을 벗기고 빼앗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만이 중보자이시고 중보자로 여겨지시도록 하는 데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아버지로 보여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기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향해 형제의 정을, 그보다 더 부드러운 것은 있을 수 없는 그 정을 품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것을 아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도들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는 기록을 자주 읽는다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왜 들으심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시 22). "그들이 주를 의지하였고 구원을 얻었으며, 부르짖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의 본을 따라 기도하여 그들처럼 들으심을 얻읍시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함과는 반대로 거꾸로 추론합니다. 한번 들으심을 얻은 자들 말고는 아무도 들으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얼마나 더 낫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약 5).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엘리야의 어떤 특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을 가르쳐,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도록 권합니다.

기도에는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이는 뜻으로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간구와 감사입니다. 간구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심에 구하되, 먼저 오직 그분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우리의 쓰임에도 유익한 것들을 구합니다(딤전 2). 감사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택을 인정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어디에 있든 선한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심에서 받은 것으로 돌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입

장에서 이렇게 쓰면서 이 둘을 한 절에 담았습니다(시 50).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둘은 우리가 끊임없이 써야 합니다(눅 18, 21; 엡 5). 우리의 궁핍이 그토록 크고, 그토록 큰 곤궁이 사방에서 우리를 몰아대고 짓누르므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거룩한 사람들에게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한숨지으며 간절히 그분을 부를 까닭이 넉넉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택이 그토록 크고 그토록 넘치게 베풀어져 우리를 거의 덮어 버리고, 어디를 보든 그분의 그토록 많고 그토록 큰 기적들이 보이므로, 우리에게는 찬양과 감사의 이유와 재료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풀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충분히 증명했듯이)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모든 부요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놓여 있어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그분의 복 주심 없이는 잘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부탁해야 합니다(약 4). 다음으로 우리가 의논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손과 뜻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소망 아래에서 의논하고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누구를 신뢰하여 계획을 꾸미고 정하는 자들, 그분의 뜻 밖에서, 그분을 부르지도 않고 무슨 일을 꾀하거나 시작하려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선언되기 때문입니다(사 30, 31). CO 87 또 그분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으므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여겨 끊임없이 감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분의 넉넉하심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생겨나는 그분의 은택들을 누리면서, 그분의 찬양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일에도 끊임없이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은택을 누릴 정당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증언하면서(딤전 4), 동시에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그는 환유법으로 말씀이라는 말에 믿음을 담아 뜻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는 까닭입니다(살전 5; 딤전 2). 그는 모든 때에,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은 모든 것을 그분께 기대하고 모든 것의 찬양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이유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끊임없음은 각 사람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기도에 관한 것이고, 교회의 공적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적 기도는 끊임없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 사이의 공통된 합의로 정해진 질서를 따르는 것 말고 달리 행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간도 약속되고 미리 정해집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의 쓰임에는 필요한 것이니, 모든 사람의 편의를 돌보고 (바울의 말대로) 교회에서 모든 것이 적당하게 질서 있게 행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고전 14).

이것을 위하여 공적인 장소도 정해졌으니, 우리가 성전(templa)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감추어진 자기 거룩함으로 기도를 더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신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의 설교를 듣고 성례를 받으려고 함께 모일 때 그 회중을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말하듯이(고전 3, 6; 고후 6)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려 한다면 우리 자신 안에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가 성전에서 자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여기거나, 장소의 거룩함 때문에 기도가 더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우둔함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며, 장소를 조금도 가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명령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육적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요 4).

그런데 앞에서 이미 기도의 목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 찬양을 고백하기도 하고 도우심을 간청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여기서 기도의 주된 부분은 지성과 마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 자체가 본래 속마음의 감정이며, 그것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가장 좋은 법을 주시려 하실 때, 골방에 들어가 거기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마 6). 그분은 기도를 허영스럽게 과시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위선자들의 본에서 우리를 떼어 놓으신 뒤, 무엇이 더 나은지를 곧 덧붙이십니다. 곧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분은 (제가 풀이하기로는) 우리가 온 생각을 다하여 우리 마음속으로 내려가 들어가도록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정에 가까이 계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분의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른 장소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부정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어떤 은밀한 것이어서 무엇보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염려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음의 고요함을 가장 크게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분명한 것은, 기도에 목소리나 노래가 들어가더라도 마음 깊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무게도 없고 털끝만큼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입술 끝과 목구멍에서만 나온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남용하고 그분의 위엄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단언하십니다(사 29; 마 15). “이 백성이 입으로 내게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또 “그들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으로 나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리니, 그들의 지혜자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그 장로들의 명철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목소리나 노래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마음의 감정을

뒤따르고 그것을 섬기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지성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단련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붙들어 줍니다. 지성은 미끄러운 것이어서 쉽게 느슨해지고 여러 가지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몸의 각 지체에서 어떻게든 빛나야 하므로, 특히 혀가 노래로든 말로든 이 직무에 바쳐지고 드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혀는 특별히 하나님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전파하라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혀를 가장 크게 쓰는 것은 신자들의 모임에서 드리는 공적 기도입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우리가 한 영과 같은 믿음으로 함께 섬기는 하나님을 한목소리로, 이를테면 모두 한 입으로 함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도 드러내 놓고 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받고 그 본을 따르도록 초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 기도는, 지금까지 곳곳에서 해 온 것처럼 라틴 사람들 가운데서 헬라어로, 프랑스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가운데서 라틴어로 드려서는 안 되고, 온 회중이 두루 알아들을 수 있는 백성의 말로 드려야 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공적 기도는 온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드려야 마땅한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에서는 아무 열매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적어도 바울의 권위에는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그의 말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고전 14). “네가 영으로 축복하면 무식한 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네 축복에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 CO 89 너는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공적 기도에서든 사적 기도에서든 마음 없는 혀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성이 생각하는 것의 힘과 뜨거움은 혀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넘어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적 기도에는 혀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속마음이 그 자체로 스스로를 일깨우기에 충분하므로, 가장 좋은 기도들이 때로는 소리 없이 드려지기도

합니다. 모세와 한나의 본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출 14; 삼상 1).

이제는 기도하는 더 확실한 방법뿐 아니라 그 꼴 자체도 배워야 합니다. 곧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신 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마 6; 눅 11). 그분은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로 피하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당신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권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난이 얼마나 비좁은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셨으므로, 우리의 이 무지에도 맞서 주시고, 우리 깨달음에 모자란 것을 당신의 것으로 채우시고 넉넉히 메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 형식문을 써 주셔서, 그 안에 마치 판에 새겨 보이듯 우리가 그분께 구해도 되는 모든 것,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 구해야 할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이 자비하심에서 우리는 큰 위로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거의 그분의 입에서 받아 구하는 것이니,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도 어리석지 않고, 하나도 낯설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그분께 기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꼴 또는 규칙은 여섯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곱 항목으로 나누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까닭은, 누가복음에는 여섯 간구만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기도를 불완전하게 남겨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일곱째 자리에 덧붙은 것은 여섯째 간구를 풀이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간구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하고, 또 모든 간구가 우리에게 유익하며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만, 앞의 세 간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이 세 간구에서는 흔히 말하듯 우리 이익은 조금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그분의 영광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머지 세 간구는 우리를 돌보는 것이며, 본래 우리 쓰임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데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할 때에는 우리 이익을 조금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앞에 두고 눈을 모아 그것 하나만 바라보아야 하며, 이런 간구에서는 달리 마음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의 성화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눈은 이런 유익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감겨 있어야 하고, 결코 그쪽을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설령 우리의 사사로운 유익에 대한 소망이 모두 끊어진다 해도, 우리는 이 거룩히 여김과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다른 것들을 바라고 기도로 구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와 바울의 본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출 32; 롬 9). 그들은 지성과 눈을 자기 자신에게서 돌려, 격렬하고 불타는 열심으로 자기 자신의 멸망을 구하였으니, 자기를 잃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할 때에는 우리 이익이 되는 것을 바라지만, 여기서도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구하지도 않을 만큼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바로 문턱에서 앞서 말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기도가 그분께 추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자녀로 양자 되지 않았다면, 누가 무슨 신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예를 자기 것으로 가로챌 만큼 무모함에 빠지겠습니까? 그분은 참 아들이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형제로 주어지셨으니, 이는 그분이 본성으로 지니신 고유한 것이 양자 삼으심의 은택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 1).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서도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름의 이토록 큰 다정함으로 그분은 우리에게서 모든 불신을 거두어 가십니다. 아버지에게서보다 더 큰 사랑의 정을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분이 선하심과 긍휼하심에서 모든 사람을 뛰어넘으시는 만큼, 우리 부모의 모든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납니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아버지들이 모두 아버지다운 정을 다 벗어 버리고 자녀들을 버린다 해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랴" (마 7).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아들이 아버지의 잔혹함이나 궁핍함을 원망하지 않고는 낯선 남의 보호로 갈 수 없듯이, 우리도 그분께 궁핍과 힘의 모자람을, 또는 잔혹함과 지나친 엄격함을 탓하지 않고는 그분 말고 다른 데서 도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아는 양심 때문에 겁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핑계 대지도 맙시다. 죄가 아버지를, 비록 선하고 온유한 아버지라도, 우리에게 노하시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 사정을 변호하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얻는 데, 스스로 간청하며 엎드려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자비를 비는 것보다 더 나은 변호인도, 더 나은 중개인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간청에 움직이지 않는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O 91 하물며 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고후 1)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당신께 간청하는 자녀들의 눈물과 탄식을, 다른 이들의 어떤 변호보다 오히려 더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분 스스로 우리를 거기로 초대

하시고 권하시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보호로 피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온유하심과 너그러우심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넘치는 아버지의 온유하심을 비유로 그려 보여 주십니다(눅 15). 거기서 아버지는 자기에게서 떠나 자기 재산을 방탕하게 허비하고 자기에게 무겁게 죄를 지은 아들을 두 팔 벌려 껴안습니다. 그는 아들이 말로 용서를 구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앞질러,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스스로 달려가 맞으며, 위로하고 은혜 가운데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사람에게서 이런 큰 온유함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비록 배은망덕하고 반역하는 악한 자녀일지라도 그분의 긍휼에 우리 자신을 던지기만 하면, 아버지일 뿐 아니라 모든 아버지 가운데 단연 가장 선하고 가장 너그러운 아버지이신 당신에게서 얼마나 더 넘치는 온유함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이심을 더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그분은 그저 아버지가 아니라 콕 집어 "우리"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분께 이렇게 아뢰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그토록 큰 사랑과 그토록 쉽게 용서하시는 마음을 지니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께 아무리 합당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아버지의 정 말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으심을 안심하고 온전히 확신합니다." 또 우리가 각자 자기 아버지를 따로 부르도록 배우지 않고 오히려 모두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배운다는 데서,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공통된 자녀인 우리 사이에 형제 사랑의 정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를 일깨움 받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선한 것이면 무엇이든 그분에게서 오는 한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시다면, 우리 사이에는 나누어 갈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야 마땅하고, 필요가 요구하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서로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래야 하듯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면, 형제들을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의 돌보심과 섭리에 맡기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보이시면 아무것도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도 드려야 할 의무입니다. 어떤 집의 아버지를 참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의 온 집안을 사랑과 호의로 품듯이, 우리도 이 하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열심과 정을 그분의 백성, 그분의 가족, 마지막으로 그분의 기업을 향해 드러내야 마땅합니다. 그분은 이 기업을 그토록 존귀하게 하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충만이라고 부르셨습니다(엡 1).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 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곧 그 기도는 공동의 것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제인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그가 그런 자로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들에 관해 무엇을 정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어떤 특별한 정으로 더 기울어져야 합니다. 사도가 모든 일에서 특별히 그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였습니다(갈 6). 요컨대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집에 세우신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과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따로 기도하는 것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데서 떠나거나 비껴가지조차 않고 모든 것을 거기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기도는 따로 드려지더라도 그 목표로 향하므로 공동의 기도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유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의 궁핍을 덜어 주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는 줄 알거나 보는 사람들의 궁핍을 그 목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보다 가볍지 않은 필요에 눌린 많은 사람을 지나치더라도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대 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이 공동의 교제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이런 개별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적인 마음으로, 그러나 개별적인 말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른 이들의 필요를 그들에게 더 가까이 알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와 재물을 베푸는 일이 모든 점에서 같지는 않습니다. 베푸는 너그러움은 우리가 그 궁핍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에게만 행해질 수 있지만, 기도로는 아무리 먼 땅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가장 낯설고 가장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담는 저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문으로 이루어지며, 그들도 그 자녀들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곧바로 그분이 하늘의 둘레 안에 마치 어떤 울타리 안에 갇히고 둘러막혀 매여 계신다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도 하늘들의 하늘이 그분을 담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왕상 8 참조),[48] 그분 자신도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사 66; 행 7, 17). 이로써 그분은 당신이 어떤 정해진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것에 두루 퍼져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 지성은 그 우둔함 때문에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달리는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하늘로 표시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늘보다 더 장엄하거나 위엄으로 가득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이 능하시고 높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CO 93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생각을 더 높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분에 관해 땅에 속하거나 육적인 것을 조금도 꿈꾸지 않고, 그분을 우리 잣대로 재지 않으며, 그분의 뜻을 우리 감정에 맞추지 않도록 말입니다.

48. 원문에는 "1 Reg."로만 되어 있고 장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왕상 8:27)를 가리키므로 장을 보충했습니다.

첫째 간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이 권능은 그분의 모든 능력, 곧 그분의 힘, 지혜, 의, 긍휼, 진실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크시고 놀라우신 것은 그분이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능하시고, 참되시기 등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엄이 이런 능력들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분께는 그분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더해지거나 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위엄이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 곧 참으로 인정받고 높여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그분의 모든 일이 실제로 그러하듯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벌하시면 의로우신 분으로, 용서하시면 긍휼하신 분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 참되신 분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영광이 새겨져 빛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하여 모든 마음과 모든 혀에서 그분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모든 불경건, 곧 이 거룩히 여김을 가리거나 줄이는 모든 불경건이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엄이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간구에는 감사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나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할 때,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의 찬양을 그분께 돌리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기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택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그들의 모든 일에서 당신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부요를 환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당신을 하나님과 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다스림에 복종하려 하지 않는 유기된 자들을 멸하고 꺾으시며, 그들의 신성 모독적인 오만을 엎드러뜨리셔서, 당신의 권능에 맞설 수 있는 권세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홀처럼 높이 세워져, 십자가 아래에서도, 세상의 멸시와 치욕 아래에서도 힘 있게 살아 다스리고 번성하며 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도 이 세상에서도 꽃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고전 1; 요 17, 18; 롬 14). 첫째로 그 나라는 영적이며 영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썩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눅 1; 단 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곧 주께서 날마다 신자들의 새 백성을 당신께 더하셔서 그들이 온갖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기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당신 은사의 풍성함을 늘 넉넉히 부어 주셔서, 그 은사로 그들 안에 더욱더 사시고 다스리시며, 마침내 그들을 당신께 온전히 연합시키시고 그들을 온전히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당신의 빛과 진리를 늘 새롭게 더하여 비추셔서, 사탄과 그 나라의 어둠과 거짓이 사라지고 흩어지며 꺼지고 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곧 그분의 심판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날에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은 모여 영광 가운데로 받아들여지고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엎드러진 가운데, 그분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것입니다(고전 15 참조).[49]

셋째.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간구로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곧 어디서나 모든 것을

49. 원문은 “1 Cor.l.”로 장 번호가 깨져 있습니다.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15:28)으로 보았습니다. [원문의심]

당신의 뜻대로 조절하고 정돈하시며, 모든 일의 결과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뜻대로 쓰시며, 모든 이의 모든 의지를 당신께 복종시키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의지가 똑같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되, 어떤 의지는 기꺼이 동의하여, 곧 그분 백성의 의지처럼 순종하고, 어떤 의지는 마지못해 거슬러 버티면서, 곧 마귀와 유기된 자들의 의지처럼 순종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들은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피하며 순종에서 벗어나려 애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주님께 내어 드리고 맡기며, 일이 우리 바람대로 흘러가게 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 그분이 미리 보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 감정을 헛되고 무효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꺼뜨리시고 우리 안에 새 지성과 새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구합니다(겔 36).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과의 순전한 일치 말고는 어떤 욕심의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게 되기를 구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기를 구합니다. 그 영께서 속에서 가르치시니, 우리는 그분께 기쁜 것은 사랑하고, 그분께 기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미워하고 혐오하기를 배웁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처음 세 항목입니다. 이것들을 구할 때에는 우리 자신은 제쳐 두고 우리 유익은 조금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눈앞에 두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넉넉한 유익이 돌아오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보람이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임을

증언하고 고백하며,[50] (주인이요 아버지께 드려야 할) 그분의 영예를 우리 힘닿는 대로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려는 이런 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 가운데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들의 뜻을 거슬러 이루어질 것처럼, 그 일들은 그들에게 혼란과 심판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것은 나머지 세 간구 가운데 첫째 것입니다. 이 세 간구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필요를 돕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이 간구로 우리는 이 세상의 원소들 아래에서 우리 몸이 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평안히 우리 양식을 먹도록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이 간구로 우리는 간단히 말해 우리 자신을 그분의 돌보심에 맡기고 그분의 섭리에 부탁하여,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게 합니다.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몸까지도 당신의 보호와 지키심 아래 받아들이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니, 이는 우리가 빵 한 조각과 물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을 그분께 기대하게 하심으로써 이런 사소한 일들에서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불의함 때문인지 영혼보다 육신을 더 크게 염려하고 그것으로 괴로워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영혼에 관해서는 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육신에 관해서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전히 망설이고,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넉넉히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떱니다. 우리에게는

50. 원문 OCR에는 CO 1:95의 쪽 표시가 빠져 있습니다. 이 자리("nos servos esse ac filios Dei testemur") 바로 앞에 쪽머리 "INSTITUTIO REL. CHRIST. 1536."이 남아 있어, 여기서 CO 1:95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파일의 쪽 표시를 따라 이곳에는 쪽 표시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 덧없는 삶의 그림자가 저 영원한 불멸보다 그만큼 더 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육신의 염려에서 오는 저 불안을 한번 내던진 사람들은, 곧바로 더 큰 것들, 곧 구원과 영생까지도 그분께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때 같으면 우리를 그토록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믿음의 단련이 아닙니다. 또 거의 모든 사람의 뼛속에 악착같이 붙어 있는 이 불신을 벗어 버렸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진보가 아닙니다(마 6).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양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과 "오늘"이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는, 덧없는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욕심내어 불타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쾌락에, 과시에, 또는 다른 어떤 사치에 허영스럽게 쏟아붓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필요에 넉넉한 만큼만, 이를테면 하루하루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먹이셨으니 내일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확실한 신뢰를 품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아무리 넉넉히 흘러들어도, 곳간이 가득 차고 창고가 넘칠 때에도,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복을 부어 번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한에서가 아니면 모든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손에 있는 것조차 그분이 시시각각 몫을 조금씩 나누어 주시고 쓰게 허락하시는 한에서가 아니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고삐 풀린 욕심으로 끝없는 것을 탐내는 자들이나, 자기의 넉넉함에 배불러 쌓아 둔 재물로 안심하는 자들이 그런데도 이 간구로 하나님께 빈다면, 그들은 그분을 조롱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의 사람들은 얻으면 원하지도 않을 것, 아니 오히려 가장 혐오하는 것, 곧 일용할 양식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닿는 데까지 자기 탐욕의 감정을 하나님께 감춥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지성 전체와 속에 숨은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뒤의 사람들은 그분께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 것, 곧 이미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불린다는 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갚아야 할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신 8).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한다는 데서, 그것이 어디서 우리에게 오든, 아무리 우리 솜씨와 수고로 얻고 우리 손으로 장만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하고 값없는 선물이라는 뜻이 드러납니다.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소서.

이 간구로 우리는 죄 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죄 사함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롬 3). 우리가 죄를 빚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 형벌을 마치 값처럼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데, 이 사함으로 풀려나지 않는다면 결코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함은 그분 긍휼의 값없는 용서입니다. 그분은 아무 값도 우리에게서 받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의 긍휼로 당신께 속상을 이루시면서, 이 빚을 너그럽게 지워 버리시고 우리를 그 빚에서 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대가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공로나 다른 이들의 공로로 하나님께 속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속죄 행위(satisfactio)로 죄 사함이 값 치러지고 사들여진다고 믿는 자들은 이 값없는 용서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꼴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은 자기를 고발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자기 자신의 증언으로 자기의 정죄에 도장을 찍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함의 은택으로 풀려나지 않으면 자기가 빚진 자임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사함을 받지 않고 오히려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공로와 속죄 행위를 하나님께 떠밀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그분의 긍휼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함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곧 어떤 일로든 우리를 해친 사람들, 행동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대했거나 말로 우리를 모욕한 사람들을 우리가 너그럽게 봐주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1536년판 제3장 기도에 관하여(주기도문 해설) 2

CO 1:97–10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97 [51]그렇다고 그들의 범죄와 잘못의 죄책을 사하는 것이 우리 몫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사 43). 우리의 사함은 이것입니다. 곧 진노와 미움과 보복하려는 욕망을 마음에서 스스로 내려놓고, 받은 해의 기억을 자원하는 잊음으로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거나 끼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신도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에 어떤 미움을 품고 보복을 꾀하며 해칠 기회를 궁리한다면, 아니 원수들과 화해하고 온갖 선한 일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 우리와 화목하게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지 마시라고 엄숙히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하는 대로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하지 마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자기 간구로 더 무거운 심판 말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끝으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이 조건이 덧붙은 것은,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사함으로 그분의 사함을 공로로 얻어 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위로하려 하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얻도록 표로 덧붙이셨습니다. 곧 우리 마음이 모든 미움과 시기와 보복에서 비고 깨끗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남에게 사함을

51.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베푼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푸셨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이를테면 이 표로써, 보복에는 성급하고 용서에는 더디며 끈질기게 원한을 품고, 자기는 하나님께 거두어 주시기를 비는 그 분노를 남에게는 품는 자들을 자녀의 명부에서 지워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시험의 꼴은 많고 여러 가지입니다. 율법을 어기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마음의 모든 악한 생각은, 우리 정욕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이든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것이든, 다 시험입니다(약 1). 또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은 것들도, 마귀의 꾀로 우리 눈앞에 들이밀어져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끌려 나가거나 비껴가게 될 때에는 시험이 됩니다(마 4; 살전).[52] 그리고 이 시험들은 오른쪽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옵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것은 부와 권세와 명예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대개 그 광채와 겉에 내세우는 선의 모양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아첨으로 미끼를 던져,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사로잡히고 이런 달콤함에 취하여 자기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왼쪽에서 오는 것은 가난, 수치, 멸시, 고난과 그 밖의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쓰라림과 어려움에 걸려 낙심하고, 신뢰와 소망을 내던지며, 마침내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어집니다. 우리 정욕으로 우리 안에 불붙었든 사탄의 간계로 우리 앞에 놓였든 우리와 싸우는 이 시험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굳세어져, 악한 원수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들여보내든 그의 모든 공격에 맞서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느 쪽에서 우리 앞에 놓이든 모든 것을 선으로 돌리기를, 곧 형통으로

52. 원문은 “1 These..” 로 장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우쭐하지도 않고 역경으로 꺾이지도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게을러 무디어지지 않도록, 시험으로 일깨워지고 찔리고 꼬집히는 것이 우리에게 몹시 필요합니다(약 1). 다윗이 시험받기를 바란 것도 까닭이 없지 않았고(시 26), 주께서 날마다 당신의 택함받은 자들을 시험하시는 것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분은 치욕과 가난과 환난과 다른 여러 모양의 십자가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창 22; 신 8, 13).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과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탄은 멸하고 정죄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거꾸러뜨리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여 단련하시고, 그들의 육을 죽이시며, 정련하시고 태우시려고 시험하십니다. 육은 이렇게 억제되지 않으면 방종하고 한없이 날뛸 것입니다.

게다가 사탄은 무장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덮쳐 방심한 자들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내셔서, 당신의 백성이 그분이 보내시는 무엇이든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고전 10; 벧후 2).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지거나 짓눌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에 맞서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 안에 받아들여져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안심하며,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과 마귀의 온 나라 위에 정복되지 않고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부지런히 주의해야 할 것은, 그토록 강한 싸움꾼인 마귀와 맞붙어 싸우거나 그의 힘과 공격을 견디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집 안에, 우리 곁에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거나 조롱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여 이런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호전적이고 잘 무장한 원수를 상대하는지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받기를 구합니다. 마치 미쳐 날뛰는 어떤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기를 구하듯이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죽음 한가운데서 건져 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곧바로 그의 발톱과 이빨에 찢기고 그의 목구멍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잠잠히 있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용맹을 떨치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자유의지와 자기에게서 나온 힘을 신뢰하라고 하십시오. CO 99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고 힘을 얻는 것으로 넉넉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세 간구는 앞에서 말한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공적인 것이어야 하고, 교회의 공적인 덕 세움과 신자들의 교제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사로이 자기에게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양식과 죄 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왜 이토록 담대하게 구하고 얻으리라고 이토록 신뢰하는지 그 까닭이 덧붙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무궁히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굳고 고요한 안식입니다. 만일 우리 기도가 우리의 가치로 하나님께 추천되어야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입이라도 뻥긋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합당하지 않으며 아무 추천할 것도 없는 자라 해도, 기도할 이유가 결코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고 신뢰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에는 "아멘"이 덧붙어 있습니다. 이 말로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으려는 열망의 뜨거움이 표현되고, 이런 것이 모두 이미 얻어

졌으며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지리라는 우리 소망이 굳게 됩니다. 그것들은 속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또 도대체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형식문, 이를테면 기도의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선한 스승 그리스도께서 전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우리에게 선생으로 세우셨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마 17). 그분은 늘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이셨고, 사람이 되셔서는 큰 경륜의 사자로 사람들에게 주어지셨기 때문입니다(사 9). 그리고 이 기도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여, 이 기도에 덧붙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서 이 기도에 돌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불경건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요약으로, 무엇이 당신께 합당하고 무엇이 당신께 기쁘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당신이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것을 넘어서 이것들 말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려는 자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 것을 보태려 하는 것이니, 이것은 미친 신성 모독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아래 머물지 않고 그 뜻을 멸시하여 욕심을 따라 더 멀리 헤매며, 마지막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므로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모두 믿음 없이 드려진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믿음은 늘 말씀에 기대지 않고는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뿐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이 기도의 형식에 매여서 한 낱말이나 한 음절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기도와 말로는 아주 다르지만 같은 영으로 쓰인 기도가 많이 나오고, 그 기도들을 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노리는 것은 다만 이것입니다. 곧 아무도 이 기도에 요약되어 담긴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찾거

나 기대하거나 구하지 않게 하고, 말은 아무리 다르더라도 뜻은 달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가 이 기도로 모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기도의 완전함에 견줄 만한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는 더더욱,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마음에 떠올려야 할 것도 여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무엇이든 더 나은 것을 시도하려는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서 마땅히 사라졌습니다.

요컨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임을 기억합시다. 그 지혜는 원한 것을 가르쳤고, 필요한 것을 원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 늘 탄식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많은 버팀목으로 붙들려야 하고, 우리의 게으름이 박차로 일깨워져야 하므로, 우리 각자가 연습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정해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시간은 기도 없이 흘러가지 않게 하고, 마음의 모든 정이 온전히 거기에 쏠려 있게 해야 합니다. 곧 아침에 일어날 때, 그날 일을 시작하기 전, 식사하러 앉을 때, 하나님의 복으로 먹고 난 뒤,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다만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할당량을 치르듯 하여 다른 시간에는 의무를 벗었다고 여기는 미신적인 시간 지키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르는 훈육이 되어 그것으로 연약함이 단련되고 거듭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조심스럽게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곤궁에 눌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눌리는 것을 볼 때마다 곧바로 발이 아니라 마음을 재촉하여 그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신의 형통이든 다른 사람들의 형통이든, 찬양과 감사로 그분의 손을 알아본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에서 부지런히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정해진 상황에 묶어 두려 하지 않고, 그분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그분께 정해 드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대로, 그분께 아무 법도 세우지 말고 아무 조건도 붙이지 말며, 그분이 하실 일을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좋은 곳에서 하시도록 그분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를 위한 어떤 간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로써 우리는 이미 우리 뜻을 그분의 뜻에 굴복시킵니다. 이렇게 이를테면 고삐를 채워 억제된 우리 뜻이 하나님을 자기 질서 안에 몰아넣으려 하지 않고, 그분을 자기의 모든 소원의 판단자요 조절자로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CO 101 만일 이렇게 순종하도록 다듬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쉽게 기도에 끈기 있게 머물기를 배우고, 소원을 매단 채 참고 주님을 기다리기를 배울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으셔도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사람들의 눈에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던 기도에 당신이 귀를 막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때에 밝히 드러내시리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소원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낙심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데, 이것은 가장 즉각적인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열기에만 끌려가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되, 그분이 첫 충동에 곁에 오셔서 당장 도우심을 주지 않으시면, 곧바로 그분이 자기에게 노하시고 적대하신다고 지어내며, 들어주실 소망을 모두 내던지고 부르기를 그칩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뻔뻔함으로 그분을 지치게 하여 우리를 거스르시도록 자극하지 않게 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늘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조건을 걸지 않고는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으며, 마치 그분이 자기 욕심의 종이기라도 한 듯이 자기 약정의 조항으로 그분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조항에 당장 따르지 않으시면 분개하고 으르렁거리고 대들고 투덜거리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분은 이런 자들에게 진노 가운데 노하셔서 자주 들어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긍휼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거절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증거입니다(민 11). 그들은 고기와 함께 그분의 진노를 삼키기보다 차라리 주께 들으심을 얻지 못하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도 우리 감각이 기도로 무엇을 얻었는지 알지 못하고 거기서 아무 열매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우리 믿음은 감각으로 알 수 없을 그것, 곧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은 우리가 가난 가운데서 넉넉함을,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지니게 해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백성의 기다림과 인내를 헛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한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선한 것을 당신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언젠가 심판의 날에,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실 그날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인내에 기대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할 만큼, 이 인내로 붙들려야 합니다. 주께서는 가벼운 시련으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단련하지도 않으시며, 자주 그들을 극한까지 몰아가시고, 몰아넣으신 뒤에는 당신의 달콤함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기 전에 오랫동안 그 진창에 빠져 있게 두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말하듯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삼상 2:6 참조). 고통당하고 황폐하고 이미 반쯤 죽은 그들을,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고 있으며 그분이 지금의 고난을 끝내 주시리라는 이 생각이 일으켜 세워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여기서 기절하여 절망으로 무너지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536년판 · 제4장 성례에 관하여(세례와 주의 만찬)

1536년판 제4장 성례에 관하여(세례와 주의 만찬) 1

CO 1:101–11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01 성례에 관하여.

이제 성례의 이치에 관하여 말해야 하겠습니다. 성례에 관하여 어떤 확실한 가르침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례가 어디에서 왔고 무슨 목적으로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쓰임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성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례는 외적인 표징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언하시어,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르게 정의하여, 외적인 상징으로 우리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또한, 앞서는 약속 없이 성례가 있는 일은 결코 없고, 오히려 성례가 일종의 부록처럼 약속에 덧붙여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 목적은 성례가 약속 자체를 굳게 하고 인 치며, 우리에게 이를테면 더 확실히 증언된 것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무지와 육신의 연약함에 이것이 필요함을 내다보십니다. 그렇지만 성례는 약속 자체를 굳게 한다기보다, 우리를 그 약속 안에서 굳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로 넉넉히 견고하고 확실하며, 그 자신에게서보다 더 나은 확증을 다른 데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사방에서 받쳐 주고 온갖 방법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곧 흔들리고 요동하고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의 이해력에 당신을 맞추십니다.

우리는 늘 땅바닥을 기어 다니고 육에 붙어 있어서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지도 못하는 혼적(魂的)인 사람들이므로, 주님께서는 이 육적인 요소들로도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고, 육 자체 안에서 영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례에서 우리 앞에 놓이는 사물들의 본성에 그런 성질이 심겨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께 이런 뜻을 나타내도록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트집으로 따지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에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뜻임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둘 중 하나다. 안다면, 나중에 뒤따르는 성례에서 새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른다면, 성례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할 것이다. 성례의 모든 힘과 효력은 말씀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짧게 답하겠습니다. 공문서와 그 밖의 공적 문서에 달아 놓는 인장은 그 자체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피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면 공연히 달아 놓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장이 글에 덧붙여질 때 적힌 것을 확증하고 인 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비유를 우리가 요즘 꾸며 낸 것이라고 떠들 수도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할례를 "인(σφραγῖδα)"이라고 부르면서 이 비유를 썼기 때문입니다(롬 4).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언약이라고 부르시고, 성례를 언약의 상징이라고 부르시므로, 사람들 자신의 언약에서 비슷한 예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창 6; 9; 17). CO 103 말이 끼어들지 않는다면, 아니 말이 앞서지 않는다면, 잡은 암퇘지가 무슨 효력을 내겠습니까? 암퇘지는 아무런 속 깊은 신비나 높은 신비 없이도 자주 잡히기 때문입니다. 내민 오른손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손은 적대하여 맞붙는 일도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이 앞섰을 때에는, 언약의 조항들이 말로 먼저 정해지고 세워지고 결정되었더라도, 바로 이런 상징들로 엄숙히 확정됩니다.[53]

53. 옛 로마에서는 조약을 맺을 때 돼지를 잡아 그 맹약을 확정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해 주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육적이므로 성례는 육적인 사물 아래 베풀어지며, 그리하여 우리의 둔함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우리를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을 가정교사가 하듯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끕니다. 이런 이유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림판에 그린 것처럼 나타내며, 생생하게 형상으로(εἰκονικῶς) 그려 우리 눈앞에 세워 놓기 때문입니다. 성례를 더 분명하게 나타낼 다른 비유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례를 우리 믿음의 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제 기초 위에 서서 그 위에 얹혀 있으면서도, 받쳐 놓은 기둥들로 더 확실하게 안정되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머물러 있지만, 성례가 더해지면 그것을 기둥처럼 삼아 더 견고하게 기댑니다. 또는 성례를 거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한 대로) 우리의 둔함이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성례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증언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성례를 불경건한 자들도 자주 받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조금도 더 은혜로우시다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다지 적절하게 추론하지 못합니다. 같은 논법대로라면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이 듣고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자신도 그런 증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알려지셨지만, 그들 가운데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아주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또 성례로 우리에게 자비와 당신의 선하신 뜻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과 성례를 확실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만 붙잡습니

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구원으로 제시되고 내놓아지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접받지는 않으신 것과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디선가(『요한복음 강해』) 이것을 나타내려고, 말씀의 효력은 말씀이 말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성례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세우신 것은 성례가 우리 믿음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 곧 믿음을 기르고 훈련하고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견해에 맞서 흔히 내놓는 논거들은 너무나 시시하고 힘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이라면 더 좋아질 수 없다. 흔들림 없이, 굳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람의 자녀 가운데 아무도 지금까지 이르지 못했고 이 세상 삶에서 아무도 이르지 못할 그런 믿음의 완전함을 어리석게 내세우기보다, 사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자기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않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말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들은 대답해 보십시오(막 9). 그 믿음도 비록 겨우 시작된 것이었지만 좋은 믿음이었고, 믿지 않음이 없어지면 더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양심보다 더 확실한 논증으로 그들을 반박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좋든 싫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자기 믿음의 불완전함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내시에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행 8). 믿음이 온 마음을 채우는 곳에서 세례의 확증이 무슨 자리를 차지하겠는가?" 저는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적지 않은 부분이 믿음 없이 비어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 자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우면서 늙어 간다고 자랑했습니다.[54]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이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나이의 모든 단계를 거쳐 나아가야 하는데도(엡 4),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채 늙어 간다면 세 곱절이나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심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그분을 껴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불타는 갈망으로 그분을 주리고 목말라하며 그분을 향해 탄식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진심으로 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 한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관습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나이다." 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 밖에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시 119; 111; 138).

다른 이들은 이렇게 씁니다. "믿음이 성례로 자란다면 성령을 주신 것은 헛일이다. 믿음을 시작하고 지키고 완성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일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저도 인정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고유하고 온전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조명을 받아 하나님과 그분의 인자하심의 보화를 알아보며, 성령의 빛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너무나 눈멀어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나 둔하여 아무것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택 하나 대신에, 우리는 세 가지를 헤아립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다음으로 성례로 확증하시며, 마지막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말씀과 성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길을 여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성례는 귀를 울리고 눈앞에 어른거릴 뿐 속사람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성례가 우리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례로 약속하신 것들 자체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 가려 하실 때, 가끔 성례 자체를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서

54. 옛 아테네의 입법자 솔론(Solon)의 말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불멸의 선물을 빼앗으시고 그를 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생명의 열매를 따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자”(창 3).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그 열매가 아담에게 그가 이미 잃어버린 그 썩지 않음을 되돌려 줄 수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가 나의 약속의 상징을 붙들고서 헛된 신뢰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에게 불멸의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자.” CO 105 이런 이유로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고, 이스라엘의 나라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할 때, 그들이 할례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엡 2). 이 말로 그는 환유법을 써서, 약속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약속 자체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또 다른 반론은, 피조물에 그만한 능력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게로 흘러가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쉽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안에 어떤 능력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시기에 유익한 수단과 도구를 쓰셔서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빵과 그 밖의 음식으로 우리 몸을 먹이시고, 해로 세상을 비추시며, 불로 따뜻하게 하시지만, 빵이나 해나 불은 하나님께서 그 도구들 아래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한에서만 무엇인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례로 영적으로 믿음을 기르십니다. 성례의 유일한 임무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쓰임에 맞게 정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의 섬김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의 선물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신뢰를 박아 두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을 우리 복의 원인인 양 감탄하고 칭송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뢰가 성례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례로 옮겨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례와 만물의 창시자이신 그분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성례라는 이름 자체에서 자기들의 오류의 핑계를 찾는 것은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sacramentum)라는 말은 인정받는 저술가들에게서 여러 뜻을 지니지만, 표징에 맞는 뜻은 하나뿐이다. 곧 군사가 군대에 들어갈 때 사령관에게 하는 엄숙한 맹세를 뜻하는 것이다. 새로 들어온 군사들이 그 군대의 맹세(sacramentum)로 사령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군 복무를 공언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표징으로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공언하고 그분의 깃발 아래 싸운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들은 이 일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 비유들을 덧붙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토가로 겉옷을 입은 그리스 사람들과 구별되었고, 로마의 신분들도 저마다의 표지로 서로 구별되었던 것처럼, 곧 원로원 신분은 자주색 옷과 초승달 모양의 신발로 기사 신분과 구별되었고, 기사 신분은 다시 반지로 평민과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징을 지니고 다니며 그것으로 속된 자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표징에 성례라는 이름을 붙인 옛사람들은 라틴 저술가들에게서 이 낱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 새로운 뜻을 덧붙여서 거룩한 표징을 간단히 가리켰습니다.

더 깊이 따져 보고자 한다면, 그들은 믿음(fides)이라는 낱말을 지금 쓰이는 뜻으로 옮겨 간 것과 같은 유비로, 이 이름을 이런 뜻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fides)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의 진실함인데도, 그들은 믿음을 확실함, 곧 그 진실함에 관하여 품는 확실한 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례가 본래 군사가 자기 사령관에게 자기를 바치는 맹세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사령관이 군사들을 대열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례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따지기는 그만둡니다. 옛사람들이 이 표징들이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의 표징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많은, 그것도 분명한 논거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는 비유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례에서 나중 것인 것을 그들이 첫째 것으로, 아니 유일한 것으로 세우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첫째 것은 성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섬기는 것이고, 나중 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나중 이치에 따라서는 그 비유들이 쓸모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례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 쓰임을 아주 뒤엎는 것처럼, 반대편에는 다른 이들이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례에 심어 두셨다는 말을 어디서도 읽을 수 없는 무언지 모를 비밀한 능력을 성례에 꾸며 붙입니다. 이 오류에 단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위험하게 속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으라고 배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끌려 나가 헛된 것을 따라갑니다. 이런 가르침을 뿌리는 자들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앞의 부류는 새 율법의 성례, 곧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쓰이는 성례가, 우리가 대죄(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무거운 죄)라는 장애물(obex)을 놓지만 않으면, 의롭다 하고 은혜를 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견해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해로운지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견해는 여러 세기 전부터 교회에 큰 손실을 끼치며 세상의 넓은 부분에서 통용되어 왔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분명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 견해는 믿음 없이 의를 약속하므로 영혼들을 혼란과 심판으로 거꾸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속인 것은 옛사람들에게서 읽히는 성례에 대한 지나친 찬사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말이 그 예입니다. “옛 율법의 성례는 구원을 약속했을 뿐이지만, 우리의 성례는 구원을 준다.” 그들은

이런 말투와 이와 비슷한 말투가 과장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들도 과장된 역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들의 글과는 아주 다른 뜻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거기서 뜻한 것은 그가 다른 곳(서신 5)에서 쓴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모세 율법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미리 알렸지만 우리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앞의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기다려지실 때 그분을 예표했지만, 우리의 성례는 이미 오신 그분을 이를테면 눈앞에 계신 분으로 보여준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대목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또 그의 어떤 설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드러내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성례는 표징에서는 우리의 것과 달랐지만, 표징이 가리키는 실체에서는 같았다. 보이는 모양은 달랐지만 영적인 능력은 같았다."

CO 107 그러므로 이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성례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직분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하늘 은혜의 보화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례는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다른 부류는 그토록 해롭게 오류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류를 범합니다. 그들도 성례에 어떤 숨은 능력이 붙어 있고 박혀 있어서, 포도주가 잔으로 건네지듯이 성례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누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례에는 이 직분만 있습니다.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고 우리가 이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지 않으면, 성례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서로 구별되는 은사도 뚜렷이 드러납니다. 성례는 이를테면 어떤 사자(使者)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알리고 보여 줍니다. 성령께서는 성례가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실어 오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을 함께 가져오시는 분, 우리 안에서 성례에 자리를 내어 주시는 분, 성례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례의 이치에 관하여 논한 대로, 성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약속들의 진실함에 관하여 더 확실하고 안심하게 하시려고 일찍이 표시하신 모든 표징을 넓게 아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들이 때로는 자연의 사물 안에 있기를 원하셨고, 때로는 이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앞의 종류의 예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불멸의 보증으로 주셔서, 그들이 그 열매를 먹는 동안에는 불멸을 안심하고 자기들에게 약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창 2; 3; 9).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지개를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기념으로 세우시고,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노아는 이것들을 성례로 여겼습니다. 이는 나무가 자기 자신에게도 줄 수 없었던 불멸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맞은편 구름에 햇빛이 반사된 것에 지나지 않는 무지개가 물을 막아 내는 효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표를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요 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나무는 나무였고 무지개는 무지개였습니다. 그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을 때, 새로운 형상이 주어져서 그것들이 전에는 아니던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공연한 말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무지개 자체가 오늘도 주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땅이 결코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 안에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이비 철학자가 우리 믿음의 단순함을 비웃으면서, 그런 갖가지 빛깔은 반사된 햇빛과 맞은편 구름에서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의 주님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요소를 당신의 영광을 섬기는 데 쓰신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의 우둔함은 비웃읍시다. 하나님께서 해와 별과 땅과 돌에 이런 기념의 표를 새기셨다면, 그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성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친 은과 도장을 찍은 은은 완전히 같은 금속인데, 왜 값이 같지 않습니까? 앞의 것은 본성 말고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지만, 공적인 각인을 받으면 주화가 되고 새로운 값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피조물에 표를 찍으셔서, 전에는 맨 요소였던 것을 성례가 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뒤의 종류의 예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려고 땅은 마른 채 양털에 이슬을 적시셨고, 다시 양털은 그대로 둔 채 땅을 적시셨습니다. 또 히스기야에게 무사함을 약속하시려고 해시계의 그림자를 열 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삿 6; 왕하 20; 사 38). 이것들도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키고 굳게 하려고 일어난 것이므로 성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은,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서 일상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르시려는 성례들을 따로 논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들은 표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식에 있습니다. 또는 원한다면, 여기서 주어지는 표징이 곧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례는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믿음을 훈련하고 확증하기를 원하시는 예식입니다. 이 성례들 자체도 시대의 여러 가지 경륜에 따라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경륜에 따라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는 할례가 명령되었고(창 17), 나중에 모세의 율법으로 거기에 정결 예식과 제사가 더해졌습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대 사람들의 성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들이 폐지되고,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쓰는 두 성례, 곧 세례와 주의 성찬이 제정되었습니다(마 28; 26).[55]

55. 원문의 “ult.”는 그 책의 마지막 장을 가리킵니다. 이 편에서는 모두 개역한글의 장 번호로

그렇지만 저 옛 성례들도 지금 우리의 성례가 향하는 바로 그 과녁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이를테면 손을 잡아 이끄는 것, 아니 오히려 형상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알아보도록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 치는 어떤 인장이라고 가르쳤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결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 지극히 확실하므로(고후 1), 성례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뿐입니다. 저 옛 성례들은 약속된 그리스도를, 그분이 아직 기다려지실 때 그림자로 보여 주었고, 우리의 성례는 이미 오셔서 나타나신 그분을 증언합니다. 이것을 부분별로 하나하나 밝히면 훨씬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CO 109 할례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사람의 씨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곧 사람의 본성은 부패해 있고 잘라 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또 할례는 증거요 기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복된 씨에 관한 약속 안에서 자기를 굳게 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그 씨에게서 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창 22). 그런데 바울에게서 배우는 대로(갈 3 참조)[56], 그 구원의 씨는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들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오직 그분 안에서 되찾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다고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할례였습니다(롬 4 참조). 곧 믿음의 의의 표, 다시 말해 그들이 그 씨를 기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을 더 확실히 확증받는 인이었습니다. 씻는 예식과 정결 예식은 그들에게 그들의 부정함과 더러움과 오염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본성에서 그것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또 그 예식들은 다른 씻음을 약속했습니다. 그 씻음으로 그들

바꾸어 적었습니다.

56. 원문 OCR에는 장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Gal.,”). 문맥에 따라 갈라디아서 3장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뒤의 “Rom.,” 도 같아서 로마서 4장으로 보았습니다.

의 모든 더러움이 닦이고 씻길 것이었습니다(히 9; 요일 1; 계 1). 그리고 이 씻음이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씻겼고, 그분이 맞으신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사 53; 벧전 2). 제사들은 그들의 죄악을 꾸짖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에 치러야 할 어떤 속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인 어떤 대제사장이 있어서, 피를 흘리고 희생 제물을 바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것이며, 그것이 죄 사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자기 피를 흘리셨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히브리서).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람의 불순종을 없애셨습니다(빌 2; 롬 5).

우리의 성례에 관해서 말하면, 우리의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타나신 만큼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되셨던 그대로 아버지께로부터 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깨끗해지고 씻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감사의 성찬은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물로는 씻음이, 피로는 속상이 나타납니다.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요일 5), 그분은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곧 깨끗하게 하시고 구속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십니다. 아니, 셋이 하나로 증언합니다. 곧 물과 피와 영입니다. 물과 피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하심과 구속의 증언을 얻고, 으뜸가는 증인이신 영께서는 이런 증언을 우리에게 확실히 믿게 하십니다. 이 숭고한 신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을 때입니다(요 19).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땅히 이것을 우리 성례의 원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례들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논해야 하겠습니다.

세례에 관하여.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섬기고, 다음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제정의 이치를 차례로 다루겠습니다. 세례는 우리 믿음에 세 가지를 가져다주는데, 이것들도 하나하나 다루어야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의 상징이요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는 더 잘 설명하자면, 세례는 어떤 사자처럼 보내진 것으로,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지고 말소되고 없어져서, 결코 당신의 눈앞에 나오지 않고 기억되지 않으며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모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마 28; 행 2).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경건(religion)을 고백하는 표요 표지일 뿐이라고, 마치 군사들이 자기 직분을 공언하는 표로 사령관의 휘장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감히 쓴 사람들은, 세례에서 첫째 되는 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약속과 함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막 16). 바울이 쓴 것도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엡 5). 곧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딛 3), 우리가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씁니다(벧전 3). 앞의 사람(바울)은 우리의 씻음과 구원이 물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거나, 물이 깨끗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뜻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뒤의 사람(베드로)도 구원의 원인이 이 성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런 선물들에 대한 앎과 확실성을 이 성례에서 얻는다는

것을 뜻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들 자체에서 충분히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과 물의 세례를 함께 묶는데, 이는 마치 복음으로는 우리가 씻기고 거룩하게 된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세례로는 이런 소식이 인 쳐진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이어, 그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이며, 이 양심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덧붙입니다.

세례가 지나간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어서, 세례 뒤에 다시 빠지는 새로운 타락에 대해서는 다른 새로운 치료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이 오류 때문에, 어떤 이들은 평생의 용서를 얻으려고 삶의 마지막 위기, 아니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아니면 세례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세례를 받든, 우리는 단번에 평생에 걸쳐 씻기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세례를 기억해 내야 하며, 이것으로 마음을 무장하여 CO 111 죄 사함에 관하여 늘 확실하고 안심하게 해야 합니다. 세례는 한 번 베풀어져서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의 죄들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정결함은 늘 살아 있고, 어떤 얼룩에도 눌리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고 닦아 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앞으로 죄지을 방종을 얻어 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그런 대담함을 결코 배우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죄를 지은 뒤에 자기 죄 아래서 지치고 낙심하여 탄식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집니다. 그들이 혼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일으키고 위로할 것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지은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롬 3). 이 말로 그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죄 사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양심의 인두에 상처를 입고 의사를 향해 탄식하는 비참한

죄인들에게만 주어지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집니다. 벌받지 않는다는 것에서 죄지을 거리와 방종을 노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말고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불러오지 못합니다.

세례는 또 다른 위로도 가져다줍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죽임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대로(롬 6),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죽음에 이르렀으니, 이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할 뿐 아니라, 마치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의 정욕에 대하여 죽고, 그분의 부활을 본보기로 삼아 의로 일으켜지라는 권고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권할 뿐 아니라, 이 일을 훨씬 더 깊은 데서 끌어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세례로 우리를 당신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죽으심에 접붙여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붙인 가지가 자기가 접붙여진 뿌리에서 양분과 영양을 끌어오는 것처럼, 세례를 마땅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자기 육을 죽이는 데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참으로 느끼고, 동시에 영을 살리는 데서 그분의 부활의 효력도 느낍니다. 사도는 거기서 권고의 거리를 가져옵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논증을 씁니다(골 2).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된 뒤에 할례를 받았고 옛사람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인용한 대목(딛 3)에서도 이런 뜻으로 세례를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마 3; 눅 3; 요 3; 4; 행 2). 그들은 회개라는 말로 이런 중생을 뜻했고, 죄 사함이라는 말로 씻음을 뜻했습니다. 이로써 세례 요한의 사역은 나중에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역과 완전히 같았다는 것도 지극히

확실해집니다. 세례를 베푸는 손이 다르다고 해서 세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같은 가르침이 그것이 같은 세례임을 보여 줍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들은 한 가르침에서 일치했습니다. 둘 다 회개에 이르도록, 둘 다 죄 사함에 이르도록, 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와 죄 사함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라고 말했습니다(요 1 참조).[57]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희생 제물로, 화목제물로,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사도들이 이 고백에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마 3; 눅 3)? 이것은 몇 마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는 세례와 세례를 구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견주었습니다. 자기는 물의 사역자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사도들에게 보내실 날에 보이는 이적으로 이 능력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상 무엇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도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외적인 표징의 사역자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내적인 은혜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죽임과 씻음에 관하여 말한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림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고전 10). 옛사람을 죽임은, 주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과 잔혹한 종살이에서 건져 내시고, 홍해를 지나는 길을 그들에게 펴 주시며, 뒤에서 그들을 몰아치고 목덜미를 덮치려던 바로 자신과 원수 이집트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하셨을 때에 예표되었습니다(출 14).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세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표징으로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사로잡힘, 곧 죄의 종노릇에서 당신의 능

57. 원문 OCR에는 장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loan..”). 문맥에 따라 요한복음 1장으로 보았습니다.

력으로 이끌려 나와 해방되었고, 우리의 바로, 곧 마귀가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서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지치게 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이집트 사람이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지 않고 바닷가에 쓰러져서, 그 무서운 모습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만 해칠 수는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원수도 여전히 위협하고 무기를 내보이며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구름에는 깨끗하게 함의 상징이 있었습니다(민 9).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펼쳐 그들을 덮으시고 시원하게 해 주셔서, 그들이 지독한 햇볕에 기진하여 쇠약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고 보호받아,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불꽃인 하나님의 엄하심이 우리를 덮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어떤 이들이 가르친 것이 얼마나 거짓인지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례로 원죄와, 아담에게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진 그 부패에서 풀려나고 면제되며, 아담이 처음 창조된 그 온전함에 서 있었다면 얻었을 바로 그 의와 본성의 깨끗함으로 회복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부류의 선생들은 원죄가 무엇인지, 원의(原義)가 무엇인지, 세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원죄는 우리 본성의 사악함과 부패입니다. 이 부패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있는 자로 만들고, 다음으로 우리 안에서 성경이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행위들을 낳습니다(롬 5; 6; 7). CO 113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본래 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솟아나는 행위들, 곧 간음, 음행, 도둑질, 미움, 다툼, 살인, 방탕 같은 것은, 성경에서도 자주 죄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이 이치에 따르면 오히려 죄의 열매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본성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더럽혀지고 비뚤어져 있으므로, 이미 이런 부패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정죄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 붙잡

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의와 무죄함과 깨끗함 말고는 아무것도 받으실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조차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기 정죄를 함께 지니고 나옵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 죄악의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자기 안에 그 씨를 품고 있고, 아니 그들의 본성 전체가 일종의 죄의 씨이므로, 하나님께 미움받고 가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세례로 이 정죄가 없어지고 자기에게서 물리쳐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미 말한 대로, 주님께서 이 표징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했던 죄책과 그 죄책 때문에 치러야 했던 형벌에 대한 온전하고 굳건한 사함이 이루어졌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또한 의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의, 곧 오직 전가로 얻는 의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의롭고 무죄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비뚤어짐은 우리 안에서 결코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 열매, 곧 우리가 앞에서 묘사한 육체의 일들을 맺습니다(롬 7). 불붙은 화덕이 끊임없이 불꽃과 불티를 내뿜고, 샘이 끝없이 물을 쏟아 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원의의 결핍이라고 정의한 사람들은 원죄의 힘과 활동을 충분히 의미 있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성은 선한 것이 없이 가난하고 비어 있을 뿐 아니라, 온갖 악한 것을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낳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정욕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아주 동떨어진 말을 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지성에서 의지까지, 영혼에서 육까지 이 정욕으로 더럽혀지고 가득 차 있다는 것, 또는 (더 짧게 말하자면) 사람 전체가 그 자신으로는 정욕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덧붙인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욕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벗어 버릴 때까지는 결코 사람들 안에서 아주 없어지거나 꺼지지 않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바로가 물에 잠겼고 죄가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더는 없다거나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죄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사는 동안에는 죄의 남은 것들이 우리 안에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그 남은 것들이 주인 노릇 하지 못하고 왕 노릇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늘 우리 안에 산다는 말을 들을 때, 아무도 스스로 속지 말고, 아무도 자기 악 속에서 스스로 달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은 죄인들이 자기 죄 속에서 마음 놓고 잠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 육에게 간질임을 받고 시달리고 찔리는 사람들이 비틀거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아직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정욕이 날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낄 때 많이 나아갔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 곧 자기 육의 마지막 소멸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소멸은 이 죽을 삶이 끝날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을 죽이는 데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일은 세례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이어 가며, 우리가 이 삶을 떠나 주님께로 옮겨 갈 때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은 세례에서 이런 위로도 받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접붙여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하고 결합하여 그분의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언합니다(마 3).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당신의 몸에 바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세례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려는 것, 곧 그분이 우리와 맺기를 기꺼이 원하신 연합과 교제의 가장 굳은 끈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갈 3).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섬깁니다. 세례는 하나의

표입니다. 우리는 이 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고백하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와 한 경건에 일치한다는 것을 증언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공적으로 확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숨을 쉴 뿐 아니라, 우리의 혀와 몸의 모든 지체도 할 수 있는 온갖 표현으로 그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데 바쳐지고(하나님의 영광에서 비어 있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도 우리의 본을 보고 같은 열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고전 1).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로, 자기를 그리스도께 바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 자기 신의를 매었으므로, 세례에서 한 고백을 부인하려 하지 않는 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넌지시 가리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무엇을 염두에 두셨는지를 설명했으니,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쓰고 받아야 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 믿음을 위로하고 확증하려고 주어진 것인 만큼, 하나님의 손에서 받듯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표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으시며 우리 허물의 기억을 지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당신 아들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시고, 사탄과 우리 정욕의 힘을 꺾으시며, 아니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밖에서 씻기고 물에 잠기고 물에 둘러싸이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는 것만큼이나 참되고 확실하게, 이 일들을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십니다.

1536년판 제4장 성례에 관하여(세례와 주의 만찬) 2

CO 1:115–12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15 [58]이 유비, 또는 비유는 성례의 가장 확실한 규칙입니다. 곧 주님께서 이런 형상들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우리는 몸에 속한 것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이런 은혜들이 성례에 묶이고 갇혀 있어서도 아니고, 성례가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는 기관이요 도구여서도 아니며, 다만 주님께서 이 표로 당신의 뜻, 곧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행 10). 그는 이미 전에 죄 사함과 성령의 보이는 은사들을 받은 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에서 더 넉넉한 죄 사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의 훈련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이렇게 반론할 것입니다. “세례로 죄가 씻기지 않는다면, 아나니아는 왜 바울에게 세례로 그의 죄를 씻으라고 말했는가?” (행 22)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믿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든 전에 알았던 것을 더 확실히 확신하게 되든, 우리는 그것을 받고 얻고 얻어 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뜻한 것은 다만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여,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세례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세례에서 죄 사함을 약속하시니, 그것을 받고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례에서 얻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만큼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례는 우리가 거기서 주어진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고

58.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발하는 증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스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가 우리 고백의 상징인 만큼, 우리는 세례로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우리의 깨끗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에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과 사랑의 한 일치로 모든 신자와 함께 한마음으로 살겠다는 것도 증언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할 때(고전 12), 이것을 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한 것, 곧 성례는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손에서가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 자체에서 받듯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참되다면, 여기서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성례를 건네주는 사람의 품위로는 성례에 아무것도 더해지거나 덜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편지가 보내졌을 때, 손글씨와 서명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면 그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도 상관이 없듯이, 우리도 성례를 어떤 배달꾼이 가져오든, 성례에서 우리 주님의 손글씨와 서명을 알아보는 것으로 넉넉해야 합니다. 이로써 성례의 힘과 값을 사역자의 품위로 재던 도나투스파의 오류가 멋지게 반박됩니다.[59]

오늘날 우리의 재세례파(Catabaptistae)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황의 나라에서 불경건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세례를 받았으므로 바르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래서 다시 세례 받기를 미친 듯이 몰아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입문했다는 것, 그러므로 세례는 누가 베풀었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어리석은 말에 맞서 충분히 강한 논거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푼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거나 멸시하는 자들이었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자기들의 무지나 신성 모독에 함께하도록 물에

59. 도나투스파(Donatistae)는 4–5세기 북아프리카의 분리파로, 박해 때 배교한 성직자가 베푼 성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가 하나님의 세례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 사함과 육을 죽임과 영적으로 살림과 그리스도께 참여함에 관한 약속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세례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의 세례가 무효임을 증명하려고, 세례를 받은 뒤 여러 해 동안 도대체 어떤 믿음이 뒤따랐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요구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눈멀고 믿지 않아서 오랫동안 세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늘 유효하고 굳고 참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요 신의 없는 자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한다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이 없으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닌 그 약속이 버려진 채 놓여 있던 그 기간에는, 세례가 우리에게 털끝만큼도 유익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토록 큰 선하심에 그렇게 오랫동안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의 눈멂과 마음의 완악함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약속 자체가 사라졌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로 죄 사함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세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껴안읍시다. 그 약속은 우리의 믿지 않음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에게 묻혀 있었으니,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요한의 세례로 이미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었다고 내세울 때, 불화살이라도 휘두르는 줄로 여깁니다(행 19). 우리 자신도 고백하듯이 요

한의 세례가 지금 우리의 세례와 완전히 같았다면, 전에 그릇되게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배운 뒤에 그 믿음으로 다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참된 가르침 없이 받은 저 세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하고,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배운 참된 경건(religion)으로 처음부터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의 그 세례가 참된 요한의 세례였고 그리스도의 세례와 하나요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들이 다만 바울에게 순수한 가르침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단순하게, 이것을 성령의 세례, 곧 안수로 주어진 성령의 보이는 은사들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은사들을 세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는 것은 CO 117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 위에 내려오셨다고 덧붙인 것도 이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누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일의 요점을 내놓고, 그다음에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이것은 누구든 그 말씀의 문맥 자체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 위에 내려오셨다." 이 뒤의 표현으로 그 세례가 어떤 것이었는지가 설명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성례의 쓰임이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약속들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다음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 왜 세례를 받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 어린아이들은 이런 증거로 무엇을 배울 수도 없고, 공공연히 그 증언을 내놓을 만한 믿음을 속에 품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의 이치를 몇 마디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이에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경솔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죽을 삶에서 불러 가시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복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면, 왜 주님께서 그들이 장차 넘치도록 가득히 누릴 그 좋은 것의 어떤 맛과 첫 열매를 여기서 그들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장차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주님을 뵐 그들이, 왜 거울로 희미하게 주님을 볼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면, 주님의 모든 일이 얼마나 크고,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감각에 얼마나 감추어져 있는지를 생각합시다.

더욱이 우리가 이 나이에서도 주님께서 긍휼의 그릇들을 택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롬 5; 합 2; 롬 1).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증언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막 16).[60] 어떤 이들은 그 대목의 앞뒤 사정을 근거로, 이 말씀은 나이로 보아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목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지고, 이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곧 설교를 들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교는 어른들에게만 한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토록 자주 강조되고 되풀이된 일반적인 말씀이어서, 그렇게 가벼운 풀이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요 3; 6; 17),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인자의 살을 먹는 자가 아니면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60. 원문은 "Marc. ult."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개역한글의 장 번호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그 밖에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실 때, 나이의 구별은 전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아무도 믿음으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굳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도 마땅히 어린아이들에게 속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어른들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이 말을, 제가 믿음이 언제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른들 자신도 어떤 이는 더 늦게, 어떤 이는 더 일찍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모두, 인생의 어느 때에 이 부패의 감옥에서 옮겨지든,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 논거가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만으로도 넉넉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마 19). 그들을 막지 말라고 금하시는 분은 동시에 분명히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죄 사함의 표징을 베풀 때, 우리는 다만 주님의 그 말씀에 서명하고 그 진리를 인 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닫히고 잠겨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유대 사람들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세우신 계명(창 17)도, 우리의 세례가 할례의 자리를 이어받았으므로, 우리에게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할례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 곧 당신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당신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날 세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어른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린아이들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고전 7). 옛날 유대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이, 부정하고 속된 이방인들과 견주어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주의 성찬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제정된 다른 성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빵과 그분의 피로 거룩하게 된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 성찬이라고도 하고 유카리스트(감사)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성례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적으로 먹임을 받고, 우리는 주님께 그 은혜로우심에 감사드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덧붙은 약속은 이 성례가 무슨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곧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내어 주어져서 이제 우리의 것이고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리라는 것,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흘려져서 언제나 우리의 것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례가 믿음을 지키고 일깨우고 자라게 하려고 주어진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감히 부정한 자들의 오류가 다시 반박됩니다. 말씀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눅 22; 고전 11). 이것은 약속의 증거요 증언입니다. 약속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믿음은 거기서 기댈 것과 스스로 위로받을 것과 스스로 굳게 설 것을 얻습니다. CO 119 우리 영혼은 이 성례에서 큰 달콤함과 위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서로 접붙여져서, 그분의 것은 무엇이든 우리 것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것으로 여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고, 하늘나라가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듯이 우리에게서도 떨어져 나갈 수 없다고 담대히 우리 자신에게 보증합시다. 또 우리의 죄가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정죄받으실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 죄로 정죄받을 수 없다고 보증합시다. 이는 그리스도께 마땅히 어떤 죄책을 전가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죄들의 빚진 자가 되시고 그것을 갚는 분으로 나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으로 우리와 맺으신 교환입니다. 그분은 우리

의 가난을 당신에게 받으시고 당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을 것을 받으시고 당신의 불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갈 길을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인자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성례에서 너무나 굳게 약속되므로, 이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고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눈앞에 계시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놀리거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마 26; 막 14; 눅 22; 고전 11).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것임을 나타냅니다.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와 한 실체가 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취하시고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례의 모든 효력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이라는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 단번에 내어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그것이 나누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피는 빵과 포도주 아래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일러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성례에서 내놓아지는 몸에 속한 것들에서 어떤 유비로 영적인 것들로 이끌려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빵을 볼 때, 곧 이런 비유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빵이 우리 몸의 생명을

기르고 지탱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영적 생명의 양식이요 보호입니다. 피의 상징으로 주어진 포도주를 볼 때에는, 포도주가 몸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같은 유익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 유익은 굳세게 하고, 새 힘을 주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몸을 내어 주심과 피를 흘리심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는지를 충분히 헤아린다면, 빵과 포도주의 이런 성질이 이런 유비에 따라 그 몸과 피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주된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저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약속을 인 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당신의 피가 참된 음료이며, 우리가 그것으로 먹임을 받아 영생에 이른다고 증언하시고, 당신이 생명의 떡이시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고 단언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인 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요 6). 그리고 이 일을 이루려고 성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냅니다. 그 약속은 십자가에서 참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면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신 것은, 어떤 이들이 그릇되게 해석하듯 그 이름을 성례에서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셨고, 또 그런 분임을 몸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의 죽을 성질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적인 불멸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을 때, 당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저주를 당신에게 지시고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을 때,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삼키고 삼켜 없애셨을 때, 당신이 입으셨던 우리의 이 썩을 육을 당신의 부활로 영광과 썩지 않음으로 일으키셨을 때, 그런 분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례가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먹을 떡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

게 상기시키는 만큼, 그 떡의 맛과 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컨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고난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행하시고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또 이 살리심이 영원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끝없이 길러지고 지탱되며 생명 안에 보존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시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지 않으셨을 것처럼, 그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과 열매가 영원하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도 결코 생명의 떡이 아니실 것입니다. 성례의 이 힘을 그 가치에 맞게 살피고 헤아렸더라면,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넉넉하고도 남았을 것이며, 옛날에도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비참하게 괴롭혀 온 저 끔찍한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빵 안에 현존하는지를 정의하려 하다가 이런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명민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성경의 단순함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나아가 그 몸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와 같은 크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괴이한 화체를 꾸며 냈습니다. 다른 이들은 빵 자체가 몸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몸이 빵 아래 있다고 했으며, 다른 이들은 몸의 표징과 형상만 내놓아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토록 큰 말다툼과 감정싸움으로 논쟁할 만한 일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물었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 내어 주어진 그대로 어떻게 우리 것이 되며,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진 그대로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가였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CO 121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전체를 소유하고, 그분의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토록 중요한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아니 소홀히 하여 거의 묻어 버리고, 이 가시 돋친

질문 하나만 놓고 싸웁니다. “그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삼키는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의견의 혼란과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의 확실한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해지도록, 먼저 성례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주님께서는 성례로 우리의 배가 아니라 영혼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례에서 그리스도를 찾되, 우리 몸을 위해서 찾지 말고, 우리 육의 감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분으로 찾지도 말며, 영혼이 그분을 이를테면 눈앞에 계신 분으로, 자기에게 주어지고 베풀어지신 분으로 알아보도록 찾읍시다. 요컨대 그분을 영적으로 얻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분을 얻어 생명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성례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든 얻은 것입니다. 누구든 이 생각을 마음에 먼저 품고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곧 참으로, 그리고 효력 있게 주어진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것이며, 몸의 본성 자체에 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말이므로(지금까지 이 일의 정곡을 찌른 사람은 적었습니다), 아마 더 많은 말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서 나실 때 우리의 참된 육을 입으셨고, 우리를 위해 속상하실 때 우리의 참된 육으로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참된 육을 부활하실 때 다시 받으셨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감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이 우리의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일으켜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소망은 얼마나 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몸의 변함없는 참모습은 이것입니다. 곧 장소에 담겨 있고, 제 크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 모양을 지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이 곧은 자들이 한번 받아들인 오류를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무슨 트집을 잡는지 압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이 하늘과 땅이 길고 넓게

펼쳐진 만큼의 크기 말고는 다른 크기를 가진 적이 결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아기로 태에서 나셨고, 자라셨으며, 십자가에 펼쳐지셨고, 무덤에 갇히셨던 것은 어떤 경륜으로 이루어진 일로서, 나고 죽고 그 밖의 사람의 일들을 치르시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부활 뒤에 늘 보던 몸의 모습으로 보이셨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으며, 마지막으로 승천 뒤에도 스데반과 바울에게 보이셨던 것도, 같은 경륜으로 이루어진 일로서, 당신이 하늘에서 왕으로 세워지셨다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밝히 보이시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고전 15; 행 7; 9). 이것이 마르키온을 지옥에서 다시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61]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상태였다면, 그 몸이 허깨비였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내세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 3).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속성의 교류(communicatio idiomatum)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지 못할 만큼 감각이 둔합니까? 바울이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고전 2). 그분이 신성으로 고난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버림받고 멸시받아 육으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요 영광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하늘에 계셨습니다. 육으로는 사람의 아들로 땅에 사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 바로 그 대목에서 그분은 신성으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성이 하늘을 떠나 몸이라는 감옥에 숨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이 만물을 채우면서도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몸으로, 곧 본성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루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하셨기 때문입니다(골 2).

다른 이들은 조금 더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성례에서 베풀어지는 이 몸은 영화롭고 죽지 않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이 여러 장소

61. 마르키온(Marcion, 2세기)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된 육체가 아니라 겉모양뿐이었다고 가르친 이단자입니다.

에, 또는 아무 장소에도 없이, 또는 아무 모양도 없이 성례 아래 담겨 있다 해도 조금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곧 내어 주어질 그 죽을 몸을 주셨다고 울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전에 다볼 산에서 세 제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마 17). 그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광채로 당신의 불멸을 그들에게 잠시 맛보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만찬에서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맞으시고 낮아지셔서 고운 모양도 없이 문둥병자처럼 누우실 때가 바로 눈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한 곳에서는 죽을 것으로 낮은 모습으로 보였는데 다른 곳에서는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붙들렸다면, 마르키온에게 얼마나 큰 창문이 열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큰 불합리는 눈감아 주겠습니다. 다만 영화로운 몸에 관해서 저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것이 몸이 아닙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몸이다. 그러나 장소가 없고, 여러 장소에 있으며,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는 몸이다."[62] 이것은 한 낱말로는 아니지만 에둘러 말하여 그 몸을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육의 부활을 아예 부정하든지, 아니면 육이 부활했을 때에도 육일 것이라고 고백합시다. 육은 장소의 공간에 갇히고, 보이고, 만져진다는 점에서 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에게 들어오셨다는 것(요 20)을 그들이 그토록 자주 들이대지만, 이것도 그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놀라운 방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문을 힘으로 부수지도 않으셨고, 사람의 손으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도

62. 이 그리스어 낱말들은 OCR이 크게 깨져 있습니다("Stoxov, noXvtonov ... SfUTQov"). 앞 문장(여러 장소에, 아무 장소에도 없이, 아무 모양도 없이)과 알아볼 수 있는 낱말(πολύτοπον, ἄμετρον)에 따라 ἄτοπον, πολύτοπον, ἀσχημάτιστον, ἄμετρον으로 짐작하여 옮겼습니다. [원문 의심]

않으셨으며,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이 당신께 길을 비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몸의 참됨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보라, 그리고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눅 24).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은 만져지고 보일 수 있으므로 참된 몸임이 증명됩니다. 이것을 빼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몸은 더는 참된 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에게 미움을 덮어씌우려고, CO 123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악의적으로 헐뜯는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거나, 악의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졌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빼고는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아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은 어떤 것입니까? 제 일정한 크기로 이루어져 있고, 장소에 담기며, 만져지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같은 육이 여러 다른 장소를 차지하고, 아무 장소에도 담기지 않으며, 크기와 모양이 없게 하실 수 없다는 말인가?"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육을 동시에 육이면서 육이 아니게 하시라고, 그대는 하나님의 능력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빛을 동시에 빛이면서 어둠이 되게 하시라고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며 육은 육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빛과 어둠이 다르지 않기를 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질서를 뒤엎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육은 육이어야 하고 영은 영이어야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법과 조건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의 조건은 한 일정한 장소에, 제 크기로, 제 모양으로 있는 것

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조건으로 육을 입으셨고, 그 육에 썩지 않음과 영광을 주셨지만 그 본성과 참됨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성경의 증언이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입니다(행 1). 이 고집 센 자들이 그래도 물러서서, 그분이 보이게 올라가셨고 보이게 돌아오시겠지만,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할 까닭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만져지고 보일 수 있는 살과 뼈가 있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나신다는 말과 올라가신다는 말은 올라가고 떠나는 겉모양을 보이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 울리는 그대로 참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육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곧 아버지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는 어떤 장소의 공간에도 제한되지 않고, 어떤 크기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시는 곳이면 어디서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고, 능력과 힘으로 당신이 현존하심을 보이시며, 늘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그들 안에 사시고, 마치 몸으로 함께 계신 것과 다르지 않게 그들을 붙드시고, 굳게 하시고, 힘을 북돋우시고, 보존하십니다.

이 이치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며, 앞의 이치에 따라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그리고 효력 있게 베풀어지지만, 본성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로 우리가 뜻하는 것은, 거기서 몸의 실체 자체, 곧 그리스도의 참되고 본성적인 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의 이치가 요구하는 몸의 현존입니다. 우리는 이 현존이 여기서 너무나 큰 능력과 너무나 큰 효력으로 드러나서, 우리 영혼에 영생에 대한 의심 없는 신뢰를 가져다줄 뿐 아니라, 우리 육의 불멸에 관해서도 우리를 안심

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육은 이미 그분의 죽지 않는 육으로 살아나고,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불멸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넘어 자기들의 과장법으로 치솟는 자들은 이런 덮개로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가릴 뿐입니다. 혹시 어떤 까다로운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를 들어 여전히 우리와 논쟁하려 한다면, 저는 그가 여기서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례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성례의 모든 것은 믿음에 관련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설명한 이 몸의 참여로,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자들 못지않게 믿음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먹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그토록 끈질기게 매달린다면, 말씀도 분명하게 제 편을 듭니다. 마태와 마가는 주님께서 잔을 새 언약의 당신의 피라고 부르셨다고 전하지만, 누가와 바울은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가 이것이 몸과 피라고 외친다면, 저는 반대로 이것이 몸과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바울은 성경 해석을 믿음의 유비에 맞추라고 명령합니다(롬 12). 이 부분에서 그 유비가 분명히 제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는 어떤 믿음의 먹줄에 자기를 맞추는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요일 4). 그대는 시치미를 떼더라도, 그분에게서 그 육의 참됨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육적인 경배에서도 쉽게 떼어 놓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뚤어진 무모함으로 성례에서 이런 경배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것이 몸이라면, 영혼과 신성도 몸과 함께 있다. 이것들은 이제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거기서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머리의 꿈으로 한번 헤매어 나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면 이렇게 훌륭한 소산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론을

지어낸 자들이 마땅한 겸손으로 자기들의 모든 감각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붙들어 두었더라면, 분명히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 곧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는 말씀에 귀 기울였을 것이고, 성례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경배하지 않고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안심보다 더 큰 위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들의 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을 읽지 못하며, 그들은 앉아 있던 그대로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적 교회의 관습이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대로(행 2), 그 교회는 경배하는 데서가 아니라 떡을 떼는 데서 교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 가르침으로 가르치면서, 자기가 전하는 것을 주님께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고전 11). 경배하는 자들은 추측과 자기들에게서 나온 무언지 모를 논증에 기댈 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음절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CO 125 그들이 몸과 피라는 말을 아무리 내세운다 하더라도, 제정신이고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 곧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삼단논법으로 이것을 멋지게 끌어내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이 어떤 무거운 감각으로 시달리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삼단논법과 함께 쉽게 쓰러지고 흩어지고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것을 볼 때 그럴 것입니다(우리 영혼은 셈을 하도록 불려 나갈 때 오직 이 말씀으로 서며, 이 말씀이 없으면 첫 순간부터 비틀거립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본이 자기들을 거스르고, 자기들만이 자기들의 창시자라는 것을 볼 때 그럴 것입니다. 이런 충격에 다른 가볍지 않은 찌름도 더해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정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아무 중요성 없는 일이었습니까? 하나

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일에서, 어디서도 한마디 말씀도 없었던 것을 그렇게 가볍게 시도해야 했습니까?

더욱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으로 당신 몸의 현존을 우리의 눈과 교제에서 거두어 가셔서, 그분에 관한 모든 육적인 생각을 우리에게서 떨쳐 버리게 하셨습니다(골 3).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위로 들어 올려,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하늘에서 찾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히려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영적으로 경배를 받으셔야 했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육적이고 조잡한 생각으로 가득한 이토록 위험한 종류의 경배를 꾸며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경배를 꾸며 낸 자들은 그것을 성경을 떠나 스스로 꿈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경배에 관한 언급을 하나도 보여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면 분명히 빠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로써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경에서 무엇이든 빼는 것 못지않게 더하는 것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신 12). 그들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내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분의 선물을 주시는 분 자신 대신에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예를 빼앗아 피조물에게로 옮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저주받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더럽혀지고 속되게 된 당신의 은택 안에서 하나님 자신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같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과 생각과 혀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깊이 박아 둡시다. 그것은 가장 좋은 선생이신 성령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워 나갑니다. 다른 데서 아무것도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그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모르고 지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섬기는지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례에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당신의 선하심의 그토록 큰 너그러우심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그것을 알아보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면서, 동시에 이토록 넘치는 인자하심에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마땅한 찬양으로 전하고 감사로 기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례의 제정을 사도들에게 전하실 때, 이것을 당신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과 구원의 모든 신뢰를 주님의 죽으심에 두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그리고 모두 한입으로 함께 공공연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이들도 우리의 본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권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성례의 과녁이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드러납니다.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데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우리 믿음이 성례에서 알아본 것,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입의 고백으로 전하라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례의 둘째 쓰임으로, 외적인 고백에 관련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이 성례가 우리에게 권고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례보다 우리를 사랑과 화평과 일치로 더 힘 있게 북돋우고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권고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당신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고, 우리도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참여하는 자로 삼으시는 그분의 몸은 하나뿐이므로, 우리 모두도 이런 참여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성례에서 베풀어지는 빵이 이 하나 됨을 나타냅니다. 빵은 많은 낟알로 만들어지되, 그 낟알들이 섞이고 어우러져 하나를 다른 하나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음의 큰 일치로 결합되고 이어져서, 어떤

다툼이나 갈라짐도 끼어들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의 말로 설명하고 싶습니다(고전 10).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요, 우리가 떼는 축복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다. 그러므로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아로새겨진다면, 우리는 성례에서 참으로 많이 나아갈 것입니다. 곧 우리가 형제 가운데 누구를 해치거나 헐뜯거나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상하게 하면, 동시에 그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해치고 헐뜯고 비웃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갈라서면, 동시에 그리스도와 갈라서는 것입니다. 형제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몸의 지체인 형제들도 그렇게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도 어떤 아픔을 느끼면 그 아픔이 다른 모든 부분으로 퍼지듯이, 형제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성례를 그토록 자주 사랑의 띠라고 부르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데,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당신의 본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자기를 바치고 내어 주도록 초대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분이 되게 하시는 만큼 우리 모두도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자극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CO 127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주의 성찬의 이 거룩한 빵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 빵이 보여 주는 사람들, 그 빵이 감사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그 빵이 서로 사랑하라는 권고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이요 달고 맛있는 양식이지만, 반대로 그 빵이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찬양의 고백과 사랑으로 일깨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해로운 독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며,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므로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살펴야 할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이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꽃 하나 없이, 사랑하려는 열심 하나 없이, 돼지처럼 주의 성찬을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몸이 자기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모욕으로 그 몸을 욕되게 하고, 그 몸의 모든 존귀를 빼앗으며, 마침내 그렇게 받음으로써 그 몸을 속되게 하고 더럽힙니다. 또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멀어지고 갈라져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한 상징을 자기들의 다툼과 감히 뒤섞는 만큼,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지체마다 갈가리 찢어지는 것이 그들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렇게 신성 모독의 불경건으로 그토록 추하게 더럽히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합당하지 않은 먹음으로 자기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아무 믿음도 두지 않았으면서도, 성례를 받음으로써 자기들의 구원이 다른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다른 모든 신뢰를 맹세하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고발하는 자요,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선언하며, 스스로 자기 정죄를 인 칩니다. 또 그들은 미움과 악의로 형제들,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서 갈라지고 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아무 몫도 없으면서도,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증언합니다. 덧붙여 짚어 둘 것은, 이 대목을 몸의 실제적 현존을 위한 근거로 그토록 자주 들이대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건대 바울은 그리스도의 참된 몸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는 볼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말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사람이 이 떡을 먹거나 잔을 마시기 전에 자기를 살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로 바울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저마다 자기 속으로 내려가 스스로 따져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마음의 신뢰로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로 인정하는지, 입의 고백으로 그분을 시인하는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를 형제들에게 내어 주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것을 보는 그들과 자기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여겨지듯이 자기도 모든 형제를 자기 몸의 지체로 여기는지, 그들을 자기 지체처럼 품고 지키고 돕기를 바라는지를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과 사랑의 이런 의무들이 지금 우리 안에 완전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작된 믿음을 날마다 더욱더 자라게 하고 연약한 사랑을 굳게 하도록, 이것을 향해 힘쓰고 온 소원으로 열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합당하게 먹도록 준비시키려 하면서, 비참한 양심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괴롭혔지만, 정작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먹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교리로 일찍이 땅 위에 있었고 지금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성례를 쓰지 못하게 막혔습니다. 우리의 합당함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면, 우리는 끝장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파멸과 혼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애쓴다 해도, 합당함을 찾으려고 가장 많이 수고했을 그때에 마침내 가장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 말고는 아무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종기를 고치려고 합당함을 얻는 방법을 꾸며 냈습니다.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한 모든 일의 셈을 스스로 따져, 통회와 고백과 속죄 행위(satisfactio)로 우리의 합당하지 않음을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말하기에 더 알맞은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루는 일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놀라고 낙심하여 자기 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심

들에게 너무나 메마르고 덧없는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금령으로 의롭고 무죄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당신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듣는 자기 의에 관하여 안심하게 하려면 가볍지 않은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행한(facere quod in se est)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한 것"이라는 이 안심은 어디서 우리에게 확증됩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다 행했다고 감히 자기에게 보증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합당함에 대한 확실한 안심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신다고 정하는 저 무서운 금령 때문에, 들어가는 길은 언제나 닫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비참한 죄인들에게서 이 성례의 위로를 이렇게 빼앗고 벗겨 버리는 가르침이 어떤 것이고 어떤 창시자에게서 나왔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성례에서는 복음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참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데, 이렇게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가장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던 그런 양식의 맛과 향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란과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거룩한 잔치가 병든 자들에게는 약이요, 죄인들에게는 위로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베풂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건강하고 의롭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잔치가 아무 쓸모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지시므로, 우리는 그분 없이는 우리가 시들고 녹아내리고 쇠약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그분이 생명으로 주어지시므로, 우리는 그분 없이는 우리 자신 안에서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합당함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함과,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우리의 합당하지 않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당신께 합당한 자로 만드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낙심하여,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63]

63. 이 문장의 끝부분은 다음 쪽(CO 1:129)에 있어, 다음 편 원문의 첫머리에서 가져와 함께 옮겼습니다.

1536년판 제4장 성례에 관하여(세례와 주의 만찬) 3

CO 1:129–14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29 [64]또한 그 합당함은, 주께서 당신의 성찬에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하나 됨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듯이 우리 모두에게 한 영혼, 한 마음, 한 혀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헤아리고 묵상해 둔다면, “모든 좋은 것이 없어 궁핍하고 헐벗은 우리, 죄의 더러움으로 얼룩진 우리, 반쯤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합당하게 먹겠는가?” 하는 생각이 결코 우리를 어지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난한 자로서 너그럽게 베푸시는 분께, 병든 자로서 의사께, 죄인으로서 구주께 나아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합당함은 무엇보다 믿음에 있고, 그다음으로 사랑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조차도 우리는 완전한 것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채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께서 그것을 더 낫게 자라게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합당함 자체가 믿음과 사랑에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뜻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합당함의 정도에서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믿음의 완전함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같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앞의 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모든 사람을 이 성찬의 지극히 거룩한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들의 견해가 옳다면, 합당하지 않게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64.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의 불완전함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나고 판결받아 매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례를 받는 데 성례를 헛되고 쓸모없게 만드는 그런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참으로 지나친 우둔함이었습니다. 성례는 완전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의 모자람을 찌르고 일깨우고 자극하고 단련하려고 제정된 것입니다. 이 성례에 관해 지금까지 논한 것은, 이 성례가 지금 공공연한 관습처럼 해마다 한 번, 그것도 형식적으로 받으라고 제정된 것이 아님을 넉넉히 보여 줍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주 사용하여, 자주 기억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억으로 그들은 자기 믿음을 붙들고 굳세게 하며, 찬송의 고백을 노래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전하도록 서로 권하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사랑을 기르며,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됨 안에서 보는 그 결합을 서로에게 증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의 상징에 참여할 때마다, 마치 표를 주고받듯이, 우리는 서로 모든 사랑의 의무에 매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형제를 해칠 일을 저지르지 않고, 필요할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일을 빠뜨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도 교회의 관습이 이러했음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행 2). 그는 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꾸준히 힘썼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곧 말씀과 기도와 성찬 참여와 구제 없이는 교회의 어떤 모임도 열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이런 질서가 세워져 있었음을 바울에게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해마다 한 번 성찬에 참여하라고 명하는 이 관습은, 결국 누구의 손을 빌려 들어왔든, 마귀가 꾸며 낸 것임이 지극히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제피리누스가 그 교령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65] 그러나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시대 형편으로

65. 제피리누스(Zephyrinus)는 3세기 초(199경–217)의 로마 감독입니다. 아래에 나오는 아나클레투스(Anacletus)는 전승에서 1세기의 로마 감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보아 자기의 규정으로 아마도 교회를 그리 나쁘지 않게 보살폈을 것입니다. 그때는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거룩한 성찬이 베풀어졌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했다는 데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속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섞여 살던 그들이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상징으로 자기 믿음을 증언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거룩한 사람은 질서와 다스림을 위해 그날을 정하여, 그리스도인 온 백성이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더 드물게 참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그리 오래지 않은 때에 아나클레투스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참여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좋은 제피리누스의 규정을 후대가 잘못 비틀어, 해마다 한 번 참여하라는 확정된 법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 참여하고 나면, 마치 그해 남은 기간의 일을 멋지게 다 끝낸 듯이, 두 귀를 다 베고 태평하게 잡니다. 이와는 아주 다르게 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주님의 상을 차려 놓고, 그 상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는 약속들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사람을 권하고 자극하며, 게으른 자들의 무기력을 꾸짖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굶주린 자들처럼 떼를 지어 그런 잔치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 이 관습이 마귀의 술책으로 끼어들었다고 탄식한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관습은 한 해의 하루를 정해 줌으로써 한 해 내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또 다른 규정이 나왔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더 나은 무리에게서 성찬의 절반을 훔쳤거나 빼앗았습니다. 곧 피의 상징입니다. 피의 상징은 평신도와 속인들에게는(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바로 이런 칭호로 꾸밉니다) 금지되고, 머리를 깎고 기름 부음 받은 몇몇 사람의 사유 재산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칙령은 모두가 마시라는

것입니다(마 26). 그런데 사람이 새롭고 반대되는 법으로 그것을 폐하고 없애려고 감히 나서서, 모두가 마시지는 말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입법자들은 이유도 없이 자기들의 하나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이 거룩한 잔을 모든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내놓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을 핑계로 댑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그것을 미리 보시고 헤아리지 못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다음 그들은, 참 영리하게도, 둘 대신 하나면 충분하다고 따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몸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이제 자기 몸에서 떼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몸은 피도 포함한다." CO 131 보십시오, 고삐를 조금만 늦추어도 방자하게 날뛰고 사나워지기 시작하는 우리 감각이 하나님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주님께서는 떡을 보이시며 그것이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보이시며 그것을 당신의 피라고 부르십니다. 사람 이성의 대담함은 이에 맞서 떡이 피이고 포도주가 몸이라고 외칩니다. 마치 주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 당신의 몸과 피를 말과 표징으로 구별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나 피를 하나님이자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말을 누가 언제 들어 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당신 자신 전체를 가리키려 하셨다면,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던 대로 "내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마 14; 눅 24; 요 18).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사탄의 일꾼들이, 성경을 놀림감으로 삼는 것이 늘 그들의 버릇이듯이, 여기서도 장난치고 트집을 잡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 참여에 사도들만 받아들이셨는데, 그들은 이미 그분께서 제사꾼 계급에 뽑아 넣으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다섯 가지 물음에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물음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거짓말과 함께 쉽게 논박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이토록 동떨어진 이 해답을 그들은 어떤 신탁으로 계시받았습니까? 성경은 예수와 함께 앉은 열두 사람을 꼽

지만, 그들을 제사꾼이라고 불러 그리스도의 존엄을 흐리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자리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때 열둘에게 주셨더라도, 그들도 그렇게 하라고, 곧 그렇게 서로 나누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왜 저 더 나은 시대, 곧 사도들로부터 그 뒤 천 년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두 상징에 다 참여했습니까? 옛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당신의 성찬에 손님으로 받아들이셨는지 몰랐습니까? 여기서 버티고 얼버무리는 것은 지극히 타락한 뻔뻔함일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주는 교회사가 남아 있고, 옛사람들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 왜 그분께서는 떡에 대해서는 그저 먹으라고 하시고, 잔에 대해서는 모두 마시라고 하셨습니까? 마치 사탄의 간교함을 일부러 미리 막으려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그들 말대로 주님께서 당신의 성찬에 제사꾼들만 합당히 여기셨다면, 주님께서 배제하신 바깥사람들을, 그것도 자기 권한 안에 있지도 않은 선물에 참여하라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아무 명령도 없이 부를 엄두를 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명령도 본보기도 없다면, 그들은 오늘날 무슨 확신으로 하찮은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함부로 합니까? 다섯째,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들에게 전해 준 것을 주께 받았다고 말했을 때(고전 11) 그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는 뒤이어 그 전해 준 것을 밝히는데, 곧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두 상징에 다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주께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 거의 전부를 쫓아내는 자들은 자기들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그 근원이라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예” 하다가 “아니요”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런 가증한 것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가리고, 이 핑계로 변호합니까? 마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제도를 그토록 쉽게 짓밟고 흩어 버리고 폐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이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면 경건(religion)의 온 힘이 꽃피었던 사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고안들과 그 비슷한 것들로 사탄은 마치 어둠을 덮어씌우듯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을 어둡게 하고 더럽히려 애써, 적어도 그 순수함이 교회 안에 보존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가증함의 머리는, 그가 성찬을 흐리고 비뚤게 할 뿐 아니라 아주 지워 없애 사라지게 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깃발을 들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곧 그가 지극히 해로운 오류로 거의 온 세상의 눈을 멀게 하여, 미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요 제물이라고 믿게 했을 때입니다.

이 역병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저는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의 겉모습 아래 숨어 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미사라는 이 한 이름 안에 믿음의 요체 전체가 담겨 있다고 믿을 정도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칠하고 번쩍이게 꾸민 미사라도 그리스도께 큰 모욕을 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묻어 짓누르며, 그분의 죽음을 망각에 넘기고, 거기서 우리에게 돌아오던 열매를 빼앗고, 그 죽음의 기억을 남겨 둔 성례를 무력하게 하고 흩어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극히 분명하게 증명된다면, 이 지극히 강한 도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뽑아내지 못할 만큼 깊은 뿌리가 있겠습니까? 이 빛이 그 아래 숨은 악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그럴듯한 겉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첫째로 내세운 것을 보입시다. 곧 거기서 그리스도께 견딜 수 없는 신성 모독과 모욕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성별되셨는데, 구약에서 세워졌다고 우리가 읽는 그 사람들처럼 한동안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이 죽을 것이었으므로 그 제사장직이 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히 5, 7, 9, 10). 그래서 죽은 자들의 자리를 이어서 메울 후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께는 대리자를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정해지셔서,

영원히 머무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창 14; 시 110). 이 비밀은 오래 전에 멜기세덱에게서 예표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한 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시킨 뒤 다시는 그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의 생명에 아무 끝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닮음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불리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자기들의 제물을 위해 사제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은 그 사제들을 그리스도의 후계자와 대리자처럼 그리스도의 자리에 세웁니다. 이렇게 대신 세움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영예를 빼앗고 영원한 제사장직의 특권을 낚아챌 뿐 아니라, CO 133 그분을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끌어내리려고까지 합니다. 그분은 그 오른편에 죽지 않으시는 분으로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머무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제 나부랭이들이 마치 죽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듯 그리스도 대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돕는 보좌역일 뿐이고, 그러므로 그 제사장직은 그대로 서 있다고 트집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말에 너무 단단히 묶여 있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곧 다른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 때문에 계속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방해받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동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히 7).

미사의 둘째 효능으로 내세운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묻어 짓누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극히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우리에게 얻어 주셨다면, 그 제사의 힘과 효력은 의심 없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서 잡아 바치던 소와 송아지보다 조금도 더 높이 여기지 않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의 제물은 자주 되풀이되었다는 바로 그 점에서 효력 없고 약하다고 판명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에

영원한 정결의 힘이 없었다고 인정하든지,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세대를 위해 일을 다 마치셨다고 인정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바입니다(히 9, 10). 곧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나타나셨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도 이것을 알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 19)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우리는 죽어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신탁처럼 받들어 지키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한 제사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서 이토록 분명하게 그 완전함을 드러내 보이신 이런 제사에, 마치 그것이 불완전한 것처럼 날마다 셀 수 없는 제사를 덧대어 꿰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이 이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 힘은 영원히 머문다고 단언할 뿐 아니라 외치고 엄숙히 증언하는데, 다른 제사를 요구하는 자들은 그 제사를 불완전하고 연약하다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수십만 번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규칙으로 전해진 미사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유일한 희생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신 그 고난을 묻혀 가라앉은 채 누워 있게 하는 것 말고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눈먼 자가 아니고서야, 이토록 분명하고 환한 진리에 맞서 싸운 것이 사탄의 대담함이었음을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저 거짓의 아비가 어떤 속임수로 이 사기를 가리곤 하는지도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곧 제사가 여러 가지이거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같은 제사가 여러 번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기는 손쉽게 흩어집니다. 사도는 논의 전체에서 다른 제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 하나의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으며 더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사의 셋째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미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되고 유일한 죽음을 지우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털어 내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언(testamentum)의 확정이 유언자의 죽음에 달려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의를 주신 그 언약(testamentum)을 당신의 죽음으로 확정하셨습니다(히 9).[66] 이 언약에서 무엇이든 바꾸거나 새롭게 하려고 감히 나서는 자들은 그분의 죽음을 부인하고 그것을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는 새롭고 아주 다른 언약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미사마다 새 죄 사함, 새 의의 획득을 약속하여, 이제 미사가 있는 만큼 언약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또 한 번의 죽음으로 이 새 언약을, 아니 차라리 끝없는 죽음으로 셀 수 없는 미사의 언약들을 유효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죽음이 미사로 지워진다고 한 말이 참되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미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려는 데로 곧장 향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내세우므로, 그분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더구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죽임당하고 잡혀 바쳐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미사마다 제물로 드려지신다면, 그분은 매 순간 천 곳에서 잔인하게 죽임당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 논증이 아니라 사도의 논증입니다(히 9). "그가 자주 자기를 드려야 했다면, 세상의 시작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다."

이제 미사의 넷째 기능을 다루어야 합니다. 곧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던 열매를,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서 낚아챕니다. 미사에서 새 구속을 본 사람이 누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새 사함을 본

66. 원문의 장 번호는 깨져서 "Hebr."만 남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히브리서 9장(9:15–17)으로 읽었습니다.

사람이 누가 자기 죄가 사해졌다고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미사에서 죄 사함을 얻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얻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속하라는 조건에서다" 라고 큰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퍼뜨린 가르침이 바로 이런 것이며, 그들은 오늘날 이 가르침을 고함과 칼과 불로 지킵니다. 곧 우리가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드릴 때, 이 드림의 행위로 죄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속자임을 배우게 하는 구속의 본보기가 되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마무리로 넘어갑니다. 곧 주님께서 당신 고난의 기억을 새기고 빚어 남겨 두신 거룩한 성찬이, 미사가 세워지자 한가운데서 치워지고 지워지고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찬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CO 135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의 제사는 하나님께 값을 치르는 것으로 꾸며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상(satisfactio)으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서로 먼 만큼, 성례와 제사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하심의 너그러움을 알아보고 감사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빚진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지극히 비참한 배은망덕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단지 한 번 생명으로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살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원의 모든 부분이 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미사의 제사는 아주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시려면 날마다 제물로 드려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나누어져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붙어 있는 그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미사의 제사는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갈라놓습니다.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릴 사제들이 있어야

한다는 오류가 힘을 얻은 뒤로, 마치 성찬이 그들에게 넘겨진 것처럼, 성찬은 주님의 명령대로 신자들의 교회에 나누어지기를 그쳤습니다. 사적인 미사들에 길이 열렸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공동체라기보다 오히려 일종의 출교를 닮았습니다. 사제 나부랭이가 자기 희생 제물을 따로 먹어 치우려고 신자들의 온 백성에게서 자기를 떼어 놓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말해 두자면, 제가 사적인 미사라고 부르는 것은 큰 소리로 울부짖고 외쳐 울리는 것이든, 웅얼거림과 속삭임으로만 끽끽대는 것이든 모두입니다. 두 가지 다 교회에서 성찬 참여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을 끝맺기 전에, 저는 우리의 미사꾼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순종이 제물보다 하나님께 더 낫고(삼상 15),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더 요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 아무 명령도 받은 적이 없고 성경의 한 음절로도 입증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제사 방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고 믿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사도가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제사장의 이름과 영예를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나서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셨다"(히 5)고 말하는 것을 들으니, 하나님을 자기 제사장직의 근원이자 제정자로 내놓든지, 아니면 부르심을 받지 않고 악한 무모함으로 밀고 들어간 그 영예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제사장직을 변호할 글자 한 획도 내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제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제사들은 어디로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 남은 것은 눈먼 자도 보고, 귀먹은 자도 듣고, 아이들까지도 깨닫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곧 이 미사의 가증함이 금잔에 담겨 건네져 땅의 모든 왕과 백성을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이렇게 취하게 하고 혼미와 현기증으로 쳐서, 그들이 짐승보다 더 우둔해져 자기 구원의 뱃머리와 고물을 이 하나의 치명적인 소용돌이에 두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으로 사탄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이보다 더 강한 공성 기계를 들이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헬레나입니다.[67] 진리의 원수들이 오늘날 그토록 큰 광포와 분노와 잔혹함으로 칼싸움을 벌이는 것은 그녀를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헬레나입니다. 그들은 그녀와 더불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영적 음행을 이렇게 저지릅니다. 여기서 저는 저 거친 남용들은 새끼손가락으로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두고 자기들의 거룩한 미사의 순수함이 더럽혀졌다고 핑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그들이 자기들의 미사질로 얼마나 추한 장사를 벌이는지, 얼마나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지, 얼마나 탐욕스럽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지 말입니다. 저는 다만 몇 마디 단순한 말로, 미사의 지극히 거룩하다는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가리킬 뿐입니다. 그 거룩함 때문에 미사는 여러 세기 동안 그토록 우러러보이고 그토록 높이 받들어질 만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큰 신비들을 그 품위에 걸맞게 밝히는 것은 더 큰 저작이 할 일이며, 모든 사람의 눈과 입 앞에 오가는 저 음란한 더러움을 섞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미사를 그 가장 골라낸,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 덧붙은 것들 없이 받아들인다 해도, 뿌리부터 꼭대기까지 온갖 종류의 불경건, 신성 모독, 우상 숭배, 독성(瀆聖)으로 들끓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싸움꾼이 제사와 사제라는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않도록, 제가 논의 전체에서 제사와 사제로 무엇을 뜻했는지도 간략히 풀어 두겠습니다.

제사라는 이름은 넓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 하나는 εὐχαριστικόν, 곧 찬양의 제사라 하고, 다른 하나는 화목의 제사, 곧 속죄의 제사라 부릅시다.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그분의 의를 만족시키며, 죄를 씻고, 은혜와 구원을 얻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이런

67. 헬레나(Helena)는 그리스 전설에서 트로이 전쟁의 까닭이 된 여인입니다.

제사는 그리스도 한 분께서만 이루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한 제사의 효력과 힘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증언하신 대로입니다. 곧 아버지의 은혜를 회복하여 화목하게 하고, 죄 사함과 의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그 유일한 드림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으므로 그 뒤로 다른 희생 제물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누구든지 되풀이된 드림으로 죄의 용서를 되사고, 하나님을 달래 화목하게 하고, 의를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다 치르신 그 제사에 대한 지극히 악한 모독이요 견딜 수 없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미사를 드리는 일이, 새 드림의 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미친 짓에 끝이 없도록, 그들은 제사가 온 교회를 위해 똑같이 공동으로 드려진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모자란다고 여겨, 그것을 자기 재량대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따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차라리 그런 상품을 현금을 치르고 사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말입니다. CO 137 그런데 그들은 유다가 매긴 값에는 이를 수 없었으므로, 그래도 어떤 표시로든 자기 창시자의 본을 따르려고 숫자의 닮음은 지켰습니다. 그는 은 서른에 팔았고, 이들은 동전 서른 닢에 팝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팔았고, 이들은 살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팝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그들이 사제라는 것도 부인합니다. 곧 그런 드림으로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하나님을 달래 죄를 속하는 자들이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시며, 모든 제사장직이 그분께로 옮겨졌고 그분 안에서 닫히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옛 제사장직들을 폐하신 뒤 아무것도 세우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스스로 그 영예를 취하지 못한다는 사도의 논증은 꺾이지 않고 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도살자라고 자랑하는 이 독성자(瀆聖者)들은 무슨 확신으로 감히 자기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부릅니까? 우리가 εὐχαριστικόν이라 부른 다른 종류의 제사에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일이 그분께 성별되고 바쳐져,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영광을 섬기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쉬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일이나 죄 사함을 얻는 일이나 공로로 의를 얻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데에만 있습니다. 아니, 이 제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교회에 너무나 필요해서 교회에서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한 이 제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말 1).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크니, 곳곳에서 내 이름에 향과 깨끗한 제물이 드려진다.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제사를 없애려 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이성적인 예배라고 명합니다(롬 12). 다윗도 자기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시 141). 다른 곳에서도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 부르고(계 5), 선지자는 입술의 송아지라고 부릅니다(호 14). 바울이 “예배”라고 부른 것은 매우 뜻깊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식을 뜻했고, 이것을 모세 율법의 육적인 제사들과 넌지시 맞세운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는 이런 종류의 제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전하고

감사를 드리니,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하는 직무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 때문입니다(벧전 2; 히 13). 우리는 우리 예물을 가지고 간구하시는 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간구하시기에,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분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물을 올려놓는 제단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 안에서 감히 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계 1).

독자들은 이 두 성례에 관해 알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여긴 거의 모든 것을 간추려 모은 것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성례의 사용은 신약의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곧 세례는 이를테면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믿음에 처음 들어서는 것이고,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신자들의 집안을 영적으로 먹이시는 끊임없는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이 하나이고,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가 하나이듯이, 세례도 하나뿐이며 자주 되풀이되지 않습니다(엡 4). 그러나 성찬은 거듭 나누어집니다. 한 번 교회에 받아들여진 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먹임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둘 말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없듯이, 신자들의 교회도 다른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새 성례를 세우고 정하는 것이 사람의 재량에 속한 일이 아님을 쉽게 깨달을 사람은, 앞에서 넉넉히 분명하게 설명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곧 성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려고 두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께는 그분의

뜻에 관해 무언가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거나,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이신지, 무엇을 주려 하시고 무엇을 거절하려 하시는지 우리를 확신하고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모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사 40; 롬 11). 이로써 동시에, 그분의 뜻과 어떤 약속의 증거가 될 표징을 아무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정해집니다. 표징을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에 관해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자신뿐입니다. 더 짧게, 그리고 어쩌면 더 거칠게, 그러나 더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성례는 구원의 약속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데 모인다 해도 그들은 자기 힘으로 우리 구원에 관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성례를 내놓거나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둘로 만족하고, 지금 다른 셋째 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말 뿐 아니라, 세상 끝까지 그것을 바라거나 기다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규적인 성례들 말고도 시대의 여러 형편에 따라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주어졌습니다(만나,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 놋뱀 같은 것들)(출 16, 17; 고전 10; 민 21; 요 3).[68] 그러나 그들은 이 변화로, 상태가 별로 굳지 않은 그런 예표에 머물지 말고, 아무 멸망도 끝도 없이 계속될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기다리라는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우리에게는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그분 안에는 지식과 CO 139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며(골 2), 그토록 넘치고 풍성하여, 이 보화에 무언가 새로 더해지기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을 우리에게 맞서도록 자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리고, 찾고, 바라보고, 배우고, 끝까지 익혀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당신 자신을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보도록 보여 주실 저 큰 날이 밝아 올 때까지 말입니다(고전 15; 요일 3). 이런 까닭으로 성경에서 우리의 이 시대는 마지막 때, 마지막

68. 원문에는 “Exod. 14”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에 있으므로 16장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날들, 마지막 시기로 일컬어집니다. 누구도 어떤 새 가르침이나 계시를 헛되이 기다리다 스스로 속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에는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들에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그 아들뿐이십니다(히 1; 눅 10).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새 성례를 세울 수 없도록 그 권한을 빼앗겼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 자체에도 사람의 고안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섞이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물을 부으면 포도주가 그 맛을 잃고 묽어지고, 누룩을 뿌리면 밀가루 반죽 전체가 시어지듯이, 사람이 자기 것을 무엇이든 덧붙이면 하나님의 신비들의 순수함은 더럽혀질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날 다루어지는 대로의 성례들이 그 본래의 순수함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 봅니다. 어디서나 화려한 행렬과 의식과 몸짓은 넘치도록 많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고려도 언급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례들조차 성례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들조차 그런 북새통 가운데서는 고개를 내밀지 못하고, 짓눌린 채 누워 있습니다. 세례에서, 거기서 홀로 빛나고 보여야 했던 것, 곧 세례 자체가 얼마나 보입니까? 성찬은 미사로 바뀌었을 때 아예 묻혀 버렸습니다. 다만 해마다 한 번, 그것도 쥐어뜯기고 반으로 잘려 찢긴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세례를 받아야 할 때마다 그를 신자들의 모임에 데려와, 온 교회가 증인으로 지켜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나았겠습니까? 학습자가 배워야 할 믿음의 고백을 낭독하고, 세례에 담긴 약속들을 설명하고, 학습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마침내 기도와 감사로 돌려보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에 맞는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근원이신 그 하나의 의식이 아무런 외래의 더러움에 덮이지 않고 지극히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사람이 온몸을 물에 잠그는지, 물을

부어 뿌리기만 하는지는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역의 차이에 따라 교회들에게 자유로워야 합니다. 물론 "세례를 주다"라는 낱말 자체가 잠그다를 뜻하고, 옛 교회에서 잠그는 예식을 지켰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입니다.

거룩한 성찬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면 가장 알맞게 집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자주,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베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적인 기도로 시작하고,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다음 말씀의 사역자가 떡과 포도주를 상에 올려놓고 성찬의 제정을 낭독하며, 이어 성찬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들을 설명하고, 동시에 주님의 금지로 성찬에서 막힌 모든 자를 출교합니다. 그 뒤 기도하여, 주님께서 이 거룩한 양식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도 그것을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가르치시고 빚으시며, 우리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으므로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이런 잔치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때 시편을 노래하거나 무언가를 낭독하고, 신자들은 마땅한 질서에 따라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며, 사역자들은 떡을 떼고 잔을 건넵니다. 성찬을 마치면, 진실한 믿음과 믿음의 고백, 사랑과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권하는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을 마치면 교회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신자들이 손으로 받느냐 아니냐, 서로 나누느냐 각자 받은 것을 먹느냐, 잔을 집사의 손에 돌려주느냐 옆 사람에게 건네느냐, 떡이 누룩 든 것이냐 무교병이냐, 포도주가 붉으냐 희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고, 교회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손으로 받는 것이 옛 교회의 예식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끼리 나누라"(눅 22)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감독 알렉산데르 이전에는 누룩 든 보통 떡이었다고 역사는 전합니다.[69] 그가 처음으로 무교병을 좋아했는데, 무슨 까닭에서였는지

69. 알렉산데르(Alexander)는 2세기 초의 로마 감독(알렉산데르 1세)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경건으로 가르치려 했다기보다, 새 구경거리로 백성의 눈을 놀라게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경건에 대한 열심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는 모든 이에게 저는 엄숙히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고, 영적 위로의 달콤함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신자들에게 돌아오는지를, 어리둥절한 백성의 감각을 속이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도 없는 저 싸늘하고 광대 같은 시시한 짓들과 견주어 분명하게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백성이 미신으로 우둔해지고 홀려서 어디로든 끌려가는 것을 두고, 백성이 종교(religion) 안에 붙들려 있다고 부릅니다. 누가 이런 고안들을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변호하려 한다면, 저 자신도 세례에서 성유(chrisma)를 바르고 숨을 내뿜는 일(exsufflatio)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70] 주의 성찬이 사도 시대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녹이 슬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자신만만함의 방자함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억누르지 못하여, 늘 하나님의 신비들 안에서 장난치고 제멋대로 날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토록 귀히 여기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당신의 천사들과 온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고전 6; 갈 1).

CO 141 [71]

70. 옛 세례 예식에서 세례받을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악한 영을 쫓는다는 뜻으로 그 얼굴에 숨을 내뿜던 일을 가리킵니다.

71. 이 단은 제5장의 표제로 시작합니다. 원문 이 편 끝에 남은 표제 첫 줄("SACRAMENTA NON ESSE QUINQUE")은 다음 편(11)에서 표제 전체와 함께 옮겼습니다.

1536년판 · 제5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1536년판 제5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1

CO 1:141–15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41 나머지 다섯 가지, 곧 지금까지 흔히 성례로 여겨져 온 것들은 성례가 아님을 밝히고, 그다음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입니다.[72]

성례에 관한 앞의 논의는 배우려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곧 그들이 호기심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 주께서 제정하셨다고 그들이 아는 저 둘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다른 어떤 성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성례에 관한 저 견해는 거의 모든 사람의 입에 닳도록 오르내리고, 모든 학교와 설교를 두루 돌아다녔으며, 오래됨 자체로 뿌리를 내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참되고 진정한 성례들에 흔히 끼워 넣어지는 나머지 다섯 가지를 따로 더 가까이 털어 살피고, 모든 분칠을 닦아 내어, 그것들이 어떤 것이며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되게 성례로 여겨져 왔는지를 단순한 이들이 볼 수 있게 내놓는다면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꺾을 수 없는 이치로 확증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곧 성례를 제정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신자들의 양심을 일으키고 위로해야 하는데, 양심은 그 확실성을 결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도 천사도 그 뜻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72. 표제의 첫 줄(“SACRAMENTA NON ESSE QUINQUE”)은 원문 파일에서 앞 편 끝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편의 표제 줄과 이어 읽어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모사가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에 관해 증언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을 인치는 인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들과 이 세상의 원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위해 빚어지고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것들로 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천한 것들 아래 하나님의 이토록 큰 신비가 숨어 있게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의 능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례를 성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견진에 관하여.

그들이 견진이라 부르는 것은 사람의 무모함이 스스로 생각해 내어 하나님의 성례 대신 슬쩍 끼워 넣은 첫째 표징입니다. 그들은 견진의 능력이 이러하다고 꾸며 냈습니다. 곧 세례에서는 무죄함을 위해 주어진 성령을 견진에서는 은혜의 증가를 위해 주며, 세례에서 생명으로 중생한 자들을 싸움을 위해 굳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견진은 기름 바름과 이런 말의 형식으로 행해집니다.

"내가 거룩한 십자가의 표로 너를 인치고 구원의 성유로 너를 견고하게 하노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한 점도 내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성유가 성령의 그릇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신시키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기름, 곧 걸쭉하고 기름진 액체일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씀이 원소에 더해지면 성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름에서 기름 아닌 무엇을 우리가 보기를 바란다면, 거듭 말하거니와 이 말씀을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자기가 성례의 사역자임을 인정한다면, 더 오래 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역자의 첫째 법은 명령 없이는 아

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직무에 대한 어떤 명령이라도 내놓기만 하면 저는 한마디도 더하지 않겠습니다. 명령이 없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독성적인 대담함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치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찮고 헛되다는 것을 얻어 내셨을 것이고, 하늘로부터라고 했다면 그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너무 모욕적이지 않으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감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견진이 사람으로부터라면 그것이 헛되고 하찮다는 것이 증명되고, 하늘로부터라고 설득하려 한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본보기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사도들은 아무것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사도들을 본받는 자임을 보인다면 우리에게 책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행 8).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들에게 안수했고, 이 안수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이 안수에 관해 몇 번 언급합니다.

저는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듣습니다. 곧 그들은 자기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당신 백성에게 부어 주시던 성령의 저보이고 놀라운 은사들을 당신의 사도들이 안수로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수 밑에 더 깊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런 의식을 쓴 것은, 그 몸짓 자체로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를테면 드린다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수행한 이 직무가 아직 교회에 남아 있다면, 안수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은사가 주어지기를 그친 뒤에는 안수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도 분명히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와 지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CO 143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자들을 당신께로 불러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영원하고 영구히 굳게 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요 7; 사 55). 그러나 안수로 나누어지던 저 능력의 기적들과 드러난 역사들은 그쳤고, 한때만 있어야 했습니다. 복음의 새 선포와 그리스도의 새 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적들로 빛나고 높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적들을 그치셨을 때 당신의 교회를 곧바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 나라의 웅대함과 당신 말씀의 존엄이 넉넉히 뛰어나게 드러났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대들은 어떤 점에서 사도들을 본받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안수로 성령의 분명한 능력이 곧바로 드러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안수를 내세워 자랑합니까? 우리는 사도들에게 안수가 쓰였다고 읽지만, 전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신 그 숨이 성령을 주는 성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요 20).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 하셨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따라 성령의 보이는 은사들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던 그때에 안수했던 것입니다. 후손들이 이 원숭이들처럼 비고 싸늘한 표징을 그저 흉내로, 실체 없이 꾸며 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안수로 사도들을 본받는다고 우긴다 하더라도(그들에게는 안수에서 사도들과 닮은 것이 무언지 모를 뒤틀린 서툰 흉내(κακοζηλία)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기름이라 부르는 그 기름은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기름에서 구원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것에 굳세게 하는 힘을 돌리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원소들에서 멀리 떼어 내고, 이런 하찮은 준수들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정죄하는 것이 없는 바울입니까(갈 4; 골 2)? 저는 이것을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언합니다. 기름을 구원의 기름이라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에 몫이 없습니다. 기름은 배를 위하고 배는 기름을 위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과 저것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쓰는 것 자체로 없어지는 이 모든 약한 원소들은, 영적이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세례받는 물과, 주의 성찬이 그 아래 베풀어지는 떡과 포도주를 같은 자로 재는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성례들에서는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놓이는 육체적인 것의 실체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새겨 넣은 형식입니다. 모든 힘은 이 형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에서 우리 눈에 드러나는 떡과 포도주와 물이 자기 실체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는 바울의 말(고전 6)이 언제나 들어맞습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의 형체와 함께 지나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성례가 되는 한에서는, 우리를 육에 붙잡아 두지 않고 참으로 영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기름기가 얼마나 많은 괴물을 품고 기르는지 좀 더 가까이 살펴봅시다. 이 기름 바르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에서는 성령이 무죄함을 위해 주어지고 견진에서는 은혜의 증가를 위해 주어지며, 세례에서는 우리가 생명으로 중생하고 견진에서는 싸움을 위해 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례가 견진 없이는 올바로 완성될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오, 이 사악함이여!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롬 6), 그분의 부활에도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우리 육을 죽임과 영으로 살림이라고, 곧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풀이합니다. 싸움을 위해 무장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가가 우리가 인용한 그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그분을 고백하던 그들이 성령의 어떤 선물도 받지 못했다고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난 능력과 보이는 은사를 받게 되는 그 성령 받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훨씬 전에 그들에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마 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사탄의 악의에 찬 해로운 사기를 보십시오. 그는 세례에서 참으로 주어지던 것을 자기의 견진에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조심하지 않는 자들을 몰래 세례에서 떼어 내려 합니다.

그러니 세례에 고유한 약속들을 세례에서 잘라 내어 다른 데로 끌어 옮기는 이 가르침이 사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제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거듭 말하거니와, 이 훌륭하다는 기름 바름이 어떤 기초에 기대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선물들과 함께 옷 입었다"(갈 3)고 합니다. 기름 바르는 자들의 말은 "우리는 세례에서 싸움을 위해 무장시키는 아무 약속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의 것이 진리의 목소리이니, 뒤의 것은 거짓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견진을 그들이 지금까지 정의한 것보다 더 참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곧 견진은 세례의 사용을 흐리고 없애는, 세례에 대한 큰 모욕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떼어 내는 마귀의 거짓 약속입니다. 아니면, 원한다면, 마귀의 거짓말로 더럽

혀진 기름으로서 마치 어둠을 덮어씌우듯 단순한 이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덧붙입니다. "모든 신자는 세례 뒤에 안수로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감독의 견진으로 성유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교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다 성경에 CO 145 기록되고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 경건(religion)의 참된 형식은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찾고 배워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진리,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체는 그리스도인을 시작만 하게 하고, 기름이 완성시키는 셈입니다.

이 견해로 모든 사도와 그 많은 순교자가 정죄됩니다. 그들이 결코 성유를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때는 아직 거룩한 기름이 없었으니, 그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교의 모든 부분을 채우거나, 아니 차라리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잠자코 있어도, 그들은 넉넉히 스스로를 반박합니다. 그들은 세례 뒤에 자기 백성의 몇 분의 일에게나 기름을 바릅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기 양 떼 가운데 이런 반쪽 그리스도인들을 견딥니까? 그 불완전함은 쉽게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그들은 무거운 죄 없이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이토록 태만하게 빠뜨리도록 내버려 둡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막힌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토록 필요한 것을, 왜 더 엄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들은 그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멸시받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것이 그들이 떠벌려 파는 만큼 값진 것이 아님을 넌지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렇게 정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 바름은 세례보다 더 큰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특별히 대사제들(summi pontifices)의 손으로 베풀어지지만, 세례는 모든 사제가 흔히 베풀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고안에 이토록 아첨하여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도들을 태연히 멸시하는 자들을 두고, 아주 미쳤다는 것 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 독성의 입이여, 너는 네 입김의 악취로 더럽혀지고 웅얼대는 말로 주문을 건 기름 덩어리를 감히 그리스도의 성례에 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물과 견주느냐? 그러나 네 사악함에는 그것조차 모자라서, 앞세우기까지 하는구나. 이것이 거룩한 좌의 답변이요, 이것이 사도좌 세발솥의 신탁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기들 생각으로도 고삐 풀린 이 광기를 조금 누그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견진은 더 큰 존경으로 받들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이 주는 능력과 유익이 더 커서가 아니라, 더 존귀한 자들이 베풀고 몸의 더 존귀한 부분, 곧 이마에 행해지기 때문이다. 또는 세례는 사함에 더 힘이 있지만, 견진은 덕의 증가를 더 크게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째 이유로 그들은 성례의 힘을 사역자의 존엄으로 평가하는 도나투스파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73] 그래도 좋습니다. 견진이 감독의 손의 존엄 때문에 더 존귀하다고 불리게 해 둡시다. 그러나 누가 그들에게 감독들에게 그토록 큰 특권이 어디서 주어졌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기 욕심 말고 무슨 이유를 대겠습니까? 그 권리를 쓴 것은 사도들뿐이었고, 성령을 나누어 준 것도 사도들뿐이었습니다. 감독들만 사도입니까? 아니, 그들이 도무지 사도이기는 합니까? 그래도 이것도 인정해 줍시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같은 논리로, 주의 성찬에서 피의 성례는 감독들만 손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라 하여 평신도에게 거절하니 말입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면, 왜 "그러므로 감독들에게만"이라고 결론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는 사도들을 단순한 장로로 만들더니, 이제는 머리가 어지러워 다른 데로 휩쓸려 사도들을 갑자기 감독으로 세웁니다.

끝으로,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으나(행 9) 바울에게 보내져, 바울이

73. 도나투스파(Donatistae)는 4–5세기 북아프리카의 분리파로, 성례의 효력이 집례자의 거룩함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덧붙이겠습니다. 이 직무가 하나님의 법으로 감독들에게 고유한 것이었다면, 왜 그들은 감히 그것을 평범한 장로들에게 넘겼습니까? 그레고리우스의 어떤 편지에서 읽을 수 있는 대로 말입니다. 둘째 이유는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고 우둔합니까? 견진에서는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세례에서는 정수리에 바른다고 하여, 자기들의 견진을 하나님의 세례보다 더 존귀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가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경건한 이에게 엄숙히 묻습니다. 이 악당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자기들의 누룩으로 성례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것 하나뿐이 아닙니까? 저는 다른 곳에서, 성례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이 고안한 것들의 무리 가운데서 틈새로 겨우 비쳐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누가 이 일에 관해 저를 믿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적어도 자기 선생들을 믿으십시오. 보십시오, 그들은 물은 지나쳐 아무것으로도 치지 않고, 세례에서 오직 기름만 대단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맞서, 세례에서 이마는 물로 적셔진다고 말합니다. 이 물에 비하면 너희의 기름은, 세례에서든 견진에서든, 우리에게 똥 한 덩이만 한 값어치도 없습니다. 누가 그것이 더 비싸게 팔린다고 내세운다면, 대답은 쉽습니다. 너희가 파는 것은 사기요, 사악함이요, 도둑질입니다. 셋째 이유로 그들은 견진에서 세례에서보다 덕의 증가가 더 크게 주어진다고 지껄이면서 자기 불경건을 드러냅니다. 사도들은 안수로 성령의 보이는 은사들을 베풀었습니다. 이들의 기름기는 무엇에서 열매가 많음을 보여 줍니까? 그러나 한 가지 독성을 여러 독성으로 덮는 이 누그러뜨리는 자들은 물러가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니, 푸느라 그토록 애쓰기보다 끊어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럴듯한 이유가 자기들에게 없음을 볼 때, 늘 하던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관습이고 여러 세기의 합의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성례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로부터 옵니다. 그들이 견진을 성례로 여기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근원이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성례를 둘보다 많이 꼽지 않는데, 그들은 왜 오래됨을 들이댑니까? 우리 믿음의 방패를 사람들에게서 구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함락할 수 없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례라고 거짓으로 꾸며 대는 것들이 옛사람들에게는 결코 성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O 147 옛사람들은 안수에 관해 말하지만, 그것을 성례라고 부릅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이 기도일 뿐이라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 썩은 구별로 제게 대들지 마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말을 견진의 안수가 아니라 치유의 안수나 화해의 안수에 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은 남아 있고 사람들 손에 오르내립니다. 제가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쓴 것과 다른 뜻으로 비튼다면, 좋습니다,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욕설로 저를 뒤덮을 뿐 아니라 침까지 뱉으라고 하십시오. 이 성례의 유산된 가면이 태어나기 전에 옛사람들에게 있었으리라고 제가 짐작하는 관습을 우리가 지켰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세례에 해를 끼치지 않고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견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리 교육(catechesis)입니다. 이 교육에서 아이들이나 청년기에 가까운 자들이 교회 앞에서 자기 믿음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 문답서가 쓰여, 우리 경건의 거의 모든 조항, 곧 신자들의 온 교회가 논란 없이 다 동의해야 할 조항들의 요약을 담고 쉽게 풀어 준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교리 교육 방식일 것입니다. 열 살 된 아이가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교회 앞에 나서면, 각 조항에 관해 질문을 받고 하나하나 대답할 것입니다. 모르거나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교회가 증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신자들의 백성이 한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일하고 참되고 순수한 믿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 훈련(disciplina)이 오늘날 힘이 있다면, 자녀 교육을

자기와 아무 상관 없는 일처럼 태연히 소홀히 하는 어떤 부모들의 게으름이 분명 날카롭게 일깨워질 것입니다. 그때는 공적인 수치 없이는 그것을 빠뜨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백성 가운데 믿음의 일치가 더 클 것이고, 많은 사람의 무지와 미숙함도 그토록 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새롭고 낯선 교리에 그토록 함부로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교 교리의 일종의 순서가 생길 것입니다.

회개에 관하여.

그들은 그다음 자리에 회개를 둡니다. 그들은 회개에 관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논하여, 양심이 그들의 가르침에서 확실하고 단단한 것을 하나도 얻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회개에 관해 배운 것을 간략히 이야기하고,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마지막으로 그들이 얼마나 가벼운, 아니 차라리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것을 성례로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회개에 관해 어떤 학식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보다 훨씬 전에도, 성경의 규범을 따라 단순하고 진실하게 말하려 했을 때, 회개가 두 부분, 곧 죽임(mortificatio)과 살림(vivificatio)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는 데서 생기는 영혼의 고통과 두려움이라고 풀이합니다. 누가 죄를 참되게 알게 되면, 그때 그는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기 시작하고, 그때 마음 깊이 자기 자신을 싫어하며, 자기가 비참하고 멸망한 자임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정도 느껴 마음이 움직이면(하나는 다른 하나에서 곧바로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참으로 얻어맞고 넋을 잃은 채 쓰러져 누우며, 낮아지고 꺾여 떨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앞부분이며, 흔히 이를 통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살림을 믿음에서 나오는 위로라고 풀이합니다. 곧 죄의식으로 엎드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얻어맞은 사람이, 그 뒤 그리스도를 통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일으키고, 숨을 돌리고, 마음을 추스르며, 이를테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 이름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쓰인 것을 보고 회개의 두 형태를 세웠고, 어떤 표시로 구별하려고 하나를 율법적 회개라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죄의 낙인에 상처 입고 하나님 진노의 두려움에 짓눌려, 그 혼란에 묶인 채 붙어 있고 스스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회개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적 회개라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속으로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더 높이 떠올라, 그리스도를 자기 상처의 약, 두려움의 위로, 비참의 항구로 붙잡는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의 예는 가인, 사울, 유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기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다는 뜻으로 말합니다(창 4; 삼상 15; 마 27).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다만 원수 갚으시는 분과 재판장으로만 생각하여, 그 느낌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회개는 일종의 지옥 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 이미 그 문간에 들어서서, 하나님 위엄의 진노하시는 얼굴 앞에서 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적 회개는 죄의 가시에 속으로 쓰리게 상처 입었으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로 일으켜지고 새 힘을 얻어 주께로 돌이킨 모든 사람에게서 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소식을 받고 몹시 두려워했으나,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 신뢰를 되찾았습니다(왕하 20).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의 무서운 선고에 혼란에 빠졌으나,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며, 주께서 돌이키시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욘 3). 다윗은 백성을 계수하는 데서 크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으나, "주여, 주의 종의 죄악을 없이 하소서"라고 덧붙였습니다(삼하 24).[74] 그는 나단의 책망을 듣고 간음의 죄를 깨달아 주 앞에 엎드렸으나, 동시에 용서를 기다렸습니다(삼하 12).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

74. 원문은 "2 Sam. ult."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찔렸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덧붙인 자들의 회개도 그러했습니다(행 2). 베드로 자신의 회개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심히 통곡했으나 소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되기는 하지만, 제가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한, 회개라는 이름 자체는 달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 아래 믿음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CO 149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행 20)고 말하는 것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회개와 믿음을 서로 다른 두 가지로 꼽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된 회개가 믿음 없이 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은 나뉠 수 없더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소망 없이는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믿음과 소망이 서로 다르듯이, 회개와 믿음도 끊임없는 끈으로 서로 붙어 있지만, 섞기보다는 결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회개는 우리 육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며, 이것은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이룹니다. 옛날 선지자들이나 그 뒤 사도들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한 모든 설교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힘쓴 것은, 사람들이 자기 죄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찔려 주 앞에 엎드려 낮아지고, 바른 길로 돌아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로 돌이키다" 또는 "돌아오다"와 "회개하다"를 같은 뜻으로 섞어 씁니다. 그리고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런 돌이킴과 회심에 걸맞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마 3).

그런데 복음의 요체 전체는 이 두 조항, 곧 회개와 죄 사함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분 앞서 보내진 사자인 요한은(마 11)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했습니다(마 3). 그는 회개로 부름으로써,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았음을 깨달아, 자기 육을 죽이는 것과 영 안에서의 새 중생을 온

소원을 다해 구하라고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그는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가까이 있다고 가르친 하나님 나라로 그는 죄 사함과 구원과 생명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요한이 와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막 1; 눅 3)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무게에 눌리고 지친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켜 사함과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당신의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그분은 자비의 보화가 당신 안에서 열렸다고 선언하시고, 다음에 회개를 요구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일 전체를 짧게 담으려 하셨을 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며, 내 이름으로 회개와 죄 사함이 전파되어야 한다"(눅 24)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그분의 부활 뒤에 이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열심이 부패하고 악하다는 것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하며, 다시 태어나는 길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악한 욕망들이 죽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분의 무덤에 죄의 몸이 묻힙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구속과 의와 속상과 생명이 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고 무죄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을 배울 때(고전 1), 죄 사함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저는 회개를 죽임이라고 풀이합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참하고 괴로워하는 죄인들, 곧 탄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주리고

목마르며 고통과 비참으로 시들어 가는 자들에게만 당신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평생 이 회개에 힘쓰고, 이것에 몰두하고, 이것을 좇아야 합니다. 플라톤은 철학자의 삶이 죽음의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참되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육을 죽이는 끊임없는 힘씀과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싫어하기를 배운 사람이 가장 많이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진흙탕에 붙어 더 나아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서두르고 그분을 사모하여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접붙여져 회개를 힘써 익히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모든 견해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이었으므로, 저에게는 성경의 진리와 가장 잘 맞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스콜라 궤변가들이 회개에 관해 전한 것을 털어 살피러 넘어갑니다. 저는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훑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좇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소책자의 짧음에 맞추려는 우리 이 작은 책이 끝없이 길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다른 점에서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일을 그 많은 책으로 휘감아 놓아서, 그들의 찌꺼기 속에 조금만 빠져들어도 빠져나올 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정의를 내리는 데서 회개가 무엇인지 결코 깨달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들은 옛사람들의 책에서 회개의 힘을 조금도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말들을 낚아챕니다. 곧 회개한다는 것은 지난날의 죄를 슬퍼하고 슬퍼할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는 말, 또 지난 악을 애통하고 애통할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는 말, 또 자기가 저지른 것을 슬퍼하여 자기 안에서 벌하는 일종의 아파하는 보복이라는 말, 또 각 사람이 저질렀거나 동의한 악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쓰라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교부들에게서 잘 나온 말이라고 인정해 줍시다(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들은 CO 151 회개를 묘사하려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 사람들에게 그들이 건짐받은 같은 죄에 다시

빠지지 말라고 권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정의한 회개를 마음의 통회, 입의 고백, 행위의 속죄 행위(satisfactio)로 나누는데, 정의할 때보다 조금도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평생을 삼단논법 짜는 데 닳아 없앤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정의로부터 추론하여(이런 논증 방식은 논리학자들 사이에서 통합니다),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지난 죄를 슬퍼하고 슬퍼할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지난 악을 애통하고 애통할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으며, 저지른 것을 슬퍼하여 벌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나눔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참으로 회개한 그 사람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회개는 고백 없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나눔은 성례인 한에서의 회개에 관한 것이라거나, 자기들의 정의에는 담지 않은 회개의 온전한 완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대답한다면, 저를 고발할 까닭이 없습니다. 더 순수하고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은 자기들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저는 분명 제 둔함 때문에, 어떤 일을 논할 때에는 모든 것을 정의 자체에 견주어 봅니다. 정의는 모든 논의의 돌쩌귀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생님들의 특권이라고 해 둡시다. 이제 그 부분들 자체를 차례로 살펴봅시다.

독자들은 여기서 나귀 그림자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대한 일, 곧 죄 사함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회개에 세 가지, 곧 마음의 찔림, 입의 고백, 행위의 속죄 행위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죄 사함을 얻는 데 필요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건 전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죄 사함이 어떤 이치로, 어떤 법으로,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얻어지는지를 깨닫고 바르게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양심은 아무 안식도, 하나님과의 아무 평화도, 아무 신뢰나 안심도 얻을 수 없고, 끊임없이 떨고, 흔들리고,

들끓고,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미워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죄 사함이 그들이 거기에 묶어 놓은 이 조건들에 달려 있다면,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더 가엾은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통회를 용서를 얻는 첫째 부분으로 삼고, 마땅한 통회, 곧 의롭고 온전한 통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람이 이 통회를 정당한 분량만큼 다 했다고 언제 안심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참한 양심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고문당하고 시달립니다. 그들에게 마땅한 죄의 통회가 지워진 것을 보면서도, 그 마땅한 분량에 미치지 못하여 자기가 빚진 것을 다 갚았다고 스스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 고 말한다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누가 감히 자기가 죄를 슬퍼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았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와 씨름하고 긴 싸움에 시달린 양심들은 마침내 머물 항구를 찾지 못하자, 적어도 어느 정도라도 자기를 달래려고 억지로 고통을 짜내고 눈물을 쥐어짜 자기들의 통회를 완성하려 합니다.

그들이 제가 중상한다고 말한다면, 나와서 이런 통회의 가르침 때문에 절망에 몰리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참된 고통 대신 고통의 꾸밈을 내밀지 않은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보여 주라고 하십시오. 우리도 어떤 곳에서 죄 사함은 결코 회개 없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괴로워하고 죄의식에 상처 입은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를 진실하게 간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회개가 죄 사함의 원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통회를 바쳐야 한다는 저 영혼의 고문은 없앴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자기의 찔림이나 자기의 눈물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오직 주님의 자비에만 박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신다고 일깨웠을 뿐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놓임을 전파하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려고 보내지셨기 때문입니다(마 11; 사 61). 이로써 자기 의로 배불러 자기의 가난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진노에 태평하여 자기의 악에 대한 치료책을 찾지 않는 멸시하는 자들은 제외됩니다. 이런 자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고,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갇히지도 않고, 포로 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코 다 해낼 수 없는 의롭고 온전한 통회로 죄 사함을 공로로 얻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죄인에게 자기 비참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비를 주리고 목말라하도록 가르치고, 그의 뜨거움과 지침과 포로 됨을 그에게 보여 주어 시원함과 안식과 해방을 찾게 하며, 마침내 자기의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고백에 관해서는 교회법학자들과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 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고백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명령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교회법학자들은 교회의 규정으로만 명령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싸움에서 신학자들의 두드러진 뻔뻔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장을 위해 인용한 만큼의 성경 구절을 모두 비뚤게 하고 억지로 비틀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보자, 남보다 영리해 보이고 싶은 자들은 이런 핑계로 빠져나갔습니다. 고백은 실체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법에서 나왔으나, CO 153 형식은 나중에 실정법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법률가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소환을 하나님의 법에 돌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변도 그렇게 돌립니다. 아담이 항변하듯이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운운하며 대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형식은 시민법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형식을 갖추었든 갖추지 않았든 이 고백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무슨 논증으로 증명하는지 봅시다. 그들은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셨다"고 말합니다(마 8; 막 1; 눅 5, 17).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고백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고백을 듣는 일을 맡았다는 말을 누가 언제 들어 보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풍유로 도망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나병과 나병을 분별하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레 13). "죄는 영적인 나병이다. 이것에 관해 판정하는 것은 사제들의 일이다." 대답하기 전에 지나가며 묻습니다. 이 구절이 그들을 영적인 나병의 재판관으로 만든다면, 왜 그들은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나병의 판정을 자기들에게로 끌어옵니까?[75]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율법은 나병의 판정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맡긴다. 이것을 우리 것으로 삼자. 죄는 영적인 나병이다. 우리도 죄의 판정자가 되자."

이제 대답합니다. 제사장직이 바뀌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제사장직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고, 그분 안에서 성취되고 끝났습니다(히 7). 그러므로 제사장직의 모든 권리와 영예는 그분 한 분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풍유를 좇기를 좋아한다면, 그리스도를 유일한 제사장으로 자기 앞에 두고, 모든 일에 대한 자유로운 재판권을 그분의 재판석에 쌓아 드리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풍유는 순전히 국가적인 법을 의식법 가운데 두니 엉뚱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십니까?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제사장 앞에 보이고 제물을 드려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명한 율법을 당신이 어긴다고 제사장들이 중상하지 못하도록, 깨끗해진 나병 환자들에게 율법에 속한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모세가 율법에서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기적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나병 환자라고 판정했었는데, 이제는 나았다고 판정합니다. 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기적의 증인이 되지

75. [원문의심] 원문 그대로는 "왜 육체적인 나병의 판정을 자기들에게 끌어오는가?" 입니다. 앞뒤 논리로는 "왜 끌어오지 않는가?" 로 읽힐 수도 있어, 부정어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기적을 그들이 살펴보도록 맡기시니, 그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얼버무리므로, 이 일은 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마 24).[76]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마 10) "너희가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곧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이 더 강하게 정죄받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샘, 곧 풍유에서 둘째 논증을 끌어냅니다. 마치 풍유가 어떤 교리를 확증하는 데 큰 힘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풍유에 힘이 있다고 해 둡시다. 다만 제가 같은 풍유를 그들보다 더 그럴듯하게 내세울 수 있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난 나사로를 수건에서 풀어 놓아 주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요 11). 첫째로 그들은 이것부터 거짓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곁에서 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게 하여 아무 속임수의 의심 없이 기적이 더 분명해지고, 손 하나 대지 않고 오직 당신의 목소리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데서 그분의 능력이 더 크게 빛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서 모든 나쁜 의심을 없애시려고, 그들이 돌을 굴려 내고, 악취를 맡고, 죽음의 확실한 표시를 보고, 그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살아 있는 그를 처음으로 만지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해 줍시다. 그러면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풍유로 다루면 얼마나 더 알맞고 솜씨 있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징으로 당신의 신자들에게, 당신이 살리신 자들을 풀어 주라고, 곧 당신이 잊으신 죄를 다시 기억에

76. 원문에는 "Matth. 26"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마태복음 24:14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불러오지 말고, 당신이 사하신 자들을 죄인처럼 정죄하지 말며, 당신이 용서하신 것을 아직도 나무라지 말고, 당신은 자비롭고 쉽게 용서하시는데 자기들은 벌하는 데 엄하고 까다롭지 말라고 가르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서 자기들의 풍유를 휘둘러 보라고 하십시오.

이제 그들은 자기 보기에 분명한 문장들로 싸우면서 더 가까이 맞붙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나아온 자들은 자기 죄를 고백했고(마 3),[77] 야고보는 우리에게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명합니다(약 5).[78] 세례를 받으려던 자들이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물로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주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 말고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겠습니까? 세례는 죄 사함의 상징인데, 죄인들, 곧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말고 누가 이 상징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야고보가 서로 고백하라고 명하는 것도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뒤따르는 것을 유의했다면, 이것도 자기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서로의 고백과 서로의 기도를 함께 묶습니다. 사제 나부랭이들에게만 고백해야 한다면, 그들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말에서는 사제 나부랭이들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가 우리가 서로 고백하기를 원하면서, 다른 이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ἀλλήλοις)는 번갈아, 또는 원한다면 상호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시한 소리는 물러가게 하고, 사도의 뜻 자체를 받아들입시다. 그것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곧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번갈아

77. 원문의 장 번호는 깨져서 "Matth."만 남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마태복음 3장(3:6)으로 읽었습니다.
78. 원문은 "Iac. ult."(야고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서로의 품에 털어놓아, 서로의 조언과 서로의 동정과 서로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형제의 연약함을 서로 알게 되었으니 그들을 위해 주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하라고 이토록 힘써 강조하는데, 그들은 왜 야고보를 우리에게 맞서 인용합니까?

1536년판 제5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2

CO 1:155–16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55 [79]그런데 먼저 자기의 비참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을 자라고 선언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으니, 이는 모든 입이 막히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오직 그분만이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갈 3; 롬 3).

그런데 그들이 무슨 낯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고해가 하나님의 법에 속한다고 감히 다투는지 놀랍습니다. 우리도 그 관습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옛날에는 자유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인노켄티우스 3세의 시대 이전에는 그것에 관해 아무 법이나 규정도 세워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 자신의 연대기도 이야기합니다.[80] 그리고 역사서들에도, 다른 옛 저술가들에게도 분명한 증언들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세운 법이 아니라 감독들이 제정한 교회 행정상의 규율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것 가운데 하나만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이 일에 대한 흐릿하지 않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소조메누스는 이것이 감독들의 규정이었고, 서방 교회들에서,

79.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80. 인노켄티우스 3세(Innocentius III, 재위 1198–1216)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연 교황입니다. 이 공의회가 모든 신자에게 해마다 한 번 자기 사제에게 고해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부지런히 지켜졌다고 전합니다.[81] 이로써 그는 그것이 모든 교회의 보편적 제도가 아니었음을 알려 줍니다. 또 그는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특별히 지정되어 이 직무를 맡았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그는, 열쇠가 사제 계급 전체에게 가리지 않고 주어졌다는 그들의 거짓말을 넉넉히 반박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제에게 공통된 직무가 아니라, 감독이 그 일을 위해 뽑은 한 사람의 특별한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어떤 귀부인이 고해하는 척하면서 그 핑계로 한 집사와 맺고 있던 관계를 가려 온 것이 드러나기까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추행 때문에, 거룩함과 학식으로 이름난 사람이요 그 교회의 감독이던 넥타리우스가 고해 의식을 폐지했습니다.[82]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 나귀들은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귓속 고해가 하나님의 법이었다면, 넥타리우스가 어찌 감히 그것을 떼어 내고 뽑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옛사람들의 모든 찬동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넥타리우스를 이단과 분리의 죄로 고발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같은 셈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도 정죄할 것입니다. 소조메누스는 그 교회에서 고해의 관습이 잠시 덮여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사라져 버렸다고 단언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만이 아니라 동방의 모든 교회를 배교의 죄인으로 몰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그들의 말이 참이라면) 범할 수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된 법을 소홀히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 전체가 더 분명하고 수월해지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고백을 전해 주었는지를 성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해에 관한 그들의 지어낸 말들을 덧붙이겠습니다. 다는 아

81. 소조메누스(Sozomenus, 5세기 전반)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활동한 법률가이자 교회사가로, 『교회사』를 썼습니다.
82. 넥타리우스(Nectarius, 397년 죽음)는 381년부터 죽을 때까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이었습니다.

닙니다(누가 저 끝없는 바다를 다 퍼 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자기네 고해의 요점을 담아 놓은 것들만 다루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고백(confessio)이 찬양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그들이 이런 곳으로까지 자기를 무장할 만큼 그렇게 염치를 잃지 않았다면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컨대 그들은 "즐거움과 찬양(confessio)의 소리로"(시 42)라는 말씀을 따라, 고해가 마음의 즐거움에 이바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이들은 이 뜻을 잘 살펴 저 뜻과 부지런히 구별하여, 이런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의 고백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지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용서를 얻으려면 그분께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그분은 의사이시니, 우리 상처를 그분께 드러내 보입시다. 상처 입고 노여움을 사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분께 화평을 구합시다. 그분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요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 놓읍시다. 마지막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이 그분이시니, 그분께 나아갑시다. 다윗은 말합니다(시 32). "내가 내 죄를 주께 알렸고 내 불의를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불의를 거슬러 주께 고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마음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고백도 그러합니다(시 51).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자비를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니엘의 고백도 그러합니다(단 9).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패역하였으며 불경건을 행하였고 반역하여 주의 계명에서 떠났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다른 고백들도 그러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요일 1).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물론 그분께입니다. 곧 우리가 상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로 풀려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받아들인 사람은 틀림없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려고 고백할 혀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에게 한 번 귓속에 마음의 비밀을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드러내 놓고, 온 세상이 듣는 가운데, 꾸밈없이 자기의 가난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은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양심의 가시에 찔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삼하 12)라고 말합니다. 곧 "이제 나는 아무 핑계도 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판단하는 것을 피하려고 둘러대지 않는다. 내가 주님 모르게 하려 했던 일이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성경은 사적인 고백의 두 형태를 인정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한 말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나누면서 조언과 위로로 서로 돕자는 뜻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CO 157 다른 하나는 이웃을 위해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잘못으로 이웃이 어떤 일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그를 달래고 우리와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마 5).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너를 거스려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 잘못으로 끊어진 사랑은 이렇게, 곧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빎으로써 기워 매야 합니다. 이 밖의 다른 고백의 방식이나 형태를 성경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분별의 나이에 이르자마자 적어도 해마다 한 번은 자기 모든 죄를 자기 본당 사제에게 고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고해하겠다는 서원을 굳게 품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서원을 갚지 않으면, 이제 낙원에 들어갈 길이 전혀 열려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사제에게는

열쇠의 권세가 있어서 그것으로 죄인을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매면" 등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에 관해서는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떤 이들은 본질상 열쇠는 하나뿐이니 곧 매고 푸는 권세라고 합니다. 지식은 바르게 쓰는 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부속물 같은 것일 뿐, 본질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지나치게 고삐 풀린 방종임을 보고 열쇠를 둘로 헤아렸습니다. 분별과 권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런 절제로 사제들의 방자함이 묶이는 것을 보고, 다른 열쇠들을 두드려 만들어 냈습니다. 판정할 때 쓰는 분별의 권위와, 자기 판결을 집행할 때 쓰는 권세입니다. 지식은 고문처럼 곁에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매고 푸는 것을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지우는 것이라고 감히 풀이하지는 못합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나, 곧 나는 네 죄악을 지우는 자니라, 이스라엘아. 나요, 나 말고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 43) 하고 외치시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누가 매였고 누가 풀렸는지 선언하고, 누구의 죄가 용서되었고 누구의 죄가 그대로 있는지 공포하는 것이 사제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고해를 통해, 곧 사죄하거나 죄를 그대로 둘 때에, 또는 판결을 통해, 곧 출교하거나 성례의 교제에 다시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기네 사제들이 합당하지 않은 자를 매고 풀 때가 많은데 그런 자들은 그 때문에 하늘에서 매이거나 풀리지 않는다는 반론을 늘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매듭으로는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피난처로 이렇게 답합니다. 열쇠를 주신 것은 제한을 두고 받아들여야 한다. 곧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매이거나 풀린 자의 공로가 요구하는 대로 의롭게 내려진 사제의 판결이 당신의 심판대에서 승인되리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제에게 주신 것으로, 감독들이 서품 때 그들에게 수여한다. 그러나 그것을 자유롭게

쓰는 것은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만 있다. 출교된 자들과 직무가 정지된 자들에게도 열쇠 자체는 남아 있지만, 녹슬고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새 모루 위에서 새 열쇠를 벼려 내어 그것으로 교회의 보화가 잠겨 있다고 전하는 다른 자들에 비하면, 겸손하고 절제 있다고 불려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순교자들 등의 공로를 교회의 보화라고 부릅니다. 이 곳간의 근원적 관리권이 로마 감독에게 맡겨졌다고 꾸며 대는데, 그에게 이토록 큰 선들을 나누어 주는 근원적 권한이 있어서 그 자신이 직접 베풀 수도 있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 관할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에게서는 때로는 완전 면벌부가, 때로는 몇 년짜리 면벌부가 나오고, 추기경들에게서는 백 일짜리가, 감독들에게서는 사십 일짜리가 나옵니다.

하나하나에 짧게 답하겠습니다. 그들이 무슨 권리로, 아니 무슨 불의로 자기네 법으로 신자들의 영혼을 얽어매는지는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자리에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죄를 낱낱이 헤아리라는 법을 부과하는 것, 고해하겠다는 서원을 굳게 품는다는 조건이 아니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고해할 기회를 소홀히 하면 낙원에 들어갈 길이 남지 않는다고 지껄이는 것, 이것은 결코 참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헤아려야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제 생각에는 죄의 고백을 스스로 잘 묵상했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외쳤습니다(시 19; 38).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의 숨은 허물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또 다른 곳에서는 “내 죄악이 내 머리를 넘어갔고, 무거운 짐처럼 내 힘에 겨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 죄의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범죄의 얼굴이 얼마나 많은지, 이 히드라가 머리를 몇 개나 달고 꼬리를 얼마나 길게 끄는지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목록을 헤아리는 데 매달리지 않고, 악의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짓눌렸고, 묻혔고, 숨이 막혔습니다. 음부의 문들

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 기진하여 죽어 가는 나를 주의 손이 건져 내소서." 다윗도 자기 죄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음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제 누가 자기 죄를 셈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고문으로, 하나님에 대한 얼마간의 감각을 지녔던 사람들의 양심이 잔인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시달렸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기를 셈판 앞으로 불러 세우고, 이 사람들의 공식대로 죄를 큰 가지, 가지, 잔가지, 잎사귀로 나누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성질과 분량과 정황을 달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일이 얼마간 나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나아가면 "사방이 하늘이요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항구도 정박할 곳도 없었습니다. 지나온 것이 많을수록 더 큰 더미가 늘 눈앞에 들이밀렸고, 아니 높은 산더미처럼 솟아올랐으며, 오랜 헤맴 끝에라도 빠져나갈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CO 159 그리하여 그들은 이른바 제물과 돌칼 사이에 끼어 꼼짝 못하게 되었고, 마침내 절망 말고는 다른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잔인한 고문관들은 자기들이 낸 상처를 고치려고 몇 가지 찜질약을 갖다 대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만큼(quod in se est)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근심이 아우성쳤고, 아니 새로운 고문이 가련한 영혼들의 살가죽을 벗겼습니다. "나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마땅한 힘을 쏟지 않았다. 많은 것을 소홀히 하여 빠뜨렸다. 부주의에서 나온 잊음은 핑계 댈 수 없다." 그러자 이런 아픔을 달랠 또 다른 약들이 처방되었습니다. "네 소홀함도 회개하라. 그것이 아주 게으른 것만 아니면 용서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흉터를 덮어 아물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악을 누그러뜨리는 약이라기보다, 그 쓴맛으로 첫 맛을 거스르지 않도록 꿀을 바른 독약으로서, 느끼기도 전에 속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저 무서운 소리가 늘 몰아대며 귀에 울립니다. "네 모든 죄를 고해하라." 이 두려움은 확실한 위로가 아니면 달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상당 부분이 이토록 치명적인 독을 버무린 이런 달콤한 말에 안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고 믿었거나 자기 자신도 온전히 만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리고 항해를 잠시 쉬려는 것처럼, 또는 지쳐 기진한 나그네가 길에 드러눕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입증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각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게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그 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아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하고 정죄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파멸과 절망에 던져 넣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것은 죄인들을 자기 죄에 대한 참된 감각에서 떼어 놓아 위선자로 만들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들은 죄를 헤아리는 데 온통 매달려 있는 동안, 저 숨어 있는 악의 레르나,[83] 곧 자기의 감추어진 죄악과 속의 더러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야 자기 비참을 헤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백의 가장 확실한 규칙은, 우리의 악이 우리의 감각마저 넘어설 만큼 깊은 심연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규칙에 따라 세리의 고백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84] "주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눅 18).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러하든 저러하든 온통 죄인입니다. 내 죄의 크기를 마음으로도 혀로도 다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주의 자비의 심연이 내 죄의 이 심연을 삼켜 주소서."

"그렇다면 낱낱의 범죄는 고백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두 마디로 끝나는 고백 말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고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힘이 닿는 한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도록 애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참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그런 자임을

83. 레르나(Lerna)는 그리스 신화에서 머리가 여럿 달린 물뱀 히드라가 살았다는 늪입니다.
84. 원문은 "publicam confessionem" (공적인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를 인용하는 문맥이므로 "publicani confessionem" (세리의 고백)으로 읽었습니다. [원문의심]

인정하기 위해, 죄의 얼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여러 가지인지 온 생각을 기울여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더럽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더러움이 어떠하고 얼마나 크며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는지, 빚진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큰 빚에 눌려 있고 얼마나 많은 명목으로 묶여 있는지, 상처 입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새겨 죄인이 주님 앞에 자기를 온통 쏟아 놓았을 때에도, 아직 더 많은 것이 남아 있고 자기 악의 구석들이 자기가 샅샅이 털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다는 것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외쳐야 합니다.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의 숨은 허물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런데 고해하겠다는 서원을 굳게 품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며, 고해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 낙원의 문이 닫혀 있다고 그들이 단언하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죄 용서는 지금도, 언제나 그러했던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죄 용서를 얻었다고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제 나부랭이의 귀에 고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고해를 듣는 사제 나부랭이도 없고 고해 자체도 없던 때에 그들이 고해할 수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세기 동안 이 고해는 들어 본 적도 없었고, 그 시대에는 이런 조건 없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문제인 양 더 길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겔 18). "죄인이 탄식할 때마다 나는 그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에 무엇을 감히 더하는 자는 죄를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귓속 고해를, 그토록 해롭고 여러모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정죄하고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 쓸모도 열매도 없고 도리어 그토록 많은 불경건과 신성 모독과 오류의

원인이 되었으니, 누가 그것을 당장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몇 가지 유익을 늘어놓으며 아주 열매가 많은 것처럼 팔아먹지만, 그것들은 꾸며 낸 것이거나 전혀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특별히 내세워 추천합니다. 고해하는 사람의 부끄러움이 무거운 벌이어서, 그 벌로 죄인은 앞으로 더 조심하게 되고 스스로를 벌하여 하나님의 보응을 앞질러 막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을 저 하늘의 최고 법정으로, 하나님의 심리 앞으로 불러 세울 때에는 충분히 큰 부끄러움으로 그를 당혹하게 하지 못한다는 듯합니다. 한 사람 앞의 부끄러움 때문에 죄짓기를 그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악한 양심의 증인으로 두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대단한 진보를 이룬 셈입니다. 하기야 이것 자체도 전혀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사제에게 고해를 마치고 나서 입을 닦고 "나는 하지 않았다" 고 말할 수 있다고 여길 때만큼 죄짓는 대담함이나 방자함이 커지는 것은 어디서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해 내내 죄짓기에 더 대담해질 뿐 아니라, 남은 한 해 동안 고해만 믿고 안심하여 한 번도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며, 죄에 죄를 쌓아, 그들 생각대로 한꺼번에 모두 토해 낼 때까지 갑니다. CO 161 그리고 토해 내고 나면 짐을 벗은 듯이, 사제에게 넘겨준 심판을 하나님에게서 옮겨 놓았고, 사제가 알게 한 일을 하나님께서 잊으시게 했다고 여깁니다.

게다가 누가 고해 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쁘게 바라봅니까? 누가 기꺼운 마음으로 고해하러 갑니까? 오히려 목덜미를 잡혀 감옥으로 끌려가듯, 마지못해 버티는 사람처럼 오지 않습니까? 혹 사제 나부랭이들 자신은 예외일지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추행을 우스운 이야기처럼 주고받으며 맛있게 즐기니까요. 귓속 고해에 가득한 괴이하고 가증한 일들을 늘어놓느라 많은 종이를 더럽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에 대한 소문 하나 때문에 자기 교회에서, 아니 자기 사람들의 기억에서 고해를 없애 버린 저 거룩한 사람이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음란과

간음과 근친상간과 뚜쟁이질이 끝없는 오늘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깨우침을 받는 셈입니다.

이제 열쇠의 권세에 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흔히 말하듯 자기네 고해 왕국의 이물과 고물을 모두 여기에 둡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쇠가 까닭 없이 주어졌다는 말인가?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는 말씀이 까닭 없이 하신 말씀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것인가?" 저는 답합니다. 열쇠가 주어진 데에는 중대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땅에서 매고 푼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리라고 증언하시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이 돼지들은 (모든 일에서 늘 그러듯) 어리석고 무지하게 그 둘을 뒤섞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요 20).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설교하도록 보내시려 할 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에게 용서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전에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천국 열쇠가(마 16) 이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그에게 약속된 것 가운데, 지금 여기서 모든 사도와 똑같이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고 하셨고, 이들에게는 복음을 설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구한 이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이 길에서 벗어난 이들에게는 닫아 잠그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도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매는 것은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요, 푸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죄 용서로 양심의 가장 단단한 족쇄에서 풀려나고, 반대로 죄를 그대로 둠으로써 가장 단단한

사슬에 매이고 묶입니다.

저는 교묘하지도 억지스럽지도 비틀지도 않은, 단순하고 참되며 술술 흐르고 누구에게나 쉽게 보이는 풀이를 내놓겠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그대로 두라는 이 명령과, 베드로에게 하신 매고 풀라는 저 약속은 말씀의 사역 말고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그 사역을 사도들에게 맡기실 때, 이 매고 푸는 직무도 함께 갖추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요체가, 죄와 사망의 종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풀려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해방자와 구속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슬에 정죄되고 넘겨진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이 사신의 직무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도록 사도들에게 맡기실 때, 그것이 당신의 것이요 당신에게서 나왔고 당신이 명하신 것임을 인정하시려고 이 빛나는 증언으로 그것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사도들 자신뿐 아니라, 이 사신의 말이 이르게 될 듣는 이들에게도 특별한 위로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 설교에 대해 변함없고 굳은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 설교를 위해 끝없는 수고와 근심과 괴로움과 위험을 무릅써야 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자기 피로 그것을 인 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가 헛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으로 가득하다는 확신 말입니다. 또 그토록 큰 불안과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온 세상이 맞서고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에 서 계심을 아는 것, 자기 교리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를 땅에서 눈앞에 모시고 있지 않아도 그분이 하늘에 계셔서 그 진리를 굳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반대로 듣는 이들에게도, 저 복음의 교리가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땅에서 난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라는 것이 더없이 확실하게 증언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죄 용서, 영생의 약속, 구원의

소식, 이런 것들은 사람의 권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복음 설교에서 사도들의 것은 사역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입을 도구처럼 삼아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은 당신이다. 그들이 알리는 죄 용서는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요, 그들이 선고하는 정죄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다. 그런데 이 증언은 모든 세대에 주어졌고 굳게 서 있어서, 모든 사람을 더 확실하고 안심하게 해 줍니다. 곧 복음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설교하든지, 하나님의 최고 법정에서 공포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늘에서 확정되어 굳고 든든한 하나님 자신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쇠의 권세란 단순히 복음 설교이며, 사람을 두고 보면 권세라기보다 사역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엄밀히 말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주셨고, 사람들을 그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CO 163 우리가 다른 뜻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한 또 다른 곳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제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곳을, 서로 가까움도 닮음도 많지 않을 만큼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 18). 첫째, 둘 다 일반적인 선언이라는 점, 매고 푸는 권세가 언제나 같다는 점,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디서나 같습니다. 매고 풀라는 명령도 같고 약속도 같습니다. 그러나 앞의 곳은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이 수행하는 설교에 관한 것이고, 이곳은 교회에 맡겨진 출교의 권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교회가 출교하는 자를 맨다는 것은, 그를 영원한 파멸과 절망에 던져 넣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과 행실을 정죄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미 그에게 그의 정죄를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제 안에 받아들이는 자를 푸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 됨에 그를 참여하는 자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교회의 판단을 고집스럽게 멸시하거나 신자들의 판결로 정죄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께서는 신자들의 그런 판단이 당신 자신의 판결을 공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그들이 땅에서 행한 것은 하늘에서도 확정된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악한 자들을 정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돌이키는 자들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만 판단하므로 잘못할 수 없고 하나님의 판단과 어긋날 수 없습니다. 그 법은 불확실한 것도 땅의 의견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하늘의 신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은 머리를 깎고 밀고 아마포 옷을 걸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신실한 백성의 회중입니다. 이렇게 궤변을 부리는 조롱꾼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지고 퍼져 있는 교회에 어떻게 무슨 고발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각 지역이나 지방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넉넉히 보여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짧고도 쉽게, 그리고 참되게 풀이했다고 생각하는 이 두 곳에서, 이 미친 자들은 아무 구별도 없이 자기 어지럼증에 휘둘리는 대로 때로는 고해를, 때로는 출교를, 때로는 재판권을, 때로는 법을 만드는 권리를, 때로는 면벌부를 세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제가 칼 하나로 이런 모든 주장의 손잡이를 잘라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곧 사제 나부랭이들은 사도들의 대리자도 후계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른 곳에서 다룰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가장 단단히 방비하고자 하는 바로 그곳에서 공성퇴를 세워, 그들의 모든 공사를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는 매고 푸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열쇠의 권세가

속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앞서 이끄시고 가르치시며 무엇을 해야 할지 일러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열쇠를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성령이 있다고 허튼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합니다. 혹 그들이 성령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꾸며 낸다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꾸며 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성 기계로 그들은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그들이 어느 문의 열쇠를 가졌다고 자랑하든지, 열쇠의 판정자요 다스리시는 분인 성령이 그들에게 있는지 늘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있다고 대답하면, 다시 성령께서 잘못하실 수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들은 감히 이것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기네 교리로 은근히 내비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제 나부랭이들은 아무도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 분별 없이 여기저기서, 주께서 매이기를 원하셨던 것을 풀고 풀리라고 명하셨던 것을 맵니다. 그들도 자기가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를 가리지 않고 풀고 맨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경험으로 입증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그들은 지식 없이 권세를 가로챕니다. 바르게 쓰는 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히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권세 자체는 악한 관리자들에게도 맡겨졌다고 씁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이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리라.” 그리스도의 약속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이 권세를 지닌 자들은 바르게 매고 풀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매이거나 풀리는 자의 공로에 따라 제한된다고 둘러댈 일도 아닙니다. 우리도, 풀리거나 매일 만한 자가 아니면 풀리거나 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신들과 교회에는 이 합당함을 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복음의 사신들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약속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 위에 정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 살인자, 탐욕스러운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몫이 없다고 선언하고, 그런 자들을 가장 확실한 사슬로 맵니다. 같은 말씀으로 교회는 자기가 위로하는 돌이키는 자들을 풉니다. 그러나 무엇을 매야 하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모르고, 알지 못하면 매지도 풀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권세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죄가 불확실한데, 그들은 왜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위로 사죄한다고 말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면 이 상상 속의 권세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예 없거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할 만큼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들 스스로 사제들의 상당 부분이 열쇠를 바르게 쓰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쓰지 않는 권세는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니, 나를 푸는 그 사람이 선한 열쇠 관리자라는 것을 누가 내게 확신시켜 주겠습니까? 그가 악한 자라면, 그가 가진 것은 이런 하찮은 사죄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네게서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나는 열쇠를 바르게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합당하다면 내가 너를 사죄하노라." 이 정도는 평신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평신도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그들은 그 말을 고깝게 들을 것이니까요). 투르크 사람이나 마귀라도 할 수 있습니다. CO 165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확실한 풀기의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그러나 네 공로가 그만하다면 너를 사죄할 권위가 내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열쇠를 분별의 권위와 집행의 권세로 정의하고, 지식은 고문으로 곁에 붙어 고문처럼 바르게 쓰는 데 이바지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노렸는지 우리는 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분의 말씀 없이 제멋대로 방자하게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자기 열쇠를 그토록 많은 자물쇠와 문에 맞추어, 때로는 자기 재판권에, 때로는 고해에, 때로는 규정에, 때로는 헌신 행위에 쓰이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고 그대로 두는 일에 관해 제자들에게 주신 저 명령에서, 그분은 입법자나 고해의 비서나 교구 재판관이나 교황청 서기나 칙서 관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신 자들을 빛나는 증언으로 꾸며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분이 매고 푸는 판단을 당신의 교회에 맡기실 때, 주교관을 쓴, 아니 뿔 둘 달린 어느 존귀하신 분의 권위로 빚 갚을 능력 없는 가난한 자들이 쫓겨나고 내몰리며, 종을 치고 촛불을 끄면서 온갖 저주에 바쳐지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교의 권징으로 악한 자들의 사악함이 바로잡히게 하시되, 그것도 당신 말씀의 권위로,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게 하십니다.

이제, 교회의 열쇠가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로를 나누어 주는 것이며 교황이 자기 칙서와 면벌부로 그것을 나누어 준다고 꾸며 대는 저 미친 자들은, 논증보다는 헬레보루스로 다스려야 할 자들입니다. 면벌부를 반박하는 데 크게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면벌부는 많은 공성퇴에 두들겨 맞아 이제 저절로 늙어 가며 기울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것이 그토록 오랫동안 온전히 서 있었고, 그토록 방자하고 미친 듯한 방탕 가운데서도 그토록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세기 동안 얼마나 깊은 오류의 밤에 잠겨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황과 그 칙서꾼들이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 놓고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을 두고 돈벌이 장사를 하고, 몇 푼 동전으로 구원의 값을 매기며, 거저 내놓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구실로 헌금을 짜내고, 그것이 창녀와 뚜쟁이와 술잔치에 부끄럽게 탕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면벌부를 가장 크게 외치는 자들이 가장 크게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 괴물이 날마다 더 방자하게 날뛰고 사치를 부리며 끝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새 납인장이 들어오고 새 돈이 뽑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극한 공경으로 면벌부를 받아들이고, 숭배하고, 샀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날카롭게 보는 자들도 그것을 경건한 속임수로, 얼마간 유익을 얻으며 속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조금 지혜를 차리게 되자, 면벌부는 식어 가고 차츰 얼어붙어, 아주 사라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면벌부 장사꾼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조롱하고 놀려 온 그 더러움과 사기와 도둑질과 강탈은 보면서도 불경건의 샘 자체는 보지 못하는 이들이 아주 많으므로, 면벌부가 어떤 것인지뿐 아니라, 모든 얼룩을 씻어 낸다 해도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 보람 있는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면벌부는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요 사탄의 조롱입니다. 사탄은 이것으로 그리스도인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끌어내고, 구원의 참된 길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 용서와 화목과 속상에 넉넉하지 않다고, 마치 말라 버려 바닥난 듯 그 모자람을 다른 데서 메우고 보태야 한다고 부인할 때보다 그리스도의 피를 더 더럽게 더럽힐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그를 증언하되, 그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행 10). 면벌부는 베드로와 바울과 순교자들을 통해 죄 용서를 베풉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요일 1). 면벌부는 순교자들의 피를 죄를 씻는 것으로 만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고후 5).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곧 죄를 위한 속상)가 되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면벌부는 죄의 속상을 순교자들의 피에 둡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외치며 증언했습니다(고전 1).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면벌부는 바울과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합니다(행 20). 면벌부는 순교자들의 피에 사는 값을 하나 더 둡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히 10). 면벌부는 거꾸로

외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넉넉하지 않았을 거룩하게 하심이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고 말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계 7). 모든 성도가 어린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었다고 말입니다. 면벌부는 성도들의 피에 옷을 씻는다고 가르칩니다. 참으로 그들의 교리 전체가 무서운 신성 모독과 하나님 모독으로 꿰매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괴이한 모독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견해가 아닌지 그들 스스로 인정해 보십시오. 순교자들은 자기 죽음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더 많은 공로를 쌓았다.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넘쳐흐를 만큼 넉넉한 공로가 남았다. 그러므로 이처럼 큰 선이 쓸데없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와 섞어 이 둘로 교회의 보화를 이루어, 죄 용서와 죄의 속상에 쓴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골 1)고 한 말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이름만 남기고, 나머지에서는 그분을 무리 가운데서 거의 알아보지도 못할 흔한 작은 성인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 용서와 속죄와 속상을 얻는 일을 다룰 때에는, 오직 그분, 그분 한 분만을 설교하고, 그분 한 분만을 내세우고, 그분 한 분만을 부르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략 삼단논법을 들어 봅시다. CO 167 "순교자들의 피가 열매 없이 흘려지지 않도록, 교회의 공동선에 바쳐져야 한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의 진리에 자기 피로 서명하는 것, 현세의 삶을 멸시함으로써 자기가 더 나은 삶을 구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 자기의 굳셈으로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하고 원수들의 고집은 꺾는 것은 아무 열매도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드려지셨다면, 그들은 아무 열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바울의 말, 곧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모자란 것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말을 얼마나 악의적으로 비트는지 보십시오. 바울은 그 모자람이나 채움을 구속이나 속죄나 속상의 사역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 곧 모든 신자가 이 육신 안에서 사는 동안 단련받아야 하는 고난에 돌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남은 것은, 그분이 당신 자신 안에서 한 번 고난받으신 것을 날마다 당신의 지체들 안에서 고난받으신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딤후 2).[85]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라고 덧붙인 것은 교회의 구속이나 화목이나 속상을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세움과 자라 감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가,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의와 구원과 생명의 온전한 충만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무엇이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거나 무엇을 더하려 했다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그토록 풍성하게 부어져서 죄의 모든 힘을 훨씬 넘어섰다고 그토록 분명하고 장엄하게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롬 5). 모든 성도는 오직 이 은혜로 구원받았지, 자기 삶이나 죽음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증언하는 대로입니다(행 15). 그러므로 어떤 성도의 합당함을 오직 하나님의 자비 말고 다른 데에 두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괴물들은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아직도 모호한 문제인 양 여기서 더 오래 머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증한 일들은 지나가더라도, 주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나누어 주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납과 양피지 속에 가두라고 누가 교황에게 가르쳤습니까? 참으로

85. 원문은 "ac dicat (2 Tim. 2):" (그리고 말씀하신다)에서 인용문 없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인쇄나 OCR에서 인용문이 빠진 것으로 보이며, 다른 판의 문장으로 메우지 않고 읽히는 대로 옮겼습니다. [원문의심]

하나님의 복음이 거짓이든지 면벌부가 거짓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의 풍성함과 함께, 당신의 모든 공로와 모든 의와 지혜와 은혜와 함께, 아무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면벌부는 교황의 장롱에서 꺼낸 그리스도의 은혜 얼마만큼을 납과 양피지에, 또 장소에까지 붙박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떼어 냅니다.

그들은 회개에서 셋째 자리를 속죄 행위(satisfactio)에 줍니다. 그들이 이에 관해 무엇을 지껄이든 한마디로 뒤엎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지난 악을 삼가고 행실을 더 낫게 바꾸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고, 저지른 일에 대해 주님께 속죄 행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니, 곧 눈물, 금식, 헌물, 구제, 그 밖의 사랑의 의무들이다. 이것들로 주님을 달래야 하고, 이것들로 하나님의 공의에 진 빚을 갚아야 하며, 이것들로 범죄를 갚아 메워야 하고, 이것들로 용서를 공로로 얻어야 한다. 그리고 주께서 자비의 풍성함으로 죄과는 용서하셨으나 공의의 규율로 벌은 그대로 두시는데, 이 벌이 속죄 행위로 속량해야 할 벌이다.

저는 이런 거짓말에 죄의 값없는 용서를 맞세웁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은 없습니다(사 52; 롬 3; 골 2; 딛 3 등). 첫째, 용서란 순전한 너그러움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돈을 받았다고 영수증으로 증언하는 채권자를 두고 용서한다고 하지 않고, 아무 갚음 없이 자진하여 자기 선의로 빚 명목을 지워 버리는 사람을 두고 용서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값없이" 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 모든 속죄 행위의 생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니 그토록 강한 벼락에 쓰러진 자기네 속죄 행위를, 그들은 무슨 배짱으로 아직도 세웁니까? 더욱이 온 성경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그리스도께 증언하는데(행 10), 이것은 다른 모든 이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찌하여 속죄 행위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는다고 가르칩니까? 그들은 속죄

행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 행위가 끼어들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우리 것을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추천에만 기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고후 5).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범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저는 그들이 (그들의 비뚤어짐이 그러하니) 이렇게 말하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죄 용서와 화목은 우리가 세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질 때 한 번 이루어진다. 세례 뒤에는 속죄 행위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의 열쇠를 통해 나누어지는 만큼만 유익하다.

그러나 요한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요일 2).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곳) 하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세우면서, 노여움을 사신 하나님을 달래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속상은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와 한 번 화목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다른 화목의 길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당신의 간구로 우리를 늘 아버지의 은혜 안에 회복시키시는 영원한 대언자로, 죄를 속하는 영원한 화목제물로 세웁니다.

1536년판 제5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3

CO 1:169–18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69 [86]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로다”(요 1)라고 말한 것은 언제까지나 참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거니와, 그분 자신이 지고 가시지 다른 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분만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므로, 그분만이 죄를 위한 제물이시고, 그분만이 속죄이시며, 그분만이 속상이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 그분의 영예가 온전하고 손상 없이 지켜지는 것, 그리고 양심이 죄 용서에 대해 안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사 53). 베드로는 이것을 다른 말로 되풀이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벧전 2).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의 육신에서 죄가 정죄되었다고 씁니다(롬 8). 곧 그분이 제물로 드려지셨을 때, 우리 죄의 모든 무더기가 그 저주와 증오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의 정죄와 함께 그분께 던져졌고, 그리하여 죄의 힘과 저주가 그분의 육신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을 말할 때마다 흔히 아폴뤼트로시스(ἀπολύτρωσις)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속이 아니라, 구속의 값 자체요 구속의 속상을 뜻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안티뤼트론(ἀντίλυτρον)으로 주셨

86.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다고 전합니다(롬 3; 고전 1; 엡 1; 골 1 등). 이제 죄 용서를 행위에 두어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 말한 것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남아 있습니까(딤전 2)?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께 지워져 그분 안에서 속죄되었다는 것과, 우리 행위로 속죄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나게 다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을 행위로 달래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양심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다룬다면, 죄가 속죄 행위로 속량된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무슨 평안이겠습니까? 속죄 행위의 정도가 언제 그에게 분명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로우신지 늘 의심하고, 늘 들끓고, 늘 떨 것입니다. 가벼운 작은 속죄 행위로 안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업신여기고,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거의 헤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어떤 죄들을 마땅한 속죄 행위로 속량할 능력이 있다고 쳐 준다 하더라도, 백 번의 생애를, 그것도 온통 이 일에만 바친다 해도 그 속죄 행위로 넉넉하지 못할 만큼 많은 죄에 짓눌릴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은 어리석은 구분이라는 피난처로 달아납니다. 어떤 죄는 소죄(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벼운 죄)이고 어떤 죄는 대죄(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무거운 죄)이며, 대죄에는 무거운 속죄 행위가 마땅하지만 소죄는 더 쉬운 처방, 곧 주기도문, 성수 뿌리기, 미사의 사죄로 씻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고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들은 소죄와 대죄를 늘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아직 하나를 다른 하나와 구별해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마음의 불경건과 더러움을 소죄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와 불의의 규칙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죄의 삯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합니다(롬 6; 겔 18). 그런데 신자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것은 그 죄가 죽음을 받아 마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

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요, 그 죄가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기 때문이요, 용서로 지워지기 때문입니다(롬 8; 시 32).

그들이 이 우리의 교리를 얼마나 부당하게 헐뜯는지 저는 압니다. 그들은 이것이 죄의 동등성에 관한 스토아학파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입으로 쉽게 반박당할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들이 대죄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죄들 가운데서도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작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두 대죄라고 해서 곧바로 똑같은 죄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죄의 삯은 사망이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요 범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정해 놓았으니, 그들은 이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죄 무더기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속죄 행위의 출구를 찾겠습니까? 죄 하나의 속죄 행위가 하루가 걸린다면, 그것을 궁리하는 동안 그들은 일곱 번 죄를 짓습니다(가장 의로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곱 가지 속죄 행위에 나서면 마흔아홉 가지 죄를 쌓을 것입니다(잠 24). 이제 속죄 행위로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꾸물거립니까? 어찌하여 아직도 감히 속죄 행위를 생각합니까? 그들은 빠져나가려고 애쓰지만, 흔히 말하듯 물에 막혀 꼼짝 못 합니다. 그들은 벌과 죄과라는 구분을 스스로 그려 냅니다. 그들은 죄과는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된다고 인정합니다. 비록 그 용서도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공로로 얻는다고 가르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죄과가 용서된 뒤에도 벌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그러므로 속죄 행위는 본래 벌의 용서와 관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분은, 성경이 죄 용서에 관해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것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 곧 우리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리라는 언약과 부딪칩니다(렘 31). 이 말씀으로 그분이 무엇을 뜻하셨는지 우리는 다른 선지자에게서 배웁니다. 거기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그 의에서 떠나면, 나는

그의 모든 의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면, 나는 그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리라"(겔 18). 그분이 그들의 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의를 갚아 주시려고 조금도 셈에 넣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그 죄를 벌하려고 따지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같은 것을 "돌리지 않으신다", "가려 두신다"고 말합니다(시 32).

우리가 배우려는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이런 말투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흐릿하지 않게 풀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면 돌리시는 것이요, 보응하신다면 기억하시는 것이요, 심판으로 부르신다면 가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선지자에게서도, 주께서 어떤 법으로 죄를 용서하시는지 들어 봅시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사 1).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여기서 저는 독자들에게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제 풀이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간 자리를 내주라는 것입니다.

CO 171 묻겠습니다. 죄에 대해 아직도 벌이 요구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나무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이 우리 죄에 마땅한 벌과 보응을 치르셨다는 뜻일 뿐입니다(벧전 2). 이사야는 같은 것을 더 뚜렷하게 밝혀, 우리 평화의 징계 곧 바로잡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사 53). 우리 평화의 바로잡음이란, 그분이 우리 자리를 대신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치러야 했을 죄의 마땅한 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죄의 벌에서 건져 내시려고 그 벌을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요 5).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을 신뢰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안심하고 단언합니다(롬 8).

제가 심판과 정죄를 영원한 벌과 다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비웃을 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 말로는, 이것은 그들이 일시적인 벌로 치른다고 가르치는 속죄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께 맞서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바울의 말씀에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곧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성경의 증언으로 무장하니, 그들이 내세우는 논증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그들은 말합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 때문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 뒤에 간음으로 얻은 아들의 죽음으로 벌을 받았다(삼하 12). 우리는 죄과가 용서된 뒤에도 내려질 이런 벌을 속죄 행위로 속량하라고 배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구제로 죄를 속량하라고 권했고(단 4), 솔로몬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썼다(잠 10; 벧전 4). 또 누가복음에서(눅 7) 주께서는 죄 많은 여자에 관해, 그가 많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늘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비뚤게, 거꾸로 헤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곧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살폈더라면, 다윗에게 내리신 이 책망에서 죄의 벌과 보복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 하나는 보응의 심판, 다른 하나는 징계의 심판이라고 부릅시다. 보응의 심판으로 주께서는 유기된 자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쏟으시고, 보복하시고, 혼란에 빠뜨리시고, 흩으시고, 없는 것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본래 죄를 벌하고 보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래 벌 또는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심판으로는 형벌을 가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당신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징계하시고, 꼬집어 일깨우십니다. 이것은 벌이나 보응이 아니라 바로잡음이요 깨우침입니다. 하나는 재판관의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일입니다. 재판관은 범죄자를 벌할 때 범죄 자체를 살피고 그 범행에 대해 벌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엄하게 바로잡을 때, 그 잘못을 보응하거나 벌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쳐서 앞으로 더 조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는데, 그분은 이것을 신자들에게서 거두어 두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복이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늘 앞의 것은 면하게 해 달라고 빌었고, 뒤의 것은 잔잔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읽습니다. “주여, 나를 징계하시되 공의로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분노를 쏟으소서” 등(렘 10). 물론 이런 징계를 범죄에 대한 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일러 둡니다. 이렇게 그분은 사울을 왕위에서 버리셨을 때에는 벌하신 것이고, 다윗에게서 어린 아들을 빼앗으셨을 때에는 책망하신 것입니다(삼상 15; 삼하 12). 바울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말(고전 11)도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손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벌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고난이 쓰라릴 때 이런 생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벧전 4).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느끼는 엄하심을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믿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맞고서 하나님을 벌하는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을 자기에게 진노하시고 대적하시는 분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채찍 자체를 저주와 정죄로 여겨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기를 벌하려 하실 만큼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벌이 영원한 것이든 일시적인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전쟁, 기근, 역병, 질병도 영원한 죽음의 심판 자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주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그 징벌이 무엇을 노렸는지 압니다. 곧 살인과 간음이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시게 한다는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일에 대해 그토록 크게 노여워하심을 밝히셨습니다. 또 다윗 자신에게 가르침이 되어 다시는 그런 범행을 감히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무슨 보상을 치르는 벌이 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다윗이 백성을 세다가 범한 불순종 때문에 맹렬한 역병으로 백성을 치신 다른 책망도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삼하 24). 주께서는 죄의 허물은 다윗에게 값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 공적인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도, 다윗을 낮추기 위해서도, 그런 범행이 벌받지 않은 채 남지 않는 것이 마땅했으므로, 당신의 채찍으로 그를 아주 엄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다윗의 한 예에만 눈을 두고, 죄의 값없는 용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많은 예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지 이상한 일입니다.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 벌도 뒤따르지 않습니다. CO 173 베드로는 범죄의 용서를 얻었습니다(눅 18; 22). 암브로시우스는 "우리는 그의 눈물은 읽지만 속죄 행위는 읽지 않는다" 고 말합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라, 네 죄가 용서되었다" 는 말씀을 듣습니다. 벌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마 9).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죄는 값없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 많은 예에서 규칙을 찾아야 했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담고 있는 저 단 하나의 예에서 찾

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의로 자기 죄를 속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자기 죄악을 속량하라고 권했을 때(단 4), 그는 의와 자비가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요 벌을 속량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말고 다른 어떤 속량(ἀπολύτρωσις)이 있다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그는 그 속량을 하나님께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관련지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왕이여, 왕은 불의하고 포악한 통치를 하였고, 낮은 자들을 억누르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왕의 백성을 가혹하고 불공평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제 불의한 수탈과 포악과 억압 대신 자비와 의를 갚으십시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는데(잠 10),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솔로몬은 여기서 늘 하던 대로 대조법으로, 미움에서 나오는 악을 사랑의 열매와 견줍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자들은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나무라고, 모든 것을 나쁘게 돌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많은 것을 덮어 두고, 많은 것을 눈감아 주며, 많은 것을 서로 용서합니다. 이는 서로의 잘못을 옳다고 해서가 아니라, 참아 주고, 공격하여 상처를 덧나게 하기보다 깨우쳐 고쳐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도(벧전 4) 같은 뜻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성경을 왜곡하고 교활하게 비틀었다고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구절에 관해서는(눅 7), 거기서 주께서 드신 비유를 건전한 판단으로 읽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와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속으로 주께서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그 여자를 그토록 쉽게 곁에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께서 그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아셨다면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렇게 속을 수 있는 이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죄가 용서된 그 여자가 죄인이 아님을 보여 주시려고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오백을, 하나는 오십을 빚졌습니다. 둘 다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누가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하고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덧붙이십니다. "이로써 이 여자의 죄가 용서된 것을 알라. 이는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보듯이 주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 여자의 사랑을 죄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증거로 삼으십니다. 이 말씀은 오백을 탕감받은 빚진 자의 비유에서 가져온 것인데,[87] 주께서는 그에게 "많이 사랑했으므로 탕감받았다"고 하지 않으시고, "탕감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이런 꼴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는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게 죄가 용서되었으니, 너는 그가 그런 자가 아님을 알았어야 했다. 은택에 감사를 갚는 그의 사랑이,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너에게 믿게 했어야 했다." 이것은 뒤따르는 표지들로 무엇을 증명하는 후천적 논증(a posteriori)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죄 용서를 얻었는지 주께서는 분명히 증언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를 얻고, 사랑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증언합니다.

옛사람들의 글에 속죄 행위에 관해 여기저기 나오는 것들은 저를 별로 흔들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책이 남아 있는 이들은 거의 모두가) 이 점에서 넘어졌다는 것을 저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이 새로 나온 속죄 행위꾼들이 읽는 그런 뜻으로 썼을 만큼 무지하고 서툴렀다고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대개 하나님께 바치는 보상을 속죄 행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출교의 벌을 받았던 자들이 교제에 다시 받아들여지기를 원할 때 교회에 자기 회개를 확인시켜

87. 원문은 "quinquaginta"(오십)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와 문맥으로 보아 "quingenta"(오백)로 읽었습니다. [원문의심]

주던 공적인 증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정해진 금식과 그 밖의 일들이 부과되었고, 그것으로 그들은 자기가 지난 삶을 참으로 진심으로 싫어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오히려 지난 일의 기억을 지워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교회에 속죄 행위를 한다고 일컬어졌습니다. 오늘날 쓰이는 고해와 속죄 행위는 이 옛 의식에서 기원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저 더 나은 형태의 그림자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옛사람들이 때로 조금 거칠게 말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방금 말했듯이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흠 몇 개가 뿌려져 있던 것이, 이 사람들의 씻지 않은 손에 다루어지면서 아주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의 권위로 싸워야 한다면, 맙소사, 그들이 우리에게 들이미는 옛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우두머리인 롬바르두스가[88] 자기 누더기 깁기를 엮어 낸 재료의 상당 부분은,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크리소스토무스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어떤 수도사들의 싱거운 헛소리에서 뜯어 온 것입니다. 지금 다루는 주제에서도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회개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가져옵니다. 그 책은 어떤 짜깁기꾼이 좋은 저자와 나쁜 저자들에게서 똑같이 서툴게 기워 붙인 것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을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그의 것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네 연옥으로도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연옥은 이 도끼로 부서지고 무너지고 기초부터 아주 뒤엎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는 덮어 두어야 하고 연옥 이야기를 빼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 말로는, 그 이야기에서 흔히 말하듯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덕을 세우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O 175 저 자신도, 이런 허튼소리가 심각한 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88. 페트루스 롬바르두스(Petrus Lombardus, 1100경–1160)는 파리의 신학자요 감독으로, 중세 스콜라 신학의 교과서가 된『명제집』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명제집의 선생"이라고 불립니다.

내버려 두라고 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옥은 많은 신성 모독으로 지어졌고 날마다 새 신성 모독으로 떠받쳐지며, 많고 무거운 걸림돌을 일으키므로, 결코 눈감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호기심 많고 대담한 무모함으로 고안되었다는 것, 사탄의 술수로 꾸며 낸 무슨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굳히려고 성경의 몇 구절을 서툴게 비틀었다는 것, 이것은 아마 한동안은 어떻게든 덮어 둘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주께서는 사람의 대담함이 이렇게 당신 심판의 감추어진 깊은 곳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신 18), 당신의 음성을 버려두고 죽은 자들에게서 진리를 캐묻는 것을 엄하게 금하셨으며, 당신의 말씀이 그토록 불경하게 더럽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하여 잠시 동안은 참아 줄 수 있었다고 쳐 줍시다. 하지만 죄를 씻는 속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속상을 다른 데로 옮기는 지경이라면, 침묵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만이 아니라 목청과 허파를 다하여 외쳐야 합니다. 연옥은 사탄이 지어낸 치명적인 고안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우리 믿음을 흔들어 뒤엎는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연옥이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죄의 속상을 위해 치르는 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앞의 논의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들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상이요 속죄요 정결하게 함이라는 것이 더없이 분명해졌다면, 연옥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모독일 뿐이라는 결론 말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연옥을 날마다 변호하는 신성 모독들, 그것이 경건(religion)에 낳는 걸림돌들, 그리고 이런 불경건의 샘에서 흔히 솟아 나오는 그 밖의 셀 수 없는 것들은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마침내 끝을 맺기 위해, (마지막 자리에 내놓았던) 고해의 성례 자체에 관해 살펴봅시다. 그들은 성례를 찾아내느라 애타게 땀을 흘립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골풀에서 마디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도, 일을 얽히고 매달리고 불확실하게, 의견이 갈려 뒤섞이고 어지러운 채로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 회개가 성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적 회개, 곧 마음의 통회의 표징으로 여겨야 하며, 이 통회가 성례의 실체(res)가 될 것이다. 또는 둘을 함께 성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둘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성례이다. 그러나 외적 회개는 성례일 뿐이고, 내적 회개는 실체이자 성례이며, 죄 용서는 실체일 뿐 성례가 아니다. 앞에서 우리가 내놓은 성례의 정의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들이 성례라고 말하는 것을 그 정의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믿음을 굳게 하려고 주께서 제정하신 외적 예식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제 정의는 자기들이 따라야 할 법이 아니라고 핑계를 댄다면, 그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는 척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성례는 육적인 사람들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에서 깨닫는 것으로 성례의 계단을 밟아 옮겨 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 자신이 고해의 성례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런 것을 보거나 남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그는 다른 곳에서도 말합니다. "그것을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보이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몸의 형상을 지니고, 깨닫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지닌다." 이런 말들은 그들이 꾸며 내는 고해의 성례에 조금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열매를 나타내는 몸의 형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을 그들의 경기장에서 끝장내자면) 여기에 무슨 성례가 있다면, 회개를,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성례라고 하기보다 사제의 사죄를 성례라고 하는 편이 훨씬 그럴듯하게 자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사죄는 죄 용서에 대한 우리 믿음을 굳게 하는 예식이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열쇠의 약속, 곧 "무엇이든지 너

희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이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사제들에게 사죄를 받는 많은 사람이 그 사죄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로는 새 법의 성례들이 상징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그들이 성찬에서 두 가지 먹음, 곧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공통된 성례적 먹음과 선한 자들에게만 속한 영적 먹음을 세우듯이, 사죄도 두 가지로 받는다고 꾸며 내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그 교리가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얼마나 먼지는, 우리가 그 주제를 진지하게 다룰 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 걸림돌이, 그들이 사제의 사죄를 성례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대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성례 없이도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 내적인 거룩하게 하심 없이도 보이는 성례가 있다. 또 성례는 택함받은 자들 안에서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이룬다. 또 어떤 이들은 성례를 받는 데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떤 이들은 거룩하게 되는 데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앞의 것은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똑같이 하지만, 뒤의 것은 선한 자들만 한다.[89] 그토록 애를 태우면서도 이렇게 평평하고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을 꿰뚫어 보지 못한 자들은, 참으로 어린아이보다 더 심하게 헛것을 보았고 대낮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그들이 성례를 어느 부분에 두든지 그것을 성례로 여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말합니다. 첫째, 성례의 유일한 토대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CO 177 다음으로, 여기서 어떤 예식을 내놓든지 그것은 순전히 사람의 고안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례의 예식은 오직 하나님만 제정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정의

89. 원문의 이 쪽 끝에 CO 편집자 각주의 조각("Lib. 5. de bapt. contra Donat.")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인용이 아우구스티누스의『도나투스파를 반박하는 세례론』제5권에서 왔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해의 성례에 관해 지어낸 것은 거짓말이요 사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꾸며 낸 성례를 그것에 어울리는 찬사로 꾸몄습니다. 그것이 파선 뒤의 둘째 널빤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례에서 받은 무죄의 옷을 죄를 지어 더럽혔다면 회개로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에로니무스의 말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든, 그것이 아주 불경건하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죄로 세례가 지워지기라도 하는 듯이 말합니다. 오히려 죄인은 죄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세례를 기억해 내야 합니다. 거기서 정신을 가다듬고 용기를 되찾아, 세례에서 자기에게 약속된 죄 용서를 얻으리라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회개의 성례라고 부른다면 아주 알맞게 말하는 셈입니다. 세례는 회개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위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기름 부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하여.

셋째로 꾸며 낸 성례는 종부(extrema unctio)입니다. 이것은 사제만 베풀 수 있고, 그것도 (그들의 말대로) 임종 때에, 감독이 축성한 기름으로, 다음과 같은 말의 형식으로 베풉니다. “이 거룩한 기름 부음과 당신의 지극히 인자하신 자비로,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지는 것, 맛보는 것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그들은 이것에 두 가지 효력이 있다고 꾸며 냅니다. 죄 용서와, 유익하다면 몸의 병이 가벼워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정이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이러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그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용서를 받으리라” (약 5).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앞에서 보여 준 안수와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곧 그들이 아무 이유도 열매도 없이 사도들을 흉내 내려는 광대놀음(ὑπόκρισις)입니다. 마가는 사도들이 처음 보냄을 받았을 때 주께 받은 명령을 따라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

게 하고, 병자를 고쳤으며, 병자를 고칠 때 기름을 썼다고 전합니다(막 6). 그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도록 장로들을 부르라고 명했을 때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이런 외적인 일들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행하셨는지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런 예식 밑에 더 깊은 신비가 없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돌려주시려 할 때 흙과 침으로 진흙을 이기셨고(요 9), 어떤 이들은 만져서, 어떤 이들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도 어떤 병은 말씀만으로, 어떤 병은 만져서, 어떤 병은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쓴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의 도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더 무지한 이들의 우둔함을 일깨워, 그토록 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하고, 그 찬양을 사도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이 성령과 그분의 은사를 뜻한다는 것은 흔하고 닳도록 알려진 일입니다. 그러나 저 병 고치는 은사는, 주께서 새로운 복음 설교를 영원히 놀라운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한동안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그때 사도들의 손으로 베풀어지던 그 능력들의 성례였다고 아무리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능력들을 베푸는 일을 맡지 않은 지금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어떤 상징들보다 이 기름 부음을 성례로 만들 무슨 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들은 실로암 같은 어떤 못을 정해 두고, 병든 자들이 정해진 때마다 들어가 몸을 담그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보다 더 헛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죽은 소년 위에 엎드려 그를 살렸으니, 왜 그들은 죽은 자들 위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침과 흙으로 이긴 진흙은 성례가 아닙니까? 그들은 "다른 것들은 한 번

뿐인 예였지만, 이것은 야고보가 명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야고보는 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리던 그 시대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같은 힘이 자기네 기름 부음에 있다고 단언하지만, 우리가 겪어 보기는 다릅니다. 이제는 아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자기의 생명과 빛을 빼앗겨 둔하고 눈멀었다고 알고 있던 영혼들을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속여 왔다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살아 있어 느끼는 몸의 감각마저 속이려 들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를 지녔다고 자랑할 때 스스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물론 주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당신의 사람들 곁에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옛날 못지않게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나 저 드러난 능력들을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으시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 하시던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병 고치는 은사를 기름의 상징으로 나타내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보인 것이 까닭 없지 않았듯이, 반대로 썩고 아무 힘도 없는 기름을 성령의 능력으로 만드는 자들은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가 성경에서 기름이 그런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모든 기름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고,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해서 모든 비둘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넉넉한 것은, 그들의 기름 부음이 성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없이 확실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도 아니고, 아무 약속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CO 179 우리가 성례에서 이 두 가지, 곧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일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닐 것을 요구할 때, 동시에 그 예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었고 약속이 붙어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명령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붙어 있던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에 있다고 사납게 자랑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보여 주었고, 그들 자신도 경험으로 드러냅니다. 그 예식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만 썼어야 했지, 고치기보다 도살하고 죽이는 데 더 능한 이 도살꾼들이 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들이 야고보가 기름 부음에 관해 명한 것이 이 시대에 맞는다는 것을 관철한다 해도(그들은 야고보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발라 온 자기네 기름 부음을 인정받는 데에는 아직 별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기를 원합니다. 이자들은 병자들이 아니라 반쯤 죽은 시체에 자기 기름을 칠합니다. 이제 막 숨이 입술 끝에 걸려 헐떡일 때, 그들 말대로 하면 임종 때에 말입니다. 그들이 자기 성례에 병의 괴로움을 누그러뜨리거나 적어도 영혼에 얼마간 위로를 주는 약을 지니고 있다면, 제때 고쳐 주는 일이 결코 없는 그들은 잔인한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병자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자들은 사제 나부랭이 말고는 기름 붓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야고보의 "장로들"을 사제들로 풀이하고, 복수는 품위를 위해 쓴 것이라고 허튼소리를 하는 것은 너무 하찮습니다. 마치 그때 교회들에 사제 무리가 넘쳐 나서, 거룩한 기름 그릇을 받들고 긴 행렬을 지어 나아갈 수 있었다는 듯합니다. 야고보는 병자에게 그냥 기름을 바르라고 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기름의 기름 부음 말고 다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이야기에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자들은 감독이 축성한 기름, 곧 숨을 많이 불어 데우고, 중얼거림을 많이 하여 주문을 걸고, 무릎을 아홉 번 굽혀 인사한 기름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기름이여, 세 번 문안하노라. 거룩한 성유여, 세 번 문안하노라. 거룩한 향유여, 세 번

문안하노라." 그들은 이런 귀신 쫓는 주문을 누구에게서 길어 왔습니까? 야고보는 병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서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름으로 죄가 지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받는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자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이자들은 자기네 거룩한, 아니 가증한 기름 부음으로 죄가 용서된다고 불경건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야고보의 증언을 제멋대로 마음껏 남용하도록 허락받았을 때, 얼마나 멋지게 해냈는지 말입니다.

교회의 품급(ordines)에 관하여.

그들의 목록에서 넷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서품(ordo)의 성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다산하는지 자기에게서 작은 성례 일곱을 낳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것은, 그들이 성례가 일곱이라고 단언하면서도 막상 헤아리려 하면 열셋을 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사제직을 향하고 이를테면 그리로 올라가는 계단과 같으니 하나의 성례라고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각 품급에 서로 다른 예식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들 자신이 서로 다른 은혜가 있다고 말하니,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그것들을 일곱 성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일곱이라고 밝히는데, 무엇 때문에 모호한 문제인 양 다투겠습니까? 이것들은 일곱 품급 또는 교회의 계급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것은 문지기, 독서자, 구마자, 시종, 부집사, 집사, 사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곱인 것은, 거기에 오르는 자들이 지녀야 할 성령의 일곱 겹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는 그들이 오를 때 더해지고 더 풍성하게 쌓인다고 합니다.

이제 숫자 자체도 성경을 비뚤게 풀이하여 거룩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서에서 성령의 일곱 능력을 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사 11; 겔 1; 롬 1; 8). 그러나 실제로 이사야가 꼽는 것은 여섯을 넘지 않고,

선지자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담으려 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생명의 영, 거룩하게 하는 영, 양자 삼는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니, 그곳에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기야 더 날카로운 어떤 이들은, 그들 말대로 승리한 교회를 본떠서 일곱이 아니라 아홉 품급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직자의 삭발을 첫째 품급으로, 감독직을 마지막으로 삼으려 하고, 다른 이들은 삭발을 빼고 대감독직을 품급에 넣습니다. 앞의 의견은 후고의 것이고, 다른 의견은 파리의 기욤의 것입니다.[90] 이시도루스는 달리 나눕니다.[91] 그는 시편 낭송자와 독서자를 다른 품급으로 만들어, 앞의 자들에게는 노래를 맡기고, 뒤의 자들에게는 백성을 가르치도록 성경을 읽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교회법에서 지켜집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피하기를 원합니까? 일곱 품급이 있다고 말할까요? 학교의 선생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극히 밝으신 박사들은 달리 판정하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어긋나며, 게다가 지극히 거룩한 교회법은 우리를 다른 데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일을 따질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일치합니다. CO 181 이제 그들이 자기네 품급의 기원을 논할 때, 어린아이들 보기에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자가 됩니까? 성직자(clerici)는 제비(sors)에서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께 제비로 뽑혔기 때문이든지, 주의 몫에 속하기 때문이든지, 하나님을 자기 몫으로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교회의 것이었던 이 칭호를 자기에게 가로챈 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분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90. 후고(Hugo)는 파리 생빅토르 수도원의 신학자 후고(Hugo de Sancto Victore, 1141년 죽음)로, 파리의 기욤(Guilielmus Parisiensis)은 파리의 감독이던 오베르뉴의 기욤(Guillaume d' Auvergne, 1249년 죽음)으로 보입니다.

91. 이시도루스(Isidorus Hispalensis, 636년 죽음)는 세비야의 감독으로, 『어원 사전』과 『교회의 직무에 관하여』를 썼습니다.

도 그들이 뻔뻔하게 꾸며 대듯 머리 깎은 몇몇 사람을 성직자(cleri)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온 백성을 그렇게 부릅니다(벧전 5). 그들의 말은 이어집니다. 성직자는 정수리를 깎는데, 이는 그 관이 왕의 영예를 뜻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직자는 자기와 남을 다스리는 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벧전 2).

보십시오. 저는 다시 그들의 거짓을 밝힙니다. 베드로는 온 교회에 말하는데, 이자들은 그것을 몇몇 사람에게로 비틀어, 마치 "거룩하라"는 말이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인 것처럼, 마치 그들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것처럼, 마치 그들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처럼 합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다른 이유들도 듭니다. 머리 꼭대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자유롭게 열려 있어,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다. 또는 입과 눈의 악덕을 잘라 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또는 머리를 깎는 것은 현세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고, 관의 둘레는 생활을 위해 남겨 두는 재산의 나머지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상징 속에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아직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관으로 이런 것들을 상징했으니 자기 몫을 훌륭히 다했다고 믿고, 실제로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은 이런 속임수와 눈속임으로 우리를 놀리겠습니까? 성직자들은 머리카락 몇 올을 깎아 내어, 현세의 재물의 풍요를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귀와 눈의 정욕을 죽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어리석고 더 음란한 부류의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는 표징으로 거룩함의 겉모양을 꾸미기보다 거룩함을 참으로 보여 주지 않습니까? 나아가 그들이 성직자의 관이 나실인에게서 그 기원과 근거를 얻었다고 말할 때, 그들은 자기네 신비가 유대의 예식에서 났다는 것, 아니 순전한 유대교라는 것

말고 무엇을 내놓는 것입니까?

또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 자신이 서원을 하고 정결하게 되려고 머리를 깎았다고 덧붙이는데(행 18), 이로써 그들은 자기의 둔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브리스길라에 관해서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고, 아굴라에 관해서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삭발은 아굴라에게 돌릴 수도 있고 바울에게 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울에게서 본보기를 얻었다고 그들에게 남겨 두지 않으려면, 단순한 이들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결코 무슨 거룩하게 함을 위해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다만 형제들의 연약함을 섬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서원을 경건의 서원이 아니라 사랑의 서원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무지를 참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등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고전 9).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에게 잠시 맞추어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자들은 아무 쓸모도 없이 나실인의 정결 예식을 흉내 내려 하니, 또 다른 유대교를 세우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민 6)? 저 교령 서한도 같은 경건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서한은 사도를 따라 성직자들이 머리를 기르지 말고 공 모양으로 깎으라고 금합니다. 마치 사도가 모든 남자에게 무엇이 어울리는지 가르치면서(고전 11) 성직자들의 공 모양 삭발을 걱정했다는 듯합니다.

이로써 독자들은, 이런 입문을 가진 다른 품급들이 어떠한지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것은, 그들이 각 품급에서 그리스도를 자기 동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첫째로 그분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사고파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을 때 문지기의 직무를 수행하셨고,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이 문지기임을 나타내셨다(마 21; 요 2; 10).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을 때 독서자의 직무를 맡으셨다(눅 4). 귀먹고 말 못 하는 사람의 혀와 귀에 침

을 발라 만지시며 듣게 하셨을 때 구마자의 직분을 행하셨다(막 7).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당신이 시종임을 증언하셨다(요 8).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부집사의 직분을 행하셨다(요 13). 만찬에서 사도들에게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을 때 집사의 역할을 맡으셨다(마 26). 십자가에서 당신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셨을 때 사제의 몫을 다하셨다(마 27). 이런 말은 웃지 않고는 들을 수 없을 정도여서, 저는 이것이 웃지 않고 쓰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것을 쓴 자들이 사람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시종(acolythus)이라는 이름을 두고 철학하면서 그를 촛대 드는 자(ceroferarius)라고 부르는 그 교묘함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마술의 말이고, 분명히 모든 민족과 언어에 들어 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콜루토스(ἀκόλουθος)는 그저 시중드는 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반박하는 데 매달린다면, 저 자신도 웃음거리가 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찮고 장난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어리석은 여자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헛됨을 지나가는 길에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행렬과 의식을 갖추어 자기네 독서자, 시편 낭송자, 문지기, 시종을 세웁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인데, 정작 그 직무에는 아이들이나, 적어도 그들이 평신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세웁니다. 대개 누가 초에 불을 붙이고, 누가 작은 주전자에 포도주와 물을 붓습니까? 아이나, 그 일로 돈벌이를 하는 평신도 가운데 천한 누군가가 아닙니까? 같은 자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같은 자들이 교회당 문을 닫고 열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회당에서 시종이나 문지기가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시종의 직무를 수행하던 아이도, 시종의 품급에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불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기를 그만둡니다.

1536년판 제5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4

CO 1:183–19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83 [92]그래서 그들은 직함을 받는 바로 그때 대놓고 그 직무 자체를 내던지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성례로 축성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곧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 직무를 버리고 소홀히 하는 것이 시대가 비뚤어진 탓이라고 핑계를 댄다면, 동시에 이것도 고백해야 합니다. 곧 그들이 놀랍도록 떠받드는 그들의 거룩한 품급은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 쓸모도 열매도 없으며, 그들의 교회 전체가 저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는 촛대와 물병을 아이들과 속인들이 만지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것을 만질 자격은 복사로 축성된 자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축성된 입으로가 아니면 들려서는 안 되었던 노래들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마사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축성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들 나름의 구마사가 있었다는 말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던 귀신 쫓기에서 그런 이름을 얻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행 19). 그런데 이 거짓 구마사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자기 직분의 본보기를 단 한 번이라도 보였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들과 세례 지원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 위에 손을 얹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꾸며 댑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권세를 지녔다고 귀신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그들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을 뿐

92.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아니라, 도리어 귀신들이 그들에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열에 하나라도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자잘한 품급들에 관해 더듬거리며 늘어놓는 것은, 그것이 여섯으로 세어지든 다섯으로 세어지든, 모두 무식하고 어리석은 거짓말로 빚어낸 것입니다. 이 품급들 가운데 저는 부집사직도 함께 넣습니다. 부집사직은 높은 품급으로 옮겨졌지만, 이 낮은 등급의 무리가 우글거리기 시작한 뒤의 일입니다. 이것들을 성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 자신의 고백으로도 이것들은 초대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 뒤 여러 해가 지나서야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으므로, 천사들도 사람들도 세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를 얻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들은 그것들을 높여서 특별히 거룩한 품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증거를 자기들의 구실로 얼마나 비뚤게 남용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장로직, 곧 사제직의 품급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두 이름으로 한 가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제사를 이루고, 기도문을 외고, 하나님의 예물을 축복하는 일이 자기들에게 속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품 때 제병과 함께 성작과 성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달래는 제물을 바치는 권세가 수여되었다는 표지로 받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손에는 기름을 바르는데, 그들은 이 표지로 축성하는 권세가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이해합니다.[93] 그들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보다 더 뻔뻔하게 뒤엎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앞의 논의에서 주장한 것을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

93. 이 자리에 CO 편집자 각주의 남은 부분(“…lectis, 25. dist.” 와 “Lib. 4. sent. dist. 24. c. 8.”)이 끼어 있습니다. 뒤의 것은 롬바르두스, 『명제집』 4권 24구분 8장입니다.

니다. 곧 화목의 제물을 바치려고 자기를 사제라고 부르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맹세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으로 세워지시고 성별되셨습니다. 끝도 없고 뒤를 잇는 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속죄와 화목의 제물을 단번에 드리셨고, 지금도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히 4–9).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찬송과 감사를 위한 제사장이며,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사장입니다. 자기의 제물로 하나님을 달래고 죄를 속하는 일은 오직 그분 한 분께만 고유한 것이었습니다(벧전 2; 계 1). 그렇다면 이자들의 사제직은 불경건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밖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뽐내니, 그들이 사도들의 자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어 맡고 있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믿어 주기를 바랐다면 먼저 자기들끼리 뜻이 맞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들과 탁발 수도사들과 사제 나부랭이들이 사도들의 계승을 두고 원수처럼 칼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독들은 열두 제자가 특별한 특권으로 사도직에 뽑혔으며, 자기들은 다른 이들보다 영예가 뛰어나므로 그 열두 제자의 자리와 지위에 있다고 내세웁니다. 그리고 보통 장로들은 그 뒤에 주께서 세우신 칠십 인의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너무 허약해서 긴 논박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문서에서도, 교회에 마귀적인 분열이 생겨 어떤 이는 “나는 게바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기 전에는 장로와 감독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이 이방인들에게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본 이들이 훨씬 옳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영예의 등급으로 구별된 플라멘, 쿠리오, 루페르키, 살리이, 폰티펙스와 그 밖의 제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탁발 수도사들은 사도들과 가장 멀리 다른 바로 그 닮은 점 하나로 자기들이 사도들의 대리자라고 팔고 다닙니다.

곧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남의 것으로 먹고산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은 이 떠돌이들처럼 아무 데나 함부로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복음의 열매를 퍼뜨리러 떠났습니다. 또 남의 수고로 게으른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따라, 자기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던 이들의 호의를 누렸을 뿐입니다.

수도사들이 마치 증거가 모자라기라도 한 듯이 남의 깃털로 자기를 가릴 까닭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꽤 분명한 찬사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이 규모 없이 행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살후 3). CO 185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죄를 중히 지고 늘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어리석은 여자를 사로잡는 자들이 있으니" (딤후 3). 제가 말하거니와, 그들은 이 찬사들을 정당한 소송으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자기들이 하늘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들의 자리는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제직의 품급 전반에 관해, 그것이 사도들의 직무와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교회의 아무 형태도 세워지지 않았을 때, 사도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위해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막 16). 그보다 앞서는 당신의 몸과 피의 거룩한 표징을 당신의 본을 따라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눅 22). 보십시오, 사도들의 자리를 잇는 자들에게 지워진 거룩하고 범할 수 없고 영원한 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이 법으로 복음 전파와 성례 집행에 관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와 성례 집행에 힘쓰지 않는 자들은 사도들의 이름을 부당하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사도들과 같은 사역을 맡았다고 거짓으로 뽐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지금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맡아야 할 이들 사이에는

얼마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입니다. 낱말의 뜻과 어원으로 보면 양쪽 모두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므로 둘 다 사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롬 10; 눅 6). 그러나 주께서는 저 열두 사람을 특별히 택하셔서 복음의 새로운 선포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셨고, 그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롭고 전에 듣지 못한 것을 가져오는 이들이었으므로, 그들의 보냄에 관해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장로와 감독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은 직무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베푸는 일은 양쪽에 공통되지만, 저 열두 사람에게는 아무 경계도 정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복음을 퍼뜨리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행 1). 반면에 이 사람들에게는 각기 한 교회가 맡겨집니다. 그렇다고 한 교회를 맡은 이가 다른 교회들을 돕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의 출석을 요구하는 어떤 소란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멀리 있으면서 멀리 있는 이들을 글로 가르칠 수 있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교회의 평화를 지키려면 이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곧 저마다 할 일이 정해져 있어서, 모두가 한꺼번에 소란을 피우거나, 부르심도 없이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모두가 함부로 한곳에 몰려들거나, 제멋대로 교회들을 비워 두고 떠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쓰면서 이 구별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까닭은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같은 것을 보여 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너희를 그 양 떼의 감독자로 세우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아킵보를 골로새 사람들의 감독으로 언급하고(골 4), 다른 곳에서는 빌립보 사람들의 감독들을 언급합니다(빌 1).

이것을 잘 살펴보았다면, 장로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누구를 장로의 반

열에 있는 자로 여겨야 하는지, 아니 서품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직무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얼마나 흠 없는 행실로 뛰어나야 하는지, 각 사람에게 사사로이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자질을 모두 다루는 것이 지금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는 자들이 무엇을 표방하는지만 보여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말씀과 성례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독과 장로를 가리지 않고 교회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서품은 부르심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르심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칠 차례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곧 감독 또는 장로를 누가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식이나 예식으로 그 직분에 들여보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당한 임직의 증거는 사도들의 임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의 부르심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명령만으로 갖추어져서 일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들 자신이 어떤 순서를 지켰는지도 충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 두어 각 성에 감독들을 세우게 했다고 전하고(딛 1), 다른 곳에서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권할 뿐입니다(딤전 5). 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사람들의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다고 전합니다(행 14). 그런데 주교관을 쓴 대사제들이 이 구절들을 아주 멋지게 빛내 주었습니다. 자기들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면 무엇이든 늘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94] 그들은 거기서, 그들 말대로 하면 장로를 서품하고 축성하는 권세가 오직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이들에게 자기들의 축성을 무슨 번쩍이는 탈을 씌워 존귀하고 거룩해 보이게 하려고, 그것을 많은 예식으로

94. [원문의심] 원문은 “qui ad fSsuinas facere videntur” 로 깨져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쓰일 것처럼 보이는 구절” 이라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축성하고 서품하는 것이 교회의 감독과 목사를 세우는 것과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규정대로 축성하고 서품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리 한다면, 바울의 이 구절들을 자기들 멋대로 아주 나쁘게 비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그들은 아주 달리 합니다. 그들은 감독직으로 서품하지 않고 사제직으로 서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여 교회의 사역에 바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사역이 말씀의 사역 말고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사제 나부랭이들이 교회의 사역자라는 노래를 거듭 되풀이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정신인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의 진리가 그들을 논박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령 말고는 다른 어떤 교회의 사역자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를 때로는 감독, 때로는 장로, 때로는 목자라고도 부르기 때문입니다(행 14; 20; 벧전 5).

CO 187 그런데 그들이 교회법은 누구든지 직함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금한다고 반박한다면, 저도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직함을 저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직함들 가운데 더 큰 부분은 고위 성직, 페르소나투스, 참사회원직과 성직록, 전속 사제직, 수도원 부원장직, 게다가 수도사 자리가 아닙니까? 그것들은 일부는 주교좌 성당에서, 일부는 참사회 성당에서, 일부는 버려진 신당에서, 일부는 수도원에서 얻어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사탄의 사창가라고 풀이하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고 잡아 바치는 일 말고 무슨 직무로 서품됩니까? 결국 그들은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서가 아니면 아무도 서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유일한 서품은, 삶과 교리가 검증된 사람을 교회를 다스리도록 부르고 그를 사역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저 구절들은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물론 그 구절들은 부르심 자체와 함께 부르는 예식과 의식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식에 관해서는 곧 제자리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지금 손에 쥔 문제를 다룹시다. 곧 교회의 사역자들을 누가 서품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누가 불러야 하는지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지금 관을 쓴 총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성직 수여권을 넘겨주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에게 그들이 남겨진 지방의 교회들을 세우고 정돈하라는 명령을 준 뒤에, 한 사람에게는 교회들이 버려진 채로 있지 않게 하라고 권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일깨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대주교처럼 교회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저는 그들이 모두 제 마음대로, 교회들이 모르고 의논도 받지 못한 채로 자기들이 좋게 여긴 사람들을 교회에 앉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들과 의논한 뒤에, 형제들 가운데 더 순수한 교리와 더 흠 없는 삶으로 검증된 이들을 그 직무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이들이 교회들이 온전히 서 있기를 원했다면, 실로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곧 사역자를 뽑는 일을 의논하려는 교회는, 의논에 들어가기 전에 이웃에서 삶의 거룩함과 교리의 순수함으로 다른 이들보다 돋보이는 감독 한두 사람을 불러, 누구를 가장 받아들여야 할지 그들과 함께 따져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을 온 교회의 회집으로 세우는 것이 나은지, 그 일을 맡은 몇 사람의 투표로 세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위정자의 결정으로 세우는 것이 나은지에 관해서는 아무 확정된 법도 세울 수 없습니다. 시대의 형편과 백성들의 관습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온 백성의 공동 투표가 아니면 바르게 뽑힌 것이 아니라고 힘써 주장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지역에서 이 관례가 힘을 가졌다는 것은 역사가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머리가 한마음으로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고, “갈피를 못 잡는 무리는 서로 다른 쪽으로 갈라진다”는 말이 대개 맞으므로, 저는 위정자나 의회나 몇몇 장로들이 그 선출의 직무를 맡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신실함과 정직함을 잘 아는 감독 몇 사람을 늘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경건을 마음에 품은 군주들이나 자유 도시들이 일과 때에 맞추어 더 잘 내다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뿔 달린 고위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수여권, 추천권, 재추천권, 보호권과 그 밖의 이런 종류의 폭군적 지배로 바른 서품을 송두리째 썩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시대의 부패가 그렇게 요구했다. 감독을 받아들이는 일에서 백성과 위정자들 사이에서는 바르고 건전한 판단보다 미움과 편애가 더 힘을 썼기 때문에, 그 일을 결정할 권한을 으뜸가는 감독 몇 사람에게 넘겨야 했다.” 그것이 절망적인 형편에서 극한의 악에 쓰는 치료책이었다고 해 둡시다. 그러나 약이 병 자체보다 더 해롭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왜 이 새로운 악은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교회법이 감독들이 자기 권세를 교회를 망치는 데 남용하지 못하도록 아주 꼼꼼하게 막아 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자면, 교회법 자체가 좋은 권징의 절도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기보다 오히려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붙인 횃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정자들 자신에게 마음 내킬 때마다 그저 웃음거리인 교회법을 왜 제게 내세웁니까? 옛날에 백성이 감독을 뽑으려고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규칙이 자기 앞에 놓인 것을 보았다면, 자기가 가장 거룩한 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는 데 우리가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수없이 많은 자잘한 교회법보다 그 백성에게 마땅히 더 귀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은 아주 나쁜 성향에 썩어서 법도 공평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아주 좋은 법들이 쓰여 있기는 하지만 종이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사이 공공연한 관습으로는 거의 이발사, 요리사, 노새 몰이꾼, 사생아, 그리고 그런 찌꺼기

같은 사람들만이 교회의 목자로 세워지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도 약하게 말한 것입니다. 감독직이 뚜쟁이질과 간음의 상급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직이 사냥꾼과 새 사냥꾼에게 주어질 때면, 일이 아주 잘 풀렸다고 여겨야 할 판입니다. 이토록 큰 수치를 교회법으로 염치없이 변호합니다. 제가 말하거니와, 옛날에 백성에게는 아주 좋은 교회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는 등의 것을 규정해 주었습니다(딤전 3; 딛 1). 그렇다면 왜 사역자를 뽑는 직무가 백성에게서 이 고위 성직자들에게로 옮겨졌습니까? 백성의 소란과 당파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법을 어길 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내던지고 음탕하게, 탐욕스럽게, 야심에 차서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뒤섞고 혼동하는 감독들에게서, 왜 그 직무를 옮겨 오지 않습니까? CO 189 자기 양 떼에서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는 자들, 마치 원수의 땅에 쳐들어가듯 교회의 재산에 폭력으로 뛰어든 자들, 법정 다툼으로 따낸 자들, 돈을 주고 사들인 자들, 더러운 아첨으로 얻어 낸 자들, 겨우 옹알이나 하는 아이 때에 삼촌과 친척들에게서 마치 유산처럼 그것을 물려받은 자들이 교회의 목자라고 불린다는 것을, 귀로 듣는 것만이라도 참을 수 있습니까? 백성의 방종이 아무리 썩고 법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일찍이 이 지경까지 나아간 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보이는 교회의 이 모습을 마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잔인하고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고칠 수 있는데도 내버려 두는 자들은 온갖 비인간성을 넘어섭니다. 이제 장로들의 부르심에서 둘째인 것을 다룹시다. 곧 어떤 종류의 예식으로 그들을 그 직분에 들여보내야 하는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복음 전파로 내보내실 때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셨습니다(요 20). 주께서는 이 표지로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은 이 숨 내쉬기를 그대로 지켜서, 마치

성령을 자기 목구멍에서 토해 내기라도 하는 듯이, 자기들이 만들어 내는 사제 나부랭이들 위에 "성령을 받으라" 고 중얼거립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거꾸로 흉내 내지 않고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우에 견주지 않습니다. 배우들은 자기 몸짓에 어떤 이치와 절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원숭이에 견줍니다. 원숭이들은 아무 가림도 없이 장난스럽게 무엇이든 흉내 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지킨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고 말씀하셨고,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왜 모든 죽은 자와 중풍병자에게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도들에게 숨을 내쉬어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채우셨을 때, 당신의 신적 능력의 본보기를 보이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바로 이것을 이루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며 하나님께 거의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효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 어리석은 몸짓으로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로 뻔뻔스러워서 자기들이 성령을 준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참된지는 경험이 가르쳐 줍니다. 경험은 사제로 축성되는 자는 누구든지 말에서 나귀가 되고 바보에서 미치광이가 된다고 외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두고 그들과 다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식 자체를 정죄할 뿐입니다. 그 예식은 본보기로 끌어다 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한 번뿐인 기적의 특별한 표지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흉내낸다는 핑계가 그들을 변호해 줄 수 있기는커녕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기름 바름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품급이 시작된 아론의 아들들에게서 받았다고 대답합니다.[95]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95. 이 쪽의 CO 편집자 각주로 "Lib. 4. Sent. dist. 24. c. 8. et in canon. dist. 21. c. 1." (롬바르두스, 『명제집』 4권 24구분 8장, 교회법 21구분 1장)이 남아 있습니다. 각주 번호가 본문

함부로 쓰는 것이 자기들이 고안해 낸 것이라고 고백하느니, 차라리 비뚤어진 본보기로 늘 자기를 변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그들은, 자기들이 아론의 아들들의 후계자라고 공언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옛 제사장직들은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하나를 그림자로 보이고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맺어지고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쳤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되풀이했고, 히브리서가 아무 주석의 도움 없이도 증언하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의식을 그토록 좋아한다면, 왜 소와 송아지와 어린양을 제물로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실로 옛 성막과 유대교 예배 전체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religion)에는 송아지와 소를 잡아 바치지 않는다는 것 하나가 모자랍니다. 이 기름 바르는 관습이 할례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특히 미신과, 행위의 가치에 관한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 더해질 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에 의의 신뢰를 두었고, 이자들은 기름 바름에 영적 은사를 둡니다. 그들 말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지워지지 않는 표지(character indelebilis)를 새기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마치 기름은 먼지와 소금으로 닦아 낼 수 없고, 더 끈질기게 붙어 있으면 비누로도 닦아 낼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표지가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따다가 되풀이해 외는 말을 잊었습니까? 곧 물에서 말씀을 떼어 내면 물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물이 성례가 되는 것은 말씀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 덩어리에서 무슨 말씀을 보여 주겠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입니까(출 28; 29; 30)? 그러나 거기에는 아론을 꾸밀 속옷, 에봇, 관, 거룩한 패에 관한 명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는 OCR에서 사라졌습니다.

령도 있고, 그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 띠, 관에 관한 명령도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그 기름을 불사르며, 숫양들을 각을 떠서 불사르고, 다른 숫양의 피로 귓부리와 옷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과, 그 밖의 수없이 많은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 오직 기름 바름 하나만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저는 이상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뿌림 받기를 좋아한다면, 왜 피보다 기름을 뿌림 받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기발한 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교에서 누더기 조각들을 이어 붙이듯 종교 하나를 지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의 기름 바름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남은 것은 안수입니다. 사도들이 누구를 교회의 사역에 나아가게 할 때마다 안수를 지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감독직에 받아들여진 그 서품 자체를 "장로직의 안수"라고 부릅니다(딤전 4). 물론 어떤 이들이 그 구절의 "presbyterium"을 장로들의 모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사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단순합니다. 저는 이 의식이 히브리인들의 관습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안수로써 이를테면 하나님께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려 할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규정을 따라 자기들의 제물에 손을 얹은 것도 같은 뜻에서였습니다(창 48; 민 8; 27; 레 1; 3; 4 등). CO 191 그러므로 사도들은 안수로써, 자기들이 손을 얹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율법의 그림자를 좇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쓸 일이 있을 때 아무 미신 없이 이 표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주께 성령을 구하여 받게 하려는 이들에게 안수했고, 이런 표지로 성령을 베풀었습니다. 성령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그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해 주려는 사람을 주께 맡기는 표지였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행 7; 9).[96]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 곧바로 성례로 여겨야 합니까? 사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례 없이는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합니까(행 21; 26)? 제자들은 동쪽을 향해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동쪽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성례로 삼읍시다. 바울은 남자들이 각처에서 깨끗한 손을 들기를 원하며,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기록도 자주 나옵니다(딤전 2; 시 63; 88; 141; 143). 그렇다면 손을 펴는 것도 성례가 되게 합시다. 결국 성도들의 모든 몸짓이 성례로 바뀌게 합시다. 그러므로 다툼은 그만두고, 이 예식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쓸모가 있는지 몇 마디로 다루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들처럼 성령의 은사들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 예식을 쓴다면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지도 않으셨고 그 표지를 세우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황과 그 무리는 이런 표징으로 자기들이 성령을 준다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 돌을 쉬지 않고 굴립니다. 우리가 그들의 견진을 따질 때 더 자세히 논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감독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을 교회 회중 한가운데 세우고, 그에게 그의 직무를 일깨우며, 장로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해 기도하되, 다른 어떤 종교적 의미도 두지 않고, 다만 그 자신이 하나님께 사역자로 드려진다는 것을 느끼고 교회는 그를 공동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도록 일깨워지게 하려는 것이라면, 제정신인 사람은 아무도 이런 안수를 그르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들의 기원과 임직과 직무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묘사합니다(행 6).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서 자기들의 과부가 소홀히 여겨진다는 원망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말씀 전파와 식탁 봉사라는 두 직무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고 사정을 말하고,

96. [원문의심] 원문에는 “Act. 7. 9”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안수 이야기가 없으므로 8장의 잘못일 수 있으나, 원문대로 두었습니다.

무리에게 검증된 사람 일곱을 뽑아 그 일을 맡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보십시오, 집사들의 직무가 여기 있습니다. 곧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도 거기서 왔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그들의 임직을 덧붙입니다. "그들이 뽑은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날 교회에 이런 집사들이 있고, 교회가 이런 예식으로, 곧 앞에서 충분하다고 여겨진 만큼 말한 그 안수로 그들을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도 집사들을 언급하는데(딤전 3), 그들이 정숙하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술에 인 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침을 받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 집과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자들이 우리에게 꾸며 보이는 집사들에게 이것과 닮은 데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허물로 자기들의 교리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들이 불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자기들의 교리로 우리에게 내어놓는 바로 그 집사들을 위해, 사도적 교회가 집사로 세운 이들의 본보기에서 증거를 끌어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사에게 이런 일이 속한다고 말합니다. 곧 사제들 곁에서 돕고, 성례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곧 세례와 성유와 성반과 성작에서 시중들고, 예물을 가져와 제단에 차려 놓고, 주님의 상을 차리고 덮고, 십자가를 들고, 백성에게 복음서와 서신을 낭독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집사의 참된 사역에 관한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이제 그들의 임직을 들어 봅시다. 서품받는 집사에게는 감독 혼자 안수합니다. 감독은 그의 왼쪽 어깨에 오라리움, 곧 영대를 걸쳐 줍니다. 그가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받았으며, 그 멍에로 왼쪽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래 굴복시켜야 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감독은 그에게 복음서 책을 줍니다. 그가 복음의 전령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

다. 이런 것들이 집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짓은, 어떤 사람이 사도들을 세운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고작 향을 피우고, 성상을 닦고, 예배당을 쓸고, 쥐를 잡고, 개를 쫓는 일을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들 자신에게 견주어지는 것을 참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는 자기들의 광대놀음을 위해서만 세우는 자들을 집사라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레위인이라고도 부르고, 그들의 근거와 기원을 레위의 아들들에게로 돌립니다. 제게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실 그대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레위 제도의 의식과 모세 율법의 그림자로 뒷걸음질 친다는 것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서품 성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단번에 통틀어 정리합시다. 앞에서 설명한 것을 멀리서 다시 끌어오지 않도록, 제가 가르치기로 맡은 겸손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으로 넉넉할 것입니다. 곧 약속이 덧붙은 예식이 보이는 곳이 아니면, 아니 오히려 예식 안에서 약속이 보이는 곳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약속이 한 음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확증하는 예식을 찾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식이 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성례일 수 없습니다.

혼인에 관하여.

마지막은 혼인입니다. 혼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모두가 인정하듯이(창 2; 마 19), 그것이 성례로 주어졌다는 것은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CO 193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일찍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는 선하고 거룩합니다. 농사, 건축, 구두 짓기, 이발도 하나님의 정당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례는 아닙니다. 성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확증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깥 예식이

라는 것도 찾기 때문입니다. 혼인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이들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인이 거룩한 것,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표징이라는 말로 우리 믿음의 확신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신 상징을 뜻한다면, 과녁에서 멀리 빗나간 것입니다. 만일 표징을 그저 비유로 끌어온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추론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고전 15).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리라." 보십시오, 성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마 13:31 참조). 보십시오, 또 하나입니다. 또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마 13:33 참조). 보십시오, 셋째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목자같이 당신의 양 떼를 먹이시리라"(사 40:11 참조). 보십시오, 넷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리라"고 합니다(사 42:13 참조). 보십시오, 다섯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한계입니까? 이런 논리라면 성례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비유와 직유가 있는 만큼 성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도둑질도 성례가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살전 5:2 참조). 이토록 무식하게 지껄이는 이 궤변가들을 누가 참겠습니까? 저도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아주 좋다는 것을 인정합니다(요 15:1, 5 참조). 목자가 양 떼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도 떠오르는 것이 좋다는 것도 인정합니다(요 10:11, 27 참조). 그러나 누가 이런 비유들을 성례 가운데 센다면, 그런 사람은 안티키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97]

97. 안티키라(Anticyra)는 광기를 고친다고 여겨진 약초 헬레보루스가 나던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안티키라로 보내야 한다"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의 옛 속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이밉니다. 그 말에서 혼인에 성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요 그의 살과 그의 뼈에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성례(sacramentum)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땅을 하늘과 뒤섞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얼마나 특별한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지 보여 주려고,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내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정혼하신 교회에 긍휼의 심장을 쏟아부으셨듯이, 바울은 각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셨는지, 아니 어떻게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하나가 되셨는지 가르치려고, 모세가 전하는 아담이 자기에 관해 한 말을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아담은 자기 갈빗대로 지어진 줄 알았던 하와가 자기 앞에 이끌려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말했습니다(창 2).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요 그분의 살과 뼈에서 났으며, 그러므로 그분과 한 육체라고 말할 때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맺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비밀(mysterium)이 크도다." 그리고 누구도 말의 모호함에 속지 않도록, 자기가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혼인에 관해 말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어지도록 당신의 갈빗대가 떼어 내어지기를 참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큰 비밀입니다. 곧 그분은 강하셨으나 약해지기를 원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힘으로 강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례라는 이름이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 때문에 온 교회가 벌을 받는 것이 공평했습니까? 바울은 "비밀"(mysterium)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역자는 라틴 사람의 귀에도 드물지 않은 그 낱말을 그대로 둘 수도 있었고 "숨겨진 것"(arcanum)으로 옮길 수도 있었는데, "성례"(sacramentum)라고 쓰기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헬라어로 "비밀"이라고 한 것과 다른 뜻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가서 언어 지식을 시끄럽게 헐뜯어 보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언어를 몰라서, 쉽고 누구에게나 뻔한 일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아주 추하게 헛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 한 구절에서만 "성례"라는 낱말을 그토록 붙들고, 여러 곳에서는 무시하고 지나갑니까? 그 낱말은 디모데전서에서도(딤전 3) 라틴어 역본의 번역자가 썼고, 바로 그 에베소서에서도(엡 5) 곳곳에서 "비밀" 대신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실수는 그들에게 너그러이 넘어가 줍시다. 그래도 거짓말쟁이는 적어도 기억력이 좋아야 했습니다. 혼인을 성례라는 칭호로 추켜세우고 나서, 그 뒤에 그것을 불결함과 더러움과 육적인 오물이라고 부르다니, 이 얼마나 어지러운 경박함입니까? 사제들을 성례에서 쫓아내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만일 그들이 성례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교의 정욕에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제게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교 자체가 성례의 일부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는 연합이 본성의 같음 안에서 바로 그것으로 예표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육체의 결합으로가 아니면 한 몸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기서 두 성례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신랑과 신부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영혼의 성례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과 아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례입니다. 어쨌든 성교는 성례이며, 어떤 그리스도인도 거기서 쫓아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들의 성례가 서로 너무 맞지 않아서 함께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또 그들의 교리에는 다른 불합리도 있습니다.[98] CO 195 그들은 성례에서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단언하고, 성교가 성례라고 가르치면서도, 성교에는 성령께서 결코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교회를 조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려고, 이 오류 하나에 얼마나 긴 오류와 거짓말과 속임수와 악행의 사슬을 이어 붙였습니까? 그들이 혼인을 성례로 만든 것은 가증한 일들의 은신처를 찾으려는 것밖에 아니었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들은 일단 이것을 얻어 내자, 혼인 사건의 재판권을 자기들에게로 끌어갔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니 세속 재판관들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법을 정하여 자기들의 폭정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 법들은 일부는 하나님께 드러나게 불경건하고, 일부는 사람에게 지극히 불공평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젊은 남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맺은 혼인도 굳게 유효하다." "친족 사이에서는 일곱 촌수까지 혼인이 적법하지 않으며, 이미 맺어진 혼인은 깨뜨려야 한다." 게다가 그들은 그 촌수 자체를 모든 민족의 법과 모세의 국법에도 어긋나게 꾸며 냅니다. "간음한 아내를 내보낸 남자가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영적 친족끼리는 혼인으로 맺어질 수 없다."[99] "칠순 주일부터 부활절 팔일째까지, 세례 요한 탄생일 전 세 주 동안, 대림절부터 주현절까지는 혼례를 올리지 못한다."[100]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이 수없이 많아서 다 헤아리자면 길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시궁창에서 빠져나와야 하겠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내키던 것보다 이미 너무 오래 그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이 나귀들에게서 사자 가죽을 얼마쯤은 벗겨 냈으니, 저는 조금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98. [원문의심] 원문은 "dignitatibTis"로 깨져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 "dogmatibus"(교리)로 읽었습니다.

99. 영적 친족(cognatio spiritualis)은 세례 때의 대부모 관계 등으로 생긴다고 교회법이 정한 친족 관계입니다.

100. 칠순 주일(Septuagesima)은 사순절 전 셋째 주일입니다.

1536년판 · 제6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 통치에 관하여

1536년판 제6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 통치에 관하여 1

CO 1:195–20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95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 통치에 관하여.

제6장.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루어야 합니다. 복음 교리의 요체를 간추려 담으려는 사람은 결코 이 설명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양심은 거의 아무 일도 의심 없이 시작하지 못하며, 많은 일에서 머뭇거리며 뒷걸음치고, 늘 흔들리고 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논하는 일을(앞에서는 가볍게만 건드렸으므로) 이 자리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언급되자마자, 그 방자한 기질들을 일찍 막지 않으면 거기서 정욕이 들끓거나 미친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질들은 그렇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쁘게 썩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자유를 구실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순종을 떨쳐 버리고 고삐 풀린 방종으로 뛰어듭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절제와 질서와 사물의 분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분개합니다. 이런 곤경에 둘러싸인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버려서 이런 위험의 기회를 끊어 버려야 합니까?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그 자유를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복음의 진리도 바르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리의 이토록 필요한 부분이 억눌리지 않도록 힘쓰고, 동시에 거기서 흔히 생겨나는 저 불합리한 반론들에 맞서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는, 신자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칭의의 신뢰를 찾아야 할 때, 율법 위로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율법의 의 전체를 잊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증명했듯이 율법은 아무도 의인으로 남겨 두지 않으므로, 우리는 칭의의 모든 소망에서 배제되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그것도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풀려나야 합니다. 의를 얻으려고 자기가 행위를 조금이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한도나 끝도 정할 수 없고, 자기를 율법 전체의 빚진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다룰 때에는 율법을 언급하지 말고 행위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제쳐 두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들어야 하며,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묻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가가 아니라, 불의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여겨지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이 일에 대해 어떤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율법에 아무 자리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신자들에게 쓸데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의 양심에 자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선으로 재촉하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아주 다른 만큼, 우리는 이것을 잘 그리고 부지런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일종의 경건의 연습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성화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엡 1). 율법의 직무는 그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일깨워 거룩함과 흠 없음을 향한 열심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으로 모실 수 있는지, 그분의 심판에 불려 나가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무슨 신뢰로 설 것인지를 두고 괴로워할 때에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따질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완전함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한 분을 의로 내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논증 전체가 거의 이 돌쩌귀 위에서 돌아갑니다. 바울이 거기서 의식의 자유만을 위해 싸운다고 가르치는 해석자들이 어리석다는 것은

논증의 구절들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CO 197 이를테면 이런 구절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 전체의 빚진 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쓸모없게 되셨도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너희는 누구든지 은혜에서 떨어졌도다” (갈 3; 5). 이 구절들에는 분명 의식의 자유보다 더 높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첫째에 달려 있는 것으로, 양심이 율법의 강제에 억지로 매여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 자체에서 자유로워져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동안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있으므로, 먼저 이런 자유를 선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결코 채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예를 들면 더 짧고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영혼에서 다른 모든 느낌과 생각을 비워야 하고, 마음에서 모든 욕망을 씻어 내야 하며, 힘을 이 한 가지에 모으고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에서 다른 이들보다 많이 나아간 이들도 이 목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의 순전한 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마음과 영혼의 많은 부분을 아직 육의 욕심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욕심에 뒤로 끌리고 붙들려 하나님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로 많은 애를 써서 힘쓰지만, 육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자기가 율법을 조금도 이루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여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원하고, 사모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마땅한 완전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바라보면, 자기가 시도하거나 계획하는 일이 무엇이든 저주받은 것임을 봅니다. 아무도 행위가 불완전하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전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선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결론 내려 스스로 속을 까닭이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므로 모든 불완전함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부분적으로 선하게 보이기를 바랐던 자기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율법을 어긴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 따져지면 이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입니다. 그렇다면 불쌍한 영혼들이 저주밖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일에 어떻게 기꺼이 나서겠습니까? 반대로 그들이 율법의 이 엄한 요구, 아니 율법의 모든 엄격함에서 풀려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다운 너그러움으로 자기들을 부르시는 것을 듣는다면, 기쁘게 큰 열심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것입니다. 요컨대 율법의 멍에에 매인 자들은 종과 같습니다. 종들에게는 주인이 날마다 정해진 일을 지시합니다. 종들은 정해진 일의 분량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감히 주인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더 너그럽고 더 자유인답게 대우받는 아들들은, 시작만 하고 반쯤 한 일, 심지어 흠이 좀 있는 일도 아버지에게 서슴지 않고 내놓습니다. 자기가 하려던 것을 덜 정확하게 이루었더라도 자기의 순종과 마음의 기꺼움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서툴고 불완전하더라도 지극히 너그러우신 아버지께 인정받으리라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 신뢰는 우리에게 결코 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헛되이 시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당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당신이 섬김받는다고 여기지 않으

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지 섬김을 받으시는지 의심하는 저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거룩한 조상들에게 있었다고 기록된 선행을 모두 믿음에 돌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평가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히 11). 이 자유에 관해서는 로마서에 뛰어난 구절이 있습니다(롬 6).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논증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죄가 그들의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며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자기들이 아직 정욕으로 가득한 육을 지니고 다니며 죄가 자기 안에 거한다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율법에서의 자유라는 위로를 덧붙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죄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의가 아직 자기 안에 온전히 살아 있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남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노여워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할 까닭이 없다. 그들은 은혜로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들의 행위가 율법의 잣대로 심사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끌어내는 자들은, 이 자유가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유의 목적은 우리를 선으로 북돋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 자체로 아디아포라(ἀδιάφορα), 곧 아무래도 좋은 바깥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종교적 의무(religio)에도 매이지 않고, 그것들을 때로는 쓰고 때로는 쓰지 않는 것이 상관없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아는 것도 우리에게 무척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양심에는 아무 안식도 없고, 미신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것, 축일과 옷을 자유롭게 쓰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시시한 이와 비슷한 하찮은 것들을 두고 논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는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보다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양심이 일단 스스로 올무에 빠지면, 길고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쉽게 나갈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홑이불, 속옷, 손수건, 냅킨에 아마포를 써도 되는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삼베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할 것이고, CO 199 마침내는 거친 삼 부스러기 천에 대해서도 의심에 빠질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리저리 따질 것입니다. "냅킨 없이 저녁을 먹을 수는 없을까? 손수건 없이 지낼 수는 없을까?"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이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마침내는 거친 빵과 흔한 음식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편히 먹지 못할 것입니다. 더 값싼 음식으로도 몸을 지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단 포도주를 두고 망설이면, 그다음에는 김빠진 포도주도 양심의 평안을 지닌 채 마시지 못할 것이고, 끝내는 다른 물보다 더 달고 깨끗한 물에도 감히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속담 말처럼 길에 가로놓인 지푸라기를 밟고 지나가는 것도 죄로 여기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은 가벼운 다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에 앞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져 혼란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던져, 트인 길이 없으니 무너뜨려서 길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심에 얽힌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서든 어디에서나 양심의 걸림이 눈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롬 14). "내가 아노니, 아무것도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무엇이든지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은 "속된"(commune)을 "부정한"(profanum)의 뜻으로 씁니다. 바울은 이 말로 모든 바깥 일을 우리의 자유 아래 둡니다. 다만 그

자유의 근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거리낌을 던져 넣으면, 본래 깨끗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럽혀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덧붙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런 곤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여 더 대담하게 구는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깊이 박힌 이들은, 그들 역시 양심이 거스르는데도 많은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두려움에 질려 무너집니다. 이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감사로써 모든 것이 우리가 쓰도록 거룩해진다고 증언합니다(딤전 4). 제가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그분의 너그러우심과 선하심을 알아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가 쓰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요컨대 우리는 이 자유가 어디를 향하는지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도대로,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의 동요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로 우리 영혼이 그분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너그러우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것이며, 그 모든 힘이 두려워하는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양심이 죄 사함을 두고 불안하고 괴로워하든지, 불완전하고 우리 육의 허물로 더럽혀진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근심하든지, 아무래도 좋은 일들을 쓰는 문제로 괴로워하든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심의 구실로 이 자유를 내세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제 정욕대로 남용하는 자들도, 사람 앞에서 쓰는 것이 아니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유를 쓸 때 약한 형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들도, 이 자유를 비뚤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류의 죄는 이 시대에 아주 크게 지어집니다. 재산이 넉넉해 호사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치고 잔치 차림과 몸치장과 집 짓기에서 사치스러운 화려함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온갖 호사로 동료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자기 광채에 스스로 놀랍도록 우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변호합니다. 그들은 이것들이 아무래도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을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쓴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탐욕스럽게 바랄 때, 교만하게 뽐낼 때, 사치스럽게 쏟아부을 때, 그것들은 이 악덕들로 더럽혀집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들 사이를 바울의 이 말씀이 가장 잘 구별해 줍니다(딛 1).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왜 부자들이, 자기 위로를 이미 받은 자들이, 배부른 자들이, 지금 웃는 자들이, 상아 침상에서 자는 자들이, 밭에 밭을 잇는 자들이, 잔치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갖춘 자들이 저주를 받습니까(눅 6; 암 6; 사 5)? 분명 상아도 금도 재물도 하나님의 좋은 피조물이며, 사람이 쓰도록 허락되었고, 아니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웃는 것이나, 배부른 것이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옛 재산에 새 재산을 더하는 것이나, 음악의 화음을 즐기는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어디에서도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넉넉할 때 쾌락에 뒹굴며 실컷 퍼먹고, 지성과 마음을 눈앞의 쾌락에 취하게 하고, 늘 새것을 탐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정당하게 쓰는 것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제 없는 욕심을 버리고, 지나친 낭비를 버리고,

허영과 오만을 버려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깨끗하게 써야 합니다.

마음이 이 절제에 맞추어 정돈되면, 그들은 정당한 사용의 규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절도가 없으면, 평민들의 흔한 즐거움도 지나친 것이 됩니다. "거친 베옷과 허름한 천 밑에 자줏빛 마음이 사는 일이 많고, 때로는 고운 베와 자주옷 아래 순박한 겸손이 숨어 있다"는 말은 참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처지에서 검소하게든, 알맞게든, 화려하게든 살되, 모두 자기가 사치하려고가 아니라 살려고 하나님께 먹여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빌 4)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면, 낮아질 줄도 알고 높아질 줄도 알며, 어디서나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며 넉넉하고 궁핍한 일에 익숙해졌다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법으로 여겨야 합니다.

CO 201 또 많은 이가 이 점에서 잘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들이 증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유가 온전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듯이, 그 자유를 분별없고 경솔하게 씁니다. 그들은 이렇게 때에 맞지 않게 자유를 써서 약한 형제들을 자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금요일에 고기를 먹어서 자유를 차지하지 않으면 자기 자유가 서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먹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생각은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자유로 얻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이며, 자유는 쓰는 데뿐 아니라 삼가는 데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기를 먹든 달걀을 먹든, 붉은 옷을 입든 검은 옷을 입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으로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이 자유의 은택을 입어야 했던 양심은 이미 풀려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부터 평생 고기를 삼가고 늘 한 가지 색 옷만 입더라도 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들은 자유로운 양심으로 삼가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들의 연약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주 해로운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감싸서,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데도 무엇이든 함부로 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당부하신 약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내던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여 절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걸림돌(scandala)에 관해 얼마간 말하겠습니다. 걸림돌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조심해야 하고 어떤 것은 무시해도 되는지를 말하여,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자유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걸림돌에는 준 걸림돌과 받은 걸림돌이 있다는 흔한 구분이 마음에 듭니다. 그 구분은 성경의 분명한 증거도 있고, 뜻하는 바를 서투르지 않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대가 때에 맞지 않는 경박함이나 방자함이나 경솔함으로, 질서도 없고 제자리도 아닌 곳에서 무엇을 하여 무지하고 약한 이들이 걸려 넘어지면, 그것은 그대가 준 걸림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걸림이 일어난 것이 그대의 잘못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어떤 일에서 그 잘못이 그 일을 한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걸림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받은 걸림돌은, 다른 점에서는 악하지도 때에 맞지 않지도 않게 한 일을 사람들이 악의나 어떤 비뚤어진 심술로 걸림의 기회로 낚아챌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걸림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 비뚤어진 해석자들이 까닭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종류의 걸림돌로는 약한 이들만 걸려 넘어지지만, 둘째 종류로는 모진 기질과 바리새인 같은 거만한 눈썹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를 약한 이들의 걸림돌, 다른 하나를 바리새인들의 걸림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를 쓰는 일을, 약한 형제들의 무지에는 양보해야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엄격함에는 결코 양보하지 않도록 조절하

겠습니다. 연약함에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지는 바울이 여러 곳에서 넉넉히 보여 줍니다(롬 14).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자.” 그러나 그보다도 “형제 앞에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이런 뜻의 말이 많은데, 여기서 다 늘어놓기보다 그 구절에서 찾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른 곳에서는(고전 8; 10) “그런즉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 하고, 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라” 고 하며, 끝으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고 합니다(갈 5).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는 약한 이웃을 거슬러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를 모든 일에서 그들의 종으로 세웁니다. 오히려 우리 자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하게 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걸림을 얼마나 여겨야 하는지는 주님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니 그냥 두라고 명하십니다(마 15). 제자들이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고 알려 드렸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걸림을 마음 쓰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약한 이로, 누구를 바리새인으로 여겨야 하는지 붙들지 않으면 문제는 아직 불확실하게 남습니다. 이 구별을 없애면, 걸림돌들 사이에서 자유를 쓸 여지가 전혀 남지 않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사용은 늘 가장 큰 위험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리로도 본보기로도, 우리 자유를 어디까지 절제해야 하는지, 또는 걸림을 피하려고 어디까지 내놓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정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동역자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할례를 주었지만, 디도에게 할례를 주도록 하는 데에는 끌려가지 않았습니다(행 16; 갈 2). 행동은 달랐으나 계획이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곧 디모데에게 할례를 줄 때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웠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으니 유대인들을 얻으려는 것이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으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으니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으니 약한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쓰는 대로입니다(고전 9).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어서 자유를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바르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 주기를 굳세게 거절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는 그 자신이 이렇게 쓰며 증언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갈 2).

CO 203 또 거짓 사도들의 부당한 요구로 약한 양심들의 자유가 위태로워지면, 우리에게는 자유를 지켜 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사랑에 힘쓰고 이웃의 덕 세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고전 10).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이 규칙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곧 우리 자유가 이웃의 덕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면 그것을 쓰고, 이웃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때는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삼가는 데서 바울의 지혜를 흉내 내지만, 그것을 사랑의 의무에 쓰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평안을 돌보려고 자유에 관한 모든 언급이 묻혀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웃의 선과 덕 세움을 위해 자유를 쓰는 것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제때에 자유를 절제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걸림을 피하는 일에 관해 제가 가르친 것은 모두 중간의 일들과 아무래도 좋은 일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아 두기 바랍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은 어떤 걸림이 두려워도 빠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사랑을 고려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단에 이르기까지만입니다. 곧 이웃의 환심을 사려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데까지만입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풀어 내기보다 모든 것을 깨뜨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무절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 가지 모양의 불경건에 앞장서면서도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꾸며 대는 자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마치 그사이에 자기들이 이웃의 양심을 악으로 세우고 있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고전 8). 특히 그들은 빠져나올 아무 소망도 없이 늘 같은 진창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냥한 사람들은 교리로든 삶의 본으로든 이웃을 가르쳐야 할 때 이웃을 젖으로 먹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나쁘고 치명적인 의견들을 이웃에게 물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젖으로 먹였다고 말합니다(고전 3). 그러나 그때 그들 사이에 미사가 있었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미사에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젖은 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첨의 탈을 쓰고 잔인하게 죽이는 이들을 자기들이 먹인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숨김을 한동안은

인정해야 한다고 해 둡시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같은 젖을 먹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아주 가벼운 음식조차 견딜 만큼 결코 자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젖으로 길러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신자들의 양심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이 자유의 특권을 받아, 그리스도의 은택으로 주께서 그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신 일들에서 어떤 규례의 올무에도 얽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양심들이 모든 사람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토록 큰 너그러움에 대한 감사를 그리스도께서 잃으시거나, 양심 자체가 그 열매를 잃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신 것으로 우리가 보는 그것을 하찮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금이나 은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값을 매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람들에게 넘겨 복종시킨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이 된다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실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몇 장에서, 우리 양심이 자기 자유에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려지거나 아니 꺼져 버린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사람의 마음대로 법과 규정의 사슬에 얽힐 수 있다면, 분명 그 자유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알 만한 가치가 아주 큰 만큼, 더 길고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규정을 폐지하는 일에 관해 한마디만 나와도, 일부는 선동하는 자들이, 일부는 헐뜯는 자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에 대한 모든 순종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뒤엎어지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돌에 부딪치지 않도록, 사람에게는 두 가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살펴봅시다. 하나는 영적인 다스림으로, 이것으로 양심이 경건과 하나님 경배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적인 다스림으로, 이것으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인간다움과 시민다움의 의무를 배웁니다. 이것들을 흔히 영적 재판권과 세속 재판권이라고 부르는

데, 적절하지 않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앞의 다스림은 영혼의 삶에 속하고, 뒤의 다스림은 현세의 삶에 속한 일들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먹이고 입히는 일을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하고 절도 있게 삶을 보내도록 법을 정하는 일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속마음에 자리를 두고, 뒤의 것은 바깥 행실만 정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영적 나라, 다른 하나를 국가적 나라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대로 이 둘은 따로따로 살펴보아야 하며, 하나를 다룰 때는 다른 하나에 대한 생각에서 마음을 떼어 돌려야 합니다. 사람 안에는 이를테면 두 세계가 있어서, 서로 다른 왕들과 서로 다른 법들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 말한 것은 모두 이 영적 나라에 속하므로, 이 논의에서 우리는 법이나 입법자들의 국가 질서와 아무 다툼도 없습니다. 우리의 다툼은 교회의 목자로 보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잔인한 백정인 자들이 스스로 차지한 권세를 상대로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법이 영적인 것이고 영혼에 속한다고 말하며, 그 법이 영원한 생명에 필요하다고 단언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침범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양심에 주신 자유가 송두리째 짓눌리고 흩어집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법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불경건하게 만드는지는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 법을 지키는 데서 죄 사함과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며, 경건(religion)과 경건(pietas)의 요체 전체를 그 안에 둡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주장합니다. 양심이 그리스도께 해방된 일들에서는 양심에 필요를 지워서는 안 되며, 앞에서 가르쳤듯이 양심은 해방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를 지키려면, 오직 한 분 왕, 곧 자기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의 자유의 법, 곧 복음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CO 205 양심은 어떤 종살이에도 붙잡히지 말고, 어떤 사슬

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솔론들은 자기들의 규정이 자유의 법이며 쉬운 멍에요 가벼운 짐이라고 꾸며 댑니다.[101] 그러나 그것이 순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던지고 자기들의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태평하게 힘껏 무시하는 그들 자신은, 자기들의 법의 무게를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구원을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이들은, 이 올무에 얽혀 있는 동안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기는커녕 거리가 멉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처신했는지 우리는 봅니다(고전 7). 그는 단 한 가지 일에서도 감히 올무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자유롭게 남겨 두신 일들에 대해 양심에 필요를 지우면 양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게 될지 분명히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자들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아주 무거운 위협으로 정해 두고, 구원에 필요한 것처럼 아주 엄하게 요구하는 규정들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많은 것은 지키기가 몹시 어렵고, 한데 모아 놓으면 모두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더미가 그토록 큽니다. 그러니 그토록 큰 어려움의 짐이 지워진 자들이 극심한 근심과 두려움에 얽혀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가르친 것에서 간단히 결론지어야 합니다. 곧 영혼을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묶고, 마치 구원에 필요한 일을 명하는 것처럼 양심에 종교적 의무를 지우려는 그런 규정에는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규정이라고 불리며 참되고 필요한 하나님 예배인 양 들이밀어지는 것들은 모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수없이 많은 만큼, 영혼을 낚아 얽어매는 사슬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세는 전혀 없습니까? 이 생각이 많은 순박한 이들을 근심하게 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증언하듯이 그것은

101. 솔론(Solon, 기원전 640경–560경)은 아테네의 법을 세운 입법자입니다. 여기서는 법을 만들어 내는 교황주의자들을 비꼬아 부르는 말입니다.

무너뜨리라고가 아니라 세우라고 주어진 권세입니다(고후 10; 13). 그 권세를 정당하게 쓰는 이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르게 정의한 것입니다(고전 4).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당신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을 때, 이 경계로 그 권세를 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마 28).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맡았고 지금도 맡고 있는 이들이 이 명령의 법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참된 목자들에게는 그들의 위엄이 훌륭하게 지켜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폭군보다 더한 불의로 괴롭히는 자들이 권세를 거짓으로 자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지나가며 일러 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선지자들에게든 제사장들에게든 사도들에게든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든 돌리는 권위와 위엄은 무엇이든, 그 전부가 사람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들이 맡은 사역에, 아니 더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부터 사도와 제자까지 차례대로 모두 살펴보아도,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가 아니면 명령하거나 가르치거나 대답하는 어떤 권세라도 받은 사람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선지자 가운데 첫째인 모세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 말고 무엇을 명하거나 도대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옛날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우셔서 뽑고 뽑아내며 파괴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습니다(렘 1). 그러나 거기에 곧바로 이유가 덧붙습니다. 주께서 이미 당신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을 앞서 불러 주시지 않았는데 입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주의 말씀”, “주의 경

고", "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께서 보이신 이상",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그토록 자주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부르짖었고(사 6),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렘 1). 만일 그들이 자기 말을 했다면, 저 사람의 부정한 입이나 이 사람의 어리석은 입에서 부정하거나 어리석은 것 말고 무엇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입술은 거룩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직무가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에스겔서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전하라"(겔 3). 주님의 입에서 들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든 스스로 지어내는 것을 금지당한 것이 아닙니까? 주께로부터 전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져온 것이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 확신 있게 자랑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도 다른 말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렘 23).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참된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밀과 같겠느냐. 주의 말이니라." 주께서는 제사장들에 관해서도 그들의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신 17; 말 2). 그러나 동시에 이유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도 살펴봅시다. 그들은 실로 많은 뛰어난 찬사로 꾸며집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이라는 것, 그리스도 대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들이 땅에서 매거나 푸는 것은 무엇이든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는 것입니다(마 5; 눅 10; 요 20).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직무에서 자기에게 얼마만큼 허락되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도는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지껄이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분의 명령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요 20).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께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는지는 다른 말씀에서 증언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요 7).

CO 207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게도 지우신 이 법을 사도들과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처지는 아주 다릅니다. 그분은 늘 아버지 품에 계셨던 아버지의 영원하고 유일한 모사로서, 아버지께 받으시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당신 안에 감추어 두시는 방식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골 2). 모든 선지자는 일찍이 내놓은 하늘의 신탁을 무엇이든 이 샘에서 길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을 아는 지식을 베풀어 주신 다른 모든 이들도 그들이 배운 하늘의 교리를 무엇이든 같은 샘에서 길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요 1), 곧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이 늘 참되었다면(실로 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또 다른 말씀(마 11), 곧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말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참되었다면, 아버지의 비밀이 오직 그에게만 열려 있는 아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으로 깨닫거나 말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거룩한 사람들은 아들 안에서 거울을 보듯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선지자들도 같은 아들의 영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해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누가 이렇게 말하기를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곧 당신의 유일한 지혜와 빛과 진리를 통해서가 아니면 결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전에도 여러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냈지만, 그때에도 아직 온전히 빛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육체로 나타났을 때, 사람의 지성이 하나님에 관해 깨달을 수 있는

것과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가(히 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썼을 때, 분명 무슨 흔한 것을 전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전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거듭 말씀하시거나 예언에 예언을, 계시에 계시를 더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안에서 가르치는 일의 모든 부분을 다 이루셔서, 이것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을 마지막이요 영원한 증거로 삼게 하셨다는 것을 뜻하며, 아니 드러내 놓고 밝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 전파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신 때부터 심판 날까지 이 신약의 시대 전체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나가며 일러 두었듯이 "마지막 때", "말세",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완전함에 만족하여, 그 뒤로는 새 교리를 스스로 지어내지도 말고 남이 지어낸 것을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마 17).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특별한 특권으로 그를 우리의 선생으로 세우시고, 사람 가운데 누구도 아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신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실로 몇 마디 말로 그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 고 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게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의 교리에서 떼어 내어 이 한 분 앞에 세우시고, 구원의 모든 교리를 그에게서만 구하고, 그 한 분께 의지하며, 마침내 그 한 분께 붙어 있으라고, 말 그대로 하면 그 한 분의 말만 들으라고 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생명의 말씀 자체가 우리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셨는데, 이제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거나 구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다는 소망이라도 있다면 모르지

만 말입니다. 아니, 하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기를 원하신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신 뒤로는, 모든 사람의 입이 닫혀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느 부분에서도 갈라진 틈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것의 계시를 기다리던 메시아에게 걸맞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당신 뒤에 다른 이들이 말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요 4). 제가 말하거니와, 모든 사람은 잠잠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말씀하셔야 하며, 다른 모든 이를 버려두고 업신여기고 오직 그분 한 분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권세 있는 자처럼 가르치시는 것이 그분의 고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마 7). 그리고 그분 자신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곧 그리스도니라" (마 23).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더 깊이 자리 잡도록 같은 곳에서 두 번 되풀이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남겨졌고 지금도 그 후계자들에게 남아 있는 일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사신 직무를 정하신 그 법을 부지런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되, 그들이 제멋대로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마 28). 사도 베드로는 스승에게서 자기에게 얼마만큼 허락되었는지를 아주 잘 배웠으므로,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다른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벧전 4).[102] 이것은 사람의 지성이 지어낸 모든 것을, 그것이 어떤 머리에서 나왔든 물리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것, 그리고 어떤 품급에 속하든 모든 사람의 결정을 없애서 오직 하나님의 작정만 세우라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저 영적 무기들입니다(고후 10). 이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들이 이것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계략과 하나님을

102. 원문에는 "(1 Petr.." 로 장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아는 지식을 거슬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모든 불순종을 벌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보십시오, 교회의 목자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갖추어야 할 권세가 이렇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정의되었습니다. 곧 그들은 자기들이 그 일꾼과 청지기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확신 있게 감행하고, 세상의 모든 힘과 영광과 높음을 그 말씀의 위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며, 그 말씀으로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모든 이에게 명령하고,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고, 사탄의 나라를 뒤엎고, 양을 먹이고, 이리를 죽이고, 가르침을 잘 받는 이들을 권하고 가르치며, 거역하고 완고한 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논박하며, 풀고 매고, 끝으로 번개를 치고 벼락을 내리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103]

103. 이 문장의 뒷부분(“atque obedire cogant … sed omnia in verbo Dei”)은 다음 편 원문 첫머리(CO 1:209)에 있으며, 문장을 끝맺으려고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6년판 제6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 통치에 관하여 2

CO 1:209–22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209 [104]그런데 이 권세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자기를 내세워 팔아 온 저 영적 폭군들, 곧 감독이요 영혼을 다스리는 자인 척하는 자들의 권세와 견주어 보면, 둘 사이의 일치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일치보다 조금도 낫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서고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정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 마음에 굳고 확정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무엇을 옳다고 하면 우리도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옳다고 해야 하고, 그들이 무엇을 정죄하면 그것도 정죄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저 공리들이 나온 것이 여기서입니다. 믿음의 조항을 만드는 일은 교회에 속한다, 교회의 권위는 거룩한 성경의 권위와 같다, 그들의 모든 교리에, 긍정하는 것이든 부정하는 것이든, 암묵적 믿음으로든 명시적 믿음으로든 확실하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것들과, 같은 꼴의 다른 몇 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양심도 자기들의 명령 아래 굴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법을 만들든지 우리에게는 순종할 의무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교리들을 두들겨 만들어 내고는 그 뒤에 그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요구하며, 법을 써 내고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새 교리를 주장하고 믿음의 조항을

104.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만드는 이 방자함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들 자신에게서도 거두어졌음을 보였거니와, 그들이 정당하게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수긍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주님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고후 1). 그가 이런 가르치는 자유를 인정했더라면, 그들의 교회에 이런 규율을 결코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 예언하는 자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는 것이고,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이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고전 14). 이렇게 그는 아무도 봐주지 않고, 누구의 권위든 하나님 말씀의 심사 아래 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사람의 모든 전통과 지어낸 것에서 해방합니다. 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롬 10). 곧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기대어 쉰다면, 이제 사람의 말에 무슨 자리가 남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권세에 관해 말하자면, 이것도 사도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서 그토록 여러 번 거두어진 것이니,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사도들의 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분명한 금령을 거슬러 감히 그것을 자기에게 끌어올 수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쓴 말은 모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그러나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곧 구원하실 수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약 4). 같은 말이 이사야에게서도, 조금 더 희미하기는 하지만, 이미 말해졌습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시요, 주는 우리의 입법자이시요, 주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 33). 우리는 야고보에게서, 영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가 생명과 죽음의 결정자라고 선언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아무도 이것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없으니, 그러므

로 하나님을 영혼들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하고 멸하는 권세는 오직 그분께만 있습니다. 또는 이사야의 저 말씀이 울리는 대로, 그분은 왕이시요 재판관이시요 입법자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목사들에게 그 직분을 일깨울 때, 양 떼를 먹이되 맡겨진 자들(cleros) 위에 주인 노릇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업, 곧 신자들의 백성을 가리킵니다(벧전 5).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권세는 무엇이든 이렇게 잘려 나가고, 아니 뿌리째 뽑혀 버렸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교리와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리를 높일 것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나는 듣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은 자기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지어낸 것을 지껄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받은 것을, 이를테면 손에서 손으로 넘기듯이,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들이 다스리도록 맡겨진 그리스도인 백성에게 전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것을 굳히려고 이유들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이 당신의 교회에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빛나는 칭호를 받은 찬사들이 있으니, 곧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주름 잡힌 것도 티도 없다는 것(엡 5)과, 같은 뜻으로 성경에서 끌어올 수 있는 다른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교회의 권위를 의심한다면, 그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게도 불경하고 모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심할 것 없이 그 영의 인도로 다스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신 것(마 18)도 이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교회는 구원에 필요한 일들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이것이 모든 사람 사이에 변함없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교회에 관해 말하는 것은 모두 자기들에게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전체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그들이 서 있든지 해야 하는데, 교회는 그들의 어깨에 떠받쳐져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것과 같은 진리의 확실성을, 교회를 참으로 대표하는 교회의 공의회들도 가지고 있으며, 공의회들은 오류를 범할 수 없도록 성령께 직접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어 내고 나면 동시에 그들의 전통이 성령의 계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전통은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서는 멸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큰 권위자들 없이 무슨 일을 꾀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의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도들에게서 흘러나왔다고 믿어 주기를 바랍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그들의 예식 규율 거의 전부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에게 많은 것이 계시되었는데 그것이 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내세웁니다. CO 211 주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요 16). 그리고 사도들이 나머지 일들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한 가지 예로 넉넉히 보여 줄 수 있다고 우깁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행 15) 공의회의 결정으로 모든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공포했을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고 그야말로 장난 같은지, 나와 함께 하나하나 차례로 살펴보려는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꿰뚫어 보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쳐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여기에 진지하게 마음을 기울이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이치는 버려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길로든 자기들의 일을 주장하는 것 하나만을 목표로 삼으니, 나는 그들과 상대할 일이 없

다고 여기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우리가 가르치기로 맡은 선한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일깨워야 합니다. 저 폰투스 사람들보다 더한[105] 자들, 교회의 철천지원수들이 그것을 내세워 교만하게 구는 거짓된 교회의 구실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눈멂과 불경건과 우상 숭배를 책망받았을 때 내세운 것과 다르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성전과 예식과 제사장 직분을 영광스럽게 자랑하며 (자기들 보기에는) 큰 논거로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재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교회 대신 어떤 바깥 탈들이 맞세워집니다. 그것들은 흔히 교회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들 없이도 교회는 얼마든지 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반박할 논거는,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의 저 어리석은 자신감에 맞서 다툴 때 쓴 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곧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들려지고 경건하게 지켜지는 곳이 아니면 어디서도 아무것도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렘 7).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찍으신 변함없는 표지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십니다(요 10; 18). 그런데 그분은 조금 앞에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지만 낯선 자는 따르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서 달아난다,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조금도 의심스럽지 않은 표지로 교회를 가리켜

105. 원문은 OCR로 "Bontici" 입니다. 흑해 연안 폰투스의 야만인을 빗대는 "Pontici" 로 읽었습니다. [원문의심]

보이셨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판정하는 일에서 제멋대로 미친 짓을 합니까? 이 표지가 보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것은 거기에 교회가 있음을 틀림없이 보여 주고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지가 없는 곳에는 교회를 참으로 알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과 바벨론,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탄의 무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둘을 서로 구별하신 이 구별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요 8). 요컨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분의 홀, 곧 지극히 거룩한 말씀 없이 있다고 꾸며 대는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 누가 모르겠습니까? 모든 탈과 꾸밈을 벗겨 내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교회를 당신의 것으로 가지기를 바라시는지를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참으로 바라보아 우리 자신을 그분의 규범에 맞추어 빚고 다듬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넘어 새 법을 만들고 경건(religion)의 새로운 모양을 생각해 내며 방자하게 날뛰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에게 한 번 주어진 저 법은 영원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을 너는 지켜 행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며 빼지도 말라" (신 12). 또 다른 곳에서는 "주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거기서 덜지도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네가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날까 두렵다" (잠 30)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임을 부인할 수 없으니, 이런 금령들이 있은 뒤에도 교회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것을 더하고 섞기를 감행했다고 떠벌리는 자들은, 교회의 반역을 선전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교회에 이처럼 큰 모욕을 퍼붓는 그 거짓말들에 우리가 동의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의 무모한 방종이 문제 될 때마다 교회의 이름이 거짓으로

내세워지고 있음을 깨달읍시다. 그 방종은 하나님 말씀의 규정 안에 머물지 못하고 뻔뻔하게 날뛰며 자기가 지어낸 것들로 뛰쳐나갑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과 경건이 문제 될 때,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하는 저 말씀들에는 감추어진 것도, 모호한 것도, 애매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지어낸 것들로 당신을 섬기는 것만큼 당신을 크게 노엽게 하는 것은 없다고 오래전에 선언하셨으니, 주님께서 당신 자신과 달라지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서 저 빛나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귀에 끊임없이 울렸어야 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에 번제와 희생 제사에 관해 그들에게 말하지도 명하지도 않았다. 오직 이 말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모든 길로 걸을 것이다 하였다" (렘 7).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간절히 경계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을 들으라 하였다" (렘 11). 같은 종류의 말씀이 그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보다 첫째로 두드러진 것은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원하시겠느냐? 오히려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느냐? 순종이 제물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따르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과 같다" (삼상 15).

CO 213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사람이 지어낸 것 가운데 교회의 권위로 변호되는 것은 무엇이든 불경건의 죄를 벗을 수 없으니, 그것을 교회에 돌리는 것이 거짓임을 밝히기는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아래 거만하게 우리에게 떠넘겨지는 저 사람의 전통의 폭정을 거리낌 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미움을 씌우려고 부당하게 거짓말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가 그보다 더 큰 것을 알지 못하는 순종의 칭찬을 교회에 돌립니다. 도리어 교회에

크게 해를 끼치는 자들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된 것보다 더 나아갔다고 꾸며 대면서, 교회를 자기 주님을 거역하는 자로 만듭니다. 교회의 권세에 관해서는 줄곧 떠들어 대면서, 그동안 주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명하셨고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어떤 순종을 바쳐야 하는지는 숨기는 것이 그만한 악의와 짝을 이룬 대단한 뻔뻔함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우리가 교회와 한 마음이 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온 교회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하여 한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요긴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교회와 가장 잘 한마음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지극히 풍성한 약속들이 있어서, 교회는 결코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버림받지 않고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아 모든 진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이 늘 끌어대는 약속들은 어떤 것이든 신자들의 온 백성에게 못지않게 신자 하나하나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마 28)[106] 하고 말씀하셨을 때,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므로 받을 수 없으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 14)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열두 사도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이것을 열둘이라는 숫자에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하나하나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곧 이미 받아들이셨거나 나중에 당신의 나라로 받아들이실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탁월한 위로로 가득한 이런 약속들을, 마치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오직 온 교회에게 한꺼번에 주어진

106. 원문에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처럼 풀이한다면, 그것은 거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위로를 그들에게서 빼앗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다음 일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 자비와 선하심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히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당신을 쏟아부으신다는 것(다른 이들의 교사로 세워진 자들이 더 큰 은사를 지니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이고 갖가지이듯이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고전 12), 끝으로 경건한 자들의 공동체 자체가 이처럼 여러 가지 은사를 갖추고 있어서, 따로 떨어진 개인들보다 하늘 지혜의 훨씬 더 풍성하고 넓은 보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의 이 말씀들을 말씀하신 뜻과 다른 뜻으로 비뚤게 비트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영은 오류와 무지와 거짓과 어둠의 영이 아니라, 계시와 진리와 지혜와 빛의 영이십니다. 그들은 이 영에게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들을 속임없이 배웁니다. 곧 그들이 받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모든 이를 향한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고전 2; 엡 1).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은사들을 이렇게 나누어 두셔서, 교회를 세우는 데 특별한 은사로 뛰어난 이들이 늘 있게 하셨습니다(엡 4). 그분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를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역은 서로 다르지만 한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육신 안에서 그분의 영의 첫 열매와 어떤 맛보기만을 받을 뿐이니, 다른 이들보다 저 더 뛰어난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도 자기

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경계 안에 조심스럽게 머무는 것 말고는 남은 길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더 멀리 헤매다가 곧장 바른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비켜 가면 많은 일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곧 그들에게 그 영이 아직 없는 그만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그 영이 가르치실 때에만 꿰뚫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당신 앞에 세우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고 씁니다(엡 5).[107]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엇을 이루셨는지보다 날마다 당신의 사람들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분이 그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씻으시고, 닦으시고, 티를 지우신다면, 그들에게 아직 어떤 얼룩과 주름이 묻어 있고 그들의 성화에 무엇인가 모자란 것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지체가 모두 얼룩지고 얼마간 더러운 교회를 벌써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얼마나 헛되고 꾸며 낸 이야기 같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곧 죄 사함으로 씻으셨고 세례가 그 씻음의 표징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당신을 위해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은 참입니다. 그러나 그 성화는 여기서는 그 시작만 보일 뿐이고, 그 끝과 온전한 완성은 거룩한 자들 가운데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교회를 참으로, 온전히 채우실 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교회는 이 약속들이 이처럼 크고 넓은 것을 신뢰하여, 자기 믿음을 훌륭하게 떠받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늘 자기에게 바른길의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인도자로 계시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헛된 것에 기대고 있

107. 원문에는 “에베소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은 엡 5:26–27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지 않습니다. CO 215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헛되이 달래다가 주신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는 자기의 무지와 미숙함을 이처럼 깊이 알고 깨달아 배웠으니, 정결한 신부와 정신 차린 제자에게 어울리게, 그 선생이요 신랑이신 분의 입에 끊임없이, 부지런히 매달립니다. 교회는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생각해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말씀을 그치신 곳에 자기 지혜의 경계를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자기 이성이 찾아낸 모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일들에서는 어떤 불신이나 망설임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큰 확신과 꿋꿋함으로 굳게 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특별한 찬사로 교회의 권위를 우리에게 당부하시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 예사롭지 않은 약속도 덧붙이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마 18). 그러나 이 건달들이 얼굴에 부끄러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서, 감히 여기서 기세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결국 그들이 얻어 낼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가 아니면 결코 동의하지 않는 교회의 합의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부인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이 그들의 요구를 조금도 편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주어졌고 그런 모임이 교회라고 불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면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신 12; 잠 30)을 내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끌어내는 결론, 곧 교회가

구원에 필요한 일들에서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에는 우리도 조금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그 뜻에서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자기의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논하는 것은 이것을 노립니다. 곧 교회는 주님의 영으로 다스려지므로 어디로 나아가든 말씀 없이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참된 것이 아니면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아직 그리 나아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목사들 사이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교회에 남아 있지 않고, 교회 자체도 총회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에 관해 참된 증언을 우리에게 남겼다면, 이것이 언제나 참이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다 눈이 멀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다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고, 누워서 잠자며 졸기를 좋아한다. 목자들 자신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모두 제 길로만 돌아본다” (사 56). 예레미야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누구나 거짓을 행한다” (렘 6) 하고, 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다” (렘 14) 합니다. 에스겔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하는 것이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움키는 것 같다. 그들은 영혼을 삼켰고 귀한 것을 빼앗았으며 그 가운데 과부를 많게 하였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해 회칠을 하되 맛없는 회반죽으로 하고, 헛된 것을 보며 거짓 점을 치면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한다” (겔 22). 또 스바냐도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거짓된 자들이며, 그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습 3). 그뿐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 목사들에게서 닥치리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얼마나 여러 번 미리 말했습니까(마 24; 행 20; 살후 2; 딤전 4; 딤후 3, 4; 벧후 2)? 그리고 하나하나 늘어놓느라 종이를 많이 채우지 않으려고 말하자면, 그 시대들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의 본보기들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진리가 늘 목사들의 품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안전이 그들의 형편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도록 세움받은 교회의 평화와 구원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과, 해내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든지 우리의 이 말을, 마치 내가 목사들의 권위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아무 분별 없이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는 그들 사이에서도 분별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목사라고 불리는 자들을 곧바로 목사라고 여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직무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으로, 그들의 모든 지혜는 그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의 모든 말솜씨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로 경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들이 선지자이든 감독이든 교사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무엇이든, 생각은 어리석고 둔하며, 혀는 더듬거리고, 모든 면에서 신실하지 않으며 직분을 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한두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족속 전체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인다면, 어리석게 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오직 자기들이 목사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떨쳐 내던지고 방탕한 방종에 자기를 내맡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목사가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에게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수 1).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은 진리의 빛을 잃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늘 자기들 안에 머무시며, 교회는 자기들 안에 있고 자기들과 함께 죽는다고 믿게 하려고 애씁니다. 마치 이제는 주님의 심판이 하나도 없어서,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일들이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은 이러합니다. "제사장들이 놀라고 선지자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렘 4).[108] CO 217 또 "율법이 제사장에게서 없어지고 모략이 장로들에게서 없어질 것이다" (겔 7). 마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예언이 거짓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 예언은 이러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마 24). 또 "내가 아노니,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 너희 가운데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행 20).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일 것이다" 하는 말씀과 그 밖의 것(벧후 2)[109]과, 그런 종류의 아주 많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가 옛날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던 자들이 부르던 노래와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도 지금 이들이 기대는 것과 같은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렘 18).

그러므로 그들이 감독들의 공의회를 천 번 들먹인다 해도 별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을 믿게 하기 전에는, 공의회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믿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경건하고 악한 감독들도 선하고 정직한 감독들이

108. 원문은 OCR로 "Leri 4" 입니다. "Ier. 4" (렘 4:9)로 읽었습니다.
109. 원문에는 "베드로전서 2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은 벧후 2:1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공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의회들에서 나온 수많은 결정이 이 일의 뚜렷한 실례가 됩니다. (이 작은 책에서는 그래야 하듯이) 내가 간략함에 힘쓰지 않는다면, 분명한 논거로 그 결정들의 죄악된 불경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내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목만 보고 나머지가 어떠할지 가늠해도 된다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을 명하고 음식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귀신들의 위선이요 거짓이라고 단언합니다 (딤전 4). 그들이 자기를 씻고 죄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이것을 마니교도와 타티아누스파[110]에게 돌리며, 저들은 혼인과 고기를 아예 정죄했지만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혼인을 금하고 어떤 날들에만 고기를 금할 뿐이라고 말해 보아야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혼인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음식을 멀리하라고 명한다는 것에서 자기들의 결정을 변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신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탄의 신탁들이 공의회의 손을 거쳐 나왔으니, 나머지 일들에서 사탄의 도구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는 이제 각자 스스로 헤아려 보십시오. 더 나아가 공의회와 공의회가 서로 싸우고, 한 공의회에서 정한 것이 다른 공의회에서 폐지되었다는 것을 내가 왜 낱낱이 늘어놓겠습니까? 그들은 도덕을 정하는 일에서는 흔히 이런 차이가 생기는 법이고,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것을 막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의회들은 교리에서도 때로 서로 맞서 갈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레오 황제가 소집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와, 그 뒤에 그를 미워하여 이레네가 모은 니케아 공의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형상들을 뒤엎고 부수어야 한다고 결정했고, 다른 하나는 형상들을 되세워야 한다고

110. 타티아누스파는 2세기 시리아 사람 타티아누스를 따라 혼인과 고기 먹는 것을 금한 금욕파입니다.

결정했습니다.[111]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대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사이에는 대체로 화합이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서, 성령께서 자기들의 공의회에 못 박히고 매여 계시다고 늘 하던 대로 자랑하라고 하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모든 공의회를 정죄하고, 모든 공의회의 결의를 폐기하며, 속담대로 한 번 그어 모두 지워 버려야 한다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의회들, 특히 저 옛 공의회들에서는 경건에 대한 참된 열심이 빛나고, 그 밖에 재능과 학식과 지혜의 뚜렷한 자취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대에도 공의회들에 더 나은 감독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뒤의 공의회들에서는, 옛날 로마의 원로원 의결에서 원로원 의원들 자신이 옳지 않게 이루어진다고 불평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견들을 무게로 달지 않고 머릿수로 세는 동안에는, 더 나은 편이 더 많은 편에게 지는 일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 옛날의 더 순수한 공의회들에도 아쉬운 데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면에서는 학식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눈앞의 일에 매여 다른 많은 일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든지, 더 무겁고 진지한 일에 몰두하다 보니 덜 중요한 몇 가지를 놓쳤기 때문이든지, 단순히 서툴러서 속을 수 있었기 때문이든지, 지나친 감정에 휩쓸려 때로 앞뒤 없이 내달렸기 때문이든지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혹해 보이는데, 그 뚜렷한 예가 니케아 회의에 있습니다. 이 회의의 위엄은 모든 사람의 동의로 지극한 존경을 받아 왔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믿음의 으뜸 되는 조항이 위태로웠고, 맞붙어 싸워야 할 원수 아리우스가 싸울 채비를 하고 와 있었으며, 아리우스의 오류를 치려고 준비하고 온 자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토록 큰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111. 754년 콘스탄티노폴리스(히에리아) 회의는 성상 파괴를 결정했고, 787년 이레네 황후가 소집한 제2차 니케아 공의회는 성상 공경을 회복했습니다. 성상 파괴 정책은 레오 3세가 시작했고, 754년 회의는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가 열었습니다.

무게와 겸손과 모든 인간다움을 잊은 듯이, 손에 쥔 싸움은 내버려 두고, 마치 아리우스를 기쁘게 해 주려고 일부러 그리로 모이기라도 한 것처럼 안에서 다투며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아리우스를 향해 뽑아야 할 펜을 자기들끼리 겨누었습니다. 추한 비방이 들리고 고발장이 날아다녔으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서로 상처를 입혀 찔러 쓰러뜨릴 때까지 다툼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제는 그들의 삶을 조사하는 일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선다고 밝히고, 그런 무절제를 꾸짖음보다는 칭찬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다른 공의회들도 이와 비슷하게 얼마나 많은 면에서 넘어졌을지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적들도 공의회가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 일들에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데, 내가 이런 오류들을 보여 주느라 애를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수고도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억지로나마 말로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공의회의 모든 결정을 무슨 일에서든 아무 구별 없이 성령의 신탁인 양 우리에게 떠안기니, 처음에 내세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CO 219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의회는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거나, 오류를 범하더라도 참된 것을 가려보고 그 오류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공의회, 목사, 감독, 교회라는 이름들은 참되게 쓰일 수도 있지만 거짓되게 내세워질 수도 있으니, 이 이름들이 우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르침들로 일깨움을 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모든 영을 하나님 말씀의 규범에 비추어 따져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까지 교회를 짓눌러 온 전통들의 기원을 사도들에게 돌리는 것은 순전한 사기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전체가 힘쓰는 것은, 양심이 새 의식들로 짐 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지어낸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옛 기록들에 조

금이라도 믿을 만한 데가 있다면, 그들이 사도들에게 돌리는 것은 사도들이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들어 보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정 가운데 많은 것이 관습과 풍습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글로 전해지지는 않았고, 그것은 곧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아직 살아 계실 때에는 깨달을 수 없었으나 그분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계시로 배운 것들이라고 지껄이지 말게 하십시오. 아, 뻔뻔하기도 하지! 제자들이 주님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직 서툴고 배우기 더딘 자들이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가르침을 글로 남겼을 때에도 그들이 그런 더딤에 여전히 붙잡혀 있어서, 무지 탓에 글에서 빠뜨린 것을 나중에 살아 있는 음성으로 채워야 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이미 진리의 영의 인도로 모든 진리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글을 펴냈다면, 무엇이 그들을 막아서 복음의 가르침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자기들의 글에 담아 봉인해 남기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스스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사도들이 알지 못했다는[112] 저 엄청난 비밀들이,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것이든 이방인의 것이든 의식들이라고 꾸며 대는데, 앞의 것은 유대인 사이에, 뒤의 것은 모든 이방 민족 사이에 오래전부터 널리 퍼져 있던 것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몸짓과 늙은 여인네 같은 자잘한 예식들이라고 꾸며 대는데, 그것은 헤엄칠 줄도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맹추 같은 사제 나부랭이들이 아주 격식 있게 해내는 것들이고, 아니 아이들과 어릿광대들이 어찌나 그럴듯하게 흉내 내는지, 이런 거룩한 예식을 맡을 자로 그들보다 더 알맞은 자는 없다고 보일 만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폭정을 변호하려고 사도들의 본을 내세우는 것도 별로 더 솜씨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명령 밖에서 결정을 내려, 모든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명했다(행 15). 그들에게 그것이

112. 원문은 OCR이 깨져 “C>mpert» fu/riBt”로 되어 있습니다. “incomperta fuerint”(알려지지 않았던)로 읽었습니다. [원문의심]

허락되었다면, 일이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그 후계자들도 같은 일을 본받는 것이 왜 허락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들이 다른 모든 일에서도 늘 그렇게 하고, 특히 이 일에서 사도들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도들이 거기서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세우거나 결정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힘 있는 논거로 쉽게 굳힐 수 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지우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니, 그가 나중에 어떤 멍에를 지우는 데 동의한다면 자기 자신의 의견을 뒤엎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자기들의 권위로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금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멍에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들이 그럼에도 금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심이 아직 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결정 자체의 뜻을 더 가까이 살펴본다면 그 의심은 쉽게 풀릴 것입니다. 그 결정의 첫째 조항은 차례로나 무게로나 으뜸 되는 것인데, 곧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남겨 두어야 하고, 그들을 어지럽히거나 율법의 의식들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결정이 우리 편을 훌륭하게 들어 줍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따라오는 예외는 사도들이 만든 새 법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저 자유에서 한 점도 덜어 내지 않고, 다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형제들에게 자기를 맞추어 자기 자유를 남용해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을지를 일깨울 뿐입니다. 그러니 둘째 조항은 이것이라 합시다. 이방인들은 해 없는 자유를,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무엇인가 정해진 것을 규정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유익한 만큼, 어떤 일들로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짚어 주어 그것을 조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자기들 것으로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보태지 않습니다. 마치 아직 잘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을 맡은 신실한 목사들이 지금 자기의 모든 교인에게, 함께 사는 연약한 이들이 자랄 때까지는 금요일에 드러내 놓고 고기를 먹지 말고, 축일에 공공연히 일하지 말며,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일을 하지 말라고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미신을 걷어 내면 그 자체로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더해지면 죄 없이 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해서, 신자들은 연약한 형제들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 주면 그들의 양심에 아주 깊은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분명하게 금하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막고 있을 뿐인 것이 분명한 이들을 두고, 그들이 이렇게 새 법을 만든다고 말할 사람은 중상하는 자 말고 누구이겠습니까? 사도들에 관해서도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리를 없앰으로써,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힘주어 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해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너희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으면 연약한 형제들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공포한다.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지 말라.” 사도들이 바로 이것을 노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증인입니다. 그는 분명히 공의회의 결정을 따라 이렇게 씁니다(고전 8).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양심이 있어서 그것을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먹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진다.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을 잘 헤아려 본 사람은, 사도들이 자기들의 결정으로 교회의 자유를 깨뜨리기 시작한 것처럼 자기들의 폭정에 사도들을 핑계로 내세우는 자들이 꾸미는 그런 속임수에 앞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CO 221 여기에 끌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말하지는 않았고, 말한 것도 아주 짧게 훑었을 뿐이지만, 나는 싸움이 이미 이겨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황이 자기 온 왕국과 함께 뽐내는[113] 영적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경건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불의한 폭정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영적 권세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다음을 아울러 말합니다. 새 교리들을 퍼뜨리는 데 그들이 휘두른 대담함, 그것으로 그들은 가련한 백성을 하나님 말씀의 참되고 단순한 순수함에서 아주 돌려세웠습니다. 새 법들을 만드는 방자함, 그것으로 그들은 불쌍한 양심들을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끝으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교회 재판권 전체, 그것을 그들은 보좌 감독들과 교구 재판관들(officiales)을 통해 행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도록 허락한다면, 이런 지배는 모두 쉽게 뒤엎어지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지와 넓은 영지로 이루어진 다른 종류의 지배는 양심에 행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다룰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도 그들이 늘 자기 자신과 똑같다는 것, 곧 그들이 그렇게 불리기를 바라는 교회의 목사와는 무엇보다 거리가 멀다는 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나는 사람들 개개인의 악덕이 아니라, 그 신분 전체에 공통된 죄악, 아니 그 신분 자체의 역병을 책망합니다. 그 신분은 부와 거만한 칭호로 눈에 띄지 않으면 불구가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심리와 도시와 지방의 행정에 휘말려 들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들을 아주 넓게 끌어안는 것이 감독들의 일이었습니까? 그들의 직분에는 일과 수고가 너무 많아서, 그 일에 온전히 끊임없이 매달리고 다른 어떤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말입니다. 거느린 호위병의 수와 집의 화려함과 옷과 잔치의 사치로 군주들의 호사를 겨루는 것이 그들에게 어울렸습니까? 그들의 삶은 검소와 절제와 금욕과 겸손의 특별한 본이 되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113. 원문은 OCR로 “giqmbit” 입니다. “superbit” (뽐낸다)로 읽었습니다. [원문의심]

영원하고 범할 수 없는 칙령(딤전 3)은 그들에게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가 되는 것을 금하고, 소박한 음식에 만족하라고 명합니다. 그런 그들이 마을과 성채에 손을 뻗을 뿐 아니라, 아주 넓은 태수령까지 덮쳐 차지하고, 마침내 나라들 자체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직분과 얼마나 동떨어진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감히 핑계를 대고, 교회의 위엄은 이런 화려함으로 떠받쳐지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일이 아니며,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자기 소명의 직무에서 그리 멀리 끌려 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떠벌릴 만큼 고집스럽습니다. 앞의 것에 관해 말하자면, 가장 높은 군주들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될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위엄에 어울리는 장식이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따질 까닭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식으로 그들을 크게 욕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이 말씀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은 그들을 주관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마 20; 막 10; 눅 22). 이 말씀으로 그분은 분명히 그들의 사역을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높음에서 아주 멀리 떼어 놓으셨습니다. 뒤의 것에 관해서는, 그들이 입으로 늘 말하기 쉬운 만큼 실제로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두고 식탁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으니(행 6), 이 일에서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아도, 좋은 감독이 되는 것과 좋은 군주가 되는 것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논박당합니다. 사도들은 주님께 받은 은사가 넓어서 그 뒤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도, 말씀의 사역과 식탁의 사역에 한꺼번에 힘쓰면 짐에 눌려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하찮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들의 수고를 백 배나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시도하는 것부터가

지극히 뻔뻔하고 너무도 대담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는지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리를 버리고 남의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 말고 다른 결과가 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독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그토록 많은 재물을 쏟아부은 군주들의 너그러움에는 어떤 경건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앞뒤가 뒤바뀐 후함으로 교회의 유익을 가장 잘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교회의 옛 참된 권징을 썩게 했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주 없애 버렸습니다.

군주들의 이런 선의를 자기 이익을 위해 남용한 감독들은 이 한 가지 증거를 드러냄으로써, 자기들이 결코 감독이 아니라는 것을 넉넉하고도 남게 증언했습니다. 끝으로 두 권세에 관해 한 번에 함께 말하자면, 그들이 오늘날 그것들을 붙들려고 그토록 기를 쓰고 다투니,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는 전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적 나라를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는 조건으로 내려놓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도, 건전한 교리에도, 교회의 구원에도 아무 위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세속 권세에서도 물러난다 해도, 교회의 공공의 유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지배욕에 눈이 멀어 앞뒤 없이 내달립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말하듯이 엄하게, 그리고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겔 34). 그러나 교회의 재산에 관해서는 지나가는 길에 이 몇 마디만 해 두겠습니다.

나는 여기가 제자리인 영적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변호하다가 이성의 모든 방패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마지막으로 저 비참한 도피처로 물러갑니다. 그들 자신이 지성과 판단에서는 어리석고 마음과 의지에서는 지극히 악하다 하더라도, 윗사람들이 불의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법을 만들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하는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묶어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대려 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행하라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마 23).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어떤 목사의 가르침이든 아무 망설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그토록 여러 번, 그토록 간곡하게 우리를 일깨운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114]

114. 이 문장의 뒷부분은 다음 편(CO 1:223)으로 이어지며, 여기서 끝까지 함께 옮겼습니다.

1536년판 제6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 통치에 관하여 3

CO 1:223–23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223 [115]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며,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묵시를 말한다” (렘 23).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다” (마 7). 사도 요한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요일 4)도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판단에서는 천사들도 빠지지 않는데, 하물며 마귀의 거짓말이겠습니까(갈 1)? 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마 15)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들의 말을 듣느냐가 크게 중요하며, 모든 목사의 말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넉넉히 밝혀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칭호로 우리를 겁주어 자기들의 눈멂에 함께 끌어들이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보는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의 오류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그 오류가 어떤 이름의 탈 아래 숨어 있든지 우리를 겁주어 막으시는 데 특별히 마음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면, 눈먼 인도자들은 그들이 고위 성직자라 불리든 주교라 불리든 대사제라 불리든, 자기와 한패인 자들을 같은 낭떠러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다른 부분, 곧 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법들이 우리에게 백 번이나 불의하고 해로운 것이라도 예외 없이 들어야 한다고 우깁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오류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115.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다만 아랫사람인 우리가 윗사람들의 가혹한 명령을 견디는 것일 뿐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시고, 당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에게 얻어 주신 자유로 우리를 이런 종살이에서 건져 내십니다. 그들이 악의로 꾸며 대듯이 우리가 몸으로 어떤 무거운 압제를 견디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그 자유, 곧 그리스도의 피의 은택을 빼앗기고 종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치 이 일에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엄하게 당신 것이라 주장하시는 당신의 나라를 그분께서 빼앗기시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사람이 지어낸 법들로 섬김을 받으실 때마다 그 나라는 빼앗깁니다. 그분은 당신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오직 당신만이 입법자로 여겨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지 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나를 경외하니, 보라, 내가 다시 그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 (사 29).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섬긴다” (마 15)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으로 당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그토록 날카롭게 위협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는 당신을 헛되이 섬긴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경건(religion), 곧 하늘 지혜의 일에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만 매달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살펴본다면, 사람의 재주가 제멋대로 당신께 바치는 이런 비뚤어진 섬김을 주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데에 가볍지 않은 까닭이 있음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법에 복종하는 자들이 이 순종으로 어떤 겸손의 모양을 지니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바로 그 법들을 하나님께 정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람의 전통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에델로트레스케이아(ἐθελοθρησκεία), 곧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람이 생각해 낸 자의적 숭배라고 부르는 것에 속지 않도록 그토록 부지런히 조심하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골 2).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도, 모든 사람의 지혜도 우리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그분만이 지혜로우시도록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꾸며 낸 자잘한 의식들로 그분께 인정받으려고 꾀하는 자들은 결코 이 길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난 몇 세대에도, 우리 기억에도 그러했고, 피조물의 명령이 창조주의 명령보다 더 무겁게 여겨지는 곳들에서는 오늘도 그러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종교(religion)가 (그것이 종교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면 말입니다) 일찍이 어떤 이교보다도 더 많고 더 어리석은 미신들로 더럽혀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육적이고 어리석으며 참으로 자기를 지어낸 자를 닮은 것들 말고 무엇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가장 나쁜 일이 더해집니다. 종교가 이런 헛된 지어낸 것들로 한번 규정되기 시작하면, 저 비뚤어짐에는 늘 또 하나의 저주스러운 악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 곧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마 15). 나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입법자들(nomothetas)과 내 말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발이 자기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이긴 것으로 해 두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한 해가 다 가도록 귓속 고해를 빠뜨리는 것이 한 해 내내 지극히 악한 삶을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금요일에 고기 한 점 맛보아 혀를 더럽히는 것이 날마다 음행으로 온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축일에 정직한 일에 손을 대는 것이 온 지체를 늘 가장 악한 짓에 쓰

는 것보다, 사제가 한 번의 정당한 혼인으로 짝을 맺는 것이 천 번의 간음에 얽히는 것보다, 서원한 순례를 다 이루지 않는 것이 모든 약속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보다, 엄청나고 쓸데없으며 아무 소용 없는 성당들의 사치에 무엇이든 바치지 않는 것이 가난한 이들의 가장 다급한 필요를 돌보지 않는 것보다, 우상 앞을 경의 없이 지나가는 것이 온갖 사람을 모욕하며 대하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에 뜻도 모르는 긴 말을 중얼거리지 않는 것이 참된 기도를 한 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는 차갑게, CO 225 마지못해 건성으로 권하면서도, 자기들의 계명에는 마치 경건의 모든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정확한 순종을 열심히, 조바심치며 다그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가벼운 속죄 행위(satisfactio)의 벌로 갚게 하면서, 자기들의 결정 하나를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감옥이나 화형이나 칼보다 가벼운 벌로는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리 엄하지도 가차 없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누그러지지 않는 미움으로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순박함을 사로잡아 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이른바 교회의 계명에서 한 점이라도 어긴 것을 보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전체가 뒤집히는 것을 더 태연하게 보게 만듭니다.

첫째로, 사소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다면 자유로운 일들 때문에 서로 멸시하고 판단하고 내버리는 것부터가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으로도 모자란 악이라는 듯이, 이 세상의 저 하찮은 초등 학문들(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쓰면서 그렇게 부르는 대로, 갈 4)이 하나님의 하늘 말씀보다 더 무겁게 달아집니다. 간음에서는 거의 풀려나는 사람이 음식 때문에는 정죄받습니다. 창녀는 허락되는 사람에게 아내는 금지됩니다.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저 배신

의 순종으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묶어 지우는 저 지기 어려운 짐을 지라고 하셨습니까(마 23)? 아니, 같은 그리스도께서 왜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마 16)? 복음서 기자 마태가 풀이하는 대로,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에 섞은 자기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든 누룩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의 가르침 전체를 피하고 조심하라고 명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의 양심이 바리새인들 자신의 전통에 괴롭힘을 당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확실해집니다. 말씀 자체도 비틀지만 않으면 그런 뜻으로 울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날카롭게 꾸짖기 시작하시면서, 먼저 청중을 단순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따를 만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모세의 자리, 곧 율법을 풀어 설명하는 자리에 앉아 말로 가르치는 것은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많은 사람이 사람의 전통으로 신자들의 양심이 불경건하게 묶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는 말을 들으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법들까지 한 번 그어 모두 지워 버리니, 여기서 그들의 오류에도 알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속기는 참으로 아주 쉽습니다. 저것들과 이것들 사이가 얼마나 다른지 첫눈에 곧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누구도 속지 않도록, 몇 마디로 이 일 전체를 아주 분명하게 풀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붙듭시다. 모든 사람의 사회에는 공동의 평화를 기르고 화합을 지키는 데 쓸모 있는 어떤 질서(politia)가 필요하고, 일을 해 나가는 데에도 공공의 품위와 인간다움 자체에 속하는 어떤 의례가 필요함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특히 교회들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들은 모든 일이 잘 짜인 질서로 가장 잘 유지되고, 화합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안전을 가장 잘 돌보려 한다면, 사도 바울이 명하는 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를 따라 하라" (고전 14)는 것을 반드시 부지런히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실에는 그토록 큰 차이가, 마음에는 그토록 많은 갈래가, 판단과 기질에는 그토록 큰 다툼이 있으니, 어떤 질서도 정해진 법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넉넉히 굳건하지 않고, 어떤 의례도 일정한 형식 없이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이바지하는 법들을 정죄하기는커녕, 이 법들이 없어지면 교회들이 그 힘줄이 풀려 온통 일그러지고 흩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를 따라 하는 것은, 의식들이 덧붙어 마치 어떤 끈처럼 질서와 품위 자체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달리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들에서 늘 조심스럽게 단서를 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믿어져서 양심을 종교적 의무로 묶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보태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 안에 경건이 놓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치가, 참된 경건을 흐리게 하고 양심을 뒤엎는다고 우리가 말한 저 불경건한 규정들과, 교회의 정당한 규례들을 가릅니다. 정당한 규례들에는 늘 다음 둘 가운데 하나가 목적으로 놓여 있다고 우리는 조금 전에 일러두었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에서 모든 일이 마땅한 질서대로 이루어지도록 품위에만 관계되든지, 아니면 인간다움의 어떤 끈처럼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를 붙들어 주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공공의 품위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되면, 사람이 지어낸 것들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재는 자들이 빠지는 미신은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또 그 법이 오직 사람들의 공동의 쓸모를 바라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전통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양심에 엄청난 두려움을 던지던 저 거짓된 의무와 필연의 생각도 뒤집힌 것입니다. 여기서는 공동의 의무로 우리 사이에 사랑을 기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

기 때문입니다. 앞의 종류의 예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 것, 머리를 가리고 나올 것(고전 11, 14) 같은 것입니다. 또 늘 삶의 관습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적으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드러낼 것, 사람의 시신을 벌거벗긴 채 구덩이에 던지지 말 것, 주님의 성례를 속되고 더럽게 집행하지 말 것, 그리고 같은 데에 속하는 다른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자의 머릿수건에 경건이 놓여 있어서 머리를 드러내고 나가는 것이 죄입니까? 여자가 잠잠하라는 결정이 거룩하여 그것을 어기면 지극히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무릎 꿇는 것이나 시신을 덮는 것에 무슨 신비가 있어서 그것을 빠뜨리면 속죄해야 할 죄가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웃을 도우러 서두르다 머리를 가릴 틈이 없다면, 머리를 드러낸 채 달려가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잠잠하는 것이 알맞듯이, 다른 때에는 말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알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CO 227 병에 걸려 무릎을 굽힐 수 없는 사람이 서서 기도하는 것도 막을 것이 없습니다. 끝으로 베가 없을 때에는 묻지 않은 채 썩기를 기다리기보다 제때에 죽은 사람을 묻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에도, 지역의 관습과 제도와, 끝으로 인간다움 자체와 절제의 규범이 하라고 하거나 삼가라고 일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각이 모자라거나 잊어버려서 무엇을 잘못했다면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이지만, 멸시해서 그랬다면 그 고집은 책망받아야 합니다. 누가 여기에 시끄럽게 반대하며 마땅한 것보다 더 지혜로운 체하려 한다면, 자기의 그 까다로움을 어떤 이치로 주님께 인정받을지는 그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울의 이 말이 넉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다투는 관례는 없다” (고전 11).

다른 종류에 속하는 것은 공적인 기도와 설교와 세례를 위해 정해진 시간, 설교할 때의 고요함과 잠잠함, 정해진 장소, 함께 부르는 찬송, 주의 성찬을 받기로 정한 날, 출교의 권징, 그 밖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날들이

어느 날이고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장소의 구조가 어떠한지, 어느 날 어떤 시편을 부르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는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해진 날과 정해진 시간이 있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기에 알맞은 장소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동의 형편에 속하는 일들을 저마다 내키는 대로 바꾸어도 된다면, 그런 일들의 혼란이 얼마나 많은 다툼의 씨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를테면 중간에 놓인 것으로서 개인 저마다의 마음대로 맡겨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이 좋게 여겨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수한 쓰임을 더럽히거나 흐리게 하는 오류가 스며들지 않도록 지극히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의식이든 분명한 유익을 드러내 보이고, 아주 적게만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신실한 목사의 가르침이 더해져 비뚤어진 생각들이 들어올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이런 모든 일에서 우리 각자에게 자기 자유가 서 있게 하면서도, 우리가 말한 저 어울림(τὸ πρέπον)이나 사랑의 이치가 요구하는 만큼 각자가 자기 자유에 스스로 어떤 필연을 지우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지식은, 우리 자신이 그것들을 지키는 데서 어떤 미신에도 빠지지 않고, 남들에게 그것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요구하지도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낫게 여기지 않게 하고, 바깥 규율이 다르다고 해서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멸시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지식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아무 영구한 법도 세우지 않고 의식의 모든 쓰임과 목적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요구하면, 무엇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전에 우리가 써 오던 의식이 무엇이든 그것을 뒤집는 것도 아무 거리낌 없이 견디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시대의 형편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불경건하지도 품위 없지도 않은 어떤 의례들을 그때의 형편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그대로 겪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눈멂과 무지가 그러했기에, 교회들은 이전에 그토록 썩은 생각과 그토록 고집스러운 열심으로 예식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식을 없애지 않고는 저 괴이한 미신들을 넉넉히 씻어 내기 어렵습니다. 그 예식들이 옛날에는 어쩌면 까닭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는 아무 불경건이나 허물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변호하려고 고집스럽게 버티는 것은 가장 해로운 열심일 것입니다. 누가 그것들을 그 자체로만 따지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들에 아무 악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레의 형편으로 따진다면, 예식을 잘못 쓴 데서 그토록 큰 오류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잇달아 새 오류의 거리를 내놓는 그 볼거리들을 눈앞에서 치우지 않고는 쉽게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수었다고 성령의 증언으로 칭찬받았습니다(왕하 18). 그 놋뱀은 주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세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택을 기념하는 것(μνημόσυνον)으로 보존하는 것은 백성의 우상 숭배에 쓰이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선한 왕은 불경건을 바로잡을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모세가 그것을 세웠던 것 못지않은 까닭으로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뚤어진 판단은 탈 나고 약해진 위장을 다루듯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장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가 없을 음식이라도 조금 소화하기 어려우면 빼앗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앞에서 사람 안에 두 가지 다스림이 있다고 정했고, 그 가운데 하나, 곧 영혼 또는 속사람에 자리 잡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다스림에 관해서는 이미 넉넉히 많은 말을 했으니, 다른 하나, 곧 오직 시민의 바깥 행실의 의를 세우는 데 관계된 다스림에 관해서도 얼마간 논할 자리가 여기서 다가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우리가 세운 저 구별을 붙들어야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듯이, 전혀 다른 이치를 가진 이 둘을 생각 없이 뒤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자유가 약속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자유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왕도 어떤 주인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자기들 위에 어떤 권세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는 한 자기들의 자유의 열매를 하나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세상이 새 모습으로 고쳐져서 재판도 법도 위정자도 없고, 그 밖에 자기들의 자유를 가로막는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 사이를, 지금의 이 흘러가는 생명과 저 오는 영원한 생명 사이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와 국가 제도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진 것임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찾고 그 안에 가두는 것은 유대인의 헛된 생각이니, 우리는 오히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은택에서 거두는 열매가 영적인 것임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주어지는 이 자유 전체를 CO 229 그 경계 안에 붙들어 두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명하는 같은 사도가 다른 곳에서는 종들에게 자기 신분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갈 5; 갈 3; 고전 7)은, 영적 자유가 정치적 종살이와 아주 잘 함께 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다음 말씀들도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다.”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골 3). 이 말씀들로 그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느 민족의 법 아래 살든지 상관없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이런 일들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구별이 국가 질서의 모든 이치를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 없는 더러운 일로 여기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광신자들은 참으로

이렇게 떠벌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하여 죽었고(골 2),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하늘에 속한 자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다루는 이 속되고 더러운 걱정에 매이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고 우리의 탁월함보다 훨씬 아래 놓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재판과 법정이 없는 법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재판 자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죽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법과 재판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다스림의 종류가 그리스도의 저 영적이고 내적인 나라와 구별된다고 일러 두었듯이, 둘이 서로 조금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저 영적 나라는 이미 지금 땅 위에서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어떤 시작을 열고,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져 가는 생명 안에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복을 어떤 방식으로 미리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다스림에 정해진 일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사람들의 사회에 맞추어 짜고, 우리의 행실을 시민의 의에 맞추어 빚으며, 우리를 서로 화해시키고, 공동의 평화와 평온을 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생명을 꺼 버린다면,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본향을 사모하는 동안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나그넷길에 이런 도움들이 쓰여야 한다면, 이것들을 사람에게서 빼앗는 자들은 사람에게서 그 인간다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마땅히 큰 온전함이 있어서 그 자체의 절제가 법을 대신하기에 넉넉해야 한다고 핑계 대지만, 그들이 어리석게 상상하는 그런 온전함은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오만이 그토록 크고 그 사악함이 그토록 고집스러워서, 법의 많은 엄함으로도 겨우 억누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힘으로 강제해도 악을 넉넉히 그치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의 사악함에 벌받지 않는 방종이 열려 있음을

본다면 무슨 짓을 하리라고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국가 질서의 쓸모에 관해서는 말할 더 알맞은 자리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국가 질서를 없애려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야만입니다. 국가 질서의 쓸모는 사람들 사이에서 빵과 물과 해와 공기 못지않고, 그 위엄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국가 질서는 (저 모든 것의 유익이 그러하듯이) 다만 사람들이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 질서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므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성 모독과 그분의 진리를 거스르는 모독과 그 밖에 경건을 해치는 공공연한 일들이 일어나 백성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하고, 공공의 평온이 어지럽혀지지 않게 하며, 각 사람의 것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지게 하고, 사람들이 서로 해 없이 거래하게 하며, 끝으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경건의 공적인 모습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는 인간다움이 서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건을 바르게 세우는 일의 돌봄을 지금 사람들의 국가 질서에 돌린다고 해서 아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담긴 참된 경건이 공공연한 신성 모독으로 벌받지 않고 범해지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힘쓰는 국가 제도를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경건과 하나님 섬기는 일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것을 내가 앞에서보다 조금이라도 더 허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국가 통치의 부분들을 하나씩 따로 다루면, 질서의 분명함 자체에 힘입어 국가 통치 전체에 관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더 잘 깨달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셋입니다. 법을 다스리고 지키는 위정자, 위정자가 그것을 따라 다스리는 법, 법으로 다스려지고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위정자의 직무 자체에 관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당한 소명인지, 그 직분이 어떠하며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살펴봅시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국가 질서는 어떤 법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끝으로 법의 쓸모가 백성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위정자에게 어떤 순종을 바쳐야 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주님께서는 위정자의 직무가 당신께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증언하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위엄을 지극히 영예로운 칭호들로 높여 우리에게 놀랍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위정자의 직분을 맡은 자는 누구든지 신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칭호에 가벼운 무게만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칭호는 그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대신 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대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궤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풀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이 신들이라고 불렀다" (요 10)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셔서 그들이 그 직분에서 그분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모세와 여호사밧이 유다의 각 성읍에 세운 재판관들에게 말한 대로, 신 1; 대하 19)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입을 통해 단언하는 것도 같은 데로 향합니다(잠 8). 왕들이 다스리고 모사들이 의로운 것을 결정하며, 방백들이 다스리고 CO 231 땅의 모든 너그러운 재판관들이 그러한 것은 당신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땅 위에서 왕들과 다른 관리들에게 모든 일의 결정권이 있는 것은 사람의 비뚤어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규례로 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그렇게 다스리기를 좋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는 다스리는 직분을 하나님의 은사들 가운데 꼽는데, 이 은사들은 은혜의 차이를 따라 여러 모양으로 나뉘어 주어진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롬 12). 그는 이 문제에 관해 제대로 논하는 곳

에서는 훨씬 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는 권세가 하나님의 정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권세는 없다고 전합니다(롬 13). 또 통치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칭찬이 되고 악한 자들에게는 진노로 보응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사람들의 본보기가 더해집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처럼 왕국을 다스렸고, 어떤 이들은 요셉과 다니엘처럼 태수의 직분을 맡았으며, 어떤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처럼 자유로운 백성 가운데서 국가의 관직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직무가 당신께 인정된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당한 소명일 뿐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고 죽을 인생의 온 삶에서 모든 소명 가운데 단연 가장 영예로운 소명이라는 것을 이제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위정자들 자신은 이 생각을 늘 마음에 붙들고 일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그들을 직분으로 일깨우는 큰 박차가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자기 직무의 어려움, 분명히 많고 무거운 그 어려움을 누그러뜨릴 특별한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의 사역자로 세움받았음을 아는 자들은 얼마나 큰 정직과 지혜와 온유와 절제와 깨끗함에 힘쓰기를 자기 자신에게 명해야 하겠습니까? 자기의 재판석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을 듣는 자들이 무슨 배짱으로 그 재판석에 불의를 들이겠습니까? 자기 입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정해졌음을 깨닫는 자들이 무슨 대담함으로 그 입으로 불의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까? 자기 손이 하나님의 결정을 적도록 정해졌음을 아는 자들이 무슨 양심으로 그 손으로 불경건한 명령에 서명하겠습니까?

요컨대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기억한다면, 자기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하심과 호의와 의의 어떤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서 온갖 정성과 부지런함과 근면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거짓되이 하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렘 48) 라는 말씀을 늘 자기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사밧은 자기 재판관들에게 직분을 다하라고 권하려 할 때(신 1; 대하 19),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우리가 앞에서 든 말보다 더 힘 있는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살피라. 너희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니, 재판할 때에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런즉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희 위에 있게 하라. 살펴서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 불의도 없으시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시 82)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절이며 맡은 직임에 대해 그분께 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 직분에 힘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고는 마땅히 그들에게 가장 크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그들이 악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그들이 그 지극히 거룩한 심판을 더럽히는 하나님 자신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은 스스로 훌륭하게 위로받을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되고 하나님의 종과 상관없는 일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절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 지극히 거룩한 직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스스로 헤아려 볼 때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토록 많은 증언에도 움직이지 않고, 이 거룩한 직무를 마치 그리스도인의 경건(religion)과 경건(pietas)과는 동떨어진 일인 것처럼 감히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사역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위정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 그분이 자기들 위에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다스림을 거부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 관해 이 말씀을 참되게 하셨다면(삼상 8),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관직을 향해 마구 날뛰기를 서슴지 않는 오늘의

자들에 관해서는 이 말씀이 덜 참되게 하실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지만, 너희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첫째인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눅 22)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왕국이나 관직을 맡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솜씨 좋은 해석자들이여! 제자들 사이에 누가 다른 이보다 뛰어난가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헛된 야심을 누르시려고, 그들의 사역은 여럿 가운데 한 사람이 우뚝 서는 왕국과 같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묻건대, 이 비교가 왕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데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 왕의 직무가 사도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 말고 도대체 무엇을 증명합니까? 게다가 위정자들 사이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롬 13) 하고 말할 때 그 모두를 함께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지 않던 것, 곧 한 사람의 권세가 다른 것들보다 뛰어난 증언으로 칭찬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권세는 그 한 사람을 빼고는 모든 사람의 공적인 종살이를 함께 가져오고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의 욕망 아래 두므로, 옛날 영웅적이고 더 뛰어난 기질의 사람들에게는 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불공정한 판단들을 막으려고, 왕들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특별히 왕을 존경하라고 명합니다(잠 8; 24; 벧전 2).

그리고 국가 질서의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지를 개인들이 따지는 것은 참으로 아주 쓸데없는 일입니다. 개인들에게는 무슨 공적인 일을 세우는 것에 관해 의논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하게 정하려 하면 무모하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의의 주된 이치는 형편에 놓여 있고, 형편을 떠나 형태들 자체만 서로 견주어 보더라도, CO 233 그것들이 이

처럼 대등한 조건으로 겨루니 어느 것이 유익에서 더 무거운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정에서 폭정으로 떨어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의 권세에서 소수의 당파로 떨어지기도 그보다 그리 어렵지 않고, 백성의 지배에서 소요로 떨어지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한 도시에만 눈을 붙박지 않고 온 세상을 함께 둘러보고 살펴보거나, 적어도 더 넓은 지역들로 눈길을 넓힌다면, 여러 지역이 여러 국가 질서로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까닭 없이 마련하신 것이 아님을 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원소들이 고르지 않게 섞여야만 서로 엉겨 붙어 있듯이, 이 국가 질서들도 저마다 어떤 고르지 않음으로 가장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의 뜻으로 만족할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말도 쓸데없습니다. 주님께서 왕국에는 왕들을, 자유 도시에는 원로원이나 시 참사회원들을 세우기를 좋게 여기셨다면, 그분이 우리가 사는 곳에 누구를 세우셨든지, 그들에게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위정자들의 직분을 어떻게 그리며 그 직분이 어떤 일들에 놓여 있는지를 여기서 지나가는 길에 가리켜 보여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왕들에게 공의와 의를 행하고, 강탈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며,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슬프게 하거나 해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선포합니다(렘 22). 모세는 자기를 대신하도록 세운 지도자들에게 공포합니다(신 1). 그들의 형제들의 송사를 듣고, 사람과 그 형제 사이에, 또 나그네 사이에 재판하며,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지 말고, 작은 자의 말이든 큰 자의 말이든 똑같이 들으며,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말씀들은 넘어가겠습니다(신 17). 왕들은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탐욕에 마음을 두지 말며, 자기 형제들 위에 자기를 높이지 말고, 평생 날마다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 재판관은 누구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신

16),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읽히는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위정자들의 직분을 풀어 설명하는 것은, 위정자들 자신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위정자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세우셨는지를 가르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공공의 깨끗함과 절제와 품위와 평온의 보호자요 옹호자로 세워졌으며,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의 공동의 안전과 평화를 돌보는 한 가지 열심만 있어야 함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한 사람들을 악한 자들의 해에서 지켜 주고 억눌린 자들을 도움과 보호로 돕지 않으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으므로, 권세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로 그들은 그 사악함이 공공의 평온을 어지럽히고 뒤흔드는 공공연한 악행자들과 범죄자들을 엄하게 억누릅니다(롬 13). 솔론[116]이 말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겪어 압니다. 모든 국가는 상과 벌로 서 있으며, 이것들이 없어지면 국가의 모든 규율이 무너지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덕에 그에 맞는 영예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공평과 의에 대한 관심이 식어 버리고, 엄함과 형벌의 징치가 없으면 악한 사람들의 욕망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왕들과 다른 관리들에게 공의와 의를 행하라고 명할 때 이 두 부분을 아울렀습니다(렘 22). 의는 무죄한 자들을 보호 아래 받아들이고, 품고, 지키고, 변호하고, 건져 내는 것입니다. 공의는 불경건한 자들의 대담함에 맞서고, 폭력을 누르고, 범죄를 벌하는 것입니다(마 5; 출 20).

그러나 여기서 보기에 험하고 어려운 물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죽이는 것을 금하고(신 5),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교회에 관해 거기서는 해치지도 상하게 하지도 않으리라고 예언하는데(사 11; 65), 위정자들이 어떻게 경건하면서 동시에 피를 흘리는 자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위정자가 형벌을 집행할 때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116. 솔론(Solon, 기원전 640경–560경)은 아테네의 입법자입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바로 그것을 집행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거리낌에 조금도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법은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나 살인이 벌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의 손에 칼을 주셔서 모든 살인자에게 휘두르게 하십니다. 해치고 상하게 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으로 경건한 자들이 당한 고난을 갚는 것은 해치는 것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생각이 늘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모든 일이 사람의 무모함으로가 아니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며, 그 권위가 앞서 이끄시면 결코 바른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재갈이 물려 죄를 벌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 법을 정해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면, 왜 우리가 그분의 사역자들에게 비방을 겨누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공연히 칼을 차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로 보응하는 자들이다"(롬 13). 그러므로 통치자들과 다른 관리들이 자기들의 순종보다 주님께 더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 없음을 안다면, 자기의 경건과 의와 정직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힘쓰는 한, 이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자기 백성의 해방자로 정해졌음을 깨닫고 이집트 사람에게 손을 댔을 때(출 2), 이런 마음이 그를 움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뒤에 그가 하루에 삼천 명을 죽여 백성의 신성 모독을 보응했을 때(출 32)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생애 끝에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했을 때 그러했습니다. 모세의 저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 어떻게 그토록 사나움으로 타올라, 자기 형제들의 피를 뒤집어쓰고 흠뻑 젖은 채 새 살육을 하러 진영을 누비고 다닙니까? 평생 그토록 온유했던 사람 다윗이 어떻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저 피 묻은 유언을 남겨, 자기 아들에게 요압과 시므이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까(왕상 2)?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보응을

집행함으로써, 아꼈더라면 더럽혔을 자기 손을 이렇게 엄하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미움받을 일이니, 이는 보좌가 의로 굳게 서기 때문이다" (잠 16). 또 "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는다" (잠 20). 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흩으며 그들 위로 바퀴를 굴린다" (같은 곳). 또 "은에서 찌끼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 그릇이 나올 것이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보좌가 의로 굳게 설 것이다" (잠 25).[117]

117. 이 문장의 뒷부분은 다음 편(CO 1:235)으로 이어지며, 여기서 끝까지 함께 옮겼습니다.

1536년판 제6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 통치에 관하여 4

CO 1:235–24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235 [118]이제 칼을 뽑아 해로운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쫓는 것이 그들의 참된 의라면, 멸망할 사람들이 그사이에 살인과 살육으로 악하게 날뛰는 동안 그들이 칼을 칼집에 넣고 손을 피에서 깨끗하게 지키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선함과 의의 칭송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지극히 큰 불경건에 자기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다만 모질고 사나운 가혹함은 물러가고, 마땅히 "피고들의 암초"라 불릴 만한 저 법정도 물러가야 합니다.

저는 지나친 잔혹을 편드는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단언하듯(잠 20) 왕좌를 지켜 주는 것, 곧 왕들의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조언자인 관용이 늘 곁에 앉아 있지 않아도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관용이 군주들의 첫째 자질이라는 것은 예전에 어떤 이가 참되게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위정자는 두 가지를 다 살펴야 합니다. 곧 지나친 엄격함으로 고치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관용을 미신적으로 꾸미다가 무르고 풀어진 방임으로 많은 사람의 파멸을 불러오며 흐트러져서, 가장 잔인한 인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르바의 통치 아래에서 예전에 일리 없지 않게 떠돌던 말도 있습니다.[119]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는 군주 아래 사는 것은 참으로 나쁘지만, 모든 것이 허락되는 군주 아래 사는 것은 훨씬 더 나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들과 백성들이 이런 공적인 보응을 시행하려고 때로는 무기를

118.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119. 네르바(Nerva)는 96–98년에 재위한 로마 황제입니다.

들어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이치에서 동시에, 이렇게 일으키는 전쟁들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이, 그것으로 자기 관할 지역의 평온을 지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반란의 움직임을 누르며, 폭력으로 억눌린 자들을 돕고, 악행을 벌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개개인의 사사로운 평안과 모든 사람의 공동의 평온을 어지럽히는 자, 반역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자, 폭력적인 억압과 부당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의 광포를 제어하는 일보다 더 알맞게 그 권세를 내보일 수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법의 수호자요 옹호자인 것이 마땅하다면, 그 악행으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자의 시도를 똑같이 뒤엎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피해가 몇몇 사람에게만 미친 강도들을 정당하게 벌한다면, 온 지역이 강도질로 시달리고 황폐해지는 것은 벌하지 않고 버려 두겠습니까? 아무 권리도 없는 남의 지역에 쳐들어가 적대적으로 괴롭히는 자가 왕이든 가장 낮은 평민이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강도로 여겨지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위정자는 자기 욕망을 조금이라도 따르지 않도록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형벌을 내려야 할 때에는 성급한 분노에 끌려가지 말고, 미움에 휩쓸리지 말며, 누그러지지 않는 가혹함으로 불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자기가 그 고유한 범죄를 벌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공통의 본성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원수, 곧 무장한 강도를 향해 무기를 들어야 할 때에도 쉽게 기회를 잡지 말고, 오히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극도의 필요에 몰리지 않는 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오직 평화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를 바랐던 저 이방인이 요구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면, 무기로 결판을 내기 전에 분명히 모든 것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두 경우 모두에서 그들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공적인 생각에만 이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권세를 가장 악하게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같은 전쟁의 권리에 수비대와 동맹과 그 밖의 국가 방비의 이치도 달려 있습니다. 수비대라 함은 나라의 경계를 지키려고 여러 성읍에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맹이라 함은 이웃 군주들이, 자기 땅에 무슨 소란이 일어나면 서로 도움을 주고 힘을 한데 모아 인류의 공동의 원수들을 누르기로 하는 조건으로 맺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방비라 함은 군사 기술에서 쓰이는 것들을 말합니다. 끝으로 이것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세와 관세는 군주들의 합법적인 수입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무엇보다 자기 직무의 공적인 짐을 감당하는 데 써야 하지만, 그들이 맡은 통치의 위엄과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는 자기 집안의 광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과 그 밖의 거룩한 왕들, 또 요셉과 다니엘도, 그들이 맡은 직분에 걸맞게 경건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적인 비용으로 넉넉하게 지냈음을 보며, 에스겔서에서는(겔 48)[120] 왕들에게 매우 넓은 땅이 배정된 것을 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군주들 자신도, 자기 국고가 사사로운 금고라기보다 온 백성의 재정이라는 것(바울이 롬 13에서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낭비하거나 탕진하면 명백한 불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거의 백성의 피 그 자체이므로, 그것을 아끼지 않는 것은 가장 끔찍한 비인간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자기들의 부과금과 헌납과 그 밖의 여러 종류의 조세는 오직 공적인 필요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며, 까닭 없이 이것으로 가련한 백성을 지치게 하는 것은 폭군의 탐욕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런 말은 군주들에게 낭비와 사치스러운 비용을 향한 용기를 북돋우려는 것이 아닙니다(그들의 욕망은 스스로도 이미 정도 이상으로 불타 있으니, 거기에 횃불을 들이댈 필요는 분명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감히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120. 원문은 “에스겔서 마지막 장” (Ez. ult.)이라고만 적습니다. 겔 48장입니다.

감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경건한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얼마만큼 허락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사사로운 사람들에게도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군주들의 어떤 비용이 일반적이고 시민적인 정도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경솔하고 무례하게 비난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CO 237 국가에서 위정자 다음가는 것은 법입니다. 법은 국가의 가장 강한 힘줄이요, 키케로가 부르듯 국가의 영혼입니다. 위정자는 법 없이 존립할 수 없고, 법도 거꾸로 위정자 없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말 없는 위정자요, 위정자는 살아 있는 법이라는 말보다 더 참된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국가가 어떤 법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누구도 가장 좋은 종류의 법에 관한 긴 논의를 기대할 까닭은 없습니다. 그런 논의는 끝이 없을 것이고 지금의 주제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만 몇 마디로, 이를테면 지나가는 길에, 그리스도인의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쓸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바르게 다스려질 수 있는 법이 어떤 것인지 짚어 두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위험하게 빗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것조차 아예 말하지 않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모세의 정치법을 소홀히 하고 여러 민족의 공통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는 바르게 세워진 국가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가 얼마나 위험하고 소란스러운지는 다른 사람들이 살필 일이고, 저로서는 그것이 거짓되고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넉넉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시행된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도덕과 의식과 재판으로 나누는 저 널리 알려진 구분을 따라야 하고, 각 부분을 살펴서 그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속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아무도, 재판과 의식도 도덕에 속한다는 이 걱정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구분을 전해 준 옛사람들은 뒤의 두 부분이 도덕과

관련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도덕을 해치지 않고도 그것들이 바뀌고 폐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도덕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 없이는 참된 도덕의 거룩함이 성립하지 않는 저 첫째 부분만을 특별히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은(여기서부터 시작하자면) 두 조항에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순전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른 하나는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으라고 단순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은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세우려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해진 의의 참되고 영원한 규칙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 모두에게서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의식법은 유대인들의 몽학 선생이었습니다(갈 3; 4).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저 백성의 이를테면 어린 시절을 훈련하기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저 충만한 때가 와서, 당신의 지혜를 땅에 온전히 나타내시고 그때 그림자로 어렴풋이 그려지던 것들의 진리를 보여 주실 때까지였습니다. 재판법은 그들에게 국가 제도로 주어져, 그들이 서로 흠 없고 평온하게 살아가도록 공평과 의의 일정한 형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저 훈련은 참으로 경건의 가르침에 고유하게 속하여 유대인의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경건(religion) 안에 붙들어 두었지만 경건 그 자체와는 구별될 수 있었듯이, 이 재판의 형식도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 명하는 바로 그 사랑을 가장 잘 지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사랑의 계명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무엇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서도 의식이 폐지될 수 있었듯이, 이 재판 규정들이 없어져도 사랑의 영원한 의무와 계명들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이라면, 분명 각 민족에게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내다본 법을 만들 자유가 남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 법들은 사랑의 저 영원한 규칙에 맞추어져서, 형식은 다르더라도 같은 이치를 지녀야 합니다.

도둑에게 영예를 주던 법, 난잡한 성교를 허락하던 법, 그 밖에 훨씬 더 추하고 더 터무니없는 법들 같은 저 야만스럽고 사나운 법들은, 의뿐 아니라 인간다움과 온유함에서도 아주 동떨어져 있으므로, 저는 결코 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모든 법에서 마땅히 두 가지를 바라보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곧 법의 제정과, 그 제정 자체가 근거로 삼는 공평입니다. 공평은 자연적인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에도, 사안의 종류에 따라, 같은 공평이 목표로 세워져야 합니다. 제정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거기에 달려 있는 상황들이 붙어 있으므로, 모두가 똑같이 같은 공평의 과녁을 겨냥하기만 한다면 서로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법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율법은 자연법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 두신 양심의 증언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므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공평의 이치 전체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율법만이 모든 법의 과녁이요 규칙이요 한계여야 합니다. 그 규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 과녁을 향하고, 그 한계로 제한된 법이라면 어떤 법이든, 유대인의 율법과 다르든 서로 다르든, 우리가 그것을 배척할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도둑질을 금합니다. 유대인의 국가에서 도둑질에 어떤 형벌이 정해졌는지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출 22). 다른 민족들의 가장 오래된 법은 도둑질을 갑절로 벌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법들은 현장에서 잡힌 도둑질과 그렇지 않은 도둑질을 구별했습니다. 어떤 법은 추방까지, 어떤 법은 채찍질까지, 또 어떤 법은 마침내 사형까지 나아갔습니다. 거짓 증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같은 것으로 갚는 형벌로 벌을 받았고(신 19), 다른 곳에서는 무거운 수치로만, 다른 곳에서는 교수형으로, 다른 곳에서는 십자가형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살인은 모든 법이 똑같이 피로 갚지만, 죽음의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간음한 자들에게는 어떤 곳에서는 더 엄한, 어떤 곳에서는 더 가벼운 형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다양함 속에서도 그것들이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은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 정죄하는 악행들, 곧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증언에 형벌을 선고하지만, 형벌의 방식에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CO 239 그리고 그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살인자들을 무서운 본보기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곧 살인과 강도질로 망하고 말 지역이 있습니다. 형벌의 가혹함을 높이기를 요구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누르지 않으면 어떤 악덕으로 더 기우는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유지하는 데 가장 알맞은 그런 다양함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얼마나 악의적이고 공공의 유익을 시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이들이 떠벌리는 말, 곧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다른 법들이 그보다 앞세워지면 그 율법이 모욕을 당한다는 말은 지극히 헛됩니다. 다른 법들이 더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 율법보다 앞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비교해서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와 민족의 형편에 따라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는 그 율법이 폐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모든 민족에게 공포하도록 모세의 손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유대 민족을 당신의 신의와 보호와 후견 아래 받아들이셨으므로, 그들에게 특별히 입법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입법자에게 걸맞게, 그 법들을 주실 때 그 민족을 특별히 헤아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에 내놓았던 것을 살피는 일이 남았습니다. 곧 법과 재판과 위정자가 그리스도인의 공동 사회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 사사로운 사람들이 위정자에게 얼마만큼 존중을 돌려야 하는지, 어떤 순종을 바쳐야 하는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위정자의 직무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를 갚는 것, 재판에 고소하는 것, 소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 위정자에게 경건하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롬 13) 반대로, 위정자가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서, 우리가 위정자의 손과 보호로 악한 사람들의 사악함과 불의에서 지켜져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압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은택을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호로 주신 것이 헛될 것이므로,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호소하는 것도 불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소송하려는 광기로 끓어올라,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면 자기 안에 결코 평온이 없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소송 자체를 죽기까지 미워하는 독한 미움과, 원수를 갚고 해를 끼치려는 미친 욕망으로 수행하고, 누그러지지 않는 고집으로 상대가 망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법에 따라서만 한다고 여겨지도록, 재판을 구실로 그런 비뚤어짐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형제와 재판으로 다투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려는 미친 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고, 고집스럽게 그를 뒤쫓는 것까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 바르게 쓰기만 하면 재판은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소송하는 것이든 피고가 방어하는 것이든 바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는 소환을 받으면 정한 날에 출두하여 할 수 있는 항변으로 자기 사건을 방어하되, 가혹함 없이, 다만 자기 것을 법으로 지키려는 마음으로만 해야 합니다. 원고는 자기 몸이나 재산에서 부당하게 억눌렸을 때 위정자의 보호에 자기를 맡기고, 고소를 제기하고, 공평하고 선한 것을 요구하되, 해를 끼치거나 원수를 갚으려는 모든 욕망을 멀리하고, 가혹함과 미움을 멀리하고, 다툼의 열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원수 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달려드느니 차라리 자기 것을 양보하고 무엇이든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악의로 물들고, 시기로 썩고, 분노로 불붙고, 보복을 내뿜거나, 마침내 다툼의

열기로 달아올라 사랑에서 무엇인가를 늦추게 되면, 가장 정당한 사건이라도 그 소송 전체가 불경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원칙이 확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정한 소송이라도, 다투는 사안이 이미 우호적으로 타결되고 화해된 것처럼 상대를 똑같은 사랑과 호의로 대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것을 의롭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런 절제가 재판에 들어오는 일이 아예 없어서 만일 그런 예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이적과 같을 것이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의 풍속이 이러하니 정직한 소송인의 예가 드물다는 것을 정말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 그 자체는, 어떤 악이 덧붙어 더럽혀지지 않으면, 선하고 깨끗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정자의 도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고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더욱 부지런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재판상의 다툼을 딱 잘라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그리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깨끗할 수 있는 것들에 속하는 선물을 함께 배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바울을 범죄자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소자들의 중상과 그들의 교활함과 악의를 드러내어 자기에게서 물리쳤고, 재판에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자기에게 주장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불의한 총독에게서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했습니다(행 22; 24; 25).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수의 욕망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욕망을 그리스도인의 법정에서 가장 멀리 쫓아냅니다(신 32; 마 5; 롬 12). 민사로 다툴 때에는, 해 없는 단순함으로 자기 사건을 공적인 후견인인 재판관에게 맡기고, 복수의 감정인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에 해당하거나 더 무거운 어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보복의 열기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사사로운 피해의 불쾌함에도 건드려지지 않은 채, 다만 해로운 사람의 시도가 국가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마음만 품고 법정에 나아가는 고소인을 요구합니다. 만일 당신이 보복하려는 마음을 없앤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보복을 금하는 저 명령을 조금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수를 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억눌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보복자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손을 기다리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롬 12).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위정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저 보복을 앞지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CO 241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정자의 보응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듯(롬 13),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역을 통해 그 보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조금도 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에 저항하는 것을 금하시고,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 대라고,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 주라고 명하십니다(마 5). 거기서 그분은 당신의 사람들의 마음이 보복하려는 욕망을 아주 싫어하여, 앙갚음하려고 마음을 품느니 차라리 자기에게 가해지는 불의가 갑절이 되는 것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들을 이 인내에서 떼어 놓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욕과 불의를 견디도록 태어난 사람들, 가장 악한 사람들의 악함과 속임수와 조롱에 내맡겨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그 모든 악을 참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곧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아, 한 고난을 겪고 나면 다른 고난을 준비하고, 평생 끊임없는 십자가를 견디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약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기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며, 그들의 유일한 승리인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힘써야 합니다(롬 12).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복을 구하도록 자기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자기 몸이 상하고 자기 것을 악의적으로 빼앗기는 것을 견디되, 그 불의가 자기에게 가해지자마자 그것을 용서하고 스스로 기꺼이 면해 줄 마음으로 견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의 공평과 절제는, 그들이 원수들에 대한 우정을 온전히 지닌 채 자기 것을 보존하려고 위정자의 도움을 쓰는 것이나, 공공의 유익을 위한 열심으로, 죽음이 아니면 고쳐질 수 없다고 아는 죄 있고 해로운 사람을 형벌에 넘기도록 고소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또 흔히 나오는 반박, 곧 바울이 소송을 통틀어 정죄했다는 말도(고전 6) 거짓입니다. 그의 말에서, 고린도 교회에 소송하려는 광기가 지나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기들의 경건 전체를 불경건한 자들의 조롱과 비방에 내맡길 지경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서 먼저 꾸짖는 것은, 그들이 분쟁의 무절제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것, 곧 형제가 형제와 그런 식으로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를 견디기에서 아주 멀어서, 서로 남의 재산을 탐내어 입을 벌리고, 먼저 건드리고,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소송의 광기를 공격하는 것이지, 어떤 다툼이든 단순히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차라리 자기 재산의 손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다툼에까지 애쓴 것이 아주 허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곧 법정에 나아가느니 언제나 차라리 자기 권리를 양보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마음이 더 격해지고 형제를 향한 미움에 불붙지 않고서는 나오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사랑을 해치지 않고 자기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잃으면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라면, 그가 그렇게 해도 바울의 이 말씀을 조금도 어기지 않습니다. 끝으로, 처음에 가르쳤듯이, 사랑이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줄 것입니다. 사랑 없이 시작하거나 사랑을 넘어서 나아가는 다툼은 모두 불의하고 불경건하다는

것을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둡니다.

백성이 자기 위정자들에게 지는 첫째 의무는, 그들의 직무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그 직무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관할권으로 인정하고, 그 때문에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요 사절로 우러러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위정자들에게 아주 고분고분하고, 순종할 대상이 없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공공의 유익에 그렇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위정자들 자체를 어떤 필요악쯤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벧전 2) 왕을 존대하라고 명할 때, 그리고 솔로몬은(잠 24)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라고 명할 때,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존대하라는 말 아래 진실하고 순전한 존경을 담고, 솔로몬은 왕을 하나님과 함께 묶어 왕이 어떤 거룩한 공경과 위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바울에게도 저 빼어난 말씀이 있습니다.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백성이 군주와 관리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만 그들에게 복종하여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마치 저항하면 보복이 곧 닥칠 것을 보는 자들이 무장한 적에게 굴복하듯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바치는 순종은 하나님 자신께 바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것이 따라 나옵니다. 곧 백성은 기꺼이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기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칙령을 따라야 하든, 조세를 내야 하든, 공동의 방위와 관련된 공적인 직무와 짐을 져야 하든, 그 밖의 어떤 명령을 수행해야 하든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제도를 거스르는 것이다.” 같은 바울이 디도에게 씁니다(딛 3). “너는 그들을 일깨워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게 하라.” 베드로도 말합니다(벧전 2). “주를 위하여 사람의

모든 피조물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왕에게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도록 그가 보낸 총독들에게나 그리하라."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이 복종을 꾸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자기가 그 아래서 사는 자들의 안녕과 번영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라고 덧붙입니다(딤전 2). 그는 말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곧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 함이라."

CO 243 여기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위정자를 거스르면 동시에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무장하지 않은 위정자는 벌받지 않고 멸시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장하고 계셔서 당신을 멸시한 것을 강하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또 저는 이 순종 아래, 사사로운 사람들이 공적인 일에서 스스로 지켜야 할 절제를 포함시킵니다. 곧 그들은 스스로 나서서 공적인 일에 끼어들거나, 경솔하게 위정자의 몫에 뛰어들거나, 공적으로 무엇이든 꾀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질서에서 무엇인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들 자신이 소란을 일으키거나 그 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들의 손은 모두 묶여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는 위정자의 손만 풀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뜻하는 것은, 그들이 명령받지 않은 일을 아무것도 감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리의 명령이 더해지면, 그때는 그들 자신도 공적인 권위를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군주의 고문들을 군주의 귀와 눈이라 부르듯이, 군주가 자기 명령으로 일을 맡긴 자들을 군주의 손이라 부르는 것도 어리석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묘사한 위정자는 그 이름에 참으로 걸맞은 위정자, 곧 나라의 아버지요, 시인의 말대로 백성의 목자, 평화의 수호자, 의의 보호자, 무죄한 자의 옹호자입니다. 그런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미쳤다고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시대에 이런 본보기가 있습니다. 군주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마땅히 힘써 돌보아야 했던 모든 것에 무관심하여, 모든 염려를 멀리한 채 게으르게 쾌락에 빠집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여, 모든 권리와 특권과 판결과 특허장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한 백성의 돈을 짜내어 나중에 미친 듯한 선심으로 쏟아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집을 약탈하고, 처녀와 부인을 욕보이고, 무죄한 자들을 죽이면서 그야말로 강도질을 일삼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군주로 인정해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위정자의 직무뿐 아니라 사람의 의무와도 아주 동떨어진 이토록 큰 부당함과 악행 가운데서, 그들은 위정자에게서 빛나야 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조금도 보지 못하고, 선한 자들에게는 칭찬이 되고 악한 자들에게는 보응이 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자의 흔적을 조금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 위엄과 권위를 권하는 그 관리를 거기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합법적인 왕들을 사랑과 공경으로 대하는 것 못지않게 폭군들을 미움과 저주로 쫓는 감정이 늘 타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본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더 멀리 이끌어, 자기 직무를 정직하게, 마땅한 신실함으로 수행하는 군주들의 통치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잡은 모든 자의 통치에 복종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군주의 직무로서 해야 했던 것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위정자가 사람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당신의 선하심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증언하시고, 위정자들 자신에게 그 한계를 정해 주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어떠하든 오직 당신께로부터만 통치권을 받는다고 선언하십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 다스리는 자들은 당신의 선하심의 참된 본보기요 표본이고, 불의하고 방자하게 지배하는 자들은 백성의 죄악을 벌하시려고 당신께서 일으키신 자들이며, 모두가 똑같이, 당신께서

합법적인 권세에 갖추어 주신 그 거룩한 위엄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증언 몇 가지를 덧붙이기 전에는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욥 34; 호 13; 사 10).

그렇지만 불경건한 왕이 땅 위에 내린 주님의 진노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신의 재산을 약탈하는 강도나, 당신의 침상을 더럽히는 간음한 자나, 당신을 죽이려고 노리는 자객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왕에 대해 더 많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헤아리기 때문입니다(신 28).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데 더 힘을 기울입시다. 곧 가장 악하고 모든 영예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세를 쥐고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의와 심판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저 빼어나고 신적인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백성은 (공적인 순종에 관한 한) 가장 좋은 왕이 주어진다면 그에게 돌릴 것과 같은 존중으로 그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독자들이, 성경에서 까닭 없이 그토록 자주 우리에게 언급되는 것, 곧 나라들을 나누어 주시고 당신께서 좋게 여기시는 자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활동을 주의하여 부지런히 살피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이렇게 있습니다(단 2). “주께서 때와 시기를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며 세우신다.” 또 이렇게 있습니다(단 4). “이는 살아 있는 자들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곳곳에 이런 말씀으로 넘치지만, 저 예언서는 특히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었는지는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곧 남의 것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데 부지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겔 29) 그가 애굽을 황폐하게 하는 일로 당신을

섬긴 수고의 대가로 그에게 애굽 땅을 주었다고 단언하십니다. 다니엘도 그에게 말했습니다(단 2). "왕이여, 왕은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강하고 굳세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셨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에게 주셨고, 사람의 아들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사는 모든 땅을 왕의 손에 넘기사 왕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또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도 말했습니다(단 5).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예와 영광을 주셨고, 그분이 그에게 주신 큰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과 지파와 언어가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나이다."

CO 245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동시에 왕을 존대하고 경외하라는 저 하늘의 칙령들을 마음에 되새깁시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악한 폭군이라도 주님께서 그를 높여 두신 그 자리에 두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자기 왕들에게서 어떤 일을 당할지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삼상 8).[121] "너희를 다스릴 왕의 권리는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에 두고 자기 기병으로 삼으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곡식을 거두게 하며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요,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을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요,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가장 좋은 감람원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너희 남종과 여종과 나귀를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너희 양 떼의 십분의 일도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되리라." 분명 왕들은 이런 일을 정당한 권리로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모든 절제로 가장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신 17). 그러나 그것이 백성에 대한 권리라고 불린 것은, 백성이 그것에 순종해야 하고 저항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121. 원문은 "(1 Sam.:" 으로 장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은 삼상 8:11–17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왕들의 방자한 욕망은 이런 데까지 내달을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남은 것은 이 한 가지, 곧 명령을 받아들이고 말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레미야서에 뛰어나고 기억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렘 27). 그 대목은 조금 길지만, 이 문제 전체를 가장 분명하게 결정해 주므로 옮겨 적기를 꺼리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큰 능력과 펴진 팔로 땅과 사람과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을 만들었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자에게 그것을 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니, 모든 민족과 큰 왕들이 그의 땅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를 섬길 것이다. 그를 섬기지 아니하며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두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내가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므로 바벨론 왕을 섬기고 살라.”

우리는 주님께서 저 흉악하고 사나운 폭군을 얼마나 큰 순종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는지 봅니다. 다른 까닭이 아니라, 그가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작정으로 나라의 왕좌에 세워지고, 범해서는 안 될 왕의 위엄으로 들어 올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바로 그 작정으로 가장 악한 왕들도 세워진다는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과 눈앞에 있다면, 왕은 그 공과에 따라 대해야 한다거나, 거꾸로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백성 노릇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저 반역의 생각들이 결코 우리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선지자에게 주님의 다른 명령도 있습니다(렘 29). 그 명령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이 사로잡혀 끌려간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을 위해 당신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성의 평안에 그들의 평안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집에서 뜯겨 나가고, 유배로 쫓겨나고, 비참한 종살이에 던져졌는데도 승리자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라는 명령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의 나라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존되어 그 아래서 그들 자신도 잘 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왕으로 지명되고 그분의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사울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받을 때, 자기를 노리는 자의 머리를 범할 수 없는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왕의 영예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삼상 24). "내가 주 앞에서 나의 주, 주의 메시야에게 이 일을 행하여 내 손을 들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라." 또 "내 마음이 너를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였노라." 또(삼상 26) "누가 손을 들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고 죄가 없겠느냐?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주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의 날이 이르러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망하든지 할 것이라. 내가 손을 들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공경의 마음, 아니 경건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관리에게, 그들이 결국 어떤 자들이든 바쳐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주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 자체를 캐묻지 말고, 그들이 주님의 뜻으로 그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으로 넉넉히 여기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께서 그 직분에 범할 수 없는 위엄을 찍어 새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관리들도 자기 백성에게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에서, 정의로운 통치에만 순종을 돌려야 한다고 결론짓는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추론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서로의 의무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남편이 자기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합시다.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엡 6)

자녀들에게 아주 모질고 다루기 힘든 사람이 되어 그 까다로움으로 그들을 지나치게 지치게 한다고 합시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연약한 그릇처럼 아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엡 5; 벧전 3) 아내를 몹시 모욕적으로 대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덜 순종하겠습니까? 그들은 악하고 의무를 저버리는 자들에게도 복종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등 뒤에 매달린 자루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곧 서로 남의 의무를 캐묻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직분에 속한 것만을 자기에게 지워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잔인한 군주에게 잔혹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탐욕스럽거나 방탕한 군주에게 탐욕스럽게 약탈을 당하거나, 게으른 군주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거나, 끝으로 불경건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군주에게 경건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기억합시다. 그런 죄는 의심할 것 없이 주님의 이런 채찍으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단 9). 다음으로 이런 생각도 떠올립시다. 이런 악을 고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왕들의 마음과 나라들의 기울어짐은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잠 21). CO 247 그분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고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지 않은 땅의 모든 왕과 재판관은 넘어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법을 기록하여, 재판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낮은 자들의 송사를 억지로 굽게 하며, 과부를 약탈물로 삼고 고아를 강탈한 자들입니다(시 82; 시 2; 사 10). 그리고 여기서 그분의 놀라운 선하심과 능력과 섭리가 드러납니다. 그분은 때로는 당신의 종들 가운데서 드러난 보복자들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명령으로 그들을 무장시키셔서, 그들이 악한 지배를 벌하고 불의하게 억눌린 백성을 비참한 재앙에서 건져 내게 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꾀하는 사람들의 광포를 그 일에 쓰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바로의 폭정에서(출 3), 옷니엘을 통해 아람 왕 구산의 폭력에서(삿 2 이하), 다른 왕들이나 사사들을 통해 다른 종살이에서 자유로 건져 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앗수르 사람들을 통해 애굽 사람들의 오만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 두로의 교만을,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통해 바벨론의 사나움을,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배은망덕을 꺾으시고 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앞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합법적인 부르심으로 불려 나왔으므로, 왕들을 칠 때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왕들에게 주어진 위엄을 조금도 범하지 않았고, 다만 더 큰 권세로 더 작은 권세를 억눌렀습니다. 왕들이 자기 총독들을 벌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분께서 좋게 여기신 곳으로 정해졌고 알지 못하는 채 그분의 일을 이루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악행 말고는 아무것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어떻게 평가되든,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똑같이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만한 왕들의 피 묻은 홀을 꺾으시고, 견딜 수 없는 지배를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군주들은 듣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엄한 칙령으로 확정하신, 공경할 만한 위엄으로 가득한 위정자의 저 권위를 멸시하거나 범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권위가 가장 합당하지 않은 자들, 자기 악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 권위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방자한 지배를 바로잡는 것이 주님의 보복이라 해서, 그 일이 곧바로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고 견디라는 것 말고는 아무 명령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사로운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왕들의 방자함을 억제하도록 세워진 백성의 관리들이 있다면, 곧 옛날 스파르타의

왕들에게 맞서 세워졌던 에포로스나, 로마의 집정관들에게 맞서 세워졌던 호민관이나, 아테네의 원로원에 맞서 세워졌던 데마르코스 같은 이들이 있다면,[122] 그리고 오늘날 사정으로는 각 나라에서 세 신분이 주요 회의를 열 때 아마도 그런 권세를 행사할 터인데, 저는 그들이 직분에 따라 왕들의 사나운 방자함에 맞서 나서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들이 방자하게 날뛰며 낮은 백성을 짓밟는데도 그들이 눈감아 준다면, 저는 그들의 모른 체함에 극악한 배신이 없지 않다고 단언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백성의 자유의 수호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유를 속여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들의 명령에 바쳐야 한다고 정한 순종에서는 언제나 이것을 예외로 두어야 하고, 아니 무엇보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곧 그 순종이 우리를 그분께 대한 순종에서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왕의 소원은 그분의 뜻 아래 있어야 마땅하고, 그들의 명령은 그분의 작정에 물러서야 마땅하며, 그들의 권표는 그분의 위엄 앞에 숙여져야 마땅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바로 그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분의 노여움을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뒤바뀐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한 입을 여시면, 그분 한 분의 말씀을 모든 사람 대신에, 또한 모든 사람 위에 들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지만, 오직 그분 안에서만 복종합니다. 그들이 그분을 거슬러 무엇을 명령한다면, 그것은 아무 자리도, 아무 값도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정자들이 지닌 저 위엄 전체를 조금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 위엄이 하나님의 저 독특하고 참으로 지극히 높은 권세 앞에서 제자리로 물러서게 된다고 해서, 그 위엄에 아무 불의도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굳셈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122. 에포로스(Ephori)는 스파르타에서 해마다 뽑던 다섯 명의 감독관이고, 호민관(tribuni plebis)은 로마에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던 관리이며, 데마르코스(Demarchi)는 아테네의 구(區)의 장입니다.

가까운 위험이 닥쳐 있는지 압니다. 왕들은 자기가 멸시당하는 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며, 솔로몬의 말대로 그들의 노여움은 죽음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잠 16). 그러나 하늘의 전령 베드로가 이 칙령을 선포했으므로(행 4),[123]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합시다. 곧 우리가 경건에서 벗어나느니 차라리 무엇이든 견딜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은 또 다른 박차를 가합니다(고전 7).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토록 큰 값으로, 곧 우리의 구속이 그분께 치르게 한 그만큼의 값으로 구속받은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비뚤어진 욕망에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하물며 불경건에 내주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끝.

123. 이 문구 그대로의 말씀은 행 5:29에 있습니다. 행 4:19에도 같은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1539–1554년판 · 표제, 독자에게 드리는 글, 프랑수아 1세에게 드리는 헌정 서문

1539–1554년판 표제, 독자에게 드리는 글, 프랑수아 1세에게 드리는 헌정 서문

CO 1:253–27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253 기독교 강요.

저자 요한 칼빈.

처음 판과 마지막 판 사이의 판들, 곧 1539년, 1543년, 1545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또 1550년, 1553년, 1554년에 제네바에서 인쇄된 판들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대조하여 보임.

요한 칼빈이 독자에게.

이 저작의 첫 판에서 저는,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주신 그런 성공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저작에서 흔히 그러듯이 대부분을 가볍게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거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제가 감히 소원으로 바라기는커녕 기대조차 하지 못했을 만한 호의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받을 만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진심으로 제게 돌려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 그토록 기울어 있고 스스로 저의 수고를 청하는 그 열심에, 적어도 저의 보잘것없는 힘이 닿는 만큼이라도 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큰 배은망덕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배우려는 이들에게 이 새 저작에 대해, 그들이 아직 그럴 자격이 없던 저에게 이미 전에 베풀어 준 호의 말고 다른 호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호의에 그만큼 매여 있으므로, 마땅히 갚아야 할 감사를 서투르지 않게 갚는 것으로 보이기만 하여도 제게는 넉넉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의 두 해 내내 저를 놀라운 방식으로 단련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일을 얼마쯤 더 일찍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잘되었다면 충분히 빠른 것입니다. 이 책이 주님의 교회에 어떤 열매를 가져다주었다고 느낄 때, 저는 그때에야 이 책이 알맞은 때에 나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수고에서 제가 목표로 삼은 것은, 거룩한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쉽게 들어가고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갖추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건(religion)의 요체를 모든 부분에 걸쳐 이렇게 담아 내고 또한 그런 순서로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것을 바르게 붙잡는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가장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에 담긴 것은 무엇이든 어떤 목표에 연결해야 하는지를 정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를테면 길이 닦였으니, 앞으로 제가 성경 주석을 펴낸다면 교리에 관한 긴 논의를 벌이거나 공통 주제로 벗어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그것들을 언제나 간결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건한 독자는, 이 저작을 아는 지식을 이를테면 필요한 도구로 삼아 미리 갖추고 오기만 한다면, 큰 수고와 싫증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주석이 이 계획의 본보기를 보여 줄 것이므로,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로 자랑하기보다 실제로 보여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저의 수고에서 어떤 열매를 얻는다면, 주님 앞에서 그대의 기도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스트라스부르에서, 1539년 8월 1일.

아우구스티누스, 편지 7.

저는 나아가면서 쓰고 쓰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군주, 프랑스 사람들의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왕, 자기의 군주이자 받들어 모실 주인이신 프랑수아께, 요한 칼빈이 주 안에서 평강과 구원을 빕니다.

지극히 고명하신 왕이시여, 제가 이 저작에 처음 손을 댈 때, 나중에 폐하

께 바칠 글을 쓰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경건의 열심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참된 경건으로 빚어지도록 몇 가지 기초를 전해 주려는 뜻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고를 무엇보다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 땀 흘려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주리고 목말라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조금이라도 바르게 배운 사람은 아주 적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목적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하고 초보적인 가르침의 방식에 맞추어진 이 책 자체가 말해 줍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악한 자들의 광포가 폐하의 나라에서 너무 기세를 떨쳐 그곳에는 건전한 교리가 설 자리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수고로, 그들에게는 가르침을 주고 폐하 앞에서는 신앙고백을 펴내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칼과 불로 폐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저 미친 자들이 그토록 사납게 불타오르며 공격하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 폐하께서 이것으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그 교리의 요체를 거의 다 담았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 교리를 감옥과 추방과 재산 몰수와 화형으로 벌해야 한다고, 땅과 바다에서 쓸어 없애야 한다고 외쳐 댑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 사건을 폐하께 가장 밉살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끔찍한 고발로 폐하의 귀와 마음을 채웠는지 압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폐하의 관용으로 이것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고발하는 것으로 넉넉하다면, 말에서도 행위에서도 무죄함이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누가 미움을 사게 하려고, 제가 폐하께 그 이치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이 교리가 모든 신분의 표결로 정죄되었고 법정의 많은 판결로 오래전에 꿰찔렸다고 핑계를 댄다면, 그는 이 교리가 한편으로는 대적들의 당파와 권력으로 폭력적으로 쓰러졌고, 한편으로는 거짓말과 술책과 중상으로 음흉하고 교활하게 억눌렸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리에 맞서 변론도 듣지 않고 피에 굶주린 판결을 내리는 것이 폭력이

요, 그 교리가 받아 마땅하지 않은 반란과 악행의 죄를 뒤집어쓰는 것이 속임수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부당하게 이런 불평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지극히 고귀하신 왕이시여, 폐하 자신이 우리의 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교리가 날마다 폐하 앞에서 얼마나 거짓된 중상으로 비방을 받는지 폐하께서 아십니다. 그들은 이 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왕들의 손에서 홀을 빼앗고, 모든 법정과 재판을 무너뜨리며, 모든 신분과 국가 질서를 뒤엎고, 백성의 평화와 평온을 어지럽히며, 모든 법을 폐지하고, 소유권과 재산을 흩어버리고, 끝내는 모든 것을 위아래로 뒤집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는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조각만 들으십니다. 백성 사이에는 어떤 끔찍한 말들이 퍼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온 세상이 그 교리와 그 교리를 세운 사람들을 천 번의 화형과 천 번의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극히 불공정한 고발들을 믿는 곳에서, 그 교리를 향해 공공의 미움이 불붙었다고 누가 놀라겠습니까? CO 259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든 신분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리를 정죄하는 데 뜻을 모으고 공모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재판석에 앉은 자들은 집에서 가지고 온 선입견을 판결로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이나 확실한 증언으로 유죄가 입증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형벌로 끌어가라고 명하지 않으면, 자기 몫을 바르게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죄로 유죄란 말입니까? 그들은 "정죄된 그 교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슨 권리로 그 교리가 정죄되었습니까? 그런데 변호의 방패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곧 교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된 것으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중얼거릴 기회마저 잘려 나갑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적이신 왕이시여, 저는 폐하께서 이 사건을 온전히 심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혼란스럽게, 아무 법의 절차도 없이, 합당한 무게보다는 걷잡을 수 없는

열기로 다루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들볶여 왔습니다.

폐하께서는 제가 여기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사사로운 변명을 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땅한 인정의 마음으로 고국을 그리워하기는 하지만, 지금 사정으로는 고국을 떠나 있는 것을 괴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공동의 사건, 아니 그리스도 자신의 사건을 떠맡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폐하의 나라에서 온갖 방식으로 찢기고 짓밟혀, 이를테면 가망 없는 것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폐하께서 아셔서라기보다 어떤 바리새인들의 폭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 그 사건은 짓눌려 쓰러져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이렇게까지 해냈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진리는, 쫓겨나 흩어져서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분명 묻혀서 이름 없이 숨어 있습니다. 가련한 교회는 잔인한 살육으로 삼켜지거나, 추방으로 쫓겨나거나, 위협과 공포로 얻어맞아 입도 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하던 대로 미친 듯 사납게 여전히 밀어붙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벽과 자기들이 만든 무너진 더미를 힘껏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런 광포에 맞서 자기 보호를 내세우며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를 가장 편드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해도,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의 오류와 경솔함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 온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아는 것을 오류와 경솔함이라고 부르고, 주님께서 하늘 지혜의 비밀을 주실 만큼 그 성품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그들이 보는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지극히 평온하신 왕이시여, 이토록 정당한 변호에서 귀와 마음을 돌리지 않는 것이 폐하의 몫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토록 큰 일, 곧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을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자기 존엄을 지킬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존될지가 걸려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일은 폐하의 귀에 걸맞고, 폐하의 심리에 걸맞으며, 폐하의 법정에 걸맞습니다. 참된 왕을 만드는 것은,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려고 다스리지 않는 자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강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홀, 곧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가 오래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그치는 곳에서는 백성이 흩어지리라고 선포한 하늘의 신탁은 무너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잠 29:18). 우리의 비천함을 멸시하여 폐하께서 이 열심에서 떠나셔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천한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죄인들이요,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멸시받는 자들이며, (폐하께서 그렇게 부르고자 하신다면) 세상의 찌끼요 버린 것이요, 또 이보다 더 천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자비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말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는 그 연약함을 고갯짓으로 인정하는 것조차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리는 세상의 모든 영광 위에 높이 서야 하고, 모든 권세 위에 꺾이지 않고 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곧 쇠와 놋의 힘을 지니고 금과 은의 광채를 지닌 온 땅을 당신의 입의 막대기 하나로만 쳐서, 질그릇을 부수듯 부수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분 나라의 위엄에 대해 예언하는 그대로입니다(단 2; 사 11; 시).[124]

124. 원문에는 시편의 편수가 빠져 있습니다.

CO 261 그런데 대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내세운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장 악하게 변조하는 자들이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의적인 중상일 뿐 아니라 놀라운 뻔뻔함인지는, 폐하께서 우리의 신앙고백을 읽으시면서 폐하의 지혜로 친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무엇인가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폐하께서 그 고백을 읽으시도록 열심과 주의를 일깨우거나, 적어도 길을 닦아 드릴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예언이 믿음의 분수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했을 때(롬 12:6), 성경 해석을 검증해야 할 가장 확실한 잣대를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것을 이 믿음의 규칙에 비추어 본다면, 승리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옷 입혀지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벗겨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분께 채워지도록 모든 선이 비어 있음을, 그분께 해방되도록 우리가 죄의 종임을, 그분께 비추임을 받도록 우리가 눈멀었음을, 그분께 이끌림을 받도록 우리가 저는 자임을, 그분께 붙들림을 받도록 우리가 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랑하도록 우리에게서 자랑할 거리를 모두 빼앗는 것보다, 믿음에 더 좋고 더 알맞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과 그 밖의 같은 종류의 것들을 말하면, 저들은 끼어들어, 이런 식으로는 무엇인지 모를 저 눈먼 본성의 빛과, 꾸며 낸 준비와, 자유의지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공로가 되는 행위들이 그 여공(餘功)들과 함께 뒤엎어진다고 아우성칩니다.[125] 그들은 모든 선과 능력과 의와 지혜의 칭송과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수의 샘에서 너무 많이 길었다고 꾸중을 들은 자들에 대해 읽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위해 웅덩이, 곧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자들은 엄하게 책망을 받습니다(렘 2:13). 또 그리스도를 형제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125. 여공(supererogatio)은 계명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여 남는 공로를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기까지 나아간 그분께 모든 기쁘고 형통한 것을 안심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그런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셨다고 생각할 때 구원과 영생을 확실하게 기대하며 평안히 쉬는 것보다, 믿음에 더 맞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저들은 우리에게 손을 대며, 그런 신뢰의 확신에 오만과 주제넘음이 없지 않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빼앗기는 것도 다른 까닭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극히 용맹하신 왕이시여, 우리 사건의 모든 부분을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딤전 4:10),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17:3) 이렇게 수고하고 욕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를 어떤 악인들보다도 더 사악한 자로 여기십시오. 이 소망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사슬에 묶이고, 어떤 이들은 매를 맞고, 어떤 이들은 조롱거리로 끌려다니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떤 이들은 가장 잔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도망하여 빠져나갑니다. 우리 모두는 궁핍에 짓눌리고, 끔찍한 저주로 바쳐지고, 욕설로 찢기고, 가장 부당한 방식으로 대우받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적들을 보십시오(저는 제사꾼 계급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고갯짓과 뜻에 따라 우리와 원수가 되어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열심에 이끌리는지 저와 함께 잠시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전해져 있고 모든 사람 사이에 확고해야 했던 참된 경건을, 자기도 다른 사람도 모르고 소홀히 하고 멸시하도록 쉽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들 말대로 암묵적 믿음(fides implicita)으로 자기 생각을 교회의 판단에 맡기기만 한다면, 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붙들든 붙들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신성모독으로 더럽혀지더라도, 누가 사도좌의 수위권과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권위를 거슬러 손가락 하나만 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다지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미사와 연옥과 순례와 이런 종류의 하찮은 것들을 위해 그토록 잔혹하고 독하게 싸우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가장 명시적으로 믿지 않으면 경건이 안전하지 못하리라고 부정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고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배가 신이요 부엌이 경건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없애 버리면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 아니라 사람조차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CO 263 어떤 이들은 호화롭게 배를 채우고 어떤 이들은 얇은 과자 부스러기로 겨우 살아가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솥에서 먹고 삽니다. 그 솥은 저런 불쏘시개가 없으면 식을 뿐 아니라 아주 얼어붙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저마다 배를 가장 염려하는 만큼 자기 믿음을 위해 가장 맹렬히 싸우는 자로 드러납니다. 끝으로 그들은 모두 오직 이 한 가지에 힘을 기울입니다. 곧 자기 나라를 손상 없이 지키거나 자기 배를 가득 채워 두려는 것입니다. 진실한 열심을 조금이라도 보여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교리를 공격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 교리를 밉게 보이게 하거나 의심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온갖 이름으로 고발하고 헐뜯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새롭고 최근에 태어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의심스럽고 불확실하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적으로 확증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많은 거룩한 교부들의 일치와 가장 오래된 관습을 거슬러 이기는 것이 공평하냐고 따집니다. 우리가 그것이 교회를 거슬러 싸움을 일으키는 분열적인 교리라는 것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여러 세기 동안 교회가 죽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몰아붙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많은 논증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교리가 그토록 많은 분파 더미와 그토록 많은 반란의 소동과 그토록 큰 악덕의 방종을 낳았으니,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믿고 무지한 무리 앞에서 버림받은 사건을 조롱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말할 차례가 번갈아 주어진다면, 그들이 이렇게 입을 한껏 부풀려 방자하게 또 벌받지도 않고 우리를 향해 거품을 내뿜는 이 독기는 분명 식어 버릴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그것을 새롭다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은 새로움의 혐의를 받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도 새롭고 복음도 새로운 그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데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바울의 저 설교가 오래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롬 4:25), 우리에게서 새로운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고 묻혀 숨어 있었던 것은 사람의 불경건의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적어도 귀환권(postliminium)에 따라 그 옛 지위를 되찾아야 마땅했습니다.[126] 같은 무지의 샘에서, 그들은 그것을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당신의 백성은 당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사 1:3). 그러나 그들이 그 교리의 불확실함을 아무리 비웃더라도, 만일 그들이 자기 교리를 자기 피와 목숨을 잃어 가며 인쳐야 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값지게 여기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그와 아주 다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도, 아니 하나님의 심판대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26. 귀환권(postliminium)은 로마법에서 적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나 빼앗겼던 물건이 돌아오면 이전의 권리와 지위를 되찾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는 어떤 새 복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일찍이 행한 모든 이적이 그 진리를 확증하는 데 쓰인 바로 그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이적으로 자기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을 남다른 것으로 내세웁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잘 안정되어 있을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적들을 내세웁니다. 그 이적들은 그만큼 하찮고 우스꽝스럽거나, 헛되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것들이 아주 놀라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 무게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적으로든 자연의 질서로든 어디서나 언제나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적의 목적과 합당한 쓰임에 대해 우리를 일깨워 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속임수는 아마 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사도들의 설교에 따른 표적들이 그 설교를 확증하려고 행해졌다고 가르칩니다(막 16:20). 누가도,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행 14:3). 사도의 저 말씀도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히 2:4). 전해진 복음으로 구원이 확증되었고,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함께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인장이라고 듣는 것들을 복음에 대한 믿음을 허무는 데 돌리겠습니까? 오직 진리를 인치도록 정해진 것들을 거짓을 확증하는 데 갖다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서 기자가 앞선다고 말하는 교리를 먼저 살피고 검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교리가 인정을 받으면, 그때에야 비로소 마땅히 이적에서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듯, 바른 교리의 표지는 이것입니다. 곧 그 교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CO 265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교리의 검증이라고 주장하시므로(요 7:18; 8:50),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 말고 다른 데로 끌어가는 이적

들은 그릇되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탄에게도 자기의 이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참된 능력이라기보다 눈속임이지만, 경솔하고 무지한 자들을 속일 만한 것입니다. 마술사와 주술사들은 언제나 이적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우상 숭배를 길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마술사의 미신도, 우상 숭배자의 미신도 우리에게 인정받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도나투스파는 자기들이 이적으로 힘을 떨친다는 이 공성퇴로 백성의 단순함을 흔들었습니다.[127]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대적들에게,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에게 대답한 것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곧 주님께서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자들까지 오류로 이끌 거짓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때(마 24:24), 이 이적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도록 우리를 일깨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모든 능력과 거짓 표적과 기사와 함께 오리라고 경고했습니다(살후 2:9).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이적들은 우상에게서도, 악한 마술사들에게서도,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도 아니라 성인들에게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그의 술책이라는 것을 모르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고후 11:14). 예전에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 가운데 묻힌 예레미야를 제사와 그 밖의 신적인 영예로 섬겼습니다.[128]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우상 숭배에 악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무덤을 그렇게 공경하여 뱀에게 물린 데서 낫는 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거짓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운 보응이었고 언제나 그러하리라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살후 2:10–11)?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적이 결코 모자

127. 도나투스파는 4–5세기 북아프리카에서 박해 때 배교한 성직자의 성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갈라져 나간 무리입니다.
128. 원문 파일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는 이 이야기의 출처로 히에로니무스의 예레미야서 서문을 듭니다.

라지 않으며, 그것은 확실하고 트집 잡힐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위해 내세우는 것들은 그야말로 사탄의 미혹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백성을 그들 하나님의 참된 예배에서 헛된 것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교부들을 중상하듯 우리에게 들이댑니다(저는 옛 저술가들, 아직 더 나은 시대의 저술가들을 말합니다). 마치 그들이 교부들을 자기 불경건의 지지자로 삼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만일 교부들의 권위로 이 싸움을 판가름해야 한다면, (가장 겸손하게 말하더라도) 승리의 더 큰 몫은 우리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교부들은 많은 것을 훌륭하고 지혜롭게 썼지만, 어떤 것들에서는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경건한 아들들은, 자기들의 재능과 판단과 마음의 솜씨대로, 교부들의 실수와 오류만을 숭배합니다. 잘 말해진 것은 보지 않거나, 모른 체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금 속에서 똥을 주워 모으는 데만 마음을 쓴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교부들을 멸시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라고 하며 악한 고함으로 덮어씌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부들을 조금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획에 속한 일이라면, 저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의 더 큰 부분을 교부들 자신의 지지로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부들의 글을 다루면서 언제나 이것을 기억합니다. 곧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어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고(고전 3:21), 그분께는 모든 일에서 예외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경건에서 아무것도 확고하게 세워 두지 못할 것입니다. 저 거룩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몰랐고, 자주 서로 충돌하며, 때로는 자기 자신과도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우리 조상들이 세운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일깨운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잠 22:28). 그러나 밭의 경계에 관한 규칙과 믿음의 순종에 관한 규칙은 같지 않습니

다. 믿음의 순종은 자기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도록 갖추어져야 합니다(시 45:10).[129] 그들이 그토록 풍유로 해석하고 싶어 한다면, 왜 다른 어떤 교부들보다 오히려 사도들을, 그 정해 둔 경계표를 뽑아 버려서는 안 될 조상들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히에로니무스가 이렇게 해석했고, 그들은 그의 말을 자기들의 교회법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뜻하는 그 조상들의 경계표가 고정되어 있기를 원한다면, 왜 그들 자신은 마음 내킬 때마다 그토록 방자하게 그것을 넘습니까?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니 잔도 접시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말했고,[130] 다른 한 사람은 거룩한 일은 금을 구하지 않으며 금으로 사지 않는 것은 금으로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131] CO 267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일에서 금과 은과 상아와 대리석과 보석과 비단을 그토록 즐기고, 모든 것이 정교한 광채로, 아니 오히려 미친 사치로 넘쳐흐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예배받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경계를 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삼가던 날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다고 말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순절 동안 고기를 맛본 영혼을 끔찍한 저주로 바칠 때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수도사는 폭력배, 아니 원한다면 강도와 같은 자로 판단된다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수도사들이 관상과 기도와 학문에 부지런하더라도 남의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의 재산으로 배를 채우는, 게으르고 술통 같은 수도사들의 배를 소굴과 사창가 같은 곳에 자리 잡게 했을 때 이 경계도 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든 어떤 성인의 형상이든 그리스도인의 예배당에 그려진 것을 보는 것은 끔찍한 가증한

129. 원문은 "시 45:11"입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개역한글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130. 원문 파일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 아카키우스, 『삼부 교회사』(Historia tripartita) 11권 16장.
131. 원문 파일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 암브로시우스, 『직무론』 2권 28장.

일이라고 말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로만 선언된 것이 아니라, 예배받는 것을 벽에 그려서는 안 된다고 교회 회의에서도 결정되었습니다.[132] 그들은 형상으로 채우지 않은 구석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니, 이 경계 안에 머물기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교부는 장례 때 죽은 이들에게 인정의 의무를 다한 뒤에는 그들을 쉬게 두라고 권했습니다.[133] 그들은 죽은 이들에 대한 끝없는 염려를 사람들에게 불어넣을 때 이 경계를 깨뜨립니다. 교부들 가운데 성찬의 성례에는 참된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몸의 비밀이 있을 뿐이라고 부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134] 그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몸이 거기에 장소적으로 둘러싸여 담겨 있다고 꾸며 낼 때 한도를 넘어갑니다.[135]

온 교회 전체에 성찬을 베풀었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136] 그들은 거기서 악하고 흉악한 자들을 물리쳤듯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아주 엄하게 정죄했습니다. 이들은 이 경계를 얼마나 멀리 옮겨 버렸습니까? 그들은 예배당뿐 아니라 사사로운 집까지 자기들의 미사로 채우고, 누구든 그것을 구경하도록 들여보내며, 각 사람이 아무리 더럽고 흉악하더라도 돈을 많이 낼수록 더 기꺼이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례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일로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일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대신 팔아먹습

132. 원문 파일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 엘비라 회의 제36조.
133. 원문 파일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 암브로시우스, 『아브라함에 관하여』 1권 9장.
134. 원문 파일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 교황 겔라시우스, 로마 회의.
135. 원문 파일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에 따르면, 1543년판부터는 이 두 문장 대신 다음 글이 실렸습니다. “교부들 가운데, 그리스도 주님 안에 사람의 실체와 본성이 신성과 결합되어 남아 있듯이,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렇게 남아 있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낭송하면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바뀌고 없어져서 몸과 피로 화체된다고 꾸며 내는 자들은 한도를 넘어갑니다.”
136. [원문의심] 원문은 “toti universae ecclesiae unqni duntaxat eucharistiam” 으로 깨져 있습니다. “unqni” 는 읽을 수 없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니다.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한 가지 종류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종류를 삼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의 사용에서 완전히 물리쳐야 한다고 결정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백성이 그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 자기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으니 그 주님의 피를 그들에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힘차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한 교부가 출교로 벌하고 다른 교부가 강한 이유로 배척한 바로 그것을 범할 수 없는 법으로 명했을 때, 이 경계표들도 없애 버렸습니다. 성경의 분명하고 뚜렷한 증언 없이 모호한 일을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결정하는 것은 경솔함이라고 주장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이 그토록 많은 규정과 그토록 많은 교회법과 그토록 많은 선생들의 결정을 세웠을 때 이 경계표를 잊었습니다. 몬타누스를 그 밖의 이단들과 함께, 처음으로 금식의 법을 지웠다고 꾸짖은 교부가 있었습니다.[137] 그들은 금식을 가장 엄한 법으로 확정했을 때 이 경계표도 멀리 넘어섰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혼인을 금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자는 것을 정결이라고 선언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에 동의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제사꾼들에게 독신을 엄하게 명했을 때 이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하며, 우리보다 앞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거나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첫째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CO 269 그들은 이 경계를 자기 자신에게도 정해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 두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누구든 다른 사람을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선생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그리스도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참되게 판단하시지만, 교회의 재판관

137. 몬타누스(Montanus)는 2세기 소아시아에서 새 예언을 내세우며 엄격한 금식과 금욕을 요구한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들은 사람이므로 대개 속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경계도 깨뜨리고, 성경의 모든 권위가 교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모든 교부는 한마음으로 혐오하고 한 입으로 미워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궤변가들의 잔꾀로 더럽혀지고 변증가들의 싸움에 얽히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평생 끝없는 다툼과 궤변보다 더한 말싸움으로 성경의 단순함을 휘감고 가로막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꾀하지 않는 이들이 이 경계 안에 머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일 지금 교부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사변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런 말싸움의 기술을 듣는다면, 교부들은 하나님에 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는 조금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는 아들로 보이고 싶어 하는 그 교부들의 멍에를 그들이 얼마나 방자하게 벗어 던지는지 다 헤아리려 한다면, 저의 말은 마땅한 한도를 넘어 흘러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몇 달, 몇 해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옛 경계표를 넘는다고 감히 우리를 꾸짖을 만큼, 구제할 길 없는 몹쓸 뻔뻔함에 빠져 있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를 관습으로 불러 돌아가게 하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관습에 굴복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판단이 바르다면, 관습은 선한 사람들에게서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다르게 되는 일이 꽤 자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관습의 권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 더 나은 것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들 만큼 잘되어 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사사로운 악덕에서 대개 공공의 오류가 생겨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악덕에 대한 공통의 동의가 생겨났습니다. 이 선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 있는 사람은 봅니다. 악의 바다가 하나만 넘친 것이 아니라, 많은 치명적인 역병이 세상을 덮쳤고, 모든 것이 곤두박질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아예 가망 없는 것으로 여기든지, 그토록 큰 악에 손을 대야,

아니 오히려 힘을 가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치료책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악에 익숙해졌다는 까닭으로 쫓겨납니다. 사람의 사회에서는 공공의 오류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그분의 영원한 진리만을 듣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세월의 길이로도, 어떤 관습으로도, 어떤 공모로도 그 진리를 시효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전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사 8:12). 백성이 공모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공모라고 말하지 말라고, 곧 백성의 공모와 동의에 자기들도 함께 공모하지 말고,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며, 오히려 만군의 주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을 자기들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원하는 대로 지나간 세기들과 지금의 본보기들을 우리에게 들이대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만군의 주를 거룩하게 여긴다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세기가 같은 불경건에 동의했더라도, 삼사 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은 강하십니다. 온 세상이 함께 같은 악에 공모하더라도, 그분은 무리와 함께 죄짓는 자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작은 가족만 남기시고 온 인류를 홍수로 멸하셨을 때입니다. 노아는 자기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세상을 정죄했습니다(창 7:1; 히 11:7). 끝으로 악한 관습은 어떤 공공의 역병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무리 속에서 쓰러지는 자들도 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키프리아누스가 어디선가 말한 것을 헤아려야 마땅했습니다.[138] 곧 무지로 죄짓는 자들은 모든 허물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서받을 만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택으로 주어진 진리를 고집스럽게 물리치는 자들은 핑계 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양도 논법으로, 교회가 한동안 죽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138. 원문 파일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는 앞부분이 잘려 있고, "… 2권, 그리고 이단자들에게 세례 주는 일에 관하여 율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다른 번호 78)"만 읽힙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와 다투고 있다든지를 인정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이지만, 그렇게 세게 몰아붙이지는 못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살아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오른편에서 다스리시는 동안 살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손으로 붙들리고, 그분의 보호로 무장되며,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CO 271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의심할 것 없이 이루실 것입니다(마 28:20). 우리는 지금 그 교회를 거슬러 아무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자의 백성과 한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를, 모든 경건한 사람이 언제나 경배해 온 그대로 섬기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눈으로 보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결코 갇혀 있지 않은 경계 안에 교회를 가두려고 애쓸 때 진리에서 적잖이 빗나갑니다. 우리의 논쟁은 이런 돌쩌귀들 위에서 돌아갑니다. 첫째, 그들은 교회의 형태가 언제나 드러나 보이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그 형태 자체를 로마 교회의 좌(座)와 그 고위 성직자들의 위계에 둡니다.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는 아무 드러난 형태 없이도 존립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그들이 어리석게 감탄하는 저 외적인 광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표지, 곧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설교와 성례의 합당한 시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언제나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없으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 가운데서 교회가 아무 모양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일그러진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탄식했을 때(왕상 19:10),[139] 어떤 형태가 빛났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 교회는 얼마나 오랫동안 일그러진 채 숨어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얼마나 자주 전쟁과 반란과 이단으로 억눌려 어느 부분에서도 빛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그때 살았다면 교회가 있다고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 앞에 무릎을

139. 원문은 "1 Reg. 19, 11"입니다. 엘리야의 탄식은 왕상 19:10(과 14)에 있습니다.

꿇지 않은 칠천 명이 남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뒤로 언제나 땅에서 다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눈으로 어떤 두드러진 형태를 찾았다면, 그들은 곧바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힐라리우스는 이미 자기 시대에, 사람들이 감독의 위엄을 어리석게 감탄하는 데 사로잡혀 그 탈 밑에 숨어 있는 치명적인 괴물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악덕으로 여겼습니다.[140]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벽을 사랑하는 데 사로잡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붕과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경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것들 아래에 평화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것이 잘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것들 안에 앉으리라는 것이 의심스럽습니까? 저에게는 산과 숲과 호수와 감옥과 깊은 구렁이 더 안전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곳에 머물거나 거기 빠져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뿔 달린 감독들에게서 공경하는 것은, 유명한 도시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는 자들이 경건의 거룩한 수장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평가는 치워 버리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누가 당신의 사람인지 오직 그분만이 아시므로(딤후 2:19), 그분은 때로 당신 교회의 외적인 알아볼 표지를 사람들의 눈에서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땅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끔찍한 보응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경건이 그것을 받아 마땅하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서려고 애씁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나간 세기들에 사람들의 배은망덕을 보응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진리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당신의 빛을 꺼 버렸으므로, 그분은 그들이 눈먼 마음으로 터무니없는 거짓에 속고 깊은 어둠에 잠기도록 버려두셔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140. 힐라리우스(Hilarius, 315경–367)는 아리우스파에 맞선 푸아티에의 감독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그분은 흩어지고 숨어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오류와 어둠 한가운데서 멸망에서 지키셨습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분은 바벨론의 혼란 가운데서도, 맹렬히 타는 풀무 불 속에서도 지키실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형태를 무엇인지 모를 헛된 화려함으로 평가하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말을 끝없이 늘이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몇 마디로 가리켜 보이겠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좌를 차지한 교황과, 그에게서 고위 성직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축성된 자들은, 주교관과 목장(牧杖)으로 표시되기만 하면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류를 범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들이 교회의 목자들이요 주님께 축성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은 목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미 제사장으로 지명되었는데도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오류를 범했습니다(출 32:4).[141] 이 이치대로라면, 아합에게 거짓말을 한 저 사백 명의 선지자들이 어찌 교회를 대표하지 않았겠습니까(왕상 22:8)? CO 273 그러나 교회는 미가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있었고 멸시를 받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진리가 나왔습니다.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예레미야를 거슬러 일어나, 율법이 제사장에게서, 책략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말씀이 선지자에게서 끊어질 리 없다고 위협하며 떠들 때(렘 18:18), 그들은 교회의 이름과 얼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온 선지자 무리를 거슬러 예레미야 혼자 보내져서, 율법이 제사장에게서, 책략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말씀이 선지자에게서 끊어지리라고 주님께로부터 선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의논하려고 모은 저 공회에서도 그런 광채가 빛나지 않았습니까(요 12:19)? 이제 그들은 가서 외적인 탈에 매달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141. 원문은 “Exod. 32, JI”로 깨져 있습니다. 송아지를 만든 일은 출 32:4에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를 분열주의자로 만들고, 거꾸로 사탄의 사역자들을 성령의 도구로 만들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바젤 회의의 결정으로 에우게니우스가 교황직에서 쫓겨나 폐위되고 그 자리에 아마데우스가 대신 세워진 뒤로, 교회가 도대체 어느 민족과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직하게 제게 대답해 보십시오.[142] 그들은 터져 죽더라도, 그 회의가 외적인 의식에 관한 한 합법적이었으며 교황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소집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에우게니우스는, 그와 함께 회의를 해산하려고 꾀했던 추기경과 감독의 온 무리와 함께, 분열과 반역과 완고함의 죄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중에 군주들의 호의에 힘입어 교황직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보편적이고 거룩한 공의회의 권위로 정식으로 이루어진 아마데우스의 저 선출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 자신은 짖는 개가 던져 준 떡 한 조각에 잠잠해지듯 추기경 모자로 달래졌을 뿐입니다. 그 뒤에 나온 교황과 추기경과 감독과 수도원장과 사제는 모두 저 이단자들과 반역자들과 완고한 자들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붙잡혀 꼼짝 못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이름을 어느 편에 돌리겠습니까? 외적인 위엄에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던 그 회의가 보편 공의회가 아니었다고 부정하겠습니까? 그 회의는 두 교서로 엄숙하게 소집되었고, 로마 좌의 사절이 의장이 되어 축성되었으며,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잘 짜여 있었고, 끝까지 같은 위엄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에우게니우스가, 그리고 그에게서 모두 축성을 받은 그의 온 무리가 분열주의자였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의 형태를 달리 정의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몇 명이든 이단자들에게서 알면서도 기꺼이 서품을 받은 자들은 모두 우리에게 분열주의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교회가 외적인 화려함에

142. 바젤 회의(1431–1449)는 1439년 교황 에우게니우스 4세(Eugenius IV)를 폐위하고 사보이아 공작 아마데우스 8세(Amadeus)를 교황 펠릭스 5세로 세웠습니다. 펠릭스 5세는 1449년 물러나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이 전에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이 우리에게 그 넉넉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저 그럴듯한 칭호 아래 그토록 오랫동안 세상에 거만하게 자기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교회의 치명적인 역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온 삶에 가득한 저 비극적인 악행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바리새인이어서 그 말은 들어야 하지만 그 행실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여가의 얼마를 떼어 우리 글을 읽으신다면, 그들이 자기가 교회인 까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교리, 바로 그 교리가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도살장이요, 교회를 불사르는 횃불이요 교회의 파멸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끝으로 그들은 우리 교리의 설교가 얼마나 큰 소동과 소란과 다툼을 끌고 왔는지,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미움을 사도록 들추어낼 때 그다지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의 허물은 부당하게 그 교리에 돌려지는데, 마땅히 사탄의 악의에 돌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를테면 이런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곧 사탄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교리들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표지입니다. 거짓 교리들은 모든 사람의 귀에 순순히 받아들여지고 세상의 박수 속에 들려질 때 쉽게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던 여러 세기 동안, 이 세상의 주인에게는 사람들이 놀이와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르다나팔루스처럼 깊은 평화 속에 늘어져 즐겼습니다.[143] 나라를 평온하고 고요하게 차지하고 있으니 웃고 노는 것 말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위에서 비치는 빛이 그의 어둠을 얼마쯤 흩어 버리고, 저 더 강한 자가 그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쳐부수자, 그는 그때에야 늘 빠져 있던 마비 상태를 떨쳐 버리고 무기를

143. 사르다나팔루스(Sardanapalus)는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고 전해지는 앗수르의 마지막 왕입니다.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는 비치기 시작한 진리를 힘으로 억누르려고 사람들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CO 275 그 손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자, 그는 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재세례파와 그 밖의 불량배들의 괴물 같은 무리를 통해 분열과 교리의 다툼을 일으켜, 그것으로 진리를 흐리게 하고 끝내는 꺼 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두 가지 공성 기구로 계속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는 저 참된 씨를 사람들의 힘과 손으로 뽑아 버리려 하고, 또 자기의 가라지로 (할 수 있는 만큼) 그 씨를 덮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도 헛수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술책이 우리를 방심한 채로 붙잡지 못하도록 오래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의 모든 공성 기구에 맞서 충분히 튼튼한 방어로 우리를 무장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반란이나 사기꾼들이 맞서 일으키는 분파의 미움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덮어씌우는 것은 얼마나 큰 악의입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본보기는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그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백성을 선동한다는 죄가 씌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 끓어오르는 모든 소동과 소란과 다툼을 우리에게 돌리는 자들은 이와 다른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는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곧 오류를 퍼뜨리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맞서 싸우는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그들의 무모함을 꺾기에 충분하듯이,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런 걸림돌에 흔들리고 당황하여 비틀거리는 일이 드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은 이런 혼란 때문에 흔들려 제자리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겪는 바로 그 일들을 사도들도 자기 시대에 겪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듯,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것을 억지로 풀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벧후 3:16).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들으면 곧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 하고 끼어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자" 하고 떠들었습니다. 바울을 악을 권하는 자라고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허물어뜨리는 많은 거짓 사도들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진실하지 않게, 아니 악의로 복음을 전하며,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복음이 그리 많이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개가 토한 것으로, 돼지가 진흙탕으로 돌아가듯 뒤로 물러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의 자유를 육신의 방종으로 끌어갔습니다. 많은 형제가 슬그머니 끼어들었고, 나중에 그들에게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위험이 닥쳤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여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 복음이 그토록 많은 분쟁의 온상이요, 그토록 많은 위험의 재료요, 그토록 많은 걸림의 기회라는 것을 보았으니, 한동안 감추어 두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두고 버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곤경 가운데서 그들에게 떠오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딪치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시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으키려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려고 세우심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뢰로 무장하고 모든 소란과 걸림의 위험을 뚫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힘을 얻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변하지 않는 성질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은망덕으로 하나님의 이토록 특별한 은택을 썩게

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패가 되어야 했던 것을 우리의 멸망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도 분명 바로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으신 왕이시여, 저는 폐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대적들이 폐하께 공포를 불어넣으려고 하는 저 헛된 고발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새 복음(그들은 이렇게 부릅니다)으로 꾀하고 구하는 것이 반란의 기회와 모든 악덕을 벌받지 않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CO 277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욕망으로 부당하게 고발을 당하지만, 그런 욕망을 품었다는 아주 작은 혐의조차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를 뒤엎으려고 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당파를 짓는 목소리 하나 들린 적이 없고, 우리가 폐하 아래 살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조용하고 단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떠나 도망한 우리도 폐하와 폐하의 나라에 모든 형통을 빌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악덕의 방자함을 벌받지 않으려고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실에서 많은 것을 꾸짖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토록 큰 조롱을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진보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삶은 이 헐뜯는 자들에게 정결과 친절과 자비와 절제와 인내와 겸손과 모든 덕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은 실제로 분명합니다. 우리는 삶으로도 죽음으로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기 자체도 우리 가운데 몇 사람에게 무죄함과 시민으로서의 올곧음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특별한 칭찬을 받아야 마땅했던 바로 그 한 가지 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구실로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면(폐하의 나라에 지금까지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자기 악덕의 방종의

구실로 삼는 자들이 있다면(저는 그런 자들을 아주 많이 압니다),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엄하게 다스릴 법과 법의 형벌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악한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에 나쁜 평판을 듣지 않게만 해 주십시오.

지극히 장엄하신 왕이시여, 폐하께서 그들의 고발에 지나치게 쉽게 믿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도록, 중상하는 자들의 독한 불의를 충분히 길게 펼쳐 보여 드렸습니다. 너무 길지 않았는지 염려도 됩니다. 이 서문이 이미 거의 온전한 변증의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서문으로 변호를 엮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건 자체의 변론을 들으시도록 폐하의 마음을 미리 누그러뜨리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폐하의 마음은 지금 참으로 우리에게서 돌아서고 멀어져 있고, 덧붙이자면 불붙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폐하의 위엄 앞에 변호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이 신앙고백을 한 번이라도 평온하고 차분하게 읽으신다면, 우리는 폐하의 호의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악의를 품은 자들의 속삭임이 폐하의 귀를 차지하여 피고들이 자기를 위해 말할 자리가 하나도 없고, 저 무도한 광포가 폐하의 묵인 아래 언제나 사슬과 채찍과 고문대와 칼질과 화형으로 날뛴다면, 우리는 참으로 도살당할 양처럼 온갖 극한 데로 몰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고, 주님의 강한 손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손은 의심할 것 없이 때가 되면 나타나, 무장하고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을 고난에서 건져 내시고, 지금 그토록 안심하고 날뛰는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강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왕이시여, 왕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폐하의 왕좌를 의로, 폐하의 보좌를 공평으로 굳게 세워 주시기를 빕니다. 바젤에서, 1536년 8월 1일.

기독교 강요.

1539–1554년판 ·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1

CO 1:277–29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277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이 지식은 경건(religion)의 첫째 기초이며, 그 참된 규범을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1. 우리의 지혜, 곧 마침내 참되고 견고한 지혜로 여겨져야 할 지혜의 거의 전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첫째 지식은[144]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모든 이가 그분을 섬기고 경배해야 함을 보여 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분이 모든 진리, 지혜, 선하심, 의, 심판, 긍휼, 능력, 거룩함의 유일한 샘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기대하고 구하며, 또 받은 것을 찬양과 감사로 그분께 돌리도록 배우게 합니다. 다른 지식은 우리의 연약함, 비참, 헛됨, 추함을 우리에게 보여 줌으로써, 먼저 우리를 진지한 겸손과 낮아짐과 자기 불신과 자기 미움으로 이끌고, 그다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갈망을 불붙입니다. 모든 선이 그분 안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 선이 전혀 없고 텅 빈 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앞서며 다른 것을 스스로 낳는지는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모든 비참의 한 세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면 우리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여 찔리고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님께 눈을 들어

144. [원문의심] 원문은 OCR이 깨져 “nia scilicet”만 남아 있습니다. 뒤따르는 “Altera autem”(다른 지식은)에 맞추어 두 지식 가운데 첫째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읽었습니다.

적어도 그분을 얼마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빈약함, 둔함, 헛됨, 마침내 악함과 부패를 느끼는 데서부터, 참된 위대함과 지혜와 진리와 의와 순결이 주님 안 말고는 다른 어디에도 있지 않음을 알아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도록 일깨워지며, 우리 자신을 완전히 싫어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진지하게 그분을 향해 갈망할 수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누가 기꺼이 자기 안에서 쉬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자기를 모르는 동안, 곧 자기 재능에 만족하고 자기 비참을 모르는 동안 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재촉받을 뿐 아니라, 그분을 찾아내도록 이를테면 손에 이끌립니다.

3. 다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데서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한, 결코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아는 데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타고난 교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불의와 거짓과 어리석음과 불결함을 분명한 증거로 확증받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 자신이 의롭고 진실하며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 돌아보고 주님은 돌아보지 않는다면 확증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판단을 재어 볼 유일한 규범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상 위선으로 기울어 있으므로, 의의 어떤 헛된 겉모양이 의 자체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넉넉히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는 극심한 더러움으로 물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사람의 더러움의 경계 안에 가두어 두면, 조금 덜 더러운 것을 가장 깨끗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검은색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눈이, 실은 거무스름한 흰색이거나 얼마간 어두운 빛이 섞인 것을 가장 흰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몸의 감각에서 우리는 영혼의 덕을 평가할 때 얼마나 헛짚는지를 더 가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낮에 땅을 내려다보거나 우리 시야에 둘러 펼쳐진 것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아주 강하고 날카로운 시력을 지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해를 우러러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면, 땅에서는 훌륭하게 힘을 쓰던 그 시력이 그토록 큰 광채에 곧바로 눌리고 어지러워져서, 땅의 것을 볼 때의 우리의 그 예리함이 해에 이르러서는 순전한 둔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선을 헤아릴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땅 너머를 바라보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에 흡족해하며 우리 자신에게 몹시 달콤하게 아첨하고, 거의 반신(半神)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표준에 맞추어져야 할 그분의 의와 지혜와 능력의 완전함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따져 보기 시작하면, 전에 거짓된 의의 핑계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던 것이 곧 가장 큰 불의로 더러워 보일 것입니다. 지혜라는 이름으로 놀랍게 속이던 것이 극도의 어리석음으로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덕의 얼굴을 내세우던 것이 가장 비참한 무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완전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순결에는 그만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사로잡혀 괴로워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두려움과 놀람이 여기서 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태연하고 굳게 서 있던 이들이,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자 그토록 흔들리고 놀라서 죽음의 공포에 삼켜지고 거의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위엄과 견주어 본 뒤가 아니면 결코 자기의 낮음을 알아 충분히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이런 놀람의 예를 우리는 사사들에게서도 선지자들에게서도 자주 봅니다(삿 13:22; 사 6:5; 겔 1:28 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죽으리라"는 말이 흔히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야기도, 사람들을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능과 더러움을 의식하게 하여 거꾸러뜨리려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순결을 묘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논거를 끌어옵니다.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듯이, 아브라함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기가 흙이요 티끌임을 더 잘 알아보았고(창 18:27), 엘리야는 얼굴을 드러낸 채로는 그분이 다가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왕상 19:13). 그분을 뵙는 데에는 그만큼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룹들조차 두려움 때문에 자기 얼굴을 가려야 한다면, 썩음이요 벌레인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바입니다(사 24:23). "만군의 주께서 다스리실 때에 해가 부끄러워하고 달이 당황하리라." 곧 그분이 당신의 광채를 드러내어 더 가까이 가져오시면, 가장 밝은 것도 그 앞에서 어두워지고 흐려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얽혀 묶여 있다 하더라도, 바르게 말하는 순서는 앞의 것을 먼저 논하고 그 뒤에 이것을 다루러 내려가기를 요구합니다.

4. 사람의 마음 안에 본성적 본능으로 신성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놓습니다. 아무도 무지를 핑계로 피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신성에 대한 어떤 이해를 스며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자기들을 지으신 분임을 알므로, 그들이 그분을 섬기지 않고 자기 삶을 그분의 뜻에 바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증언으로 정죄받습니다. 참으로 어디선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찾는다면, 더 둔하고 사람다운 교양에서 멀리 떨어진 민족들 가운데서보다 그 예가 더 뚜렷이 있을 곳은 없을 법합니다. 그러나 저 이방인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자리 잡지 않은 민족은 아무리 야만스러워도 없고, 종족은 아무리 사나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다른 부분에서는 짐승과 거의 다르지 않아 보이는 이들도 종교의 어떤 씨는 언제나 간직합니다. 이 공통된 선입견은 그만큼 깊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만큼 단단히 모든 사람의 속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처음부터 종교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지역도 도시도 마침내 집 한 채도 없었으니, 바로 거기에 신성에 대한 감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어떤 암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아니, 우상 숭배도 이 관념의 넉넉한 증거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을 자기보다 높이 우러르려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 하나님도 없다고 여겨지느니 차라리 나무와 돌을 섬기기를 택한다면, 신성에 대한 이 인상은 지극히 강력하여 사람의 마음에서 지워질 수 없으며, 오히려 본성의 성향이 꺾이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저 본성적인 교만에서 스스로 가장 낮은 것들에게까지 내려갈 때에, 그 성향은 확실히 꺾입니다.

5.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하는 말은 지극히 헛됩니다. 곧 종교는 소수의 교활함과 꾀로 고안된 것이며, 그들은 이 술책으로 단순한 백성을 본분 안에 붙잡아 두려 했고, 정작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한 그들 자신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활한 사람들이 종교 안에 아주 많은 것을 꾸며 내어, 그것으로 서민들에게 경외심을 불어넣고 두려움을 심어 그들의 마음을 더 순종하게 만들려 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저 한결같은 확신에 젖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로 기우는 성향은 이 확신에서 마치 씨에서처럼 솟아납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 무지한 이들을 교활하게 속였던 그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아주 없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는 이들이 몇 있었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발견되지만, 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고 싶지 않은 것을 거듭 느낍니다. CO 283 가이우스 칼리굴라[145]보다 더 대담하고 고삐 풀린 신성 멸시로 치달은 사람은 없었다고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145. 가이우스 칼리굴라(Gaius Caligula)는 로마 황제(재위 37–41년)입니다.

표지가 나타날 때 그보다 더 비참하게 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드러내 놓고 멸시하려 애쓰던 하나님을 마지못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가장 대담하게 멸시하는 자일수록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도 가장 크게 놀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의 보응에서가 아니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보응은 그들이 피하려 애쓸수록 더 맹렬하게 그들의 양심을 칩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임재를 피해 숨고 또 그것을 자기 마음에서 지워 버릴 숨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늘 그물에 걸려 붙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한순간 사라지는 듯해도, 곧 다시 돌아와 새 기세로 덮쳐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불안에서 얼마간 놓인다 해도, 그것은 술 취한 사람이나 정신이 나간 사람의 잠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들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데, 무섭고 끔찍한 꿈에 끊임없이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한 자들 자신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봄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언제나 살아 있다는 것의 본보기입니다.

6.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로 가르치는 것이고, 다음은 모든 선을 그분에게서 구하고 받은 것을 그분께 돌려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그분이 지으신 것이므로 창조의 권리 자체로 그분의 통치에 넘겨지고 매인 몸이라는 것, 여러분의 생명이 그분께 빚진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하든 그분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즉시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도록 맞추어지지 않으면 악하게 부패한다는 것이 분명히 따라 나옵니다. 또 여러분은 그분이 모든 선의 샘이요 근원이심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분을 똑똑히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악함 때문에 바른 탐구에서 끌려 나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분께 붙어 있으려는 갈망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우리 모두의 놀라운 헛됨과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온 생애에 걸쳐 끊임없는 순종이 있어야 했는데, 우리는 거의 모든 행위에서 아주 태연하게 그분께 반역하면서 몇 안 되는 제사로 그분을 달래려 애씁니다. 삶의 거룩함과 마음의 순결로 그분을 섬겨야 했는데, 우리는 시시한 잡동사니와 아무 가치 없는 자질구레한 의식들을 꾸며 내어 그것으로 그분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신뢰가 그분께 박혀 있어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피조물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토록 많은 오류와 비뚤어진 견해에 얽혀서,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도록 우리 앞에 빛을 비추던 저 불꽃이 질식하고 꺼져 우리를 참된 지식에까지 이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신성이 있다는 저 씨는 남아 있으며, 결코 뿌리째 뽑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는 너무 부패해서 가장 나쁜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7. 그리고 여기서 특히 두 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첫째로, 비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때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자기 자신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분을 자기들의 육적인 둔함의 척도로 잽니다. 그분이 당신을 알리시는 대로 그분을 붙잡지 않고, 자기들이 무모하게 지어낸 대로 상상합니다. 이 소용돌이가 열리면, 그들이 어디로 발을 옮기든 언제나 멸망으로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순종하려고 무엇을 꾀하든, 그것을 그분께 바친 것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이 지어낸 것과 꿈을 그분 대신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자기 미신에 둘러대곤 하는 저 헛된 변호가 무너집니다. 그들은 아무리 뒤틀렸어도 어떤 종교적 열심이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규범으로 삼아 거기에 맞추어져야 하며, 하나님 자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과 같이 머무르시고, 각 사람의 멋대로 모양이 바뀌는 허깨비나 환영이 아니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미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서 얼마나 거짓된 화장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미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관심 두지 않는다고 증언하신 것들만 거의 붙잡고, 그분이 명하시고 당신 마음에 든다고 가르치시는 것은 업신여기거나 아예 드러내 놓고 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꾸며 낸 예배를 세우는 자들은 누구든 자기들의 망상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찮은 것에 걸맞은 분으로 꾸며 내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과 이렇게 장난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저 떠돌고 헤매는 견해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선언합니다(갈 4:8).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본성상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다." 다른 곳에서는(엡 2:12) 에베소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 있던 때에 하나님 없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여러분이 한 하나님을 생각하든 여러 신을 생각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참 하나님에게서 떠나 배반하며, 그분을 버리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가증한 우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락탄티우스[146]와 함께, 진리와 결합되지 않은 종교는 어떤 것도 정당한 종교가 아니라고 정하는 일입니다.

8. 둘째 죄는, 그들이 마지못해 거슬러 끌려와서야 하나님을 고려하며, 그분의 위엄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에 대한 공포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몹시 두려워하되, 동시에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스타티우스[147]의 저 말, 곧 "두려움이 처음 세상에 신들을 만들었다"는 말은 불경건에, 그리고 오직 불경건에만 잘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마음이 멀어진 자들은, 그분을 거스른 범법을 벌하려고 서 있다고 아는 심판대가 뒤엎어지기를 몹시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심판 없이 계실 수 없는 주님께 맞서

146. 락탄티우스(Lactantius, 250경–325경)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라틴 교회 저술가입니다.
147. 스타티우스(Publius Papinius Statius, 45경–96경)는 로마의 시인입니다.

싸웁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피할 수 없이 자기들 위에 닥쳐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도 피할 수도 없으므로 두려워합니다. CO 285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나 그분의 위엄을 멸시하는 자로 보이지 않으려고, 어떤 모양이든 종교의 겉모양으로 일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온갖 악덕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죄악에 죄악을 잇기를 그치지 않아,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율법을 모든 부분에서 어기고 그분의 의 전체를 흩어 버립니다. 적어도 그들은 저 꾸민 하나님 경외에 붙들려 자기 죄 가운데서 달콤하게 쉬지 못할 만큼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자기에게 아첨하고, 성령의 재갈로 자기 육의 방종을 억제하기보다 그것을 따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의 헛되고 거짓된 그림자, 그림자라고 부를 가치도 거의 없는 것이므로, 신자들의 가슴에만 스며드는 저 독특한 하나님 지식이 어떤 것이며,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경건의 정서는 어떤 것인지 짧게 풀어야 합니다.

9. 처음에, 경건한 마음은 아무 하나님이나 스스로 꿈꾸지 않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께 무엇이든 제 보기에 좋은 것을 덧붙이지 않고, 그분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대로의 그분을 모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대담한 무모함으로 그분의 뜻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언제나 지극히 조심합니다. 이렇게 그분을 알므로, 그분이 당신의 섭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 그분이 자기의 보호자이시요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모든 선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기에, 무엇이 모자라거나 무엇이 짓누르면 곧 그분의 보호 아래로 피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도움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확신하므로, 확실한 신뢰로 그분의 너그러우심에 기댑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 안에 자기의 모든 악에 대한 치료책이 언제나 마련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주인이요 아버지로 알아보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그분의 위엄을 우러르며, 그분의 영광이 드높여지도록

힘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분이 모든 범법자를 엄하게 벌하실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보므로, 그분의 심판대를 언제나 자기 눈앞에 두어, 그분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물러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심판을 생각하며, 설령 피할 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달아나고 싶어 할 만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선한 자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서와 마찬가지로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으로서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에게 형벌이 그분께 쌓여 있는 것이 신자들에게 영생의 상이 쌓여 있는 것 못지않게 그분의 영광에 속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건한 마음은 보응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죄짓지 않도록 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공경하며 주인으로서 높이므로,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그분을 노엽게 하는 것만을 두려워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순수하고 참된 경건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과 결합된 믿음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율법으로 명하신 의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위엄을 자원하여 경외하는 것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10.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태어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덧없고 사라지는 것이라면, 자기 삶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 목표로 향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자기 창조의 법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 영혼의 최고선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영혼이 그분을 참되게 바라보고 나서 온전히 그분께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자주 가르쳤을 때, 그가 뜻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플루타르코스의 책에 나오는 저 그릴루스[148]도 아주 지혜롭게 추론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에서 종교가 한번 사라지면 사람들은 미련한 짐승보다 조금도 뛰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훨씬 더 비참하다고 단언합니다. 그토록 많은

148. 그릴루스(Gryllus)는 플루타르코스의 대화편에 나오는 인물로, 키르케가 돼지로 바꾸어 놓은 오디세우스의 동료입니다.

형태의 악에 매여 늘 어지럽고 쉼 없는 삶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더 높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뿐이며, 오직 그것으로만 불멸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11. 주님께서는 복된 삶의 마지막 목적을 당신을 아는 지식에 두기를 원하셨으므로(요 17:3), 누구에게도 행복에 이르는 길을 막으려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 나타내시고 눈에 보이게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본성상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고 사람의 이해에서 멀리 숨어 계시므로, 당신의 일 하나하나에 당신 위엄의 확실한 표지를 새기셨습니다. 그 표지로 그분은 우리의 빈약한 분량에 따라 파악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표지는 너무도 분명하고 환해서, 아무리 눈멀고 둔한 자라도 무지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본질은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늘 보이는 그분의 능력들은,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할 그 모습대로 그분을 그려 보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어디로 눈을 돌리든, 그분의 영광의 불꽃이 적어도 얼마간 반짝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조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기계를 그 넓이 그대로 한눈에 둘러볼 때, 여러분은 사방에서 그 엄청난 광채에 온통 압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세계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구경거리라고 멋지게 부릅니다(히 11:3). 세상의 짜임이 우리에게 거울 노릇을 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달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선지자는(시 19:1) 하늘의 피조물들에게, 어떤 민족에게도 낯설지 않은 언어를 돌립니다. 거기에는 신성에 대한 증거가 너무도 뚜렷하여, 아무리 둔한 민족이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풀어서, 하나님에 대해 알 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롬 1:19). 곧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이르기까지, 세상 창조 때부터 깨달아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CO 287 12.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증언하는 증거들은 하늘에도 땅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천문학과 의학과 자연학 전체가 더 가까이 관찰하려고 마련된 더 깊이 숨겨진 것들만이 아니라, 가장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의 눈에도 밀려들어서, 눈을 뜨기만 하면 그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 교양 학문들을 깊이 익혔거나 맛이라도 본 사람들은 그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데 훨씬 더 높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학문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서 넉넉하고도 남을 솜씨를 보고 그 지으신 분을 찬탄하기에 이르는 데 방해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별들의 운행을 연구하고, 그 자리를 나누고, 거리를 재고, 특성을 기록하는 데에는 기술과 더 정밀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꿰뚫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더 자세히 드러나므로, 마음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직 눈의 도움만 갖춘 사람들조차, 그토록 셀 수 없으면서도 그토록 구별되고 질서 있는 하늘 군대의 다양함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솜씨의 탁월함을 모를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넉넉히 드러내지 않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몸의 구조에서 그 연결과 균형과 아름다움과 쓰임을 갈레노스[149]가 들인 만큼의 수고로 따져 보는 일은 뛰어난 예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사람의 몸은 그토록 정교한 짜임을 보여 주므로, 그것 때문에 그 지으신 분은 마땅히 놀라운 분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뛰어난 본보기들로 우리를 사로잡아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까? 하늘과 땅의 이 끝없는 덩어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고개만 끄덕이셔서 때로는 천둥소리로 하늘을 흔드시고, 벼락으로 무엇이든 태우시고, 번갯불로 대기를 불붙이시며, 때로는 여러 모양의 폭풍으로 그것을 뒤흔드시다가 원하시면 곧 한순간에 그것을 맑게 하시고, 그 높이로 땅을 늘 황폐하게

149. 갈레노스(Galenus, 129경–216경)는 그리스의 의사로, 해부학과 생리학의 고전을 남겼습니다.

하겠다고 위협하는 듯한 바다를 마치 공중에 매달린 듯 억누르시고, 때로는 사나운 바람의 기세로 무섭게 들끓게 하시다가 때로는 물결을 가라앉혀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에 속하는지가 혹시 우리에게 숨겨질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능력 자체가 우리를 그분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모든 것이 근원을 끌어오는 그분은 영원하셔야 하며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을 가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한번 창조하시도록 이끌리시고 지금 그것을 보존하시도록 움직이시는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오직 그분의 선하심만이 원인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니, 이것 하나뿐이라 해도, 그것은 우리를 그분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데 넉넉하고도 남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일깨우듯이(시 145:9) 그분의 긍휼이 부어지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13. 그분의 일의 둘째 종류, 곧 자연의 통상적인 흐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도, 그분의 능력들의 증거는 조금도 덜 분명하지 않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사회를 다스리실 때 당신의 섭리를 이렇게 조절하십니다. 곧 모든 사람에게 셀 수 없는 방법으로 인자하고 은혜로우시면서도, 경건한 자들에게는 당신의 의를, 악하고 죄 많은 자들에게는 당신의 심판을 분명하고 날마다의 표지들로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죄악에 내리시는 보응은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선한 이들의 삶을 당신의 복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궁핍을 도우시고, 고통을 누그러뜨려 위로하시고, 역경을 덜어 주시고, 모든 일에서 그들의 안녕을 돌보실 때, 당신이 무죄한 자의 보호자시요 또 변호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 주십니다. 그분이 악하고 죄 있는 자들이 한동안 벌받지 않고 날뛰도록 자주 내버려 두시고, 선하고 무고한 자들이 많은 역경에 시달리며 불경건한 자들의 악의와 불의에 눌리는 것을 참으신다고 해서, 그분의 의의 변함없는 규범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주 다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한 죄악을 분명한 진노의 표지로 벌하실 때에는 그분이 모든 죄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많은 죄악을 벌하지 않고 지나치실 때에는 벌받을 것들이 미루어지는 다른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비참한 죄인들을 지치지 않는 인자로 자주 따라가시며, 마침내 선을 베푸심으로 그들의 악함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너그러움보다 더한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당신께로 돌이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을 생각할 재료를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그분의 능력이나 지혜도 조금도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이럴 때 환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여기던 불경건한 자들의 사나움이 한순간에 꺾이고, 교만이 길들여지고, 가장 튼튼한 요새가 무너지고, 칼과 무기가 부서지고, 힘이 꺾이고, 음모가 뒤집혀 제 무게로 무너질 때, 하늘 위로 자기를 높이던 대담함이 땅의 한가운데까지 거꾸러질 때, 반대로 낮은 자들이 티끌에서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이 거름 더미에서 들려 올려질 때(시 113:7), 억눌리고 괴로움당하는 자들이 극한의 곤경에서 건짐받을 때, 가망 없던 자들이 좋은 소망으로 회복될 때, 무장하지 않은 자들이 무장한 자들을, 적은 자들이 많은 자들을,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이길 때입니다. 지혜는 그분이 모든 일을 가장 알맞은 때에 베푸시고, 세상의 어떤 지혜든 당황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잡으시며(고전 3:19), 마침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이치로 조절하실 때 뚜렷하게 빛납니다.

14. 하나님의 위엄을 밝히고 주장하는 데 쓰이는 증거들을 끌어내는 데에는 길고 수고로운 논증이 필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맛본 몇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디를 만나든 그 증거들은 너무도 가까이 눈앞에 있어서 눈으로 가리키고 손가락으로 짚기 쉽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헛된 사변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견고하고 열매 맺을 지식으로 초대받는다는 것입니다. CO 289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들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힘을 우리 안에서 느끼고 그 은택을 누리므로, 아무 느낌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아볼 때 훨씬 더 생생하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바른 길이요 가장 알맞은 순서임을 깨닫습니다. 곧 대담한 호기심으로 그분의 본질을 캐내려고 꿰뚫어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꼼꼼히 캐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 대신 그분을 그분의 일들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일들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친밀해지시며,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도가 그분은 멀리서 찾을 분이 아니니 당신의 지극히 가까운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행 17:27) 바라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먼저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고백한 뒤에, 그분의 일들을 말하는 데로 내려가서는 바로 그 위대하심을 말하겠다고 공언합니다(시 145).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데 힘씁시다. 곧 우리의 지성을 경탄으로 붙들어 두는 동시에, 효력 있는 감각으로 깊이 감동시키는 탐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디선가(시편 144편 강해)[150] 가르치듯이, 우리는 그분을 붙잡을 수 없고 말하자면 그분의 위대하심 아래 기진하므로, 그분의 선하심으로 새 힘을 얻도록 그분의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5. 나아가 이런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일깨울 뿐 아니라, 장차 올 삶에 대한 소망으로도 깨우고 일으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보이시는 너그러우심과 엄하심의 본보기들이 겨우 시작된 것이요 반쯤만 채워진 것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이 이렇게 더 큰 일들의 서곡을 연주하시며, 그 일들의 나타남과 온전한 드러남은 다른 삶으로 미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꾸로, 경건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고난으로 짓눌리고, 해를 입어 흔들리고, 비방으로 억눌리고, 모욕과 치욕으로 찢기는 것을 보는 반면, 악인들은 번성하고 형통하며 영

150.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강해는 라틴어 성경의 시편 번호를 따르므로, 시편 144편은 개역한글의 시편 145편입니다.

예와 함께 평안을 누리고, 그것도 벌받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곧바로 다른 삶이 있으리라고, 거기에 불의에 대한 보응과 의에 대한 상이 쌓여 있으리라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게다가 신자들이 주님의 회초리로 자주 징계받는 것을 볼 때, 불경건한 자들이 언젠가 그분의 채찍을 피할 리는 더욱 없다고 아주 확실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 말은 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151] "만일 지금 모든 죄가 드러난 벌로 다스려진다면, 마지막 심판을 위해 남겨 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죄도 드러나게 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고 믿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하나하나에, 특히 그 일들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마치 그림판에 그려지듯 그려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능력들로 온 인류가 그분을 알아보도록, 그리고 그 앎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초대받습니다. 나아가 그 능력들은 거기에 아주 환하게 나타나지만, 그것들이 무엇보다 무엇을 향하는지, 무슨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들을 깨달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시며, 우리를 향해 당신의 의와 선하심과 너그러우심을 어떻게 베푸시는지 생각할 때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16.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불멸의 나라를 아무리 밝게 나타내셔도, 우리의 둔함이 그러하여, 그토록 분명한 증거들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눈먼 채 멍하니 있습니다. 세상의 짜임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눈을 하늘로 들거나 땅의 여러 지역을 둘러볼 때 그 마음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로 돌리고, 오히려 지으신 분을 지나쳐 버린 채 그 일들을 바라보는 데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자연의 흐름의 질서 밖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말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기보다 운수의 눈먼 무모함

151. 원문 파일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는 OCR에서 "Dei c. 8." 이라는 조각만 남아 있습니다.

으로 굴러다니고 뒤집힌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혹시 이런 일들의 이끄심과 지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내몰릴 때에도 (이것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성에 대한 느낌을 무턱대고 품자마자 곧 우리 육의 망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우리의 헛됨으로 부패시킵니다. 각자 따로 자기만의 어떤 오류를 끌어들인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한 분 참 하나님에게서 떠나 괴이한 하찮은 것들로 떨어져 나간다는 점에서는 서로 아주 같습니다. 이 병에는 평민이나 더 둔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장 뛰어나고 그 밖에는 남다른 예리함을 지닌 사람들도 얽혀 있습니다. 철학자 족속 전체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길게 자기의 어리석음과 맛없음을 드러냈습니까? 훨씬 더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다른 이들은 그냥 두더라도, 그들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가장 절제 있는 플라톤 자신도 헛것으로 사라집니다. 그는 형체 있는 하나님을 찾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에 지극히 어울리지 않고 걸맞지 않습니다. 남들을 앞에서 비추어야 할 첫째가는 이들이 이렇게 헛짚고 부딪힌다면, 다른 이들에게 무슨 일인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사의 다스림이 섭리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보여 줄 때에도, 거기서 얻는 것은 모든 것이 운수의 무모한 변덕으로 위아래로 뒤집힌다고 믿는 것보다 조금도 낫지 않습니다. 헛됨과 오류로 기우는 우리의 성향이 그만큼 큽니다. 저는 언제나 가장 뛰어난 이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속되게 하는 데 그 광기가 한없이 나아간 저 평범한 이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7. 그러므로 세상의 지으심 속에서 지으신 분의 영광을 밝히려고 켜 놓은 그토록 많은 등불이 우리에게 헛되이 빛납니다. 그 등불들은 사방에서 우리를 비추지만, 그 자체로는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어떤 불꽃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불꽃은 더 큰 광채를 쏟기 전에 질식합니다. CO 291 그러므로 사도는 세계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대목에서(히 11:3), 믿음으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닫는다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그는, 보이지 않는 신성이 이런 광경들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계시로 믿음을 통해 조명받지 않는 한 그 신성을 꿰뚫어 볼 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 알 만한 것이 세상 창조로부터 드러났다고 전할 때(롬 1:19), 사람들의 통찰력으로 파악되는 그런 나타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타남이 사람들을 핑계할 수 없게 하는 데까지밖에 나아가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같은 사도가 어디선가(행 17:27)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니 멀리서 찾을 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런 가까움이 무엇에 소용되는지 가르칩니다. 그는 말합니다(행 14:16). “지나간 세대에 주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당신 자신을 증언 없이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선을 베푸사 비와 열매 맺는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풍성한 인자로 사람들을 부드럽게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끄시면서 증언 없이 계시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런데도 자기들의 길, 곧 멸망에 이르는 오류를 따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18. 우리는 본성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을 순수하고 맑게 아는 데까지 올라갈 수 없지만, 둔함의 결함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모든 발뺌은 잘려 나갔습니다. 무지를 핑계로 내세워도, 우리가 언제나 게으름과 배은망덕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들을 귀가 자기에게 없었다고 둘러댄다면, 참으로 받아들일 만한 변명이겠습니다. 말 못하는 피조물들에게조차 그 진리를 이야기할 목소리가 노래보다 더 낭랑하게 있는데 말입니다. 눈 없는 피조물들이 보여 주는 것을 자기는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핑계하고, 이성 없는 모든 피조물이 가르치는데 자기 지성이 약하다고 변명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바른 길을 보여

주는데도 우리가 떠돌고 헤매며 벗어나므로, 우리는 마땅히 모든 변명에서 완전히 막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의 놀라운 솜씨로 자기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지식의 씨를 곧 부패시켜 좋고 순수한 열매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려야 하지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바치는 저 맨 증언,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충분히 배우지 못한다는 것도 참으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 신성을 조금 맛보자마자, 참 하나님을 지나쳐 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머리의 꿈과 허깨비를 세우며, 의와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의 찬양을 그것들에게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분이 날마다 하시는 일들을 악하게 평가하여 흐리거나 뒤집어서, 그 일들에서는 그것들의 영광을, 지으신 분에게서는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을 빼앗습니다.

1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경건에서 모든 변명을 빼앗으시려고, 피조물들에 그려 넣으신 당신 신성의 광채를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앞에 내놓으시듯이, 당신이 구원으로 나타내시기로 정하신 자들에게는 그들의 연약함을 더 효력 있는 치료책으로 도우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실 때 말 못하는 선생들만 쓰지 않으시고,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입도 여십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만 공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당신이 바로 섬김받으셔야 할 그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들이 바라볼 분으로 당신을 보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 종들을 부르실 때 이 순서를 지키셔서, 저 모든 증거 말고도 말씀을 쓰셨습니다. 말씀은 그분을 알아보는 데 훨씬 더 바르고 친숙한 표지입니다. 이렇게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 밖의 조상들도 말씀으로 조명받아 그분을 아는 더 깊은 지식으로 꿰뚫어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신탁과 환상으로 그들에게 스며들었든, 앞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시된 것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이를테면 손에서 손으로 그들에게 전해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가 자리를 얻기를 원하실 때마다 언제나 이 일에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 임재의 분명한 표징을 주셔서 몇몇 사람에게 특별히 당신을 알리시고, 구원하는 교리의 보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후손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청지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신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영생의 언약을 온 집안에 퍼뜨리고, 긴 세대에 걸쳐 전해지도록 힘쓴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구별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미 그때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으로 이 말씀의 교제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20. 나아가 주님께서 조금 더 가려 뽑은 교회를 세우기를 좋게 여기셨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더 엄숙한 의식으로 공포하시고 돌판에 새겨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신탁이 글로 맡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켜졌던 것입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후손의 구원을 돌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는 데로 얼마나 미끄러지기 쉬운지, 온갖 종류의 오류로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새롭고 인위적인 종교를 거듭 꾸며 내려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면, 하늘 교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남는 것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잊혀서 사라지거나, 오류로 흐려지거나, 사람들의 대담함으로 부패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열매 있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도움을 쓰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짜임에 새기신 당신의 형상이 충분히 효력 있지 않다는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기를 진지하게 갈망한다면, 이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152]

152. 이 문장의 끝부분(CO 1:293)은 다음 편 원문의 첫머리에 있으나, 문장이 끊기지 않도록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2

CO 1:293–30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293 [153]제 말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로부터 우리에게 바르게, 그리고 생생하게 그려지십니다. 그 일들 자체가 우리 판단의 악함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규범으로 평가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아무리 힘차게 서둘러 애쓴다 하더라도 길 밖으로 달리는 것이므로 결코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도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부르는(딤전 6:16)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는, 우리가 말씀의 실로 그분께 인도받지 않는 한, 우리에게 풀 수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서 절뚝거리는 편이 길 밖에서 아주 빨리 달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 선포되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이 궁창으로 알려지며, 낮과 밤의 질서 있는 이어짐으로 그분의 위엄이 전파된다고 말한 뒤에(시 19:1 이하), 말씀을 언급하는 데로 내려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의 율법은 흠이 없어 영혼을 돌이키며, 주의 증거는 신실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주며, 주의 의는 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맑아 눈을 밝게 한다.” 이로써 그는 앞의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가르침이요, 뒤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임을 알려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도 여기서 나왔습니다(요 4:22). 그녀의 민족과 다른 모든 백성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며, 오직 유대인만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연약함 때문에 하

153.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을 받아 들려 올려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으므로, 그때 유대인을 빼고 모든 사람은 말씀 없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헛됨과 오류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21. 앞에 내놓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혹시 상식과 사람다움 자체마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면, 말씀하시는 분께 믿음을 거두어들일 만큼 절망적으로 대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늘에서 신탁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되도록 봉헌하기를 좋게 여기신 성경만 남아 있으므로, 성경이 어떤 권리로 신자들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음성 자체가 들리는 것과 같은 권위를 얻는지를 지나가며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더 넓게 다루고 더 정확하게 따져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크기가 요구하는 것보다 제가 시작한 저작의 성격이 허락하는 것을 더 고려하더라도, 독자들은 너그러이 보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사이에 지극히 해로운 오류가 퍼졌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동의가 허락하는 만큼만 무게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사람들의 결정에 기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크게 조롱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규범을 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누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겠는가? 이것들이 우리 시대까지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채 이르렀다고 누가 우리에게 확증해 주겠는가? 이 책은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저 책은 목록에서 지워야 한다고 누가 설득하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어떤 경외를 바쳐야 하는지도, 어떤 책들을 그 목록에 넣어야 하는지도 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렇게 신성 모독적인 자들은 교회를 핑계로 고삐 풀린 폭정을 끌어들이려 하면서, 단순한 사람들에게서 교회는 못 할 것이 없다는 이것 하나만 억지로 받아 낼 수 있다면, 자기와 남들을 어떤 불합리에 얽어매든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영생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구하는 비참한 양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에 관해 있는 약속이 무엇이든 오직 사람들의 판단에 기대어 서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대답을 받고서 그들이 흔들리고 떨기를 그치겠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은 불경건한 자들의 어떤 비웃음에 내맡겨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의 호의 덕분에 겨우 빌린 권위를 지닌다고 믿어진다면, 그 믿음은 모든 사람 앞에서 얼마나 큰 의심을 받겠습니까?

22. 그러나 이런 허튼소리를 하는 자들은 사도의 말 한마디로도 멋지게 논박됩니다. 사도는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증언합니다(엡 2:20). 선지자와 사도의 교리가 교회의 터라면, 교회가 있기 시작하기 전에 이 교리에 그 확실성이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트집 잡을 까닭도 없습니다. 교회가 거기서 처음 시작을 얻었다 하더라도, 교회의 판단이 끼어들지 않으면 무엇을 선지자와 사도에게 돌려야 할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에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설교 위에 세워졌다면, 그 교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든 그 교리를 인정하는 일이 분명 교회보다 앞섰습니다. 그것 없이는 교회 자체가 결코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어서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뜻에 달려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지극히 헛된 꾸며 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자기 동의로 인친다고 해서, 의심스럽거나 달리 흔들리던 것을 진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주님의 진리임을 알아보기에, 경건의 의무에 따라 머뭇거림 없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교회의 결정으로 피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하겠는가?” 이것은 마치 누가 “빛을 어둠과, 흰 것을 검은 것과, 단 것을 쓴 것과 구별하는 것을 무엇으로 배우겠는가?”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흰 것과 검은 것이 그 색깔을, 단 것과 쓴 것이 그 맛을 드러내는 것보다 결코 덜 분명하지 않게 자기 진리의 느낌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23. 사람들이 흔히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가 교회의 권위가 자기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런 뜻으로 인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중상적인지는 문맥에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마니교도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가졌다고 약속하면서도 보여 주지는 않으면서, 논란 없이 자기들을 믿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마니를 믿게 하려고 복음을 내세웠으므로, 그는 복음조차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여 그를 자기들의 견해로 끌어들이겠느냐고 묻습니다. CO 295 그 뒤에 그는 덧붙입니다. "나로서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등. 이로써 그는, 자기가 믿음에서 떠나 있었을 때 교회의 권위에 이끌리지 않고는 달리 복음을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이끌릴 수 없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고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서 경건한 자들의 믿음이 교회의 권위에 세워져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며, 복음의 확실성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교회의 동의가 믿지 않는 자들을 재촉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얻을 만큼 복음의 확실성을 지니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내가 내가 믿는 것을 칭찬하고 네가 믿는 것을 비웃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판단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확실한 것을 알도록 우리를 초대하고는 나중에 불확실한 것을 믿으라고 명하는 자들을 떠나고,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먼저 믿으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자들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더 강해져 우리가 믿는 것을 깨달을 자격을 얻는 것 말고 무엇이겠느냐? 그때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안에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비추실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누구든 이 말에서, 이 거룩한 사람의 뜻은 우리가 성경에 두는 믿음을 교회의 뜻이나 결정에 매달아 두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도 참되다고 인정하는 것을 가리키려 했을 뿐입니다. 곧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받지 못한 자들은 교회에 대한 경외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마음을 갖게 되어 복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우기를 견디며, 이렇게 교회의 권위는 우리가 복음의 믿음으로 준비되는 입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그는 경건한 자들의 확신은 전혀 다른 터 위에 받쳐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가 마니교도들이 거부하던 성경을 인정하게 하려고 온 교회의 동의로 그들을 자주 몰아붙인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투스를 꾸짖는 저 말이 나옵니다. 그가 그토록 굳게 세워지고, 그토록 든든히 서고, 그토록 큰 영광으로 퍼지고, 사도 시대부터 확실한 계승으로 전해 온 복음의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성경에 바치는 권위가 사람들의 규정이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려는 데는 결코 뜻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그 논쟁에서 큰 힘을 지녔던 것, 곧 그가 적대자들보다 우세했던 교회의 보편적 판단을 내놓을 뿐입니다.[154] 누구든 이것을 더 충분히 증명받고 싶다면, 그의 소책자『믿음의 유익에 관하여』를 읽어 보십시오. 거기서 그가 권하는 믿기 쉬움은, 그 자신의 말처럼 우리에게 입구만 열어 주고 탐구의 알맞은 시작이 되는 것일 뿐이며, 의견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고 견고한 진리에 기대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24. 그러나 우리가 양심이 흔들리는 의심으로 늘 비틀거리지 않도록 가장 잘 돌보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권위는 사람의 이성이나 표지나 추측보다 더 높은 곳에서 구해야 합니다. 곧 성령의 내적 증언에서입니다. 성경은

154. 원문은 "adversarius erat superior"(적대자가 우세했던)입니다. 원문 파일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의 조각("sed male. Lege: adversariis")에 따라 "adversariis"(적대자들보다)로 읽었습니다.

자기 위엄으로 스스로 경외를 얻지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진지하게 감동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조명받아, 이제는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 아주 확실하게 정합니다(마치 거기서 하나님 자신의 신성을 바라보듯이). 성경이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바로 그 입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판단이 기댈 논증이나 개연성을 찾지 않습니다. 평가의 모험 밖에 있는 일에 대하듯, 우리 판단과 지성을 굴복시킵니다. 어떤 이들이 때로 알지 못하는 것을 덥석 붙잡았다가 곧 꿰뚫어 보고는 싫어하는 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잘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힌 마음을 바치곤 하는 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신성의 의심할 수 없는 힘이 살아 숨 쉬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힘에 이끌리고 불붙여져 순종하는데, 알고 원하여 그리하지만, 사람의 의지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효력 있게 그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 확신이요, 가장 좋은 이유가 함께 서 있는 지식입니다. 곧 마음이 어떤 이유들 안에서보다 더 안전하고 한결같이 쉬는 지식입니다. 마침내 이것은 하늘의 계시에서가 아니면 생겨날 수 없는 감각입니다. 저는 신자 각 사람이 자기 안에서 경험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이 이 일을 마땅히 설명하는 데 훨씬 못 미칠 뿐입니다. 지금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자리가 다른 곳에서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믿음만이 마침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압시다.

25. 어떤 사람의 판단보다도 더 높고 더 강한 이 확실성이 없다면, 성경의 권위를 논증으로 지키거나, 교회의 동의로 세우거나, 다른 버팀목으로 굳히려 해도 헛됩니다. 이 터가 놓이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는 언제나 공중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통의 처지에서 떼어 내어 경건하게 그 존엄에 맞게 받아들였다면, 그 확실성을 우리 마음에 심고 박는 데에는 그리 힘이 없던 것들이 그때에는 가장 알맞은 보조 수단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 얼마나 질서 있고 가지런하게 나타나는지, 그 교리가 얼마나 어디서나 하늘에 속하고 땅의 냄새는 조금도 풍기지 않는지, 모든 부분이 서로 얼마나 아름답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글에 위엄을 더해 주는 다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헤아릴 때, 거기서 얼마나 큰 확증이 더해지는지 놀랍습니다. 그리고 말의 아름다움보다 내용의 존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찬탄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더욱더 굳게 확증됩니다. 하늘나라의 높은 비밀들이 상당 부분 보잘것없이 낮은 말 아래 전해진 것도 하나님의 뛰어난 섭리 없이 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더 화려한 웅변으로 꾸며졌다면, 불경건한 자들이 여기서는 오직 웅변의 힘이 다스린다고 트집 잡았을 것입니다. 이제 저 다듬지 않은, 거의 투박하다 할 단순함이 어떤 수사가들의 말솜씨보다 더 큰 경외를 불러일으키는데, 거룩한 성경의 진리의 힘이 말의 기술이 필요 없을 만큼 더 강하다는 것 말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세워졌다고 논증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고전 2:4). 그들 가운데 행한 그의 설교가 사람의 지혜의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다른 버팀목에 받쳐지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자기를 지탱하기에 넉넉할 때, 모든 의심에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CO 297 그리고 이 능력이 얼마나 성경에만 고유한지는, 아무리 솜씨 있게 다듬은 사람의 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감동시킬 힘을 지닌 것이 전혀 없다는 데서 분명합니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를 읽어 보십시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무리의 다른 누구를 읽어 보십시오. 고백하건대, 그들은 놀랍게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즐겁게 하고 움직이고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거룩한 읽기로 옮겨 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읽기가 여러분을 그토록 생생하게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토록 꿰뚫고, 골수에 그토록 자리 잡아서, 이 느낌의 효력 앞에서 저 수사가들과 철학자들의 힘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경이 사람의 수고가 지닌 모든 재능과 아름다움을 그토록 멀리 뛰어넘으므로, 그것이 어떤 신적인 것을 숨 쉬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6. 다른 이들이 이 논증을 넉넉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 전체의 요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몇 가지만 맛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것들 말고도, 성경의 오래됨 자체가 적지 않은 무게를 지닙니다. 그리스 저술가들이 이집트 신학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지어내더라도,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뒤떨어지지 않는 종교(religion)의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새로운 하나님을 꾸며 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조상들에게서 이를테면 손에서 손으로 전해 받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을 내놓습니다. 그가 그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합니까? 그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가져왔다면, 그는 그들에게 다가갈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혀 있던 종살이에서의 해방은 모든 사람이 알고 익히 들은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사백 년이라는 햇수도 배워 알고 있었을 법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그 자신도 다른 모든 저술가를 그토록 긴 세월의 간격으로 앞서는데) 자기 교리의 전승을 그토록 먼 시작에서부터 끌어온다면, 거룩한 성경은 오래됨에서 다른 모든 글 가운데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27. 이제 그가 전하는 그토록 많고 그토록 두드러진 기적들은, 그가 세운 율법과 그가 전한 교리를 확증하는 그만큼의 인(印)입니다. 그가 구름에 싸여 산으로 올려졌다는 것, 거기서 사십 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것, 율법을 공포할 때 그의 얼굴이 햇빛처럼 빛났다는 것,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과 굉음이 온 하늘에 들렸으며 사람의 입으로 불지 않은 나팔이 울렸다는 것, 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이 가로막아 백성의 눈에서 가려졌다는 것,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불경건한 무리 전체가 무섭게 멸망함으로 그의 권위가 그토록 놀랍게 지켜졌다는 것, 지팡이로 친 바위에서 곧바로 강물이 쏟아졌다는 것, 그의 기도로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렸다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를 의심할 수 없는 선지자로 인정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누가 제가 논란이 없지 않은 것을 인정된 것처럼 전제한다고 반박한다면, 이 트집은 쉽게 풀립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회중 앞에서 공포했으니, 그 일들을 눈으로 본 증인들 앞에서 무엇을 꾸며 낼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그가 공공연히 나서서 백성에게 불신과 완고함과 배은망덕과 그 밖의 죄를 꾸짖으면서, 자기 교리가 그들 눈앞에서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적들로 확증되었다고 자랑했겠습니까?

28. 게다가 그가 족장 야곱의 입을 빌려 유다 지파에게 통치권을 돌리는 것(창 49:10)이 예언의 영으로 된 일임을, 특히 그 일 자체가 결과로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모세가 이 예언을 처음 지어낸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이 글을 기록으로 남긴 때부터, 유다 지파에 홀(笏)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백 년이 흘러갑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뒤에는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권을 옮길 무슨 까닭이 보입니까? 가축 치는 평민의 집에서 왕이 나오리라고 누가 바랐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누가 막내에게 그 영예를 정해 주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는 무슨 방법으로 왕위의 소망에 이르렀습니까? 누가 그 기름 부음이 사람의 기술이나 수고나 슬기로 다스려졌다고 말하고, 하늘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받아들여질 일에 관해 희미하게나마 예언한 것들이 거의 이천 년 뒤에야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했음을 분명히 보여 주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예언들은 그냥 두겠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도 분명하게 숨 쉬고 있어서, 건전한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노래 하나(신 32)가 하나님께서 뚜렷이 나타나시는 환한 거울입니다.

29. 나머지 선지자들에게서는 이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모두 모으는 것은 너무 큰 수고이므로 몇 가지 예만 고르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유다 왕국이 평안했고, 아니 자기에게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얼마간 도움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사야는 도성의 멸망과 백성의 포로 됨을 설교했습니다. 그때에는 꾸며 낸 이야기처럼 보였으나 마침내 참된 것으로 드러난 일들을 오래전에 미리 말한 것이 아직 하나님의 감동의 충분히 분명한 증거가 아니었다고 해 봅시다. 그래도 그가 동시에 구속에 관해 내놓은 예언들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면 어디서 나왔다고 하겠습니까? 그는 고레스의 이름을 부릅니다(사 45:1). 그를 통해 갈대아 사람들이 굴복하고 백성이 자유를 되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때부터 고레스가 태어나기까지 백 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고레스는 선지자가 죽은 뒤 백 년쯤 지나서야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구도, 바벨론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토록 강한 군주국을 자기 손아래 굴복시킨 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끝낼 고레스라는 어떤 사람이 있으리라고 점칠 수 없었습니다. 말의 꾸밈이 전혀 없는 이 맨 이야기만으로도,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사람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심할 수 없는 신탁임을 분명히 보여 주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가 백성이 끌려가기 얼마 전에 포로 기간을 칠십 년으로 정하고 귀환과 자유를 알렸을 때(렘 25:11), 그의 혀는 하나님의 영께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증거들로 선지자들의 권위가 확증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기 말에 믿음을 얻으려고 내세우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얼마나 뻔뻔하겠습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싹이 나기 전에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 42:9).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같은 때에 예언하면서 모든 말에서 서로 꼭 같아서,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불러 준 것 같았다는 것은 그냥 두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거의 육백 년 뒤에 이르기까지 장차 올 일들에 관한 예언을, 마치 이미 일어나 널리 알려진 일들의 역사를 쓰듯이 엮어 내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이것을 잘 묵상해 둔다면, 불경건한 사람들이 짖어 대는 것을 막는 데 넉넉히 갖추어질 것입니다. 이 증명은 어떤 트집에도 걸리지 않을 만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30. 어떤 불량배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데서 자기 재주의 날카로움을 자랑하려고 구석에서 무엇이라고 떠드는지 저는 압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읽히는 이 글들이 그들에게서 쓰였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아니, 그들은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느냐는 질문까지 감히 던집니다. 그러나 누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가 정말 있었는지를 의심한다면, 그런 미친 짓은 따귀나 채찍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수고보다는 하늘의 섭리로 놀랍게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들의 게으름 때문에 잠시 묻혀 있기는 했지만, 경건한 왕 요시야가 그것을 찾아낸 뒤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요시야도 그것을 알려지지 않은 새것처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널리 퍼져 있었고 그때에도 기억이 생생하던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원본 두루마리는 성전에 바쳐져 있었고, 거기서 베낀 사본은 왕실 문서고에 바쳐져 있었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이 엄숙한 관례대로 율법 자체를 공포하기를 그쳤고, 백성 자신도 늘 하던 읽기를 소홀히 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율법의 확증이 굳게 세워지고 새로워지지 않고 지

나간 세대가 거의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CO 299 다윗을 다루던 이들에게 모세가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155]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하자면, 그들의 글이 말하자면 손에서 손으로, 끊임없는 세월의 이어짐 속에서 조상들에게서 전해진 것 말고 달리 후손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 조상들은 일부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일부는 들은 이들에게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생생한 기억으로 배웠습니다.

31. 아니, 그들이 성경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고 마카베오 역사에서 끌어오는 반론은, 오히려 성경을 세우는 데 그보다 더 알맞은 것을 생각해 낼 수 없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이 내세우는 핑계를 씻어 내고, 그다음 그들이 우리를 겨누어 세우는 공성 기계를 그들에게로 돌려 놓겠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안티오코스가 모든 책을 불태우라고 명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사본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저는 거꾸로 묻습니다. 어느 공방에서 그토록 빨리 그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잔혹함이 가라앉은 뒤에 그 책들이 곧 나타났고, 그 책들의 교리로 길러져 그것들을 친숙히 알던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논란 없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마치 공모라도 한 듯 그토록 뻔뻔하게 유대인들을 모욕했을 때에도, 아무도 그들에게 책을 거짓으로 바꿔치기했다고 감히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견해로는 유대교가 어떤 것이든, 그들은 모세가 그 창시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오래됨이 모든 역사의 일치로 인정되는 책들을 바꿔치기한 책이라고 거짓말하는 이 수다쟁이들은, 개보다 더한 자기 뻔뻔함 말고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러나 그토록 썩은 중상을 반박하느라 헛되이 더 수고하지 않도록, 오히려 여기서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보존하시는 데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를 생각합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바람과 달리 가장 잔혹한 폭군의 흉포함에서, 마치

155. 원문은 "qui Davidem tractabant" 입니다. 다윗의 글(시편)을 읽고 다루던 이들로도, 다윗과 함께 지내던 이들로도 읽힐 수 있어 낱말 그대로 옮겼습니다.

눈앞의 불길에서처럼 그 말씀을 건져 내셨습니다. 경건한 제사장들과 다른 이들에게 그토록 큰 한결같음을 갖추어 주셔서, 그들은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서라도 이 보물을 지켜 후손에게 넘겨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총독과 그 부하들의 지독한 수색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아주 사라져 버렸다고 확신하던 저 거룩한 기록들이 곧 이를테면 귀환권으로 되돌아왔고, 그것도 더 큰 존중을 받으며 돌아왔다는 것을, 누가 하나님의 두드러지고 놀라운 일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그리스어 번역이 나와서 그것들을 온 세상에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 언약의 판들을 안티오코스의 피비린내 나는 칙령에서 지켜 내셨다는 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거듭 시달리고 황폐해졌으며 곧 거의 전멸에 이르렀던 그토록 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그 판들이 안전하게 살아남았다는 데에도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름 없는 말이 되었을 뿐 아니라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건을 돌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은 분명히 아주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율법과 선지자에 담긴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보존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드러나시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의 가장 사나운 원수들인 유대인들을 통해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을 그리스도인 교회의 필경사들이라고 마땅히 부르는데, 그들이 자기들은 쓰지 못하는 읽을거리를 우리에게 대 주었기 때문입니다.

32. 교회의 동의도 그 나름의 무게가 없지 않습니다. 성경이 공포된 때부터 그토록 많은 세기의 사람들의 뜻이 한결같이 그것에 순종하는 데 일치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온 세상과 함께 놀라운 방법으로 성경을 억누르거나 뒤엎거나 아예 지워 없애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애썼지만, 성경은 언제나 종려나무처럼 이기고 나와 정복되지 않은 채 버텨 왔습니다. 옛날에 조금이라도 뛰어난 재주를 지닌

궤변가나 수사가로서 성경을 거슬러 자기 힘을 겨누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땅의 권세가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무장했지만, 그 모든 시도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성경이 오직 사람의 도움에만 기대고 있었다면, 사방에서 그토록 맹렬하게 공격받으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의 모든 노력이 맞서는데도 성경이 자기 능력으로 줄곧 솟아올랐다는 바로 이것으로,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 더욱 확증됩니다. 여기에 이것도 더하십시오. 성경을 받아들이고 품는 데 한 도시나 한 민족만 뜻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넓게 펼쳐진 만큼, 달리는 서로 공통점이 전혀 없던 여러 민족의 거룩한 일치로 성경이 자기 권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토록 다르고 다른 모든 일에서는 서로 어긋나는 마음들의 이런 일치는, 그것이 오직 하늘의 신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나므로 우리를 크게 움직여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일치하는 이들의 경건을 바라볼 때 그 일치에는 적지 않은 무게가 더해집니다. 모든 사람의 경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를테면 빛처럼 밝히기를 원하신 이들의 경건입니다.

33. 이제 우리가 그토록 많은 거룩한 사람들의 피로 확증되고 증언된 것을 보는 그 교리에 얼마나 안심하고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들은 한번 받아들인 교리를 위해 용감하고 두려움 없이, 아니 큰 기쁨으로 죽음을 맞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보증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진 교리를 우리가 어찌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그토록 많은 증인의 피로 인쳐졌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인정이 아닙니다. 특히 그들이 믿음을 증언하려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 떠도는 영들이 때로 그러듯이 광신적인 무절제에서가 아니라, 굳고 한결같으면서도 절제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서였음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의 존엄과 위엄을 경건한 가슴에 주장할 뿐 아니라 중상하는 자들의 술책에 맞서 훌륭하게 지켜 내는 다른 이유들도 적지 않고 약하지

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거기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셔서 성경에 대한 경외를 모든 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전에는, 그 자체로 성경에 굳은 믿음을 얻어 주기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확신으로 세워질 때에야 비로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에 넉넉할 것입니다. 성경을 확증하려고 있는 사람의 증언들도, 저 주되고 가장 높은 증언 뒤에 우리 연약함의 이차적인 보조 수단으로 따라온다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명하려는 자들은 어리석게 행합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람이 이렇게 큰 일들에 관해 무엇을 깨달으려면 경건과 마음의 평안이 앞서야 한다고 일깨우는 것은 마땅합니다.

34. 나아가 성경을 내버리고 무엇인지 모를, 하나님께 꿰뚫어 들어가는 길을 상상하는 자들은 오류에 붙잡혀 있다기보다 광기에 휘둘리고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CO 301 최근에 어떤 어지러운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몹시 거만하게 성령의 가르치심을 내세우며, 자기들은 모든 읽기를 물리치고, 그들 말대로 죽어 버린, 죽이는 문자를 아직도 좇는 이들의 단순함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서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교리를 유치하고 낮은 것처럼 감히 업신여길 만큼 그들을 그토록 높이 들어 올리는 그 숨결은 도대체 어떤 영의 숨결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런 안심은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다른 신자들이 다른 영이 아닌 바로 그 영으로 조명받았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를 배우지 않았고, 오히려 각 사람이 더 큰 경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글이 이것을 아주 환하게 증언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그들에게서 이 대답도 듣고 싶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과 다른 영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극도의 광기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것을 감히 자랑할 만큼 그토록 어지러움에 휩쓸려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그 영이 어떤 분이 되리라고 알리셨습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당신이 말씀으로 전하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일깨우시고 스며들게 하실 분입니다(요 16:13).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직무는 새롭고 듣지 못한 계시를 꾸며 내거나, 우리를 받아들인 복음의 교리에서 끌어낼 새로운 종류의 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전해진 바로 그 교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는 것입니다.

35.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게서 무슨 쓸모와 열매를 얻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듣는 데 힘써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깨닫습니다. 반대로 어떤 영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지나쳐 버리고 우리에게 다른 교리를 밀어넣는다면, 그 영은 마땅히 헛됨과 거짓의 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아주 확실한 표지로 분별되지 않는다면 영이 우리에게 무슨 권위를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그 영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리켜졌습니다. 다만 이 비참한 자들이 성령을 주님에게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면서, 스스로 자기 멸망으로 헤매기를 좋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물이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복종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둘러댑니다. 마치 성령께서 어디서나 당신 자신과 같고 일치하시며, 모든 일에서 한결같으시고, 어디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것이 성령께 치욕이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사람이나 천사나 어떤 다른 규범으로 재어지신다면, 그때는 성령께서 질서 아래로, 원한다면 종살이로까지 끌어내려지신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 자신과 비교되시고 당신 자신 안에서 살펴지실 때, 누가 거기서 성령께 해를 끼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검증받으시는 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위

엄이 확증되기를 원하신 검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스며드시자마자 그것이 우리에게 넉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이 성령의 이름 아래 몰래 기어들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당신이 성경에 새기신 당신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당신을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과 다르고 어긋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거기서 한번 당신을 드러내신 그대로 언제나 머무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께 모욕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자기에게서 떠나 타락하는 것을 영예로 여긴다면 모르겠습니다.

36. 그들이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매달린다고 트집 잡는 데서, 그들은 성경을 멸시한 벌을 받습니다. 바울이 거기서(고후 3:6) 거짓 사도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넉넉히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권하면서 백성을 새 언약의 은택에서 떼어 놓았습니다. 그 새 언약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신자들의 속에 새기시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렘 31:31). 그러므로 주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찢겨 나가고 마음에는 닿지 않은 채 귀에만 울릴 때, 그것은 죽은 문자이며 자기를 읽는 이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마음에 효력 있게 새겨지고 그리스도를 보여 준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혼을 돌이키며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도는 같은 대목에서(고후 3:8) 자기 설교를 영의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곧 성령께서 성경에 표현하신 당신의 진리에 그렇게 붙어 계셔서, 말씀에 그 경외와 존엄이 서 있을 때에야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펼치신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한 것, 곧 말씀 자체도 성령의 증언으로 확증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리 확실하지 않다는 말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과 당신 성령의 확실성을 어떤 서로의 끈으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비추실 때 말씀에 대한 견고한 경건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거꾸로 우리가 성령을 당신의 형상, 곧 말씀 안에서 알아볼 때 우리는 헛것을 볼까 하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성령이 오시자마자 없애 버리실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능력으로 말씀을 베푸셨던 바로 그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효력 있게 확증함으로 당신의 일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여셨습니다(눅 24:27). 그들이 성경을 내던지고 스스로 지혜로워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할 때(살전 5:19–20), 그들을 말씀 없는 헛된 사변으로 높이 들어 올리지 않고, 곧이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이로써 예언이 멸시받게 되자마자 성령의 빛이 질식한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암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연히 내버리고 작별을 고한 채 코 골며 잠자다 품은 것이면 무엇이든 무모한 만큼이나 자신만만하게 붙잡는 것만을 뛰어난 조명으로 여기는 저 부풀어 오른 열광주의자들(ἐνθουσιασταί)[156]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CO 303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참으로 전혀 다른 절제가 어울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자기들이 진리의 모든 빛을 빼앗긴 자임을 알듯이, 말씀이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당신 성령의 조명을 베푸시는 도구라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신 영 말고 다른 영을 알지 못하며, 그 영의 신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37. 그런데 세상이라는 기계와 모든 피조물에서도 달리 희미하지 않게 내놓아지는 하나님 지식이 말씀으로는 더욱 친숙하고 분명하게 펼쳐진다고 우리가 가르쳤으므로, 이제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이 앞서 우리가 본, 그분의 일들에 그려진 모습과 같은지 따져

156. [원문의심] OCR은 “iy&ovaut<nal”로 깨져 있습니다. 그리스어 “ἐνθουσιασταί”(열광주의자들)로 읽었습니다.

보는 것이 보람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더 꼼꼼하게 다루며 머물고자 한다면 참으로 긴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테면 목록 하나를 내놓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들이 그것으로 일깨움을 받아,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가장 찾아야 하는지 알고, 그 탐구의 확실한 목표로 이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뒤에 온 인류를 끝없이 선을 베푸심으로 품으시고 돌보셨으되, 경건한 자들은 특별한 은혜로 언제나 끊임없이 이어 기르시고 붙드시고 지키셨으며, 그들에게서 거꾸로 인정받으시고 경건하게 섬김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다음 그분은 모든 세대의 역사로, 이를테면 어떤 본보기들로, 신자들을 향한 당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한결같은지, 섭리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선을 베푸심이 얼마나 신속한지, 도우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죄를 용서하실 때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지치지 않는지, 벌하실 때의 징계가 얼마나 아버지다운지, 진실하심이 얼마나 변함없는지를 우리 눈앞에 두십니다. 반대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보응이 얼마나 엄한지, 오래 참으신 뒤에 당신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타오르는지, 그들을 거꾸러뜨리고 짓밟으시는 당신 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이 형상이, 우리가 방금 세상 전체에 나타난다고 보인 형상과 멋지게 들어맞습니다.

38. 그런데 어떤 대목들에서는 그분에 대한 환한 묘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분의 참된 얼굴이 형상처럼(εἰκονικῶς)[157] 보이도록 드러납니다. 거기서 이 일치가 더 잘 보일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얼굴을 묘사할 때, 그는 참으로 사람들이 그분에 관해 깨닫는 것이 허락된 모든 것을 짧게 담으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출 34:6). "여호와, 여호와,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자비가 풍성하며, 진실한 하나님이여,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이여, 죄악과 범죄를 없애시는 이여, 그

157. [원문의심] OCR은 "ilxonxSg"로 깨져 있습니다. 그리스어 "εἰκονικῶς"(형상처럼)로 읽었습니다.

앞에서는 무죄한 자도 무죄하지 않을 이여,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과 손자에게 갚으시는 이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 장엄한 이름이 두 번 거듭되어 그분의 영원하심과 스스로 계심(αὐτουσία)[158]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분의 능력들이 언급되는데, 그 능력들로 그분은 당신 자신 안에서 누구이신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어떠하신지가 우리에게 묘사됩니다. 그분을 아는 이 지식이 공허하고 허공에 뜬 사변보다 살아 있는 감각에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빛난다고 짚었던 바로 그 능력들, 곧 너그러우심, 선하심, 긍휼, 의, 심판, 진실하심이 열거되는 것을 듣습니다. 능력과 권능은 엘로힘이라는 이름 아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밝히려 할 때 같은 칭호들로 그분을 일컫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 올리지 않도록, 지금은 시편 하나(시 145)로 충분하다고 합시다. 그 시편에서는 그분의 모든 능력의 요약이 너무도 정확하게 열거되어서 빠진 것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놓인 것 가운데 피조물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험을 선생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선언하시는 그대로 그분을 느낍니다. 예레미야서에서(렘 9:23)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어떤 분으로 알기를 원하시는지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같은 데로 돌아가는 묘사를 내놓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 곧 내가 땅에 긍휼과 심판과 의를 행하는 주인 줄 아는 것으로 자랑할지니라." 이 세 가지는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 모두의 구원이 오직 거기에 서 있는 것이요, 심판은 날마다 악한 자들에게 행해지며 더 무겁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요, 의는 신자들이 그것으로 보존되고 지극히 인자하게 보살핌받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것들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넉넉히

158. [원문의심] OCR은 "xal avTovtrfttv"로 깨져 있습니다. "καὶ αὐτουσίαν"(그리고 스스로 계심)으로 읽었습니다.

가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진실하심이나 능력이나 거룩하심이나 선하심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그분의 의와 긍휼과 심판에 대한 지식이 그분의 굽힐 수 없는 진실하심에 기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깨닫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이 심판과 의로 땅을 다스리신다고 믿겠습니까? 또 긍휼이 선하심에서가 아니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마침내 그분의 모든 길이 긍휼과 심판과 의라면, 그 길들에서는 거룩하심도 뚜렷이 보입니다. 나아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놓아지는 하나님 지식은 피조물에 새겨져 빛나는 지식과 다른 목표를 향하지 않습니다. 곧 그것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흠 없는 삶과 꾸밈없는 순종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배우고, 그다음 온전히 그분의 선하심에 기대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보다 더 가까이 바라보이도록 당신을 내보이지 않으시며, 그 얼굴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므로, 하나님 지식에 관해 더 말해야 할 것은 믿음의 깨달음을 다룰 자리로 미루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CO 305 159

159. 원문 파일은 CO 1:305 표시에서 끝납니다. 이 단부터 시작하는 제2장은 다음 편에서 옮깁니다.

1539–1554년판 ·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1

CO 1:305–31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305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여기서는 원죄, 사람 본성의 부패, 자유의지의 무능, 그리고 중생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논합니다.

1. 옛 속담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그토록 늘 권해 온 데에는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의 이치에 속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진다면,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은 훨씬 더 추한 무지입니다. 이 무지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필요한 일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 비참하게 헛짚고, 아예 눈먼 사람처럼 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유익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잘못 쓰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서 살펴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라고 권하면서, 동시에 그 목적을 내세워 사람이 자기의 존엄과 탁월함을 모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안에서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는, 그것으로 헛된 자신감에 부풀고 교만으로 들뜨게 할 것밖에 없습니다.

2.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그와는 아주 다른 것을 찾으라고 명합니다. 곧 우리를 자기 능력에 대한 모든 신뢰에서 멀리 불러내고, 자랑할 모든 거리를 잃게 하여 낮아짐으로 이끄는 그런 지식을 요구합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는 과녁에 이르고자 한다면 이 규칙을 붙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가난과 수치와 추함과 연약함을 살피도록 부르기보다는 우리의 좋은 점을 알아보도록 부르는 저

견해가 얼마나 더 박수를 받는지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마음은 아첨으로 어루만져지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이 크게 칭찬받는 소리를 들으면, 지나치게 쉽게 믿어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들 대부분이 그토록 해롭게 길을 잃은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모든 죽을 인생에게는 눈먼 것보다 더한 자기 사랑이 타고나 있으므로, 그들은 자기 안에 마땅히 미움받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아주 기꺼이 스스로 믿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다른 누가 변호해 주지 않아도, 사람은 잘 그리고 복되게 사는 데 스스로 넉넉하다는 이 지극히 헛된 견해가 곳곳에서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생각하려는 이들이 있다 해도,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얼마쯤을 내어 드리기는 하지만, 영광과 신뢰의 가장 큰 거리는 언제나 자기에게 남아 있도록 나눕니다.

3. 이제 사람의 골수 속에서 저절로 근질거리는 교만을 그 유혹으로 간지럽히는 말이 더해지면, 그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본성의 탁월함을 자기의 찬사로 가장 너그럽게 추켜올린 사람은, 거의 모든 시대의 큰 박수를 받으며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자기 안에서 안주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의 탁월함에 대한 칭찬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달콤함으로 즐거움을 줄 뿐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여서, 동의하는 자들을 가장 비참한 멸망으로 망하게 합니다. 모든 헛된 자신감에 기대어 우리가 일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꾀하고, 꾸미고, 시도하고, 애써 벌이다가, 첫 시도에서부터 건전한 이해와 참된 힘을 다 잃고 버려지면서도, 우리가 무너져 파멸에 떨어질 때까지 태평하게 계속해 나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달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우리의 좋은 점을 헤아리는 데에만 붙잡아 두는 그런 선생들의 말을 듣는다면, 자기를 아는 지식에 나아가지 못하고

가장 나쁜 무지로 끌려갈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지혜의 둘째 부분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죽을 인생의 공통된 생각과 일치하지만, 아는 방식 자체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의 판단으로는, 사람이 자기의 이해와 온전함을 믿고 담대해져서 스스로 덕의 의무로 내달리고, 악덕에 전쟁을 선포하고, 아름답고 정직한 것에 온 열심을 다해 힘쓰려 할 때, 그는 자기를 잘 살펴 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먹줄에 자기를 대어 보고 살피는 사람은, 마음을 일으켜 좋은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깊이 살필수록 더욱더 꺾여, 마침내 모든 자신감을 아주 내려놓고 삶을 바르게 세울 것을 자기에게 하나도 남겨 두지 않습니다.

5.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본성에 어떤 고귀함이 심겨 있어서 마땅히 우리를 의와 정직을 추구하도록 일깨워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기원이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불멸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찔림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기세를 북돋우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마음을 꺾어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끕니다. 그 기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에서 아주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넌더리가 나 탄식하고, 탄식하면서 저 잃어버린 존엄을 CO 307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기세등등하게 할 것을 아무것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을 믿고 교만해도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괜찮다면, 사람이 가져야 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나눕시다. 첫째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목적으로 지음받았고 업신여길 수 없는 은사들을 받았는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이 생각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장차 올 생명을 묵상하도록 일깨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자기의 능력, 아니 오히려 능력이 없음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그는 마치 무로 돌아간 듯이 지극한 혼란 가운데 엎드러질 것입니다. 앞의 생각은 사람이 자기의 의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고, 뒤의 생각은 그 의무를 이루는 데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둘에 관해서는 가르침의 순서가 요구하는 대로 여기저기서 다룰 것입니다.

6. 그러나 사람의 이 비참한 처지를 그리기 시작하기 전에, 사람이 첫 상태에서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를 붙들어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성적인 악을 드러내는 동안, 그것을 본성의 창시자께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경건은 자기에게 있는 악덕이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내세울 수만 있으면, 이 핑계로 넉넉히 변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으면 서슴지 않고 하나님 자신과 다투며, 마땅히 자기가 피고로 몰려야 할 그 죄책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신성에 관해 더 경건하게 말하는 듯 보이려는 자들도, 본성을 탓하는 데서 자기의 악한 의지에 대한 핑계를 기꺼이 찾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비록 덜 드러나게나마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본성에 어떤 악덕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모욕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이 자기 악의 죄책을 어떻게든 자기에게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고 여기는 온갖 빠져나갈 구멍을 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므로, 이 악의를 부지런히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재앙은, 육의 악의가 부리는 모든 발뺌을 끊고 주님의 의를 모든 혐의에서, 하물며 모든 고발에서 변호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순수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진리는 이런 터무니없는 말들을 편들기는커녕, 깨닫기만 하면 그 자체로 그것들을 논박하기에 넉넉합니다.

7.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로써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능력과 온전함과 진리와 무죄함에 참여하는 자로 지어졌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사람에게 맡겨진 다스림에 두는 자들의 오류는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이 모든 생물의 주인이자 다스리는 자로 세워졌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만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말씀에 더 큰 무게가 담겨 있지 않다면, 모세가 그토록 자주 되풀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 이 문제에 관한 모든 논란을 끝냅니다(엡 4:23–24).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골 3:9–10).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 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영이 땅의 더러움에서 씻겨 오직 하늘의 순결만을 내쉴 때 주님과 이루는 닮음으로 풀이하는 것을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그는 다른 곳에서(고후 3:18),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뚜렷이 보여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가르칠 때, 형상 자체가 사람의 영혼 속에 있으며 영적 중생으로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데 아무 모호함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창조주께서 그에게 베푸신 가장 넉넉한 선하심을 증언하는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참여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좋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 받은 온전함 가운데서 있기만 했다면 그것들과의 끊임없는 결속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 서 있지 못했고, 곧바로 자기의 배은망덕으로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토록 많은 은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 하늘의 형상은 지워지고 말살되었습니다. 그가 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므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과의 교제

에서도 필연적으로 함께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양이 그를 장식으로 입혀 주던 지혜, 능력, 거룩함, 진리, 의의 자리에 가장 끔찍한 역병들, 곧 무지, 무능, 불결, 허망함, 불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 비참함에 잠기고 휩싸였으며, 그 자손까지도 같은 비참함에 얽어 넣었습니다. 자손들은 자기들이 나온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조상의 더러움에 물든 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8. 이것이 옛 저자들이 원죄라고 부른 유전된 부패입니다. 그들은 죄라는 말로, 전에는 선하고 순수하던 본성의 타락을 가리켰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그들은 펠라기우스파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펠라기우스파는 죄가 첫 사람에게서 모든 자손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으로 입증되자, 그것이 번식으로가 아니라 모방으로 넘어왔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밖에서 받아들인 악으로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악덕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지니고 나온다는 것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지극한 뻔뻔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사람의 저작에서, 펠라기우스파와 켈레스티우스파가 다른 모든 일에서도 얼마나 낯가죽이 두꺼운 짐승들이었는지를 꿰뚫어 본 사람은 그들의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자기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고 고백하는 것(시 51:5)[160]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잘 드러내려고, 자기 자신의 비뚤어짐에 대한 CO 309 고백을 첫 출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그의 본보기 아래 인류 공통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씨에서 나온 우리는 모두 죄에 감염된 채 태어납니다. 아니, 이 삶의 빛을 보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

160. 원문에는 “시편 51편 7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님 앞에서 더럽혀지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내겠느냐? 하나도 없다.” 욥기에 있는 대로입니다(욥 14:4).

9. 우리는 부모의 더러움이 자식들에게 전해져서,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그 기원에서부터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의 시작은, 우리가 샘으로 거슬러 올라가듯 모든 사람의 첫 조상에게로 올라가지 않고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아담은 사람 본성의 조상일 뿐 아니라 이를테면 뿌리였고, 그러므로 그의 부패로 인류가 마땅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견주어 이것을 더 분명히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롬 5:12).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진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 펠라기우스파는 여기서 아담의 죄가 모방으로 퍼졌다고 무슨 수다를 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서 얻는 것은 그것이 본받으라고 우리 앞에 놓인 본보기라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큰 신성 모독을 참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눠 주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의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동시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의와 생명은 둘 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아지며, 죄와 사망은 아담을 통해 몰래 들어왔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롬 5:19). 그러므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자기의 몰락에 얽어 자기와 함께 망하게 했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진리의 빛이 이토록 환하니, 더 길거나 더 수고로운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고린도전서에서도(고전 15:22), 경건한 이들을 부활의 확신으로 굳게

하려 할 때,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아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선언하는 그는, 동시에 우리가 죄의 얼룩에 얽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증언합니다. 죄악의 허물이 조금도 닿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죄가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는, 다른 한쪽 짝,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소망이 회복되었다고 가르치는 대목과 견주어 보는 것보다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저 놀라운 나눠 주심으로 당신의 의의 힘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실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은 넉넉히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롬 8:10) "영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만 재앙과 파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까지도 같은 멸망으로 함께 떨어뜨렸다는 뜻으로밖에 풀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한 사람만의 악덕 때문이 아니라, 그가 빠져든 그 악덕으로 자기의 모든 씨를 감염시켰기 때문입니다.

10. 이 일을 이해하는 데에, 옛 저자들을 적잖이 괴롭힌 저 조바심 나는 논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곧 그 더러움이 주로 영혼에 머물러 있으므로, 아들의 영혼이 아버지 영혼의 가지에서 나오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본성에 주시고자 하신 은사들을 아담에게 맡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받은 은사들을 잃었을 때, 그는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그것을 잃었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잃어버린 저 장식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못지않게 우리를 위해서 받았다는 것, 곧 그것들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 전체에 부여되었다는 것을 듣는다면, 누가 영혼이 가지에서 나오는지를 두고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이 벌거벗겨졌을 때 본성이 헐벗고 가난하게 버려지는 것, 아담이 죄로 더럽혀졌을 때 그 감염이 본성으로 번

져 가는 것은 조금도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썩은 뿌리에서 썩은 가지들이 나왔고, 그 가지들은 자기에게서 돋아나는 다른 햇가지들에게 자기의 썩음을 전했습니다. 자식들이 조상 안에서 부패하여 손자들에게 썩음을 옮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곧 부패의 시작이 아담 안에 있어서, 끊임없는 흐름으로 앞선 자들에게서 뒤에 오는 자들에게로 옮겨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염은 육이나 영혼의 실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을 그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손을 위해 함께 가지기도 하고 함께 잃기도 하도록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파는 경건한 부모의 자식들은 부모의 순결로 오히려 거룩해져야 마땅하므로 그들에게서 부패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것은 쉽게 논박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영적 중생에서가 아니라 육적 출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죄책 있는 불신자든 사면받은 신자든, 둘 다 사면받은 자가 아니라 죄책 있는 자를 낳는다. 부패한 본성에서 낳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식들이 어떤 식으로 부모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인류에게 내린 저 첫째의 보편적인 저주가 앞서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죄책은 본성에서 오고, 거룩하게 하심은 초자연적 은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11. 그러나 이것이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일에 관해 한 말이 되지 않도록, 원죄를 정의해 봅시다. 저술가들이 내놓은 정의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는 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진리에 가장 잘 맞는 정의 하나만을 내놓겠습니다. 원죄란 우리 본성의 유전된 비뚤어짐과 부패로서,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으며,[161]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책

161. 이 대목은 두 단이 뒤섞이고 OCR이 깨져 "haereditaria naturae nostrae pravitas et corruptio" 뒤를 또렷이 읽을 수 없습니다. 뒤따르는 "primum facit reos irae Dei"와 『기독교 강요』의 같은 정의에 따라 "in omnes animae partes diffusa"(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는)로 읽었습니다. [원문의심]

있는 자로 만들고, 다음으로 성경이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우리 안에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갈 5:19).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여러 번 본래의 뜻으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CO 311 나오는 일들, 곧 간음, 음행, 도둑질, 미움, 살인, 방탕 같은 것들을 그는 이런 뜻에서 죄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또 바울 자신에게서도 그것들을 죄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12.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렇게 우리 본성의 모든 부분이 부패하고 비뚤어졌으므로, 이런 부패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정죄받고 유죄로 판결받은 자로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의와 무죄함과 순결 말고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의 범죄 때문에 지는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 자신은 죄가 없고 그럴 까닭이 없는데도 그의 범죄의 허물을 떠맡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범법으로 우리가 모두 수치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가 우리를 묶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우리에게 미친 것은 형벌만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스며든 역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 역병에 마땅히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이 번식으로 우리에게 흘러든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이려고 자주 그것을 남의 죄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각 사람 자신의 죄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자신이 매우 분명하게 증언합니다(롬 5:12).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원죄에 휩싸이고 그 얼룩에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조차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기의 정죄를 지니고 나오므로, 남의 악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악덕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 죄악의 열매를 내지 않았지만, 그 씨를 자기 안에 품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본성 전체가 일종의 죄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께 미움받고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 둘째, 이 비뚤어짐은 우리 안에서 결코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 열매, 곧 우리가 앞에서 묘사한 육체의 일들을 냅니다. 불붙은 화덕이 불꽃과 불티를 내뿜는 것과 같고, 샘이 끝없이 물을 쏟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원의(原義)의 결여라고 정의한 자들은, 실제로 있는 것을 모두 담기는 했지만, 그 힘과 활동을 충분히 뚜렷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본성은 선이 없고 비어 있을 뿐 아니라, 온갖 악을 아주 기름지고 풍성하게 내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욕이라고 말한 자들은 그리 동떨어진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이것, 곧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지성에서 의지까지, 영혼에서 육까지 무엇이든 이 정욕으로 더럽혀지고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덧붙인다면 말입니다. 더 짧게 끝맺자면, 사람 전체가 그 자체로는 정욕 말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4. 이제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악덕을 감히 덮어씌우는 자들은 물러가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그 작품의 더러움 속에서 잘못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직 온전하고 부패하지 않았던 아담의 본성에서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육의 허물에서 옵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우리의 첫 상태에서 타락했기 때문이고, 다른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막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더 잘 돌보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반론은 너무 대담한 호기심 때문에 경건한 마음에는 가증한 것일 뿐 아니라, 예정의 비밀에 속하는 것이므로 뒤에 알맞은 자리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의 창시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파멸을 본성의 타락에 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저 치명적인 상처가 본성에 박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데서 더해졌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었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입혀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말고는 원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지런히 일러 두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전 7:29).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아냈다.” 사람의 멸망은 오직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정직함을 얻었으나,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허망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15.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본성적인 악덕으로 부패했다고 말하지만, 그 악덕이 본성에서 흘러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본성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심겨 있던 실체적 속성이라기보다 사람에게 닥친 외래의 성질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본성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각 사람이 나쁜 습관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전의 권리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까닭으로 사도는 우리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엡 2:3). 당신의 가장 보잘것없는 작품들도 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피조물에게 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작품 자체보다 당신의 작품이 부패한 것에 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이 부패했으므로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이 서투른 말이 아니라면, 사람이 본성적으로 비뚤어지고 악하다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부패한 본성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우리 육 안에 필연적으로 왕 노릇 하는 죄들을 본성적인 죄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니교도들의 어리석은 허튼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들은 사람 안에 실체적인 악이 있다고 상상했으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의 원인과 시작이 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 악에 다른 창조자를 붙였습니다.

16. 첫 사람을 자기에게 묶어 두게 된 그때부터 죄의 지배가 온 인류를 덮쳤다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이 종노릇에 떨어진 뒤로 우리는 모든 자유를 빼앗겼습니까? 그리고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힘은 CO 313 어디까지 미칩니까? 그런데 이 물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더 쉽게 밝혀지도록, 논의 전체가 겨누어야 할 과녁을 먼저 지나가며 세워 둡시다. 양쪽에 도사린 위험을 살펴보면, 어떤 과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바름을 거두어 버리면, 사람은 곧바로 그것을 게으름의 핑계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데 아무 힘이 없다는 말을 들으므로, 마치 그것이 이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 일 전체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돌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예를 빼앗기시고, 사람 자신도 무모한 자신감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암초들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이런 항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곧 사람은 자기에게 남은 선이 하나도 없고 사방이 가장 비참한 필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배우되, 그래도 자기가 비어 있는 그 선을, 자기가 빼앗긴 그 자유를 사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을 갖춘 자로 꾸며질 때보다 더 날카롭게 게으름에서 일깨워져야 합니다. 이 둘째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누구나 압니다. 첫째 것은 마땅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의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그의 것을 하나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논란의 여지없이 놓여 있다 해도, 사람이 거짓 자랑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장 빼어난 장식으로 꾸며져 있을 때에도 자기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이제 자기의 배은망덕으로 뛰어난 영광에서 지극한 수치로 내던져진 지금, 그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제 말은, 사람이 영예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 있던 그때에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말고는 그에게 아무것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은 그가 자기 자신의 좋은 것들로 풍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여함으로 복되었다는 것을 넌지시 일러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넘쳐흐를 때에도 그 선하심에 감사할 줄 몰랐으니, 이제는 모든 영광을 벗고 잃은 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좋은 것들을 알아봄으로써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그분을 이제라도 자기의 가난을 고백함으로써 영화롭게 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17. 지혜와 능력에 대한 모든 칭찬을 우리에게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중요한 것 못지않게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는 자들은 신성 모독에 우리의 파멸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라고 배울 때, 우리는 갈대 지팡이로 높이 들어 올려졌다가 그 지팡이가 곧 부러져 떨어지는 것 말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힘을 갈대 지팡이에 견주는 것만으로도 지나치게 추켜세우는 것입니다. 헛된 사람들이 우리 힘에 관해 지어내는 것은 무엇이든 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유의지는 그 변호자들에게 세워지기보다 오히려 거꾸러진다"는 저 훌륭한 말을 그토록 자주 되풀이하는 것은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해 두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안에 세워지도록 뿌리째 뒤엎인다는 말을 들으면, 이 논의 전체를 쓸데없을 뿐 아니라 위험한 것처럼 몹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경건(religion)에 필요하고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18. 사람의 능력들을 살필 때, 곧 우리가 그것들을 더 잘 평가하기 위해, 그것들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도 가장 단순한 나눔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철학자들의 저 더 정교한 구분들을 늘어놓을 필요가 어

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분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리에 다섯 감각이 있는데, 플라톤은 이것들을 차라리 기관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모든 대상이 이 감각들을 통해, 마치 어떤 그릇에 담기듯 공통 감각으로 흘러듭니다. 다음에 상상력이 있어서 공통 감각이 붙잡은 것을 판별합니다. 그다음에 이성이 있어서 보편적인 판단이 이성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이 있어서, 이성이 추론하며 이리저리 굴리곤 하는 것을 고정되고 고요한 응시로 바라봅니다. 또 영혼의 세 인식 능력, 곧 지성과 이성과 상상력에 세 욕구 능력이 대응한다고 합니다. 곧 지성과 이성이 내놓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 몫인 의지, 이성과 상상력이 내미는 것을 붙잡는 성내는 힘, 상상력과 감각이 내놓는 것을 붙잡는 탐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참되거나 적어도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 모호함으로 우리를 돕기보다 휘감아 버릴까 두려우므로, 저는 이것을 빼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영혼의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나누고 싶어서, 하나는 욕구 능력이라 부르되 그 자체로는 이성이 없지만 다른 데서 이끌어 주면 이성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지성 능력이라 부르되 그 자체로 이성에 참여하는 것이라 한다 해도,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행동의 원리가 셋, 곧 감각과 지성과 욕구라는 것도 논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라리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나눔을 고릅시다. 그런 나눔은 분명 철학자들에게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단순하게 말하려 할 때 영혼을 욕구와 지성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둘 다 다시 둘로 나눕니다. 지성은 때로는 관조적이어서 앎만으로 만족하고 행동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키케로는 이것을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천적이어서 선이나 악을 붙잡음으로써 의지를 여러 가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갈래 아래 잘 그리고 의롭게 사는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곧 욕구)도 그들은 의지와 정욕으로 나눕니다. 그들이 호르메(ὁρμή)라고 부르는 욕구가 이성에 순종할 때마다 그것은 불레시스(βούλησις)이고, 이성의 멍에를

떨쳐 버리고 무절제로 내달릴 때 그것은 파토스(πάθος)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사람 안에 늘 자기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이성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19. 그러므로 이성도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이런 나눔에서 조금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붙듭시다. 사람의 영혼에는 지금 우리 목적에 맞는 두 부분, 곧 지성과 의지가 CO 315 있습니다. 지성의 일은 대상들 가운데서 각각이 옳게 여겨지는지 그르게 여겨지는지에 따라 분별하는 것이고, 의지의 일은 지성이 선하다고 지시한 것을 고르고 따르며, 지성이 그르다고 한 것을 물리치고 피하는 것입니다. 지성에는 그 자체로 아무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는 것은 선택이며, 그는 이 선택을 욕구하는 지성이라고 부른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 자잘한 구분에 여기서 발목 잡히지 맙시다. 쓸데없는 물음에 얽혀 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성은 이를테면 영혼의 길잡이요 키잡이이며, 의지는 늘 지성의 끄덕임을 바라보고 자기 욕망에서 지성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넉넉합니다. 이런 이치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에 긍정과 부정이 있는 것처럼 욕구에도 그와 비슷한 것, 곧 피함과 좇음이 있다고 옳게 가르쳤습니다. 지성의 다스림이 의지를 이끄는 데 얼마나 확실한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영혼 안에서 이 두 부분 가운데 어느 하나에 마땅히 속하지 않는 능력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감각을 지성 아래 포함시킵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감각은 쾌락으로 기울고, 그 대신 지성은 선을 좇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의 욕구는 정욕과 음욕이 되고, 지성의 정서는 의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그들이 더 좋아하는 “욕구”라는 이름 대신, 더 흔히 쓰이는 “의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20. 이제 두 부분이 각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철학자들은 참으로 한목소리로, 이성이 지성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등불처럼 모든

결정을 앞서 비추고 여왕처럼 의지를 다스린다고 꾸며 냅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적셔져 있어서 가장 잘 숙고할 수 있고, 힘이 넘쳐서 가장 잘 명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감각은 둔하고 침침한 눈에 사로잡혀 있어서, 늘 땅바닥을 기고 더 조잡한 대상들 사이를 뒹굴며, 결코 참된 통찰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욕구는 이성에 복종하기를 견디고 감각에 굴복하도록 자기를 내주지 않으면 덕을 추구하도록 이끌려 바른길을 붙들고 의지로 빚어지지만, 감각의 종노릇에 자기를 내주면 감각에 의해 부패하고 타락하여 음욕으로 변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대로 제가 앞에서 말한 영혼의 능력들, 곧 지성과 감각과 욕구 또는 의지(이 이름이 이제 더 흔한 쓰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를 인정한다면, 그들은 지성이 이성을 갖추고 있어서 잘 그리고 복되게 사는 데 가장 좋은 다스리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지성이 자기의 탁월함 가운데 자기를 지키고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심긴 힘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각이라고 불리는 지성의 더 낮은 움직임, 곧 오류와 헛짚음으로 끌려가는 그것은 이성의 회초리로 길들여지고 차츰 물리쳐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은 의지를 이성과 감각 사이 가운데에 두는데, 곧 의지는 자기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이성에 순종하든 감각에 자기를 내주어 끌려가든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21. 그들도 때로는 경험 자체에 설복되어, 사람이 자기 안에 이성의 왕권을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때는 쾌락의 유혹에 간지럽혀지고, 어떤 때는 좋은 것의 거짓 모습에 속고, 어떤 때는 절제되지 않은 정념에 걷잡을 수 없이 얻어맞으며, 플라톤의 말대로 마치 밧줄이나 힘줄에 끌리듯 이리저리 끌려갑니다. 같은 이치로 키케로는 본성이 준 저 작은 불씨들이 비뚤어진 견해와 나쁜 습관으로 곧 꺼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이 한번 영혼을 지배하면, 쉽게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날뛴다고 그들은 인정합니다. 또 그것들을

마부를 떨어뜨리듯 이성을 내쫓고 절제 없이 한없이 날뛰는 사나운 말들에 견주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덕과 악덕이 우리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놓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면, 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 또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선택에 달렸다면, 하는 것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고, 삼가는 일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삼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한다면 원할 때 그것을 그만둘 수 있고, 무슨 악을 저지른다면 그것도 피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방자함이 지나쳐, 우리가 사는 것은 신들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잘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큰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철학자의 견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 지성의 이성은 바른 다스림에 넉넉하다. 그 아래 있는 의지는 감각에 의해 악으로 꾀임을 받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일에서 이성을 길잡이로 따르는 것을 결코 방해받을 수 없다.

22. 기독교를 고백하는 저술가들 가운데, 사람 안의 이성의 건강이 죄로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의지가 악한 욕망에 몹시 얽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마땅한 것보다 훨씬 더 철학자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옛 저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사람의 힘을 추켜세운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사람의 무능을 분명히 고백하면, 첫째로 당시 그들이 맞서 다투던 철학자들의 비웃음을 살까 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저절로 선에 너무 둔한 육에게 게으름의 새 CO 317 핑계를 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의 공통된 판단에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성경의 가르침을 철학의 교설과 절반쯤 화해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히 뒤의 것, 곧 게으름에 자리를 내주지 않는 데 마음을 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는 선과 악을 우리 능력 안에 두셨으므로,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원하지 않는 자들을 붙잡아 두지 않으시며 원하는 자들을 껴안으신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도 원하기만 하면 자주 선으로 바뀌고, 선한 사람도 게으름 때문에 떨어져 악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 본성을 자유의지를 가진 것으로 만드셨고, 필연을 지우지 않으시며, 알맞은 치료책을 내놓으시고는 모든 것을 병든 사람의 뜻에 맡겨 두시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몫을 가져오지 않으면 위로부터의 호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보다 앞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무엇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몫을 가져오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라는 말은 그에게 어디서나 익숙한 말입니다. 히에로니무스가 하는 말도 이와 맞아떨어집니다.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들로 그들이 덕을 추구하는 일에서 사람에게 마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꾸짖지 않고는 우리에게 타고난 둔함을 일깨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일을 얼마나 솜씨 있게 했는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용한 말들이 지극히 거짓되다는 것은 조금 뒤에 밝혀질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 교부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특히 크리소스토무스가 사람 의지의 능력을 추켜세우는 데 도를 넘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를 빼고는 옛 저자들이 모두 이 문제에서 말이 오락가락하거나, 흔들리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말해서, 그들의 글에서 확실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의 견해를 일일이 늘어놓는 데 더 꼼꼼히 매달리지 않고, 논지를 풀어

가는 데 필요해 보이는 만큼만 각 사람에게서 골라 맛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온 자들은 저마다 사람의 본성을 변호하는 데서 정교하다는 칭찬을 얻으려 하다가, 하나둘씩 점점 더 나쁜 데로 줄곧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사람은 감각적인 부분만 부패했을 뿐 이성은 아주 온전하고, 의지도 대부분 온전하다고 흔히 여겨지기에 이르렀습니다.

23. 라틴 사람들 사이에는 늘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훨씬 더 교만하게 낱말을 썼습니다. 그들은 아우텍수시온(αὐτεξούσιον)이라고 불렀는데, 마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다는 듯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까지도 모두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이 대답에 물들어 있고, 뛰어나 보이려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모르므로, 우리는 먼저 그 낱말의 뜻을 따져 보고, 그다음에 성경의 단순함에 따라 사람이 본성적으로 선이나 악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는, 모든 이의 글에 거듭 나오는데도 정의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오리게네스는 그들 사이에서 두루 합의된 것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유의지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성의 능력이요, 둘 가운데 어느 것이든 고르는 의지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의지가 이성과 의지의 능력으로서, 은혜가 도우면 선을 고르고, 은혜가 물러나면 악을 고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르나르두스는 정교하게 말하려다가 더 모호하게, 그것이 의지의 잃어버릴 수 없는 자유와 이성의 굽힐 수 없는 판단 때문에 생기는 동의라고 말합니다. 안셀무스의 정의도 그리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름을 그 자체를 위해 지키는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와 스콜라 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를 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더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지가 은혜 없이는 그 자체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

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들의 것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거나 더 자세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판단"(arbitrium)이라는 이름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을 하는 이성에 더 돌려야 하고, "자유로운"이라는 수식어는 어느 쪽으로든 굽힐 수 있는 의지에 본래 속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본래 의지에 맞는 것이므로, 토마스는[162]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힘, 곧 지성과 욕구가 섞여 있으되 욕구 쪽으로 더 기우는 힘이라고 하면 가장 잘 들어맞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곧 이성과 의지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에 얼마나 돌려야 하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24.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중간의 일들은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 아래 두고, 참된 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영적 중생에 돌립니다. 『이방인의 부르심에 관하여』라는 책의 저자는[163] 이것을 보이려 하면서 의지를 셋으로 셉니다. 첫째는 감각적 의지, 둘째는 혼의 의지, 셋째는 영적 의지입니다. 그는 앞의 두 의지는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마지막 의지는 사람 안에서 하시는 성령의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참된지는 알맞은 자리에서 다룰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이들의 견해를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술가들은 자유의지를 다룰 때, 그것이 시민적인 일이나 바깥 행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무엇보다 먼저 묻습니다. 저는 이 뒤의 물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앞의 물음도 아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 저는 아주 좋은 이유를 대리라고 바랍니다. 그런데 학교들

162.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경–1274)를 가리킵니다.
163. 5세기의 저작으로, 칼빈 당시에는 암브로시우스의 것으로 돌려지기도 했고 오늘날에는 흔히 아키텐의 프로스페르(Prosper of Aquitaine)의 것으로 봅니다.

에서는 세 가지 자유를 헤아리는 구분이 자리 잡았습니다.[164]

164. 이 문장은 다음 편(CO 1:319)으로 이어집니다.

1539–1554년판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2

CO 1:319–33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319 곧 첫째는 필연에서의 자유, 둘째는 죄에서의 자유, 셋째는 비참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붙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나머지 둘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165] 저는 이 구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다만 거기서 필연이 강제와 잘못 뒤섞여 있다는 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살피는 일이 얼마나 꼭 필요한지는 다른 곳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25. 그러므로 이제 사람에게 선행을 위한 자유의지가,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도 택함받은 자들만이 중생으로 얻는 특별한 은혜의 도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빼앗겼는지, 아니면 아직 얼마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곧 작고 약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은혜가 도우면 그 자신도 자기 몫을 하는 능력 말입니다. 명제집의 선생은 이것을 풀려고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에 알맞게 되려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역사하는 은혜”라고 부르는데, 이 은혜로 우리가 선을 효력 있게 원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협력하는 은혜”인데, 선한 의지를 뒤따르며 돕습니다. 이 나눔에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이것입니다. 그는 선에 대

165. 이 문장의 앞부분(“그런데 학교들에서는 세 가지 자유를 헤아리는 구분이 자리 잡았습니다”)은 앞 편에서 옮겼습니다. 여기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세 가지 자유의 목록부터 옮깁니다.

한 효력 있는 욕구를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면서, 사람이 이미 자기 본성으로 어떤 식으로든, 비록 효력 없이나마, 선을 욕구한다고 넌지시 말합니다. 베르나르두스도 그렇게 하여, 선한 의지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움직임으로 그런 선한 의지를 욕구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내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롬바르두스는 이 나눔을 그에게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둘째 항목에서는 모호함이 제 마음에 걸립니다. 그 모호함이 비뚤어진 해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둘째 은혜에 협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은혜를 물리쳐 헛되게 하거나, 순종하며 따라 굳게 하는 것이 우리 권한에 달려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부르심에 관하여』의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성의 판단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에서 떠나는 것이 자유롭다. 그래서 떠나지 않은 것이 상급이 되고, 성령께서 협력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자기 의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의 공로로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를 지나가며 적어 두고 싶었던 것은, 제가 더 건전한 스콜라 신학자들과도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를 여러분이 이제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의 궤변가들과는 더 먼 거리만큼 다릅니다. 곧 그들이 옛사람들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나간 만큼입니다. 어쨌든 이 나눔으로 우리는 그들이 어떤 뜻에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롬바르두스는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행하거나 생각하는 데 똑같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강제에서 풀려나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유는 우리가 악하고, 죄의 종이며, 죄짓는 것밖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 그러므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선과 악을 똑같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의지로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하찮은 것에 그토록 거만한 칭호를 붙일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자유입니다. 사람이 죄를 섬기도록 강제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원하는 종(ἐθελόδουλος)이어서 그의 의지가 죄의 족쇄에 묶여 붙잡혀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헛되이 지치게 하는 말다툼(λογομαχίαι)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터무니없게 들리는 낱말들은, 특히 해롭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곳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습니다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곧바로 그가 자기 지성과 의지의 주인이어서 자기 스스로 어느 쪽으로든 자기를 굽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백성에게 그 뜻을 부지런히 일러 주면 그런 위험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거짓 쪽으로 기울어지므로, 긴 설명에서 진리를 길어 내기보다 낱말 하나에서 오류를 더 빨리 길어 낼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바로 이 낱말에서 바랄 만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해석은 버려두고, 거의 모든 후대 사람들이 낱말의 어원에 매달리다가 파멸에 이르는 자신감으로 들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27. 만일 교부들의 권위가 우리를 움직인다면, 그들은 이 낱말을 늘 입에 달고 있지만, 동시에 그 쓰임을 어느 만큼 여기는지도 밝힙니다. 무엇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을 “종 된” 것이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곳에서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성을 내지만, 그 주된 까닭을 이렇게 말하며 밝힙니다. 다만 누구도 죄를 변명하려는 뜻으로 의지의 결정을 부정하는 일은 감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의지가 정욕에 정복되므로 성령 없이는 자유롭지 않다고 고백합니다.[166] 또, 의지가 그 빠져 든 악덕에 정복

166. CO 편집자 각주: 『아나스타시우스에게 보낸 편지』(편지 144, 오늘날 번호 145).

되자 본성이 자유를 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167] 또, 사람이 자유의지를 악하게 써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유의지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168] 또, 자유의지가 사로잡혀 있어서 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169]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하지 않은 것은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명령하고 사람이 마치 자기 힘으로 하듯 할 때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의지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짧게 밝힙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사람이 창조될 때 자유의지의 큰 힘을 받았으나 죄를 지어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씁니다.[170]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는 자유의지가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인 뒤에,[171] 은혜 없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내세우는 자들을 날카롭게 공박합니다. CO 321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참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기도 전에 자유의지를 자랑하거나, 이미 자유롭게 되었다면 자기 힘을 자랑하려 합니까? 그들은 자유의지라는 이름 자체에 자유라는 말이 울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의 종이라면 어찌하여 자유의지를 뽐냅니까? 사람은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에게 종으로 넘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뽐냅니까? 아니면 그들은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 말씀하시는 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만큼 자유롭습니까?" 또 다른 곳에서는 그가 이 낱말의 쓰임을 농담하듯 비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의지는 자유롭기는 하지만 해방되지는 않았다.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167. CO 편집자 각주: 『사람의 의의 완전함에 관하여』 4장.
168. CO 편집자 각주: 『라우렌티우스에게 준 신앙 편람』 30장.
169. CO 편집자 각주: 『보니파키우스에게』 3권 8장.
170. CO 편집자 각주: 『사도의 말씀에 관하여』 설교 2(오늘날 번호 설교 131, 6).
171. CO 편집자 각주: 『영과 문자에 관하여』 30장.

죄에 대해서는 종이다. 그는 이 문장을 다른 곳에서도 되풀이하며 설명합니다. 거기서 그는 사람이 의지의 결정으로만 의에서 자유롭게 되고, 구주의 은혜로만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자유가 의로부터 놓여나는 것, 곧 의에게서 풀려나는 것일 뿐이라고 증언하는 그는, 그 이름이 헛되다는 것을 멋지게 비웃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말을 비뚤어지게 이해하지 않고 쓴다면, 저는 그 일로 그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큰 위험 없이는 이 말을 지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것을 없애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므로, 저 자신도 그 말을 쓰고 싶지 않고, 다른 이들도 제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 말을 삼가기를 바랍니다.

28.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빼고는 모든 교회 저술가들이 이 일에 관해 너무 모호하게 또는 이랬다저랬다 말해서 그들의 글에서 확실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했으니, 어쩌면 제가 제게 큰 불리함을 스스로 끌어들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마치 그들이 모두 제 반대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투표권에서 밀어내려 한 것처럼 해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단순하고 진실하게 돕고자 한 것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부분에서 교부들의 견해를 기다린다면, 늘 확신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교부들은 한때는 자유의지의 힘을 빼앗긴 사람이 오직 은혜로 피하라고 가르치고, 한때는 사람을 그 자신의 무기로 무장시키거나 무장시키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처럼 모호하게 말하면서도 사람의 힘을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주 하찮게 여기고 모든 선한 것의 찬양을 온전히 성령께 돌렸다는 것을 드러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들의 몇몇 문장을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토록 자주 칭송한 키프리아누스의 말, 곧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 안에서 완전히 비워져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와 에우케리우스가[172]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풀이하면서, 그분께 손을 내미는 자는 살 것이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의지의 결정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것을 맛보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크리소스토무스가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일 뿐 아니라 온통 죄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일 선한 것 가운데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만일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라면, 만일 자유의지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제 선행의 찬양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이들에게서도 같은 꼴의 말을 아주 많이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제가 제 주장에 쓸모 있는 것만 골라내고 반대되는 것은 교활하게 지나친다고 트집 잡지 않도록, 이 인용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히 이것을 단언합니다. 그들이 자유의지를 높이는 데 때때로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운 목표는 사람이 자기 힘에 대한 신뢰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자기 힘을 두도록 가르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본성을 살피면서 진리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데로 나아갑시다.

29. 이 장의 첫머리에서 말해 둔 것을 여기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누구든 자기의 비참함과 궁핍과 벌거벗음과 수치를 의식하여 가장 낮아지고 낙심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아는 지식에서 가장 많이 나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모자란 것을 하나님 안에서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만 한다면, 자기에게서 너무 많이 덜어 낼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권리를 넘어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취하면, 헛된 자신감으로 자기를 망치고, 하나님의 영예를 자기에게로 옮겨 끔찍한 신성 모독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에 무언가 우리 것, 곧 하나님 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172. 에우케리우스(Eucherius, 450경 죽음)는 리옹의 감독으로, 성경 해석에 관한 글을 남겼습니다.

덮쳐 올 때마다, 이 생각은 우리의 첫 조상을 꾀어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되기를 원하게 한 그자 말고 다른 조언자가 우리에게 불어넣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자기 안에서 높이 세우는 말이 마귀의 말이라면, 원수에게서 조언을 받고 싶지 않은 한 그 말에 자리를 내주지 맙시다. 자기 안에서 쉴 수 있을 만큼 자기 힘을 많이 가지는 것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헛된 신뢰에 꾀이지 않도록, 우리를 엄하게 쓰러뜨리는 그 많은 무거운 말씀들이 우리를 붙들어 두게 합시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으로 자기 팔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렘 17:5). 또, 하나님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를 좋아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선하심을 우러러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시 147:10). 또,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력이 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소년들도 피곤하고 곤비하게 하시고 청년들도 넘어지게 하시나, 오직 그분만을 바라는 자들은 힘을 얻게 하신다(사 40:29).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으로 모시고자 한다면 우리 힘에 대한 아무리 작은 생각에도 기대지 말라는 데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약 4:6). CO 323 그다음에는 다시 이런 약속들이 기억에 떠오르게 합시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붓고 마른 땅에 강들을 부으리라(사 44:3). 또,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아오라(사 55:1). 이 말씀들은 자기의 가난을 느끼며 시들어 가는 자들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사야의 이런 말씀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않고 밤에 달이 네 빛이 되지 않을 것이요, 주께서 네게 영원한 빛이 되시리라(사 60:19).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서 해나 달의 빛을 빼앗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 안에서 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므로, 그들의 생각에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서도 그들의 신뢰를 멀리 불러내십니다.

30. 참으로 크리소스토무스의 이 말이 늘 제 마음에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철학의 기초는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은 더욱더 그렇습니다.[173] 그는 말합니다. “저 수사학자가 웅변의 규칙에서 첫째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발성’ 이라고 대답했고, 둘째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발성’ , 셋째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발성’ 이라고 대답했듯이, 당신이 기독교의 규칙에 관해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언제나 ‘겸손’ 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겸손은,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간의 힘이 있다고 의식하면서도 교만과 오만을 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참으로 겸손 말고는 아무 피난처도 없는 자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아무도 자기를 쓰다듬지 마십시오. 사탄은 제 것에서 나온 자입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당신이 당신 것으로 가진 것이 죄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 것인 죄를 당신에게서 치우십시오. 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174] 또, “어찌하여 본성의 가능성을 그토록 내세웁니까? 본성은 상처 입고, 다치고, 시달리고, 망가졌습니다. 거짓된 변호가 아니라 참된 고백이 필요합니다.”[175] 또, “누구든 자기 안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기에게서는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 안의 무기는 꺾이고 싸움은 가라앉습니다. 불경건의 모든 무기가 부서지고 꺾이고 불타야 합니다. 당신은 무기 없이 남아, 당신 안에 아무 도움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서 약할수록 주께서는 당신을 더 붙들어 주십니다.”[176] 이처럼 그는 시편 70편 강해에서[177]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도록 우리 의를 떠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173. CO 편집자 각주: 『디오스코루스에게 보낸 편지』.
174. CO 편집자 각주: 『요한복음 강해』 49편.
175. CO 편집자 각주: 『본성과 은혜에 관하여』 52–53장.
176. CO 편집자 각주: 『시편 강해』 45편 13장. 라틴어 성경의 시편 45편은 한국어 성경의 46편입니다.
177. CO 편집자 각주: 설교 1, 4. 라틴어 성경의 시편 70편은 한국어 성경의 71편입니다.

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 권하신다고 보여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악할 뿐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우리 구원에서 덜어지기라도 하는 듯이, 우리 권리를 두고 하나님과 다투지 맙시다. 우리의 낮음이 그분의 높으심이듯이, 우리의 낮음을 고백하는 것은 치료책으로 마련된 그분의 긍휼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람이 설득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물러서고,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거기서 마음을 돌려 참된 겸손에 굴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는 병(φιλαυτία καὶ φιλονεικία)을 내려놓고, 그 병 때문에 눈이 멀어 자기를 마땅한 것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을 그치고, 성경이라는 참된 거울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보라는 것입니다.[178]

31. 우리가 처음에 사람의 영혼을 지성과 의지로 나눈 그 구분을 따라 이야기의 순서를 이어 가기 위해, 먼저 지성의 힘을 살펴봅시다. 지성을 영원한 눈멂으로 정죄하여 어떤 종류의 일에서도 아무 깨달음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상식의 경험에도 어긋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진리를 찾으려는 무언지 모를 갈망이 심겨 있는 것을 봅니다. 진리의 냄새를 미리 얼마간 맡지 않았다면 결코 진리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성에는 이미 얼마간의 통찰이 있어서, 본성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데로 이끌립니다. 짐승들에게 이것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감각이 이성 없이 둔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갈망이 어떠하든, 자기 달음질의 경주로에 들어서기도 전에 힘을 잃습니다. 곧 헛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성은 둔하여 진리를 찾는 바른 길을 지키지 못하고, 갖가지 오류 속을 헤매며, 어둠 속에서 더듬듯이 자꾸 부딪히다가 마침내 길을 잃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으면서,

178. 원문은 "^kXam^as Mal ftXoycMkxg"로 깨져 있습니다. 문맥과 그리스어 철자의 흔적에 따라 "φιλαυτίας καὶ φιλονεικίας"(자기 사랑과 다툼을 좋아함)로 읽었습니다. [원문의심]

지성은 진리를 찾는 데에도 찾아내는 데에도 얼마나 알맞지 않은지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다음에 지성은 또 다른 헛됨으로 심하게 앓습니다. 어떤 일들을 참으로 알려고 힘쓰는 것이 유익한지를 흔히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고 하찮은 일들을 캐는 데는 우스꽝스러운 호기심으로 자기를 괴롭히면서, 알아야 할 가장 필요한 일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업신여기며 어쩌다 한 번 눈길을 돌릴 뿐입니다. 적어도 거기에 진지하게 마음을 쏟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비뚤어짐에 대해 이방 저술가들도 여기저기서 탄식하지만, 거의 모두 스스로 거기에 얽혀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에서, 사람들이 매우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 연구들을 두루 살핀 뒤에, 그것들이 헛되고 하찮다고 선언합니다.

32. 그렇지만 지성의 노력이 늘 헛되이 끝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성이 이 낮은 일들에 마음을 기울일 때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성은 그렇게 둔하지 않아서, 높은 일들에 관해서도 작게나마 맛을 봅니다. 그것들을 캐는 데 더 소홀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물론 같은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이 이 세상 삶의 테두리 위로 들어 올려질 때에야 무엇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이 자기 능력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일에서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더 잘 살피려면, 구분 하나를 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구분은 이렇습니다. 땅의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하늘의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따로 있습니다. CO 325 제가 땅의 일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참된 의, 장차 올 삶의 불멸에는 미치지 않고, 이 세상 삶과 관계를 가지며 어떤 식으로 그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일들입니다. 하늘의 일들은 참된 의의 원리와 하늘나라의 비밀들입니다. 앞의 종류에는 국가 통치, 집안 살림, 모든 기계 기술과 교양 학문이 들어갑니다. 뒤의 종류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삶을 지어 가는 규칙이 들

어갑니다. 앞의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성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본성적인 본능으로도 그 사회를 돌보고 지키는 데로 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어떤 시민적 품위와 질서에 대한 보편적인 인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은 어떤 것이든 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법들의 원리를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법에 대해 늘 한뜻을 이루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스승이나 입법자가 없어도 법의 씨앗이 모든 사람에게 심겨 있기 때문입니다.

33. 곧 생겨나는 다툼과 싸움에 저는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둑과 강도처럼 모든 법과 도리가 뒤집히고, 법의 빗장이 풀리고, 정욕만이 법 대신 날뛰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이것은 흔하디흔한 악덕입니다) 다른 이들이 공평하다고 정한 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다른 이들이 금하는 것을 칭찬할 만하다고 주장합니다. 앞의 사람들이 법을 미워하는 것은 법이 선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욕심으로 미쳐 날뛰며 분명한 이성과 싸우고, 지성의 깨달음으로는 옳다고 여기는 것을 자기 정욕 때문에 혐오합니다. 뒤의 다툼은 저 처음의 공평에 대한 생각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법의 조항들을 두고 서로 다투는 동안에도 공평의 어떤 큰 줄기에는 뜻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람 지성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지성은 길을 따라가는 듯 보일 때에도 절뚝거리며 비틀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질서의 어떤 씨앗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져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삶을 꾸리는 일에서 이성의 빛을 빼앗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넉넉한 증거입니다.

34. 다음으로 교양 기술과 손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들을 배울 어떤 소질이 있으므로, 여기서도 사람의 예리함이 지닌 힘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배우기에 알맞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술에서

든 통찰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공통된 능력의 확실한 증거로 넉넉합니다. 배우는 데에 능력과 쉬움이 있을 뿐 아니라, 각 기술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거나, 남이 앞서 이끌어 배운 것을 넓히고 다듬는 데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을 잘못 이끌어 이런 이해는 회상일 뿐이라고 가르치게 했듯이, 우리에게는 그 원리가 사람의 마음에 타고난 것임을 아주 옳은 이유로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들은 이성과 깨달음의 보편적인 이해력이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증언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선이면서도, 각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아보아야 하는 그런 선입니다. 주께서는 저능한 사람들을 지으심으로써 이 감사로 우리를 넉넉히 깨우십니다. 그들에게서 주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당신의 빛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은사들로 뛰어나게 되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그 빛은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각 사람에게는 그분의 선하심이 베푸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기술들을 발명하는 일, 그것을 체계 있게 전하는 일, 또는 소수만이 가진 더 깊고 뛰어난 앎은 공통된 통찰력의 굳건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가리지 않고 주어지므로, 마땅히 본성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집니다.

35.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 저술가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 안에서 빛나는 그 놀라운 진리의 빛으로 이것을 일깨움 받읍시다. 사람의 본성은 그 온전함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비뚤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뛰어난 은사들로 입혀지고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유일한 샘으로 여긴다면, 진리가 어디에 나타나든 그 진리 자체를 물리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성령을 업신여기고 욕되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토록 공평하게 시민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 전한 옛 법률가들에게 진리가

빛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철학자들이 자연에 대한 그 정밀한 관찰과 솜씨 있는 서술에서 눈이 멀었다고 하겠습니까? 논증하는 기술을 세워 우리에게 이치에 맞게 말하도록 가르친 이들에게 지성이 없었다고 하겠습니까? 의학을 만들어 내며 우리를 위해 수고한 이들이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수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신 나간 자들의 헛소리로 여기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일들에 관한 옛사람들의 글을 큰 감탄 없이는 읽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것은 그것들이 실제로 그렇듯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보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칭찬할 만하거나 훌륭하다고 여기겠습니까? 그토록 큰 배은망덕을 부끄러워합시다. 이방 시인들조차 그런 배은망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법과 모든 좋은 기술이 신들의 발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육에 속한 자들(ψυχικοί)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낮은 일들을 캐는 데에 그토록 예리하고 통찰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런 본보기들에서 배웁시다. 사람의 본성이 참된 선을 빼앗긴 뒤에도 주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남겨 두셨는지를 말입니다.[179]

36.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가장 뛰어난 좋은 것들로서, 그분께서 인류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 원하시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지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져야 했다면(출 31:2; 35:30), 사람의 삶에서 가장 뛰어난 일들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CO 327 누군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경건한 자들이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을 까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 안에만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성화의 영에 관해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께 성전으로 거룩히

179. 원문은 "i^/«foi)^"로 깨져 있습니다. 고전 2:14의 "육에 속한 사람"(animalis homo, ψυχικὸς ἄνθρωπος)을 가리키는 "ψυχικούς"로 읽었습니다. [원문의심]

구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께서 같은 영의 능력으로 만물을 채우시고 움직이시고 살리시는 일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각 종류의 고유한 성질을 따라, 곧 창조의 법으로 그 종류에 주신 성질을 따라 하십니다. 주께서 자연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의 이런 종류의 일들에서 불경건한 자들의 일과 섬김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을 씁시다. 그들 안에서 스스로 내밀어진 하나님의 은사들을 소홀히 하다가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사람이 이 세상의 초보 원리 아래에서 진리를 깨닫는 그토록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를 매우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것을 함께 덧붙여야 합니다. 그 깨닫는 힘 전체와 거기서 나오는 깨달음은, 그 밑에 진리의 굳건한 기초가 없을 때에는 주님 앞에서 흘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명제집의 선생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참으로 옳게 가르칩니다. 타락 뒤에 사람에게서 값없는 은사들은 거두어졌고, 남아 있던 이 본성적인 은사들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한 그 자체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잃어버려서 사람이 거기서 아무 칭찬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7.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사람의 이성이 무엇을 분별하는지, 그리고 저 영적인 통찰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통찰은 주로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 뜻을 따라 삶을 지어 가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에서, 그리고 특히 둘째 것에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재주 있는 자들도 두더지보다 더 눈이 멉니다. 물론 저는 철학자들에게서 하나님에 관해 영리하고 알맞게 한 말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에서는 늘 어지러운 상상의 냄새가 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주께서는 그들이 무지를 불경건의 핑계로 삼지 못하도록 당신의 신성을 조금 맛보게 하셨고, 때로는 그들을 몰아 어떤 말들을 하게 하셔서 그들

자신의 고백으로 그들이 정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본 것을, 그렇게 보아서는 결코 진리로 이끌리지 않을 만큼, 하물며 진리에 이르지는 더더욱 못할 만큼 보았습니다. 마치 들판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밤의 번갯불 빛을 한순간 멀리 넓게 보지만, 그 광경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 발을 떼기도 전에 밤의 어둠에 다시 삼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도움으로 길에 들어서게 되기는커녕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마치 우연처럼 자기 책들에 흩뿌려 놓은 그 진리의 작은 방울들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괴상한 거짓말들로 더럽혀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 확신은, 그것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끝없는 혼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도, 그들은 그 냄새조차 결코 맡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이 진리에 다가가지도, 그것을 향해 힘쓰지도, 그것을 겨누지도 않습니다.

38.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통찰력에 대한 거짓된 생각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에서 그것이 완전히 눈멀고 둔하다는 것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치로 증명하기보다 성경의 증언으로 증명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가르칩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으며,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씁니다(요 1:4–5). 그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의 광채로 비침을 받아서, 그 빛의 불꽃이나 적어도 불티 하나조차 완전히 없는 때가 결코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런 비춤으로도 영혼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한 그 예리함은 순전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부르실 때, 그들에게서 영적인 깨달음의 능력을 한꺼번에 모두 빼앗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자들이 혈통으로나 육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단언합니다(요 1:13).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은 하나님의 영으로 비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높은 지혜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가 당신을 알아본 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계시라고 증언하셨습니다(마 16:17).

39. 주께서 성령의 중생으로 당신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 본성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망설일 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믿는 백성이 선지자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 36:9).[180] 사도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같은 것을 증언합니다(고전 12:3).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외칩니다(요 3:27). 그가 이 선물을 본성의 공통된 은사가 아니라 특별한 비추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그토록 많은 말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높여 소개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탄식하는 데서 분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영으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말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스며들게 하는 데 아무것도 아님을 봅니다. 더욱이 모세도 백성의 잊어버림을 꾸짖으면서, 동시에 백성이 하나님의 은택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네 눈이 저 표적들과 큰 이적들을 보았으나, 주께서 네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아니하셨다(신 29:3–4).[181] CO 329 하나님의 일들을 살피는 데 있어 우리를 나무토막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180. 원문에는 “시편 36편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181. 원문에는 “신명기 29장 2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의 절 나눔이 달라,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이보다 더 무엇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특별한 은혜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음을 주어 당신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렘 24:7). 이로써 사람의 지성은 그분께 비침을 받은 만큼만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당신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당신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요 6:44).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 자신이 아버지의 살아 있는 형상이시며, 그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전체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 형상이 그토록 드러나게 보여지는데도 그것을 볼 눈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께서 땅에 내려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열어 보이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명도 신실하게 다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에 계신 스승이신 성령께서 마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의 설교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말고는 아무도 그분께 오지 않습니다. 이 배우고 듣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들을 귀와 깨달을 마음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말로 보이지 않도록, 그분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사 54:13). 거기서 이사야는 교회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구원으로 모일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의 택함받은 자들에 관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면, 그분께서 불경건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도 공통된 그런 종류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비추심으로 새 마음을 지어 주신 자 말고는 아무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이는 바울입니다. 그는 이 논의에

일부러 뛰어들어, 사람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음과 헛됨으로 정죄하고 아예 완전히 비워 버린 뒤에, 마침내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을 수 없으니,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깨달을 수도 없다. 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고전 2:14).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본성의 빛에 기대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을러서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힘써 애쓴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통찰력에는 완전히 감추어진 일들이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열리므로, 주의 영께서 비추지 않으시는 곳에서는 그것들이 어리석음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눈과 귀와 마음이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높이 들어 올렸고, 사람의 지혜가 지성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는 휘장과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고 선언하는데(고전 1:20), 우리는 이 지혜에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예리함을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미친 생각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합니다.

40.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간 것을 다른 곳에서는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엡 1:17). 이제 여러분은 모든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분명히 사람들이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면, 그들은 스스로는 눈이 먼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며 등등.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지성이 자기 부르심을 알 만큼 큰 깨달음을 담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펠라기우스파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지성을 안내자 없이는 이르지 못할 곳으로 이끄심으로써 이 둔함이나 미숙함을 도우신다고 떠벌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그 안에는 바랄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율법 자체의 비밀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기 눈을 열어 달라고 구했습니다(시 119:18). 이 말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칠 때 땅 위에 해가 떠오르지만, 사람들은 그 일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 줍니다. 눈을 주시거나 열어 주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것도(약 1:17), 그분께서 당신의 영으로 비추지 않으시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어둠에 덮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스승에게서 바르고 넉넉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서 들었던 바로 그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르쳐 줄 진리의 영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 영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요 14:26).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고백하고, 그분께서도 약속하시는 일 자체에서 우리의 궁핍을 드러내신다면, 이제 누구도 자기가 그분의 은혜로 비침을 받은 만큼만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는 데 힘이 있다고 고백하기를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돌리는 사람은 자기 눈멂을 알아보지 못하는 만큼 더 눈이 먼 것입니다.

41. 셋째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삶을 바르게 꾸리는 규칙을 아는 일인데, 우리는 이것을 행위의 참된 의를 아는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지성이 앞의 것들에서보다 얼마간 더 예리한 듯 보입니다. 사도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며, 율법의 행위가 자기 마음에 새겨진 것을 보인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롬 2:14–15). 이방인들이 본성적으로 율법의 의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들이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눈이 멀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연법(사도가 거기서 말하는 것)으로 삶의 바른 규범을 넉넉히 배운다는 말보다 더 흔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의 지식이 무엇을 위해 사람들에게 심겼는지를 따져 봅시다. 그러면 곧 그것이 사람들을 이성과 진리의 과녁에 어디까지 이끄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에서도, 누구든 그 짜임새를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그는 조금 앞에서,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무 심판도 없이 이방인들이 망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었으므로, 그는 곧이어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을 대신하며, 그러므로 그들을 정죄하는 데 넉넉히 의롭다고 덧붙입니다. CO 331 그러므로 자연법의 목적은 사람을 핑계할 수 없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법을 이렇게 정의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넉넉히 분별하는 양심의 감각으로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증언으로 책망받게 하여 무지의 핑계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너그러워서, 악을 저지를 때에는 할 수 있는 한 늘 기꺼이 자기 마음을 죄의 감각에서 돌립니다. 플라톤은 이 까닭에 이끌려서 사람이 무지 때문이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사람의 위선이 악덕을 덮는 데 아주 성공하여 지성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못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그의 말이 알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자기에게 새겨진 선과 악의 판단을 피해 달아나도 거듭 그리로 끌려 돌아오고, 눈을 감고 있도록 내버려 두어지지 않아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는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오직 무지로만 죄를 짓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42. 테미스티오스는[182] 더 참되게 가르칩니다. 지성은 보편적인 정의, 곧 사물의 본질에서는 아주 드물게 속지만, 그 너머로 나아갈 때, 곧 구체적인 경우로 내려갈 때 헛짚는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악이냐고 일반적으로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죽이려고 꾀하는 자는 마치 좋은 일을 두고 궁리하듯 합니다. 간음하는 자도 일반적으로는 간음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간음에 대해서는 남몰래 자기를 달랠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입니다. 사람이 구체적인 경우에 이르면, 조금 전에 일반 명제로 세운 규칙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 57편 첫 절 풀이에서 아주 훌륭하게 논합니다.[183] 하지만 이것조차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악행의 추악함이 양심을 몰아붙여서, 사람이 선의 거짓 모양에 스스로 속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원하여 악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더 나은 것을 보고 옳다고 여기면서도 더 못한 것을 따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하지 못함과 무절제를 아주 영리하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제하지 못함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어지러워진 감정, 곧 정념(πάθος) 때문에 개별적인 앎이 지성에서 빼앗겨서, 비슷한 일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는 악을 자기 행위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 흥분이 가라앉으면 곧 뉘우침이 뒤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절제는 죄의 감각으로 꺼지거나 꺾이지 않고, 오히려 한번 받아들인 악의 선택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버틴다고 합니다.

43. 그런데 선과 악을 가르는 보편적인 판단에 관해 들을 때, 그것이 어디서나 건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가려내는 분별을 받은 것이 오직 무지의 핑계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낱낱의 일에서 진리를 보는 것은 전혀

182. 테미스티오스(Themistius, 317경–388경)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활동한 그리스 철학자이자 수사학자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183. 라틴어 성경의 시편 57편은 한국어 성경의 58편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증언으로 책망을 받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만 깨달으면, 그것으로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을 완전한 의의 본인 주님의 율법에 대어 보고자 한다면, 우리 이성이 얼마나 여러 부분에서 눈이 먼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성은 첫째 돌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덕과 의의 찬양을 그분께 돌리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참된 안식을 지키는 것 같은 일들입니다. 본성의 감각에 기댄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이런 일들과 이와 비슷한 일들에 있다는 것을 냄새라도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자기들의 헛된 장난에서 백 번 불러 돌이켜도 늘 다시 그리로 미끄러져 돌아갑니다. 이 영적인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타이름에 귀 기울이지도 못하는 지성이 무슨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말하겠습니까? 둘째 돌판의 계명들에서는 지성이 얼마간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 계명들이 사람들 사이의 시민 사회를 지키는 일에 더 가까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지성은 때때로 비틀거리는 것이 드러납니다.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일수록, 불의하고 지나치게 억압적인 지배를 어떻게든 물리칠 수 있다면 그것을 견디는 것을 가장 터무니없는 일로 여깁니다. 사람의 이성이 내리는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종의 비굴한 마음이고, 반대로 그것을 떨쳐 버리는 것은 고귀하고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 지나친 고귀함을 정죄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치로 여겨지는 그 인내를 당신의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44. 그러나 율법 전체를 지키는 일에서 우리 통찰력이 무엇보다 놓치는 것은 정욕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욕심의 병을 알아보는 데로 이끌리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성의 빛은 이 깊은 구렁의 첫 들머리에 다가가기도 전에 꺼져 버립니다. 철학자들이 영혼의

절제 없는 움직임을 악덕으로 꼽을 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 더 거친 표시로 나타나는 움직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며시 간질이는 악한 욕망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이 모든 죄를 무지에 돌렸다고 해서 앞에서 마땅히 책망을 받았듯이, 모든 죄에는 일부러 꾀한 악의와 비뚤어짐이 끼어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의 견해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이 겪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은 그토록 많은 모양의 헛짚음에 짓눌리고, 그토록 많은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그토록 많은 걸림돌에 부딪히고, 그토록 많은 궁지에 얽혀서, 확실한 방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성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는 바울이 보여 줍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생각할 만한 자격조차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고후 3:5). 그는 의지나 감정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마저 우리에게서 빼앗습니다. 곧 어떻게 무슨 일을 바르게 해야 하는지가 우리 마음에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184]

184. 이 문장의 끝부분(“nobis, ne putemus in mentem venire nobis posse, quomodo rite quidpiam agendum sit”)은 다음 편 원문(CO 1:333) 첫머리에 있으나, 문장을 맺기 위해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3

CO 1:333–34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333 [185]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부지런함과 통찰과 깨달음과 염려가 그토록 비뚤어져서, 주님 앞에서 옳은 것을 아무것도 생각해 내거나 궁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성의 예리함을 가장 귀한 은사로 여겨 그것을 빼앗기기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는 이것이 지극히 공평합니다. 성령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모든 생각이 헛된 줄을 아시고, 사람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시 94:11; 창 6:5; 8:21).[186] 우리 마음이 품고, 궁리하고, 꾀하고, 힘써 하는 것이 무엇이든 늘 악하다면, 오직 거룩함과 의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꾀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떠오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지성의 이성은 어디로 돌아서든 비참하게 헛됨에 매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 연약함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시 119:34). 새 깨달음이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는, 자기 재능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한 번만 하지 않고, 한 시편 안에서 같은 기도를 거의 열 번이나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되풀이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얼마나 절박하게 구하지 않을 수 없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185.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186. 원문에는 “창세기 6장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창 6:5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구하는 것을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빌 1:4; 골 1:9).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등등.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을 하나님의 은택으로 삼을 때마다, 그가 동시에 이것이 사람의 능력에 놓여 있지 않다고 증언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깨닫는 데 이성이 이처럼 모자라다는 것을 잘 알아서, 눈에 햇빛이 필요한 것 못지않게 지성에는 비추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로잡는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빛을 보려고 우리 스스로 눈을 뜨지만, 지성의 눈은 주께서 열어 주시지 않으면 닫힌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45. 이제 의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정의 자유는 무엇보다 의지를 두고 돌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지성보다 의지에 더 속한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먼저, 철학자들이 전하고 사람들이 한뜻으로 받아들인 말, 곧 모든 것은 본성적인 본능으로 선을 욕구한다는 말이 사람 의지의 바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자유의지의 힘을 이런 욕구에서 살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짚어 둡시다. 이 욕구는 지성의 숙고에서보다 본질의 기울어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스콜라 신학자들도 이성이 서로 반대되는 것들 쪽으로 돌아설 때가 아니면 자유의지의 활동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로 그들은 욕구의 대상이 선택에 놓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선택에 길을 닦아 주는 숙고가 앞서야 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참으로 사람 안에 있는 선에 대한 이 본성적인 갈망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그것이 짐승들과 공통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짐승들도 잘 지내기를 바라고, 감각을 움직이는 선의 모양이 나타나면 그리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불멸의 본성의 뛰어남에 따라 참으로 자기에게 선한 것을 이성으로 골라 그것을 힘써 좇지도 않고, 이성을 의논에 들이지도 않으며, 지성을 기울이

지도 않습니다. 이성도 없이, 숙고도 없이, 짐승처럼 본성의 기울어짐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본성의 감각으로 선을 욕구하는 데로 이끌리는지 아닌지는 결정의 자유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사람이 바른 이성으로 선을 분별하고, 안 것을 택하고, 택한 것을 좇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꺼림칙함이 남지 않도록, 두 가지 그릇된 추론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의지의 고유한 움직임이 아니라 본성의 기울어짐이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덕이나 의의 선이 아니라 형편의 선, 곧 사람이 잘 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지내려는 사람들의 본성적인 갈망은 결정의 자유를 증명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쇠붙이와 돌에 있는, 자기 본질의 완성을 향해 기우는 성향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에서 살펴봅시다. 의지가 모든 면에서 완전히 손상되고 부패해서 악 말고는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지, 아니면 선한 소원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손상되지 않은 작은 부분을 아직 지니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46. 우리가 효력 있게 원하게 되는 것을 첫째 은혜에 돌리는 자들은, 거꾸로 영혼에 스스로 선을 바라는 능력이 있으되, 굳건한 감정으로 솟아오르거나 노력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약한 능력이 있다고 넌지시 말하는 듯합니다. 오리게네스와 옛사람들 가운데 몇몇에게서 가져온 이 견해를 스콜라 신학자들이 흔히 받아들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른바 순수한 본성적인 것들 가운데서 살피곤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이런 말로 묘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롬 7:15, 19).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찾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렇게 하면 바울이 거기서 펼치는 논의 전체가 잘못 뒤집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싸움을 더 짧게 다룹니다(갈 5:17). 신자들은 육과 영의 다툼 가운데 이

싸움을 자기 안에서 늘 느낍니다. 그런데 영은 본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서 옵니다. 사도가 중생한 자들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그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고 말한 다음, 이것을 자기 육에 관해 하는 말로 이해한다는 설명을 덧붙이는 데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나 자신에게서 나온 선은 거하지 않는다. 내 육신에서는 선한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는 저 변명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 변명은 영혼의 주된 부분으로 선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한 자들에게만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 덧붙인 결론이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것을 보는도다. CO 335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자기 육의 남은 것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자기 안에 이런 다툼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이 말씀을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가, 자기 해석을 거짓되고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 철회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은혜 없이도 아무리 작더라도 선을 향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만한 자격조차 없다고 부정하는 사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고후 3:5)? 모세를 통해 사람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선언하시는 주님께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창 8:21)? 그러므로 그들은 한 구절의 뜻을 잘못 짚어 걸려 넘어졌으니, 그들의 견해에 머물 까닭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힘을 얻게 합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 8:34). 우리는 모두 본성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멍에 아래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 전체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면, 사람의 주된 자리인 의지 자체도 분명히 가장 단단한 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47. 그러나 사람이 영혼의 두 부분에서 어떠한지는, 성경이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들을 가지고 사람이 한가운데로 나오게 할 때보다 더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람 전체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그려진다면, 곧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씀으로 그려진다면(요 3:6), 그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이 매우 비참한 피조물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사도가 증언하듯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롬 8:6).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이 그토록 비뚤어져서, 그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원한을 품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와 한뜻이 될 수 없으며, 마침내 죽음의 재료 말고는 아무것도 낳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제 사람의 본성에 육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무언가 선한 것을 끌어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육이라는 낱말이 감각적인 부분에만 해당하고 영혼의 높은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도의 말로 넉넉히 논박됩니다. 주님의 논증은 사람이 육이므로 다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몸을 따라 다시 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 어느 한 부분이 바로잡힌다고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새롭게 될 때 다시 납니다. 이것은 두 곳에 놓인 대조가 확증합니다. 육과 영이 맞대어져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서 영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그 이치에 따라 육적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생으로 말고는 영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성에서 가진 것은 무엇이든 육입니다. 이 일에 관해 달리 의심이 있을 수 있다면,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없애 줍니다(엡 4:23). 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묘사한 다음, 우리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불법하고 악한 욕심들을 감각적인 부분에만 두지 않고 지성 자체에도 두며,

그래서 지성이 새롭게 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그는 조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의 모습을 그려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도 부패하고 비뚤어지지 않은 데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씁니다. 이 말이 주께서 아직 당신의 지혜와 의의 바름으로 새로 지으시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이어 덧붙인 대조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거기서 그는 신자들에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일깨웁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저 눈멂과 거기서 나오는 악들에서 건지는 유일한 치료책이라는 것을 거두어 냅니다. 이사야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사 60:2). 그는 주께서 당신의 교회에 영원한 빛이 되시리라고 약속하면서, 그동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오직 교회에만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리라고 증언할 때, 분명히 교회 밖에는 어둠과 눈멂 말고는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헛됨에 관해 여기저기, 특히 시편과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헤아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쓴 말은 큰 말입니다. 사람을 헛된 것과 함께 저울에 달면 사람이 그보다 더 헛되리라는 것입니다(시 62:9).[187]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어리석고, 하찮고, 미치고, 비뚤어진 것으로 조롱받을 때, 사람의 재능은 무거운 창에 찔리는 것입니다.

48. 마음에 대한 정죄도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비뚤어졌다고 하기 때문입니다(렘 17:9). 그러나 저는 간결하게 하려고 하므로 한 구절로만 만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절은 아주 맑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본성의 모습 전체를 볼 것입니다. 사도는 인류의 교만을 꺾으려고 이런 증언들로 말합니다(롬 3:10). 의인은

187. 원문에는 “시편 62편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도는 이런 벼락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 온 족속을 공박합니다. 그는 이런저런 시대의 타락한 풍속을 두고 열변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끊임없는 부패를 고발합니다. 그가 거기서 꾀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을 꾸짖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에 짓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로 구속받지 않으면 거기서 솟아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성의 파멸과 멸망이 분명해지지 않고는 증명될 수 없었으므로, 그는 이 증언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증언들로 우리 본성이 망한 것 이상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대로 남게 합시다. 사람들이 여기 묘사된 그런 자들인 것은 악한 습관의 악덕 때문만이 아니라 본성의 비뚤어짐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CO 337 사람이 자기 안에서 망하고 가망이 없으므로 주님의 자비 말고는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도의 논증은 달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증언들을 적용한 것이 알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 그것들이 때에 맞지 않게 쓰인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 말들이 선지자들에게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처음 한 말인 것처럼 다루겠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에게서 의, 곧 온전함과 깨끗함을 거두어 가고, 그다음에 깨달음을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의 첫 단계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 배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두가 치우쳤고 썩은 것처럼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덧붙입니다. 이어서 한번 사악함에 풀려난 자들이 자기 지체 하나하나를 더럽히는 악행들을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그 두려움의 규칙을 따라 인도되어야 했습니다. 이것들이 인류가 물려받은 자질이라면, 우리 본성에서 무언가 선한 것을 찾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악행이 사람마다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히드라가 각 사람의 가슴속에 숨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몸이 병의 원인과 재료를 이미 자기 안에 품고 기르고 있으면, 아직 아픔이 끓어오르지 않았더라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이런 악덕의 병들로 들끓고 있는 동안에는 건강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모든 점에서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아무리 병들었어도 생명의 힘이 남아 있지만, 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잠긴 영혼은 악덕으로 앓을 뿐 아니라 선한 것이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49. 앞에서 풀린 것과 거의 같은 물음이 우리에게 다시 새로 떠오릅니다. 어느 시대에나 본성을 안내자로 삼아 평생 덕에 힘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실에서 많은 실수를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바로 그 품위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의 본성에 얼마간의 깨끗함이 있었다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이런 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값어치를 가지는지는 행위의 공로를 다룰 때 더 자세히 풀겠지만, 지금 논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만큼은 여기서도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보기들은 우리에게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악덕투성이로 여기지 말라고 일깨웁니다. 어떤 이들은 본성의 본능으로 뛰어난 업적에서 빼어났을 뿐 아니라, 평생 한결같이 가장 품위 있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 우리 생각에 떠올라야 합니다. 저 본성의 부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얼마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본성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안에서 억제하는 은혜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이 고삐가 풀린 채 아무 정욕으로나 날뛰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바울이 온 본성을 정죄하는 그 모든 악이 참으로 자기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지 않을 사람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런 자들의 무리에서 빼낼 수 있습니까? 곧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손은 약탈과 살인으로 더럽혀지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속이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행위는 무익하고 불의하고 썩고 치명적이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속은 비뚤어짐이요, 눈은 남을 노리고, 마음은 남을 모욕하려고 부풀어 있으며, 마침내 모든 지체가 끝없는 악행을 위해 갖추어진 자들 말입니다. 사도가 담대하게 선언하듯 모든 영혼이 이런 온갖 괴물 같은 것들에 매여 있다면, 주께서 사람의 정욕을 그 기울어짐대로 헤매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달려드는 미친 짐승은 하나도 없고, 아무리 빠르고 사나운 강이라도 그토록 거세게 넘쳐흐르는 강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택함받은 자들에게서는 곧 설명할 방식으로 이 병들을 고치십니다. 다른 자들에게서는, 만물을 보존하는 데 유익하다고 미리 보시는 만큼, 그것들이 끓어 넘치지 않도록 굴레를 씌워 억제하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수치심으로, 어떤 이들은 법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눌려서, 비록 자기의 더러움을 대부분 감추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종류의 추악함으로 터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품위 있는 삶의 방식이 유익하다고 여겨서 어떻게든 그것을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의 처지보다 높이 솟아올라, 자기 위엄으로 다른 이들을 본분 안에 붙들어 둡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본성의 비뚤어짐에 굴레를 씌우시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50. 그렇지만 아직 꺼림칙함이 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카밀루스를 카틸리나와 같게 여기든지,[188] 아니면 카밀루스에게서 본성이 힘써 가꾸

188. 카밀루스(Marcus Furius Camillus, 기원전 4세기)는 갈리아인에게서 로마를 구한 장군으로 덕의 본보기로 일컬어졌고, 카틸리나(Lucius Sergius Catilina, 기원전 108경–62)는 로마

어지면 선함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는 본보기를 얻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카밀루스에게 있던 빛나는 자질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 자체로 평가하면 마땅히 칭찬할 만해 보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그에게서 본성적인 착함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따져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런 행실의 온전함에서 뛰어났다면, 본성에는 분명히 덕에 힘쓰는 능력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악하고 뒤틀려서 바름보다 다른 무엇이든 더 좇았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온전함의 가장 높은 모양을 하고서도 늘 부패로 이끌리는 것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선을 향한 사람 본성의 어떤 능력을 제게 내세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악덕이 덕의 모양을 하고 속이는 사람을 덕이 있다고 칭찬하지 않을 것처럼, 사람의 의지가 자기의 비뚤어짐에 박혀 있는 동안에는 그 의지에 옳은 것을 바라는 능력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답은 이것입니다. 이것들은 본성의 공통된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이며, 하나님께서 그 밖에는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일정한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답입니다. 이 까닭에 우리는 일상의 말에서 이 사람은 본성이 좋고 저 사람은 본성이 나쁘다고 말하기를 꺼리지 않습니다. CO 339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을 모두 사람의 비뚤어짐이라는 보편적인 처지 아래 넣는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한 사람에게는 주셨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주실 만하다고 여기지 않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리킬 뿐입니다.

51. 그러므로 의지는 죄의 종노릇에 묶여 붙잡혀 있어서, 선을 향해 자기를 움직일 수 없고, 하물며 선에 자기를 쏟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시작이며, 성경에서 회심은 온전히

공화정을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민 자로 악의 본보기로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주께서 자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면 자기를 돌이켜 주시기를 주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렘 31:18). 그래서 선지자는 같은 장에서 믿는 백성의 영적인 구속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되었다고 말합니다(렘 31:11). 이것은 죄인이 주께 버림받아 마귀의 멍에 아래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단단한 족쇄에 묶여 있는지를 뜻합니다. 그럼에도 의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 의지는 가장 강한 성향으로 죄짓는 데로 기울고 서두릅니다. 사람이 이 필연에 자기를 내어 준 것은 의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의지의 건강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르나르두스도 어리석지 않게 가르칩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선을 원하는 것은 나아감이요 악을 원하는 것은 떨어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원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고, 악하게 원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의 것이며, 선하게 원하는 것은 은혜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를 잃은 의지가 필연으로 악에 끌려가거나 이끌려 간다고 말할 때, 누군가에게 이것이 거친 말로 보인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이 말에는 터무니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성도들의 말법에도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연과 강제를 구별할 줄 모르는 자들은 이 말에 걸려 넘어집니다.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시지 않으냐, 마귀는 필연적으로 악하지 않으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신성과 그토록 이어져 있어서,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필연적인 것 못지않게 선하신 것도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타락으로 선과의 사귐에서 그토록 떨어져 나가서 악을 행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신성 모독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지키도록 강제되신다면 그 선하심 때문에 그분께 돌릴 찬양은 별로 없다고 투덜댄다면, 누가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악을 행하실 수 없는 것은 폭력적인 강요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끝없는 선하심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마귀도 의지로 죄를 짓는다면, 사람이 죄짓는 필연에 매여 있다고 해서 덜 자원하여 죄를 짓는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필연을 어디서나 가르쳤고, 켈레스티우스의 궤변이 미움을 사게 하려고 그를 몰아붙였을 때에도 이런 말로 주장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189] "자유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와 함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뒤따른 형벌로서의 악덕이 자유에서 필연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일을 말할 때마다 그는 서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죄의 필연적인 종노릇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별의 요점을 지켜 두십시오. 사람은 타락으로 손상된 대로, 원하여 죄를 짓는 것이지 마지못해서나 강제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기울어진 마음의 성향으로 짓는 것이지 폭력적인 강제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정욕의 움직임으로 짓는 것이지 바깥의 강제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성의 비뚤어짐 때문에 악으로 말고는 움직여지거나 이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이라면, 사람이 죄짓는 필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52. 이제 본성의 악덕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치료책에 관해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도움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므로,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어떠한지가 분명해지면, 거꾸로 우리의 궁핍이 어떠한지도 곧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할 때(빌 1:6), 그가 착한 일의 시작이라는 말로 의지 안에 있는 회심의 첫머리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의에 대한 사랑과 갈망과 열심을 일으키심으로써,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의로 굽히시고 지으시고 이끄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견인으로 굳게

189. 켈레스티우스(Caelestius)는 5세기 초 펠라기우스와 함께 원죄와 은혜의 필요를 부정하는 가르침을 퍼뜨려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십니다. 누구도 주께서 선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약한 의지가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얼버무리지 못하도록, 성령께서는 다른 곳에서 내버려 둔 의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밝히십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돌로 된 마음을 제하고 살로 된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안에서 행하게 하리라(겔 36:26–27). 의지 전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는데, 누가 사람 의지의 연약함이 도움으로 힘을 얻어 효력 있게 선의 선택을 바라게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돌에 어떤 부드러움이 있어서 무언가 받쳐 주는 것으로 더 연해져 어떤 굽힘이든 받아들인다면, 저도 주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불완전한 것을 채워 주기만 하면 그 마음이 옳은 것에 순종하도록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비유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선한 것이 결코 짜내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하셨다면, 그분께서 홀로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그분과 우리 사이에 나누지 맙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옳은 것에 대한 열심으로 돌이키실 때 돌이 살로 바뀐다면, 우리 자신의 의지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없어지고,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53.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마 이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자기 본성으로 선에서 돌아서 있는 의지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돌이켜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준비된 다음에는 행하는 데에서 자기 몫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은혜는 모든 선행에 앞서고, 의지는 이끄는 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자로서, 앞서 가는 자가 아니라 뒤따르는 시녀로서 은혜를 따른다고 가르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지자의 말에서 두 가지가 가리켜진다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악한 의지를 바로잡으시거나, 오히려 없애신다는 것,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서 선한 의지를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CO 341 의지가 은혜에 앞질러지는 한, 여러분이 그것을 시녀라고 부르는 것

을 저는 허락합니다. 그러나 새로 지어진 의지는 주님의 일이므로, 사람이 시녀가 된 의지로 앞서는 은혜에 순종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소스토무스가, 은혜는 의지 없이, 의지는 은혜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쓴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치 은혜가 의지 자체도 이루어 내지 않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람의 의지를 은혜의 시녀라고 부를 때에도, 선행에서 은혜 다음가는 몫을 의지에 맡기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첫째 원인을 사람의 공로에 두던 펠라기우스의 가장 악한 교리를 논박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으므로, 그때의 논쟁에 넉넉한 것, 곧 은혜가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은혜가 끊임없이 일으키는 결과에 관한 다른 물음은 내려놓았지만, 그 물음도 다른 곳에서 훌륭하게 다룹니다. 그는 여러 번 주께서 원하지 않는 자를 앞질러 원하게 하시고, 원하는 자를 뒤따라 그가 헛되이 원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함으로써, 주님을 선행의 온전한 장본인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관한 그의 문장들은 긴 논증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의지에서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것인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펠라기우스와 켈레스티우스를 반박하여』첫째 권에서는,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6:45) 풀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뿐 아니라 안 것을 행하기도 하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율법의 문자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르치실 때, 각 사람이 배운 것을 알아서 볼 뿐 아니라 원하여 바라고 행하여 이루도록 가르치십니다.”

54.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경첩을 두고 돌고 있으므로, 자, 이 일의 요점을 성경의 몇 가지 아주 분명한 증언으로만 증명하여 묶어 봅시다. 그다음에 (누구도 우리가 성경을 잘못 비틀었다고 비난하지 못

하도록) 우리가 성경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진리가 이 거룩한 사람의 증언도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우리 견해를 확증하려고 성경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헤아리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골라 뽑은 것들을 내놓음으로써, 여기저기 읽히는 나머지 모든 것을 깨닫는 길을 닦기만 하면 됩니다. 또 경건한 사람들이 한뜻으로 마땅히 가장 큰 권위를 돌리는 그 사람과 제가 나쁘지 않게 뜻이 맞는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도 때에 맞지 않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당신 백성의 회심에서 이 두 가지, 곧 그들에게서 돌로 된 마음을 없애시고 살로 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두실 때, 우리가 의로 돌이키게 되려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없어져야 하고,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것을 한 곳에서만 선언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모든 날에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렘 32:39). 조금 뒤에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고 하십니다(렘 32:40 참조). 다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제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겔 11:19). 그분께서 우리의 돌이킴이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라고 증언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 의지에 있는 선하고 옳은 것은 무엇이든 당신께 돌리시고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늘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것은, 우리 의지는 새로 지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선한 것도 내지 못하고, 새로 지어진 뒤에도 선한 만큼 그것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55. 성도들의 기도도 이렇게 지어진 것을 읽습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당신께로 기울게 하사 우리로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게 하옵소서(왕상 8:58). 그는 우리 마음의 고집을 보여 줍니다. 우리

마음은 굽혀지지 않으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날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께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기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할 때(시 51:10),[190] 자기 마음의 모든 부분이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자기 영이 굽은 비뚤어짐으로 뒤틀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간절히 구하는 깨끗함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부름으로써,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만의 욕망은 참으로 놀랍고 괴상합니다. 주께서 무엇보다 엄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안식일을, 곧 우리 일을 쉬는 것으로 가장 경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가장 얻어 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일에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땅한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미친 생각이 가로막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은사들이 악의로 덮여 버리지 않도록 넉넉히 분명한 증언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요 15:1, 4–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땅에서 뽑혀 물기를 잃은 가지가 싹트는 것과 다르지 않게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면, 선을 향한 우리 본성의 소질이 무엇인지 더 물을 것이 없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결론은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넉넉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심으로써 아무리 작은 능력에 대한 생각도 모두 막으십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가 땅의 물기와 하늘의 이슬과 햇볕의 따스함에서 자라는 힘을 얻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의 것을 손상 없이 주님께 남겨 드리는 한, 선행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 모든

190. 원문에는 “시편 51편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것을 그분께 넘겨 드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사 원하고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빌 2:13). 선행의 앞부분은 의지이고, 다른 부분은 그것을 실행하는 힘 있는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 모두의 장본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에서든 실행에서든 무언가를 우리에게 돌린다면, 그만큼 주님께 훔치는 것입니다. CO 343 하나님께서 약한 의지에 도움을 주신다고 했다면 우리에게 얼마간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의지를 이루어 내신다고 할 때, 의지 안에 있는 선한 것은 무엇이든 이미 우리 밖에 놓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선한 의지라도 아직 우리 육의 무게에 짓눌려 솟아오르지 못하므로, 사도는 그 싸움의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노력의 꾸준함이 실행에 이르기까지 공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것, 곧 모든 것을 모든 것 안에서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고전 12:6).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십니다. 의지가 옳은 것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것에 대한 열심으로 기울고, 그것을 좇으려는 노력으로 자극받고 움직이는 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선택과 열심과 노력이 지치지 않고 실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도 그분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그 안에서 꾸준히 나아가 끝까지 견디는 것도 그분의 일입니다.

56. 그리고 그분께서 의지를 움직이시는 방식은, 여러 세기 동안 전해지고 믿어져 온 것처럼, 그 움직임에 순종하든지 맞서든지 하는 것이 그 뒤에 우리 선택에 달려 있게 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의지에 효력 있게 작용하심으로써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크리소스토무스가 그토록 자주 되풀이한 말, 곧 "그분께서는 이끄실 때 원하는 자를 이끄신다"는 말은 물리쳐야 합니다. 이 말로 그는, 주께서 손만 내미신 채 우리가 당신의 도움을 받기를 좋아하는지 기다리신다고 넌지시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서 있던 때의 사람의 처지는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께서 그런 정도로만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배은망덕으로 그 은혜를 흐리게 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선한 의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제공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굽히시고 다스리시며, 그 안에서 당신의 소유처럼 왕 노릇 하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내 아버지께 들은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는 말씀도(요 6:45),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체로 효력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달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주께서는 아무에게나 가리지 않고 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오컴의 것으로 보이는 말,[191] 곧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거절되지 않는다는 말이 흔히 떠벌려지지만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것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열려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불어넣어진 자들만이 비로소 찾기 시작하므로, 이 작은 부분조차 그분의 찬양에서 떼어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택함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그 영의 이끄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57. 견인에 관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여겨야 한다는 데 조금도 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악한 오류, 곧 각 사람이 첫째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만큼 사람들의 공로에 따라 견인이 나누어진다는 오류가 힘을 얻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류는

191. 오컴의 윌리엄(William of Ockham, 1285경–1347경)을 가리킵니다. 잉글랜드 출신의 프란체스코회 스콜라 신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를 물리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데서 나왔으므로, 그 생각이 무너지면 이 오류도 저절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첫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합당한 사용을 뒤따르는 은혜들로 갚아 주신다고 가르칠 뿐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홀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앞의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종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당신 은혜의 새 은사들로 쌓아 주실 때, 당신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기쁘게 받으시므로, 그들 안에서 더 큰 은사들로 이어 주실 것을 찾으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있는 자에게는 주리라. 또,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마 25:21, 23, 29; 눅 19:17, 26). 그러나 여기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첫째 은혜를 합당하게 사용한 것을 뒤따르는 은혜들로 갚아 주신다고 말하여, 마치 사람이 자기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효력 있게 만드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갚아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값없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자들이 주님의 이 복을 기대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곧 그들이 앞서 받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더 잘 쓸수록 그 뒤에 더 큰 은사들로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용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갚아 주심도 그분의 값없는 호의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원하고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다음, 곧이어 그 둘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신다고 덧붙였습니다(빌 2:13). 이 말로 그는 그것이 값없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히 하는 말, 곧 우리가 첫째 은혜에 자리를 내어 준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노력이 뒤따르는 은혜와 협력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뜻이, 우리가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길들여져 의에 순종하게 된 뒤로는 스스로 나아가고 은혜의 활동을 따르려는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라면, 저는 아무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에는 그런 순종의 기꺼움이 있다는 것이 지극히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나 자기와 한뜻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처음에 낳으신 순종의 마음을 길러 견디는 꾸준함에 이르도록 굳게 하시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일할 무언가를 얻는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그들은 가장 해롭게 헛짚고 있는 것입니다.

58.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모든 사람보다 앞세운 말이 좀 거만하게 보일 수 있었으므로, 사도는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림으로써 그 말을 바로잡지만, 자기를 은혜의 협력자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CO 345 그 밖에는 나쁘지 않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이 지푸라기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은혜가 자기와 함께 수고했다고 써서 자기를 그 수고의 동역자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로잡음으로써 수고의 찬양 전체를 오직 은혜에 넘겨 드립니다. "수고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있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속인 것은 말의 모호함이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그리스어 관사의 힘을 빠뜨린 뒤틀린 번역이었습니다. 낱말 그대로 옮기면, 그는 은혜가 자기의 협력자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어 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짧지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많은 선물에 앞서지만, 모든 선물에 앞서지는 않습니다. 그 의지가 앞서는 선물들 가운데

그 의지 자신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댑니다. "그분의 자비가 나를 앞서 가고, 그분의 자비가 나를 뒤따르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원하지 않는 자를 앞질러 원하게 하시고, 원하는 자를 뒤따라 헛되이 원하지 않게 하십니다."

59.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말로 말하는 것을 들어 봅시다. 우리 시대의 펠라기우스파, 곧 소르본의 궤변가들이 늘 하듯이, 모든 옛사람이 우리에게 반대한다고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아버지 펠라기우스를 본받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예전에 펠라기우스에게 같은 싸움터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는 발렌티누스에게 준『책망과 은혜에 관하여』에서 길게 풀어내는데, 저는 그것을 짧게, 그러나 그의 말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아담에게는 원하기만 하면 선에 머물러 있을 은혜가 주어졌으나, 우리에게는 원하게 하고 의지로 정욕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그는 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졌으나, 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은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주어진다. 첫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 우리의 자유는 훨씬 더 커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불멸 뒤에 올 장래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조금 뒤에 이 꺼림칙함을 없앱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도들의 의지는 성령으로 불붙여져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도록 이루시기 때문에 원합니다. 교만을 누르기 위해 능력이 그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마땅한 그토록 큰 약함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지가 맡겨져서 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원하도록 이루시지 않는다면, 그토록 많은 시험 가운데서 의지 자체가 약함 때문에 쓰러질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의지의 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림 없이 떨어질 수 없게 이끌리게 하셨고, 그래서 의지는

아무리 약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는 우리 마음이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어떻게 필연적으로 따르는지를 더 넉넉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의지로 이끄시지만, 그 의지는 주께서 친히 이루신 의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 내고자 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으로 증언받았습니다. 곧 주께서 각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물리쳐지는 은혜를 제공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가 마음속에 선택과 의지를 지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르는 선행은 무엇이든 그 은혜의 열매요 결과이며, 은혜는 자기가 만든 의지 말고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다른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그의 말도 이렇습니다. "우리 안의 모든 선행은 오직 은혜가 이룹니다."

60. 그가 다른 곳에서 은혜가 의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꾸고, 선하게 된 다음에는 돕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사람이 마음의 움직임 없이 마치 바깥의 충동에 떠밀리듯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작용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택함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는 보니파키우스에게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은혜가 주어지는 자들에게는 행위의 공로에 따라서도, 의지의 공로에 따라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같은 편지에서 그는, 사람들이 첫째 은혜를 물리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합당한 자로 보였으므로 뒤따르는 은혜가 그들의 공로에 따라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힘써 공박합니다. 그는 펠라기우스가,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행동마다 은혜가 필요하며, 은혜가 참으로 은혜이려면 행위에 대한 갚음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발렌티누스에게 준『책망과 은혜에 관

하여』 8장에서보다 더 짧은 요약으로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그는 먼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얻는다. 같은 은혜로 기쁨의 감정이 새겨져 영원히 견디도록 빚어진다. 이길 수 없는 힘으로 굳세게 된다. 은혜가 다스리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은혜가 버리면 곧 무너진다. 주님의 값없는 자비로 선으로 돌이켜지고, 돌이켜진 다음에는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딘다. 사람 의지가 선으로 향하는 것과, 향한 다음의 꾸준함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지, 그 의지 자신의 어떤 공로에도 달려 있지 않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가 다른 곳에서 묘사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남겨집니다. 곧 은혜로 말고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하나님 안에 머물 수도 없으며, 무엇을 할 수 있든 은혜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61. 주님의 이 은혜는 때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종의 해방이라고 불리고(고후 3:17; 요 8:32, 36; 롬 6:2), 때로는 옛사람의 성품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어지는 회복이라고 불리며(롬 8:29), 때로는 새사람으로 다시 나는 중생이라고 불리고(요 3:3, 5, 7),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으로 일으켜지는 부활이라고 불립니다(골 2:13; 요 5:24; 엡 2:5–6).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한 부분이 죄의 멍에에 매여 있지 않을 만큼 자유롭게 되지 않고, 땅에 속한 사람의 많은 흔적이 늘 드러나지 않을 만큼 새로 지어지지 않으며, 옛것을 얼마간 지니지 않을 만큼 다시 나거나 일으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92]

192. 이 문장의 끝부분(“suscitari quin de vetustate aliquid retineamus”)은 다음 편 원문(CO 1:347) 첫머리에 있으나, 문장을 맺기 위해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4

CO 1:347–36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347 [193]우리가 이 몸의 감옥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 육의 잔재를 지니고 다니며, 그 잔재의 정도만큼 우리 자유의 목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영혼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불화가 있습니다(롬 7:25). 영혼은 하나님의 영께서 차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부분으로는 불멸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데로 들어 올려져, 온전히 의와 순결과 거룩함을 향하고, 오직 하늘나라의 복만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아직 본성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부분으로는 땅의 부패 속에 뒹굴고, 악한 정욕에 잠겨 무엇이 아름답고 복된지를 보지 못하며, 죄의 진창에 박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생기고, 경건한 사람을 평생 적잖이 단련하는 아주 혹독한 씨름이 생깁니다. 그는 영으로는 위로 일으켜지지만 육으로는 아래로 끌려 내려가고, 영으로는 불멸을 향해 서두르지만 육으로는 죽을 것 쪽으로 눌려 내려가며, 영으로는 의를 생각하지만 육으로는 불의로 꾐을 받고, 영으로는 하나님께로 향하지만 육으로는 돌아서며, 영으로는 세상을 멸시하지만 육으로는 세상의 유혹에 끌립니다. 이것은 삶에 아무 쓸모도 없는 덧없는 사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경험의 교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가장 확실하게 겪어 보아야 하는 교리입니다.

62. 그런데 이 두 선수는 자기들의 싸움으로 경건한 영혼을 이처럼 찢어

193.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놓기는 하지만, 서로 같지 않은 조건으로 맞붙습니다. 육이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돌려세우고, 불멸에서 끌어내리고, 순결과 거룩함을 향한 열심에서 떼어 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끌어낸다고 말할 때, 그것은 육이 유혹하여 그만큼 힘을 쓰고 효과를 거두어서 영의 반대 작용을 아주 흩어 버리고 뒤엎으며 그 효력을 꺼 버린다는 뜻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육은 끊어 버리려고 애쓰지만 자기의 장애물로 늦출 뿐이고, 달려가는 길에서 돌려세우려 하지만 방해물로 더디게 할 뿐이며, 꺼 버리려고 꾀하지만 열기를 줄일 뿐이고, 닳아 없애려고 힘쓰지만 굽히고 휘게 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은 마음의 으뜸가는 소원과 성향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며, 자기 육 때문에 마땅한 분투에 방해를 받는 것을 두고 끊임없이 탄식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고 말할 때(롬 8:4)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그는 싸움을 묘사한 뒤에, 우위가 하나님의 영 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에 속한 사람과 중생한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사람은 자기 양심에 찔리고 찢겨서 굳은 마비 속에 자기 악덕에 안주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의 온 소원으로 그 악덕들을 즐거워하고, 그것들 속에서 스스로 흡족해하며, 기꺼이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꺼리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 형벌만 꺼릴 뿐입니다. 뒤의 사람은 의지의 으뜸가는 부분으로 율법의 의에 붙어 있어서,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스스로를 못마땅해하고, 동의로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끌리며, 쾌락의 꾐보다 하나님의 율법의 단맛을 늘 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의 증언뿐 아니라 마음의 성향까지 거스르는 가운데서가 아니면 결코 알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63.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나 마치 자유를 이미 온전히 소유한 것처럼 더는 자기 육에서 아무 괴로움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싸움의 재료가 늘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단련을 받습니다. 단련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도 더 잘 배웁니다. 이 점에서는 판단이 더 건전한 모든 저술가들이 서로 일치합니다. 곧 중생한 사람 안에도 악의 불씨(fomes)가 남아 있어서, 거기서 정욕이 끊임없이 솟아나 그를 죄짓도록 꾀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성도들도 아직 그 정욕의 병에 얽매여 있어서, 때때로 음욕이나 탐욕이나 야심이나 다른 악덕으로 간지럽힘을 받고 이끌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옛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애써 많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한 사람으로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이의 견해를 충실하게, 큰 부지런함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옛 교회의 생각에 관해 무언가 확실한 것을 얻고 싶으면 그에게서 얻으십시오. 그런데 그와 우리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죽을 몸에 사는 동안에는 정욕에 얽매여 있어서 정욕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병을 감히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데는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만족하고, 행위나 동의가 잉태나 붙잡음에 더해질 때, 곧 의지가 첫 욕구에 굴복할 때 비로소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어떤 욕망으로든 조금이라도 간지럽힘을 받는 바로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을 낳는 그 악함 자체가 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죽을 몸을 벗을 때까지 그들 안에는 늘 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육 안에는 올바름과 싸우는 저 정욕의 악함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64.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 곧 세례로 그 해방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당신의 택자들 안에서 이루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의 재료 자체보다는 죄책에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중생시키심으로써 그들 안에서 죄의 왕국이 폐지되게 하시는 일을 참으로 이루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들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CO 349 그러나 죄는 왕 노릇 하기를 그칠 뿐, 거하기를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죄의 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되, 그 잔재가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잔재는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 연약함을 깨달아 겸손하게 되도록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잔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전가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곧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죄책이 있는 자였을 성도들이 이 죄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굳게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 성경의 분명한 증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외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먼저, 그가 거기서 중생한 사람의 인격으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였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굳센 근거로 증명합니다. 그가 악과 죄라는 낱말을 쓴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박하려는 자들이 그 낱말들을 두고 트집을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반항이 악이라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의를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끝으로 영적인 비참이 있는 곳에 허물이 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병에 관해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율법에서 나온 확실한 논증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 질문 전체를 짧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이 이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야 마땅하므로, 아주 가벼운 욕구라도 마음에 받아들이거나, 자기를 하나님 사랑에서 헛된 것으로 끌어가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일 수 있는 자들은 그 계명

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작스러운 충동에 움직이고, 감각으로 붙잡고, 지성으로 품는 것은 영혼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능력들이 헛되고 악한 생각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길을 열어 줄 때, 그만큼 하나님 사랑이 비어 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의 모든 욕망이 죄이고, 사람들이 불씨라고 부르는 저 정욕의 병이 죄의 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65. 사람이 본성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모든 욕망은 본성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께서 넣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이처럼 통틀어 정죄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부터 사람의 타고난 성품에 새겨 넣으셔서 사람됨 자체와 함께가 아니면 거기서 뽑아낼 수 없는 그런 욕구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질서와 싸우는 방자하고 고삐 풀린 충동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본성의 악함 때문에 모든 능력이 너무나 더럽혀지고 부패하여, 모든 행동에서 끊임없는 무질서와 무절제가 드러나고, 욕구들이 이런 무절제에서 떨어질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 욕구들이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더 적은 말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사람의 모든 욕망이 악하다고 가르치고, 그것들을 죄 있다고 정죄합니다. 본성적인 것인 한에서가 아니라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질서한 까닭은 부패하고 더럽혀진 본성에서는 순수하거나 참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겉보기만큼 이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는 펠라기우스파가 그에게 덮어씌우려고 애쓰던 미움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때때로 죄라는 이름을 삼갑니다. 그러나 성도들 안에 죄의 법이 남아 있으면서 죄책만 없어진다고 쓸 때, 그는 자기가 우리의 생각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는 것을 넉넉히 보여 줍니다.

66.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더 잘 드러나도록 몇 가지 다른 문장을 가

져오겠습니다.『율리아누스 반박』제2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의 법은 영적 중생으로 사함을 받았으면서도 죽을 육 안에 남아 있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신자들이 중생하는 성례에서 죄책이 풀렸기 때문이고, 남아 있다는 것은 신자들도 맞서 싸우는 욕망을 그것이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위대한 사도의 지체 안에도 있던 죄의 법은 세례에서 사함을 받지만 끝나지는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아 있는 동안 그 죄책이 세례에서 풀린 죄의 법을 암브로시우스는 불의라고 불렀다. 육이 영을 거슬러 욕심을 내는 것은 불의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죄책에서는 죽었다. 그러나 장사의 완성으로 아물 때까지는 죽은 채로도 반역한다.” 제5권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멂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이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이 마땅한 징벌로 벌을 받는 죄의 형벌이기도 하며, 눈먼 마음의 오류로 무언가를 저지를 때에는 죄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선한 영이 거슬러 욕심을 내는 육의 정욕도, 지성의 다스림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그 안에 있으므로 죄이고, 불순종하는 자의 공로에 대한 갚음으로 주어졌으므로 죄의 형벌이며, 동의하는 자의 배반으로나 태어나는 자의 전염으로 죄의 원인이다.” 여기서 그는 모호함 없이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류가 쓰러지고 진리가 굳게 세워졌으므로 비방을 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강해』41편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툼 없이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육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면, 사도 자신이 말하는 것을 행하라(롬 6:12).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 하여 그 욕심에 순종하지 않게 하라.’ 그는 ‘있지 않게 하라’ 고 하지 않고 ‘왕 노릇 하지 않게 하라’ 고 한다. 네가 사는 동안에는 죄가 네 지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그 왕국은 빼앗아, 그것이 명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라.” 정욕이 죄가 아니라고 변호하는 자들은 야고보의 이 말씀을 내세우곤 합니다(약 1:15). “정욕이 잉태한

뒤에는 죄를 낳는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수고 없이 반박됩니다. 우리가 야고보는 오직 악한 행위나 자범죄만을 두고 말한다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악한 의지조차 죄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파렴치한 짓과 악한 행악을 정욕의 소생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에 죄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곧바로 정욕을 품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67. 이 시대의 어떤 재세례파 사람들은 영적 중생 대신에 무엇인지 모를 정신 나간 광증을 꾸며 냅니다. 곧 무죄 상태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육의 음욕을 억제하는 데 마음 쓸 필요가 없고, 영을 인도자로 따라야 하며, 그 영의 작용 아래서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공연히 오만하게 이 교리를 떠벌리지 않았다면, 사람의 정신이 그런 광기에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자들이 그 신성 모독적인 대담함의 값을 이렇게 치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추한 것과 정직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선과 악, 덕과 악덕 사이의 모든 분별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 구별은 옛 아담의 저주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 그렇다면 음행과 정결, 진실함과 교활함, 진리와 거짓, 공평과 강탈 사이에 이제 아무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헛된 두려움을 버려라. 네가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그 영의 작용에 너를 맡기기만 하면, 영은 네게 아무 악한 것도 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괴이한 말에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은 음욕의 광기에 눈이 멀어 상식을 벗어버린 자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를 지어내며, 어떤 영을 토해 냅니까? 우리는 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한 영을 인정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분을 추천했고, 드러난 복음이 그분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그분에 관해 그런

것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 영은 살인, 음행, 술 취함, 교만, 다툼, 탐욕, 속임수의 후원자가 아니라, 사랑, 정숙, 절제, 겸손, 화평, 절도, 진실의 조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어지러워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생각 없이 곤두박질쳐 달려가는 영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셔서 그것으로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십니다. 그분은 방탕하고 고삐 풀린 방종으로 부추기지 않으시고,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을 구별하시는 대로 한도와 절제를 지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 짐승 같은 광기를 반박하는 데 왜 더 오래 수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영은 그들이 꿈속에서 낳았거나 다른 이들이 꾸며 낸 것을 받아들인 어지러운 환영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성경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구합니다. 거기서는 그분에 관해 이 두 가지가 전해집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어지셨으며, 우리를 더러움과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이 사람들이 고삐를 풀어 주려는 정욕이 길들여지고 굴복되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지만, 우리 몸의 덩어리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많은 악덕과 많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늘 조금씩 자라 가야 하고, 악덕에 얽혀 있어서 날마다 그것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게으름과 방심을 떨쳐 버리고 마음을 기울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하다가 우리 육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사도보다 더 많이 나아갔다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사탄의 사자에게 시달렸는데(고후 12:7), 이는 능력이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육과 영의 저 나뉨을 자기 육에서 꾸밈없이 보여 주었습니다(롬 7:6).[194]

68. 사람이 죄의 멍에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본성으로는 소원으로든

194. 원문 표기는 “Rom. 7, 6”입니다. 육과 영의 싸움은 로마서 7장 뒷부분(14–25절)에서 다루어지므로 장절 표기가 잘못되었을 수 있으나, 원문대로 두었습니다.

열심으로든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넉넉히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강제와 필연을 구별해 두었으므로, 사람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귀에게 종으로 넘겨져 있는 동안에는 자기 뜻보다 마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쪽의 작용이 어떤 종류인지 풀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악한 행위들에 관해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돌려야 하는지 하는 질문을 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작용이 끼어든다고 넌지시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디선가 사람의 의지를 탄 사람의 신호를 기다리는 말에, 하나님과 마귀를 그 말을 탄 사람에 견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면, 절도 있고 노련한 기수처럼 그것을 가지런히 다스리시고, 굼뜬 것은 재촉하시며, 지나친 빠름은 억누르시고, 방자함과 날뜀은 제어하시며, 고집은 꺾으시고, 바른길로 이끄신다. 그러나 마귀가 그것을 차지하면, 어리석고 방자한 기수처럼 길 없는 곳으로 몰아가고, 구덩이로 몰아넣고, 낭떠러지로 굴려 떨어뜨리며, 반항과 사나움으로 부추긴다.” 더 나은 비유가 떠오르지 않으니, 지금은 이 비유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의 의지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서 그에게 휘둘린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주인의 권리로 마지못해 하는 종들에게 우리 명령을 따르게 강제하듯이, 그 의지가 버티고 저항하는데도 억지로 복종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속임수에 홀려서, 그의 모든 이끎에 필연적으로 순종하며 자기를 내어 준다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영의 다스림을 받을 만하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자들을 의로운 심판으로 사탄의 작용에 내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세상의 신이 멸망으로 정해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고후 4:4). 또 다른 곳에서는 그가 거역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엡 2:2). 불경건한 자들의 눈멂과 거기서 따라

나오는 모든 파렴치한 짓은 사탄의 일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악의 뿌리가 의지에서 솟아나고, 사탄 왕국의 기초, 곧 죄가 의지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69. 이런 일에서 하나님의 작용은 그 이치가 아주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갈대아 사람들이 거룩한 욥에게 끼친 재앙을 예로 듭시다. 갈대아 사람들은 그의 목자들을 죽이고 원수처럼 양 떼를 약탈합니다. 이제 그들의 악한 짓은 공공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일에서 사탄도 쉬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그 모든 일이 사탄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욥 자신은 그 일에서 주님의 일을 알아봅니다. 그는 갈대아 사람들이 빼앗아 간 것을 주께서 자기에게서 거두어 가셨다고 말합니다. 같은 일을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장본인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사탄을 하나님과 한패로 삼아 변명해 주거나 하나님을 악의 장본인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먼저 행하는 목적을, 다음으로 방식을 살펴보면 쉽습니다. 주님의 뜻은 역경으로 당신 종의 인내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를 절망으로 몰아가려고 꾀합니다. CO 353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도리를 어기고 남의 것에서 이득을 얻으려 합니다. 의도가 이렇게 다르니 이미 그 일이 크게 구별됩니다. 방식에서도 차이가 그에 못지않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을 괴롭히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일을 수행하도록 당신이 일꾼으로 고르신 갈대아 사람들을 사탄에게 허락하시고, 몰아가도록 그에게 넘겨주십니다. 사탄은 그렇지 않아도 악한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의 독 묻은 가시로 찔러 그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게 부추깁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불의로 달려가, 온 지체를 죄악에 묶고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은 유기된 자들 안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 안에서 자기 왕국, 곧 악의 왕국을 행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합니다. 사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심판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뜻과 명령대로

그를 이리저리 휘두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움직이심, 곧 모든 피조물이 그것으로 붙들릴 뿐 아니라 무엇이든 행하는 효력을 얻는 그 움직이심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각 행악에서 드러나는 그 특별한 작용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행악을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목적과 방식이 다르므로, 거기서 하나님의 의는 흠 없이 빛나고, 사탄과 사람의 악은 자기 수치와 함께 드러납니다.

70. 옛사람들은 때때로 이 부분에서 진리를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조차 너무 경건하게 조심하여 꺼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불경하게 헐뜯는 불경건에 창을 열어 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절제를 귀하게 여기지만, 성경이 전하는 것을 단순하게 붙든다면 조금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때때로 그런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완악하게 하심과 눈멀게 하심이 하나님의 작용이 아니라 예지에 관계된다고 말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언가가 예지보다 더 많이 개입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는 그 많은 성경의 표현들은 이런 교묘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율리아누스 반박』 제5권에서 긴 논증으로, 죄는 하나님의 허용이나 참으심에서만이 아니라 능력에서도 나오며, 그리하여 이전의 죄들이 벌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허용에 관해 내세우는 것은 너무 묽어서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을 눈멀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기울이시고 몰아가신다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지나 허용으로 도망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결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대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빛이 거두어지면 어둠과 눈멂밖에 남지 않고, 그분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며, 그분의 인도가 그치면 비뚤어진 데로 뒤틀리므로, 하나님께서 보고 순종하고 바르게 행할 능력을

빼앗으시는 자들을 눈멀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고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둘째 방식은 말의 본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이루시려고 당신 진노의 일꾼인 사탄을 통해 그들의 계획을 당신이 좋게 여기시는 곳으로 정하시고, 의지를 일으키시며, 시도를 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1. 첫째 방식에 따라 이런 말씀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욥 12:20). "그는 진실한 자들에게서 입술을 빼앗으시고 장로들에게서 분별을 거두시며, 땅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에게서 마음을 빼앗으시고 길 없는 데서 헤매게 하신다."[195] 또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살후 2:11).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효력을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하실 것이다." 또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사 63:17).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미치게 하셨으며,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들 안에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는 다른 증언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에 관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백성을 보내지 않게 하리라"(출 4:21; 7:3). 그 뒤에 그분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고 굳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출 10:1). 그분은 부드럽게 하지 않으심으로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가슴을 고집으로 굳히는 일을 사탄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앞서 "내가 그의 마음을 붙들리라"(출 3:19)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적의를 품고 맞서 나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일으켰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다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신 2:30). 그리고 선지자는 같은 역사를 되새기면서, 주께서 그들의

195. 인용의 뒷부분("땅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에게서" 이하)은 욥 12:24입니다.

마음을 돌리셔서 당신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시 105:25). 이제 여러분은 그들이 주님의 뜻에서 버려진 채 잘못 부딪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굳게 되고 돌려졌다면, 바로 그 일로 일부러 기울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께서 백성의 범죄를 벌하기를 기뻐하실 때마다, 당신의 일을 유기된 자들 안에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은 행하는 효력이 그분께 있었고, 그들은 섬기는 일만 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때로는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불러내시겠다고 위협하셨고(사 5:26; 7:18), 때로는 그들이 당신께 그물처럼 되어 사로잡게 하시겠다고(겔 12:13; 17:20),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치는 망치처럼 되게 하시겠다고(렘 50:23)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분이 산헤립을 도끼라고 부르실 때, 곧 당신의 손으로 정하시고 휘두르셔서 찍게 하시는 도끼라고 부르실 때(사 10:15), 당신께서 그들 안에서 얼마나 한가하지 않으신지를 밝히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디선가 이렇게 잘 정의합니다. “그들이 죄짓는 것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는 것은 어둠을 좋으신 대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다.”

72. 더 나아가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유기된 자들을 이리저리 정하실 때마다 그들을 부추기는 데 사탄의 섬김이 끼어든다는 것은 한 곳만 보아도 넉넉히 분명할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주의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거나 놓아주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삼상 16:14; 18:10; 19:9). 이것을 성령께 돌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응하여, 스스로 장본인이라기보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일에서도 주께서 하시는 일은 사탄과 불경건한 자들이 꾀하는 일과 언제나 크게 다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손안에 두시고 마음대로 휘두르실 수 있는 악한 도구들이 당신의 의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악하므로, 타고난 성품의 사악함으로 잉태한 악을 행위로 낳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비방에서 지키고 불경건한 자들의 핑계를 끊는 데 속한 나머지 것은 섭리에 관한 장에서 펼칠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탄이 유기된 사람 안에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리고 주께서 양쪽 모두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짧게 보여주려 했을 뿐입니다.

73. 그런데 그 자체로 의롭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영적인 삶보다 몸의 삶에 관계되는 행동에서 사람이 어떤 자유를 지니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에서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인정한 바로 그것을 확실한 것으로 주장하려 해서라기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를 이룰 힘이 자기에게 전혀 없다고 붙드는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무엇보다 알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고를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지가 그리로 기울 때마다, 또 반대로 지성과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해로웠을 것을 피할 때마다, 그것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힘은 여기까지 미칩니다.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유익하다고 내다보신 대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도 같은 곳을 향하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감각으로 바깥일의 운영을 헤아린다면, 그것이 그 범위에서는 사람의 결정(arbitrium) 아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일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고 외치는 그 많은 증언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 결정 자체를 하나님의 특별한 움직이심 아래 둘 것입니다. 누가 이집트 사람들의 의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의를 품게 하여, 가장 귀한 그릇들을 그들에게 빌려주게 했습니까(출 11:3)? 그들 스스로는 결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 다스려지기보다 주께 매여 있었습니다. 누가 압살롬의 마음을 돌려, 신탁처럼 여겨지곤 하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게 했습니까(삼하 17:14)? 누가 르호보암을 기울여 젊은이들의 의견에 설득되게 했습니까(왕상 12:10)?

74. 누군가는 이것이 특별한 사례들이어서 모든 것을 그 규칙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넉넉히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에 길을 내기를 원하실 때마다 바깥일에서도 사람들의 의지를 굽히시고 돌리시며,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결정이 그 자유를 다스리지 않을 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선택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날마다의 경험이 헤아리게 할 것입니다. 전혀 얽히지 않은 일에서 판단과 지성이 자주 여러분을 저버리고, 하기 어렵지 않은 일에서 마음이 시들어 버립니다. 반대로 가장 어두운 일에서 곧바로 시원한 방도가 떠오르고, 크고 위험한 일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을 다 주께서 하신다"(잠 20:12)고 한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께서 왕의 마음을 물줄기처럼 당신 손에 쥐시고 원하시는 대로 어디로든 기울이신다고 쓸 때(잠 21:1), 그는 분명히 한 종(種)으로 그 유(類) 전체를 아우릅니다. 누구의 의지가 모든 복종에서 풀려 있다면, 그런 권리는 다른 이들 위에 어느 정도 왕권을 행사하는 왕의 의지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의지조차 하나님의 손에 굽혀진다면, 우리 의지도 그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뛰어난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의지에서 선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의지를 선한 행위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사람들의 선한 의지뿐 아니라, 세상의 피조물을 보존하는 의지들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원하시는 때에, 은택을 베풀도록 또는 형벌을

내리도록 그것들을 기울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지극히 숨겨져 있으나 지극히 의로운 어떤 심판으로 된다."

75. 여기서 독자들은 사람의 의지의 능력을 일의 결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거꾸로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군주들에게도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사람의 의지가 종살이한다는 것을 멋지고 재치 있게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능력은 사람 안에서 살펴야 하지, 바깥의 성패로 재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의지 논쟁에서 묻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숙고한 것은 무엇이든 바깥의 장애를 뚫고 이루고 수행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성향이 자유로우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둘이 있다면, 못 박힌 통 안에 갇힌 아틸리우스 레굴루스도 고갯짓 하나로 세상의 큰 부분을 다스리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만큼 자유의지를 가질 것입니다.[196]

76. 사람의 의지의 종살이에 관해서는 이만하면 넉넉히 말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된 자유관으로 의지를 곤두박질치게 하려는 자들이 우리 견해를 공격하려고 맞은편에서 몇 가지 논거를 내세우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 견해가 상식에서조차 어긋난다는 듯이 미움을 사게 하려고 몇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쌓아 올리고, 그다음에는 성경의 증언들로 우리 견해와 맞붙습니다. 우리는 이 두 공격 무기를 차례로 꺾겠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죄가 필연이라면 이미 죄이기를 그친다. 자발적이라면 피할 수 있다." 이것은 펠라기우스가 아우구스티누스를 공격하던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 자체에 관해 충분히 답하기 전까지는 그 이름으로 그들을 짓누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가 필연적이라고 해서 그만큼 덜 그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또

196.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Marcus Atilius Regulus)는 제1차 포에니 전쟁 때의 로마 집정관입니다. 카르타고에 사로잡혔다가, 전승에 따르면 안쪽에 못을 박은 통에 갇혀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죄가 자발적이므로 피할 수 있다는 그들의 추론도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부인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과 다투면서, 달리 할 수 없었다는 구실로 심판을 피하려 한다면, 준비된 대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멸망은 네 것이요, 네 도움은 오직 내게 있다"(호 13:9). 그가 핑계 삼는 이 무능은 본성의 악함이 아니면 어디서 옵니까? 또 그 악함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배반한 것이 아니면 어디서 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배반 때문에 마땅히 죄책 아래 있다면, 그들은 필연으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필연 안에 그들이 정죄받는 가장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논증의 둘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자발적인 것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넘겨짚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매이지 않는 것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77. 그들은 덧붙입니다. 덕과 악덕이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거나 상을 갚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이지만, 크리소스토무스와 히에로니무스도 어디선가 이것을 썼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 자신도 이것이 펠라기우스파에게 익숙한 것이었음을 숨기지 않고, 그들의 말까지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한다면, 면류관을 받는 것은 은혜이지, 수고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다." 형벌에 관해서 저는 죄의 허물이 흘러나오는 우리에게 형벌이 마땅히 지워진다고 대답합니다. 자발적인 욕망으로 죄를 짓기만 한다면, 판단이 자유로우냐 종살이하느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욱이 사람이 죄의 종살이 아래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죄인으로 판정받는데 말입니다. 의의 상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큰 불합리라도 된단 말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이런 말이 얼마나 자주 되풀이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선물에 면류관을 씌우신다. 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빚진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갚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자유의지의 샘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제 공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참으로 예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토록 이치에 어긋난다고 여기는 것은 크게 빗나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이 고백하기를 죄악으로 여기는 것을 여러 곳에서 서슴없이 필연적인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공로든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마땅한 삯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을 때, 홀로 죄에서 자유로우시고 해방하시는 분인 그분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발견하셨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마땅한 것이 갚아진다면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네게 마땅한 형벌을 갚지 않으시고, 마땅하지 않은 은혜를 주신다. 은혜에서 멀어지고 싶다면 네 공로를 자랑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으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는 네 것이고,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형벌이 네게 마땅하고, 상이 올 때 그분은 네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선물에 면류관을 씌우실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글에 이런 문장이 거듭 되풀이되는데, 무엇 때문에 더 긴 목록을 엮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성도들의 영광을 어떤 원리에서 이끌어 내는지 그들이 듣는다면, 사도는 그들을 이 오류에서 더 잘 건져 낼 것입니다(롬 8:30).[197] “그분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다면 사도의 증언대로(딤후 4:8) 신자들은 왜 면류관을 받습니까? 그들이 자기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서지 않으면 더는 공로가 없으리라는 이 헛된 두려움은 물러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부르는 곳에서 겁을 먹고 뒷걸음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네가 모든 것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197. 원문에는 “Rom. 8, 29”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문장은 롬 8:30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고전 4:7) 여러분은 그가 바로 이 때문에 자유의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공로가 설 자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선을 베푸시는 데 풍성하시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우리 것으로 삼으시고, 마치 우리의 덕인 것처럼 갚아 주십니다.

78. 그들은 또 크리소스토무스의 『창세기 설교』 22편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말을 덧붙입니다. 선이나 악을 고르는 것이 우리 의지의 능력이 아니라면, 같은 본성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하거나 다 선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이방인의 부르심에 관하여』라는 책의 저자가 누구든, 그도 이와 멀지 않습니다.[198]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변할 수 있는 조건을 남겨 두지 않았다면 아무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으리라고 추론합니다. 이런 일에서 그토록 큰 사람들이 자기를 잊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어떻게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큰 힘을 들여 주장하는 것, 곧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악하고 악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악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두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주께서 고치시는 손을 대기를 기뻐하신 사람들만 낫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심판으로 지나치시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썩음 속에서 시들다가 마침내 소멸됩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견디고 어떤 이들은 시작한 길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도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견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베푸시지 않고, 좋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CO 359 어떤 이들은 꾸준히 견디고 어떤 이들은 변덕스러워 떨어져 나가는

198. 『이방인의 부르심에 관하여』(De vocatione omnium gentium)는 전통적으로 암브로시우스의 저작으로 돌려졌으나, 오늘날에는 아키텐의 프로스페르(Prosper of Aquitaine)의 저작으로 봅니다.

차이의 원인을 묻는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곧 주께서 앞의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으로 굳세게 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뒤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변덕스러움을 보여 주는 본보기가 되도록 같은 능력을 공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79. 그들은 더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 죄인에게 달려 있지 않다면 권면은 헛되이 하는 것이고, 경고를 쓰는 것은 쓸데없으며, 책망은 우스꽝스럽다고 몰아붙입니다.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와 비슷한 반론이 제기되었을 때, 그는『책망과 은혜에 관하여』라는 소책자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것을 풍성하게 풀어 버리면서도, 대적들을 이 요점으로 불러 모읍니다. "사람아, 계명에서는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책망에서는 네 잘못으로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기도에서는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어디서 받는지 깨달아라." 먼저 이 문제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모든 사도가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상대들과 벌이는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요 15:5),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떠나 악을 행하던 자들을 덜 꾸짖고 덜 징계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각 사람이 선행에 힘쓰라고 덜 권면하셨습니까? 바울은 사랑을 소홀히 한 일로 고린도 사람들을 얼마나 엄하게 꾸짖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바로 그들에게 사랑을 주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원하는 자로나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증언합니다(롬 9:16). 그러나 그 뒤에도 그는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주께 이의를 제기하여,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고 당신의 은혜가 없어서 저질러지는 것을 징계하시는 헛수고를 그만두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에게, 앞서 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원하거나 달음박질하는 것이 자기 손에 있지 않은 사람들, 더구나

지금 그 긍휼이 버려두고 있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봐주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마치 주께 당신의 가르침의 가장 좋은 이유가 있지 않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더 경건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납니다.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이 그 자체로 마음을 바꾸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바울이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게 하시는 주님만이 효력 있게 일하신다고 쓸 때(고전 3:7) 보여 줍니다.

80. 그렇다면 권면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권면이 완고한 마음으로 멸시를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심판대에 이를 때 그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도 그의 양심을 때리고 칩니다. 그가 아무리 비웃어도 그것을 그르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에 필요한 마음의 부드러움이 그에게 거절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합니까? 오히려 굳은 마음을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돌릴 수 없는데, 그가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러므로 불경건한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기꺼이 권면을 피해 가려 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권면의 힘에 꺾입니다. 그러나 으뜸가는 유익은 신자들에게서 살펴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들 안에서 모든 일을 당신의 영으로 하시면서도, 당신 말씀의 도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효력 없이 쓰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것, 곧 경건한 자들의 모든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굳게 세웁시다. 그러면 그들은 왜 자기 의무를 일깨움받고, 차라리 영의 인도에 맡겨지지 않습니까? 영의 재촉이 이끄는 것보다 더 서두를 수 없는데, 왜 권면으로 재촉을 받습니까? 육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는데, 길에서 벗어날 때 왜 책망을 받습니까? 오 사람이여, 주께 법을 정하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권면에 순종하게 되는 바로 이 은혜를 받도록 주께서 권면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그대가 그 경륜에서 물어뜯거나 비웃을 것이 무엇입니까? 권면과 책망이 경건한 자들에게 죄를 깨우치는 것 말고는 다른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 때문에

전혀 쓸모없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안에서 일하시므로, 권면과 책망은 선한 소원을 불타오르게 하고, 마비를 떨쳐내며, 불의의 쾌락과 독 묻은 단맛을 없애고, 반대로 불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낳는 데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것들이 쓸데없다고 트집 잡겠습니까? 누군가 더 분명한 대답을 바란다면 이렇게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자들 안에서 두 가지로 일하십니다. 안으로는 당신의 영으로, 밖으로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영으로는 지성을 비추시고 마음을 의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빚으셔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말씀으로는 같은 새롭게 됨을 사모하고 구하고 얻도록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로 당신의 경륜의 방식에 따라 당신 손의 효력을 드러내십니다. 같은 말씀을 유기된 자들에게 보내실 때에는, 그들을 바로잡는 데는 아니지만 다른 쓰임에 효력이 있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이 지금은 양심의 증언에 몰리고, 심판 날에는 더욱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81. 그들은 성경의 증언을 쌓아 올리는 데 무척 수고합니다. 무게로는 우리를 누를 수 없으니 적어도 숫자로 우리를 덮어 누르려고 부지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맞붙게 되면, 싸울 줄 모르는 무리는 아무리 화려하게 과시해도 몇 번 치기만 하면 곧 무너져 달아나듯이, 그들을 그 무리째 물리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거슬러 잘못 쓰는 모든 구절은 아주 적은 몇 가지 과녁으로 모이므로, 그것들을 종류대로 나누어 놓으면 한 가지 대답으로 여러 구절에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풀려고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명에 가장 큰 힘을 둡니다. 계명이 우리 능력에 맞추어져 있어서, 계명이 요구한다고 증명된 것은 무엇이든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이 반드시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명을 하나하나 훑으면서 그것으로 우리 힘의 한도를 잽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께서 거룩함, 경건, 순종, 정결, 사랑,

온유를 명하시고, 더러움, 우상 숭배, 음란, 분노, 강탈, 교만 같은 것들을 금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조롱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능력 안에 있는 것만 요구하시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런데 그들이 쌓아 올리는 계명은 거의 모두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계명은 먼저 주께로 돌이키라고 요구하고, 어떤 계명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며, 어떤 계명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라고 명합니다.[199]

199. 이 편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 편 첫머리(CO 1:361)에서 끝나므로, 그 끝까지 여기서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2장 사람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5

CO 1:361–37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361 [200]이 모든 것을 먼저 전체로 논하고, 그다음에 각 종류로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 율법의 계명에까지 늘려 잡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한 일이 되었고 그럴듯한 겉모양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대한 아주 조잡한 무지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엄청난 죄악으로 여기는 자들은, 물론 아주 강력한 논증이라는 것에 기댑니다. 그렇지 않다면 율법이 헛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바울이 율법에 관해 어디서도 말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범법 때문에 세워졌다(갈 3:19),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있다(롬 3:20), 율법은 죄를 만들어 낸다(롬 7:7),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다(롬 5:20). 율법이 헛되이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 힘에 맞추어 제한되어야 했단 말입니까?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무능을 드러내어 증명하려고 우리보다 훨씬 높이 놓였습니다.

82. 참으로 성경이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맞추어야 할 삶의 규칙이라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도 지체 없이 그들의 견해 쪽으로 발을 옮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여러 가지 쓰임을 부지런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므로, 율법이 사람 안에서 무슨 힘을 지니는지는 오히려 그 해석에서 살펴야 마땅합니다. 지금 문제에 관련된 만큼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 주자마자, 순종

200.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명령만 있고 약속이 없다면, 우리 힘이 명령에 응하기에 넉넉한지 시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과 함께 약속이 이어져 있고,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안에 우리의 보조만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있다고 외치므로, 약속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에 힘이 모자랄 뿐 아니라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넘치도록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주께서 율법에서 주시려던 의의 규칙을 우리 연약함의 분량에 맞추셨다는 듯이, 우리 힘과 율법의 계명 사이의 이 비례를 더는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약속들에서, 모든 부분에서 그토록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스스로는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율법을 나무토막과 돌덩이에게 정해 주셨다는 것을 누가 그럴듯하게 여기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율법으로 자기 정욕이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을 배워 자기 자신의 증언으로 죄책이 있게 될 때, 돌이나 나무토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들도 자기 무능을 깨우침받아 은혜로 피할 때, 돌이나 나무토막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널리 알려진 문장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신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유의지에 겨우 그만큼만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임을 받게 한다면, 계명의 유익은 크다.” “믿음은 율법이 명하는 것을 얻어 낸다. 아니, 율법이 명하는 것은 율법으로 명한 것을 믿음이 얻어 내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믿음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찾으실 것을 먼저 주시지 않으면 요구하시는 것을 찾지 못하신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기를.”

83. 앞에서 언급한 계명의 세 종류를 살펴보면 이것이 더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주께서는 율법과 선지서에서 자주 우리에게 당신께로 돌이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맞은편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화답합니다(렘 31:18). "주여, 나를 돌이키소서. 그러면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돌이키신 뒤에 내가 회개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우리 마음의 포피를 베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는 그 할례가 당신의 손으로 행해진다고 선언하십니다(신 30:6). 그분은 곳곳에서 마음의 새로움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그것이 당신에게서 주어진다고 증언하십니다(겔 36:26).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지나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은혜로 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가 티코니우스의 규칙들 가운데 다섯째로 꼽는 관찰입니다.[201] 곧 "율법과 약속, 또는 계명과 은혜를 잘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명에서 사람이 순종에 무슨 힘이 있는지 끌어내어, 계명 자체를 채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려는 자들은 어디 해 보라고 하십시오. 둘째 종류의 계명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섬기고 그분께 붙어 있으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의와 거룩함과 경건과 순결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선물이라고 증언하는 구절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셋째 종류에는 누가가 전하는(행 13:43) 바울과 바나바의 권면, 곧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꾸준함의 능력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는 같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 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엡 6:10). "끝으로 형제들아, 주로 말미암아 강건하라."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금합니다(엡 4:30). 그러나 그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사람이 이룰 수 없었으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 그것을 구합니다. 곧 주께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201. 티코니우스(Tyconius)는 4세기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파 평신도 학자로, 성경 해석의 일곱 규칙을 담은 『규칙서』(Liber regularum)를 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이 규칙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시고, 당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를 그들 안에서 이루시기를 구합니다(살후 1:11).

84. 더 교활한 자들은 이 모든 증언을 두고 트집을 잡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보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노력을 도우시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선지서에서, 우리의 돌이킴의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씩 나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을 가져옵니다(슥 1:3).[202]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는 앞에서 보였으므로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한 가지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CO 363 주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하시므로 우리 안에 율법을 채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채우는 데는 율법을 주신 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저 말씀도 그들의 오류를 편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그분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돌이키심이 아니라, 그분이 형통한 일들로 당신의 호의와 은혜로우심을 증언하시는 돌이키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때로는 역경으로 당신의 노여움을 나타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은 여러 모양의 비참과 재앙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서 돌아서셨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삶의 바름으로, 그리고 의의 본이신 당신께로 돌아오면 당신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모자라지 않으리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끌어다가 돌이킴의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잘못 비트는 것입니다. 이 논증에는 율법을 다룰 때 알맞은 자리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더 짧게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202. 원문에는 "Zach. 1," 로 절수가 빠져 있습니다. 인용한 문장에 따라 슥 1:3으로 채웠습니다.

85. 논증의 둘째 무리는 앞의 것과 가깝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 의지와 계약을 맺으시는 약속들을 내세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암 5:14). “너희가 원하고 들으면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원하지 않으면 칼이 너희를 삼키리라. 주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사 1:19). 또 이런 것입니다. “네가 네 가증한 것을 내 앞에서 버리면 쫓겨나지 않으리라” (렘 4:1). “네가 주 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 그분의 모든 계명을 행하고 지키면, 주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보다 높이시리라” (신 28:1; 레 26:3). 그 밖의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약속으로 내미시는 은택이, 그것을 굳게 하거나 헛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은데도 우리 의지에 맡겨진다면, 그것은 부당하고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럴듯한 불평으로 부풀리기는 참 쉽습니다. 우리 의지가 우리 것이 아닌데 주께서 당신의 선하심이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신다면 우리는 주께 잔인하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택을 누릴 능력이 전혀 없도록 우리에게 내놓으신다면 그것은 참 훌륭한 너그러움이며,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가능한 것에 달려 있는 약속이라면 그것은 참 놀라운 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이 붙은 약속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불합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관해 말하자면, 저는 주께서 우리가 전혀 무능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은택을 얻도록 초대하실 때 비인간적으로 우리를 조롱하신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약속은 신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므로, 양쪽 모두에게 저마다 쓰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불경건한 자들의 양심을 찌르셔서, 당신의 심판을 조금도 기억하지 않은 채 죄 속에서 너무 달콤하게 즐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약속으로도 그들이 당신의 선하심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를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당신의 위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엄하심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알맞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죄의 족쇄에 묶인 불경건한 자들에게 약속으로 이 법을 말씀하실 때, 곧 그들이 악함에서 떠나야 비로소 당신의 은택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바르고 질서 있게 행하십니다. 이 한 가지 까닭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것에서 자기들이 마땅히 제외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온갖 방법으로 자극하셔서 당신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려 하시므로, 우리가 앞에서 보였듯이 그분이 계명으로 그들에게 큰 열매를 거두며 하시는 일을 약속으로도 시도하신다고 해서 조금도 어울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그 뜻과 온 마음으로 이렇게 어긋나 있는 우리의 비참을 깨우침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바른길로 이끄실 그분의 영을 부르도록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은 계명으로는 넉넉히 깨어나지 않으므로, 약속이 덧붙여져서 어떤 단맛으로 우리를 계명을 사랑하도록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향한 소원을 더 크게 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더 뜨거워집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너희가 원하면", "너희가 들으면"이라는 간곡한 말로, 주께서는 원하거나 들을 자유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돌리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의 무능을 조롱하시지도 않습니다.

86. 셋째 무리도 앞의 것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배은망덕한 백성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당신의 너그러움에서 온갖 좋은 것을 받지 못한 것은 오직 그들 탓이라고 하시는 구절들을 내놓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주를 따르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칼에 쓰러지리라"(민 14:43).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같이 이 집에

행하리라”(렘 7:13). 또 “이 민족은 주 자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으므로, 주께 버림을 받았다”(렘 7:28). 또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주께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닥쳤다”(렘 32:32).[203]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꾸짖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맞겠느냐? ‘우리도 형통을 바랐고 역경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형통을 얻고 역경을 피하려고 주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에 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하는 것이 우리 능력에 있지 않았던 악을 두고 우리를 꾸짖는 것은 헛되다.” 그러나 필연이라는 구실은 약하고 쓸모없는 변호이니 제쳐 두고, 묻겠습니다. 그들이 허물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허물이 있다고 판정을 받는다면, 주께서 그들의 비뚤어짐 때문에 당신의 자비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꾸짖으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대답해 보십시오. 그들의 반항의 원인이 그들의 악한 의지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CO 365 그들이 악의 샘을 자기 안에서 발견한다면, 자기가 자기 멸망의 장본인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왜 바깥의 원인을 찾는 데 매달립니까? 죄인들이 남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하나님의 은택을 빼앗기고 보응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참이라면, 그들이 주님의 입에서 이런 꾸짖음을 듣는 데에는 큰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악덕을 계속한다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당한 잔인함으로 고발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악을 고발하고 미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마음을 벗어 버리지 않았다면, 자기를 비참하고 망하게 만든 죄에 진저리를 내어 길로 돌아오고, 주께서 꾸짖으시며 일깨우시는 바로 그것을 진지한 고백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용되는 선지자들의 꾸짖음이 경건한 자들에게 이런 쓰임으로 유익했다는 것은 9장에 있는 다니엘의 엄숙한

203. 원문 표기대로 두었습니다. 내용은 렘 32:23에 가깝습니다.

기도에서 분명합니다(단 9). 앞의 쓰임의 예는 유대인들에게서 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들의 비참의 원인을 말해 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은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는 달리 될 수 없었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듣지 않을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않으리라"(렘 7:27). 그렇다면 귀먹은 자들에게 노래를 부른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고 마지못해서라도 자기가 들은 것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곧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재앙의 허물을 주께 떠넘긴다면 그것은 극악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풀이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수들이 자유의지의 우상을 세우려고 계명에서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향한 엄숙한 경고에서 쌓아 올리곤 하는 엄청난 증언 더미에서 아주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87. 그런데 우리의 풀이와 크게 어긋나 보이는 증언 하나가 모세의 율법에서 인용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공포한 뒤에 백성에게 이렇게 엄숙히 말했습니다(신 30: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계명은 숨겨져 있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으며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네 곁에, 네 입과 네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하라." 이 말이 맨 계명에 관해 한 말로 이해된다면, 지금 문제에 적잖은 무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키기 쉬움이 아니라 알기 쉬움과 알기에 가까움이라고 피해 가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도 얼마간의 의심이 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호하지 않은 해석자인 사도가 모세가 여기서 복음의 가르침에 관해 말했다고 단언하여 우리에게서 모든 의심을 없애 줍니다(롬 10:8). 누군가 고집스럽게 바울이 이 말을 복음에 끌어다 붙이려고 억지로 비틀었다고 우긴다면, 그의 대담함은 불경건을 면하지 못하겠지만, 사도의 권위 말고도 그를 반박할 길이 있습니다. 모세가 계명만 두고 말했다면 그는 아주 헛된 자신감으로 백성을 부풀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자기에게 어렵지 않은 일로 여기고 자기 힘으로 시작했다면 스스로 곤두박질친 것 말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치명적인 낭떠러지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은데, 율법을 지키는 이 그토록 손쉬운 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이 말로 율법의 요구와 함께 공포했던 긍휼의 언약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몇 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손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곧이어 말하는 이 쉬움을 사람의 능력에 두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능력 있게 이루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에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계명만을 두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복음의 약속을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의 약속은 의를 얻는 쉬움을 우리 안에 세우기는커녕 그것을 아주 뒤엎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헤아려, 율법이 우리를 대하는 저 가혹하고 힘겹고 불가능한 조건(곧 모든 계명을 채운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조건) 아래가 아니라, 쉽고 거침없고 들어가는 길이 열린 조건 아래 복음에서 구원이 제시된다는 것을 이 증언으로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이 증언은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찾아 주는 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88. 또 다른 몇몇 구절이 반론으로 제기되곤 합니다. 거기서는 주께서 때때로 당신 은혜의 도움을 거두시고 사람들을 시험하시며 그들이 자기 노력을 어디로 돌리는지 기다리신다고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이렇게 있습니다(호 5:15).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마음에 두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본성대로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 있을 만큼 휘기 쉬운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얼굴을 구할지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이 삶을 더 낫게 고치기까지 그들을 멸시하시고 내던지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선지서에서 아주 흔한 일이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이런 위협에서 도대체 무엇을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스스로 돌이킴을 궁리할 수 있다고 하려 한다면, 성경 전체가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한다면, 왜 우리와 다툽니까? 그러나 그들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람에게 그의 능력이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서 증명합니까? 분명히 이 구절이나 비슷한 구절에서는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물러나 그가 버려지고 놓아진 채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과, 그의 얼마 안 되는 힘을 그 연약함의 분량대로 돕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무엇을 넌지시 말합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대답합니다. "경고하고 권면하고 꾸짖어도 이 완고한 백성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나는 잠시 물러나 잠잠히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버려두겠다. 오랜 재앙 끝에 언젠가 그들이 나를 기억하게 되어 내 얼굴을 구하는지 보겠다." 주께서 멀리 떠나신다는 것은 예언을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지켜보신다는 것은 잠잠히, 말하자면 모른 척하시면서 한동안 여러 고난으로 그들을 단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서 우리를 더 낮추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그런 가르침 받을 마음으로 빚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바로잡히기보다 차라리 역경의 채찍에 짓뭉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CO 367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꺾이지 않는 고집에 노하시고 말하자면 지치셔서,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시고, 곧 당신이 흔히 어떤 임재를 나타내시는 말씀을 거두시고, 당신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지 시험해 보실 때, 그분이 살피시고 시험하실 자유의지의 어떤 힘이 있다고 거기서 추론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몰아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οὐδένεια)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말고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89. 그들은 또 성경에서나 사람들의 말에서나 늘 볼 수 있는 말하는 방식

을 근거로 싸웁니다. 선행이 우리의 것이라고 불리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 못지않게 거룩하고 주께 기쁜 일을 행한다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돌려진다면, 같은 이치로 의로운 일에서도 분명히 무언가를 우리에게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서는 행할 수 없어서 돌처럼 하나님께 움직여질 뿐인 일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첫자리를 드리더라도,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노력도 둘째 자리는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우리의 것이라고 불린다는 그 한 가지만 내세운다면, 저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빵도 우리의 것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내세우겠습니다. 그들이 소유의 이름에서 무엇을 얻어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질 것이 아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값없는 선물로 우리 것이 된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주기도문에서도 같은 불합리를 비웃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서 온 것 말고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 선행이 우리 것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고, 선행에 힘쓴다고 자주 말한다는 점은 조금 더 힘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성과 의지의 고유한 일이므로,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나눔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성령께 돌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어떻게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주의 영께서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바르게 헤아리면, 우리는 아무 수고 없이 이 얽힌 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미움을 사게 하려고 내세우는 비유는 엉뚱한 것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돌을 던지는 것과 아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르침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은 조금도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다고 여기고, 물리치고, 원하고, 원하지 않고, 애쓰고, 저항하는 것을 사람의

본성적 능력에 돌립니다. 곧 헛된 것을 옳다고 여기고, 참된 선을 물리치며, 악을 원하고, 선을 원하지 않으며, 악을 향해 애쓰고, 의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런 악함을 당신 진노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면, 그것을 좋으신 곳으로 이끄시고 정하셔서, 악한 손을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정욕만을 따르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섬기는 악한 사람을, 남의 힘으로 던져져 자기 움직임이나 감각이나 의지 없이 날아가는 돌과 견주겠습니까? 우리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봅니다. 그러면 주된 질문인 선한 사람들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그들 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당신의 영으로 그들의 의지를 억제하셔서 본성의 기울기를 따라 떠도는 정욕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의지가 거룩함과 의로 기울도록 당신의 의의 규칙에 맞추어 굽히시고, 가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이끄십니다. 그 의지가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 영의 능력으로 굳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90.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의지를 이끌고 다스리는 성령의 규칙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은혜는 의지를 바로잡고, 새로 짓고, 새롭게 하지 않고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시작이 우리 것을 없애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의지를 움직이고, 일하게 하고, 몰아가고, 이끌고, 붙들지 않고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행동이 온전히 은혜의 것이라고 참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혜로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 지극히 참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아주 잘 맞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그 악함과 비뚤어짐이 바로잡혀 의의 참된 규칙으로 이끌릴 때 회복된다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사람 안에 새로운 의지가 창조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너무나 더럽혀지고 부패하여 아주 새로운 성품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 자신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와 나누는 것 없이도, 우리가 바르게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그분이 선으로 이끄시는 지성도 우리 것이고, 의지도 우리 것이며, 노력도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91. 그 밖에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증언들은, 방금 말한 풀이들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평범한 머리를 가진 사람에게도 그리 큰 수고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에서 이 문장을 인용합니다(창 4:7). “그의 욕망은 네 아래 있을 것이요,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죄에 관한 말로 해석하여, 마치 주께서 가인이 죄를 굴복시키는 데 힘쓰려 하기만 하면 그의 마음에서 죄가 우세한 힘을 갖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벨에 관한 것으로 받는 것이 말의 순서에 더 잘 맞는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거기서 의도하신 것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향해 품은 시기의 불의를 꾸짖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두 가지 이치로 그렇게 하십니다. 첫째, 가인은 의가 아니면 아무 영예도 없는 주님 앞에서 동생보다 앞서려고 죄악을 꾀했으나 헛된 일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택을 두고 너무나 배은망덕하여, 자기 다스림 아래 있는 동생조차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해석이 우리에게 불리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에 관해 말씀하셨다고 기꺼이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주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시든지 명하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명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서 사람의 능력에 대한 증명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였습니다. 약속하시는 것이라면, 가인이 마땅히 다스려야 했던 죄에 굴복했는데 약속의 성취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약속에 숨은 조건이 들어 있다고, 곧 그가 싸웠다면 승리를 얻었으리라는 뜻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CO 369 그러나 누가 이런 에두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다스림이 죄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이 명령문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정해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능력을 넘어서라도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92. 그들은 사도의 증언도 씁니다. 그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롬 9:16)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의지와 노력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그 자체로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잘되게 된다고 끌어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이 거기서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냉철하게 따져 보았다면, 이 문장을 이렇게 생각 없이 잘못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자기 해석의 지지자로 오리게네스와 히에로니무스를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들에게 맞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뜻했는지가 분명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주께서 당신의 긍휼로 합당히 여기시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준비되어 있고, 그분이 택하지 않으신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파멸과 수치가 기다린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바로의 예로 유기된 자들의 운명을 보였고, 모세의 증언으로 값없는 선택의 확실성을 확증했습니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그는 원하는 자나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결론짓습니다. 이것을 의지나 노력은 그토록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넉넉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바울의 말은 그다지 알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떤 달음박질이 있다"는 이런 잔꾀는 물리치십시오. 바울의 생각은 더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것은 의지도 아니고 달음박질도 아니며, 여기에는 오직 주님의

긍휼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디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의 한없는 긍휼을 따라 나타났다고 쓸 때(딛 3:4)와 다르지 않게 여기서 말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자나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므로 어떤 의지와 어떤 달음박질이 있음을 넌지시 말했다고 따지는 바로 그 사람들도, 제가 같은 형식으로 추론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곧 바울이 우리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므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다는 추론 말입니다. 그들이 이 논증의 결함을 알아본다면, 눈을 떠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논증에도 비슷한 오류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대는 저 논거도 굳셉니다. 원하는 자나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말이 의지나 달음박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한 말이라면,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도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것이 불합리하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이 주께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선한 의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마땅히 결론짓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달음박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둘을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93. 그들은 집회서를 내놓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권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물리치지 않는다 하더라도(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로 허락되어 있지만), 그는 자유의지를 위해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는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자기 뜻의 손에 맡겨졌고, 그에게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가 그것을 지키면 계명이 그를 지켜 줄 것이었으며, 사람 앞에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이 놓였으니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에게 주어지리라고 말합니다(집회서 15:14–17 참조). 좋습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생명이나 죽음을 얻을 능력을 받았다고 합시다. 우리가 맞은편에서 그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대답한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결코 솔로몬과 반대되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처음에 바르게 창조되었으나 스스로 많은 꾀를 끌어들였다고 단언합니다(전 7:29). 그러나 사람은 타락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모든 좋은 것을 파선시켰으므로, 첫 창조에 돌려지는 것은 무엇이든 더럽혀지고 타락한 본성에도 곧바로 들어맞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들에게뿐 아니라 집회서의 저자 자신에게도, 그가 누구이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가 사람이 자기 안에서 구원을 얻을 능력을 찾도록 가르치려 한다면, 그대의 권위는 우리에게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장 작은 선결 판단의 자리조차 차지할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자기 악을 하나님께 떠넘겨 헛된 변명을 꾀하곤 하는 육의 악의를 억누르려고 할 뿐이고, 그래서 사람 자신이 자기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사람에게 바름이 심어져 있었다고 대답하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다만 그대도 제 말에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곧 사람이 지금은 자기 허물로, 주께서 처음에 그에게 입히셨던 그 장식들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94. 그러나 그들이 무엇보다 자주 입에 올리는 것은, 강도들이 길에 반쯤 죽게 내버려 둔 나그네에 관한 그리스도의 비유입니다. 이 나그네의 모습 아래 인류의 재앙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저술가에게 아주 널리 퍼진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기서 우리 대적들은, 사람이 죄와 마귀의 강도질로 망가졌지만 이전의 좋은 것들의 잔재를 남아 있게 지니지 못할 만큼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논증을 끌어냅니다. 그가 반쯤 죽은 채로 버려졌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의지 모두의 바른 부분이 얼마간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생명의 절반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그들의 알레고리에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 한다면, 묻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 말씀의 참뜻과 상관없이 교부들이 생각해 낸 것이라는 데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알레고리는 앞서 이끄는 성경의 규칙이 있는 데까지만 나아가야 합니다. 하물며 알레고리 자체만으로 어떤 교리를

세우기에 넉넉할 리는 없습니다. 제가 원하면 이 꾸며 낸 생각 전체를 뒤엎을 근거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의 절반을 남겨 두지 않고, 복된 생명에 관한 한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속에 관해 말할 때 반쯤 죽은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죽었을 때 살리셨다고 합니다(엡 2:5). 그는 그리스도의 비추심을 받으라고 반쯤 죽은 자들을 부르지 않고 잠자는 자들과 묻힌 자들을 부릅니다(엡 5:14). 주님 자신도 다르지 않으셔서, 죽은 자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요 5:25). 무슨 낯으로 그들은 이 많은 분명한 말씀에 가벼운 빗댐을 맞세우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알레고리가 확실한 증언으로 통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억지로 얻어 내겠습니까? 사람은 반쯤 죽어 있으니 무언가 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지혜에까지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에게는 정직함에 대한 얼마간의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이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신성에 대한 얼마간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에 이릅니까? 분명히 이것들 때문에, 스콜라의 공통된 동의로도 인정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 말이 우리에게서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곧 타락 뒤에 사람에게서 구원이 달려 있는 값없는 선물들은 빼앗겼고, 본성적인 것들은 부패하고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략으로도 흔들 수 없는 이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듭시다. 사람의 지성은 하나님의 의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어서, 불경건하고 비뚤어지고 추하고 더럽고 파렴치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욕망하고 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죄의 독에 속속들이 물들어 있어서, 썩은 악취 말고는 아무것도 내뿜지 못합니다. 그들이 때때로 겉으로 무언가 선한 것을 내보이더라도, 지성은 언제나 위선과 거짓된 비뚤어짐에 싸여 있고, 마음은 속의 비뚤어

짐에 얽매여 있습니다.[204]

204. 원문 맨 끝의 “CAPUT”는 다음 장(제3장 율법에 관하여) 제목의 첫 낱말이므로 다음 편에서 옮깁니다.

1539–1554년판 · 제3장 율법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3장 율법에 관하여 1

CO 1:369–38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369 제3장. 율법에 관하여.

여기서는 먼저 율법 자체의 직분과 용도를 보이고,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형상, 맹세, 축일, 수도 서원을 다룹니다.

1.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요구되는 것들의 요점을 풀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위대하심에 맞게 생각하면 곧바로, 그분만이 최고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위엄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는 이것을 으뜸으로 두었습니다. 곧 우리가 자기 능력에 대한 생각을 비우고, 자기 의에 대한 신뢰를 벗어 버리며, 도리어 자기의 궁핍을 깨달아 꺾이고 부서져서, 견고한 겸손과 자기를 낮춤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서 이 둘을 모두 이루십니다. 먼저 명령하실 정당한 권세가 당신께 있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신성을 경외하도록 부르시고, 그 경외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정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의의 규범을 공포하셔서(우리의 본성은 비뚤어지고 뒤틀린 탓에 그 바름에 늘 맞서고,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고 선에 대해 맥이 풀린 탓에 그 완전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과 불의를 모두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세운 논의의 차례 자체가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이제 주님의 율법을 다루게 합니다.

2. 그런데 율법에서 배워야 할 바로 이것들을,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를테면 찍혀 있는 저 내면의 법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일러 줍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감각 없이 끝없는 잠에 빠져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속에서 증언하고 일깨우며, 선과 악의 구별을 우리 앞에 들이대고, 그리하여 우리가 본분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류의 어둠에 휩싸여 있어서, 저 자연법으로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를 겨우 희미하게 맛볼 뿐이고, 분명 그 바른 방식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오만과 야심으로 부풀고 자기 사랑으로 눈이 멀어서, 아직 자기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를테면 자기 안으로 내려가 자기를 굽히고 낮추는 법을 배우고 자기의 비참을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둔함과 완고함 모두에 필요했던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자연법에서 너무 희미했던 것을 더 확실하게 증언하고, 우리의 정신과 기억을 마비에서 흔들어 깨워 더 생생하게 치려는 것이었습니다.

3. 이제 율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처럼 마땅히 우리에게 아버지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시며, 이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과 경외와 사랑과 두려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어서, 마음의 정욕이 부추기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분의 뜻에 매달려 오직 그분 마음에 드는 것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와 바름은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이고 불의는 그분께 가증한 것이므로, 우리가 불경건한 배은망덕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을 저버리려 하지 않는다면, 평생 의를 반드시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리의 뜻보다 앞세울 때에야 비로소 그분께 마땅한 경외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분께 드리는 정당한 예배는 의와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능력이 없다는 핑계를 내세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CO 373 이를테면 빈털터리가 된 채무자처럼 갚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능력으로 재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그분은 언제나 당신 자신과 같으시니,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바른 것밖에는 요구하실 수 없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우리에게는 본성의 의무에 따라 순종해야 할 필연이 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다스리는 우리 자신의 정욕에 묶여 있어서 우리 아버지께 순종하는 데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가 필연을 변명으로 내세울 까닭이 없습니다. 그 악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율법의 가르침으로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같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자신에게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 가지를 얻어 돌아와야 합니다. 첫째, 율법의 의를 우리 삶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는커녕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우리 자리를 지킬 자격도 없으며, 하물며 그분의 자녀 가운데 들 자격은 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힘을 헤아려 보면, 그 힘은 율법을 이루기에 모자랄 뿐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과 마음의 불안과 떨림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양심은 불의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은 자기의 무능을 보여 주는 증거들에 몰리면 곧바로 자기 힘에 대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감정은 겸손과 낮아짐을 낳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람은 자기 불의의 대가로 자기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는 영원한 죽음을 느끼고 몹시 두려워하여,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원의 유일한 항구로 삼아 그리로 돌이킵니다. 또한 율법에 진 빚을 갚는 것이 자기 능력에 있지 않음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여, 숨을 돌려 다른 데서 오는 도움을 구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5.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경외하게 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

시고, 우리 마음에 그 의에 대한 사랑과 함께 불의에 대한 미움도 배어들게 하시려고, 약속과 위협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정신의 눈은 선의 아름다움만으로 감동받기에는 너무 흐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너그러우심으로 보상의 달콤함을 미끼로 우리를 이끌어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덕행에 대한 보상이 당신께 쌓여 있으며,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헛수고하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반대로 불의가 당신께 가증할 뿐 아니라 벌을 피하지도 못하리라고 공포하십니다. 당신께서 멸시당한 당신의 위엄을 갚으시는 분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으로 권하시려고, 당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의 순종에는 현세의 복과 영원한 복락을 함께 약속하시고, 범하는 자들에게는 현세의 재앙 못지않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위협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리라”(레 18:5)는 저 약속과, 이에 짝을 이루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겔 18:20)는 위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장래의 결코 끝나지 않을 불멸 또는 죽음을 바라봅니다. 하기야 주님의 호의나 진노가 언급되는 곳마다, 호의 아래에는 생명의 영원함이, 진노 아래에는 영원한 멸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의 복과 저주는 율법에 긴 목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레 26:4 이하, 신 28:1 이하). 그리고 형벌 규정에서는 불의를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순결이 드러나고, 약속에서는 의에 대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그분은 의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과 함께 그분의 놀라운 인자하심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그분의 위엄에 빚진 자이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것은 지극히 정당하게 빚으로 돌려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는 것은 갚음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순종에 보상을 내거실 때에는 당신의 권리를 양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자발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인 양 바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들 자체가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지는 뒤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다음을 붙들고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율법의 약속에는 의에 대한 예사롭지 않은 추천이 들어 있어서, 의를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형벌 규정은 불의를 더욱 가증하게 여기도록 세워져서, 죄인이 악덕의 유혹에 젖어 자기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6. 또한 주님께서 완전한 의의 규범을 주시려 할 때 그 모든 부분을 당신의 뜻으로 돌리셨다는 데서, 그분께 순종보다 더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더욱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사람의 정신은 방종하여, 그분께 공로를 세우려고 갖가지 예배를 거듭 꾸며 내는 데 더욱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religion)을 흉내 내는 이 불경건한 시늉은 사람의 본성에 타고나 심겨 있으므로, 모든 세대에 드러났고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의를 얻는 방법을 꾸며 내고 싶어 안달합니다. 그래서 흔히 선행으로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서 율법의 계명은 좁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이 만든 수많은 무리가 거의 모든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공포한 뒤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힘써 막으려 한 것이 바로 이런 방자함 말고 무엇이었겠습니까?(신 12:28)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들으라. 네가 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뒤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네게 명하는 것, 오직 이것만을 행하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또 그보다 앞서, 그는 그들이 주님께 법도와 규례와 의식을 받았다는 것이 다른 민족들 앞에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증언한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신 4:9).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 눈이 본 그 말씀들을 잊지 말고, 언제든지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뒤에도, 엄하게 붙들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운 의들을 더 낳아 내리라는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CO 375 그래서 여기에 의의 완전함이 담겨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한 재갈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토록 금지된 그 대담함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도 같은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의의 가르침을 당신의 율법에 돌리신 그 말씀이 늘 유효하다는 데는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행을 하나 위에 또 하나씩 꾸며 내고 두들겨 만들어 내느라 괴이할 만큼 애씁니다. 이 악을 고치는 가장 좋은 약은 다음 생각이 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곧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의 말고는 다른 의를 가르치지 않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공로를 세우려고 새로운 행위의 형식을 시도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정당한 예배는 오직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밖으로 헤매는 선행의 열심은 하나님의 참된 의를 견딜 수 없이 더럽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매우 참되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어떤 때는 모든 덕의 어머니요 지키는 자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모든 덕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7. 그러나 주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풀이된 뒤에야 율법의 직분과 용도를 더 알맞게, 더 큰 열매를 거두며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 조항을 낱낱이 살피기 전에, 율법 전체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미리 일러두는 것이 수고할 만합니다. 먼저 이것을 세워 둡시다. 율법에서 사람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직뿐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의로 빚어집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것을 제대로 주목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입법자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성격도 입법자의 성품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어떤 왕이 칙령으로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을 금한다면, 누가 음행하고 죽이고 훔치려는 정욕을 마음에 품기만 하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그 형벌 규정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죽을 인간인 입법자의 배려는 바깥의 시민적 질서에까지만 미치므로, 그의 금령은 악행이 저질러지지 않고는 어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 눈을 피할 수 없고, 겉모양보다는 마음의 순결을 더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을 금하시면서 정욕, 분노, 미움, 남의 것을 탐냄, 속임수, 그리고 무엇이든 그와 같은 것을 금하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입법자이시므로 몸에 못지않게 영혼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살인은 분노와 미움이고, 영혼의 도둑질은 악한 욕심과 탐욕이며, 영혼의 음행은 정욕입니다. 누군가는 "사람의 법도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의지를 본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밖으로 드러난 의도와 의지입니다. 사람의 법은 각 범행이 어떤 마음으로 저질러졌는지를 따지지만, 숨은 생각을 살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손만 범행에서 거두어들였으면 사람의 법은 충족됩니다. 반대로 주님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주어진 것이므로,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데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8.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율법을 멸시하는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도, 눈과 발과 손과 몸의 모든 지체를 갖추어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 꼴을 갖춥니다. 그러나 그동안 마음은 모든 순종에서 아주 멀리 둔 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잘 숨기기만 하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줄로 여깁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려고 칼을 빼지 않고, 자기 몸을 창녀와 섞지 않으며, 남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으로 살기를 내뿜고, 정욕으로 달아오르며, 모든 사람의 재물을 곁눈질하고 탐욕으로 삼켜 버립니다. 이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묻건대, 이토록 둔한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이 입법자를 제쳐 놓고 의를 자기 성향에 맞추기 때문이 아니겠

습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강하게 맞서 율법은 신령하다고 단언합니다(롬 7:14). 그가 이 말로 뜻하는 바는, 율법이 영혼과 정신과 의지의 순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내어 오직 영만을 맛보는 천사와 같은 순결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9. 우리가 이것이 율법의 뜻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온 새로운 해석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좋은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라는 비뚤어진 생각을 백성에게 물들여 놓았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극히 위험한 오류를 책망하셨습니다(마 5:21 이하). 그리고 여자를 음란하게 바라보는 것이 음행이라고 선포하시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든 살인자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기만 한 사람도 심판에, 투덜거리거나 씩씩거려 상한 마음을 어느 정도 드러낸 사람은 공회에, 욕설과 악담으로 노골적인 분노에 뛰어든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갈 죄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모세로, 곧 모세의 율법에 모자란 것을 채운 복음적 율법을 주신 입법자로 꾸며 냈습니다. 여기서 복음적 율법의 완전함이 옛 율법을 훨씬 넘어선다는 저 흔한 명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지극히 해롭습니다. 뒤에 계명의 요점을 모을 때 모세 자신에게서 드러나겠지만, 이 명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부당한 모욕을 낙인찍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 족장들의 거룩함이 위선에서 멀지 않았다고 넌지시 말하고, 우리를 하나요 영원한 저 의의 규범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나 이 오류를 논박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무엇을 더하셨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그 온전함으로 되돌려 놓으셨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짓말로 흐려지고 그들의 누룩으로 더럽혀진 율법을 되찾아 깨끗이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10. 둘째로 살필 것은 이것입니다. 계명과 금령에는 언제나 말로 표현

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절해야 합니다. CO 377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레스보스의 자[205] 같은 것이 되어, 그것을 믿고 성경을 제멋대로 비틀어 무엇에서든 무엇이든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절제 없이 멋대로 내달려서, 어떤 이들에게는 율법의 권위를 하찮게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는 율법을 깨달으리라는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바르고 든든한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할 어떤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해석이 말의 경계를 어디까지 넘어서야 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주석에서 나온 덧붙임이 하나님의 율법에 엮여 붙은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순수하고 참된 뜻이 신실하게 전해졌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계명에는 제유법(synecdoche)이 뚜렷해서, 율법의 뜻을 말의 좁은 테두리 안에 가두려는 사람은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 있는 율법 해석이 말을 넘어서 나아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인지는, 어떤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이 계명의 이유를 향할 때 가장 좋은 한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곧 계명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계명은 명령이거나 금지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 곧 목적을 살피면 두 종류의 참뜻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예컨대 다섯째 계명의 목적은, 주님께서 영예를 주신 사람들에게 영예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요점은, 주님께서 어떤 탁월함을 베푸신 사람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 대한 멸시와 반항은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의 이유는 하나님만 예배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요점은, 참된 경건, 곧 당신의 이름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불경건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계명에서 무엇을 다루는지를 살피고, 그다음 목적을 찾아서,

205. 레스보스의 자(Lesbia regula)는 레스보스 섬의 석공들이 쓰던 납으로 된 자로, 돌의 굴곡에 따라 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제멋대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무엇이 당신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다고 증언하시는지를 본래대로 찾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것에서 반대의 것으로 이렇게 추론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들면 그 반대는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반대는 마음에 듭니다. 이것을 명하시면 그 반대는 금하시고, 이것을 금하시면 그 반대는 명하십니다.

11. 지금은 어렴풋이 건드린 것이, 계명을 풀이하는 가운데 실제로 써 봄으로써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드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마지막 항목은, 그렇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거나 이해되더라도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으므로, 짧게 증명하여 확증해야 하겠습니다. 선이 명령될 때 그와 맞서는 악이 금지된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이 금지될 때 그 반대의 의무가 명령된다는 것도 일반의 판단이 그리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반대되는 악덕이 정죄될 때 덕이 권장된다는 것은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투어가 흔히 뜻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악덕에 반대되는 덕을 그 악덕 자체를 삼가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우리는 그 덕이 더 나아가 반대의 의무와 행위에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사람들의 일반 생각은 모든 해악과 해치려는 욕망을 삼가야 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으로 이웃의 생명을 도와야 한다는 것도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도록 이렇게 확증합니다. 주님께서 형제가 불의하게 해를 입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은,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동시에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랑의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그리하여 계명의 목적이 언제나, 거기서 우리가 하라고 명령받거나 하지 말라고 금지당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를테면 반쪽 계명으로, 제유법을 써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표현하시기보다 넌지시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들도 흔히 제시되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이유가 마음에 듭니다. 육은 죄의 추악함을, 손에 잡힐 만큼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늘 희석하고 그럴듯한 구실로 덮으려 하므로, 주님께서는 각 범죄 종류 가운데 가장 나쁘고 가장 악한 것을 본보기로 내세우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감각마저 몸서리칠 만한 것을 내세우셔서, 어떤 죄든 더 크게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악덕을 평가할 때, 그것이 감추어져 있으면 가볍게 여기는 일에 자주 속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많은 악덕 전체를 이 항목들로 돌리도록 길들이심으로써 이 속임수를 흩으십니다. 이 항목들은 각 종류 안에 얼마나 큰 가증함이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분노와 미움은 그 이름으로 불릴 때에는 그다지 가증한 악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이름 아래 금지될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께 얼마나 가증한지를 더 잘 깨닫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것을 그토록 끔찍한 범죄의 반열로 던져 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판단에 움직여서, 전에는 가벼워 보이던 잘못의 무거움을 더 잘 헤아리는 데 익숙해집니다.

13. 셋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 돌판으로 나눈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입니다. 이 두 돌판이 여러 차례 엄숙하게 언급된 것이 까닭 없거나 아무렇게나 된 일이 아님은, 건전한 사람이면 모두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우리가 갈피를 못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 전체가 담긴 두 부분으로 당신의 율법을 나누셔서, 앞의 것은 특별히 당신의 신성에 드리는 예배에 속하는 경건의 의무에, 다른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의무에 배정하셨습니다. 의의 첫째 기초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의의 나머지

모든 지체는 무너지고 허물어진 건물의 부분들처럼 찢기고 흩어집니다. 흉악한 신성 모독으로 하나님의 위엄에서 그 영광을 빼앗으면서, 도둑질과 강탈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의라고 하겠습니까? 모독하는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면서, 음행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의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죽이고 꺼 버리려 애쓰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의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건 없이 의를 내세우는 것은 헛되며, 머리를 잘라 낸 몸통을 아름답다고 내보이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경건은 의의 으뜸 부분일 뿐 아니라 그 영혼이기도 해서, 의 전체가 그것으로 숨 쉬고 살아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서로 공평과 사랑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의 시작이요 기초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서로 행하는 공평과 자제와 절제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하찮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샘이요 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옳고 그름의 재판관으로 경외하면, 거기서 서로 절제하며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첫째 돌판으로 우리를 경건과, 당신의 위엄을 예배하는 경건 본연의 의무로 가르치시고, 둘째 돌판으로는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우리가 사람들의 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정해 주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대로, 율법 전체를 요약하여 두 항목으로 모으셨습니다.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눅 10:27, 마 22:37). 보십시오. 그분은 율법 전체를 담는 두 부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돌리십니다.

14. 그러나 온 율법이 두 항목에 담겨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핑계의 구실을 없애시려고, 당신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과,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들을 향해 명하시는 사랑에 속하는 모든 것을, 열 계명으로 더 넓고 더 자세히 풀어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명의 구분을 알려고 힘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각자 자유롭게 판단해야 하는 종류의 문제이므로,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투듯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로서는 이 대목을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구분을 독자들이 새롭고 최근에 꾸며 낸 것처럼 여겨 비웃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열 말씀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로 여러 차례 확증되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란은 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돌판에 세 계명을 주고 나머지 일곱을 둘째 돌판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형상에 관한 계명을 수에서 지워 버리거나, 적어도 첫째 계명 아래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께서 하나의 계명으로 따로 두신 것입니다.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열째 계명을 그들은 어리석게도 둘로 찢어 버립니다. 게다가 이런 나누는 방식이 더 순수했던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첫째 돌판에 네 항목을 세지만, 첫째 계명 대신 계명 없는 약속을 둡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이유로 설득되지 않는 한, 모세에게 있는 열 말씀을 열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수만큼의 계명이 아주 아름다운 질서로 배열되어 있다고 보기에, 그들의 의견은 그들에게 맡겨 두고 제게 더 옳아 보이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곧 그들이 첫째 계명으로 삼는 것은 율법 전체의 서문 자리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첫째 돌판의 네 계명과 둘째 돌판의 여섯 계명이, 앞으로 열거할 차례대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구분을 논란 없이, 그의 시대에 어디서나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낸 글에서 이를 지지합니다. 그는 열거하면서 이 순서를 지킵니다. 곧 오직 한 하나님을 경건의 순종으로 섬길 것,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는 그림자인 안식일 계명에 관해 따로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저 첫째 구분이 그의 마음에 들지만, 그 이유는 너무 가볍습니다. 곧 (첫째 돌판을 세 계명으로 채우면) 삼이라는 수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거기서도 그는 다른 점에서는 우리의 구분이 더 마음에 든다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들 말고도 『마태복음 미완성 주석』의 저자가 우리 편입니다.[206] 요세푸스[207]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시대의 공통된 합의를 따라 각 돌판에 다섯 계명씩을 배정합니다. 이것은 경건과 사랑의 구별을 뒤섞는다는 점에서 이치에 어긋나고, 또한 주님의 권위로 논박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둘째 돌판의 목록에 넣으시기 때문입니다(마 19:19).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입시다.

첫째 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15. 앞 문장을 첫째 계명의 일부로 삼든 따로 읽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율법 전체에 대한 일종의 서문 노릇을 한다는 것만은 부정하지 마십시오. 법을 제정할 때에는 먼저 그것이 멸시받아 곧 폐기되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신께서 주시려는 율법의 위엄이 언젠가 멸시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며, 이를 확증하시려고 세 가지 논거를 쓰십니다. 당신께 통치의 권세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순종할 필연으로 묶으십니다. 은혜의 약속을 내거셔서, 그 달콤함으로 우리를 거룩함에 힘쓰도록 이끄십니다. CO 381 은택을 상기시키셔서, 우리가 당신의 인자하심에 보답하지 않으면

206. 『마태복음 미완성 주석』(Opus imperfectum in Matthaeum)은 크리소스토무스의 이름으로 전해 온 마태복음 주석입니다.

207. 요세푸스(Flavius Josephus, 37경–100경)는 『유대 고대사』를 쓴 1세기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배은망덕하다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아래 통치권과 정당한 주권이 가리켜집니다. 바울이 말하듯이(롬 11:36)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 안에 있다면, 만물이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낱말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위엄의 멍에 아래 들게 됩니다. 그분 밖에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데 그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그것은 괴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6. 당신이 명령할 권리를 지니시고 순종을 받으셔야 할 분임을 보이신 뒤에, 그분은 필연으로만 끌어가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려고,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달콤함으로도 이끄십니다. 이 말에는 약속 안에 담긴 상호 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셨다는 데서 그들의 불멸을 확증하십니다(마 22:32).[208]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하였으니, 현세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장래 생명의 복락도 주리라." 이것이 무엇을 겨냥하는지는 율법 여러 곳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긍휼로 우리를 당신 백성의 무리에 넣어 주실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특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신 7:6, 14:2, 26:18).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9:2)는 권면이 나옵니다. 또 이 두 가지에서 선지자의 이 엄숙한 호소가 나옵니다(말 1:6).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

17. 이어서 은택을 상기시키십니다. 배은망덕의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증한 것이므로, 그럴수록 이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데 더욱 강한 힘을

208. 원문에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되어 있습니다. 23절은 이 문답이 시작되는 절이고, 칼빈이 말하는 대목은 32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지녀야 합니다. 그때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최근의 은택을 상기시키셨지만, 그 은택은 그 놀라운 크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할 만하여 후손에게도 효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지금의 문제에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비참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해방을 주신 분을 순종과 기꺼이 따르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넌지시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당신 한 분께 드리는 참된 예배 안에 붙들어 두시려고, 당신의 거룩한 신성을 모든 우상과 꾸며 낸 신들과 구별하는 일정한 칭호로 당신을 나타내곤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경솔함과 결합된 허망함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우리 정신은 어떤 헛된 꾸며 낸 것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악에 약을 주시려고, 당신의 신성을 일정한 칭호로 꾸미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를테면 울타리로 둘러싸셔서,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거나, 경솔하게 어떤 새로운 신을 꾸며 내거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선지자들은 그분을 본래대로 가리키려 할 때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표지들로 그분을 입히고 이를테면 감쌉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출 3:6)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실 때,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룹들 사이에 자리 잡으신 분으로 묘사되실 때(암 1:2, 시 80:1, 99:1, 사 37:16),[209] 이런 말투와 그와 비슷한 말투는 그분을 한 장소나 한 백성에 묶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건한 사람들의 생각을 그 하나님께 머물게 하려고 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당신의 언약으로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셨으므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18.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애굽 종살이가 영적 포로 상태의 예표였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209. 원문에는 “시편 80편 2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팔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하셔서 자유의 나라로 옮기실 때까지, 우리 모두는 그 포로 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옛날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 이름을 예배하도록 모으시려 할 때 그들을 짓누르던 바로의 견딜 수 없는 지배에서 건져 내셨던 것처럼, 오늘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모든 사람을 이미 마귀의 치명적인 권세에서 건져 내십니다. 저 육체적 해방은 이것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듣는 율법에 귀 기울이도록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그 기원을 얻듯이, 만물이 그분을 목적으로 삼아 그분께로 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입법자를 껴안도록 사로잡히지 않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특별히 택함받았다고 배우고, 그분의 인자하심에서 모든 좋은 것의 풍성함과 불멸하는 생명의 영광을 함께 기대하며,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긍휼로 죽음의 아가리에서 자기가 해방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19. 율법의 권위를 이렇게 세우고 굳히신 뒤에, 주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내리십니다. 곧 당신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주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홀로 높이 드러나시고 우러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당신 신성의 영광을 줄이거나 흐리는 모든 불경건과 미신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명하시고, 같은 이유로 우리가 참된 경건의 열심으로 당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명하십니다. 말의 단순한 뜻도 거의 그렇게 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함께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금하실 때, 그분은 이로써 당신께 고유한 것을 다른 데로 옮기지 말라는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네 항목으로 돌려도 부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경배(여기에는 부록처럼 양심의 영적 순종이 붙습니다), 신뢰, 기도,

감사입니다. 제가 경배라고 부르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자기를 굴복시킬 때 그분께 드리는 공경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양심을 그분의 율법에 굴복시키는 것을 그 일부로 삼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CO 383 신뢰는 그분의 능력들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그분 안에서 쉬는 평안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와 의와 권능과 진리와 모든 선함을 그분 안에 두고, 오직 그분과 사귐으로써만 우리가 복되다고 여깁니다. 기도는, 어떤 필요가 닥칠 때마다 우리 정신이 유일한 피난처인 그분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찬양을 그분께 돌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당신께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다른 신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바로 이 일에 자기를 붙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 멀리함은 어떤 사악한 멸시자들도 흔히 하는 짓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종교를 조롱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이 앞서야 합니다. 그 경건으로 마음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젖어서, 그분의 위엄을 우러르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좋은 것들과의 사귐을 껴안고, 어디서나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행사의 장엄함을 인정하고 찬양의 고백으로 기리는 것을, 삶의 모든 행위에서 유일한 과녁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다음 비뚤어진 미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신으로 우리 마음은 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이리저리 여러 신에게로 갈라져 끌려갑니다.

20. 그런데 여기서 숨은 불경건의 성질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덮개로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숨은 불경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버리거나 다른 신들의 반열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식으로 다른 신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최고의 자리를 내어 드리면서도, 그분 둘레에 낮은 신들의 무리를 두르고, 그들

사이에 그분께 고유한 직무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하여 (비록 감추어 교활하게 하지만) 신성의 영광이 한 분께 온전히 머물지 않도록 잘려 나갑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들의 아버지요 심판자 아래에 저 거대한 무리를 두어, 그들의 서열에 따라 하늘과 땅의 다스림을 지극히 높은 신과 함께 나누어 맡게 했습니다. 이렇게 몇 세기 전부터 이 세상을 떠난 성인들이 하나님의 동반자 자리로 높여져서, 하나님 대신 예배받고 기도를 받고 기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증한 짓으로 하나님의 장엄하심이 흐려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장엄하심은 대부분 억눌리고 꺼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분의 최고 권능에 대한 미지근한 생각뿐입니다.

21. 더 나아가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이 부르는 대로 라트리아(latria)와 둘리아(dulia)의 구별이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천사들과 죽은 사람들에게 신적인 영예를 넘겨주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성인들에게 바치는 예배가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인들을 뒤섞어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몰릴 때면 그들은 이런 단서로 빠져나갑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라트리아를 남겨 드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손상 없이 지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낱말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것인데, 누가 그들에게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대한 일에서 그토록 태평하게 장난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제쳐 두더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구별로 결국 얻는 것은, 자기들이 한 분 하나님께는 예배를, 다른 이들에게는 섬김을 드린다는 것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λατρεία(라트레이아)는 라틴 사람들의 cultus(예배)와 같은 뜻이고, δουλεία(둘레이아)는 본래 종노릇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구별이 때때로 뒤섞입니다. 또 이 구별이 늘 지켜진다고 인정하더라도, 두 낱말이 각각 무슨 뜻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δουλεία

는 종노릇이고 λατρεία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기를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라도 그를 섬기기는 자주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것은 성인들에게 돌리고 더 작은 것은 하나님께 남겨 두는 것은 부당한 배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이 구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구별이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하찮다는 것을 알아본다면 말입니다.

22. 궤변은 버리고 실체를 따져 봅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추임을 받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본질상 신이 아닌 자들에게 둘리아를 바쳤다고 말합니다(갈 4:8). 그가 라트리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미신이 변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둘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그 비뚤어진 미신을, 라트리아라는 이름을 썼을 때 못지않게 정죄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기록되었다는 방패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실 때에도(마 4:10), 라트리아는 이름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오직 προσκύνησις(프로스퀴네시스, 엎드려 절함)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천사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다고 천사에게 꾸짖음을 받을 때,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께만 마땅한 영예를 천사에게 옮기려 할 만큼 정신이 나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경건과 결합된 예배는 어떤 신적인 것을 풍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인가를 빼앗지 않고는 엎드려 절함(προσκυνεῖν)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경배받은 일을 자주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시민적인 영예였습니다. 경건은 다른 이치를 지니고 있어서, 예배와 결합되자마자 신적인 영예를 더럽히는 일을 함께 끌고 옵니다. 고넬료에게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경건에서 최고의 예배를 한 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형편없이 나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은 분명 베드로를 하나님 대신 경배하려는 마음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피조물에게 드리는 예배를 결코 그렇게 또렷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유한 것을 뒤섞어 피조물에게로 옮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3. 그러므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려 한다면, 그분의 영광에서 조금도 떼어 내서는 안 되고, 그분께 고유한 것이면 무엇이든 그분께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앞에서"라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배반하려고 눈을 돌리면, 그분을 우리 신성 모독의 증인이요 구경꾼으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우시려는 것입니다. 불경건이 크게 대담해지는 것은, 자기가 몰래 달아날 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꾸미든, 무엇을 꾀하든, 무엇을 지어내든 모두 당신 눈앞에 드러난다고 외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경건을 주님께 인정받고자 한다면, 양심이 배교의 가장 은밀한 생각에서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 신성의 영광이 온전하고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깥의 고백으로만 요구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가장 깊이 숨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당신의 눈앞에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24. 바로 앞 계명에서 당신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당신 말고는 다른 신을 생각하거나 두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은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종류의 예배로 공경받으셔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공포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육적인 것을 감히 덮어씌우지 못하게 하십니

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목적은, 주님께서 당신께 드리는 정당한 예배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그분은 우리의 어리석은 정신이 하나님을 자기의 둔함대로 생각한 뒤에 늘 꾸며 내곤 하는 육적인 자잘한 의식에서 우리를 완전히 불러내어 떼어 놓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당신께 드리는 정당한 예배, 곧 영적이고 당신께서 제정하신 예배로 빚으십니다. 또 그분은 이런 범죄 가운데 가장 조잡한 악, 곧 바깥의 우상 숭배를 지목하십니다. 이 계명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의 방자함을 억눌러,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감히 우리 감각에 종속시키거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지 못하게 합니다. 뒷부분은 우리가 경건을 이유로 어떤 형상도 경배하지 못하게 금합니다. 또한 그분은 미신적인 이방 세계가 그분을 형상으로 나타내곤 하던 모든 형태를 짧게 열거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으로 그분은 해와 달과 다른 별들, 그리고 아마도 새들을 뜻하십니다. 신명기 4장에서 당신의 뜻을 표현하시면서 새들과 별들을 함께 이름 부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서툴게 천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것을 적어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항목들은 저절로 알려져 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의 이유는 모세에게 있습니다(신 4:15). “주께서 호렙 골짜기에서 네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소리를 들었으나 형체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스스로 삼가서, 혹시 속아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등등. 이사야도 이것을 보이는 데 아주 많이 힘씁니다(사 40:18, 41:7, 29, 45:9, 46:5). 몸이 없으신 분을 몸 있는 물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이는 형상에, 영이신 분을 생명 없는 것에, 무한하신 분을 하찮은 나무나 돌이나 금덩이에 빗댈 때, 하나님의 위엄이 꼴사납고 터무니없는 꾸밈으로 더럽혀진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같은 추론을 썼습니다(행 17:29).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니, 신성을 금이나 은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돌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세우는 조상(彫像)은 무엇이든 그분 마음에 들지 않으며, 이를 테면 당신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비참하고 눈먼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땅에서 그런 고백을 하도록 몰아가시는데,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런 신탁을 우레처럼 울리신다 해서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 실린 세네카의 저 탄식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죽지 않으며 범할 수 없는 신들을 지극히 천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물질에 바치고, 그들에게 사람과 짐승의 모습을 입힌다."

25. 주님께서는 때때로 일정한 표징으로 당신 신성의 임재를 아주 뚜렷이 보이셔서, 얼굴을 마주하여 보았다고 일컬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임재를 증언하시려고 보이신 모든 표징은 그분의 파악할 수 없는 본질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구름과 연기와 불꽃은, 사람의 눈이 그분을 맑게 바라보는 데까지 꿰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가장 친밀하게 당신을 나누어 주신 모세조차, 그 얼굴을 보게 해 달라는 청을 얻지 못했습니다(출 33:20). 오히려 사람은 그토록 큰 광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당신 능력의 임재를 드러내시던 속죄소도,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식은 마음이 자기를 넘어 경탄으로 들어 올려질 때라는 것을 넌지시 알리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로 그것을 덮었고, 휘장이 그것을 가렸으며, 그 장소 자체가 멀리 깊숙이 숨겨져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그룹들의 본을 들어 하나님과 성인들의 형상을 변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분명 미친 것입니다. 저 작은 형상들은 형상이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기에 알맞지 않다는 것 말고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그것들은 날개로 속죄소를 가려서, 사람 눈의 무모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으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선지자들은 환상 가운데 자기들에게 보인 스랍들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 보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커서 천사들조차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천사들에게서 번쩍이는 그분의 희미한 불꽃들조차 우리 눈에서 가려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기야 지금 문제가 되는 그룹들이 옛 초등 교육에 속했다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우리 시대에 쓰일 본보기로 끌어오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이런 초보 교훈이 주님께서 정하셨던, 이를테면 어린아이 같던 저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또 새긴 우상 못지않게 형상도 금지되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 사람들의 어리석은 조심이 논박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각하지만 않으면 자기들 의무를 훌륭히 다한 줄로 여기면서, 그림에서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방자하게 날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각가가 당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장인이든 당신을 본뜨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렇게 본뜨는 것은 그릇되며 당신 위엄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미신적인 이방 세계가 그분을 형상으로 나타내곤 하던 모든 형태를 짧게 열거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으로 그분은 해와 달과 다른 별들, 그리고 아마도 새들도 뜻하십니다. 신명기 4장에서 당신의 뜻을 표현하시면서 새들과 별들을 함께 이름 부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서툴게 천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것을 적어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항목들은 저절로 알려져 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210]

26. 저는 "형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라는 말이 세상에 아주 닳도록 퍼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레고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와 아주 다르게 선포하십니다. 그레고리우스가 그 영의 학교에서 배웠더라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10. 이 마지막 다섯 문장은 24절에도 거의 같은 꼴로 나옵니다. 원문 파일에 두 곳 모두 실려 있어 두 곳 모두 옮겼습니다. 판에 따라 이 대목이 놓인 자리가 달랐던 흔적으로 보입니다.

가 나무는 헛된 가르침이라고 선포하고(렘 10:8),[211] 하박국이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가르칠 때(합 2:18), 분명 여기서 일반적인 가르침을 끌어내야 합니다. 곧 사람들이 형상에서 하나님에 관해 배운 것은 무엇이든 헛되고, 더 나아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반론하여, 선지자들이 책망한 것은 형상을 불경건한 미신에 잘못 쓰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에게나 뚜렷한 것을 덧붙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이 확실한 명제로 받아들이는 것, 곧 형상이 책을 대신한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완전히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형상을 참 하나님과 맞세워,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반대되는 것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가 인용한 저 대목들에서 이 비교가 세워집니다. 곧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릇되고 거짓되며, 형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참하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만일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곧 형상에서 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든 거짓되고 변조된 것이 아니라면, 선지자들이 그것을 그토록 일반적으로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것을 붙듭니다. 사람들이 형상으로 하나님을 본뜨려고 하는 것이 헛되고 거짓이라고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는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한 마디 한 마디 그대로 옮기는 것일 뿐입니다.

27. 게다가 락탄티우스와 에우세비우스가 이 문제에 관해 쓴 것을 읽어 보십시오. 그들은 형상이 세워진 자들이 모두 죽을 인간이었다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형상을 경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는 것도 불법이라고 거리낌 없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여러

211. 원문에는 장 번호 “10”만 있고 절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문장은 10장 8절에 있습니다.

해 전에 엘비라 공의회[212]에서 결정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공의회의 제36조는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그림을 두지 않기로 한다. 예배받고 경배받는 것이 벽에 그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기억할 만한 것은, 같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곳에서 바로(Varro)[213]의 말을 인용하고 자기도 동의하여 확증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신들의 형상을 들여온 자들은 두려움을 없애고 오류를 더했다." 이 말을 바로(Varro) 혼자 했다면 아마 권위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사람이 이를테면 어둠 속에서 더듬으면서도 이런 빛에 이르렀다는 것은 마땅히 우리를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곧 몸 있는 형상은 하나님의 위엄에 걸맞지 않은데, 그것이 사람들에게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오류를 늘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체가 이 말이 지혜로운 만큼 참되게 말해졌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바로(Varro)에게서 빌려 와서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내놓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이 걸려든 하나님에 관한 최초의 오류가 형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새 재료가 더해지면서 자라났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은, 그분의 신성이 형상의 어리석음과 서툴고 터무니없는 꾸밈 속에서 쉽게 멸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이 둘째 것이 우리가 겪어 보는 대로 그토록 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을 형상이 아닌 다른 데서 배워야 합니다.

28.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조금이라도 낯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형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라는 핑계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여러 증언으로 그토록 뚜렷하게 논박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제가

212. 엘비라 공의회는 4세기 초 스페인 남부의 엘비라(지금의 그라나다 부근)에서 열린 지역 공의회입니다.

213.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Marcus Terentius Varro, 기원전 116–27)는 로마의 학자로, 로마의 종교에 관해 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하나님의 도성』에서 그의 글을 자주 인용합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 우상들을 지키는 데 별 소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어떤 괴물들을 들이미는지는 다 아는 일입니다. 그들이 성인들에게 바치는 그림이나 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타락한 사치와 음란의 본보기 말고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본받으려 한다면 몽둥이찜질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창가가 내보이는 창녀들도, 교회가 동정녀들의 형상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들보다 더 정숙하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에게도 그들은 조금도 더 단정한 모습을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우상들을 적어도 약간의 부끄러움이라도 있게 꾸며서, 그것들이 어떤 거룩함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조금은 덜 뻔뻔하게 거짓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신실한 백성을 가르치는 방식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런 허튼 노래와는 아주 다른 가르침으로 백성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당신 말씀의 설교와 거룩한 신비들의 거행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가르침으로 내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눈이 우상을 바라보느라 이리저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마음을 별로 부지런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교황주의자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라 부르며, 그들의 무지가 형상으로만 가르침을 받는 것밖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시는 자들, 하늘의 지혜를 계시하여 주실 만하다고 여기시는 자들, 당신 나라의 구원하는 신비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사실 지금 형편으로는 그런 책 없이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묻건대,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을 빚기에 오직 알맞았던 그 가르침을 그들이 빼앗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를 다스리던 자들이 가르치는 일을 우상들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 자신이 벙어리였기 때문이지 다른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참된 설교로 그려지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증언합니다(갈 3:1).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내어 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잘 그리고 바르게 가르쳤다면, 교회마다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된 십자가를 그토록 많이 세울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한 말씀에서 그들은 나무나 돌로 된 십자가 천 개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된 십자가에는, 욕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보다도 아마 더 끈질기게 정신과 눈을 박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9. 그런데 우상의 기원에 관해서는, 지혜서에 있는 것이 거의 공통된 합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지혜서 14:15). 곧 처음으로 우상을 만든 자들은, 죽은 사람들의 기억을 미신적으로 기리려고 죽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예를 바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뚤어진 관습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이 횃불이 되어 사람들의 우상 숭배 광기가 더 크게 타올랐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악의 첫 샘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속 저술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죽은 사람들의 형상을 신으로 받드는 이 야심이 퍼지기 전에 이미 우상들이 쓰이고 있었다는 것이 모세에게서 분명하기 때문입니다(창 31:19). 모세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들을 훔쳤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흔한 악에 관해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성향은 말하자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홍수 뒤에 세상은 이를테면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제멋대로 신들을 꾸며 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교만과 무모함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자기 깜냥대로 감히 상상하고, 둔함과 지극히 조잡한 무지에 시달리고 있어서 하나님 대신 헛된 것과 텅 빈 허깨비를 생각해 냅니다.[214]

214. 이 문장의 끝부분(“et inane spectrum concipit”, 텅 빈 허깨비를 생각해 냅니다)은 다음 편 원문 첫머리에 있습니다. 문장이 끝나는 데까지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3장 율법에 관하여 2

CO 1:389–40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389 [215]이 악들에 새로운 악행이 더해집니다. 사람은 속으로 생각해 낸 그대로의 하나님을 행위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낳습니다. 우상 숭배의 기원이 이것, 곧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당신의 임재를 보이시지 않으면 그분이 자기들 곁에 계신다고 믿지 않는다는 데 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보기가 드러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출 32:1).[216] "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에서 그분의 능력을 겪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 얼굴의 몸 있는 상징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분이 자기들 가까이 계신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상징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가는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 길의 인도자이심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날마다의 경험이 가르치듯이, 육은 자기와 닮은 꾸며 낸 것을 얻어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삼아 헛되이 위로를 얻을 때까지는 늘 안절부절못합니다. 세상이 지어진 뒤 거의 모든 세대에, 사람들은 이 눈먼 욕망을 따르려고 표상들을 세웠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육신의 눈앞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꾸며 낸 것에는 곧바로 경배가 뒤따릅니다. 그들은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했으므로, 거기서 그분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마음과 눈이 온통 거기에 붙박여,

215.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216. 원문에는 장 번호 "32"만 있고 절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인용된 말은 3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둔해지기 시작했고, 마치 그 안에 어떤 신성이 깃든 것처럼 넋을 잃고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더 조잡한 생각에 물들기 전에는 형상 예배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신들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신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든 피조물을 나타내든, 공경하려고 그 앞에 엎드리는 순간 이미 어떤 미신에 홀린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본뜨려고 만든 조상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경배를 받도록 세워 둘 기둥이나 돌을 봉헌하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 계명에는 경배에 관한 다른 부분이 덧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형태가 세워지자마자 그분의 능력도 거기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본뜨는 곳마다 그분을 거기에 붙박아 둡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상 자체를 예배하든 우상 안의 하나님을 예배하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색깔을 입히든 우상에게 신적인 영예가 바쳐지면,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신적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므로, 우상들에게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30. 여러 세기 동안 참된 경건(religion)을 가라앉히고 뒤엎은 저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변호하려고 비참한 구실을 찾아다니는 자들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형상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론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해방한 신들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서슴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해방자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되, 송아지 안에서 앞서 가시는 그분을 보고 싶다는 뜻을 의심할 여지 없이 나타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나무와 돌과는 다른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형상을 마음대로 바꾸었지만, 신들은 늘 같은 신들로 마음에 두었습니다. 또 한 신에게 여러 형상이 있었지만, 형상이 많다고 해서 신을 여럿으로 꾸며 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날마다 새 형상을 봉헌했지만, 그렇다고 새 신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31. 아우구스티누스가 전하는, 그의 시대 우상 숭배자들이 내세운 변명을 읽어 보십시오. 그들이 책망을 받을 때,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이지 않게 깃든 신성을 예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더 순화된 종교를 가진 이들은, 자기들이 형상도 귀신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 있는 형상을 통해 자기들이 예배해야 할 것의 표징을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우상 숭배자는 지금 말한 것과 다르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형상에서 더 확실하고 더 가까운 깨달음이 자기들에게 새겨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거꾸로 본뜨는 것이 한번 마음에 들자 끝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새로운 속임수에 거듭 속아서, 하나님께서 형상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런 형상 아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한 분 참 주님을 예배한다고 확신했고, 이방인들은 비록 거짓 신들이지만 하늘에 산다고 꾸며 낸 자기 신들을 예배한다고 확신했습니다.

32. 이런 일이 전에 일어났고 우리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들은 형상 앞에 엎드립니까? 왜 기도하려 할 때 마치 하나님의 귀를 향하듯 형상을 향해 돌아섭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그렇게 바라보며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형상이 자기 말을 들어 준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들 사이에 왜 그토록 큰

차별을 두어, 하나는 지나치거나 흔한 정도로만 공경하고, 다른 하나는 온갖 엄숙한 영예로 받듭니까? 자기 집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 형상을 보러 가려고, 왜 서원한 순례로 몸을 지치게 합니까? 왜 오늘날 그들은 마치 제단과 화로를 지키듯 형상을 위해 학살과 살육에 이르기까지 싸워서, 자기 우상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한 분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을 더 쉽게 참으려 합니까? 그런데도 저는 아직 대중의 조잡한 오류들(그것은 거의 끝이 없고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상 숭배의 혐의를 가장 벗으려 할 때 스스로 고백하는 것만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신들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CO 391 그러나 옛날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과 성경은 여기저기서 그들이 나무와 돌과 음행한다고 책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날마다 하는 바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곧 그들이 나무와 돌 안에서 하나님을 육적으로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도피처는 형상이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물론 이 말은 지극히 헛됩니다. 교황의 나라 전체에서 형상이 경배받는 것 말고 다른 쓰임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뜨려는 형상이 무식한 사람들을 신인동형론자[217]로 만드는 것 말고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33. 그러나 그들이 제가 앞에서 언급한 더 교묘한 구별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저는 모르지 않으며, 그것을 덮어 둘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형상에 바치는 예배가 εἰδωλοδουλεία(에이돌로둘레이아, 우상 섬김)이지 εἰδωλολατρεία(에이돌로라트레이아,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내세웁니다. 그들이 둘리아라고 부르는 예배는 하나님을 해치지 않고도 조상과 그림에

217. 신인동형론자(anthropomorphitae)는 하나님께 사람과 같은 몸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나누어 줄 수 있다고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우상의 종일 뿐 우상을 예배하는 자는 아니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조금 전에 우리가 보였듯이,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얼마간 가볍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어 낱말에서 숨을 곳을 찾으면서, 아주 유치하게 자기모순에 빠집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λατρεύειν(라트레우에인)은 예배한다는 것 말고 다른 뜻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는 말은 마치 자기들이 자기 형상을 예배하되 예배 없이 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말로 덫을 놓는다고 그들이 반박할 까닭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단순한 사람들의 눈에 어둠을 퍼뜨리려 애쓰다가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그 웅변으로 하나요 같은 것을 둘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하지는 결코 못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옛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다고 여겨지려면 실체에서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간음한 자나 살인한 자가 자기 죄에 다른 이름을 빌려 붙인다고 해서 죄책을 피하지 못하듯이, 그들이 실상 그들 자신도 정죄하지 않을 수 없는 우상 숭배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이름을 교묘하게 꾸며 낸 것으로 그들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저들의 처지에서 떼어 놓기는커녕, 오히려 저들과 겨루는 그 거꾸로 된 경쟁심이 모든 악의 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나타낼 상징들을 자기 성향대로 꾸며 내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34. 그렇다고 저는 어떤 형상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각과 그림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저는 그 둘을 순수하고 정당하게 쓰기를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거꾸로 된 오용으로 더럽혀질 뿐 아니라, 우리의 멸망으로까지 바뀌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양으로 본뜨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분 자신이 그것을 금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얼마간 일그러뜨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우리만 한다고 여기지 않도록 말하자면, 건전한 저술가들의 저술을 익힌 사람이라면 그들이 모두 늘 이것을 배척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몸 있는 형상을 만드는 것조차 옳지 않다면, 그것을 하나님 대신 예배하거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더욱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는 것은, 눈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조각하는 것입니다. 눈의 감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엄이 꼴사나운 허깨비들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에는 한편으로 역사와 사건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형상과 몸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데 얼마간 쓸모가 있습니다. 뒤의 것은 즐거움 말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교회당에 세워져 있던 형상들이 거의 모두 이런 것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그것들이 판단이나 선택으로가 아니라, 어리석고 생각 없는 욕심으로 거기에 세워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얼마나 그릇되고 꼴사납게 만들어졌는지, 화가들과 조각가들이 여기서 얼마나 방자하게 날뛰었는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건드렸습니다. 저는 다만, 설령 아무 흠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가르치는 데 아무 무게가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35. 그러나 그 구별도 제쳐 두고, 사건을 나타내든 사람의 몸을 나타내든, 어떤 형상이든 그리스도인의 교회당 안에 두는 것이 유익한지를 지나는 길에 따져 봅시다. 먼저, 옛 교회의 권위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경건이 아직 더 꽃피고 더 순수한 가르침이 힘 있던 오백 년쯤 동안, 그리스도인의 교회당이 대체로 형상 없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형상은 사역의 순수함이 얼마간 타락했을 때 처음으로 교회당의 장식으로 들여왔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자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시대를 비교해 보면, 그들이 형상 없이 지냈던 사람들의 온전함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거룩한 교부들이, 유익하고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을 교회가 그토록 오래 갖지 못하게 내버려 두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분명 그들은 거기에 아무 유익이 없거나 아주 적은 유익밖에 없고 오히려 큰 위험이 숨어 있음을 보았으므로, 무지나 소홀함으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숙고와 이성으로 거부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분명한 말로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들이 존귀한 높은 자리에 놓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제물 드리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 비록 감각과 생명이 없는데도, 살아 있는 지체와 감각을 닮았다는 그 자체 때문에 약한 마음들을 사로잡아,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등등.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의 저 모양은, 몸 안에 사는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몸과 아주 닮은 것으로 보이는 몸이 느낀다고 더 생각하게 만들고, 이를테면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끌어낸다” 등등. 조금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은 입과 눈과 귀와 발을 가졌다는 것으로 불행한 영혼을 굽게 하는 힘이,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 영혼을 바로잡는 힘보다 더 크다.” 요한이 우상 예배뿐 아니라 우상 자체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바란 까닭이 분명 이것인 듯합니다(요일 5:21).

36. 그리고 우리는 전에 온 세상을 차지하여 경건을 거의 완전히 멸망시킨 저 끔찍한 광기로, 교회당에 형상이 놓이자마자 이를테면 우상 숭배의 깃발이 세워진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겪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자제하지 못하고 곧바로 미신적인 예배로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만한 위험이 닥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당이 어떤 쓰임을 위해 정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CO 393 주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저 살아 있고 참모습을 담은 형상들 말고 다른 형상들을 들이는

것은, 어쩐지 교회당의 거룩함에 걸맞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세례와 주의 성찬을, 그리고 다른 의식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눈이 더 열심히 머물러야 하고 더 생생하게 감동받아야 할 것들이어서, 사람의 재주로 만든 다른 형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교황주의자들이 믿는 대로라면 어떤 값으로도 메울 수 없는, 형상들의 비길 데 없는 좋은 점입니다.

37.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충분히 많이 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이를테면 저를 붙들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한 저 아주 유명한 공의회가 아니라, 팔백 년 전에 이레네 황후[218]의 명령과 주관으로 열린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는 교회당에 형상을 두어야 할 뿐 아니라 경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든, 공의회의 권위는 반대편에 큰 선입견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저를 움직이는 것은 이것보다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것보다 형상을 더 탐했던 자들의 광기가 어디까지 치달았는지를 독자들에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을 처리합시다. 오늘날 형상의 쓰임을 지키는 자들은 저 니케아 공의회의 후원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카롤루스 대제의 이름으로 된 반박서가 남아 있습니다.[219] 그 문체로 보아 같은 시대에 쓰인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의회에 참석한 감독들의 의견과 그들이 내세운 논거가 실려 있습니다. 동방 사절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창 1:27 참조)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상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또 "네 얼굴을 내게 보이라. 아름다우니라"(아 2:14 참조)는 말씀으로 형상이 우리에게 권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형상을 제단 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

218. 이레네(Irene, 752경–803)는 비잔틴 제국의 황후입니다.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 형상 공경을 회복시켰습니다.

219. 흔히『카롤루스 서』(Libri Carolini)로 불리는 이 책은 790년대에 카롤루스 대제(샤를마뉴)의 궁정에서 제2차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을 반박하려고 쓴 글입니다.

려고 “아무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마 5:15 참조)는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형상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주여, 주의 얼굴빛이 우리 위에 인 쳐졌나이다”(시 4:6 참조)라는 시편 구절을 끌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비유를 붙잡았습니다. 족장들이 이방인의 제사를 썼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의 우상 대신 성인들의 형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여, 내가 주의 집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나이다”(시 26:8 참조)라는 말씀도 같은 데로 비틀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발한 것은 이 해석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또한 보았도다”(시 48:8 참조).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형상을 보는 것으로도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감독 테오도루스의 날카로움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 안에서 놀라우시다”(시 68:35 참조)라고 하고, “그런데 다른 곳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 (시 16:3 참조)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형상들에 관한 말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이 어리석은 짓들은 너무 역겨워서, 그것을 전하는 것조차 저는 꺼려집니다.

38. 그들이 경배에 관해 논할 때에는, 바로에 대한 경배와, 요셉의 지팡이와, 야곱이 세운 기둥이 내세워집니다. 하기야 이 마지막 것에서 그들은 성경의 뜻을 왜곡할 뿐 아니라,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붙잡습니다. 또 “그의 발등상에 경배하라”,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시 99:5, 9 참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이 다 네 얼굴에 간구하리라”(시 45:12 참조) 같은 말씀도 그들에게는 아주 확고하고 알맞은 증거로 보입니다. 누가 조롱 삼아 형상의 옹호자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배역을 맡기려 한다 해도, 이보다 더 크고 더 조잡한 어리석은 짓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의심이 남지 않도록, 뮈라의 감독 테오도시우스는 형상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 수석 집사의 꿈으로, 마치 하늘의 신탁이라도 손에 쥔 듯이 아주 진지하게 확증합니다. 이제 형상의 후원자들은 가서 그 공의회의

결정으로 우리를 몰아붙여 보라고 하십시오. 저 존경스럽다는 교부들은 성경을 그토록 유치하게 다루거나 그토록 불경건하게 찢어 놓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모든 신뢰를 스스로 없애 버리지 않았습니까?

39. 이제 불경건의 괴물들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감히 그것을 토해 냈다는 것도 놀랍지만, 모든 사람이 가장 크게 미워하며 그것에 맞서 외치지 않았다는 것은 갑절로 놀랍습니다. 이토록 흉악한 광기를 드러내는 것은 유익합니다. 적어도 교황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옛것이라는 겉치장을 형상 예배에서 벗겨 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모리움의 감독 테오도시우스는 형상이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anathema)를 외칩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와 동방의 모든 재앙을, 형상이 경배받지 않았다는 이 죄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다면 형상이 하나도 없던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어떤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까? 그들은 또 덧붙입니다. 황제의 형상을 향기와 향을 들고 맞으러 나간다면, 성인들의 형상에는 이 영예가 훨씬 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프로스의 콘스탄티아 감독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형상을 경외하며 껴안는다고 고백하고, 생명을 주시는 삼위일체께 드리는 것과 같은 영예의 예배를 형상에 바친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 저주하여, 마니교도와 마르키온파와 함께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의 사사로운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나머지 사람들도 동의합니다. 아니, 동방 사절 요한은 열기에 들떠 더 나아가서, 형상 예배를 부정하느니 차라리 모든 사창가를 도시에 들이는 것이 낫다고 충고합니다. 마침내 모두의 합의로, 사마리아인들은 모든 이단보다 더 나쁘고, 형상을 공격하는 자들(εἰκονομάχοι)은 사마리아인들보다도 더 나쁘다고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연극이 엄숙한 박수갈채를 놓치지 않도록, 이런 맺음말이 덧붙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을 흐리곤 하던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구별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공의회는 아무 예외 없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을 형상에게도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주님께서는 모든 불신과 우상 숭배를 얼마나 무겁게 미워하시는지를 더 뚜렷이 선언하시려고, 이 두 계명에 다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당신은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며, 강하고 질투하시는 분으로서, 당신의 이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에게 갚아 삼사 대에 이르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 대까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40. 이것은 마치 당신만이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기로 이끄시려고 당신의 권능을 선포하십니다. 그 권능은 자기가 깔보이는 것을 벌 없이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엘(EL)이라는 이름이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힘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뜻을 더 잘 나타내려고 저는 "강한" 으로 옮기기를 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분은 당신을 질투하는 분이라 부르십니다. 짝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누구든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피조물이나 새긴 우상에게 옮기면, 당신께서 그것을 갚으실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것도 짧거나 단순한 보응이 아니라 아들과 손자와 증손에게까지 미칠 보응으로 갚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불경건을 본받을 자들에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긴 후손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당신의 긍휼과 인자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향해 남편의 역할을 맡으시는 것은 주님께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교회의 품에 받아들이실 때 우리를 당신께 묶으시는 그 결합은 일종의 거룩한 혼인과 같아서, 서로의 신실함으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고 참된 남편의 모든 의무를 다하시듯이, 그 대신 우리에게 사랑과 혼인의 정절을 요구하십니다. 곧 우리 영혼을 사탄과 정욕과 육의 더러운 욕망에 내맡겨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CO 395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들의 배교를 꾸짖으실 때, 그들이 정숙함을 내던지고 간음으로 더럽혀졌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거룩하고 정결할수록 아내의 마음이 연적에게 기우는 것을 보면 더 크게 분노하듯이, 진실함으로 우리를 당신께 정혼하신 주님께서도, 우리가 당신과의 거룩한 혼인의 순결을 소홀히 하고 악한 정욕으로 더럽혀질 때마다 당신의 질투가 몹시 불타오른다고 증언하십니다. 특히 가장 손상 없이 지켜야 했던 당신 신성에 대한 예배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어떤 미신으로 더럽힐 때 그러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혼인에서 맹세한 신의를 어길 뿐 아니라, 간음한 자들을 끌어들여 혼인의 침상 자체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41. 위협의 말씀에서, 그분이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에게 갚아 삼사 대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공포하실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한 벌을 죄 없는 사람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공평함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도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짊어지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단언하시기 때문입니다(겔 18:20). 그런데도 조상들의 죄에 대한 벌이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이 말씀은 한 번만 되풀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분께 자주 이렇게 아룁니다(민 14:18).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에게 갚아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여.”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렘 32:18). “주는 천천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는 분이시니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매듭을 풀려고 애써 땀 흘리다가, 이것을 현세의 벌에 관한 말로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것은 터무니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벌은 자주 구원을 위해 내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참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리라고 선언했습니다(사 39:7). 바로의 집과 아비멜렉의 집은 아브라함을 해친 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창 12:17, 20:3) 등등. 그러나

이것을 이 문제의 해답으로 내놓는 것은 참된 해석이라기보다 도피입니다. 그분은 여기와 이와 비슷한 곳에서, 현세의 경계 안에 갇히기에는 너무 무거운 보응을 공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저주는 불경건한 자의 머리 위에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 위에도 내려 덮인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내려 덮이면, 다음 말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을 잃고 가장 흉악하게 살고, 아들은 아버지의 악함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께 버림받아 같은 멸망의 길을 따르며, 손자와 증손도 가증한 사람들의 저주받은 씨로서 그들 뒤를 따라 곤두박질쳐 달려가는 것입니다.

42. 먼저 이런 보응이 하나님의 의에 걸맞지 않은지를 살펴봅시다. 사람의 본성 전체가 정죄받아 마땅하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불의한 미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의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들이 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도움을 받지 못하느냐고 따질 여지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하고 흉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이 내려져서 그들의 집이 여러 세대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다면, 누가 이 지극히 의로운 보응 때문에 하나님을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대로 아버지의 죄의 벌이 아들에게로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겔 18:20). 거기서 무엇을 다루는지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많은 재앙에 시달리자, 아버지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점에서는 의롭고 벌받을 까닭이 없는 자기들이 그 벌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절제 있는 엄격함이라기보다 달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이며, 의로운 아들이 악한 아버지

의 악함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형벌 규정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갚으심이, 주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의 가족에게서 은혜와 당신 진리의 빛과 그 밖의 구원의 도움을 거두어 가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자녀들이 눈멀고 주님께 버림받아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는 바로 그 일로 그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세의 비참에 처하고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의 때문에 벌받는 것입니다.

43.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천 대까지 미치리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 자주 나오고, 교회와 맺으신 엄숙한 언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와 네 뒤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7). 솔로몬은 이것을 바라보며, 의인의 자녀들이 그가 죽은 뒤에 복되리라고 씁니다(잠 20:7). 그것은 거룩한 교육 때문만이 아니라(물론 그것도 결코 작지 않은 무게를 지닙니다), 언약에서 약속된 이 복 때문입니다. 곧 주님의 은혜가 경건한 자들의 가정에 영원히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이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입니다. 죽은 뒤에도 의에 대한 기억과 불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힘이 있어서, 불의의 저주와 의의 복이 후손에게까지 넘쳐흐른다면, 그것은 그 장본인들의 머리 위에는 훨씬 더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의 자손이 때때로 좋은 열매를 맺는 데로 돌아서고, 신자들의 자손이 타락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것은 아무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선택을 깎아 내릴 영구한 규칙을 정하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로하고 죄인을 두렵게 하는 데는, 이 형벌 규정이 늘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헛되거나 효력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CO 397 몇몇 악인에게 내려지는 현세의 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장차 모든 죄인에게 있을 심판의 증거인 것처럼(많은 사람이 생애 끝까지 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복의 본보기 하나를 보이셔서 아버지를 보아 아들에게 당신의 긍휼과 인자를 베푸실 때, 그분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고 영원한 은혜의 증거를 주십니다. 또 아버지의 죄악을 한 번 아들에게서 추궁하실 때, 그분은 모든 유기된 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여기서 무엇보다 바라보신 것은 이 확실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지나는 길에 당신 긍휼의 넓이를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보응에는 네 세대만을 정하시면서, 긍휼은 천 대까지 미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계명.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44. 이 계명의 목적은, 그분이 당신 이름의 위엄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범할 수 없는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우리가 그 이름을 멸시하고 불경하게 다루어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금령에는 차례대로, 우리가 경건한 공경으로 그 이름을 받들라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혀를 이렇게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신비에 관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큰 절제를 가지고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그분의 행사를 평가할 때 그분께 영예로운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다음 세 가지를 게으르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정신이 그분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분의 탁월하심을 풍기고 그분 이름의 거룩한 높음에 걸맞으며, 마침내 그분의 장엄하심을 높이는 데 알맞아야 합니다. 둘째,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경배할 신비를 야심이나 탐욕이나 우리의 장난을 위해 경솔하고 거꾸로 오용하지 말고, 그것들이 그분 이름의 존귀함을 새기고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늘 그 영예와 값어치를 지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참한 사람들이 모욕적으로 떠들어 대곤 하듯이 그분의 행사를 헐뜯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그분이 하

셨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지혜와 의와 선하심을 기리는 말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은 헛되고 비뚤어진 오용으로 더럽혀집니다. 그 이름은 오직 그 정당한 쓰임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것인데, 그 밖으로 끌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존귀함을 빼앗겨 조금씩 멸시받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경솔하게 함부로 쓰는 버릇에 그토록 큰 잘못이 있다면, 그 이름을 악한 용도에 쓰는 데에는 훨씬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곧 그 이름을 강신술, 주문, 저주의 맹세, 불법한 구마, 그 밖의 불경건한 미신에 쓰이게 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서는 무엇보다 맹세를 다룹니다.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뚤어지게 오용하는 것이 가장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로써 우리가 그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일에서 대체로 더 잘 물러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45. 먼저 맹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맹세는 우리 말의 진실을 확증하려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놓고 모독하는 저주의 말은 맹세 가운데 넣을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바르게 행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라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가 앗수르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의 사귐으로 부름받으리라고 예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사 19:18). “그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리라.” 곧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경건의 고백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나라가 퍼지는 것에 관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사 65:16).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복을 빌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참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라.” 예레미야도 말합니다(렘 12:16).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로 맹세하게 가르친 것같이, 배워서 내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백성을 가르치면, 그들이 내 집 가운데 세워지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증언으로

부름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건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른 누구보다 알맞은 진리의 증인으로 부를 뿐 아니라, 숨은 것을 빛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진리의 유일한 수호자로 부르고, 또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부릅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증인으로 피합니다. 특히 양심 속에 숨은 것을 확증해야 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에게 몹시 노하시고, 그런 종류의 맹세를 드러난 배반의 증거로 해석하십니다.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였다" (렘 5:7).[220] 그리고 이 죄의 무거움을 형벌의 위협으로 선언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을 내가 멸하리라" (습 1:5).

46.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맹세에 당신 이름에 대한 예배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맹세가 예배 대신 모욕이나 멸시와 천대를 담지 않도록 더욱 부지런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가볍지 않은 모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것을 더럽힘이라고 부릅니다(레 19:12).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빼앗기시면 그분께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기를 그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짓의 후원자요 승인자로 세워지실 때, 분명 그분은 진리를 빼앗기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진실을 고백하게 하려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수 7:19).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주께 영광을 돌리라." 이로써 그는 누가 주님을 두고 거짓 맹세하면 주님께서 가장 심하게 욕되신다는 것을 넌지시 알립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 탓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거짓말이 이를테면 낙인찍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CO 399 누군가 맹세하도록 불릴 때마다 이 말투가 유대인들 사이에 흔히 쓰였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쓰는 비슷한 엄숙한 요구에서 분명합니다(요

220. 원문에는 장 번호 "5"만 있고 절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인용된 말은 5장 7절에 있습니다.

9:24). 성경에서 쓰는 맹세의 문구들도 우리를 이런 조심으로 가르칩니다.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시고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같은 것입니다. 이 문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말의 증인으로 부르면서 동시에, 우리가 속인다면 그분이 우리 거짓 맹세를 갚으시기를 스스로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넌지시 알립니다.

47. 하나님의 이름이 참되지만 쓸데없는 맹세에 쓰일 때, 그 이름은 천하고 흔해집니다. 여기서도 그 이름이 헛되이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맹세를 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동시에 맹세는 정욕이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허락되고 제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필요 없는 일에 쓰는 사람은 그 정당한 쓰임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나 사랑을 섬겨야 할 때 말고는 다른 필요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너무나 방자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습관 자체 때문에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으니 더욱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이것은 결코 작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시한 잡담에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벌받지 않은 대담함으로 이토록 큰 악을 제 것처럼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그것이 나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확고하게 남아 있고, 형벌 규정도 굳게 남아 있으며, 언젠가는 그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규정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컬은 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보응을 공포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 대신 그분의 거룩한 종들을 내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드러난 불경건입니다. 이렇게 하여 신성의 영광을 그들에게 옮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명령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하시고(신 6:13, 10:20, 출 23:13), 특별한 금령으로 우리가 다른 신들을 두고 맹세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고 금하신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도 이것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높은 이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씁니다(히 6:16).

48. 재세례파는 맹세의 이런 절제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맹세를 예외 없이 저주합니다. 그리스도의 금령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 5:34). 그러나 이렇게 하여 그들은 생각 없이 그리스도께 부딪칩니다. 그분을 아버지의 대적으로, 아버지의 결정을 폐하러 땅에 내려오신 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맹세를 정당한 것으로 허락하실 뿐 아니라(이것만으로도 넉넉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 말고는 다른 것을 가져오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르침이 당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모순에 빠진 분으로, 곧 행실을 가르치시면서 한번 인정하신 것을 나중에 금하고 정죄하시는 분으로 만들 것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얼마간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것을 잠시 따져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적에 눈을 두고 그분이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결코 참뜻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율법을 느슨하게 하거나 좁히려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주석으로 크게 왜곡되었던 율법을 참되고 순수한 이해로 되돌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붙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맹세를 완전히 정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규범을 넘어서는 맹세만을 정죄하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에서 분명하듯이, 율법은 거짓 맹세뿐 아니라 헛되고 쓸데없는 맹세도 금하는데, 그때 백성은 거짓 맹세 말고는 아무것도 조심하지 않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장 확실한 해석자이신 주님께서는,

거짓 맹세하는 것뿐 아니라 맹세하는 것도 악하다고 일깨우십니다. 어떻게 맹세하는 것입니까? 바로 헛되이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권장하는 맹세는 손대지 않고 자유롭게 남겨 두십니다. 그들은 "도무지"라는 낱말을 이로 물고 늘어질 때 더 강하게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낱말은 "맹세하다"라는 말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붙은 맹세 문구들에 걸립니다. 그들이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도 오류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범죄의 으뜸가는 머리를 다루신 뒤에, 그들에게서 모든 빠져나갈 구멍까지 잘라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고 하늘과 땅을 부르면 피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9. 그러므로 건전한 판단에는 이제, 주님께서 거기서 율법이 금한 맹세만을 배척하셨다는 것이 모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르치신 완전함의 본을 삶으로 보이신 그분 자신도, 일이 요구할 때마다 맹세를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스승께 순종했으리라는 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제자들도 같은 본을 따랐습니다. 맹세가 아예 금지되었다면 바울이 맹세했으리라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일이 그렇게 요구할 때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맹세하고, 때로는 저주의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적인 맹세만 이 금령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정자가 맹세를 제안하고 요구할 때 우리가 하는 맹세, 군주들이 조약을 맺을 때 흔히 쓰는 맹세, 백성이 군주의 이름에 충성을 맹세할 때나 군인이 군대 서약을 할 때의 맹세,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있는, 복음의 존귀함을 지키려는 맹세도 이 부류에 넣는데, 그것은 옳습니다. 사도들은 그 직분에서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맹세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더 견고한 성경의 증언으로 변호되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는 의

심스러운 일에서 증인에게 맹세를 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증인은 그 대신 맹세로 대답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사람들의 다툼이 이 방책으로 해결된다고 말합니다(히 6:16). 이 계명에서 양쪽 모두 자기 직무가 든든히 인정받습니다.

1539–1554년판 제3장 율법에 관하여 3

CO 1:401–41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401 더욱이 옛 이방인들에게서도, 공적이고 엄숙한 맹세는 큰 종교적 경외(religio) 속에 여겨졌지만, 그들이 아무렇게나 하던 일상의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맹세에는 신적 권능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절제 있게, 거룩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일에 쓰는 사사로운 맹세까지 정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할 것입니다. 이런 맹세는 이치로도, 본보기로도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사람들도 무겁고 진지한 일에서 하나님을 자기들 사이의 재판관으로 부르는 것이 허락된다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신의 없는 자라고 고발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사랑의 의무에 따라 자기 결백을 밝히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만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완고한 악의 때문에 여러분의 명예가 위태로워진다면, 여러분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하여,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결백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말을 따져 보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그보다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청하는 일을 불법이라고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본보기도 아주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한 맹세는 공적인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맹세하여 자기들 사이에 언약을 굳게 한 야곱과 라반은 분명 사사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창 31:53). 룻에게 약속한 혼인을 같은 방식으로 확증한 보아스도 사사로운 사람이었습니다(룻 3:13; 4:3).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도

사사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엘리야를 설득하려는 것을 맹세로 단언합니다(왕상 18:10).[221] 그러므로 저에게는 맹세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규칙이 없습니다. 곧 맹세가 경솔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지 않고, 하찮은 일에 하지 않으며, 정당한 필요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님의 영광을 지켜야 하거나 형제의 덕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율법의 계명이 겨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하며 네 모든 일을 하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등등."

50.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자기 감정과 행위에 대하여 죽어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그 묵상에 힘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고찰을 지니므로, 조금 다른 해석 순서가 필요합니다. 옛사람들은 이 계명이 날을 외적으로 지키는 일을 담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다른 예표들과 함께 폐지되었으므로, 이 계명을 그림자에 속한 것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들의 말은 참으로 옳지만, 문제의 절반만 건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설명을 더 깊은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 계명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세 가지 까닭을 살펴야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의 쉼 아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안식을 예표로 보이려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이 안식으로 자기 행위를 그치고 쉬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일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정해진 날이 있어서, 그날에 그들이 율법을 듣고 의식을 행하려고 모이거나, 적어도 그날을 특별히 그분의 일을 묵상하는 데 바쳐, 이렇게 기억하는 가운데 경건을 연습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셋째로, 종들과 남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쉬는 날을 베풀어,

221. 원문에는 "열왕기상 18장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의 맹세("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는 개역한글 18장 10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날에 수고에서 얼마간 놓여나게 해야 한다고 여기셨습니다.

51. 그러나 영적 안식을 그려 보이는 저 예표가 안식일에서 으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배웁니다. 주님께서 이 계명만큼 엄하게 순종을 요구하신 계명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민 15:32 이하; 출 35:2).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모든 경건(religion)이 무너졌음을 나타내려 하실 때, 당신의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범해지고, 지켜지지 않고, 거룩히 여겨지지 않았다고 탄식하십니다(겔 20:12; 22:8; 23:38; 렘 17:21–22, 27). 마치 이 순종을 빼먹으면 그분께서 영예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더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안식일 지키는 것을 뛰어난 찬사로 높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다른 계시의 말씀들 가운데 안식일의 계시를 놀랍도록 귀히 여겼습니다(사 56:2). 레위 사람들은 느헤미야서에서 엄숙한 모임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느 9:14).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보이시고, 계명과 의식과 율법을 모세의 손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보다시피 안식일은 율법의 모든 계명 가운데 특별한 존귀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신비의 존귀함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와 에스겔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있습니다(출 31:13).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키고 대대로 그날을 기념하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표징이다." 에스겔은 이것을 더 길게 말하지만(겔 20:12), 그 요지는 안식일이 하나의 표징이 되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성화가 자기 뜻을 죽이는 데 있다면, 여기서 바깥 표징과 안의 실체 사이의 아주 알맞은 유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온전히 쉬어야 합니다.

우리 뜻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어 드리고, 육의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 자신의 재주가 하는 모든 일을 그치고 쉬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사도도 이렇게 가르칩니다(히 3:13; 4:4).

52. 이레 가운데 하루를 지키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이 끊임없는 그침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날이 더 큰 경건으로 지켜지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본보기로 그날을 확증하셨습니다. CO 403 사람이 자기가 창조주를 본받으려 애쓴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사람의 열심을 일깨우는 데 적지 않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일곱이라는 수에서 어떤 숨은 뜻을 찾는다면, 이 수는 성경에서 완전의 수이므로, 영속함을 나타내려고 까닭 없이 고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고 쉬셨다고 이야기하는 그날에서 낮과 밤이 이어지는 것을 서술하기를 끝맺는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수에 대해 그럴듯한 다른 풀이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안식이 결코 완성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안식을 여기서 시작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육과의 싸움이 아직 그치지 않으므로, 이 안식은 이사야의 말씀, 곧 초하루가 초하루로, 안식일이 안식일로 이어지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사 66:23). 곧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실 때입니다(고전 15:28).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로써 당신의 백성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당신 안식의 완성을 그려 보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이 안식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온 생애 동안 이 완성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53. 누가 수에 대한 이런 관찰을 너무 교묘하다고 싫어한다면, 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막지 않습니다. 곧 주님께서 정한 날을 두셔서, 율법의 몽학 선생 아래 있는 백성이 영적 안식의 끊임없음을 묵상하도록

연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곱째 날을 정하신 것은, 그것으로 넉넉하다고 내다보셨기 때문이거나, 당신의 본보기와 닮은 모습을 내세워 백성을 더 잘 격려하시려는 것이거나, 적어도 안식일이 겨냥하는 것은 오직 사람이 자기 창조주를 닮게 되는 것임을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무엇보다 그려 보이는 신비, 곧 우리 행위를 끊임없이 그치고 쉬는 일에 관한 신비가 남아 있으면 됩니다. 예언자들은 유대인들이 육적으로 일을 그친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거듭 그들을 이 신비를 바라보는 데로 불러 돌이켰습니다. 이미 든 대목들 말고도 이사야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 58:13). “만일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돌이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뜻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 영광스러운 주의 거룩한 날이라 부르며, 네 길을 행하지 않고 네 뜻을 찾지 않고 네 말을 하지 않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등등.” 그런데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계명에서 의식에 속한 것이 폐지되었다는 데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시니, 그분이 계시면 모든 예표가 사라집니다. 그분은 몸이시니, 그분을 보면 그림자들은 버려집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안식일의 참된 완성이십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그분의 죽음에 함께하도록 접붙여졌으니, 이는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롬 6:4). 그래서 사도는 다른 곳에서, 안식일은 장래 일의 그림자였고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씁니다 (골 2:16–17). 몸이란 진리의 견고한 실체를 말하며, 사도는 그 대목에서 이것을 잘 풀어 설명했습니다. 이 실체는 하루로 그치지 않고, 우리 생애의 온 여정에 걸칩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온전히 죽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54. 그러나 뒤의 두 까닭은 옛 그림자에 넣어서는 안 되고 모든 시대에

똑같이 들어맞으므로, 안식일이 폐지되었어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다음 일은 자리를 지닙니다. 곧 정해진 날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비한 떡을 떼고, 공적 기도를 드리려고 모이는 것이며, 또 종들과 일꾼들에게 수고에서 놓여 쉬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에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마음에 두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의 것은 유대인들의 관행 하나만으로도 넉넉한 증거가 있습니다. 뒤의 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런 말로 나타냈습니다(신 5:14). “네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쉬게 하라. 너도 애굽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라.” 또 출애굽기에서는 “네 소와 나귀가 쉬고 네 여종의 아들이 숨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출 23:12).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들어맞는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되었고, 그 필요성은 삶의 경험 자체로 넉넉히 알려져 있습니다. 모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마다 정한 날이 없다면, 어떻게 모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의 말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고전 14:40). 그런데 이런 제도와 규제가 없으면 적절함과 질서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에 혼란과 파멸이 바로 닥쳐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돕고자 안식일을 정하신 그 필요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워져 있다면, 아무도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더없이 앞을 내다보시고 더없이 너그러우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유대인들의 필요 못지않게 우리의 필요도 돌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왜 차라리 날마다 모여서 날의 구별을 없애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영적 지혜는 날마다 시간의 얼마를 떼어 바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모일 수 없고, 사랑의 도리가 그들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지워졌다고 우리가 보는 이 방법을 왜 따르지 않겠습니까?

55.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몇몇 불안한 영들이 주일 때문에 소란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무리가 날을 지키는 일을 얼마간 붙들고 있으므로 유대교 안에서 길러지고 있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날들을 유대교와 상관없이 지킨다고 대답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영적 신비가 그것으로 예표된다고 생각하여 더없이 엄격한 종교적 의무로 의식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방책으로 받아들입니다. CO 405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골 2:16).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직도 날들을 지키므로, 자기가 그들 가운데서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나 두려워합니다(갈 4:10–11). 또 로마서에서는 누가 이날과 저날을 구별한다면 그것은 미신이라고 단언합니다(롬 14:5). 그러나 저 미친 자들 말고 누가, 사도가 어떤 지킴을 말하는지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이 목적, 곧 사회와 교회의 질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날들을 영적인 일의 그림자처럼 붙들었으므로,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가렸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을 쉰 것은 그 일이 거룩한 공부와 묵상에서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생각에서였습니다. 쉬는 것으로 옛적에 맡겨진 신비를 되새긴다고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도가 공격하는 것은 이런 뒤틀린 날의 구별이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정당한 날의 선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세운 교회들에서 안식일은 이런 용도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날을 정해 주어,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두게 합니다(고전 16:2). 미신이 두렵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보다 유대인의 축일에 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미신을 뒤엎는 데 유익했으므로 유대인의 종교적 날은 없어졌고, 교회 안에 적절함과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했으므로 다른

날이 그 용도로 정해졌습니다.

56. 그렇지만 옛사람들이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날을 안식일 대신 세운 것은 아무렇게나 고른 것이 아닙니다. 옛 안식일이 그려 보이던 저 참된 안식의 끝과 완성이 주님의 부활에 있으므로, 그림자들을 끝낸 바로 그날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그림자에 속한 의식에 매달리지 말라는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곱이라는 수에 매여서 교회를 그 수의 종살이에 묶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 모임을 위해 다른 엄숙한 날들을 가진 교회들도, 미신에서 멀기만 하면 저는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들이 오직 규율을 바로 세우는 데만 관련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예표 아래 전해졌듯이, 우리에게는 그림자 없이 맡겨졌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온 생애 동안 우리 행위를 그치는 끊임없는 안식을 묵상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 사람은 틈이 날 때마다 사사로이 하나님의 일을 경건하게 되새기며 부지런히 자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듣고 성례를 시행하고 공적 기도를 드리도록 세운 교회의 정당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아래 있는 사람들을 무정하게 짓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의 허튼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들은 지난 여러 세기 동안 백성에게 유대적 견해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것이라고는, 이 계명에서 의식에 속한 것(그들은 자기들 말로 그것을 "일곱째 날의 지정"이라고 부릅니다)은 폐지되었지만, 도덕에 속한 것, 곧 한 주에 하루를 지키는 것은 남아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을 모욕하려고 날만 바꾸고, 날의 거룩함은 마음속에 똑같이 붙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던 것과 똑같은 신비의 의미가 날들 안에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들이 그런 교리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봅니다. 그들의 규정에 매달리는 자들은 안식을 지키는 조잡하고 육적인 미신에서 유대인들을 세 배나 능가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읽는 책망(사 1:12; 58:13)은 예언자가 자기 시대에 꾸짖던 자들에게 못지않게 오늘날 이 자들에게도 들어맞습니다.

다섯째 계명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실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다."

57. 목적은 이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질서가 보존되기를 마음에 두시므로, 그분이 정하신 높음의 등급은 우리에게 범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지는, 주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들을 공경과 순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지가 따라 나옵니다. 곧 멸시나 거역이나 배은으로 그들의 존엄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낱말은 이렇게 넓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갑절의 공경을 받을 만하다고 말할 때(딤전 5:17), 그는 그들에게 존경만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가 받아 마땅한 보수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복종에 관한 이 계명은 사람 본성의 비뚤어짐과 크게 부딪칩니다(사람의 본성은 높아지려는 욕심으로 부풀어 있어서 남에게 복종하기를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성상 가장 사랑스럽고 시기를 가장 적게 사는 윗자리가 본보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더 쉽게 누그러뜨리고 굽혀 복종에 익숙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견디기 가장 쉬운 복종에서 시작하여 모든 정당한 복종에 우리를 차츰 익숙하게 하십니다. 모든 복종의 이치는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자리를 주신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만큼 당신의 이름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라는 칭호는 오직 그분께만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그분의 위엄을 느끼고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칭호들에 참여하게 하신 사람들을 당신 광채의 불꽃 하나로 비추셔서, 저마다 자기

자리에 따라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CO 407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버지인 사람에게서 무언가 신적인 것을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는 까닭 없이 신적인 칭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주인 사람, 주인인 사람도 하나님과 영예를 얼마간 함께 나눕니다.

58.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보편적인 규칙을 세우신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곧 우리가 누구든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우리 위에 세워졌다고 아는 사람을, 존경과 순종과 감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을 받는 사람들이 그럴 만한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며, 입법자께서 친히 이 섭리 때문에 그들이 공경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특히 우리를 이 생명으로 낳아 기른 부모를 존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성 자체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욕이나 고집으로 부모의 권위를 꺾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의 수고로 빛 가운데 나왔는지 알아보지 못하므로, 빛을 보는 은택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여러 부칙에서도 우리가 지적한 것이 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공경에는 존경, 순종, 감사의 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데서 확정하십니다(출 21:17; 레 20:9; 잠 20:20). 거기서 그분은 멸시와 모욕을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것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사형을 선포하시는 데서 확정하십니다(신 21:18). 셋째 것에는 그리스도께서 부모에게 잘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관련됩니다(마 15:4). 바울도 이 계명을 언급할 때마다, 거기서 순종이 요구된다고 풀이합니다(엡 6:1; 골 3:20).

59. 여기에 약속이 덧붙는데, 이는 권장하려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된 복종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더욱 깨우쳐 줍니다. 바울은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둔함을 깨우려고 이 가시를 들이댑니다. 첫째 돌판에서 앞서 나온 약속은 한 계명에만 해당하는 특별하고 고유한 약속이 아니라, 율법 전체에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보증이었다면, 주님께서 긴 수명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은혜를 증언하려 하셨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긴 수명으로 그분의 은택의 열매를 오래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뜻은 이렇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긴 생애 동안, 내 은혜의 증거가 될 그 땅을 차지하여 오래 누리게 하라." 그런데 온 땅이 신자들에게 복된 것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 넣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곧 이 세상 삶이 오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의 증거가 되는 한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에 복락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되거나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의 표징이 되곤 하기 때문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장년이 되기 전에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생긴다 해도(이런 일은 드물지 않게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이랑을 약속하신 사람에게 백 이랑의 땅을 주시는 것과 다름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한결같이 지키십니다. 모든 것은 이것을 헤아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곧 긴 수명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한에서 약속되고, 그것이 주님의 복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한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당신의 종들에게 이 은혜를 한없이 더 확실하게 증언하십니다.

60. 이 밖에도, 주님께서는 마땅한 존경으로 부모를 섬긴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삶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든 자에게 더없이 확실한 저주가 닥쳐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당신의 율법으로 그들이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재판을 피하더라도, 그분께서 친히 어떤 방법으로든 보응하십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전쟁에서나 싸움에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지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거의 모두가 이 경고가 헛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자들이 아주 늙도록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은 이 삶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채 비참하게 시들어 갈 뿐이고, 앞으로 더 큰 형벌을 받도록 남겨져 있으므로, 경건한 자녀들에게 약속된 복에 참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면서 짚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엡 6:1). 이것은 앞서 놓은 기초에서 보아도 분명합니다. 부모는 주님께서 당신 영예의 한몫을 나누어 주시며 올려 주신 그 자리에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바치는 복종은 저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를 우러러보는 계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부추겨 율법을 어기게 한다면, 그때 그들은 마땅히 우리에게 부모가 아니라, 참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꾀어내려는 남으로 여겨야 합니다. 군주와 주인과 모든 윗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높음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끌어내리는 데 힘을 쓴다는 것은 부당하고 어긋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높음은 하나님의 높으심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61. 이 계명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어떤 하나됨으로 묶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안전이 각 사람에게 맡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웃의 몸을 해치는 모든 폭력과 불의, 그리고 온갖 해악이 우리에게 금지됩니다. CO 409 따라서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데 우리 수고로 도울 것이 있으면 신실하게 쏟고, 그들의 평안에 이바지하는 것을 힘써 마련하고, 해악을 물리치려고 깨어 지키며, 그들이 위험에 처하면 도움의 손을 내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분께서 이 규칙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함께 생각하십시오.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고 무엇보다 그것에 마음을 두시는 분께서 몸만 참된 의로 가르치신다면 우스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으로 마음의 살인도 금지되고, 형제의 생명을 지키려는 안의 마음도 명령됩니다. 살인을 낳는 것은 손이지만, 그것을 잉태하는 것은 분노와 미움에 물든 마음입니다. 해치고 싶은 욕망으로 불타지 않고서 형제에게 화를 낼 수 있는지 보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미움은 묵은 분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치미를 떼고 헛된 핑계로 빠져나가려 해도, 분노나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해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발뺌한다면, 이미 성령의 입으로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선포되었고(요일 3:15), 주 그리스도의 입으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선포되었습니다(마 5:22).

62. 그런데 성경은 이 계명이 기대고 있는 두 가지 공정한 근거를 지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람을 거룩하여 범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야 하고, 모든 인간다움을 벗어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를 우리 자신의 육신처럼 아껴야 합니다. 구속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끌어내야 할 권면은 다른 곳에서 다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본성적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를 보존하도록 이끄시

려 했습니다. 곧 그 사람 안에 새겨진 당신의 형상을 경외하고, 우리 자신의 육신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기를 삼간 사람이라고 해서 살인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의 안전에 해가 되는 것을 행동으로 저지르거나, 시도로 꾀하거나, 바람과 계획으로 품기만 해도, 여러분은 살인죄를 지은 자로 붙들립니다. 또 힘과 기회가 닿는 대로 그 안전을 지키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그 잔인함으로도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처럼 애써야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몸보다 한없이 뛰어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나 큰 열심과 수고를 바쳐야 하는지 헤아려야 합니다.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63. 이 계명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과 순결을 사랑하시므로, 모든 더러움이 우리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지는, 우리가 어떤 음란함이나 육의 방탕한 무절제로도 더럽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긍정의 계명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고 절제 있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모든 정욕이 향해 가는 음행을 이름을 들어 금합니다. 음행의 추함(그것은 몸에도 얼룩을 새기므로 더 거칠고 더 손에 잡히듯 뚜렷합니다)으로써 우리가 어떤 정욕이든 혐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지 않고 자기에게 붙여 준 돕는 이를 누리도록 지음 받았고, 또 죄의 저주 때문에 이 필요에 더욱 매이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는 혼인을 제정하심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를 넉넉히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위로 맺어진 이 결합을 당신의 복으로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혼인 밖의 다른 모든 결합은 그분 앞에서 저주받은 것이며, 혼인의 결합 자체는 우리가 고삐 풀린 정욕으로 내닫지 않도록 필요에 대한 치료책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혼인 밖에서 여자와 결합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64. 이제 우리는 본성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또 타락 뒤에 불붙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중으로 여자와 함께 사는 일에 매여 있으므로(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거기서 면제하신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정이 업신여길 수 없는 덕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고, 어떤 이들에게는 한동안만 허락되었으므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달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혼인의 도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에 놓이고 허락된 치료책으로 자기 무절제를 돕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그분의 정하심에 맞서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늘날 많은 이가 그러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제게 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자기 길, 곧 자기 부르심 안에서 걷는 사람들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을 제쳐 두고 헛된 무모함으로 자기 필요를 이기고 헤쳐 나가려 애쓰는 자들은 모두 자기 부르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며, 아무에게나, 교회의 온 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몇 지체에게만 주어지는 것에 속한다고 단언하십니다(마 19:12). 먼저 주님께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곧 하늘나라의 일에 더 매임 없이 자유롭게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고자 됨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금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특별히 받은 사람들만 그렇다고 보이셨습니다. 그러고는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으라” 고 결론지으십니다. 바울은 더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자기 고유한 은사가 있어서, 한 사람은 이렇고 다른 사람은 저렇다고 씁니다(고전 7:7).

CO 411 65. 독신 가운데 정결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열심과 노력으로 간절히 바라더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서 그들을 당신의 일에 더 거침없이 쓰시려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한 선언으로 깨우침을 받는데, 우리 삶의 방식을 우리 능력의 분량에 맞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본성에 맞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음행을 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순결과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지키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분량으로 자기를 재는 것입니다. 아무도 혼인을 자기에게 쓸모없거나 군더더기인 것처럼 경솔하게 업신여기지 말고, 아무도 아내 없이 지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독신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일에서 육의 평안이나 편리를 꾀하지 말고, 오직 이 매임에서 풀려 경건의 모든 의무에 더 재빠르고 더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은택은 한동안만 주어지므로, 각 사람은 독신을 지키기에 알맞은 동안만 혼인을 삼가야 합니다. 정욕을 길들일 힘이 모자라면, 이제 주님께서 자기에게 혼인할 필요를 지우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고, 또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주 안에서 혼인하라고 명령할 때 이것을 보여 줍니다(고전 7:2, 9). 먼저 그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결함에 매여 있음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그렇게 매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고, 모두 부정함을 막는 저 유일한 치료책으로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자기 연약함을 고치기를 소홀히 한다면, 사도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66. 여자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도, 그 마음이 속으로 정욕에 불타고 있는데도 자기가 부정하다고 책망받을 수 없는 듯이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정결을 몸의 정절과 결합된 영혼의 순결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고전 7:34). 그는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을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몸과 영으로 거룩할지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앞의 명령을 이유를 들어 확증할 때, 창녀와 어울려 자기를 더럽히는 것보다 아내를 얻는 것이 낫다고만 하지 않고,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제사꾼들과 수도사들과 수녀들은 이런 생각을 제쳐 두고, 자기들이 독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들은 평생 정결을 서원하는데, 무슨 신탁으로 자기들에게 평생토록 정결이 유지되리라는 것을 배웠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보편적 조건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들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가 아주 날카로운 가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차라리 그것을 몸소 느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저 일반적인 부르심을 평생토록 떨쳐 버리겠다고 감히 나섭니까? 절제의 은사는 흔히 형편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기간에만 허락되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고집 속에서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으로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심어 주신 본성을 거슬러 애쓰고, 그분의 눈앞에 있는 선물들을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이렇게 할 뿐 아니라, 혼인을 감히 더러움이라고 부릅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이 당신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지 않으신 것이고(창 2:22), 모든 사람 가운데 귀하다고 선언하신 것이며(히 13:4),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함께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당신의 첫 기적으로 영예롭게 하기를 기뻐하신 것인데도(요 2:2, 9)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어떤 독신이든 놀라운 찬사로 치켜세우려고만 합니다. 마치 독신과 동정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그들 자신이 자기 삶에서 내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삶을 더없이 뻔뻔하게 천사 같은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천사들을 크게 모욕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그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러운 무언가를 천사들에게 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체로 드러나게 논박되는 이곳에서는 논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오만과, 지나친 자신감으로 그분의 은사를 멸시하는 일을 주님께서 곳곳에서 얼마나 무서운 형벌로 갚으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기 때문입니다. 더 은밀한 일들은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알려진 것만으로도 지나칩니다.

67. 그러나 이 서원의 경솔함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제들에게 혼인을 금한 것은 불경건한 폭정으로 된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모든 공평에도 어긋납니다. 첫째, 주님께서 자유롭게 남겨 두신 것을 금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유가 꺾이지 않도록 당신의 말씀으로 이름을 들어 대비하셨다는 것은 길게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서(딤전 3:2; 딛 1:6)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혼인을 금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선언하고(딤전 4:3), 그들을 사기꾼일 뿐 아니라 귀신들이라고 부를 때보다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예언이요 거룩한 말씀이며, 성령께서는 이것으로 처음부터 교회를 위험에 맞서 미리 무장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몬타누스와 타티아누스파와 엔크라테이아파와 그 밖의 옛 이단들에게로 비틀어 돌리면서, 멋지게 빠져나갔다고 생각합니다.[222] 그들은 말합니다. “저들만 혼인을 정죄했고, 우리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

222. 몬타누스(Montanus)는 2세기 소아시아에서 새 예언을 내세운 운동의 지도자입니다. 타티아누스파(Tatiani)와 엔크라테이아파(Encratitae)는 혼인과 육식을 배척한 2세기의 금욕파입니다.

다. 다만 혼인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직분 계층만 혼인에서 떼어 놓을 뿐이다." 마치 이 예언이 저 옛사람들에게서 먼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자들에게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또는 모든 사람에게 금하지 않으니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저 유치한 말장난이 들어 줄 만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폭군이, 그 불의로 도시의 일부만 짓눌리는 법이니 불의한 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68. 그들은 사제가 어떤 표로 평신도와 달라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사제들이 어떤 장식으로 뛰어나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 두지 않으셨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사도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품위를 흐트러뜨렸다고 고발하는 셈입니다. 사도는 좋은 감독의 완전한 모습을 그리면서, 그에게 요구한 다른 자질들 가운데 감히 혼인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압니다. 곧 둘째 아내를 둔 사람은 뽑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풀이가 새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문맥 자체에서 분명합니다. 사도는 곧바로 감독과 집사의 아내가 어떠해야 하는지 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혼인을 감독의 덕목 가운데 셉니다. 이 자들은 그것이 교회의 직분 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이런 일반적인 비난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의 교회법에서 혼인을 더러움이요 육의 오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들이 어느 대장간에서 나왔는지 각자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셔서, 혼인이 당신과 교회의 거룩한 결합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혼인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데 이보다 더 빛나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적 은혜의 닮은 모습이 빛나는 혼인을 무슨 낯으로 더럽다거나 오염되었다고 부르겠습니까?

69. 그들에게는 자기 사제들의 독신을 내세우는 구실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섬김의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아내와 따로 자야 했고,

그렇게 하여 깨끗하고 흠 없이 거룩한 일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거룩한 일은 훨씬 더 고귀하고 날마다 있는 일이므로, 혼인한 사람들이 다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 사역의 역할이 레위 제사장직의 역할과 같다는 듯이 말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이를테면 모형(ἀντίτυποι)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223]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당신의 더없이 완전한 순결로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그들은 그분의 거룩함의 모형을 모든 면에서 보일 수 없었으므로, 적어도 몇 가지 윤곽으로나마 그려 보이도록, 성소에 나아갈 때 보통 사람의 관습을 넘어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처럼, 하늘 재판석의 모형인 성막에 나타났으므로, 바로 그때 고유한 뜻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은 이 역할을 맡지 않으므로, 그들과 견주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외 없이 거리낌 없이 선언합니다. 혼인은 모든 사람 가운데 귀히 여길 것이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말입니다(히 13:4). 사도들 자신도 자기 본보기로, 혼인은 아무리 뛰어난 직무라도 그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아내를 두었을 뿐 아니라 데리고 다니기까지 했다는 것은 바울이 증언합니다(고전 9:5).

70. 다음으로, 그들이 이 정결의 품위를 꼭 필요한 것처럼 팔아 온 것은 놀라운 뻔뻔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옛 교회를 크게 욕보이는 일입니다. 옛 교회는 하나님에 관한 뛰어난 가르침이 넘쳤지만, 거룩함에서는 더욱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그들은 때때로 사도들을 대놓고 업신여기곤 합니다), 묻건대, 감독의 직분 안에서 혼인을 용납했을 뿐 아니라 인정하기까지 했음이 확실한 모든 옛 교부들은 어떻게

223. 원문 OCR은 “dvrhvnot”로 깨져 있습니다. 그리스어 ἀντίτυποι(모형들)로 읽었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교부들은 더러운 성물 모독을 길러 준 셈이겠지요. 그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신비가 이렇게 제대로 받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독신을 명하는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습니다. 늘 무언가 새것을 꾸며 내어 자기에게 감탄을 끌어모으는 하찮은 미신가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무엇이 결정되었습니까? 파프누티우스의 의견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는 정결이란 자기 아내와 함께 자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224]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거룩한 혼인은 그대로 남았고, 혼인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거나 사역에 무슨 얼룩을 끼친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71. 그 뒤로 독신을 지나치게 미신적으로 우러르는 풍조가 기세를 떨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정을 끊임없이, 끝없이 기리는 찬사들이 나왔고, 흔히 다른 어떤 덕도 동정에 견줄 수 없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부정하다고 정죄되지는 않았지만, 그 존귀함은 낮아지고 거룩함은 가려져서, 혼인을 스스로 삼가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굳센 마음으로 완전을 바라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저 교회법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제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혼인하지 못하게 금했고, 다음에는 독신인 사람이나 아내와 함께 부부의 잠자리를 끊는 사람이 아니면 그 직분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제직에 존경을 얻어 주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옛날에도 큰 박수를 받으며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이 저에게 옛것을 내세운다면, 저는 먼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독들이 혼인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사도들 아래에서도, 그 뒤 몇 세기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사도들 자신과, 그들의 자리를 이어받은 으뜸가는 권위의 다른 목사들도 이 자유를 거리낌 없이 누렸습니다. 저 더 오래된 교회의 본보기는 우리에게 마땅히 더 무겁게 여겨져야 하므로, 그때 칭찬 속에 받아들여지고 행해지던 것을 우리가 불

224. 파프누티우스(Paphnutius)는 4세기 이집트 상(上) 테바이스의 감독으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법이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동정을 지나치게 좇다가 혼인에 대해 더 불공평해지기 시작한 저 시대도, 독신이 그 자체로 꼭 필요한 일인 것처럼 사제들에게 독신의 법을 지운 것이 아니라, 독신인 사람을 혼인한 사람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끝으로, 그 시대도 절제를 지키기에 알맞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와 강제로 절제에 몰아넣을 만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음행은 더없이 엄한 법으로 벌하면서도, 혼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만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라고만 정했기 때문입니다.

72. 그러므로 이 새 폭정을 변호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독신을 변호하려고 옛것이라는 구실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맞받아야 할 것입니다. 곧 그 옛 정결을 자기 사제들에게 되돌려 놓고,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혼인 잠자리를 떳떳하고 정결하게 쓰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그런 자들이 벌받지 않고 온갖 정욕으로 내닫게 내버려 두지 말고, 모든 음탕함을 다스리던 저 잊힌 권징을 되살리고, 이미 오래도록 교회를 일그러뜨린 이 극악한 추함에서 교회를 건져 내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1539–1554년판 제3장 율법에 관하여 4

CO 1:415–42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415 [225]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때 다시 그들에게, 그 자체로 자유로우며 교회의 유익에 달려 있는 일을 꼭 필요한 것처럼 팔지 말라고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의 직분 계층에 독신의 굴레를 씌우는 저 교회법들에 어떤 조건으로든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별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옛것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사제들의 거룩한 혼인을 얼마나 뻔뻔하게 더럽히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글이 남아 있는 교부들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도 자기 판단으로 말할 때에는, 히에로니무스를 빼고는, 그토록 악의적으로 혼인의 존귀함을 헐뜯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크리소스토무스의 찬사 한마디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는 동정을 누구보다 우러른 사람이었으므로, 혼인을 칭찬하는 데 다른 이들보다 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의 첫째 단계는 순전한 동정이고, 둘째는 신실한 혼인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정결한 사랑은 동정의 둘째 종류입니다.”

73. 또 부부가 자기들의 결합이 주님께 복을 받은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것으로 그 결합을 무절제하고 방탕한 정욕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깨우침을 받습니다. 혼인의 존귀함이 절제하지 못함의 추함을 가려 준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허락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저마다 자기 아내를, 아내는 또 남편을 절제 있게 대해야 합니다. 혼인의 존귀함과 절제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조금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행

225.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맺은 혼인은 이렇게 절도와 단정함으로 돌이켜야 마땅하며, 극단의 음탕함으로 넘쳐흘러서는 안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방자함을, 엄하기는 하지만 부당하지 않은 말로 지적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수치심이나 단정함을 조금도 돌보지 않는 남편을 자기 아내의 간음자라고 불렀습니다. 끝으로 여기서 음행을 정죄하시는 입법자가 누구신지 생각해 봅시다. 바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셔야 할 분으로서, 당신의 권리로 영혼과 영과 몸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음행을 금하시면서, 동시에 음탕한 몸치장이나 음란한 몸짓이나 더러운 말로 남의 정절을 노리는 것도 금하십니다. 지나치게 부드럽고 맵시 있게 차려입은 젊은이에게 아르켈라오스가 한 말, 곧 그가 몸의 어느 부분으로 음탕한 자인지는 상관없다는 말은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이든 몸이든 우리의 어느 부분에 나타나든 모든 더러움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없도록,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결을 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신다면, 정결에 맞서는 것은 무엇이든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순종을 바란다면, 마음이 속으로 악한 욕심에 불타지 않게 하고, 눈이 부패한 정욕으로 음탕하게 놀지 않게 하고, 몸을 유혹하려고 꾸미지 않게 하고, 혀가 더러운 말로 마음을 그와 같은 생각으로 꾀지 않게 하고, 식탐이 그 무절제로 불을 붙이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악은 모두 정결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얼룩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74.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시므로, 각 사람에게 그의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지는,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금지되고, 따라서 각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도록 신실하게 수고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가진 것은 우연한 운수로가 아니라 주님의 나누어 주심으로 그에게 돌아간 것이므로, 누구의 재산이든 악한 수단으로 가로채면 하나님의 경륜을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력에 의한 것으로, 온갖 힘과 약탈하는 방자함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악한 속임수에 의한 것으로, 남의 것을 사기로 가로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더 은밀한 교활함에 의한 것으로, 법의 겉모양을 빌려 남의 것을 털어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첨에 의한 것으로, 선물이라는 구실로 남의 것을 우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류를 헤아리는 데 너무 머물지 않도록 말하자면, 이웃의 소유와 돈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는 모든 수단은, 그것이 사랑의 진실함에서 벗어나 속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치려는 욕심으로 기울 때, 도둑질로 여겨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수단이 법정 다툼에서는 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리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교활한 사람이 더 순박한 사람을 얽어매기 시작해 마침내 자기 통발로 끌어들이는 긴 올무를 보십니다. 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몰아붙여 넘어뜨리는 가혹하고 무정한 조건을 보십니다. 더 약삭빠른 자가 낚싯바늘처럼 써서 조심성 없는 자를 꾀는 미끼를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재판에는 숨겨져 있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의는 돈이나 물건이나 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권리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매여 있는 의무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서 그들의 몫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인이나 청지기가 게으르게 주인의 재산을 먹어 치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데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맡겨진 재산을 불의하게 흩어 버리거나 사치스럽게 탕진한다면, 종이 주인을 조롱하거나 그의 비밀을 퍼뜨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의 생명이나 재산을 팔아넘긴다면, 반대로 주인이 집안 식구들을 잔인하게 괴롭힌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CO 417 자기 부르심의 직분에 따라 남에게 갚아야 할 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것을 붙들고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5.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에 바르게 순종하는 길은 이렇습니다. 우리 몫에 만족하여 떳떳하고 정당한 이익만 얻으려고 힘쓰는 것, 불의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 재산을 늘리려고 이웃의 재산을 무너뜨리려 꾀하지 않는 것, 남의 피에서 짜낸 잔혹한 재물을 쌓으려 다투지 않는 것, 우리의 탐욕을 채우거나 낭비를 충족하려고 옳든 그르든 어디서나 무절제하게 긁어모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있는 한 조언과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지키도록 신실하게 돕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의 없고 속이는 자들과 일을 하게 되면, 그들과 다투기보다 차라리 우리 것에서 얼마를 양보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쓸 것을 나누고, 우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모자람을 채워야 합니다. 끝으로 각 사람은 자기 직분에 따라 남에게 어디까지 매여 있는지 살펴보고, 갚아야 할 것을 성실하게 갚아야 합니다. 이런 이치로 백성은 자기 위에 세워진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다스림을 평온한 마음으로 견디며, 법과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슬리지 않고 질 수 있는 짐이면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을 맡고, 공공의 평화를 지키며,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억제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재판장 하나님께 자기 직무를 셈해 드릴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그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말씀의 사역에 신실하게 힘쓰고, 구원의 교리를 변질시키지 말고, 그것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교리로만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요컨대 선한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 다스려야 합니다. 백성은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사도로 맞아들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예를 그들에게 돌리며,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대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들로 여겨

기르고 다스리고 가르쳐야 하며, 가혹함으로 자녀의 마음을 성나게 하여 자기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말고, 부모의 자리에 걸맞은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존경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년을 공경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나이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인들도 자기 지혜와,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쌓은 경험으로 젊은이들의 연약함을 이끌어야 합니다. 거칠고 시끄럽게 꾸짖으며 몰아세우지 말고, 엄격함을 상냥함과 너그러움으로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부지런히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눈가림으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섬기듯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인들도 종들에게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사람처럼 굴지 말고, 지나친 가혹함으로 괴롭히지 말고, 모욕적으로 대하지 말며, 오히려 종들이 자기 형제요 하늘의 주님 아래 함께 종 된 이들이어서 서로 사랑하고 인정 있게 대해야 할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 사람은 자기 신분과 자리에서 이웃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마음을 늘 입법자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규칙이 손에게와 마찬가지로 마음에게도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남의 이익과 유익을 지키고 늘리는 데 힘쓰도록 말입니다.

아홉째 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76. 이 계명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몹시 미워하시므로, 우리 사이에서 꾸밈없는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지는, 비방과 거짓 고발로 누구의 이름을 해치거나 거짓말로 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말고, 요컨대 험담하고 방자하게 굴고 싶은 욕망으로 누구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금지에는, 할 수 있는 한 각 사람의 이름과 재산을 온전히 지켜 주려고 진실을 밝히는 데 신실한

수고를 바치라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당신 계명의 뜻을 풀어 주려 하신 것 같습니다(출 23:1). “너는 거짓된 소리를 받아들이지 말며, 악인과 손을 잡아 그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또 “거짓을 멀리하라”고 하십니다(출 23:7 참조). 또 다른 곳에서는(레 19:16) 백성 가운데 고발하는 자나 수군거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점에서만 거짓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두 가지를 다 서로 다른 계명으로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앞의 계명들에서 잔인함과 부정함과 탐욕을 막으셨듯이, 여기서는 거짓을 억제하신다는 데는 의심이 없습니다. 거짓에는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두 갈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와 헐뜯는 비뚤어짐으로 이웃의 명예에 죄를 짓거나, 거짓말로, 때로는 헐뜯는 말로도, 그들의 이익을 깎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엄숙한 법정 증언을 말한다고 보든, 사사로운 대화에서 하는 일상의 증언을 말한다고 보든 상관없습니다. 늘 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악의 각 부류에서 하나의 종류를 본보기로 내세워 나머지를 그것에 견주게 하는데, 그 악의 추함이 가장 두드러지는 종류를 골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계명을 더 넓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법정 증언의 거짓에는 언제나 거짓 맹세가 따르는데, 거짓 맹세는 셋째 계명에서 이미 넉넉히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혀가 진실을 밝힘으로써 이웃의 좋은 평판과 유익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공정함은 더없이 분명합니다. 좋은 이름이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면, 사람이 이름의 온전함을 빼앗기는 것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 못지않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재산을 빼앗는 데에도 때로는 손으로 약탈하는 것 못지않게 거짓 증언으로 일을 이룹니다.

CO 419 77.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일에서 곳곳에서 얼마나 태평스럽게 죄를 짓는지 놀랍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캐내고 들추는 데서 어떤 독

묻은 달콤함을 즐기므로, 이 병을 눈에 띄게 앓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게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가 대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알맞은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거짓말로 형제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금하시는 분은, 진실이 허락하는 한 그 이름이 흠 없이 보존되기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형제의 이름을 거짓에 맞서서만 지켜 주신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으로 그 이름이 당신께 소중하다는 것을 내비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평판을 온전히 지켜 주는 데는, 주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두신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넉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험담은 모두 정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험담은, 바로잡으려는 열심에서 하는 꾸짖음이 아니고, 악을 고칠 방도를 찾는 고발이나 법정 신고도 아니고, 다른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공적 책망도 아니고, 몰라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알려 주는 것이 그들의 안전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도 아닙니다. 악의와 헐뜯기 좋아하는 방자함에서 나오는 미움 가득한 고발을 말합니다. 이 계명은 여기까지도 미칩니다. 곧 농담을 핑계 삼아 남의 결점을 물어뜯듯 꼬집는, 쓰디쓴 욕설에 물든 상스러운 재치를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얼굴 붉히게 하고 신음하게까지 하면서 재담꾼이라는 칭찬을 얻으려는 어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합니다. 이런 방자함 때문에 형제들이 때로 적잖이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법자께로 눈을 돌린다면(그분은 당신의 권리로 혀만이 아니라 귀와 마음도 다스리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헐뜯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욕심과 남을 나쁘게 판단하려는 그릇된 성향도 똑같이 금지된다는 것이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혀에 있는 험담의 병은 미워하시면서 마음에 있는 악의의 병은 꾸짖지 않으신다고 누가 생각한다면 우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와 사랑이 있다면, 할 수 있고 유익한 한, 또 사랑이 허락하는 만큼, 험담과 쓰디쓴 농담에 혀도 귀도 내주지 않고, 비뚤어진 의심에 함부로 마음을 맡기지

않도록 힘씁시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공정하게 풀이하는 사람이 되어, 판단으로나 귀로나 혀로나 그들의 명예를 순전하게 온전히 지켜줍시다.

열째 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등등."

78.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전체가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므로, 사랑에 맞서는 모든 욕심을 마음에서 떨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지는, 해롭고 남의 손해로 기우는 정욕으로 우리 마음을 흔드는 어떤 생각도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편에서 상응하는 계명은, 우리가 품고, 숙고하고, 원하고, 궁리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웃의 선과 유익에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기에 크고 얽힌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음행과 도둑질이라는 말 아래 음행하려는 정욕과 해치고 속이려는 계획도 금지된다고 한 것이 옳다면, 뒤에 가서 남의 재물을 향한 정욕을 따로 금하는 것은 군더더기였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정욕을 구별하면 이 매듭은 쉽게 풀립니다. 앞의 계명들에서 우리가 말한 계획이란, 정욕이 마음을 굴복시켰을 때 의지가 숙고 끝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그런 숙고와 동의 없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헛되고 비뚤어진 대상에 그저 찔리고 간지럼을 탈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의 규칙이 의지와 열망과 행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듯이, 이제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같은 규칙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다른 데로 부추기는 악하고 비뚤어진 생각이 하나도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마음이 분노와 미움과 음행과 강탈과 거짓으로 기울어지고 끌려가는 것을 금하셨듯이, 이제는 마음이 그런 것으로 부추김을 받는 것도 금하십니다.

79. 그분께서 이토록 큰 올곧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

닙니다. 영혼의 모든 능력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사랑의 목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병든 것임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형제에게 해로운 욕심이 여러분 마음에 스며드는 것은, 여러분이 형제를 돌보지 않고 오직 자기만 위하기 때문이 아니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마음이 온통 사랑에 젖어 있다면, 마음의 어느 한 조각도 그런 상상에 열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욕을 받아들이는 만큼 사랑이 비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생각 속에 아무렇게나 맴돌다 마침내 사라지는 공상들을, 마음에 자리 잡은 정욕처럼 정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 앞에 어른거리면서 동시에 마음을 욕심으로 물고 치는 그런 종류의 공상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는 언제나 마음이 흥분하여 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의 열심을 명령하시며, 그 열심이 정욕의 아주 작은 훼방에도 막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놀랍도록 잘 다스려진 마음을 요구하시며, 그 마음이 가벼운 가시에라도 찔려 사랑의 법을 거스르게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해로 가는 길을 저에게 처음 열어 준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이해가 무게 있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도록 말해 둡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어떤 악한 욕심이든 금하시는 것이었지만, 거짓된 즐거움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개 사로잡는 대상들을 본보기로 내세우셨습니다. 욕심이 가장 미쳐 날뛰는 것들에서 그것을 끌어내심으로써, 욕심에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CO 421 이것이 율법의 둘째 돌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넉넉히 깨우침을 받습니다. 사랑의 이치 전체가 주님을 생각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이 돌판에서 가르치는 의무를 아무리 거듭 일러 주어도 헛될

것입니다.

80. 이제 율법 전체가 무엇을 겨냥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곧 의의 완성, 다시 말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순결이라는 본에 따라 빚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당신의 성품을 그려 놓으셔서, 누구든 거기서 명령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다면 어떤 의미에서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려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신 10:12). “이스라엘아, 이제 주 네 하나님이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주를 경외하여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율법의 목표를 일러 주어야 할 때마다 그는 그들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르침이 바라보는 것은, 삶의 거룩함으로 사람을 그의 하나님과 결합시키고, (모세가 다른 곳에서 말하듯이) 그분께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완전은 이미 말한 두 요점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모든 부분에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웃 사랑이 곧바로 저절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도는 계명의 목적이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쓸 때 이것을 보여 줍니다(딤전 1:5). 보다시피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한마디로 참된 경건이 머리처럼 맨 앞에 놓이고, 거기서 사랑이 이끌려 나옵니다.

81. 그러므로 율법에는 의의 초보와 첫걸음만 전해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수련을 시작할 뿐 선행의 바른 목표로 이끌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저 말씀과 바울의 이 말씀 너머에서 지극한 완전을 위해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묻건대, 이 가르침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더 나아가려 하겠습니까? 이

가르침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예배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의 올곧음을 따르고, 요컨대 양심의 순결과 진실한 믿음과 사랑에 이르도록 배우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경건과 사랑의 모든 의무를 율법의 계명들 안에서 찾아내는 저 율법 해석이 확증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절반만 가르친다는 듯이 메마르고 빈약한 초보만 좇는 자들은, 사도가 증언하듯이 율법의 목적을 조금도 붙잡지 못합니다.

82. 그런데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율법의 요지를 말할 때 때때로 첫째 돌판을 빼놓으므로, 아주 많은 사람이 그들의 말을 두 돌판 모두로 끌어가려다가 이 점에서 헛짚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긍휼과 공의와 믿음을 율법의 더 중한 것이라고 부르십니다(마 23:23). 저는 "믿음"이라는 말로 그분께서 사람에 대한 신실함을 가리키신다는 데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율법 전체로 넓히려고, 이 말을 하나님을 향한 경건(religion)으로 받아들입니다. 분명 헛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행위들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를 지킨다면, 그분께서 다른 곳에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가느냐고 묻는 젊은이에게 왜 이것들만 대답하시는지도 더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마 19:18–19).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첫째 돌판에 대한 순종은 대개 마음의 감정에 있거나 의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고, 의식에는 위선자들도 부지런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는 우리가 그것으로 견실한 의를 증언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83.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요체에서는 경건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흠 없이 사는 것이 더 중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외하지 않고서는 누구

도 모든 일에서 사랑을 쉽게 지키지 못하므로, 거기서 경건의 증거도 얻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이 하나도 당신께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므로(이것을 예언자를 통해서도 증언하십니다, 시 16:2), 우리의 섬김을 당신께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 우리를 연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성도들의 온 완전을 사랑에 두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엡 3:19). 또 다른 곳에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터무니없지 않습니다(롬 13:8).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이루었다고 덧붙입니다. 또 온 율법이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갈 5:14). 그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이다"라고 하실 때 가르치신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마 7:12). 율법과 예언서에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예배에 속한 모든 것이 첫자리를 차지하고, 사랑은 그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율법에서 우리에게 사람 사이의 법과 공평을 지키는 것만 명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다면, 그것을 증언하도록 우리가 이것으로 연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4.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삶이 모든 면에서 형제들에게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규정에 가장 잘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에서 사람이 자기 육신의 편의를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지 규칙을 정해 주는 음절은 하나도 읽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온통 지나치게 자기 사랑으로 기울도록 태어났고, 진리에서 아무리 멀어지더라도 늘 그 사랑만은 붙들고 있으므로, 저절로 지나친 그 사랑을 더 불타게 할 율법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CO 423 이로써 아주 분명해집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적게

자기를 위해 살고 힘쓰는 사람이 가장 잘, 가장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오직 자기를 위해 살고 힘쓰며 오직 자기 것만 생각하고 구하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열의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더 잘 나타내시려고, 우리의 자기 사랑을 (그보다 더 격렬하고 강한 감정이 없었으므로) 이를테면 자로 삼아 이웃 사랑을 재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힘을 주의 깊게 헤아려야 합니다. 어떤 궤변가들이 어리석게 꿈꾸었듯이, 주님께서 첫자리를 자기 사랑(φιλαυτία)에 내주시고 둘째 자리를 이웃 사랑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226] 오히려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사랑의 감정을 남에게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고전 13:5). 재는 것은 언제나 그 자보다 낮다는 그들의 논리는 털끝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남에 대한 사랑이 그 아래 놓일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본성의 비뚤어짐 때문에 우리 안에 머무르곤 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그것이 다른 데로 퍼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 못지않은 기꺼움과 열심과 정성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5.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눅 10:27) "이웃"이라는 말에 가장 남남인 사람까지 들어 있음을 보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만 묶어 둘 까닭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섬김으로 더 친밀하게 도와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혈연이나 친분이나 이웃의 끈으로 더 단단히 묶여 있을수록 서로 더 많은 섬김을 주고받는 것이 인간다움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조금도 거스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226. 원문 OCR은 "tfi ^Xamia"로 깨져 있습니다. 그리스어 τῇ φιλαυτίᾳ(자기 사랑에)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 인류를 예외 없이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야만인이나 헬라인, 자격 있는 사람이나 자격 없는 사람, 친구나 원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바라봄에서 비켜 날 때 많은 오류에 얽혀 드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참된 줄을 붙들고자 한다면, 먼저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사랑보다 미움이 더 자주 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바치는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 나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변함없는 기초로 삼읍시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6. 그러므로 스콜라 신학자들이 원수 갚기를 구하지 말라는 계명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그것들이 옛적에 모든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으로 주어졌는데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자유인 권고로 만든 것은 더없이 해로운 무지나 악의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권고에 대한 반드시 해야 할 순종은 수도사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수도사들은 권고를 지키기로 스스로 자기를 묶는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것들을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댑니다. 특히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들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그들이 감히 이렇게 떼어 버린다는 말입니까? 율법의 어느 쪽에 그런 구별이 있습니까? 오히려 원수 사랑을 우리에게 더없이 엄하게 요구하는 계명들이 율법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굶주린 원수를 먹이라고(잠 25:21), 길 잃은 원수의 소와 나귀를 길로 돌려보내고 짐에 눌려 쓰러진 짐승을 일으켜 주라고(출 23:4) 우리가 명령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수 자신에게는 아무 호의도 없이 그를 위해 짐승들

에게 선을 베풀라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신 32:35)?[227] 이것은 다른 곳에도(레 19:18)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며, 네 동포가 끼친 해를 마음에 두지 말라.” 그들은 이 말씀들을 율법에서 지워 버리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입법자가 아니라 조언자였다고 거짓말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87. 묻건대, 그들이 어리석은 주석으로 감히 조롱한 다음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 여기서 누가 크리소스토무스와 함께, 이토록 필연적인 이유로 보아 이것들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임이 분명하다고 추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에서 지워진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라면 수도사들만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고, 그들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논리로 교회는 이방인과 세리들에게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마 5:46). “너희가 너희 친구들에게만 호의를 베풀면 무슨 상을 기대하겠느냐? 이방인과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남겨 주고 하늘나라의 기업은 빼앗는다면, 참 우리에게 잘해 주는 셈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증도 그 못지않게 견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음행을 금하실 때, 친구의 아내 못지않게 원수의 아내도 건드리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도둑질을 금하실 때, 친구에게서든 원수에게서든 무엇이든 훔치는 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를 사랑의 규칙으로 돌립니다(롬 13:9). 아니, 이것들이 ‘네 이웃을

227. 원문에는 “신명기 32장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은 32장 35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는 계명 아래 담겨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드시 원수도 친구처럼 계명에 따라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메는 멍에를 이토록 방자하게 벗어 던지는 자들은 참으로 자기가 사탄의 아들들임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이 교리를 퍼뜨린 것이 더 큰 어리석음 때문인지 더 큰 뻔뻔함 때문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옛사람 가운데 이것들이 순전한 계명이라고 확실한 일처럼 선언하지 않는 이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우스의 시대에도 이에 대해 의심이 없었다는 것은 그의 거리낌 없는 단언에서 분명합니다. 그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이것들을 계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88.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게 추론합니까? 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법에 견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든 원수 갚으려는 모든 욕심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이든, 쉽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연약함에는 율법의 가장 작은 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 있게 행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법 없이 고삐 풀린 채 떠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분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분의 영으로 율법을 마음에 새겨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본뜻이 아닌 말로 "법"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은혜를 하나님의 율법에 맞세워 대조하면서 그 율법에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법" 이라는 낱말을 붙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고 철학을 늘어놓습니다.

89. 그들이 첫째 돌판을 거스르는 숨은 불경건과 마지막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을 소죄(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벼운 죄)라고 부른 것도 같은 이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소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숙고한 동의 없이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욕심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모자라지 않고서는 마음에 스며들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마음이 불신의 공격에 맞아 다른 데를 둘러보거나, 자기 복락을 다른 데로 옮기려는 갑작스러운 욕심에 사로잡힐 때, 영혼 안에 그런 시험을 받아들일 빈 데가 있지 않다면, 아무리 덧없는 것이라도 그런 움직임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논증을 더 끌지 않으려고 말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로 향하지 않는다면, 이미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 떠난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의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 그분의 명령을 가로막는 원수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양심 안에 굳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 바로 이것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마음의 어떤 바람이 우리를 찔렀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정욕의 죄를 지은 자로 붙들리고, 동시에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숙고하고 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욕으로 부추김을 받고 들끓는 것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는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가벼운 욕심이라도 사망의 심판에서 빼낼 까닭이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평가할 때, 우리 마음대로 ‘이것은 무겁고 이것은 가볍다’ 고 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다는 속이는 저울을 가져오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의 보물 창고에서 꺼내듯 거룩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울을 가져와, 그 저울로 무엇이 더 무거운지 달아 봅시다. 아니, 우리가 달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달아 놓으신 것을

알아봅시다."[228]

90.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마 5:19).[229]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김을 받으리라."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일을 마치 죽을 만하지 않은 것처럼 감히 이렇게 가볍게 만들 때, 그들이 바로 그런 자들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이 명령되었는지만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율법을 아무리 작게 어기더라도 그분의 권위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어떤 일에서든 범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찮은 일입니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다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을 불쾌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장 해제되어서 곧바로 사망의 보응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꾸며 내겠습니까? 그분 자신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그들이 자기들의 싱거운 궤변으로 명백한 진리를 어지럽히기보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로 마음먹는다면 말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겔 18:20). 또 "죄의 삯은 사망이라"(롬 6:23). 그런데 이 자들은 부인할 수 없어서 죄라고 인정하는 것을, 그럼에도 대죄(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무거운 죄)는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넘치도록 미친 짓에 빠져 있었으니, 적어도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 헛소리를 한다면, 그들과는 작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죄는 대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이어서 반드시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며,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율법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허물이 용서받을

228. CO 편집자 각주는 출처를 아우구스티누스, 『도나투스파를 반박하는 세례론』(De baptismo contra Donatistas) 2권 6장으로 듭니다. 원문 OCR에서 각주 표시 자리가 사라져, 각주 내용에 맞추어 이 인용에 달았습니다.

229. 원문에는 "마태복음 5장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은 개역한글 5장 19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수 있는 죄인 것은 그 본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얻기 때문입니다.

91. 우리가 앞에서 율법에서 의의 완전을 배운다고 세운 것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라는 것도 따라 나옵니다. 곧 그것으로 사람이 하늘 재판석에서 의롭다고 평가되고 여겨지는 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공포한 뒤,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을 두었다고 하늘과 땅을 불러 증언하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신 30:19). 율법에 대한 의로운 순종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구원의 보상이 기다린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보상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공로가 되는 순종을 우리가 과연 바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영생의 상이 놓여 있음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길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CO 427 바로 이 부분에서 율법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서도 그런 율법 준수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생명의 약속에서 쫓겨나 오직 저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사람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므로, 사람은 거기 붙은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거기서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약속들의 좋음에 비추어 자기 비참을 더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이 자기에게 확실히 닥쳐 있음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무서운 형벌 규정들이 다그칩니다.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얽어 옭아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것들은 다그치며 가차 없는 엄격함으로 우리를 뒤쫓아, 우리가 율법 안에서 바로 눈앞의 죽음을 보게 합니다.

92.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만 바라본다면 낙심하고 당황하고 절망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정죄받고 저주받으며, 율법이 자기를 지키는 이들에게 내놓는 복락에서 멀리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리신다는 말입니까? 행복의 소망을 보여 주고, 그리로 초대하고 권하며,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증언하면서, 정작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어 다가갈 수 없다면, 그것이 조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의 약속들은 조건부인 한에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달려 있고, 그런 순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약속들이 헛되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헛되고 효력이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에는, 그 약속들도 조건이 붙어 있는 채로 자기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되, 당신의 선하심을 더욱 넘치게 하시려고 이것까지 더하십니다. 곧 우리의 반쪽짜리 순종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완성에 모자라는 것을 용서하셔서, 마치 우리가 조건을 채운 것처럼 율법의 약속들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믿음의 칭의를 다룰 때 더 충분히 논해야 하므로, 지금은 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93.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몇 마디로 설명하고 아울러 확증해야 하겠습니다. 흔히 이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겨져서, 히에로니무스는 거기에 파문을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히에로니무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는 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탐구합시다. 저는 여기서 가능성의 여러 종류에 관해 긴 사설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코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있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부릅니다. 가장 먼 옛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사망

의 몸을 두른 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목표에 이른 성도는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말합니다. 또 정욕으로 괴로워하지 않은 성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미신이 우리에게 어떤 성도들을 그려 보이는지 저도 압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들의 순결에 거의 미치지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도 경험의 이치에도 어긋납니다. 또 저는 앞으로도 몸의 짐에서 풀려나기 전에는 삶의 완전이라는 목표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성경의 분명한 증언들이 넉넉히 있습니다. 솔로몬은 "땅 위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왕상 8:46). 다윗은 "주의 눈앞에서는 살아 있는 자가 하나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시 143:2). 욥은 여러 곳에서 같은 것을 단언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분명하게 바울은, 육은 영을 거슬러 탐하고 영은 육을 거스른다고 말합니다(갈 5:17). 그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율법의 모든 계명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만 증명합니다(갈 3:10; 신 27:26 참조). 곧 아무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며, 아니 그것을 인정된 사실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고된 것은 무엇이든 영속하는 것으로, 따라서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펠라기우스파는 이런 교묘한 말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 비방을 피하려고,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죽을 인간을 천사의 순결로 끌어올리실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에서 달리 단언하셨으므로,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 앞으로 하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를 거슬러 주님의 능력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선언하는 것을 누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해도, 그 말은 트집 잡힐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낱말을 두고 다툰다면,

주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십니다(마 19:25).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강력한 이유를 들어, 우리가 이 육신 안에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정당한 사랑을 결코 드리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앎을 따르므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성의 무능을 바라본다면, 이 육신 안에서 율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바울에게서도 더 보여 줄 것입니다(롬 8:3).

94.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더 잘 드러나도록, 율법의 직무와 용도를 간결한 순서로 다시 모아 봅시다. 제가 이해하는 한, 그것은 다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39–1554년판 제3장 율법에 관하여 5

CO 1:429–43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429 첫째 직분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 홀로 받아들여지는 의를 내보이면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불의를 일깨우고,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며, 마침내 깨우쳐 정죄합니다. 자기 사랑에 눈멀고 취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더러움을 함께 알고 고백하는 데까지 끌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헛됨이 분명하게 드러나 책망받지 않으면, 그는 자기 힘에 대한 미친 자신감으로 부풀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재는 동안에는 결코 그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도록 이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율법의 어려움과 견주어 보기 시작하면, 그는 거기서 자기의 사나움을 꺾을 것을 얻습니다. 그 힘에 대해 아무리 엄청난 생각을 미리 품었더라도, 곧 그 힘이 그토록 무거운 짐 아래서 헐떡이고, 이어서 비틀거리며 흔들리고, 마침내 넘어지고 꺾이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가르침으로 배운 사람은, 전에 자기를 눈멀게 했던 그 오만을 벗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앞에서 그가 앓는다고 말한 또 하나의 병, 곧 교만에서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판단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는 동안에는 그는 의 대신에 위선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여, 무언지 모를 꾸며 낸 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 일어섭니다. 그러나 율법의 저울에 자기 삶을 달아 보도록 억지로 끌려가면, 저 꾸며 낸 의에 대한 자부를 버리고, 자기가 거룩함에서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봅니다. 또 전에는 깨끗해 보였던 자기가 셀 수 없는 악덕으로 가득하다는 것도 봅니다. 정욕의 악은 그토록 깊고 구불구불한 은신처에 숨어 있어서 사람의 눈을 쉽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율법

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정욕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롬 7:7). 율법으로 그 숨은 곳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정욕은 비참한 사람을 너무나 은밀하게 멸망시켜서, 그 죽음을 가져오는 화살이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95. 그러므로 율법은 일종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우리 얼굴의 얼룩을 보여 주듯이, 우리는 율법 안에서 먼저 우리의 무능을, 다음에 이 무능에서 나오는 불의를, 마지막으로 이 둘에서 나오는 저주를 바라봅니다. 의를 따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죄의 진흙에 박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곧바로 저주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사람을 더 큰 범죄에 붙잡히고 깨우쳐진 자로 붙들수록, 그만큼 그를 더 무거운 심판의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사도의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롬 3:20). 사도는 거기서 율법의 첫째 직분만을 말하는데, 그것은 아직 중생하지 않은 죄인들에게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와 이어진 말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요(롬 5:20), 그러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죽이는 죽음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고후 3:7; 롬 4:15). 양심이 죄를 더 똑똑히 깨닫고 찔릴수록 불의가 그만큼 더 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범죄에 율법을 주신 분을 거스르는 완고함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는 것은, 율법이 죄인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진노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고발하고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쓰듯이, 은혜의 영이 없으면 율법은 오직 죄인으로 만들고 죽이려고 거기 있을 뿐입니다.

96.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율법이 욕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탁월함에서 조금이라도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도록 빚어지고 다듬어져 있다면, 율법을 아는 지식만으로도 이미 구원에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이고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과 원수처럼 싸우고, 율법의 가르침으로 조금도 고쳐지지 않으므로, 남는 것은 (알맞은 듣는 이들을 만났더라면) 구원을 위해 주어졌던 율법이 죄와 죽음의 계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율법을 범한 자로 깨우쳐지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더 밝히 열어 보일수록 그만큼 반대편에서 우리의 불의를 더 드러내고, 의에 놓인 생명과 구원의 상급을 더 확실히 확증할수록 그만큼 불의한 자들의 수치를 더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은 율법을 모욕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빛나게 드러내는 데 크게 이바지합니다. 이것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율법으로 활짝 드러나 있는 생명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의 악함과 패역함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도움 없이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달콤해지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이 자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 선을 베푸시고 새 선물을 쌓아 주시기에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97. 그런데 우리 모두의 불의와 정죄가 율법의 증언으로 확증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바르게 배운다면) 우리가 절망으로 쓰러지고 낙심하여 벼랑으로 곤두박질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된 자들은 분명 이런 식으로 거기서 넋을 잃지만, 그것은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가르침의 목적이 달라야 마땅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율법의 심판으로 정죄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롬 3:19). 그러나 같은 사도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신앙 아래 가두신 것은 멸망시키시거나 모두 망하게 내버려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롬 11:32). 곧 사람들이 자기 힘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서고 견딘다는 것을 깨달아, 벌거벗고 빈손으로 그분의 자비로 피하고, 온전히 그 자비에

기대며, 그 자비 속에 깊이 숨고, 오직 그 자비만을 의와 공로로 붙잡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없는 완전한 의에만 상을 주시는 분으로, 반대로 죄악에는 엄격한 재판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의 얼굴이 은혜와 온유로 가득하여, 비참하고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까지 빛납니다.

98. 도움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나아가게 하는 이 유익에 관해서는 CO 431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주 말합니다. 예컨대 힐라리우스에게 이렇게 씁니다. "율법은 명령하여,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하려고 애쓰다가 율법 아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지쳐서, 은혜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게 합니다." 또 아셀리우스에게 씁니다. "율법의 유익은 사람에게 그의 연약함을 깨우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약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 로마의 인노켄티우스에게 씁니다.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는 행할 힘을 대어 줍니다." 또 발렌티누스에게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씁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죄인이 되어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요, 두려워하여 용서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요, 여러분의 힘을 믿고 자부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렇게 씁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큰 자를 작은 자로 만들기 위함이요, 그대가 의를 이룰 힘을 그대 자신에게서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어, 그대가 가난하고 자격 없고 궁핍한 자로서 은혜로 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주님, 그렇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그렇게 하소서. 이룰 수 없는 것을 명령하소서. 아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을 명령하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을 때, 모든 입이 막히고 아무도 자기를 크다고 여기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작은 자가 되고, 온 세상

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그 거룩한 사람이『영과 문자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붙인 책을 따로 썼는데도 이렇게 많은 증언을 모으고 있으니, 제가 어리석습니다. 그는 둘째 유익은 그만큼 뚜렷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 첫째 것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지, 그것을 그리 잘 붙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점에서는 옳은 그 뜻을 그만큼 뚜렷하고 분명하게 풀어낼 말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이 첫째 직분이 유기된 자들에게서도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육의 수치를 겪은 뒤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다시 꽃피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처음의 두려움에 넋을 잃고 절망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양심이 이런 물결에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이바지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거슬러 기꺼이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심판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금, 그들은 율법과 양심의 증언에 이처럼 놀라 넘어져서, 자기들이 무엇을 받아 마땅한지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99. 율법의 둘째 직분은 이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면 옳고 바른 것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에 있는 무서운 형벌 규정을 들을 때, 적어도 형벌이 두려워서 억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제되는 것은, 그들의 속마음이 움직이거나 감동되어서가 아니라, 마치 재갈이 물린 듯이 바깥 행위에서 손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방자하게 쏟아 냈을 자기의 패역함을 속으로 눌러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에 막혀 마음에 품은 것을 감히 행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의 광기를 드러내 놓고 내뿜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도록 다듬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억누를수록 속에서 더 세차게 타오르고 끓고 부글거리며,

율법의 두려움이 가로막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하고 어디로든 터져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율법 자체를 몹시 미워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없애 버리기를 무엇보다 바랍니다. 그분이 옳은 것을 명령하시는 것도, 당신의 위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더 희미하게, 어떤 이들에게는 더 뚜렷하게, 그러나 아직 중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곧 그들은 자원하는 복종으로가 아니라, 마지못해 버티면서, 오직 두려움의 폭력에 끌려 율법을 지키려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요되고 짜낸 의라도 사람들의 공동 사회에는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소란으로 뒤죽박죽되지 않도록 조심함으로써 사회의 평온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성화의 영이 없어 육의 어리석음으로 방탕하는 동안에는, 이런 몽학 선생의 훈련을 받는 것이 쓸모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어도 바깥의 방자함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아직 마음이 길들지 않아 당장은 거의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의의 멍에를 메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권징을 마치 모르는 일처럼 대하는 아주 서툰 초보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사도는 이 직분을 특별히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율법이 의인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의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 악한 자와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훔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그 밖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위함이라고 전합니다(딤전 1:9–10). 이로써 그는 율법이, 그렇지 않으면 날뛰며 한없이 헤맬 육의 정욕을 붙드는 고삐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100. 그러나 사도가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 곧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었다는 말(갈 3:24)은 이 둘 모두에 맞출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 훈육으로 손을 잡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첫째 자리에서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이나 의에 대한 신뢰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들에게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겸손에 이르도록 낮춥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전에는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구하도록 준비됩니다. 다른 부류는 재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재갈로 붙들려야, 자기 육의 방탕에 고삐를 너무 풀어 놓아 의를 향한 모든 열심에서 아주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직 다스리지 않는 곳에서는 정욕이 때때로 이렇게 끓어올라서, 자기에게 매인 영혼을 하나님을 잊고 멸시하는 데로 빠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으로 막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나라의 유업을 받도록 정하신 자들을 곧바로 중생시키지 않으시면, 당신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율법의 일을 통해 두려움 아래 보존하십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정결하고 순수한 두려움은 아니지만, 그들이 자기 분량대로 CO 433 참된 경건으로 가르침을 받는 데에는 유익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증거가 하도 많아서 예를 들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으로 중생하여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까지 율법의 재갈에 붙들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101. 셋째 용도는 가장 중요하고 율법의 본래 목적에 더 가까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신자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힘 있게 살아 다스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음에 율법이 쓰이고 새겨져 있지만, 곧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도록

마음이 기울고 움직여져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가지 면에서 율법으로 나아갑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도구여서, 그것으로 그들은 자기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더 잘, 더 확실하게 배우고, 그 뜻을 깨닫는 데 굳게 세워집니다. 이를테면 어떤 종이 온 마음을 다해 자기 주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도, 자기를 맞추고 따를 주인의 성품을 더 정확히 살피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이 필요에서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 율법에서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순전하게 아는 데로 새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지혜에 깊이 이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가르침만이 아니라 권면도 필요하므로, 하나님의 종은 율법에서 이 유익도 얻습니다. 곧 율법을 자주 묵상함으로써 순종하도록 깨어나고, 순종 안에서 굳세어지며, 죄짓기 쉬운 미끄러운 길에서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다그쳐야 합니다. 그들은 영을 따라서는 아무리 기꺼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 힘써 나아가더라도, 늘 육의 게으름에 짓눌려 마땅한 민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에게 율법은 채찍입니다. 게으르고 느린 나귀처럼 육은 그 채찍으로 일하도록 몰려야 합니다. 아니, 신령한 사람에게도, 그가 아직 육의 무게에서 풀려나지 않았으므로, 율법은 그가 늘어져 있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는 가시 채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저 빼어난 찬사로 율법을 기렸을 때 바라본 것이 바로 이 용도였습니다(시 19:7 이하).[230] “주의 율법은 흠이 없어 영혼을 돌이키고, 주의 의는 바르시어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밝아서 눈을 밝힌다” 등입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시 119:105)라고 하였고, 그 밖에 그 시편 전체에 걸쳐 이어지는 셀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바울의 말들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들은 율법이 중생한 자들에게 어떤 쓸모를

230. 원문에는 “시편 19편 8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주는지가 아니라, 율법이 그 자체로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는, 주님께서 속으로 순종의 민첩함을 불어넣어 주시는 자들을 당신의 율법을 읽게 하심으로써 얼마나 큰 유익으로 가르치시는지를 노래합니다.

102.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할 줄 몰라서, 모세를 대담하게 내쫓고 율법더러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직분을 담고 있는 가르침에 매달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된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멀리 떠나가야 합니다. 모세는 죄인들에게서는 죽음밖에 낳을 수 없는 율법이 성도들에게서는 더 좋고 더 뛰어난 용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훌륭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백성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신 32:46–47).[231]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손에게 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고 이루도록 가르치라. 이 계명들은 너희에게 헛되이 명령된 것이 아니요, 각 사람이 그 안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에 의의 완전한 본보기가 뚜렷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바르고 의롭게 사는 규범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떠나는 것이 큰 죄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삶의 규범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이며, 영원하고 굽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의인의 삶을 율법을 묵상하는 데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시 1:2)을 한 시대에만 해당한다고 여기지 맙시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대에 가장 알맞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몸의 감옥을 지고 다니는 동안 이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거룩함을 율법이 명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겁을 먹거나 율법의 가르침에서 달아나지 맙시다.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할 몫을 다 치르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엄한 빚쟁이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권하는 이 완전함 안에서, 우리가

231. 원문에는 "신명기 32장 40절"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32장 46–47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평생 힘써 나아가야 할 목표를 보여 줍니다. 이 힘씀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이 삶 전체가 경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다 달리고 나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노력이 멀리서 애써 바라보는 저 목표를 우리가 붙잡게 해 주실 것입니다.

103. 그런데 이제 율법은 신자들에게 권면의 힘을 가지되, 그들의 양심을 저주로 묶는 힘이 아니라, 거듭 다그쳐 게으름을 떨쳐 내고 불완전함을 꼬집는 힘을 가지므로, 많은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이렇게 풀려났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 신자들에게는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더 이상 그들에게 옳은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율법이 전에 그들에게 그러했던 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곧 율법이 그들의 양심을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여 정죄하고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율법이 이런 의미에서 폐지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당신께서 율법을 없애실 것이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지 않았다면 그 생각을 반박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무 구실도 없이 함부로 생겨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한 데서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거의 모든 오류가 진리에서 계기를 얻는 것이 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율법에서 CO 435 무엇이 폐지되었고 무엇이 아직 굳게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구별합시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으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십니다(마 5:17–18). 이로써 당신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아무것도 덜어지지 않을 것을 넉넉히 확증하십니다. 그것은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을 범한 것들을 고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율법은 가르치고, 권하고, 꾸짖고, 바로잡음으로써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빚고 갖추게 합니다.

104. 그런데 바울이 저주에 관해 말하는 것은 가르침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양심을 옥죄는 힘에 해당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을 위엄 있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아니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의무를 소홀히 하면, 율법은 저주의 번개를 뽑아 듭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을 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갈 3:10). 그런데 그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죄 사함 안에 의를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죄 사함으로 우리는 율법의 엄격함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사슬 아래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싶지 않다면 그 사슬에서 풀려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슬입니까? 지극한 법의 엄정함으로 아무것도 면해 주지 않고 어떤 범죄도 벌하지 않고 두지 않는 저 가혹하고 적대적인 요구의 사슬입니다. 제가 말하건대, 그리스도께서는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갈 3:13). 바울은 다음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셨다고 전합니다(갈 4:4–5). 그러나 그것도 같은 뜻입니다. 그는 곧바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 양심을 짓눌러 붙잡아 둘 영원한 종살이에 눌리지 않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율법의 권위에서 아무것도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언제나 같은 공경과 순종으로 율법을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는 것은 늘 흔들림 없이 남아 있습니다.

105. 골로새서의 다른 대목(골 2:13–14)에는 어려움이 조금 더 있습니다. “너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며, 법조문으로 우리를 거스르던 증서, 곧 우리에게 불리한 증서를 지우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서 치워 버리셨다” 등입니다. 이 대목은 율법의 폐지를 얼마큼 더 넓혀, 우리가 이제 율법의 조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단순히 도덕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폐지된 것은 그 가르침이라기보다 그 냉혹한 엄격함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이들은 바울의 말을 더 날카롭게 따져 보고서, 이것이 본래 의식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보고, 바울에게서 “조문”이라는 낱말이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엡 2:14–15).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조문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으려 하심이라.” 거기서 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갈라져 있게 한 가로막는 담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의 사람들이 뒤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비판받는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뒤의 사람들도 아직 사도의 뜻을 잘 풀어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두 대목을 모든 점에서 똑같이 견주는 것은 결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 주려고, 전에 그들을 가로막던 장애가 치워졌다고 가르칩니다. 그 장애는 의식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주님께 구별하여 바치던 씻음과 제사의 예식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서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더 높은 비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거기서도 다툼은 분명히 모세의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인 백성을 그 규례로 억지로

몰아가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논쟁을 더 깊이 끌고 가서 말하자면 그 근원으로 되돌리듯이, 이 대목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예식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 말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증서", 그것도 "우리에게 불리한 증서"라고 부를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그 증서가 지워졌다는 데 우리 구속의 요점을 거의 다 두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자체가, 여기서 무언가 더 속 깊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저는 참된 뜻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디선가 아주 참되게 쓴 것, 곧 유대인의 의식에는 죄를 씻는 일보다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이 참되다고 인정해 준다면 말입니다. 자기 자리에 속죄의 제물을 대신 세운 자들이 제사로 한 일이, 자기가 죽어 마땅한 줄 안다고 고백하는 것 말고 무엇이었습니까? 정결 예식으로 한 일이, 자기가 부정하다고 증언하는 것 말고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자기의 죄책과 부정의 빚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에는 갚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마침내 개입함으로써 첫 언약 아래 남아 있던 범죄들의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씁니다(히 9:15). 그러므로 사도가 그 의식들을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리한 증서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들은 그 의식으로 자기의 정죄와 부정을 공공연히 서명하여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었다는 것은 이것에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얻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였지 의식 안에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거기서 의식을 그리스도와 구별합니다. 의식은 그때 잘못 쓰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그 자체로 보면 CO 437 사람의 구원에 불리한 증서라고 적절하고 알맞게 불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의식은 말하자면 그들의 빚을 증언하는 엄숙한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그 의식으로 묶으려 했으므로, 바울이 그 의식의 뜻을 더 깊이 되짚어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디로 다시 떨어지게 될지를 일깨운 것은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은택도 함께 그들에게서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써 저 날마다의 규례를 폐하셨습니다. 그 규례는 죄를 확인하는 데만 힘이 있을 뿐, 죄를 지우는 데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1539–1554년판 · 제4장 서원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4장 서원에 관하여

CO 1:437–45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437 제4장.[232] 서원에 관하여.

여기서는 수도 생활을 다룹니다.

1. 이제 믿음을 설명하는 데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장을 다룬 방식에서 새로운 물음이 하나 생겨나므로,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부록처럼 지나가며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삶을 꾸리는 데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율법에 담겨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행위를 고안해 내는 데서 더 잘 떼어 놓으시려고, 의의 모든 칭찬을 당신의 뜻에 대한 단순한 순종 안에 가두어 두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공로를 세우려고 스스로 지어내는 꾸며 낸 예배는, 우리 마음에 아무리 들더라도, 모두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는 친히 여러 곳에서 그런 예배를 드러내 놓고 물리치실 뿐 아니라 몹시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밖에서 하는 서원에 관한 의문이 생깁니다. 곧 그 서원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어디까지 매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서원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향하는 서원에서는 훨씬 더 큰

232. “제4장(CAPUT QUARTUM)”이라는 표시는 원문에서 앞 편(CO 1:437) 끝에 붙어 있으나, 이 장의 표제이므로 여기서 옮깁니다.

신중함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분과는 무엇보다 진지하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신이 모든 시대에 걸쳐 놀랍도록 날뛰었습니다. 사람들은 판단도 분별도 없이, 마음에 떠오르거나 입에 올라온 것이면 무엇이든 곧바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저 서원의 어리석은 짓들, 아니 괴이한 불합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 신들을 너무나 방자하게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이런 대담함을 본받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마땅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듯이 여러 세기 동안 이 불의보다 더 흔한 것은 없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곳곳에서 멸시하고, 꿈에서라도 마음에 든 것이면 무엇이든 서원하려는 미친 열심으로 온통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을 밉살스럽게 부풀리거나, 여기서 얼마나 무겁게 또 얼마나 여러 방식으로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헤아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나가며 말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다룰 때 결코 쓸데없는 일에 관해 물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잘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어떤 서원이 정당하고 어떤 서원이 그릇된지를 판단하는 데서 잘못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곧 서원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서원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원하는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사람들이 스스로 지어낸 모든 숭배(ἐθελοθρησκεία)는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그럴듯하고 화려하더라도 저주받은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골 2:23).[233] 우리가 명령 없이 스스로 고안해 내는 모든 자원한 예배가 하나님께 가증하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예배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233. 원문은 OCR이 깨져 있습니다(“id^fkod^Qfjaxiktg”). 골로새서 2:23의 그리스어 낱말 ἐθελοθρησκείας(자의적 숭배)로 읽었습니다. [원문의심]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 아무 증언도 없는 것을 감히 하나님께 서원할 만큼 방자하게 굴지 맙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롬 14:23)은 어떤 행위에나 넓혀 적용되지만, 그대가 생각을 곧장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는 분명히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경건(religion)의 의무보다 우리에게 더 진지해야 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에서 첫째로 조심할 것은 이것입니다. 양심이 아무것도 경솔하게 시도하지 않는다고 먼저 확실히 정하기 전에는, 결코 무엇을 서원하는 데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말하자면 당신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선하고 무엇이 쓸모없는지 불러 주실 때에야 경솔함의 위험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3. 여기서 우리가 따져 보아야 한다고 말한 둘째 것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재어 보고, 우리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은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것이나 자기 부르심과 CO 439 부딪치는 것을 서원하는 사람은 경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의 주인으로 세우신 그분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기대어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을 만큼 무엇이 우리 손에 놓여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랑주 공의회(제11조)에서 아주 참되게 결정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손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르게 서원할 수 없습니다.[234] 그분께 드려지는 것은 모두 순전히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어떤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의 공평하심으로 어떤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바울이 명하듯이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을 살펴야 합니다(롬 12:3).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심으로 그대에게 정해 주신 그 분량에 서원을 맞추어야 한다

234. 오랑주 공의회(Concilium Arausicanum)는 529년 남프랑스 오랑주에서 열린 공의회로, 은혜와 자유의지에 관한 반(半)펠라기우스주의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는 것입니다(고전 12:11).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나아가려 하면, 자기에게 너무 많은 것을 돌림으로써 스스로를 곤두박질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섬기는 데 걸림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우리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는, 풀어 설명하지 않으면 얼마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짧게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의 주인으로 세우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복종시키셔서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따라 모든 것을 쓰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우리를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할 바깥 사물에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쁜 의무가 되리라고 바랄 까닭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면제하시려 한 것이 아닌 여러 규례로 자기를 얽어매고서, 그것으로 겸손하다는 칭찬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세우신 그 질서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4. 이제 셋째 자리에 둔 것으로 갑니다. 곧 그대의 서원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서원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므로, 같은 일이라도 마음의 목적이 바뀌면 어떤 때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여 받아들여지고, 어떤 때는 몹시 불쾌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끊기로 서원하면서 그 안에 무슨 거룩함이 들어 있는 것처럼 서원한다면 그대는 미신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되지 않은 다른 목적을 바라본다면 아무도 그것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서원이 바르게 향할 목적은 넷입니다. 가르치기 위하여 저는 그 가운데 둘은 지난 때에, 나머지 둘은 앞으로 올 때에 돌립니다. 지난 때에 속하는 서원은, 받은 은택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증언하는 서원,

또는 그분의 진노를 비켜 가게 해 달라고 빌면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받아 내는 서원입니다. 괜찮다면 앞의 것을 감사의 훈련이라 하고, 뒤의 것을 회개의 훈련이라 부릅시다. 앞의 종류의 예는 야곱이, 주님께서 자기를 멸망에서 지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바치겠다고 서원한 십일조에 있습니다(창 28:20–22). 또 옛 화목제 제사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경건한 왕들과 장수들이 정당한 전쟁을 시작하려 할 때, 승리를 얻으면 갚겠다고 서원한 제사, 또는 더 큰 어려움에 짓눌려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면 갚겠다고 서원한 제사입니다.

시편에서 서원을 말하는 모든 대목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시 22:25; 61:8; 56:12; 116:14, 18).[235] 이런 서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재앙이나 중한 병이나 그 밖의 어떤 위험에서 건져 주실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서원한 예물을 엄숙한 감사의 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종류가 어떤 것인지는 친숙한 예 하나만 들어 보여도 넉넉합니다. 어떤 사람이 탐식의 악덕으로 어떤 추한 죄에 빠졌다면, 그 무절제를 징계하려고 얼마 동안 모든 맛있는 음식을 끊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덧붙여 그렇게 함으로써 더 단단한 끈으로 자기를 매는 것도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비슷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영원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서원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허락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서원을 허락된 것으로 두되, 동시에 자유로운 것으로 남겨 둡니다.

5. 앞으로 올 때에 관련된 서원은, 앞에서 말했듯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더 조심하게 하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어떤 박차로 우리를 의무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특정한 악덕에 너무

235. 원문에는 "시편 22편 26절, 61편 9절, 56편 13절, 116편 14·18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나 기울기 쉬워서, 다른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일에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곧바로 악으로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것을 본다고 합시다. 그가 서원으로 얼마 동안 그 일을 쓰는 것을 스스로 막는다면, 그는 조금도 불합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몸치장이 자기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그것을 몹시 탐낸다면, 자기에게 재갈을 물려, 곧 끊을 수밖에 없게 하여, 모든 망설임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경건의 필요한 의무를 잘 잊거나 그 일에 게으르다면, 서원을 해서 기억을 일깨우고 게으름을 떨쳐 내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경우 모두에 일종의 몽학 선생의 훈련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연약함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서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쓰면 유익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들 가운데 하나를 바라보는 서원은, 특히 바깥 일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만 그 서원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뒷받침되고, 우리의 부르심에 맞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에 따라 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이제 서원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에서 한 그 서원을 우리는 교리문답과 성찬을 받는 것으로 확증하고 말하자면 인칩니다. 성례는 일종의 계약 증서와 같아서,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당신의 자비와 그 자비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우리는 거꾸로 그분께 순종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의 형식, 또는 적어도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사탄을 끊어 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내어 드려, 그분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고 CO 441 우리 육의 패역한 욕망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성경의 증언을 가지고 있고, 아니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거룩하고 구원에 유익하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 삶에서 아무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에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약정은 은혜 언약 안에 들어 있고, 그 언약 아래에는 죄 사함과 성화의 영이 함께 담겨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하는 약속은 용서를 비는 것과도, 도움을 구하는 것과도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서원을 판단할 때에는 위의 세 규칙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 규칙들로 각 서원이 어떤 것인지를 안전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그 서원들을 날마다 하기를 바랄 만큼 칭찬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 횟수나 때에 관해 무엇을 명할 생각은 없지만, 누구든 제 권고를 따른다면 절제 있고 한때에 그치는 서원만 할 것입니다. 그대가 자주 여러 서원을 하는 데로 내닫는다면, 경건(religion) 자체가 잦음 때문에 값싸지고, 미신으로 미끄러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대가 평생의 서원으로 자기를 맨다면, 큰 괴로움과 싫증을 안고 그것을 갚든지, 아니면 오랜 세월에 지쳐서 언젠가는 감히 그것을 어길 것입니다.

7. 이제 세상이 여러 세기 동안 이 부분에서 얼마나 큰 미신으로 앓았는지도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마치 포도주를 끊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쁜 예배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끊는 것으로 정해진 날들에 자기를 맸습니다. 그는 그 날들에 다른 날보다 특별한 거룩함이 있다고 헛된 생각으로 꾸며 냈던 것입니다. 훨씬 더 유치한 것들도 서원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원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더 거룩하다는 곳으로 서원한 순례를 떠나고, 때로는 걸어서, 또는 몸을 반쯤 벗은 채 길을 가는 것이 큰 지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피곤함에서 더 많은 공로를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한동안 믿기 어려운 열심으로 들끓었던 이런 일들과 이와 비슷한 일들을 앞에서 세운 규칙에 따라 살펴보면, 헛되고 쓸데없는 것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드러난 불경건으로 가득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육이 아무리 판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꾸며 낸 예배보다 더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 해롭고 정죄받은 생각들이 더해집니다. 위선자들은 이런 하찮은 일들을 다 치르고 나면 자기가 보통이 아닌 의를 얻었다고 믿고, 경건의 요점을 바깥 규례에 두며, 그런 일에 덜 마음 쓰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모든 사람을 깔봅니다.

8. 서원의 형태를 하나하나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 서원은 교회의 공적인 판단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보여서 더 큰 존경을 받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짧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도 오랜 세월의 관행을 내세워 오늘날과 같은 수도 생활을 변호하지 못하도록, 옛날 수도원에는 아주 다른 생활 규범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지극한 엄격함과 인내로 자기를 훈련하려는 사람들이 그리로 물러갔습니다. 리쿠르고스의 법 아래 있던 라케다이몬 사람들의 규율이 어떠했다고 전해지는지,[236] 그 때 수도사들에게 그런 규율이 있었고, 오히려 훨씬 더 엄했습니다. 그들은 맨땅에서 잤고, 마실 것은 물이었으며, 먹을 것은 빵과 나물과 무였고, 가장 좋은 음식이라야 기름과 병아리콩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맛있는 음식과 몸치장을 모두 멀리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눈으로 보고 겪어 본 증인들, 곧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와 바실리우스와 크리소스토무스가 전하는 것입니다.

9. 그들은 이런 초보 훈련으로 더 큰 직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수도원 공동체가 말하자면 교회 직분의 묘판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이름을 든 이들(그들은 모두 수도원에서 교육받았고, 거기서 감독의 직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과, 그 밖에 그 시대의 크고 뛰어난 여러 사람이 넉넉히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자기 시대에 수도원이 교회에 성직자들을 대어 주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카프라리아

236. 리쿠르고스(Lycurgus)는 고대 스파르타(라케다이몬)의 전설적인 입법자로, 스파르타 사람들의 엄격한 생활 규율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섬의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237]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인 교회가 여러분의 수고를 바란다면, 탐욕스러운 높아짐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아첨하는 게으름으로 물리치지도 말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가함을 교회의 필요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교회가 해산할 때 선한 사람들이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지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우렐리우스에게 이렇게 씁니다.[238] "수도원을 떠난 자들이 성직의 직무에 뽑힌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는 넘어질 계기가 되고, 성직자의 반열에는 지극히 부당한 모욕이 됩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머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검증되고 더 나은 사람만을 성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흔히 '나쁜 피리 독주자가 좋은 합주자다' 라고 말하듯이, 우리를 두고도 '나쁜 수도사가 좋은 성직자다' 라고 놀리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도사들을 그토록 파멸을 부르는 교만으로 치켜세우고, 성직자들을 그토록 무거운 모욕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긴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좋은 수도사라도, 넉넉한 절제는 있으나 필요한 학식이 없으면, 좋은 성직자가 되기는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들에서 드러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수도원의 규율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준비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더 알맞고 더 잘 다듬어진 사람으로 그 큰 직무를 맡으려 했습니다. 모두가 이 목적에 이르렀다거나 그것을 지향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맞은 사람들은 뽑혔습니다.

10.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특히 두 곳에서 옛 수도 생활의 모습을 우

237. 카프라리아(Capraria)는 이탈리아 서해안 앞바다의 작은 섬(오늘날의 카프라이아)으로, 그곳에 수도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238. 아우렐리우스(Aurelius, 430년경 죽음)는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카르타고 감독입니다.

리에게 그려 보입니다. 하나는『보편 교회의 도덕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거기서 그는 마니교도들의 비방에 맞서 수도사들이 서약한 생활의 거룩함을 내세웁니다.[239] 다른 하나는『수도사들의 노동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붙인 책인데, 거기서 그는 그 제도를 타락시키기 시작한 어떤 변질된 수도사들을 공박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가 전하는 것의 요지를 모으되, 할 수 있는 한 그의 말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CO 443 멸시하고, 지극히 정결하고 지극히 거룩한 공동생활로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도와 독서와 토론으로 삽니다. 교만으로 부풀지 않고, 고집으로 소란하지 않으며, 시기로 시퍼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을 먹일 수 있으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일을 손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 일을 십인장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넘깁니다. 그 십인장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사람에게 셈을 바칩니다. 이 아버지들은 행실이 지극히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지극히 뛰어나고 모든 일에 높으면서도, 아무 교만 없이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을 돌봅니다. 명령하는 쪽의 권위도 크고, 순종하는 쪽의 기꺼움도 큽니다. 그들은 하루의 마지막 때에,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각자 자기 거처에서 나와 그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모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에게 적어도 삼천 명씩 모입니다(그는 주로 이집트와 동방에 관해 말합니다). 그다음에 건강과 배부름에 넉넉한 만큼 몸에 양식을 먹입니다. 각 사람은 앞에 놓인 그 검소하고 지극히 값싼 음식에서조차 정욕이 넘치지 않도록 누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욕을 길들이기에 넉넉하도록 고기와 포도주만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 더 깨끗해 보일수록 그만큼 더 배와 목구멍의 식욕을 돋우는 것들도 멀리합니다. 고기와는 상관없는 고급 음식을 바라는 추한 욕망을 이 이름으로

239. 마니교(Manichaei)는 3세기 페르시아 사람 마니가 세운 이원론 종교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한때 이에 속해 있다가 뒤에 이를 반박했습니다.

우스꽝스럽고 추하게 변호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양식보다 남는 것은 무엇이든(손으로 하는 일과 음식을 줄이는 것으로 아주 많이 남습니다), 나누어 주는 이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들인 것보다 더 큰 정성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넘치도록 하려고 조금도 애쓰지 않고, 넘친 것이 자기들 곁에 남지 않도록 온갖 방법으로 힘씁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가 밀라노와 다른 곳에서 그 본을 보았던 엄격함을 이야기하고 나서 말합니다. "이 가운데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일로 내몰리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그가 거절하는 것을 지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들을 본받기에 힘이 모자란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정죄받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얼마나 크게 권장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딛 1:15)는 것 등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고는 음식의 종류를 더러운 것처럼 물리치는 데가 아니라, 정욕을 온전히 길들이고 형제 사랑을 지키는 데 쏟아집니다. 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고전 6:13)는 것 등을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강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약한 사람들 때문에 삼갑니다. 많은 이에게는 그렇게 할 이런 까닭이 없고, 다만 더 값싸고 조금도 비싸지 않은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삼가는 바로 그 사람들도, 건강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앓으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받아먹습니다. 많은 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만, 그것으로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더 약한 이들과 포도주 없이는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이들에게 지극히 친절하게 포도주를 내어 주게 하고, 어리석게 거절하는 어떤 이들에게는 헛된 미신 때문에 더 거룩해지기보다 더 빨리 약해지지 않도록 형제로서 권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부지런히 경건을 훈련하고, 몸의 훈련은 잠깐 동안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지켜집니다. 사랑에 음식이, 사랑에 말이, 사랑에 옷차림이, 사랑에 얼굴빛이 맞추어집니다.

사람들은 한 사랑 안으로 모이고 한마음이 됩니다. 이 사랑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어기는 것처럼 큰 죄로 여겨집니다. 누가 이 사랑을 거스르면 쫓겨나고 피함을 당합니다. 누가 이 사랑을 해치면 단 하루도 머물러 있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이 말로 옛 수도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마치 그림에 그리듯이 보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좀 길기는 하지만 여기에 넣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간추리려 애쓰더라도 여러 곳에서 같은 것을 모으면 제가 훨씬 더 길어지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1. 그러나 여기서 제 목적은 이 주제 전체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옛 교회에 어떤 수도사들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때 수도 서약이 어떠했는지를 지나가며 가리켜 보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한 독자들이 견주어 보고, 지금의 수도 생활을 떠받치려고 옛것을 내세우는 자들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거룩하고 정당한 수도 생활을 우리에게 그려 보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롭게 남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모든 엄격한 강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보다 더 엄하게 강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옷의 색깔이나 모양에서, 음식의 종류에서, 그 밖의 시시하고 싱거운 의식에서 정해진 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들은 그것을 씻을 수 없는 죄로 여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도사들이 놀면서 남의 것으로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힘써 주장합니다. 그는 자기 시대에 잘 세워진 수도원이 그런 본을 보인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수도사들은 자기 거룩함의 으뜸가는 부분을 한가함에 둡니다. 그들에게서 한가함을 빼앗는다면,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천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자랑하는 저 관상의 삶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해진 경건의 의무를 위한 훈련과 도움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아닌 수도 생활을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사랑을 그 규칙의 요점, 아니 거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을 때, 몇 사람이 서로 묶여 교회의 온 몸에서 갈라져 나가는 결탁을 그가 칭찬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는 그들이 자기의 본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앞서 이끌어 교회의 하나 됨을 지키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지금의 수도 생활의 방식은 너무나 달라서, 반대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닮지 않은 것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수도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이 오직 그것에만 늘 힘쓰라고 명하시는 그 경건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언지 모를 새로운 경건을 상상해 내어,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완전해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12. 그들이 이것을 부인한다면, 저는 그들에게서 듣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수도회만을 완전함이라는 칭호로 높이고, 하나님의 다른 모든 부르심에서는 그것을 빼앗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CO 445 저 궤변적인 해결책도 모르지 않습니다. 곧 그들의 수도회가 그렇게 불리는 것은 그 안에 완전함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함을 얻는 데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 앞에서 자기를 팔고 싶을 때, 서툴고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싶을 때, 자기 특권을 주장하고 싶을 때, 남을 모욕하면서 자기 위엄을 높이고 싶을 때에는, 자기들이 완전함의 신분에 있다고 뽐냅니다. 그러나 이 헛된 오만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몰리면, 그들은 이 땅굴로 달아납니다. 곧 자기들이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다른 이들보다 앞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백성 가운데에는, 오직 수도 생활만이 천사 같고 완전하며 모든 악덕에서 깨끗해졌다는 듯한 감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핑계로 지극히 이문이 많은 장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저 누그러뜨린 말은 몇 권의 책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참을 수 없는 농락이라는 것을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

서약에 완전함을 얻는 신분이라고 부르는 것 말고는 더 아무것도 돌리지 않는다고 치고 그들을 대합시다. 참으로 그들은 이 이름을 그것에 붙임으로써, 마치 특별한 표처럼 그것을 다른 삶의 종류들과 구별합니다. 그러면 한 음절로도 인정받은 적이 없는 제도에 그토록 큰 영예가 옮겨지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입으로 명령되었을 뿐 아니라 빼어난 찬사로 꾸며진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을 누가 참겠습니까? 또 묻거니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당신의 증언으로 칭찬하신 모든 삶의 종류보다 무언지 모를 꾸며 낸 것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이 됩니까?

13. 자, 제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비방이라고 그들더러 말하라 합시다. 그러나 제가 입을 다물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넉넉하고도 남을 만큼 자기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지우신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진다고 드러내 놓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곧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기를 바라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등 복음의 권고들을 자기들은 지키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인데,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매여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옛것을 내세우겠습니까? 옛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반드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낱말은 하나도 없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좋은 해석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다만 권고하셨을 뿐이라고 헛소리하는 바로 이것들을, 옛사람들은 어디서나 조금도 의심 없이 명령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극히 해로운 오류라는 것을 위에서 가르쳤으므로, 여기서는 짧게 지적하는 것으로 넉넉하겠습니다. 곧 지금 있는 수도 생활은 모든 경건한 사람이 마땅히 몹시 싫어해야 할 생각, 곧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주신 이 공통의 규칙보다 더 완전한 어떤 삶의 규칙이 있다고 꾸며 내는 생각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든 가증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14. 그런데 그들은 자기 완전함에 대한 다른 논거를 내놓으며, 그것이 자기들에게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의의 완전함에 관해 묻는 젊은이에게 "네가 완전하고자 하면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마 19:16–21; 눅 18:18–22).[240]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는 아직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그들에게 양보합시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완전해졌다고 뽐냅니다. 완전함의 요점이 여기에 있다면, 자기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고전 13:3)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람과 함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이 완전함은 어떤 완전함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함의 가장 높은 일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일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바울이 반대하여 외칩니다(골 3:14). 그는 그런 버림 없이도 사랑을 완전함의 띠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무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런데 한쪽은 사람의 완전함이 자기 모든 것을 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부인하고, 또 그것 없이도 완전함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의 저 말씀 "네가 완전하고자 하면 네 모든 소유를 팔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든 설교에서 늘 살펴야 하는 것, 곧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따져 보면 그 뜻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어떤 행위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지를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행위에 관해 질문을 받으셨으므로 그를 율법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것은 마땅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보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데 무력한 것은 오직 우리의 패역함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으로 그리스도께서는,

240. 원문에는 "마태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0장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과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16–21절, 누가복음 18장 18–22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당신께서 옛날 주님의 율법에 전해진 것과 다른 삶의 방식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의의 가르침이라는 증언을 율법에 돌리셨고, 동시에 당신께서 어떤 새로운 삶의 규칙으로 백성을 율법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부추기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비방을 막으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헛된 자신감으로 부풀어 있어서,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렀다고 뽐낸 자리에서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참이었다면, 그에게는 최고의 완전함에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에서 율법이 그 안에 완전한 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라고 불린다는 데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무나 대담하게 다 채웠다고 대답한 그 의에서 얼마나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했는지를 그에게 가르치려면, 그에게 붙어 있는 악덕을 털어 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물이 넘쳤으므로 거기에 마음을 붙박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숨은 상처를 느끼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찌르십니다.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부딪치는 것이면 무엇이든 배설물로 여길 뿐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것처럼 가증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탐욕스러운 부자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하시는 것은, 야심 있는 사람에게 모든 명예를,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든 즐거움을, CO 447 음란한 사람에게 정욕의 모든 도구를 끊어 버리라고 명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권고로는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은 이렇게 자기 악을 개별적으로 깨닫도록 되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특정한 경우를 일반적인 해석으로 끌어가는 것은 헛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완전함을 재산을 버리는 데 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바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를 기뻐하는 젊은이에게 자기 상처를 느끼게 하여, 그가 다른 때에 자기에게 거짓으로 돌리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서 아직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교부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잘못 이해했고, 여기서 자원한 가난을 흉내 내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흉내에 따르면, 땅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그리스도께 자기를 바친 자들만이 마침내 복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는 모든 선한 사람이 저의 이 설명으로 만족하여, 그리스도의 뜻에 관해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5. 그렇지만 교부들은 그 뒤에 두건 쓴 궤변가들이 지어낸 그런 완전함을 세워서 이렇게 두 겹의 그리스도교를 일으키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서약을 세례에 견주고, 아니 그것이 둘째 세례의 형식이라고 드러내 놓고 주장하는 저 신성 모독적인 교리는 그때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부들이 이런 모독을 온 마음으로 몹시 싫어했으리라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옛 수도사들에게 있었다고 말하는 저 마지막 것, 곧 그들이 자기를 온전히 사랑에 맞추었다는 것이 이 새로운 서약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로 증명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사실 자체가 말해 줍니다. 수도원으로 물러가는 사람은 모두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만의 사역과 사사로운 성례 집행을 차지함으로써 신자들의 정당한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교제를 흩어 놓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작한 비교를 끝까지 이어 가서 한 번에 매듭짓자면, 이 점에서 그들이 옛 수도사들과 무엇이 비슷합니까? 옛 수도사들은 다른 이들과 따로 살았지만 따로 된 교회를 가지지는 않았

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성례에 참여했고, 엄숙한 집회에 나왔으며, 거기서 백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자들은 자기들만의 제단을 세움으로써 하나 됨의 띠를 끊어 버린 것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온 몸에서 스스로를 출교했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 사이에 평화와 사랑을 지키려고 하신 정규 사역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수도원의 수만큼 분열주의자들의 비밀 집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자들의 정당한 공동체에서 잘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짐이 숨겨지지 않도록, 그들은 자기들에게 여러 파당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넉넉히 부풀려 말할 수 없을 만큼 저주하는 것(고전 1:12)을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고린도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교사를 내세워 뽐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뉘셨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 대신 베네딕투스회 사람, 어떤 이들은 프란치스코회 사람, 어떤 이들은 도미니코회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께 아무 모욕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그들은 그렇게 불리면서, 그리스도인 대중과 구별되기를 바라고, 이 칭호들을 경건(religion)의 서약이라며 거만하게 자기들에게 붙입니다.

16. 제가 지금까지 옛 수도사들과 우리 시대 수도사들 사이에서 헤아린 이 차이들은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약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제가 수도사들에 관해서라기보다 수도 생활에 관해 말했다는 것, 그리고 몇 사람의 삶에 붙어 있는 악덕이 아니라 그 생활 제도 자체에서 떼어 낼 수 없는 악덕을 지적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실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놓을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악덕의 추함으로 이보다 더 더럽혀진 사람들의 반열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파당과 미움과 당파심과 야심이 이보다 더 들끓지 않습니다. 몇몇 수도원에서는 정결하게 삽니다.

정욕이 드러나 추해지지 않을 만큼만 눌러 두는 것을 정결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열에 하나도 정결의 성소라기보다 사창가가 아닌 곳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에서는 얼마나 검소합니까? 돼지우리의 돼지들도 이와 다르게 살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다룬다고 그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제가 건드린 이 몇 가지 안에서 고발하려고 지어낸 말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증언에 따르면 수도사들이 그토록 큰 정결로 뛰어났는데도, 떠돌이들이 많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나쁜 술수와 속임수로 순진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순교자들의 유물을 들고 다니며 추한 장사를 벌이며, 아니 순교자들의 유물이라며 아무 죽은 사람의 뼈나 팔고, 비슷한 여러 추악한 짓으로 그 반열에 치욕의 낙인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나아진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수도원에서 타락한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가 오늘날 거의 모든 수도원이 그토록 많고 그토록 구제할 길 없는 악덕으로 넘쳐흐르고 말하자면 터질 지경인 것을 본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난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원에 거룩하게 사는 규칙과 규율이 아무리 잘 세워져 있었을 때에도 다른 이들과 아주 다른 어떤 이들이 있었듯이, 저는 오늘날 수도사들이 저 거룩한 옛것에서 타락하여 그들의 무리 안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소수이고 흩어져 있어서, 나쁘고 악한 자들의 저 엄청난 무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시당할 뿐 아니라 방자하게 공격당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잔인하게 다루어지기까지 합니다. 그 다른 이들은 (밀레토스 사람들의 속담처럼) 자기들 사이에는 어떤 선한 사람에게도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241]

241. 고대에 밀레토스 사람들 사이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뛰어나서는 안 된다. 뛰어난 자가 있

17. 옛 수도 생활과 오늘날의 수도 생활을 이렇게 견줌으로써 저는 바라던 것을 이루었다고 확신합니다. 곧 우리의 두건 쓴 자들이 자기 서약을 변호하려고 초대 교회의 본을 거짓으로 내세운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원숭이가 CO 449 사람과 다른 만큼이나 옛 수도사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칭찬하는 저 옛 모습에도 제 마음에 그리 들지 않는 것이 얼마간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엄격한 규율의 바깥 훈련에서 미신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흉내와 그릇된 열심(κακοζηλία)이 없지 않았다고 말합니다.[242] 재산을 내버리고 땅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가정을 다스리는 수고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거룩한 가장이 모든 탐욕과 야심과 그 밖의 육의 욕망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채로, 정해진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목표로 삼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멀리 떨어져 물러나 철학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미워하는 것처럼 사막과 외딴곳으로 피하면서, 주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명하신 의무들을 함께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 서약에 다른 악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쓸모없고 위험한 본을 교회에 끌어들였다는 것은 분명히 작지 않은 악이었습니다.

18. 그러면 이제 수도사들이 오늘날 이 빛나는 반열에 들어가면서 하는 서원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첫째,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공로를 세우려고 새롭고 꾸며 낸 예배를 세우는 것이므로, 저는 앞에서 말한 것들에서 그들이 서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금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인정도

으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라"는 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원문은 "Milesiorum proverbium" 입니다.

242. 원문은 OCR이 깨져 있습니다("«curoJ^A/av"). 그리스어 κακοζηλίαν(그릇된 열심, 잘못된 모방)으로 읽었습니다. [원문의심]

전혀 없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지어내므로, 저는 그것이 경솔하고 그러므로 허락되지 않은 시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탱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오늘날의 수도 생활이 그 아래 담고 있는 그릇되고 불경건한 여러 예배에 한꺼번에 자기를 매므로,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마귀에게 바쳐진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 예배를 속된 의식으로 더럽혔다는 그 이유만으로, 선지자가 그들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신 32:17), 두건과 함께 천 가지 불경건한 미신의 올가미를 뒤집어쓰는 수도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서원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평생의 동정을 약속합니다. 마치 그 전에 하나님과, 그분께서 그들을 결혼해야 할 필요에서 풀어 주시도록 약정이라도 맺어 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이 서원을 한다고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시므로, 특별한 은사에 대한 확신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쓰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자기 육에게 시달린다고 느끼면,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맞설 수 있으니 그분의 도우심으로 피하십시오.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치료책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절제할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로 결혼으로 부름받기 때문입니다(고전 7:9). 제가 절제라고 부르는 것은 몸만 음행에서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정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깥의 방탕만이 아니라 마음이 불타는 것도 조심하라고 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려는 사람들이 절제의 서원으로 자기를 매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켜져 온 일이라고 말입니다. 저도 이 관습이 옛날에도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모든 잘못에서 자유로워서, 그때 행해진 것은 무엇이든 규칙으로 여겨야 한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한 뒤에는 뉘우칠 자리가 전혀 없게 하는 저 무자비한 엄격함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은 키프리아누스에게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동정녀들이 믿음으로 자기를 그리스도께 바쳤다면, 아무 소문 없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견디십시오. 그렇게 굳세고 흔들림 없이 동정의 상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견디기를 원하지 않거나 견딜 수 없다면, 자기 쾌락으로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누가 절제의 서원을 이런 공평함으로 누그러뜨리려 한다면, 그들이 그를 어떤 욕설로 찢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저 옛 관습에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누가 서원을 지키기에 힘이 모자란다는 것이 드러나도 아무 누그러뜨림이나 용서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아내를 맞아 육의 무절제를 고치면 음행으로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무겁게 죄짓는 것이라고 부끄러움도 없이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19.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다그치며, 사도들 아래에서도 그런 서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애씁니다. 바울이, 한번 공적인 섬김에 받아들여진 과부들이 시집가면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딤전 5:12). 저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과 자기 수고를 교회에 바친 과부들이 동시에 평생 독신으로 지내는 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뒷날 그렇게 되기 시작했듯이 그들이 거기에 어떤 거룩함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남편의 멍에에서 풀려나지 않고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하고 나서 새로 시집가기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떨쳐 버리는 것 말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이 그런 욕망으로 그리스도를 거슬러 방탕하다고 말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는 더 강조하려고 덧붙입니다. 곧 그들이 교회

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세례 때 한 처음 약속까지 어기고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는 각 사람이 자기 부르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편을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곧 그들이 말하자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그 뒤로는 품위에 대한 모든 관심을 내던지며, 온갖 방탕과 방자함에 몸을 팔고, 방종하고 풀어진 삶으로 그리스도인 여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공적인 섬김에 받아들여진 과부들은 평생 독신의 조건을 자기에게 지웠습니다. 그들이 그 뒤에 시집갔다면, 바울이 말하는 일, 곧 그들이 부끄러움을 내던지고 그리스도인 여인에게 마땅한 것보다 더 무례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한 약속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경건한 여인들의 공통된 법에서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저는 그들이 다른 이유로 독신을 서약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 CO 451 그들이 맡는 직무와 결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 부르심의 필요가 요구하는 만큼만 독신에 자기를 매었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저는 그들이 그렇게 매여 있었더라도, 육의 가시에 시달리거나 어떤 추악한 일에 빠지는 것보다 그때에도 시집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낫지 않았을 만큼 매여 있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저는 바울이 일반적으로 위험을 벗어난 나이를 정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한 번의 결혼으로 만족하여 이미 앞서 절제의 본을 보인 이들만 뽑으라고 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신 서원을 나무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로 그릇 여겨지고, 절제할 힘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경솔하게 그 서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20. 그러면 바울의 이 대목을 수녀들에게 끌어다 붙일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집사들이 세워진 것은 노래나 알아듣지 못하는 웅얼거림으

로 하나님을 달래고 나머지 시간은 놀며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공적인 섬김을 이행하고, 온 열심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사랑의 의무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삼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독신을 서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 거침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제 막 젊음에 들어설 때나 아직 한창 꽃다운 나이에 서원하여, 뒤늦게야 경험으로 자기가 얼마나 벼랑으로 몸을 던졌는지 배우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위험을 넘어선 것으로 보일 때에, 거룩할 뿐 아니라 안전하기도 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를 다그치지 않더라도, 저는 예순 살이 되기 전에 여인들을 절제를 서원하는 데 받아들이는 것이 큰 죄였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예순 살 된 여인들만 받아들이고, 더 젊은 여인들은 시집가서 자녀를 낳으라고 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열두 살, 다음에는 스무 살, 그 뒤에는 서른 살로 낮춘 것은 어떻게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엾은 소녀들이 나이로 자기를 알 수 있기도 전에, 또는 자기를 조금이라도 겪어 보기도 전에, 그 저주받은 올가미를 뒤집어쓰도록 속임수로 꾀임을 당할 뿐 아니라 힘과 위협으로 억지로 내몰리는 것은 훨씬 더 참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두 서원을 공박하는 데에는 오래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그 서원들은, 오늘날 형편으로 보면, 적지 않은 미신에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희롱하도록 짜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낱낱의 작은 부분을 너무 심술궂게 들쑤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에서 세운 저 일반적인 반박으로 만족하겠습니다.

21. 어떤 서원이 정당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는 넉넉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 서툴고 소심한 양심들은, 어떤 서원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무랄 만한 것인데도 여전히 그 의무에 대해 망설이며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기기를 두려워하면서,

거꾸로 그것을 지킴으로써 더 죄짓지나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망설임을 한 번에 없애려고, 저는 정당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은 모든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에게도 무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계약에서도, 우리와 계약하는 상대가 우리를 매어 두려는 약속만이 우리를 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행하도록 우리가 내몰리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양심의 증언을 가질 때에만 옳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다”(롬 14:23)라는 말씀이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바울이 뜻하는 것은, 의심하면서 한 일은 그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행위의 뿌리는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확신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면, 그들이 무지의 잘못으로 무엇을 경솔하게 시작했을 때, 오류에서 풀려난 뒤에 그만두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한 서원이 이런 것이므로, 그것은 아무것도 매지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게다가 앞에서 증명했듯이,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가증하기까지 하다면 어떻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일에 관해 더 길게 논하는 것은 쓸데없습니다. 경건한 양심들을 달래고 모든 망설임에서 풀어 주는 데에는 이 논거 하나로 넉넉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봅니다. 곧 순수한 샘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정당한 목적을 향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며, 그것을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계속하는 것도 금하실 만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류와 미신에서 나온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무게도 없고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2. 게다가 이 해결을 붙드는 사람들은, 수도 생활에서 나와 어떤 정직한

삶의 방식으로 옮겨 가는 이들을 악한 자들의 비방에 맞서 변호할 근거를 가집니다. 그들은 믿음을 깨뜨리고 거짓 맹세를 했다고 무겁게 고발당합니다. 흔히 믿는 대로라면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매여 있던 풀 수 없는 띠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굳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곳에는 아무 띠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오류에 얽혀 붙잡혀 있던 동안에는 매여 있었다고 치더라도,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비추임을 받은 뒤에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려났다고 저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매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 줄 만큼 큰 효력을 가진다면, 하물며 사탄의 교묘한 그물에 지나지 않는 바깥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 내지 않겠습니까?[243]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는 사람들은 누구든, 그분이 그들이 미신으로 뒤집어썼던 모든 올가미에서 그들을 풀어 주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신에 알맞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다른 변호도 없지 않습니다. 이룰 수 없는 서원이 영혼의 확실한 멸망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기를 바라신다면, 그 서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절제의 서원이 얼마나 이룰 수 없는 것인지는 앞에서 가르쳤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경험이 말해 줍니다. 거의 모든 수도원이 얼마나 큰 음란으로 CO 453 들끓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도원들이 다른 곳들보다 더 점잖고 더 조신해 보이더라도, 그들이 음란의 악을 속으로 누르고 가두어 둔다고 해서 정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을 잊고 본성을 거슬러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낼 때, 무서운 본보기로 사람들의 대담함에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손에 쥐여 주신 치료책을 멸시하고, 완고함과 고집으로 무절제의 병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

243. 원문은 “nos eruet”에 해당하는 끝부분이 OCR로 깨져 있습니다(“ms erudJ^”). 문맥대로 “우리를 건져 내지 않겠습니까”로 읽었습니다.

다. 결혼이 자기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치료책으로 주신 것이라는 권고를 받고도, 그것을 멸시할 뿐 아니라 맹세로 자기를 그 멸시에 묶어 버리는 사람을, 완고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1539–1554년판 · 제5장 믿음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5장 믿음에 관하여 1

CO 1:453–46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453 제5장.[244] 믿음에 관하여. 여기서 사람들이 사도적이라고 부르는 신경(사도신경)도 풀이합니다.

1. 이제 바로 앞의 논의에서, 주님께서 율법으로 우리가 행할 것으로 무엇을 정해 주시는지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라도 넘어지면, 주님께서는 진노와 영원한 죽음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또 율법을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는 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의 힘을 아예 넘어서고 우리의 모든 능력 밖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마땅한지를 생각한다면, 좋은 소망은 조금도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에게는 죽음과 가장 확실한 수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할 길은 하나뿐이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곧 주님의 자비입니다. 다만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그 자비를 붙들고, 변함없는 소망으로 그 안에서 쉴 때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소유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큰일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 의견이나, 심지어 아무 확신으로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빠져 있는 착각이 해로우면 해로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참된 고유한 성격을 더욱 부지런히 살피고 캐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당 부분은 믿음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244. “제5장(CAPUT QUINTUM)”이라는 표시는 원문에서 앞 편(CO 1:453) 끝에 붙어 있으나, 이 장의 표제이므로 여기서 옮깁니다.

복음서 이야기에 대한 어떤 평범한 동의보다 더 높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이 악은 다른 수없이 많은 악과 마찬가지로 스콜라 궤변가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두컴컴한 정의로 믿음의 모든 힘을 닳아 없애 버릴 뿐 아니라, 형성된 믿음과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하찮은 구별을 내세우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경건도 없는 무언지 모를 확신을 참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높여 줍니다. 성경 전체가 이에 맞서 소리치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들의 정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다만 주님의 말씀이 보여 주는 대로 믿음의 본성을 단순하게 풀어 말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믿음에 관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게, 말한다기보다 끽끽거리는지가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구별도 털끝만큼도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보이고자 할 때, 가르치기 위해 믿음에 두 가지 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인정하고 전파합니다. 분명 아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복음서 이야기와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이 참되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대개 옛날에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일이나 우리가 몸소 그 자리에서 본 일에 대해 내리는 판단과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한 신탁으로 여기고, 그분의 계명을 아주 소홀히 하지는 않으며, 그분의 위협과 약속에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증언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말을 빌려 쓴 것(κατάχρησις)으로 그런 것입니다.[245] 그들은 드러난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거나 물리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순종의 겉모양을 내보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믿음의 이 그림자 또는 허상은 아무 무게가 없는 것과 마찬가

245. 원문의 그리스어는 OCR이 깨져 있습니다("xaidxQfjciv"). 문맥대로 κατάχρησιν(말을 본뜻에서 벗어나 빌려 씀)으로 읽었습니다.

지로, 믿음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굳건한 실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곧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지금 지나가는 길에 짚어 두어도 아무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믿었다고 하지만, 조금 뒤에 자기의 불신을 드러냅니다(행 8:13, 18).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한 것을, 우리는 어떤 이들처럼 그가 마음에는 조금도 없는 믿음을 말로만 꾸며 냈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의 위엄에 눌려 어떤 식으로든 믿음을 내놓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의 근원으로 인정하여 기꺼이 그분께 자기 이름을 내주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누가복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잠시 믿는다고 하는데(눅 8:7, 14),[246] 그들에게서는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기 전에 숨이 막히거나, 아직 아무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곧 말라서 죽어 버립니다. CO 455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의 어떤 맛에 사로잡혀 말씀을 탐욕스럽게 붙들고 그 신적인 능력을 느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을 거짓으로 꾸며 사람들의 눈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 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치는 그 존경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스스로 믿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욕하거나 멸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불경건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동의가 어떤 것이든, 마음 깊이까지 들어가 거기 박혀 머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여도, 그 뿌리는 살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헛됨이 숨을 구석이 그토록 많고, 거짓이 숨을 굴이 그토록 가득하며, 그토록 속이는 위선으로 덮여 있어서, 마음은 자주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허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자기들이 마귀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약 2:19). 마귀들은 알고서 떠는 그것을 멍하니 듣고 깨닫기만 하는 앞의 사람들은 분명 마귀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점에서

246. 원문의 장절은 OCR로 “(Lucae ^8, 7. 14)”처럼 읽힙니다. “잠시 믿는다”는 말은 눅 8:13에 있습니다.

마귀들과 같습니다. 곧 그들을 건드리는 느낌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결국 두려움과 당황으로 끝납니다.

4. 이와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 곧 홀로 믿음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믿음은 이야기를 아는 단순한 지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꾸밈과 거짓의 칠을 사람의 마음에서 닦아 내고,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차지하여 함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힘과 본성이 잘 드러나도록,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일러 두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과 그토록 가깝고 서로 맞물려 있어서, 다른 데서는 믿음을 더 잘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요 과녁이어서, 믿음은 늘 그것을 겨누어야 합니다. 믿음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것은 더는 믿음이 아니라 불확실한 맹신이요 정신의 떠도는 오류입니다. 또 같은 말씀은 믿음을 받치고 떠받드는 토대입니다. 믿음이 거기서 비껴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없애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잉태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데 사람의 직무가 필요한지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든 말씀 자체는 거울과 같아서 믿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사람의 수고를 쓰시든,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만 일하시든, 당신께로 이끄시려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믿음을 깨닫는 일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깨닫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토대는 하나님의 진실하

심에 대해 미리 품은 확신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 진실하심의 확실성을 두고 속으로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은 그대에게 미심쩍고 약한 권위, 아니 아무 권위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속이실 수도 거짓말하실 수도 없는 참되신 분이라고 믿는 것으로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고 범할 수 없는 진리라고 의심 없이 확정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5.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이면 어떤 것에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이 말씀에서 본래 무엇을 바라보는지 더 캐물어야 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정녕 죽으리라."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 2:17; 4:10). 그러나 이런 말씀은 그 자체로는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으니, 믿음을 굳게 세우기에는 전혀 알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든 그분의 진리에 서명하는 것이 믿음의 직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찾아 그것에 기대고 그 위에 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오직 분노와 보응만을 본다면, 어찌 떨며 몸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몸서리치는 하나님을 어찌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야지,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믿음의 온전한 정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든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6. 그렇다면 뜻 대신에 호의 또는 자비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분명 믿음의 성격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 선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배운 뒤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구원이 당신께 관심과 열심의 대상이라고 선언하실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그 약속에만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그 안에서 쉬게 하지 않는다면 그다지 무게가 없을 것이므로, 의심이 섞인 깨달음, 곧 스스로 굳게 일관되지 못하고 저 자신과 다투는 깨달음은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은 눈멀고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까지 뚫고 올라가기에는 아주 멀고, 마음도 끊임없는 망설임으로 흔들려서 그 확신 안에 안심하고 머물기에는 아주 멉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온전한 믿음을 얻으려면, 정신은 다른 데서 조명받고 마음은 다른 데서 굳세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말하면 바른 정의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아는 굳고 확실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실함에 기초를 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신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 쳐지는 것입니다.

7. 이제 각 부분을 처음부터 차례로 살펴봅시다. 그것들을 부지런히 따져보면, 제 생각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부를 때, 사람의 감각 아래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흔히 갖는 그런 파악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그보다 훨씬 높아서, 사람의 정신이 거기에 이르려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 이르렀다 해도, 느끼는 것을 다 붙잡지는 못합니다. CO 457 오히려 정신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서, 무언가 사람의 일을 자기 역량으로 꿰뚫어 볼 때보다 그 확신의 확실성 자체로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멋지게 표현하여,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부릅니다(엡 3:18–19). 그는 우리 정신이 믿음으로 끌어안는 것이 모든 면에서 무한하며, 이런 종류의 지식은 모든 깨달음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당신 뜻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므로(고전 2:7, 10; 골 1:26), 성경에서 믿음을 가끔 "앎"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요한은 믿음을 "아는 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증언할 때 그렇습니다(요일 3:2).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증명으로 배워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함으로 굳세어져서 압니다. 바울의 말도 이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과 따로 떨어져 나그네로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고후 5:6–7).[247] 이 말로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 것들이 그런데도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고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식이 파악보다 확실성에 있다고 확정합니다.

8. 우리는 "굳고 확실한"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확신의 더 굳건한 변함없음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스럽고 이리저리 바뀌는 의견에 만족하지 않듯이, 어둡고 뒤얽힌 생각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알아내고 증명된 일에 대해 흔히 갖는 것과 같은 온전하고 흔들림 없는 확실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위로를 아주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자비가 자기에게도 자비로울지 의심하면서, 동시에 비참한 불안에 옥죄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장 확신한다고 여기는 바로 그 너그러우심을 너무 좁은 경계 안에 가두어 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따집니다. 그 자비는 크고 풍성하며, 많은 사람에게 쏟아부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도 이를지, 아니 자기가 거기에 이를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은 길 한가운데서 멈춰 서 버리므로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음을 든든한 평온으로 굳세게 하기

247. 원문에는 "(2 Cor. 5,"로 절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인용된 말에 맞추어 고후 5:6–7로 적었습니다.

보다 쉼 없는 망설임으로 들쑤십니다. 성경에서 늘 믿음에 돌리는 충만한 확신(πληροφορία)은 이와 아주 다른 뜻입니다.[248] 곧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 밖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선하심의 달콤함을 우리 자신 안에서 참으로 느끼고 겪어 보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믿음에서 신뢰를 이끌어 내고, 다시 신뢰에서 담대함을 이끌어 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 가운데 나아감을 얻었다"(엡 3:12). 이 말로 그는 분명히,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설 때가 아니면 바른 믿음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신뢰에서만 생겨납니다. 이것은 아주 참되어서, 믿음이라는 이름이 꽤 자주 신뢰 대신 쓰입니다.

9. 믿음의 가장 중요한 돌쩌귀는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내미시는 자비의 약속들을 우리 밖에서만 참되고 우리 안에서는 전혀 참되지 않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속으로 끌어안아 우리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가 다른 곳에서 "화평"이라고 부르는 그 신뢰가 생겨납니다(롬 5:1). 다만 그는 화평을 거기서 끌어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양심을 가라앉히고 맑게 하는 안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양심은 요란한 떨림에 시달리고 거의 갈가리 찢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잊고 잠시 잠들어 버린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참으로 잠시입니다. 양심은 그 비참한 잊음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억이 거듭 되살아나 몹시 찢기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롭고 호의를 품으신 아버지이심을 굳은 확신으로 믿고 그분의 너그러우심에서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사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의 약속들에 기대어 의심 없는 구원의 기대를 미리 품는 사람이 아니면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가 이 말로 이것을 보여

248. 원문의 그리스어는 OCR이 깨져 있습니다("nXt^Qo^Qkigj"). 문맥대로 πληροφορίας로 읽었습니다.

줍니다. “우리가 신뢰와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히 3:14). 이렇게 그는, 자기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신뢰 가운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잘 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기 구원의 안심에 기대어 마귀와 죽음을 신뢰 가운데 비웃는 사람이 아니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저 빼어난 맺음말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같은 사도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눈이 잘 밝혀졌다고 여기지 않습니다(엡 1:18). 그리고 그는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큰 안심이라는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그 선하심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뜻을 넌지시 비치며 가르칩니다.

10. 그러나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자들이 겪는 일은 이와 아주 다르다. 그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데서 불안에 시달릴 뿐 아니라(이런 일은 그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때로는 아주 무거운 두려움에 흔들리기까지 한다. 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시험의 맹렬함이 그토록 크다. 이것은 믿음의 저 확실성과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가르침을 세워 두려면 이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은 확실하고 안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칠 때, 어떤 의심에도 건드려지지 않는 확실성이나 CO 459 어떤 염려에도 공격받지 않는 안심을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자들이 자기 자신의 불신과 끊임없이 싸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양심을 아무 소란에도 방해받지 않는 어떤 잔잔한 고요 속에 두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들이 어떤 식으로 괴로움을 당하든,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품은 그 확실한 신뢰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돌아서 버린다는 것은 부정합니다.

11. 이것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말한 육과 영의 저 나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나뉨은 이 부분에서 가장 환히 드러납니다. 경건한 가슴은 자기 안에서 이 나뉨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달콤함에 젖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비참을 느끼기 때문에 쓰라림에 괴로워합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의 약속에 기대어 쉬고, 한편으로는 자기 불의가 내놓는 증언 때문에 떱니다. 한편으로는 생명을 붙잡아 기뻐 뛰고, 한편으로는 죽음 앞에서 몸서리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세상 삶의 길에서는 우리가 불신이라는 병에서 모두 나아 믿음으로 온통 채워지고 사로잡힐 만큼 일이 잘 되어 가는 때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저 싸움들은 여기서 나옵니다. 육의 잔재에 붙어 있는 불신이 안에 잉태된 믿음을 치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정신 안에 확실성이 의심과 섞여 있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확실하고 맑은 지식이 아니라 어둡고 뒤얽힌 지식일 뿐이라는 데로 늘 되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생각으로 갈라진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흔들림에 위아래로 시달린다고 해서 그 깊은 구렁에 잠기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싸움의 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에워싸여 위태로워 보이는 그 어려움들을 마침내 헤치고 나옵니다.

12. 요점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아주 작은 한 방울이라도 우리 정신에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얼굴이 온화하고 맑으며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멀리서 아득히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헛것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만큼 확실하게 바라봅니다. 그다음 우리가 자라 가는 만큼(우리는 끊임없이 자라 가야 마땅합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더 가까이, 그러므로 더 확실하게 보게 되며, 바로 그렇게 이어 감으로써 그분은 우리에게 더 친숙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받은 정신이 처음에는 많은 무지에 싸여 있다가, 그 무지가 조금씩 닦여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정신은 어떤 것들을 모르거나 자기가 보는 것을 흐릿하게 본다고 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지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믿음에서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좁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말하자면 반쪽만 비쳐 드는 햇살을 받는다면, 해를 마음껏 바라보지는 못해도 의심할 수 없는 광채를 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땅의 몸이라는 족쇄에 매여 사방에서 많은 어둠에 가려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려고 조금이라도 비치면, 굳건한 안심에 넉넉할 만큼 조명을 받습니다.

13. 사도는 여러 곳에서 이 두 가지를 멋지게 가르칩니다. 그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며,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말할 때(고전 13:9, 12),[249] 이 세상 삶에서 참으로 신적인 저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작은 조각만 주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믿음의 한 방울이라도 얼마나 확실하고 결코 속이지 않는 맛으로 우리를 사로잡는지는, 그가 다른 곳에서 보여 줍니다. 그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아무것도 가리는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큰 효력으로 바라보아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단언합니다(고후 3:18). 이런 무지의 덮개들 속에는 많은 의심과 떨림이 함께 얽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은 어떤 타고난 본능으로 불신 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험들이 더해집니다. 시험은 수도 끝이 없고 종류도 여러 가지여서, 거듭 큰 기세로 덮쳐 옵니다. 무엇보다 양심 자체가 덮쳐 누르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때로는 속으로 불평하며 신음하고, 때로는 자기를 고발하며, 때로는 소리 없이 끓어오르고, 때로는 드러내 놓고 요동

249. 원문에는 "(1 Cor. 13, 9)"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울로 희미하게 본다는 말은 12절에 있으므로 함께 적었습니다.

합니다. 그러므로 역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보이든, 양심이 자기 안에서 진노의 근거와 재료를 찾아내든, 불신은 거기서 믿음을 쳐부술 화살과 공성 기계를 집어 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늘 이 과녁을 겨눕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시고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여, 그분에게서 아무 도움도 바라지 않고, 그분을 철천지원수처럼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런 공격을 견디려고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방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니 원수시라는 시험이 덮쳐 올 때, 믿음은 맞받아 대답합니다. 그분은 괴롭게 하실 때에도 자비로우시다. 징계는 진노에서보다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찔릴 때에는, 죄인이 주님의 너그러우심에 몸을 맡길 때마다 모든 죄를 위해 용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으로 맞섭니다. 이렇게 경건한 정신은 아무리 놀라운 방식으로 들볶이고 시달려도, 마침내 모든 어려움 위로 떠오르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단련하고 지치게 하는 다툼들은 무엇이든 그 신뢰의 확실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응에 가장 심하게 몰리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그분께 자기 탄식을 내려놓고, 들으시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그분을 부릅니다. 아무 위로도 바라지 않는 분께 울며 하소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에게서 무언가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분을 부를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작다고 꾸짖으신 제자들도 CO 461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면서도 그분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마 8:25). 그러므로 앞에서 이미 말한 것을 다시 주장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경건한 가슴에서 결코 뽑히지 않고, 아무리 흔들려 이리저리 기우는 것처럼 보여도 맨 밑바닥에 박혀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빛은 결코 꺼지거나 숨이 막히지 않고, 적어도 재 밑에 숨어 있듯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을 보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멸하시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성도들에게 절망의 가장 극한 재료이지만, 욥은 자기 소망이 그것보다 더 멀리 나아가서, 그분이 자기를 죽이신다 해도 그분께 소망 두기를 그치지 않으리라고 단언합니다(욥 13:15). 참으로 그렇습니다. 불신은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밖에서 공격할 뿐입니다. 불신은 자기 화살로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고 괴롭힐 뿐이며, 아니면 적어도 나을 수 있는 상처를 낼 뿐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듯이 믿음은 우리에게 방패이기 때문입니다(엡 6:16). 믿음은 화살 앞에 맞서 그 힘을 받아 내어, 화살을 아주 튕겨 내거나 적어도 꺾어서 급소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다른 때에는 굳건한 병사가 화살의 거센 일격에 발을 옮기고 조금 물러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가 상처를 입을 때는, 방패가 화살이 박히는 힘에 얼마간 깨지되 꿰뚫리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경건한 정신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이렇게 말할 데까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늘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시 23:4). 죽음의 어둠 속을 다니는 것은 분명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아무리 굳세다 해도 그것을 몹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며 자기 구원을 돌보신다는 생각이 이기므로, 두려움은 곧 안심에 정복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마귀가 우리를 거슬러 어떤 공성 기계를 세우든, 그가 믿음이 사는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때 그는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15. 두려움과 떨림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믿음의 안심이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히 세워집니다. 곧 신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보응의 본보기들을 자기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여기고, 같은 죄악으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삼갈 때가 그렇습니다. 또는 자기 비참을 속으로 되새기면서 온전히 주님께 달려 있음을 배울 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분

없이는 자기가 어떤 바람에도 흩날리고 사라져 버리는 존재임을 봅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응하실 때 쓰신 채찍들을 내보이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비슷한 악에 스스로 얽혀 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지만(고전 10:5 이하), 그것으로 그들의 신뢰를 조금도 흔들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을 굳세게 하기보다 흔히 짓눌러 버리는 육의 마비를 흔들어 깨울 뿐입니다. 또 그가 유대인들의 몰락에서 권면의 근거를 끌어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고 할 때, 우리 굳건함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흔들리라고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교만과, 자기 능력을 무모하게 지나치게 믿는 것을 없애, 유대인들이 쫓겨난 뒤 그 자리에 받아들여진 이방인들이 더 사납게 우쭐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롬 11:20). 그런데 그는 거기서 신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으로 자랑하던 위선자들도 자기 말 안에 포함합니다. 그는 사람 하나하나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 놓고,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은 자기들의 불신과 배은망덕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은 것임을 보인 뒤에, 이방인들에게도 교만하여 스스로 높이다가 얼마 전 자기들에게 옮겨 온 양자 삼으심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버림받을 때에도 그들 가운데 양자 삼으심의 언약에서 떨어지지 않은 몇 사람이 남아 있었듯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 없이 다만 육의 어리석은 자신감으로 부풀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자기 멸망에 이르도록 남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택함받은 신자들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거기서 아무 불편한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다. 육의 잔재에서 때때로 성도들에게 스며드는 무모함을 눌러 헛된 자신감으로 방자해지지 않게 하는 것과, 양심을 두려움으로 쳐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온전한 안심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16. 다음으로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칠 때(빌

2:12),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게 낮추면서 주님의 능력을 우러러보는 데 익숙해지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함과, 우리 비참을 깨달아서 생긴 불안만큼 우리를 깨워 주님께 신뢰와 마음의 확실성을 던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도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두려움으로 경배하리이다" (시 5:7).[250]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믿음의 담대함을 경건한 두려움과 알맞게 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아가 그분의 광채에서 우리 더러움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도 늘 자기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선언할 때 참되게 말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재앙에 빠지기 때문입니다(잠 28:14). 그러나 그는 우리를 더 조심하게 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우리가 짓눌려 쓰러지게 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곧 마음이 자기 안에서는 어지러워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다시 추스르고, 자기 안에서는 낙심해도 그분 안에서 일어서며, 자기를 믿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숨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가장 든든한 위로를 누리는 데에는 아무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자기 헛됨으로 눈을 돌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의 생각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17. 그렇다고 우리가, 몇몇 반(半)교황주의자들이 오늘날 구석에서 지어내기 시작한 저 가장 해로운 철학에 자리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스콜라 학교에서 전해 온 저 조잡한 의심을 지켜 낼 수 없게 되자, 다른 꾸며 낸 생각으로 달아나 신뢰를 불신과 섞어 버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CO 463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좋은 소망을 품을 온전한 재료를 찾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좋은 것에 늘 합당하지 않으므로, 우리 합당하지 않음을 바라보며 흔

250. 원문에는 "시 5:8"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이 편의 다른 시편 절수도 같은 까닭으로 바꾼 곳이 있습니다.

들리고 망설이기를 그들은 바랍니다. 요컨대 그들은 양심을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 두어, 틈틈이 번갈아 이쪽저쪽으로 오가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두려움을 서로 맞세워, 소망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눌리고,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면 소망이 다시 꺼지게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전에 믿음의 확실성을 무너뜨릴 때 쓰던 저 드러난 공성 기계들이 이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자, 비스듬한 땅굴로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려 애씁니다. 그러나 걸핏하면 절망에 자리를 내주는 그 신뢰가 도대체 어떤 신뢰이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구원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서면 정죄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불신과 좋은 소망이 그대 마음에서 번갈아 다스릴 수밖에 없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리서 계신 분으로 생각해야지,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그분이 멀리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몸에 접붙이시어 당신의 모든 좋은 것에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들의 이 논증을 이렇게 되돌려 줍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생각하면 정죄가 확실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좋은 것과 함께 그대에게 나누어 주어지셔서, 그분의 모든 것이 그대의 것이 되고, 그대가 그분의 지체가 되며, 참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분의 의가 그대의 죄를 덮어 버리고, 그분의 구원이 그대의 정죄를 없애 버린다. 그분이 당신의 합당하심으로 간구하시어, 그대의 합당하지 않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신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떼어 놓거나 우리를 그분에게서 떼어 놓는 것은 결코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와 굳게 붙이신 그 사귐을 두 손으로 힘껏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롬 8:10). 저 사람들의 헛소리대로라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당신 곁에 가지고 계시지만, 너희는 죄인이므로 죽음과 정죄에 매여 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다르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몫으로 받아 마땅한 정죄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삼켜져 버렸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려고 제가 든 그 이유를 씁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갈라질 수 없는 사귐의 끈으로 우리에게 붙어 계실 뿐 아니라, 어떤 놀라운 교통으로 날마다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한 몸으로 자라 가시다가, 마침내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8. 베르나르두스도 이 주제를 일부러 다루면서, 교회 봉헌에 관한 다섯째 설교에서 이와 다르지 않게 논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제가 때때로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를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그 자체로, 또 그 자체에서 비롯된 대로 바라보면, 저는 영혼이 무(無)로 돌아갔다는 것보다 더 참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영혼의 비참을 하나하나 헤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얼마나 죄에 짓눌려 있고, 어둠에 덮여 있으며, 유혹에 얽혀 있고, 정욕으로 근질거리며, 격정에 매여 있고, 환상으로 가득하며, 늘 악으로 기울어 있고, 온갖 악덕으로 쏠려 있으며, 마침내 치욕과 수치로 가득한지를 말입니다. 진리의 빛 아래서 살펴본 우리의 모든 의조차 월경하는 여인의 옷과 같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우리의 불의는 도대체 어떤 것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은 얼마나 크겠습니까(마 6:23)? 그러면 무엇입니까? 의심할 것 없이 사람은 헛것 같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이가 어떻게 전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이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숨을 돌립시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에 관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 자비의 아버지시여, 오

비참한 자들의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십니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당신의 보물이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당신 앞에서는 없는 것 같아서 무로 여겨질 것입니다. 참으로 당신 앞에서이지, 당신 안에서가 아닙니다. 당신 진리의 판단에서는 그러하지만, 당신 자애의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당신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없습니다. 당신께서 없는 것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있습니다. 당신께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는 없지만, 당신 곁에서는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라는 바울의 말대로입니다." 그다음 그는 두 생각을 잇는 이 연결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분명 서로 이어져 있는 것들은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맺는말에서 이것을 이런 말로 더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우리가 이 두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살펴보았다면, 아니 한 생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다른 생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크게 여겨졌는지 살펴보았다면, 제 생각에 우리 자랑은 누그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도록 굳건해졌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곧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망대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성을 찾고, 성전을 찾고, 집을 찾고, 신부를 찾읍시다.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경외로 말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귀히 여겨 주심으로 있지, 우리의 합당함으로 있지 않습니다."

19. 또한 주님을 경외함은 어디서나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 증언되고, 어떤 곳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 불리고 어떤 곳에서는 지혜 자체라 불립니다

(잠 1:7; 9:10; 시 111:10; 잠 15:33; 욥 28:28). 이 경외함은 하나이지만 두 가지 느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아버지로서 받으실 공경과 주인으로서 받으실 공경을 함께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르게 섬기려는 사람은 그분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고 복종하는 종이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아버지이신 당신께 드리는 순종을 CO 465 "공경"이라 부르시고, 주인께 바치는 복종을 "두려움"이라 부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말 1:6) 그러나 그분이 아무리 둘을 구별하시더라도, 그 둘을 함께 섞어 놓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함은 저 공경과 두려움이 섞인 경외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이 두 감정을 함께 받아들인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지옥이 없다 해도 그분의 노여움을 사는 것을 어떤 죽음보다 더 무겁게 몹시 두려워할 까닭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육은 죄를 지을 방종으로 방자하게 치달으므로, 그것을 온갖 방법으로 억누르려면 이 생각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그 권세 아래 사는 주님께서는 모든 불의를 가증히 여기시고(요일 3:4 이하), 악하게 살아서 그분의 진노를 자기에게 불러일으킨 자들은 그분의 보응을 피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20. 그런데 요한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요일 4:18)은 이것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는 불신의 공포를 말하고 있는데, 신자들의 이 경외함은 그것과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그분의 노여움을 살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벌받지 않고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그분이 보응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떱니다. 또 그들은 진노가 자기 위에 닥쳐 있다고 여기고, 그것이 자기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때를 순간마다 기다리기 때문에 진노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신자들은 형벌보다 그분께 끼칠 노여움을 더 두려워하고, 형벌이 자기 목덜미 위에 걸려 있기라도 한 듯이 형벌의 두려움으로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벌을 불러들이지 않도록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는 신자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엡 5:6; 골 3:6).[251] 그는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에서 열거한 죄악들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에게 주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음을 생각하여, 그들 자신은 그 진노를 겪으려 하지 않도록 일깨우는 것입니다.

21. 이제 우리는 믿음이 바라본다고 하는 하나님의 호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소유를 얻는다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면 좋은 것이 하나도 모자랄 수 없으므로, 그분이 몸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때, 그것은 구원의 확실성을 위해 우리에게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 80:3).[252]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의 요체를, 그분께서 모든 원수 됨을 없애시고 우리를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데에 둡니다(엡 2:14 이하). 이로써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아무 위험도 남아 있지 않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잘 되리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 이 세상 삶과 오는 삶의 약속들을 가지며, 모든 좋은 것에 대한 굳건한 안심을 가집니다. 다만 말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심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 삶의 길이나 영예나 재물을 자기에게 확실히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것들 가운데 어느

251. 원문에는 "Col. 3, 3"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말이 있는 골 3:6으로 바로잡았습니다.
252. 원문에는 "시 80:4" 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절수를 따른 것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것도 우리에게 정해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이 세상 삶을 돕는 데 속한 많은 것이 우리에게 모자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이 확실성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안심은 오는 삶에 대한 기대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신 사람들을 땅에서 어떤 비참과 재앙이 기다리든, 그것들은 그분의 호의가 온전한 행복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요체를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웠습니다. 모든 종류의 좋은 것이 이 샘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좋은 일이 문제가 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불려 간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건한 마음에 느껴질 때, 그것이 생명 자체보다 더 달콤하고 더 바랄 만하다고 노래합니다(시 63:3).[253]

22. 우리는 값없이 주신 약속을 믿음의 토대로 삼습니다. 믿음은 본래 그 약속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든 금하시든 약속하시든 위협하시든 모든 일에서 참되시다고 확정하고, 그분의 명령도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금하신 것을 지키고, 위협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본래 약속에서 시작하고, 약속에 서 있으며, 약속에서 끝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찾는데, 그 생명은 계명이나 형벌의 선포에서가 아니라 자비의 약속에서, 그것도 값없이 주신 약속에서만 찾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 행위로 돌려보내는 조건부 약속은, 생명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때가 아니면 생명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떨고 흔들리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스스로, 너그러이, 우리의 합당함보다는 오히려 우리 비참을 보시고 내미시는 구원의 약속으로 믿음을 받쳐야 합니다. 그래서

253. 원문에는 “시 63:4”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절수를 따른 것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사도는 복음에 대해,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롬 10:8). 그는 이 이름을 율법의 계명에서도 약속에서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저 너그러운 사신의 직무 말고는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도에게서 믿음과 복음이 서로 맞물려 자주 나옵니다. 그는 복음의 직무가 믿음의 순종을 위해 자기에게 맡겨졌다고 가르치고(롬 1:5),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16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17절).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므로(고후 5:18),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 이보다 더 굳건한 증언은 달리 없고, 믿음은 바로 그 호의를 알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값없이 주신 약속에 기대야 한다고 말할 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부분에서 끌어안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자비의 약속을 믿음의 고유한 과녁으로 정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심판자요 죄악을 갚으시는 분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본래는 그분의 너그러우심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며, 모든 이에게 선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 위에 당신의 자비를 쏟아부으시는 분으로 생각해야 할 분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시 86:5; 103:8; 145:8).[254]

254. 이 문장의 끝부분은 다음 편 원문(CO 1:467) 첫머리에 있으나, 문장을 맺기 위해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또 원문 파일에는 이 뒤에 CO 1:463–465의 글(17–21절)이 OCR로 한 번 더, 크게 깨진 채 붙어 있습니다. 이미 옮긴 부분이므로 다시 옮기지 않았습니다.

1539–1554년판 제5장 믿음에 관하여 2

CO 1:467–47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467 [255]23. 저는 피기우스와 그와 비슷한 개들이 짖어 대는 소리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256] 그들은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좁혀 정한 것을 두고, 마치 믿음을 찢어서 한 조각만 낚아채는 것처럼 들볶습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그들 말대로 믿음의 일반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분이 위협하시든, 은혜의 소망을 주시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던 세상의 멸망을 두려워한 것을 믿음에 돌립니다(히 11:7). 다가오는 형벌을 두려워한 것이 믿음의 일이었다면, 위협을 믿음의 정의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중상자들은 마치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을 바라본다는 것을 부정하기라도 한 것처럼, 부당하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다만 이 두 가지를 알리려 할 뿐입니다. 첫째, 믿음은 값없이 주신 약속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기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눈여겨볼 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유기된 자들과 구별하고, 신자들을 불신자들과 구별하는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의롭게 명하시고 참되게 위협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때문에 그를 신자라고 부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 위에 서지 않으면,

255.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256. 알베르트 피기우스(Albert Pighius, 1490경–1542)는 네덜란드 캄펜 출신의 로마 가톨릭 신학자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격하는 글을 써서 칼빈과 논쟁했습니다.

믿음은 굳건한 자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음을 논합니까? 구원의 길을 붙들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는 한에서가 아니라면, 어떻게 구원하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에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효과를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종차(種差) 자리에 신자들을 불신자들에게서 갈라놓는 저 표지를 유(類)에 덧붙인다 해도, 조금도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의를 품은 자들이 이 가르침에서 헐뜯을 것이 있다면, 바울까지 우리와 함께 같은 비난에 끌어들이지 않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본래 믿음의 말씀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롬 10:8).

24. 또 우리가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담는 것도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사도는 복음 전체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담고(롬 1:17),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또 아멘이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고후 1:20). 그 까닭은 손에 잡힐 듯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면, 그것으로 당신의 호의를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 가운데 사랑의 증언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서 나오는 크고 끊임없는 은택을 쌓아 받으면서 그만큼 더 무거운 심판을 뒤집어쓴다는 것도 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혹시 인정한다 해도 그분의 선하심을 속으로 전혀 헤아리지 않으므로, 거기서 그분의 자비를 배우는 것이, 자기 처지대로 같은 너그러우심의 열매를 받으면서도 내다보지는 못하는 짐승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대개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물리쳐서 그 일로 더 큰 보응을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것도 조금도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효력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났을 때에야 비로소 드러나지만, 약속의 힘과 고유한 성격은 우리의 불신이나 배은망덕으로 결코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들로 사람을

초대하여 당신의 너그러우심의 열매를 받게 하실 뿐 아니라 생각하게도 하실 때, 그분은 동시에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약속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분 안에 머물고 쉽니다(마 3:17; 17:5). 그러므로 그 사랑은 그분의 중보를 거쳐 우리에게 흘러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곳에서는 그분을 우리의 화평이라 부르고(엡 2:14),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다운 자애로 우리와 묶이시는 끈처럼 그분을 내세웁니다(롬 8:3).[257]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분께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 그분 안에서 확증되고 이루어진다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도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25. 사실 우리의 눈멂과 고집이 막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맨 겉으로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일으키기에 넉넉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은 헛됨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결코 붙어 있을 수 없고, 둔하기 때문에 그분의 빛 앞에서 늘 눈이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으로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사람의 깨달음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정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받는 것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으로 마음이 굳세어지고 떠받쳐져야 합니다. 이 점에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하늘과 땅만큼 빗나갑니다. 그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마음의 신뢰와 안심은 지나쳐 버리고, 지식에서 나오는 맨 단순한 동의만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도록 깨끗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음이

257. 원문의 장절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의 끈으로 내세우는 말은 롬 8장 뒷부분(롬 8:32, 39)에 더 가깝습니다.

그 진리 안에 굳게 세워진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선물로 받은 사람 말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역설(παράδοξον)로 여겨집니다.[258] 그러나 그렇게 여기는 까닭은, 한편으로는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이 숨겨져 있고 높은지, 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데 사람이 얼마나 둔한지를 그들이 헤아리지 않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저 굳고 흔들림 없는 꾸준함, 곧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들이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6. 그러나 바울이 설교하듯이, 사람의 뜻에 대해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말고는 아무도 증인이 될 수 없다면(고전 2:11),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흔들린다면, 주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 붙잡지 못하는 것들을 약속하실 때 그 진리가 어떻게 굳고 흔들림 없겠습니까? 여기서 사람의 통찰은 이처럼 놀라 넋을 잃고 무너지므로, 주님의 학교에서 자라 가는 첫 단계는 그 통찰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건처럼 가로막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마 11:25; 눅 10:21; 마 16:17). 혈과 육은 그것을 알게 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고전 2:14; 롬 11:33).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는 그분의 능력만이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CO 469 안 사람도, 그분의 모사가 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십니다(고전 2:10, 16).[259]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

258. 원문의 그리스어는 OCR이 깨져 있습니다(“xaQaSo^marov”). 문맥대로 παράδοξον으로 읽었습니다.

259. 원문에는 “1 Cor. 2, 10. 17”로 되어 있습니다. 고전 2장은 16절까지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말이 16절에 있으므로 2:16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 6:44).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께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듯이, 이끌릴 때에는 정신과 마음이 우리 자신의 깨달음 위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분께 비추임을 받은 영혼은 말하자면 새로운 눈을 얻어, 전에는 그 광채에 스스로 눈이 부셨던 하늘의 비밀들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의 지성은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참으로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것들을 맛보는 데 아주 미련하고 맛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에게 당신 나라의 비밀들을 빼어나게 풀어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눅 24:27, 45). 이처럼 그분의 신적인 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게도, 그들이 귀로 들은 바로 그 가르침을 그들의 정신에 부어 줄 진리의 영이 보내지셔야 했습니다(요 16:13).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전파되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해와 같지만, 눈먼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 부분에서 본성상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저 안에 계신 선생이신 성령께서 당신의 조명으로 길을 내 주시지 않으면 정신에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7. 그다음 남은 일은 정신이 받아들인 것이 마음 자체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꼭대기에서 맴돌고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음 밑바닥에 뿌리를 내려, 시험의 모든 공성 기계를 견디고 물리치는 무너뜨릴 수 없는 보루가 될 때에야 그렇습니다. 정신의 참된 깨달음이 그분의 조명이라는 것이 참이라면, 마음을 이렇게 굳세게 하시는 데에서는 그분의 능력이 훨씬 더 뚜렷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불신은 정신의 눈멂보다 더 크고, 마음을 안심으로

갖추는 것은 정신을 생각으로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인(印)의 역할을 하시어, 먼저 우리 정신에 그 확실성을 새기신 바로 그 약속들을 우리 마음에 인 치시고, 그것들을 확증하고 세우시려고 보증의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 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니라”(엡 1:13–14). 그대는 그가 신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인처럼 새겨진다고 가르치는 것을 봅니까? 그가 이런 까닭으로 그분을 약속의 성령이라 부르는 것은, 그분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후 1:21–22). 또 다른 곳에서는 소망의 신뢰와 담대함을 말하면서 성령의 보증을 그 토대로 삼습니다(고후 5:5).

28. 여기서 우리는 저 스콜라 교리가 얼마나 해로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도덕적 추측으로밖에는 확정할 수 없으니, 각 사람이 자기가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지 않는 정도에 따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행위로 가늠해야 한다면, 우리가 희미한 추측으로도 그것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하고 값없이 주신 약속에 응답해야 하므로, 망설일 자리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묻건대, 우리가 삶의 깨끗함으로 공로를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는 조건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어떤 신뢰로 무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을 다룰 자리를 따로 정해 두었으므로, 지금은 더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특히 추측이나 의심에 가까운 다른 무엇만큼 믿음에 맞서는 것은 없다는 것이 넉넉히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에 달고 다니는 전도서의 증언을 아주 고약하게 이리로 비틉니다. “사람이 자기가 미움을 받을 만한지 사랑을 받을 만한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전 9:1). 이

구절이 흔한 번역에서 잘못 옮겨졌다는 것은 지나치더라도, 솔로몬이 이런 말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곧 누가 지금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시고 누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지 가늠하려 한다면, 그는 헛수고를 하며 아무 보람 없이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의인과 악인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늘 당신의 사랑을 증언하시는 것도 아니고, 괴롭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늘 당신의 미움을 드러내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사람의 재주가 헛되다는 것을 꾸짖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재주는 알아야 할 가장 필요한 일들에서 그토록 둔함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앞에서 그가, 사람의 혼이 짐승의 혼과 무엇이 다른지 분별할 수 없으니 같은 방식으로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쓴 것과 같습니다(전 3:19). 누가 여기서 우리가 영혼의 불멸에 대해 지닌 생각이 추측에만 기대고 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면,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이 되어 가는 것을 육의 눈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은혜에 대한 확실성이 하나도 없다고 결론짓는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겠습니까?

29.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 없는 지식을 자기 것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무모한 주제넘음이라고 트집을 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우리 재주의 얕음 아래 두려 할 만큼 많은 것을 우리 몫으로 차지한다면, 저는 이것을 그들에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함께 단순히,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니, 그 영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할 때(고전 2:12), 그들이 성령을 모욕하며 공격하지 않고서 무엇을 거슬러 투덜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온 계시를 거짓이나 CO 471 불확실함이나 모호함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 끔찍한 신성 모독이라면, 우리가 확실성을 주장하는 데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감히 자랑하는 것도 큰 무모함이 없지 않다고 소리칩니다. 세상의 선생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이 경건(religion)의 첫걸음에서 이토록 부끄럽게 부딪힐 만큼 어리석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남아 있는 그들의 글이 증언하지 않았다면, 저도 분명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롬 8:14).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은 없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그 말을 불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가르치며,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영에게 증언하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같은 장 16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그분을 바르게 부르려면 그 인도를 받아야 할 성령을 떼어 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 없는 기독교를 꾸며 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복된 부활의 소망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없는 소망을 꾸며 냅니다.

30. 그러나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않는 것이 겸손과 낮아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고 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고 할 때(고후 13:5),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4:13).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 위에 부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그분의 영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욜 2:28)?[260] 믿음, 곧 성령께서 몸소 하시는 일을 성령에게서 떼어 놓는다면, 우리가 성령께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은 경건의 첫 걸음마이므로,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감히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다고 낙인찍는 것은 지극히 비참한 눈멂입니다. 이런 자랑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본보기로 삼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그 영이 함께 거하시는 사람들만 안다고 하신 말씀(요 14:17)이 얼마나 참된지를 드러냅니다.

31. 그리고 그들은 땅굴 하나만 파서 믿음의 굳건함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도 믿음을 공격합니다. 곧 지금의 의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견인을 아는 지식은 여전히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도덕적 추측으로 가늠할 뿐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구원의 신뢰란 참으로 훌륭하기도 합니다! 사도는 아주 다르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나 정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그들은 사도가 이것을 특별한 계시로 얻었다고 지껄이며 하찮은 해법으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꽉 조여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특별히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공통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도가 다른 곳에서는 우리 연약함과 변덕을 들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넋 잃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베드로가 풀어 말하듯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게

260. 원문에는 "욜 3:1"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의 장절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장절로 바꾸었습니다.

하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합니다(벧전 5:6). 다음으로, 이 세상 삶의 기간을 넘어서 오는 불멸에까지 뻗어 가는 것이 고유한 성격인 믿음의 확실성을 한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얼마나 뒤집힌 일입니까?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분의 영으로 조명받아 믿음으로 하늘 생명을 바라보며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돌린다면, 이런 자랑은 교만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누가 그것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겸손이나 낮아짐을 증언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의로 덮어 버림으로써 극도의 배은망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2. 이와 함께 궤변가들이 꾸며 낸 다른 두 가지 생각도 무너집니다. 첫째는 동의에 경건한 감정이 더해질 때 믿음이 형성된다고 하는 허튼소리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가장 조잡한 무지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리고(그들은 이것을 암묵적 믿음[fides implicita]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비참한 백성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첫째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맨 헛된 동의로 형성되지 않은 믿음을 만들어 낼 때,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동의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넉넉히 드러냅니다. 동의 자체가 머리보다 마음의 것이며, 깨달음보다 감정의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라 불리고(롬 1:5),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복종도 이보다 앞세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땅합니다. 그분께는 당신의 진리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믿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서명하듯이 그 진리를 인 친다는 것을 증언합니다(요 3:33). 이것은 조금도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는 한마디로 확정합니다. 동의에 경건한 감정이 더해져 믿음이 형성된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동의 자체도 경건한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보여 주는 동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분명한 다른 논증이 또 있습니다. 믿음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끌어안습니다(요 6:29). 그런데 그분은 의와 죄 사함과

화평으로만이 아니라, 성화와 생수의 샘으로도 주어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령의 성화를 함께 붙잡지 않고서는 그분을 바르게 알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더 드러내 놓고 말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영의 성화와 함께가 아니면 알려지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경건한 감정에서 결코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3.[261] 바울이 하는 말, 곧 누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고전 13:2)을 내밀어, 사랑을 빼앗긴 믿음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사도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사도는 바로 앞 장에서 성령의 여러 은사를 논하면서, 그 가운데 각종 방언과 능력과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더 나은 것, 곧 교회의 온몸에 더 많은 열매와 유익이 돌아오는 것을 사모하라고 권했습니다(고전 12:31). 그런 다음 그는 이제 더 좋은 길을 보여 주겠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모든 은사는 그 자체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랑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어졌으니, 거기에 쓰이지 않으면 그 은혜로움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그는 나누어 드는 방법을 쓰는데, 앞에서 열거한 바로 그 은사들을 다른 이름으로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그는 능력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곧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씁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 또는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서, 불경건한 사람도 그것을 지니고 남용할 수 있으니, 방언의 은사나 예언이나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사랑과 떨어져 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오류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낱말은 여러 뜻을 지닌 말(πολύσημον)인데,[262] 그들은 뜻의 차이를 살피지 않고,

261. 원문 파일에는 CO 1:473 쪽 표시가 빠져 있습니다(OCR에서 그 쪽의 쪽머리와 쪽 번호가 사라졌습니다). 이 편의 32–36절 사이에서 그 쪽이 시작됩니다.

262. 원문의 그리스어는 OCR이 깨져 있습니다(“nokwiijfAWy”). 문맥대로 πολύσημον(여러

마치 어디서나 같은 뜻으로 쓰인 것처럼 싸웁니다. 그들이 같은 오류를 변호하려고 끌어오는 야고보의 구절은 다른 곳에서 다루겠습니다.

34. 그런데 암묵적 믿음이라는 꾸며 낸 생각은 참된 믿음을 묻어 버릴 뿐 아니라 아주 무너뜨립니다. 그대가 그대의 생각을 교회에 순종하여 맡기기만 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도 되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 무지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교회가 정해 주는 것은 무엇이든 참된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도 아니고, 캐묻고 알아보는 일을 교회에 떠넘겨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심을 알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생명으로 주어지셨음을 알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을 굴복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이 지식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도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때(롬 10:10), 그는 누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캐묻지도 않은 채 암묵적으로 믿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시적으로 아는 앎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의는 바로 그 앎에 있습니다.

35. 물론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무지 때문에, 우리가 육의 무게를 벗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앞으로도 감추어져 있을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교회와 하나 됨을 지키도록 마음을 굳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핑계 삼아 겸손으로 누그러진 무지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꾸미는 것은 지극히 터무니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지(요 17:3), 교회를 공경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의 이 “감추어 둠”

뜻을 지닌)으로 읽었습니다.

으로 어떤 미궁을 지어 놓았는지 봅니다. 곧 무엇이든 교회라는 이름 아래 떠밀어 넣기만 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아무 분별 없이 그것을 신탁처럼 움켜쥐고, 때로는 가장 괴물 같은 오류들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생각 없는 쉬운 믿음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가장 확실한 낭떠러지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변명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확정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이 그러하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믿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오류 속에서 진리를, 눈멂 속에서 빛을, 무지 속에서 바른 지식을 붙들고 있다고 꾸며 댑니다. 이것들을 논박하느라 더 오래 머물지 않도록, 다만 독자에게 그것들을 우리의 가르침과 견주어 보라고 일러 둡니다. 진리의 밝음 자체가 넉넉히 손쉬운 논박을 저절로 내놓을 것입니다.

36. 믿음의 본성은 약속의 실체에서보다 더 잘, 또는 더 분명하게 밝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자기 고유한 토대로 삼아 기대고 있어서, 그것을 없애면 곧 무너지거나 오히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의를 거기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사도가 자기 논의에 맞추어 내놓은 정의 또는 오히려 묘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히 11:1). 그는 휘포스타시스(ὑπόστασις, 그가 쓰는 낱말입니다)라는 말로, 경건한 정신이 기대어 몸을 맡기는 받침대 같은 것을 뜻합니다. 마치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확실하고 안심하며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다만 누가 휘포스타시스를 신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더 좋아한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더 널리 받아들여진 뜻을 취합니다. 또 그는, 책들이 펴질 마지막 날까지 그것들은 우리 감각으로 깨닫거나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으며, 그동안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는 길은 우리 재주의 모든 역량을 넘어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위로 우리 시선을 뻗치며, 마침내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 소유의 안심은 소망 가운데 놓여 있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울이 쓰듯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며,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롬 8:24).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또는 증명, 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주 옮긴 대로 CO 475 확증(convictio)이라고 부를 때(그리스어로는 엘렝코스[ἔλεγχος]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분명함,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봄, 어두운 것들의 밝음, 없는 것들의 있음, 숨겨진 것들의 드러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들, 곧 우리 구원에 속한 것과 같은 비밀들은 그 자체로, 흔히 말하듯 그 본성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미 이루어지고 채워진 것으로 여길 만큼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보는 데까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을 되사랑하도록 온통 불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쌓아 두신 그 넘치는 달콤함은, 마음을 세차게 움직이지 않고서는 참으로 알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번 움직인 사람은 깊이 당신께로 사로잡아 들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비뚤어지고 굽은 마음에 이 감정이 결코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감정으로 우리는 하늘 자체로 옮겨져 하나님의 가장 깊이 감추어진 보물들에, 또 그분 나라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더러운 마음이 들어가 더럽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스콜라 신학자들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앞선다고 전하는 것은 순전한 헛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낳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다른 것들은 제자리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니, 지금은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넉넉합니다.

37. 그런데 이 믿음이 살아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믿음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떼어 놓을 수 없는 동반자로 데리고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니, 오히려 믿음은 그 소망을 자기에게서 낳아 내보입니다. 소망을 없애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 아무리 말을 잘하고 화려하게 논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앞에서 들었듯이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확신, 곧 그 진리가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도 속일 수도 헛될 수도 없다는 확신이라면, 이 확실성을 품은 사람들은 분명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들의 확신으로는 그 약속들이 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소망이란 믿음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하셨다고 믿은 것들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믿고, 소망은 그분이 때가 되면 당신의 진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믿고, 소망은 그분이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분으로 행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고, 소망은 그것이 언젠가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은 소망이 기대는 토대이고, 소망은 믿음을 기르고 떠받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없듯이, 다시 우리 믿음의 연약함도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참고 소망하며 기다림으로써 떠받쳐지고 길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구원을 소망 안에 바르게 둡니다(롬 8:24). 소망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이 너무 서두르다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들에서 흔들리거나 그 약속들의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하지 않도록 굳세게 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줍니다. 길 한가운데서나 출발선에서부터 주저앉지 않도록, 저 마지막 결승점까지 뻗어 나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믿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되살려서, 믿음이 견인을 향해 거듭 더 힘차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데 소망의 도움이 얼마나 여러 면에서 필요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꼴의 시험에 공격받고 흔들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는 당신의 약속들을 미루셔서, 우리 바람보다 더 오래 우리 마음을 매달아 두실 때가 많습니다. 이때 소망의 직무는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 말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더디 오시더라도 그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합 2:3). 때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시들어 가게 두실 뿐 아니라, 드러내 놓고 노여움을 내보이십니다. 이때에는 소망이 훨씬 더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선지자의 말대로, 야곱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사 8:17). 베드로가 말하듯이 비웃는 자들도 일어나서 묻습니다. "그가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벧후 3:4). 아니, 육과 세상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속삭입니다. 이때 믿음은 소망의 인내로 떠받쳐져, 천 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영원을 바라보는 데에 고정된 채 머물러야 합니다.

38. 이 결합과 가까움 때문에 성경은 때때로 믿음과 소망이라는 낱말을 섞어 씁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이 나타나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고 가르칠 때(벧전 1:5), 그는 소망에 더 잘 어울릴 것을 믿음에 돌립니다. 그것도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소망은 믿음의 양식이요 힘과 다름없다고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롬바르두스가 소망의 토대를 둘로, 곧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의 공로로 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분명합니다. 소망에는 믿음의 과녁과 다른 과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과녁은 오직 하나, 곧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말하자면 두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생생한 이유를 대는지 귀 기울여 들어 볼 만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대가 공로 없이 무엇을 바라기를 감행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주제넘음이라 불려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독자여, 누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신뢰하는 것을 무모하고 주제넘게 하는 짓이라고 선언하는 이런 짐승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심에서 기대하

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 선하심에 기대어 쉬는 것을 주제넘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 미친 떠버리들의 학교에서 태어난, 이런 제자들에게 걸맞은 선생이여!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소망을 품으라는 명을 받는 것을 보므로, 기꺼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그만큼 미리 품읍시다. 곧 오직 그분의 자비만 의지하고, 행위에 대한 신뢰는 내던지고, 좋은 소망을 품기를 감행합시다.

CO 477 [263]

263. 이 쪽 표시 뒤에는 CO 편집자의 판별 절 번호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제6장은 다음 편에서 옮깁니다.

1539–1554년판 · 제6장 사도신경 첫째 부분 해설

1539–1554년판 제6장 사도신경 첫째 부분 해설 1

CO 1:477–49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477 제6장.

사도신경 첫째 부분 해설. 여기서는 믿음의 내용,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심, 만물의 창조를 다룹니다.

1. 믿음의 설명이 복음을 그 과녁으로 삼아 향할 때 믿음의 힘이 가장 환하게 빛난다는 것은 참입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도 믿음이 마땅히 겨냥하도록 무엇이 제시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복음의 요약이 그리스도 안에 모인다고 말했을 때 이것을 지나가며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있는 약속은 무엇이든 그분 안에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눈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훨씬 더 환한 설명을 받을 만하므로, 이제 그것을 다루어 봅시다. “영생은 한 분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 17:3). 그러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에 관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아들 안에서가 아니면 바르게 알려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지만(딤전 6:16), 당신의 빛의 뚜렷한 광채를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살아 있는 형상을 아들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도록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비추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둡니다(고후 4:6). 또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그분을 통해 온 세상에 비추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것은

옳지 않았을 것입니다(요 8:12; 9:5; 12:46). 그러므로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히 1:3)이 참일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고 그 본체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더해야 합니다(요 14:9).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것은 무엇이든 그분 안에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요 3:35; 5:20). 이는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빛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찾는다면,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은 당신을 길이라고 부르실 때(요 14:6) 우리를 이끄는 것이 당신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고, 문이라고 부르실 때(요 10:7) 들어갈 길을 여는 것이 당신의 직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마 11:27; 눅 10:22).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가 이끌려야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도록 일깨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그분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멋지게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과녁을 논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를 지나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권고한 다음, 곧바로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모든 오류를 막는 가장 튼튼한 길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이시고, 사람은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시다. 그런데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2.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지식은 그분을 아버지께서 내어 주시는 그대로, 곧 하늘 보화의 다함 없는 충만함을 지니신 분으로 받아들여, 그분이 우리에게 복과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보고가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큰 재물을 차지하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얻어졌는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 우리 구원에 필요했던 모든 것을 이루고 채우신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 믿음의 과녁으로 정해지고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정해지듯이,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는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 행하시거나 당하신 모든 것이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설명을 온전히 마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는 데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 눈앞에 세워 두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내용이 펼쳐지면, 마치 초상화에서처럼 믿음의 참된 특성이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 노릇을 할 것이 우리에게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구원의 경륜 전체가 몇 마디 말로 하나하나 펼쳐져 있되, 한 조각도 빠뜨리지 않은 것을 봅니다.

3. 그런데 저는 이것을 "사도의" 신경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저자에 관해서는 조금도 마음 쓰지 않습니다. 확실히 옛 저자들은 크게 한마음으로 이것을 사도들에게 돌립니다. 사도들이 함께 써서 내놓았다고 여겼기 때문이든, 아니면 그들의 손으로 전해진 가르침에서 성실하게 모은 이 요약을 그런 칭호로 확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든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것이 처음 어디에서 나왔든, 교회의 맨 처음부터, 아니 사도들의 시대 자체부터 공적이며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신앙고백과 같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데 의심이 없습니다. 또 이것이 아득한 옛날부터 모든 경건한 이들 사이에서 거룩하고 범할 수 없는 권위를 지녔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어떤 한 사람이 사사로이 썼으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직 마음 써야 할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우리는 봅니다. 곧 여기에 우리 믿음의 역사 전체가 간결하고 분명한 차례로 열거되어 있으며, 성경의 굳건한 증언으로 인쳐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저자에 관해 애태우며 수고하거나 누구와 다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확실한 진리를 가진 것으로 넉넉하지 않고, 그것이 누구의

입으로 말해졌는지 또는 누구의 손으로 쓰였는지를 함께 알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CO 479 4. 그러나 신경 자체의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 거기에 역사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역사를 단순히 아는 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더 높은 일들을 깨닫는 데까지 들어 올려지라는 것입니다. 신경은 두 가지 이야기, 곧 보이는 일들과 보이지 않는 일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둘 모두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령, 죄 사함과 같은 것들은 영적인 일들이요 결코 눈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그것에 관해 아무리 확실한 확신을 품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신뢰의 재료를 얻지 않는다면 거의 아무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그저 전능하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성령을 한가한 상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대한 효력 있는 신뢰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나머지 모든 것에도 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저마다 제자리에서 하나하나 풀이해야 하므로, 지금은 맛만 보이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죽으심, 부활, 하늘에 오르심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설명될 때 경건한 마음은 그 바깥 광경에 붙박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사 밑에 지혜가 놓여 있음을 알기에, 그 까닭을 헤아리고 따져 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놓인 과녁은 일어난 일이고, 목적과 까닭은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이어서, 마음은 거기서부터 그것을 바라보는 데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속상의 신뢰를, 부활에서 불멸의 신뢰를 품습니다.

5.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신경의 나눔입니다. 신경의 세 부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묘사하는데, 우리 구속의 비밀 전체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 부분은 우리 구원이 어떤 일들에

놓여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배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아는 지식에 이르려면 먼저 이 세 가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 전체가 이 셋에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더없이 너그러운 선하심과 인류를 향한 한없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죽음에 내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하셨을 때 나타났습니다(요 3:16; 롬 8:32). 둘째는 아들의 순종인데, 이것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완성한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능력인데,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누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빌 때(고후 13:13) 바라본 것도 이것입니다. 좋은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모든 은혜의 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우리에게 내미는 것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회, 죄 사함, 죽은 자들의 부활, 영생에 관한 믿음이 뒤따르는데, 신경의 넷째 부분이 이것들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6. 그런데 사탄은 우리 믿음을 그 뿌리째 뽑으려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적 본질에 관해, 다른 한편으로는 위격의 구별에 관해 언제나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또 거의 모든 시대에 불경건한 영들을 일으켜, 이 대목에서 정통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경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까지 떠들어 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주제에서 신경의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뜻한 것은 배우려는 이들의 손을 잡아 이끄는 것이지, 싸우기 좋아하고 거역하는 자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므로, 저는 지금 아마 이 일의 무게가 요구하는 만큼 갖춘 군대로 그들과 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투기 좋아하지 않는 이들에게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보여 주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악한 자들의 모든 비방에서 진리를 지키

겠습니다. 다만 저의 주된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귀를 열어 놓은 이들이 확실한 발걸음으로 설 자리를 갖게 하는 데 기울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의 숨은 비밀들 가운데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여기서는 절제하고 크게 삼가며 탐구해야 합니다. 또 생각이든 혀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가 뻗친 곳보다 더 나아가지 않도록 크게 조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눈으로 보는 해라는 물체가 어떤 것인지도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한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을 자기 잣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의 본질도 결코 파악하지 못하는 정신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캐내는 데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힐라리우스가 말하듯이, 오직 그분만이 당신 자신에 대한 알맞은 증인이시고,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알려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대로 생각하고, 그분에 관해 그분의 말씀에서가 아니면 다른 데서 캐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크리소스토무스가 아노모이오스파를 반박한 설교 다섯 편이 남아 있습니다.[264] 그러나 그것으로도 궤변가들의 대담함을 막아 그들이 수다에 고삐를 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도 늘 하던 대로 조금도 더 삼가지 않았습니다. 이 무모함이 가장 불행한 결과를 낳은 것을 보고 우리는 경계를 받아, 날카로운 재주보다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이 탐구에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밖의 어디에서 찾거나, 그분의 말씀 없이 그분에 관해 무엇을 생각하거나, 바로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 말하려고 마음먹지 맙시다.

7.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무한하며 영적인 한 본질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선언하므로, 그것을 증명하느라 오래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니교도들이 몇몇 증언을 남용하여 두 원리를 세우려

264. 아노모이오스파(Anomoei)는 아들이 본질에서 아버지와 "같지 않다"(anomoios)고 주장한 4세기 극단적 아리우스파입니다.

감히 시도한 것은 순전한 광기였습니다. CO 481 신인동형론자들도 하나님께 입, 귀, 눈, 손, 발이 자주 돌려진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몸을 가진 분으로 상상했는데, 이들은 너무도 무지하고 거칠어서 걸려 넘어졌습니다.[265] 재주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유모들이 아기들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혀짤배기소리를 하신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말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환히 표현한다기보다, 그분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작은 분량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분의 위엄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묘사로 하나님의 본질을 재는 자들이 몹시 헛소리를 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하며 영적인 본질에 관해 말한 것을 더 긴 논의 없이 인정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8. 그러나 한 신성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은 그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이들의 재주에는 매우 많은 수고와 괴로움을 안겨 줍니다. 그러므로 이 물음을 두 갈래로 나눕시다. 먼저 아들과 성령께 그분들의 신성을 확증하고, 다음에 구별의 방식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두 가지를 확증하는 데 성경의 굳건한 증언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컬어지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을 공중에 내뱉어지는 덧없고 사라져 버리는 소리, 곧 조상들에게 주어진 신탁과 모든 예언이 그러했던 것 같은 소리일 뿐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더없이 어처구니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영원한 지혜가 가리켜지는 것인데, 신탁과 모든 예언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하듯이(벧전 1:11), 옛 선지자들은 사도들이나 그 뒤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한 모든 이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만물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시적인 뜻하심이 아니라 굳고 영원한 뜻이었으며,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언제나 당신 자신과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265. 신인동형론자(Anthropomorphitae)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몸의 모양을 지니셨다고 주장한 고대의 무리입니다.

의 가슴 자체였다는 것을 넉넉히 밝힙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이것이 아직 의심스럽거나 흐릿하다면, 솔로몬이 훨씬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잠 8:22). 그는 지혜가 세상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만물의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관한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요한입니다(요 1:1).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저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말씀께 굳고 항구한 본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칭호로 바르게 불리듯이, 저 본질적인 말씀은 모든 신탁의 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변화도 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9. 그런데도 말씀에게서 신성을 드러내 놓고 빼앗을 엄두는 내지 못하면서, 그 영원성을 몰래 훔쳐 가는 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입을 여셨을 때 비로소 말씀이 있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본체에 어떤 새로워짐을 덧씌움으로써 너무도 생각 없이 하나님의 위엄에 부딪칩니다. 바깥 일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 일이 생겨난 때부터 그분께 돌려지기 시작했지만(그분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당신 자신 안에서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뜻을 담은 이름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므로, 그것은 동시에 그 전에는 그분 안에 아무 말씀도 없었다는 뜻을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어느 정해진 때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전에는 결코 없었다고 결론지어야 합니까? 저는 정반대로 결론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솟아나 나타났으므로, 말씀은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전부터인지 누가 묻는다면, 그는

아무 시작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아버지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처음부터 내가 아버지 곁에서 가졌던 그 영광으로 아들을 빛내소서" (요 17:5) 하고 말씀하실 때, 정해진 어떤 시간의 길이를 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시간 너머로 불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정합니다. 말씀은 시간의 시작 밖에서 하나님께 품어졌고, 언제나 그분 곁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영원성과 참된 본질과 신성이 함께 증명됩니다.

10. 그런데 나머지는 신성을 증명하는 데서 뒤따라 나오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그것을 확증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다만 먼저 아들이라는 이름에 관해 조금 말해 두겠습니다. 아들이 영원한 나심으로 아버지에게서 계셨다고 생각한 옛사람들은 이사야의 증언으로 그것을 보이려 했습니다. "그의 나심을 누가 말하리요" (사 53:8). 그러나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헛짚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지자는 거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낳으셨는지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얼마나 많은 후손으로 늘리실지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어서 시편에서 가져오는 "새벽별 전에 태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도 그리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새벽 태에서 너의 나심의 이슬이 네게 있도다" (시 110:3). 그러므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논거는 사도의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가르치는데, 그때 이미 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거도 무게가 적다는 것이 비슷한 말투들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할 때(고전 10:9), 누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때로 끌어가려 한다 해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본디 인성에 속한 뜻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계셨고 오늘 계시며 영원히 계실 것이다" (히 13:8)

하고 말할 때, 누가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언제나 그분께 맞았다고 우긴다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참뜻으로 받으면 우리 주장에 전혀 또는 거의 쓸모가 없는 증언들을 이렇게 비틀어서, 경건(religion)의 거룩하고 정통적인 교리를 이단자들의 트집에 내어놓는 것 말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CO 483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성에 관해 양심을 굳게 하는 데는, 저에게는 이 한 가지 논거가 언제나 천 가지 논거 노릇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독생자가 사이에 서지 않으시면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독생자만이 이 특권을 정당하게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며, 그분의 은택으로 그 특권이 우리에게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이미 아들이 계셨고, 그분을 통해 이 가까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1. 이제 그분의 신성을 확증하는 데로 내려갑시다. 이것은 두 가지 증명으로 굳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의 분명한 말씀으로 뚜렷하게 하나님이시라고 주장되며, 또 그 행사의 능력으로 그런 분이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그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곧은 홀이니이다"(시 45:6).[266] 여기서 불경건한 자는 아마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천사들과 권세들에게도 돌려진다고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성경 어디에도 피조물에게 이렇게 영원한 보좌를 세워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하나님이라고 불리실 뿐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라고도 불리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칭호는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질 때는 언제나 덧붙인 말과 함께 주어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해진 것과 같습니다(출 4:16). 그러므로 경건한 귀는 여기서 참 하나님 말고는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분명해집니다.

266. 원문에는 "시편 45편 7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인성 안에서 우리에게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성 안에서 그분은 종의 형체를 지니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선지자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직 한 하나님께만 속한 능력으로 꾸민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를 이름은 이것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오는 세대의 아버지라"(사 9:6). 유대인들이 여기서 짖어 대며 이 구절을 이렇게 뒤집어 읽을 까닭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를 부르실 이름은 이것이다." 그러고는 아들에게는 평강의 왕이라는 이것 하나만 남겨 두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뜻이 오히려 뚜렷한 표지들로 그리스도를 꾸미는 데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토록 많은 칭호를 하나님께 쌓아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말씀보다 더 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으키신 다윗의 저 가지가 불릴 이름은 이것이니, 곧 여호와 우리의 의라"(렘 23:6).[267] 유대인들 자신도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은 모두 칭호일 뿐이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이 그분의 본질을 나타내는 실체의 이름이라고 스스로 떠들어 가르치므로, 우리는 아들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분은 다른 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사 42:8). 물론 여기서 유대인들의 교활함은 숨을 곳을 찾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쌓은 제단에 이 이름을 붙였고, 에스겔도 새 예루살렘 성읍에 이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념하려고 쌓은 것이며, 성읍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표제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주께서 거기 계시다 하리라"(겔 48:35). 모세는 이렇게 말합

267. 원문에는 장만 있고 절 표시가 빠져 있어, 23장 6절로 채웠습니다.

니다.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높임이라 하였다”(출 17:15). 그렇다면 앞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주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 말고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또 뒤의 말씀은 주께서 모세의 높임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모세가 그 일의 증거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 말고 무엇을 울려 냅니까? 그러나 더 큰 싸움은 같은 선지자의 33장(렘 33:16)에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이 칭호가 이런 말로 예루살렘에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릴 이름은 이것이니, 곧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 증언은 우리가 다루는 진리의 주장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뒷받침합니다. 예레미야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참 여호와이시며 그분에게서 우리의 의가 흘러나온다고 증언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참으로 깨달아 그 이름 자체로 자랑할 수 있게 되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2. 그런데 신약에는 셀 수 없는 증언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쌓아 올리기보다 몇 가지를 간단히 골라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달리 눈여겨볼 만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해 예언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타났거나 장차 나타나리라고 사도들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주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림돌과 부딪치는 바위가 되시리라고 예언합니다(사 8:14).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롬 9:32).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저 만군의 주이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한 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내게 맹세하리라 하였습니다”(롬 14:10–11).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것을 당신에 관해 선언하시고(사 45:23),[268]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실제로 당신 안에서 보이시므로,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분의 영광은 다른 데로 옮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시편에

268. 원문에는 “이사야 46장 24절”로 되어 있으나,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 23절에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서 인용하는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셨다”(엡 4:8)는 말씀도 오직 하나님께만 맞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거슬러 뚜렷한 승리를 거두시며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을 때 그런 오르심이 그림자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히 나타났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계시된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었다고 증언합니다(요 12:41; 사 6:1). 그러나 선지자 자신은 자기가 본 것이 하나님의 위엄이었다고 적습니다. 또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아들에게 돌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환한 칭호라는 것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의 기초를 두셨나이다” 등(히 1:10). 또 “그의 모든 천사들아, 그에게 경배하라”(히 1:6). 그러나 그가 이 말씀들을 그리스도께 끌어 쓸 때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시편들에서 노래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 혼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CO 485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고, 모든 민족과 섬들에 대한 다스림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신 분도 그분이셨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이셨다고 머리말을 쓴 요한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스도께 돌리기를 머뭇거렸겠습니까(요 1:14)?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여(롬 9:5) 그토록 드러내 놓고 그분의 신성을 선포한 바울이, 무엇이 두려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히기를 꺼렸겠습니까(고후 5:10)? 또 그가 이 대목에서 자기 자신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보이려는 듯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씁니다(딤전 3:16). 그분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면, 같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오직 그분께만 돌려져야 한다고 단언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딤전 1:17). 참으로 그는 이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놓고 외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이셨다 해도 그것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을 것이나,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빌

2:6). 또 불경건한 자들이 그분을 무슨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떠들지 못하도록, 요한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요일 5:20). 하기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불리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넉넉하고도 남아야 합니다. 특히 신들이 여럿이 아니라 한 분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단언하는 증인이 그렇게 부를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바울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고전 8:5–6).[269] 우리가 같은 입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말(행 20:28)을 듣는데, 그가 결코 인정하지 않는 둘째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상상하겠습니까? 모든 경건한 이들의 생각이 이와 같았다는 데 조금도 의심이 없다면, 도마도 그분을 자기의 주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내 놓고 고백함으로써(요 20:28), 그분이 자기가 언제나 경배해 온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이 확실합니다.

13. 이제 성경에서 그분께 돌리는 행사로 그분의 신성을 헤아린다면, 그것은 거기서 한층 더 뚜렷이 빛날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요 5:17), 그분의 다른 말씀에는 더없이 둔했던 유대인들도 그분이 신적 권능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대로, 그들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시며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신다고 해서 더욱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분의 신성이 분명히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둔함은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사도가 그분께 돌리는 것처럼(히 1:3),[270] 섭리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당신 능력의 뜻하심으로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

269. 원문에는 장만 있고 절 표시가 빠져 있어, 8장 5–6절로 채웠습니다.
270. 원문에는 장만 있고 절 표시가 빠져 있어, 1장 3절로 채웠습니다.

리는 직무만 아버지와 함께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는 나누어 줄 수 없는 다른 개별 직무들도 함께 나누십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외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사 43:25). 이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모욕이 가해진다고 여겼는데(마 9:6), 그분은 이 권세가 당신께 있다고 말씀으로 주장하셨을 뿐 아니라 기적으로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베푸는 일의 섬김이 아니라 그 권세가 그분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는 그 권세가 당신에게서 다른 이에게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음의 잠잠한 생각을 살피고 꿰뚫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지니셨습니다(마 9:4; 요 2:25). 여기서 그분의 신성이 증명됩니다.

14. 그런데 기적들에서는 그 신성이 얼마나 뚜렷하고 환하게 드러납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그와 같고 비슷한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의 섬김으로 나누어 주었지만, 그분은 당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때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시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요 11:41).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분 자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또 당신의 권위로 기적 베푸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신 분이, 어떻게 기적의 참 장본인이 아니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 기자는 그분이 사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마 10:8; 막 3:15; 6:7). 그런데 그들은 이 섬김을 수행하되,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가 아니면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넉넉히 보이는 방식으로 수행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꺾으시려고 당신의 기적들을 내세우셨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요 5:36; 10:37; 14:11).

그 기적들은 그분의 능력으로 행해졌으므로 그분의 신성에 대한 더없이 풍성한 증언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밖에서는 구원도, 의도, 생명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 안에 지니고 계시다면,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누구도 생명이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그분께로 흘러들었다고 저에게 반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친히 구원이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선하고 의롭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하심과 의 그 자체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복음서 기자가 증언하듯이(요 1:4) 창조의 첫 시작부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때 이미 생명으로 계시던 그분이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15.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신적 위엄에 대한 이런 증거들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담대히 그분께 두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의 신뢰든 피조물에 붙어 있다면 그것은 신성을 더럽히는 불경건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으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합니다(요 14:1).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예수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갈 2:16). CO 487 또 바울은 이사야의 두 곳을 이렇게 풀이합니다(사 28:16; 11:10을 롬 10:11; 15:12와 견주어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곳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일어나실 이가 있으리니, 이방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요 6:47) 하는 말씀이나 "그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라"(요일 3:23) 하는 말씀이나 그와 비슷한 곳들에서 이 문장이 그토록 자주 주장되는데, 이 일에 관해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증언을 좇겠습니까? 이제 믿음에 달린 기도로 부르는 일도 그분께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신적 위엄에 고유하다면, 이 부르는 일이야말

로 신적 위엄에 고유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욜 2:32). 다른 이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가장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보호를 받느니라”(잠 18:10). 그런데 구원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스데반에게서 부르는 일의 본보기를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행 7:59). 또 온 교회에서 그 본보기를 봅니다. 같은 책에서 아나니아가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행 9:13). 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골 2:9)이 더 분명히 알려지도록,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아는 지식 말고는 다른 아무 가르침도 내세우지 않았고 그분 말고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고전 2:2). 주께서 오직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만 자랑하라고 명하시는(렘 9:24)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들의 이름만 전해진다는 것이, 묻건대 어떤 일이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데, 누가 감히 그분을 순전한 피조물이라고 떠벌리겠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사도들은 자기 서신들 첫머리에 어떤 엄숙한 격식으로 붙이곤 하는 문안 인사에서, 아버지께 비는 것과 같은 은택을 아들에게도 빕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아들이 사이에 서시고 중보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른다는 것을 밝힐 뿐 아니라, 권능을 함께 지니심도 가리킵니다. 이 실천적 지식은 어떤 한가한 사변보다 틀림없이 더 확실하고 더 굳건합니다. 경건한 영혼은 거기서 자기가 살리심을 받고, 비추심을 받고, 보존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심을 보고 거의 손으로 만지기 때문입니다.

16. 그러므로 성령의 신성을 확증하는 데도 무엇보다 같은 샘에서 증명을

길어 와야 합니다. 성경이 그분께 돌리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경건의 확실한 경험으로 배우는 것은 피조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퍼져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경계에도 갇히지 않으신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분은 이미 피조물의 수에서 빠지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활력을 모든 것에 부어 주셔서 그것들에게 본질과 생명과 움직임을 불어넣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분명히 신적인 일입니다. 다음으로, 썩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이 지금의 어떤 생장보다 높고 훨씬 뛰어나다면, 그 중생이 그 능력에서 나오는 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분이 빌린 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힘으로 중생의 장본인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중생뿐 아니라 장차 올 불멸의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에 가장 고유한 직무들이 아들에게처럼 그분께 모두 돌려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살피시는데(고전 2:10, 16), 그분께는 피조물 가운데 아무 모사도 없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말하는 능력을 주십니다(고전 12:8–10).[271] 그러나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오직 당신만의 일이라고 선언하십니다(출 4:11).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참여하는 데 이르러, 그분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향해 살리는 능력임을 느낍니다. 우리의 칭의는 그분의 일입니다. 권능과 성화와 진리와 은혜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종류의 은사가 흘러나오는 영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고전 12:11). 또 성경은 그분에 관해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삼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결론짓기 때문입니다(고전 3:16–17; 6:19; 고후 6:16).[272]

271. 원문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되어 있으나, 지혜의 말씀은 8절에 나오므로 8–10절로 적었습니다.

272. 원문에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 6장 16절"로 되어 있으나,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3장 16–17절과 6장 19절로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과 장막으로 택하시겠다고 그토록 자주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아우구스티누스가 훌륭하게 말하듯이, 만일 우리가 나무와 돌로 성령께 성전을 지어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땅하므로, 그것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분명한 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분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분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분명한 논거입니까? 사도 자신도 같은 뜻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어떤 때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씁니다. 또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고 꾸짖으면서, 그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했습니다(행 5:4). 또 이사야가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소개하는 곳에서(사 6:9), 바울은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가르칩니다(행 28:25). 주께서 백성의 완고함 때문에 진노가 일어나셨다고 탄식하시는 곳에서, 이사야는 그 대신 그들이 그분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씁니다(사 5:25를 63:10과 견주어 보십시오).

17. 이제 끝을 맺기 위해, 아들과 성령의 신성을 확증하는 데 우리가 덧붙일 논거 하나면 넉넉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건에 입문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므로(마 28:19),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 계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CO 489 바울은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 이 셋을 이렇게 이어서(엡 4:5),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추론합니다. 곧 믿음이 하나이므로 거기서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보이고, 세례가 하나이므로 거기서 믿음도 하나임을 보입니다. 믿음은 이리저리 둘러보거나 여러 가지로 흩어져 다녀서는 안 되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향하며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므로, 믿음의 종류가 여럿이라면 신들도 여럿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쉽게 세워집니다. 이제 세례는 믿음의 성례이므로, 그것이 하나라는 데서 믿음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여기서 또한 한 하나님 안으로가 아니면 세례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분에 대한 믿음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실 때, 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어야 한다는 것 말고 무엇을 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럿이 아니라는 것이 굳게 서 있으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정합니다. 참으로 아리우스파는 몹시 어리석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신성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본체를 빼앗았습니다. 마케도니우스파도 이와 다르지 않은 광기에 시달렸습니다.[273] 그들은 성령이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부어진 은혜의 선물만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지혜, 총명, 명철, 용기, 주를 경외함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그분 자신이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경건의 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말하듯이, 그분은 은사들의 나누어 주심에 따라 나뉘지 않으십니다. 은사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로 나뉘어도 그분은 여전히 같은 한 분으로 계십니다(고전 12:11).

18.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아버지와 말씀 사이, 말씀과 성령 사이의 어떤 구별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져 볼 때 얼마나 큰 경외와 절제로 다루어야 하는지, 비밀 자체의 크기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저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이 말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οὐ φθάνω τὸ ἓν νοῆσαι, καὶ τοῖς τρισὶ περιλάμπομαι· οὐ φθάνω τὰ τρία

273. 마케도니우스파(Macedoniani)는 4세기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 마케도니우스의 이름을 딴 무리로, 성령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διελεῖν, καὶ εἰς τὸ ἓν ἀναφέρομαι.” 곧 “나는 하나를 생각하자마자 곧 셋의 광채에 둘러싸이고, 셋을 구별하자마자 곧 하나로 되돌려진다.”[274]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따로따로 흩어 붙들어 두고 곧 저 하나됨으로 되돌리지 않는 그런 위격들의 삼위를 상상하려고 마음먹지 맙시다. 확실히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이름은 참된 구별을 넌지시 보여 줍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일컬어지는 칭호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별이지 나뉨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아들을 짝 또는 가까운 이라고 부르실 때(슥 13:7), 아들과 구별되는 당신의 고유성을 보이십니다.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과 아무 혈연도 없듯이, 어떤 구별의 표시가 없다면 그분이 당신 자신에게 짝이나 친족이라고 일컬어지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아들은 당신에 대해 증언하시는 이가 다른 분이시라고 말씀하실 때(요 5:32; 8:16 등), 아버지를 당신과 구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도 이것을 향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식으로든 말씀과 구별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도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또 이 구별은 육신을 취하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독생자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요 1:18). 아들이 인성을 취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셨다고 누가 감히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그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아버지 곁에서 당신의 영광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성령이 아버지와 구별되심을 넌지시 보이시고, 성령을 다른 이라고 부르

274. CO 편집자 각주에는 출전이 「거룩한 세례에 관한 설교」(In sermone de sacro baptismate)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의 그리스어는 OCR이 크게 깨져 있어, 바로 뒤의 라틴어 번역에 맞추어 그레고리우스의 글로 읽었습니다.

실 때마다 당신과 구별되심을 보이십니다(요 14:16; 15:26). 당신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알리실 때와 다른 곳에서 더 자주 그러십니다.

19. 그런데 구별의 힘을 표현하려고 사람의 일에서 비유를 빌려 오는 것이 유익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사람들이 때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비슷한 것으로 내놓는 것이 무엇이든 매우 많이 다르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모든 대담함을 몹시 꺼립니다. 무엇을 때에 맞지 않게 내놓았다가 악한 자들에게는 비방의 빌미를, 무지한 이들에게는 헛짚을 빌미를 줄까 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표시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구별은 잠잠히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는 일하심의 시작과 만물의 근원과 샘이 돌려지고, 아들께는 지혜와 계획과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 자체가 돌려지며, 성령께는 일하심의 능력과 효력이 돌려집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영원성은 아들과 성령의 영원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 없이 계신 적이 결코 있을 수 없었고, 영원 안에서는 앞서고 뒤서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아버지를 들고, 다음에 그 분에게서 아들을, 그다음에 두 분에게서 성령을 드는 차례를 지키는 것이 헛되거나 쓸데없지 않습니다. 누구의 마음이든 저절로 이렇게 기울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음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당신 계획의 작정을 이루시는 능력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오신다고 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함께 나오신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로마서 8장보다 더 분명한 곳은 없습니다. 거기서는(롬 8:9) 같은 영이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으로 가리지 않고 불립니다.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힘입은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었다고 증언하는데(벧후 1:21), 성경은 그토록 자주 그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20. 더 나아가 이 구별은 하나님의 더없이 단일한 하나됨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서 아들이 아버지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과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275]

275. 이 문장의 끝부분("...esse a patre et filio diversum, quia patris et filii sit spiritus")은 원문에서 다음 편(CO 1:491) 첫머리에 이어집니다. 문장이 끊기지 않도록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6장 사도신경 첫째 부분 해설 2

CO 1:491–50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491 [276]각 위격(hypostasis) 안에 온전한 본성이 있다고 이해되며, 다만 각 위격에게 그 고유성이 있다는 것이 덧붙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온전히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온전히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아들께서 친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하고 주장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교회의 저자들은 어떤 본질의 차이로 한 분을 다른 분에게서 떼어 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구별을 나타내는 이 이름들로써 뜻하는 것은, 그분들이 서로에게 관계된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하나이신 그 본체 자체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옛사람들의 말들을 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들은 얼마간 서로 부딪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때는 아버지가 아들의 근원이시라고 전하고, 어떤 때는 아들이 신성과 본질을 당신 자신에게서 가지신다고, 그리하여 아버지와 함께 한 근원이시라고 단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까닭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곳에서 훌륭하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 불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이라 불린다. 또 아버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 불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라 불린다. 아들에 대해 아버지라 불리는 분은 아들이 아니며, 아버지에 대해 아들이라 불리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아버지라 불리는 분과 자기 자신에 대해 아들이라 불리는 분은 같은

276.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아들에 관해 단순히 말할 때에는, 그분이 당신 자신에게서 계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며, 그래서 그분을 유일한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와 맺고 계신 관계를 가리킬 때에는, 아버지를 아들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사벨리우스파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불리시는 것이, 그분이 강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다른 까닭이 아니라고 트집을 잡습니다.[277]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쉽게 논박됩니다. 뒤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분이신지 보여 주는 칭호들이지만, 앞의 것들은 그분이 당신 자신 안에서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밝혀 주는 이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이 온전히 영이라고 불리시므로(요 4:24)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과 뒤섞어야 한다고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온전히 영적이시면서 그 본질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듣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오신다고 하는 말씀도 듣기 때문입니다.

21. 다투기 좋아하거나 고집 센 사람이 아니면 보는 것이고, 가장 완고한 자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더없이 단일한 본질 안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씀 곧 아들과 성령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셋이 일컬어지고, 셋이 묘사되고, 셋이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이시면서 셋이십니다. 한 하나님, 한 본질이십니다. 무엇이 셋입니까? 세 신도 아니고 세 본질도 아

277. 사벨리우스(Sabellius)는 3세기 초 로마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한 하나님이 차례로 나타나시는 양태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을 사벨리우스파라고 합니다.

닙니다. 정통적인 옛사람들은 이 둘을 모두 나타내려고, 한 우시아(οὐσία)와 세 휘포스타시스(ὑποστάσεις)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한 본체와, 그 한 본체 안의 세 실재(subsistentia)입니다. 라틴 사람들은 모든 점에서 뜻으로는 일치하면서도, 두 이름 가운데 하나만 그대로 옮기고 다른 하나는 얼마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한 본질(이 이름은 저 그리스어에 맞습니다)과 세 위격(persona)이라고 말했는데, 이로써 어떤 관계를 가리키려 했습니다. 이단자들은 짖어 댑니다. 또 악하지는 않으나 몹시 순진한 어떤 사람들도 투덜거립니다. 우시아, 휘포스타시스, 본질, 위격 같은 말은 사람의 생각대로 지어낸 이름들이요, 성경 어디에서도 읽거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하나님이신 분들이 셋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서 떨어 버릴 수 없는데, 성경이 증언하고 인쳐 둔 것 말고 다른 것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 말들을 물리치는 이 까다로움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말까지도 성경의 경계 안에 두는 것이, 다툼과 말싸움의 씨앗이 될 낯선 말들을 퍼뜨리는 것보다 낫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싸움으로 힘이 빠지고, 다투다가 진리를 잃고, 미움 섞인 싸움으로 사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에서 그만큼의 음절로 짜인 꼴로 보일 수 없는 말을 낯선 말이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부당한 법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는 성경의 문맥을 그대로 꿰매어 만들지 않은 모든 설교가 정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낯선 말이 호기심으로 꾸며 내어 미신적으로 고집하는 것, 덕을 세우기보다 다툼에 쓰이는 것, 때에 맞지 않게 또는 아무 열매 없이 쓰는 것, 그 거칢으로 경건한 귀를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함에서 떼어 놓는 것이라면, 저는 그들의 절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것 못지않은 경외심으로 그분에 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리석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싱겁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도는 지켜야 합니다. 생각하는 데나 말하는 데나 성경에서 확실한 규칙을 구해야 하고, 이 먹줄에 마음의 모든 생각과 입의 모든 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이해력에 얽히고 막혀 있는 것들을 더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는 것을 무엇이 막겠습니까? 다만 그 말들은 경건하고 신실하게 성경 자체의 진리를 섬기고, 아껴서 삼가며 쓰고, 계기 없이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의 본보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삼위일체와 위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큰 필요에 몰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누가 말의 새로움을 나무란다면, 그는 진리의 빛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판단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무라는 것은 오직 진리가 평이하고 환하게 되었다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22. 그런데 이런 말의 새로움은(그렇게 불러야 한다면) 무엇보다 진리를 핑계 대며 빠져나가는 비방자들에 맞서 진리를 지켜야 할 때 생깁니다. CO 493 오늘 우리는 이것을 넘치도록 겪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원수들을 쳐부수는 데 매우 큰 수고를 합니다. 저 미끄러운 뱀들은 세게 눌러 붙잡고 몰아붙이지 않으면 그토록 비스듬하고 구불구불한 몸놀림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옛사람들도 악한 교리들과의 여러 싸움에 시달려, 자기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풀어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에게 비스듬한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의 덮개가 오류의 숨을 곳이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한 성경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278] 그리고 마치 할 일을 다 한 듯이 다른 이들과 어떤 일치가 있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지음을 받으셨고 다른 피조물처럼 시작이 있으셨다고 떠벌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사람의 휘어지는 교활함을

278. 아리우스(Arius, 336년 죽음)는 알렉산드리아의 장로로, 아들이 지음받은 존재이며 시작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그를 정죄했습니다.

숨을 곳에서 끌어내려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아리우스파의 불경건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이 호모우시오스(ὁμοούσιος)라는 이름을 지독히 미워하고 저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더라면, 그분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올바른 사람들이 작은 낱말 하나 때문에 그토록 뜨겁게 논쟁하여 교회의 평온을 어지럽혔다고 해서, 누가 감히 그들을 싸움꾼이요 다투기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몰아세우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낱말이 순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과 신성을 더럽히는 아리우스파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뒤에 사벨리우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름이 헛된 것이며, 어떤 구별 때문에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로 다른 속성들일 뿐이고, 그런 속성은 아주 많다고 논했습니다. 논쟁에 이르면 그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강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다고 부른 것과 다른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노래를 되풀이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시고 성령이 아버지시며, 아무 차례도 아무 구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건을 마음에 두었던 이들은 이 사람의 악함을 꺾으려고, 한 하나님 안에 세 고유성을 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진리로 구불구불한 교활함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고,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참으로 실재하신다, 또는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위격들의 삼위가 실재한다고 단언했습니다.

23. 그러므로 이 이름들이 함부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물리침으로써 우리가 무모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이 이름들이 묻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믿음,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이 아버지이신 것도 아니고 성령이 아들이신 것도 아니며 어떤 고유성으로 구별되신다는 믿음이 모든 사람 사이에 굳게 서 있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사도에게도 휘포스타시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히 1:3).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그는 옛사람들이 쓴 것과 같은 뜻으로 이 말을 씁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휘포스타시스의 형상(character)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자리의 휘포스타시스를 본질로 풀이하는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도장이 찍힌 밀랍처럼 아버지의 본체를 당신 안에 나타내신다는 듯이 말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서신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고유성으로 구별되시지만, 그러면서도 당신 자신을 온전히 아들 안에 나타내셔서, 아버지의 휘포스타시스 자체도 아들 안에서 빛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전체를 한 부분이나 흘러나온 것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게 당신 안에 지니신 분을 아버지 본질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24. 그러나 저는 맨 낱말들 때문에 칼을 들고 싸울 만큼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이 다른 점에서는 이런 일들에 관해 큰 경외심으로 말하면서도, 서로 간에나 저마다 자기 자신과도 어디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힐라리우스는 공의회들이 쓴 어떤 말투들을 변호해야 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때로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뛰쳐나갑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라틴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이 달라짐의 본보기는 하나로 넉넉할 것입니다. 라틴 사람들은 호모우시오스라는 이름을 옮기려 할 때 "동일 본체의"(consubstantialis)라고 말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본체가 하나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본체라는 말을 본질 대신 썼습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도 다마수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 안에 세 본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279] 그런데 힐라리우스에게서는 하나님 안에 세 본체가 있다는 말을 백 번도 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히에로니무스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낱말에서 얼마나 당황합니까? 하나님 안에 세 휘포스타시스가 있다고 일컬을 때 그는 그 밑에 독이 숨어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경건한 뜻으로 이 말을 쓰더라도, 그것이 맞지 않는 말투라는 것을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또 소크라테스가 『삼부사』(Historia tripartita) 제6권에서 이 낱말에 관해 쓴 것도, 마치 이 말이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이 일에 잘못 끌어다 쓰였다는 듯한 쪽으로 기웁니다.[280] 더구나 같은 힐라리우스는, 마음의 경외 안에 간직되어야 했을 것을 이단자들의 악함 때문에 사람의 말이라는 위험에 내맡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그들을 크게 탓합니다. 그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감히 하는 것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그는 새 이름들을 감히 내놓는 것을 여러 말로 변명합니다. 그는 본성의 이름들, 곧 아버지, 아들, 성령을 내놓은 뒤에, 그 너머에서 찾는 것은 무엇이든 말의 뜻 밖에, 감각의 지향 밖에, 이해의 개념 밖에 있다고 덧붙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갈리아의 감독들이 복되다고 칭송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시대부터 모든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저 옛적의 더없이 단순한 신앙고백 말고는 다른 신앙고백을 지어내지도, 받아들이지도, 아예 알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25. 이 거룩한 사람의 겸손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어낸 말에 맹세하려 하지 않는 이들을, 마치 감찰관의 붓을 든 듯이 자신 있게 곧바로 낙인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큰 필요에 몰려 이렇게 말하는지를 가르치고, 마침내 차츰 익숙해지게 해야 합니다. 또 부드럽게 권고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리우스파를, 다른

279. 다마수스(Damasus, 384년 죽음)는 로마의 감독입니다.
280. 소크라테스(Socrates Scholasticus, 5세기)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교회사가입니다. 『삼부사』는 그와 소조메누스, 테오도레투스의 교회사를 6세기에 카시오도루스가 라틴어로 엮은 책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벨리우스파를 막아 그 둘 모두에게서 빠져나갈 빌미를 잘라내야 할 때, 그들이 그것을 언짢아하다가 자기가 아리우스의 제자이거나 사벨리우스의 제자라는 얼마간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O 495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음을 받으셨고 시작이 있으셨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무리의 귀에 몰래, 다른 신자들처럼 연합되어 하나이실 뿐이고 다만 남다른 특권을 지니셨다고 속삭입니다. "동일 본질" 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둔갑쟁이의 가면을 벗기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도 성경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벨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아무것도 뜻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셋이 계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그대가 세 신을 부른다고 고함칠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위격들의 삼위가 계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헛된 수다를 막은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들이 몹시 근심스러운 미신에 얽매여 이 이름들을 견디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라는 말을 들을 때는 본체의 하나됨을 알아들어야 하고, "셋" 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 한 본질 안에 있는 고유성들의 삼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비록 터져 버린다 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속임 없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말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신경을 단순하게 풀이하는 데로 넘어가야 합니다.

신경의 첫째 부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26. 여기서 먼저 말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믿는다" 또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는 것은,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붙어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어법에서 가져온 말투입니다. 히브리어는 라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께 믿음을 둔다"고 말하는 것 대신 "하나님 안으로 믿는다" 또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는 말을 씁니다. 다만 이 말이 얼마간 더 힘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경건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거꾸로 그분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합 1:12).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동시에 생명과 구원을 그분 안에 두고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를 굳게 하려고 아버지라는 칭호가 덧붙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품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거기서 이름을 얻게 하십니다(엡 3:15).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로 오르는 동시에 그분을 아버지로 붙잡습니다. 믿음은 그토록 큰 선의 나누어 주심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 아들 없이는 그분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자녀이고, 자녀라면 상속자입니다(고후 6:18; 롬 8:17).

27. 우리는 그분께 전능하심을 돌리되, 궤변가들이 꾸며 내는 것처럼 헛되고 잠들어 있고 한가한 전능이 아니라, 깨어 있고 효력 있고 일하는 전능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동안 쉬고 앉아만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붙들려 있고, 그분의 섭리로 하늘과 땅이 다스려지며, 그분의 계획과 뜻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경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시고(시 115:3), 아무것도 그분의 돌보심과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분의 뜻과 능력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가볍게 건드리기만 했습니다. 더 넓게 다루는 것은 다른 자리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에서 두 가지 위로로 무장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팔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행하고 경영하는 데까지 뻗치고, 하늘과 땅이 그분의 소유이며, 모든 피조물이 경건한 이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그분의 뜻하심을 바라보므로, 선을 베푸실 넉넉한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믿음이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디에서 오든 두려워할 만한 모든 해가 그분의 뜻 아래 놓여 있고, 사탄이 그 모든 꾀와 함께, 그리고 어디에서든 우리 구원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고삐로 묶이듯 그분의 명령으로 억눌려 있으므로, 그분의 보호 안에 넉넉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 본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28.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이름 아래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만물의 창조주라고 일컬어지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니케아 신경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불리십니다. 이것은 마니교도들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그들은 두 원리, 곧 하나님과 마귀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들의 창조는 하나님께 돌리고, 악한 본성들은 마귀를 장본인으로 삼았습니다. 이 오류는 성경 어디에서나 정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놓고 깎아내리므로, 공동의 신앙고백 문구에서 물리치고 논박해야 했습니다. 마니교도들이 가진 유일한 기초, 곧 어떤 악한 것의 창조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은 정통 경건(religion)과 몹시 부딪칩니다. 정통 경건은 온 세상에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악함이든 마귀의 악함이든, 또 거기서 생겨나는 죄들이든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의의 표본을 나타내시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영원성과 아우투시아(αὐτουσία), 곧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스스로 있음보다 하나님께 더 고유한 것은 없으니, 이것을 마귀에게 돌리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마귀를 신성의 칭호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까? 또 마귀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거스르셔도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낸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이들이 몸서리쳐야 할 그 광기를 신경 첫머리에서 곧바로 논박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CO 497 29.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에 담긴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들도 같은 반열에 있습니다. 순종으로 자기의 온전함에 머문 영들도, 배반으로 멸망에 떨어진 영들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행사들 가운데 그들에 관해 이름을 들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이해력보다 높은 모든 것을 지나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말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쉬운 말로 우리의 무지에 자기를 맞춘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무엇보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참으로 열매 있는 것들, 곧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낳거나 자라게 하거나 굳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데 힘쓰십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데 별 무게가 없는 것들은 아주 잠잠히 넘어가시거나, 적어도 가볍게 지나가며 건드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의 증언을 따져 물을 때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지 않고, 저 창조의 역사에서 한 음절 한 음절 열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고집스럽게 부인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30.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이므로, 그들도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참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들이 창조된 때나 차례를 두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부지런함이라기보다 고집이 아닙니까? 모세는 땅이 이루어지고 하늘들과 그 모든 군대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창 2:1). 저 하늘의 군대가 며칠째에 있기 시작했는지 애태우며 캐물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religion)의 가르침 전체에서처럼 겸손과 절제의 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곧 숨은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 말고 다른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알려고 하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덕을 세우는 데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묵상하는 데 머물고, 호기심이나 쓸모없는 일들에 대한 열심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는 우리를 하찮은 물음들로가 아니라 굳건한 경건과 당신 이름을 경외함과 참된 신뢰와 거룩함의 의무들로 가르치기를 원하셨으므로, 그 지식에 만족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한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천사들의 본성과 계급과 수에 관해 전하는 저 헛된 말(ματαιολογία)은 버려야 합니다.[281] 저는 많은 이들이 이런 것을 더 탐내어 붙잡고, 날마다 쓰는 것들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싫지 않다면, 그분이 정해 주신 방법을 따르는 것도 싫어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만족하여, 그분이 우리를 불러 돌이키시는 쓸데없는 사변을 삼갈 뿐 아니라 몸서리치게 될 것입니다. 저 디오니시우스가 누구였든, 그가 『천상의 위계』에서 많은 것을 섬세하고 날카롭게 논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282] 그러나 누가 더 가까이 살펴본다면, 그 대부분이 순전한 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의 목적은 수다로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고 유익한 것을 가르쳐 양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그대는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사람이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본 것을 전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 너머로 이끌려 올라갔던 바울은 그런 것을 하나도 전하지 않았을 뿐

281. [원문의심] 원문의 그리스어는 OCR이 깨져 있습니다("laxauifAoia"). 문맥과 글자꼴을 따라 ματαιολογία(헛된 말)로 읽었습니다.

282. 디오니시우스는 사도행전 17장 34절의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의 이름으로 5–6세기에 나온 글들의 저자입니다. 『천상의 위계』(Caelestis hierarchia)는 천사들의 아홉 계급을 논한 책입니다.

아니라, 자기가 본 비밀을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증언하기까지 했습니다(고후 12:2–4).[283] 그러므로 저 하찮은 지혜는 떠나보내고, 주께서 당신의 천사들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는지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살펴봅시다.

31. 천사들이 하늘의 영들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작정하신 모든 것을 수행하시려고 그들의 섬김과 순종을 쓰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이름도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를테면 사자(使者)로 쓰셔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꾸미는 다른 호칭들도 비슷한 까닭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군대라고 불립니다. 호위병들이 자기 왕을 둘러싸듯이 그들도 그분의 위엄을 꾸미고 드러내며, 병사들처럼 늘 자기 장수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을 받들 준비를 갖추고 채비하고 있어서, 그분이 고갯짓을 하시자마자 일에 나서거나, 아니 오히려 이미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위엄을 밝히려고 하나님의 보좌의 이런 모습을 묘사하지만, 특히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오르셨을 때 천천과 만만이 섰다고 말합니다(단 7:10). 또 주께서 그들을 통해 당신 손의 힘과 강함을 놀랍게 드러내시고 밝히시므로, 그들은 능력들이라고 불립니다. 또 그분이 그들을 통해 세상에서 당신의 다스림을 행하시고 경영하시므로, 그들은 어떤 때는 정사들, 어떤 때는 권세들, 어떤 때는 주관들이라고 불립니다(골 1:16; 엡 1:21). 마지막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머물러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서 보좌들이라고도 불립니다. 하기는 이 마지막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단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풀이가 이와 똑같이, 또는 더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빼더라도, 성령께서는 천사들의 섬김의 존귀함을 드러내시려고 앞의 이름들을 자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 임재를 특별히 나타내시는 도구들을 존

283. 원문에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되어 있으나, 말할 수 없는 말에 관한 증언은 4절까지 이어지므로 2–4절로 적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이 때문에 신들이라고 불리기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섬김 안에서 마치 거울 속에서처럼 신성을 얼마간 우리에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다른 이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는 곳에서(창 18:1; 32:1, 28; 수 5:14; 삿 6:13; 13:22), 옛 저자들이 그 천사를 그리스도로 풀이하는 것을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천사를 말하는 곳에서 이 이름이 그들에게 돌려지는 일이 더 잦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군주들과 관리들이 자기 직무에서 가장 높은 왕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므로 그런 존귀를 받는다면(시 82:6),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훨씬 더 풍성하게 빛나는 천사들에게 그것이 돌려질 까닭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CO 499 32. 그런데 우리의 위로와 믿음의 확증에 가장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데 성경은 가장 많이 힘씁니다. 곧 천사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어 주고 섬기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 파수하고, 우리를 지키는 일을 맡고, 우리 길을 인도하며, 우리에게 아무 해로운 일도 닥치지 않도록 돌본다고 말합니다.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다음으로 모든 신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에게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시 91:11–12). 또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 34:7).[284]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로 당신이 지키기로 맡으신 이들의 보호를 당신의 천사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이런 이치에 따라 주의 천사는 도망한 하갈을 위로하고 그 여주인과 화해하라고 명합니다(창 16:9).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천사가 그의 길의 인도자가 되리라고 약속합니다(창 24:7).

284. 원문에는 “시편 34편 8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자기를 모든 악에서 건져 낸 주의 천사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기를 빕니다(창 48:16). 이렇게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지키도록 세워졌고(출 14:19; 23:2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기를 원하실 때마다 천사들의 섬김으로 구원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삿 2:1; 6:11; 13:10). 마지막으로 (더 많이 열거할 필요가 없도록 말하자면)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겼고 모든 곤경에서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마 4:11; 눅 22:43). 그들은 여자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알렸습니다(마 28:5; 눅 24:5; 행 1:10).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이 직무를 다하려고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에 맞서 싸우며,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을 집행합니다. 우리가 읽는 대로, 하나님의 천사는 예루살렘을 포위에서 건지려고 하룻밤에 앗수르 왕의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죽였습니다(왕하 19:35; 사 37:36).

33. 그러나 신자 하나하나에게 천사 하나하나가 그들을 지키도록 배정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단언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다니엘이 바사의 천사와 헬라의 천사를 소개할 때(단 10:13, 20; 12:1), 그는 정해진 천사들이 나라들과 지방들에 이를테면 수호자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늘 아버지의 얼굴을 뵌다고 말씀하실 때(마 18:10), 그들의 구원을 맡은 정해진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각 사람에게 그를 맡은 자기 천사가 있다고 결론지어야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돌보는 것은 천사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에 관해 함께, 그들이 의 안에 머문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여 돌이킨 죄인 하나를 두고 더 기뻐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눅 15:7). 또 여러 천사에 관해, 그들이

나사로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눅 16:22).[285] 또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특별히 자기를 위해 정해진 그토록 많은 불병거를 보여 준 것도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왕하 6:17). 이것을 확증하는 데 다른 곳들보다 조금 더 분명해 보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이끌려 나와 형제들이 모여 있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그가 베드로라고는 짐작하지 못하고 그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행 12:15). 신자 하나하나에게 자기 천사가 수호자로 배정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들에게 이것이 떠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는 여기서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때 베드로를 돌보는 일을 맡기신 천사들 가운데 아무 천사나 생각해도 무방하며, 그렇다고 그 천사가 그의 영구한 수호자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둘이 서로 다른 수호령처럼 각 사람에게 배정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애태우며 캐는 것은 수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늘 군대의 모든 반열이 자기 구원을 위해 파수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특별히 수호자로 천사 하나가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 해도 거기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34. 천사들의 수와 계급을 감히 정의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기초를 가졌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가엘이 다니엘서에서 큰 군주라고 불리고(단 12:1), 유다서에서 천사장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유 9). 또 바울은 나팔로 사람들을 심판에 불러 모을 천사장이 있으리라고 가르칩니다(살전 4:16). 그러나 누가 거기서 천사들 사이에 존귀의 등급을 세우고, 저마다 휘장으로 구별하고, 각자에게 자리와 위치를 배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 이름,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리고 토비트 이야기에서 셋째 이름을 더하고 싶다면 그것까지도(토비트

285. 원문에는 “누가복음 16장 23절”로 되어 있으나, 천사들이 나사로를 데려간 일은 22절에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12:15), 그 뜻으로 보아 우리 연약함의 분량에 맞추어 천사들에게 붙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열어 둔 채 두고 싶습니다. 수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많은 군단을(마 26:53), 다니엘에게서 많은 만만을(단 7:10) 듣습니다. 그 밖에 이 두 가지에 관해 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 온전한 계시가 마지막 날로 미루어진 비밀들에 속한다고 믿읍시다. 그러므로 묻는 데 지나친 호기심을, 말하는 데 지나친 대담함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35. 그러나 어떤 불안한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그들의 순종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당신의 은택을 나누어 주시며 나머지 일들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사두개인들의 견해는 천사들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시는 움직임이나, 그분이 나타내시는 당신 능력의 표본만을 가리킨다는 것이었습니다(행 23:8). 그러나 이 헛소리에 대해 그토록 많은 성경의 증언이 맞서 외치므로, 그 백성 가운데서 그토록 거친 무지를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CO 501 앞에서 제가 인용한 곳들, 곧 천천의 천사와 천사의 군단을 말하는 곳, 천사들에게 기쁨을 돌리는 곳, 그들이 손으로 신자들을 붙들고 그들의 영혼을 안식으로 데려가며 아버지의 얼굴을 뵌다고 이야기하는 곳과 그 비슷한 곳들은 빼더라도, 그들이 참으로 실재하는 본성을 지닌 영들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명하는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율법이 천사들의 손으로 주어졌다고 말하고(행 7:53),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이 부활 뒤에 천사들과 같으리라고 하시며(마 22:30), 심판 날은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고 하시고(마 24:36), 당신이 그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라고 하십니다(마 25:31; 눅 9:26). 이 말씀들은 아무리 비틀어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자기 교훈을 지키라고 엄히 명

할 때(딤전 5:21), 그는 실체 없는 성질이나 감동이 아니라 참된 영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에서 읽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되셨고,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본성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도(히 1:4; 2:16), 이 비교들이 적용될 복된 영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서신의 저자는 하나님 나라에 신자들의 영혼과 거룩한 천사들을 함께 두는 곳에서 친히 자기 뜻을 밝힙니다(히 12:22). 저는 오래전 여러 세기 전에 사탄이 일으켰고 이따금 다시 돋아나는 저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생각들에 맞서 단순한 이들을 미리 무장시키려고, 이것을 지나가며 건드리고 싶었습니다.

36. 이제 천사들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섬겨 나르고 베푸는 이들이라고 말할 때 대개 슬며시 기어드는 미신을 막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은 곧바로 그리로 미끄러져, 그들에게 돌리지 못할 존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이 그들에게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몇 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천사들에게 지나친 찬사를 쌓아 올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 모양으로 가려진 것을 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공격하는 악들 가운데 이보다 더 오래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천사들을 높이 치켜올려 그리스도를 거의 그 반열로 끌어내린 어떤 이들과 큰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골 1:16, 20) 그토록 마음을 써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보다 앞서실 뿐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모든 좋은 것의 장본인이시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천사들에게로 돌아서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와 같은 샘에서 길어 마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그들 안에 신적 위엄의 광채가 빛나므로, 우리가 어떤 놀람에 사로잡혀 그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다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계 19:10)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덧붙입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37.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 스스로 그들의 수고 없이 하시지 않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신자들의 구원을 돌보시며 당신의 선하심의 선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곤 하는지를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이 위험을 잘 피할 것입니다. 확실히 그분은 그들 없이는 지내실 수 없다는 듯이 필요에 몰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하실 때마다 그들을 지나치시고 오직 뜻하심만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위로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선한 소망으로 일으키거나 평안 속에 굳게 하는 데 힘이 될 것이 하나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주께서 당신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라고 주장하시는 이 하나만으로도 넉넉하고도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토록 많은 위험, 그토록 많은 해악, 그토록 많은 종류의 원수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보므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때로 떨림으로 가득 차거나 절망하여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분량에 맞추어 당신 은혜의 임재를 붙잡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은 당신이 우리를 돌보시리라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을 돌보도록 맡기신 셀 수 없는 호위병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지킴과 보호로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는, 어떤 위험이 닥쳐도 우리는 모든 악의 위협 밖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의 보호에 관한 저 단순한 약속이 있은 뒤에도 우리가 아직 어디서 도움이 올지 둘러보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한없는 너그러우심으로 우리의 이 결함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므로, 그분의 그토록 큰 은택을 소홀히 할 까닭은 없습니다. 그 본보기를 우리는 엘리

사의 사환에게서 봅니다(왕하 6:17). 그는 산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고 빠져나갈 길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마치 자기와 주인이 끝장난 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는 곧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곧 선지자와 함께 그를 지킬 천사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는 이 환상으로 굳세어져 정신을 차렸고, 그 모습만 보고도 거의 넋을 잃었던 원수들을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업신여길 수 있었습니다.

38. 그러므로 천사들의 섬김에 관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을 이 목적으로 향하게 합시다. 곧 모든 불신을 이겨 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 더 굳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지킴을 마련해 두신 것은, 우리가 원수의 수가 많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그분의 도우심보다 강하기라도 한 듯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엘리사의 저 말, 곧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많다는 말로 피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있음을 증언하도록 세워진 천사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뒤집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 손을 잡아 곧바로 그분께로 이끌어, 우리가 그분만을 도우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부르고 기리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오직 그분의 지도로만 일에 움직이는 그분의 손으로 우리에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한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 붙들어 두어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기대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쉬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떼어 놓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상에서 묘사되는 것(창 28:12)이 우리 마음에 붙어 깊이 박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천사들이 만군의 주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신 사다리를 타고 사람들에게로 땅에 내려오고 사람들에게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CO 503 이로써 천사들의 섬김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가리켜집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지킴에 맡겨진 아브라함의 종(창 24:7)은 그 때문에 천사를 불러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맡김을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를 쏟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권능과 선하심의 종으로 삼으시는 것이 당신의 영광을 그들과 나누시려는 것이 아니듯이, 그들의 섬김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도우심을 약속하시는 것도 우리의 신뢰를 그들과 그분 사이에 나누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너그러우시게 만들도록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저 플라톤 철학은 물러가라 하십시오. 미신적이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 경건(religion)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오늘날까지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39. 성경이 마귀들에 관해 전하는 것은 거의 모두 이것을 향합니다. 곧 우리가 그들의 간계와 획책을 미리 막도록 마음을 쓰고, 지극히 강한 원수들을 물리치기에 넉넉히 굳고 튼튼한 무기로 무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신과 임금으로, 무장한 강한 자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으로, 우는 사자로 불릴 때, 이 묘사들은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깨어 있으며 싸움에 나설 채비를 더 갖추게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때로 분명한 말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닌다고 말한 뒤(벧전 5:8), 곧이어 믿음으로 굳게 대적하라는 권고를 덧붙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통치자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영적인 악들에 대한 것이라고 일깨운 뒤(엡 6:12), 곧바로 그토록 크고 위험한 싸움을 견디기에 알맞은 무기를 입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을 이 목적으로 향하게 합시다. 곧 대담함으로는 가장 날래고, 힘으로는 가장 세며, 술수로는 가장 교활하고, 부지런함과 재빠름으로는 지칠 줄 모르며, 온갖 계략을 가장 많이 갖추고, 싸우는 기술에는 가장 능숙한 원수가 끊임

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니, 게으름이나 비겁함에 눌리지 말고 도리어 바로 맞서서 꼿꼿이 일어선 마음으로 버티어 발을 굳게 디딥시다. 또 이 싸움은 죽음으로만 끝나므로, 끝까지 견디도록 서로 권합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맙시다. 계획과 힘과 용기와 무기를 대어 주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40.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더 일깨워지고 재촉받게 하려고, 성경은 우리와 싸우는 원수가 하나나 둘이나 몇이 아니라 큰 군대라고 알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일곱 귀신에게서 놓였다고 하며(막 16:9),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을 한 번 쫓아낸 뒤에 다시 자리를 열어 주면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영을 데리고 돌아와 빈 집을 다시 차지하는 것이 예사라고 증언하십니다(마 12:43). 아니, 한 군단 전체가 한 사람을 사로잡았다고도 합니다(눅 8:30).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우리는 셀 수 없는 원수의 무리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이 적다고 업신여겨 싸움에 더 느슨해지거나, 때로 얼마간 쉴 틈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여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나 마귀가 흔히 단수로 하나로 제시되는 데서는, 의의 나라에 맞서는 저 불의의 통치권이 가리켜집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듯이, 불경건한 자들의 무리와 불경건 자체도 거기서 가장 높은 다스림을 쥐고 있는 그 우두머리와 함께 우리에게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 25:41).

41. 마귀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라고 불린다는 것도 우리를 그와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둔다면, 그 영광을 꺼 버리려고 꾀하는 자에 맞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와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구원에 대한 염려가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 구원을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덫을 놓는 자와는 평화도 휴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그를 그런 자로 묘사합니다. 거기서 그는 사람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에서 떼어 놓아, 하나님에게서는 마땅한 영예를 빼앗고 사람 자신은 멸망에 거꾸러뜨립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는 그런 자로 묘사됩니다. 거기서 그는 원수라고 불리며, 영생의 씨를 망치려고 가라지를 뿌린다고 합니다(마 13:28). 요컨대 그리스도께서 그에 관해,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증언하시는 것(요 8:44)을 우리는 그의 모든 행위에서 경험합니다. 그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고, 어둠으로 빛을 가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오류로 얽어매고, 미움을 일으키며, 다툼과 싸움에 불을 붙입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를 뒤엎고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본성상 비뚤어지고 악의에 차 있고 악독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공격하도록 생겨 먹은 그 성질에는 가장 큰 비뚤어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자기 서신에서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는다고 쓸 때(요일 3:8) 이것을 뜻합니다. 그는 마귀가 모든 악의와 불의의 장본인이요 우두머리요 설계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42.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본성에 돌리는 이 악의는 창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가 지닌 정죄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 배반과 타락으로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은, 우리가 그가 하나님에게서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고 믿어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하나님 자신께 돌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고 선언하시며

(요 8:44), 그가 진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까닭을 대십니다. 확실히 그분은 그가 진리에 머물지 않았다고 하심으로써, 그가 한때 진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넌지시 보이십니다. 또 그를 거짓의 아비로 삼으심으로써, 그 자신이 원인이었던 결함을 그가 하나님께 전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짧고 덜 분명하게 말해졌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모든 비방에서 지키기에는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또 마귀들에 관해 더 많이, 또는 다른 목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이 저 타락과 그 원인, 방식, 때, 모습을 여러 곳에서 차례대로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아주 잠잠히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가볍게 건드리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열매 없이 헛된 이야기로 호기심을 먹이는 것은 성령께 걸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 덕을 세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으시려 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쓸데없는 것에 머물지 않도록, 마귀들의 본성에 관해서는 간단히 이것을 아는 데 만족합시다. 그들은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으나, 타락하여 자기를 망쳤고 다른 이들에게 멸망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아 두는 것이 유익했으므로 베드로와 유다에게서 분명히 가르쳐집니다(벧후 2:4; 유 6).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자기 처음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43.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하나님과의 불화와 싸움이 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에도 굳게 서 있도록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에서, 그가 명령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며 허락을 얻지 않고는 어떤 악행을 하러 감히 나서지 못한다는 것을 읽기 때문입니다(욥 1:6; 2:1). 이렇게 아합을 꾀어야 할 때에도, 그는 모든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고 맡고 나서서, 주의 보내심을 받아 그 일을 해냅니다(왕상 22:20). 이런 까닭에 사울을 괴롭힌 영도 주의 악한 영이라고 불립니다(삼상 16:14; 18:10). 그분이 그 채찍으로 불경건한 왕의 죄를 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들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시 78:49). 이런 개별적인 본보기들에 따라, 바울은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이 멀게 되는 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불렀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증언합니다(살후 2:9, 11).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며, 그분의 뜻하심으로 다스림을 받아 그분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께 맞서며 그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과 어긋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동시에 이 거스름과 이 싸움이 하나님의 허용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 의지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에 관해 말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결과에 관해 말합니다. 마귀는 본성이 악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온통 반항과 반역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욕망과 목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악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이 악함에 떠밀려, 하나님께 가장 거슬린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권능의 고삐로 묶고 조여 두시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해냅니다. 그리하여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창조주께 복종합니다. 그분이 어디로 몰아가시든 섬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4.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영들을 당신 기뻐하시는 대로 이리저리 돌리시므로, 이 다스림을 이렇게 조절하십니다. 곧 그들이 신자들을 싸움으로 단련하고, 간계로 덮치고, 습격으로 괴롭히고, 싸움으로 몰아붙이며, 자주 지치게 하고, 어지럽히고, 두렵게 하며,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되, 결코 이기거나 짓누르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

은 굴복시켜 끌고 다니며, 그들의 영혼과 몸에 통치권을 휘두르고, 그들을 마치 노예처럼 온갖 죄악에 부려 먹게 하십니다. 신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이런 원수들에게 시달리므로 이런 권고를 듣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 4:27).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 5:8). 마찬가지로 바울도 교만을 길들이는 치료책으로 사탄의 사자가 자기에게 주어져 그에게 낮아졌다고 쓸 때(고후 12:7), 자기도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련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저 약속(창 3:15)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지체에게 함께 해당하므로, 저는 신자들이 그에게 지거나 짓눌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넋을 잃지는 않습니다. 맹렬한 공격에 쓰러지지만, 나중에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상처를 입지만, 죽을 만큼 입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일생 동안 수고하되, 마침내 승리를 얻도록 수고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앞에서 인용한 약속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삶에서 시작되고, 싸움이 끝난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롬 16:20). 우리의 머리이신 분 안에서는 이 승리가 언제나 온전히 있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그분 안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지체인 우리 안에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아직 그것 때문에 연약함에 매여 있는 육신을 벗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해질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 세워지는 곳에서는 사탄이 자기 권세와 함께 무너집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 그분은 이 대답으로 사도들이 당신의 설교의 능력에 관해 보고한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사탄의 다스림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불경건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곧 당신의 양 무리 가운데 넣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들만 그에게 다스리도록 넘겨주십니다.[286]

286. 이 문장의 끝부분("…mas fidelium permittit Deus regnum satanae, sed impios duntaxat et incredulos illi gubernandos tradit, quos in suo grege censere non dignatur")은 원문에서 다음 편(CO 1:507) 첫머리에 이어집니다. 문장이 끊기지 않도록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6장 사도신경 첫째 부분 해설 3

CO 1:507–51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507 [287]사탄은 그리스도께 쫓겨나기까지 이 세상을 아무 다툼 없이 차지하고 있다고 일컬어집니다(눅 11:21). 또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자를 눈멀게 한다고 합니다(고후 4:4). 또 거역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자기 일을 이룬다고 합니다(엡 2:2). 마땅한 일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모두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응을 집행하는 자 말고 누구에게 그들이 넘겨지는 것이 더 마땅하겠습니까? 끝으로 그들은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일컬어집니다(요 8:44).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지듯이, 저들은 자기들이 타락하여 닮게 된 사탄의 형상 때문에 마땅히 사탄의 자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요일 3:8).

45.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에 관한 저 헛된 철학, 곧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선한 감동이나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철학을 논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귀들은 우리 육이 우리에게 밀어 넣는 악한 감정이나 동요에 지나지 않는다고 허튼소리를 하는 자들을 반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짧게 해도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지 않고 꽤 분명한 성경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귀들이 더러운 영들이라고 불리고, 자기의 처음 자리에서 타락한 배교한 천사들이라고 불릴 때, 그 이름들 자체가 그들이 마음의 움직임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일컬어지는 그대로 참으로 감각과 지성을 갖춘

287.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정신 또는 영들임을 넉넉히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식과 견줄 때(요 8:44; 요일 3:10), 마귀라는 이름이 악한 감동밖에 가리키지 않는다면 그 견줌은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요한은 마귀에 관해 더 분명한 것을 덧붙입니다(요일 3:8).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싸우는 모습을 그릴 때(유 1:9), 그는 분명히 선한 천사에게 악하고 배반한 천사를 맞세우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사탄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고 읽는 것도 이와 들어맞습니다(욥 1:6; 2:1).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분명한 것은, 마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특히 부활 때에 느끼게 될 형벌을 언급하는 대목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어찌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마 8:29)[288] 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 25:41). 또 "자기 천사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슬로 끌어내려 어둠에 던지셔서 영원한 정죄에 이르도록 가두어 두셨거든" 등(벧후 2:4). 만일 마귀가 도무지 없다면, 마귀들이 영원한 심판에 정해져 있고, 그들을 위해 불이 예비되었으며, 그들이 벌써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이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에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새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저 헛된 사변가들에게는 성경의 증언으로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뜻한 바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곧 안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더 단순한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이런 망상에 맞서 경건한 마음들이 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건드린 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오류에 얽힌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아무 원수도 없다고 생각하다가 대적하는 일에 더 게으르고 더 방심하게 되지 않도록 하려는

288.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마 8:29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로 되어 있습니다.

것입니다.

46.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이는 일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 일들 안에서 지으신 분 자신을 알아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곧 하늘, 땅, 바다와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으뜸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의 순서로는 믿음의 첫 가르침입니다. 곧 우리가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든, 마주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는지를 경건한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을 참된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상 창조의 역사를 붙들어 두는 것이 보람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짧게 서술했고, 그 뒤에 거룩한 사람들, 특히 바실리우스[289]와 암브로시우스가 더 풍성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서 다음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영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 모든 종류의 생물과 생명 없는 것들을 내셨고, 놀라운 질서로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서로 구별하셨으며, 각 종류에 그 본성을 넣어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자리와 처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썩음에 매여 있지만, 그래도 각 종이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도록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은밀한 방식으로 기르시고 거듭 새 힘을 이를테면 방울방울 부어 주시며, 어떤 것들에게는 번식하는 힘을 주셔서 그것들이 죽어도 아주 없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있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만물의 풍성함과 다양함과 아름다움으로, 마치 가장 정교하고도 풍성한 세간을 갖추어 가득 채운 넓고 화려한 집처럼 놀랍게 꾸미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토록 빼어난 아름다움과 그토록 많고 큰 재능으로 그를 돋보이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 안에 당신이 하신 일들의 가장 빛나는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289. 바실리우스(Basilius, 330경–379)는 카파도키아 카이사레아의 감독으로, 창조의 엿새에 관한 설교집『헥사메론』을 남겼습니다.

창조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제 목적이 아니니, 지나가는 길에 이 몇 가지를 가볍게 건드린 것으로 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일러 두었듯이, 독자들은 모세와 그 밖에 세상의 역사를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에게서 이 대목을 더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47.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살펴야 하고 무슨 목표로 돌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긴 논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물음은 첫 장에서 어느 정도 풀었고, 지금 다루는 목적에 필요한 만큼은 몇 마디로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짜임새 안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선하심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그 가치에 걸맞게 풀어 설명하려 한다면, 어떤 말의 광채도, 어떤 꾸밈도 그토록 큰 일의 크기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CO 509 주님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묵상에 끊임없이 마음을 쏟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곧 우리가 모든 피조물 안에서, 마치 거울들 속에서 보듯이 당신의 지혜와 의와 선하심과 능력의 저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바라볼 때, 그것을 스쳐 가는 눈으로, (말하자면) 금세 사라지는 눈길로 훑고 지나가기만 하지 말고, 그 생각에 오래 머무르며, 그것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마음속에 되새기고, 기억 속에 거듭 떠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르치는 방식의 글을 쓰고 있으므로, 긴 웅변이 필요한 것들은 그만두는 것이 알맞습니다. 그러므로 간추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붙잡았다고 알 수 있는 때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안에 드러내 보이시는 뚜렷한 능력들을 감사할 줄 모르거나 생각 없이, 또는 잊어버린 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저 보편적인 첫째 규칙을 따르기를 기억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그 능력들이 우리를 깊이 움직이도록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배울 때입니다. 첫째 것의 본보기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많은 별들을 그토록 질서 있게 배열하고 맞추어 그보다 더 보기 좋은 것을 생각해 낼 수 없게 하고, 어떤

별들은 제자리에 박아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어떤 별들에게는 더 자유로운 길을 허락하되 떠돌면서도 정한 공간을 넘어 헤매지 않게 하고, 모든 별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낮과 밤, 달과 해와 계절을 재게 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보는 날들의 길고 짧음마저 아무 혼란이 없도록 알맞게 조율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장인의 솜씨였는지를 헤아릴 때입니다. 또 그토록 큰 덩어리를 떠받치시고, 그토록 빠른 하늘 기계의 회전을 다스리시는 일과 그 비슷한 일들에서 그분의 권능을 살필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 몇 가지 본보기만으로도 세상 창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넉넉히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고, 말했듯이 이 일 전체를 말로 다 좇으려 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물의 종류만큼, 아니 크든 작든 사물의 수만큼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과 선하심의 표지와 지혜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48. 남은 것은 다른 부분, 곧 믿음에 더 고유하고 특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정해 두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동시에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토록 큰 좋은 것들 안에서 그분의 권능과 은혜를 바라보며, 거기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부르고,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지으신다는 것을 창조의 순서 자체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건축을 엿새에 나누어 하신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는 이런 진행으로 조금씩 완성에 이르는 것보다 한순간에 온 일을 모든 부분까지 한꺼번에 마치는 것이 조금도 더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을 빚으시기 전에, 사람에게 유익하고 이로우리라고 미리 보신 것을 모두 예비하셨다는 바로 그 점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섭리와 아버지다운 염려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염려하셨음을 우리가 보는 이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지 의심하는 것은 얼마나 큰 배은망덕이겠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의 가장 큰 풍성함과 함께 펼쳐져 있었음을 우리가 보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언젠가 궁핍할 때 우리를 버릴까 봐 불신으로 떠는 것은 얼마나 불경건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모세에게서, 그분의 너그러우심으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창 1:28; 9:2). 그분이 헛된 증여의 명목으로 우리를 놀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 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로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고 부를 때마다 동시에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고 처리하시는 일이 그분의 손과 권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이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시려고 당신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통틀어 오직 그분께만 기대하고, 그분이 구원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모자라게 하시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리라고 확실히 바라서,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매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우리의 소원이 그분을 바라보게 해야 하고, 무슨 열매를 거두든 그것이 그분의 은택임을 인정하고 감사와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큰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달콤함에 이끌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49. 사람들이 흔히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 이 칭호로써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돌려진다는 것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으므로, 피조물은 그분이 대어 주시는 만큼의 힘과 효력을 가지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가는 그 활동에만 자기 힘을 드러냅니다. 두 가지를 부지런히 새겨 두어야 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는 아무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각 피조물에게 그 본성의 특성에 따라 주어진 힘도 하나님의 뜻과 결정으로 다스려지며, 그분이 좋게 보신 쓰임새에 따라 이리저리

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들에 당신의 결정대로 자연적인 힘을 부어 넣으시고, 바로 그 힘을 다스리시며, 당신이 정하신 활동으로 돌리십니다. 어떤 피조물의 힘도 해의 힘보다 더 놀랍거나 더 빛나지 않습니다. 해는 그 광채로 온 세상을 비출 뿐 아니라, 그 열기로 모든 생물을 따뜻하게 하고 생기를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그 빛살로 땅에 열매 맺는 힘을 불어넣고, 땅의 품에서 씨앗을 데워 거기서 푸른 싹을 끌어내며, 그것을 새로운 양분으로 받쳐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하여 마침내 줄기로 솟아오르게 하고, 끊임없는 김으로 먹여서 꽃으로, 꽃에서 곡식으로 자라게 하며, 그때에도 그것을 익혀 무르익게 하고, 나무와 포도나무도 그 볕에 데워져 먼저 잎을 내고, 다음에 꽃을 피우며, 꽃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영광을 온전히 당신께 돌리시려고, 해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게 하셨고 땅이 온갖 풀과 열매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해를, 해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것들의 으뜸 원인이나 필연적 원인으로 삼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쓰시는 도구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지나치시고도 당신 스스로 조금도 더 어렵지 않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 5:11 50. 이 한 가지 생각만이 우리를 미신적인 두려움에서 건져 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해롭다고 여기는 피조물에게서 우리에게 밀려듭니다. 거꾸로 이 생각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로워 보이는 피조물에 대한 그릇된 감탄에서 우리를 떼어 내어,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 돌아가게 합니다. 제가 미신적인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피조물이 마치 스스로 해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함부로 우연히 해를 끼치거나, 그것들이 끼치는 해에 맞설 도움이 하나님께 넉넉하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들이 흔히 그러듯이 별들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금합니다(렘 10:2). 그가 모든 두려움을 다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통치를 하나님에게서 별들에게로 옮기고, 자기의 행복이나 불행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별들의 결정과 조짐에 달려 있다고 꾸며 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그 한 분에게서 별들과 혜성들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신을 조심하려는 사람은,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고 그분께 다스림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권능도, 활동도, 움직임도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이 칭호는 앞의 문장,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한 문장의 풀이이거나 증명입니다.

51. 불경건한 자들의 마음도 이 세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창조주를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바라보는 그 나름의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가르칩니다(히 11:3).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아무리 마음으로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바르게 꿰뚫어 보는 길은 그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은 창조 자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눈앞에 두고 나면 거기에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나아갈 때에도, 그토록 큰 작품을 내놓으신 일에서는 스스로 드러나고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밀려드는 지으신 분의 지혜와 권능을 따져 보고 살필 뿐이며,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에서는 움직이는 힘이 거기에 달려 있는 어떤 일반적인 활동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깊이 꿰뚫고 들어갑니다. 믿음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배운 그분을 곧 영원한 통치자요 보존자로도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보편적인 움직임으로 세계라는 기계와 그 각 부분을 움직이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섭리로 당신이 지으신 것 하나하나를 가장 작은 참새에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지혜는 다윗이 시편 104편 전체에서, 특히 그 끝에서 올라간 이 묵상에는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27절). "이것들이 다 주를 바라보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주시면 그들이 거두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좋은 것으로 배부릅니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떨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이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다시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되고, 주께서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있다는 것(행 17:28), 땅을 적시려고 이슬과 비가 그분의 손에서 방울져 내린다는 것, 그분의 명령으로 하늘이 쇠처럼 굳어진다는 것, 평화와 전쟁,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역병과 건강, 풍년과 기근과 그 밖의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레 26:4, 19; 신 11:14; 28:12, 23). 그분이 너그러우심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든지, 엄하심으로 당신 심판의 의로운 보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든지 그 뜻대로입니다.

52. 그런데 경건한 양심은 여기서 큰 위로의 재료를 얻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도움을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이를 대어 주신다면(욥 38:41),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인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아시고 그렇게 처리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마 10:29), 당신이 눈동자처럼 지키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는 더욱 깨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말씀의 힘으로 산다면(신 8:3; 마 4:4), 그분이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결코 모자라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에게는 넉넉합니다. 그 능력만으로도 우리를 먹이고 살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건한 양심은 흉년과 기근과 역병을 보면 운수를 탓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헤아릴 것입니다. 끝으로 경건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보호자요 기르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데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며, 그분의 은택으로 온전히 보존되는 우리 생명은 그 모든 활동과 함께 그분께로 돌려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낼 것입니다.

53. 그런데 여기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광이 특별히 아버지께 돌려져서, 마치 아들과 영이 그 영광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때문에 아무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고유성의 구별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만물의 시작이 아버지께 돌려지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신다고 고유하게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지혜 안에서, 그리고 영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몇몇 코가 예민한 자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저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 1:26)라는 아버지의 저 말씀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분은 어떤 유대인들이 꿈꾸듯이 천사들과 의논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나 땅을 불러 당신을 돕게 하시는 것도 아니며, 다른 이들이 터무니없이 해석하듯이 당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지혜의 계획과 당신의 능력을 그 일에 함께하도록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아버지로 아는 데서 어떤 진보와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온 기대를 걸고 그분의 섭리에 매달리도록 힘써야 하고, 그분의 아버지다운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을 적어도 감사로 받들어, 그것을 마음으로 되새기고, 입으로 널리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으로 높여야 합니다. CO 513 이런 아버지를 뜨거운 사랑과 경건으로 섬겨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도록 바칩시다. 모든 일에서 그분을 공경합시다. 모든 것을, 우리 생각에 가장 거슬리는 일까지도, 마치 그분의 손에서 받듯이 고르고 잔잔한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분이 고난의 쓰라림으로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도 그분의 섭리가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므로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롭고 호의를 품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마음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첫째 부분은 우리를 바로 이 신뢰로 가르쳐 이끌기 때문입니다.[290]

290. 이 편 원문의 끝에 걸쳐 있는 다음 장 표제의 첫 낱말은 다음 편 첫머리에서 장 표제와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 제7장 사도신경 둘째 부분 해설

1539–1554년판 제7장 사도신경 둘째 부분 해설 1

CO 1:513–52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513 제7장[291]

사도신경 둘째 부분 해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과 구속의 신비 전체를 다룹니다. 또 셋째 부분 해설. 여기서는 성령을 다룹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1.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고유한 과녁이시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모든 부분이 여기서 그분 안에서 낱낱이 열거된다는 데서 쉽게 드러납니다. 선지자가 말하듯이,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메시아와 함께 구원을 위해 나오셨습니다(합 3:13). 그분은 메시아의 손으로 당신 긍휼의 일, 곧 택하신 백성의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분은 “예수”라고 불리십니다. 하늘의 신탁이 이 칭호로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마 1:21; 눅 1:31). 그러므로 구원은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고,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우연이나 사람의 경솔함으로 그분께 붙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으로 천사를 통해 그분이 예수라고 선포된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관한 다른 모든 생각에서 떠나 이분 한 분만을 구주로 붙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천하 사람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외칩니다(행 4:12).

291. 장 번호의 첫 낱말 “CAPUT”는 앞 편 원문 끝에 걸쳐 있어,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으로 신자들은 자기 구원을 그분 안에서 찾고 그분 안에 그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2.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덧붙여집니다. 이 칭호는 다른 이들에게 돌려도 어긋나지 않지만, 그분께는 어떤 특별한 권리로 합당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영의 은사들을 방울방울 부어 주시는 모든 이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 그분이 이런 기름 부음으로 적셔 주시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없고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선지자들도 그들 나름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들과 제사장들도 그들 나름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저 의식적이고 외적인 기름 부음뿐 아니라 영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 전하는 선지자는 영의 특별한 은사를 갖추고 무장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여야 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말 2:7). 끝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위엄의 형상을 지닌 왕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세울 때 쓰던 저 기름은 헛된 상징이 아니라, 저 참되고 유일한 기름 부음의 성례(sacramentum)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기름 부음도 구주의 이 기름 부음에는 비길 것이 못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당신의 나누어 주시는 방식대로 은혜를 여러 몫으로 나누어 주셔서 아무도 자기 혼자서는 넉넉하지 않게 하시지만, 이분에게는 충만함 전체를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관해 "하나님이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주께 부으셨습니다"(시 45:7)[292]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더 분명하게 풀어, 아버지께서 그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말합니다(요 3:34). 또 그 까닭도 숨기지 않습니다. 곧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요 1:16). 그래서 다른 선지자도 그분이 그 위에 주의 영이 머무실 분이 되리라고 미리 말했습니다(사 11:2). 그것도 은혜의 한

292. 원문에는 "시편 45편 8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가지만 그분께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건의 은사들로 그분을 꾸미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와 머무시는 것을 요한이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광경으로 확증되었습니다(마 3:16; 요 1:32).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대칭(代稱, antonomasia)으로 우리 구주께 돌려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3. 먼저 성령과 그분의 은사들이 기름 부음과 기름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아주 적절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적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안이 온통 메마르고 열매 없으며, 이를테면 생명의 진액을 잃어버린 채 시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는 온갖 풍성함을 가득히 예수께 부어지셔서, 그분의 영혼을 당신의 고유한 자리로 고르셨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거기서, 마치 유일한 샘에서처럼 우리에게로 솟아 흐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CO 515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 모두 성령의 기름으로 적심을 받는 것은 오직 그분께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각 사람은 그분과 교통하는 만큼 받습니다. 구주의 기름 부음과 우리의 기름 부음의 차이를 우리는 몇 마디로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영적 부요함의 보물 전체로 한량없이 부요하게 하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 보물에서 각자의 몫을 재어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그 모든 충만함 그대로 그분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에게서 마치 어떤 샘에서처럼 우리에게로 넘쳐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길어 마시고(요 1:16), 그분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이런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께 왕으로 세움을 받으셔서, 시편 2편이 가르치듯이(6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께 굴복시키십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으로도 성별되셔서 아버지 앞에서 간구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4. 이 둘은 모두 우리 믿음을 크게 돕고 지켜 줍니다. 나라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썩음에 매인 땅의 나라나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과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방식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갖추어 주시며, 아름다움과 영화로 꾸미시고, 부요함으로 부요하게 하시며, 마침내 그 나라에 참여하도록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우리와 묶으신 그 교제의 은택으로 우리도 왕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무장하여 마귀와 죄와 사망과 끝까지 싸우고, 그분의 의의 장식으로 옷 입어 불멸의 소망을 품으며, 그분의 거룩함의 부요함으로 부요해져 선행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습니다.

5. 그분은 제사장의 직무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수행하십니다. 당신의 간구로 아버지를 누그러뜨리셔서 영원한 화목의 법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직에 함께하도록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을 간구하시는 분이요 중보자로 의지하여, 기도와 감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십니다(요 17:9). 그러므로 주님께서 옛적에 당신 백성에게 그들이 당신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출 19:6), 마침내 우리 구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덤처럼 예언의 직분이 더해집니다. 이사야가 그분이 큰 계획의 사자(使者), 곧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 전하는 이가 되리라고 미리 말했듯이(사 9:6), 그분은 이 몫을 다하시려고 영적인 기름 부음으로 지고한 선지자의 직무에도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의 입에서 온전한 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구속과 구원에 대한 신뢰에 굳게 서고(마 1:21),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는 특히 성령과의 교통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성화의 열매를 받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분의 입에서 듣기 때문입니다(요 17:19).

6.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도 선포되십니다. 신자들처럼 양자 삼으심과 은혜로만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참되고 본성으로 아들이시며,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새 생명으로 중생한 우리는 모두 성경에서 성령께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주시는 영예를 입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참되고 독생하신 아들로 여겨지는 것을 오직 한 분께만 돌리십니다. 그토록 많은 형제 가운데 어떻게 그분이 참되고 독생하신 아들이시겠습니까? 다른 이들은 선물로 받은 것을 그분 혼자만 본성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가까이 따져 보면 오직 그분이 성령으로 동정녀의 태에 잉태되셨다는 이유 하나로만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옛적에 마니교도들[293]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을 읽고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갈라져 나온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허튼소리를 했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저 영원한 말씀이심을 보여 줍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씀과, 천사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바로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라고 명한 것을 내세워 요란하게 자기 오류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하찮은 반론으로 우쭐대지 않도록, 그들이 얼마나 탄탄하게 추론하는지 잠시 우리와 함께 따져 보게 합시다. 잉태된 분이 아들이라 불리니 하나님의 아들은 잉태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옳다면, 말씀도 육신으로 나타나신 때부터 있기 시작했다는 결론이 따를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자기 손으로 만진 것을 전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요일 1:1)[294].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글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천천 가운데 작다.

293. 마니교도(Manichaei)는 3세기 페르시아 사람 마니(Mani)가 세운 이원론 종파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294. 원문(OCR)에는 절 숫자가 빠져 있어 채웠습니다.

네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의 나오심은 처음부터, 영원한 날부터이다"(미 5:2)라고 읽는 것을, 그들이 이런 논법을 따르려 한다면 어떻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한 대목이 이 어리석은 소리들을 깨끗이 흩어 버릴 것입니다(롬 1:1–4)[295].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 선포가 육신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넌지시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시라고 따로 밝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따로 말했겠습니까? 참으로 이 뜻은 너무도 분명해서, 이제 여기에 맞서는 것은 눈먼 것일 뿐 아니라 고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그분이 취하신 육신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칭호가 믿음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칭호로써 하나님의 저 영원한 말씀이 그 자체로 가리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을 입으신 말씀이 가리켜진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제자리에서 더 온전히 설명할 것입니다.

CO 517 7. 끝으로 그분께 "주"라는 칭호가 돌려집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아버지께서 그런 조건으로 그분을 세상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글에서 자주 당신 혼자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입법자이시라고 선언하시듯이, 당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나타내 보이셨을 때에는 그 아들이 당신께서 그를 통해 다스리고 명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고전 8:6).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295. 원문(OCR)에는 절 숫자가 빠져 있어 채웠습니다.

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로써 그분이 가르치실 때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선생이요 스승이실 뿐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며 그분의 원하심에 우리의 순종을 맞추어야 할 머리요 군주이시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집안에서 그분께 장자의 권리를 주셔서,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형제들을 다스리시고 유업의 재산을 관리하고 나누어 주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8. 성육신의 신비는 그 광채로 더 단순한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듯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마음을 몹시 어지럽히고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그 신비를 풀이하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말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구름처럼 끼어들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아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돌아서시게 했으므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이가 아니면 아무도 평화를 되찾아 주는 중재의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의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 조상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들도 그 머리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하나님께 굳게,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을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위엄 자체가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일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되셔야 했습니다(사 7:14; 마 1:23). 그것도 당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결합하셨듯이 우리의 인성도 당신의 신성에 결합하시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리라는 소망을 품게 할 만큼 가까운 이웃됨도 충분하지 않고, 굳은 친족 됨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함과 하나님의 위엄은 그토록 모든 면에서 서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내세울 때 분명히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딤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처럼 이 이름도 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저 중보자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어떤 길로 그분께 이르러야 할지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는 곧바로 "그분은 사람이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그분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닿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더 뚜렷하게 설명하는 것을 가리키려 한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시니, 그분은 죄만 빼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히 4:15).

9. 중보자가 이루어야 했던 일이 얼마나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는지 헤아려 보면 이것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일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회복시키되,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옥의 상속자들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옮겨 주시며, 본성으로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은혜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증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께서 우리의 몸에서 몸을, 우리의 살에서 살을, 우리의 뼈에서 뼈를 당신께 지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유했던 것이 당신께 속하기를 원하셨고, 그리하여 거꾸로 당신께 고유했던 것이 우리에

게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그 유업을 온전히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양자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라면 유업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은 사망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 자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하실 일은 죄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의 자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하실 일은 세상과 공중의 권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공중보다 높은 능력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나 의나 하늘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속받기를 원하셨을 때 당신 자신을 우리의 구속자로 삼으셨습니다(롬 5:8).

10. 우리 구속의 또 하나의 요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불순종으로 자기를 멸망시킨 사람이 순종으로 자기 수치를 없애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속상을 이루며, 죄의 형벌을 다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인격을 입으시고 그 이름을 취하셔서, 아담을 대신해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속상으로 내어 세우시며, 바로 그 육신으로 죄의 형벌을 다 치르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끼실 수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었으므로, 그분은 인성을 신성과 연합하셔서, 한쪽의 연약함은 형벌로 죽음에 내어 주시고 다른 쪽의 능력으로는 죽음에 맞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그 신성이나 인성을 빼앗는 자들은 그분의 위엄을 모독하거나 그분의 선하심을 가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

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데, 그 믿음은 이 기초가 아니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CO 519 11. 신성을 더 길게 증명하는 것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제는 쓸데없는 일일 것입니다. 인성의 참됨은 한편으로는 마니교도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키온파[296]가 공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뒤의 자들은 그리스도께 몸 대신 허깨비를 꾸며 붙였고, 앞의 자들은 그분이 하늘의 육신을 지니셨다고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많고도 힘 있는 성경의 증언이 그 둘 모두에 맞섭니다. 복은 하늘의 씨나 사람의 탈에 약속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씨에 약속되었습니다. 영원한 보좌도 공중의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그 몸의 열매에 약속되었습니다(창 17:2; 22:18; 26:4; 시 132:11). 그래서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불리십니다(마 1:1). 이는 그분이 공중에서 창조되었지만 동정녀의 태에서 태어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울이 풀이하듯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롬 1:3)[297].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분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셨다고도 가르칩니다(롬 9:5). 그러므로 주님 자신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이심을 나타내시려고 거듭 당신을 인자(人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그 자체로 그리 어렵지 않은 이 일을 그토록 여러 번, 그토록 많은 도구를 통해, 그토록 부지런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아직도 감히 연막을 뿌릴 만큼 뻔뻔한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이 모으려 한다면 다른 증언들이 아직도 손닿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갈 4:4).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그 밖의 우리 본성의 연약함에 매여 계셨다는 것을 알려 주는 셀 수 없이

296. 마르키온(Marcion, 2세기)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갈라놓고 그리스도의 참 육신을 부정한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마르키온파는 그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297. 원문(OCR)에는 절 숫자가 빠져 있어 채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언 가운데서 무엇보다 마음을 참된 신뢰 안에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천사들에게는 결코 그들의 본성을 취하실 만큼 큰 영예를 베푸시지 않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셔서 살과 피 안에서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셨다는 말씀입니다(히 2:16, 14). 또 그 교통의 은택으로 우리가 그분의 형제로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히 2:11). 또 그분이 자비롭고 신실한, 간구하시는 분이 되시려고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다는 말씀(히 2:17),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시라는 말씀(히 4:15)과 그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12. 그런데 그들이 자기 오류를 굳히려고 내놓는 대목들은 너무도 어리석게 비틀어 놓은 것들입니다. 마르키온은 그리스도께서 몸 대신 허깨비를 입으셨다고 상상합니다. 어떤 곳에서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빌 2:7).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는 바울이 거기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전혀 따져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을 취하셨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신적 위엄을 마땅히 드러내실 수 있었는데도 사람의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의 본을 들어 우리에게 낮아짐을 가르치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뚜렷이 보이실 수 있었지만,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원하여 당신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분은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 비천함에 만족하여 육신의 휘장으로 신성을 감추셨으며, 다음에는 아버지께 순종하시려고 십자가의 수치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무엇이셨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처신하셨는지를 가르칩니다. 마니교도는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 하늘에서 나신 하늘에 속한 이라고 불리시므로(고전 15:47) 공중의 몸을 꾸며 냅니다. 그러나 사도는 거기서도 몸의 하늘 본질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퍼져 나와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통 신앙을 지닌 이들이 그리스도의 육신에 관해 붙드는 견해가 바로 그 대목에서 훌륭하게 확립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바울이 그토록 힘차게 펴 나가는 추론은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5:13).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추론입니다.

13. 더욱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요 1:14)은 말씀이 육신으로 바뀌었다거나 육신과 뒤섞여 버렸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께서 동정녀의 태에서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고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실체의 혼합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 됨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성이 인성과 결합하고 연합하되, 두 본성 각각의 온전한 고유성이 그대로 남으면서도 그 둘로부터 한 그리스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일 가운데서 이토록 큰 신비와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사람의 비유가 가장 알맞아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두 실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둘 가운데 어느 것도 다른 것과 뒤섞여 자기 본성의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몸인 것도 아니고 몸이 영혼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관해 따로 말하는 것이 몸에는 결코 해당할 수 없고, 거꾸로 몸에 관해 말하는 것이 영혼에는 결코 들어맞지 않습니다. 또 사람 전체에 관해 말하는 것은 영혼에 관해서도 몸에 관해서도 따로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면 어리석게 됩니다. 끝으로 영혼에 고유한 것이 몸에 옮겨지기도 하고, 몸에 고유한 것이 영혼에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둘로 이루어진 이는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투는 사람 안에 서로 이어진 둘로 이루어진 한 인격이 있다는 것과, 그 인격을 이루는 서로 다른 두 본성이 그 밑에 있다는 것을 함께 나타냅니다. 성경도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분께 때로는 오직 인성에 돌려야 할 것을, 때로는 특별히 신성에 합당한 것을, 때로는 두 본성을 아우르되 어느 한쪽에만 따로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 본성의 결합을 매우 경건하게(religione) 나타내어, 때로는 두 본성의 것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 말법을 "속성의 교류" (ἰδιωμάτων κοινωνία)[298]라고 불렀습니다.

CO 521 14.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하나를 성경의 확고한 증언으로 증명하고 나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관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 8:58)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성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여러 세대 뒤에야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섰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골 1:15, 17) 조금도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과 그 비슷한 것들은 신성에 고유합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종이라 불리시는 것(사 45:4),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 갔다고 이야기되는 것(눅 2:52), 아버지보다 작으시다는 것(요 14:28), 당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요 8:50),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하신다는 것(막 13:32),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요 14:10), 당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요 6:38), 보이고 만져진다고 일컬어지는 것(눅 24:39), 이것은 오직 인성에 속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한에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더 커지실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을 위해 행하시고, 어떤 일도 그분께 감추어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당신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만져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성(idiomata), 곧 고유성의 교류란 바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하고(행 20:28),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고전 2:8)과

298. [원문의심] 그리스어 낱말이 OCR에서 크게 깨져 있습니다("tduofiatm xotvm' v(a"). 다음 단락의 "communicatio idiomatum"에 비추어 ἰδιωμάτων κοινωνία로 읽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피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고난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엄밀하지는 않지만 까닭 없이 그런 것은 아니게 신성에 옮겨집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가르치는 것도 비슷한 예입니다(요일 3:16). 그러므로 거기서도 신성의 고유성이 인성과 나누어집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 3:13)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때 분명히 취하신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같은 한 분이셨으므로, 본성들의 하나 됨 때문에 한쪽의 것을 다른 쪽에 돌리셨습니다.

15.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참 실체를 이야기하는 대목들은 두 본성을 함께 아우르는 대목들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대목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들은 신성에만 고유한 것도 아니고 인성에만 고유한 것도 아니며, 둘 모두에 함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이 아버지께 죄를 사하는 권세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권세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베푸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그분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움을 받으셨다는 것,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유일한 문, 참포도나무라 불리신다는 것입니다(마 9:6; 요 10:7, 14; 15:1; 5:23 등).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런 특권들을 지니셨습니다. 그 특권들은 그분이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것이며, 사람일 뿐인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읽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마치신 뒤에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시리라"(고전 15:24)는 말씀도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시작이 없었듯이 끝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신의 비천함 아래 숨으시고, 종의 형체

를 가져 당신 자신을 비우시며, 위엄의 모습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그런 복종 뒤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높임을 받아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듯이(빌 2:7, 9; 히 2:9)[299], 그때에는 그 이름 자체와 영광의 관과 아버지께 받으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복종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실 것입니다(고전 15:28).

16. 이렇게 살펴 두는 것은 매우 많은 매듭을 푸는 데 적지 않게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더 서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돌려지되 그분의 인성에도 신성에도 잘 들어맞지 않는 말투를 만날 때마다 놀라울 만큼 괴로워합니다. 그런 말투가 하나님이시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분의 인격에는 아주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들을 마땅한 경건으로 살피는 절제 있는 해석자만 있다면, 하나하나가 서로 얼마나 아름답게 맞물려 있는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쳐 날뛰는 광포한 영들이 어지럽히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신성을 없애려고 인성의 속성을 낚아채고, 거꾸로 인성을 없애려고 신성의 속성을 낚아채며, 두 본성에 관해 결합하여 말해진 까닭에 어느 쪽에도 따로는 들어맞지 않는 것은 둘 다를 없애려고 낚아챕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이시니 하나님이 아니시며, 사람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시니 사람도 하나님도 아니시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연합되었으나 혼합되지 않은 두 본성으로 이루어져 계시므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라고 확정합니다. 인성을 따라서도 그러하시되, 인성 때문에 그러하신 것은 아닙니다. 네스토리우스[300]의 오류는 우리에게서 멀리 쫓아내야 합니다. 그는 본성을 구별하기보다 찢어 놓으려

299. 원문(OCR)에는 절 숫자가 빠져 있어 채웠습니다.

300. 네스토리우스(Nestorius, 451경 사망)는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두 인격처럼 갈라놓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두 그리스도를 지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동정녀에게서 나실 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동정녀 자신을 우리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곳에서(눅 1:32, 43) 분명한 목소리로 이에 맞서 외치는 것을 봅니다. 에우티케스의 광기[301]도 조심해야 합니다. 인격의 하나 됨을 증명하려다가 두 본성을 다 무너뜨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성이 인성과 구별되는 증언들을 많이 인용했고, 그 밖에도 곳곳에 아주 많은 증언이 있어서 가장 다투기 좋아하는 자들의 입도 막을 수 있습니다. CO 523 그러므로 네스토리우스가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땅히 정죄되었듯이, 에우티케스도 그 뒤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에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두 본성을 찢어 놓는 것이 옳지 않듯이 뒤섞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고 고백합니다.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약속되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저 참 아들로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두 가지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취하심으로 이제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실 준비를 갖추셨음을 믿음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곧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와 본성의 교통을 맺으셔서 우리를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모든 좋은 것과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귀와 사망을 쳐부수시려고 우리의 인격을 입으셔서, 그 안에서 이기시고 개가를 부르심으로 그 승리와 개가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혈통의 순서 자체로, 이분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신탁이 그토록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약속했던 그리스도이심이 더욱 확증됩니다. 동시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일컬어집니다. 다른 이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 더러운 근원에서 태어나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본

301. 에우티케스(Eutyches, 378경–456경)는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원장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한 본성만 남았다고 가르쳤습니다.

질이 당신의 성전으로 특별히 고르신 육신이 모두에게 공통된 더러움에서 나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놀랍고 우리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자연의 통상적인 이치를 넘어서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육적인 부패로도 더럽혀지지 않고 지극한 순결로 거룩하게 되어 태어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거룩함을 그리스도께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하며, 그것도 오직 그분 한 분께만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직 그분만이 잉태로 말미암아 인간 부패의 법에서 벗어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18. 그다음에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분은 그 구속을 위해 죽을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순종으로 진노하시게 되었으므로, 그분은 당신의 순종으로 그 진노를 없애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빌 2:8).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회복에서 이 순종을 첫 자리에 두고 헤아려야 한다고 일러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롬 5:19).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생애를 아버지의 뜻과 결정에 바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반역으로 격동된 아버지의 위엄을 누그러뜨리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의 공포를 겪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공로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에는 온 마음으로 외면하셨던 인류와 화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셔서, 아버지의 의로운 심판에 온전히 속상을 이루시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성화를 얻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피를 구속의 값으로 흘리셔서, 우리를 향해 타오른 하나님의 진노를 끄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실함을 구할 때에는 이 구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구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

시게 되었고,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으며, 의의 순결이 얻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사의 능력으로, 생명의 가장 큰 보증과 신뢰가 달려 있는 하나님의 호의를 공로로 우리에게 얻어 주셨다고 너무도 자주 가르쳐서, 이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것은 없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죄의 더러움과 얼룩이 그분의 피로 씻겨 지워지고 깨끗해졌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렇지만, 요한의 이 말씀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일 1:7). 구속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상으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그분의 피로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이 씻겨, 그렇게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었고, 우리 안의 죄악 말고는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9.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대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은혜 안으로 회복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이셨고, 그분의 제사로 그들의 죄악이 속죄되기까지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었으며, 그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연합 안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은 우리의 감각에 맞추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를 우리가 더 잘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 위에 덮쳐 있었다고 분명한 말로 일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덜 깨달을 것이고, 건지심의 은택도 덜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대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미워하셔서 그대가 받아 마땅한 대로 그대를 버리셨다면, 끔찍한 멸망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값없는 너그러우심으로 그대를 은혜 안에 붙들어 두시고 당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렇게 그 위험에서 그대를 건지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마음이 움직여,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에 얼마나 빚졌는지를 어느 정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그가 듣는다고 합시다. 곧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진노의 상속자요,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 매여 있었고, 구원의 모든 소망에서 끊겨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복에서 낯선 자였고, 사탄의 종이요, 죄의 멍에 아래 사로잡혀 있었으며, 마침내 끔찍한 멸망에 정해져 이미 거기에 얽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변호자로 나서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죄인에게 닥쳐 있던 형벌을 당신이 받아 치르셨으며, 저들을 하나님께 미움받게 하던 악을 당신의 피로 속죄하셨고, 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하시고 마땅한 제사를 받으셨으며, 이 간구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진노가 누그러졌고, 이 기초 위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서 있으며, 이 끈으로 그들을 향한 그분의 호의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가 어떤 불행에서 건짐받았는지가 더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질수록, 이 말씀들로 그는 더욱 크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CO 525 요컨대 우리 마음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의 공포로 놀라고 떨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생명을 충분히 간절하게 붙잡지도, 마땅한 감사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훈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적대하시는 분으로, 그분의 손을 우리를 멸하려고 무장한 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호의와 아버지다운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붙잡습니다.

20.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해력의 연약함에 맞추어 하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거짓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극한 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서 보시는 죄악을 사랑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마땅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거기에 더해진 악한 삶을 헤아려 보면, 우리는

모두 참으로 하나님께 미움을 사서 그분 앞에서 죄 있는 자들이요, 지옥의 정죄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것을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므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실 무엇을 아직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아무리 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분의 피조물로 남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자초했어도 그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를 향한 순전하고 값없는 사랑으로 움직이셔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의와 죄악 사이에는 영원하고 화해할 수 없는 불화가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적대의 원인을 없애시고 우리를 당신과 온전히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속죄를 내놓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지우십니다. 그리하여 전에 더럽고 불결했던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화목보다 당신의 사랑으로 앞서가시고 먼저 오십니다. 아니,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도우러 오시기까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악이 남아 있고, 그 죄악은 그분 앞에서 저주받고 정죄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합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고 굳은 결합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확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눈과 마음을 붙박아 두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게 됩니다. 죄의 전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21.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었고 그 안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엡 1:4).

이것은 분명하고 성경에 들어맞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신 데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요 3:16)과,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은혜 안에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수이셨다는 말씀(롬 5:10)을 아주 잘 조화시켜 줍니다. 그러나 늘 옛 교회의 증언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더 확고해지도록,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목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아들의 피로 그분과 화목하게 된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분의 독생자와 함께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제야 전에 미워하시던 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로 지내던 분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제 말이 참된지 사도가 증언하게 합시다. 그는 말합니다(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원수 노릇을 하며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놀랍고 신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미워하실 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이 지으시지 않은 모습 그대로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그분이 지으신 작품을 모든 면에서 다 삼켜 버리지는 않았으므로, 그분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우리가 만든 것은 미워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것은 사랑하실 줄 아셨습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22. 여기서 그분을 정죄한 총독의 이름과 죽음의 방식이 표현된 것은

역사의 신빙성을 세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것도 구속의 신비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속죄되고, 거기서 닥쳐오던 정죄가 없어지고 폐지되어야 했으므로, 그분이 아무 죽음이나 당하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속의 모든 부분을 바르게 이루시려면, 정죄를 당신께로 옮기시고 속죄 제물의 짐을 당신이 지셔서 그 두 가지 모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죽음의 방식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분은 지방 총독 아래서 정죄되셨습니다. 곧 재판관의 선고로 정죄되셨으니, 그분의 정죄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재판관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강도들에게 목이 베이셨거나, 반란 가운데 사사로운 사람들의 손에 소란스럽게 살해되셨다면, 그런 죽음에는 속상의 모습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피고로 법정에 세워지고, 증언들로 고발되고 몰리며, 재판관 자신의 입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 우리는 이런 증거들로 그분이 비참한 죄인의 인격을 지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둘은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미리 말해졌던 것이고, 믿음에 남다른 위로와 확증을 더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넘겨지시고 강도들 사이에 매달리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복음서 기자가 인용하는 예언, 곧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사 53:12; 막 15:28)[302]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그분이 의인이나 무죄한 이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를 대신 지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무죄함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분을 정죄하던 바로 그 입으로 그분이 무죄 선고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빌라도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공공연히 그분의 무죄함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글에 있는 "빼앗지 아니한 것을 물어 주었다"

302. 원문에는 "이사야 53장 11절"로 되어 있으나, 이 말씀은 53장 12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시 69:4)[303]라는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죄인이요 범죄자의 인격이 나타나 있음을 바라보고, 동시에 빛나는 무죄함 가운데 그분이 당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로 짐 지셨음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총독의 공식 판결로 이렇게 범죄자들의 수에 넣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총독은 그분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단언함으로써, 동시에 그분을 의롭다고 선언했습니다.

23. 이제 죽음의 모양 자체에도 남다른 신비가 없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작정으로도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신 21:23).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에 들리실 때 당신을 저주 아래 두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던, 아니 오히려 우리 위에 덮쳐 있던 모든 저주가 그분께로 옮겨짐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도 그림자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죄를 위해 드리는 속죄의 희생 제물들은 "하타오트"(חטאות)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 낱말로는 본디 죄 자체가 가리켜집니다.[304]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옮겨 씀으로써, 그 제물들이 이를테면 죄에 마땅한 저주를 받아 지는 정결 제물(καθαρμάτων)과 같다는 것을 넌지시 알리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제사들에서 상징으로 나타났던 것이 그리스도, 곧 상징들의 원형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의로운 속죄를 다 이루시려고 당신의 영혼을 "아샴"(אשם)으로, 곧 선지자가 말하듯이 죄를 위한 속상의 제물로 내어 주십니다(사 53:10)[305]. 그 제물 위에 얼룩과 형벌이 어떤 식으로 던져져서,

303. 원문에는 "시편 69편 5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304. [원문의심] 히브리어 낱말이 OCR에서 읽을 수 없게 깨져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죄, 속죄 제물"을 뜻하는 חטאות로 읽었습니다.

305. 원문에는 "이사야 53장 5절과 11절"로 되어 있으나, "아샴"(속건 제물)이라는 낱말은 53장 10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히브리어 낱말은 OCR에서 깨져 있어 문맥에 따라 읽었습니다.

그것이 더는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게 됩니다. 사도는 같은 것을 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고후 5:21).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흠에서 지극히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죄악의 수치와 치욕을 입으시고, 거꾸로 당신의 순결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 때문에 죄가 그분의 육신에서 정죄되었다고 가르칠 때(롬 8:3)에도 같은 것을 바라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옮겨졌을 때 죄의 힘을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아버지께 속상의 희생 제물로 바쳐지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제사로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이 그에게 담당되었다"(사 53:6)는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합니다. 곧 그분은 우리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 내시려고, 옮겨 돌리는 전가로 그 죄악을 덮어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이 일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말합니다(갈 3:13–1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되었으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저주에 짓눌리거나 꺾이실 만큼 그 저주를 받으셨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은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그 모든 힘을 꺾고 부수고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정죄에서 무죄 선고를, 저주에서 복을 붙잡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시며"

24.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구속의 값을 치르시려고 어디서나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을 내놓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 그 멍에로 우리를 매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 내시려고 우리 대신

당신을 사망의 권세에 넘겨주셨습니다. 사도가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쓸 때(히 2:9) 이것을 뜻합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다르셨던 점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사망에게 삼켜지도록 내주셨지만,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지않아 우리를 삼켜 버릴 그 사망을 삼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망에게 굴복되도록 내주셨지만, 그 권세에 짓눌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이미 쓰러진 우리를 짓밟고 있던 사망을 쳐부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히 2:14),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 종노릇하던 자들을 놓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첫째 열매입니다. 둘째 열매는 이것입니다. 그분은 당신께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땅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이셔서 그것들이 앞으로 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셔서 그것이 이제 다시 힘을 얻어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장사되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곧 우리도 그 장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죄에 대해 장사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접붙여졌고 그분과 함께 죄의 죽음 안에 장사되었다고 가르치고(롬 6:5; 갈 2:19),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가르치며(갈 6:14),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가르칩니다(골 3:3). 이때 그는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의 본을 그대로 나타내라고 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죽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할 효력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그 죽음 자체를 쓸모없고 열매 없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두 가지 은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곧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과

우리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1539–1554년판 제7장 사도신경 둘째 부분 해설 2

CO 1:529–53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529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25. 사도신경을 풀이한 옛 사람들의 글을 보면, 이 구절이 예전에는 교회들에서 그리 널리 쓰이지 않았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대한 일의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구절을 빠뜨리지 않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얼마쯤 시간이 지난 뒤에 끼워 넣어졌고, 곧바로가 아니라 차츰 교회들에서 익숙해졌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곧 이 구절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에서 취한 것입니다. 교부들 가운데 해석은 서로 달라도 자기 글에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음을 언급하지 않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또는 언제 처음 이 구절을 끼워 넣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거기에 모든 점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요약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으며,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그 안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우리 구속의 완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뒤에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도 이것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26. 또 한편으로, 여기서 무슨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장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다른 말로 되풀이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부”라는 낱말이 꽤 자주 무덤을 뜻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

니다. 그들이 이 낱말의 뜻에 관하여 내세우는 것, 곧 음부가 드물지 않게 무덤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참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맞섭니다. 이 이유들 때문에 저는 쉽게 그들과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조금도 어렵지 않은 일을 막힘없고 분명한 말로 이미 밝혀 놓고서, 그다음에 더 모호한 말의 짜임으로 그것을 밝히기보다 넌지시 가리키기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게으름이겠습니까? 같은 일을 나타내는 두 표현이 함께 이어질 때에는, 뒤의 것이 앞의 것의 풀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뜻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풀이가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믿음의 주요 조항들을 할 수 있는 한 가장 적은 말로 간추려 적어 놓은 이 요약에 그런 쓸데없는 군말이 기어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이 일 자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따져 본 사람은 누구든지 제 생각에 동의하리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27. 다른 이들은 음부를 땅 밑의 어떤 장소로 이해하고, 거기에 림보(limbus)라는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구약 아래서 살았던 조상들이 마치 감옥에 갇히듯 그곳에 갇혀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풀어 주시려고 그리로 내려가셔서 놋문과 쇠빗장을 힘으로 부수셨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비록 큰 권위자들을 등에 업고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진리로 변호하고 있지만,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키려는 자들이 스가랴에게서 끌어오거나 베드로에게서 끌어와 늘 들이미는 구절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스가랴가 주께서 시온과 맺으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 내셨다고 말할 때(슥 9:11), 그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아니고 림보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물 없는 구덩이로 비참의 가장 깊은 소용돌이를 가리키고, 갇힌 자들로 극심한 재난의 곤경에 묶인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가르칠 때(벧전 3:19), 그가 말하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속의 능력이 그때보다 먼저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 보여지고 환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늘 그분에게서 자기 구원을 기다려 온 신자들은 그때 그분의 찾아오심을 환히, 눈앞에 보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유기된 자들은 그분 안에만 유일한 구원이 있는데 자기들은 이미 거기서 제외되었음을 너무 늦게 깨닫고서, 자기들에게 아무 소망도 남아 있지 않음을 그때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아무 구별 없이 함께 옥에 가두는 것은, 마치 경건한 자들이 어떤 곤경에 묶여 짓눌렸던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마치 그늘진 구름 아래에서처럼 멀리서 바라보았으므로, 베드로는 그들의 이 애타고 매달린 기다림을 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아닙니다.

28. 그러므로 더 확실한 풀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풀이가 있으니, 그것은 거룩하고 경건할 뿐 아니라 뛰어난 위로로도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만 당하셨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응의 엄격함을 느끼시는 것이 마땅히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시고 그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시며, 지옥의 군대와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과 이를테면 맞붙어 싸우셔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그분에게 지워졌고, 그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께 맞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하셨다고 가르칩니다(사 53:5). 이 말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자리에 보증인으로, 담보로, 아니 죄인처럼 세워지셔서, 그들에게서 받아 내야 했던 모든 형벌을 치르고 갚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이 한 가지는 예외였으니, 그분은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행 2:24). 그러므로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29. 이것을 더 참되게 알기 위해 말하자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멀어졌다고 느끼는 것,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그대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 것, 이것이야말로 지옥의 가장 무섭고 가장 비참한 심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기까지 내던져지셔서, 극심한 괴로움에 몰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을 봅니다(시 22:1; 마 27:46).[306] 어떤 이들은 그분이 자기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쓰라림에서 나왔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분에게 원수이셨다거나 진노하셨다고 넌지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노여워하시는 아버지를 어찌 당신의 간구로 다른 사람들에게 누그러지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엄격함의 무게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맞고 괴로움을 당하셔서,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표지를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힐라리우스는 이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죽음이 멸해지는 것을 얻었다고 추론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우리 견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죽음, 음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음부에 계시지만, 사람은 하늘로 올려집니다." 이렇게 그분은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두려움과, 지옥의 고통과 맞붙어 싸우심으로써 그것들에게서 승리를 거두시고 개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군주께서 삼켜

306. 원문에는 "시 22:2"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버리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30.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장사에서는 연약함밖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믿음은 온전한 힘을 갖추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 구원의 굳건한 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만족되었으며, 저주가 없어지고, 형벌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으로 거듭났다고 일컬어집니다(벧전 1:3).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나오셨듯이, 우리 믿음의 승리도 결국 바로 그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바울의 말로 더 잘 표현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롬 4:25). 이는 마치 "그분의 죽음으로 죄가 없어졌고, 부활로 의가 새로 세워지고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 자신이 죽음에 굴복하셨다면, 어떻게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싸움에서 지셨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얻어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원의 재료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렇게 나눕니다. 죽음으로는 죄가 없어지고 죽음이 사라졌으며, 부활로는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일으켜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 힘과 효력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부활의 은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우리가 육의 죽임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데 달려 있다고 풀이했듯이, 그분의 부활에서도 그것에 맞서는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O 533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접붙여진 것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롬 6:5). 그러므로 그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데서 땅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논거를 끌어내듯이

(골 3:5),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므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도 거기서 끌어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새 생명을 좇으라고 초대받을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 거듭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서 셋째 열매도 얻습니다. 곧 우리는 이를테면 보증금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안심하게 됩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가장 확실한 토대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도 지나가며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말로 죽음과 부활의 참됨이 함께 표현됩니다. 이는 마치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본성의 법에 따라 겪는 그 똑같은 죽음을 당하셨고, 당신이 취하신 죽을 그 똑같은 육체 안에서 죽지 않음을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31.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곧 죽을 몸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치욕을 이미 벗어 버리심으로써,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더 온전히 빛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참으로 시작하신 것은 결국 하늘에 오르심으로써였습니다. 사도는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르셨다고 가르칠 때 이것을 보여 줍니다(엡 4:10). 우리는 그분이 그때 당신의 영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부어 주셨는지, 당신의 나라를 얼마나 더 장엄하게 넓히셨는지, 당신의 백성을 돕는 일에서나 원수들을 넘어뜨리는 일에서나 얼마나 더 큰 권능을 드러내셨는지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당신 몸의 임재를 우리 눈앞에서 거두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신자들과 함께 계시기를 그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임하는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분은 이 오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오르심으로 그분의 몸이 모

든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갔듯이, 그분의 능력과 효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경계 너머로 퍼지고 넓혀졌습니다. 이것을 저는 제 말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거쳐 아버지 우편으로 가실 것이었고, 거기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도 건전한 교리와 믿음의 규범에 따라 육체의 임재로 오실 것이다. 영적인 임재로는 그분이 오르신 뒤에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더 자세하고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은혜에 따라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 곧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모든 날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 28:20)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말씀이 취하신 육체에 따라서는, 곧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신 것, 나무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것, 세마포에 싸이신 것, 무덤에 두어지신 것, 부활로 나타나신 것에 따라서는 '너희가 나를 늘 함께 두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그분은 몸의 임재에 따라 사십 일 동안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이 배웅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따라가지는 못하고 보기만 하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으며,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행 1:3, 11; 막 16:19). 그분은 거기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히 1:3), 또 여기에도 계신다. 위엄의 임재로는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엄의 임재에 따라서는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육체의 임재에 따라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늘 함께 두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옳다. 교회는 육체의 임재에 따라서는 그분을 며칠 동안만 모셨다. 지금은 믿음으로 붙들고,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32. 그러므로 곧이어 그분이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덧붙습니다. 이것은 군주들에게서 가져온 비유입니다. 군주들은 곁에 앉는 보좌관들을 두고, 그들에게 다스리고 명령하는 일을 대신 맡깁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높이시고 그 손을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우편에

받아들여지셨다고 일컬어집니다. 이는 마치 그분이 하늘과 땅의 통치권에 오르셔서, 당신께 맡겨진 다스림을 엄숙하게 차지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한 번 차지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풀이하기 때문입니다(엡 1:20; 빌 2:9 참조).[307] "아버지께서 그분을 당신 우편에 세우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두셨다. 또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엡 1:22 등).[308] 그대는 이 앉으심이 무엇을 향하는지 봅니다. 곧 하늘의 피조물과 땅의 피조물이 다 그분의 위엄을 우러러보고, 그분의 손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능력에 복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토록 자주 이 앉으심을 언급할 때(행 2:30; 3:21; 히 1:3), 그들이 말하려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만물이 그분의 뜻에 맡겨졌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저 복된 상태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옳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그분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행 7:56)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통치의 위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앉으신다"는 것은 하늘의 재판석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33. 여기서 믿음은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둡니다. 믿음은 주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아담 때문에 닫혀 있던 하늘나라의 입구를 여셨음을 압니다(요 14:3).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를테면 우리 이름으로 그리로 들어가셨으므로,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그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엡 2:6). 우리는 하늘을 막연한 소망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안에서 소유하고 있기

307. [원문의심] 원문의 "cf. Phil. 2," 와 뒤의 "Hebr. 1," 은 절 번호가 OCR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맥에 따라 빌 2:9와 히 1:3으로 읽었습니다.
308. 원문에는 "엡 4:15" 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은 엡 1:22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이 아버지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분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얼굴 앞에 늘 우리를 위한 대언자와 간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히 7:25; 9:11; 롬 8:34). 그분은 아버지의 눈을 당신의 의로 돌리셔서 우리의 죄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셔서, 당신의 간구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과 입구를 열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다른 경우라면 비참한 죄인들에게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그 보좌를 은혜와 너그러우심으로 채우십니다. 셋째로 믿음은 그분의 권능을 붙듭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부요함과 지옥을 거슬러 자랑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면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셨고, 원수들을 노략하여 당신의 백성을 부요하게 하셨으며, 날마다 영적인 부요함을 그들에게 쌓아 주십니다(엡 4:8). 그러므로 그분은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거기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영적인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은사로 당신의 교회를 꾸미시고, 당신의 보호로 교회를 모든 해에서 안전하게 지키시며, 당신의 십자가와 우리 구원을 거슬러 날뛰는 원수들을 당신 손의 힘으로 누르시고, 마침내 당신의 원수들, 곧 우리의 원수이기도 한 그들을 모두 거꾸러뜨리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려는 것입니다.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34.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지금 가장 가까이 임하는 능력의 증거를 희미하지 않게 보여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가 육체의 낮아짐 아래 어떤 의미에서 땅에 숨어 있으므로, 믿음이 그분이 마지막 날에 드러내실 저 보이는 임재를 생각하도록 부름받는 것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분은 하늘로 오르시는 것이 보였던 그 모습대로 보이는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행 1:11; 마 24:30). 그리고 당신 나라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위엄과, 죽지 않음의 광채와, 신성의 헤아릴 수 없는 권능과, 천사들의 호위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양을 염소에게서, 택함받은 자들을 유기된 자들에게서 갈라놓으실 그날에 그분을 구속자로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에는 산 자든 죽은 자든 그분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먼 구석에서도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소리로 그날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과, 그보다 먼저 죽음이 산 자들의 무리에서 데려간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재판석 앞으로 불려 나올 것입니다. CO 535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라는 낱말을 달리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옛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풀이하면서 망설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앞의 뜻은 평이하고 분명한 만큼, 대중을 위해 쓰인 것이 분명한 사도신경에 훨씬 더 잘 맞습니다.

35.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단언하는 것(히 9:27)도 이것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죽을 생명으로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은 본성의 방식과 순서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들이 겪을 그 변화는 죽음과 같을 것이므로 죽음이라고 불러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지는 않으리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모든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죽을 생명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삼켜져서 전혀 새로운 본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육체의 이 소멸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산 자와 죽은 자가 심판에 불려 나오리라는 것은 여전히 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남아서 살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살전 4:16–17). 그리고 이 구절이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하게 명한 말에서 취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 그럴듯합니다(행 10:42; 딤후 4:1).

36. 여기서 뛰어난 위로가 솟아납니다. 곧 우리는 심판이 그분의 손에 있다고 듣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심판하는 영예에 당신과 함께 참여할 자로 정하셨으니,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재판석에 오르시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지극히 너그러운 군주가 어찌 자기 백성을 멸하겠습니까? 머리가 어찌 자기 지체들을 흩어 버리겠습니까? 대언자가 어찌 자기가 맡은 이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므로 정죄할 자가 아무도 나설 수 없다고 감히 외친다면(롬 8:33–34),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의 신실함과 보호 안에 받아들이신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은 훨씬 더 참됩니다. 우리가 서게 될 재판석이 다름 아닌 우리 구속자의 재판석이고, 그분에게서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 적지 않은 안심입니다. 게다가 지금 복음으로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는 그분이 그때 심판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확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심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니(요 5:22), 그렇게 하여 심판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당신 백성의 양심을 돌보신 것입니다.

37. 그런데 우리 구원의 전부와 그 낱낱의 부분까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므로, 그 가장 작은 부분 하나라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을 찾는다면, 그분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 그분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다른 어떤 선물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서 찾을 것입니다. 힘을 찾는다면 그분의 통치에서, 깨끗함을 찾는다면 그분의 잉태에서 찾을 것입니다. 너그러움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나심에서 드러납니다. 그분은 그 나심으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아지셔서 함께 아파하기를 배우셨습니다.[309] 구속을 찾는다면 그분의 고난에서, 사면을 찾는다면 그분이 정죄받으심에서, 저주의 면제를 찾는다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속상을 찾는다면 그분의 제사에서, 씻음

309. 원문에는 CO 편집자 각주로 “암브로시우스, 『야곱에 관하여』 1권 6장을 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을 찾는다면 그분의 피에서, 화목을 찾는다면 음부에 내려가심에서, 육의 죽임을 찾는다면 그분의 무덤에서, 새 생명을 찾는다면 그분의 부활에서, 죽지 않음을 찾는다면 같은 부활에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찾는다면 하늘에 들어가심에서, 보호와 안전과 모든 좋은 것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찾는다면 그분의 나라에서, 심판을 안심하고 기다리는 것을 찾는다면 그분께 맡겨진 심판의 권세에서 찾을 것입니다. 마침내 온갖 좋은 것의 보물이 그분 안에 있으니, 다른 데가 아니라 거기에서 배부르도록 길어 내야 합니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소망을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들은, 비록 주로 그분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바로 자기 생각의 어떤 부분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그 점 때문에 바른길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좋은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한번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불신은 기어들 수 없습니다.

셋째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38. 이제 성령을 믿는 믿음이 이어집니다. 이 믿음은 우리 구원의 완성에서 매우 필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은, 결국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누어질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가르칠 때(고전 6:11) 넌지시 가리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은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에 새겨지고 아로새겨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믿음에 성령을 믿는 믿음이 마땅히 이어 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아들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 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이름을 들을 때에는, 성경에서 그분께 돌리는 모든 직무를 기억에 떠올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흘러온다고 하는 은택들을 기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성령의 능력이요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움직이시고, 살리시고, 생기 있게 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자들을 당신께로 부르시고 이끄시며, 새 생명으로 중생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로 부요하게 하시고, 하늘의 힘으로 강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구원의 마지막 목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얼마나 엄청난 부요함을 소유하고 있는지 배우고 환히 압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분을 하늘나라의 보물이 우리에게 열리는 열쇠라고, 또 그분의 조명을 그 보물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CO 537 39. 그리고 이런 까닭으로 성령께서는 때로는 "보증과 인(ἀρραβὼν καὶ σφραγίς)"이라고 불리십니다(고후 1:22 등). 약속들의 확실성을 우리 마음에 인 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진리의 선생이요 빛을 지으신 분이라고, 때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샘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된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곧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거처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물 대심으로 우리를 기름지게 하셔서 의의 싹을 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꽤 자주 물이라고 불리십니다. 선지자의 다음 구절들이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아오라"(사 55:1). 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붓고 마른 땅에 강물을 부으리라"(사 44:3) 등.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자들을 다 불러 생수를 길어 마시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것과 맞아떨어집니다(요 7:37). 하지만 때로는 깨끗하게 하고 씻는 힘 때문에 그렇게 불리시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할 맑은 물을 약속하시는 곳이 그렇습니다(겔 36:25). 그분은 당신 은혜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참된 생명의 활력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기름 부음이라는 이름을 얻으십니다(요일 2:27). 그분은 우리 정욕의 악덕을 끊임없이 녹이고 태우셔서 우리 마음을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결과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불이라고 불리십니다(마 3:11). 마침내 그분은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움직이거나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과 움직이심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의 열매입니다. 그분 없이 우리가 지닌 재능은 마음의 어둠이요 심령의 비뚤어짐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성령께로 향하고 그분께 집중되는 것이 얼마나 열매 있고 필요한지 분명합니다. 그분 안에서 영혼의 조명과, 중생과, 모든 은사의 나누어 주심과, 나아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좋은 것들의 효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39–1554년판 ·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1

CO 1:537–55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537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교회와 그 통치, 질서, 권세, 권징에 관하여, 또 열쇠와 죄 사함과 마지막 부활에 관하여.[310]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를.

1. 교회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우리 위로에 쓰이도록 마땅히 살펴보아야 할 것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안으로"(in ecclesiam) 믿는다고 하기보다 "교회를"(ecclesiam) 믿는다고 하라는 가르침을 받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날에는 다른 쪽 말이 거의 더 널리 쓰이고, 옛 시대의 지지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사』에 실린 대로의 니케아 신경은 전치사를 덧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옛 사람들의 글에서, 예전에는 "교회 안으로"가 아니라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키프리아누스의 이름으로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소책자가 남아 있는 그 옛 저자가 누구이든 그가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그들은 전치사를 붙이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자기 견해를 가볍지 않은 이유로 굳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까닭은, 우리 마음이 참되신 그분께 기대고 우리의 신뢰가 그분 안에서 쉬기 때문입니다.

310. [원문의심] 장 부제는 OCR이 크게 깨져 있습니다("bemaiioney ordinej potestatc dc disciplim ay^ifar; item de davibtis, peccato}* sione et tdUma resurrectione"). 앞부분은 "(de ecclesia, eius) gubernatione, ordine, potestate ac disciplina", 뒷부분은 "item de clavibus, peccatorum remissione et ultima resurrectione"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는 그렇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죄 사함이나 육체의 부활에 들어맞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낱말을 두고 다투고 싶지는 않지만, 까닭 없이 일을 흐리게 하는 표현을 꾸며 쓰기보다는 그 일을 나타내기에 더 알맞은 적절한 말투를 따르고 싶습니다.

2. 이제 우리가 앞에서 미리 일러 둔 것을 기억에 되살려야 합니다. 곧 지금까지는 구원의 재료와 그 작용인을 밝혔고, CO 539 이제는 그 결과를 차례대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버지다운 너그러우심, 그리스도의 의, 성령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의 원인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죄 사함과 영생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구원이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으신 분이심을 배운 뒤에, 지으신 분 자신에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가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곧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의 온 수가 믿음의 띠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인도자와 군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의 몸으로 자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로 모이게 하시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교회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이것에서 분명합니다. 곧 우리가 죽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교회의 태에 잉태되어야 하고, 보존되려면 교회의 품에서 길러져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은혜의 보물을 교회에 맡겨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실함으로 보존되고, 교회의 사역으로 나누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택함받은 자들의 무리를 생각과 마음으로 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참으로 그 안에 접붙여졌다고 확신하는 그런 교회의 하나 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와 이렇게 결합함으로써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함께 맞붙여지지 않으면, 하늘 유업의 아무 소망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하나 됨 밖에는 아무 구원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으리라" (사 46:13; 욜 2:32).[311] 그러므로 주께서는 극한 멸망으로 위협하려 하시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당신 백성의 비밀한 모임에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겔 13:9).

4. 또 이 공동체는 공교회, 곧 보편적이라고 불립니다. 둘이나 셋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고 합쳐집니다. 그들은 한 머리에 달려 있듯이, 하나의 몸처럼 자라서 하나가 되고, 같은 몸의 지체들처럼 서로 짜여 맞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살며, 같은 영생의 유업으로만이 아니라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께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 교회의 몸에 받아들여지도록 택함받은 자들은 모두 주님께서 영적인 중생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이 순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롬 8:30). 곧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과 칭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곧 이것으로, 태어나기 전에 거기로 정해져 있던 자들이 교회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311. 원문에는 "욜 3:5" 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의 요엘서 3장 5절은 한국어 성경의 2장 32절입니다. 장절을 바꾸었습니다.

까닭으로 성경이 일컫는 말에서는, 주께서 이런 부르심으로 당신의 선택을 확증하신 자들 말고는 대개 교회 안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지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5. 그러나 교회가 어떤 거룩함으로 뛰어난지 바르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점에서 완전한 교회가 아니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다가, 교회를 하나도 남겨 두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니, 생명의 말씀 안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다" (엡 5:25–27) 등. 그러나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참입니다. 곧 주님께서는 날마다 교회의 주름을 펴시고 점을 씻어 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교회의 거룩함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자라 가면서도 아직 완전하지 않고, 날마다 나아가면서도 아직 거룩함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더 자세히 풀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이 지나다니지 못할 거룩한 예루살렘과, 더러운 자들이 들어가지 못할 지극히 거룩한 성전을 예언할 때(욜 3:17; 사 35:8),[312] 우리는 그것을 마치 교회의 지체들에게 흠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지 맙시다. 오히려 그들이 온 힘을 다해 거룩함과 굳건한 순결을 바라고 나아가므로, 그들이 아직 온전히 얻지 못한 깨끗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하게 하심의 표지가 사람들 가운데 꽤 자주 드물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세상이 지어진 때부터 주께서 당신의 교회를 가지지 않으신 때는 한 번도 없었고, 세상 끝 날까지 가지지 않으실 때도 없으리라고 확정해야 합니다. 온 인류가 처음부터 곧

312. 원문에는 "욜 4:17"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의 요엘서 4장은 한국어 성경의 3장입니다. 장절을 바꾸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부패하고 더럽혀졌지만, 그분은 이 더럽혀진 덩어리에서 늘 어떤 그릇들을 귀히 쓰도록 거룩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하나도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확실한 약속들로 증언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약속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과 언약을 세우며,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씨를 영원히 퍼뜨리며, 네 보좌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시 89:3–4).[313] 또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의 거처로 택하셨으니, 이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시 132:13) 등. 또 "낮의 빛을 위하여 해를 주시고 밤의 빛을 위하여 달과 별들을 주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법도들이 내 앞에서 없어지면 이스라엘의 씨도 없어지리라" (렘 31:35).

6. 다음 구절, 곧 성도의 교제에 관한 구절은 옛 사람들이 거의 빠뜨렸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CO 541 그러나 이 구절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믿는지 증언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 덧붙은 것들에서 취한 교회에 대한 더 분명한 설명이 이어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를 당신께로 모으시는 그 결속은, 그들이 서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어떤 교제로 결합될 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성령의 은사들이 나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 주어졌다고 가르칩니다(고전 12:4; 엡 4:7). 또 각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개인으로 소유하도록 허락하는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는 공공의 평화를 지키고 사람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재산의 소유권이 저마다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구별로 조금도 방해받지 않는 공동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무엇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313. 원문에는 "시 89:4"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나누어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그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어떤 공동성으로 함께 나누면서도, 그래도 각 지체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재능과 구별된 직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에서 고린도 사람들과 에베소 사람들에게, 각 사람이 받은 것은 온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내놓아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냅니다(고전 12:11; 엡 4:12). 선물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주는 직무도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다른 곳에서(롬 12), 나눔이 질서 있고 구별되어야 하므로 부르심도 여러 가지여야 한다고 추론합니다.

7. 이제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그 교제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도 교회의 지체라고 확신하려는 것이므로, 거기서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 됨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따로 구별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충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입니다(엡 1:23; 딤전 3:15; 시 46편; 욜 3:17, 21).[314] 우리가 이 교회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구원은 그토록 확실하고 굳건한 버팀목에 기대고 있어서, 온 세상의 틀이 흔들린다 해도 구원은 무너지거나 쓰러질 수 없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서 있으며, 그분의 영원한 섭리와 함께가 아니면 바뀌거나 그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견고하심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체들이 찢기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을 참지 않으시듯이, 당신의 신자들이 당신에게서 떼어지는 것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교회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진리가

314. [원문의심] 원문의 장절은 “Eph. 1. 11. 1 Tim. 8, 15. Psal. 4i), loel 4, 17. 21”로 깨져 있습니다. 인용한 말에 따라 엡 1:23, 딤전 3:15, 시 46편으로 읽고, 라틴어 성경의 욜 4:17, 21은 한국어 성경의 욜 3:17, 21로 바꾸었습니다.

늘 우리에게 굳게 서 있으리라는 것을 안심하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머무르실 것이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시리라는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속한다는 것을 느낍니다(시 46:5).[315]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붙들어 둘 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교제라는 이름 자체에도 아주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니, 주께서 당신의 지체들, 곧 우리의 지체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든, 그들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 소망이 굳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하나 됨을 품기 위해 교회 자체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믿음에 속한 것이라는 바로 그 점이, 교회가 우리의 지각을 넘어설 때에도 환히 드러나 보일 때 못지않게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믿음이 알려지지 않은 교회를 붙잡는다고 해서 더 못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은 명령은 유기된 자들을 택함받은 자들에게서 가려내라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로 따로 구별되었고, 우리도 그들의 수에 들어 있으므로 그토록 큰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실히 정해 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 그런데 이제는 보이는 교회, 곧 우리 지각 아래 들어오는 교회에 관하여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말할 자리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관하여 두 가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성경이 교회를 일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 교회에는 양자 삼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된 자들 말고는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땅에 사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처음부터 있었던 택함받은 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315. 원문에는 “시 46,”로 되어 있고 절 번호는 OCR이 깨져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의 46편 6절, 곧 한국어 성경의 46편 5절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주 교회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무리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무리는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고백하고, 세례로 그분을 믿는 믿음에 들어서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참된 교리와 사랑 안에서의 하나 됨을 증언하고, 주님의 말씀에 일치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역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 안에는 이름과 겉모양 말고는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위선자들이 아주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야심 많은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시기하는 자들, 남을 헐뜯는 자들이 아주 많고, 더 더러운 삶을 사는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용납됩니다. 정당한 판결로 그들의 죄를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거나, 마땅히 있어야 할 권징의 엄격함이 늘 살아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어야 하듯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를 존중하고 그 교제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9. 주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확실한 표지와 이를테면 상징으로 당신의 교회를 우리에게 가리켜 보이셨습니다. 누가 당신의 사람들인지 아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자신만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대로입니다(딤후 2:19). 그리고 분명히, 사람들의 무모함이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그분의 감추어진 판단이 우리의 지각을 얼마나 멀리 넘어서는지 날마다 일어나는 일 자체가 일깨워 주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아주 가망 없다고 여겨졌던 자들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길로 다시 불려 오고, 남보다 더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이 자주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예정에 따르면 “밖에 있는 양들도 아주 많고, 안에 있는 이리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아시고 인 쳐 두셨기 때문입니다. 또 드러나게 그분의 표지를 지니고 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거짓 없이 거룩하

고 끝까지 견딜지는 오직 하나님의 눈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께서는 누구를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여겨야 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유익하다고 보셨으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이해력에 당신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실성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그 대신 사랑의 어떤 판단을 두셨습니다. 그 판단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본과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의 지체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몸 자체를 아는 것이 우리 구원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그만큼 더 확실한 표지로 그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10. 여기서 우리 눈에 뚜렷이 보이는 교회의 얼굴이 생겨나고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들려지는 곳,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대로 집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곳이면 어디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디든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마 18:20)는 그분의 약속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요점을 분명히 붙잡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합니다. 보편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서 모인 무리로서, 장소의 거리로 떨어지고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의 한 진리에 일치하고, 같은 경건(religion)의 띠로 묶여 있습니다. 이 보편 교회 아래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도시마다 마을마다 배치된 개별 교회들이 포함되어, 그 각각이 정당하게 교회의 이름과 권위를 가집니다. 또 경건을 고백하여 그런 교회들 가운데 헤아려지는 개인들은, 비록 실제로는 교회에 낯선 자들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판결로 쫓겨나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을 평가하는 것과 교회들을 평가하는 것은 이치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들과 사귈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게 하는 교회의 공동 합의 때문에,

형제처럼 대하고 신자로 여겨야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지체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그것이 정당한 법으로 빼앗기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남겨 둡니다. 그러나 무리 자체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 무리가 말씀의 사역을 가지고 존중하며 성례의 집행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무리는 의심할 것 없이 교회로 여겨지고 헤아려질 만합니다. 그것들이 열매 없이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의 영들이 늘 갈라놓으려고 애써 온 보편 교회의 하나 됨을 지키면서, 장소의 형편에 따라 나뉘어 있는 정당한 모임들에게서도 그 권위를 빼앗지 않습니다.

11. 우리는 교회를 알아보는 표지로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준수를 내세웠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에 있든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복으로 형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곧바로 열매가 솟아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자리를 굳게 잡는 곳이면 어디서나 반드시 그 효력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복음의 전파가 경외심으로 들려지고 성례가 소홀히 여겨지지 않는 곳에는, 그동안 속이지도 않고 애매하지도 않은 교회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런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그 경고를 물리치거나, 그 권면을 거스르거나, 그 책망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도 벌을 면치 못합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그 하나 됨을 끊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당신 교회의 교제를 그토록 귀히 여기셔서, 말씀과 성례의 참된 사역을 지키기만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든 고집스럽게 자기를 떼어 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건(religion)을 저버린 탈주자와 배반자로 여기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 세우셔서, 그 권위가 손상될 때 당신 자신의 권위가 깎인 것으로 여기십니다.

12. 그러므로 우리는 저 표지들을 마음에 부지런히 새겨 두고, 주님의

판단대로 그것들을 귀히 여깁시다. 사탄이 이 둘 가운데 하나를, 또는 둘 다를 없애고 폐하려고 꾀하는 것보다 더 힘쓰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이 표지들을 없애고 지워 버림으로써 교회를 가려내는 참되고 진정한 구별을 빼앗으려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멸시하는 마음을 심어 드러난 배교로 우리를 교회에서 낚아채 가려 합니다. 사탄의 술책으로 말씀의 순수한 전파가 몇 세기 동안 사라졌고, 지금도 그는 같은 악랄함으로 사역을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그 사역을 이렇게 세우셔서, 사역이 없어지면 교회의 세워짐도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교회를 넉넉히 묘사한다고 여기신 그 표지와 증표가 보이는 모임에서 갈라져 나가려는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기만 해도,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아니 얼마나 파멸적인 시험입니까? 우리는 양쪽으로 얼마나 큰 조심이 필요한지 봅니다. 교회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속지 않도록,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는 모든 모임은 이를테면 시금석에 대듯이 저 시험에 대어 보아야 합니다. 그 모임이 말씀과 성례에서 주께서 정하신 질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그 모임에 교회들에게 마땅한 영예를 돌립시다. 그러나 반대로 그 모임이 말씀과 성례 없이 자기를 내세운다면, 다른 쪽에서 무모함과 교만을 피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그런 속임수를 경건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CO 545 13. 우리는 말씀의 순수한 사역과 성례를 거행하는 순수한 의식이, 이 둘이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안심하고 교회로 품을 수 있게 하는 알맞은 담보와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공동체가 이 둘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다른 점에서는 많은 악덕이 들끓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 공동체를 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데까지 미칩니다. 더 나아가 가르침에서나 성례의 집행에서나 어떤 결함이 스며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 공동체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가르침의 조항들이 모두 한 가지 모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항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너무나 커서, 경건(religion)의 고유한 교리처럼 모든 사람에게 확정되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교회들 사이에 논란이 되더라도 믿음의 하나 됨을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한쪽은 다툼을 좋아하는 마음 없이, 고집 없이, 몸에서 떠나는 영혼들이 하늘로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장소에 관해서는 감히 아무것도 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영혼들이 주님께 살아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에 교회들이 갈라설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자들은 다 같은 생각을 품읍시다. 혹시 여러분이 무엇을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빌 3:15). 이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이런 일들에 관한 의견 차이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라섬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넉넉히 보여 주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일에서 우리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의 작은 구름에 싸여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우리는 교회를 하나도 남겨 두지 않든지, 아니면 경건(religion)의 요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모를 수 있는 일들에서는 잘못 본 것을 용서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가장 작은 오류라도 감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비위 맞추고 눈감아 주어 북돋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경건의 안전이 달려 있는 가르침만이라도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게 지키고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사용을 지키는 교회를, 아무 작은 의견 차이 때문에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힘쓴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분에 따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계시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라"(고전 14:30). 여기

서 교회의 지체 각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공동의 세움을 위해 힘쓰는 일이 맡겨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은 품위 있게, 질서를 따라 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교회의 교제를 끊어 버리거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의 다스림과 권징의 짜임을 어지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14. 그런데 삶의 불완전함을 참아 주는 일에서는 우리의 너그러움이 훨씬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미끄러지기가 매우 쉽고, 사탄이 예사롭지 않은 꾀로 우리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거짓된 확신에 젖어, 마치 자기들이 이미 무슨 공중의 영들이라도 된 것처럼, 아직 사람다운 무엇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모든 사람과의 사귐을 경멸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옛날의 카타리파와, 그들의 미친 생각에 가담한 도나투스파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다른 이들보다 더 나아간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재세례파 가운데 몇몇이 그런 자들입니다. 저 미친 교만보다는 오히려 사려 깊지 못한 의에 대한 열심으로 죄를 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열매가 그 가르침에 걸맞지 않은 것을 보고는, 곧바로 거기에는 교회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극히 정당한 거리낌이고, 이 지극히 비참한 시대에 우리가 그 거리낌의 빌미를 넘치도록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받을 게으름은 변명할 수 없으며, 주께서는 그것을 벌하지 않고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무거운 채찍으로 징계하기 시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방탕한 죄악의 방종으로 우리 때문에 연약한 양심들이 상처를 입게 하는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저 사람들은 거꾸로 이 점에서 죄를 짓습니다. 곧 그들은 자기들의 거리낌에 한도를 정할 줄 모릅니다. 주께서 너그러움을 요구하시는 곳에서, 그들은 너그러움을 내버리고 지나친 엄격함에 자신을 온통 내맡깁니다. 그들은 삶의 굳건한 순결과 흠 없음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악한 자들의 무리를 피한

다고 생각하면서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당한 교회에서 떠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하다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그물에 견주는 비유가 참되기 때문입니다. 그 그물에는 온갖 물고기가 모이고, 바닷가에 끌어 올려 놓기 전에는 가려내지 않습니다(마 13:47). 또 교회가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원수의 속임수로 가라지가 끼어든 밭과 같아서, 추수한 곡식을 타작마당에 들이기 전에는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는다는 것도 들어야 합니다(마 13:24). 마지막으로 교회가 타작마당과 같아서, 거기에 모인 밀이 쭉정이 아래 숨어 있다가 키와 체로 깨끗하게 된 뒤에야 마침내 곳간에 들여진다는 것도 들어야 합니다(마 3:12). 주께서 교회가 심판 날까지 악한 자들이 섞여 짐을 지는 이 병을 앓으리라고 선언하신다면, 그들이 흠 하나 묻지 않은 교회를 찾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15. 그러나 그들은 악덕의 역병이 이렇게 곳곳에 퍼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외칩니다. 여기에도 사도의 견해가 맞서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몇몇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거의 온몸에 더러움이 퍼져 있었습니다. 죄의 종류도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았고, 가벼운 잘못이 아니라 끔찍한 죄악들이었습니다. 행실만 썩은 것이 아니라 가르침도 썩어 있었습니다. CO 547 여기서 거룩한 사도, 곧 하늘 성령의 도구요 그의 증언으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그 사도는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서 갈라서기를 꾀합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내쫓습니까? 저주의 마지막 벼락으로 그들을 칩니까? 그는 이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도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툼과 분파와 시기가 들끓고, 소송과 말다툼이 탐욕과 함께 성하며, 이방인들에게도 가증할 죄악이 드러나게 용인되고, 그들이 아버지처럼 받들어야 했던 바울의 이름이 함부로 짓밟히며, 어떤 이들은 그것이 무너지면 복음 전체가 무너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비웃고, 하나

님의 은사들이 사랑이 아니라 야심을 섬기며, 아주 많은 일이 품위 없고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에도 교회가 남아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말씀과 성례의 사역이 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남아 있다면, 이 죄악들의 십분의 일도 덮어씌울 수 없는 자들에게서 누가 감히 교회의 이름을 빼앗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을 향해 그토록 까다롭게 날뛰는 자들이라면, 묻건대, 복음을 거의 저버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같은 사도는 그들 가운데에서 교회들을 찾았습니다.

16. 그들은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자기들의 모임 안에 용납한다고 해서 그들을 심하게 꾸짖고(고전 5:2), 이어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과는 빵조차 함께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선언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외칩니다. "보통 빵도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면, 어떻게 주님의 빵을 함께 먹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돼지와 개들이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분명 큰 수치이고,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이 그들에게 함부로 내맡겨진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수치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잘 다스려진다면, 악인들을 자기 품에 두지 않을 것이고, 저 거룩한 잔치에 합당한 자들과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뒤섞어 함께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늘 그렇게 부지런히 깨어 있지는 않고, 때로는 마땅한 것보다 더 너그럽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엄격함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기도 하므로, 드러나게 악한 자들조차 늘 성도들의 모임에서 물러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함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날카롭게 책망하므로, 저는 이것을 가볍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기 직무를 게을리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곧바로 개인 각자가 갈라섬의 판단을 스스로 맡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악한 자들과의 모든 사사로운 사귐에서 물러나고, 스스로 원해서 그들과 어떤 친분에 얽

혀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어울리기를 피하는 것과,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교제를 끊어 버리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자들과 주님의 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들은 바울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참여하라고 권할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피라거나 각 사람이 온 교회를 살피라고 요구하지 않고, 각자 자기를 살피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고전 11:28). 합당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바울은 분명히 무리 가운데 그 더러움으로 우리가 더럽혀질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은지 둘러보라고 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각자에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만 요구하므로, 합당하지 않은 어떤 자들이 우리와 함께 끼어든다 해도 우리에게 조금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가 이어서 덧붙이는 말도 다른 것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는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고전 11:29).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합니다.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물리쳐야 하는지는 개인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일은 온 교회의 일이며, 그 일은 정당한 질서 없이는 행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의 합당하지 않음 때문에 더럽혀진다는 것은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17. 그런데 이 시험이 사려 깊지 못한 의에 대한 열심에서 때로는 선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곧 지나친 까다로움은 참된 거룩함과 거룩함을 향한 참된 열심에서보다는 오히려 교만과 거만과 거짓된 거룩함의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에 다른 이들을 부추기는 자들이요 이를테면 앞장선 기수인 자들은, 대개 모든 사람을 멸시함으로써 자기들이 다른 이들보다

낫다는 것을 내보이려는 것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잘, 그리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교회 권징의 경건한 이치와 방식은 무엇보다 평안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됨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도는 서로 용납함으로써 이 하나 됨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 하나 됨이 지켜지지 않으면 징벌의 약은 쓸데없을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며, 그러므로 이제는 약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다툼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데 걸려든 연약한 무리를 통째로 끌고 가거나 적어도 갈라놓으려고 애쓰는 저 악한 자녀들은, 교만으로 부풀고, 고집으로 미쳐 있으며, 중상으로 음흉하고, 소요로 어지러운 자들이다. 그들은 진리의 빛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엄격한 준엄함의 그림자를 앞세운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랑의 진실함을 해치지 않고 평안의 하나 됨을 지키면서 더 온건한 처방으로 형제의 허물을 바로잡으라고 명한 것들을, 그들은 분열의 신성 모독과 끊어 냄의 기회로 삼는다." 그러나 경건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권합니다.[316]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자비롭게 바로잡고,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은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바로잡으시든지,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으시고 쭉정이를 까부르시든지 하실 때까지 사랑으로 탄식하고 슬퍼하라."

18. 모든 경건한 사람은 이 무기로 자신을 무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기들이 의를 지키는 힘차고 용감한 수호자라고 여기는 동안에, 오직 하나뿐인 의의 나라인 하늘나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겉으로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 당신 교회의 교제가 지켜지기를 원하셨으므로, 악한 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의 증표를 깨뜨리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기 쉬운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CO 549 그들은 큰 무리 가운데 주님의 눈앞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들이 자기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316. 원문의 CO 편집자 각주에는 "같은 책 2장"이라고만 남아 있습니다.

병든 것처럼 보이는 자들 가운데에도, 자기 악덕을 결코 기뻐하거나 스스로 비위 맞추지 않고, 주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듭 깨어나 더 큰 온전함을 바라고 나아가는 이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도 때로는 아주 무겁게 넘어지므로,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과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데 지닌 힘은, 몇몇 불경건한 자들의 허물 때문에 그 힘 전체가 사라질 수 있을 만큼 작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데에는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19. 그리스도 자신과 사도들과 거의 모든 선지자가 이 일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요엘과 하박국과 그 밖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병을 한탄하는 묘사들은 끔찍합니다. 백성에게도, 위정자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모든 것이 너무나 썩어 있어서, 이사야는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외칩니다(사 1:6). 경건(religion)은 한편으로는 멸시받고 한편으로는 더럽혀졌습니다. 행실에서는 곳곳에서 도둑질, 강탈, 배신, 살인, 그리고 이와 비슷한 죄악들이 이야기됩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그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 새 교회를 세우거나, 따로 제사를 드릴 새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어떠하든, 주께서 그들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고 거기서 당신을 섬기게 하는 의식을 제정하셨다고 여겼으므로, 불경건한 자들의 모임 한가운데에서 깨끗한 손을 그분께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거기서 무슨 더러움이라도 옮아 온다고 생각했다면, 그리로 끌려가는 것을 참느니 차라리 백 번이라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갈라서지 않도록 붙든 것은 하나 됨을 지키려는 열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온 백성의 아주 많고 아주 큰 죄악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을 거룩한 선지자들이 꺼리는 일로 여겼다면, 모든 사람의 행실이 우리

판단에, 아니 그리스도인의 고백에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감히 교회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20. 이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저 절망적인 불경건도, 그때 곳곳에 판치던 방탕한 삶의 방종도, 그들이 백성과 함께 같은 예식을 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건(religion)의 공적인 의식을 위해 한 성전에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양심으로 같은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악한 자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권위에는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키프리아누스는 잘 말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나 더러운 그릇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떠날 까닭은 없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우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도록 애쓰고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은 쇠 지팡이를 받으신 주님만의 일이다. 또 누구도 아들에게만 고유한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자기가 타작마당을 까부르고 쭉정이를 깨끗하게 하며 모든 가라지를 사람의 판단으로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만한 고집이요, 비뚤어진 광기가 스스로 떠맡는 신성 모독적인 주제넘음이다" 등. 그러므로 이 둘을 굳게 붙들어 둡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가 집행되는 곳에서 교회의 겉으로 보이는 교제를 스스로 저버리는 사람은 아무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적은 사람의 악덕이든 많은 사람의 악덕이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으로 우리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을 조금도 막지 못합니다. 목사든 개인이든 다른 사람의 합당하지 않음 때문에 경건한 양심이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신비는 더러운 자들이 함께 만진다고 해서 거룩하고 올바른 사람에게

덜 순결하거나 덜 구원에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들이 잘 다스려진다면, 죄짓는 쾌락에 취한 듯 자기 악에 빠져 잠든 줄로 아는 악인들을 자기 품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썩은 지체에서처럼 전염이 온몸으로 번져 성한 부분들을 썩게 하지 않도록, 주께서 가장 좋은 처방으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바로 이 쓰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출교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짓으로 내세우면서도 삶의 악함과 고삐 풀린 죄의 방종으로 교회의 걸림돌일 뿐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자격이 없는 자들을 신자들의 모임에서 끊어 내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드러난 간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도둑들, 사기꾼들, 강도들, 약탈하는 자들, 살인자들, 선동하는 자들, 폭행하는 자들, 싸우기 좋아하는 자들, 거짓 증인들, 불의한 자들, 술 취하는 자들, 방탕하게 먹고 마시는 자들, 재산을 탕진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부류의 다른 자들 가운데 바르게 권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자기 사귐에서 쫓아낼 때, 교회는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스스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도 교회의 이런 판결을 고집스럽게 멸시하거나, 신자들의 판단으로 정죄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께서는 그것이 다름 아닌 당신 판결의 공포이며, 그들이 땅에서 행한 것이 하늘에서도 확정된다고 증언하셨습니다(마 18:18). 그들은 비뚤어진 자들을 정죄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돌이키는 자들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징의 이 띠 없이도 교회들이 오래 설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미리 보시고 마련하신 이 버팀목 없이도 우리가 아무 해 없이 지낼 수 있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권징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그 여러 가지 쓰임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2

CO 1:551–56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551 [317]첫째 쓰임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악행을 일삼는 자들과 공공연히 악한 사람들의 결탁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이런 냄새나고 썩은 지체들로 더럽혀지면 그 치욕의 얼마가 머리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에 오명이 찍힐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도록, 그 추악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불명예가 넘쳐 돌아갈 자들은 교회의 집안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둘째 쓰임은, 흔히 그렇듯이 그들과 늘 어울리다가 선한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곁길로 빠지기 쉬운 성향을 지녔으므로, 악한 본보기 때문에 바른 삶의 길에서 끌려 나가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근친상간한 자를 그들의 사귐에서 내보내라고 명할 때 이 쓰임을 짚었습니다(고전 5:6 이하).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패하게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만큼 큰 위험을 내다보았기에, 모든 교제까지도 금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약탈하는 자이면, 그런 자와는 함께 먹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셋째 쓰임은, 그들 자신이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기 추악함을 뉘우치기 시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뉘우침에서 마침내

317.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돌이키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악함이 징계받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너그러이 대하면 더 완고해졌을 자들이 회초리를 느끼고 깨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양 떼에서 내쫓기는 자들은 구원의 소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삶의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시적인 바로잡음으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 뜻하는 바가 이것입니다(살후 3:14). "누가 우리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지목하고 그와 섞이지 말아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또 다른 곳에서(고전 5:5) 그는 고린도의 근친상간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영이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씁니다. 이것은, 적어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가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일시적인 정죄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육체에 가해지는 어떤 괴롭힘으로 돌리는데, 제게는 그것이 지극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을 택함받은 자들의 수에서 지워 버리거나, 이미 멸망한 자들처럼 여겨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한 그 앎의 규칙대로 그들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여기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갈라져 있는 그 기간 동안만입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겸손보다는 고집의 모습을 더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에 의탁하며, 지금 보는 것보다 앞으로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바랍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손과 판단에 달린 그 사람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말고,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지만 주님의 율법에 따라 평가합시다. 이 규칙을 따르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놓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분의 자비에 법을 정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판단하는 데 이보다 더 많은 방자함을 우리에게 주장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실 때마다 가장 악한 자들이 가장 선한 자들로 바뀌고, 낯선 자들이 접붙여지고, 외인들이 교회에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들의 생각을 비웃으시고 그 경솔함을 꺾으십니다. 그 경솔함은 억제되지 않으면 마땅한 것보다 더한 판단의 권리를 감히 스스로 차지하려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땅에서 풀거나 맨 것은 하늘에서 풀리고 매인다고 단언하셨다고 해서, 누가 교회에 속하고 누가 교회에 속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두 번 되풀이하시지만, 서로 다른 뜻으로 쓰십니다. 첫째 곳(마 16:19)에서는 매인 자와 풀린 자를 우리에게 드러내 놓고 가리켜 눈앞에 보여 줄 어떤 외적인 표지를 주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약속하실 뿐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구속과 해방으로 내어 주는 복음의 약속이 땅에서, 곧 이 삶에서 사람에게서 자기에게 전파되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늘에서, 곧 하나님 앞과 하늘 법정에서 참으로 풀리고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물리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결박 속에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 더 단단히 묶인다는 증언이 그 약속에서 나옵니다. 둘째 곳(마 18:18)은 출교를 말하는 곳인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매는 힘을 교회의 견책에 한정하십니다. 이 견책으로 출교당하는 자들은 영원한 파멸과 절망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과 행실이 정죄받는 것을 들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영원한 정죄가 있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출교가 저주(anathema)와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저주는 모든 용서를 빼앗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바치고 넘깁니다. 출교는 오히려 행실을 벌하고 다스립니다. 출교도 사람을 벌하기는 하지만, 그의 장래 정죄를 미리 경고함으로써 그를 구원으로 다시 부르도록 벌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화목과, 사귐의 은택으로 돌려놓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에 따라 출교당한 자들과 더 허물없이 지내거나 더 깊이 사귀는 것은 허락되지 않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권면과 가르침으로든, 너그러움과 온유함으로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도로

든, 그들이 더 나은 열매로 돌이켜 교회의 사귐과 하나됨으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꾸짖으라” 고 그는 말합니다(살후 3:15). CO 553 그는 온 교회에도 회개의 표지가 보이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같은 너그러움을 요구합니다. 그는 교회가 지나치게 엄한 혹독함을 행하거나, 자기 권리를 끝까지 따지거나, 쉽게 용서하려 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큰 근심에 삼켜지지 않도록 먼저 나아가 기꺼이 그를 맞아 껴안으라고 명합니다. 이 절제를 꼼꼼하고 경건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권징에서 곧 잔혹한 형벌 집행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21. 말씀과 성례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게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존중함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알아보는 영구한 표지가 되는지가 설명되었습니다. 곧 그 사역이 온전하고 손상 없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행실의 어떤 허물이나 병도 그 모임이 교회라는 이름을 지니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역 자체도 가벼운 오류들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못할 만큼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용서를 받아야 할 오류들은 경건(religion)의 주요 교리를 해치지 않는 것들, 모든 신자 사이에 일치해야 할 경건의 요점들을 억누르지 않는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례에서는 제정하신 분의 정당한 제정을 없애거나 흔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짓이 경건의 성채에 쳐들어오고, 필요한 교리의 요체가 뒤집히고, 성례의 사용이 무너지자마자, 틀림없이 교회의 멸망이 뒤따릅니다. 목이 꿰뚫리거나 심장이 치명상을 입으면 사람의 목숨이 끝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에서 분명히 증명됩니다. 그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리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요긴한 모퉁잇돌이시라고 가르칩니다(엡 2:20). 신자들에게 자기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 두라고 명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리가 교회의 기초라면, 그 교리를 없애 버리고서 어떻게

건물이 더 서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떠받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경건의 요체가 무너지는 곳에서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면(딤전 3:15), 거짓과 허위가 나라를 차지한 곳에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22. 교황제 아래에서 사정이 이러하므로, 거기에 교회의 무엇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 대신에 비뚤어지고 거짓으로 빚어진 가르침이 거기서 다스립니다. 주의 성찬 자리에는 가장 추악한 신성 모독이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갖가지 견딜 수 없는 미신 더미로 일그러졌습니다. 교리는(그것 없이는 기독교가 서지 못합니다) 모조리 묻히고 내쫓겼습니다. 공적 집회는 우상 숭배와 불경건의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많은 악행에 치명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찢겨 나갈 위험은 조금도 없습니다. 교회의 사귐은 우리를 우상 숭배와 불경건과 하나님을 모름과 그 밖의 온갖 악에 얽어매는 끈이 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함과 진리에 대한 순종 안에 붙들어 두는 끈이 되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23. 저들은 참으로 자기들의 교회를 거창하게 내세워, 세상에 다른 교회는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다음에는 마치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자기들이 그려 내는 그 교회에 대한 순종에서 몸을 빼는 자는 모두 분열주의자이고, 그 교리에 맞서 감히 중얼거리는 자는 모두 이단이라고 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근거로 자기들에게 참된 교회가 있다고 확증합니까? 그들은 옛 연대기에서 예전에 이탈리아, 갈리아, 히스파니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끌어옵니다. 건전한 교리로 교회들을 세우고 일으켰으며 교리 자체와 교회의 건덕을 자기 피로 굳게 한 저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자기들이 기원을 이끌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영적 은사와 순교자들의 피로 자기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감독들의 끊임없는 계승으로 보존되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레나이우스와 아우구

스티누스와 다른 이들이 이 계승을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를 열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찮고 아주 우스운 것인지는, 저와 함께 조금 차분히 따져 보려는 사람들이 아무 수고 없이 깨닫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침으로 저들에게 무엇이든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저는 저들에게도 여기에 진지하게 마음을 기울이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진리의 이치는 버려둔 채, 할 수 있는 어떤 길로든 자기 일을 밀고 나가는 것 하나만이 목적이므로, 저는 선한 사람들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들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만 조금 말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저들에게 묻습니다. 왜 아프리카와 이집트와 온 아시아는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지역에서 이 거룩한 감독 계승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 계승 덕분에 자기들이 교회를 지켜 왔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말은 결국, 자기들의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감독이 없었던 적이 없으니 자기들에게 참된 교회가 있다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끊임없는 차례로 감독들이 서로 뒤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를 들이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저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리스 사람들에게서는 교회가 망했다고 말합니까? 저들의 생각으로는 교회의 유일한 수호자이자 보존자인 그 감독 계승이 그들 가운데서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분열주의자로 만듭니다.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사도좌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특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야말로 훨씬 더 그 특권을 잃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후손들이 조상들에게서 손에서 손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전하고 부패하지 않게 지키고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계승이라는 구실은 헛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24. 그러므로 오늘날 로마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예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에게서 눈멂과 불경건과 우상 숭배를 책망받을 때 내세운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저 유대인들이 성전과 의식과 제사장직을 뽐내며 자랑했고,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들을 큰 증거로 삼아 교회를 가늠했듯이, 이 사람들도 교회 대신에 어떤 바깥 가면들을 내세웁니다. 그 가면들은 흔히 교회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들 없이도 교회는 넉넉히 설 수 있습니다. CO 555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은 자신감에 맞서 싸울 때 쓴 논증 말고 다른 논증으로 이들을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거짓말을 자랑하며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지 말라"(렘 7:4)[318]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들리고 경건하게 지켜지는 곳이 아니면 어디서도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안 그룹들 사이에 앉아 있었고 주님께서 그 자리가 당신의 정해진 자리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제사장들이 비뚤어진 미신으로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부패시키자, 그 영광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그곳을 아무 거룩함 없이 남겨 둡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보이던 그 성전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속되게 될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교회라는 이름과 겉모습만 지닌 자들 곁에 머무셔야 할 만큼 사람이나 장소에 매이시거나 바깥 의식에 붙박이신 분으로 꾸며 낼 까닭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2장까지 벌이는 논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약한 양심들을 몹시 어지럽힌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던 자들이 복음의 교리를 물리칠 뿐 아니라 박해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리를 풀어 설명한 뒤에 이 어려움을 없애고, 진리의 원수인 저 유대인들은, 교회의 바깥 모양에 달리 바랄 만한 것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더라도, 교회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가 그렇게 부정하는 까닭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 오늘날 로마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스도의

318. 원문에는 절 번호가 빠져 "렘 7"로만 되어 있어, 인용된 말씀의 절(4절)을 채웠습니다.

으뜸가는 대적이면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지한 자들을 겁줍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성전과 제사장직과 그 밖의 이런 가면들을 내세우더라도, 단순한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는 이 헛된 광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곳을 교회로 받아들이게끔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찍어 두신 영구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요 18:37).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요 10:14).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 10:27).[319] 조금 앞에서 그분은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낯선 자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니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표지로 교회를 가리켜 주셨는데, 우리는 왜 교회를 가늠하는 데 스스로 미친 짓을 합니까? 그 표지가 보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것은 거기에 교회가 있음을 틀림없이 보여 주며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곳에는 교회를 참되게 알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람들의 판단 위에나 제사장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리 위에 세워졌다고 일깨웁니다(엡 2:20). 오히려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탄의 결탁과,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서로 구별하신 바로 그 차이로 분간해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요 8: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분은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만 다스리시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분의 홀, 곧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 없이 있다고 꾸며 대는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누구에게 모호하겠습니까?

26. 이제 저들이 우리를 분열과 이단의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우

319. 원문에는 "같은 곳 4절"로 되어 있으나, 인용된 말씀은 요 10:27입니다.

리가 다른 교리를 전파하고, 저들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기도와 세례와 성찬 집례와 그 밖의 거룩한 일들을 위한 집회를 따로 갖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매우 무거운 고발이지만, 길거나 수고로운 변호가 결코 필요하지 않은 고발입니다. 이단과 분열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은 불화를 일으켜 교회의 사귐을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두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에 대한 동의와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단과 분열주의자 사이에 이런 차이를 둡니다. 이단은 거짓 교의로 믿음의 순수함을 부패시키고, 분열주의자는 때로 믿음이 같은데도 사귐의 끈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결합은 믿음의 하나됨에 달려 있어서, 믿음의 하나됨이 사랑의 결합의 시작이요 끝이요 마침내 유일한 규칙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권해질 때마다 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가운데 우리 의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호의로 결합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권할 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것을 기초로 삼습니다(엡 4:5). 아니, 그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원하라고 가르치는 곳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주님의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는 신자들의 한마음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의 패거리라는 뜻입니다.

27. 키프리아누스도 바울을 따라, 교회의 모든 화합의 샘을 그리스도의 유일한 감독직에서 이끌어 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하나이며,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 더 넓게 여럿으로 퍼져 나갑니다. 해의 빛살은 많으나 빛은 하나이고, 나무의 가지는 많으나 질긴 뿌리에 박힌 줄기는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또 한 샘에서 여러 시내가 흘러내릴 때, 넘치는 풍성함의 넉넉함으로 그 수가 흩어져 보이더라도, 하나됨은 근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의 몸에서 빛살 하나를 떼어 내 보십시오. 하나

됨은 나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보십시오. 꺾인 가지는 싹을 낼 수 없습니다. 샘에서 시내를 끊어 보십시오. 끊긴 시내는 말라 버립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도 빛에 휩싸여 온 세상에 뻗어 있지만, 어디에나 퍼지는 빛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서로 지니고 있는 그 나뉠 수 없는 결합을 나타내는 데 이보다 더 우아한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늘 머리 자체로 다시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단과 분열이 생기는 까닭은 진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리를 찾지 않으며, 하늘 선생의 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CO 557 이제 저들은 가서, 저들의 교회에서 물러나온 우리를 이단이라고 마구 외쳐 보라지요. 우리가 떨어져 나온 까닭은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곧 저들이 진리를 순수하게 고백하는 것을 조금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주와 악담으로 우리를 내쫓았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넉넉하고도 남게 무죄로 풀어 줍니다. 저들이 사도들까지 분열의 죄로 정죄하려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도들에게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리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요 16:2).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회당들은 그때 정당한 교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쫓겨난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보여 줄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에 관해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그 까닭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원한다면, 저는 이것을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면 저들에게서 물러나와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28. 그러나 로마의 저 우상의 폭정이 차지한 모든 교회를 우리가 어떤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는, 선지자들에게서 그려진 그대로의 옛 이스라엘 교회와 견주어 보면 더욱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의 법을 굳게 지키는 동안에는, 그들 가운데 참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은택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 진리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역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의 표징으로 경건에 입문했고, 다른 성례들로 믿음의 확증을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높이신 칭송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맞았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타락한 뒤로는, 그들은 그 특권을 일부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의 선포와 비밀들의 준수를 맡겨 두신 자들에게서 누가 감히 교회라는 칭호를 빼앗겠습니까? 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드러내 놓고 아무 벌 없이 짓밟히고, 교회의 으뜸 힘줄이요 더 나아가 교회의 영혼인 그 말씀의 사역이 흩어져 버린 모임을, 누가 감히 아무 단서 없이 교회라고 부르겠습니까?

29.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로 떨어져 나간 뒤로는 그들에게 교회의 조각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대답은 쉽습니다. 먼저 저는 그 배반 자체에도 어떤 단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예배에서 벗어났을 때 그 타락이 똑같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분명한 금지를 거슬러 송아지들을 만들고 허락되지 않은 곳을 경배의 장소로 바쳤을 때, 경건을 아주 부패시켰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깥 경건의 모양을 그만큼 잘못 바꾸기 전에, 먼저 불경건한 행실과 미신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르호보암 아래에서 그들은 이미 많은 비뚤어진 의식을 널리 받아들였지만, 예루살렘에는 율법의 교리와 제사장직과 의식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거기서 견딜 만한 교회의 상태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합의 통치 때까지 사정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그때에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자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일부는 아합과 같았고, 일부는 조금 나아지려 했을 때에도 여로보암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같이 불경건한 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유다에서는 이따금 여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왕들은 거짓되고 꾸며 낸 미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왜곡했고, 다른 왕들은 흩어진 경건을 회복했습니다. 마침내는 제사장들 자신마저 속되고 가증한 의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30. 이제 교황주의자들은 자기 허물을 아무리 작게 하려 해도, 할 수 있거든 자기들 가운데 경건의 상태가 여로보암 아래 이스라엘 나라에서처럼 부패하고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해 보라지요. 그러나 그들은 더 조잡한 우상 숭배를 지니고 있으며, 교리에서도 한 방울도 더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마 교리에서는 더 불순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부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제 증인이시며, 사실 자체도 밝혀 줍니다. 이제 저들은 우리를 자기 교회의 사귐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려 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가 저들의 모든 기도와 제사와 의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시는 영예와 권세와 재판권을 무엇이든 저들의 교회에 돌리라는 것입니다. 첫째에 관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선지자가, 그곳 사정이 몹시 부패했을 때에도, 따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갈라서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들에게는 솔로몬의 성전에 모이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비록 그 영예에 합당하지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거룩한 일을 맡은 자로 세우셨고 아직 폐하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정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전체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미신적인 예배에도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곧 교황주의자들에게서는 무엇이 그와 비슷합니

까? 우리가 드러난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집회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저들의 사귐의 으뜸가는 끈은 미사에 있는데, 우리는 미사를 가장 큰 신성 모독으로 혐오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옳게 하는지 경솔하게 하는지는 다른 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서도 우리의 처지가 선지자들의 처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넉넉합니다. 선지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의 제사에 함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신 의식은 보거나 행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슷한 본보기를 들고 싶다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져옵시다. 여로보암의 제도 아래에서도 할례가 남아 있었고, 제사가 드려졌고, 율법이 거룩하게 여겨졌고, 그들이 조상들에게서 받은 그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꾸며 내고 금지된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행해지는 것을 무엇이든 인정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셨습니다. 벧엘에서 한 번이라도 경배하거나 제사를 드린 선지자나 경건한 사람을 하나라도 제게 대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신성 모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CO 559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귐이 지니는 힘은, 교회가 속되고 더러운 의식으로 타락했을 때에도 곧바로 그것을 따라야 할 만큼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1. 그러나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욱 다툽니다. 교회를, 앞에 내놓은 논의대로, 그 판단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그 권고에 순종하고, 그 징계에 움직이고, 모든 일에서 그 사귐을 경건하게 지켜야 할 교회로 생각한다면, 선지자들은 저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속된 비밀 집회라고 외칩니다. 만일 그것들이 교회였다면, 엘리야와 미가와 그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은 그들을 어떤 할례받지 않은 자들보다 더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만일 그것들이 교회였다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아니라 거짓의 터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라 우상들의 소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모임들의 동의에서 떨어져 나와야 했습니다. 그 동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경건한 결탁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32.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교회의 어떤 고유한 특권들이 남아 있었는데, 무엇보다 주님의 언약이 그러했습니다. 그 언약은 그들이 지켜서 보존되었다기보다, 그 자체의 굳건함으로 그들의 불경건을 거슬러 이겨 내며 버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닌 확실함과 한결같음 때문에, 주님의 언약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울 수 없었고, 그들의 더러운 손이 할례를 더럽혀 할례가 여전히 그 언약의 참된 표징이요 성례가 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이 당신께 속한다고 증언하셨습니다(겔 16:20). 같은 이치로, 누군가 지금의 모임들이 우상 숭배와 미신과 불경건한 교리로 더럽혀져 있는데도,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이 교리의 사귐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귐 안에 머물러야 할 교회로 인정한다면, 그는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교회라면 열쇠의 권세가 그것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쇠는 말씀과 나뉠 수 없게 묶여 있는데, 말씀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또 그것들이 교회라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약속, 곧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는 약속이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그리스도의 종임을 거짓 없이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 사귐에서 내쫓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약속이 헛되고 하찮은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점에서는 그것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끝으로 그들은 말씀의 사역 대신에 불경건의 학교와 온갖 오류의 시궁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이 이치에 따르면 교회가 아니거나, 아니면 신자들의 정당한 모임을 튀르크인들의 집회와 구별할 표지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흩어짐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남아 있게 하신 교회의 흔적들을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습니다. 곧 깨뜨릴 수 없는 주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례인 세례입니다. 세례는 주님의 입으

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사람의 불경건이 아무리 거슬러도 그 힘을 지닙니다. 그리고 건물이 허물어져도 기초와 잔해가 남는 일이 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들의 배은망덕을 벌하시려고 무시무시한 흔들림과 무너뜨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지만, 당신의 교회가 적그리스도에게 기초부터 뒤엎이거나 땅바닥과 같아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황폐 자체에서도 반쯤 무너진 건물이 남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33. 결국 우리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주 부정하지도 않고, 그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의 참되고 정당한 짜임새에 관해 다툽니다. 그 짜임새는 고백의 표지인 거룩한 예식들의 사귐에서, 그러나 무엇보다 교리의 사귐에서 요구됩니다. 다니엘(단 9:27)과 바울(살후 2:4)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리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황을 그 사악하고 가증한 나라의 우두머리이자 기수로 봅니다. 그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놓인다는 말로 암시되는 것은, 그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이름도 교회의 이름도 없애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의 폭정 아래에도 교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은 그가 사악한 불경건으로 더럽히고, 잔인한 지배로 괴롭히고, 악하고 치명적인 교리로, 마치 독이 든 음료로 하듯 부패시키고 거의 죽여 버린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반쯤 묻혀 숨어 계시고, 복음은 파묻히고, 경건은 쫓겨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끝으로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얼굴보다 바벨론의 얼굴이 더 드러납니다. 그것들이 교회인 것은, 주님께서 거기서 당신 백성의 남은 자들을, 비참하게 흩어지고 내던져졌더라도, 놀랍게 보존하시는 한에서이고, 교회의 몇몇 표징이, 특히 마귀의 간계도 사람의 사악함도 그 효력을 무너뜨릴 수 없는 표징들이 남아 있는 한에서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이 논의에서 특히 요구하는 표지들, 곧 잘 세워진 교회를 찾을 때 요구하는 표지들은 거기서 지워졌으므로, 저는 그런 모임은 하나같이 교회의 참된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그토록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얼굴보다 바벨론의 얼굴이 더 드러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다스린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바로 그 사실에서 우리는 거기에 교회들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 말고 다른 데 앉으리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그가 사악한 불경건으로 더럽힌 그런 교회들입니다.

34.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떤 질서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는지 말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하고 이 통치는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만 행사되고 시행되어야 하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시므로, 이 일에 사람들의 사역을, 이를테면 대리하는 수고를 쓰십니다. 당신의 권리와 영예를 그들에게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을 통해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치 장인이 일을 하는 데 연장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다른 어떤 도움이나 도구 없이 친히 그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들을 통해 하기를 더 원하시는 데는 여러 까닭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낮추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당신을 대신해 사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당신의 감추어진 뜻을 풀이하고, 끝으로 당신의 인격을 대표할 자들을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여기저기서 당신의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경험으로 증명하십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마치 성소에서처럼,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겸손을 위한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훈련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지위가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하늘에서 말씀하신다면, 그 거룩한 말씀이 모든 사람의 귀와 마음에 지체 없이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진다 해도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눈앞에 계신 그분의 권능에 떨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토록 큰 위엄을 처음 보자마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 헤아릴 수 없는 광채에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먼지에서 나온 어떤 하찮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어떤 일에서도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은데도 우리가 그분의 사역자에게 가르침을 잘 받는 자로 처신한다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공경을 가장 좋은 증거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런 까닭에서도 당신의 하늘 지혜의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감추셨습니다(고후 4:7).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를 더 확실하게 시험해 보시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로의 사랑을 북돋우는 데 이보다 더 알맞은 것은 없었습니다. 곧 한 사람이 목사로 세워져 나머지를 함께 가르치고, 제자가 되라고 명받은 사람들은 한 입에서 공통의 교리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이 이 끈으로 서로 묶이는 것입니다. 만일 저마다 스스로 넉넉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면(이것이 사람 성품의 교만입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서 멸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매듭이 되리라고 내다보신 것으로 당신의 교회를 묶으셨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맡겨 두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 그것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쓸 때 이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엡 4:4 이하).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이니, 너희가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높은 곳에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내려오셨던 그분이 곧 모든 것을 채우시려고 오르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마침내 우리가 모두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완전히 장성한 나이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아이가 되어 온갖 교훈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분,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의 도움으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대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

35. 이 말씀으로 바울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데 쓰시는 사람들의 사역이 신자들을 한 몸으로 결속시키는 으뜸 힘줄임을 보여 주고, 다른 한편으로 주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두기를 기뻐하신 이 방편들로 떠받쳐지지 않고는 교회가 온전히 보존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려고 높은 곳에 오르셨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채우심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이 직무를 맡기시고 그 직무를 수행할 은혜를 주신 사역자들을 통해 당신의 선물을 교회에 나누어 주시고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제도 안에서 당신의 영의 능력을 드러내시어 그것이 헛되거나 쓸모없지 않게 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말하자면 몸소 계신 분으로 보여 주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분에게까지 자라 가고 서로 하나로 결합합니다. CO 563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나됨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예언이 힘 있게 살아 있고, 우리가 사도들을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교리를 물리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하는 이 질서와 이런 종류의 다스림을 없애려 애쓰거나 덜 필요한 것처럼 깎아내리는 자는 누구든, 교회를 흩어 버리는 일을, 아니 오히려 교회의 붕괴와 멸망을 꾀하는 것입니다. 해의 빛과 열도,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이 세상 삶을 보살피고 지탱하는 데, 땅 위에서 교회를 보존하는 데 사도와 목사의 직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6.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칭송으로 그 직무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자주 권하셨습니다. 그 직무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영예와 값어치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에게 평화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그들이 오는 것이 복되다고 외치라고 명하실 때(사 52:7), 사람들에게 교사들을 일으켜 주심으로써 특별한 은택을 베푸신다고 증언하십니다. 사도들을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도 그러합니다(마 5:13–14). 그리고 그분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눅 10:16)라고 말씀하실 때보다 이 직무가 더 찬란하게 꾸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3장과 4장)에서 이 문제를 이를테면 작정하고 다루는 곳보다 더 빛나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교회 안에 복음의 사역보다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영과 의와 영원한 생명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과 이와 비슷한 말씀들은, 주님께서 영원히 정하신 이 방식, 곧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하찮게 여겨지다가 마침내 그 멸시 때문에 쓸모없이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방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본보기로도 밝히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당신의 진리의 빛을 더 온전히 비추기를 원하셨을 때,

그분은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베드로에게 보내게 하셨습니다(행 10:3). 바울을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부르시고 교회에 접붙이기를 원하셨을 때, 그분은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구원의 교리와 세례의 거룩하게 함을 받도록 한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행 9:6).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역자인 천사가 그 뜻을 친히 풀어 말하기를 삼가고, 그 뜻을 풀어 말할 사람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 까닭 없는 일이 아니라면, 또 신자들의 유일한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당신께서 셋째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놀랍게 계시해 주시기로 정하신 바로 그 바울을, 한 사람의 가르침에 맡기신 것이 까닭 없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쓰임을 이런 증거들로 증언하기를 원하신 그 사역을 이제 누가 감히 멸시하거나 쓸데없는 것처럼 지나쳐 버리겠습니까?

37.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교회의 다스림을 맡은 자들을 바울은 첫째로 사도, 다음으로 선지자, 셋째로 복음 전하는 자, 넷째로 목사, 끝으로 교사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둘만이 교회에서 통상적인 직무를 지닙니다. 다른 셋은 주님께서 당신 나라의 처음에 일으키셨고, 때의 필요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도 이따금 일으키십니다. 사도의 직무가 무엇인지는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그 명령에서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정해진 경계가 주어지지 않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이끌어야 할 곳으로 맡겨집니다.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 갈 수 있는 곳 어디든 복음을 퍼뜨려 그분의 나라를 어디에나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사도직을 입증하려 할 때, 자기가 어느 한 도시를 그리스도께 얻어 드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멀리 그리고 널리 퍼뜨렸다고 일깨우며, 남의 기초에 손을 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던 곳에 교회들을 세웠다고 말합니다(롬 15:19 이하). 그러므로 사도들은 세상을 배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순종으로 되돌리고, 복음 전파로 그분의 나라를 어디에나 세우도록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또는, 원한다면,

교회의 첫 건축가로서 온 세상에 그 기초를 놓도록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는 아무 사람이나가 아니라 특별한 계시로 뛰어났던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지금 아예 없거나,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지위로는 사도보다 낮았지만 직무로는 사도에 가장 가까웠고, 그래서 사도의 일을 대신했던 자들로 저는 이해합니다. 누가, 디모데, 디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다음 자리에 세우신 칠십인 제자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38. 제게는 바울의 말과 뜻에 모두 맞아 보이는 이 해석에 따르면, 저 세 직무는 교회에 영구히 있으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에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세우거나, 적어도 모세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 가게 해야 했던 그때만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도 이따금 사도들을, 아니면 적어도 그들을 대신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적그리스도의 배반에서 되돌릴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직무 자체는 여전히 비상한 직무라고 부릅니다. 바르게 세워진 교회들에서는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교회는 이들 없이는 결코 지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권징이나 성례 집례나 권고나 권면을 맡지 않고, 오직 성경 해석만을 맡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가 지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직무는 이 모든 것을 안에 담고 있습니다.

39. 이제 우리는 교회의 다스림에서 어떤 사역이 일시적이었고, 어떤 사역이 영구히 지속되도록 세워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사도와 묶는다면, 서로 어느 정도 짝이 맞는 두 쌍이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사들이 옛 선지자들과 닮은 것처럼, 목사들은 사도들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그들이 지녔던 특별한 계시의 은사 때문에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직무도 거의 비슷한 성격과 완전히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세상에 복음의 새로운 선포를 알리라고 택하신 저 열두 사람은 질서와 지위에서 다른 이들보다 앞섰습니다.[320]

320. 이 문장의 끝부분은 다음 편(CO 1:565) 첫머리에 있으나, 문장을 끝맺으려고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3

CO 1:565–57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565 [321]어원과 낱말의 뜻으로 보면 교회의 모든 사역자를 바르게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두 주님께 보냄을 받고 그분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고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가져오는 자들의 보냄에 대해서는 확실한 앎이 있어야 했으므로, 저 열두 사람과 나중에 그 수에 더해진 바울은 다른 이들보다 먼저 특별한 칭호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어디선가 이 이름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붙여, 그들이 사도들 가운데 뛰어났다고 말합니다(롬 16:7). 그러나 그는 엄밀하게 말하려 할 때는 그 이름을 오직 저 으뜸 반열에만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용법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정해진 교회를 다스린다는 점을 빼면, 사도들과 같은 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직임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히 들어 봅시다.

40.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실 때, 방금 말한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그분은 당신의 본을 따라 당신의 몸과 피의 거룩한 표징들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의 자리를 잇는 자들에게 지워진 거룩하고 범할 수 없는 영구한 법입니다. 그들은 이 법으로 복음 전파와 성례 집례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든 소홀히 하는 자들은 사도의 인격을 거짓으로 내세운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 자기 자신만이 아

321.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니라 그들 모두에 관해 말합니다(고전 4:1).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딛 1:9). “감독은 가르침을 따라 미쁜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하니, 이는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반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저기 나오는 이런 구절들과 비슷한 구절들에서, 목사의 직무에도 이 두 가지 주된 부분, 곧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성례를 집례하는 것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방식은 공적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권고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자기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꺼리지 않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으며, 유대인과 그리스인에게 똑같이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행 20:20). 또 조금 뒤에서는, 자기가 눈물로 그들 각 사람을 훈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선한 목사의 자질을 하나하나 다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를 목사라고 부르는 자들이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가리키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한가한 지위를 누리려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리로 백성을 참된 경건으로 가르치고, 거룩한 비밀들을 집례하며, 바른 권징을 지키고 시행하려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들은 누구나(겔 3:17), 누구든지 그들의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멸망하면 그 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울이 자기에 관해 하는 말도 그들 모두에게 들어맞습니다(고전 9:16).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 내게 직분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도들이 온 세상에 해 준 것을 목사는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 떼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41. 우리가 각 사람에게 자기 교회를 맡기더라도, 그 사이에 한 교회에 매인 사람이 다른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출석이 필요한 어떤 소란이 일어났을 때든, 어떤 더 모호한 일에 관

해 그에게 조언을 구할 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데에는 각 사람에게 할 일이 정해져 있는 이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소란을 피우거나, 부르심 없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다니거나, 모두가 함부로 한곳으로 몰려들지 않게 하고, 교회의 건덕보다 자기 편의를 더 염려하는 자들이 제멋대로 교회를 비워 두고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눔은 될 수 있는 대로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저마다 자기 경계에 만족하고 남의 직임 구역에 뛰어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제도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의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다고 읽습니다(행 14:23).[322] 또 바울 자신도 디도에게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합니다(딛 1:5). 이와 같이 그는 다른 곳에서 빌립보 사람들의 감독들을 언급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킵보를 골로새 사람들의 감독으로 언급합니다(골 4:17). 그리고 누가가 전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그의 뛰어난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행 20:18). 그러므로 한 교회의 다스림과 돌봄을 맡은 사람은 누구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법에 묶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법률가들의 말처럼) 땅에 매인 자, 곧 팔려서 이를테면 붙박인 자가 되어, 공공의 유익이 그렇게 요구해도 거기서 발을 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은 바르게 질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곳에 부름받은 사람은 스스로 옮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에게 편리하다고 여기는 대로 풀려나기를 구해서도 안 됩니다. 또 누군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는 그것을 사사로운 생각으로 꾀하지 말고 공적 권위를 기다려야 합니다.

42.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감독, 장로, 목사, 사역자라고 구별 없이 부른 것은 성경의 용법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낱말들을 섞어 씁니다. 성경은 말씀의 사역을 맡은 자들이면 누구에게나 감독이라는

322. 원문에는 “행 14:27”로 되어 있으나, 장로를 세운 일은 행 14:23에 있습니다.

칭호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에서, 디도가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라는 명을 받는 곳 바로 뒤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니" 등의 말이 이어집니다(딛 1:5, 7). 또 다른 곳에서 그는 한 교회에 있는 여러 감독에게 문안합니다(빌 1:1).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고 전하는데(행 20:18), 그는 자기 설교에서 그들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CO 567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의 사역에 있는 직무들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인용한 에베소서 4장에서 다른 직무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직무들을 열거합니다. 능력, 병 고치는 은사, 통역, 다스림, 가난한 자들을 돌봄 같은 것입니다(고전 12:28). 이 가운데 일시적이었던 것은 빼놓겠습니다. 그것들에 머무는 것은 아무 보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구히 남는 것이 둘 있습니다. 다스림과 가난한 자들을 돌봄입니다. 저는 다스리는 자들이 백성 가운데서 뽑힌 장로들(seniores)로서, 감독들과 함께 행실을 감독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롬 12:8)고 말하는 것은 달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각 교회에는 경건하고 진중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기 장로회(senatus)가 있었고, 이 장로회에 허물을 바로잡는 재판권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권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가 한 시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경험 자체가 밝혀 줍니다. 그러므로 이 다스리는 직무도 모든 시대에 필요합니다.

43.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두 반열이 나옵니다. 바울은 거기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롬 12:8). 바울이 교회의 공적 직무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므로, 서로 구별되는 두 등급이 있었어야 합니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다면, 그는 앞 구절에서는 구

제물을 관리하던 집사들을 가리키고, 뒤 구절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데 자기를 바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언급하는 과부들이 그러했습니다(딤전 5:9). 여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데 자기를 내어 주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공적 직무도 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종류는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관리하는 일로, 다른 한 종류는 가난한 자들 자신을 돌보는 일로 교회를 섬깁니다. 섬김(διακονία)이라는 이름 자체는 더 넓게 쓰이지만, 성경은 교회가 구제물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고 이를테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공 금고의 관리인으로 세우는 자들을 특별히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기원과 제정과 직무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묘사합니다(행 6:1).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소홀히 여겨진다는 원망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말씀 전파와 식탁 섬김의 두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사정을 말하고, 이 일을 맡길 선한 사람 일곱을 뽑아 달라고 무리에게 청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시대의 교회에 어떤 집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본을 따라 우리에게 어떤 집사들이 있어야 마땅한지를 말입니다.

44. 이제 거룩한 모임에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적절하게 해야 하므로(고전 14:40), 다스림을 세우는 일보다 이것을 더 부지런히 지켜야 할 일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무질서하게 행해질 때 이보다 위험이 큰 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소란스러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었을 것처럼) 함부로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일에 뛰어들지 않도록, 누구도 부르심 없이 교회의 공적 직무를 스스로 떠맡지 말라고 분명히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교회의 참된 사역자로 여겨지려면, 먼저 바르게 부름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자기 부르심에 걸맞게, 곧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받아들여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사도직을 입증하려 할 때, 거의 언제나 부르심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자기의 신실함을 내세웁니다. 그리스도의 그토록 큰 사역자도, 주님의 명령으로 이 일에 세워졌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수행한다는 것 말고는, 교회에서 자기 말이 들려야 한다는 권위를 감히 자기에게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 둘을 다 갖추지 못했거나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어떤 사람이 그런 영예를 자기에게 요구한다면 얼마나 뻔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직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는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이제 부르심만 다룹시다.

45. 부르심을 다루는 일은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곧 어떤 사람을, 어떻게, 누가 사역자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예식이나 의식으로 그들을 직무에 들여보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공적 질서에 관계되는 엄숙한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알고 있으며 교회를 증인으로 두지 않는 저 은밀한 부르심은 빼놓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부르심은, 우리가 야심이나 탐욕이나 다른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와 교회를 세우려는 열심으로 주어진 직무를 받아들인다는 우리 마음의 선한 증언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우리 사역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양심으로 그 자리에 나아간 사람도, 그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는 한, 교회 앞에서는 바르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역을 감당하기에 알맞고 적합하다고 보이는 사사로운 사람들도 사역에 부름받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경건과 그 밖의 선한 목사의 자질과 결합된 학식은 그 사역을 위한 일종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큰 직무에 정하신 자들을 먼저 그 직무를 채우는 데 필요한 무기로 갖추어 주십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준비 없이 오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에게 직무 자체를 논하려 할 때, 먼저 직무를 맡은 자들이 지녀야 할 은사들을 열거했습니다(고전

12:4 이하). 그러나 이것이 제가 내놓은 네 항목 가운데 첫째이므로, 이제 그리로 나아갑시다.

46.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야 마땅한지는 바울이 두 곳(딛 1:9; 딤전 3:1 이하)에서 넉넉히 다룹니다. CO 569 그러나 요점은 이것으로 돌아갑니다. 건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을 지니고, 자기에게서 권위를 빼앗고 사역에 치욕을 가져올 만한 어떤 허물로도 낙인찍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와 장로들에 관해서도 이치가 아주 같습니다. 그들에게 지워지는 짐을 지기에 능력이 모자라거나 알맞지 않은 사람이 아닌지, 곧 자기 직무를 채우는 데 필요할 능력들을 갖추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사도들을 보내려 하실 때,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무기와 도구로 그들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하고 참된 감독의 모습을 그려 보인 뒤에, 디모데에게 그 모습과 거리가 먼 사람을 뽑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권고합니다(딤전 5:22). "어떻게"라는 낱말은, 저는 뽑는 예식이 아니라 선출에서 지켜야 할 경건한 경외에 관한 것으로 봅니다. 누가가 전하는 대로, 신자들이 장로를 세울 때 행한 금식과 기도가 여기서 나옵니다(행 14:23 등).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보다 진지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최고의 경외와 조심 없이는 아무것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의 영을 구하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47. 우리가 나눈 항목에서 셋째는, 누가 사역자를 뽑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이 일에 대한 확실한 규칙은 사도들을 세운 일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사도들을 세운 일은 나머지 사람들의 공통된 부르심과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상한 사역이었으므로, 어떤 더 뚜렷한 표지로 드러나도록, 그 사역을 맡을 자들은 주님 자신의 입으로 부름받고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의 선출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명령으로 갖추어져 그 일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유다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려

할 때, 누구 하나를 확실히 지명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가운데 세워, 그 가운데 누가 뒤를 잇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제비로 밝히시게 했습니다(행 1:23). 바울이 자기는 사람들에게서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사도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갈 1:1)[323]도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의 것, 곧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는 것은 그가 말씀의 모든 경건한 사역자와 공통으로 지닌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이 직무를 바르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의 것은 그에게만 고유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것을 자랑할 때, 참되고 정당한 목사에게 어울리는 것을 지녔다고 뽐낼 뿐 아니라, 자기 사도직의 표지들까지 내놓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그를 으뜸 사도들이 대신 세운 평범한 제자 하나로 만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설교의 존엄을 온전히 지키려고, 저들이 그 존엄을 노리고 계략을 꾸민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면에서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음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평범한 감독 한 사람처럼 사람들의 판단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입과 분명한 신탁으로 뽑혔다고 단언합니다.

48. 그러나 감독들이 사람들에게서 지명되는 것이 정당한 부르심의 질서에 온전히 속한다는 것은 건전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면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 성경의 증언이 그토록 많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는 사람들에게서나 사람을 통해서 보냄받지 않았다는 바울의 말도 이에 맞서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사역자들을 통상적으로 뽑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고유한 것을 자기에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울도 특별한 특권으로 친히 구별하셨으면서도, 그 사이에 교회의 부르심의 규율이 지켜지게 하

323. 원문에는 "갈 1:12"로 되어 있으나, 인용된 말은 갈 1:1에 있습니다.

셨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행 13:2). “사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그들을 택하여 맡긴 일을 위해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당신의 선택을 이미 증언하신 뒤에, 이 따로 세움과 안수가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을 통해 사역자를 지명하는 일에서 교회의 규율이 지켜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정하셨다고 먼저 말씀하신 뒤에도 그를 교회가 지명하기를 원하신 것보다 더 뚜렷한 증거로 이런 질서를 인정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맛디아의 선출에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직무는 그토록 중대했으므로, 그들은 자기 판단으로 누구 하나를 그 자리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 사람을 가운데 세워 그 가운데 하나에게 제비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선출은 하늘에서 온 확실한 증언을 얻으면서도, 교회의 질서는 전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49. 이제 묻는 것은, 사역자를 온 교회가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료들과 견책을 맡은 장로들만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권위로 세울 수 있는지입니다. 이 권리를 한 사람에게 돌리는 자들은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을 인용합니다(딛 1: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것은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또 디모데에게 한 말도 인용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딤전 5:22). 그러나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또는 디도가 그레데에서 왕권을 행사하여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하고 유익한 조언으로 백성을 앞서 이끌도록 맡았을 뿐이지, 다른 모든 사람을 제쳐 두고 혼자서 마음에 드는 대로 하도록 맡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꾸며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비슷한 본보기로 이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다고 전하면서(행 14:23), 동시에 그 방식이나 방법도 적어 둡니다. 그 일이 투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각 교회에서 손을 들어 장로들을

뽑고” (χειροτονήσαντες πρεσβυτέρους κατ᾽ ἐκκλησίαν)[324]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이 세웠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선거에서 하던 관습대로 온 무리가 손을 들어 누구를 원하는지 밝혔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민회를 연 집정관이 새 관리들을 세웠다고 말입니다. 그가 표를 받고 선출에서 백성을 이끌었다는 것 말고 다른 까닭은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자기 자신이 취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했다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백성의 투표로 감독들을 세우곤 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위의 구절들은 교회의 공통된 권리와 자유를 조금도 줄이지 않도록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습니다. 사제(sacerdos)를 백성이 있는 데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뽑고, 합당하고 알맞은 사람으로 공적인 판단과 증언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서 이것이 지켜졌음을 봅니다. 그들은 성별되기 전에 백성의 눈앞에 나왔습니다(레 8:6; 민 20:26). 맛디아도 다른 방식으로 사도들의 무리에 더해진 것이 아니고, 일곱 집사도 백성이 보고 인정하는 가운데서가 아니면 다르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말합니다. “이 본보기들은 사제의 임직이 곁에 있는 백성이 알고 있는 가운데서가 아니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모든 사람의 증언으로 검증된 임직이어야 의롭고 정당한 임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알맞다고 보인 자들을 백성의 동의와 인정으로 세우는 것이 사역자의 정당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무리가 경솔함이나 악한 열심이나 소란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른 목사들이 그 선출을 주관해야 합니다.

50. 남은 것은 임직 예식인데, 우리는 부르심에서 이것을 마지막 자리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이 누군가를 사역에 세울 때 안수 말고 다른 의식을 쓰

324. [원문의심] 그리스어 낱말은 OCR이 크게 깨져 있습니다. 행 14:23의 “χειροτονήσαντες δὲ αὐτοῖς κατ᾽ ἐκκλησίαν πρεσβυτέρους”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그 뜻대로 읽었습니다.

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예식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에서 흘러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을 빌고 거룩하게 구별하려는 것을 안수로 이를테면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빌려 할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창 48:14).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를 따르셨습니다(마 19:15).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제물에 손을 얹은 것도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안수로써, 사역에 들여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눈에 보이는 은사들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도 안수를 했습니다(행 19:6). 어쨌든 이것은 그들이 누군가를 교회의 사역에 부를 때마다 행한 엄숙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목사와 교사를, 그렇게 집사를 성별했습니다. 안수에 관한 확실한 계명은 없지만, 사도들이 그것을 늘 썼음을 우리가 보므로, 그들의 그토록 꼼꼼한 준수가 우리에게는 계명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표징으로 한편으로는 사역의 존귀함이 백성에게 권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직받는 사람에게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바쳐졌다는 것이 일깨워지니 유익합니다. 게다가 이 표징이 그 참된 기원으로 회복된다면 헛된 표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교회 안에 아무것도 헛되이 제정하지 않으셨다면, 이 의식도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미신적인 남용으로 바뀌지만 않는다면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온 무리가 자기 사역자들에게 안수한 것이 아니라 목사들만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여러 사람이 안수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집사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몇 사람에게는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다른 곳에서, 다른 여러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디모데에게 안수했다고 말합니다(딤후 1:6). “내 안수로 네 안에 있는 은혜를 일깨우라고 너를 권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서신에서 장로직의 안수를 말하는 것을(딤전 4:14), 저는 바울이 장로들의 회를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임직 자체로 이해합니다. 마치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울 때 안수로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51.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질서에 관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의 사역들에 관해 논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더 분명하고 친근하게 드러나고 우리 마음에 더 잘 새겨지도록, 이 일들에서 옛 교회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제정을 보여 주는 어떤 상을 우리 눈앞에 그려 보일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감독들이 많은 법규(canones)를 내놓았고, 그 법규들로 거룩한 성경에 표현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체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저 유일한 표준에 맞추어 그토록 조심스럽게 짰으므로, 이 부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낯선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도에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실한 열심으로 주님의 제정을 지키려 애썼고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어떤 관습을 지녔는지 여기서 간략히 모아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세 종류의 사역자가 우리에게 권해진다고 전했듯이, 옛 교회도 자기에게 있던 모든 사역자를 세 반열로 나누었습니다. 장로의 반열에서 일부는 목사와 교사로 뽑혔고, 나머지는 행실의 감독과 교정을 맡았습니다. 집사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과 구제물을 나누어 주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독경자(lector)와 시종자(acoluthus)는 정해진 직무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직자(clerici)라고 부르던 자들을 젊어서부터 정해진 훈련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익숙하게 하여, 자기가 무엇을 위해 정해졌는지 더 잘 알고 때가 되면 더 잘 준비된 상태로 직무에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더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는 교회의 다섯 반열을 내놓으면서 감독, 장로, 집사, 신자, 세례 지원자를 열거하고, 나머지 성직자와 수도사들에게는 고유한 자리를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52. 그러므로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은 모두 장로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각 도시에서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특별히 감독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흔히 그렇듯이 동등함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감독이 영예와 지위에서 위에 있다고 해서 동료들을 지배한 것은 아닙니다. 집정관이 원로원에서 맡은 몫, 곧 안건을 내놓고, 의견을 묻고, 조언하고 경고하고 권하며 다른 이들을 앞서 이끌고, 자기 권위로 모든 진행을 다스리며, 공동의 논의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몫, 바로 그 직무를 감독은 장로들의 모임 안에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때의 필요 때문에 사람의 합의로 도입되었다는 것을 옛사람들 자신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는 디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가 곧 감독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부추김으로 경건(religion)에 파당이 생기고 백성 가운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교회들은 장로들의 공동 협의로 다스려졌습니다. 그 뒤에 분쟁의 씨앗을 뽑으려고 모든 돌봄이 한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교회의 관습에 따라 자기들이 주재하는 사람 아래 있음을 알듯이, 감독들도 자기들이 주님께서 정하신 진리라기보다 관습에 따라 장로들보다 크며, 교회를 함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제도였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복음서 기자 마가 때부터 헤라클라스와 디오니시우스 때까지, 장로들이 늘 자기들 가운데서 뽑은 한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를 감독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도시에는 목사이자 교사인 장로들의 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울이 감독들에게 맡긴 직무, 곧 백성 가운데서 가르치고 권하고 바로잡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자기들 뒤에 씨를 남기려고, 거룩한 군대에 이름을 올린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각 도시에는 정해진 지역이 배정되어, 그 지역은 그 도시에서 장로들을 받고 이를테면 그 교회의 몸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각 장로회는 오직 질서와 평화를 지키려고 한 감독 아래 있었고, 감독은 다른 이들보다 지위에서 앞서면서도 형제들의 모임 아래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독 구역 아래 있는 땅이 너무 넓어 감독 혼자 모든 곳에서 감독의 모든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면, 그 땅 곳곳의 정해진 자리에 장로들을 두어 작은 일들에서 그의 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 안에서 감독을 대표했으므로, 그들을 시골 감독(chorepiscopus)이라고 불렀습니다.

53.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는 다른 직무에 관해서는, 감독이나 장로나 똑같이 말씀과 성례의 시행에 힘써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만, 아리우스가 그곳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장로가 백성에게 설교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삼부사』9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325] 그렇지만 히에로니무스는 바로 이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참된 감독임을 보여 주지 않으면서 자기를 감독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괴이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엄격함은, 모든 사역자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의 직무를 다하도록 다그침을 받을 만큼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한 시대만의 관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거의 무너졌거나 적어도 옛 순수함에서 많이 타락했던 그레고리우스 때에도, 어떤 감독이 설교를 삼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 자신은 어디선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는 그에게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설교의 소리 없이 다니면 숨은 재판장의 진노를 자기에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또

325. 소크라테스(Socrates Scholasticus, 5세기)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교회사가입니다.『삼부사』(Historia tripartita)는 6세기에 카시오도루스가 소크라테스, 소조메누스, 테오도레투스의 교회사를 라틴어로 엮은 책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증언할 때, 사제라 불리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책망받고, 묶이고,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에 다른 사람들의 죽음까지 더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하고 잠잠하여 날마다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보는 사람의 수만큼 우리가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와 다른 이들을 잠잠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마땅한 만큼 일에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무를 반쯤 수행한 자들도 봐주지 않았다면, 누가 아주 손을 놓아 버렸다면 그가 어떻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먹이는 것, 곧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건전한 교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감독의 첫째 몫이라는 원칙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힘을 지녔습니다.

54. 그런데 각 관구에 감독들 가운데 대감독 한 사람이 있었던 것, 또 니케아 공의회에서 반열과 지위에서 대감독들보다 위에 있는 총대감독들이 세워진 것은 권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논의에서 지나칠 수 없습니다.[326] 그러므로 그 등급들이 세워진 주된 까닭은, 어느 교회에서든 몇 사람이 잘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관구 회의에 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안이 크거나 어려워서 더 큰 논의가 필요하면, 총대감독들이 회의들과 함께 불려 왔고, 그들에게서는 보편 공의회 말고는 상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짜인 다스림을 어떤 이들은 위계제(hierarchia)라고 불렀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알맞지 않은 이름이고, 적어도 성경에서는 쓰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다스림을 다룰 때 아무도 군주권이나 지배를 꿈꾸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접어 두고 실제를 보면, 옛 감독들이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정하신 것과 다른 교회 다스림의 모양을 지어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326. [원문의심] 원문 “Quanquam in hac disputatione praeteriri non potest”는 주어가 빠진 듯한 문장입니다. 읽히는 대로 옮겼습니다.

55. 집사들의 방식도 그때에는 사도들 아래에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의 날마다의 헌물과 교회의 해마다의 수입을 받아 참된 쓰임에 돌렸습니다. 곧 일부는 사역자들을, 일부는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는 데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은 감독의 결정에 따랐고, 그들은 해마다 감독에게 자기 관리의 결산을 보고했습니다. 법규들이 어디서나 감독을 교회 재산의 관리자로 삼는 것은, 감독이 그 돌봄을 몸소 맡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교회의 공적 부양에 받아들여야 하는지, 남은 것을 누구에게 얼마씩 내주어야 하는지를 집사에게 지시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고, 집사가 자기 직무에 속한 것을 신실하게 수행하는지를 감독하는 일을 그가 맡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CO 575 사도들의 것이라고 하는 법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이 교회의 재물을 자기 권한 아래 두도록 명합니다. 더 귀한 사람들의 영혼이 그에게 맡겨졌다면, 그가 돈을 돌보는 것은 훨씬 더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권한으로 모든 것이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두려움과 온갖 조심으로 베풀어지게 해야 합니다.” 또 안디옥 공의회에서는 장로들과 집사들이 알지 못하게 교회의 재물을 다루는 감독들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 더 길게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레고리우스의 매우 많은 서신에서, 다른 면에서는 교회의 규정들이 많이 훼손되었던 그 시대에도, 집사들이 감독 아래에서 가난한 자들의 관리인이 되는 관습이 여전히 이어졌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부집사들(hypodiaconi)은 처음에 집사들에게 딸려, 집사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그들의 수고를 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분은 차츰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수석 집사들(archidiaconi)은 재산이 커져서 새롭고 더 정확한 관리 방식이 필요해졌을 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히에로니무스는 자기 시대에 이미 그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수입과 소유지와 세간과 날마다의 헌물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

리우스는 살로나의 수석 집사에게, 교회 재산 가운데 무엇이든 그의 게으름이나 어떤 사람의 속임수로 잃게 되면 그 자신이 죄책에 묶인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백성 앞에서 복음서를 읽는 일과 기도하라고 권하는 일이 맡겨지고, 또 거룩한 성찬에서 잔을 건네는 일에 그들을 쓴 것은, 그 직무를 영예롭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표징들로 자기가 맡은 것이 어떤 속된 청지기 일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직무라는 것을 일깨움받아, 더 큰 경건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56. 여기서 교회 재산의 쓰임이 어떠했고 그 관리가 어떠했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들의 결정에서나 옛 저술가들에게서나, 교회가 땅으로든 돈으로든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 가난한 자들의 유산이라는 말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런 노래가 거듭 불립니다. 그들이 만지는 것은 자기 재물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 정해진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속임수로 가로채거나 낭비하면 피의 죄를 지은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극한 떨림과 경외로, 마치 하나님 앞에서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재물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권고받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밖의 비슷한 감독들이 백성 앞에서 자기 청렴을 굳게 밝힌 저 엄숙한 맹세들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자기 수고를 바치는 자들이 교회의 공적 비용으로 부양받는 것은 공평하고 주님의 율법으로도 정해진 일이었고, 그 시대에는 어떤 장로들이 자기 유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스스로 가난해지기도 했으므로, 분배는 사역자들에게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다른 이들에게 검소함의 본을 보여야 할 사역자들 자신이 사치나 쾌락에 남용할 만큼 가지지 않고 다만 자기 궁핍을 견딜 만큼만 가지도록 조심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말합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살 수 있는 성직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받으면, 그들은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것이며, 이런 남용으로 자기에게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57. 처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자원하여 신실했고 양심의 온전함과 삶의 무죄함이 법을 대신했으므로, 그 관리는 자유롭고 자발적이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이들의 탐욕이나 악한 열심에서 나쁜 본보기들이 생겨나자, 이 악을 바로잡으려고 법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규들은 교회의 수입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성직자들에게, 다른 한 몫은 가난한 자들에게, 셋째 몫은 거룩한 건물과 다른 건물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에, 넷째 몫은 나그네와 외지의 가난한 자들에게 배정했습니다. 다른 법규들이 이 마지막 몫을 감독에게 돌리는 것도 제가 말한 나눔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몫을 감독 혼자 먹어 치우거나 마음대로 쏟아 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반열에게 요구하는 나그네 대접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겔라시우스와 그레고리우스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겔라시우스는 감독이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주장할 까닭으로, 갇힌 자들과 나그네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려는 것 말고는 다른 까닭을 대지 않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좌의 관습은, 감독이 임직되면 그에게 지침을 주어,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네 몫으로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한 몫은 나그네 대접과 손님 맞이를 위해 감독과 그의 식솔에게, 다른 한 몫은 성직자들에게, 셋째 몫은 가난한 자들에게, 넷째 몫은 교회 건물을 수리하는 데에 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절제 있고 검소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넉넉한 만큼 말고는 아무것도 자기 쓰임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가 사치나 과시와 허세로 방자해지기 시작하면, 곧 동료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가 따르지 않으면 직분에서 쫓겨났습니다.

58. 또 거룩한 일을 꾸미는 데 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 뒤 교회가 조금 더 넉넉해졌을 때에도 그들은 그 일에서 절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들인 돈은 무엇이든, 더 큰 필요가 생기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릴루스는 기근이 예루살렘 지방을 덮쳐 달리 궁핍을 도울 길이 없자, 그릇과 옷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데 썼습니다. 아미다의 감독 아카키우스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사람들의 큰 무리가 굶주림으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성직자들을 불러 모으고 저 빛나는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접시도 잔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릇들을 녹여, 그것으로 불쌍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속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도 성전들의 지나친 화려함을 꾸짖으면서, 자기 시대의 툴루즈 감독 엑수페리우스를 영예롭게 언급합니다. 그는 주님의 몸을 고리버들 바구니에, 피를 유리그릇에 담아 날랐지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제가 방금 아카키우스에 관해 말한 것을 암브로시우스는 자기 자신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아리우스파가 그가 포로들을 속량하려고 거룩한 그릇들을 깨뜨렸다고 그를 비난했을 때, 그는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변명했습니다. "금 없이 사도들을 보내셨고 금 없이 교회들을 모으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가 금을 가지는 것은 쌓아 두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필요할 때 도우려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지켜서 무엇 하겠습니까? 앗수르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가져갔는지 우리가 모릅니까? 다른 도움이 없다면, 신성모독하는 원수가 가져가는 것보다 사제가 가난한 자들을 먹이려고 녹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왜 그토록 많은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 분명히 너는 먹을 것을 마련해 줄 금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토록 많은 포로가 끌려가고 속량되지 못했느냐?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원수에게 죽임을 당했느냐? 금속의 그릇보다 살아 있는 그릇을 지키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이 말에 너는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꾸밈이 모자랄까 두려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성례는 금을 구하지 않는다. 금으로 사지 않는 것은 금으로 기뻐하지도 않는다. 성례의 꾸밈은 포로들의 속량이다. '" 요컨대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하는 말, 곧 그때 교회가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다는 말이 지극히 참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 감독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말도 그러합니다.

59. 우리가 살펴본 이것들이 옛 교회의 사역들이었습니다. 교회 저술가들이 언급하는 다른 것들은 정해진 직무라기보다 훈련이요 일종의 준비였습니다. 저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들 뒤에 교회의 묘판을 남기려고, 부모의 동의와 권위로 영적 군대에 이름을 올린 젊은이들을 자기 보호와 후견 아래, 또 권징 아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린 나이부터 가르쳐, 미숙하고 서툰 채로 직무를 맡으러 나아가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견습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이름으로 성직자(clerici)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알맞은 다른 이름이 붙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칭은 잘못에서, 적어도 비뚤어진 애착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온 교회를 클레루스(clerus), 곧 주님의 기업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벧전 5:3). 그렇지만 그 제도 자체는 무엇보다 거룩하고 유익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수고를 교회에 바치려는 자들이 감독의 보호 아래 그렇게 길러져, 잘 미리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교회를 섬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주 어린 시절부터 거룩한 교리를 흡수하고, 더 엄격한 훈련으로 진중함과 더 거룩한 삶의 어떤 습관을 몸에 익히고, 속된 염려에서 멀어지고, 영적인 염려와 공부에 익숙해진 사람이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의 신병들이 모의 전투로 참되고 진지한 싸움을 위해 훈련받듯이, 그들도 직무 자체에 오르기 전에 성직의 반열에서 정해진 기초 훈련으로 단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들에게 예배당을 열고 닫는 일을 맡기고 그들을 문지기(ostiarius)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들을 시종자(acoluthus)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집안일에서

감독을 시중들고 늘 그와 동행했습니다. 첫째는 영예를 위해서였고, 다음으로는 그가 증인 없이 드나들면 어떤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차츰 백성에게 알려지고 인정을 얻게 하려고, 동시에 모든 사람의 눈길을 견디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 장로가 되어 가르치러 나섰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강단에서 읽을 자리를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각 훈련에서 자기 부지런함을 입증하도록 단계적으로 올라가, 마침내 부집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다만 이것입니다. 이것들은 교회의 참된 사역에 들어가는 직무라기보다 신병의 기초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60. 우리가 사역자의 부르심에서 첫째와 둘째라고 말한 것, 곧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고 그 일에서 얼마나 큰 경건을 지녀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옛 교회가 바울의 규정과 사도들의 본보기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목사를 뽑으려고 최고의 경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모이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시험의 양식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뽑을 사람들의 삶과 교리를 바울의 저 기준에 정확히 맞추어 따졌습니다. 다만 그들은 여기서 지나친 엄격함으로 조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특히 독신을 감독에게 요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에서는 그들의 관습이 바울의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셋째 자리에 둔 것, 곧 누가 사역자를 세워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그들이 늘 한 가지 질서를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온 백성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성직자의 무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는 교회와 의논하지 않고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을 독경자로 세운 것을 꼼꼼하게 변명합니다. 그 일이 까닭 없지는 않았지만 관습을 벗어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머리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직자를 임직할 때 우리는 먼저 여러분과 의논하고, 공동의 협의로 각 사람의 행실과 공적을 저울질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 작은 훈련들에는 큰

위험이 없었으므로, 곧 그들이 긴 시험 기간을 위해, 그리고 그다지 크지 않은 직무에 받아들여졌으므로, 백성의 동의를 묻는 일은 그쳤습니다.

61. 그 뒤 감독직을 뺀 나머지 반열들에서도, 백성은 누가 알맞고 합당한지 알아보는 판단과 선택을 대개 감독과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다만 새 장로들이 교구에 배정될 때는 예외였습니다. 그때는 그곳 무리가 분명히 동의해야 했습니다. 백성이 이 부분에서 자기 권리를 지키는 데 덜 마음을 쓴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때 있던 권징의 엄격함 아래에서 성직의 반열에서 오랫동안 자기를 입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부집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등급에서 인정받은 뒤에야 집사로 세워졌고, 거기서 신실하게 처신했으면 장로의 영예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여러 해 동안 백성의 눈앞에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는 법규가 많아서, 교회가 치료책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한 악한 장로나 집사로 짐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들에게서도 늘 시민들의 동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아나클레투스에게 돌려지는『교령집』제67구분 제1법규도 이것을 증언합니다.[327] 끝으로 모든 임직은, 누구도 신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기어들거나 증인 없이 너무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62. 감독을 뽑는 일에서 백성의 자유는 오랫동안 지켜져,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억지로 떠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공의회에서는 이것을 금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누구도 억지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오 1세도 이것을 꼼꼼하게 확증합니다. 다음 말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성직자들과 백성이, 또는 그 다수가 요구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 위에 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뽑아야 합니다. 알려지지 않고 시험받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면, 그는 반드시 힘으로 밀어 넣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직자들이 뽑고 백성이 요구한

327. 그라티아누스의『교령집』(Decretum Gratiani, 12세기)의 한 대목입니다. 아나클레투스는 1세기 로마의 감독으로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사람을 뽑아야 하며, 그는 관구의 감독들이 관구장(metropolitanus)의 판단과 함께 성별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부들은 백성의 이 자유가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지 않도록 아주 조심했으므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모인 보편 공의회가 넥타리우스를 임직할 때, 로마 공의회에 보낸 그 공의회의 서신이 증언하듯이, 온 성직자단과 백성의 인정 없이는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감독이 자기 후계자를 지명했을 때에도, 온 백성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 지명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본보기뿐 아니라 그 양식까지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에라클리우스를 지명한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테오도레투스는 아타나시우스가 베드로를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전하면서, 곧이어 사제단이 그것을 인정했고, 관리들과 지도층과 온 백성이 환호로 승인했다고 덧붙입니다.

63. 저는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아주 좋은 까닭으로 정한 것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곧 선출을 무리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머리가 한 생각으로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무리는 서로 반대되는 열정으로 갈라진다"는 말은 대개 참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에는 아주 좋은 치료책이 쓰였습니다. 먼저 성직자들만 뽑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뽑은 사람을 관리나 의회와 지도층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숙의한 뒤에, 선출이 정당해 보이면 그것을 확인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더 낫다고 여기는 다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일이 무리에게 넘겨졌습니다. 무리는 앞선 이 판단들에 묶이지는 않았지만, 덜 소란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또는 무리에게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누구를 가장 원하는지 알아보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백성의 바람을 들은 뒤에 마침내 성직자들이 뽑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직자들이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세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백성의 어리석은 바람을 따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레오는 다른 곳에서 이 질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들의 바람, 백성의 증언, 명망가들의 판단,

성직자들의 선출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명망가들의 증언, 성직자들의 서명, 의회와 백성의 동의를 지켜야 합니다. 달리 하는 것은 어떤 이치로도 허락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공의회의 그 결정도, 성직자들과 지도층이 분별없는 무리에게 휩쓸려 가지 않고 오히려 필요할 때 자기 지혜와 진중함으로 무리의 어리석은 욕망을 누르라는 것 말고 다른 뜻이 아닙니다.

64. 이 선출 방식은 그레고리우스 시대에도 여전히 힘이 있었고,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글에는 이 일을 뚜렷이 증언하는 서신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어딘가에 새 감독을 세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성직자단과 의회와 백성에게, 때로는 그 도시의 통치가 짜인 방식에 따라 공작(dux)에게도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상태가 어지러워 이웃의 어떤 감독에게 선출을 감독하라고 맡기는 경우에도,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의 서명으로 굳힌 엄숙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콘스탄티우스라는 사람이 밀라노의 감독으로 세워졌고, 야만족의 침입 때문에 많은 밀라노 사람들이 제노바로 피난했을 때, 그는 그들도 함께 소집되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선출이 정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교황 니콜라우스가 로마 교황의 선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한 지 아직 오백 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곧 추기경 감독들이 앞서 이끌고, 다음으로 나머지 성직자단을 자기들과 합치며, 끝으로 백성의 동의로 선출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에 가서 제가 방금 인용한 레오의 결정을 되풀이하고, 앞으로도 효력이 있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악의가 커져서 성직자들이 순수한 선출을 하려고 도성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면, 그래도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은 함께 있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황제의 투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두 교회에서만 요구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국의 두 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발렌티니아누스에게서 권한을 받아 밀라노로 보내져 새

감독의 선출을 주관한 것은, 시민들이 서로 격렬한 당파 싸움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감독을 세우는 일에 황제의 권위가 오랫동안 매우 큰 힘을 가져, 그레고리우스가 자기는 황제의 명령으로 교회의 키를 잡도록 세워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엄숙한 예식으로 백성에게서 요구받은 사람이었습니다.[328]

328. 이 문장의 끝부분(valuit imperatoris autoritas … a populo fuisset expetitus)은 다음 편 원문(CO 1:581) 첫머리에 있으나, 문장을 맺기 위해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4

CO 1:581–59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581 [329]그런데 관례는 이러했습니다. 의회와 성직자와 백성이 누군가를 지명하면 곧바로 황제에게 알렸고, 황제는 자기 승인으로 그 선출을 비준하거나,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무효로 했습니다. 그라티아누스가 모은 교령들도 이 관습과 어긋나지 않습니다.[330] 거기서 말하는 것은 다만, 교회법에 따른 선출을 없애고 왕이 제 마음대로 감독을 세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그렇게 올라선 자는 대주교들이 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교회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아 모든 것을 한 사람의 마음대로 넘기는 것과, 왕이나 황제에게 자기 권위로 합법적인 선출을 확인하는 이 영예를 주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65. 이제 이어서, 선출된 뒤에 옛 교회의 사역자들이 어떤 예식으로 자기 직무에 들어섰는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라틴 사람들은 이것을 서품 또는 축성이라 불렀고, 그리스 사람들은 케이로토니아(χειροτονία), 때로는 케이로테시아(χειροθεσία)라고도 불렀습니다.[331] 물론 케이로토니아는 본디 손을 들어 투표를 밝히는 그런 종류의 선출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니케아 공의회의 교령이 남아 있는데, 대주교는 선출된 사람을 서품하기 위해 그 관구의 모든 감독과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가

329.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330. 그라티아누스(Gratianus)는 12세기 볼로냐의 교회법 학자로, 『교령집』(Decretum Gratiani)을 엮었습니다.

331. [원문의심] 두 번째 그리스어 낱말은 OCR이 크게 깨져 있습니다(“/«*^o- ^taCav”). 앞 낱말과 문맥에 따라 χειροθεσία(안수)로 읽었습니다.

먼 길이나 병이나 다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지 못하면, 적어도 세 사람은 모여야 하고, 오지 못한 이들은 편지로 자기 동의를 증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법은 쓰이지 않아 낡게 되자, 그 뒤 여러 교회회의에서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감독, 아니면 적어도 핑계가 없는 감독은 누구나 참석하라고 명령받았는데, 이는 서품받을 사람의 교리와 행실을 더 엄중하게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험 없이는 일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키프리아누스의 말에서, 그들이 예전에는 선출이 끝난 뒤에 불려 온 것이 아니라 선출 자리에 함께 있곤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자면 사회자가 되어, 군중 가운데서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백성에게 합당한 사제를 뽑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 뒤, 조금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신적이고 사도적인 전통에서 나온 것을 부지런히 지키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도, 거의 모든 관구에서도 지켜지는 것으로, 서품을 바르게 거행하려면 감독을 세우려는 그 백성에게로 같은 관구의 가장 가까운 감독들이 모두 모이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감독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들이 너무 늦게 모이고, 어떤 이들이 그 지체를 자리를 노리는 기회로 악용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지명이 이루어진 뒤에 그들이 와서, 합법적인 조사로 검증된 사람을 축성하면 넉넉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66. 예전에는 이것이 예외 없이 행해졌는데, 차츰 다른 관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출된 사람들이 서품을 청하러 대주교의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좋은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야심과 옛 제도의 타락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교구의 권위가 이미 커지자, 그보다 더 나쁜 또 다른 관습이 굳어졌습니다. 거의 온 이탈리아의 감독들이 거기서 축성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레고리우스의 편지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던 몇몇 도시에만

옛 권리가 지켜졌습니다. 거기에 밀라노의 예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대주교 도시들만이 자기 특권을 지켰을 것입니다. 대주교를 축성하려고 그 관구의 모든 감독이 그 으뜸 도시에 모이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식은 안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예식을 썼다는 기록은 읽지 못했습니다. 다만 감독들이 엄숙한 모임에서 나머지 장로들과 구별되도록 어떤 장식을 걸쳤다는 것은 예외입니다. 장로와 집사도 안수만으로 서품했습니다. 그러나 각 감독은 장로회와 함께 자기 장로들을 서품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했지만 감독이 앞장서고 말하자면 그의 주재로 일이 치러졌으므로, 그 서품은 감독의 서품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장로가 감독과 다른 점은 서품할 권한이 없다는 것밖에 없다고 자주 말합니다.

67. 이제 오늘날 로마 교구와 그 모든 졸개들이 지키는 교회 통치의 질서, 곧 그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그 위계제의 모습 전체를 눈앞에 펼쳐 놓고, 우리가 묘사한 처음의 옛 교회의 질서와 견주어 보는 것이 수고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견주어 보면, 오직 이 이름 하나를 내세워 우리를 짓누르려고, 아니 오히려 묻어 버리려고 사납게 날뛰는 자들이 어떤 교회를 가졌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직무에 부름받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자기 직무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자리는 감독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논의에서 첫 차례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예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 자체가, 제가 이 주제를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수치가 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제가 어떤 종류의 글을 쓰고 있는지 기억하겠고, 단순한 교리를 위해 짜여야 할 제 글이 제 경계를 넘어 흘러넘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얼굴이 두꺼워지지는 않은 자들 가운데 누구든 제게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날 곳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감독으로 뽑힙니까? 교리를 시험하는 일은 이제 너무 낡은 일이 되었습니

다. 혹 교리를 얼마간 고려한다 해도, 교회에서 설교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소송할 줄 아는 어떤 법률가를 뽑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백 년 동안 거룩한 교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뽑힌 것은 백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선 세기들을 아끼는 것은 그때가 훨씬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오직 현재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행실을 심사한다면, 옛 교회법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사람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CO 583 술꾼이 아니면 오입쟁이였고, 이 죄에서도 깨끗한 자는 노름꾼이거나 사냥꾼이거나 삶의 어느 부분에서 방탕했습니다. 이보다 더 가벼운 악덕들도 옛 교회법에 따르면 사람을 감독직에서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터무니없는 것은 겨우 열 살 된 아이들까지 교황의 허락으로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뻔뻔함과 무감각이 지나쳐, 본성의 감각 자체가 깊이 몸서리치는 이 극단적이고 그토록 괴이한 죄악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드러누운 듯한 태만이 있었던 곳에서 선출이 얼마나 경건하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68. 이제 선출에서 백성의 그 권리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투표, 동의, 서명, 그리고 이런 종류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권한이 오직 참사회원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감독직을 줍니다. 그러고는 곧 그를 백성 앞에 내세웁니다. 그러나 시험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배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오는 어떤 이치로도 이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외치며, 그것을 폭력적인 강요라고 선언합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백성의 동의 없이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신적인 법에서 나온다고 증언하므로, 이와 다른 관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토록 많은 교회회의의 교령들이 이와 다르게 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금하고, 혹 그렇게 했으면 무효로 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이 참이라면, 오늘날 온 교황제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도 교회의 법으로도 교

회법에 맞는 선출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악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교회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은 것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시대의 타락이 그것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감독을 세울 때 백성과 위정자들 사이에서 바르고 건전한 판단보다 미움과 편애가 더 힘을 썼으므로, 그 일의 결정권을 소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악을 막는 마지막 치료책이었다고 해 둡시다. 그러나 약이 병 자체보다 더 해롭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왜 이 새로운 악에도 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선출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참사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감독을 뽑으려고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규칙이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니, 예전에 백성이 자기들이 가장 거룩한 법에 매여 있음을 알지 못했으리라고 의심하겠습니까? 참된 감독의 모습을 그려 보이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법보다 마땅히 더 무게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아주 나쁜 감정에 물들어 법이나 공평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법은 아주 훌륭하게 쓰여 있지만, 종이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대개는 관습으로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마치 이치에 맞는 일인 양 인정까지 받았으니, 술꾼과 오입쟁이와 노름꾼이 곳곳에서 이 영예에 오르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도 부족한 말이니, 감독직이 간음과 뚜쟁이질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냥꾼과 새잡이에게 감독직이 주어질 때는 일이 아주 훌륭하게 풀렸다고 여겨야 할 판입니다. 이런 수치를 어떻게든 변명하는 것은 너무도 악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전에 백성에게는 가장 좋은 교회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가르치는 자이며, 다투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것 등을 정해 주었습니다(딤전 3:2). 그러면 왜 선출하는 직분이 백성에게서 저들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물론 백성의 소란과 파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법을 어길 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내던지고 음란하게, 탐욕스럽게, 야심차게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것과 뒤섞고 뒤엉클어 놓는 저들에게서, 왜 그 직분을 다시 옮겨 오지 않습니까?

69.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치료책으로 고안해 냈다고 말할 때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감독을 뽑을 때 도시들이 자주 소란에 빠졌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시민들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을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악을 미리 막거나 이미 저질러진 것을 바로잡을 다른 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상인지 말하겠습니다. 백성이 뽑는 일에 점점 소홀해지고, 이 일을 자기에게 별로 맞지 않는 일인 양 장로들에게 떠넘기자, 장로들은 이 기회를 악용하여 폭정을 차지했고, 그 뒤 새 교회법을 펴내 그것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서품은 순전한 조롱일 뿐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내보이는 시험의 겉모습은 너무도 공허하고 빈약해서 겉치레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곳에서 군주들이 로마 교황들과 협약을 맺어 자기들이 감독을 지명하게 되었다 해도, 그 일로 교회가 새로 입은 손해는 없습니다. 참사회원들이 아무 권리 없이 빼앗은, 아니 적어도 훔친 선출권을 그들에게서 거두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정에서 감독들을 보내 교회들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아주 추악한 본보기이며, 경건한 군주라면 그런 타락에서 손을 떼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떤 백성에게, 그들이 청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자유로운 목소리로 승인하지 않은 감독을 떠안길 때마다 그것은 교회를 불경건하게 약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교회들에 있었던 그 무질서한 관습이 군주들에게 감독 추천권을 차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군주들은 이 은전이, 그것에 대해 자기들보다 조금도 더 권리가 없고 그것을 자기들 못지않게 그릇되게 악용하던 자들의 것이 되기보다는 자기들의 것이 되기를 더 바랐던 것입니다.

70. 보십시오, 이것이 감독들이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자랑하는 근거인

그 훌륭한 부르심입니다! 또 그들은 장로를 세울 권리가 오직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옛 제도를 아주 심하게 타락시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서품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먹일 장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릴 사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를 축성할 때에도 그들은 집사의 참되고 고유한 직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잔과 성반을 둘러싼 몇 가지 예식을 위해 서품합니다. 그러나 칼케돈 교회회의에서는 매이지 않은 서품, 곧 서품받는 사람에게 그 직무를 행할 자리를 함께 정해 주지 않는 서품을 하지 말라고 정했습니다. 이 교령은 두 가지 이유로 매우 유익합니다. 첫째로, 교회들이 쓸데없는 비용을 지지 않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야 할 것을 게으른 사람들에게 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CO 585 둘째로, 서품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영예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엄숙한 증언으로 감당하기로 매인 직무를 맡는 것임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religion)에서 배 말고는 아무것도 돌볼 것이 없다고 여기는 로마의 선생들은, 먼저 그 명의(titulus)를, 생계를 꾸리기에 넉넉한 수입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상속 재산에서 나오든 성직에서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사나 장로를 서품할 때, 그들이 어디서 섬겨야 할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다만 자기 생계를 꾸릴 만큼 넉넉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서품을 줍니다. 그러나 공의회의 교령이 요구하는 명의가 생계를 위한 한 해 수입이라는 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근래의 교회법들은 감독들이 지나치게 쉽게 서품하는 것을 누르려고, 알맞은 명의 없이 서품한 사람들의 생계를 감독들이 책임지도록 정했는데, 이 벌을 피하려고 또 새로운 꾀를 고안해 냈습니다. 서품받는 사람이 어떤 명의든 하나를 대고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생계비를 청구할 소송에서 밀려납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천 가지 속임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해에 다섯 푼도 거둘 수 없는 헛된 성직 명의를 꾸며 대고, 어떤 이들은 은밀한 약정

아래 성직을 빌려 받으면서 곧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때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종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71. 그러나 이런 더 노골적인 악용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무 자리도 정해 주지 않을 장로를 세우는 것은 언제나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 말고는 아무도 서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로의 합법적인 서품은 교회를 다스리도록 부르는 것이고, 집사의 서품은 구제를 맡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많은 화려한 행렬로 꾸며, 그 겉모습만으로도 순진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단단한 것도 참된 것도 밑에 없는 이런 가면이, 건전한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교에서 끌어오거나 스스로 꾸며 낸 예식들을 쓰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시험에 대해서는(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그림자는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백성의 동의에 대해서는, 그 밖의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제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은, 옛것을 어리석고 싱겁게 흉내 내려고 짜 맞춘 그 우스꽝스러운 몸짓들입니다. 감독들에게는 서품 전에 교리를 조사하는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조사합니까? 자기 미사를 읽을 수 있는지, 읽다가 나오는 흔한 명사 하나를 격변화할 수 있는지, 동사 하나를 활용할 수 있는지, 낱말 하나의 뜻을 아는지입니다. 시구 한 줄의 뜻이라도 풀어낼 줄 알아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린아이 수준의 기초에서조차 모자란 자들이, 돈이나 호의로 된 어떤 추천을 가져오기만 하면 아직 사제직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서품받을 사람들이 제단 앞에 나아갈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들이 그 영예에 합당한지 세 번 묻는 것도 같은 종류입니다.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그러나 형식에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도록 그는 이 연극에서 이 배역을 맡고 있습니다). “합당합니다.” 그 존경스러운 아버지들에게서, 그토록 드러난 신성 모독 가운데서

장난치며 하나님과 사람을 부끄러움도 없이 비웃는다는 것 말고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오랫동안 점유해 왔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허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이토록 뚜렷하고 이토록 끔찍한 죄악들에 맞서 입이라도 벙긋하면, 마치 예전에 케레스의 비밀 제의를 드러낸 자처럼 그들에게 끌려가 사형 재판을 받습니다.[332]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72. 이제 성직록(beneficium)을 주는 일에서는, 이것은 예전에는 서품과 함께 묶여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더 낫게 처신합니까?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감독들만 성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수여자라고 불리는 성직에서도 언제나 온전한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추천권을 갖고, 그들 자신은 영예를 위해 수여의 명의만 지닙니다. 여기에 학교에서 나오는 지명, 그냥 하거나 맞바꾸려고 하는 사임, 추천 칙서, 선취권, 그리고 그와 같은 온갖 것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누구도 다른 이를 조금도 나무랄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처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옛사람들이 성직 매매를 정의한 대로 따지면, 오늘날 교황제 안에서 성직 매매 없이 주어지는 성직록은 백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돈을 세어 주고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무 명 가운데 어떤 비뚤어진 추천도 없이 성직에 이른 사람 하나를 제게 대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혈연이나 인척이 올려 주고, 어떤 이들은 부모의 권세가 올려 주며, 어떤 이들은 아첨으로 환심을 삽니다. 요컨대 성직은 교회를 돌보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돌보려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은전' (beneficium)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으로 그들은 그것을 군주들이 군인들의 환심을 사거나 그들의 수고를 갚아 주려고 내리는 하사금과 다름없이 여긴다는 것을 넉넉히 밝힙니다. 이발사, 요리사, 노새몰이꾼,

332. 케레스(Ceres)는 로마의 곡물 여신입니다. 그 비밀 제의를 누설한 자는 죽음으로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찌꺼기 같은 사람들에게 이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법정은 성직을 둘러싼 소송보다 더 시끄러운 소송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냥하라고 개들에게 던져 준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만합니다. 교회의 소유지에 마치 적의 땅에 쳐들어가듯 뛰어든 자들, 법정 다툼으로 이겨 차지한 자들, 값을 치르고 사들인 자들, 더러운 아첨으로 얻어 낸 자들, 아직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아이로서 그것을 삼촌과 친척에게서, 때로는 사생아로서 아버지에게서 유산처럼 물려받은 자들이 목자라고 불린다는 것을, 듣기만 해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73. 백성이 아무리 타락하고 법을 모른다 한들, 그들의 방종이 언제 이 지경까지 이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괴물 같은 일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분명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섯이나 여섯 교회를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군주들의 궁정에서는 세 번 수도원장이고 두 번 감독이며 한 번 대주교인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다섯, 여섯, 일곱 성직을 짊어진 참사회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수입을 받는 일 말고는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CO 587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나 이에 반대하여 외친다는 것은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은 오래전에 그들에게서 조금의 무게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공의회에서 이 악행에 맞서 아주 엄한 규정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것들도 내키는 대로 대담하게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본성과 교회의 통치에 완전히 어긋나는 괴이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곧 한 강도가 여러 교회를 한꺼번에 깔고 앉는 것, 그리고 원하더라도 자기 양 떼 곁에 있을 수 없는 자가 목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토록 가증한 추행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덮어, 모든 책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맙소사, 이런 악행들

안에 그 지극히 거룩한 계승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계승 덕분에 교회가 멸망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자랑합니다.

74. 이제 합법적인 목자를 평가하는 둘째 표지로서, 그들이 자기 직무를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는지 봅시다. 거기서 세워지는 사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수도사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재속 사제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앞의 무리는 옛 교회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은 수도 서약과 너무도 어긋나므로, 예전에 수도원에서 성직자로 뽑혀 들어온 사람들은 수도사이기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찌꺼기가 많았던 그레고리우스조차 이런 뒤섞임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원장이 된 사람들은 성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수도사이면서 동시에 성직자일 수는 바르게 없으니,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교회법이 알맞지 않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직무를 잘 이행하겠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인노켄티우스와 보니파키우스의 그 유산된 교령들을 제게 들이댈 것입니다. 그 교령들에 따라 수도사들이 자기 수도원에 머문 채로 사제직의 영예와 권한을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아무 무식한 나귀라도 로마 교구를 차지하자마자 말 한마디로 옛것 전체를 뒤엎는다니, 이것이 무슨 이치입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넉넉합니다. 더 순수했던 교회에서는 수도사가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을 큰 불합리로 여겼습니다. 히에로니무스도 자기가 수도사들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기를 사제들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가운데 하나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것을 양보한다 해도, 그들이 무슨 직무를 합니까? 탁발 수도사들 가운데 몇몇은 설교합니다. 나머지 모든 수도사는 자기들의 숨은 굴에서 미사를 흥얼거리거나 중얼거립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장로를 이것을 위해 세우기를 원하셨거나, 직무의 본성이 그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장로의 고유한 일이라고 드러내 놓고 증언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 아니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 불경건한 모독이 아닙니까? 그들은 서품받을 때, 주님께서 모든 장로에게 명하신 일을 하지 말라고 이름을 들어 금지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노래가 불립니다. "수도사는 자기 수도원에 만족하고, 감히 가르치거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그 밖의 어떤 공적인 직무도 행하지 말라." 누군가를 참되고 진정한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장로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이름을 가진 자가 실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 놓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으면 부인해 보십시오.

75. 재속 사제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 말로 성직록 수혜자들, 곧 자기를 먹여 살릴 성직을 가진 자들이고, 일부는 미사를 드리거나 노래하는 일로 날마다 품을 팔아 거기서 모은 삯으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성직록은 감독직과 본당처럼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것이거나, 아니면 노래를 흥얼거려 밥벌이를 하는 한량들의 급료입니다. 곧 녹봉, 참사회원직, 주임직과 고위직, 전속 사제직 같은 것들입니다. 하기야 이제는 모든 것이 위아래로 뒤집혀서, 수도원장직과 수도원 부원장직이 재속 장로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특권으로, 곧 흔하고 늘 있는 관행으로 주어집니다. 날마다 끼니를 찾는 품팔이들로 말하면, 그들이 지금 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곧 벌이를 위해 천하고 부끄러운 방식으로 몸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넘쳐 나는 그 엄청난 무리 가운데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러내 놓고 구걸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별 소득이 없으리라 생각하므로, 굶주린 개들처럼 돌아다니며, 짖어 대는 것과 다름없는 끈질긴 성가심으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에게서 마른 배에 채울 것을 억지로 받아 냅니다. 여기서 장로의 영예와 직무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말로 다 따라가려 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토록 수치스러운 모욕에

걸맞은 말을 제게서 기대할 까닭이 없습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장로의 직무가(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정하고 옛 교회법도 그렇게 요구하듯이) 교회를 먹이고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면, 미사를 사고파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급료도 없는 그 모든 제사꾼은 직무를 쉬고 있을 뿐 아니라, 행할 합법적인 직무를 아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르칠 자리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다스릴 백성도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제단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마귀들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76. 저는 여기서 겉으로 드러난 악덕은 건드리지 않고, 다만 그들의 제도 자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속병만 다룹니다. 그들의 귀에는 거슬리게 들릴 말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말이므로 해야 합니다. 참사회원, 수석 사제, 전속 사제, 참사회장, 그리고 성직으로 먹고사는 게으른 자들은 누구나 같은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무슨 직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의 설교와 권징의 돌봄과 성례의 집행을 너무 성가신 짐인 양 자기들에게서 밀쳐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가 참된 장로라고 자랑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물론 노래와 예식의 화려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일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이 관습과 관행과 오랜 시효를 내세운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정의를 내세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정의로 참된 장로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규칙에 자기를 복종시킬 만큼 그렇게 엄한 법을 견딜 수 없다면, 적어도 이 문제를 처음 교회의 권위로 판결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옛 교회법으로 그들의 처지를 판단한다 해도 그들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사회원으로 타락한 자들은, 예전에 그랬듯이, 감독과 함께 교회를 공동으로 다스리고 목자의 직무에서 말하자면 감독의

동료였던 장로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참사회의 고위직들은 교회의 참된 통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속 사제직과 그런 이름들의 나머지 찌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모두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분명 그리스도의 말씀도 옛 교회의 관례도 그들을 장로의 영예에서 배제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장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직업 전체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처음 교회에서 요구되었던 장로의 직무와 전혀 낯설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모든 반열은 어떤 칭호로 꾸며지든, 새로 생긴 것이고, 분명 주님의 제정에도 교회의 옛 관례에도 받쳐지지 않은 것이므로, 교회가 주님의 입으로 거룩하게 된 것으로 받은 영적 통치의 묘사 안에서 아무 자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그들이 제가 더 거칠고 투박하게 말하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전속 사제, 참사회원, 수석 사제, 참사회장,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게으른 배들은 장로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그 직무의 작은 부분조차 새끼손가락으로도 건드리지 않으므로, 그들이 거짓으로 영예를 가로채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도를 범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77. 감독과 본당 신부가 남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직무를 지키려고 다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경건하고 뛰어난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기꺼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를 버리고 그 돌봄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면서도 목자로 여겨지기를 원하니, 마치 목자의 직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 양 행동하는 셈입니다. 도시 밖으로 한 발도 내디딘 적 없는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자기가 농부나 포도원지기라고 자처한다면, 늘 전쟁터와 진영에만 있어서 법정이나 책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군인이 자기를 법률가로 내세운다면, 누가 그런 썩은 어리석음을 참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합법적인 목자로 보이고 불리기는 원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원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터무니없이 행동합니다. 겉으로만이라도 자기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주 많은 이가 평생 교회들의 수입을 삼키면서도, 그 교회들을 둘러보러 가는 일조차 결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해에 한 번 직접 가거나 관리인을 보내어, 임대에서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게 합니다. 이 타락이 처음 슬며시 들어왔을 때는, 이런 종류의 면제(vacatio)를 누리려는 자들이 특권으로 자기를 예외로 만들었습니다.[333] 지금은 누가 자기 교회에 머무는 것이 드문 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농장과 다름없이 여기고, 마름이나 소작인에게 맡기듯 자기 대리인들을 거기에 세웁니다. 그러나 자기 양 떼 가운데 양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는 자가 그 양 떼의 목자라는 것은 본성의 감각조차 물리칩니다.

78.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이미 이 악의 씨앗이 얼마간 있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어떤 곳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사제로 가득하지만, 추수 밭에서 일꾼은 드물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제의 직무는 맡지만, 그 직무의 일은 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심장이 없으므로 주인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아버지로는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의 자리를 지배의 교만으로 바꿉니다." 또 말합니다. "그러나 오 목자들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삯을 받으면서 일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깥일에 빠져, 맡은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설교의 직무를 버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 형벌에 이르도록 감독이라 불리니, 우리는 능력의 이름이 아니라 영예의 이름만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다만 직무에 덜 부지런하거나 덜 성실했던 자들을 두고 이토록 날카로운 말을 썼다면, 감독들 가운데는 거의 아무도, 아니면 적어도 아주 적은 수만이,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는

333. [원문의심] 원문은 "vocationis"(부르심)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vacationis"(면제, 직무에서 벗어남)로 읽었습니다. "vocationis"로 읽으면 "이런 종류의 부르심"이 됩니다.

백에 하나도 평생에 한 번 강단에 오르지 않는 것을 본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백성에게 설교하는 것이 감독의 품위에 못 미치는 일이라고 흔히들 여길 만큼 미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베르나르두스 시대에는 사정이 훨씬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반열 전체를 얼마나 신랄하게 꾸짖으며 공격하는지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도 그 반열이 그때는 지금보다 적잖이 더 온전했으리라 믿을 만합니다.

79. 누구든 오늘날 교황제 아래 있는 교회 통치의 이 모습 전체를 제대로 달아 보고 살펴보면, 강도들이 법도 한도도 없이 이보다 더 방자하게 날뛰는 도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 거기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제도와 너무도 다르고, 아니 낯설며, 교회의 옛 제도와 관습에서 너무도 타락했고, 본성과 이성과 너무도 싸우므로, 그들이 이토록 무질서한 통치를 변호하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을 그리스도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둥이고, 경건의 수장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신자들의 머리다. 사도의 권세가 계승으로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나무 그루터기에게 말하듯, 이런 어리석은 소리로 끊임없이 뽐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을 자랑할 때마다, 저는 거꾸로 그들에게 사도들과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고 묻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것은 잠자는 자들에게도 넘겨줄 수 있는 무슨 세습된 영예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피하는 설교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의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폭정이라고 주장하면, 그들은 곧바로 그것은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칭찬한 그 존경스러운 위계제라고 맞받습니다. 마치 거룩한 교부들이, 사도들에게서 손에서 손으로 전해 받은 대로의 교회의 위계제 또는 영적 통치를 칭찬할 때, 이 흉측하고 황폐로 가득한 혼돈을 꿈꾸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감독들이 대개 무식한 나귀여서, CO 591 믿음의 첫걸음이자 누구나 아는 기초조차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유모의 품을 막

떠난 아이들입니다. 혹 좀 더 배운 자들이 있다 해도(그런 예는 드물지만), 그들은 감독직을 화려함과 웅장함의 칭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일을, 갖바치가 밭 가는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바벨론보다 더한 흩어짐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저 교부들의 질서의 온전한 흔적은 더 이상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80. 행실로 내려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 세상의 빛은 어디 있겠습니까? 땅의 소금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끊임없는 감찰이 될 수 있는 그 거룩함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치와 나약함과 쾌락과, 요컨대 온갖 종류의 정욕으로 이보다 더 악명 높은 사람들의 반열은 없습니다. 온갖 사기와 속임수와 배신과 배반에 이보다 더 알맞고 능숙한 선생들이 나오는 반열은 없습니다. 해를 끼치는 데 이만한 솜씨나 대담함이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거만, 교만, 탐욕, 잔인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고삐 풀린 방종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이것들을 견디느라 너무 지쳐서, 제가 무엇을 지나치게 부풀린다고 보일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도 부인하지 못할 한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옛 교회법에 따라 그 행실을 판결한다면, 감독들 가운데 거의 아무도, 본당을 맡은 자들 가운데 백에 하나도, 출교당하거나 적어도 직무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믿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성직자의 행실을 더 엄격하게 감찰하라고 명하던 그 옛 권징이 그만큼 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로마 교구의 깃발과 주재 아래 싸우는 자들이여, 가서 자기들에게 있는 사제의 반열을 자랑해 보십시오. 분명 그들이 가진 반열은 그리스도에게서도, 그분의 사도들에게서도, 교부들에게서도, 옛 교회에서도 나온 것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81. 이제 집사들과, 그들이 가진 그 지극히 거룩한 교회 재산의 분배가

한가운데로 나와 보십시오. 하기야 그들은 이제 자기 집사들을 그 일을 위해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집사들에게 제단에서 시중들고, 복음서를 낭독하거나 노래하고, 무슨 시시한 짓들을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구제에 대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도, 그들이 예전에 맡았던 그 직능 전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도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을 본다면, 그것은 사실 직무가 아니라 장로직으로 가는 한 단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에서 집사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은 한 가지 일에서 옛것의 헛된 허상을 보여 줍니다. 그들은 축성 전에 봉헌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신자들이 서로 입 맞추고 제단에 구제 헌금을 바치는 것이 옛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먼저 표징으로, 다음에는 선행 자체로 자기들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관리인이었던 집사는 드려진 것을 받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구제 헌금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다에 던져 버린 경우보다 조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거짓 집사직으로 교회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그 일에서 사도적 제도와도, 옛 관례와도 비슷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산의 분배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 놓았고, 이보다 더 무질서한 것을 꾸며 낼 수 없을 만큼 짜 놓았습니다. 강도들이 사람들의 목을 딴 뒤 노략물을 자기들끼리 나누듯이, 이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꺼진 뒤, 마치 교회의 목을 딴 것처럼, 거룩한 쓰임에 바쳐진 것은 무엇이든 노략과 약탈에 내놓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하고 나서 저마다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에게로 낚아챘습니다.

82. 여기서 우리가 설명한 옛 방식들은 모두 어지럽혀졌을 뿐 아니라 아예 지워지고 말소되었습니다. 이 노략물로 부자가 되어 참사회원으로 바뀐 감독들과 도시의 장로들이 가장 큰 몫을 자기들끼리 찢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배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경계를

두고 소송을 벌인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어찌 되었든 이 결정으로, 적어도 절반은 가난한 이들의 몫이었던 교회의 모든 재산 가운데 한 푼도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손을 써 둔 셈입니다. 교회법은 이름을 들어 그 넷째 몫을 가난한 이들에게 돌리고, 또 다른 넷째 몫은 감독들이 손님 대접과 다른 자선의 직무에 쓰도록 그들에게 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 자기 몫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떤 쓰임에 돌려야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당과 건물과 다른 비용에 할당된 나머지 몫이 필요할 때 가난한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넉넉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묻겠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불꽃이 하나라도 있다면, 자기들이 먹고 입는 것이 다 도둑질에서, 아니 신성 모독에서 나온다는 이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별로 움직이지 않으니, 적어도 자기들이 상대하는 이들이 감각과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늘 자랑하는 만큼 자기 교회에 아름답고 질서 잡힌 반열을 갖고 있다고 설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짧게 대답해 보십시오. 집사직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할 허가증입니까?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집사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교회 재산의 관리 전체가 드러내 놓고 신성 모독적인 약탈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83.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씁니다. 교회의 품위가 이런 웅장함으로 어울리지 않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리 가운데는, 옛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나라의 광채를 묘사한 그 예언들이 사제의 반열에서 그 왕다운 위용이 보일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드러내 놓고 자랑할 만큼 뻔뻔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이것들을 헛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 ‘왕들이 와서 네 앞에 경배하고, 네게 예물을 가져오리라’

(시 72:10).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아, 네 힘을 입으라. 예루살렘아, 네 영광의 옷을 입으라’ (사 52:1). ‘스바 사람들이 다 와서 금과 유향을 가져오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게달의 양 무리가 다 네게로 모이리라’ (사 60:6–7).”[334] 이 악함을 반박하는 데 제가 오래 매달린다면, 어리석어 보일까 두렵습니다. CO 593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묻겠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이 증언들을 악용한다면, 그들은 무엇이라 풀어 주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가,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에 대해 영적으로 말해진 것을 육과 세상으로 옮겨 놓는다고 그의 어리석음을 꾸짖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빛나야 할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땅의 것들의 모습 아래 우리에게 그려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표현하는 이런 복을 교회가 사도들 시대보다 덜 넉넉하게 가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나라의 능력이 그때 가장 꽃피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있든 귀하고 높고 빛나는 것은 무엇이든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왕들에 대해 이름을 들어 말하는 것, 곧 그들이 그리스도께 홀을 숙이고, 자기 왕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며, 자기 재물을 교회에 바치리라는 것은, 테오도시우스가 자색 옷을 벗어 던지고 제국의 표장을 내려놓은 채 백성 가운데 아무나 한 사람처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한 회개에 자기를 굴복시켰을 때보다,[335] 또 그와 그 밖의 비슷한 경건한 군주들이 교회의 순수한 교리를 지키고 건전한 교사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자기 열심과 관심을 쏟았을 때보다, 언제 더 참되고 더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사제들이 쓸데없는 재물로 얼마나 사치하지 않았는지는, 암브로시우스가 주재한 아퀼레이아 교회회의의 그 한마디가 넉넉히

334. 원문에는 “같은 책 60장 6절”로만 되어 있으나, 게달의 양 무리에 관한 구절은 7절이므로 60:6–7로 적었습니다.

335. 테오도시우스 1세(Theodosius I, 재위 379–395)입니다. 390년 테살로니카 학살 뒤 밀라노 감독 암브로시우스의 요구로 공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밝혀 줍니다. “주님의 사제들에게는 가난이 영광스럽습니다.” 물론 그때 감독들에게도 얼마간 재산이 있었으니, 이런 것이 교회의 참된 장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으로 교회의 품위를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탁의 진미와 옷의 화려함과 많은 종과 웅장한 궁전으로 빛내고 뽐내는 것보다 목자의 직무에 더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겸손과 절제를, 아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자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신 가난 자체를 따르고 귀히 여겼습니다.

84. 그러나 여기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지금 있는 교회 재산의 분배, 아니 탕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고 옛 교회가 지켜 온 참된 집사직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다시 짧게 요약해 봅시다. 예배당을 꾸미는 데 들이는 것은, 거룩한 것들의 본성 자체가 정해 주고 사도들과 다른 거룩한 교부들이 교훈과 본보기로 정해 준 그 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잘못 쓰는 것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당에서 그런 것이 보입니까? 그 옛 검소함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점잖은 절제에 맞추어진 것은 무엇이든 물리칩니다. 사치와 시대의 타락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살아 있는 성전을 마땅히 돌보기는커녕, 가난한 이들의 궁핍을 덜어 주려고 아주 작은 잔이나 주전자 하나를 깨뜨리느니 차라리 가난한 이들 수천 명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제가 직접 더 무거운 말을 하지 않도록, 경건한 독자들이 다만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툴루즈의 감독 엑수페리우스나, 아카키우스나, 암브로시우스나, 그와 비슷한 누군가가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분명 그들은 가난한 이들이 그토록 궁핍한데 재물을 남아도는 것인 양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옳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재물이 쓰이는 이런 쓰임새는, 가난한 이들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모로 해롭고 어느 면으로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쳐 두겠습니다. 이 재산은 그리스도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을 벗어나 쏟아부은 이 몫을 그리스도께 쓴 비용으로 돌리려 해도 헛일입니다. 하기야 사실대로 말하면, 이런 비용으로 교회의 정규 수입에서 깎이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제들의 끝없는 배를 채울 만큼 그렇게 부유한 감독직도, 그렇게 기름진 수도원도, 요컨대 그렇게 많고 그렇게 큰 성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것은 아끼려고 백성을 미신으로 꾀어, 가난한 이들에게 써야 했던 것을 예배당을 짓고 성상을 세우고 그릇을 사고 값비싼 옷을 마련하는 데 돌리게 합니다. 이렇게 이 소용돌이 속으로 날마다의 구제 헌금이 삼켜집니다.

85. 그들이 밭과 소유지에서 거두는 수입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고 모두의 눈앞에 있는 것 말고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감독과 수도원장이라 불리는 자들이 그 가장 큰 몫을 얼마나 신실하게 관리하는지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교회의 질서를 찾는 것이 무슨 미친 짓입니까? 그 삶이 검소와 절제와 금욕과 겸손의 남다른 본보기가 되어야 했던 그들이, 수행원의 수와 저택의 화려함과 옷과 잔치의 호사로 군주들의 사치를 겨루는 것이 그들에게 어울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고 범할 수 없는 칙령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소박한 음식으로 만족하라고 명하는 그들이, 마을과 성채에 손을 댈 뿐 아니라 아주 넓은 영지로 날아들고 마침내 나라들까지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와 얼마나 거리가 멀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교회회의들의 그 옛 교령들에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 교령들은 감독이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거처를 두고, 값싼 식탁과 세간을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336] 주님의 사제들에게 가난이 영광스럽다고 기리는 아퀼레이아 교회회의의 그 찬사에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히에로니무스가 네포티아누스에게,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가, 그리고

336. [원문의심] 원문은 “vUlam”으로 깨져 있습니다. “vilem”(값싼)으로 읽었습니다. “villam”(별장)으로 읽으면 뜻이 맞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작은 식탁을 아시게 하라고 권한 것은, 아마 너무 엄하다고 물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곧이어 덧붙이는 말은 부인하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살림을 돌보는 것이 감독의 영광이요, 자기 재산을 늘리려 애쓰는 것은 모든 사제의 수치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모두 수치에 정죄된다고 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을 더 혹독하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다만, 그들에게서는 합법적인 집사직의 질서가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들이 더 이상 이 이름으로 자기 교회를 내세우며 뽐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넉넉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5

CO 1:595–60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595 86. 지금까지 우리는 옛 교회의 통치 안에 있었으나 그 뒤 시대에 따라 타락하고 점점 더 망가져서, 지금 교황의 교회에서는 이름만 지니고 실제로는 가면에 지나지 않는 교회의 반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견주어 보아 경건한 독자가, 로마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가졌는지 판단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났다는 이유로 우리를 분열의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반열의 머리이자 꼭대기, 곧 로마 교구의 수위권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근거로 보편 교회가 오직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않은 까닭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정에서도 옛 교회의 관례에서도 기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다룬 부분들은 옛것에서 생겨났으나 시대의 잘못으로 완전히 타락했고, 아니 완전히 새 모양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로마 교구에 붙어 그 순종 안에 머무는 것이 교회 일치의 으뜸가는, 아니 거의 유일한 끈이라고 세상을 설득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서 교회를 빼앗고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려 할 때 가장 크게 기대는 버팀목은 이것입니다. 곧 자기들이 머리를 붙들고 있는데, 교회의 일치가 그 머리에 달려 있고, 그 머리가 없으면 교회는 흩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로마 교구에 머리처럼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말하자면 팔다리가 잘리고 몸통만 남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위계제를 논할 때 늘 이 공리에서 시작합니다. 로마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보편 교회를 주재하며, 그 교구가 다른 모든 교구 위에 수위권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바르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바른 통치에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도록, 이것이 어떤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87. 그러므로 물음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대로 위계제, 곧 교회 질서의 참된 원리를 위해서는, 한 교구가 다른 교구들 가운데서 품위와 권세에서 뛰어나 몸 전체의 머리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회에 이런 필연을 지운다면, 우리는 교회를 너무도 부당한 법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자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먼저 이 경륜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그들은 율법에서 대제사장직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우신 최고 법정을 끌어옵니다. 그러나 답은 쉽고, 하나로 그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 한 민족 안에서 유익했던 것을 온 세상으로 넓혀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민족의 사정과 온 세상의 사정은 아주 다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방이 우상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그들이 종교(religion)들의 다양함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 예배의 자리를 땅 한가운데에 두셨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바라볼 한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들이 일치 안에 더 잘 묶여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참된 경건(religion)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동방과 서방을 다스리는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완전히 터무니없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밭 하나에 관리인이 여럿 있지 않으니 온 세상도 한 관리인이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받는 데로 끌어와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제사장직이 옮겨졌으니, 그 권리도 옮겨지는 것이 마땅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분명 교황에게로는 아닙니다. 교황은 이 찬사를 자기에게 끌어다 붙이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자랑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직무 자체를 대리자나 후계자 없이 홀로 감당하시듯이, 그 영예도 다른 누구에게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이 제사장직은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과, 지금 아버지 앞에서 행하시는 그 간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88.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보는 이 본보기로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법처럼 묶을 까닭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그들은 자기 견해를 확증하려고 내놓을 것이 한 사람에게 하신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 16:18). 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 21:15). 그러나 이 증거들이 확실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양 떼를 먹이라고 명령받은 사람에게 모든 교회를 다스릴 권세가 맡겨진다는 것, 그리고 매고 푸는 것이 온 세상을 주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이, 다른 모든 장로에게도 교회를 먹이라고 권합니다 (벧전 5:2).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거나, 베드로가 자기가 받은 권리를 다른 이들과 똑같이 나누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되이 다투지 않도록 말하자면, 매고 푸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는 다른 곳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분명한 설명이 있습니다(요 20:23). 곧 죄를 그대로 두고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방식은 성경 전체가 곳곳에서 보여 줄 뿐 아니라, 바울이 아주 잘 밝힙니다. 그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동시에 이 은택을 물리치는 자들에게 징벌을 행할 권세도 가졌다고 말합니다(고후 5:18; 10:6).

89. 그러나 매고 푸는 것을 언급하는 그 구절들이 자기들 방앗간에 물을

대는 것처럼 보이므로, 로마의 건축가들은 그 구절들을 이리저리 비틀고, 레스보스의 자처럼 제 마음대로 좋아 보이는 데마다 맞춥니다.[337] 그러므로 그 구절들이 무슨 뜻인지 한 번 짧게 설명하는 것이 수고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매고 푸는 것을 말하는 구절은 둘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19절)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뒤, 곧이어 그가 땅에서 무엇을 매거나 풀든지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리라고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것은, 요한복음(20:23)에 있는 다른 말씀으로 뜻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설교하러 보내시려 할 때, 그들에게 숨을 내쉬신 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있으리라." CO 597 저는 교묘하지도 억지스럽지도 비틀지도 않은, 참되고 자연스럽고 바로 눈앞에 있는 해석을 내놓겠습니다.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것에 관한 이 명령과, 매고 푸는 것에 관해 베드로에게 하신 그 약속은 말씀의 사역 말고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이 풀고 매는 직무도 갖추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요지가, 죄와 죽음의 종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풀려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를 해방자요 구속자로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슬에 정죄되고 넘겨진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당신의 사도들에게 맡기실 때, 그것이 당신의 것이요 당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시려고 이 빛나는 증언으로 그것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 자신에게도, 그 사명이 이르게 될 모든 사람에게도 큰 위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기 설교에 대해 한결같고 굳건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 설교를 위해 끝없는 수고와

337. 레스보스의 자(Lesbia regula)는 레스보스 섬의 석공들이 쓴 납으로 된 자로, 돌의 굴곡에 따라 휘었다고 합니다. 무엇에나 마음대로 맞추는 규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심과 괴로움과 위험을 겪어야 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자기 피로 그것을 인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설교가 헛되거나 공허한 것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토록 큰 불안과 어려운 형편과 그토록 큰 위험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온 세상이 맞서고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에 서 계심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기 교리의 저자이신 그리스도를 땅에서는 눈앞에 뵙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하늘에 계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신 교리의 진리를 굳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듣는 이들에게도, 그 복음의 교리가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땅에서 생겨난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언해야 했습니다. 죄 사함과 영생의 약속과 구원의 소식, 이런 것은 사람의 권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설교에서 사도들의 것은 사역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의 입을 악기처럼 써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이는 당신 자신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는 죄 사함은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고, 그들이 선고하는 정죄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모든 세대에 주어졌고 굳게 남아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더 확실하고 안심하게 합니다. 곧 복음의 말씀은 결국 어떤 사람이 설교하든지 하나님의 바로 그 판결이며, 가장 높은 법정에서 공포되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에서 인정되어 굳고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열쇠의 권세가 단순히 복음의 설교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람 쪽에서 보면 그것은 권세라기보다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세를 엄밀히 말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주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90. 우리가 매고 푸는 권세에 대해 있다고 말한 다른 구절은 마태복음 18장(18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제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에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풀면 풀리리라." 이 구절은 앞 구절과 아주 같지는 않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둘을 서로 깊은 관련이 없을 만큼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점에서 둘은 같습니다. 둘 다 일반적인 말씀이고, 언제나 같은 매고 푸는 권세,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세이며, 같은 명령이고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다릅니다. 앞 구절은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이 수행하는 설교에 관한 것이고, 이 구절은 교회에 맡겨진 출교의 권징에 속합니다. 교회는 출교하는 사람을 맵니다. 그를 영원한 멸망과 절망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행실을 정죄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정죄를 이미 그에게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풉니다. 그를 말하자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일치에 참여하는 자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교회의 판단을 고집스럽게 멸시하거나, 자기가 신자들의 표결로 정죄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신자들의 이런 판단이 당신의 판결을 공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그들이 땅에서 행한 것이 하늘에서도 인정된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비뚤어진 자들을 정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돌이키는 자들을 다시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만 판단하므로 잘못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어긋날 수도 없습니다. 그 율법은 불확실하거나 땅에 속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짧게, 그리고 쉽고 참되게 풀었다고 생각하는 이 두 구절에서, 저 미친 자들은 아무 분별도 없이 자기 어지럼증에 휩쓸리는 대로, 어떤 때는 고해를, 어떤 때는 출교를, 어떤 때는 재판권을, 어떤 때는 법을 만드는 권리를, 어떤 때는 면벌부를 세우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앞 구절은 로마 교구의 수위권을

세우는 데 내세웁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 열쇠를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자물쇠와 문에 맞출 줄 아니, 평생 대장장이 일을 해 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91. 그러나 다른 것들은 제자리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수위권에 대해 그들에게 대답합시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를 보편 교회의 우두머리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른 곳에서는 나머지 모두에게 함께 주시고, 말하자면 손에 쥐여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권리가 모두에게 주어졌다면, 그가 무엇에서 동료들보다 높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는 공동으로만 주어지는 것을 그는 공동으로도 따로도 받는다는 점에서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제가 키프리아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한 사람을 다른 이들보다 앞세우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려 하신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CO 599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의 일치를 나타내시려고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모두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나머지 사도들도 분명 베드로와 같은 이들이었으니, 영예와 권세를 똑같이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임을 보이시려고 시작이 하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안에 교회의 비밀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게 열쇠를 주리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라면 교회는 그것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가진다면,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을 때 그는 교회 전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모두가 질문을 받았는데 베드로 혼자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네게 열쇠를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혼자 매고 푸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앞의 말을 모두를 대신하여 혼자 했고,

뒤의 것을 일치 자체의 인격을 지닌 자로서 모두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가 모두를 대신한 한 사람인 것은 모두 안에 일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92. 그러나 그들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하셨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베드로에 대해 선포하시는 것이, 바울과 베드로 자신이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 선포하는 것과 다르다는 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머릿돌이요 모퉁잇돌로 삼는데, 그 위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 가는 이들이 세워집니다(엡 2:20). 베드로는 우리가 산 돌이 되라고 하며, 그 택함받은 보배로운 돌 위에 세워져 이렇게 맞추어지고 연결되어 우리 하나님과, 또 서로 결합하라고 합니다(벧전 2:5).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이들보다 앞섭니다. 그가 특별히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교회의 건물 안에서 첫째 가는 이들 가운데 놓인다는 이 영예를, 또는 그들이 이것까지 원한다면 모든 신자 가운데 첫째라는 영예를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그가 다른 이들 위에 수위권을 가진다고 끌어내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추론 방식입니까? 베드로는 열심의 뜨거움과 가르침과 마음의 크기에서 다른 이들을 앞선다, 그러므로 그들 위에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드레가 시간상 베드로보다 앞섰고 그를 그리스도께 데려왔으니 차례로는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앞선다고, 더 그럴듯한 핑계로 결론지을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요 1:40, 42).[338] 그러나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첫 자리를 가진다고 해 둡시다. 그래도 차례의 영예와 권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대개 베드로에게, 모임에서 말을 하고 보고하고 권하고 깨우치면서 말하자면 앞장서는 일을 맡겼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권세에 대해서는 전혀 읽지 못합니다.

93. 우리가 아직 그 논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만 이것을

338. 원문에는 "요 1:39, 42"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개역한글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붙들어 두고자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라는 이름 하나로 보편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세우려 할 때, 그들의 논증은 너무도 헛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겉치레로 속이려 했던 그 옛 어리석은 소리들은 반박은커녕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는 것인데, "이 반석 위에" 운운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부들 가운데 몇몇은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이에 반대하여 외치는데, 하나님께 맞서 그들의 권위를 내세워 무엇 하겠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데, 마치 그 뜻이 모호하거나 애매하다는 듯이 이 말씀의 뜻을 두고 왜 다툽니까? 베드로는 자기와 형제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터는 하나뿐이고 그 밖에 다른 터는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전 3:11). 여기서 제가 교부들의 권위를 물리치는 것은, 인용하고 싶어도 제 말을 증명할 그들의 증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토록 분명한 일을 따지느라 독자들을 헛되이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우리 쪽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충분히 부지런하게 다루고 설명했습니다.

94. 하기야 실제로는,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서 어떤 직무와 권세를 가졌는지, 어떻게 처신했는지, 또 그들에게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가르치는 모든 구절을 견주어 본다면, 성경 자체보다 이 물음을 더 잘 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을 다 훑어보십시오. 그가 열두 사도 가운데 하나였고, 나머지와 같았으며, 주인이 아니라 동료였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회의에 내놓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깨웁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의견을 말할 자리를 내줄 뿐 아니라 결정을 맡기며, 그들이 정하면 따르고 순종합니다(행 15:7 이하). 목자들에게 편지할 때도 그는 윗사람인 양 권세로 명령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 동료로 삼아,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그러듯이 정답게 권합니다(벧전 5:1). 그가 이방인들에게 들어갔다고 비난받을 때, 부당한 비난인데도 그는 대답하고 자기를 변명합니다(행 11:4 이하). 동료들에게서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라는 명을 받자 그는 마다하지 않습니다(행 8:14). 사도들이 그를 보낸다는 것으로 그들은 그를 결코 윗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가 따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그는 자기가 그들과 동료 관계에 있지, 그들 위에 통치권을 가진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갈라디아서 하나만으로도 모든 의심을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거의 두 장에 걸쳐(1–2장) 자기가 사도직의 영예에서 베드로와 같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베드로에게 간 것은 복종을 고백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교리의 일치를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런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자고 그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어진 은혜가 베드로에게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어진 은혜보다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덜 신실하게 행했을 때 자기가 그를 바로잡았고, 베드로는 그 책망에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대등함이 있었거나, 적어도 베드로가 나머지 사도들에게 가진 권세가 그들이 베드로에게 가진 권세보다 조금도 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 사도직에서 아무도 자기보다 베드로나 요한을 앞세우지 않도록 이 일을 일부러 다룹니다. 그들은 동료였지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5. 그러나 베드로에 대해 그들이 요구하는 것, 곧 그가 사도들의 우두머리였고 품위에서 나머지를 앞섰다는 것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CO 601 그들이 단 한 번의 예에서 보편적인 규칙을 만들고, 한 번 있었던 일을 영원한 것으로 끌어갈 까닭은 없습니다. 사정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으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열두 사람을 이끌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십만 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열둘이 자기들 가운데 모두를 이끌 한 사람을 두었다는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모두가 권세에서 대등하더라도 어떤 모임에서나 다른 이들이 바라볼 한 사람이 말하자면 사회자가 되는 것은, 본성이 그렇게 이끌고 사람의 기질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집정관 없는 원로원이 없고, 법무관이나 심문관 없는 재판 모임이 없으며, 장 없는 단체가 없고, 지도자 없는 결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베드로에게 그런 수위를 맡겼다고 우리가 인정한다 해도 터무니없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 사이에서 통하는 것을 곧바로 온 세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기에 넉넉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의 최고 머리가 있다는 것은 각 부분에서만큼이나 자연 전체에서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맙소사, 그들은 이것의 증거를 두루미와 벌에게서 가져옵니다. 두루미와 벌은 늘 하나의 우두머리를 뽑지, 여럿을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내놓는 예를 물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벌들이 왕 하나를 뽑으려고 온 세상에서 모여듭니까? 저마다의 왕은 자기 벌통으로 만족합니다. 두루미도 그렇게 무리마다 자기 왕을 둡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것에서 각 교회에 저마다 감독을 두어야 한다는 것 말고 무엇을 증명하겠습니까? 그다음 그들은 우리를 국가의 예로 부릅니다. 그들은 호메로스의 그 말, "여럿이 다스리는 것은 좋지 않다"(οὐκ ἀγαθὸν πολυκοιρανίη)와,[339] 이방 저자들에게서 같은 뜻으로 군주정을 칭찬하는 데 읽히는 말들을 인용합니다. 대답은 쉽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나 다른 이들이 군주정을 칭찬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는 뜻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려는 것은 한 나라가 두 사람을 담지 못하며, (그 사람이 말하

339. 그리스어 원문은 OCR이 크게 깨져 있습니다("oix dya' ^ov noXvxohqavCrj"). 호메로스의 잘 알려진 구절로 읽었습니다.

듯이) 권세는 동반자를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6.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온 세상이 하나의 군주정으로 묶이는 것이 좋고 유익하다고 해 둡시다(그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 둡시다). 그래도 저는 그 때문에 같은 것이 교회의 통치에서도 통한다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다스림 아래, 그분이 친히 정하신 질서와 통치 형태에 따라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머리 없이 있을 수 없다는 핑계로 한 사람이 보편 교회를 이끌기를 원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 큰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온몸이 그분에게서 나와 도움을 공급하는 모든 마디로 맞추어지고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엡 4:15 이하). 바울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몸 안에 두고, 머리의 영예와 이름은 그리스도 한 분께만 남겨 두는 것을 보십니까? 그가 각 지체에 일정한 분량과 정해지고 한정된 직능을 주어, 은혜의 완전함도 다스리는 최고 권세도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게 하는 것을 보십니까? 이것을 들이대면 그들이 흔히 어떻게 둘러대는지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권위와 이름으로 홀로 다스리시므로 엄밀히 말해 유일한 머리라 불리시지만, 그것이 그분 아래에 그분을 대신하여 땅에서 일하는 다른 머리, 그들 말로 "사역의 머리"가 있는 것을 조금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임을 먼저 보이지 않는 한, 그들은 이 둘러대기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사도는 공급하는 일 전체가 지체들에게 두루 퍼져 있고, 능력은 저 하늘의 한 머리에게서 흘러나온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더 분명한 것을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라고 증언하고(엡 1:22; 4:15; 5:23; 골 1:18; 2:10),[340] 이 영예를 그분께만 돌리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신 사람이

340. 원문에는 "엡 5:25"와 "골 2: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는 구절에 따라 엡 5:23과 골 2:10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아니면 이 영예를 다른 이에게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을 뿐 아니라, 많은 구절로 넉넉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97. 바울은 여러 번 교회의 살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 보입니다. 거기에 한 머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묘사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정과 낯설다는 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당신의 보이는 임재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올라가셨습니다(엡 4:10).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여전히 그분을 곁에 모시고 있고,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을 보여 주려 할 때, 그분이 쓰시는 사역들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목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세우셨다” 등등(엡 4:7, 11). 왜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할 한 사람을 모두 위에 세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은 무엇보다 그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참이었다면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입니까?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사람들의 사역으로입니다. 왜 오히려 당신을 대신하도록 맡기신 사역의 머리를 통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일치를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공동의 사역과, 각자에게 특정한 분량 말고는 아무것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일치를 권하는 대목에서(엡 4:4) 그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한 뒤에, 왜 곧이어 교회를 일치 안에 묶어 둘 최고 교황도 하나라고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사정이 정말 그랬다면 이보다 더 알맞은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구절을 부지런히 달아 보십시오. 바울이 거기서, 후대 사람들이 위계제라고 부른 교회의 거룩하고 영적인 통치를 온전히 그려 보이려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사역자들 사이에 군주정을 하나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는 것까지 보여 줍니다. 또한 그가 신자들이 자기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방식을 나타내려 했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역의 머리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각 지체에게 특정한 역사를 돌립니다. 그들이 하늘의 위계제와 땅의 위계제를 견주며 교묘하게 철학할 까닭도 없습니다. 하늘의 위계제에 대해서는 한도를 넘어 알려고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O 603 그리고 땅의 위계제를 세우는 데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으로 그려 주신 것 말고 다른 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98. 이제 그들에게 또 하나를 양보하여, 건전한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얻어 내지 못할 것, 곧 교회의 수위권이 베드로 안에 세워져 끊임없는 계승으로 언제나 남아 있도록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 봅시다. 그래도 그들은 어디서, 그 자리가 로마에 놓여 그 도시의 감독이 누구든 온 세상을 주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장소에 대한 언급 없이 주어진 이 품위를 무슨 권리로 한 장소에 묶습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살았고 거기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살아 계시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셨고,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목자장이시요 가장 높은 감독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분은 한 장소에 영예를 얻어 주실 수 없었는데, 그 분보다 훨씬 못한 베드로는 그럴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소리는 어린아이 장난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수위의 영예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베드로가 로마에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그는 거기에 수위의 자리를 두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이치대로 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 수위의 자리를 세웠어야 했습니다. 가장 높은 교사이자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인 모세가 거기서 자기 사역을 다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99. 그래도 그들이 얼마나 멋지게 추론하는지 봅시다. 그들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서 으뜸 자리를 가졌다. 그러므로 그가 자리 잡은 교회는 이 특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는 처음에 어디에 자리 잡았습니까? 그들은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마땅히 수위권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안디옥이 첫째였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거기서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영예를 로마로 옮겼다고 합니다. 교황 마르켈루스의 이름으로 안디옥의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자리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있었으나, 그 뒤 주님의 명령으로 이리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첫째였던 안디옥 교회가 로마 교구에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량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무슨 계시로 알았습니까? 이 문제를 법에 따라 정해야 한다면, 그들은 이 특권이 인적인 것인지, 물적인 것인지, 혼합된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이 셋 가운데 하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적이라고 말한다면 장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적이라고 말한다면, 한 번 장소에 주어진 것은 사람이 죽거나 떠난다고 해서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합된 것이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이 함께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장소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고르게 하십시오. 저는 곧바로 결론을 끌어내어, 로마가 어떤 이유로도 수위권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증명하겠습니다.

100. 그래도 그들이 허튼소리로 말하는 대로, 수위권이 안디옥에서 로마로 옮겨졌다고 해 둡시다. 그러면 왜 안디옥은 둘째 자리도 지키지 못했습니까? 베드로가 생의 마지막까지 로마에 자리 잡았으므로 로마가 첫 자리를 가진다면, 그가 처음 자리를 가졌던 곳보다 누구에게 둘째 자리를 더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렉산드리아가 안디옥보다 앞서

게 되었습니까? 한 제자의 교회가 베드로의 자리보다 높다는 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각 교회에 그 창설자의 품위에 따라 영예가 돌아가야 한다면,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도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기둥같이 여겨지던 세 사람, 곧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을 듭니다. 베드로를 높여 로마 교구에 첫 자리가 주어진다면, 요한과 야고보가 자리 잡았던 에베소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둘째와 셋째 자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총대주교 교구들 가운데 예루살렘은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에베소는 마지막 구석에도 붙어 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와, 다른 사도들이 이끌었던 교회들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던 마가의 자리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각 교회에 그 창설자가 가졌던 영예의 등급이 돌아가는 것이 영원한 규칙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101. 하기야 그들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자리 잡았다고 전하는 것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에우세비우스에게 있는, 베드로가 거기서 25년 동안 다스렸다는 말은 손쉽게 반박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뒤 약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다음 안디옥에 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안디옥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7년이라고 세고, 에우세비우스는 25년이라고 셉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때부터, 베드로가 그 치하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하는 네로의 통치 끝까지는 3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티베리우스 치하, 그의 통치 18년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산 20년을 빼면, 많아야 17년이 남는데, 이것을 이제 두 감독직 사이에 나누어야 합니다. 그가 안디옥에 오래 머물렀다면, 로마에는 아주 짧은 동안밖에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분명하게도 증명할 수 있습

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그가 로마에 오기 네 해 전에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아직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데, 베드로가 그 교회를 다스렸다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끝에서 그가 문안하라고 하는 경건한 이들의 긴 명단을 늘어놓을 때, 곧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을 모을 때에도 그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습니다. 판단이 건전한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길거나 교묘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 자체와 편지의 내용 전체가,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그를 지나쳐서는 안 되었다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102. 그다음 바울은 묶인 채 로마로 끌려옵니다. 누가는 그가 형제들의 영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행 28:15–16).[341] 베드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여러 교회에 편지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몇몇 사람의 이름으로 문안까지 덧붙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도 비치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면 바울이 잠잠할 수 있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빌립보서에서 그는 디모데처럼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말하면서,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한다고 탄식합니다(빌 2:20–21).[342] CO 605 또 디모데에게는 더 무거운 탄식을 하는데, 자기가 처음 변명할 때 아무도 거기 함께 있지 않고 모두 자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딤후 4:16).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고 말한다면,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버리고 달아난 자라는 얼마나 큰 수치의 낙인을 찍는 것입니까? 바울은 신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341. 원문에는 "행 28:16"으로 되어 있으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은 이야기는 15절에 있으므로 28:15–16으로 적었습니다.
342. 원문에는 "빌 2:20"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한다"는 말은 21절에 있으므로 2:20–21로 적었습니다.

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시기를” 하고 덧붙이니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얼마 동안, 어느 때에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그들은 저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다스렸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저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그의 후계자였는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리누스를, 어떤 이들은 클레멘스를 후계자로 삼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베드로와 마술사 시몬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습니다. 요컨대 그 시대의 일들은 의견이 갈려 너무도 뒤엉켜 있어서, 무엇이 기록된 것을 읽을 때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자들의 이런 일치 때문에, 저는 베드로가 거기서 죽었다는 것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독이었다는 것, 특히 오랫동안 감독이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저는 이것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사도직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속하고, 자기 사도직은 우리에게 속한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갈 2:7–8).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맺은 그 동반 관계가 우리에게서 유효하려면, 아니 성령의 정하심이 우리에게서 굳게 지켜지려면, 우리는 베드로의 사도직보다 바울의 사도직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사이에 맡을 지역을 나누셔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위권을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데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103. 이제 옛 교회로 가 봅시다. 우리 반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내세울 때 못지않게, 옛 교회의 찬동을 내세울 때에도 경솔하고 거짓되게 뽐낸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 위에 모든 지체가 순종하는 하나의 최고 머리가 있지 않으면 교회의 일치가 유지될 수 없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다음에는 계승의 권리로 로마 교구에 수위권을 주셔서 그것이 끝까지 거기 머물게 하셨다는 그 공리를 자랑하

면서, 이것이 처음부터 늘 지켜져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증언을 그릇되게 비틀므로, 저는 먼저 이것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옛사람들이 어디서나 로마 교회에 큰 영예를 돌리고 그 교회에 대해 공경하며 말한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주로 세 가지 까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어떻게인지는 모르나 널리 퍼졌던 의견, 곧 그 교회가 베드로의 사역으로 세워지고 자리 잡았다는 의견이 호감과 권위를 얻는 데 아주 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그 교회가 영예로 "사도의 교구"라 불렸습니다. 둘째로, 거기에 제국의 수도가 있었고, 그런 까닭에 학식과 지혜와 경험과 많은 일의 숙련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 있으리라 믿을 만했으므로, 마땅히 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도시의 고귀함과 하나님의 다른 훨씬 뛰어난 선물들이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셋째 까닭이 더해졌습니다. 동방과 그리스의 교회들, 또 아프리카의 교회들도 의견의 많은 다툼으로 서로 소란스러웠을 때,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차분하고 덜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감독들이 자기 교구에서 쫓겨나면 피난처나 항구에 들어가듯 자주 그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서방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기질이 덜 날카롭고 덜 재빠른 만큼, 새로운 것도 덜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그 의심스러운 시대에 다른 교회들처럼 어지럽지 않았고, 한 번 전해진 교리를 다른 모든 교회보다 더 굳게 붙들었다는 것이, 그 교회에 아주 큰 권위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더 잘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 가지 까닭으로 로마 교회는 예사롭지 않은 영예를 받았고, 옛사람들의 많은 빛나는 증언으로 칭찬받았습니다.

104. 그러나 우리 반대자들이 거기서 수위권과, 다른 교회들 위에 서는 최고 권세를 로마 교회에 세우려 할 때,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아주 그릇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분명해지도록, 먼저 그들이 그토록 내세

우는 이 일치에 대해 옛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짧게 보이겠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네포티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치의 예를 많이 늘어놓은 뒤, 마침내 교회의 위계제로 내려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교회들의 감독도 저마다 하나이고, 수석 장로도 저마다 하나이며, 수석 집사도 저마다 하나이니, 교회의 모든 반열은 자기를 이끄는 이들에게 기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로마의 장로입니다. 그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일치를 권합니다. 왜 그는 모든 교회가 한 머리를 끈으로 삼아 서로 묶여 있다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루는 문제에 이보다 더 쓸모 있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잊어버려서 지나쳤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정이 그것을 허락했다면 그는 그보다 더 기꺼이 한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키프리아누스가 다음 말로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참된 일치의 원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독직은 하나이며, 각 감독이 그 한 부분을 온전한 전체로서(in solidum) 지닙니다. 교회도 하나이며, 풍성하게 불어나 무리를 이루며 더 넓게 뻗어 갑니다. 해의 빛살은 많으나 빛은 하나이고, 나무의 가지는 많으나 굳게 박힌 뿌리에 기초한 줄기는 하나이며, 한 샘에서 많은 시내가 흘러나와 넘치는 풍성함으로 그 수가 퍼져 나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근원에서는 하나가 온전히 지켜지는 것과 같이, 교회도 주님의 빛을 받아 온 세상에 그 빛살을 뻗치지만, 어디나 퍼지는 것은 하나이고, 몸의 일치는 나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가지를 온 세상에 뻗치고, 넘쳐흐르는 시내를 넉넉히 내지만, 머리는 하나이고 근원도 하나입니다” 등등. 그다음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그는 한 집만 알며, 한 침실의 거룩함을 정결한 부끄러움으로 지킵니다.” 그가 교회 전체를 자기 아래 품는 감독직을 그리스도 한 분의 보편적인 감독직으로 삼고, 이 머리 아래에서 감독직을 수행하는 모든 이가 그 감독직의 부분들을 온전한 전체로서 지닌다고 말하는 것을 보십니까? 감독직이 그리스도 한 분께 온전히 있고, 각 감독이 그 한 부분을 온전한 전

체로서 지닌다면, 로마 교구의 수위권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지나가는 길에 독자가 이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로마 사람들이 인정된 것,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 공리, 위계제 안에 땅의 한 머리가 있어 일치를 이룬다는 공리는 옛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O 607 105. 로마 교구 수위권의 오래됨으로 말하면, 그것을 세우는 데 니케아 교회회의의 그 교령보다 더 오래된 것은 없습니다. 그 교령은 총대주교들 가운데 첫 자리를 로마 감독에게 돌리고, 그에게 도시 근교의 교회들을 돌보라고 명합니다. 거기서 공의회는 그와 다른 이들 사이에 관구를 나누어 저마다 경계를 정해 주는데, 분명 그를 모두의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으뜸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로 삼은 것입니다. 거기에 그때 로마 교회를 다스리던 율리우스의 이름으로 비투스와 빈켄티우스가 참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넷째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묻겠습니다. 율리우스가 교회의 머리로 인정되었다면, 그의 사절들이 넷째 자리로 밀려났겠습니까? 위계질서의 모습이 무엇보다 드러나야 할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주재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회의에서는 그때 로마 교황이던 켈레스티누스가 자기 교구의 품위를 지키려고 에두른 꾀를 썼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면서, 어차피 주재하게 되어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에게 자기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이름이 첫 자리에 붙어 있게 하려는 것 말고 이 위임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그의 사절들은 낮은 자리에 앉고, 다른 이들 가운데서 의견을 질문받으며, 자기 차례에 서명합니다. 그러는 동안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는 자기 이름에 그의 이름을 섞어 넣습니다. 둘째 에베소 공의회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거기서는 레오의 사절들이 참석했는데도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디오스코루스가 마치 자기 권리인 양 주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통 공의회가 아니었다고 맞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거룩한 사람 플라비아누스가 정죄되었고, 에우티케스가 무죄로 풀려나 그의 불경건이 승인되었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교회회의가 소집되고 감독들이 서로 자리를 나눌 때, 분명 로마 교회의 사절들은 다른 이들 가운데서 거룩하고 합법적인 공의회에서와 다름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첫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줍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권리라고 믿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감독들은 자기 영예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다툼이라도 벌이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 이유 하나로 여러 번 많은 해로운 싸움을 일으켜 교회를 괴롭히고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오는 자기 사절들에게 첫 자리를 얻어 주려 한다면 너무 뻔뻔한 요구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만두었습니다.

106. 그 뒤에 칼케돈 공의회가 이어졌는데, 거기서는 황제의 허락으로 로마 교회의 사절들이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레오 자신이 이것이 예외적인 특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것을 황제 마르키아누스와 황후 풀케리아에게 청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에베소 공의회를 주재한 동방 사람들이 그때 모든 것을 어지럽히고 자기 권세를 악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그러므로 무게 있는 의장이 필요했고, 한 번 그토록 경솔하고 소란스러웠던 자들이 이 일에 알맞으리라 믿기 어려웠으므로, 그는 다른 이들의 잘못과 서투름 때문에 다스리는 직무를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청합니다. 특별한 특권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질서를 벗어나 청하는 것은 분명 공통의 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앞선 자들이 잘못 처신했으므로 새로운 다른 의장이 필요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전에도 행해진 적이 없고 영원히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눈앞의 위험을 보고 행해진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칼케돈 공의회에서 로마 교황이 첫 자리를 가진 것은, 그것이 그 교구에 마땅히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재해야 마땅했던 자들이 자기들의 무절제와 방종으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밀려났으므로 교회회의에 무게 있고 알맞은 의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오의 후계자가

제가 말하는 것을 실제로 입증했습니다. 그는 오랜 뒤에 열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다섯째 교회회의에 자기 사절들을 보내면서 첫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메나스가 주재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참석한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도, 로마 교구의 사절들이 아니라 그곳의 대주교 아우렐리우스가 주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다툼은 바로 로마 교황의 권위를 두고 벌어진 것이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탈리아 안에서도 로마 감독이 참석하지 않은 보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황제 곁에서 남다른 권위를 누리던 암브로시우스가 주재했습니다. 거기서는 로마 교황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암브로시우스의 품위 때문에 밀라노 교구가 로마 교구보다 더 이름이 높았습니다.

107. 수위권이라는 칭호 자체와, 지금 로마 교구가 놀랍게도 자랑하는 다른 교만의 칭호들로 말하면, 그것들이 언제 어떻게 슬며시 들어왔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코르넬리우스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는 그를 형제나 동료 감독이나 동료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르넬리우스의 후계자인 스테파누스에게 편지할 때는, 그를 자기와 다른 이들과 대등하게 여길 뿐 아니라, 어떤 때는 교만을, 어떤 때는 무지를 탓하며 더 혹독하게 꾸짖기까지 합니다. 키프리아누스 뒤에는 아프리카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카르타고 공의회는 아무도 사제들의 우두머리나 첫째 감독이라고 불리지 말고, 다만 첫째 교구의 감독이라고만 불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더 오래된 기록을 펼쳐 보면, 그때 로마 감독은 형제라는 공통된 호칭으로 만족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 교회의 참되고 순수한 모습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로마 교구가 그 뒤 그것으로 거들먹거리기 시작한 이 모든 교만의 이름이 전혀 들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최고 교황이 무엇인지, 땅 위의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마 감독이 감히 그런 것을 자기에게 취하려 했다면, 곧바로 그의 어리석음을 누를 분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로마의 장로였으므로, 일과 시대의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자기 교회의 품위를 높이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교회까지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권위를 찾는다면, 세상이 도시보다 큽니다. 왜 내게 한 도시의 관습을 내미십니까? 왜 거만이 생겨난 소수를 교회의 법으로 주장하십니까? 감독은 로마에 있든, 에우구비움에 있든,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든, 레기움에 있든, 같은 공적을 지니며 같은 사제직을 가집니다. 재물의 힘과 가난의 낮음이 감독을 더 높게도 더 낮게도 만들지 않습니다."[343]

343. 이 인용문의 끝부분("에우구비움에 있든" 이하)은 다음 편 원문 첫머리에 이어집니다. 문장을 끝맺으려고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6

CO 1:609–62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609 [344]

108. 보편 감독이라는 칭호를 두고서는 그레고리우스 때에 와서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계기를 준 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요한네스의 야심이었습니다.[345] 그는 (다른 누구도 일찍이 시도한 적이 없는 일인데) 자기를 보편 감독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다툼에서 그레고리우스는 자기에게 마땅히 속한 권리를 빼앗긴다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칭호가 속되고, 아니 신성 모독이며, 아니 적그리스도를 앞서 알리는 것이라고 힘차게 외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이라고 불리는 자가 넘어지면, 온 교회가 제자리에서 무너진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이들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형제이자 동료 감독인 이가 홀로 감독이라고 불리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교만에서 적그리스도의 때가 이미 가까웠다는 것 말고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는 천사들의 무리를 업신여기고 홀로 높은 꼭대기에 오르려 한 자를 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에울로기우스와 안티오키아의 아나스타시우스에게 이렇게 씁니다. “내 앞선 이들 가운데 누구도 이 속된 낱말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대주교가 보편적이라고 불리면, 다른 이들에게서 총대주교라는 이름이

344.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345.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요한네스 4세(재임 582–595)를 가리킵니다. 그가 “보편(세계) 총대주교”라는 칭호를 쓰자 로마 감독 그레고리우스 1세(재임 590–604)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깎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는, 누구든 자기 형제들의 영예를 조금이라도 깎는 것을 스스로 차지하려 하는 일이 멀리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악한 낱말에 동의하는 것은 믿음을 잃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고, 교만을 꺾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담대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보편 사제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불리기를 바라는 자는, 그 교만으로 적그리스도를 앞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교만하여 자기를 다른 이들 위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알렉산드리아의 아나스타시우스에게 이렇게 씁니다. "그가 첫 배교자가 만들어 낸 미신적이고 교만한 낱말의 교만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와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예가 입은 손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한 감독이 보편적이라고 불리면, 그 보편적인 자가 넘어질 때 온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영예가 칼케돈 공의회에서 레오에게 주어졌다고 쓴 것은 참일 성싶은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 공의회의 기록에서는 그런 것을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레오 자신이 여러 편지에서 그곳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좌의 영예를 위해 내린 결정을 공격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가 물리쳤다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모든 논거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이 논거를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점에서 영예를 지나치게 탐낸 사람이었으니, 자기를 칭찬하는 데 쓸모 있는 것을 기꺼이 빠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레고리우스는 그 칭호가 칼케돈 공의회에서 로마 좌에 주어졌다고 여긴 점에서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의회에서 나왔다고 증언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사악하고, 속되고, 가증하고, 교만하고, 신성 모독적이라고, 아니 마귀가 지어내고 적그리스도의 전령이 퍼뜨린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스꽝스럽다는 점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앞선 이가 그것을 물리쳤다고 덧붙입니다. "어떤 것이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어

질 때, 모든 사제가 마땅한 영예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런 낱말을 탐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무모한 이름을 스스로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사제직의 지위에서 홀로라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여, 모든 형제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109. 이제 저는 관할권으로 넘어갑니다. 로마 교황은 자기가 모든 교회 위에 이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전에 이에 관해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저는 압니다. 로마 좌가 다른 교회들 위에 지배권을 탐내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로마 좌가 그때 어떤 방식으로 차츰 어느 정도의 세력으로 떠올랐는지 살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직, 얼마 전에야 그것이 스스로 차지한 이 끝없는 지배권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로 미루어 두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것이 예전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높여 다른 교회들 위에 얼마간의 권리를 스스로 쥐게 되었는지 몇 마디로 가리켜 보이는 것이 보람 있는 일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들들인 콘스탄티우스 황제와 콘스탄스 황제 때에 동방 교회들이 아리우스파의 당파들로 갈라지고 어지러워졌고, 그곳에서 정통 신앙의 으뜸가는 수호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자기 좌에서 쫓겨났을 때, 이런 재앙 때문에 그는 로마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좌의 권위로 한편으로는 자기 원수들의 광포를 어떻게든 누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당하는 경건한 이들을 굳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감독 율리우스에게 영예롭게 영접받았고, 서방 사람들이 그의 사정을 변호하는 일을 맡도록 얻어 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이들은 바깥의 도움이 크게 필요했고, 로마 교회에 자기들을 위한 가장 좋은 도움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 교회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권위를 기꺼이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교회와의 교제를 크게 여기고, 그 교회에게서 출교당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10. 그 뒤에 악하고 못된 자들도 거기에 많은 것을 더했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피하려고 이 피난처로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가 자기 감독에게, 어떤 감독이 자기 관구의 교회 회의에서 정죄를 받으면, 곧바로 로마에 상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독들은 이런 상소를 마땅한 것보다 더 탐내어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멀리 그리고 널리 일에 끼어드는 것이 비상한 권세의 모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우티케스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플라비아누스에게 정죄를 받았을 때, 그는 레오에게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346] 레오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악한 사정의 변호를 무모하면서도 어리석게 맡았습니다. 그는 플라비아누스를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마치 그가 CO 611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야심 때문에 에우티케스파의 불경건이 한동안 세력을 굳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불한당이 정규 재판에서 지면, 곧바로 로마로 날아가 자기 사람들을 많은 중상으로 짓눌렀고, 로마 좌는 늘 끼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못된 짓 때문에 아프리카 감독들은 누구도 바다 건너로 상소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출교한다고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1. 그러나 그것이 어떠했든, 그때 로마 좌가 어떤 권리나 권세를 지녔는지 살펴봅시다. 교회의 권세는 이 네 가지 항목에 담겨 있습니다. 감독의 임직, 공의회 소집, 상소를 듣는 일 곧 관할권, 그리고 징계하는 권고 곧 견책입니다. 옛 교회 회의들은 모두 감독들이 자기 관구장 감독에게서 임직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로마 감독이 자기 총대주교 관할구 안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불려 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츰 이탈리

346. 에우티케스(Eutyches, 378경–454경)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 하나만 있다고 가르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수도원장이며, 448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플라비아누스가 주재한 회의에서 정죄되었습니다.

아의 모든 감독이 축성을 청하러 로마에 오는 관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관구장 감독들은 빼야 합니다. 그들은 이런 종살이로 끌려 내려가는 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관구장 감독을 임직해야 할 때에는 로마 감독이 자기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을 그곳에 보냈는데,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할 뿐 주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의 예가 그레고리우스에게 남아 있습니다. 라우렌티우스가 죽은 뒤 밀라노의 콘스탄티우스를 축성할 때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아주 오래된 제도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영예와 호의를 위해 임직의 증인이 될 사절을 서로 오가며 보내어 교제를 증언했는데, 자발적이던 이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든 예전에 로마 감독에게는 자기 총대주교 관할구의 관구, 곧 니케아 공의회의 교회법이 말하는 대로 “로마 근교 교회들” 안이 아니면 임직하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임직에는 교회 회의 서신을 보내는 일이 딸려 있었는데, 그 일에서 그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도 높지 않았습니다. 총대주교들은 축성을 받은 뒤 곧바로 엄숙한 글로 자기 신앙을 확증하곤 했습니다. 그 글에서 그들은 거룩하고 정통적인 공의회들에 서명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해명하고 나서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로마 감독이 다른 이들에게서 이 고백을 받기만 하고 자기는 내놓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그가 더 높다고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이들에게서 요구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도 내놓아야 했고, 공통의 법에 매여 있어야 했으므로, 이것은 분명 지배의 표가 아니라 동료됨의 표였습니다. 이 일의 예는 그레고리우스가 아나스타시우스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키리아쿠스에게 보낸 편지에, 그리고 다른 곳에서 모든 총대주교에게 한꺼번에 보낸 편지에 있습니다.

112. 다음은 권고, 곧 견책입니다. 예전에 로마 감독들은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썼고,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서 이것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빅토르가 하찮은 일로 해로운 분열을 일으켜 무모하게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그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347] 빅토르는 따랐고, 맞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룩한 감독들에게는 형제의 권리로 로마의 감독들에게도, 그들이 잘못할 때면 권고하고 꾸짖는 자유가 흔히 있었습니다. 로마 감독도 그와 마찬가지로, 일이 요구할 때면 다른 이들에게 그 직무를 일깨웠고, 무슨 잘못이 있으면 책망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가 스테파누스에게 갈리아의 감독들을 권고하라고 권할 때, 그는 더 큰 권세에서 논거를 끌어오지 않고 사제들이 서로 가진 공통의 권리에서 끌어옵니다. 묻겠습니다. 그때 스테파누스가 갈리아를 다스렸다면, 키프리아누스는 "그들은 당신의 사람들이니 그들을 억누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서로 묶어 주는 형제의 교제가 우리에게 서로 권고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점에서는 온유한 성품을 지닌 이 사람이 스테파누스가 지나치게 오만해진다고 여겼을 때 얼마나 신랄한 말로 그를 몰아세우는지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도 로마 감독이 자기 관구에 속하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어떤 관할권을 지녔다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113. 교회 회의를 소집하는 일로 말하면, 정해진 때에 관구 회의를 모으는 것은 각 관구장 감독의 직무였습니다. 그 일에 로마 감독은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보편 공의회를 알리는 일은 황제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들 가운데 누가 이것을 시도했다면, 자기 관구 밖에 있는 이들은 그 부름에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곧바로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참석하라고 알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율리우스가 동방 감독들이 자기를 안티오키아 회의에 부르지 않았다고 따졌다고 전합니다. 로마 교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엇이든 결정하는 것은 교회법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348] 그러나 이것을 온 교회를 묶는

347. 이레나이우스(Irenaeus, 130경–202경)는 리옹의 감독입니다. 로마 감독 빅토르 1세(재임 189경–199경)가 부활절 날짜 문제로 소아시아 교회들을 출교하려 하자 이를 나무랐습니다.
348. 소크라테스(Socrates Scholasticus, 380경–450 이후)는 『교회사』를 쓴 콘스탄티노폴리

결정들에 관한 것으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게다가 도시의 오랜 역사와 크기, 그리고 그 좌의 위엄을 생각하여, 로마 감독이 참석을 마다하지 않는 한 그가 없는 가운데 경건(religion)에 관한 보편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에게 허락되었다 해도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 교회를 지배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으뜸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로마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곧 그가 모든 이 위에 지배권을 가졌다는 것은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114. 넷째 종류의 권세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상소에 있습니다. 상소가 올라가는 법정을 가진 자에게 최고 지배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주 로마 교황에게 상소했습니다. 그 자신도 사건의 심리를 자기에게 끌어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자기 경계를 넘을 때마다 늘 조롱을 받았습니다. 동방이나 그리스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갈리아의 감독들은 그가 자기들 위에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였을 때 힘차게 맞섰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일을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참석한 밀레비스 공의회에서 바다 건너로 상소하는 자들을 출교했을 때, 로마 교황은 CO 613 그 결정이 고쳐지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사절들을 보내어 이 특권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이게 했습니다. 사절들은 자기 교회 서고에서 꺼내 온 니케아 공의회의 기록을 내놓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맞섰고, 로마 감독에게는 자기 일에서 믿음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덜 의심스러운 사본이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와 그리스의 다른 도시들로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사람들이 내세운 그런 것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에게서 최고 심리권을 빼앗은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

스의 역사가입니다.

에서 로마 교황 자신의 수치스러운 뻔뻔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속임수로 사르디카 회의를 니케아 공의회 대신에 끼워 넣었다가, 명백한 거짓에서 부끄럽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349] 그러나 공의회에 보내는 가짜 편지를 지어낸 자들의 악함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뻔뻔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카르타고의 어떤 감독이, 사도좌에 대한 순종에서 감히 벗어나려 했다고 자기 앞선 이 아우렐리우스의 오만을 정죄하고, 자기와 자기 교회를 내어 맡기며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이것이 로마 좌의 위엄이 그 위에 세워진 훌륭한 옛 기념물들입니다. 이들은 옛것이라는 핑계 아래 눈먼 이들도 더듬어 알아챌 만큼 어린아이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마귀적인 대담함과 고집으로 부풀어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에게 반역했다. 그러므로 저주로 정죄되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습니까? 밀레비스 공의회에 참석한 그 많은 교부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로마 사람들 자신도 얼굴에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큰 수치 없이는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어리석은 글을 많은 말로 반박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라티아누스도 그렇게 합니다. 악의에서인지 무지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결정을 전하면서, 바다 건너로 상소한 자들은 교제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데에 "혹 로마 좌에 상소하지 않았다면"이라는 예외를 덧붙입니다.[350] 이 짐승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법이 바로 그것 때문에 세워졌다는 것을 누구나 보는 바로 그 하나를 법에서 뺄 만큼 상식이 없습니다. 공의회가 바다 건너로 하는 상소를 정죄할 때, 그것이 금지하는 것은 누구도 로마에 상소하지 말라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훌륭한 해석자는 로마를 공통의 법에서 빼 줍니다.

115. 그러나 이 문제를 한 번에 끝내기 위해 말하면, 예전에 로마 감독의

349. 사르디카(오늘날 불가리아의 소피아) 회의(343경)의 교회법은 로마 감독에게 상소를 듣는 권한을 주었는데, 로마는 이를 니케아 공의회의 교회법으로 내세웠습니다.

350. 그라티아누스(Gratianus, 12세기)는 교회법 모음집『교령집』(Decretum)을 엮은 볼로냐의 수도사입니다.

관할권이 어떠했는지는 한 가지 역사가 분명히 보여 줍니다. 카사이 니그라이의 도나투스가 카르타고의 감독 카이킬리아누스를 고발했습니다.[351] 피고는 변론도 하지 못한 채 정죄되었습니다. 그는 감독들이 자기를 거슬러 공모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출석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이르렀습니다. 황제는 그 사건을 교회의 재판으로 끝내고자 하여, 그 심리를 로마 감독 밀티아데스에게 맡기고, 이탈리아와 갈리아와 히스파니아에서 몇몇 감독을 동료로 붙여 주었습니다. 교회 사건의 상소를 듣는 것이 로마 좌의 정규 관할권에서 나오는 일이었다면, 어찌하여 그는 황제의 뜻에 따라 다른 이들이 자기 곁에 붙는 것을 참았겠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그는 자기 직무에서보다 오히려 황제의 명령으로 재판을 맡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들어 봅시다. 거기서 카이킬리아누스가 이기고, 카사이 니그라이의 도나투스는 중상하는 고소로 패소합니다. 그는 상소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상소심을 아를의 감독에게 맡깁니다. 그 재판관은 로마 교황이 판결한 뒤에 자기가 옳다고 본 것을 선고하려고 앉습니다. 로마 좌가 상소할 수 없는 최고 권세를 가졌다면, 어찌하여 밀티아데스는 아를의 감독이 자기보다 앞세워지는 그토록 큰 모욕을 자기에게 가해지도록 참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황제가 이 일을 했습니까? 바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들은 그가 자기들 좌의 위엄을 넓히려고 자기의 온 열심뿐 아니라 제국의 거의 모든 재물까지 바쳤다고 자랑하는 그 황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로마 교황이 그 최고 지배권에서 얼마나 온갖 면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이제 봅니다. 그는 그 지배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교회 위에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고, 모든 세기에 걸쳐 온 세상의 동의로 그것을 차지해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116. 교황들이 무엇이든 자기들에게 쑤셔 넣고 자신만만하게 자기 것이

351. 카이킬리아누스(Caecilianus)는 311년경 카르타고 감독이 되었는데, 그의 임직을 문제 삼은 무리가 도나투스파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카사이 니그라이(Casae Nigrae)의 도나투스”는 누미디아의 감독으로 이 분열의 초기 지도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편지와 회답과 칙령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재주와 학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도 압니다. 그것들 대부분은 너무나 맛이 없어서, 첫맛에 그것이 어느 공방에서 나왔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하고 맑은 사람 가운데 누가, 그라티아누스에게 아나클레투스의 이름으로 실려 있는 저 훌륭한 해석, 곧 게바가 머리라는 해석이 아나클레투스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352] 그라티아누스가 분별없이 꿰어 맞춘 이런 종류의 수많은 허튼소리를, 오늘날 로마 사람들은 자기 좌를 변호하려고 우리를 거슬러 함부로 씁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둠 속에서 무지한 이들을 속였던 그런 연기를, 이토록 밝은 빛 가운데서 아직도 팔아먹으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나치게 어리석어서 스스로 공공연히 자기를 반박하는 것들을 반박하는 데 많은 수고를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옛 교황들의 참된 편지들도 남아 있어서, 그들이 거기서 자기 좌의 크기를 화려한 찬사로 자랑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레오의 편지 몇 통이 그러합니다. 그 사람은 학식 있고 말솜씨가 뛰어난 만큼, 영광과 지배를 지나치게 탐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자기를 높일 때 교회가 그때 그의 증언을 믿었느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물어야 할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의 야심에 마음이 상하여 그의 탐욕에도 맞섰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와 그 이웃 지역들에서 자기 대리 직무를 테살로니키 감독에게 맡기고, 다른 곳에서는 갈리아 지역에서 아를의 감독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그는 히스팔리스의 감독 호르미스다스를 히스파니아 지역의 자기 대리자로 세웠습니다.[353] 그러나 그는 어디서나 이런 위임을 하는 것은 관구장 감독들의 옛 특권이 온전하고 손상 없이 남는다는 조건 아래서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그런데

352. 아나클레투스(Anacletus)는 1세기 말 로마 감독으로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라티아누스에 실린 그의 이름의 글은 9세기에 만들어진 위조 교령집(위-이시도루스 교령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글은 아람어 "게바"(베드로)를 그리스어 "머리"(κεφαλή)와 이어 풀었습니다.

353.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역사에서 히스팔리스(세비야)의 감독을 히스파니아의 대리자로 세운 이는 레오가 아니라 뒷날의 로마 감독 호르미스다스(Hormisdas, 재임 514–523)입니다.

레오 자신이, 어떤 일에 의심이 생기면 먼저 관구장 감독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이 특권들 가운데 하나라고 밝힙니다. CO 615 그러므로 이 대리 직무는, 어떤 감독이 자기 정규 관할권에서, 또는 관구장 감독이 상소를 심리하는 일에서, 또는 관구 회의가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방해받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관할권을 삼가고, 다만 교회의 교제의 법과 본성이 허락하는 만큼만 불화를 가라앉히려고 끼어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117. 그레고리우스 때에는 그 옛 방식이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국이 흔들리고 찢겨, 갈리아와 히스파니아는 거듭 당한 많은 패배로 시달렸고, 일리리쿰은 황폐해졌으며, 이탈리아는 괴롭힘을 당했고, 아프리카는 끊임없는 재앙으로 거의 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일이 이토록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적어도 믿음의 온전함은 남아 있도록, 또는 적어도 아주 사라지지는 않도록, 사방의 모든 감독이 로마 교황에게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좌의 위엄뿐 아니라 세력까지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저는 그다지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세력이 앞선 세기들보다 더 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한 사람이 제 마음대로 다른 이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고삐 풀린 지배였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로마 좌는 다만, 자기 동료들이 직무 안에 붙들어 둘 수 없는 못되고 고집 센 자들을 자기 권위로 누르고 꺾을 만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이것을 거듭 정성 들여 증언합니다. 곧 자기도 다른 이들에게서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신실하게 지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야심에 찔려 누구에게서도 그에게 속한 권리를 깎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내 형제들을 영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글 가운데, 자기 수위권의 크기를 이보다 더 교만하게 자랑하는 말은 없습니다.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에, 사도좌에 매이지 않는 감독이 누구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덧붙입니다. “잘못이 요구하지 않는 때에는, 겸손의 이치에 따라 모두가 같습니다.” 그는 잘못한 이들을 바로잡을 권리를 자기에게 돌립니다. 모두가 자기 직무를 다하면, 자기를 다른 이들과 같게 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그 자신이 자기에게 돌린 것입니다. 원하는 이들은 동의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이들은 벌받지 않고 맞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거기서 말하는 이는 비자케나의 수석 감독인데, 그는 관구 회의에서 정죄를 받고도 그 판결 전체를 물리쳤습니다.[354] 그의 동료들이 이 사람의 고집을 황제에게 알렸습니다. 황제는 그레고리우스가 심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정규 관할권을 해칠 만한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하는 바로 그 일도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118. 그러므로 그때 로마 감독의 권세는 모두 이러했습니다. 어떤 비상한 처방이 필요할 때 고집 세고 길들지 않은 자들에게 맞서는 것이었고, 그것도 다른 감독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에서 모든 이에게 자기에 대하여 허락하는 것보다 조금도 더 많은 것을 다른 이들에 대하여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서 바로잡히고 모든 이에게서 고쳐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른 곳에서 아퀼레이아의 감독에게, 그와 다른 이들 사이에 일어난 신앙 논쟁에서 변론하러 로마에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자기 권세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또 자기 혼자 재판관이 되겠다고 알리지 않고, 교회 회의를 모아 그 회의가 일 전체를 판결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아직, 로마 좌의 권세가 넘어서는 안 되는 자기의 정해진 경계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 감독 자신도 다른 이들 아래 있는 것만큼만 다른 이들 위에 있을

354. 원문의 “bysanceno”는 북아프리카 속주 비자케나(Byzacena)를 가리키는 말로 읽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비잔티움)가 아닙니다.

만큼 절제가 있었지만,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상태를 얼마나 싫어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거듭 하소연합니다. 감독직이라는 핑계 아래 자기가 세상으로 끌려 돌아왔고, 평신도로 살 때 일찍이 섬긴 것보다 더 땅의 염려에 얽혀 있으며, 그 영예 가운데서 세상일의 소란에 짓눌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무거운 일의 짐이 나를 짓눌러 마음이 조금도 위의 것으로 들리지 못합니다. 나는 사건들의 많은 물결에 흔들리고, 저 고요한 쉼 뒤에 소란한 삶의 폭풍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바다에 이르렀고 폭풍이 나를 삼켰다' 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355] 그가 이 시대에 떨어졌다면 무엇이라고 말했을지 여기서 헤아려 보십시오. 그는 목자의 직무를 다 채우지는 못했어도 그 직무를 행하기는 했습니다. 국가의 통치에서는 손을 뗐고, 다른 이들과 함께 자기도 황제 아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필요에 몰리지 않으면 다른 교회들을 돌보는 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감독의 직무에 오롯이 몸을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미궁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여깁니다.

119. 앞에서 말했듯이, 그때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은 로마 감독과 수위권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자리 잡은 뒤, 제국의 위엄은 그 교회도 로마 교회 다음가는 영예의 자리를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 처음에 로마에 수위권을 돌리게 한 데에는, 그때 그곳이 제국의 머리였다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라티아누스에게 루키우스 교황의 이름으로 된 회답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관구장 감독과 수석 감독이 주재해야 할 도시들은 전에 있던 국가 통치의 방식에 따라서 말고는 달리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356] 클레멘스 교황의 이름으로 된 비슷한 다른 글도 있는데, 거

355. CO 편집자 각주의 남은 조각에는 「제1권 편지 5」, 「안티오키아의 아나스타시우스에게, 제1권 편지 7과 25」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깊은 바다에 이르렀고 폭풍이 나를 삼켰다"는 시 69:2(라틴어 성경 68:3)의 말씀입니다.
356. CO 편집자 각주에 따르면 그라티아누스『교령집』제80구분(Distinctio 80)입니다.

기서 그는 예전에 으뜸 제관(flamines)을 두었던 도시들에 총대주교들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헛된 것이기는 하지만, 참된 것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변화가 가장 적게 일어나도록 그때 있던 사정에 따라 관구들이 나뉘었고, 수석 감독과 관구장 감독은 영예와 권세에서 다른 도시들보다 앞서는 도시들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리노 공의회에서는 각 관구에서 국가 통치상 첫째가는 도시들이 감독들의 첫째 좌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CO 617 그리고 국가 통치의 영예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 가게 되면, 관구장 감독 도시의 권리도 함께 그리로 옮겨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 인노켄티우스는,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진 뒤로 자기 도시의 옛 위엄이 낡아 가는 것을 보고, 자기 좌를 두려워하여 반대되는 법을 정했습니다. 그 법에서 그는 제국의 수도가 바뀌는 대로 교회의 관구장 감독 도시가 바뀔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교회 회의의 권위가 한 사람의 생각보다 앞세워져야 합니다. 게다가 인노켄티우스 자신은 자기 일에서 우리에게 의심받아야 합니다. 어떻든 그는 자기의 조심으로, 처음부터 제국의 바깥 질서를 따라 관구장 감독 도시들이 배치되도록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120. 이 옛 제도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제1차 회의에서는 그 도시의 감독이 새 로마이므로 로마 교황 다음가는 영예의 특권을 가져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뒤에 칼케돈에서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레오는 거세게 맞서 외쳤습니다. 그는 육백 명 또는 그 이상의 감독이 결정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을 스스로 허락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에 감히 준 그 영예를 다른 좌들에게서 깎아 냈다고 무거운 욕설로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묻겠습니다. 순전한 야심 말고 무엇이 이 사람을 그토록 하찮은 일로 온 세상을 어지럽히게 부추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니케아 공의회가 한 번 정한 것은 깨뜨릴 수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한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앞세워지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위태로워지기라도 하는 듯이, 또는 그곳에서 총대주교 관할구들이 질서를 위해서 말고 다른 목적으로 구별되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서가 때의 달라짐에 따라 여러 변화를 받아들이고, 아니 요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니케아 공의회의 권위로 알렉산드리아 좌에 주어진 영예를 콘스탄티노폴리스 좌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레오가 내세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상식이 말해 주듯, 그런 결정은 때의 형편에 따라 없앨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일에 가장 관계가 깊은 동방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 디오스코루스 대신 세운 프로테리우스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 영예가 깎이는 다른 총대주교들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레오가 아니라 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레오는 자기 자리에 온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잠잠할 때, 아니 동의할 때, 로마 사람 하나만 맞서니, 무엇이 그를 움직였는지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곧 그는 얼마 뒤에 일어난 일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옛 로마의 영광이 줄어들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둘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와 수위권을 두고 다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쳤어도 공의회의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계자들은 자기들이 꺾인 것을 보고 그 고집을 조용히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이 둘째 총대주교로 여겨지는 것을 참았습니다.

121. 그러나 얼마 뒤, 그레고리우스 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를 다스린 요한네스가 자기를 보편 총대주교라고 부를 만큼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레고리우스는 지극히 선한 일에서 자기 좌를 변호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꿋꿋이 맞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독직의 경계를 제국의 경계와 같게 하려 한 요한네스의 교만과 광기는 분명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레고리우스는 다른 이에게 거절한 것을 자기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누가 쓰든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가증한 것으로 몹시 싫어합니다. 아니, 그는 어떤 곳에서 그런 칭호로 자기를 높인 알렉산드리아 감독 에울로기우스에게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것을 금한 나 자신에게 보낸 편지의 머리말에서, 여러분은 나를 보편 교황이라고 부르며 교만한 칭호의 낱말을 써 넣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청하는 것은, 여러분의 거룩함이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치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다른 이에게 주어지면, 그만큼 여러분에게서 덜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형제들의 영예가 깎이는 것을 보는 것을 영예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영예는 보편 교회의 영예이며, 내 형제들의 굳건한 활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거룩함이 나를 보편 교황이라고 부른다면, 나를 보편적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의 일은 참으로 선하고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티아누스 황제의 호의에 힘입은 요한네스는 자기 뜻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357] 그의 후계자 키리아쿠스도 이 일에서 결코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122. 마침내 마르티아누스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포카스가,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더 우호적이어서, 보니파키우스 3세에게 그레고리우스가 조금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 곧 로마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쟁이 결판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다른 일들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황제의 이 은전은 로마 좌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와 온 아시아가 얼마 뒤 로마와의 교제에서 끊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갈리아는 로마를 존경하기는 했지만, 마음 내키는 만큼만 따랐습니다. 갈리아가 처음으로 종살이로 끌려 내려간 것은 피핀이 왕국을 차지했을 때입니다. 로마 교황 자카리아스가, 정당한 왕을 쫓아내고 왕국을 마치 버려진 노획물처럼 낚아채는 그 배신과

357.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이때의 황제는 마우리키우스(Mauricius, 재위 582–602)이며, 아래에서 포카스가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황제도 그입니다.

강도질을 도왔으므로, 그 삯으로 로마 좌가 갈리아 교회들 위에 관할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강도들이 함께 빼앗은 노획물을 나누어 갖는 것처럼, 이 선량한 사람들도 서로 짜고서, 피핀에게는 왕을 털어 낸 땅의 국가 지배를 넘기고, 자카리아스는 모든 감독의 머리가 되어 영적 권세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권세는 처음에 약했지만(새로운 일에서 흔히 그렇듯이), 그 뒤 카롤루스의 권위로 굳어졌습니다. 거의 비슷한 까닭에서였습니다. 그도 로마 교황의 힘으로 황제의 영예에 이르렀으므로 로마 교황에게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미 양쪽 교회가 크게 일그러져 있었다고 믿을 만하지만, 교회의 옛 모습이 갈리아와 게르마니아에서 아주 지워진 것은 그때에 와서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CO 619 지금도 파리 고등법원의 기록 보관소에는 그 시대의 짧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교회 일을 다룰 때는 피핀과 카롤루스가 로마 교황과 맺은 계약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그때 옛 상태가 바뀌었다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123. 그때부터 일이 날마다 곳곳에서 더 나빠지는 가운데, 로마 좌의 폭정도 거듭 굳어지고 커졌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감독들의 무지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차지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끝없이 자기를 점점 더 높여 갈 때, 감독들은 그의 방자함을 막는 데 마땅히 가져야 할 열심으로 힘쓰지 않았습니다. 또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해도, 그들은 참된 교리와 학식을 잃어버려 그런 큰일을 시도하기에는 전혀 알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르나르두스 시대에 로마에서 모든 거룩한 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더럽혀지고, 교회의 질서 전체가 얼마나 흩어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는 하소연합니다. 야심 있는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성직 매매자들, 신성 모독자들, 첩을 둔 자들, 근친상간하는 자들, 그리고 이와 같은 온갖 괴물들이 사도의 권위로 교회의 영예를 얻거나 지키려고 온 세상에서 로마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농간과 폭력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쓰이던 재판 방식이 저주스러우며, 교회에뿐 아니라 세속 법정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가 야심 있는 자들로 가득하고, 강도들이 동굴에서 나그네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나눌 때보다 더 악행 저지르기를 몸서리치는 자가 없다고 외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수여자의 입을 바라보는 이는 적고, 모두 손을 바라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교황의 모든 일을 그 손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그대에게 '잘한다, 잘한다' 하는 자들을 사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가난한 이들의 생명이 부자들의 거리에 뿌려집니다. 은이 진흙 속에서 반짝이니 사방에서 달려듭니다. 그것을 집어 가는 것은 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더 힘센 자이거나, 어쩌다 더 빨리 앞서 달려간 자입니다. 그러나 이 관습, 아니 이 죽음은 그대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대에게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그대 목자는 많고 값진 장식에 둘러싸여 나아갑니다. 감히 말하자면, 이것은 양들의 꼴밭이라기보다 귀신들의 꼴밭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고, 바울이 이렇게 놀았다는 말입니까? 그대의 궁정은 선한 이들을 만들기보다 받아들이는 데 익숙합니다. 악한 이들은 거기서 나아지지 않고, 선한 이들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어서 말하는 상소의 남용은, 경건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큰 몸서리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는 관할권을 빼앗는 일에서 로마 좌의 그 고삐 풀린 탐욕에 관해 이렇게 결론짓습니다.[358] "나는 교회들의 수군거림과 공통의 하소연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리고 사지가 찢긴다고 부르짖습니다. 이 상처를 아파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무슨 상처냐고 묻습니까? 수도원장들이 감독들에게서, 감독들이 대감독들에게서 떼어져 나가는 것 등입니다. 이것을 변명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여러분은 권세의 충만함을 가졌다는

358. CO 편집자 각주의 남은 조각에는 「에우게니우스에게」, 「제4권 2장 끝 무렵」, 「제3권」이 적혀 있습니다. 베르나르두스가 교황 에우게니우스 3세에게 써 보낸 『숙고에 관하여』(De consideratione)를 가리킵니다.

것은 증명하지만, 의의 충만함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하는지는 물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의 영예와 지위를 지켜 주라고 세워진 것이지, 그것을 시기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것 가운데 이 몇 가지를 옮겨 오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때 교회가 얼마나 심하게 무너져 있었는지 독자들이 보게 하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재앙이 모든 경건한 이들을 얼마나 큰 슬픔과 탄식 속에 붙들어 두었는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124. 이제 오늘날 로마 교황에게, 중간 시대 곧 레오와 그레고리우스 때에 이 좌가 가졌던 그 높은 지위와 관할권의 크기를 인정해 준다고 합시다. 그것이 지금의 교황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땅의 지배나 국가 권세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제자리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영적 통치 자체가 그 시대의 형편과 무슨 닮은 데가 있습니까? 그들은 교황을 땅 위에서 교회의 최고 머리이며 온 세상의 보편 감독이라고 말고는 달리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황들 자신은 자기 권위에 관해 말할 때, 대단히 거만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명령하는 권세는 자기들에게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순종해야 할 필요가 남아 있다. 자기들의 모든 규정은 베드로의 거룩한 목소리로 확정된 것처럼 여겨져야 한다. 관구 회의들은 교황의 임석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자기들은 어느 교회에서든 성직자를 임직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임직된 이들을 자기 좌로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것이 그라티아누스의 잡동사니 속에 셀 수 없이 많지만, 독자들을 너무 성가시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교회 사건의 최고 심리권은 로마 교황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판별하고 정하는 일이든, 법을 만드는 일이든, 권징을 세우는 일이든, 재판을 행하는 일이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유보에서 자기들에게 돌리는 특권들도

늘어놓자면 길고 쓸데없을 것입니다.[359] 그런데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엄청난 권세를 남용할 경우 그들의 방자함을 억누르고 고삐를 잡을 재판을 땅 위에 하나도 남겨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의 수위권 때문에, 누구도 이 좌의 판결을 다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은 황제에게도, 왕들에게도, 온 성직자에게도, 백성에게도 재판받지 않는다." 한 사람이 자기를 모든 이의 재판관으로 세우고 자기는 누구의 판결에도 따르기를 견디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지나치게 오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폭정을 휘두른다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흩고 황폐하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온 교회를 뒤흔든다면 어떻습니까? 목자의 직무를 강도질로 바꾼다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는 가장 사악한 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해명할 책임에 매인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교황들의 말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사건은 사람들을 통해 끝내기를 원하셨지만, 이 좌의 수장은 물음 없이 당신 자신의 판단에 남겨 두셨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사람들의 행위는 우리가 판단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하신다."

CO 621 125. 그리고 이런 칙령들이 더 무게를 갖도록, 그들은 마치 일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지기라도 한 듯이 옛 교황들의 이름을 거짓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나 옛 공의회들이 로마 교황에게 주었다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많이 그에게 돌리는 것은 무엇이든 새것이고 최근에 지어낸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아니, 그들은 뻔뻔함이 지나쳐,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아나스타시우스의 이름으로 된 회답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아무리 먼 관구에서라도 먼저 로마 좌에 알리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옛 규칙들로 정해졌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헛되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은 제쳐 두더라도,

359. "유보"(reservatio)는 어떤 죄의 사면이나 성직 임명권을 교황이 자기에게 남겨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로마 좌에 대한 이런 찬사가 그 적수이며 영예와 위엄을 두고 다투는 경쟁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들은, 눈을 뜨려고만 하면 건전한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자기들의 악함이 훤히 보일 만큼, 그런 정신 나감과 눈멂에까지 이르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 9세가 모은 교령 서한들, 또 클레멘스 법령집과 마르티누스의 엑스트라바간테스는, 더 드러내 놓고 더 부푼 볼로 끔찍한 잔인함과, 이를테면 야만인 왕들의 폭정을 곳곳에서 내뿜습니다.[360] 그런데 이것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황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는 신탁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교황제 안에서 곳곳에 신탁의 힘을 가진 저 훌륭한 공리들이 나왔습니다. 교황은 잘못할 수 없다. 교황은 공의회들보다 위에 있다. 교황은 모든 교회의 보편 감독이며 땅 위에서 교회의 최고 머리다. 어리석은 교회법학자들이 자기 학교에서 떠벌리는 훨씬 더 터무니없는 허튼소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신학자들은 그것에 동의할 뿐 아니라 손뼉까지 치며 자기들의 우상에게 아첨합니다.

126. 저는 그들을 가장 엄격한 법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오만에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맞세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주재한 회의에 모인 감독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감독들의 감독이라고 부르거나, 폭군 같은 위협으로 동료들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는 얼마 뒤 카르타고에서 결정된 것, 곧 누구도 사제들의 우두머리나 첫째 감독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이댔을 것입니다. 그는 역사에서 많은 증언을, 교회 회의들에서 교회법을, 옛사람들의 책에서 많은 문장을 모아, 로마 교황을 제자리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너무 엄밀하게 몰아붙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좌의 가장 훌륭한 변호인들은 제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레고리우스가

360. 모두 중세 교회법 모음집입니다. 『그레고리우스 9세 교령집』(1234), 『클레멘스 법령집』(1317), 『엑스트라바간테스』(앞선 모음집 밖의 교황 교령들)를 가리킵니다.

그토록 자주 저주로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무슨 낯으로 보편 감독이라는 칭호를 감히 변호합니까? 그레고리우스의 증언이 효력을 가져야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교황을 보편적이라고 만드는 바로 그것으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머리라는 이름도 그때는 조금도 더 흔히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어떤 곳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몸에서 으뜸가는 지체이고,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 개별 회중들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모두 한 머리 아래 있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아니, 율법 이전의 성도들, 율법 아래의 성도들, 은혜 안의 성도들,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이가 지체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일찍이 자기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명령하는 권세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은, 그레고리우스가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맞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 에울로기우스가 그에게서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하건대 이 명령이라는 낱말을 내 귀에서 치워 주십시오. 나는 내가 누구이며 여러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자리로는 내 형제이고, 품행으로는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명령한 것이 아니라 유익해 보이는 것을 알리려 했을 뿐입니다.” 교황이 자기 관할권을 이처럼 끝없이 넓히는 것은, 다른 감독들에게뿐 아니라 각 교회에도 무겁고 끔찍한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는 교회들을 그렇게 찢고 쥐어뜯어 그 폐허 위에 자기 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모든 재판에서 빼내고, 폭군의 방식으로 다스리려 하여 자기 한 사람의 방자함을 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분명 어떤 식으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당하고 교회의 이치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경건의 감각뿐 아니라 사람다움의 감각과도 아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127. 그러나 하나하나 따라가며 털어 보지 않아도 되도록, 저는 오늘날 로마 좌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변호인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교황제를 변호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레고리우스와 베르나르두스의 시대보다 백배나 더 썩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것은 그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토록 들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곳곳에서 하소연합니다. 자기가 남의 일들 때문에 지나치게 흩어지고, 감독직이라는 핑계 아래 세상으로 끌려 돌아와서, 평신도로 살 때 일찍이 섬겼다고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은 땅의 염려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일의 소란에 짓눌려 마음이 조금도 위의 것으로 들리지 못하고, 사건들의 많은 물결에 흔들리며, 소란한 삶의 폭풍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바다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그런 땅의 일들 가운데서도 설교로 백성을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바로잡아야 할 이들을 바로잡고, 교회에 질서를 세우고, 동료들에게 조언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다하라고 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글을 쓸 시간도 얼마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장 깊은 바다에 잠겼다고 자기 재앙을 슬퍼합니다. 그 시대의 행정이 바다였다면, 지금의 교황제에 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둘 사이에 무슨 닮은 데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설교도 없고, 권징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들에 대한 열심도 없고, 영적인 직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미궁은 마치 이보다 더 질서 있고 잘 정돈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듯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면 베르나르두스는 어떤 하소연을 쏟아 냅니까? 자기 시대의 악덕을 볼 때 어떤 탄식을 내뱉습니까? 그가 우리의 이 철의 시대, 아니 철보다 더 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시대를 들여다보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못된 짓입니까? 모든 성도가 한입으로 늘 물리쳤던 것을 거룩하고 신적인 것처럼 고집스럽게 지킬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교황제를 변호하려고 그들의 증언까지 함부로 쓰다니 말입니다.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7

CO 1:623–63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623 [361]

베르나르두스의 시대에 관해서는, 그때 모든 일이 우리 시대와 그다지 다르지 않을 만큼 썩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간 시대, 곧 레오와 그레고리우스와 그 비슷한 이들의 시대에서 어떤 핑계를 찾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아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가 황제들의 군주정을 세우려고 로마 제국의 옛 상태를 칭찬하는 것, 곧 폭정을 꾸미려고 자유를 칭송하는 말을 빌려 오는 것과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128.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로마에 이런 은택이 머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런 위엄의 특권을 지닐 감독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모든 것이 참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서 비틀어 빼앗은 것들이지만 말입니다. 곧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 교회의 머리로 세워졌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예를 로마 좌에 맡겨 두었다. 이것이 옛 교회의 권위로 정해졌고, 오랜 관습으로 굳어졌다. 로마 교황에게 늘 모든 이가 한마음으로 최고 권세를 돌렸다. 그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의 재판관이었고, 누구의 판결에도 매이지 않았다. 그들이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로마에 교회와 감독이 있지 않으면 이 가운데 아무것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게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361.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없습니다. 스스로 교회가 아닌 것은 교회들의 어머니일 수 없고, 스스로 감독이 아닌 자는 감독들의 우두머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사도좌를 두고 싶습니까? 그러면 참되고 정당한 사도직을 제게 보여 주십시오. 그들은 최고 대사제(summus pontifex)를 두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독을 제게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 주겠습니까?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르기는 하고 줄곧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분명 교회는 자기의 확실한 표지로 알려지고, 감독이라는 이름은 직무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저는 백성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늘 있어야 하는 통치 자체에 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도가 요구하는 그런 사역이 그곳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와 감독의 직무에 관해 앞에서 말한 것을 기억합시다. 추기경들의 직무를 그 규범에 대어 보면, 그들은 장로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 자신에게 감독다운 것이 대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감독의 직무에서 첫째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이며 이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권고하고 권면하며, 죄짓는 자들을 바로잡기도 하고, 백성을 거룩한 권징 안에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아니, 그는 이 가운데 무엇을 하는 척이라도 합니까? 그러니 직무의 어느 부분에도, 겉모양으로라도 새끼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 자를 무슨 이유로 감독으로 여기기를 원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129. 감독은 왕과 사정이 다릅니다. 왕은 왕에게 고유한 일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영예와 칭호를 그대로 지닙니다. 그러나 감독을 판별할 때에는 교회에서 늘 효력이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봅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은 제게 이 매듭을 풀어 보십시오. 저는 그들의 교황이 감독이 아니므로 감독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앞의 논점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 뒤의 논점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감독에게 고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반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 하나님, 여기서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교리에서입니까, 품행에서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잠잠히 넘기겠습니까? 어디서 멈추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토록 많은 비뚤어지고 불경건한 교리로 가득 차 있고, 그토록 많은 종류의 미신으로 가득하며, 그토록 많은 오류로 눈멀어 그토록 큰 우상 숭배에 잠겨 있지만, 이 가운데 그곳에서 흘러나오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곳에서 굳어지지 않은 것은 어디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교황들이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교리를 거슬러 그토록 광포하게 날뛰고, 그것을 짓누르려고 온 힘을 쏟으며, 모든 왕과 제후를 잔인함으로 부추기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를 잡자마자 자기들의 나라 전체가 무너져 쓰러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레오는 잔인했고, 클레멘스는 피에 굶주렸으며, 파울루스는 사납습니다.[362] 그러나 그들을 진리를 공격하도록 몰아간 것은 본성이라기보다, 이것이 그들에게 자기 세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쫓아내지 않고서는 무사할 수 없으므로, 이 일에서 마치 제단과 화덕을 위해, 그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 싸우는 것과 다름없이 애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끔찍한 배교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 사도좌이겠습니까? 미친 듯한 시도로 복음을 박해하여 자기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세운 것은 무엇이든 허물어뜨리려고 칼과 불로 날뛰는 자가 베드로의 후계자이겠습니까? 유일하고 참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를 잘라 내고, 그 자체 안에서도 동강 낸 다음 그것을 찢고 쥐어뜯는 자가 교회의 머리이겠습니까? 예전에 로마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였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곳이 적그리스도의 좌가 되기 시작한 뒤로, 그곳은 예전의 그것이기를 그쳤습니다.

362. 로마 교황 레오 10세(재임 1513–1521), 클레멘스 7세(재임 1523–1534), 파울루스 3세(재임 1534–1549)를 가리킵니다.

130. 우리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지나치게 험담하고 방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자기들이 바울을 무례하다고 고발하는 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말하고, 아니 그의 입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가 다른 데 해당하는 바울의 말을 그릇되게 비틀어 로마 교황에게 갖다 붙인다고 반박하지 못하도록, 그 말이 교황제 말고 달리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간단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리라고 씁니다(살후 2:4). 다른 곳에서도 성령께서는 그의 나라가 큰소리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 있으리라고 증언하십니다(단 7:25; 계 3:10; 13:5).[363]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몸보다 영혼에 대한 폭정이며,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를 거슬러 일어서는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도 교회의 이름도 없애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핑계를 함부로 쓰며 교회라는 칭호 아래 마치 가면 뒤에 숨듯 숨는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타난 모든 이단과 분파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기는 하지만, 바울은 장차 올 배교를 예언하면서, 이 묘사로 보편적인 어떤 배교가 교회를 사로잡을 때 저 가증한 자리가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립니다. 비록 교회의 많은 지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참된 믿음의 하나됨 안에 남아 있더라도 말입니다. CO 625 또 그가 불법의 일이 자기 시대에 이미 비밀 가운데 꾸며지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리라고 덧붙일 때, 우리는 이 재앙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도 않고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으리라는 표지로 그를 가리키므로, 이것이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찾을 때 따라야 할 으뜸가는 증거입니다. 특히 그런 교만이 교회를 공공연히

363. 원문에는 “2Thess. 2,”, “Dan. 1, 25. Apoc. 3, 10 et 13, 5” 로 되어 있습니다. 살후 2장은 문맥대로 4절을 적었고, 단 1장에는 25절이 없으므로 단 7:25로 바로잡았습니다. [원문의심] 계 3:10은 이 내용과 맞지 않지만 원문대로 두었습니다.

흩어 놓는 데까지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이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가장 고유했던 것을 뻔뻔하게 자기에게로 옮겨 간 것이 분명하니, 그가 불경건하고 가증한 나라의 우두머리이며 기수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131. 이제 로마 사람들은 우리에게 옛것을 내세워 보라고 하십시오. 모든 것이 이토록 뒤바뀐 가운데, 아무 자리도 없는 곳에서 자리의 영예가 서 있을 수 있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에우세비우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응이 이루어질 자리가 마련되도록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펠라로 옮기셨다고 전합니다.[364] 한 번 일어났다고 우리가 듣는 일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위권의 영예를 어떤 장소에 묶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가장 사나운 원수요, 복음의 최고 대적이며, 교회를 가장 크게 황폐하게 하고 흩어 놓는 자요, 모든 성도를 가장 잔인하게 도살하고 처형하는 자를, 다만 그가 예전에 모든 것 가운데 첫째였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베드로의 후계자요, 교회의 첫째 수장으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습니다. 교황의 상서원과 잘 정돈된 교회 질서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의심을 가장 잘 없앨 수 있지만 말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감독직을 납과 교서 안에 가두지 않을 것이고, 하물며 온갖 덫과 속임수를 가르치는 저 학교 안에는 더더욱 가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의 영적 통치란 바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365]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랑거리인 저 로마 교회는 오래전에 궁정으로 바뀌었고, 지금 로마에서 보이는 것은 그 궁정뿐이라고 말한 것은 멋진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람들의

364. 에우세비우스(Eusebius, 260경–339경)는 카이사레아의 감독이며 『교회사』의 저자입니다. 펠라(Pella)는 요단강 동쪽의 도시로, 유대 전쟁(66–70)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로 피했다고 전해집니다.

365. 교황 교서(bulla)에는 납으로 된 인장이 달렸습니다.

악덕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제 자체가 교회의 이치와 정반대로 싸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132. 그런데 사람들에게로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을 만나게 될지는 넉넉히 알려져 있습니다. 율리우스와 레오와 클레멘스와 파울루스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둥이요 경건(religion)의 으뜸 해석자이겠습니까?[366] 그들은 루키아노스의 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는 그리스도에 관해 아무것도 붙들지 않았습니다.[367] 그런데 왜 서너 명의 교황을 헤아립니까? 마치 교황들이 추기경단 전체와 함께 오래전부터 어떤 종류의 경건을 고백해 왔고 오늘날도 고백하는지가 의심스럽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그들 사이를 다스리는 저 은밀한 신학의 첫째 조항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되고 가르쳐지는 모든 것이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장차 올 삶과 마지막 부활에 관한 교리가 순전한 꾸며 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이는 적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황들의 정해진 경건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로마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도, 로마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특권으로 교황이 잘못할 수 없도록 보장되어 있다고 자랑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눅 22:32)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뻔뻔하게 놀려 대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못됨의 끝에 이르렀다는 것을 온 세상이 깨닫게 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133. 그러나 제가 말한 교황들의 불경건이 숨겨져 있다고 해 봅시다. 그

366. 교황 율리우스 2세(재임 1503–1513)와 앞에서 말한 레오 10세, 클레멘스 7세, 파울루스 3세를 가리킵니다.

367. 루키아노스(Lucianus, 120경–180 이후)는 신들과 종교를 비웃은 그리스의 풍자 작가입니다.

들이 그것을 설교로도 글로도 퍼뜨리지 않고, 다만 식탁과 침실에서, 또는 적어도 담장 안에서만 드러냈다고 해 봅시다. 그래도 그들이 내세우는 특권이 효력 있기를 바란다면, 그들은 요한네스 22세를 교황의 수에서 지워야 합니다.[368] 그는 영혼이 죽는 것이며 몸과 함께 부활의 날까지 멸망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좌가 그 으뜸가는 기둥들과 함께 아주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도록 말하자면, 추기경들 가운데 누구도 이 엄청난 광기에 맞서지 않았고, 오히려 파리 대학이 프랑스 왕을 움직여 그 사람이 자기 말을 거두어들이도록 강제하게 했습니다. 왕은 그가 곧 뉘우치지 않으면 자기 백성에게 그와의 교제를 금지하겠다고 했고, 관례대로 전령을 시켜 이것을 공포했습니다. 이 압박에 몰려 그는 자기 오류를 맹세하여 버렸습니다. 이 예가 있으니, 로마 좌와 그 교황들이 믿음에서 넘어질 수 없다는 그들의 말을 두고 제가 대적들과 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말 말입니다. 분명 그는 그토록 추한 종류의 넘어짐으로 바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감독직에서 베드로를 잇는 이들이 모두 베드로는 아니라는 것을 뒷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뚜렷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 자체로 대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치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 베드로의 후계자들에게 끌어 붙이려 한다면, 그들이 모두 사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마 16:23)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앞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이대는 것만큼이나 쉽게, 우리는 이 뒤의 말씀을 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34. 그러나 어리석은 말로 겨루는 것은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벗어났던 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를 어떤 장소에 묶어,

368. 요한네스 22세(Ioannes XXII, 재임 1316–1334)는 아비뇽에 머문 로마 교황입니다.

그곳을 주재하는 자는 누구든, 설령 그가 마귀라 하더라도, 그곳이 예전에 베드로의 좌였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은, 불경건하고 그리스도께 모욕이 될 뿐 아니라 너무나 터무니없고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로마 교황들은 오래전부터 경건이 아주 없거나, 아니면 경건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CO 627 그러므로 그들이 그 좌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것은,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놓였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품행을 따져 본다면, 교황들 자신이 자기들을 위해 대답해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감독을 알아볼 만한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로마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그들이 눈감아 주고 잠잠할 뿐 아니라 이를테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인정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감독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백성의 방종을 엄한 권징으로 억누르는 것이 감독들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의 잘못으로 그들을 짓누를 만큼 그들에게 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이 자기 집안사람들과 함께, 추기경단 거의 전체와 함께, 자기 성직자 무리 전체와 함께, 온갖 악함과 음란과 더러움에, 온갖 종류의 범죄와 악행에 내맡겨져 있어서 사람이라기보다 괴물 같다는 것, 바로 그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감독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들의 추함을 더 드러낼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토록 구린 진창 속을 뒤지는 것도 내키지 않고, 정숙한 귀도 아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보이고자 한 것을 넉넉히, 아니 넘치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곧 로마가 예전에 교회들의 머리였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발가락 가운데 가장 작은 것 축에 들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135. 이른바 추기경들에 관해서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갑자기 그토록 높은 지위로 떠올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 때에 이 칭호는 감독들에게만 해당했습니다. 그가 추기경을 언급할 때마다, 그들을 로마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느 교회에든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추기경 사제란 감독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선 세기의 저술가들에게서 저는 이 이름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들이 감독보다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지금은 그들이 감독들을 훨씬 앞섭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관례가 굳혀 놓은 영예의 이름을 따르면 감독직이 장로직보다 높지만, 많은 일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히에로니무스보다 못합니다." 여기서 그는 분명 로마 교회의 장로를 다른 장로들과 조금도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똑같이 감독들 뒤에 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로마 좌의 사절 두 사람이 참석했는데 하나는 감독이고 하나는 장로였을 때, 장로가 맨 끝자리로 밀려날 만큼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일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말하면, 그레고리우스 때 로마에서 열린 회의가 남아 있는데, 거기서 장로들은 맨 끝자리에 앉고 따로 서명하며, 집사들은 서명에서 아무 자리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때 그들에게는, 교리와 성례를 집행할 때 감독 곁에 있으면서 감독 아래 있는 것 말고는 아무 직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너무 바뀌어서 그들이 왕들과 황제들의 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와 함께 차츰 자라나 마침내 이 높은 위엄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136. 이것도 몇 마디로 지나가며 건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로마 좌가, 그것이 그 이름을 핑계 삼아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저 옛 좌와 얼마나 크게 다른지 독자들이 더 잘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전에 어떠했든, 교회에서 참되고 정당한 직무를 하나도 갖지 않고 다만 겉칠과 헛된 가면만 지니고 있으니, 아니 모든 것이 아주 정반대이니, 그레고리우스가 그토록 자주 쓰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울며 말하고, 탄식하며 알립니다. 사제의 반열이 안에서 무너졌으므로, 밖에서도 오래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말라기가 그런 자들에 관해 말한 것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치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헛되게 하였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 멸시받고 천하게 하였다”(말 2:8–9). 이제 로마 위계의 저 최고 꼭대기가 어떠한지는 모든 경건한 이들의 생각에 맡깁니다. 교황주의자들은 하늘과 땅에서,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존귀하고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악한 뻔뻔함으로 그 꼭대기 아래에 두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137. 이제 셋째 논제, 곧 교회의 권세가 이어집니다. 이 권세는 한편으로는 각 감독에게서, 한편으로는 공의회들, 곧 관구 회의나 총회에서 보입니다. 저는 교회에 고유한 영적 권세에 관해서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리에, 또는 관할권에, 또는 법을 만드는 일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사람의 전통에 관한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여기에 해당할 것을 그곳에서 찾으십시오. 교리에 관한 논제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를 전하는 권위와 그 교리를 풀이하는 일입니다. 하나하나를 따로 논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경건한 독자들에게 이것을 일러두고자 합니다. 교회의 권세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바울의 증언대로 그 권세가 주어진 목적, 곧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관련지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고후 10:8; 13:10). 그 권세를 정당하게 쓰는 이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의 사역자라고 여길 뿐 그 이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사역자들 자신이 그리스도께 그분의 권위를 지켜 드리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그분이 아버지께 받으신 것, 곧 그분이 교회의 유일한 선생이시라는 것이 그분께 남겨지지 않고서는 온전히 지켜질 수 없습니다(고전 4:1).[369]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그분에 관해서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라고

369. [원문의심] 원문에는 “1 Cor. 4, 1”로 되어 있으나 이 문장의 내용과 잘 맞지 않습니다. 원문대로 두었습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는 인색하게 꾸며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정해진 경계 안에 가두어 사람들의 방자함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 권세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차지하고 싶어 하는 권세를 그냥 허락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멀리 있어야 할 폭정으로 떨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두에게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CO 629 138. 그러므로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든, 선지자들에게든, 사도들에게든,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든 돌리시는 권위와 위엄은 무엇이든, 그 모두가 본래 사람들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들이 맡은 사역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 더 간단히 말하면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말씀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가 아니면 가르치거나 대답하는 어떤 권위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무로 부름받을 때, 동시에 자기에게서 아무것도 내놓지 말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먼저 명령하시기 전에는, 백성에게 들려지도록 그들을 앞에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말씀 밖의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으뜸인 모세 자신도 다른 이들보다 앞서 들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주님의 명령으로 가르침을 받아,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일컬어집니다(출 14:31). 제사장들의 권위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가장 무거운 형벌로 보장되었습니다(신 17:12).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법에 따라 들어야 하는지 보여 주십니다. 당신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진리의 율법이 그의 입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말 2:4, 6). 그리고 조금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할 것이다.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기 원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보여야 합니다. 곧 주님께 받은 명령을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일을 다룰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신 17:10).

139. 선지자들의 권세가 대체로 어떠했는지는 에스겔서에 멋지게 묘사되어 있습니다(겔 3:1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말씀을 듣고, 나에게서 받아 그들에게 알려라.” 주님의 입에서 들으라는 명령을 받는 자가, 자기에게서 무엇이든 지어내는 것을 금지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아 알린다는 것은, 자기가 가져온 것이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 담대히 자랑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도 다른 말로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참된 말을 말하라”(렘 23:28). 분명 그분은 그들 모두에게 법을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법은 누구도 명령받은 것보다 더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은 당신 한 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겨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 누구도 주님께서 말씀을 먼저 불러 주시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토록 자주 나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짐”, “주께로부터 온 환상”,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의 입이 말씀하셨다.” 그럴 만도 합니다.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더럽다고 부르짖었고(사 6:5),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렘 1:6). 그들이 자기 말을 했다면, 앞사람의 더러운 입과 뒷사람의

어리석은 입에서 더럽거나 맛없는 것 말고 무엇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입술은 거룩하고 깨끗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는 이 경외심에 매였을 때, 그들은 뛰어난 권세와 탁월한 칭호로 꾸며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그들을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워 뽑고 뿌리째 뽑으며 멸하고 무너뜨리며 세우고 심게 하셨다고 증언하실 때(렘 1:10), 곧바로 그 까닭을 덧붙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0. 이제 사도들을 보면, 그들은 많고 뛰어난 찬사로 칭찬받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고 땅의 소금이며(마 5:13–14),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눅 10:16), 그들이 땅에서 매거나 푸는 것은 무엇이든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풀릴 것이라고 합니다(마 16:19; 요 20:23).[370]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직무에서 얼마만큼이 자기에게 허락되었는지 드러냅니다. 곧 그들이 사도라면, 마음 내키는 것을 무엇이든 지껄이지 말고, 자기를 보내신 분의 명령을 신실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사절 직무의 경계를 정하신 말씀도 아주 분명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 28:19–20). 아니, 그분 자신도 (누구도 그것을 마다하는 것이 옳지 않도록) 이 법을 스스로 받아들이시고 당신 자신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의 것이다" (요 7:16). 늘 아버지의 유일하고 영원한 조언자이셨고 아버지께로부터 만물의 주님이자 선생으로 세워지신 분이, 가르치는 사역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본으로 모든 사역자에게 가르칠 때 따라야 할 규범을 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는 끝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아래 놓여 있고, 이를테면 그 안에

370. 원문에는 마 5:13만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5:14에 있으므로 5:13–14로 적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141.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들이 그분에게서 배우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것이 처음부터 교회에서 효력이 있었고 오늘날도 효력이 있어야 하지만, 때의 달라짐에 따라 그들은 배우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방식은 앞선 방식들과 크게 다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말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마 11:27)이 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자 한 이들은 분명 늘 저 영원한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이 오직 그분께만 열려 있는데, 그분이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으로 깨닫거나 말로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전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들 안에서, 마치 거울 속에서 보듯 바라보지 않고는 달리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아들, 곧 당신의 유일한 지혜와 빛과 진리를 통해서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적이 없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른 이들은 하늘의 교리로 가진 것은 무엇이든 이 샘에서 길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자기들이 내놓은 하늘의 신탁은 무엇이든 같은 샘에서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늘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족장들에게는 은밀한 계시를 쓰셨는데, 동시에 그 계시를 확증하려고 그런 표징들을 더하셔서,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조금도 의심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족장들은 받은 것을 손에서 손으로 후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퍼뜨리라는 조건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맡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손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에서 불러 주셨으므로, 자기들이 듣는 것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142.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의 더 빛나는 모습을 일으키기를 기뻐하셨을

때, 당신의 말씀이 글로 맡겨지고 봉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서 백성에게 전할 것을 찾고, 전해지는 모든 교리를 그 규범에 대어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공포된 뒤 제사장들에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대로 가르치라고 명령할 때(말 2:7), 그 뜻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 두신 그 교리와 낯설거나 동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율법에 더해질 새로운 신탁을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율법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율법을 바라보지 않을 만큼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리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의 해석자일 뿐이었고, 장래 일에 관한 예언 말고는 율법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빼면 그들은 율법의 순수한 풀이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약한 양심들을 더 잘 만족시키시려고 더 빛나고 더 풍성한 교리가 있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예언들도 글로 맡겨 당신 말씀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역사서들이 함께 더해졌습니다. 이것들도 선지자들이 애써 지은 것이지만, 성령께서 불러 주셔서 지어진 것입니다. 저는 시편을 예언서에 넣어 셉니다. 우리가 예언서에 돌리는 것이 시편에도 공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과 역사서로 짜인 그 몸 전체가 옛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규범에 자기 교리를 대어 보아야 했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는 것이 그들에게 옳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무 전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대로 백성에게 대답한다는 이 경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3.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사람의 정신이 하나님에 관해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온 입으로 우리에게 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의 태양이신 그리

스도께서 빛을 비추신 뒤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한 광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빛이 어스름했던 데 비하면, 한낮의 밝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가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고 썼을 때(히 1:1–2), 그는 분명 무슨 흔한 것을 전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전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거듭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고, 예언에 예언을, 계시에 계시를 더하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가르침의 모든 부분을 아들 안에서 다 이루셔서, 이것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할 마지막이며 영원한 증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리고, 아니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복음의 선포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신 때부터 심판의 날까지 이 신약의 시대 전체가 “마지막 때”, “말세”,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로 가리켜집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완전함에 만족하여, 그 밖에 새로운 교리를 스스로 지어내지도 말고 다른 이들이 꾸며 낸 것을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특별한 특권으로 우리의 선생으로 세우시고, 사람 가운데 누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마 17:5).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마디로 그분의 가르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그 말에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게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람들의 모든 교리에서 떼어 내어 이분 한 분 앞에 세우시고, 구원의 모든 교리를 이분 한 분에게서 구하고, 이분 한 분에게 매달리고, 이분 한 분에게 붙어 있으며, 마침내 (그 말이 울리는 대로) 이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생명의 말씀 자신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얼굴을 맞대고 풀어 말씀하신 지금,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기대하거나 요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하늘 아버지께서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기를 원하신 그분(골 2:3)이 한 번 말씀하신 뒤에는, 모든 사람의 입이 닫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어느 부분에서도 틈이 없는 지혜)에게도, 메시아(모든 것의 계시를 바라던 메시아, 요 4:25)에게도 어울리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당신 뒤에 다른 이들이 말할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144. 그러므로 이것을 굳은 공리로 삼읍시다. 먼저 율법과 선지서에, 그다음에 사도들의 글에 담긴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교회에 자리를 얻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그 말씀의 지시와 규범을 따르지 않고는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다른 방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사도들에게도 예전에 선지자들이 가졌던 것 말고는 다른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곧 옛 성경을 풀이하고 거기 전해진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되, 이것도 주님께로부터 하지 않고는, 곧 그리스도의 영께서 앞서 이끄시고 이를테면 말씀을 불러 주시지 않고는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 스스로 함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을 때(마 28:20), 이 법으로 그들의 사절 직무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곧 그리스도다” (마 23:8). 그다음에 그분은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 더 깊이 박으시려고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되풀이하셨습니다.[371] 그리고 그들은 선생의 입에서 듣고 배운 것을 자기들의 둔함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으므로, 진리의 영께서 그들에게 약속됩니다. 그분이 그들을 모든 것을 참되게 깨닫는 데로 이끄실 것입니다(요 14:26; 16:13).

145. 그러므로 선생에게서 자기에게 무엇이 허락되는지 가장 잘 배운

371.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마 23:8과 23:10에 같은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교리를 나누어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벧전 4:11). 이것은 사람의 정신이 고안한 모든 것을 (그것이 어떤 머리에서 나왔든) 물리쳐, 신자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워지게 하라는 것, 모든 사람의 (그가 어떤 반열에 속하든) 생각, 아니 차라리 지어낸 것을 없애 오직 하나님의 결정만 확정되어 남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CO 633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 무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들은 이것으로 계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슬러 높아진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고후 10:4–5). 이것이 교회의 목자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지녀야 마땅한 최고 권세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담대히 감행하고, 세상의 모든 힘과 영광과 지혜와 높음이 그분의 위엄에 굽히고 순종하게 하며,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모든 이에게 명령하고,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고 사탄의 집을 뒤엎으며, 양들을 먹이고 이리들을 죽이며, 배우려는 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거역하고 고집 센 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굴복시키며, 매고 풀며, 마지막으로 필요하면 번개를 치고 벼락을 내립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했듯이,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확실하고 권위 있는 필기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신탁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거룩한 성경에 전해지고 봉인된 것을 가르치는 것 말고는 다른 직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교리를 지어내는 일이 남겨져 있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이를 예외 없이 그 아래 두신 교리에 그냥 붙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각 사람에게 무엇이 허락되는지뿐

아니라 온 교회에도 무엇이 허락되는지를 보이려 합니다. 각 사람에 관해서 말하면, 바울은 분명 주님께로부터 고린도 사람들의 사도로 세워졌지만, 자기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고후 1:24). 바울이 자기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증언하는 주관을 이제 누가 감히 자기에게 돌리겠습니까? 그가, 목자가 무엇을 전하든 그것을 확실히 믿어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자유를 알았다면, 같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런 질서를 전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 선지자 두셋이 말하면 다른 이들은 분별하고,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이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고전 14:29–30). 이렇게 그는 누구의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아래 두지 않고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말할 것입니다. “온 교회는 사정이 다르다.” 저는 대답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 의문에도 맞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할 때입니다(롬 10:17). 곧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오직 그 말씀만 바라보며 그 위에 기대어 쉰다면, 이제 온 세상의 말에 무슨 자리가 남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여기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사탄과 지옥의 모든 계략과 온 세상을 거슬러 꺾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설 만한 굳건함에 기대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굳건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보편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교리를 내놓는 능력을 빼앗으시는 것은, 당신 혼자만 영적 교리에서 우리의 선생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실 수도 속이실 수도 없는 분은 당신 혼자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는 각 신자에게 못지않게 온 교회에도 해당합니다.

146.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의 권세를, 벌써 몇 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자기를 자랑해 온 영적 폭군들, 곧 거짓으로 자기를 감독이요 경건의 수장이라고 불러 온 자들의 권세와 견주어 보면, 그리스

도와 벨리알 사이보다 더 나은 일치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들이 어떻게, 얼마나 부당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폭정을 휘둘렀는지 풀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처음에는 글로, 이제는 칼과 불로 지키는 교리를 전하겠습니다. 그들은 보편 공의회가 교회의 참된 형상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므로, 이 원리를 받아들이자마자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공의회들이 성령께 직접 다스림을 받으며 따라서 잘못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이 공의회들을 다스리고, 아니 공의회들을 이루므로, 실제로는 공의회들에 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들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자기들의 판단으로 서고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쪽으로 정하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굳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들이 무엇을 인정하면 우리도 조금도 의심 없이 그것을 인정하고, 무엇을 정죄하면 우리도 그것을 정죄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교리들을 찍어 내고, 그다음에는 이런 이치로 그 교리들을 믿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곧 긍정하는 교리든 부정하는 교리든 자기들의 모든 교리에, 명시적 믿음으로가 아니면 암묵적 믿음(fides implicita)으로라도 확실히 동의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 조항을 만드는 것이 교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47. 먼저 그들이 교회에 주어진 이 권위를 어떤 논거로 확증하는지 들어 봅시다. 그다음에 그들이 교회에 관해 내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훌륭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 곧 교회는 결코 자기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버림받지 않고, 그분의 영께 이끌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흔히 내세우는 약속들 가운데 많은 것은 온 교회에 못지않게 각 신자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요 14:16)고 말씀하실 때 열두 사도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열둘이라는 수에게만이 아니라 그들 각 사람에게도, 아니 다른 제자들, 곧 그분이 이미 받아들이셨거나 나중에 더해질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탁월한 위로로 가득한 이런 약속들을,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다만 온 교회에 한꺼번에 주어진 것처럼 풀이한다면, 그것은 그 약속들에서 그들에게로 돌아왔어야 할 위로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빼앗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은사로 갖추어진 신자들의 모임 전체가 각 사람 따로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하늘 지혜의 보화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신자들에게 공통으로 말해졌다고 해서, 모두가 깨달음과 교리의 영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뜻으로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악한 일을 변호하려고 성경을 낯선 뜻으로 비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쳐 두고, 저는 사실 그대로를 그냥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영은 오류와 무지와 거짓과 어둠의 영이 아니라, 확실한 계시와 지혜와 진리와 빛의 영이십니다. 그들은 이 영께 속지 않고 배워,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곧 자기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압니다(엡 1:18). 그러나 신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은사를 받은 이들이라 하더라도, 이 육신 안에서는 그 영의 첫 열매와 얼마간의 맛만 받으므로, 자기 연약함을 알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무는 것 말고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더 멀리 헤매면 곧바로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 그 영을 다 받지 못한 만큼은 그렇습니다. 오직 그 영께서 가르치셔야 참과 거짓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울과 함께 자기들이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빌 3:12). 그래서 그들은 완전함을 자랑하기

보다 날마다 나아가는 데 힘씁니다.

148. 그러나 그들은 성도 각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돌려지는 것은 무엇이든 교회 자체에는 완전하고 충만하게 해당한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간 참인 듯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이 공동으로 모일 때 온몸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도록 각 지체에게 당신 영의 은사를 분량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요함은 늘, 우리 대적들이 자랑하는 저 최고의 완전함에는 많이 모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어느 부분에서 버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늘 넉넉한 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필요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겸손과 경건한 절제 안에 붙들어 두시려고, 유익한 줄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시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흔히 무엇을 반박하는지 저는 압니다. 곧 교회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물로 씻는 일로 깨끗해져 티나 주름이 없게 되었고(엡 5:26–27),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딤전 3:15). 그러나 앞의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엇을 이루셨는지보다 날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분이 날마다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이 씻으시고, 다듬으시고, 얼룩을 닦아 내신다면, 그들에게 아직 얼마간의 흠과 주름이 묻어 있고 그들의 성화에 모자란 데가 얼마간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얼룩지고 얼마간 더러운 교회를 이미 완전히,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흠 없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꾸며 낸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이지만, 그 거룩하게 하심의 시작만 여기서 보이고, 그 끝과 온전한 완성은 지성소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교회를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채우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의 얼룩과 주름이 지워졌다는 것도 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남은 것을 모두 없애실 때까지 아직 날마다 지워지고

있다는 뜻에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펠라기우스파와 함께 신자들의 의가 이 삶에서 완전하다고 주장하거나, 카타리파와 도나투스파와 함께 교회 안의 어떤 연약함도 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372]

149. 다른 자리는 그들이 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고 감독의 참된 직무로 빚어 갈 때, 그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게 하려고 이렇게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더 큰 경외심과 열심으로 이 일에 힘쓰도록,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 곧 설교의 사역으로 보존된다는 것 말고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가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엡 4:11–14).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목사들과 교사들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온갖 교훈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조명을 받아 믿음의 하나됨에 함께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세상에서 꺼지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은, 진리가 교회를 신실한 파수꾼으로 두고 있어서, 그 수고와 사역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가 선지자와 사도의 사역에 있다면, 그 파수 전체는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그 순수함을 지니는 데 달려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50. 그리고 이 문제가 무엇보다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도는지, 우리 대적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그들에게 맞서는지 독자들이 더 잘 깨닫도록 몇 마디로 풀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는 잘못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말이 겨냥하는 바와 그들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께 다스림을 받으므로 말씀 없이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어디로 가든 참된 것 말고는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나 그 말씀을 넘어서 무엇을 정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신탁과 다름없이 여겨져야 한다. 우리는 첫째 것, 곧 교회가 구원에

372. 카타리파(Cathari, “깨끗한 자들”)는 3세기 노바티아누스를 따라 박해 때 넘어진 이들을 교회에 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엄격주의 분파를 가리킵니다.

필요한 일들에서 잘못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우리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자기의 모든 지혜를 버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가르치시도록 맡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밖에 두고, 우리는 그것이 말씀에 묶여 있기를 원하며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제자인 교회가 자기 신랑이요 남편이신 분께 복종하여 그분의 입에 늘 부지런히 매달리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에 따르는 것이 잘 정돈된 집안의 이치이고, 거기서 선생 한 분의 가르침만 듣는 것이 질서 잡힌 학교의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스스로 아무것도 생각해 내지 말며,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치신 곳에 자기 지혜의 끝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자기 이성이 고안한 모든 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일에서는 어떤 불신이나 머뭇거림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큰 확신과 굳은 한결같음으로 평안히 머물 것입니다. 또 교회는 자기가 가진 약속들의 크기를 의지하여, 자기 믿음을 훌륭하게 붙들 근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바른 길의 인도자이신 성령께서 늘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는지도 기억할 것입니다.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8

CO 1:637–64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637 [373]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요 14:26; 16:13).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당신의 가르침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말고는 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토무스는 참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자랑한다. 그러나 자기 것을 말하는 자들은 거짓으로 성령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셨듯이, 무엇이든 복음 밖의 것이 성령의 이름으로 억지로 들이밀어지면 믿지 말자.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완성이시듯이, 성령은 복음의 완성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잘못 행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낯설고 동떨어진 가르침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추천하려는 목적 말고는 다른 목적으로 성령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과 나눌 수 없는 끈으로 묶여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교회에 성령을 약속하실 때 성령에 관하여 바로 이것을 공언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 당신의 교회에 정해 주신 절제를, 주님께서는 영원히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가

373.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 말씀에서 무엇을 빼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령의 범할 수 없는 작정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교회가 말씀 없이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다고 꾸며 댈 때 이 작정을 폐하려고 애씁니다.

151. 여기서 그들은 다시 투덜거립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글에 몇 가지를 더해야 했거나, 아니면 사도들 자신이 글로 덜 분명하게 전한 것을 나중에 입으로 채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 16:12) 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없이 다만 관습과 풍습으로 받아들여진 규정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뻔뻔한 짓입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직 미숙하고 배우는 데 둔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가르침을 글로 남길 때에도 여전히 이 둔함에 붙잡혀 있어서, 무지의 허물로 자기 글에서 빠뜨린 것을 나중에 입으로 채워야 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이미 진리의 영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자기 글을 펴냈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 교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거기에 담아 봉인하여 남기지 못하게 막았겠습니까? 그러나 좋습니다. 그들이 청하는 것을 들어줍시다. 그들은 글 없이 계시되어야 했던 것들을 지적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감히 그렇게 해 보려 한다면,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 그들을 상대하겠습니다. 곧 "주님께서 잠잠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그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하겠는가? 혹 감히 말한다면,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놓고 다투겠습니까? 이 자들이 어느 정도 불구로 만들고 반쪽으로 만드는 사도들의 글 안에, 주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계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52. 그들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가르치고

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논란 밖에 두지 않으셨는가? 감히 반대하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명하셨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건달들이 이토록 낯이 두꺼워 거기서 사납게 날뛰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결국 얻어 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가 아니면 결코 뜻을 모으지 않는 교회의 합의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부인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더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그 일에서 그들의 편을 전혀 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어떤 새로운 교리를 세우는 것, 곧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보다 더 많이 가르치고 신탁으로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 점을 이토록 힘써 주장한다고 해서, 너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건전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한 번 이만한 권리가 주어지면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는지 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결정한 것을 신탁으로 여겨야 한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불경건한 자들의 조롱과 트집에 얼마나 큰 창이 열리는지도 봅니다.

153. 그들이 쓰는 예들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아 세례가 성경의 분명한 명령에서라기보다 교회의 결정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유아 세례를 변호하려고 교회의 맨 권위로 피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피난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넉넉히 드러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선언한 것, 곧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교부들에게 큰 불의를 행합니다. 마치 교부들이, 선지자와 사도의 글에 담긴 그 교리 전체를 고백한 아리우스를, 자기들의 말에 맹세하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솔하게 정죄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낱말이 성경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토록 여러 번 단언하고, 또 그리스도를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라고 그토록 여러 번 부르는데, 니케아의 교부들이 한 본질이시라고 선언할 때 성경의 본래 뜻을 단순하게 풀어 말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테오도레투스는 콘스탄티누스가 그들의 모임에서 이런 머리말을 썼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한 논쟁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이 규범으로 놓여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들의 책은 선지자들의 신탁과 함께 신적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불화를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에서 물음들의 해답을 취합시다."[374] 그때에는 이 거룩한 권고에 맞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자기 것에서 무엇을 더할 수 있다거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지 않으셨다거나, 적어도 사도들이 그것을 후대에 전하지 않았다거나, 그 비슷한 말을 끼워 넣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바라는 것이 참이라면, 먼저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서 그 권세를 빼앗은 것은 잘못한 일이고, CO 639 다음으로 그때 감독들 가운데 아무도 일어나 그 권세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으니 이 침묵은 배신이 없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교회의 권리를 팔아넘긴 배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오도레투스가 그들이 황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전하므로, 이 새로운 교리가 그때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154. 이제 제가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어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도를 이루는 데 그렇게 해서도 아직 그리 많이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관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곧 공의회로 옮겨 놓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공의회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교회의 권세에 관해 그토록 고집스럽게 다투는 것은,

374. 테오도레투스, 『교회사』 1권 6장(다른 판 7장).

자기들이 억지로 빼앗아 낸 것을 모두 로마 교황과 그 호위 무리에게 넘겨 주려는 계획 말고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풀기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두 가지를 짧게 앞서 말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여기서 좀 엄하게 굴겠지만, 그것은 제가 옛 공의회들을 마땅한 것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모든 사람에게서 그것들이 마땅한 영예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한도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 아무것도 손상이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의회를 주재하시고, 이 존귀함에 어떤 사람도 동료로 두지 않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께서 회의 전체를 당신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실 때에야 비로소 주재하신다고 말합니다. 둘째, 제가 대적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공의회에 덜 돌리는 것은, 공의회들이 마치 그들의 주장에는 편을 들고 우리의 주장에는 반대하기라도 하는 듯이 제가 공의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리를 온전히 입증하고 교황주의 전체를 뒤엎는 데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갖추어져 있어서, 그 밖에 무엇을 크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요구한다면, 옛 공의회들도 두 가지 일에 넉넉한 것을 대부분 우리에게 대어 줍니다.

155. 이제 문제 자체를 말합시다. 성경에서 공의회의 권위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이 말씀보다 더 빛나는 약속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그러나 이 말씀은 보편 공의회 못지않게 어떤 개별 모임에도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물음의 매듭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덧붙은 조건, 곧 그리스도께서는 공의회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야 그 가운데 계시리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이 감독들의 공의회를 천 번 내세운다 해도 그리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을 믿게 하기 전에는, 공의회가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믿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선하고 정직한 감독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불경건하고 악한 감독들도 그리스도를 거슬러 공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의회들에서 나온 수많은 결정이 이 일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약속하지 않으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합시다. 저는 당신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정하는 자들, 성경의 신탁, 곧 완전한 지혜의 유일한 규범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머리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지어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공의회에나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참되고 합법적인 공의회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는 특별한 표지를 붙이셨으므로, 우리는 이 구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옛날 레위 제사장들과 맺으신 언약, 곧 그들이 당신의 입에서 나온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언약입니다(말 2:7).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늘 선지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사도들에게도 지워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언약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직의 영예로도, 어떤 권위로도 높이지 않으십니다. 대적들이 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람들의 결정에 종으로 넘기려 한다면, 이 매듭을 제게 풀어 보이라고 하십시오.

156. 그들은 목사들 사이에서 진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진리가 교회 안에 남아 있지 않고, 교회 자체도 보편 공의회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서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에 관해 참된 증언을 우리에게 남겼다면, 이것이 늘 참이었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목자들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파수

꾼들은 다 눈먼 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모두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며,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며, 목자들 자신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모두 제 길로 돌아갔다"(사 56:10). 예레미야 시대에도 교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목자들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 봅시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좇는다"(렘 6:13). 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다"(렘 14:14). 그리고 그의 말을 늘어놓는 데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그가 제23장과 제40장 전체에 쓴 것을 읽어 보십시오.[375] 그때 다른 쪽에서는 에스겔이 똑같은 자들을 조금도 덜하지 않게 공격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먹이를 움킴 같았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내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겔 22:25–26). 그리고 그 뜻으로 덧붙이는 나머지 말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탄식이 선지자들 가운데 곳곳에 있어서, 그들에게서 이보다 더 자주 되풀이되는 것은 없습니다.

157. 그러나 그런 일은 아마 유대인들 사이에서나 그랬고, 우리 시대는 그런 큰 악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지 모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르게 되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분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옛적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일 것이다"(벧후 2:1). 보십시오. 그는 위험이 평민들에게서가 아니라, 선생과 목자의 이름으로 자기를 내세울 자들에게서 닥쳐오리라고 예고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 목자들에게서 닥치리라고 얼마나 여러 번 예고했습니까(마 24:11, 24)? 아니,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말고 다른 곳에 앉지 않으리라고 공공연히 보여 줍니다(살후 2:4). 이로써 그는 거기서 말하는 그 무서운

375. 예레미야 40장에는 목자들에 대한 고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문의 "quadragesimo"는 다른 장을 가리키려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재앙이 교회 안에서 목자로 앉아 있을 자들에게서가 아니면 다른 데서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그 큰 악의 시작이 이미 가까이 닥쳐 있음을 보여 줍니다. 에베소의 감독들에게 말할 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행 20:29).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다면, 긴 세월은 목자들 사이에 얼마나 큰 부패를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늘어놓느라 많은 종이를 채우지 않으려고 말하자면, 거의 모든 시대의 예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진리가 늘 목자들의 품 안에서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안전이 그들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교회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도록 세워졌으니, 그 평화와 안녕의 보호자요 파수꾼이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내는 것과, 해내지 못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158. 그렇다고 누가 우리의 이 말을, 마치 제가 목사들의 권위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아무 분별도 없이 흔들어 놓으려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만 그들 사이에서도 분별을 해야 한다고, 목사라고 불리는 자들이 곧 목사이기도 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자기 감독들의 온 무리와 함께, 목사라고 불린다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떨쳐 버리고 모든 것을 제멋대로 뒤집고 휘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진리의 빛을 잃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자기들 안에 머물며, 교회가 자기들 안에 서 있고 자기들과 함께 죽는다고 설득하려고 애씁니다. 마치 주님께서 오늘날 세상을, 옛 백성의 배은망덕을 한때 벌하셨던 것과 같은 종류의 형벌, 곧 목자들을 눈멀게 하고 멍하게 하시는 형벌로 다스리시는 심판이 이제는 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옛날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던 자들이 부르던 바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원수들은 진리를 거슬러 이렇게 무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렘 18:18).

159. 여기서 보편 공의회에 관한 다른 주장에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 아래에서 참된 교회를 가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로 보편 공의회가 모였다면, 교회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반열 전체에 무엇이라고 선언하시는지 듣습니다. “제사장들이 놀라며 선지자들이 두려워하리라” (렘 4:9). 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겔 7:26). 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등(미 3:6). 자, 만일 그때 이런 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면, 어떤 영이 그들의 모임을 주재했겠습니까? 그 일의 두드러진 예를 우리는 아합이 소집한 공의회에서 봅니다(왕상 22:5, 22). 사백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경건한 왕에게 아첨하려는 마음 말고 다른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사탄을 보내셔서 그들 모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의 표결로 진리가 정죄됩니다. 미가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맞고, 옥에 갇힙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했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160. 그러나 다른 것들보다 기억할 만한 한 가지 예로 모든 것을 대신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예루살렘에서 모은 공의회에서(요 11:47), 겉모습에 관한 한 무엇이 모자랐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제사와 다른 의식들에 참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엄숙한 소집이 이루어지고, 대제사장이 앞서 이끌고, 제사장의 반열 전체가 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도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쫓겨납니다. 이 악행은 그 공의회 안에 교회가 결코 들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했습니까? 이처럼 큰일에서 지나치게 안심하는 것은 게으름의 허물을 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분명한 말로 배교가 오리라고 예언하시고(살후 2:3), 이 배교는 목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는 올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눈을 감아 우리 자신을 멸망에 빠뜨립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목자들의 모임 안에서 있다는 것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히 선하리라고 어디서도 보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때때로 악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위험을 경고하실 때는 우리를 더 조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161.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공의회의 정의(定義)에는 아무 권위도 없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공의회를 정죄하거나, 모든 공의회의 결의를 폐기하거나, (흔히 말하듯) 한 획으로 모두 지워 버려야 한다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당신은 모든 것을 서열 아래로 끌어내려, 공의회가 정한 것을 받아들이든 물리치든 아무에게나 맡겨 버리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어느 공의회의 결정이 제시될 때마다, 먼저 그것이 언제,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의도로 열렸는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는지를 부지런히 따져 보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루는 문제 자체를 성경의 먹줄에 대어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공의회의 정의가 제 무게를 지니고 미리 내린 판단과 같은 구실을 하되, 제가 말한 검토를 가로막지는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막시미누스 반박』 제3권에서 정해 준 절도를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공의회 결정을 두고 다투는 이단자를 짧게 누르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니케아 공의회를, 너는 아리미눔 공의회를 미리 내린 판결처럼 서로에게 내밀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공의회의 권위에, 너는 저 공의회의 권위에 매여 있지 않다. 어느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 공통된 성경의 권위로, 사실은 사실과, 사정은 사정과, 이치는 이치와 겨루게 하자.” CO 643 그렇게 하면 공의회들은 마땅히 지녀야 할 위엄을 지니면서도, 성경은 더 높은 자리에서 뛰어나, 그 규범 아래 놓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에베소 제1차, 칼케돈 공의회와, 오류를 논박하려고 열린 그 비슷한 옛 공의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신앙의 교리에 관한 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공경합니다. 그것들에는 성경의 순수하고 본래적인 해석 말고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부들은 그때 일어난 경건(religion)의 원수들을 꺾으려고 신령한 지혜로 그 해석을 맞추어 썼습니다. 그 뒤의 몇몇 공의회에서도 우리는 경건에 대한 참된 열심이 빛나고, 게다가 재능과 학식과 지혜의 뚜렷한 표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일이란 흔히 더 나쁜 데로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더 최근의 공의회들에서는 교회가 그 황금시대의 순수함에서 얼마나 차츰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더 부패한 시대에도 공의회들에 더 나은 감독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로마의 원로원 의결에 관해 원로원 의원들 자신이 옳게 불평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견들을 저울에 달지 않고 머릿수로 세다 보니, 더 나은 편이 더 많은 편에게 지는 일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경건한 의견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그 예들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더 부지런히 해 놓아서 제가 크게 덧붙일 것이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62. 그런데 공의회들끼리 서로 부딪치는 것을 무엇 하러 늘어놓겠습니까? 누가 제게, 서로 부딪치는 것들 가운데 어느 한쪽은 합법적이지 않다

고 투덜거릴 까닭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잘못 알지 않았다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그 공의회의 결정이 정통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서일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유일하고 확실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약 구백 년 전에 레오 황제 아래 모인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는 성전들에 놓인 형상들을 뒤엎고 부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조금 뒤 이레네가 그 공의회를 미워하여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는 형상들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376] 둘 가운데 어느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겠습니까? 흔히는 이 뒤의 것, 곧 성전에 형상들의 자리를 내준 것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일이 우상 숭배의 아주 가까운 위험 없이는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앞 시대의 에피파니우스는 훨씬 더 거칠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에서 형상을 보는 것은 불법이요 가증한 일이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살아 있다면 그 공의회를 인정하겠습니까? 역사가들이 참된 것을 전하고 공의회 의사록 자체를 믿을 수 있다면, 거기서는 형상들 자체만이 아니라 형상 숭배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결정이 사탄에게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성경 전체를 비틀고 찢음으로써 성경을 자기들의 놀림감으로 삼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준다는 점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앞에서 넉넉히 밝혔습니다. 어떻든 서로 반대되고 어긋나는 공의회들은 많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공의회를 제가 말한 모든 사람과 천사의 저울, 곧 주님의 말씀으로 달아보지 않고는 그것들 사이를 달리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케돈 공의회를 받아들이고 에베소 제2차 공의회는 물리칩니다. 뒤의 것에서는 에우티케스의 불경건이 확인되었고, 앞의 것은 그것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이 일의 판단을 오직 성경에서 내렸습니다.

376. 레오 3세 이후 동로마의 성상 파괴 논쟁을 가리킵니다. 754년 콘스탄티노폴리스(히에레이아) 회의는 성상을 정죄했고, 787년 이레네 황후가 소집한 제2차 니케아 공의회는 성상 공경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에서 따르되,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앞서 빛을 비추도록 따릅니다. 이제 로마주의자들은 가서, 늘 하던 대로 자기들의 공의회에 박아 매어 둔 성령을 자랑하라고 하십시오.

163. 하기는 저 옛날의 더 순수한 공의회들에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다른 점에서는 학식 있고 지혜로웠지만, 눈앞의 일에 정신이 팔려 다른 많은 것을 미리 내다보지 못했거나, 더 무겁고 진지한 일에 매여 있어서 덜 중요한 몇 가지 일이 그들의 눈을 벗어났거나, 단순히 사람이므로 속을 수 있었거나, 때로는 지나친 감정에 휩쓸려 앞뒤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것(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가혹해 보입니다)의 뚜렷한 예가 니케아 공의회에 있습니다. 그 공의회의 존귀함은 모든 사람의 합의로, 마땅히 그럴 만하게, 지극한 공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으뜸 조항이 거기서 위태로웠고, 원수 아리우스가 싸울 채비를 하고 거기 있어서 그와 맞붙어 싸워야 했으며, 아리우스의 오류를 치려고 준비하고 온 사람들의 화합에 가장 큰 무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토록 큰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무게와 겸손과 모든 인정을 잊어버린 듯이, 손에 쥔 싸움을 내버리고, 마치 일부러 아리우스를 기쁘게 해 주려고 그리로 간 것처럼, 서로 내분으로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우스를 향해 뽑아야 했던 붓을 자기들 서로에게 겨누었습니다. 더러운 비방이 들리고, 고발장이 날아다녔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아서지 않았다면, 그들은 서로 찔러 상처를 입힐 때까지 다툼을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제는 그들의 삶을 조사하는 것은 자기 심판권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밝히고, 그런 무절제를 꾸짖음보다는 칭찬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다른 공의회들은 얼마나 여러 면에서 넘어졌으리라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일은 긴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의사록을 끝까지 읽어 보면, 더 무거운 말은 하지 않더

라도, 거기서 많은 연약함을 알아챌 것입니다.

164. 로마 교황 레오도 칼케돈 공의회가 교리에서는 정통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의회를 향해 야심과 경솔한 무모함을 나무라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이 잘못할 수 있었다고 공공연히 단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이런 종류의 잘못을 보여 주려고 수고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대적들도 공의회가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 일에서는 잘못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지못해 말로는 그것을 고백하지만, 모든 공의회의 결정을 어떤 일에서든 아무 구별 없이 성령의 신탁으로 우리에게 들이미는 한, 그들은 처음에 내세웠던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CO 645 공의회가 잘못할 수 없다는 것, 또는 잘못하더라도 진리를 분별하거나 오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불법이라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가 노리는 것은, 거기서 이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곧 성령께서 다른 점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공의회들을 다스리시되, 그 사이에 사람다운 무엇이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람들을 지나치게 믿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의회도 좋은 끝을 맺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저 말보다 훨씬 나은 생각입니다.[377] 모든 공의회가 예외 없이 나쁘게 끝났다고 단언하는 사람은 공의회에 그리 많은 권위를 남겨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 공의회에 관해서는 이제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편 공의회에서 그것들이 얼마만 한 권위를 지녀야 하는지 쉽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5. 그러나 우리의 로마주의자들은 자기 주장을 변호하는 데 이성의 모든 방패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볼 때, 저 마지막 비참한 피난처로 물러갑니다. 곧 자기들이 생각과 판단에서는 어리석고 마음과 뜻에서는 몹시 악하다

377.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Nazianzenus, 329경–390경)는 카파도키아의 교부로,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한때 주재했습니다.

하더라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래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자들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선지자요 뛰어난 목자였던 여호수아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이 자기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어떤 말씀으로 그의 직무에 세우시는지 들어 봅시다(수 1:7–8).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 길을 바르게 하고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율법에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벗어나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신령한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목사들의 가르침이든 망설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그토록 여러 번, 그토록 간곡하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깨웠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렘 23:16).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 7:15). 요한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우리를 권한 것도 헛일이었을 것입니다(요일 4:1). 이 판단에서는 천사들조차 빠지지 못하는데(갈 1:8), 하물며 사탄과 그의 거짓말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 15:14)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목자들의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아무나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넉넉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칭호로 우리를 겁주어 자기들의 눈멂에 참여하게 끌어들일 까닭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이름의 가면 뒤에 숨어 있든 남의 오류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으시는 데 각별한 마음을 쓰셨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이라면, 눈먼 인도자들은 감독이라 불리든, 고위 성직자라 불리든, 대제사장이라 불리

든, 자기 동무들을 같은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의회, 목사, 감독이라는 이름들(이 이름들은 참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거짓으로 내세워질 수도 있습니다)이, 우리가 말과 일의 증거로 일깨움을 받아 모든 사람의 모든 영을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에 대어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66. 교회에 새로운 교리를 세울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으므로, 이제 그들이 교회에 돌리는 성경 해석의 권세에 관하여 말합시다. 우리는 참으로 기꺼이 인정합니다. 어떤 교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면, 참된 감독들의 공의회가 모여 논란이 된 교리를 따져 보는 것보다 더 낫고 더 확실한 치료책은 없습니다. 교회의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부르며 함께 동의한 그런 정의는, 각자 따로 집에서 생각해 낸 것을 백성에게 전하거나 몇몇 사사로운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가르쳐야 할지 함께 더 알맞게 의논하여, 서로 다른 가르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가르침을 분별하는 데 이 방법을 정해 줍니다(고전 14:29). 그는 분별을 각 교회에 맡기면서, 더 무거운 일에서는 어떤 순서로 행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곧 교회들이 서로 함께 심리를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감각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낯선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일이 더 무거운 분열의 위험이 있는 데까지 이르면, 먼저 교회들이 모여 제기된 물음을 검토하고, 마침내 바른 논의를 거친 뒤 성경에서 취한 정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정의가 백성에게서 의심을 없애고, 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 그들이 더는 감히 나아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일어났을 때 니케아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그 공의회는 자기 권위로 그 불경건한 사람의 악한 시도를 꺾고, 그가 괴롭혔던 교회들에 평화를 되찾아 주었으며, 그의 신성 모독적인 교리를 거슬러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주장했습니다.

167. 그 뒤 에우노미우스와 마케도니우스가 새로운 소동을 일으켰을 때,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하여 비슷한 치료책으로 그들의 광기를 막았습니다.[378] 에베소 공의회로 네스토리우스의 불경건이 무너졌습니다. 요컨대 이것이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사탄이 무엇인가를 꾸미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 됨을 지키는 일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 모든 곳에 주님께서 그때 일으키신 아타나시우스, 바실리우스, 키릴루스와 같은 참된 교리의 수호자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니, 에우티케스의 이단이 이긴 에베소 제2차 공의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기억의 사람 플라비아누스가 몇몇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귀양을 갔고, 그런 악행이 많이 저질러졌습니다. 거기서는 주님의 영이 아니라, 당파심 많고 마음이 지극히 악한 사람 디오스코루스가 주재했기 때문입니다.[379] 그러나 거기에는 교회가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진리가 한 공의회에서 억눌린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놀랍게 보존하셔서 제때에 다시 떠올라 이기게 하신다고 굳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의회의 표결로 받아들여진 것이 CO 647 늘 성경의 참되고 확실한 해석이라는 것은 부인합니다.

168. 그런데 로마주의자들이 해석의 권세가 공의회에 있으며 그것도 상소할 수 없는 권세라고 가르칠 때, 그들은 다른 것을 노립니다. 그들은 이 핑계로, 연옥, 성인들의 중보, 귓속 고해, 그와 같은 것들에 관하여 공의회에서 정한 것은 무엇이든 성경 해석이라고 부르는 데 이용합니다. 그것들은 성경에서 한 음절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교회의

378. 에우노미우스(Eunomius, 395경 죽음)는 극단적 아리우스파의 지도자였고, 마케도니우스(Macedonius, 360경 이후 죽음)는 성령의 신성을 부인한 무리와 결부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이었습니다.

379. 플라비아누스(Flavianus, 449 죽음)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으로, 449년 에베소 회의에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스코루스(Dioscorus)에게 정죄받고 쫓겨났다가 곧 죽었습니다.

권위로 재가되었으므로, 곧 (더 참되게 말하자면) 견해와 관습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그것들 하나하나를 성경 해석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의회가 성경이 반대하는데도 무엇을 정하면, 그것도 해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에서 내미시는 잔을 모든 사람이 마시라고 명하십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그 잔을 평신도에게 주지 말라고 금하고, 사제만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정과 정면으로 부딪치는데도, 그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제정에 대한 해석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혼인을 금하는 것을 귀신의 위선이라고 부르고(딤전 4:3), 성령께서는 다른 곳에서 혼인이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고 귀하다고 선언하십니다(히 13:4).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사제들에게 혼인을 금한 것을, 그보다 더 동떨어진 것은 꾸며 낼 수 없는데도, 성경의 참되고 본래적인 해석으로 여겨 달라고 요구합니다. 누가 감히 입을 열어 반대하면 이단으로 판정될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상소할 수 없고, 그 해석이 참되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뻔뻔함을 무엇하러 공격하겠습니까? 그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 곧 이긴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승인하는 권세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일부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사람들의 판정 아래 두어,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게 한다는 것은 입에 올릴 가치도 없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앞에서 이 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승인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그들은 그 일에 관한 어느 공의회의 결정을 인용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리우스는 니케아에서 요한복음에서 끌어온 증언들에 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보편 공의회의 승인이 앞서 있지 않았으므로 그는 그것을 물리칠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경이라고 불리는 옛 목록을 내세우며, 그것이 교회의 판단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그 정경은 어느

공의회에서 공포되었습니까? 여기서 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들이 그 정경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옛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잘 정해지지 않았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에로니무스의 말이 효력이 있어야 한다면, 마카베오서, 토비트서, 집회서와 그 비슷한 책들은 외경의 서열로 내쳐질 것입니다. 이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169. 교회의 권세 가운데 남은 다른 부분, 그것도 으뜸가는 부분은 우리가 재판권에 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재판권 전체는 생활의 권징에 속하며, 이것은 곧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도시나 마을도 위정자와 질서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신령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질서는 국가의 질서와 전혀 구별되며, 국가의 질서를 조금도 가로막거나 줄이지 않고, 오히려 크게 돕고 북돋웁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권의 권세는 요컨대 신령한 질서를 지키려고 마련된 제도일 뿐입니다. 이 목적으로 처음부터 교회들 안에 재판 기관이 세워져, 생활에 관한 감찰을 하고, 악행을 다스리며, 열쇠의 직무를 행하는 일을 주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스리는 것”을 일컬을 때 이 제도를 가리키고(고전 12:28), 로마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롬 12:8)고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는 위정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인 위정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의 신령한 다스림을 위하여 목사들에게 붙여진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는 장로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딤전 5:17).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과, 말씀 전파는 맡지 않지만 잘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뒤의 부류로 그가 생활을 살피고 열쇠의 모든 사용을 위하여 세워진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권세는 온전히 열쇠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18절) 이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사사로운 권면을 멸시한 자들을 공적인 이름으로 엄하게 권면하라고 명하시고, 그들이 끝내 고집을 부리면 신자들의 사귐에서 끊어 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과 바로잡음은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과 어떤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쇠의 약속과 출교와 엄숙한 권면과 그런 모든 것을 헛되게 하거나 없애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 어떤 재판권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170.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위정자들이 아직 우리 경건(religion)을 고백하는 데서 멀리 있었을 때만의 임시적인 것이었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권세와 국가의 권세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와 어떤 다름이 있는지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에서 잘못 생각합니다. 교회는 벌하거나 억누를 칼의 권리가 없습니다. 강제할 명령권도 없고, 감옥도, 위정자가 흔히 내리는 다른 형벌들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노리는 것은 죄지은 자가 억지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징계로 회개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위정자에게 고유한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위정자는 교회가 이루는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누가 술에 취했습니까? 질서가 잘 잡힌 도시에서는 그 형벌이 감옥일 것입니다. 음행을 했습니까? 형벌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과 위정자와 외적 재판에는 만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의 표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투덜거리거나 성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거기서 손을 놓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제정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는 성찬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본으로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한 자는 엄숙한 회개의 선언으로 자기가 일으킨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이치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자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너무 싱겁습니다. 그들은 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집행할 위정자가 없었을 때 이 직분을 교회에 맡기셨다.” 그러나 위정자가 게을러지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니, 때로는 위정자 자신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말씀 사역 거의 전체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목사들은 드러난 악행을 꾸짖지 말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꾸중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법과 칼로 바로잡아야 할 그리스도인 위정자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위정자가 벌하고 손으로 억눌러 교회를 걸림돌에서 깨끗하게 해야 하듯이, 말씀의 사역자는 거꾸로 위정자를 도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수고가 서로 이어져서, 한쪽이 다른 쪽에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171. 그리고 참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가까이 따져 보면, 거기에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고정되고 영원한 제도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의 권면에 따르려 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위정자에게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위정자가 교회의 자리를 이어받는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한 해나 몇 해 동안의 약속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신 말씀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아무것도 새로 제정하지 않으시고, 당신 민족의 옛 교회에서 늘 지켜 온 관습을 따르셨습니다. 이로써 주님께서는 교회가 처음부터 있었던 신령한 재판권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대의 합의로 확인되었습니다. 황제들과 위정자들이 그리스도께 이름을 바치기 시작했을 때에도 신령한 재판권은 곧바로 폐지되지 않았고, 다만 국가의 재판권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그것과 뒤섞이지 않도록 정돈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위정자가 경건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통으로 따르는

복종에서 자기를 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복종의 적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교회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판단을 없애 버려야 하겠습니까? 암브로시우스는 말합니다. "황제가 교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선한 황제는 교회 안에 있지, 교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정자를 꾸미려고 교회에서 이 권세를 빼앗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짓 해석으로 더럽힐 뿐 아니라, 사도 시대부터 그토록 많이 나온 모든 거룩한 감독들이 거짓 핑계로 위정자의 영예와 직무를 가로챘다고 그들을 적지 않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17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옛날 교회 재판권의 참된 사용이 무엇이었고 얼마나 큰 남용이 슬그머니 들어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뒤엎고 그리스도의 참된 나라를 다시 세우려 할 때, 무엇을 폐지하고 옛것에서 무엇을 되살려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목표는 걸림돌을 막고, 걸림돌이 생겼으면 없애는 것입니다. 사용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신령한 권세가 칼의 권리와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한 사람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합법적인 회의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더 순수한 교회에서 지켜졌습니다(고전 5:6). 거룩한 감독들은 벌금이나 감옥이나 다른 국가의 형벌로 자기 권세를 행사하지 않고,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 썼습니다. 교회의 가장 엄한 보응, 말하자면 마지막 벼락은 출교이며, 이것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교는 힘도 손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족합니다. 요컨대 옛 교회의 재판권은 바울이 목사들의 신령한 권세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하자면 실천으로 선언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으니, 이로써 우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높은 것을 낮추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모든 불순종을 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후 10:4). 이 일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함으로 이루어지듯이, 가르침이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가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가르치는 바로 그것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사로이 권면해야 하거나 더 엄하게 바로잡아야 할 자들을 부르는 권리, 또 그토록 큰 신비를 더럽히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성찬의 교제에서 막는 권리가 사역과 함께 이어져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73.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밝힌 대로, 이런 권세는 한 사람이 제 마음대로 무엇이든 하도록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장로들의 회의에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교회 안에서, 도시에서 원로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자기 시대에 이 권세가 누구를 통하여 행사되었는지 언급할 때, 흔히 성직자 전체를 감독에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성직자들이 주관하되 그동안 백성도 심리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감독직 처음부터, 성직자들의 의논과 백성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정했다." 그러나 장로회를 통하여 교회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흔하고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장로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르치도록 세워졌고, 어떤 이들은 생활을 감찰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 모습에서 차츰 타락하여, 이미 암브로시우스 시대에는 성직자들만 교회 재판에서 심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옛 회당과 그 뒤의 교회는 장로들을 두었고, 그들의 의논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떤 게으름으로 쓰이지 않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혹 가르치는 자들의 게으름 때문이거나, 오히려 그들이 혼자서만 무엇인가로 보이기를 원하는 교만 때문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람이 더 나은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져 나간 것을 두고 얼마나 분개하는지 봅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그래도 견딜 만한 제도가 서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옛 짜임새의 흔적을 거의 하나도 지니지 않은 이 흉한 폐허를 보았다면, 어떤 탄식을 했겠습니까? 먼저 감독은 교회에 주어졌던 것을 법과 도리를 거슬러 혼자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원로원을 쫓아내고 집정관이 혼자 통치권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독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영예에서 더 높기는 하지만, 회의 자체에는 한 사람에게보다 더 많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공동의 권세를 자기에게로 옮겨, 폭군 같은 방종에 길을 열어 주고, 교회에서 교회의 것을 빼앗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진 회의를 억누르고 폐지한 것은 너무나 악한 짓이었습니다.

174. 그런데 하나의 악은 늘 다른 악에서 생겨나듯이, 감독들은 이 일을 마치 자기가 돌볼 가치가 없는 일처럼 싫어하여 다른 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를 맡을 관리인들(officiales)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세속의 재판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만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땅의 일 말고는 다투는 것이 없는 곳을 여전히 신령한 재판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악은 없다 하더라도, 소송 법정을 무슨 낯으로 감히 교회의 재판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권면이 있고 출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희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빚졌습니까? 그는 소환됩니다. 출두하면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을 받고 갚지 않으면 권면을 받습니다. 두 번째 권면에서 출교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출두하지 않으면 재판에 나오라는 권면을 받고, 늑장을 부리면 권면을 받고 곧 출교됩니다. 묻건대,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정이나 옛 관습이나 교회의 방식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데가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악덕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실은 그들은 음행, 방탕, 술 취함과 그런 종류의 악행을 참아 줄 뿐 아니라, 이를테면 말없는 인정으로 북돋우고 굳혀 줍니다. 그것도 평민들 가운데서뿐 아니라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만 불러들이는데, 너무 눈감아 주는 데 게을러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거나 돈을 짜내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약탈, 강탈, 횡령, 신성 모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이 이 직무에 뽑히는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신령한 재판권을 자랑하지만, 그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방식에 더 반대되는 것은 없고, 옛 관습과는 어둠이 빛과 닮은 것보다 더 닮은 데가 없다는 것을 쉽게 보여 줄 수 있으니, 이것으로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175. 여기에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모두 말한 것은 아니고, 말한 것도 몇 마디로 간추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황이 자기 왕국 전체와 함께 뽐내는 신령한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경건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불의한 폭정이라는 것을 누가 의심할 까닭이 전혀 없을 만큼 결판이 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령한 권세라는 이름 아래, 한편으로는 그들이 불쌍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순수함에서 떠나게 한 새 교리들을 지어내는 대담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보좌 감독들과 관리인들을 통하여 행사하는 거짓 교회 재판권을 함께 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시도록 맡겨 드린다면, 이런 종류의 지배 전체가 곧바로 땅에 엎어져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에게 돌리는 칼의 권리는 양심에 대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다루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도 그들이 늘 자기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곧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여겨지기를 원하는 것, 곧 교회의 목사들인 것 말고는 무엇이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악덕이 아니라 그 반열 전체의 공통된 죄, 아니 그 반열 자체의 염병을 고발합니다. 그 반열은 부유함과 거만한 칭호로 눈에 띄지 않으면 불구가 되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권위를 묻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국가의 지배와 땅의 통치권에서 떼어 놓으려 하셨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마 20:25; 눅 22:25)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로써 목자의 직무가 군주의 직무와 구별된다는 것뿐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합쳐질 수 없을 만큼 서로 떨어진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두 가지를 함께 맡았던 것은, 첫째, 드문 기적으로 된 일이었고, 다음으로, 일이 더 잘 정돈될 때까지만의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정한 형식을 정해 주시자, 그에게는 국가의 다스림이 남겨지고, 제사장직은 형에게 넘겨주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두 짐을 다 감당하는 것은 본성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지켜졌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얼마간이라도 지속되는 동안에는 감독들 가운데 칼의 권리를 가로챌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시대에는 “황제들이 제사장직을 탐낸 것이 제사장들이 통치권을 탐낸 것보다 더하다”는 말이 흔한 속담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말한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은 황제에게, 교회는 제사장에게 속한다.”

176. 그러나 감독들이 자기 직무의 짐과 염려 없이 칭호와 영예와 재물을 누리는 방법이 고안된 뒤에, 그들이 아주 놀고만 있지 않도록 칼의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 스스로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그들은 이 뻔뻔함을 대체 무슨 핑계로 변호하겠습니까? 재판 심리와 도시와 지방의 행정에 끼어들고, 자기와 그토록 동떨어진 일들을 아주 넓게 끌어안는 것이 감독이 할 일이었습니까? 감독들은 자기 직무에 그토록 많은 수고와 일이 있어서, 그 일에 온전히 끊임없이 매달리고 다른 데로 끌려가 흩어지지 않는다 해도 겨우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 나라의 영광이 그 존귀함에 걸맞게 꽃피고, 그동안 자기들이 부르심의 직분에서 너무 멀리 끌려가지도 않는다고 자랑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앞의 것에 관해서

말하자면, 가장 높은 군주들에게도 두려움이 될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거룩한 직무의 품위 있는 장식이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따질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그들의 영예가 이 일로 크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방인의 임금들과 군주들은 저희를 주관하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라는 이 말씀보다 더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먼저 스스로 받아들이신 법보다 더 가혹한 법을 당신의 종들에게 지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눅 12:14). 우리는 주님께서 재판하는 직무를 단호히 물리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직무에 맞는 일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따르신 서열에 종들이 따르게 되기를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다른 것도 말로 떠벌리기 쉬운 것만큼 실제로 증명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두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보였으므로(행 6:2),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이로써, 좋은 감독이 되는 것과 좋은 군주가 되는 것이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데에 꼼짝없이 몰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의 크기로 보아, 그 뒤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고 무거운 염려를 감당할 수 있었는데도, 말씀과 공궤의 사역에 함께 힘쓰면 그 짐에 짓눌리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닌 이 하찮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들의 근면을 백 배나 넘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시도하는 것부터가 지극히 뻔뻔하고 너무나 대담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자기 직분을 버리고 남의 진영으로 옮겨 가는 것 말고 다른 일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77. 그리고 그들이 작은 시작에서 차츰 이렇게 크게 나아갔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첫걸음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었습

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활함과 비뚤어진 꾀로 몰래 자기를 끌어올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기회를 타서 두려움과 위협으로 군주들에게서 자기 권력에 덧붙일 무엇인가를 억지로 빼앗아 냈습니다. 때로는 군주들이 쉽게 베푸는 것을 보고 그들의 어리석고 생각 없는 너그러움을 남용했습니다. 옛날 경건한 사람들은 무슨 다툼이 생기면 소송할 필요를 피하려고 감독에게 중재를 맡겼습니다. 감독의 정직함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감독들은 이런 중재에 자주 얽혔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몹시 싫은 일이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디선가 증언하듯이), 당사자들이 다툼 많은 재판으로 뛰어들지 않도록 그 성가심을 마지못해 떠맡았습니다. 이 자들은 법정의 소란과 전혀 거리가 먼 자원한 중재에서 정식 재판권을 만들어 냈습니다. 얼마 뒤 도시들과 지방들이 여러 어려움에 짓눌렸을 때, 그들은 감독들의 보호를 받으러 피하여, 감독들의 신의로 지켜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자들은 놀라운 솜씨로 보호자에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폭력적인 당파 싸움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독들에게 재판권을 넘겨준 군주들은 여러 동기에 이끌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너그러움에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뒤틀린 베풂으로 교회의 유익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교회의 옛 참된 권징을 부패시켰고, 아니, 참되게 말하자면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주들의 그런 선의를 자기 이익에 남용한 감독들은 이 한 가지 본만 보여 준 것으로도, 자기들이 결코 감독이 아니라는 것을 넉넉하고도 남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의 영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의 입으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신령한 것이다” (고후 10:4)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먼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과 후손과 교회를 멸망시켰습니다.

178. 마침내 로마 교황은 보통의 지배권에 만족하지 않고, 처음에는 여러 왕국에, 다음에는 제국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강도질로 차지한 소유를 어떤 핑계로든 붙잡아 두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때로는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을, 때로는 다른 명목을 내세웁니다. 먼저 저는 베르나르두스와 함께 대답합니다. “그가 다른 어떤 근거로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든, 사도의 권리로는 아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갖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었고, 자기가 가진 것, 곧 교회들에 대한 염려를 후계자들에게 주었다.” 주님이시요 선생님이신 분께서 당신은 둘 사이의 재판장으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종이요 제자인 자가 모든 사람을 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에게 걸맞지 않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르나르두스는 국가의 재판을 두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권세는 소유에 있지 않고 죄에 있다. 너희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것은 소유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땅을 나누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 존귀함으로 보이는가? 견줄 수도 없다. 이 낮고 땅에 속한 일들에는 그 나름의 재판관, 곧 땅의 왕들과 군주들이 있다. 너희는 왜 남의 경계를 침범하는가?” 등. 또 (그는 교황 에우게니우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내 생각에는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높이 생각하더라도, 우리에게 지워진 것은 섬김이지 주어진 것이 지배가 아님을 기억하자. 선지자의 일을 하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홀이 아니라 괭이라는 것을 배우라.” 또 “분명하다. 사도들에게는 지배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 가서, 감히 지배하면서 사도직을 가로채거나, 사도직을 가지고서 지배를 가로채 보라.” 그리고 조금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사도의 모범은 이것이다. 지배는 금지되고 섬김은 명령된다.” 이 말들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진리 자체가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할 정도이고, 아니, 이런 말이 없어도 일 자체가

분명한데도, 로마 교황은 아를 공의회에서 두 칼의 최고 권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에게 속한다고 정하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380]

179.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에 관해서는, 그 시대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밝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꾸며 낸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들은 제쳐 두더라도, 그레고리우스 한 사람이 이 일에 대한 알맞고도 넉넉한 증인입니다. 그는 황제에 관해 말할 때마다 "지극히 평온하신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그의 합당하지 못한 종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땅의 권세를 앞세워 제사장들에게 쉽사리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섬기는 분을 생각하시는 뛰어난 헤아림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되 마땅한 공경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380. [원문의심] 원문은 "in concilio ardatensi"로 깨져 있습니다. "arelatensi"(아를)로 읽었으나, "lateranensi"(라테란)일 수도 있습니다.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9

CO 1:655–66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655 [381]우리는 그가 공통의 복종 안에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거기서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경건하신 주인들에게 오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긍휼을 따라 우리를 당신들의 손 아래 두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끌어온 것은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에 관한 이 물음을 철저히 파헤치려는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로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교황에게 땅의 통치권을 돌리려 할 때 얼마나 유치하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독자들이 지나가며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180. 그런데 누가 이 꾸며 낸 통치권이 언제부터 떠오르기 시작했는지 묻는다면, 교황들이 아직 군주들에게 복종하고 있던 때로부터 아직 오백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황제의 권위 없이는 교황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질서를 바꿀 기회를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준 것은 그 이름의 넷째인 하인리히 황제였습니다. 그는 경박하고 무모하며, 아무 분별도 없고, 대담함은 크고, 생활은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온 독일의 감독직들을 자기 궁정에서 더러는 팔고 더러는 약탈물로 내놓았을 때, 그에게서 모욕을 받은 힐데브란트는 자기 원수를 갚을 그럴듯한 핑계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좋고 경건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많은 사람의 호의에 힘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하인리히는 너무 거만한 통치

381.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방식 때문에 군주들 대부분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부른 힐데브란트는 더럽고 악한 사람이었으므로 자기 마음의 악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공모했던 많은 사람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것만은 이루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이 멍에를 벗어 던질 뿐 아니라 황제들까지 자기들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일을 벌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 뒤의 많은 황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보다 하인리히를 더 닮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아무 근심 없이 집에 앉아 있었으니, 덕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황들의 탐욕을 억눌러야 할 때가 가장 필요했던 때에, 그들을 누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황이 서방 제국을 자기에게 넘겨주었다고 꾸며 대는 저 훌륭한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 어떤 빛깔로 꾸며졌는지 봅니다.[382]

181. 그동안 교황들은 때로는 속임수로, 때로는 배신으로, 때로는 무기로 남의 영토를 침범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유로웠던 도시 로마 자체도 약 백삼십 년 전에 자기들의 권세 아래 두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오늘날 쥐고 있는 권력에 이르렀고, 그것을 붙잡아 두거나 늘리려고 이백 년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를 어지럽혀, 거의 멸망시킬 뻔했습니다. 옛날 그레고리우스 아래에서, 교회 재산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것이라고 여기는 땅에 손을 대고, 국고에서 하는 방식대로 소유권 주장의 표시로 표찰을 붙였을 때, 그레고리우스는 감독들의 공의회를 소집하여 그 세속적인 관습을 엄하게 꾸짖고, 제멋대로 표찰을 써 붙여 어떤 소유지를 차지하려 하는 성직자와, 그런 일을 하라고 명하거나 자기 명령 없이 한 일을 벌하지 않는 감독을 저주받을 자로 여기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성직자가 표찰을 써 붙여 땅 한 뙈기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주받을 만한 악행이라면, 교황들이 온 이백 년 동안 오직 남의 영지에 손을 뻗으려고 전쟁, 피 흘림, 군대의 몰살, 도시의

382. 그레고리우스 7세(Gregorius VII, 재위 1073–1085, 본명 힐데브란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Henricus IV, 1050–1106)는 서임권 문제로 맞섰습니다.

약탈, 다른 도시들의 파괴, 민족들의 학살, 왕국들의 황폐 말고는 아무것도 꾀하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그런 예들을 벌하기에 넉넉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덜 찾는 것이 없다는 것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세속 권력을 모두 스스로 내놓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도, 건전한 교리에도, 교회의 안녕에도 아무 위험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지배욕에 눈이 멀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휩쓸려 갑니다. 선지자가 말하듯이(겔 34:4) 엄혹함과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82. 재판권에는 로마의 성직자들이 자기들에게 돌리는 면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의 재판관 앞에서 답변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걸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통의 재판과 법에서 면제되는 데 교회의 자유와 존귀함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지극히 엄격했던 옛 감독들도, 자기들이 복종한다고 해서 자기와 자기 반열이 조금도 손상을 입는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황제들도 필요할 때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가운데 성직자들을 늘 자기 법정으로 불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니코메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 가운데 누가 경솔하게 소동을 일으키면, 그의 대담함은 하나님의 일꾼, 곧 나의 집행으로 억눌릴 것이다.” 또 발렌티니아누스도 말합니다. “선한 감독들은 황제의 권력에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고,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진실하게 지키며 우리의 법에 순종한다.” 이것은 그때 아무 논란 없이 모든 사람이 확신하던 바였습니다. 물론 교회의 소송은 감독의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성직자가 법을 어긴 것은 없고 교회법으로만 고발되었다면, 그는 공통의 법정으로 소환되지 않고 그 소송에서는 감독을 재판관으로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문제나 교회에 고유하게 속하는 문제가 다루어지면, 그 심리는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발렌티니아누스에게 쓴 말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존엄하신 기억의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말로 대답하셨을 뿐 아니라 법으로도, 신앙의 소송에서는 직무에서 모자라지 않고 권리에서 다르지 않은 사람이 재판해야 한다고 정하셨습니다.” CO 657 또 “성경이나 옛 예들을 살펴보면, 신앙의 소송에서, 거듭 말하거니와 신앙의 소송에서는, 감독들이 그리스도인 황제들을 재판하는 것이 관례였지, 황제들이 감독들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또 “황제시여, 감독들이나 백성이 저를 가게 놓아두었다면 저는 당신의 어전 회의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소송은 교회에서 백성 앞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령한 소송, 곧 경건에 관한 소송을 세속의 다툼을 다루는 국가 법정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에서 그의 꿋꿋함을 마땅히 칭찬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좋은 일에서도, 힘과 폭력에 이르면 자기는 물러서겠다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는 내게 맡겨진 자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억지를 당하면 맞서 싸울 줄 모른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눈물이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사람의 남다른 절제와 지혜가 마음의 넓음과 담대함과 함께 이어져 있는 것을 눈여겨봅시다. 황제의 어머니 유스티나는 그를 아리우스파 편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으므로, 그를 교회의 다스림에서 쫓아내려고 꾀했습니다. 그가 소환을 받아 변론하러 궁정에 갔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황제가 그만한 논쟁을 심리하기에 알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형편도, 일 자체의 영구한 성질도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동의하여 그런 본이 후대에 전해지게 하느니 차라리 죽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폭력이 가해지면 저항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교회의 권리를 무기로 지키는 것은 감독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들에서는 황제가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가 세금을 요구하면

우리는 거절하지 않는다. 교회의 땅은 세금을 낸다. 그가 땅을 요구하면 그는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막아서지 않는다." 그레고리우스도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평온하신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어떤 점에서 짐을 지시지 않으려고, 제사장들의 소송에 끼어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황제를 제사장들을 재판하는 일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판에 맡겨야 할 일정한 소송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83. 그리고 바로 이 예외로 거룩한 사람들이 바란 것은, 경건이 모자란 군주들이 폭군 같은 폭력과 방종으로 교회가 제 직무를 행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군주들이 때로 교회 일에 자기 권위를 개입시키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흩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것이고, 권징을 허물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강제하는 권세가 없고 그것을 바라서도 안 되므로(저는 국가의 강제를 두고 말합니다), 법과 칙령과 재판으로 경건(religion)을 받쳐 주는 것은 경건한 왕들과 군주들의 몫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우리키우스 황제가 몇몇 감독에게 야만인들에게 쫓겨난 이웃 동료 감독들을 받아들이라고 명했을 때, 그레고리우스는 그 명령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그 자신도 같은 황제에게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 요한과 화해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 자기가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세속 법정에서 면제된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양심이 허락하는 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동시에 마우리키우스가 그런 일을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을 때 경건한 군주에게 걸맞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184. 우리가 여기까지 다루기를 미루어 온 교회의 권징을 이제 몇 마디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나머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징은 대부분 열쇠의 권세와 신령한 재판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교회를 두 주요 반열, 곧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눕시다. 저는 흔히 쓰는 이름대로, 교회에서 공적인 사역을 맡은 자들을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공통의 권징에 관해 말하고, 다음으로 그 공통의 권징 말고도 자기 고유의 권징을 가진 성직자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권징을 미워하여 그 이름조차 싫어하므로, 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단체도, 아니 아무리 적은 식구를 둔 집이라도 권징 없이는 바른 상태로 유지될 수 없다면, 그 상태가 무엇보다 질서 있어야 마땅한 교회에서는 권징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가르침이 교회의 영혼이듯이, 권징은 교회에서 힘줄과 같습니다. 이로써 몸의 지체들이 저마다 제자리에서 서로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징이 없어지기를 바라거나 권징이 회복되는 것을 막는 자는 누구든지, 일부러 그러든 생각이 모자라서 그러든, 분명히 교회의 마지막 흩어짐을 찾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침의 전파에 사사로운 권면과 바로잡음과 그 밖의 그런 도움들이 더해져 가르침을 받쳐 주고 놀고 있지 않게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징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슬러 날뛰는 자들을 붙잡아 길들이는 재갈과 같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들을 일깨우는 막대기와 같으며, 때로는 더 무겁게 넘어진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온유함을 따라 너그럽게 징계하는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붙잡아 둘 염려도 방도도 없다는 데서 교회의 무서운 황폐의 시작이 이미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보므로, 필요 자체가 치료책이 있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셨고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서 늘 써 온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185. 권징의 첫째 기초는 사사로운 권면이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곧 누가 자기 의무를 스스로 하지 않거나, 거만하게 굴거나, 덜 단정하게 살

거나, 꾸중받을 만한 무엇을 저질렀으면, 권면받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각 사람이 일이 요구할 때 자기 형제를 권면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과 장로들은 이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CO 659 그들이 할 일은 백성에게 설교하는 것뿐 아니라, 공통의 가르침으로 충분히 나아지지 않은 곳이 있으면 집집마다 권면하고 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입니다. 그는 자기가 공중 앞에서와 각 집에서 가르쳤으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권면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증언합니다(행 20:20, 26). 사역자가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그리스도께 무엇을 마땅히 드려야 하는지 설명할 뿐 아니라, 가르침에 잘 따르지 않거나 더 게으른 것으로 보이는 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할 권리와 방도를 가질 때에야, 가르침이 힘과 권위를 얻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권면을 고집스럽게 물리치거나, 자기 악덕에 계속 머묾으로써 권면을 멸시한다는 것을 보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두 번째로 증인들을 세운 가운데 권면을 받은 뒤에, 교회의 재판, 곧 장로들의 회의로 불려 가도록 명하십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공적인 권위로 더 엄하게 권면을 받아, 교회를 공경한다면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꺾이지 않고 자기 악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에는 교회를 멸시하는 자로 신자들의 사귐에서 끊어 내라고 명하십니다(마 18:15, 17).

186.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는 숨은 악덕만 말씀하시므로,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다. 죄에는 사사로운 죄도 있고, 공적인 죄 또는 공공연히 드러난 죄도 있습니다. 앞의 것에 관해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사로운 사람에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난 죄에 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딤전 5:20)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다투기를 좋아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너만 알고 있는 가운데" 라는 뜻, 곧 더

여러 사람이 알지 않는 경우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디모데에게 공공연히 죄짓는 자들을 공공연히 꾸짖으라고 명한 것을 그 자신이 베드로에게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공적인 걸림돌이 될 만큼 죄를 지었을 때, 바울은 그를 따로 권면하지 않고 교회가 보는 앞으로 끌어냈습니다(갈 2:14). 그러므로 숨은 죄를 바로잡는 데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저 단계를 따라 나아가고, 드러난 죄에서는 걸림돌이 공적이라면 곧바로 교회의 엄숙한 책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법적인 진행 순서일 것입니다.

187. 또 다른 구별도 있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어떤 것은 허물이고, 어떤 것은 범죄 또는 악행입니다. 이 뒤의 것들을 바로잡는 데는 권면이나 꾸중만이 아니라 더 엄한 치료책을 써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여 줍니다(고전 5:4). 그는 근친상간한 고린도 사람을 말로 징계할 뿐 아니라, 그 범죄를 확실히 알게 되자마자 출교로 벌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다스리는 교회의 신령한 재판권이 어떻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도움이요, 질서의 기초요, 하나 됨의 끈인지를 더 잘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드러난 간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도둑들, 강도들,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거짓 증인들과 그런 종류의 나머지 자들, 또 더 가벼운 악덕에 관해서도 바르게 권면을 받고서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비웃는 고집 센 자들을 자기 사귐에서 내쫓을 때, 교회는 이치에 어긋나게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재판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구도 교회의 그런 판단을 멸시하거나, 신자들의 표결로 정죄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당신의 판결을 공포하는 것일 뿐이며, 그들이 땅에서 행한 것은 하늘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증언하셨습니다(마 16:19; 요 20:23). 그들에게는 고집 센 자들을 정죄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뉘우치는 자들을 은혜 가운데로 받아들일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권징의 끈 없이도 교회가 오래 설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미리 보신 그 도움 없이 우리가 벌받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권징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그 여러 가지 쓸모에서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188. 교회가 이런 바로잡음과 출교에서 바라보는 목적은 셋입니다. 첫째는, 더럽고 악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름을 올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악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의 공모 집단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골 1:24), 그런 더럽고 썩은 지체들로 더러워지면 반드시 어떤 치욕이 머리에까지 미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수치가 찍히는 그런 것이 남아 있지 않도록, 그 추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오명이 넘쳐흐를 자들을 그분의 집안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성찬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베풀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은 사람이, 내칠 권리가 있었던 합당하지 않은 자를 알면서 일부러 받아들인다면, 그는 주님의 몸을 개들에게 내던진 것과 똑같이 신성 모독의 죄가 있다는 것이 지극히 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토무스는 권세 있는 자들의 힘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감히 막지 못하는 사제들을 엄하게 공격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피가 너희 손에서 찾아질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에게도 공경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권표도, 자색 옷도, 왕관도 두려워하지 말자. 여기서는 우리에게 더 큰 권세가 있다. 나는 그런 더럽힘에 참여하느니, 차라리 내 몸을 죽음에 내주고 내 피를 흘리겠다.” 그러므로 이 지극히 거룩한 신비가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나누어 주는 데는 신중한 가림이 크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림은 교회의 재판권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목적은, 선한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 악한 자들과 늘 어울리다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곁길로 빠지기를 매우

잘하므로, 악한 본 때문에 바른 삶의 길에서 끌려 나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근친상간한 자를 그들의 사귐에서 내보내라고 명할 때 이 쓸모를 짚었습니다. CO 661 그는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전 5:6, 11). 그리고 그는 여기서 큰 위험을 내다보았기에 모든 어울림까지 금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술취하거나, 모욕하는 자이면,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셋째는, 그들 자신이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기 추함을 뉘우치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악이 징계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익합니다. 너그럽게 대하면 더 고집이 세어질 자들이 회초리를 느끼고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나타냅니다. "누가 우리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살후 3:14). 또 다른 곳에서, 자기가 그 고린도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어 그 영이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였다고 쓸 때도 그렇습니다(고전 5:5). 이것은 (적어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를 영원히 구원받게 하려고 일시적인 정죄에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탄에게 내준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시듯이 마귀는 교회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육체에 가해진 어떤 괴롭힘으로 여기지만, 제게는 그것이 지극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189. 이 목적들을 내세웠으니, 이제 재판권에 놓인 권징의 이 부분을 교회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살펴볼 일이 남았습니다. 먼저 앞에서 세운 저 구분, 곧 죄에는 공적인 것도 있고 사사로운 것 또는 더 숨은 것도 있다는 구분을 붙듭시다. 공적인 죄는 한두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온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며 저질러지는 죄입니다. 제가 숨은 죄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감추어진 죄, 이를테면 위선자들의 죄가 아니라(그런 죄는 교회의 판단 아래 들지 않습니다), 중간 부류의 죄, 곧 증인이

없지는 않지만 공적이지도 않은 죄입니다. 앞의 종류는 그리스도께서 열거하신 저 단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면 교회는 죄인을 불러 허물의 정도에 따라 바로잡음으로써 자기 직무를 해야 합니다. 둘째 부류에서는, 그리스도의 저 규칙대로 고집이 더해지기까지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심리에 이르면 그때에는 범죄와 허물 사이의 다른 구분을 지켜야 합니다. 더 가벼운 죄에는 그만한 엄함을 쓸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징계로 넉넉합니다. 그것도 부드럽고 아버지다운 징계여서, 죄인을 성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지 않고 그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여, 바로잡힌 것을 슬퍼하기보다 기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행은 더 날카로운 치료책으로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한 본이 되는 악행을 저질러 교회에 무겁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말로만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뉘우침을 믿게 할 때까지 한동안 성찬의 교제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 고린도 사람에게 말로 꾸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교회에서 내쫓았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를 그토록 오래 참아 준 것을 나무랐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더 나은 교회는 합법적인 다스림이 힘 있을 때 이 방식을 지켰습니다. 누가 걸림돌이 생기는 어떤 악행을 저질렀으면, 먼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교회 앞에서 회개를 증언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들에게 흔히 지우던 엄숙한 예식이 있어서 회개의 표시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속죄 행위가 이루어질 만큼 다 치르고 나면, 그때 안수로 은혜 가운데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이 받아들임을 키프리아누스는 자주 "평화"라고 부르며, 그런 예식을 짧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때에 회개를 하고, 다음으로 고백(exomologesis)에 이르며, 감독과 성직자의 안수로 교제의 권리를 받는다." 그러나 감독이 자기 성직자들과 함께 화해를 주관하되, 동시에 백성의 동의도 요구했다는 것을 그는 다른 곳에서 전합니다.

190. 이 권징에서는 아무도 면제되지 않아서, 군주들도 평민들과 함께 그것을 받는 데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 권징이 그리스도의 것임이 분명했고, 모든 왕의 홀과 왕관이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는 데살로니가에서 저지른 학살 때문에 암브로시우스에게 교제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 자기를 두르고 있던 왕의 표장을 모두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속임수로 슬그머니 저지르게 된 자기 죄를 교회에서 공공연히 슬퍼하며, 탄식과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위대한 왕들은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간절히 엎드리는 것을 자기에게 수치로 여겨서는 안 되고, 교회의 판단을 받는 것을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 궁정에서 순전한 아첨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듣지 못하므로, 제사장들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 꾸지람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더없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를 아끼시도록 제사장들이 자기를 아끼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 권징을 누구를 통하여 행해야 하는지는 여기서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만 덧붙입니다. 사람을 출교하는 데서 합법적인 진행은 바울이 보여 주는 진행, 곧 장로들이 따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알고 승인하는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의 무리가 그 행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요 파수꾼으로서 지켜보아 몇 사람이 방종으로 무엇을 행하지 않게 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위의 진행 전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말고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는 무게를 지녀서, 그분 자신이 당신의 심판을 주재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191. 그러나 이것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곧 교회에는 온유의 영과 이어진 그런 엄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명하는 대로(고후 2:7), 징계를 받는 자가 근심에 삼켜지지 않도록 늘 부지런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책이 파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제의 규

칙은 목적에서 더 잘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교에서 찾는 것은 죄인이 회개에 이르고 악한 본이 CO 663 가운데서 없어져,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도록 자극받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바라보면 엄함이 어디까지 나아가고 어디서 그쳐야 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교회에 자기 회개의 증거를 보이고 이 증거로 할 수 있는 만큼 걸림돌을 지운다면, 더는 결코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몰아붙인다면 엄격함이 이미 정도를 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옛사람들의 지나친 혹독함을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시와 아주 어긋났을 뿐 아니라 놀랍도록 위험했습니다. 그들이 죄인에게 엄숙한 회개와 거룩한 교제의 박탈을, 때로는 칠 년, 때로는 사 년, 때로는 삼 년, 때로는 평생 동안 지웠으니, 거기서 큰 위선이나 지극한 절망 말고 무엇이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넘어진 사람은 아무도 두 번째 회개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삶이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이것은 유익하지도 이치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판단으로 이 일을 헤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서 그들의 지혜가 아쉬울 것입니다. 하기는 저는 여기서 그 관습을 쓴 모든 사람을 고발하기보다 오히려 공적인 관습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것을 싫어했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바로잡을 수 없었으므로 참았습니다. 참으로 키프리아누스는 자기가 얼마나 내키지 않게 그토록 엄격했는지를 밝힙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참음과 너그러움과 인정은 돌아오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의 모든 전우가 그리스도의 진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집 안에 모이기를 바란다.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많은 것을 못 본 체한다. 형제의 무리를 모으려는 열심과 소원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조차 온전한 판단으로 따지지 않는다. 허물을 마땅한 것 이상으로 용서하다가 나 자신이 거의 허물을 범할 지경이다. 나는 회개하며 돌아와 겸손하고 단순한 속죄 행위(satisfactio)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기꺼이 온전한 사랑으로 끌어안는다.” 크리소스토무스는 좀 더 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자하시다면, 그분의 제사장은 무엇 때문에 엄격하게 보이려 하는가?” 게다가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에게 얼마나 너그러웠는지 압니다. 그는 분열에서 돌아온 자들을 감독직에 받아들이기를 서슴지 않았고, 그것도 뉘우친 뒤 곧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방식이 힘을 얻었으므로, 그들은 자기 판단을 굽혀 그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 그런데 교회의 몸 전체에 이 온유함이 요구되어, 넘어진 자들을 너그럽게, 가장 엄한 데까지 가지 않고 다스리며, 오히려 바울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하듯이(고후 2:8 참조), 각 사사로운 사람도 저마다 이 너그러움과 인정에 자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쫓겨난 그런 자들을 택함받은 자들의 수에서 지워 버리거나, 이미 멸망한 자처럼 그들에 대해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교회에서 낯선 자로, 따라서 그리스도에게서 낯선 자로 판단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떨어져 있는 그동안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이 더 큰 고집을 보인다면, 그래도 그들을 주님의 판단에 맡기고, 지금 보는 것보다 앞으로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바라며, 그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손과 결정 안에 있는 사람 자체를 죽음에 넘기지 말고, 다만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주님의 율법에 따라 헤아립시다. 우리가 이 규칙을 따르면, 우리 판단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분의 긍휼에 법을 정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판단하는 데 우리에게 더 많은 방종을 돌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실 때마다, 가장 악한 자들이 가장 선한 자들로 바뀌고, 낯선 자들이 접붙여지며, 바깥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의 생각을 속이시고 그들의 무모함을 꺾으십니다. 그 무모함은 억눌리지 않으면 마땅한 것보다 더 큰 판단권을 감히 자기 것으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193.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땅에서 맨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리라고 약속하실 때(마 18:18), 주님께서는 매는 힘을 교회의 견책에 한정하십니다. 이 견책으로 출교당하는 자들이 영원한 파멸과 정죄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과 행실이 정죄받는 것을 들으면서, 뉘우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영원한 정죄도 있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교가 아나테마(저주)와 다른 점은, 아나테마는 모든 용서를 거두고 사람을 저주에 바쳐 영원한 멸망에 넘기는 것이고, 출교는 오히려 행실을 벌하고 다스리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출교도 사람을 벌하기는 하지만, 그에게 장래의 정죄를 미리 경고함으로써 그를 구원으로 다시 부르도록 벌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얻으면 화해와 교제로의 회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테마는 아주 드물게 쓰이거나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에 따라 출교당한 자들과 더 친밀하게 지내거나 더 가까이 사귀는 것은 허락되지 않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더 나은 열매로 돌이켜 교회의 사귐과 하나 됨으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말합니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살후 3:15). 이 인정이 사사로이도 공적으로도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권징에서 곧 사형 집행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194. 권징의 절제에는 또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를 반박하여 논하는 것입니다. 곧 사사로운 사람들은 장로회에서 악덕이 덜 부지런히 바로잡히는 것을 본다고 해서 곧바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목사들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깨끗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역을 내던지거나 낯선 거친 태도로 온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쓰는 말은 지극히 참되기 때문입니다. 곧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꾸짖어 바로잡고,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은 평화의 끈을 지키면서 내보내며, CO 665 평화의 끈을 지키면서 내보낼 수 없는 것은 공정하게 못마땅히 여기되 굳건하게 참는 사람은 저주에서 벗어나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댑니다. "교회 권징의 모든 경건한 방식과 절도는 늘 평화의 끈으로 성령의 하나 됨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는 서로 용납함으로써 이것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벌의 약은 쓸데없을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약이기를 그친다." 그는 말합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 됨을 지키는 데서 권징의 엄함을 소홀히 하지도 않고, 바로잡음의 무절제로 사귐의 끈을 끊지도 않는다." 그는 참으로 목사들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저마다 힘껏 교회 안에 아무 악덕도 남지 않도록 이 일에 힘써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권면하고 꾸짖고 바로잡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비록 그들을 편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죄 짓지 않는다 해도 주님 앞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또 그가 성례에 참여하는 데서 그들을 떼어 놓을 수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제 남의 악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악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는 주님께서도 요구하시는 지혜를 써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키프리아누스에게서 이런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며 바로잡고, 할 수 없는 것은 참을성 있게 견디며 사랑으로 탄식하고 슬퍼하라."

195. 그런데 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도나투스파의 까다로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독들이 말로는 꾸짖지만 출교로 벌하지는 않는 악덕들을 교회들 안에서 보았을 때, 감독들이 그 길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인데도, 감독들을 권징을 배반한 자들처럼

맹렬히 공격했고, 불경건한 분열로 그리스도의 양 떼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날 재세례파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천사 같은 완전함으로 빛나는 모임이 아니면 어떤 모임도 그리스도의 모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열심을 핑계로 덕을 세우는 모든 것을 뒤엎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남의 불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다툼을 즐겨서,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데 걸려든 연약한 백성을 온통 끌어가거나 적어도 갈라놓으려 한다. 교만으로 부풀고, 고집으로 미치고, 비방으로 음험하고, 반란으로 소란스러운 그들은, 자기들에게 진리의 빛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엄격한 엄함의 그림자를 덮어씌운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랑의 진실함을 지키고 평화의 하나 됨을 보존하면서 형제의 악덕을 바로잡도록 더 절제 있는 치료로 하라고 명하는 것을, 분열의 신성 모독과 잘라 낼 기회로 가로채 쓴다. 이렇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는 정당한 엄함인 듯한 기회를 틈타 잔인한 사나움을 설득하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것이 굳게 서 있으면 그의 모든 힘이 해를 끼치는 데 무력해지고, 그의 덫이 부서지며, 그의 뒤엎으려는 꾀가 사라지는 평화와 하나 됨의 끈을 부패시키고 끊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196. 그는 특히 이것을 권합니다. 죄짓는 일의 전염이 무리에게 퍼졌으면, 하나님의 권징의 엄한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분리하려는 꾀는 헛되고 해로우며 신성 모독적이다. 그것은 불경건하고 교만하게 되어, 대담한 악인들을 바로잡기보다 연약한 선인들을 더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한 것을 자기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카르타고의 감독 아우렐리우스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성경에서 그토록 무겁게 정죄되는 술 취함이 아프리카에서 벌받지 않고 판치고 있다고 탄식하고, 감독들의 공의회를 소집하여 치료책을 쓰라고 권합니다. 그러고 나서 덧붙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거칠게, 가혹하게, 위압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명령하기보다 가르침으로,

위협하기보다 권면함으로 없어진다. 죄짓는 무리를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엄함은 소수의 죄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는 감독들이 공적인 악행을 더 엄하게 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눈감아 주거나 잠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나중에 설명하는 대로입니다. 다만 그는 바로잡는 방식을 절제하여, 할 수 있는 한 몸에 파멸보다 건강을 가져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을 떼어 놓으라는 사도의 저 명령도 평화를 깨뜨릴 위험 없이 할 수 있을 때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도는 달리 그것이 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며 평화의 끈으로 성령의 하나 됨을 지키기를 힘쓰라는 이 명령도 지켜야 한다."

197. 권징의 나머지 부분은 본래 열쇠의 권세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목사들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 백성에게 금식이나 엄숙한 기도나 그 밖의 낮춤, 회개, 믿음의 훈련을 하도록 권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들의 때와 방식과 형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져 있지 않고 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키는 것도 유익한 만큼, 옛 교회에서 사도들 때부터 늘 써 왔습니다. 하기는 사도들 자신도 처음 시작한 자들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본을 취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슨 무거운 일이 닥칠 때마다 백성을 소집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롭지 않은 것, 그리고 유익하리라고 미리 본 것을 따랐습니다. 백성을 의무로 일깨우거나 의무와 순종 안에 붙들어 둘 수 있는 다른 훈련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 예들은 거룩한 역사들 곳곳에 있으므로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컨대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공의회나 교회 재판으로 끝내야 할 경건(religion)에 관한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역자를 뽑는 일을 다룰 때마다, 끝으로 어렵고 매우 중요한 어떤 일을 다룰 때마다, 또 역병과 전쟁과 기근 같은 주님의 진노의 표시가 나타날 때, 목사들이 백성에게 공적인 금식과 특별한 기도를 권하는 것은

거룩하고 모든 시대에 구원에 이로운 제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CO 667 구약에서 끌어올 수 있는 증언들을 그리스도인의 교회에는 덜 맞는다는 듯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기는 기도에 관해서는 물음을 일으킬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식에 관해 몇 마디 합시다. 아주 많은 사람이 금식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어떤 이들은 아예 쓸데없는 것으로 물리치기도 하며, 그 사용을 잘 알지 못하면 미신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198. 거룩하고 합법적인 금식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육체를 쇠약하게 하고 복종시켜 방자하지 않게 하려고 쓰거나, 기도와 거룩한 묵상에 더 잘 준비되려고 쓰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책을 고백하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졌다는 증거가 되게 하려고 씁니다. 첫째 목적은 공적인 금식에서는 그리 자주 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의 체질이 같지 않고 건강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사로운 금식에 더 맞습니다. 둘째 목적은 둘 모두에 공통됩니다. 신자 각 사람이 사사로이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과 똑같이, 온 교회도 기도하려면 그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전쟁이나 역병이나 어떤 재앙으로 한 민족을 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공통의 매 아래에서는 온 백성이 자기를 죄 있는 자로 여기고 죄책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어떤 사사로운 사람을 치시면, 그는 혼자서든 자기 식구와 함께든 바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주로 마음의 감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감동되면,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증언으로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공통의 덕 세움에 이바지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자기 죄를 공공연히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의 찬양을 돌리고, 저마다 자기 본으로 서로를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 그러므로 금식은 낮춤의 표시이므로, 앞에서 말했듯이 공통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사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보다 공적으로 더 자주 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권징에 속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무슨 큰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마다 기도와 함께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할 때, 그토록 중요한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 더 잘 맡기려고 기도에 금식을 더했습니다(행 13:3). 그래서 그 두 사람도 나중에 교회들에 사역자들을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행 14:23). 이런 종류의 금식에서 그들이 노린 것은 기도하는 데 더 힘차고 더 거침없게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배가 부르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들어 올려지지 않아서, 진지하고 뜨거운 감정으로 기도에 나아가고 기도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가가 안나에 관하여 그녀가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섬겼다고 전하는 것도(눅 2:37)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예배를 금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여인이 이런 방식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자기를 훈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의 해방을 위하여 더 간절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금식도 그런 것이었습니다(느 1:4).

200. 다시, 역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퍼지기 시작하거나, 그 밖에 어떤 재앙이 어느 지방과 백성에게 닥쳐오는 것으로 보일 때에도, 교회에 금식을 권하여 주님의 진노를 간절히 빌어 돌이키게 하는 것은 목사들의 직무입니다. 주님께서는 위험이 나타나게 하실 때 당신이 보응하려고 준비하시고 이를테면 무장하신다고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피고들이 재판관의 긍휼을 얻으려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빗지 않고 상복을 입고 간절히 자기를 낮추곤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피고로 설 때 처량한 모습으로 그분의 엄하심을 빌어 돌이키는 것이 그분의 영광과 공적인 덕 세움에 중요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구원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익숙한 일이었다는 것은 요엘의 말에서 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욜 2:15). 그가 나팔을 불고,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을 선포하라는 등의 말을 하라고 명할 때, 그는 흔한 관습으로 받아들여진 일에 관해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는 조금 앞에서 백성의 악행에 대한 심문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심판의 날이 이미 닥쳐왔다고 알리며, 피고들을 불러 변론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그들이 굵은 베와 재로, 울음과 금식으로 서둘러 나아오라고, 곧 바깥으로 드러나는 증언으로도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외칩니다. 재와 굵은 베는 아마 그 시대에 더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집과 울음과 금식과 이와 비슷한 것들은, 우리 형편이 그것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낮추고 낮아짐을 고백하게 하는 거룩한 훈련인데, 비슷한 필요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들보다 그것을 덜 써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세워진 이스라엘 교회만이 아니라(삼상 7:6; 31:13; 삼하 1:12),[383] 요나의 한 번 설교 말고는 아무 가르침도 없었던 니느웨 사람들도(욘 3:5) 슬픔의 표시로 금식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깥 의식으로서 다른 의식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신자들에게, 늘 그랬듯이, 아주 좋은 도움이요 자기 자신을 일깨우는 유익한 권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친 안심과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노엽게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사도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변호하실 때, 금식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금식을 재앙의 때에 정해 주시고 슬픔과 이어 놓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마 9:15; 눅 5:34).

201. 그런데 이름에서 아무 오류도 생기지 않도록, 금식이 무엇인지 정

383. 원문에는 “1 Sam. 31, 18”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장사 뒤 칠 일 금식은 삼상 31:13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의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금식을 단순히 음식의 절제와 검소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이해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검소함과 절제로 다스려져서, 할 수 있는 한 그 삶의 온 과정에 걸쳐 금식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일시적인 다른 금식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평소의 생활 방식에서 무엇을 줄이고, 음식에서 평소의 것보다 더 엄하고 더 혹독한 절제를 우리 자신에게 정하는 것입니다.

1539–1554년판 제8장 사도신경 넷째 부분 해설 10

CO 1:669–68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669 [384]이것은 세 가지에 있습니다. 곧 때와 음식의 질과 양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금식하는 까닭이 된 그 일들을 금식한 채로 치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엄숙한 기도를 위해 금식한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 기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질은 모든 맛난 것을 멀리하고, 서민의 값싼 음식으로 만족하여 입맛을 진미로 돋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양의 원칙은 여느 때보다 적게, 가볍게 먹는 데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필요를 위해서만 먹는 것입니다.

202.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것은, 전에 교회에 큰 해를 끼치며 일어났던 것처럼 어떤 미신이 슬며시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부지런히 지키면서 그사이에 거짓되고 해로운 생각으로 더럽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식을 아예 쓰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더없는 신실함과 지혜로 막아서지 않으면, 세상은 줄곧 그런 생각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첫째로, 목사들은 요엘이 가르치는 것, 곧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을 늘 힘주어 가르쳐야 합니다 (욜 2:13). 다시 말해 백성에게 이렇게 일깨워야 합니다. 마음속의 감정, 곧 죄와 자기 자신을 참으로 싫어함, 참된 낮아짐,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 나오는 참된 슬픔이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금식 그 자체를 대단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금식은 이런 것들에 덧붙는 낮은 버팀목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까닭으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384.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마음의 결백 대신 표징과 겉모양을 내밀어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위선을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사 58:5). 유대인들은 마음에 불경건과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든 말든 금식만 하면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택하신 금식이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위선자의 금식은 쓸데없고 헛된 수고일 뿐 아니라 가장 큰 가증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둘째 악도 힘써 조심해야 합니다. 곧 금식을 공로가 되는 행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형태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 자체로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며, 그것이 바라보아야 할 목적들 때문이 아니면 아무 중요성도 없으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명하신 행위들, 다른 아무 고려 없이 그 자체로 필요한 행위들과 뒤섞는 것은 가장 해로운 미신입니다. 옛날 마니교도들의 망상이 그러했습니다.[385]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을 논박하면서, 금식은 제가 말한 그 목적들로만 평가해야 하며, 그 목적에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셋째 잘못은 그다지 불경건하지는 않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곧 금식을 으뜸가는 의무 가운데 하나처럼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하게 요구하고, 지나친 칭송으로 높여서 사람들이 금식하고 나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옛사람들이 어떤 미신의 씨를 뿌리고, 뒤에 일어난 폭정에 빌미를 주었다는 것을 온전히 변명해 줄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때로는 금식에 대한 건전하고 지혜로운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금식을 으뜸가는 덕목 가운데 하나로 치켜세우는 지나친 칭찬들이 자꾸 나옵니다.

203. 그리고 그때 이미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일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그 기간에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순종을 바친다고

385. 마니교도들은 3세기 페르시아 사람 마니(Mani)가 세운 이원론 종파의 추종자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이 종파에 몸담았다가 회심한 뒤 이들을 논박했습니다.

여겼고, 목사들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본받는 일이라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정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마 4:2). 오히려 그렇게 복음 선포를 시작하심으로써, 복음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임을 실제로 증명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많고 분명한 이유들로 논박되는 이처럼 둔한 망상이,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슬며시 스며들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마다 하는 금식의 법을 주려 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직 한 번, 복음을 널리 알리는 일에 나서실 때 금식하셨을 뿐입니다. 또 그분은 사람들을 본받도록 부르려 하셨다면 마땅히 그러셨을 것처럼 사람의 방식대로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따라 하려는 열심을 일으키기보다는 모두를 당신에 대한 경탄으로 사로잡는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끝으로, 이 금식의 이치는 모세가 주님의 손에서 율법을 받을 때 치른 금식의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출 34:28). 모세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율법의 권위를 세우려고 베풀어졌으므로, 그리스도께도 그것이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못해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아무도 모세를 본받는다는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형태의 금식을 세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거룩한 선지자들과 조상들 가운데 누구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온갖 경건한 훈련을 위한 마음과 열심이 넉넉히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엘리야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십 일을 지냈다는 기록(왕상 19:8)은, 이스라엘 거의 온 백성이 저버린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가 일으켜졌음을 백성이 알아보게 하려는 것 말고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이름과 겉치레로 금식을 자랑한 것은 순전히 그릇된 흉내 내기(κακοζηλία)[386]였고,

386. [원문의심] 원문은 “xoxo^i^AAx”로 깨져 있습니다. 그리스어 κακοζηλία(그릇된 흉내 내기)로 읽었습니다.

미신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금식하는 방식은 놀랄 만큼 서로 달랐습니다. 카시오도루스가 소크라테스에게서 가져와 자기 역사 제9권에서 전하는 대로입니다.[387] 그는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세 주간만 지켰으나, 주일과 안식일을 빼고는 그 기간 내내 금식했다. 일리리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은 여섯 주간, 다른 이들은 일곱 주간을 지켰으나 사이사이 쉬어 가며 금식했다." 음식의 구별에서도 그들은 못지않게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빵과 물만 먹었고, 어떤 이들은 채소를 더했으며, 어떤 이들은 물고기와 날짐승을 꺼리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음식에 아무 구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야누아리우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이 차이를 언급합니다.

204. 그 뒤로 더 나쁜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백성의 비뚤어진 열심에 감독들의 무지와 우둔함, 또 지배욕과 폭군 같은 엄격함이 더해졌습니다. CO 671 양심을 죽음의 사슬로 옭아매는 불경건한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기라도 하는 듯이 금지되었습니다. 신성모독적인 생각들이 하나 위에 또 하나씩 덧붙여져, 마침내 모든 오류의 밑바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패악도 빠지지 않도록, 그들은 절제라는 더없이 어리석은 핑계로 하나님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정교한 진미들 가운데서 금식의 칭찬을 찾습니다. 그때만큼 맛난 것이 넘친 적이 없습니다. 음식이 그때보다 더 풍성하거나 다양하거나 맛있었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호사스럽고 화려한 상차림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기 그지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려는 자들이 때로는 더 추하게 배를 채운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컨대 이들에게 가장 높은 하나님 예배는 고기를 끊는 것이고, 고기만 빼고는

387. 카시오도루스(Cassiodorus, 485경–580경)는 이탈리아의 로마인 저술가로, 소크라테스·소조메누스·테오도레투스의 교회사를 라틴어로 엮은 『삼부 교회사』(Historia tripartita)를 펴냈습니다. 소크라테스(Socrates Scholasticus, 380경–450 이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교회사가입니다.

온갖 맛난 것을 넘치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거친 빵과 함께 돼지기름이나 상한 고기를 조금이라도 맛보면, 이것은 가장 큰 불경건이며 죽음으로도 겨우 씻을 수 있는 죄가 됩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이미 자기 시대에 이런 어리석은 짓으로 하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기름을 먹지 않으려고 사방에서 가장 섬세한 음식을 실어 오게 했고, 아니, 본성을 거스르려고 물은 마시지 않으면서 달콤하고 값비싼 마실 것을 만들게 하여, 그것을 잔이 아니라 조가비로 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몇 사람에게만 있던 이 악습이, 오늘날에는 모든 부자들 가운데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곧 그들은 더 호사스럽고 깔끔하게 잔치를 벌이려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으로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의심스럽지 않은 일에 많은 말을 쏟아붓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만 말해 둡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금식에서나 권징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나 바른 것, 순전한 것, 잘 짜이고 질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치 자기들에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것이 남아 있기라도 한 듯이 뽐낼 빌미가 전혀 없습니다.

205. 권징의 다른 부분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직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옛 감독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반열에 지운 교회법 조항들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성직자는 누구도 사냥이나 노름이나 잔치에 빠지지 말 것, 누구도 이자 놀이나 장사를 하지 말 것, 누구도 음란한 춤 자리에 끼지 말 것, 그 밖에 이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또 아무도 이 조항들을 어기고도 벌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항들의 권위를 굳게 하는 벌칙들도 덧붙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감독마다 자기 성직자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기 교회법 조항에 따라 성직자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직무 안에 붙들어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해마다 하는 감찰과 노회가 세워졌습니다. 직무에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깨우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벌하려는 것입니다. 감독들 자신도 해마다 자기들의 관구 노회를 가졌고, 옛날에는 일 년에 두

번씩 가졌습니다. 감독들은 직무에 어긋난 일을 저질렀으면 거기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감독이 자기 성직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난폭하면, 단 한 사람이 호소하더라도 그리로 상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엄한 벌은 죄지은 사람을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마 동안 수찬에서 떼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지켜진 질서였으므로, 그들은 다음 노회의 장소와 때를 정하지 않고는 노회를 결코 마치지 않았습니다. 보편 공의회를 소집하는 일은 오직 황제에게 속했습니다. 옛 기록들이 모두 증언하는 대로입니다. 이 엄격함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성직자들은 자기들이 본과 행위로 보여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로 백성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백성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래야 마땅합니다. 백성은 더 너그럽고, 말하자면 더 느슨한 권징으로 다스리되, 성직자들은 서로 더 날카로운 견책을 행하고, 남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덜 너그러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반열보다 더 고삐 풀리고 방탕한 것은 꾸며 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종이 터져 나와 온 세상이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죄 사함.

206. 교회 다음에 죄 사함이 알맞게 이어집니다. 예언자에게서 읽는 대로(사 33:24), 그 시민들만이 죄 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늘의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주님의 이 은택이 자리를 얻어,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죄악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죄 사함 없이 있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가 아니면 당신의 긍휼을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처음 들어가는 길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언약도, 아무 연합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호 2:18–20).[388]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기는 것과 언약을 맺겠고, 활과 칼과 전쟁을 땅에서 꺾어 없애고, 사람들을 두려움 없이 눕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내게 장가들게 하리니, 곧 의와 공평과 긍휼과 자비로 장가들게 하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긍휼로 우리를 어떻게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도, 다른 곳에서도(렘 33:8) 그렇습니다. 진노 가운데 흩으셨던 백성을 다시 모으시리라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씻음의 표징으로 교회의 사귐에 들어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 사함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는 다른 곳에서 더 자세히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신경의 배열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죄 사함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CO 673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셨고(그분의 의로 우리는 아버지를 은혜로우신 분으로 모십니다), 또 성령께서 선포되셨으며(그분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교회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지금 죄 사함이 덧붙는데, 이 죄 사함으로 우리가 교회에 접붙여집니다. 이로써 이것 또한 다른 데 달려 있거나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이 암시됩니다.

207. 주님께서는 죄 사함으로 우리를 교회에 단 한 번 받아들이시고 들이실 뿐 아니라, 같은 죄 사함으로 우리를 교회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무 쓸모도 없을 용서를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이 단 한 번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헛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388. 원문에는 "호 2: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되리라는 것을, 경건한 사람은 저마다 스스로 증언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많은 연약함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 식구들에게 이 은혜를 특별히 약속하시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며, 같은 화목의 소식을 날마다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시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죄의 찌꺼기를 지니고 다니므로,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한순간도 거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한 용서가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믿으라고 배웁니다. 교회의 몸으로 받아들여지고 접붙여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사이에 들어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고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8.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교회에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을 때(마 16:19; 18:18; 요 20:23), 그분은 불경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을 그들이 죄에서 풀어 주기만을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직무를 신자들 가운데서 늘 수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르칩니다(고후 5:20). 그는 화목하게 하는 사신의 직무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맡겨졌다고 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거듭 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안에서 교회 자체의 사역으로 우리 죄가 끊임없이 사해집니다. 이 직무를 맡은 장로들이나 감독들이 경건한 양심들을 복음의 약속들로 용서와 사함의 소망 가운데 굳게 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요구하는 대로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따로 마음을 가라앉혀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회중 앞에서뿐 아니라 집집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언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교리를 깨우쳤다고 말합니다(행 20:20).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거룩함이 뛰어나더라도, 죽을 몸에 사는 동안에는 죄 사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처지에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은택은 교회에 고유한 것이어서, 우리가 교회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달리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은택은 교회의 사역자들과 목사들을 통해, 복음 선포나 성례의 집행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자들의 공동체에 주신 열쇠의 권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주님께서 죄 사함을 두신 곳 말고 다른 데서 그것을 찾지 않는 것이 자기 의무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권징에 속하는 공적 화목에 관해서는 조금 앞에서 말했습니다.

209. 그런데 교회에서 이 유일한 구원의 닻을 빼앗으려 애쓰는 자들이 없지 않으므로, 이토록 해로운 생각에 맞서 양심들을 더 굳세게 해야 합니다. 옛날 노바티아누스파가 이 교리로 교회들을 뒤흔들었습니다.[389]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노바티아누스파와 그리 다르지 않은 재세례파 몇 사람이 있어, 같은 망상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례에서 육의 어떤 더러움으로도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천사 같은 삶으로 중생한다고 꾸며 댑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 뒤에 죄를 지으면, 그에게는 용서 없는 하나님의 심판 말고는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은혜를 받은 뒤에 넘어진 죄인에게 아무 용서의 소망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중생할 때 받는 죄 사함 말고는 다른 죄 사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보다 더 분명하게 논박하는

389. 노바티아누스파는 3세기 로마의 장로 노바티아누스(Novatianus)를 따르는 무리로, 박해 때 신앙을 저버린 자들을 교회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칼빈은 아래에서 그 이름을 노바투스(Novatus)로도 씁니다.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속여 넘길 사람들을 찾아내고, 옛날 노바투스도 아주 많은 추종자를 거느렸으므로, 그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얼마나 미쳐 날뛰는지 간단히 보여 줍시다. 먼저,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마 6:12)라는 이 간구를 되풀이하므로, 분명히 자기가 빚진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헛되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서나 당신이 주실 것 말고는 다른 것을 구하라고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은 기도 전체가 아버지께 들으심을 얻으리라고 증언하셨으면서도, 이 사면만은 따로 약속으로 다시 인 치셨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죄의 고백을, 그것도 평생 끊임없는 고백을 요구하시고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죄에서 면제하거나, 그들이 넘어지면 은혜에서 아주 내쫓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용서하기를 바라십니까(마 18:22)? 형제들이 아닙니까?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명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너그러우심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한두 번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을 깨닫고 낙심하여 그분께 탄식할 때마다 용서하십니다.

210. 교회의 거의 요람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족장들은 할례를 받았고 언약에 참여하도록 이끌렸으며, 틀림없이 아버지의 부지런한 가르침으로 의와 정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형제를 죽이려고 함께 꾀했습니다(창 37:18). 그것은 가장 흉악한 강도들에게조차 가증스러울 죄악이었습니다. 마침내 유다의 권고로 누그러져서 그들은 형제를 팔았습니다(같은 장 26절 이하).[390] 이것 또한 참을 수 없는 잔인함이었습니다. CO 675 시므온과 레위는 사악한 복수로, 그것도 아버지의 판단으로도 정죄받은 복수로 세겜 사람들에게 미쳐 날뛰었습니다(창 34:25). 르우벤은 더없이 더러운

390. 원문에는 "같은 곳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은 창 37:26–28입니다.

정욕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창 35:22). 유다는 음행에 빠지려다가 본성의 법을 거슬러 며느리에게 들어갔습니다(창 38:16). 그런데도 그들은 택하신 백성에게서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머리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의를 지키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큰 악행으로, 무죄한 피를 흘려 눈먼 정욕에 길을 열었습니까(삼하 11)? 그는 이미 중생했고, 중생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뛰어난 칭찬으로 꾸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고, 그런데도 용서를 얻었습니다(삼하 12:13). 그리고 낱낱의 예에 머물지 않기 위해 말하자면, 율법과 선지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이 나오는 만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범죄에 대해 노여움을 푸실 수 있는 분이심이 그만큼 여러 번 증명됩니다. 백성이 배교에 빠졌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리라고 모세가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너를 흩으셨던 그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모으시리라. 네가 하늘 끝까지 흩어질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다시 모으리라" (신 30:3–4).[391]

211. 그러나 끝이 나지 않을 나열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끝없는 죄악으로 뒤덮인 백성에게도 긍휼을 내미는 이런 약속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반역보다 더 무거운 악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이혼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기지 못합니다. 그분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렘 3:1, 12). "어떤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 몸을 간부들에게 내주었는데도 그와 다시 화합하기를 견디겠느냐? 유다야, 네 음행으로 모든 길이 더러워졌고, 땅이 네 더러운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받아 주리라. 배역한 자여, 돌아오라. 내가 내 얼굴을 네게서 돌리지 않으리니, 나는 거룩하여 영원히 노하지 아니함이니라." 참으로 죄인의 죽음을

391. 원문에는 "신 30:3"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 뒷부분은 4절입니다.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고 단언하시는 분의 마음은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겔 18:23, 32; 또 33:11).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죄 용서를 얻으려고 드리는 기도들이 거기서 들으심을 얻도록 이 용도로도 성전을 바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왕상 8:46 이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죄를 짓고(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 원수들에게 넘기셨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사로잡힌 땅에서 당신께 간구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며, 당신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이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과 그들이 당신께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율법에서 죄를 위한 날마다의 제사를 정하신 것도 헛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끊임없는 죄의 병으로 시달리리라는 것을 미리 보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들에게 이런 치료책을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212. 그렇다면 은혜의 충만함이 드러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자들에게서 이 은택이 빼앗겨서 그들이 허물의 용서를 위해 감히 간구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노엽게 하면 아무 긍휼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구약에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마련되어 있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지금은 없어졌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의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히 나타났고(딛 3:4; 딤후 1:9), 긍휼의 부요함이 쏟아졌으며,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이 완성되었다고 분명히 외칩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이 우리에게서 잘려 나가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넉넉히 넘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 증거도 없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마 10:33), 하룻밤에 세 번, 그것도 저주까지 하며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던 자들은, 회개로 초대받는 방식으로 징계를 받습니다(살후 3:14). 마술사 시몬에게조차 절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에게 기도로 피하라고 권할 때 좋은 소망을 품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행 8:22).

213. 더구나 때로는 교회 전체가 아주 무거운 죄에 사로잡혔으나, 바울은 그 우두머리들을 저주에 넘기기보다 오히려 너그럽게 그들을 거기서 건져 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의 배반은 가벼운 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더 많고 결코 가볍지 않은 악행들로 가득했으므로 그들보다 변명할 여지가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쪽도 주님의 긍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러움과 음행과 방탕으로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 회개로 초대받습니다(고후 12:21). 주님께서 참 솔로몬이신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과 엄숙히 맺으신 언약은 깨지지 않고 남아 있으며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이 말씀으로 맺어졌습니다(시 89:30–33).[392]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더럽히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악을,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라. 그러나 나의 긍휼은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리라." 끝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배열 자체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허물의 용서가 언제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일깨움 받습니다. 교회를 말하자면 세운 뒤에 죄 사함이 이어 덧붙여지기 때문입니다.

214. 조금 더 지혜로운 어떤 사람들은 노바투스의 교리가 성경의 그토록 분명한 말씀으로 논박되는 것을 보고는, 아무 허물이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이 알면서 일부러 저지른 고의적인 율법 위반을

392. 원문에는 "시편 89편 31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로 잘못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만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신자들의 고의적인 죄를 속죄하는 제사와 무지로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따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고의적인 죄에 아무 속죄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뻔뻔함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제사가 성도들의 고의적인 죄를 사하는 데 효력이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육적인 희생 제물로, 말하자면 표징들로 이것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에 그토록 정통했던 것이 분명한 다윗을 누가 무지를 들어 변명해 주겠습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벌하던 다윗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몰랐겠습니까? 족장들에게 형제 살해가 정당한 일로 보였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음란과 더러움과 음행과 미움과 다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할 만큼 그토록 잘못 배웠겠습니까? 그토록 부지런히 경고를 받은 베드로가 스승을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너그럽게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의 악의로 길을 막지 맙시다.

215. 물론 옛 저술가들이 날마다 신자들에게 용서되는 죄를 육의 연약함에서 슬며시 생겨나는 가벼운 잘못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또 그때 더 무거운 악행에 대해 요구되던 공적인 회개를 그들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되풀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마치 그들이 첫 회개 뒤에 다시 넘어진 사람들을 절망으로 내몰려 했다거나, 그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것처럼 가볍게 여기려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자주 불신앙으로 비틀거리고, 때로는 쓸데없는 맹세가 입에서 튀어나오며, 때로는 분노로 끓어오르고, 아니, 드러난 욕설에까지 터져 나가며, 그 밖에도 주님께서 가볍지 않게 미워하시는 다른 악들로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걸림돌을 일으키며 교회에 알려지는 공적인 죄들과 구별하려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그토록 어렵게 용서한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그 사람들의 용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엄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겁주어, 그 때문에 마땅히 교회의 교제에서 떼어질 악행에 경솔하게 뛰어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이 되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확실히 더 큰 절제를 정해 줍니다. 말씀은 권징의 엄격함을, 무엇보다 돌보아야 할 그 사람이 근심에 삼켜지지 않을 만큼까지만 당기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고후 2:6–7).[393] 우리가 앞에서 더 자세히 논한 대로입니다.

216. 그러나 고의적인 죄에 대해 그토록 가혹한 비판자들은, 그들에게서 모든 용서를 끊어 버리는 듯 보이는 사도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보이기 때문입니다(히 6:4 이하). 또 다른 곳에서(히 10:26)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죄를 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니” 등입니다. 이 구절들도 옛날 노바티아누스파가 잘못 이해하여 미쳐 날뛸 거리를 길어 낸 구절들입니다. 어떤 선한 사람들은 이 구절들의 가혹함에 걸려 넘어져, 이 서신을 거짓으로 끼워 넣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모든 면에서 참으로 사도의 영의 향기를 풍깁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만 다투는 것이므로, 이 말씀들이 그들의 오류를 전혀 편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는 쉽습니다. 먼저, 사도는 자기 스승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그 스승께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 말고는

393. 원문에는 “고후 2: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심에 삼켜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7절에 있습니다.

모든 죄와 모독이 사함을 받을 것이며,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단언하십니다(마 12:31). 제가 말하거니와, 사도가 이 예외에 만족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수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두 곳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직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추론으로도 그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의 말 자체도 여기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 주겠습니다.

217. 그러나 먼저 이것을 풀기 위해, 아무 사함도 받지 못할 그런 악행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무서운지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디선가 그것을 용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완고한 고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이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와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헛되이 하신 말씀이든지, 아니면 이 죄가 이 삶에서 저질러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옳다면, 이 죄는 죽을 때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저질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형제에게 주어진 은혜를 시기하는 사람이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정의를 내놓읍시다. 이 정의가 확고한 증언들로 증명되면, 그것만으로 다른 모든 정의를 쉽게 뒤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광채에 눈이 부셔서 무지를 핑계 댈 수 없는데도, 오직 거스르려고 작정한 악의로 그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설명하시려고 곧바로 덧붙이십니다(마 12:31; 막 3:28; 눅 12:10).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스르면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태는 “성령을 모독함” 대신 “모독의 영”이라고 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자에게 욕을 던지면서 그 욕이 동시에 성령께 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곧 이런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생각 없이 부딪치고, 모르고 그리스도를 헐뜯지만,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면 그것을 끄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게 되면 한마디 말로도 그분을 비방하지 않을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CO 679 그들은 성부와 성자를 거슬러 죄를 짓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교리를 몹시 저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복음의 교리인 줄 안다면 온 마음으로 그것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물리치고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양심으로 확신하면서도 공격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한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인 조명에 맞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을 당해 낼 수 없었는데도 거스르려고 애썼습니다(행 6:10).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로 휩쓸려 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의에 찬 불경건으로 하나님 자신을,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던 그 교리를 향해 미쳐 날뛴 다른 자들도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바리새인들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깎아내리려고 그것을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헐뜯었습니다(마 12:24). 그러므로 사람의 대담함이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데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모독의 영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든 일들을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저질렀기 때문에 긍휼을 얻었다고 가르칠 때, 이것을 암시합니다(딤전 1:13). 불신앙에 무지가 함께 있어서 그가 용서를 얻게 되었다면, 불신앙에 앎이 더해진 곳에는 용서의 자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18. 잘 살펴보면 사도가 이런 뜻으로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한 번 그리스도교를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상상하던 사람들에게 말을 겨누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이 거짓되고 해로운 생각

에서 돌이키려고 아주 참된 것을 말합니다. 곧 알면서 일부러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맹세하고 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리로 돌아갈 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는 사람들은 방종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저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교리 전체를 드러내 놓고 내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하다"와 "죄를 짓다"라는 말에서 잘못된 추론이 생깁니다. 노바티아누스파는 "타락하다"를,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고 주님의 율법으로 배운 사람이 도둑질이나 음행을 삼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여기에 숨은 대조가 깔려 있어서,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의 반대를 되풀이해 넣어 읽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악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요, 말하자면 사람 전체의 배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본 뒤에 타락한 자들을 말할 때, 이것은 성령의 빛을 일부러 불경건으로 질식시키고, 하늘 은사의 맛을 뱉어 버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서 자기를 떼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짓밟은 자들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경건의 확고한 작정을 더 드러내려고 뒤의 다른 곳에서 "짐짓"이라는 낱말을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그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남아 있는 제사가 없다고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악을 속죄하시는 영원한 제물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서신 거의 전체에서 이것을 분명히 외칩니다). 오히려 그 제물을 떠난 사람에게는 다른 제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 놓고 부인할 때 그 제물을 떠나는 것입니다.

219.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려고 피하는 사람들을 누구든 용서에서 몰아낸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고 하나님의 너그러

우심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쉽게 풀립니다. 그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용서가 거절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도록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아예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자기의 배은망덕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영원한 눈멂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가 에서의 예를 여기에 맞추어 드는 것도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히 12:16–17).[394] 에서는 잃어버린 장자의 명분을 되찾으려고 눈물과 울부짖음으로 애썼으나 헛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이 경고도 조금도 더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슥 7:13).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투로 가리키는 것은 참된 회심이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의 저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극한 처지에 몰리면, 전에는 태연히 무시하던 것, 곧 주님의 도우심 말고는 자기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도우심을 간구한다기보다 그것을 빼앗겼다고 신음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부르짖음으로, 사도가 눈물로 뜻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절망으로 불경건한 자들을 태우고 괴롭히는 저 무서운 고통입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220. 여기서 우리는 우리 복락의 목표와 마침을 봅니다. 먼저 육신의 부활이 선언됩니다. 이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데로 들어갑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고전 15:50). 이것은 사람의 깜냥으로 헤아리면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가 영혼의 불멸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지만,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주 작은 생각조차 마음에 품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은 땅속에서 썩고, 어떤 것은 새들에게 먹히고, 어떤 것은 벌레에게 갉아 먹히고, 어떤 것은 불에 타서 재가 되어 거의 사라지는 이

394. 원문에는 “히 12:12”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예는 히 12:16–17에 있습니다.

몸들이 언젠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CO 681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아주 잘 막아 주십니다. 그분은 앞으로 있을 이 부활을 아주 많고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증언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뚜렷한 본보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때 같으면 믿기지 않을 것이 우리 눈앞에 놓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어떠할지 바르게 생각하려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부활의 실체(hypostasis)요 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도 우리 몸이 새로 지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체가 되는 것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일깨웁니다(빌 3:21). 그러므로 그분이 고난받으셨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나, 죽을 처지에서 가지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영광으로 빛나는 몸을 부활에서 받으셨듯이, 우리도 지금 지니고 있는 그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되 부활 때에는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도는 이 차이를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고전 15:39 이하).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는 실체는 같으나 성질은 같지 않습니다. 모든 별은 재료는 같으나 성질은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몸의 실체를 지니되, 성질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썩을 몸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음을 벗고 썩지 아니함을 입으며, 죽을 것을 벗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실 때 드러내신 그 같은 능력으로, 마지막 심판 날 전에 죽음에 삼켜진 당신의 모든 백성을 티끌과 썩음에서 새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것을 어떤 어려움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은(살전 4:17; 고전 15:51) 자연적인 죽음의 방식보다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새 생명으로 옮겨 갈 것입니다.

221. 그런데 그때에야 사망이 이김에 삼켜지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곧이어 영원한 생명이 덧붙여집니다. 그 탁월함에 대해 모든 사람의 혀가 다할 수 있는 말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가장 작은 조각조차 겨우 맛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광채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리라는 말을 우리가 아무리 참되게 듣는다 해도, 이렇게 이름 붙인 것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도록 우리에게 보여 주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의 감각에서 아주 멀리 있고, 말하자면 수수께끼에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영적인 복락 자체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으므로, 대개 몸에 속한 것들로 그것을 그려 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달콤함을 얼마간 맛보아 불붙고, 갈망의 뜨거움으로 일깨워져야 하므로, 무엇보다 이것을 생각하는 데 머물러 봅시다.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모든 좋은 것의 충만함을 당신 안에 품고 계신다면, 가장 높은 선과 행복의 모든 조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분 너머에서 아무것도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벧후 1:4).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당신의 모든 성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살후 1:10).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의를 택함받은 자들과 나누시고, 아니, 어떤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라면, 이 은택 아래 모든 종류의 행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묵상에서 많이 나아갔을 때에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이 신비의 높이와 견주면 우리가 아직 가장 깊은 뿌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222. 여기서 불경건한 모든 자를 기다리는 부활이나 영원한 죽음에 관해 아무 언급도 없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믿는 양심이 위로를 얻고 구원의 신뢰 가운데 양육되고 굳세어지게 하는 것들만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에 그것에 대한 증언이 없다고 해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부활은 없으리라고 생각할 까닭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불경건한 자들의 앞날의 운명이 넉넉하고 넘치게 언급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낱낱이 이야기됩니다.

그것들을 사도신경에서 찾지는 마십시오. 사도신경은 오직 신뢰를 세우고 북돋우는 재료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들을 줄지어 가르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실 때(마 25:32),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분은 보편적인 부활을 충분히 분명하게 증언하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에서 더 분명하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요 5:29)?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한 고백보다 더 분명한 것을 무엇을 바라겠습니까(행 24:15)? 그는 앞으로 있을 부활을, 그것도 의인과 불경건한 자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부활이 이토록 많은 증언으로 굳게 받쳐져 있으므로, 하찮은 재주꾼들이 그것을 논란거리로 되돌리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더구나 경건한 자들의 갚음과 악한 자들의 형벌은 서로 끊이지 않는 사슬로 이어져 있어서, 하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하나를 반드시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아름답게 짚으십니다(사 63:4; 34:8).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도다.” 또 같은 선지자에게서(사 66:14)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너희 마음이 기뻐하며, 너희 뼈가 풀처럼 무성하리라. 주의 손이 그 종들에게 알려지겠고, 그 원수들에게는 진노하시리라.” 그러나 이 일은 이 나그넷길에서는 희미하게만 이루어지고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도 않으므로, 이것은 주님의 심판과 의를 뚜렷이 보여 줄 저 마지막 갚으시는 날에 마땅히 해당합니다.

CO 683 223. 또한 유기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보응의 무거움은 어떤 묘사로도 다 그려 낼 수 없으므로,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몸에 속한 것들로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곧 어둠, 울며 이를 갊, 꺼지지 않는 불, 끝없이 심장을 갉아 먹는 벌레로 그려집니다(마 8:12; 22:13; 3:12; 막 9:43; 사 66:24; 30:33). 성령께서 이런 말투로 모든 감각을 두려움으로 뒤흔들려

하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를테면 깊은 지옥(gehenna)이 영원부터 예비되었고, 그 땔감은 불과 많은 나무이며, 주님의 입김이 유황 시내처럼 그것을 불사른다고 말할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 불경건한 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어떻게든 헤아려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모든 사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생각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그대를 대적하시는 것을 느껴서, 그 위엄에 몰리지 않고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그분의 진노는 가장 맹렬한 불과 같아서,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이 삼켜지고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심판을 집행하는 일로 섬겨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신 자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짐승과 무엇이든 있는 것이 무서운 진노로 자기들을 향해 불타오르고 자기들을 멸망시키려고 무장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할 때(살후 1:9), 그는 예사로운 것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양심들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찢기고 꿰뚫리고 괴롭힘당하고 불타고 할퀴이고 부서지고 흩어져서, 그 임재를 한순간 견디는 것보다 어떤 심연이나 구렁에 빠지는 편이 더 견딜 만할 것이라면, 그 임재에 영원히, 끝없이 에워싸여 몰리는 것은 얼마나 크고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224.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탄의 혼란을 천 년으로 끝맺는 천년왕국론자들의 망상은 너무나 유치하여 논박할 필요도 없고 논박할 가치도 없습니다.[395] 온 성경이 택함받은 자들의 복락에도, 유기된 자들의 형벌에도 끝이 없으리라고 외칩니다. 우리 눈에서 벗어나고 우리 마음의 깜냥을 훨씬 넘어서는 이런 일들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서 구하든지, 아니면 아예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올 생명의 유

395. 천년왕국론자들(Chiliastae)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뒤 땅 위에서 천 년 동안 다스리신다고 문자적으로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업을 누리도록 천 년을 매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얼마나 큰 모욕을 주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불멸을 입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 영광으로 변화될 그리스도 자신도 불멸의 영광에 받아들여지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복락에 어떤 끝이 있다면, 그들이 기대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는 한때뿐인 나라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아주 무지하든지, 아니면 비뚤어진 악의로 하나님의 은혜 전체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흔들려고 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능력의 완성은 죄가 지워지고 사망이 삼켜져서 영원한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유기된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넘겨지면 하나님께 지나친 잔인함을 돌리게 될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헛소리를 하는지는 눈먼 사람에게도 분명합니다. 배은망덕으로 스스로 당신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게 된 자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으시면 주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한때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어 범한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또한 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면 형벌이 허물의 정도를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을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그분을 업신여기는 것을 영혼 하나의 멸망보다 더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나 이 헛소리꾼들은 내버려 둡시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과 달리, 그들의 망상을 논박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살아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 믿음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떼어 놓을 수 없는 동반자로 함께 지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소망을 자기에게서 낳고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 아무리 유창하고 멋지게 논한다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확신, 곧 그 진리가 우리에게 거짓말하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헛될 수 없다는 확신이라면, 이 확실성을 품은 사람들은 분명히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시리라고 기다립니다. 그 약속들은 그들의 확신에 따르면 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소망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하셨다고 믿은 것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믿고, 소망은 그분이 때가 되면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시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 믿고, 소망은 그분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고, 소망은 그것이 언젠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은 소망이 기대는 기초이고, 소망은 믿음을 기르고 붙들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듯이, 반대로 우리 믿음의 연약함도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참고 소망하며 기다림으로 붙들어지고 보살펴져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바르게 우리 구원을 소망에 둡니다(롬 8:24). 소망은 잠잠히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이 너무 서둘러 곤두박질치지 않게 붙들어 주고,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서 흔들리거나 그 약속들이 참된지 의심하기 시작하지 않게 굳혀 주며,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고, 달음질 중간에나 출발선에서조차 쓰러지지 않게 저 마지막 목표까지 뻗어 가게 합니다. 끝으로 소망은 믿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CO 685 믿음이 거듭 더 힘차게 일어나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형태의 시험으로 공격받고 흔들리는지 생각해 보면, 믿음을 굳게 하는 데 소망의 도움이 얼마나 여러 이유로 필요한지가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들을 미루심으로써, 우리 바람보다 더 오래 우리 마음을 자주 매달려 있게 하십니다. 여기서 소망이 할 일은, 약속들이 더디 오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기다리게 하라고 선지자가

명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합 2:3). 때로는 그분이 우리가 시들게 버려 두실 뿐 아니라 드러내 놓고 진노를 보이십니다. 이때는 소망이 훨씬 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의 말대로(사 8:17), 우리가 야곱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베드로가 말하듯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벧후 3:3–4)[396] 묻습니다. "그의 약속이나 그의 오심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육과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속삭입니다. 이때 믿음은 소망의 인내로 받쳐져 영원을 바라보는 데 못 박힌 채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천 년을 하루같이 여겨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이 결합과 친밀함 때문에 성경은 때때로 믿음과 소망이라는 낱말을 섞어 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이 나타나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고 가르칠 때(벧전 1:5), 소망에 더 어울리는 것을 믿음에 돌립니다. 그렇게 한 것은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망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양식이요 힘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가 소망의 기초를 둘, 곧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의 공로로 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분명합니다. 소망에는 믿음과 다른 과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유일한 과녁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믿음은 말하자면 두 눈으로 그 긍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아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생생한 이유를 대는지 들어 볼 만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대가 공로 없이 무언가를 감히 소망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주제넘음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독자여, 누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신뢰하면 그것이 경솔하고 주제넘게 하는 짓이라고 선언하는 이런 짐승들을 마땅히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심에서 기다리기를 바라시는데, 그들은 그 선하심에 기대어 쉬는 것을 주제넘음이라고 말합

396. 원문에는 "벧후 3:3" 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말은 4절에 있습니다.

니다. 오, 그가 미친 궤변꾼들의 학교에서 얻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선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이 구원의 소망을 품으라고 하나님의 모호하지 않은 말씀으로 명령받는 것을 보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기꺼이 이만큼 주제넘어집시다. 곧 오직 주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행위에 대한 신뢰는 내던진 채, 감히 좋은 것을 소망합시다.

1539–1554년판 · 제9장 회개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9장 회개에 관하여 1

CO 1:685–69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685 제9장.

회개에 관하여.

1. 믿음에서 곧바로 회개로 넘어가야 합니다. 회개는 믿음 바로 뒤에 따라올 뿐 아니라 믿음에서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함이 복음 선포를 통해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가 죄와 죽음의 비참한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하려는 것이므로, 누구도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면서 이전 삶의 그릇된 길에서 바른길로 돌아서지 않고, 자기의 모든 열심을 회개에 힘쓰는 데 쏟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믿음에서 나오기보다 오히려 믿음보다 앞선다고 보는 사람들은 너무 가벼운 논거에 움직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요한은 설교에서 먼저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권하고, 그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덧붙인다. 사도들도 그렇게 설교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누가가 전하는 대로 바울도 그런 순서를 따랐다(행 20:21).” 그러나 그들은 음절의 짜임에 미신적으로 매달리면서, 그 말씀들이 서로 어떤 뜻으로 이어지는지는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 그들은 돌이킬 까닭을 은혜 자체와 구원의 약속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는 요한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이야기한 다음, 그에게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가르칩니다(마 3:3; 사 40:3). 곧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서 그 소리는 위로에서, 기쁜 소식에서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이킴의 기원을 믿음에 돌린다고 해서, 믿음이 돌이킴을 낳는 데 걸리는 어떤 시간 간격을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CO 687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진지하게 회개에 힘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참으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더 분명히 풀어 말할 것입니다. 한편 회개에서 시작하려고 새 신자들에게 일정한 날수를 정해 주어 그동안 회개에 힘쓰게 하고, 그날들이 다 지나야 비로소 그들을 복음의 은혜의 교제에 받아들이는 자들의 망상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저는 재세례파의 많은 사람, 특히 신령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몹시 좋아하는 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그 어지러움의 영은 이런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인에게 평생 이어져야 할 회개를 며칠 안 되는 날로 끝내 버립니다.

2. 그런데 학식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보다 훨씬 전에, 성경의 규칙을 따라 소박하고 솔직하게 말하려 하면서, 회개가 두 부분, 곧 죽임(mortificatio)과 살림(vivificatio)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는 데서 생겨나는 영혼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해석합니다. 누가 죄를 참으로 아는 데 이르면, 그때 그는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기 시작하고,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싫어하며, 자기가 비참하고 멸망한 자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간 느끼게 되면(하나는 곧바로 다른 하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참으로 얻어맞고 넋을 잃어 쓰러지고, 낮아지고 꺾여 떨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째 부분이며,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통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살림을 믿음에서 생겨나는 위로로 해석합니다. 곧 사람이 죄를 의식하여 엎드러지

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얻어맞은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몸을 일으키고, 숨을 돌리고, 마음을 추스르며, 말하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들은 이 낱말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을 보고 회개의 두 형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표지로 구별하려고 하나를 율법적 회개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개에서 죄인은 죄의 낙인에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 짓눌려, 그 혼란에 묶인 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적 회개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개에서 죄인은 속으로 몹시 괴로워하지만, 그보다 더 높이 솟아올라 그리스도를 자기 상처의 약으로, 두려움의 위로로, 비참함의 항구로 붙듭니다. 그들은 율법적 회개의 예로 가인과 사울과 유다를 듭니다. 성경은 그들의 회개를 이야기하면서(창 4:13; 삼상 15:24; 마 27:4),[397] 그들이 자기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으나, 하나님을 오직 보응하시는 분과 재판관으로만 생각하여 그 느낌 속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회개는 말하자면 지옥의 문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삶에서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엄의 진노하신 얼굴 앞에서 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적 회개는, 속으로 죄의 찔림으로 쓰라렸으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로 일으켜지고 새 힘을 얻어 주님께 돌아선 모든 사람에게서 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왕하 20:2). 그러나 그는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의 무서운 선고에 크게 놀랐습니다(욘 3:5). 그러나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실 수 있으리라고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계수하면서 크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삼하 24:10). 그러나 그는 “주여, 종의 죄악을 없이 하옵소서” 하고

397. 원문에는 “삼상 15: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15:24입니다.

덧붙였습니다. 그는 나단의 책망을 듣고 간음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삼하 12:13, 16). 그러나 동시에 용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의 회개도 이러했습니다(행 2:37).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덧붙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회개도 이러했습니다. 그는 몹시 울었으나 소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마 26:75; 눅 22:62).

4. 이 모든 것이 참되기는 하지만, 회개라는 낱말 자체는 (제가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한) 달리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회개 아래 포함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하는 것(행 20:21)과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는 회개와 믿음을 서로 다른 두 가지로 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가 믿음 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은 떨어질 수는 없어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소망 없는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믿음과 소망이 서로 다른 것이듯이, 회개와 믿음도 끊임없는 끈으로 서로 이어져 있지만, 뒤섞기보다는 결합해야 합니다. 물론 회개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 전체가 포함되고, 믿음이 그 가장 작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뜻에서 그러한지는, 회개의 힘과 본성을 설명하고 나면 아주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섬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서는 마음과 생각의 바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도 두 어원에 잘 들어맞습니다. 그 요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이전의 마음을 벗고 새 마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판단으로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해도 좋을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의 참된 돌아섬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진지한 두려움에서 나오며, 우리 육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옛날 선지자들이나 그 뒤의 사도들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한 모든 설교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애쓴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곧 사람들이 자기 죄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찔려서, 자기가 죄를 지은 그분 앞에 엎드려 낮아지고, 참된 돌이킴으로 그분의 바른길에 다시 들어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주님께로 돌아서다" 또는 "돌아오다", CO 689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말이 구별 없이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바울은 이런 돌이킴을 모든 행위에서 드러내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마 3:8; 눅 3:8; 롬 6:4).[398]

5. 그러나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내놓은 정의를 더 분명하게 풀어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의에서 주로 살펴야 할 요점이 셋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돌아섬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바깥 행위에서만이 아니라 영혼 자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영혼이 자기의 낡음을 벗어 버리면, 그때 비로소 자기의 새로워짐에 걸맞은 행위의 열매를 자기에게서 맺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표현하려고, 회개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새 마음을 만들라고 명합니다(겔 18:31).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에 이끌려 어떻게 바르게 주님께 돌아서야 하는지 보여 주려고, 그것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 번 가르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이 표현을 거듭 되풀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참된 특성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4장(1절 이하)보다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위에 심지 말라. 너희는 주께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 가장 깊은 데서 불경건이 뽑혀 나가지 않으면 그들이 의를 좇는 열심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고 그분이 어떻게 선언하시는지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이사야는 위선자들의 뒤집힌 노력을

398. 원문에는 "마 3:7"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마 3:8에 있습니다. 바울의 말로 든 롬 6:4는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웃습니다(사 58:6). 그들은 겉으로 하는 돌이킴은 힘써 꾀했으나, 그사이에 속에 묶어 둔 불경건의 다발은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꾸미지 않은 회개가 본디 어떤 의무들에 있는지도 아름답게 보여 줍니다.

6. 둘째 요점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마음이 돌이킴으로 기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함으로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대에 오르셔서 모든 말과 행위를 셈하라 하시리라는 이 생각이 깊이 자리 잡으면, 그 생각은 비참한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고 한순간도 숨 돌리지 못하게 하며, 그 심판대 앞에 마음 놓고 설 수 있게 할 다른 삶의 방식을 생각하라고 끊임없이 그를 찌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권할 때 자주 심판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렘 4:4). "너희 악행으로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테네 사람들에게 한 바울의 설교에서도 그렇습니다(행 17:30–31).[399]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날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이라." 그 밖에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미 내리신 벌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심을 선언합니다. 죄인들이 일찍 돌이키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자기에게 닥치리라고 스스로 헤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에 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섬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에서 시작되므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개의 원인으로 삼습니다(고후 7:10).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벌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미워하고 저주할 때입니다.

7. 셋째로 설명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곧 회개가 두 부분, 곧 육을 죽이는

399. 원문에는 "행 17: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 날을 정하셨다는 말은 31절에 있습니다.

것과 영을 살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육적인 백성의 깜냥에 맞추어 더 소박하고 투박하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시 34:14)[400]고 말할 때가 그렇습니다. 또 "너희는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라" 등(사 1:16–17)이라고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악에서 돌이키라고 부를 때, 악과 비뚤어짐으로 가득한 육 전체가 멸망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타고난 성품에서 떠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가진 것은 무엇이든 없어지지 않으면, 육이 제대로 죽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의 감정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롬 8:7),[401]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들어서는 첫걸음은 우리 본성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뒤따르는 열매들, 곧 의와 공의와 긍휼로 새로워짐을 가리킵니다. 먼저 마음 자체와 심장이 의와 공의와 긍휼의 감정을 입지 않으면, 그런 의무들을 제대로 치르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영혼을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물들이시고, 새 생각과 새 감정을 흠뻑 배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마땅히 새것으로 여겨질 수 있게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8. 이 둘 다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죽음에 참여한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죽어서, 첫 본성의 부패가 더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한다면,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일으켜져

400. 원문에는 "시편 34편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401. 원문에는 "롬 8:6"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8:7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걸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마디로 회개를 중생으로 해석합니다. 중생의 과녁은 다름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더럽혀지고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며 이것을 가르칩니다(고후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엡 4:23–24)[402]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또 다른 곳에서(골 3:10)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생으로 CO 691 그리스도의 은택에 힘입어, 아담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왔던 하나님의 의로 회복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유업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람들을 누구나 이런 방식으로 온전히 회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9. 그런데 사도가 회개를 묘사하면서(고후 7:11) 회개의 원인들이나 결과들이나 부분들을 여섯 가지로 꼽는 것은 아주 좋은 까닭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열심 또는 간절함, 변명,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정, 벌함입니다.[403] 제가 이것들을 원인으로 여겨야 할지 결과로 여겨야 할지 감히 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쪽으로든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회개와 결합된 감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음들은 제쳐 두고도 바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우리는 간단한 해설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간절함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진지하게 싫어하는 느낌에 사로잡힌 사람은, 동시에 부지런함과 주의 깊음으로 떠밀리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의 계략을 더 잘 조심하며, 이제부터 성령의 다스리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방심에

402. 원문에는 "엡 4: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24절에 있습니다.
403. 원문은 "여섯 가지"라고 하지만 이어서 일곱 가지를 꼽습니다.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짓눌리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명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잘못을 가볍게 하는 변호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처지를 믿는 데보다 용서를 비는 데 더 있는 해명을 뜻합니다. 버림받지 않은 자녀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용서를 빌고, 그 용서가 자리를 얻도록, 자기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공경을 조금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자기가 의롭고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용서를 얻으려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다음은 분함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비뚤어짐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배은망덕을 깨달을 때, 이 분함으로 속으로 자기에게 이를 갈고, 자기를 따지고, 자기에게 노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 마땅한지, 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엄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들이치는 그 떨림을 뜻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불안으로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불안은 우리를 겸손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앞으로 더 조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간절함이 두려움에서 생겨난다면, 이것들이 서로 어떤 고리로 이어져 있는지 우리는 봅니다. 사모함은 의무에 대한 부지런함과 순종하려는 민첩함을 두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허물을 깨달으면 무엇보다 이 민첩함으로 이끌려야 합니다. 그가 곧이어 덧붙이는 열정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곤두박질쳤겠는가?" 하는 가시가 우리에게 들이대질 때 우리가 불타오르는 뜨거움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벌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더 엄하고, 더 날카로운 견책으로 우리 죄를 심문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를 더욱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얻어맞은 영혼이 스스로 자기에게서 벌을 받아 내는 보응의 역할을 맡지 않을 수는 참으로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부끄러움, 혼란, 신음, 자기를 싫어함, 그리고 허물을 진지하게 깨닫는 데서 생겨나는 그 밖의 감정들이 어떤 벌인지 압니다.

10. 이제 회개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 사람을 향한 사랑의 의무, 그리고 온 삶에서의 거룩함과 깨끗함입니다. 그 밖에도 바깥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사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낮추거나 우리 육을 길들이는 치료책처럼 쓰고, 공적으로는 돌이킴을 증언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 벌함에서 흘러나옵니다. 괴로워하는 영혼에게는 이런 것이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곧 누추함과 신음과 눈물 가운데 있고, 화려함과 온갖 치장을 피하며, 모든 즐거움을 끊는 것입니다. 또 육의 반역이 얼마나 큰 악인지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억누를 모든 치료책을 찾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의를 범한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쉴 수 없습니다. 옛 저술가들은 회개의 열매를 말할 때 이런 훈련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들은 회개의 힘을 결코 그것들에 두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더라도 독자들은 저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것들을 마땅한 정도보다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지혜롭게 따져 본다면, 바라건대 그들이 두 가지로 정도를 넘었다는 데 제게 동의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그 몸의 훈련을 그토록 강조하고 지나친 칭송으로 권함으로써 백성이 그것을 더 큰 열심으로 받아들이게 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해야 할 것을 어떤 식으로든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징계를 요구하는 데서 교회의 온유함이 허락하는 것보다 얼마간 더 엄격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룬 대로입니다.

11.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울음과 금식과 재가 다른 곳에서도 자주, 특히 요엘서에서(욜 2:12) 언급되는 것을 듣고는, 돌이킴의 주된 부분을 금식과 울음으로 잽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착각을 없애야 합니다. 거기서 온 마음

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것과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에 대해 하는 말은 돌이킴에 고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울음과 금식은 돌이킴의 영속적이거나 필연적인 결과로 덧붙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무거운 멸망이 닥치리라고 예언했으므로, 돌이킬 뿐 아니라 슬픔의 표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앞질러 막으라고 권합니다. 피고가 재판관의 긍휼을 얻으려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빗지 않고 상복을 입고 엎드려 자기를 낮추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피고로 서게 되었을 때 비참한 차림으로 그분의 엄하심을 피하게 해 달라고 빌어야 했습니다. 재와 굵은 베옷은 아마 그 시대에 더 어울렸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환난으로 위협하시는 것으로 보일 때마다 CO 693 울음과 금식을 쓰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아주 알맞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위험이 나타나게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이 보응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말하자면 무장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조금 앞에서 그 악행들에 대한 심문이 정해졌다고 말한 자기 백성을 울음과 금식, 곧 피고의 슬픔으로 권하는 것은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도 자기 백성의 목에 멸망이 닥친 것을 볼 때 금식과 울음으로 서두르라고 외친다면 잘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곧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더 크고 더 힘쓴 관심과 수고로 힘주어 가르쳐야 합니다. 금식이 언제나 회개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때에 특별히 정해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금식을 슬픔과 결합하시며(마 9:15), 사도들이 당신의 함께하심을 빼앗겨 슬픔에 잠기게 될 때까지는 금식할 필요에서 그들을 풀어 주십니다. 저는 엄숙한 금식을 두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삶은 검소함과 절제로 조절되어서, 그 삶의 모든 과정에서 일종의 금식의 모습이 늘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 전체는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지금은 짧게만 건드립니다.

12. 또한 아주 분명히 드러나듯이 복음의 요체 전체가 이 두 항목, 곧 회개와 죄 사함에 담겨 있다는 것이 참되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동시에 당신 영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참된 의로 회복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설교했습니다(마 3:2). 그는 회개로 초대함으로써,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정죄받았음을 깨닫도록 일깨웠습니다. 그들이 자기 육을 죽이는 것과 영 안에서 새로 중생하는 것을 온 마음으로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림으로써 그는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다고 가르친 하나님 나라로 그는 죄 사함과 구원과 생명,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게서는 "요한이 와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읽습니다(막 1:4; 눅 3:3). 이것은 사람들이 죄의 무게에 눌리고 지쳐서 주님께 돌아서고, 사함과 구원의 소망을 품으라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 4:17; 막 1:15).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의 보화가 당신 안에서 열렸다고 선언하시고, 다음에 회개를 요구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의 일 전체를 간단히 요약하려 하셨을 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사함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24:26, 46–47).[404] 사도들도 그분의 부활 뒤에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행 5:31). 사람들이 복음의 교리를 통해,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열심이 부패하고 악하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

404. 원문에는 "눅 24:26, 46" 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죄 사함이 전파되리라는 말은 47절에 있습니다.

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구속과 의와 구원과 생명이 되셨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고 죄 없는 자로 여겨진다는 것을 배울 때, 죄 사함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증명했듯이 두 은혜가 모두 믿음으로 붙들어지지만, 믿음의 고유한 대상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므로, 그것을 회개와 부지런히 구별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13. 그리고 회개의 시작인 죄에 대한 미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첫 입구를 열어 주듯이(그분은 비참하고 괴로워하는 죄인들, 곧 신음하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지고 주리고 목마르며 고통과 비참함으로 시들어 가는 자들에게만 당신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 61:1; 마 11:5; 눅 4:18),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려면 회개 자체에 힘쓰고, 평생 회개에 몰두하며, 끝까지 회개를 좇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만, 회개하도록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마 9:13; 행 3:26; 5:31).[405] 그분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각 사람이 자기 악에서 돌아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내미실 때 대개 그 대신 돌이킴을 조건으로 다짐받으십니다. 당신의 긍휼이 사람들에게 돌이킬 까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사 56:1).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이라.” 또(사 59:20)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또(사 55:6–7)[40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또

405. 원문에는 “행 3:27”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26절까지 있으며, 바로 뒤에 칼빈이 풀어 말하는 내용이 3:26에 있습니다.
406. 원문에는 “사 55: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 뒷부분은 7절입니다.

(행 2:38)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씻음을 받으라."[407]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조건이 마치 우리의 돌이킴이 용서를 공로로 얻는 기초인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로 정하셨으므로, 그들이 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의 감옥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악덕들과, 아니 우리의 타고난 성품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플라톤은 철학자의 삶이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408]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육을 죽이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힘씀과 훈련이라고, 육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실 때까지 그러하다고 더 참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O 695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싫어하기를 배운 사람이 가장 많이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이 진흙에 빠진 채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서둘러 가고 그분을 향해 탄식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접붙여진 채 끊임없는 회개에 힘쓰는 것입니다. 참된 죄의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분명히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의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아무도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는 모든 견해 가운데 가장 단순하듯이, 성경의 진리와도 가장 잘 일치한다고 제게 보였습니다.

14. 이제 스콜라 궤변가들이 회개에 대해 전해 준 것들을 털어 보는 데로 갑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훑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좇을 생각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책자(enchiridion)처럼 짧게 만들려는 이 작은 책이 끝없이 늘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때 같으면 그리 얽히지 않은 일을 그토록 많은 책으로 휘감아 놓아서, 그대가 그들

407. 칼빈의 인용은 행 2:38과 3:19의 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원문의 장절 표기대로 두었습니다.

408. 플라톤(Platon, 기원전 427–347)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이 말은 『파이돈』에 나옵니다.

의 찌꺼기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그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정의를 내리면서, 회개가 무엇인지 결코 이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들은 옛사람들의 책에서 회개의 힘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몇몇 경구를 움켜쥡니다. 이를테면 회개란 이미 지은 죄를 슬퍼하여 울고, 울어야 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지나간 악을 애통하고, 애통해야 할 것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일종의 슬퍼하는 보응으로서, 자기가 저질렀다고 슬퍼하는 것을 자기 안에서 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각 사람이 저지르거나 동의한 악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요 영혼의 쓰라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교부들이 잘 한 말이라고 인정하더라도(그러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들은 회개를 정의하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이 이미 건짐 받은 같은 허물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권하려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칭송을 모두 정의로 바꾸고 싶다면, 다른 것들도 못지않은 권리로 덧붙였어야 했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의 이런 말이 그러합니다. "회개는 죄를 끄는 약이요, 하늘에서 주어진 선물이요, 놀라운 덕이요, 율법의 힘을 넘어서는 은혜다." 게다가 그들이 나중에 전하는 교리는 이 정의들보다 얼마간 더 나쁩니다. 그들은 바깥 훈련들에 이로 문 듯이 박혀 있어서, 그대가 그들의 끝없는 책들에서 거두어들일 것은 회개가 일부는 육을 길들이는 데, 일부는 악덕을 꾸짖고 벌하는 데 이바지하는 훈련이요 엄격함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된 삶의 고침을 함께 가져오는 마음의 내적 새로워짐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침묵합니다.

15. 그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정의한 회개를 마음의 통회, 입의 고백, 행위의 속죄 행위(satisfactio)로 나눕니다. 이 나눔은 그들의 정의보다 조금도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삼단 논법을 짜는 데 보냈다고 보이고 싶어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정의에서 출발하여 추론한다면

(이런 논증 방식은 논리학자들 사이에서 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은 죄를 슬퍼하여 울고 울어야 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지나간 악을 애통하고 애통해야 할 것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기가 저질렀다고 슬퍼하는 것을 벌할 수 있다는 등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나눔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면서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회개는 고백 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나눔은 성례인 한에서의 회개에 관한 것이라거나, 자기들의 정의에 담지 않은 회개 전체의 완전함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대답한다면, 저를 탓할 까닭이 없습니다. 더 깨끗하고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은 자기들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 둔함 그대로, 어떤 일을 논할 때 모든 것을 정의 자체에 견줍니다. 정의는 모든 논의의 돌쩌귀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생님들의 특권이라고 해 둡시다. 이제 그 부분들 자체를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16. 그런데 독자들은 여기서 나귀 그림자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409]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진지한 일, 곧 죄 사함을 다룬다는 것을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그들은 회개에 세 가지, 곧 마음의 찔림, 입의 고백, 행위의 속죄 행위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죄 사함을 얻는 데 필요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건(religion) 전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죄 사함을 어떤 이치로, 어떤 법으로,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얻는지를 이해하고 잘 붙드는 것이 확실히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양심은 아무 쉼도, 하나님과의 아무 평화도, 아무 신뢰나 안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떨고, 흔들리고, 들끓고,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런데 죄 사함이 그들이 묶어 놓는 이 조건들에 달려 있다면,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409. "나귀 그림자를 두고 다툰다"는 것은 하찮은 일로 다툰다는 뜻의 옛 그리스 속담입니다.

그들은 통회를 용서를 얻는 첫째 부분으로 삼고, 그것을 마땅한 통회, 곧 의롭고 온전한 통회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언제 사람이 자기가 이 통회를 마땅한 정도까지 다 치렀다고 안심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참한 양심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고문당하고 들볶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죄에 대한 마땅한 통회가 지워진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갚아야 할 것을 다 갚았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 마땅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같은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누가 감히 자기가 죄를 슬퍼하는 데 모든 힘을 다 쏟았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랫동안 자기와 씨름하고 긴 싸움으로 시달린 CO 697 양심들은, 끝내 쉴 항구를 찾지 못하고, 적어도 얼마만큼이라도 자기를 달래려고, 억지로 고통을 짜내고 눈물을 짜내어 자기의 통회를 채우려 합니다.

17. 그들이 제가 중상한다고 말한다면, 어디 나와서, 이런 통회의 교리로 절망에 몰리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참된 고통 대신 꾸민 고통을 내밀지 않은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서, 죄 사함은 결코 회개 없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괴로워하고 죄의 의식에 상처 입은 사람들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회개가 죄 사함의 원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통회를 마땅한 정도로 치러야 한다는 그 영혼의 고문은 없애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자기의 찔림이나 자기의 눈물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오직 주님의 긍휼에만 고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일깨웠을 뿐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 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자기 의로 배불러 자기의 가난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태평하여 자기 악에 대한 치료책을 찾지 않는 멸시하는 자들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았으며,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고, 갇히지도 포로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죄인이 결코 다 치를 수 없는 의롭고 온전한 통회로 죄 사함을 공로로 얻으라고 가르치는지, 아니면 그가 자기 비참함을 깨달아 자기의 목마름과 지침과 사로잡힘을 보고 어디서 시원함과 쉼과 자유를 찾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 주도록 하나님의 긍휼에 주리고 목마르게 가르치는지, 끝으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8. 고백에 대해서는 교회법학자들과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 언제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고백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명령되었다고 주장하고, 교회법학자들은 그것이 교회의 규정으로만 명령되었다고 맞섭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신학자들의 뻔뻔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편을 들려고 인용한 성경 구절을 모조리 왜곡하고 억지로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보자, 남들보다 영리해 보이고 싶어 하던 자들은 이런 핑계로 빠져나갔습니다. 곧 고백은 그 실체로 보면 하나님의 법에서 나왔으나, 그 형식은 뒤에 실정법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법률가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소환은 하나님의 법에 속한다고 하는 식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담이 항변하듯이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등으로 대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형식은 시민법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고백, 형식을 갖춘 것이든 형식 없는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어떤 논증으로 증명하는지 봅시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셨다” (마 8:4; 눅 5:14; 17:14).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고백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고백을 듣는 일을 맡았다는 말을 누가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비유적 해석으로 피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제사장들이 나병과 나병을 분별하라고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신 17:8). 죄는 영적인 나병이며, 이것에 대해 판정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일이라고 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지나가며 묻겠습니다. 이 구절이 그들을 영적인 나병의 재판관으로 만든다면, 왜 그들은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나병의 판단까지 자기들에게 끌어가지 않습니까?[410] 이것은 물론 성경을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율법은 나병의 판단을 레위 제사장들에게 맡긴다.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죄는 영적인 나병이다. 우리가 죄의 판단자도 되자." 이제 대답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히 7:12). 모든 제사 직분은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직분의 모든 권리와 영예는 오직 그분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비유적 해석을 좇기를 좋아한다면, 그리스도를 유일한 제사장으로 자기 앞에 세우고, 그분의 심판대에 모든 일에 대한 자유로운 재판권을 쌓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참아 줄 것입니다. 게다가 순전히 국가적인 법을 의식법 가운데 넣는 그들의 비유적 해석은 터무니없습니다.

19.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십니까?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제사장 앞에 나타나 제물을 드려 정결하게 되라고 명하는 율법을 당신이 어긴다고 제사장들이 헐뜯지 못하게 하시려고, 깨끗해진 나병 환자들에게 율법이 정한 일을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모세가 율법에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참으로 이 기적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나병 환자라고 판

410. [원문의심] 원문은 "cur naturalis et carnalis leprae cognitionem ad se trahunt?"(왜 끌어가는가)로 읽힙니다. 문맥상 "non trahunt"(왜 끌어가지 않는가)의 뜻으로 보아 옮겼습니다.

정했었는데, 이제 나았다고 판정합니다. 그들은 좋든 싫든 그리스도의 기적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그들이 살펴보도록 맡기시고,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얼버무리므로, 이 일은 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 24:14).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라." 또(마 10:18)[411]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더 강하게 정죄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크리소스토무스를 따르는 편을 더 좋아한다면, 그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기는 자로 여겨지지 않으시려고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20. 그들은 둘째 논증을 같은 샘, 곧 비유적 해석에서 끌어냅니다. 마치 비유적 해석이 어떤 교리를 굳히는 데 큰 힘이 있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해 둡시다. 다만 제가 그것들을 그들보다 더 그럴듯하게 내세울 수 있음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아난 나사로의 베를 풀어 그를 놓아 주라고 명하셨다" (요 11:44). 먼저 그들은 이 점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곁에 서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무 속임수의 의심도 없이 기적이 더 분명해지고, 그분이 아무 손도 대지 않고 오직 당신의 음성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점에서 그분의 능력이 더 크게 빛날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서 모든 나쁜 의심을 없애시려고, 그들이 돌을 굴려 내고, 냄새를 맡고, 죽음의 확실한 표지들을 보고, 그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살아난 그를 맨 먼저 만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411. 원문에는 "같은 책 17:16"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 10:18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해 둡시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을 얼마나 더 알맞고 솜씨 있게 비유적으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이 상징으로 당신의 신자들을 가르치셔서, 당신이 살리신 자들을 그들이 풀어 주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잊으신 죄를 그들이 다시 기억해 내지 않게 하고, 당신이 사면하신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게 하며, 당신이 용서하신 것을 여전히 꾸짖지 않게 하고, 당신이 긍휼히 여기시고 쉽게 용서하시는데 그들이 벌하는 데 엄하고 까다롭지 않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서 자기들의 비유적 해석을 팔아 보라고 하십시오.

21. 이제 그들은 (자기들 보기에) 분명한 말씀들로 싸우면서 더 가까이 맞붙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했다”(마 3:6). 또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약 5:16). 세례를 받으려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겠습니까? 세례는 죄 사함의 상징입니다. 죄인들, 곧 자기가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이 상징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자기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서로 고백하라고 명하는 것도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뒤따르는 말을 살폈다면, 이것도 자기들을 거의 편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그는 서로 하는 고백과 서로 하는 기도를 함께 묶습니다. 사제 나부랭이들에게만 고백해야 한다면, 그들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야고보의 말에서는 사제 나부랭이들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가 우

리가 서로 고백하기를 바랄 때, 그는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로"(ἀλλήλοις), 곧 서로서로, 번갈아, 또는 그들이 더 좋아한다면 상호적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듣기에 알맞은 사람들이 아니면 상호적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특권을 사제 나부랭이들에게만 주므로, 우리도 고백하는 직무를 그들에게만 떠넘깁니다. 그러니 이런 종류의 허튼소리는 물러가라 하고, 사도의 뜻 자체를 받아들입시다. 그 뜻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곧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번갈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품에 내려놓아, 서로 권고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의 연약함을 서로 알아서 그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하라고 그토록 힘주어 말하는 우리에게 맞서 왜 야고보를 인용합니까? 먼저 자기의 비참함을 고백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끝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으라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셔서, 모든 입이 막히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갈 3:22; 롬 3:9, 19).

22. 그런데 그들이 무슨 낯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법에 속한다고 감히 주장하는지 놀랍습니다. 우리도 고백의 관습이 아주 오래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옛날에는 자유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 때 이전에는 그것에 관해 아무 정해진 법이나 규정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 자신의 연대기도 이야기합니다.[412] 또 역사책에서나 다른 옛 저술가들에게서나 뚜렷한 증언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이것이 감독들이 세운 제도적 규율(politica

412. 인노켄티우스 3세(Innocentius III)는 1198–1216년의 교황입니다. 그가 소집한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가 모든 신자에게 해마다 한 번 사제에게 고해하도록 정했습니다.

disciplina)이었지,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정한 법이 아니었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것 가운데 하나만 내놓겠습니다. 그것은 이 일에 대한 희미하지 않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소조메누스는 이것이 감독들의 규정으로서, 서방 교회들에서, 특히 로마에서 부지런히 지켜졌다고 전합니다.[413] 이로써 그는 그것이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었음을 알려 줍니다. 또 그는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특별히 이 직무를 맡도록 정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그는 이 사람들이 열쇠가 이런 용도로 사제 반열 전체에 구별 없이 주어졌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넉넉히 논박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제에게 공통된 직무가 아니라, 감독이 이 일을 위해 뽑은 한 사람의 특별한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도 이 관습이 있었으나, 어떤 귀부인이 고백하는 척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한 집사와 가지던 관계를 숨기다가 들킨 일이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거룩함과 학식으로 이름난 그 교회의 감독 넥타리우스가 고백하는 의식을 폐지했습니다.[414]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 나귀들은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귓속 고해가 하나님의 법이었다면, 넥타리우스가 어떻게 감히 그것을 떼어 내고 뽑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옛사람의 지지로 인정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넥타리우스를 이단과 분열로 고발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같은 계산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를 정죄할 것입니다. 소조메누스는 그 교회에서 고백하는 관습이 한동안 덮어 두어졌을 뿐 아니라 자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사라졌다고 단언합니다. 아니,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만이 아니라 동방의 모든 교회를 배교죄로 고발하십시오.[415]

413. 소조메누스(Sozomenos, 400경–450경)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활동한 교회사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교회사』 7권에 나옵니다.

414. 넥타리우스(Nectarius, 397년 죽음)는 381–397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으로, 크리소스토무스의 앞사람입니다.

415. [원문의심] 원문은 "!bio non constantinopolitanam, sed orientales omnes ecclesias"로 깨져 있습니다. "Imo non constantinopolitanam modo"의 뜻으로 읽었습니다. 이 문장의 끝부분("defectionis reas agant … neglexerunt")은 다음 편 원문 첫머리에

그 교회들은 (그들의 말이 참이라면) 범할 수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된 법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있어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9장 회개에 관하여 2

CO 1:701–71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701 [416]23. 그런데 이렇게 폐지된 일은, 그 자신도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의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토무스가 그토록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증언하므로, 이자들이 감히 이에 맞서 중얼거린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죄를 말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지울 것입니다. 그대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말하기가 부끄럽다면, 날마다 그대의 영혼 속에서 그것을 말하십시오. 그대를 꾸짖을 그대의 동료 종에게 고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대의 잠자리 위에서 그대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하여 거기서 그대의 양심이 날마다 자기의 악을 알아보게 하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의 생각 속에서 그대의 잘못을 살피십시오. 이 심판은 증인 없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그대가 고백하는 것을 보시게 하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그대의 동료 종들의 구경거리 무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대의 죄를 드러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양심을 되짚어 펼쳐 보이십시오. 가장 뛰어난 의사이신 주님께 그대의 상처를 보이고, 그분께 약을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꾸짖지 않으시고 지극히 자애롭게 고쳐 주시는 분께 보이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대를 꾸짖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것을 공공연히 퍼뜨릴 동료 종에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대를

416.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돌보시고 자애로우시며 의사이신 주님께 상처를 보이십시오."[417] 그다음에 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려 보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구경거리 무대 한가운데로 나와서 많은 증인을 세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나에게만 따로 그대의 죄를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 헌데를 고쳐 주겠다."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런 말과 이와 비슷한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이 매임에서 풀어 줄 만큼 무모한 데까지 나아갔다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명령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꼭 필요한 것처럼 요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24. 그러나 이 문제 전체가 더 분명하고 더 쉽게 풀리도록, 먼저 어떤 종류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백에 관해 그들이 꾸며 낸 것들을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누가 저 끝없는 바다를 다 퍼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자기들의 고백의 요점을 담아 두는 것들만 다루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고백"(confessio)이 찬양의 뜻으로 쓰인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대목으로까지 자기들을 무장할 만큼 부끄러움을 모두 내버리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예컨대 그들은 "기쁨과 고백의 소리로"(시 42:4)[418]라는 말씀을 따라 고백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 쓸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순박한 이들은 이 뜻을 눈여겨보고,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 뜻과 조심스럽게 구별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에 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를 사하시고 잊으시고 지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므로, 용서를 얻으려면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그분이 의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의

417. 원문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 조각은 이 인용들의 출처로 크리소스토무스의 『하나님의 불가해한 본성에 관하여, 아노모이오스파를 반박하여』 설교 5와 『나사로에 관하여』 설교 4를 듭니다. 앞의 각주들은 OCR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418. 원문에는 "시편 42편 5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상처를 내보입시다. 상처를 입고 노여움을 사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화평을 구합시다. 마음을 아시고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읍시다. 끝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알렸고 내 불의를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 불의를 거슬러 주께 고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마음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 32:5). 다윗 자신의 또 다른 고백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 51:1).[419] 다니엘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패역하게 행하였으며 불경건한 일을 저질렀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 반역하였나이다" (단 9:5). 성경 곳곳에 나오는 다른 고백들도 그러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요일 1:9).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분께입니다. 곧 상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로 사함을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25.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야 할 때마다 의심할 것 없이 고백할 준비가 된 혀도 가질 것입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 한 번 귓속에다 마음의 비밀을 속삭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번, 공공연히, 온 세상이 듣는 데서, 숨김없이 자기의 가난함과 주님의 크심을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양심의 가시에 찔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삼하 12:13). 곧 "나는 이제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피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께만 감추어 두고자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419. 원문에는 "시편 51편 3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절수에 넣어 세므로,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께 드리는 저 은밀한 고백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우리의 낮아짐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자발적인 고백이 따릅니다. 이런 까닭으로 주님께서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이 앞서 말을 이끌면 당신의 백성이 성전에서 공공연히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하도록 정하셨습니다(레 16:21).[420]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보는 데로 더 잘 이끌리도록 이 도움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우리 가운데서, 또 온 세상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26. 이런 고백은 교회에서 평상시에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백성이 어떤 공통된 범죄에 걸려 있게 되었을 때에는 평상시와 달리 특별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백성 전체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관과 인도 아래 행한 저 엄숙한 CO 703 고백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긍휼로 피할 때마다 이 본을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질서가 잘 잡힌 교회들에서는 이것을 지킵니다. 저 오랜 포로 생활, 도성과 성전의 멸망, 경건(religion)[421]의 흩어짐은 모든 사람이 함께 저지른 배반의 형벌이었으므로, 그들은 먼저 자기들을 죄 있는 자로 고발하지 않고는 구원의 은택을 마땅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회중 가운데 때때로 죄 없는 사람이 몇몇 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병들고 몹시 상한 몸의 지체라면 건강을 자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흉년이나 그 밖의 어떤 재앙으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슬퍼하며 금식하고 죄 있음을 나타내는 다른 표시들로 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다른 모든 것이 그것에 달려 있는 고백 자체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의 고백은, 주님의 입으로 권하신 것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그

420. 원문에는 “레위기 16장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고하는 대목은 개역한글로 16장 21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421. 라틴어 religio입니다.

유익을 따져 보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배척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임마다 하나님과 천사들의 눈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데, 우리의 무가치함을 알아보는 것 말고 우리 행위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는 일이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일함이나 졸음이나 게으름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 회중이 어떤 엄숙한 고백 예식으로 낮아짐을 훈련받는 것이 유익한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도 저에게 인정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신 의식은 율법의 몽학 선생 노릇에 속한 것이었지만, 그 일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질서가 잘 잡힌 교회들에서 이 관습이 열매 있게 지켜지는 것을 봅니다. 곧 주일마다 말씀의 사역자가 자기와 백성의 이름으로 고백의 글을 지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죄악의 죄인으로 고발하고, 주님께 용서를 함께 빕니다.

27. 그 밖에도 성경은 두 가지 형태의 사적인 고백을 인정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라"(약 5:16)는 야고보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서로의 조언과 위로로 서로를 돕자는 뜻으로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웃을 위해 해야 하는 것으로, 무슨 일에서든 우리의 잘못으로 이웃이 상처를 입었으면 그를 달래고 그와 화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의 종류에 관해서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품에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름을 들어 정해 주지 않고 고르는 일을 자유에 맡겨, 교회의 양 무리 가운데 가장 알맞아 보이는 사람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일에 알맞아 보이므로, 우리도 무엇보다 그들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알맞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사역으로의 부르심으로 주님께 지정되어,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죄를 굴복시키는 일과

위로를 받는 일을 함께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바로잡는 의무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졌지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는 특별히 지워진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 안에서 서로 굳게 세워야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들 자신이 죄 사함에 관해 양심들을 더 확실하게 하도록 그 증인이요 보증인으로 세워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사하고 영혼을 푼다고까지 일컬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돌려지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이 그대를 위한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신자마다 이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죄를 느끼는 마음 때문에 홀로 괴로워하고 시달려서 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으면, 주님께서 그에게 내미시는 치료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자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자기 목사에게 사적인 고백을 하고, 위로를 얻기 위해 그의 개인적인 수고를 청해야 합니다.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복음의 교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그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정해 두지 않으신 곳에서 양심이 정해진 멍에에 매이지 않도록 언제나 이 절제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고백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아는 사람들에게만 권해야 합니다. 또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쓰는 바로 그 사람들도 어떤 계명으로 강요받거나 꾀에 이끌려 모든 죄를 낱낱이 헤아리게 되어서는 안 되고, 위로의 굳건한 열매를 거두는 데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만큼만 해야 합니다. 신실한 목사들이 자기 사역에서 폭정을 멀리하고 백성에게서 미신을 멀리하고자 한다면, 교회에 이 자유를 남겨 둘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힘써 옹호해야 합니다.

28. 다른 종류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너를 거슬러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네 제물을 거기 두고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목

하고, 그 후에 와서 네 제물을 드리라" (마 5:23). 우리의 잘못으로 깨어진 사랑은 이렇게, 곧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빎으로써 기워야 합니다. 온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할 만큼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고백도 이 종류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개인에게 입힌 상처를 그토록 무겁게 여기셔서, 형제들에게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정당한 배상으로 화해를 되찾기 전까지는 거룩한 예식에서 물리치신다면, 어떤 나쁜 본으로 교회를 상하게 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교회와 화해해야 할 까닭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고린도의 그 사람도 책망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렇게 교제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고후 2:6). 고대 교회에도 이런 고백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CO 705 "그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회개합니다. 그다음에 공적 고백(exomologesis)으로 나아오고, 감독과 성직자들의 안수로 교제의 권리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 밖의 다른 고백 방식이나 형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임으로 양심을 묶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양심을 종의 처지로 몰아넣는 것을 지극히 엄하게 금하십니다. 그렇지만 양들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할 때마다 목사 앞에 나서는 것을 저는 반대하기는커녕, 이것이 어디서나 지켜지기를 무척 바랍니다. 양심이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특별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권면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권면할 자리를 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제나 폭정과 미신은 멀리해야 합니다.

29. 이 세 가지 고백에서 열쇠의 권세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곧 온 교회가 엄숙하게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며 용서를 빌 때, 어떤 두드러진 범죄로 공공의 걸림돌을 낳은 개인이 자기의 회개를 증언할 때, 양심의 불안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열어 보일 때입니다. 온 교회가 이를테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를 죄 있는 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 말고는 피할 곳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자리

에 화목하게 하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함께 있어서 그에게서 사죄의 선언을 듣는 것은 흔하거나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이 사신의 일이 마땅한 질서와 마땅한 경건으로 바르게 행해질 때, 여기서 열쇠의 유익이 마땅히 칭송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멀어졌던 사람이 용서를 받고 형제의 하나 됨 안으로 회복될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땅에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신 이들에게서 자기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은택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는 데 특별한 치료책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할 때 주는 사적인 사죄 선언도 효력과 열매가 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회중 전체에 주어진 일반적인 약속들을 듣는 사람이, 그런데도 어떤 의심 속에 머물러 있고, 마치 아직 죄 사함을 얻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지니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목사에게 마음의 숨은 상처를 열어 보이고, "네 죄가 사하여졌으니 안심하라"는 복음의 음성이 특별히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으면, 그는 마음이 굳어져 평안을 얻고, 전에 자기를 괴롭히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열쇠를 다룰 때에는, 복음 전파와 떨어진 어떤 권능을 꿈꾸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교회에 관한 논의 중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매면" 등의 말씀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등의 말씀을 풀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신 권세는 무엇이든 모두 말씀에 매여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쇠의 사역에서 가장 참됩니다. 열쇠의 모든 힘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은혜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신자들의 마음에 인 쳐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말씀 전파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0.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정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분별할 나이에 이르면 곧바로 적어도 해마다 한 번은 자기의 모든 죄를 자기의 본당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 고해하려는 서원을

굳게 품지 않으면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낙원에 들어갈 길이 전혀 열려 있지 않다. 또 사제는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죄인을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매면" 등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권세에 관해서는 그들끼리 서로 사납게 싸웁니다. 어떤 이들은 본질에 있어서 열쇠는 하나뿐인데 그것은 매고 푸는 권세이며, 지식은 바르게 쓰는 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덧붙은 것일 뿐 본질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지나치게 고삐 풀린 방종이라는 것을 보고, 분별과 권세라는 두 열쇠를 꼽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런 제한으로 사제들의 사악함이 억제되는 것을 보고, 다른 열쇠들을 두드려 만들어 냈습니다. 곧 판정하는 데 쓰는 분별의 권위, 자기들의 판결을 집행하는 데 행사하는 권세, 그리고 조언자처럼 곁에 붙는 지식입니다.[422] 그러나 그들은 이 매고 푸는 것을 단순히 죄를 사하고 지우는 것으로 풀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이스라엘아, 네 죄악을 도말하는 자니라"(사 43:11, 25)고 외치시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매였고 누가 풀렸는지 선포하고, 누구의 죄가 사하여졌고 누구의 죄가 그대로 있는지 밝히는 것이 사제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밝히는 방식은 둘이라고 합니다. 고백을 통해서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두는 것과, 판결을 통해서 출교하고 다시 성례의 교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해도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제들에게서 자주 매이고 풀리지만, 그렇다고 하늘에서 매이거나 풀리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피난처로, 열쇠를 주신 것은 제한을 두어 받아들여야 한다고

422. [원문의심] 원문은 "quum tali moderatione cohiberi sacerdotum improbitatem viderent"(그런 제한으로 사제들의 사악함이 억제되는 것을 보고)입니다. 문맥상 "억제되지 않는 것을 보고"로 읽어야 할 듯도 하나,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대답합니다. 곧 매이거나 풀리는 사람의 공로가 요구하는 대로 정당하게 내린 사제의 판결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심판대에서 승인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열쇠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제에게 주신 것이며, 감독들이 서품할 때 그들에게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쇠를 자유롭게 쓰는 것은 교회의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만 있고, 출교당한 자들과 정직당한 자들에게도 열쇠 자체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 녹이 슬고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은, 새 모루 위에서 새 열쇠들을 만들어 낸 다른 자들에 비하면 겸손하고 절제 있는 사람으로 보일 만도 합니다. CO 707 그자들은 그 열쇠로 교회의 보물 창고를 잠가 둔다고 가르칩니다. 그 열쇠들은 나중에 제자리에서 털어 보겠습니다.

31. 하나하나에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들이 무슨 권리로, 또는 얼마나 부당하게 신자들의 영혼을 자기들의 법으로 묶는지는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자리에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죄를 낱낱이 헤아리라는 법을 지우는 것, 고해하려는 서원을 굳게 품었다는 조건이 아니면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고백할 기회를 소홀히 했으면 낙원에 들어갈 길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지껄이는 것, 이것은 결코 참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낱낱이 헤아려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제 생각에는 죄의 고백을 자기 안에서 깊이 묵상했을 텐데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으리이까?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소서"(시 19:12).[423]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를 넘어갔고, 무거운 짐처럼 내 힘에 겨워 무거워졌나이다"(시 38:4).[424] 그는 참으로 우리 죄의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죄악의 얼굴이 얼마나 많은지, 이 히드라가 머리를 몇이나 달고 얼마나 긴 꼬리를 끌고

423. 원문에는 "시편 19편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이 편 뒤쪽(34절)의 같은 인용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424. 원문에는 "시편 38편 6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절수에 넣어 세므로,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다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목록을 헤아리는 데 매달리지 않고, 악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짓눌리고, 묻히고, 숨이 막혔습니다. 음부의 문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 기진하여 죽어 가는 나를 주의 손이 건져 내소서.” 다윗이 자기 죄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제 누가 자기 죄를 셈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32. 이 고문대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간이라도 느끼던 사람들의 영혼은 잔인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시달렸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기를 계산대에 불러 세우고, 이자들의 공식을 따라 죄를 큰 가지와 가지와 잔가지와 잎사귀로 쪼갰습니다. 그다음에 성질과 분량과 정황을 달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은 일이 그럭저럭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더 멀리 나아가자 사방은 하늘이요 사방은 바다였습니다. 항구도 없고 정박할 곳도 없었습니다. 많이 건널수록 더 큰 무더기가 늘 눈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높은 산더미들처럼 솟아올랐고, 오래 돌고 돈 뒤에라도 빠져나갈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물과 돌칼 사이에 끼어 오도 가도 못했고, 마침내 절망 말고는 다른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잔인한 고문자들은 자기들이 낸 상처를 덜어 주려고 무슨 찜질약 같은 것을 붙였습니다. 곧 각자 자기에게 있는 힘만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근심이 시끄럽게 일어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고통이 가련한 영혼들의 살갗을 벗겼습니다. “나는 시간을 넉넉히 들이지 않았다. 마땅히 힘써 매달리지 않았다. 게을러서 많은 것을 빠뜨렸다. 부주의에서 생긴 잊음은 변명할 수 없다.” 그러자 이런 아픔을 누그러뜨리는 다른 약들이 또 건네졌습니다. “그대의 게으름을 회개하라. 그것이 아주 태만한 것만 아니면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악을 덜어 주는 것이라기보다, 처음 맛볼 때 쓴맛으로 거슬리지 않도록 꿀을 바른 독약이어서, 느껴지기도 전에 속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저 무서운 소리가 늘 몰아붙이고 귓가에 울립니다. “그대의 모든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이 두려움은 확실한 위로가 아니고는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33. 세상의 상당수가 그토록 치명적인 독을 섞어 누그러뜨린 이런 달콤한 말들에 만족한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고 믿거나 스스로도 온전히 만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린 듯 항해에서 잠시 쉬려는 것이었고, 지치고 기진한 나그네가 길에 드러눕듯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멸망시키고 정죄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파멸과 절망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것은 죄인들을 자기 죄에 대한 참된 느낌에서 떼어 내어 위선자로 만들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만듭니다. 그들이 죄를 헤아리는 일에 온통 매달려 있는 동안, 자기의 비참함을 헤아리려면 무엇보다 알아야 했던 저 숨은 악의 레르나[425], 자기의 감추어진 죄악과 속의 더러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백의 가장 확실한 규칙은 우리의 느낌까지도 넘어서는 우리 악의 그토록 깊은 심연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리의 고백이 이 규칙대로 지어진 것을 봅니다. “주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눅 18:13).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온통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의 크기를 마음으로도 혀로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의 긍휼의 심연이 이 죄의 심연을 삼켜 주소서.”

34.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하나의 잘못은 고백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두 마디로 맺은 고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

425. 레르나(Lerna)는 그리스 신화에서 머리 여럿 달린 물뱀 히드라가 살던 늪입니다. 악이 우글거리는 소굴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니다. 오히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마디로 고백할 뿐 아니라, 참으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그런 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죄의 얼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여러 가지인지 온 생각을 다해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럽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이 어떠하고 얼마나 크며 얼마나 여러 부분에 퍼져 있는지,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큰 빚에 짓눌리고 얼마나 많은 빚 문서에 매여 있는지, 우리가 상처 입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치명적인 상처에 찔렸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이렇게 되짚어 보며 자기를 온통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 때에도, 그는 진지하고 CO 709 진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더 많은 것이 남아 있고, 자기 악의 깊은 구석은 자기가 속속들이 털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으리이까?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시 19:12). 이제 그들은 고해하려는 서원을 굳게 품지 않으면 죄가 사하여지지 않으며, 고해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 낙원의 문이 닫혀 있다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들에게 내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지금의 죄 사함은 언제나 있었던 죄 사함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죄 사함을 얻었다고 기록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어느 사제 나부랭이의 귀에 고해했다고 기록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로 고해 듣는 사제 나부랭이도 없었고 그런 고해 자체도 없었으니, 그들은 고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 세기 동안 이 고해는 들어 보지도 못한 것이었는데, 그 세기들에도 이런 조건 없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일인 양 더 오래 논쟁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인이 탄식할 때마다 나는 그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겔 18:21). 감히 이 말씀에 무엇을 맞세우는 자는 죄를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매는 것입니다.

35.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귓속 고해를, 그토록 해롭고 그토록 여러 가지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정죄하고 없애 버리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그 자체로는 이래도 저래도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 쓸모도 열매도 없으면서 그토록 많은 불경건과 신성 모독과 오류의 원인이 되었으니, 누가 당장 없애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몇 가지 쓸모를 꼽으며 그것이 아주 열매가 많다고 떠벌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꾸며 낸 것이거나 전혀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하나를 특별한 특권처럼 내세워 칭송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부끄러움이 무거운 벌이어서, 그것으로 죄인이 앞으로 더 조심하게 되고, 자기를 스스로 벌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응을 앞질러 막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을 저 하늘의 지고한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자리로 부를 때 충분히 큰 부끄러움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서 죄짓기를 그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악한 양심의 증인으로 모시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참 훌륭하게도 진보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제에게 고백을 하고 나면 입을 닦고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여길 때만큼 죄짓는 데 더 큰 대담함이나 방종이 생기는 일은 없다는 것을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해 내내 죄짓는 데 더 대담해질 뿐 아니라, 남은 한 해 동안 고백할 것을 믿고 마음을 놓아 결코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고 결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오히려 죄에 죄를 쌓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한꺼번에 다 토해 낼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 토해 내고 나면 짐을 벗은 것처럼 여기고, 사제에게 넘겨 준 심판을 하나님에게서 옮겨 왔다고 여기며, 사제에게 알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잊으셨다고 여깁니다. 또 누가 고백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쁘게 바라봅니까? 누가 기꺼운 마음으로 고백하러 갑니까? 오히려 목덜미를 잡혀 감옥으로 끌려가듯

마지못해 버티는 사람처럼 오지 않습니까? 혹시 사제 나부랭이들 자신은 예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을 서로 이야기하며 우스운 이야기처럼 즐기니 말입니다. 저는 귓속 고해에 가득한 괴물 같은 가증한 일들을 늘어놓느라 많은 종이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간음했다는 소문 하나 때문에 자기 교회에서, 아니 자기 사람들의 기억에서 고백을 없애 버린 저 거룩한 사람[426]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날 셀 수 없는 음행과 간음과 근친상간과 뚜쟁이 짓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우침을 받습니다.

36. 이제 열쇠의 권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백을 듣는 자들은 흔히 말하듯 자기들 나라의 뱃머리와 고물을 다 여기에 둡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열쇠는 까닭 없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8:18)는 말씀은 까닭 없이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열쇠가 주어진 데에는 중대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땅에서 맨 것과 푼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릴 것이라고 증언하시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둘은 뜻이 조금 다른데, 이 돼지들은 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듯 이것도 어리석고 무지하게 뒤섞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요 20:23).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려 할 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전에 베드로에게 약속되었던 천국 열쇠가 이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에게 약속되었던 것 가운데 여기서 모든 사람과 똑같이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마 16: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426. 앞 편(22절)에서 말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 넥타리우스를 가리킵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 주고, 이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문을 닫고 잠그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신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도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매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푸는 것은 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죄 사함으로 양심은 가장 단단한 족쇄에서 풀려나고, 반대로 죄를 그대로 둠으로써 가장 단단한 사슬에 매이고 묶입니다.

저는 교묘하지도 억지스럽지도 비틀지도 않은, 단순하고 참되고 CO 711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해석을 내놓겠습니다.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라는 이 명령과, 매고 풀라고 베드로에게 하신 저 약속은 말씀의 사역 말고 다른 것에 관련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당신의 사도들에게 맡기실 때 이 매고 푸는 직무도 함께 그들에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종인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풀려나고 해방된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를 해방자요 구속자로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슬에 정죄되어 넘겨진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신의 일을 사도들에게 맡겨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실 때, 그것이 당신의 것이요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요 당신이 명하신 것임을 확증하시려고 이 빛나는 증언으로 그것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사도들 자신에게도, 이 사신의 일이 이르게 될 듣는 이들에게도 특별한 위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전파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굳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 전파를 위해 끝없는 수고와 염려와 괴로움과 위험을 무릅써야 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자기들의 피로 그것을 인 쳐야 했습니다. 바로 그 전파가 헛되거나 공허하지 않고 권능과 능력으로 가득

하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큰 불안과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온 세상이 맞서고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 교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땅 위에서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분이 하늘에 계셔서 그 교리의 진리를 굳게 세워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말입니다. 또 듣는 이들에게도, 복음의 그 교리가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요, 땅에서 난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라는 것이 지극히 확실하게 증언되어야 했습니다. 죄 사함, 영생의 약속, 구원의 소식, 이런 것들은 사람의 권한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전파에서 사도들의 몫은 사역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들의 입을 도구처럼 삼아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이는 당신이시라는 것, 그들이 선포하는 죄 사함은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요 그들이 선언하는 정죄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라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모든 세대에 주어져 굳게 서 있어서, 복음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전하든 바로 하나님 자신의 판결이요, 지고한 심판대에서 공포되었고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하늘에서 확정되고 고정되고 굳게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고 든든하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쇠의 권세가 단순히 복음 전파이며, 사람들을 두고 보면 권세라기보다 사역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세를 엄밀히 말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 사역자로 삼으신 당신의 말씀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다른 대목은 마태복음(마 18:18)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제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그렇다고 우리

가 이 둘을 서로 깊은 관련과 닮음이 없을 만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둘이 어디서나 닮은 점은, 둘 다 일반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권세는 늘 같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명령도 같고 약속도 같습니다. 그러나 둘이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앞의 대목은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이 수행하는 전파에 관한 것이고, 이 대목은 교회에 맡겨진 출교의 권징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출교하는 사람을 맵니다. 그를 영원한 파멸과 절망에 던져 넣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과 행실을 정죄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미 그의 정죄를 그에게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풉니다. 이를테면 그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 됨에 참여하는 자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자들의 판단으로 정죄받았을 때 교회의 판단을 고집스럽게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신자들의 그런 판단이 다름 아닌 당신 판결의 공포이며, 그들이 땅에서 행한 것이 하늘에서도 확정된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패역한 자들을 정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돌이키는 자들을 은혜 안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잘못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어긋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은 불확실하거나 땅에 속한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하늘의 신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은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고 아마포 옷을 입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신실한 백성의 회중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지고 퍼져 있는 교회에 어떻게 무슨 고소를 가져갈 수 있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조롱꾼들의 말은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지역이나 지방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중에 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마 18:20 참조). 제가 생각하기에 간결하면서도 쉽고 참되게

풀이한 이 두 대목에서, 이 미친 자들은 아무 분별 없이, 자기들의 어지럼증에 휩쓸리는 대로, 어떤 때는 고백을, 어떤 때는 출교를, 어떤 때는 법을 만드는 권리를, 어떤 때는 면벌부를 세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제 나부랭이들은 사도들의 대리자도 후계자도 아니라는 칼 한 자루로 그들의 이런 요구 모두의 손잡이를 잘라 버린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른 곳에서 다룰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무엇보다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CO 713 모든 축조물을 무너뜨릴 공성추를 세우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매고 푸는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열쇠의 권세가 속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앞서 이끄시고 가르치시며 무엇을 해야 할지 일러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열쇠를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에게 성령이 있다고 허튼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합니다. 혹시 그들이 성령을 헛되고 하찮은 것으로 꾸며 낸다면 모를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꾸며 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성 기계로 그들은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그들이 어떤 문의 열쇠를 가졌다고 자랑하든, 언제나 그들에게 열쇠의 판정자요 다스리는 분이신 성령을 가졌는지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다고 대답하면, 다시 성령께서 잘못하실 수 있느냐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의 교리로 에둘러 그런 뜻을 넌지시 비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매이기를 바라신 것을 아무 분별 없이 여기저기서 풀고, 풀리라고 명하신 것을 매는 사제 나부랭이들에게는 아무도 열쇠의 권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37. 그들은 자기들이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풀고 맨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경험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자, 지식 없는 권세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바르게 쓰는 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감히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권세 자체는 악한 관리인들에게도 주어졌다고 씁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리라." 그리스도의 약속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은 바르게 매고 푸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매이거나 풀리는 사람의 공로에 따라 제한된다고 둘러댈 일도 아닙니다. 우리도 매이거나 풀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매이거나 풀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교회에게는 이 합당함을 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위에 정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 살인자, 탐욕을 부리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몫이 없다고 선언하고, 그런 자들을 지극히 확실한 사슬로 맵니다. 같은 말씀으로 교회는 돌이키는 자들을 위로하여 풉니다. 그러나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어야 할지 모르는 권세라니, 이것이 대체 무슨 권세입니까? 알지 못하면 매지도 풀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죄가 불확실한데 어째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위로 사한다고 말합니까? 아무 쓸모도 없다면 이런 상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무 쓸모도 없거나, 쓸모가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할 만큼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사제들 가운데 상당수가 열쇠를 바르게 쓰지 않으며, 정당한 사용이 없는 권세는 효력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하는 그 사람이 좋은 열쇠 관리인이라는 것을 누가 나에게 믿게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악한 자라면, 그에게 이 하찮은 관리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대에게서 무엇을 매거나 풀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나는 열쇠를 바르게 쓰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합당하다면 내가 그대를 사한다." 이 정도는, 그들이 공평한 귀로 참아 듣지 못할 테니 평신도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투르크 사람이나 마귀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렇게 말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확실한 사죄의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대의 공로가 그러하다면 그대를 사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열쇠를 분별하는 권위와 집행하는 권세라고 정의하고, 지식은 조언자로 곁에 붙어서 조언자처럼 바르게 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노렸는지 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없이 제멋대로 방자하게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열쇠를 그토록 많은 자물쇠와 문에 맞추어, 어떤 때는 자기들의 재판권에, 어떤 때는 고백에, 어떤 때는 교령에, 어떤 때는 저주 선고(devotiones)[427]에 쓰이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라고 주신 그 명령에서, 그분은 입법자도, 고백의 비서도, 교회 법정 관원도, 교황청 서기관도, 칙서 관리도 세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신 이들을 뛰어난 증언으로 꾸며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분이 매고 푸는 판단을 당신의 교회에 맡기실 때, 빚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존귀하신 주교관 쓴 자, 두 뿔 달린 자의 권위로 쫓아내고 몰아내며, 종을 울리고 촛불을 끄면서 온갖 저주에 넘기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교의 권징으로 악한 자들의 사악함을 바로잡으라고, 그것도 당신 말씀의 권위로,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교회의 열쇠는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로를 나누어 주는 일이며, 교황이 자기 칙서와 면벌부로 그것을 나누어 준다고 꾸며 내는 저 미친 자들은 논증보다 헬레보루스가 더 필요한 자들입니다.[428]

38. 면벌부를 논박하는 데 그리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공성추에 얻어맞아 저절로 늙어 가고 기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그것이

427. 라틴어 devotiones는 "경건 행사"로도 읽힐 수 있으나, 뒤에서 칼빈이 출교 때의 저주 예식을 들어 대답하므로 "저주 선고"로 옮겼습니다.
428. 헬레보루스(elleborus)는 고대에 광기를 다스리는 약으로 쓰던 풀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온전히 버티고, 그토록 고삐 풀리고 미친 듯한 방탕 가운데 그토록 오래 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오류의 밤에 잠겨 있었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과 그의 칙서 장수들이 드러내 놓고 숨김없이 자기들을 웃음거리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 영혼의 구원을 두고 돈벌이 장사가 벌어지는 것, 몇 푼 돈으로 구원의 값이 매겨지는 것, 값없이 내놓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핑계로 헌금을 빼앗기고, 그 헌금이 창녀들과 뚜쟁이들과 술잔치에 추하게 탕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면벌부를 가장 크게 나팔 부는 자들이 그것을 가장 크게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 괴물이 날마다 더 큰 방종으로 날뛰고 흥청거리면서 끝날 줄을 모른다는 것, 늘 새 납 인장이 나오고 새 돈이 짜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극한 공경으로 면벌부를 받아들이고, 숭배하고,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날카롭게 꿰뚫어 본 이들도,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경건한 속임수라고 여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9장 회개에 관하여 3

CO 1:715–72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715 [429]마침내 세상이 조금 지혜로워지자 면벌부는 식어 가고, 점점 얼어붙더니, 결국 아주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39. 그러나 면벌부 장수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를 웃음거리로 삼은 더러운 짓과 사기와 도둑질과 약탈을 많은 사람이 보면서도 불경건의 샘 자체는 알아보지 못하므로, 면벌부가 어떤 것인지만이 아니라 모든 얼룩을 닦아 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교회의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곳간을 지키는 근본 권한이 로마 감독에게 맡겨졌다고 꾸며 냅니다. 그토록 큰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 그는 몸소 그것을 베풀 수도 있고 베푸는 재판권을 다른 이들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에게서는 어떤 때는 완전 면벌부가, 어떤 때는 몇 해짜리 면벌부가 나오고, 추기경들에게서는 백 일짜리가, 감독들에게서는 사십 일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요 사탄의 농간이어서, 그리스도인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떼어 내고 참된 구원의 길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 사함과 화목과 속상에 넉넉하지 않다고 부인하고, 그 피가 마치 말라 버리고 바닥난 것처럼 그 모자람을 다른 데서 채우고 보태야 한다고 할 때보다 더 추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다"

429.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행 10:43)고 말합니다. 그런데 면벌부는 베드로와 바울과 순교자들을 통해 죄 사함을 베풉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요일 1:7)고 말합니다. 그런데 면벌부는 순교자들의 피를 죄를 씻는 것으로 만듭니다.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곧 죄에 대한 속상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고 말합니다. 그런데 면벌부는 죄의 속상을 순교자들의 피에 둡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외치며 증언했습니다(고전 1:13). 그런데 면벌부는 바울과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합니다(행 20:28). 그런데 면벌부는 순교자들의 피에 다른 값을 매겨 그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드리신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히 10:14)[430]고 말합니다. 그런데 면벌부는 그렇지 않으면 넉넉하지 않을 거룩하게 함이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고 맞서 외칩니다. 요한은 모든 성도가 어린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었다고 말합니다(계 7:14). 그런데 면벌부는 성도들의 피에 옷을 씻으라고 가르칩니다.

40. 로마 감독 레오는 이런 신성 모독에 맞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이렇게 썼습니다.[431] "주님 보시기에 많은 성도의 죽음이 귀했지만, 죄 없는 어느 누구의 죽임당함도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인들은 면류관을 받았지 준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용기에서 인내의 본보기가 생겨났지 의의 선물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은 저마다 하나씩이었고, 아무도 자기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주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셔서, 그분 안에서 모두가 십자가에

430. 원문에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10장 14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431. CO 편집자 각주는 레오의 서신 81을 출처로 둡니다.

못 박히고, 모두가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말이 기억할 만한 것이었으므로 다른 곳에서도 되풀이했습니다. 이 불경건한 교리를 찔러 쓰러뜨리는 데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같은 생각을 그에 못지않게 알맞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형제들을 위해 죽는다 해도, 어떤 순교자의 피도 죄 사함을 위해 흘려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일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432] "하나님의 아들만이 홀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것처럼, 그분만이 홀로 악한 공로 없이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선한 공로 없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41. 참으로 그들의 교리 전체가 끔찍한 신성 모독과 하나님 모독으로 기워져 있지만, 이것은 다른 것들보다 더욱 괴물 같은 하나님 모독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 아닌지 그들 스스로 인정해 보십시오. 순교자들은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더 많은 공로를 쌓았으며, 그들에게 공로가 그토록 넉넉히 남아돌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넘쳐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큰 선이 쓸데없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와 섞고, 그 둘로 죄 사함과 속상을 위한 교회의 보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것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고 한 말도 이렇게 알아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는 이름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무리 가운데서 겨우 알아볼까 말까 한 흔한 작은 성자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죄 사함과 속죄와 거룩하게 함을 얻는 일을 다룰 때에는, 그분 한 분,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전파하고, 그분 한

432. CO 편집자 각주는 이 인용의 출처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보니파키우스에게』 4권 4장을 듭니다.

분만을 내세우고, 그분 한 분만을 이름 부르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삼단 논법을 들어 봅시다. "순교자들의 피가 열매 없이 흘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교회의 공동선에 보태야 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기의 피로 그분의 진리에 서명하는 것, 이 세상의 삶을 멸시함으로써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찾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 자기의 굳셈으로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하고 원수들의 고집을 꺾는 것은 아무 열매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 한 분만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드려지셨다면, 그들은 아무 열매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42. 그런데 바울이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CO 717 남은 것을 채운다고 말하는 대목을 그들은 얼마나 악의적으로 비틉니까? 바울은 그 모자람이나 그 채움을 구속과 속상과 속죄의 일에 관련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 곧 모든 신자가 이 육신 안에 사는 동안 연단받아야 하는 고난에 관련짓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 안에서 한 번 고난받으신 것을 날마다 당신의 지체들 안에서 고난받으신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부르실 만큼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라고 덧붙인 것은 교회의 구속이나 화목이나 속상을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딤후 2:10). 또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슨 환난을 당하든 그것은 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 견디는 것이라고 썼습니다(고후 1:6). 그리고 그는 같은 곳에서 곧바로 자기 말을 풀이합니다.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구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경륜을 따라 그

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골 1:25 참조). 그들이 다른 해석자도 원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고, 온 몸으로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인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골 1:24)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는 그대가 누구이든 그대가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자들에게서 그대가 당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 받은 고난이 무엇을 바라보는지는 다른 곳에서 풀이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는 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양이니, 여러분의 값을 알아보십시오. 그 값은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바울이 의와 구원과 생명의 모든 충만함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무엇이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거나 무엇을 보태려 했다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토록 넉넉히 부어진 은혜의 넘침이 죄의 모든 힘을 훨씬 넘어섰다고 그토록 분명하고 웅장하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롬 5:15). 모든 성도는 자기 삶이나 죽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이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증언하는 대로입니다(행 15:11). 그러므로 어떤 성도의 존귀함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 말고 다른 데 두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괴물 같은 것들은 드러내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인데, 아직 모호한 일인 양 제가 왜 여기서 더 오래 머무르겠습니까?

43. 이제 이런 가증한 일들은 지나치기로 하고,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나누어 주기를 바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납과 양피지에 가두라고

누가 교황에게 가르쳤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면벌부가 거짓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풍성한 복과 함께, 당신의 모든 공로와 모든 의와 지혜와 은혜와 함께, 아무 예외 없이 우리에게 제시되신다는 것은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는 화목의 말씀이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맡겨졌다고 말합니다(고후 5:18). 그래서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권하시듯 이런 사신의 형식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와 달리 면벌부는 교황의 장롱에서 꺼낸 은혜의 몇 몫을 납과 양피지에, 또 장소에까지 붙박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떼어 냅니다. 누가 그 기원을 묻는다면, 이 남용은 여기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한 속죄 행위(satisfactio)가 부과되었을 때, 자기에게 부과된 회개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낀 사람들은 교회에 감면을 청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면제를 "관용"(indulgentia)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죄 행위를 하나님께로 옮겨 놓고,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를 속량하는 배상이라고 말하게 되자, 동시에 면벌부도 그쪽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마땅한 형벌에서 풀어 주는 속죄의 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저 하나님 모독들은 그토록 뻔뻔하게 꾸며 낸 것이어서, 아무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44. 그들은 회개의 셋째 자리를 속죄 행위에 줍니다. 그것에 관해 그들이 지껄이는 것은 무엇이든 한마디로 뒤엎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지난 악을 그치고 행실을 더 낫게 고치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고, 이미 저지른 것에 대해 주님께 속죄 행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속량할 수단이 많이 있으니, 눈물과 금식과 헌물과 사랑의 의무들이다. 이것들로 주님을 달래야 하고, 이것들로 하나님의 의에

진 빚을 갚아야 하며, 이것들로 잘못을 배상해야 하고, 이것들로 용서를 얻어 내야 한다. 주님께서 넘치는 긍휼로 죄책은 사하셨어도, 의의 질서에 따라 형벌은 남겨 두시기 때문이다.[433] 이 형벌이 속죄 행위로 속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요점으로 돌아갑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으로 잘못에 대한 용서를 얻기는 하지만, 행위의 공로가 끼어들어 그것으로 죄의 해가 배상되고 하나님의 의에 마땅히 드려야 할 속상이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들에 맞서 저는 값없는 죄 사함을 내세웁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전파되는 것은 없습니다(사 53; 롬 5:15 이하; 골 2:13 이하). 첫째, 사함이란 순전한 너그러움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돈을 받았다고 영수증으로 증언하는 채권자를 두고 빚을 사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갚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의 선의로 빚 문서를 지워 버리는 채권자를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속상에 대한 모든 생각을 CO 719 없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값없이"라는 말이 덧붙었겠습니까? 그러니 이토록 강한 벼락에 쓰러지는 자기들의 속죄 행위를 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아직도 세웁니까? 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 43:25)고 외치실 때, 당신께서 사하시는 까닭과 근거를 오직 당신의 선하심에서 찾으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리스도께 증언을 돌리는데(행 10:43), 그것은 다른 모든 이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속죄 행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까? 그들은 속죄 행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 행위가 끼어들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고 둘러댈 수도 없습니다.[434] 성경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433. CO 편집자 각주는 이 대목의 출처로 롬바르두스의 『명제집』 3권 19구분을 듭니다.

434. [원문의심] 원문은 "neque per satisfactionum nomen accipi negent, sed per Christi nomen etiam si intercedant satisfactiones"로 되어 있어 문장 첫머리가 깨진 듯합니다. 앞뒤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천거에 기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셨다"(고후 5:19)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45. 그들의 패역함으로 보아, 저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죄 사함과 화목은 우리가 세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질 때 단 한 번 이루어진다. 세례 뒤에는 속죄 행위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의 열쇠로 나누어지는 만큼만 유익하다. 그런데 제가 왜 두렵다고 말합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스콜라 신학자들이 모두 아주 분명한 글로 자기들의 더러움을 드러냈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선생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서 죄의 형벌을 치르셨다고 고백한 뒤에, 곧바로 예외를 붙여 그 명제를 고칩니다. 곧 세례에서는 죄의 모든 일시적 형벌이 면제되지만, 세례 뒤에는 회개의 덕분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회개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요일 2:1, 12). 그는 분명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제시하면서, 노하신 하나님을 달래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속상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와 한 번 화목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를 위해 다른 화목의 방법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영원한 대언자로 세웁니다. 그분은 당신의 간구로 우리를 늘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문맥에 따라 그들이 이렇게 둘러댈 수 없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되돌려 놓으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을 죄를 씻는 영원한 화목제물로 세웁니다. 다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라고 말한 것은 영원히 참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다른 이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므로, 그분 한 분만이 죄를 위한 제물이시요, 그분 한 분만이 속죄이시요, 그분 한 분만이 속상이십니다.

46. 여기서 두 가지를 깊이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그분의 영예가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양심이 죄 용서에 대해 마음을 놓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다고 말합니다(사 53:4, 6). 베드로는 이것을 다른 말로 되풀이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당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벧전 2:24).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의 육신에 죄가 정죄되었다고 씁니다(롬 8:3).[435] 곧 그분이 제물로 드려지셨을 때 죄의 힘과 저주가 그분의 육신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모든 무더기가 그 저주와 증오와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사망의 정죄와 함께 그 제물 위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는 처음 정결하게 된 뒤에는 우리 각 사람이 속죄 행위로서의 회개의 분량만큼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력을 느낀다는 저 허튼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속상으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그들의 해로운 잡소리를 그대 앞에 놓아 보십시오. "처음 죄 사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일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넘어지면 두 번째 용서를 얻는 데에는 우리의 행위가 함께 일한다." 이것이 통한다면, 앞에서 그리스도께 돌린 것들이 그분께 온전히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씻기도록 그분께 담당시켜졌다는 것과 우리의

435. 원문에는 장 번호만 남고 절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Rom. 8,"). 인용한 말씀에 따라 8장 3절로 적었습니다.

행위로 씻긴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을 행위로 달래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나게 다릅니까? 그리고 양심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두고 말하자면, 죄가 속죄 행위로 속량된다는 말을 듣는 양심에게 이것이 대체 무슨 평안이겠습니까? 양심이 언제 속죄 행위의 분량을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로우신지 늘 의심하고, 늘 들끓고, 늘 떨 것입니다. 가벼운 작은 속죄 행위들에 만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치게 업신여기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거의 헤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당한 속죄 행위로 죄 몇 가지를 속량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백 번의 삶을 모두 거기에 바친다 해도 그 속죄 행위로 넉넉하지 않을 만큼 많은 죄에 짓눌려 있을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47. 여기서 그들은 어리석은 구별을 피난처로 삼아 달아납니다. 어떤 죄는 소죄(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벼운 죄)이고 어떤 죄는 대죄(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무거운 죄)라고 합니다. 대죄에는 무거운 속죄 행위가 따라야 하고, 소죄는 주기도문, 성수 뿌리기, 미사의 사죄 같은 더 쉬운 치료책으로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놀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죄와 대죄를 늘 입에 달고 살면서도, 아직 그 둘을 서로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의 불경건과 더러움을 CO 721 소죄로 만드는 것 말고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의와 불의의 규칙으로 가르치는 대로) 죄의 삯은 사망이며(롬 6:23),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 마땅하다(겔 18:20)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사망을 받아 마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요(롬 8:1), 그 죄가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기 때문이요, 용서로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의 이 가르침을 얼마나 부당하게

헐뜯는지 압니다. 그들은 이것이 죄는 모두 똑같다는 스토아 학파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아주 쉽게 논박당할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들이 대죄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가볍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똑같이 대죄인 죄들이 곧 똑같은 죄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죄의 삯은 사망이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요, 범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정해 두었으므로, 그들은 이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죄의 무더기 속에서 그들은 속죄 행위로 어떤 출구를 찾겠습니까? 죄 하나에 대한 속죄 행위가 하루 걸린다면, 그것을 궁리하는 동안 그들은 더 많은 죄에 휘말립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몇 번씩 넘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하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속죄 행위에 나서는 동안, 많은, 아니 셀 수 없는 죄를 쌓을 것입니다. 이제 속죄 행위에 대한 신뢰는 잘려 나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꾸물거립니까? 어떻게 아직도 감히 속죄 행위를 생각합니까?

48. 그들은 빠져나가려고 애쓰지만, 흔히 하는 말처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결국 그들은 형벌과 죄책을 구별하는 것을 꾸며 냅니다. 죄책은 하나님의 긍휼로 사하여진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죄책이 사하여진 뒤에도 하나님의 의가 치르라고 요구하는 형벌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속죄 행위는 엄밀히 말해 형벌의 사함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무슨 이리저리 건너뛰는 경박함입니까? 그들은 기도와 눈물과 온갖 다른 준비로 얻어 내야 한다고 자꾸 가르치던 죄책의 사함이 이제는 값없이 내놓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 사함에 관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여전히 이 구별과 정면으로 맞섭니다. 이것을 제가 이미 넘치도록 확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다른 증언을 덧붙이겠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뱀들이 그것에 꽁꽁 묶여서 앞으로는 꼬리 끝조차 감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은 이것입니다. 곧 당신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렘 31:31, 34). 이 말씀으로 그분이 무엇을 뜻하셨는지는 다른 선지자에게서 배웁니다(겔 18:24, 21–22).[436] 거기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그 의에서 떠나면 나는 그의 모든 의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나는 그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 그것을 갚아 주려고 조금도 셈에 넣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그 죄를 형벌로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같은 것을 두고, 등 뒤로 던지신다, 구름처럼 지우신다,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신다, 돌리지 않으신다, 가려 두신다고 말합니다(사 38:17; 미 7:19; 시 32:1). 우리가 성령께 고분고분한 귀를 기울이기만 했다면, 성령께서는 이런 말씨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모호하지 않게 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면 돌리시는 것이고, 보응하시면 기억하시는 것이고, 심판으로 부르시면 가려 두지 않으신 것이고, 살피시면 등 뒤로 던지지 않으신 것이고, 들여다보시면 구름처럼 지우지 않으신 것이고, 키질하시면 바다 깊은 곳에 던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분명한 말로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셨다면, 눈여겨보려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눈여겨보려 하지 않으셨다면, 문책하려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문책하려 하지 않으셨다면, 벌하려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알아보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기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려진 죄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신다는 것은 벌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죄를 사하시는지 들어 봅시다(사 1:18).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436. 원문에는 “에스겔 18장 24절, 34절”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은 32절까지 있고, 악인이 돌이키면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18장 21–22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같이 되리라.” 예레미야에게서는 이렇게 읽습니다(렘 50:20). “그날에는 야곱의 죄악을 찾아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도 없으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들의 뜻을 짧게 붙잡고 싶습니까? 반대로 이런 말씨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따져 보십시오. 주님께서 죄악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뭉치로 묶어 쌓아 두시며, 쇠 철필로 금강석에 새기신다는 말씀입니다(욥 14:17; 호 13:12; 렘 17:1). 그런 말씨들이 보응이 갚아질 것을 뜻한다면(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대의 말씀들로 보응을 갚는 모든 일을 면제하신다고 단언하신다는 것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독자들에게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저의 주석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간 자리를 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49. 묻습니다. 아직도 죄 때문에 형벌을 요구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나무에 달려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할 때(벧전 2:24), 그것은 그분이 우리 죄에 마땅히 돌아올 형벌과 보응을 치르셨다는 것 말고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같은 것을 더 뚜렷하게 밝혀,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벌, 곧 바로잡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사 53:5). 그런데 우리의 평화를 위한 바로잡음이란, 그분이 우리 자리에 서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 죄에 마땅히 돌아와 우리가 치러야 했을 형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죄의 형벌에서 건져 내시려고 그 형벌을 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을 CO 723 언급할 때마다 흔히 그것을 ἀπολύτρωσις라고 부릅니다(롬 3:24; 고전 1:30; 엡 1:7; 골 1:14; 딤전 2:6).[437] 이 말로 그는 흔히 알아듣는 대로의 구속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값 자체와 속상을 가리킵니다. 같은 까닭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437. 원문에는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ἀντίλυτρον으로 주셨다는 말씀은 2장 6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ἀντίλυτρον(대속물)으로 주셨다고 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화목이란 제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사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를 위해 드려진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서 죄의 해를 속죄하는 일에 관해 규정한 것은 무엇보다 강력한 공성추를 우리에게 줍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속죄 행위의 방식을 정하지 않으시고, 모든 배상을 제사에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는 거기서 모든 속죄 의식을 지극히 꼼꼼하고 지극히 정확한 순서로 하나하나 다 다루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분은 저지른 잘못을 어떤 행위로도 다루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속죄를 위해 오직 제사만을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를 달래는 속상의 종류는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제사는 사람의 행위로 여겨지지 않고, 그 실체, 곧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에 따라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배상을 받으시는지는 호세아가 짧은 말로 멋지게 표현했습니다(호 14:2).[438] “하나님이여, 모든 죄악을 제하소서.” 보십시오,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송아지를 드리리이다.” 보십시오, 속상입니다. 저는 그들이 영원한 형벌과 일시적 형벌을 구별하면서 더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사망만 빼고 하나님께서 몸에든 영혼에든 내리시는 어떤 징벌이든 일시적 형벌이라고 가르치므로, 이 제한은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용한 앞의 대목들은 바로 이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책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이 무엇이든 그것을 면제하신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죄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은 형벌도 함께 면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는 마음이 그들을 그리로 몰아갑니다.

438. 원문에는 “호세아 14장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또 그들이 주님의 긍휼을 약속할 때에는 거의 언제나 드러내 놓고 형벌과 그 사함에 관해 설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겠다고, 그것도 유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실 때(겔 36:22, 32), 그분은 둘 다 값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 주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책에서 풀려난다면, 거기서 생기는 형벌도 그쳐야 합니다.

50. 그러나 그들도 성경의 증언으로 자기들을 무장하므로, 그들이 내세우는 논거가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 때문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 뒤에 간음으로 얻은 아들의 죽음으로 벌을 받았다(삼하 12:1 이하). 우리는 죄책이 사하여진 뒤에도 내려질 그런 형벌을 속죄 행위로 속량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구제로 죄를 속량하라고 권했기 때문이다(단 4:27).[439] 또 솔로몬은 공평과 경건으로 죄악이 사하여진다고 쓰고(잠 16:6), 다른 곳에서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도 쓴다(잠 10:12). 베드로도 이 말씀을 확증한다(벧전 4:8). 또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여자를 두고 그가 많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신다(눅 7:47).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비뚤어지고 거꾸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곧 하나님의 심판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여겨보았다면, 다윗에게 내린 이 책망에서 보복을 겨냥한다고 여겨야 할 형벌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형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문책하시는 징계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분노로 불경건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쫓으시는 본보기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게 중요하므로, 이것을 요약해서 짚어 보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기 위해 하나를 보응의 심판, 다른 하나를

439. 원문에는 “다니엘 4장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56절의 같은 인용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징계의 심판이라고 부릅시다. 보응의 심판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셔서, 그들을 향해 당신의 진노를 쏟으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흩으시고, 없는 것으로 만드신다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벌이 그분의 분노와 결합되어 있는 곳, 이것을 우리는 엄밀한 뜻에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합시다. 징계의 심판에서 그분은 노하실 만큼 사납게 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보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밀히 말해 징벌이나 보응이 아니라 바로잡음과 경고입니다. 앞의 것은 재판관의 일이고, 뒤의 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재판관은 범죄자를 벌할 때 그 범죄 자체를 문책하고 그 악행 자체에 대해 형벌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엄하게 바로잡을 때 보응하거나 벌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고 앞으로 더 조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어디선가 조금 다른 비유를 쓰지만, 결국 같은 데로 돌아갑니다. “아들도 매를 맞고 종도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종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종으로서 벌을 받고, 아들은 권징이 필요한 자유인이요 아들로서 징계를 받습니다. 아들에게는 책망이 시험과 고침이 되고, 종에게는 채찍과 형벌이 됩니다.”

51. 이 문제 전체를 짧고 쉽게 붙잡기 위해, 첫째 구별을 이렇게 세웁시다. 형벌이 보복을 위한 것인 곳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드러납니다. 그분은 그것을 언제나 신자들에게서 거두어 두십니다. 반대로 징계는 하나님의 복이며 사랑의 증거를 지니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욥 5:17; 잠 3:11; 히 12:5). 이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든 이를테면 지옥의 앞뜰처럼 우리에게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영원한 정죄를 이미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고쳐지거나 무슨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전주곡으로 마침내 자기들을 기다리는 가장 혹독한 혼란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시 118:18)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징계하시되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매를 맞은 이들은 그것이 참된 배움에 자기들에게 유익했다고 고백합니다(시 119:71).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형벌은 어디서나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읽는 것처럼, 앞의 종류의 채찍은 언제나 CO 725 간절히 피하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렘 10:24).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시 6:1; 38:1).[440]

52. 주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의 죄를 문책하실 때 그들에게 노하신다고 꽤 자주 말한다고 해서 걸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사 12:1). 또 하박국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합 3:2). 같은 방식으로 그분이 당신의 기업을 더럽히신다고도 말합니다(사 42:24; 47:6).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그 기업을 영원히 더럽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엄하심을 어떤 모양으로든 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격심한 고통의 느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신의 신자들을 적잖은 엄격함으로 찌르실 뿐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지옥의 멸망에서 멀지 않다고 여길 만큼 상처를 입히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증언하시지만, 바로 그 일에서

440. 원문에는 "시편 6편 2절, 38편 2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진노보다는 관용의 증거를 더 뚜렷하게 내보이십니다. 우리의 참 솔로몬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굳게 서 있고, 속이실 수 없는 분이 그 언약의 신실함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단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리라" (시 89:30 이하).[441] 그리고 이 긍휼을 우리에게 더 확신시키시려고, 솔로몬의 후손을 책하실 매는 사람의 막대기요 그 채찍은 사람의 아들들의 채찍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삼하 7:14). 이런 말들로 그분은 절제와 너그러움을 나타내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극도의 치명적인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 주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이 너그러움을 얼마나 헤아리시는지는 선지자에게서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에서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다면 너는 송두리째 없어졌을 것이다" (사 48:10). 그분은 징계가 그에게 정결하게 하는 일이 된다고 가르치시면서도, 그 징계 자체를 당신께서 조절하셔서 그가 그 징계로 지나치게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덧붙이십니다.

53. 그다음에 둘째 구별을 이렇게 세웁시다.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의 채찍에 맞을 때, 그들은 이미 어떤 면에서 그분의 심판에 따라 형벌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 주는 그런 증거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더 나은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크나큰 화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재판관이요 보응하시는 분으로 겪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하나님께 범죄의 벌금을 치르려고 매를 맞는

441. 원문에는 "시편 89편 31절 이하" 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회개에 나아가게 하려고 매를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매가 지나간 때보다 오히려 앞으로 올 때를 바라본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것을 제 말보다 크리소스토무스의 말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형벌을 지우십니다. 죄에 대해 징벌을 받아 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을 위해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당하는 것, 그대를 탄식하게 하는 것은 그대에게 약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징계이지 정죄가 아닙니다. 기업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거든 채찍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등. “형제 여러분, 세상이 탄식하는 인류의 이 모든 비참함은 고치는 아픔이지 벌하는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등. 제가 쓴 말씨가 새롭거나 덜 쓰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 말들을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사울을 왕위에서 내치셨을 때에는 보응으로 벌하셨고, 다윗에게서 어린 아들을 빼앗으셨을 때에는 고치려고 책망하셨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1:32)고 말하는 것도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손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징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명히 우리 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똑같이 징계하시는 형벌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는 죄 사함 뒤의 싸움이요 연단이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사함 없는 죄악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 다른 경건한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그들의 경건이 이런 낮아짐으로 연단받고 시험받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유대 백성이 주님의 손에서 넉넉한 징계를 받았으므로 그 죄악이 사하여졌다고 말하는 것도(사 40:2), 죄 용서가 형벌을 치르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형벌은 충분히 받았다. 그 형벌이 무겁고 많아서 너희는 이미 오랜 슬픔과 근심에 지쳤으니, 이제 온전한 긍휼의 소식을 받고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활짝 펴질 때가 되었다."

54. 신자는 쓰라린 고난 가운데서 이런 생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벧전 4:17).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엄하심을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맞고서 하나님을 벌하시는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을 자기에게 노하시고 자기를 대적하시는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채찍 자체를 저주와 정죄로 여겨 몸서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기를 벌하려 하실 만큼 자기에게 마음을 품고 계신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악에는 노하시지만 자기에게는 은혜로우시고 호의를 품으신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유익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가 자기가 겪었다고 탄식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CO 727 "하나님이여,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나이다"(시 88:16).[442] 또 모세가 쓴 일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모든 해가 입에서 나간 말처럼 사라졌나이다"(시 90:7). 반대로 아버지의 징계에 관해서는, 신자들이 그것으로 짓눌리기보다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서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442. 원문에는 "시편 88편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시 94:12). 형벌이 영원한 것이든 일시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질병은 유기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진노와 보응의 도구가 되도록 내려질 때에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 자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55. 이제 (제가 잘못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내리신 주님의 저 문책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곧 살인과 간음이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에 대해 그토록 큰 노여움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다윗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 앞으로 그런 악행을 감히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어떤 배상을 치르는 형벌이 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이 백성을 계수할 때 저지른 불순종 때문에 백성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신 다른 책망(삼하 24:15)도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죄의 해를 값없이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행이 벌받지 않고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것이 모든 세대를 위한 공적인 본보기가 되는 데에도, 다윗 자신을 낮추는 데에도 필요했으므로, 그분은 당신의 채찍으로 그를 몹시 혹독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류 전체에 내린 저주에서도 같은 목적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얻었는데도, 죄의 형벌로 우리 조상에게 선고되었던 비참함을 여전히 모두 겪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율법을 범하는 것을 얼마나 무겁게 불쾌히 여기시는지 깨우침을 받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꺾이고 낮아져서 참된 복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삶의 재난이 죄의 해에 대한 값으로 우리에게 지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없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렇게 썼을 때 바로 이것을 뜻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회개로 부르시려고 형벌을 내리신다면, 회개를 보인 뒤에는 이제 형벌이 쓸데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각 사람의 기질에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더 혹독하게, 저 사람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다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대체로 징계가 필요할 만큼 미련하고 완고하므로, 모든 것을 지극히 멀리 내다보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평생 공통의 채찍으로 연단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어째서 다윗의 한 가지 본보기에만 이렇게 눈을 박고, 값없는 죄 사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많은 본보기에는 움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눅 18:14). 아무 형벌도 따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잘못에 대한 용서를 얻었습니다(눅 22:61). 암브로시우스는 "우리는 그의 눈물은 읽지만, 그의 속죄 행위는 읽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도 "일어나라, 네 죄가 사하여졌다"(마 9:2)는 말씀을 듣습니다. 형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모든 사죄는 값없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무엇인지 모를 특별한 것을 담고 있는 저 하나의 본보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본보기에서 규칙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56.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의로 그의 죄를 속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의 죄악을 속량하라고 권했을 때(단 4:27), 그는 의와 긍휼이 하나님을 달래는 화목이요 형벌의 속량이라는 뜻으로 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말고 다른 ἀπολύτρωσις가 있었던 적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속량하다"를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관련지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불의하고 포악한 통치를 행하여 비천한 자들을 억누르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당신의 백성을 가혹하고 불의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제 불의한 수탈과 포악과 억압 대신에 긍휼과 의를 돌려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지만(잠 10:12),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절 전체는 이렇습니다. "미움은 다툼

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 절에서 그는 늘 하던 대로 대조법을 써서 미움에서 생기는 악과 사랑의 열매를 비교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자들은 번갈아 물어뜯고, 헐뜯고, 꾸짖고, 찢고, 모든 것을 나쁘게 돌립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많은 것을 못 본 체하고, 많은 것을 눈감아 주고, 많은 것을 서로 용서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악을 옳다고 해서가 아니라, 참아 주고, 헐뜯어 상처를 덧나게 하기보다는 권면하여 고쳐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대목을 같은 뜻으로 인용했다는 것도(벧전 4:8)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성경을 더럽히고 교활하게 비튼 자로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긍휼과 인자로 죄가 속하여진다고 가르칠 때(잠 16:6), 그것은 그런 것들로 주님 앞에서 배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런 속죄 행위로 달래지셔서 그렇지 않으면 요구하셨을 형벌을 면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이 흔히 말하는 방식대로, 이전의 악과 사악함에 작별을 고하고 경건과 진실로 그분께 돌아서는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악행을 그칠 때 주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그분의 심판이 그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씨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1539–1554년판 제9장 회개에 관하여 4

CO 1:729–73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729 57. 누가복음의 대목(눅 7:36–50)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님께서 거기서 내놓으신 비유를 건전한 판단으로 읽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대목을 가지고 우리와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그토록 쉽게 당신께 받아들이신 그 여인을 주님께서 알아보지 못하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그 여인이 실제로 그러했던 대로 죄인임을 아셨다면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근거로, 그런 식으로 속을 수 있는 이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죄를 용서받은 그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비유를 내놓으셨습니다. 한 채권자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십을, 다른 하나는 오백을 빚졌고, 두 사람 다 빚을 탕감받았다. 누가 더 큰 고마움을 품겠느냐?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주님께서 덧붙이십니다. 이것으로 이 여인이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아라.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보듯이,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여인의 사랑을 죄 용서의 원인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증거로 삼으십니다. 이 말씀은 오백을 탕감받은 그 채무자의 비유에서 가져온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탕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탕감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비유에 맞추어 이런 꼴로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너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는 그 여인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았어야 했다. 그 여인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은택에 감사를 돌리는 그 사랑이 네게 죄 용서를 믿게 해 주었어야 했다.

이것은 뒤에서 오는 논증(a posteriori), 곧 뒤따르는 표지로 어떤 것을 증명하는 논증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슨 방법으로 죄 용서를 얻었는지는 주님께서 분명히 증언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를 얻고, 사랑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증언합니다.

58. 옛 사람들의 글에 여기저기 나오는 속죄 행위(satisfactio)에 관한 말들은 저를 별로 흔들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솔직히 말하자면 책이 남아 있는 거의 모든 이가, 이 부분에서 넘어졌거나 지나치게 거칠고 딱딱하게 말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이 새 속죄 행위꾼들이 읽는 그런 뜻으로 그 말들을 쓸 만큼 그렇게 무지하고 서툴렀다고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씁니다. “자비를 간청하는 곳에서는 심문이 그칩니다. 자비를 구하는 곳에서는 심판이 맹위를 떨치지 않습니다. 자비를 비는 곳에는 형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비가 있는 곳에는 아무 신문도 없습니다. 자비가 있는 곳에서는 대답이 면제됩니다.” 이 말을 아무리 비틀어도 스콜라 신학자들의 교리와는 결코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이 붙은 『교회 교리론』에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회개의 속죄 행위란 죄의 원인을 잘라 내고, 죄의 부추김에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시대에도, 저지른 죄에 대한 값으로 치른다고 하던 속죄 행위의 교리가 곳곳에서 조롱받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모든 속죄 행위를 앞으로 죄를 삼가도록 조심하는 것에 돌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크리소스토무스가 가르치는 것, 곧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당신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서 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그의 글과 다른 이들의 글에 거듭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딘가에서 자비의 행위를 죄 용서를 얻는 치료책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작은 낱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자신이 다른 곳에서 막아 섭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죄를 위한 참되고 유일한 제물입니다. 세례에서 모두 지워지는 죄만이 아니라 그 뒤에 연약함으로 슬며시 들어오는 죄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죄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그 죄들은 그 유일한 제물로 용서받습니다."

59. 그런데 그들이 대개 속죄 행위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 갚아 드리는 보상이 아니라 공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출교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 교제에 다시 받아들여지기를 원할 때, 그것으로 자기의 회개를 교회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정해진 금식과 그 밖의 것들이 부과되었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자기가 이전의 삶을 참으로 진심으로 싫어하게 되었음을 입증하거나, 오히려 이전 일의 기억을 지워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교회에 속죄 행위를 한다고 일컬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도『라우렌티우스에게 보낸 신앙 요람』에서 바로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443] 그 옛 의식에서 오늘날 쓰이는 고해와 속죄 행위가 생겨났습니다. 참으로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저 더 나은 옛 형태는 그림자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 사람들이 때때로 좀 거칠게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들이 어쩌면 넘어졌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 작은 얼룩이 묻어 있던 것도 이자들의 씻지 않은 손이 다루자 아주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옛 사람들의 권위로 싸워야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 그들은 어떤 옛 사람들을 우리에게 들이댑니까? 그들의 우두머리인 롬바르두스가 자기의 누더기 조각글을 엮어 짠 재료의 상당 부분은,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크리소스토무스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어떤 수도사들의 어리석은 헛소리에서 뜯어 온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주제에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회개론』에서 가져옵니다. 이 책은 어떤

443. CO 편집자 각주에는 이 대목이「신앙 요람」65장이며, 교령집「회개론」제1구분 "In actione" 장에도 인용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짜깁기꾼이 좋은 저자들과 나쁜 저자들에게서 똑같이 서툴게 기워 모은 것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을 앞에 내걸고 있지만, 웬만큼만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도 그의 것으로 인정해 줄 가치가 없다고 여길 책입니다. 이 속죄 행위의 교리에서 면벌부가 솟아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속죄 행위를 하기에 모자라는 것을 면벌부로 채운다고 그들은 허튼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면벌부는 앞에서 넉넉히 꼼꼼하게 따져 보았으므로, 이제 그만 놓아 두기로 합시다.

CO 731 60. 더 나아가 그들이 자기들의 열쇠를 그토록 많은 자물쇠와 문에 맞추어, 때로는 자기들의 재판권에, 때로는 고해에, 때로는 규정에, 때로는 저주 선고에 쓰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일에 관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요 20:23)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입법자로, 고해의 비서로, 교구 법관으로, 교황청 문서 담당자로, 칙서 담당자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던 이들을 뛰어난 증언으로 꾸며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마 18:18) 그리스도께서 매고 푸는 권한을 당신의 교회에 맡기실 때, 주교관을 쓴 자나 두 뿔 모자를 쓴 어떤 존귀하신 분의 권위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을 내쫓고 몰아내며, 종을 울리고 촛불을 꺼서 온갖 저주에 넘기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출교의 권징으로 악한 자들의 사악함을 바로잡되, 그것도 당신의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사역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교회의 열쇠가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로를 나누어 주는 일이며 교황이 자기 칙서와 면벌부로 그것을 나누어 준다고 꾸며 내는 저 미친 자들은 논증보다 헬레보루스가 더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444] 앞에서 충분히 분명한 이유를 들어 밝혔습니다.

61.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연옥으로도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옥은 이 도끼로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기초부터 완전히 뒤엎어졌기

444. 헬레보루스(elleborus)는 옛사람들이 광기를 다스리는 약으로 쓰던 풀입니다.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모르는 체해야 하며 연옥 이야기는 빼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 말로는 연옥에서 격렬한 싸움이 생겨날 뿐 덕을 세우는 데는 거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것이 심각한 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하찮은 것들은 내버려 두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옥은 많은 신성 모독으로 세워졌고 날마다 새로운 신성 모독으로 떠받쳐지고 있으며, 많은 큰 걸림돌을 일으키므로, 참으로 눈감아 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호기심 많고 대담한 무모함으로 꾸며 낸 것이라는 점, 사탄의 술책으로 지어낸 무슨 계시들로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점, 그것을 굳히려고 성경의 몇 대목을 서툴게 비틀었다는 점은 어쩌면 한동안은 그럭저럭 모르는 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사람의 대담함이 이렇게 당신의 심판의 숨겨진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가볍게 참지 않으시고, 당신의 음성을 무시하고 죽은 자들에게서 진리를 묻는 것을 엄하게 금하셨으며(신 18:11), 당신의 말씀이 그렇게 불경건하게 더럽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이 대단치 않은 일로서 한동안 참아 줄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죄의 속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데서 찾고 속상을 다른 데로 옮기는 곳에서는, 침묵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만이 아니라 목구멍과 옆구리의 힘을 다하여 외쳐야 합니다. 연옥은 사탄이 지어낸 파멸의 거짓말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뒤엎는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연옥이란 죽은 이들의 영혼이 죽은 뒤에 죄를 위해 치르는 속죄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속죄 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허물어지면 연옥도 곧바로 뿌리부터 뒤엎어집니다. 바로 앞의 논의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들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상이요 속죄요 씻음이라는 것이 더없이 분명해졌다면, 연옥이 순전한, 그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무서운 신성 모독일 뿐이라는 것 말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연옥을 날

마다 변호하는 데 쓰이는 신성 모독의 짓들, 연옥이 경건(religion)에 낳는 걸림돌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불경건의 샘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는 그 밖의 수없는 것들은 지나가겠습니다.

62. 그렇지만 그들이 거짓되고 그릇되게 낚아채곤 하는 성경 대목들은 그들의 손에서 떨어 내는 것이 수고할 만한 일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단언하실 때(마 12:32; 막 3:28; 눅 12:10), 그것으로 어떤 죄들은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을 넌지시 알리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서 죄의 허물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그들의 연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연옥에서는 죄의 형벌을 치르고, 허물은 이 세상의 삶에서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들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는 우리에게 떠들어 대지 않도록, 더 분명한 해답을 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흉악한 사악함에 용서의 모든 소망을 끊으려 하셨을 때,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더 강조하시려고 나누어 말하는 법을 쓰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느끼는 심판과, 부활 때 공개적으로 내려질 마지막 심판을 함께 아우르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악의에 찬 반역을, 바로 눈앞에 닥친 멸망을 피하듯이 조심하라. 내밀어진 성령의 빛을 일부러 끄려고 애쓴 사람은, 죄인들에게 돌이키라고 주어진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양을 염소에게서 갈라내고 하늘나라에서 모든 걸림돌을 쓸어 낼 마지막 날에도 용서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들은 마태복음에서 저 비유를 내놓습니다(마 5: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옥리는 옥에 넘길 것이다. 너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재판관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자가 마귀를, 옥리가 천사를, 옥이 연옥을 뜻한다면 저는 기꺼이 손을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공평하고 선하게 처리하기보다 고집스럽게 법의 끝까지 따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화에 자기를 내맡기는지를 보여 주시려 했고, 그렇게 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더 힘써 공평한 화목으로 권하려 하셨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분명하다면, 묻건대 거기 어디에서 연옥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CO 733 63. 그들은 또 바울의 말에서 논거를 찾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무릎이 그리스도께 꿇는다고 단언합니다(빌 2:10). 그들은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영원한 정죄에 넘겨진 자들을 뜻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된 것으로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남는 것은 그들이 연옥에서 고생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가 무릎 꿇는 것으로 참된 경건의 예배를 가리켰다면 그들의 추론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께 모든 피조물을 굴복시킬 통치권이 맡겨졌다는 것을 그저 가르칠 뿐이므로,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마귀들로 이해하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귀들도 분명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져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들의 재판관을 알아볼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다른 곳에서 같은 예언을 이렇게 풀이합니다(롬 14:10–11).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계 5:13)[445]은 그런 식으로 풀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점은 저도 쉽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어떤 피조물들이 열거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성이 없는 것들과 생명이 없는 것들까지 들어 있다는

445. 원문에는 "계 5:3"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계 5:13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것은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늘 꼭대기에서 땅 한가운데까지 세상의 각 부분이 저마다 제 방식으로 창조주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단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카베오서의 역사(마카베오하 12:43)에서 내놓는 것에는 대답할 가치도 두지 않겠습니다. 그 책을 거룩한 책들의 목록에 넣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먼저, 얼마나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카베오서를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을 당신의 증인들로 여겨 증언하시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셨습니다(눅 24:44). 그러나 그 책은 절제 있게 읽히거나 들린다면 쓸모없지 않게 교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등등. 그리고 히에로니무스는 그 책의 권위가 교리를 세우는 데는 조금도 힘이 없다고 서슴없이 가르칩니다. 또 키프리아누스의 이름으로『사도신경 해설』이라는 제목이 붙은 저 오래된 작은 책을 보면, 그 책이 옛 교회에서 아무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헛되이 다투고 있습니까? 저자 자신이 마지막에 혹시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으로, 자기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넉넉히 보여 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 글이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글이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64.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무적의 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고전 3:12–15).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주의 날이 밝힐 것이다. 그것이 불로 나타나고,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불이 시험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불은 연옥 말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으로 죄의 더러움이 씻겨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옛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그 불은 환난이나 십자가로서, 주님께서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여 그들이 육신의 더러움에 안주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옥을 꾸며 내는 것보다 훨씬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들에게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놓기 전에, 저는 그들이 내게 대답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모든 성도도 이 연옥의 불을 지나가야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그들의 공로가 넘치고 넘쳐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흘러간다고 꿈꾸는 그들이 그런 이들이 씻겨야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바로 이것을 단언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의 공적이 시험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공적이 시험받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논증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증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 해석을 공격합니다. 더 터무니없는 것은, 사도가 그들이 아무 행위로나 그 불을 지나갈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지극히 신실하게 교회를 세웠다면 그들의 공적이 불로 시험받을 때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 낸 교리들을 나무와 풀과 짚이라고 불렀을 때 은유를 썼다는 것을 봅니다. 그 은유의 까닭도 쉽게 드러납니다. 곧 나무가 불에 닿자마자 타서 없어지듯이, 그런 교리들도 시험을 받게 되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이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은유의 맥을 이어 가고 각 부분을 알맞게 서로 짝지으려고, 성령의 시험을 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금과 은이 불에 가까이 갈수록 그 진짜와 순도가 더 확실하게 증명되듯이, 주님의 진리도 영적 시험으로 더 엄밀하게 달아 볼수록 그 권위가 더 크게 확증됩니다. 풀

과 나무와 짚이 불에 닿으면 순식간에 타 없어지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의 고안물은 성령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무너져 사라집니다. 끝으로, 지어낸 교리들이 나무와 풀과 짚에 비유되는 것이 그것들이 나무와 풀과 짚처럼 불에 타서 멸망에 이르도록 망가지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것들이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쳐부수어지거나 무찔러지지 않는다면, 그 교리들을 시험할 불은 성령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울은 성경의 흔한 어법대로 그 시험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CO 735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마다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특히 그분의 진리가 비칠 때 빛납니다. 이제 바울에게 그 불은 성령의 시험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의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불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당한 터는 지키면서 그 위에 어울리지 않는 재료를 쌓아 올리는 교회의 건축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믿음의 주요하고 꼭 필요한 조항들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덜 중요하고 그리 위험하지 않은 것들에서 헛짚어, 자기들이 지어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지어낸 것들이 없어지므로 공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을 통해 받는 것 같습니다. 곧 그들의 무지와 헛짚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에서 깨끗이 씻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금 같은 순수함을 이 연옥의 똥으로 더럽힌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65.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아주 오래된 관습이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 반론을 풀어 줍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터에 맞지 않는 무엇을 놓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공적의 손실을 입어야 한다고 선언할

때, 자기 시대도 그 말 안에 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대자들이 천삼백 년 전부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관습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내게 반박하면, 저는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계시로, 무슨 본보기로 행해졌습니까? 여기서는 성경의 증언이 없을 뿐 아니라, 거기 나오는 성도들의 본보기도 그런 것을 하나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애곡과 장례의 의무에 대해 많은, 때로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중요할수록 더욱 언급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를 드린 옛 사람들 자신도, 자기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정당한 본보기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감히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들이 이 점에서 사람의 약함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을 본받을 거리로 끌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듯이 신자들은 확실한 양심 없이는 아무 일도 시작해서는 안 되므로(롬 14:23), 이 확신은 무엇보다 기도에서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도록 떠밀렸다는 것은 믿을 만합니다. 곧 그들은 자기들의 슬픔을 덜어 줄 위로를 찾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이들을 향한 자기 사랑의 증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감정에 얼마나 기울기 쉬운지는 우리 모두가 겪어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증언할 때(계 14:13) 훨씬 더 낫고 든든한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덧붙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때부터 자기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그릇된 기도 관습을 세울 만큼 우리의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이 옛 교회를 자기 오류의 동무로 두고 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죽은 이들에 대해 아무 관심도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죽은 이들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연옥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무것도 단언하지 않아서, 그것을 확실하지 않은 일로 여겼습니다. 이자들은 자기들이 연옥에 대해 꿈꾼 것을 아무 의문 없이 믿음의 교리로 여기라고 요구합니다. 저들은 아껴서, 그저 의무를 치르는 정도로만 성찬의 교제 가운데 자기들의 죽은 이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자들은 쉬지 않고 죽은 이들을 돌보라고 다그치며, 끈질긴 설교로 그 일을 사랑의 모든 의무보다 앞세우게 만듭니다. 더욱이 그때 쓰이던 죽은 이들을 위한 그 모든 기도를 분명하게 뒤엎는 옛 사람들의 증언 몇 가지를 내놓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말이 그러합니다. 그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은 모든 사람이 기다려야 하지만, 죽음 뒤에 따르는 안식은 각 사람이 합당하다면 죽을 때 받는다고 가르칩니다.[446] 그리하여 그는 모든 경건한 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못지않게 죽자마자 복된 안식을 누린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묻건대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린 더 조잡한 미신들은 빼놓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수없이 많고, 대부분이 너무나 괴이하여 어떤 그럴듯한 핑계로도 덮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멍청해 있는 동안 그들이 제멋대로 벌인 저 지극히 추악한 장사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을 것이며, 경건한 독자들은 그것을 늘어놓지 않아도 여기서 자기 양심을 굳게 할 거리를 넉넉히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CO 737 [447]

446. [원문의심] 원문은 “quum resurrectionem carnis et aeternam gloriam exspectari debet ab omnibus”로 되어 있어 문장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debet”를 “docet”(가르친다)의 깨진 꼴로 보고 옮겼습니다.

447. 이 단(CO 737)에서 시작하는 제10장「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는 다음 편에서 옮깁니다.

1539–1554년판 ·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1

CO 1:737–75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737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1. 율법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되찾을 유일한 도움이 믿음에 남아 있다는 것을, 저는 앞에서 넉넉히 꼼꼼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 자체가 무엇이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택을 가져다주고, 사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소유하며, 그분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무엇보다 두 가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곧 첫째로, 그분의 무죄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이제 하늘에 재판관 대신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분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어 삶의 무죄함과 순결함을 힘써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은혜인 중생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여겨질 만큼 말했습니다. 칭의의 이치를 가볍게만 건드린 것은, 먼저 다음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 이 일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직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값없는 의를 얻는 그 믿음이 선행 없이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문제의 한 부분이 걸려 있는 성도들의 선행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건(religion)을 떠받치는 으뜸가는 돌쩌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따져, 그만큼 더 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무엇보다 먼저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굳게 세울 아무 기초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일으켜 세울 기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그 지식 자체에서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2.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다가 문턱에서부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먼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설명합시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자기의 의 때문에 받아들여진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미워하시듯이, 죄인도 그분의 눈에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있다고 여겨지고, 그런 이름으로 모든 죄인이 쓰러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무죄한 피고가 공정한 재판관의 심판대에 끌려 나왔을 때, 그의 무죄함에 따라 판결이 나면 그는 재판관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의 수에서 빼내어져 하나님을 자기 의의 증인이요 보증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 쓰일 것입니다. 곧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의의 증언을 받을 만한 순결함과 거룩함이 발견되는 사람, 또는 자기 행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응답하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위의 의에서는 배제되었으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 의로 옷 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나타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칭의를 간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받아들이시어 의인으로 여기시는 받아들이심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 용서

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3. 이것을 확증하는 성경의 증언은 많고도 분명합니다. 먼저, 이것이 이 낱말의 본디 뜻이요 가장 흔히 쓰이는 뜻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목을 모두 모아 서로 견주는 것은 너무 길어질 것이므로, 독자들에게 일러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독자들은 스스로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하는 이 칭의를 이름을 들어 다루는 대목 몇 개만 내놓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았다고 말할 때(갈 3:8),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를 전가하신다는 것 말고 무엇으로 이해하겠습니까? 또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할 때(롬 3:26), 그것은 믿음의 은택으로 그들의 불경건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정죄에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것 말고 무슨 뜻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결론에서 이렇게 외칠 때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롬 8:33–34).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이시요, 더욱이 다시 살아나신 이시요,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신 이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변호로 지켜 주시는 이들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피고로 몰렸던 사람을 마치 무죄가 입증된 사람처럼 그 죄책에서 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간구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하셔서가 아니라 의를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 안에서는 의롭지 않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여겨지게 하십니다. 바울의 설교에서도 그러합니다(행 13:38–39).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에게 죄 용서가 전파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함을 얻는다." 여러분은 여기서 죄 용서 뒤에 이 칭의가 이를테면 풀이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분명히 무죄 선언의 뜻으로 쓰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떼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택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고 할 때(눅 18:14), 우리는 그가 어떤 행위의 공로로 의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가 죄 사함을 얻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행위를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무죄 선언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는 죄의 고백을 정당한 칭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멋진 말입니다.[448]

4. 그리고 낱말에 관한 다툼은 접어 두더라도,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살펴본다면 아무 의심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받아들이심이라는 이름으로 칭의를 가리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엡 1:5–6).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양자로 예정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입은 자로 여기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롬 4:6–7) 바울은 먼저 그것을 의의 전가라고 부르고, 그것을 죄 용서에 두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위 없이 의를 인정하시는 곧 전가하시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기록되기를, 그 불법을 용서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여기서 칭의의 한 부분이 아니라 칭의 전체를 논합니다. 그는 또 다윗이 값없이 죄 사함을 받는 이들을 복되다고 선언할 때 칭의의 정의를 내렸다고 증언합니다. 이로써 바울이 말하는 의

448. CO 편집자 각주에는 암브로시우스 「시편 118편 강해」 제10설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의 시편 118편은 한국어 성경의 119편입니다.

가 단순히 죄책에 맞세워져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일에 가장 좋은 대목은, 바울이 복음 사신의 직분의 요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고후 5:18–19).

5.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의가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하므로, 먼저 이것도 보여 줍시다. 곧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서로 너무나 달라서, 하나가 서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뒤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빌 3:7–9). 율법에서 난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견주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를 버린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드러나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그들이 무너진 원인이었다고 가르칩니다(롬 10:3).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다가 하나님의 의를 떨쳐 버린다면,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참으로 자기 의는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자랑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배제된다고 말할 때도 이것을 보여 줍니다(롬 3:27). 여기서, 행위의 의가 아무리 작게라도 남아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가 얼마간 남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모든 자랑을 배제한다면, 행위의 의는 결코 믿음의 의와 짝지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롬 4:1 이하) 이런 뜻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여 트집과 핑계가 설 자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반대되는 것들에서 끌어낸 또 하나의 논증을 내놓습니다. 행위에 삯이 갚아질 때 그것은 빚으로 되는 것이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은혜를 따라 의가 돌려집니다. 그러므로 의는 행위의 공로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가 믿음과 행위로 섞어 빚어졌다고 지어내는 자들의 꿈은 사라져 버려야 합니다.

6. 그러나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런 그릇된 교리로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두 가지로 속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믿음을, 공로에 따라 하나님께 받을 갚음을 기다리는 데서 양심이 갖는 확실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의의 전가로 풀이하지 않고 거룩함을 힘쓰도록 돕는 영으로 풀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에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이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읽습니다(히 11:6). 그러나 그들은 찾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은혜라는 이름에서 헛짚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글에서 드러납니다. 롬바르두스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를 두 가지로 풀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일깨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다음으로, 그 죽음으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 두던 죄가 없어져서 마귀가 이제는 시험하여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가 칭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선행으로 이끌림을 받는 한에서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찍이 뒤따를 뿐이고, 바른 본받음에서도 크게 빗나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명하게 말한 것이 있으면 흐려 놓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그다지 불순하지 않던 것은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스콜라 학파는 언제나 더 나쁜 쪽으로 헤매다가, 마침내 곤두박질쳐 일종의 펠라기우스주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도,

적어도 그의 말하는 방식은, 모든 점에서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의의 모든 칭찬을 훌륭하게 벗겨 내어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기는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에 이르도록 중생하게 되는 성화에 돌리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의에 대해 말할 때 우리를 아주 다른 곳으로 이끕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데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만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은 칭의의 순서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순전하고 값없는 선하심으로 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당신을 자비로 움직일 만한 것은 비참함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선행이 완전히 벗겨지고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을 베푸실 까닭을 당신 자신에게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당신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셔서, 그가 자기 행위를 믿지 않고 자기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에 내맡기게 하십니다. CO 741 이것이 믿음의 느낌이며,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 구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의 가르침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중간에 들어서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으므로 자기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했어도, 자기에게 영원한 의가 마련된 곳은 자기가 힘쓰는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달아 보면 우리 견해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지금 내놓은 것과 다른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서로 잘 이어져서 일 전체가 바르게 설명되고 확실하게 확증되기만 한다면,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8.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믿음과 복음 사이에 세운 관계를 되새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음이 의롭다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복음 안에서 내밀어진 의를 받아들이고 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가 복음으로 내밀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것으로 행위에 대한 모든 고려가 배제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자주 이것을 보여 주지만, 두 대목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그는 로마서에서(롬 10:5–9)[449] 율법과 복음을 서로 견주며 말합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리라. 그러나 믿음의 의는 구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율법은 행위에 의를 돌리고 복음은 행위의 도움 없이 의를 값없이 베푼다는 데 두는 것을 봅니까? 이것은 뛰어난 대목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의는 율법의 조건에서 풀려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대목은 우리를 많은 어려움에서 빼내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만이 아니라 그토록 맞서는 듯한 모습으로 약속을 율법에 맞세우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이미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갈 3:18). 같은 장에서 이런 뜻으로 하는 말들도 그러합니다. 분명히 율법 자체에도 그 나름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약속들에는 무언가 구별되고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견줌이 어리석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약속들은 행위라는 조건에 달려 있는데, 복음의 약속들은 값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떠받쳐져 있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9. 둘째 대목은 이것입니다(갈 3:11–12).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리라.” 행위가 믿음의 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논증이 어떻게 성립하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이 믿음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의에는 행위가 요구되기

449. 원문에는 “롬 10:8”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롬 10:5와 10:9이므로 그 범위로 적었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의에는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관계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들은 행위의 공로 없이, 아니 행위의 공로 바깥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복음이 베푸는 의를 받는데, 복음은 의를 행위에 묶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둔다는 점에서 율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롬 4:2–5) 주장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으니,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확증을 덧붙입니다. 믿음의 의가 설 자리는 삯을 받아야 할 아무 행위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위가 있는 곳에서는 거기에 마땅한 보수가 갚아진다. 믿음에 주어지는 것은 값없는 것이다.” 바울이 거기서 쓰는 낱말들의 뜻도 이리로 향합니다. 조금 뒤에 바울이 덧붙이는 말, 곧 우리가 유업을 믿음으로 얻는 것은 은혜를 따르려는 것이라는 말(롬 4:16)에서, 바울은 유업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므로 값없다는 결론을 냅니다. 믿음이 행위의 받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기 때문이 아니라면, 이 결론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10. 이제 독자는 오늘날 궤변가들이, 우리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할 때, 얼마나 공정하게 우리 교리를 트집 잡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그토록 자주 나오므로 그들도 감히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므로 그 말을 덧붙이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의는 값없는 것이 아니면 믿음에서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울의 이 말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값없는 것이 어떻게 행위와 어울리겠습니까? 또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롬 1:17)은 무슨 중상으로 피해 가겠습니까?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난다면, 분명히 찢긴 의나 반쪽 의가 아니라 가득하고 온전한 의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의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타를 나타내는 낱말에 매달리는 것은 거짓될 뿐 아니라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핑계입니다. 행위에서 모든 것을 빼앗는 사람은 넉넉히 확고하게 모든 것을 오직 믿음에만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제발 말해 보십시오. 율법 없이 의가 나타났다,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 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 말들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에게는 교묘한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오리게네스와 옛 사람 몇몇에게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래도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 배제되는 것이 율법의 의식에 관한 행위이지 도덕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고 지껄입니다. 그들은 늘 말다툼만 하다 보니 변증법의 첫걸음조차 붙잡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도가 자기 주장을 증명하려고 다음 대목들을 끌어올 때(갈 3:10, 12), 그들은 사도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리라. 그리고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그들이 미치지 않았다면, 생명이 의식을 지키는 이들에게 약속되었고 저주가 의식을 어기는 이들에게만 선포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목들을 도덕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도덕에 관한 행위도 의롭다 하는 힘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울이 쓰는 다음 추론들도 같은 곳을 향합니다(롬 4:15; 갈 3:21 등).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므로 의를 얻지 못한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므로 의를 이루지 못한다. 율법은 양심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없으므로 의도 줄 수 없다. CO 743 믿음이 의로 여겨지므로 의는 행위의 삯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것이 아닌데도 선물로 주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므로 자랑이 끊어졌다. 만일 살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참으로 의가 율법에서 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다. 그들이 감히 할 수 있다면, 이 말들이 도덕이 아니라 의식에 해당한다고 허튼소리를 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아이들조차 그런 뻔뻔함은 야유하여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의롭다 하는 능력을 빼앗을 때 율법 전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실히 붙듭시다.

11. 그런데 사도가 왜 행위라고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런 말을 덧붙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까닭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행위가 그토록 높이 평가되는 것은 그 값을 행위 자체의 가치에서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 행위의 의를 내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누가 마치 행위에 마땅히 돌아올 것처럼 삯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행위가 의라는 이름과 삯을 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오직 이 이유로 값어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곳에서(갈 3:17)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언약을 맺은 지 거의 사백삼십 년 뒤에야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논증을 비웃을 것입니다. 율법이 공포되기 전에도 의로운 행위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위가 그만한 무게를 갖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증언과 귀히 여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율법 이전에는 행위가 의롭다 하는 힘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인정된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바울이 행위에서 칭의를 빼앗으려 할 때 율법의 행위를 이름을 들어 말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런 행위에 대해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때때로 그런 덧붙임 없이도 어떤 행위든 다 배제합니다. 이를테면 그는 다윗의 증언으로, 하나님께서 행위 없이 의를 전가하시는 사람에게 복이 돌려진다고 말합니다(롬 4:6).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트집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인 배제를 얻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으므로 의가 사랑에 기댄다는 하찮은 교묘함을 붙잡으려 하지만 헛된 일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함께, 사랑으로 효력을 내는 그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은 의롭다 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사랑의 효력에서 의롭다 하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로는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가 그토록 힘써 강조하는 것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롬 4:4–5). 일하는 자에게는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삯을 받아야 할 아무 행위도 없는 곳이 아니면 믿음의 의는 없고, 마땅히 받을 것이 아닌 은혜로 의가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12. 이제 정의에서 말한 것, 곧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그 화목은 오직 죄 용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된지 따져 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이 공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사람들이 죄인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런 말로 멋지게 나타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어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사 59:1–2). 우리는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갈라짐이며, 하나님의 얼굴이 죄인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듣습니다. 달리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와 아무 사귐을 갖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회복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가르칩니다(롬 5:10).[450] 그러므로 주님께서 결합 안에 받아들이시는 사람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450. 원문에는 “롬 5:8”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말씀은 롬 5:10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지 않고는 그를 은혜 안에 받아들이실 수도, 당신께 결합시키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 용서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이들을 행위로 평가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실제로 죄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에서 풀려나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이들은 죄 용서로 얼룩이 씻겨 깨끗해진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의는 한마디로 죄 용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3. 이 둘은 다 바울의 다음 말에서 아주 아름답게 드러납니다(고후 5:19–2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범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사신 직분의 요지를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의와 화목을 섞어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그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서로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의를 얻는 방식을, 우리의 범죄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죄를 돌리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에서(롬 4:6–8) 다윗의 증언으로, 사람에게 행위 없이 의가 전가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이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주님께서 범죄를 돌리지 않으시는 사람이 복되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의심할 나위 없이 복을 의의 자리에 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복이 죄 용서에 있다고 단언하므로, 우리가 의를 달리 정의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구원을 아는 지식이 죄 용서에 있다고 노래합니다(눅 1:77). 바울은 이 규칙을 따

라, 안디옥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요지에 대해 한 설교를 이렇게 맺었다고 누가는 전합니다(행 13:38–39).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에게 죄 용서가 전파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처럼 바울은 죄 용서를 의와 이어 놓아 둘이 완전히 같은 것임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너그러이 용서하심으로 얻는 값없는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가 아니라 값없이 받아들여지심으로 의롭다는 말이 낯설게 보여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성경에 그토록 자주 나오고, 옛 사람들도 때때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의는 덕의 온전함보다 오히려 죄 용서에 있습니다.”

14.[451] 여기서 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중간에 들어섬으로써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로 그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꼼꼼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것으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고 그 영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기 때문이라는 저 헛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의 교리에 이보다 더 반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를 자기 바깥에서 찾으라고 배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씻는 속죄제물이 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쓸 때(고후 5:21)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의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사람이라는 그 권리로만 그 의가 우리에게 속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451. [원문의심] 이 문단의 절 번호는 OCR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쪽은 두 단이 뒤섞여 읽혀, 앞뒤 절 번호(13, 15)와 문단 구분에 따라 14로 두고 글의 차례를 맞추어 옮겼습니다.

함께 그분의 모든 부요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육신에서 죄로 죄를 정하셨다고 가르치는 것(롬 8:3–4)도 이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전가로 얻는 것 말고 다른 이룸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한,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의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런 권리로 우리와 당신의 의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뜻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조금 앞에 내놓은 다른 말에서 넉넉히 드러납니다(롬 5: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순종에 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돌려지므로 오직 그것으로만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진다고 단언하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암브로시우스가 야곱이 받은 복에서 이 의의 본보기를 세운 것이 매우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곧 야곱이 장자권을 스스로는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형의 옷차림으로 자기를 숨기고, 아주 좋은 냄새를 풍기는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남의 모습을 빌려 자기 유익을 위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의 귀한 순결함 아래 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증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이러합니다. “이삭이 옷의 냄새를 맡은 것은 아마도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행위에 걸림이 되지만, 믿음의 밝음은 행위의 허물을 가려 주며 죄 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일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를 풍겨야 하고, 우리의 허물이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덮이고 묻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15. 이 모든 것이 뚜렷한 증언들로 지극히 참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이 논의 전체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들을 우리

눈앞에 두기 전에는 분명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떠올립시다. 우리의 이야기는 사람의 법정의 의가 아니라 하늘 심판대의 의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행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 잣대로 재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얼마나 무모하고 대담하게 정해 버리는지 놀라울 지경입니다. 더욱이 눈에 띄는 병으로 끔찍하게 앓고 있거나 속으로 곪은 악덕으로 터질 듯한 자들보다 더 자신 있게, 이른바 입을 크게 벌려 행위의 의를 떠벌리는 자는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결코 그것을 그토록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아무 흠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만큼 그렇게 완전한 의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의는 분명히 터무니없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에게서 결코 찾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의 그늘 아래서 사람을 의롭다 하는 행위의 가치에 대해 허튼소리를 하는 것은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런 놀음은 물러가야 합니다. 거기서는 일이 진지하게 다루어지며, 장난스러운 말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에 대해 열매 있게 알아보려면, 바로 여기로, 바로 여기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늘의 재판관께서 우리를 셈하시러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을 우리 지성이 제멋대로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 보이는 대로 우리 앞에 세웁시다.[452] 곧 그분의 광채에 별들이 어두워지고, 그분의 힘에 산들이 녹으며, 그분의 진노에 땅이 흔들리고, 그분의 지혜에 슬기로운 자들이 자기 꾀에 걸려들며, 그분의 순결함 앞에서 모든 것이 더럽혀지고, 그분의 의를 천사들도

452. CO 편집자 각주에는 “특히 욥기를 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며, 죄 있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보응은 한번 불붙으면 지옥 맨 밑바닥까지 꿰뚫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조사하시려고 앉으시게 하십시오. 누가 마음 놓고 그분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CO 747 선지자는 말합니다(사 33:14–15).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머물겠느냐? 의롭게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니라 등등. 그러나 그가 누구든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아니, 오히려 그 대답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편에서 무서운 음성이 울리기 때문입니다(시 130:3). 주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님, 누가 서겠습니까? 참으로 다른 곳에 기록된 대로(욥 4:17–20) 모든 사람이 곧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비하여 의롭다 함을 받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보라, 그분을 섬기는 자들도 미덥지 못하고, 그분은 당신의 천사들에게서도 그릇됨을 찾으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그 기초를 땅에 둔 자들이겠느냐? 그들은 좀벌레 앞에서 사라질 것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임을 당할 것이다." 또(욥 15:15–16) 보라,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도 미더운 자가 없고, 하늘도 그분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불의를 물처럼 마시는 가증하고 쓸모없는 사람이겠느냐?

16. 우리는 바로 여기로, 바로 여기로 눈을 들어, 헛되이 우쭐대기보다 떨기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비교가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남이 깔보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 자신감은 말하기도 전에 무너져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은 보이는 하늘을 향한 몸에게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눈의 시력은 가까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동안에는 자기의 밝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해를 향하면 그 지나친 광채에 눈이 부시고 멍해져서,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볼 때 느끼던 힘 못지않게 해를 볼 때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머지 사람들과 같거나 그들보다 낫다고 여기더라도, 헛된 자신감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이런 경고로도 우리의 사나움이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눅 16:15).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제 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대의 의를 뽐내며 자랑해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참으로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십시오. 주의 눈앞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 누구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시 143:2).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욥 9:2–3).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의로울 수 없다. 하나님과 다투려 하면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듣습니다. 곧 그 의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만족시킬 수 없고, 그 의가 우리에게 천 가지 죄를 물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 도구인 바울은, 자기는 스스로 아무 잘못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했을 때(고전 4:4), 바로 그런 의를 마음에 잘 품고 있었습니다.

17. 이런 본보기는 거룩한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저술가들도 모두 이것이 자기들의 생각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육신의 이 짐 아래에서, 이 삶의 연약함 가운데서 탄식하는 모든 경건한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에게 한 분 중보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듣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행위에 대한 신뢰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유일한”이라고 말할 때, 다른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르나르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든든하고 굳건한 안식과 평안이 구주의 상처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이 구원하실 능력이 크실수록 저는 그 안에 더 평안히 거합니다. 세상은 으르렁거리고, 몸은 짓누르고, 마귀는 덫을 놓습니다. 그러나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양심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상처를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그는 이것에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저의 공로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 모자라지 않으시는 한, 저는 공로가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가 많다면, 저도 그만큼 공로가 많습니다. 제가 저의 의를 노래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오직 주님의 의만 기억하겠습니다. 그 의가 또한 저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저의 의가 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공로는 온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께 온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18.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마주해야 할 때, 시달려 본 양심들은 이것이 자기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라는 것을 느낍니다. 밤에는 가장 밝아 보이던 별들도 해를 보면 그 빛을 잃는다면, 사람의 무죄함이 아무리 드물게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순결함에 견주어지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 조사는 지극히 엄할 것이며, 마음의 가장 깊이 숨은 생각까지 뚫고 들어갈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고전 4:5), 그것은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속에 숨은 것들을 밝힐 것이며, 숨으려 하고 버티려 하는 양심이 지금은 우리의 기억에서도 빠져나가 버린 모든 것을 털어놓게 만들 것입니다. 고발자 마귀는, 자기가 우리를 부추겨 저지르게 한 모든 악행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를 몰아세울 것입니다. 거기서는 지금만 높이 여겨지는 선행의 겉치레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의지의 진실함만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선은,

곧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못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뽐내려는 위선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쓰다듬고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만큼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도, 지금은 술 취한 것보다 더한 대담함으로 아무리 뽐낼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광경에 마음을 돌리지 않는 이들은 잠시 동안 달콤하고 평온하게 자기 의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곧 그들에게서 털려 나갈 것입니다. 꿈속에서 쌓은 큰 재물이 깨어나면 사라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O 749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진지하게 의의 참된 규칙을 찾는 이들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그 자체의 가치로 평가된다면 더러움과 오물일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의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불의이고, 온전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더러움이며, 영광으로 여겨지는 것이 수치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19.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렇게 바라본 데서 이제 내려와, 아첨이나 눈먼 사랑의 감정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토록 눈이 어두운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향한 해로운 너그러움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너그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본성적으로 붙어 있다고 외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잠 21:2; 16:2). 사람의 길은 제 눈에 다 바르다. 또 사람의 모든 길은 제 눈에 깨끗하게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헛짚는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풀려납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같은 곳에서 덧붙이듯이, 주님께서는 마음을 달아 보십니다. 곧 사람이 자기가 겉으로 내보이는 의의 가면 때문에 스스로를 달래는 동안,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숨은 불결함을 당신의 저울로 조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첨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므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여 멸망에 이르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살피려면, 우리의 양심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로 불러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깊이 숨어 있는 우리 악함의 덮개를 벗겨 내는 데는 하나님의 빛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다음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썩은 것이요 벌레이며(욥 25:6), 불의를 물처럼 마시는 가증하고 헛된 사람(욥 15:16)[453]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기에는 아주 멀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러운 씨에서 잉태된 자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욥 14:4). 그때 우리는 욥이 자기에 대해 한 말도 겪어 알게 될 것입니다(욥 9:20). "내가 나를 죄 없다 하려 하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의롭다 하려 하면 나를 그르다 할 것이다." 선지자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대해 탄식한 것, 곧 모두가 양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로 갔다는 말(사 53:6)은 한 시대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해당합니다. 선지자는 거기서 구속의 은혜가 이르게 될 모든 이를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엄격함은 우리를 완전히 낙담하게 하여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할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마음의 모든 높음을 내던지지 않고도 자기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벧전 5:5)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길은, 우리가 아주 가난하고 빈 몸이 되어 하나님의 자비에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의 의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로운 위선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면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완전히 부수

453. 원문에는 "욥 15:5,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썩은 것이요 벌레"라는 말은 욥 25:6에 나오므로 그 장절로 적었습니다.

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에게서 겸손한 백성에게는 구원이 마련되어 있고 교만한 자들의 눈은 낮추어진다는 말씀(시 18:27)[454]을 들을 때, 먼저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든든한 겸손을 입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음으로 그 겸손은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권리를 털끝만큼 양보하는 어떤 겸양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거만하게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뛰어남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기대는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부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의 비참함과 가난함을 진지하게 느껴 낙담한 마음의 꾸밈없는 굴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겸손을 이렇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스바냐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습 3:11–12), 곧 내가 네 가운데서 우쭐대는 자들을 없애고 네 백성 가운데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남기리니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리라 하실 때,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 주시지 않습니까? 곧 자기의 가난함을 알아 괴로워하는 이들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우쭐대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형통할 때 기뻐 우쭐대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겸손한 자들에게는 주님을 바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에게서도 그러합니다(사 66:2). 내가 돌아볼 자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떨며 듣는 자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또(사 57:15) 지극히 높고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그 이름을 거룩이라 하는 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살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살리려 함이라. 여러분이 통회라는 이름을 이토록 자주 들을 때, 사람을 땅에 엎드러뜨려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 겸손한 이들과 함께 높임을 받고자

454. 원문에는 “시 18:28”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통회로 상처를 입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낮추어져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21. 그리고 가장 좋은 선생이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마치 그림 속에 그리듯이, 정당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를 내세우십니다(눅 18:13).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크게 가슴을 치며, 주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꾸민 겸양의 표시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이 속마음의 증거임을 압시다. 반대편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맞세우십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안식일에 두 번 금식하며 가진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린다고 주님께 감사합니다.[455]

455. 이 문장의 끝부분은 다음 편 원문 첫머리(CO 751)에 이어지는데, 문장을 끝맺으려고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2

CO 1:751–76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751 [456]그는 자기가 지닌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드러내 놓고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배은망덕하고 가증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갑니다. 세리는 자기의 불의를 인정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낮아짐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는지 볼 수 있습니다.[457] 곧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비운 마음이 아니고는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면 자비가 들어올 길을 막아 버립니다. 이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이 명령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곧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놓임을 선포하고, 쇠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재 대신 영광을, 슬픔 대신 기름을, 근심하는 영 대신 찬송의 옷을 주라는 것입니다(사 61:1). 이 명령에 따라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만을 당신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마 11:28).

22.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자리를 내어 드리고자 한다면, 모든 교만과 아울러 모든 안일함을 우리에게서 멀리 물리쳐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 의에 대한 어리석은 확신에서 생겨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

456.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457. 원문은 “quanta sit humiliationis nostrae gratia coram Domino”입니다. 여기의 gratia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호의, 귀히 여김”의 뜻으로 읽었습니다.

기를 천거해 줄 공로가 될 무엇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안일함은 행위에 대한 아무 확신이 없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죄인이 악덕의 단맛에 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마치 어떤 혼수상태에 마비된 듯이 누워 있어서, 자기에게 제시된 자비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가분하게 그리스도께 서둘러 나아가고, 비고 주린 채로 그분의 좋은 것들로 채워질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든 내던져야 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무감각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불신하지 않고는 결코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는 결코 그분 안에서 충분히 마음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위로를 잃지 않고는 결코 그분 안에서 충분히 위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내던지고 오직 그분의 선하심의 확실성에 기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얻기에 알맞은 자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공로를 잊고 그리스도의 선물을 끌어안을 때입니다. 여기서 더 오래 머물지 않도록, 짧지만 보편적이고 확실한 규칙을 가집시다. 하나님 자비의 열매에 참여하도록 준비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에서가 아니라(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되고 바람 같은 의의 허상에서 철저히 비워 버린 사람입니다. 누구든 자기 자신 안에서 안주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일에 걸림돌을 놓기 때문입니다.

23.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곧 주님께는 당신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고 이를테면 온전하게 보존되고, 우리 양심에는 그분의 심판 앞에서 평온한 안식과 맑은 고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다룰 때 성경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히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우리에게 권하는지 우리는 봅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베푸신 목적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데 있었다고까지 증언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나타내심이 어떤 것인지 덧

붙입니다. 곧 그분만이 의로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으로 알려지시는 것입니다(롬 3:25–26). 그분만이 의로운 분으로 여겨지시고, 또 그분께서 공로 없는 자들에게 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빛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십니까?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죄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자기를 변호하여 말할 거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에스겔서에서(겔 20:43), 우리가 우리의 불의를 깨달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길과 너희를 더럽힌 모든 죄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저지른 모든 악 때문에 너희 눈에 스스로 미워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지극히 악한 죄악대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선을 행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자기 불의를 의식하여 짓눌린 채, 그분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에 담겨 있다면, 우리가 왜 크게 해를 자초하면서까지 이 값없는 선하심의 찬양에서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주님에게서 훔쳐 내려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부자는 자기 부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외칠 때(렘 9:23),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인가 줄어든다는 것을 넌지시 알리는 것이 아닙니까?

24.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는 결코 그분 안에서 참되게 자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하는 것이라는 이것을 보편적 공리로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자랑할 거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에야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가 된다고 봅니다(롬 3:19).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칭의가 하나님 안에 있으리라고 선언하면

서 찬양도 함께 덧붙입니다(사 45:25). 마치 택함받은 자들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자랑하도록, 이 목적을 위해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찬양받는 것이 마땅한지는 바로 앞 절에서 가르쳤습니다. 곧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이 주 안에 있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맹세로 굳힌 고백이 요구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무슨 꾸며 낸 겸손으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교만 없이 자기 의를 인정할 때는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런 평가는 신뢰를 낳지 않을 수 없고, 신뢰는 자랑을 낳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관한 논의 전체에서 이 목적, 곧 의의 찬양이 온전하고 흠 없이 주님께 남아 있게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CO 753 사도가 증언하는 대로(롬 3:26), 그분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당신께서 의로우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에서(엡 1:6), 주님께서 당신 이름의 영광을 빛내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가르친 뒤에, 나중에 같은 것을 되풀이하듯 덧붙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엡 2:8–9).[458]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독성(瀆聖) 없이는 의의 부스러기 하나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서 떼어 내고 덜어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5. 이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온해질 수 있는지 묻는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말을 늘 떠올립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내가 내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누가 말하겠느냐?”(잠 20:9)

458. 원문에는 “에베소서 2장 5절”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2:5에도 있으나, 인용한 말씀 전체는 2:8–9에 있으므로 장절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끝없는 더러움에 덮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도 자기 양심 속으로 내려가 자기 행실을 계산대에 불러 세워 보십시오. 마침내 어떤 결말에 이르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모든 것이 잘 정리된 듯이 편안히 쉬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행위로 평가받는다면 자기 안에 정죄받을 거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무서운 고통에 찢기겠습니까?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심판과 함께 확실한 평화를 누리든지, 아니면 지옥의 공포에 포위되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 영혼이 그 굳건함으로 떠받쳐질 그런 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고 흔들림 없이 그분의 심판을 받을 근거를 가질 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꾸며 낸 의가 아닌 의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이 부분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말보다 그의 말로 이 일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일 유업의 약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진다” (롬 4:14). 그는 먼저, 의의 약속이 우리 행위의 공로를 바라보거나 율법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비워진다고 추론합니다. 누구도 그 위에서 결코 안심하고 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율법을 충족시켰다고 스스로 확실히 정할 수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도 행위로 율법을 온전히 충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바른 눈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먼저 망설임이, 그다음에는 절망이 찾아들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아직 얼마나 큰 빚에 짓눌려 있는지, 자기에게 지워진 조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셈해 볼 테니까요. 보십시오. 이제 믿음은 짓눌려 꺼져 버렸습니다. 흔들리고, 오락가락하고, 위아래로 휩쓸리고,

망설이고, 매달려 있고, 비틀거리고, 마침내 절망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변함없는 확실성과 굳건한 안정으로 마음을 다지고, 기대어 쉬고 발을 디딜 곳을 가지는 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26. 그는 또 다른 것도 덧붙입니다. 약속이 무효가 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우리 공로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베푸심을 공로로 얻는 데에 도대체 언제 이르겠습니까? 더구나 이 둘째 부분은 첫째에서 따라 나옵니다. 약속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너지면 약속의 힘은 조금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되며, 이는 약속을 굳게 하려는 것입니다(롬 4:16 참조).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기댈 때 넉넉히 굳어집니다. 자비와 진리는 끊을 수 없는 띠로 서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망 전체를 세우고 이를테면 깊이 박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 행위를 돌아보며 거기서 무슨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새로운 것을 말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 안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란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를 따라서 굳건하므로, 아무도 자기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떨면서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베르나르두스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뢰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며, 이것이 우리 소망의 모든 근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해도, 뜻에 대해

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자기가 미움을 받을 만한지 사랑을 받을 만한지 압니까?(전 9:1)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었습니까?(고전 2:16)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믿음이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가 구하러 와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리에 관하여 숨겨져 있는 것이 성령을 통해 드러나고, 그분의 영이 증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시키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으로써 확신시키십니다. 바로 이 둘 안에 영원한 예정에서 장차 올 영광으로 건너가는 이를테면 중간 통로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정리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양심의 확실한 신뢰로 붙잡히지 않으면 굳건하지 않다고 알립니다. 어디든지 의심이나 불확실함이 있으면 약속이 무효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또 약속이 우리 행위에 기댄다면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의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행위가 고려에 들어오지 말고 오직 믿음만이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성은 귀를 기울이고 눈을 감는 것, 곧 약속 하나에만 마음을 쏟고 사람의 모든 가치나 공로에서 생각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스가랴의 저 훌륭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땅의 죄악이 지워질 때, 사람이 저마다 자기 이웃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부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슥 3:9–10).[459] 여기서 선지자는, 신자들이 죄 사함을 얻은 뒤가 아니고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넌지시 알립니다.

CO 755 27. 이 일이 더 분명해지도록, 사람의 의가 그 삶의 온 여정에서 어떠할 수 있는지 따져 봅시다. 네 등급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에 빠져 있거나, 성례로 입문하였으나 삶의 불결함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행실로 부인하여 이름만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나, 마음의 악함을 헛된 겉치레로 가리는 위선자이거나, 하나

459. 원문에는 "스가랴 3장 9절"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죄악을 없앤다는 말은 3:9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부른다는 말은 3:10에 있으므로 장절을 바꾸었습니다.

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참된 거룩함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류는 본성의 자질로 평가해야 하므로,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선의 불꽃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아담의 모든 자손을 다음과 같은 찬사로 추어올릴 때(렘 17:9; 창 8:21; 시 94:11; 14:2; 창 6:3) 성경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곧 그들은 비뚤어지고 완고한 마음을 지녔고, 그들 마음의 모든 계획은 어려서부터 악하며, 그들의 생각은 헛되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며, 그들 가운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육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아래 바울이 열거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갈 5:19). 곧 음행, 더러움, 음란, 방탕,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다툼, 분열, 이단, 투기, 살인, 그리고 생각해 낼 수 있는 온갖 추악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대단한 품위여서, 그것을 믿고 뽐낼 만도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함의 겉모양을 지닌 도덕적 단정함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겉의 광채를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행위들이 의를 얻는 데 무슨 값어치가 있기를 바란다면 행위의 샘 자체로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마음의 어떤 정서에서 나오는지 속속들이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말할 거리가 아주 넓게 펼쳐져 있지만, 이 일은 아주 적은 말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가르치는 데 할 수 있는 대로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28. 먼저 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뛰어난 자질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상식에서 그렇게까지 벗어나서, 티투스와 트라야누스의 정의와 절제와 공평, 그리고 칼리굴라나 네로나 도미티아누스의 광포와 무절제와 잔인함 사이에, 또 티베리우스의 음란한 정욕과 이 점에서 베스파시아누스가 보인 절제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개의 덕이나 악덕에 머물지 않고 말하자면, 법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멸시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

고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의 차이는 그만큼 커서, 그것의 죽은 형상에서조차 드러납니다. 이것들이 서로 뒤섞인다면 세상에 무슨 질서가 남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런 정직한 행위와 추한 행위의 구별을 각 사람의 마음에 새기셨을 뿐 아니라, 당신 섭리의 경륜으로도 자주 확증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덕을 닦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삶의 많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덕의 외적인 형상이 그분의 지극히 작은 은택이라도 공로로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겉으로 꾸며진 의조차 일시적인 갚음 없이 두지 않으심으로써, 참된 의가 당신께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인정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인정한 것이 따라 나옵니다. 이 덕들, 아니 덕들의 형상이라 함이 낫겠지만, 그것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칭찬할 만한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9.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것은 여전히 참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religion)에서 떠난 모든 사람은, 덕이 있다는 평판 때문에 아무리 감탄을 받더라도 아무 갚음도 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선을 자기 마음의 더러움으로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의, 절제, 우정, 절도, 용기, 지혜로 인간 사회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아주 악하게 수행합니다. 그들은 선을 향한 순수한 열심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야망이나 자기 사랑이나 그 밖의 어떤 비뚤어진 정서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들이 마음의 불결함 자체에서, 곧 그 근원에서부터 썩어 있으므로, 덕과 가깝고 닮아서 흔히 사람을 속이는 악덕보다 더 덕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바른 것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른 데로 향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땅히 바른 것이라

는 이름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정해 주는 과녁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는 일이 의무로는 선해 보이더라도 비뚤어진 목적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므로 파브리키우스, 스키피오, 카토 같은 모든 이들이 저 훌륭한 업적들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빛이 없었으므로 그 업적을 마땅히 돌려야 할 목적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참된 의가 없었습니다. 의무는 행위가 아니라 목적으로 저울질되기 때문입니다.[460]

30. 더욱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요일 5:12) 하나님의 아들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몫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하든 꾀하든, 온 여정 내내 멸망과 혼란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의인과 불의한 자를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자체로 구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한 행위로 보이는 것도 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에서 이런 사람들의 열심을 길을 벗어난 달음질에 견주면서 훌륭하게 말합니다. 길 밖에서 힘차게 달릴수록 과녁에서 더 멀어지고, 그래서 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길 밖에서 달리는 것보다 길에서 절뚝거리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CO 757 끝으로 그들이 나쁜 나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함이 없이는 아무 성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름답고 보기에 좋으며 맛도 단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도, 선한 열매는 결코 맺지 못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생각하고 꾀하고 이루는 것은 무엇이든 저주받은 것이며, 의를 얻는 데 아무 값어치가 없을 뿐 아니라 정죄를 받을 확실한 공로라는 것을 쉽게 압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사도의 증언으로 입증되었는데(히 11:6), 왜 우리가 의심스러운 일처럼 논하겠습니까?

460. 파브리키우스(Gaius Fabricius Luscinus), 스키피오(Scipio), 카토(Cato)는 청렴과 덕으로 이름난 고대 로마의 인물들입니다.

31. 그러나 사람의 본성적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맞세워 보면 증명은 더욱 분명하게 빛날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그에게 선을 베푸시도록 당신을 움직일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그를 앞서신다고 외칩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죽음에서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특히 사도에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주 이런 이름으로 칭송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등(엡 2:4). 다른 곳에서는(롬 4:17) 아브라함의 모형 아래 신자들의 일반적인 부르심을 다루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묻건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욥기에서(욥 41:11) 이런 말씀으로 이 교만을 힘 있게 꺾으십니다.[461] “누가 먼저 내게 주어서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겠느냐?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바울은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우리가 순전한 수치 말고는 아무것도 주님께 가져다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데로 이끌어 갑니다(롬 11:35). 그러므로 그는 앞에서 인용한 곳에서(엡 2:10),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의 소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중생하였으며,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을 행하는 우리의 첫 능력이 중생에서 흘러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 의로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뽐내겠습니까?” 우리가 본성으로 지음받은 그대로라면, 우리에게서 선한 행위를 짜내기보다 차라리 돌에서 기름을

461. 원문에는 “욥기 41장 2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짜내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이토록 큰 수치를 선고받은 사람이 아직도 자기에게 무엇이 남아 있다고 감히 내세운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 뛰어난 도구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행위를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과 은혜를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딤후 1:9). 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당신의 긍휼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딛 3:4). 이 고백으로 우리는, 사람이 오직 자비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으로 중생하기까지는, 그에게서 의를 가장 작은 조각까지 다 벗겨 냅니다. 행위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탠다면,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값없는 칭의를 주장할 때 자기 말을 잊어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롬 11:6), 행위가 무슨 힘을 가진다면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니라고 논증합니다. 또 주님께서 당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실 때(마 9:13),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인들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왜 꾸며 낸 의로 들어갈 길을 찾겠습니까?

32. 같은 생각이 자꾸 다시 떠오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비가 의심스럽거나 모호한 것인 양 그것을 주장하는 데 이토록 애를 쓰니,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함은 아주 힘차게 쫓아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그분의 것을 내어 드리지 않으므로, 나는 좀 더 길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 관해서는 성경이 충분히 분명하므로, 나는 내 말보다 성경의 말로 싸우겠습니다. 이사야는 인류의 보편적인 멸망을 묘사한 뒤에, 회복의 순서를 아름답게 이어 붙입니다(사 59:15). “주께서 보시니 그분의 눈에 악이 드러났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할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래서 당신의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의로 스스로 굳게 서셨다." 선지자의 말대로 자기 구원을 되찾는 일에서 주님을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참이라면, 우리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도(호 2:19, 23) 주님께서 죄인들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다루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약혼하되 의와 공의와 은혜와 긍휼로 하겠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에게 '너는 긍휼을 얻었다' 고 말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첫 결합이 분명한 이런 언약이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것이라면, 우리 의에는 아무 기초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어떤 행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맞으러 나아간다고 꾸며 내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 말고 도대체 어떤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실과 함께 송두리째 싫어하시는 그분의 원수들에게서 하나님께 기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진리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정 안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철천지원수요 드러내 놓은 원수라고 증언합니다(롬 5:6; 골 1:21). 칭의가 사랑의 시작이라면, 어떤 행위의 의가 그것보다 앞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저 해로운 교만을 막으려고,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지런히 일깨웁니다(요일 4:10). 주님께서도 이미 오래전에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호 14:4).[462]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하리니, 내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이 스스로 우리에게로 기울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행위에 자극받은 것이 아닙니다.

33. 그러나 사람들의 무지한 무리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도록 공로를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우리가 구속을 소유하는 데 들어가는 데에는 우리 행위가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만 생각합니다. CO 759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아무리 구속을 받았어도, 아버지의

462. 원문에는 "호세아 14장 5절" 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의 절수이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부르심으로 그분과의 교제에 접붙여지기까지는 어둠과 죽음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씻음을 이루실 때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더러움에서 씻기고 깨끗해진다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전 6:11). 베드로도 같은 것을 말하고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순종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게 한다고 밝힙니다(벧전 1:2).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정결하게 하는 데 뿌림을 받는다면, 이렇게 적셔지기 전의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죄인과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붙들어 둡시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이를테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과 같습니다.

34. 이런 이치 아래, 위에서 나눈 구분에서 둘째와 셋째로 표시한 사람들의 부류도 포함됩니다. 양심의 불결함이 이 둘이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 안에 중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고, 아직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좋은 것들에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죄인들이 그분의 심판 앞에 가증한 것 말고 무엇을 낳겠습니까? 불경건한 자는 모두 이 어리석은 확신으로 부풀어 있지만, 특히 위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 전체가 더러움으로 넘쳐 나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그럴듯한 행위를 내놓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지 않으실 만하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저 해로운 오류가 나옵니다. 그들은 악하고 사악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이 드러나도 자기에게 의가 없다고 고백하도록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인할 수 없으니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얼마간의 의를 자기 것으로 주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 헛됨을 훌륭하게 논박하십니다(학 2:13).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물어 말하라. 사람이 거룩하게 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그 옷자락을 빵이나 다른 음식에 대

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학개가 말하였다. ‘시체로 부정해진 자가 이것들 가운데 무엇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지 않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부정해집니다.’ 학개가 말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내 앞에서 이러하고, 그들 손의 모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이 부정할 것이다. ‘”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을 얻거나, 적어도 기억에 단단히 박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평생 극악하게 산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을 스스로 믿으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한 자라도 율법의 의무 한두 가지를 해치우자마자, 그것이 의로 자기에게 인정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음이 먼저 잘 씻기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 거룩함도 얻지 못한다고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무엇이든 저 마음의 불결함으로 더럽혀진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입으로 더럽다고 정죄받는 이 행위들에서 의라는 이름은 물러가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얼마나 멋진 비유로 이것을 보여 주십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범할 수 없이 거룩하다고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와 반대로, 불결한 손이 거룩한 것을 만져 속되게 하는 것이니, 주님의 율법에서 거룩하게 된 것들이 악인들의 더러움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맞세우십니다.

35. 그분께서는 이사야서에서도(사 1:12) 같은 송사를 훌륭하게 이어 가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제물을 바치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다. 너희의 초하루와 절기를 내 영혼이 미워한다. 그것들이 내게 짐이 되었고, 견디기에 지쳤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희에게서 눈을 돌릴 것이며,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씻고 깨끗하게 하며, 너희 생각의 악을 없애라.” 주님께서 당신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메스꺼워하시니 이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서 율법을 참되게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디서나 율법 준수의 시작이 당신의 이름을 진실하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그분께 바치는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일 뿐 아니라 악취 나고 가증한 오물입니다. 이제 위선자들은 가서, 마음에 감추어 둔 비뚤어짐을 그대로 붙든 채 행위로 하나님께 공로를 세우려고 애써 보라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여 그들은 그분을 점점 더 노엽게 할 뿐입니다. 악인의 제물은 그분께 가증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만이 그분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잠 15:8).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사람에게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할 이것을 의심할 여지 없는 것으로 확정합니다. 아직 참되게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행위는 아무리 눈부시게 빛나더라도 주님 앞에서 의와는 너무나 멀어서 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격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을 때에야 비로소 행위가 기쁘시게 한다고 가르친 사람들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손을 잡아 우리를 이끌어 가는 이 순서를 세심하게 지켜야 합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행위를 돌아보셨다고 씁니다(창 4:4). 주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돌아보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께 너그럽게 받아들여지려면, 마음의 정결하게 됨이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단언하셨습니다(행 15:9). 그러므로 첫 기초는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36. 이제 넷째 부류에 둔 사람들이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사이에 두시고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값없는 죄 사함을 베푸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실 때, 이런 자비와 함께 그분의 이 선을 베푸심도 동시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곧 그분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육의 정욕이 날마다 더욱더 죽임을 당하며,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곧 우리 마음이 율법에 순종하도록 빚어져, 참된 삶의 정결함 안에서 주님께 바쳐집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뜻을 섬기고 모든 방법으로 오직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의 으뜸가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자신을 잊고 우쭐해지지 않도록 불완전함의 찌꺼기가 남아서 우리에게 겸손의 근거를 줍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왕상 8:46).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자기 행위로 어떤 의를 얻겠습니까? 먼저 나는 말합니다.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도 언제나 육의 어떤 불결함이 묻어 있고 썩어 있으며, 이를테면 찌꺼기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자기 온 삶에서, 그 여정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잘 되짚어 보게 하십시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디선가 육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우리의 열심은 결코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이 되지 못하고, 달음질을 더디게 하는 연약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행위에 묻은 얼룩이 희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 봅시다. 그렇다 해도 별들조차 깨끗하지 않은 그분의 눈에 그것이 아무 거슬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행위 가운데, 그 자체로 평가된다면 마땅한 수치를 받지 않을 행위는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37. 다음으로, 설령 우리에게 아주 순수하고 완전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말하듯이(겔 18:24) 죄 하나만으로도 이전의 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고 없애기에 충분합니다. 야고보도 이에 동의합니다(약 2:10). 그는 말합니다. "하나를 범하는 자는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이 죽을 삶은 결코 죄에서 깨끗하거나 비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마련한 의가 무엇이든 뒤따르는 죄들로 거듭 썩고 짓눌리고 잃어버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의로 전가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행위의 의를 다룰 때는 율법의 행위 하나가 아니라 계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의를 구한다면 행위 한두 가지를 내놓아도 헛일이고,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말한 죄 사함을 단 한 번만 우리에게 의로 전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삶의 용서를 얻은 뒤에 그 뒤로는 율법에서 의를 구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헛된 소망으로 이끌어 비웃고 놀리시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완전함도 우리에게 이를 수 없는데, 율법은 행위로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을 선언하므로,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고발하고 죄인으로 몰 거리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는 죄 사함으로 우리를 거듭 놓아 주며 맞서 나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이 언제나 확고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로 평가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꾀하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과 함께 죽음과 수치를 받아 마땅합니다.

38. 다음 두 가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경건한 사람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으로 검토된다면 정죄받지 않을 행위는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설령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자 자신이 죄들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그 행위는 그 죄들로 망가지고 더럽혀져서 은혜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논쟁의 주된 축입니다. 칭의의 시작에 관해서는 우리와 좀 더 건전한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곧 죄인이 값없이 정죄에서 풀려나 의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죄 사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칭의라는 낱말 아

래 갱신을 포함시키는데, 이 갱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율법에 순종하도록 새롭게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생한 사람의 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번 하나님과 화목한 뒤에는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며, 그 공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이 아직 우상을 섬기던 때가 아니라 이미 여러 해 동안 거룩한 삶으로 뛰어났을 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전가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롬 4:3).[463]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죽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율법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믿음에 놓인 의를 가집니다. 이로써 우리는 바울의 추론을 따라, 그 의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에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합 2:4)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돌이키셔서 의롭다 하시는 불경건하고 속된 자들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신자들을 향한 것이며, 그들에게 믿음으로 생명이 약속됩니다. 바울도 이 말을 확증하려고 다윗의 이 구절을 가져옴으로써 모든 망설임을 풀어 줍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시 32:1). 그런데 다윗이 불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같은 신자들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자기 양심의 느낌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한 번만 가질 것이 아니라 평생 붙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값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관한 사신의 직무가 하루나 이틀 공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끊임없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삶의 끝까지 거기서 묘사되는 의 말고 다른 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로 영원히 계시며(고후 5:18), 그분의 죽음의 효력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CO 763 곧 씻음과 속상과 속죄,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바울도

463. 원문에는 "로마서 4장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4:3에 있으므로 장절을 바꾸었습니다. OCR이 "4, 3"을 잘못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엡 2:8)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은혜에서 얻는다고 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9. 스콜라 신학자들이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찾는 핑계는 그들을 구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행이 의를 얻는 데 효력이 있는 것은 받아들이시는 은혜(gratia acceptans) 덕분이며, 저지르는 죄과는 의무 이상의 행위(opera supererogationis)로 메워진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시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분의 값없는 선하심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인정하셔서, 그 은택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무죄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유일하게 완전하므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눈앞을 견딜 수 있는데, 이 의가 우리를 위하여 나서야 하며, 보증인처럼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의로 무장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이 의의 순결함에 가려져서 우리의 더러움과 불완전함의 불결함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고, 이를테면 묻힌 것처럼 덮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합니다. 곧 우리 안의 옛사람이 끝장나고 완전히 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새 아담과 함께 복된 평화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때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다시 받아 하늘 나라의 영광으로 옮겨질 주의 날을 기다립니다.

40. 이것이 참되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 자체로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행위 자체도,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죄의 사함을 얻는 만큼이 아니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의무 이상의 행위로 갚음을 채운다고 늘 지껄이는 것도 더 견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쫓겨난 그곳으로 언제나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곧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행위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들에게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텐데, 그들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이것을 인정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말고는 어떤 행위의 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여러 번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도, 모든 영광을 빼앗긴 것처럼, 곧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몇 안 되는 행위의 무슨 부스러기를 자랑하고, 모자란 것은 다른 속죄 행위로 메우려고 애쓰다니, 이 무슨 악함입니까? 속죄 행위는 앞에서 이미 힘 있게 무너뜨렸으니, 꿈에서라도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다만 이렇게 어리석게 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사람들의 모든 의를 한 무더기로 모아도 죄 하나를 갚기에 모자란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범죄 하나로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고 내쳐져서, 동시에 구원을 되찾을 모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속죄 행위를 할 능력은 없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우쭐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죄를 돌리기로 정하신 모든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행위를 돌아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 죄가 덮이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죄 사함은 값없다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무슨 속죄 행위든 끼워 넣는 자들은 이것을 극악하게 모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의 본을 따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의 경주장에서 달려갑시다(빌 3:13).

41. 그런데 의무 이상의 행위를 떠벌리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된 것과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곧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뒤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눅 17:10).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꾸미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을 마음속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느끼고 스스로 헤아려, 그분께 아무 값없는 섬김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빚진 일을 갚는 것임을 알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순종의 빚을 진 종이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체를 율법의 의무에 돌린다 해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뒤에"라고 하신 말씀은, 마치 모든 사람의 의가 한 사람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그 목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땅한 분량에 덧붙여 더 쌓았다고 감히 자랑하겠습니까? 또 누구도, 필요한 의무에서 어느 부분이 모자란 사람이라도 그의 열심이 필요한 의무를 넘어서 나아가는 데에는 아무 걸림이 없다고 반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든 사랑에서든, 하나님의 율법 아래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 마음에 떠오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일부라면, 우리가 필연에 매여 있는 곳에서 자발적인 너그러움을 자랑하지 맙시다.

42. 그리고 이 일에 바울의 저 자랑(고전 9:1 이하)을 끌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곧 그가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 원했다면 달리 쓸 수 있었던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고, 직분상 빚진 것만 그들에게 쏟은 것이 아니라 직분의 한계를 넘어 값없는 수고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밝혀 놓은 이유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악하고 속이는 일꾼들이 이 너그러움의 미끼로 자신을 팔아, 자기들의 해로운 교리에 호의를 얻고 복음에는 미움을 불러일으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위험에 빠뜨리든지, 이런 술책에 맞서든지 해야 했습니다.

1539–1554년판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3

CO 1:765–77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765 [464]자, 삼갈 수 있는데도 걸림이 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래도 좋은 일이라면, 나는 사도가 주님께 의무 이상의 무엇을 바쳤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맡은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그런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크리소스토무스의 말은 언제나 참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종의 사유 재산과 같은 처지에 있어서, 법 자체로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비유에서 이것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눅 17:7). 그분께서는, 종이 온종일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고 저녁에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에게 무슨 고마움을 가지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종이 우리가 감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부지런함으로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종의 처지에서 빚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능력과 함께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들이 하나님께 팔아넘기려는 의무 이상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결코 명하신 적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으시며, 그분 앞에서 셈을 할 때 받아 주지도 않으실 하찮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런 뜻으로만 우리는 의무 이상의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곧 선지자에게서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구하였느냐?”(사 1:12)라고 한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곳에서 이런 것들에 관해 하신

464.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사 55:2) 그늘 아래 푹신한 교수 의자에 앉아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저 한가한 랍비들에게 그리 고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지극히 높으신 재판장께서 재판석에 앉으실 때, 이런 바람 같은 견해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 바로 이것을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재판석 앞에 어떤 변호의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물어야 했지, 학교와 구석에서 무엇을 지껄일 수 있는지를 물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43. 이 부분에서 우리 마음에서 특히 쫓아내야 할 역병이 둘 있습니다. 행위의 의에 무슨 신뢰를 두지 않는 것과, 행위에 무슨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모든 신뢰에서 우리를 밀어냅니다. 우리의 모든 의가 그리스도의 무죄함에서 좋은 향기를 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기며, 그분 자비의 너그러움으로 지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가르칠 때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저 고백과 함께 우리 재판장께 간청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습니다. 곧 그분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셈을 요구하신다면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는 고백입니다(시 143:2). 욥의 이 말도 같은 뜻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의로워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다”(욥 10:15).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위험하게 다투기보다 차라리 스스로 물러서겠다는 뜻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 안에서 느낀 의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첫 순간에 무너질 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뢰가 쫓겨나면 모든 자랑도 물러가야 합니다. 행위를 신뢰하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는데, 누가 그 행위에 의의 찬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어느 부분에서도 행위의 신뢰에 기대지 않고 자랑으로 우쭐하지도 않을 때, 그때에야 마음이 바르게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 거짓되고 속이는 신뢰의 바람으로 부풀게 하는 것은, 그들이 언제나 자기 구원의 원인을 행위에 둔다는 이 오류입니다.

44. 그러나 철학자들이 일의 결과에서 살피라고 가르치는 네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 구원을 세우는 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작용인이 하늘 아버지의 자비이며 우리를 향한 값없는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질료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순종이니, 그분께서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를 얻어 주셨습니다. 형상인 또는 도구인은 믿음 말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이 셋을 한 문장에 함께 담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또 사도는 목적인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과 선하심을 찬양함이라고 증언합니다. 거기서 그는 다른 세 원인도 분명한 말로 언급합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서 여러분은 머리, 곧 첫 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는 자비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를테면 질료를 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도구인이 드러납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끝으로 그는 목적을 덧붙여 말합니다. “당신의 의를 나타내사, 당신도 의로우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지나는 길에 이 의가 화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리려고, 그리스도께서 화목을 위하여 주어지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가 순전한 자비로 하나님께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지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간구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붙잡히며, 모든 것이 하나님 선하심의 영광

이 온전히 빛나게 하려는 이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구원의 모든 부분이 이처럼 우리 밖에 있는 것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행위를 신뢰하거나 자랑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의 가장 굳게 결탁한 원수들이라도 성경 전체를 부인하려 하지 않는 한, 작용인이나 목적인에 관해서는 우리와 논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질료인과 형상인에서 속임수를 씁니다. 마치 우리 행위가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절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이 반대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되신다고 단순하게 단언하고, 또 이 의의 좋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소유된다고 단언하기 때문입니다.

45.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의 무죄함과 온전함을 기억하여 꽤 자주 스스로 굳세게 하고 위로하며, CO 767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삼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자기의 선한 송사를 불경건한 자들의 악한 송사와 견주어, 자기 의를 내세워서라기보다 원수들이 마땅히 받을 정당한 정죄로 말미암아 승리의 확신을 얻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과 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 양심의 순결함이 그들에게 얼마간의 위로와 신뢰를 주는 경우입니다. 앞의 이유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뒤의 것이, 우리가 위에서 말한 것, 곧 하나님의 심판에서 행위의 신뢰에 기대서는 안 되며 행위에 대한 생각으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어떻게 들어맞는지 짧게 풀겠습니다. 그 들어맞음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구원을 세우고 굳히는 문제에서는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을 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보다 먼저 복의 시작으로서 그것에로 돌아설 뿐 아니라, 그 완성으로서 그 안에서 쉽니다. 이렇게 세워지고 일으켜지고 굳어진 양심은, 행위에 대한 생각으로도 굳어집니다. 곧 행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한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의 신뢰는, 그대가 먼저 마음의 신뢰 전체를 하나님의 자비에 던져 놓지 않으면 자리를

얻지 못하므로, 그것이 기대고 있는 그 자비와 반대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의 신뢰를 배제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행위의 공로를 구원의 도움처럼 돌아보지 말고, 의에 대한 값없는 약속 안에 온전히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의 표징들로 떠받치고 굳히는 것을 우리는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을 무엇이든 기억에 되살릴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주님 얼굴의 빛살과 같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저 지극한 선하심의 빛을 바라보도록 비추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양자의 영을 보여 주는 선행의 은혜는 더욱 그러합니다.

46. 그러므로 성도들이 양심의 무죄함으로 자기 믿음을 굳히고 기뻐할 거리를 얻을 때, 그들은 다름 아니라 부르심의 열매들로부터 자기가 주님께 자녀의 자리로 받아들여졌다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주를 경외하는 데 굳은 안전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나(잠 14:26), 성도들이 주님께 들으심을 얻으려고 자기가 그분 얼굴 앞에서 온전함과 단순함으로 걸었다고 때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양심을 굳히는 기초를 놓는 데에는 아무 자리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뒤에서부터(a posteriori) 취해질 때에야 비로소 힘이 있습니다. 온전한 안전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외는 어디에도 없고, 성도들은 자기가 그런 온전함을 지녔다고 의식하더라도 그 온전함에는 아직 많은 육의 찌꺼기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생의 열매에서 자기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증거를 얻으므로, 그것으로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도록 적잖이 굳세어집니다. 이렇게 큰 일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먼저 오직 약속의 확실성으로 인 쳐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선하심을 선행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그보다 더 불확실하고 약한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그 자체로 평가한다면, 행위는 비록 시작된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증언하더라도,

그 못지않게 그 불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낼 것입니다.

47. 이제 우리는 성도들 안에 있는 행위의 신뢰가 행위의 공로에 무엇을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님을 봅니다(그들은 행위를 하나님의 선물로만 보고 거기서 그분의 선하심을 알아보며, 부르심의 표징으로만 보고 거기서 선택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또 그 신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값없는 의에서 무엇을 깎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뢰는 그 의에 달려 있고, 그 의 없이는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짧지만 우아한 말로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주님께 '내 손으로 한 일을 업신여기지 마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을 찾았고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한 일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께서 살피시면 공로보다 죄를 더 많이 찾으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만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업신여기지 마소서.' 내 안에서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보소서. 내 일을 보시면 정죄하시고, 주의 일을 보시면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내게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든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행위를 하나님께 감히 내세우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자기에게 선행이 있다 해도 거기서 자기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것마저 수많은 죄에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양심은 거기서 안전보다 두려움과 당혹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바른 행실을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 부르심의 은혜를 알아보시고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도록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48. 또 성경이 신자들의 선행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원인으로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세운 것이 흔들리지 않고 서도록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곧 우리 구원의 작용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질료는 아들의 순종에, 도구는 성령의 비추심 곧 믿음에 있으며, 목적은 하나님의 이토록 큰 선하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행위를 하위 원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곧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영원한 생명의 유업으로 정하신 자들을, 당신의 통상적인 경륜에 따라 선행을 통하여 그 소유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경륜의 순서에서 앞서는 것을 그분께서는 뒤에 오는 것의 원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이치로 그분께서는 때때로 영원한 생명을 행위에서 끌어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행위 덕분으로 돌려야 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므로, 다음 은혜로 가는 단계인 앞의 은혜를 어떤 뜻에서 원인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CO 769 그러나 참된 원인을 밝혀야 할 때마다, 그분께서는 행위로 피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비를 생각하는 데 우리를 붙들어 두십니다. 그분께서 사도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주의 은혜는 영생이다.” 왜 생명을 사망과 맞세우듯이 의를 죄와 맞세우지 않습니까? 왜 죄를 사망의 원인으로 세우듯이 의를 생명의 원인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구가 제대로 맞았을 텐데, 이 변화로 대구가 얼마간 끊깁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비교로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려 했습니다. 곧 사람들의 공로에는 사망이 마땅하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49. 이제 우리는 이 송사에서 으뜸가는 것을 풀었습니다. 의가 행위로 떠받쳐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 오직 그리스도께 참여함,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송사의 으뜸가는 축이라는 것을 부지런히 주목합시다. 그래야 대중뿐 아니라 학자들까지 빠져 있는 흔한 착각에 얽히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칭의와 행위의 칭의를 묻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무슨 공로를 돌리는 듯한 구절들로 달려갑니다. 마치 행위가 하나님께 무슨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행위의 칭의가 이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행위의 의는 오직 율법을 완전

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데에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함의 꼭대기에 올라서 아주 작은 범죄로도 책잡힐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사람을 의롭다 하는 데 조금도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행위가 하나님께 은혜를 공로로 얻는 것은 아니냐는 것은 다른, 그리고 별개의 물음입니다.

50. 먼저 공로라는 이름에 관해서는 이렇게 미리 말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 처음으로 이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에 견준 사람의 행위에 갖다 붙인 사람은 믿음의 순전함을 아주 나쁘게 돌보았습니다. 나는 말다툼을 기꺼이 삼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저술가들 사이에 늘 이런 절제가 지켜졌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곧 필요하지도 않은데 성경에 낯선 낱말, 걸림은 많이 일으키고 열매는 아주 적은 낱말을 쓰려고 마음먹지 않는 절제입니다. 묻건대 선행의 값어치를 걸림 없이 다른 이름으로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데, 공로라는 이름을 끌어들일 필요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큰 걸림을 품고 있는지는 온 세상이 입은 큰 손해로 드러납니다. 참으로 그 말은 지극히 오만한 말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하고 사람들을 비뚤어진 교만으로 물들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건대 교회의 옛 저술가들이 곳곳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그들이 낱말 하나를 잘못 써서 후대에 오류의 거리를 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자신도 몇몇 곳에서, 진리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디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사람의 공로는 여기서 잠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게 하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자기 공로에 아무것도 돌리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은 모든 것을 오직 주의 자비에 돌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465]

465. 원문에는 CO 편집자 각주의 끝부분 “In Psal. 88.” (시편 88편 강해)만 남아 있습니다. 각주의 앞부분은 OCR에서 빠져, 이 각주가 어느 인용에 붙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선한 것은 무엇이든 자기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볼 때, 자기 안에서 칭찬받는 모든 것이 자기 공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서 온 것임을 봅니다." 그가 사람에게서 선을 행하는 능력을 빼앗으면서 공로의 품위도 무너뜨리는 것을 보십니까? 크리소스토무스도 말합니다.[466] "하나님의 값없는 부르심을 뒤따르는 우리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갚음이요 빚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요 선을 베푸심이며 너그러움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그만두고 차라리 실체를 봅시다. 베르나르두스는 어디선가 이렇게 말합니다.[467] "공로를 위해서는 공로를 믿고 주제넘지 않는 것으로 넉넉하듯이, 공로가 없는 것은 심판받기에 넉넉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풀이를 덧붙여 그 말의 거친 맛을 충분히 누그러뜨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로를 가지도록 힘쓰십시오. 가졌거든 받은 것임을 아십시오. 그 열매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난과 배은망덕과 주제넘음의 모든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공로가 주제넘음 없이, 주제넘음이 공로 없이 있지 않은 교회는 복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뜻으로 그 말을 쓰는지 넉넉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더 굳고 더 안전한 자랑의 근거를 가진 교회가 공로에 관해 왜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공로로 좋은 것들을 바랄지 물을 까닭이 없습니다. 특히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를 위함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합니다. 공로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공로로 넉넉합니다."

51. 우리의 모든 행위가 무엇을 공로로 얻는지는 성경이 보여 줍니다. 행위가 더러움으로 가득하므로 하나님의 눈앞을 견딜 수 없다고 할 때입니다.

466. CO 편집자 각주에는 "Homil. 33. in Genes." (창세기 설교 33)라고 되어 있습니다.
467. CO 편집자 각주에는 아가서 설교 6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OCR은 "Sapra cantio. serm. 681"로 깨져 있어 "Super cantic. serm. 68"로 읽었습니다.

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일이 어디서 찾아진다 해도 그것이 무엇을 공로로 얻을지도 성경이 보여 줍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뒤에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라고 명할 때입니다(눅 17:10). 우리가 주님께 값없이 바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고마움을 받을 일이 없는 마땅한 순종을 해치웠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시고, 그것이 당신께 받아들여진다고 증언하실 뿐 아니라, 갚음도 받으리라고 증언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큰 약속에 힘을 얻고 마음을 다잡아,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렇게 큰 선하심을 참된 감사로 따라야 합니다. 행위 안에 찬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 것으로 돌려야 할 방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진지하게 인정한다면, CO 771 공로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공로라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궤변가들이 하듯 선행의 찬양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체를 온전하고 흠 없이 주님께 남겨 둡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다만 이것만 돌립니다. 곧 사람이 선했던 바로 그것을 자기 불결함으로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어떤 얼룩에 더럽혀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심판에 불러 보시라지요. 그분께서는 그 안에서 당신의 의는 알아보시겠지만, 사람에게서는 수치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행위자에게 열매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행은 갚음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택을 받습니다. 행위가 그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스스로 행위에 이런 값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런 공로가 없는 행위를 마땅하지 않은 상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저 너그러우심에 만족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너그러움에서 오는 것이 행위의 공로로 갚아지는 것

처럼 보이도록 독성의 야망으로 더 나아가려 하다니, 이 무슨 악함입니까? 여기서 나는 각 사람의 상식에 호소합니다. 남의 너그러움으로 밭에 용익권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까지 자기 것으로 주장한다면, 이런 배은망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점유마저 잃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놓임을 받은 종이 해방된 자의 낮은 신분을 감추고 자기를 본디 자유인으로 내세운다면, 옛 종살이로 되돌려 보내져 마땅하지 않습니까? 받은 은택을 누리는 정당한 방식은 결국 이것뿐입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우리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선의 주인에게서 그분의 찬양을 빼앗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옮겨 주신 것이 어떤 뜻에서 여전히 그분께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처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이런 절제를 보여야 한다면, 하나님께는 어떤 절제가 마땅한지 저마다 살피고 헤아려 보십시오.

52. 나는 궤변가들이 공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몇몇 구절을 잘못 쓴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집회서에서(집회서 16:14) 이 문장을 인용합니다. "자비가 각 사람에게 그 행위의 공로에 따라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또 히브리서에서(히 13:16) 이 문장을 인용합니다.[468] "선을 행함과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런 제사로 하나님께 공로가 세워진다(promeretur)." 집회서의 권위를 물리칠 내 권리는 지금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집회서의 저자가 누구였든 그가 쓴 것을 충실하게 인용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πάσῃ ἐλεημοσύνῃ ποιήσει τόπον· ἕκαστος γὰρ 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εὑρήσει." 곧 "그는 모든 자비에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469] 이것이 참된

468. 원문에는 "히브리서 13장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13:16에 있으므로 장절을 바꾸었습니다.

469. 원문의 그리스어는 OCR이 크게 깨져 있습니다("naan Iknjfioifvvfj noC^cn xoitov' hcaarog yoQ xard ta iQya aviov ivgi^ffit"). 칼빈이 함께 적은 라틴어 번역에 따라 읽었습니다.

읽기이며 라틴어 번역에서 이것이 망가졌다는 것은, 이 낱말들의 짜임만 보아도, 또 앞 문맥을 길게 보아도 분명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낱말 하나에 덫을 놓을 까닭이 없습니다. 사도의 그리스어 낱말에는 이런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받아들여진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준을 넘어 행위에 품위를 덧붙이지 않도록,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교만의 오만함을 억누르고 꺾기에 넉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언제나 많은 더러움이 묻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노여워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실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행이 그분을 우리와 화목하게 하거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을 베푸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는커녕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당신의 너그러우심으로 선행을 가장 엄격한 법대로 살피지 않으시므로, 마치 아주 깨끗한 것처럼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공로가 없는데도 이 세상 삶과 장차 올 삶의 끝없는 은택으로 갚아 주십니다. 나는 다른 면에서는 학식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세운 이런 구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곧 선행은 이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에 대해서는 공로가 되지만, 영원한 구원은 오직 믿음의 상이라는 구별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의 품삯과 싸움의 면류관을 거의 언제나 하늘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받는 것을 은혜에서 빼앗아 행위의 공로에 돌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자는 더 받고,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많은 것을 맡으리라고 말씀하시지만(마 25:21; 눅 8:18),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신자들이 자라나는 것이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사 55:1).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돈 없이, 아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므로 지금 경건한 자들에게 구원의 도움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그리고 복 자체도, 순전히 하나님의 선을 베푸심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이 복에서도 저 도움들에서도 행위를 고려하신다고 증언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 사랑의 크기를 증언하시려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까지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53. 이것들이 지난 세대에 마땅한 순서대로 다루어지고 정리되었더라면, 결코 그렇게 많은 소란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교 교리의 건축에서, 그가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놓은 기초, 곧 그 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그 기초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고전 3:11).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초는 어떤 것입니까? 그분께서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셨고 완성은 우리에게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분께서는 길만 열어 주셨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조금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의로 주어지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굳건한 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분께서 우리가 의를 얻도록 돕기 위해 보내지셨다고 하지 않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보내지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CO 773 곧 우리가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계획에 따라 창세 전 영원부터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분의 죽음으로 사망의 정죄에서 구속되고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그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 아들과 상속자로 양자 되었고, 그분의 피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분께 보호받도록 맡겨져 멸망하고 끊어질 위험에서 벗어났고, 그분께 접붙여져 이미 어떤 뜻에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는 아직 어리석어도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가 죄인이어도 그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가 더러워도 그분께서 우리의 정결함이 되십니다. 우리

가 약하고, 무기도 없이 사탄에게 드러나 있어도, 그분께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져서 그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탄을 짓밟으시고 지옥의 문을 부수십니다. 우리가 아직 사망의 몸을 지니고 다녀도,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고자 한다면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54. 그러나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혀 다르게 가르쳐져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 준다는 무슨 선행이라는 장신구가 고안되었습니다. 마치 성경이 아들을 가지지 않은 자는 모두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생명의 재료를 낳겠습니까? 마치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죄라는 말씀(롬 14:23)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해로운 궤변가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자리로 무엇을 남겨 두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은혜, 곧 공로를 세울 기회를 공로로 얻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 불경건의 내던진 뻔뻔함이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분에게서 당신의 능력을 이렇게 벗겨 내고 거의 짓밟기까지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디서나 그분께 이런 증언이 돌려집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택은 다름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는 길이 열린 것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맛보기라도 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는 누구나 생명을 가졌다(요일 5:12). 믿는 자는 누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요 5:24; 6:40). 우리는 그분

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딤후 1:9; 딛 3:5). 신자들은 자기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를 모시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다. 그들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구원을 얻었다(엡 1:3; 2:6). 그리고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거나 구원을 획득할 능력만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자마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의 상속자, 의에 참여하는 자,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더 잘 반박하자면, 그대는 공로를 세울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얻었습니다. 그 공로가 그대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55. 이렇게 모든 오류의 어머니인 소르본 학파들은, 경건 전체의 요약인 믿음의 칭의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사람이 형성된 믿음(fides formata)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것을, 선행이 의를 얻는 데 효력을 가지는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조롱하듯이 믿음을 들먹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자주 되풀이하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엄청난 미움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도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선행의 찬양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훔쳐 내어 사람에게 옮겨 놓습니다. 그들은 선행이 하나님 은혜의 열매로 여겨진다면 사람을 높이는 데 별 힘이 없고 엄밀히 말해 공로라고 불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선행을 자유의지의 힘에서 끌어냅니다. 그야말로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으뜸가는 원인이 은혜에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유의지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모든 공로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뒷날의 궤변가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피타고라스인 롬바르두스도 가르칩니다.[470] 하지만 롬바르두스를 이자들과 견주면 그는 건전하고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아우구스티누스를 그렇게 자주 입에 올리면서도, 저 사람이 선행에서 영광의 조각 하나라도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얼마나 염려하며 조심했는지 보지 못했다니, 참으로 놀라운 눈멂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유의지를 논할 때 이 문제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증언 몇 가지를 인용했는데, 그의 저술에는 이와 비슷한 말이 거듭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우리의 공로를 어디서도 자랑하지 말라고 금합니다. 그 공로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우리의 모든 공로는 오직 은혜에서 나오며, 우리의 넉넉함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등의 말을 씁니다. 롬바르두스가 성경의 빛 앞에서 눈이 어두웠던 것은 덜 놀랍습니다. 그는 성경에 그리 잘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의 이 말보다 그들을 거슬러 더 분명한 말은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자랑을 금하고, 자랑하는 것이 왜 옳지 않은지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엡 2:10).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한 만큼이 아니고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우리의 중생은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께 속하므로, 우리가 선행에서 한 푼어치라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까닭이 없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선행을 끊임없이 다그치면서, 그동안 양심을 이렇게 가르쳐서 양심이 하나님께서 자기 행위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보이신다고 결코 감히 확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CO 775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로, 공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서도, 신자들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쳐서, 우리 교리로 신자들의 마음을 남다른 위로로 일으켜 세웁니다. 더 나아가

470.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이 "스승께서 말씀하셨다(ipse dixit)"는 한마디로 논쟁을 끝냈던 데서, 학파가 떠받드는 권위 있는 스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도 믿음 없이는,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먼저 마음의 확실한 신뢰로 정하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시도하거나 시작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56. 그러므로 우리는 저 유일한 기초에서 손톱만큼도 끌려 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이 기초가 놓인 뒤에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그 위에 바르고 질서 있게 세웁니다. 가르침과 권면이 필요하면, 그들은 이렇게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요일 3:8). 지나간 때로 이방인들의 뜻을 이루는 데 넉넉하다(벧전 4:3).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귀히 쓰도록 골라낸 긍휼의 그릇이니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딤후 2:2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이실 때(눅 9:23),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말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모든 악의 뿌리를 잘라 내어, 더는 자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모든 인내와 온유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본은 이것들과 경건과 거룩함의 다른 모든 의무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숨 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형제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그들은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고후 4:8 이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걱정에 빠지지 않고, 수고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낮아져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심을 늘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딤후 2:11), 함께 고난받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과 같은 모양에 이

르기까지 그분의 고난을 본받는다고 합니다(빌 3:10).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당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셔서, 그분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롬 8:29). 그러므로 사망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롬 8:38–39),[471] 도리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과 구원이 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행위로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지고, 이 증거로 자기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며, 나무처럼 열매로 판단받는다고 말합니다.

57. 이 한 마디로, 어떤 불경건한 자들의 뻔뻔함을 논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구원을 공로로 얻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선행을 없애고 사람들을 선행에 힘쓰는 데서 떼어 놓는다고 헐뜯습니다. 또 우리가 의가 값없는 죄 사함에 있다고 가르칠 때, 의에 이르는 길을 너무 쉽게 닦아 놓아서, 본디 지나치게 죄로 기우는 사람들을 이 미끼로 죄짓도록 꾄다고 헐뜯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비방들은 저 한 마디로 충분히 논박됩니다. 그래도 둘 다에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칭의로 선행이 무너진다고 트집 잡습니다. 선행이 오히려 일으켜지고 굳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 없이 성립하는 칭의를 꿈꾸지 않습니다. 차이는 다만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선행이 반드시 서로 붙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칭의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둡니다. 왜 그런지는, 믿음이 향하고 믿음이 그 모든 힘을 받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이며, 오직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는 성화도 함께 붙잡지 않고는 이 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471. 원문에는 “같은 장 35절”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8:38–39에 있으므로 장절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주어지셨기 때문입니다(고전 1:3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사람을 누구든 동시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은택들은 끊임없고 나눌 수 없는 띠로 묶여 있어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비추시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시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시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와 성화만이 문제이므로, 이 둘에 머뭅시다. 이 둘을 서로 구별해도 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둘을 나눌 수 없게 당신 안에 품고 계십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고 싶습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그분의 성화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조각조각 찢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는 이 은택들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지 않으므로, 둘을 함께 베푸십니다. 하나를 다른 하나 없이 주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면서도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얼마나 참된지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리스도께 참여함 안에는 의 못지않게 성화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58.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공로를 세운다는 생각을 없앨 때 그들의 마음이 선을 행하려는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것도 아주 거짓입니다. 그들이 품삯이라는 소망을 내세우지 않으면 삶을 바르게 꾸릴 마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길을 완전히 잘못 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품삯만 바라보며 그분께 자기 일을 세놓거나 판다면, 거의 아무 진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값없이 섬김을 받고 값없이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분께서는 품삯을 받을 모든 소망이 끊겼는데도 당신을 섬기기를 그치지 않는 예배자를 인정하십니다. 또 사람들을 북돋워야 한다면, 누구도 우리 구속과 부르심의 목적에서 오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박차를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런 박차를 댑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CO 777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가르칠 때입니다(히 9:14). 또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평생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때입니다(눅 1:74). 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모든 불경건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복된 소망과 크신 하나님과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때입니다(딛 2:12 이하).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를 자초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세워졌다는 것입니다(살전 5:9). 우리는 성령의 성전이니 그것을 더럽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고전 3:16; 엡 2:21).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엡 5:8).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곧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욕망을 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고후 6:16; 살전 4:3; 5:4). 그 부르심에는 삶의 정결함이 아니고는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의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롬 6:18).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는 요한의 저 논증보다(요일 4:7),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와 다른 점은 사랑 안에 머무는 데 있다는 논증보다, 더 생생한 논증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북돋워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한 몸의 지체들이니 서로의 섬김으로 서로 도와야 한다는 바울의 저 논증보다(롬 12:4) 더 생생한 것이 있겠습니까? 또 다시 요한에게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모두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 그들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을 때보다(요일 3:3),[472]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신의

472. 원문에는 장 번호만 있고 절 번호는 OCR에서 빠졌습니다("1 Ioan. 3,"). 인용한 말씀에 따라 3:3으로 적었습니다.

발자취를 따르도록 당신 자신을 본으로 내세우신다는 말을 들을 때보다 (요 15:10), 우리가 거룩함으로 더 힘차게 부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59. 그리고 이것들은 다만 맛보기로 조금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다룰 생각이라면 긴 책 한 권을 엮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선한 일에 갖추게 하려는 훈계와 권면과 책망으로 가득하며, 그것도 공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구원이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선다는 데서 가장 강력한 권면을 끌어냅니다. 바울이 그 예입니다. 그는 서신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의 말고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없다고 논한 뒤에, 권면으로 내려가서는(롬 12: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넉넉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다지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분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선을 행하도록 북돋우기에 아주 넉넉합니다. 그러나 이자들은 아마도 억지로 하는 종의 율법 순종을 공로를 내세워 짜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선행을 권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마치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고후 9:7), 무엇이든 근심으로나 억지로 내는 것을 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몹시 기뻐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성경이 우리를 모든 방면에서 북돋울 방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자주 쓰는 그런 종류의 권면을 물리치거나 소홀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실 품삯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가운데 으뜸가는 것이라는 것도 부정합니다. 다음으로,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자들이 선포하는 그런 공로를 세우는 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 행위의 아무 공로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저 교리가 먼저 자리 잡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리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도 거룩함에 힘쓰기에 알맞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것을 아름답게 넌지시 알립니다. "주여, 주께 화목이 있으니 이는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시 130:4).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 예배는 오직 그 자비로만 세워지고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60. 그런데 우리가 의가 놓여 있다고 말하는 값없는 죄 사함을 주장할 때 사람들을 죄짓도록 꾄다는 것은 가장 터무니없는 비방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의 어떤 선으로도 갚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값없는 것이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값없지만 그리스도께는 그렇지 않았으니, 그분께는 그렇게 큰 값, 곧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피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피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치를 만큼 넉넉히 합당한 값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배울 때, 그들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로서는 저 지극히 거룩한 피를 그만큼 다시 쏟게 하는 셈이라는 것을 일깨움 받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이 너무나 커서 이 지극히 깨끗한 피의 샘이 아니고는 결코 씻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선행을 뿌려서 닦인다고 할 때보다 죄를 더 크게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번 깨끗해진 뒤에 다시 진흙탕에 뒹굴어 이 샘의 깨끗함을 자기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흐리고 더럽히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에게서 신실한 영혼은 말합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아 5:3) 이제 어느 쪽이 죄 사함을 더 값싸게 만들고 의의 품위를 더 욕되게 하는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

님께서 자기들의 하찮은 속죄 행위, 곧 똥으로 달래지신다고 지껄입니다. 우리는 죄의 해악이 그런 가벼운 하찮은 것으로 속죄되기에는 너무 무겁고, 하나님께 대한 거스름이 이런 아무 값없는 속죄 행위로 용서받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의 특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의가 어디서 모자라면 속죄 행위로 회복되고 고쳐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가 어떤 행위의 갚음과도 같아질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가 회복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39–1554년판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4

CO 1:779–79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779 [473]죄 사함에 속한 나머지 것들은 제9장에서 찾아보십시오.

61. 이제 사탄이 자기 졸개들을 시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무너뜨리거나 깎아내리려고 꾀하는 다른 논증들도 계속 살펴봅시다. 저는 이미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를 마치 선행의 원수인 양 다루지 못하도록 그 핑계를 깨뜨려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위에서 칭의를 떼어 내는 것은 아무 선행도 하지 말라거나 행해진 선행이 선하지 않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행위에 구원을 돌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 우리의 자랑, 구원의 유일한 닻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으며,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복락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다른 공성 기계들로도 우리를 공격하므로, 자, 그것들도 계속 물리쳐 봅시다. 먼저 그들은 주께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율법의 약속들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들이 아주 헛되다고 하는지, 효력이 있다고 하는지 묻습니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이므로, 그들은 그 약속들에 얼마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된 것으로 전제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추론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

473.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니다. “네가 이 계명과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주께서도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자비를 너에게 지키실 것이요, 너를 사랑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등. 또 “너희가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평을 행하고, 악으로 물러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다니리라”(신 7:12; 렘 7:3, 23). 같은 꼴의 말씀 천 가지를 쓸데없이 늘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뜻이 조금도 다르지 않으므로, 이 말씀들을 풀면 함께 풀릴 것입니다. 요컨대 모세는 율법에서 복과 저주, 죽음과 생명이 앞에 놓였다고 증언합니다(신 11:26).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 복이 쓸모없고 열매 없게 되든지, 아니면 칭의가 오직 믿음만의 것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율법에 매달려 있으면 모든 복을 잃고 오직 저주만이 우리 위에 닥쳐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저주는 모든 범법자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만 무엇이든 약속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남습니다. 온 인류가 율법으로 책망을 받아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으며, 거기서 풀려나려면 율법의 권세에서 나와, 이를테면 그 종살이에서 자유로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육적인 자유, 곧 율법을 지키는 데서 우리를 빼내어 모든 일에 방종하도록 꾀고, 빗장이 부러지거나 고삐가 풀린 듯 우리의 정욕이 제멋대로 날뛰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얻어맞고 넋을 잃은 양심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며, 율법이 묶고 죄어 짓누르던 저주와 정죄에서 양심이 풀려났음을 보여 줍니다. 율법에 매인 데서 풀려나는 이 해방, 말하자면 이 노예 해방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을 때 얻습니다. 그 자비로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해 안심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 죄들을 느끼게 하여 우리를 찌르고 물어뜯었습니다.

62. 이런 이치로, 율법에서 우리에게 내밀어진 약속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복음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모두 효력 없고 헛될 것입니다. 그 약속들이 달려 있고 결국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근거인 이 조건, 곧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조건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의의 한 부분은 행위에 남겨 두시고 한 부분은 당신의 너그러우심으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의 완성으로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는(갈 2:16) 먼저 자기와 다른 유대인들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한 뒤에, 그 까닭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의 총합에 이르도록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옮겨 가서, 율법에는 없다고 보는 의를 믿음에서 찾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율법의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기다린다고 하는 보상들을 마음껏 부풀려 보십시오. 다만 그와 함께, 우리가 믿음에서 오는 다른 의를 얻기까지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거기서 아무 열매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당신의 종들을 위해 예비하신 보상을 말할 때, 곧바로 그 보상을 헛되게 만드는 죄들을 인정하는 데로 내려갑니다. 시편 19편(12절)에서 그는 율법의 은택을 크게 기리지만, 곧이어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으리이까?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시 25:10), 주의 모든 길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와 진리라고 말한 뒤에,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사하소서. 그것이 크니이다”라고 덧붙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면 율법에 그 호의가 우리 앞에 내놓여 있기는 하지만, 행위의 공로로는 그 호의가 결코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63.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들은 열매 없이 사라지도록 주어진 것입니까? 저는 방금 그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약속들이 행위의 공로를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그러므로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롬 10:5) "내가 너희에게 좋은 계명들을 주었으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리라"(레 18:5; 겔 20:11)는 저 빼어난 약속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무게가 없고, CO 781 주어지지 않은 것보다 털끝만큼도 더 유익하지 않으리라고 가르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종들에게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을 다 이루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오히려 많은 범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값없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들이 그 자리에 들어서면, 그 약속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도 그 나름의 은혜가 있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주께서 그 행위들을 기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언약에 따라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데 마땅히 따르게 되어 있던 복들까지 그 행위들에 베푸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께서 당신의 율법에서 의와 거룩함을 힘써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신자들의 행위에 갚아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보상에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은 행위에 은혜를 얻어 주는 그 원인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주께서는 언제나 칭찬보다 부끄러움을 받아 마땅한 당신 종의 행위에서 눈을 돌리시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시며, 행위의 도움 없이 오직 믿음이 사이에 서는 것으로 그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둘째, 주께서는 행위의 가치를 따지지 않으시고 아버지다운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행위를 이만큼 높여, 그것을 얼마간 값있게 여기십니다. 셋째, 주께서는 바로 그 행위들을 용서와 함께 받으시고 그 불완전함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행위가 그 불완전함으로 더러워져서 덕보다는 오히려 죄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궤변가들이 얼마나 속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행위가 구원을 얻어 내는 데 힘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선함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이치 때문, 곧 주께서 당신의 너그러우심으로 행위를 그만큼 값있게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터무니없는 결론을 멋지게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사이에, 자기들이 공로가 된다고 하던 행위들이, 오직 믿음에 기대는 칭의와 선행조차 그 얼룩에서 씻겨야 하는 죄 사함이 먼저 오지 않는다면, 약속의 조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행위가 받아들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의 세 가지 원인 가운데 그들은 하나만 적어 두고, 둘을, 그것도 가장 중요한 둘을 감추었습니다.

64. 그들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베드로의 말을 끌어옵니다(행 10:34–35). “내가 참으로 깨달았노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도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아주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사람이 바른 노력으로 하나님을 자기에게 호의를 품으시게 한다면, 그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만의 은택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죄인을 도우시되 행위에 움직이셔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으시는 데 두 가지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는 성경을 결코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본성대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자비로 기울게 하실 만한 것을 그의 비참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 받아들여질 때 모든 선을 잃고 헐벗고 가난하며, 거꾸로 온갖 악으로 가득 차고 짓눌려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자질 때문에 그가 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뚜렷하게 당신의 값없는 관용을 드러내 보이시는 곳에서는 공로에 관한 헛된 상상을 물리쳐야 합니다.

같은 곳에서 고넬료에게 천사의 목소리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말씀을(행 10:4 참조), 그들은 아주 고약하게 비틀어 사람이 선행에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준비된다는 뜻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녔던 고넬료는 이미 지혜의 영으로 조명을 받았어야 하고, 의를 힘써 행하던 그는 같은 영으로 거룩하게 되었어야 합니다. 사도는 의가 그 영의 가장 확실한 열매라고 가르칩니다(갈 5:5). 그러므로 그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전해지는 그 모든 것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그것들로 스스로 힘을 내어 은혜를 받으려고 자기를 준비했다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다음 가르침과 맞지 않는 음절 하나도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께 받아들이시는 데에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지면 모든 면에서 멸망한 자임을 보시고, 그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므로 그를 건지시는 데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 말고는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받아들이심이 사람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이토록 큰 은택을 받기에는 아주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전히 보여 주는 증거임을 봅니다.

65. 그러나 주께서 멸망의 깊은 구렁에서 사람을 이끌어 내어 양자 삼으시는 은혜로 그를 당신께 구별해 두신 뒤에는, 그를 중생시키시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지으셨으므로, 이제는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신의 영의 선물들과 함께 품으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 받아들이심입니다. 이 받아들이심으로 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뒤에 행위와 관련해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그들 안에 이루신 선한 것들을 사랑하시고 입 맞추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주께서 그들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그 행위들 자체를 받아들이실 만한 것으로 여겨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귀히 쓸 그

릇으로 택하셨듯이 참된 깨끗함으로 그들을 꾸미기를 원하신다는 것 말고, 그들에게 선행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또 그 행위들에 달라붙어 있는 흠과 얼룩을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 말고, 그 행위들이 마치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은 듯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요컨대 이 대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얼굴의 표지와 윤곽을 보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중생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곳마다 그것을 마땅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므로, 거룩함과 의로 다듬어진 신자들의 삶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죽을 육신에 둘러싸여 있어 아직 죄인이며, 그들의 선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육신의 악취를 풍기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자신 안에서보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품지 않으신다면, CO 783 그들에게도 그들의 행위에도 은혜를 베푸실 수 없습니다. 의를 힘써 행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다고 증언하는 대목들은 이런 뜻으로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신 7:9). “주 너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 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그 뒤에 백성 가운데서 흔히 쓰는 정해진 말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엄숙한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왕상 8:23).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시여.” 같은 말을 느헤미야도 되풀이합니다(느 1:5). 주께서는 당신의 자비의 모든 언약에서, 당신의 선하심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누구든 그 선하심 때문에 헛된 기쁨으로 우쭐해져서 자기 마음의 악함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축복하지 않도록, 당신의 종들에게 그 대가로 삶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는 언약의 교제에 받아들이신 자들을 이 길로 그 본분 안에 붙잡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언약 자체는 처음에도 값없이 맺어졌고, 언제까지나 그러한 것으로 남습니다.

66. 여기서 이런 말투들이 율법의 약속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나가며 적어 두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제가 율법의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의 책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약속들이 아니라(그 책들에도 복음의 약속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디 율법의 직분에 속한 약속들입니다. 그런 약속들은, 무슨 이름으로 부르든, "네가 명령받은 것을 행하면" 이라는 조건 아래 갚음이 마련되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비의 언약을 지키신다고 할 때에는, 주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원인을 말하기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언약을 받아들인 주의 종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 줍니다. 이 보여 줌의 이치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듯이, 성경에 있는 자비의 약속들은 무엇이든 마땅히 이 목적, 곧 우리가 은택을 베푸신 분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는 목적을 향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늘 있어야 할 본분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 곧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도록 주께 양자로 삼아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양자의 권리를 내던지지 않도록, 우리의 부르심이 향하는 곳을 향해 늘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을 붙잡읍시다. 주의 자비가 완성되는 것은 신자들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바른 삶으로 자기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그들 안에서 당신의 영으로 선으로 인도받는 자녀들의 참된 표지를 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민들에 관하여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관련지읍시다(시 15:1).[474]

474. 원문에는 "시편 16편 1절" 로 되어 있으나, 인용한 말씀은 시편 15편 1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뒤의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는 시편 24편 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서 쉬리이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니이다” 등. 또 이사야서에서도(사 33:14–15)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의를 행하고 바르게 말하는 자니라” 등. 여기에 묘사된 것은 신자들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받침대가 아니라, 지극히 관대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당신과의 교제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안에서 지키시며 굳게 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므로, 당신께 연합시키시는 자들을 당신의 영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과 당신의 나라에 걸맞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서 열리는지, 그 나라에 서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그 첫째 원인을 묻는다면, 대답은 곧바로 나옵니다. 주께서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한 번 받아들이셨고, 언제까지나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식에 관한 물음이라면, 그때에는 중생과 그 열매들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시편에 열거된 것이 바로 그 열매들입니다.

67. 그러나 선행에 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람이 선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는 대목들에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앞의 종류에 속한 대목은 아주 많습니다. 거기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롭다 하심” 또는 “의”라고 부릅니다. 뒤의 종류의 예는 모세에게 있는 말씀입니다(신 6:25).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은 율법의 약속이어서 이룰 수 없는 조건에 매여 있으므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면, 같은 대답을 할 수 없는 다른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렇습니다(신 24:13). “가난한 자에게 맡긴 물건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주 앞에서 너의 의가 될 것이다” 등. 또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수치를 갚으려 한 비느하스의 열심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시 106:30–31). 그래서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마음껏 조롱할 거리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가 세워지면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는 물러난다고 말하므

로, 그들도 같은 권리로 이렇게 논증합니다. 의가 행위에서 온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의가 담겨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갚아야 할 빚진 자들이므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서도 무익한 종들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는 영예로 높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의이며,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은 의의 한 부분이라고 기꺼이 인정합니다. 다만 의의 온전한 총합은 나머지 부분들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의 모습이 어디에든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없애는 것은 그 의가 그 자체로 모자라고 불구여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의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의 계명들을 그냥 "의"라고 부를 뿐 아니라, 성도들의 행위에도 이 이름을 붙입니다. 이를테면 사가랴와 그의 아내가 주의 의 가운데 행했다고 전할 때가 그렇습니다(눅 1:6).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행위를 그들 자신의 형편에서보다 율법의 본성에서 평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CO 785 주께서는 율법에 담긴 것들을 사람들에게 의가 되게 하시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고는 그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범법이든 그 의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 말고는 아무것도 명하지 않으므로, 율법 자체를 바라보면 그 계명 하나하나가 의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많은 일에서 범법자이므로 행위 하나로는 결코 의라는 칭찬을 얻지 못합니다. 또 그 행위 자체도 불완전함 때문에 언제나 어느 부분에서는 흠이 있으므로 그 행위로도 그 칭찬을 얻지 못합니다.

68. 이제 둘째 종류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의를 증명하는 데 가진 것 가운데, 아브라함에 관하여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말씀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한 일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니, 바울이 믿음에 관하여 주장하는 것을 우리도 행위에 관하여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은 마치 이미 이긴 듯이, 우리가 믿음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의를 채우는 것은 행위라고 정해 버립니다. 여기서 저는 경건한 이들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의의 참된 규범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성경이 억지 트집 없이 어떻게 그 자체로 바르게 조화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경건하고 진지하게 헤아려 보십시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자기 의를 갖추지 못한 자들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행위의 의에서 제외된다고 담대하게 결론짓습니다. 그런데 그 칭의가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는 같은 확신으로 아무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거꾸로 행위의 아무 도움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그 자체로 무슨 힘이 있는지를 논하는 것과, 믿음의 의가 세워진 뒤에 행위를 어떤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행위의 값을 그 가치대로 매겨야 한다면, 우리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행위가 하나도 없고, 따라서 행위의 모든 도움을 벗어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여져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곧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죄 사함을 얻고, 그분의 의를 마치 자기 것처럼 입고서 하늘 법정 앞에 안심하고 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먼저 오면, 그 뒤에 따르는 선행은 그

자체의 공로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그 행위들 안의 불완전한 것은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덮이고, 흠이나 더러움은 무엇이든 그분의 깨끗하심으로 씻겨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따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쁘신 것을 무엇이든 내놓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범법의 죄책이 지워지고, 선행조차 더럽히곤 하는 불완전함의 흠도 묻히면,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같은 말이지만, 의로 전가됩니다.

69. 이제 누가 믿음의 의를 공격하려고 이것을 내게 들이민다면, 저는 먼저 이렇게 묻겠습니다. 거룩한 행위 한두 가지 때문에, 삶의 나머지 행위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겠습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정도를 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선행이 많으면 의롭다고 여겨지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어떤 부분에서는 범법의 죄를 지은 자로 남아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이 반대하여 율법의 모든 계명을 끝까지 이루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하므로, 그는 이것조차 감히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더러움이나 불완전함으로도 책잡힐 데가 없는 행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별들도 넉넉히 깨끗하지 않고 천사들도 넉넉히 의롭지 않은 그 눈앞에서, 어떻게 그런 행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곁에 놓인 범법들로도, 또 그 행위 자체의 부패로도 더럽혀지지 않아서 의의 영예를 지닐 만한 선행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때에는 불결하고 더럽고 반쪽짜리이며,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눈앞에 나설 만하지도 않은 행위들이 의로 전가되는 것이 믿음의 칭의에서 나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째서 그들은 이 행위의 의를 내세워 믿음의 칭의를 무너뜨리려고 꾀합니까? 믿음의 칭의가 없다면 그들이 행위의 의를 내세우는 것도 헛될 터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독사의 새끼처럼 어미를 물어뜯게 하려는 것입니까? 불경건한 자들의 말이 바로 그리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칭의

가 행위의 의의 시작이요 기초요 원인이요 근거요 실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행도 의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리석은 말들은 내버려 두고, 사실 그대로 인정합시다. 행위의 의가 어떻게 평가되든, 그것이 믿음의 칭의에 달려 있다면, 그 행위의 의로 믿음의 칭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집니다. 곧 그 칭의의 힘이 더 강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또한 값없는 칭의 뒤에 행위가 높여지는 것이, 행위가 나중에 사람을 의롭다 하는 자리를 이어받거나 그 일을 믿음과 나누어 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믿음의 칭의가 언제까지나 온전히 남아 있지 않으면 행위의 더러움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자신이 의로울 뿐 아니라 그의 행위도 그 가치를 넘어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70. 이렇게 우리는 행위에 부분적인 의가 있다고 인정할 뿐 아니라(대적들 자신이 바라는 바가 그것입니다), 행위가 마치 완전하고 흠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기초에 받쳐져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모든 어려움이 풀릴 것입니다. 행위는 용서와 함께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기쁘신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는 것 말고 어디서 용서가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을 때,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무죄하심으로 덮이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나듯이, 우리의 행위도 CO 787 그 안에 있는 흠은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속에 묻혀 돌려지지 않으므로 의롭고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오직 믿음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행위의 의가 어떠하든 믿음과 값없는 칭의에 달려 있고 그 칭의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칭의 아래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테면 결과가 원인에 그렇듯이 그 칭의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일으켜 세워 칭의를 무너뜨리거나 흐리게 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복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음을 억지로라도 인정하게 하려고, 다윗의 이 말씀을 가장 힘주어 내세웁니다(시 32:1–2).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이에 맞서 행위에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찬사를 들이민다 하더라도(이를테면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는 자는”, “시험을 참는 자는”, “공의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등[시 112:1; 잠 14:21; 시 1:1; 약 1:12; 시 106:3; 119:1; 마 5:3 이하]), 그것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참되지 않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기서 칭송하는 것들은 결코 사람 안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사람은 죄 사함으로 비참에서 건져지지 않는 한 언제나 비참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높이는 모든 종류의 복은, 먼저 죄 사함으로 복을 얻고 그 복이 그 뒤에 다른 복들에 자리를 내주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어느 것의 열매도 거두지 못할 만큼 헛되이 무너지므로, 이 복이 가장 높고 으뜸가는 복일 뿐 아니라 유일한 복이라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직 이 복 위에만 서 있는 다른 복들로 이 복을 무력하게 만들려 하는 셈입니다. 이제 신자들에게 흔히 붙는 “의인”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어지럽혀야 할 까닭은 훨씬 더 적습니다. 저는 그들이 삶의 거룩함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 자체를 이루기보다는 의를 추구하는 데 힘쓰는 것이므로, 이 의가 어떠하든 믿음의 칭의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의가 지닌 것은 바로 그 칭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71. 그러나 그들은 야고보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아직 더 큰 일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드러내 놓고 우리와 맞서기 때문이라는 것입

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도 모두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약 2:21).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야고보와 싸움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까? 그들이 야고보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다면, 그의 말은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어긋나지 않도록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우리도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성령께서 야고보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의와 우리의 의가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에 달려 있다고 전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 자신과 다투지 않으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겠습니까? 대적들에게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깊은 뿌리에 세우려는 믿음의 의를 흔들어 놓기만 하면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그러나 양심에 평안을 돌려주는 일은 그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이 믿음의 칭의는 열심히 갉아먹으면서도, 그사이에 양심이 머물러 설 수 있는 의의 푯대는 하나도 세우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개선가를 부르라고 하십시오. 다만 그들은 의의 확실성을 모두 없애 버렸다는 승리 말고는 다른 승리를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진리의 빛을 끄시고 그들이 거짓의 어둠을 퍼뜨리도록 허용하실 때, 그들은 참으로 이 비참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서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들이 아킬레우스의 방패처럼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내미는 야고보의 말이 그들 편을 조금도 들어 주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475] 이것을 분명히 하려면 먼저 사도의 목적을 살펴야 하고, 다음으로 그들이 어디서 헛짚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교회에 늘 있기 마련인 악입니다), 신자들에게 고유한 행위는 무엇이든 소홀히

475. 아킬레우스(Achilles)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 준 방패를 들고 싸웁니다.

하고 빠뜨림으로써 자기 불신앙을 드러내 놓고 보이면서도, 믿음이라는 이름을 거짓으로 자랑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그런 자들의 어리석은 자신감을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도는 참된 믿음의 힘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허풍선이들이 믿음의 헛된 허상에 얼마나 어리석게 많은 것을 돌리면서, 그것에 만족하여 마음 놓고 온갖 악덕의 방종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72. 이 논점을 파악하고 나면, 우리 대적들이 어디서 잘못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그릇된 추론에 빠집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낱말에서, 다른 하나는 "의롭다 하다"라는 말에서입니다. 사도가 믿음의 참됨과는 멀리 동떨어진 헛된 생각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사학에서 말하는 양보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말로 그것을 보여 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약 2:14 참조) 그는 "누가 행위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 믿음이 있노라 자랑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뒤에 그 믿음을 비꼬아 마귀의 앎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 때 이것이 더 분명해지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부를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의 정의에서 넉넉히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고 말합니다(약 2:19 참조). 참으로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는 것 말고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이 의롭다 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이 믿음에서 그것을 빼앗는다고 해서, 그 이치가 아주 다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무엇을 깎아낸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참된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여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의에 참여함으로써 그 의를 누리게 하는 것 말고, 어떻게 의롭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앎을 품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의 확실성에 기대기 때문입니다.

73. 다른 그릇된 추론도 따져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칭의의 CO 789 한 부분을 행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를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도, 그 자신과도 맞게 하려면, "의롭다 하다"라는 말을 바울에게서와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에게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의가 기억에서 지워져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모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등의 말씀을 뒤집어서 끌어온 셈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어 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의를 얻었고,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약 2:21–23 참조). 결과가 그 원인보다 앞선다는 것이 터무니없다면, 모세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증언한 것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보인 순종으로 의를 얻어 낸 것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곧 이미 다 자란 이스마엘이 아직 잉태되지도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가 오랜 뒤에 따른 순종으로 의를 얻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가 순서를 거꾸로 뒤집었든지(이것은 생각만 해도 불경한 일입니다), 아니면 그는 아브라함이 마치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공로를 세웠다는 뜻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려 한 것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의 선언에 관하여 말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은 벌거벗은 상상 속 믿음의 가면이 아니라 순종과 선행으로 자기 의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서 일하는 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행위의 도움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주장하듯이, 야고보는 여기서 선행이 없는 자들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목적을 헤아리면 우리는 모든 의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무엇보다 여기서 속는 것은, 야고보가 칭의의 방식을 정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는, 선행을 업신여기는 것을 변명하려고 헛되이 믿음을 내세우던 자들의 그릇된 안일함을 무너뜨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야고보의 말을 어떤 식으로 비틀든, 두 가지 뜻 말고는 아무것도 짜내지 못할 것입니다. 곧 믿음의 헛된 허깨비는 의롭다 하지 못한다는 것과, 신자는 그런 상상에 만족하지 않고 선행으로 자기 의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74. 그들이 같은 뜻으로 바울에게서 끌어오는 말, 곧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도(롬 2:13) 그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암브로시우스의 풀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의 완성이므로 이 말을 했다는 풀이로 빠져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빠져나갈 구멍일 뿐이며,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거기서,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자기를 내세우면서도 실은 율법을 가장 심하게 멸시하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자신감을 꺾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그저 아는 것으로 그토록 스스로 흡족해하지 않도록, 율법에서 의를 찾는다면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일깨웁니다. 우리도 율법의 의가 행위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의가 행위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에 있다는 것조차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이룬 사람 하나라도 내놓지 않는 한,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뜻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말의 문맥이 넉넉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불의로 정죄한 뒤에, 나누어 말하는 데로 내려가서,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해당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범법에는 눈을 감으면서 율법만으로 교만했으므로, 그는 아주 알맞은 말을 덧붙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만 하여 의롭게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비로소 의롭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율법에서 의를 찾느냐? 그 자체로는 무게가 거의 없는 율법을 들은 것을 내세우지 말고, 율법이 너에게 헛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줄 행위를 내놓아라." 모두가 이것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율법을 자랑할 것을 빼앗겼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생각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된 논증을 세워야 합니다. 율법의 의는 행위의 완전함에 있다. 아무도 행위로 율법을 만족시켰다고 자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오는 의는 없다.

75. 그들은 또 신자들이 자기 의를 하나님의 심판에 달아 보시도록 담대하게 내놓고, 그 의에 따라 자기에 대하여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대목들을 가지고도 싸웁니다. 이런 대목들입니다. "주여, 나의 의와 내 안에 있는 나의 무죄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시 7:8).[476] 또 "하나님이여, 나의 의를 들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찾아오셨으나 내게서 죄악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시 17:1, 3). 또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내게 갚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보상하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길을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흠이 없을 것이요 나를 지켜 내 죄악에서 떠나리라" (시 18:20–23). 또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무죄함 가운데 행하였나이다. 나는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이다. 내

476. 원문에는 "시편 7편 9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아래 시편 18편과 63편도 같은 까닭으로 절수를 바꾸었습니다.

영혼을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멸하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죄악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무죄함 가운데 행하였나이다"(시 26:1). 성도들이 그저 행위에서 신뢰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신뢰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끌어온 증언들은 그 περίστασις, 곧 둘러싼 형편, 흔히 말하는 대로 정황에 따라 받아들인다면[477] 우리를 그리 가로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 자신 전체를 놓고 심리를 받아, 삶 전체의 흐름에 따라 정죄를 받거나 무죄 선고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판가름해 주시기를 바라는 특정한 사건 하나를 내놓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추어서가 아니라 악하고 흉악한 자들과 견주어서 자기에게 의를 돌립니다. 먼저, 사람을 의롭다 하는 일을 다룰 때에는 그가 어떤 CO 791 특정한 일에서 좋은 명분을 가졌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삶에 걸친 의의 한결같은 균형을 묻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무죄함을 입증해 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짖을 때, 자기 자신이 모든 죄에서 풀려나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고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의 신뢰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박아 두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신원자이심을 믿고, 무죄한 자들이 짓밟히는 그 억울한 사건, 곧 법과 공평에 어긋나게 고난받는 자들의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 대적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도, 엄격하게 따지시면 하나님의 깨끗하심에 걸맞을 무죄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의 악의와 부정직함과 간교함과 사악함에 견주어 자기의 진실함과 의로움과 단순함과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므로, 자기와 그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 주시기를 부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와 진실을 따라

477. [원문의심] 그리스어 낱말이 OCR에서 깨져 있습니다("nsQiaiaakVj"). 뒤따르는 풀이("곧 둘러싼 것, 흔히 말하는 정황")에 따라 περίστασις로 읽었습니다.

갚으시기를 원하노라"(삼상 26:23)라고 말했을 때, 그는 주께서 각 사람을 그 자체로 살피셔서 공로대로 갚아 주시리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죄악에 견주어 자기의 무죄함이 얼마나 큰지를 주께 증언해 주시도록 부른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좋은 양심의 증언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지냈다고 이렇게 자랑할 때에(고후 1:12), 그런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티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비방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덕분임을 알고 있던 자기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어떤 사람들의 험담에 맞서서든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다른 곳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봅니다(고전 4:4). 자기는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나, 이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의 흐린 눈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위선에 맞서 하나님을 증인과 재판관으로 모시고 자기 무죄함을 아무리 변호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과만 상대할 때에는 모두 한 입으로 부르짖습니다(시 143:2). "주의 종들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서는 살아 있는 자가 하나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믿지 않고 기꺼이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이다"(시 63:3).

76. 앞의 것들과 비슷한 대목들이 또 있는데, 거기서 누가 아직도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온전함 가운데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말합니다(잠 20:7). 또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잠 12:28). 같은 이치로 에스겔은 공평과 의를 행하는 자는 살리라고 말합니다(겔 18:9, 21; 33:15). 우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부정하거나 흐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손 가운데 그런 온전함을 지닌 자 하나라도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아무도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든지 자비의 피난처로 달아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자들의 온전함이 반쪽이고 불완전하더라도 그들에게 불멸로 나아가는

계단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은혜 언약 안으로 받아들이신 자들의 행위를 공로대로 따지지 않으시고 아버지다운 인자하심으로 입 맞추시기 때문이 아니라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스콜라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 곧 행위가 받아 주시는 은혜에서 그 가치를 얻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위가 다른 때에는 구원을 얻어 내기에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심으로써 대등한 값으로 높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행위들이 한편으로는 다른 범법들로, 한편으로는 그 자체의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으므로, 주께서 그 둘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 말고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사람에게 값없이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가 신자들에게 주의 날에 흠 없고 책망할 것 없게 되기를 바라며 그토록 큰 완전함을 빌어 주는 기도들을(엡 1:4; 살전 3:13 등) 여기에 들이미는 것도 때에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옛날 켈레스티우스파가 이생에서 의의 완전함을 주장하려고 몹시 떠들어 댔습니다.[478] 그러나 우리는 넉넉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짧게 대답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흠 없고 책망할 것 없이 나타나기를 이 푯대로 삼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에서 가장 좋고 가장 뛰어난 방식은 나아감일 뿐이므로, 우리는 이 죄의 육신을 벗고 주께 온전히 붙어 있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 푯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완전함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는 사람과 고집스럽게 다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그 완전함을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말로 정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덕을 완전하다고 부를 때, 그 완전함 자체에는 진리 안에서나 겸손 안에서나 자기 불완전함을 아는 것도 속한다.”

478. 켈레스티우스(Caelestius)는 5세기 초 펠라기우스의 제자로, 사람이 이생에서 죄 없이 완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여러 공의회에서 정죄받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켈레스티우스파라고 불렀습니다.

77. 이제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리라고 단언하는 말씀들로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입니다. “각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리라” (고후 5:10).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악을 행하는 모든 영혼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롬 2:6).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9).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오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느니라” (마 25:34–35) 등. 그리고 이것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행위의 상이라고 부르는 말씀들도 묶어 봅시다. 이런 종류의 말씀들입니다. “사람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이 돌아가리라” (잠 12:14).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잠 13:13).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마 5:12; 눅 6:23). “각 사람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전 3:8).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으시리라는 말은 적은 수고로 풀립니다. 이 말투는 원인보다는 뒤따르는 순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자비의 단계들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곧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롬 8:30).

1539–1554년판 제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행위의 공로에 관하여 5

CO 1:793–80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793 [479]그러므로 주께서 오직 자비로 당신의 백성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지만, 그들을 선행의 경주로를 거쳐 그 생명의 소유로 이끄시고, 그리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그들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므로, 그들이 자기 행위대로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행위들로 불멸의 면류관을 받도록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런 이치로, 그들이 선행에 힘쓰면서 영원한 생명을 묵상할 때 자기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적절합니다(빌 2:12).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자신이 자기 구원의 장본인이라거나, 구원이 그들의 행위에서 흘러나온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복음을 알고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여지자마자,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주 예수의 날까지 완성되어야 합니다(빌 1:6). 그런데 그 일은 그들이 의와 거룩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닮아, 자기가 그분의 못나지 않은 자녀임을 증명할 때 완성됩니다.

78. 상이라는 이름에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라고 추론할 까닭은 없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이것을 새겨 둡시다. 하늘나라는 종들의 품삯이 아니라 아들들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엡 1:18). 주께 아들로 받아들여진 자들만이 그 기업을 얻으며, 그것도 이 양자 삼으심 말고는 다른 어떤 원인 때문도 아닙니다. “여종의 아들은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자유

479.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있는 여자의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 고 하기 때문입니다(갈 4:7, 30).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원한 영광이 행위의 상이 되리라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대목들에서도,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름을 들어 밝히심으로써 그것이 다른 데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마 25:34–36)[480] 하늘의 보상으로 갚으실 행위들을 열거하시면서,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하늘의 소유로 부르실 때 그것을 기업의 권리로 차지하라고 덧붙이십니다. 바울도(골 3:22–24)[481] 자기 본분을 신실하게 행하는 종들에게 주께 보상을 바라라고 명하면서, "기업의" 보상이라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치 정해진 문구로 하듯이,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행위의 덕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의 덕으로 돌리도록 조심스럽게 경계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와 함께 행위를 언급합니까? 성경의 한 가지 예로 이 물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씨가 약속되었는데, 그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아질 자손의 번성과 그 밖의 비슷한 것들도 약속되었습니다(창 15:4; 17:1; 18:18).[482] 여러 해 뒤에 아브라함은 신탁의 명령을 받은 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채비합니다(창 22:3). 이 순종을 다 이룬 뒤에 그는 약속을 받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 22:16–18).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명령이

480. 원문에는 "마태복음 15장 34절" 로 되어 있으나, 뜻으로 보아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481. 원문에는 "골로새서 3장 20절" 로 되어 있으나, 종들에게 주는 말씀은 3장 22–24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482. 원문에는 "창세기 18장 20절" 로 되어 있으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18장 18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 약속을 받았던 그 복을 자기 순종으로 얻어 낸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에두를 것 없이, 주께서 신자들의 행위를 이미 그 행위를 생각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 좋은 것들로 갚으신다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당신의 자비 말고는 그들에게 선을 베푸실 까닭을 아직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79. 그렇다고 해서 주께서 행위 이전에 값없이 주셨던 것을 행위에 갚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속이시거나 놀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나타날 것을 묵상하도록 선행으로 우리를 훈련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선행을 거쳐 달려가 하늘에 우리를 위해 놓인 복된 소망을 향해 힘써 나아가기를 원하시므로, 약속의 열매를 선행에도 돌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선행은 우리를 그 열매가 무르익는 데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골로새 사람들이 하늘에 자기들을 위해 쌓아 둔 소망 때문에 사랑의 직무에 힘쓴다고 말하면서, 그 소망은 그들이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전에 들은 것이라고 말할 때(골 1:4–5), 이 두 가지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복음에서 알았다고 말할 때, 그는 그 소망이 아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만 기대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들이 그 소망 때문에 수고한다고 말할 때, 그는 신자들이 그것을 붙잡기 위해 평생토록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상이 공로의 척도로 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주께서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마 20:1 이하). 그 비유에서 주께서는 당신 자신을 집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집주인은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든 자기 포도원을 가꾸도록 보내되, 어떤 이들은 하루의 첫째 시에, 어떤 이들은 둘째 시에, 어떤 이들은 셋째 시에, 어떤 이들은 열한째 시에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두에게 같은 삯을 줍니다. 이 비유의 풀이는, 그가 결국 누구이든 암브로시우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이방인의 부르심에 관하여』라는 책을 쓴 옛 저자가 짧고도 참

되게 담아냈습니다.[483] 저는 제 말보다 그의 말을 쓰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이 비유의 규범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부르심이 하나의 은혜에 속한다는 것을 세우셨다. 거기서 의심할 여지 없이, 열한째 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온종일 일한 일꾼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은혜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날이 저물고 삶이 끝나 갈 때 상을 주신 자들의 몫을 보여 준다. 그분은 수고에 삯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행위 없이 택하신 자들에게 당신의 선하심의 부요함을 쏟아부으신 것이다. 이는 많은 수고로 땀 흘리고도 맨 나중 사람들보다 더 받지 못한 자들도, 자기들이 받은 것이 행위의 삯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행위의 상이라고 부르는 이 대목들에서는, 아버지다운 호의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셔서 복된 불멸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교제라는 뜻으로 그 말을 그냥 받아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복락의 소유나 누림이라는 뜻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도 그렇게 들립니다.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막 10:30). 또 다른 곳에서도 CO 795 "와서 나라를 상속받으라" 등(마 25:34). 이런 이치로 바울도(롬 8:23)[484] 부활 때에 있을 양자 됨의 나타남을 "양자 됨"이라고 부르고, 그 뒤에 그것을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영원한 죽음이듯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져 그분과 교제를 누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것은 오직 양자 삼으심의 은택으로 이루어집니다.

80.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런 약속으로 우리 행위의 가치를 높이 내세우셔서, 마치 우리 행위가 그런 상을 받을 공로가 있는 것처럼 하신다고 생각

483. 『이방인의 부르심에 관하여』(De vocatione omnium gentium)는 5세기의 저작으로, 칼빈 당시에는 암브로시우스의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484. 원문에는 "로마서 8장 18절"로 되어 있으나, 양자 됨과 몸의 구속을 말하는 곳은 8장 23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하지 맙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만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도 남겨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온통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낮추고, 내던지고, 아주 부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런 기다림으로 스스로를 버티고 위로하지 않으면 곧바로 무너지고 주저앉을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의 모든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버리고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각 사람이 스스로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첫 훈련으로 당신의 제자들, 곧 모든 경건한 자들을 입문시키십니다. 다음으로 그분은 평생토록 그들을 십자가의 훈련 아래에서 가르치셔서, 그들이 현재의 좋은 것들을 탐하거나 신뢰하는 데로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십니다. 요컨대 그분은 그들을 대개 이렇게 다루셔서, 이 세상이 넓게 펼쳐진 만큼 그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든 사방에서 그들을 마주하는 절망밖에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둔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고전 15:19). 그토록 큰 곤경 속에서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 곁에 계시면서, 머리를 더 높이 들고 눈을 더 멀리 던지라고 일깨우십니다.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복락을 당신 곁에서 찾으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복락을 상급, 상, 보상이라고 부르십니다. 행위의 공로를 따지셔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압제와 고난과 모욕 등을 보상하는 것임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본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갚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해가 없습니다. 거기서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수고에서 쉼으로, 괴로움에서 위로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난에서 넉넉함으로, 치욕에서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고, 끝으로 그들이 겪은 모든 악을 더 큰 좋은 것들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삶의 거룩함을 길이라고 여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나라의 나타남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궤변가들이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공로와 상의 맞물림을 상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는 이 목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뒤집힌 일입니까? 상이 선행에 약속된 것은 마음을 자랑으로 부풀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얼마간의 위로로 붙들어 주려는 것이라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행위의 공로를 끌어내는 자는 주의 바른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81.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의 백성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성경이 말할 때(딤후 4:8 참조),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이렇게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누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는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은혜가 먼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의가 되겠는가? 먼저 갚을 의무가 없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갚을 의무가 있는 것들이 갚아지겠는가?” 저는 다른 것도 덧붙입니다. 우리 행위 안에 있는 불의를 당신의 너그러우심으로 감추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 행위에 의를 전가하시겠습니까? 그 행위 안에서 벌받아 마땅한 것을 끝없는 인자하심으로 없애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 행위를 상받을 만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흔히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행위에 갚아질 때에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들에 갚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더 낮춥니다. 성경은 행위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므로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고 할 뿐 아니라, 동시에 행위가 언제나 어떤 찌꺼기로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규범으로 달아 보시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와 조금 다르게 말하기는 하지만 내용으로는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 보니

파키우스에게 보낸 책 제3권에 있는 그의 말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두 사람을 견주는데, 한 사람은 놀라울 만큼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고, 다른 한 사람은 정직하고 행실이 바르지만 그에게서 바랄 것이 많이 남아 있을 만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행실로는 저 사람보다 못해 보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때문에, 곧 그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을 따라 자기의 모든 허물에서는 자기를 고발하고 모든 선행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에게는 부끄러움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죄의 용서와 바르게 행한 일에 대한 사랑을 받는 그 믿음 때문에, 이생에서 풀려날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옮겨 간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는가? 믿음은 행위 없이는 아무도 구원하지 않지만(그것은 버림받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도 죄가 풀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선행으로 보이는 것들도 죄로 바뀐다." 여기서 그는 분명히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는 것, 곧 선행의 의는 그 행위들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흐리지 않고 고백합니다.

82. 앞의 대목들과 아주 가까운 뜻을 지닌 말씀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너희를 위하여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눅 16:9). "네가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명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하라"(딤전 6:17–19). 그들은 선행이 재물에 비유되며, 우리가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CO 797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는 그 목적에 눈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 말씀들의 참된 뜻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신 말씀이 참되다면(이 세대의 자녀들이 현재 삶의 즐거움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얻는 데 골몰하곤 하듯이), 신자들은 이 삶이 꿈처럼 곧 사라지리라는 것을 배운 뒤에는, 참으로 누리기 원하는 것들을 굳건한 삶을 살게 될 곳으로 보내 두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을 고른 어떤 곳으로 옮겨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을 먼저 그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이 없어도 그리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 곳에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질수록 자기가 더 복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믿는다면, 갑작스러운 이주로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릴 이곳에 재물을 붙잡아 두기보다 오히려 그리로 보내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로 보내 두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쓸 것을 나눌 때입니다.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무엇이든 주께서 당신께 준 것으로 여기십니다(마 25:40).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께 꾸이는 것이다"(잠 19:17)라는 빼어난 약속이 있습니다.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고후 9:6)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의 직무로 형제들에게 쓴 것은 주의 손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신실한 보관자이시므로 언젠가 넉넉한 이자를 붙여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값있어서, 그분의 손에 우리를 위해 간수된 재물처럼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토록 자주, 그토록 분명하게 이것을 증언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기를 꺼리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순전한 인자하심에서 행위의 가치로 건너뛰려 한다면, 이 증언들은 그가 오류를 세우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바르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너그러우심의 기울어짐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북돋우시려고, 우리가 당신께 바치는 섬김이 당신의 눈길 하나만으로도 아무리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83. 그러나 그들은 사도의 말을 더 세게 내세웁니다(살후 1:5–7). 그는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그 환난이 그들에게 보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그러하리라.” 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히 6: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가 성도들을 섬김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앞의 대목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서는 공로의 가치를 전혀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자녀로 택하신 우리를 맏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다음에야 당신께 정해진 영광에 들어가셔야 했듯이, 우리도 많은 환난을 겪고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을 받을 때, 주께서 당신 양 떼의 양들에게 찍으시곤 하는 어떤 표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인 우리 주의 흔적을 몸에 지니기 때문입니다(갈 6:17). 다음 말씀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10).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닮는 데 이르려는 것이다.” 덧붙여진 이유는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하는 데 속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에게 가한 괴롭힘을 그들에게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맞듯이, 너희에게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안식과 쉼을 베푸시는 것도 그러하다.” 다른 대목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걸맞다고 하여, 잊으신다면 거의 불의한 일이 되리라고 넌지시 말하는데, 그 이치는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게으름을 일깨우시려고, 우리가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떠맡은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도 다른 모든 약속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의 모든 확실성이 기대는 값없는 자비의 언약이 앞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아무 열매도 가져다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그러나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아무리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오는 보상이 모자라지 않으리라고 마음 놓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굳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므로 한 번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는 갚아야 할 빚의 공평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하심에 관련됩니다. 이런 뜻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빼어난 말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기억할 만한 말로 여겨 자주 되풀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듯이, 저도 우리가 늘 기억에 새길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심으로써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빚진 자로 만드셨다.”

84. 바울의 이런 말씀들도 끌어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고전 13:2). 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4). 우리의 바리새인들은 앞의 두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보다는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곧 그들 말대로 더 뛰어난 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트집은 아무 수고 없이 씻겨 나갑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첫째 말씀에 나오는 믿음은 참된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은 우리도

참된 믿음에 관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그 믿음보다 크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공로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열매가 더 많기 때문이요, 더 넓게 미치기 때문이요,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 때문이요, 언제나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쓰임은 CO 799 한동안만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함을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첫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이것, 곧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주 안에서 서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모든 면에서 믿음보다 뛰어나다고 쳐 봅시다. 그래도 건전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아니 성한 머리를 지닌 사람이라면 누가 그것에서 사랑이 더 의롭다 한다고 추론하겠습니까? 믿음에 있는 의롭다 하는 힘은 행위의 가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으며, 믿음이 그 칭의를 붙잡으므로 믿음이 의롭다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적들에게 그들이 어떤 뜻으로 칭의를 사랑에 돌리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사랑이 하나님께 기쁘신 직무이므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받아주심으로써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 논증이 얼마나 멋지게 진행되는지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의롭다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그 가치로 우리에게 의를 얻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얻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빠뜨리고 의의 총합이 계신 그리스도를 지나쳐 버리고는, 사랑이 믿음보다 뛰어나므로 우리가 사랑의 덕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깁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 왕이 구두장이보다 한없이 뛰어나므로 구두를 짓는 데에도 구두장이보다 더 알맞다고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삼단논법 하나만으로도, 소르본의 모든 학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무엇인지를 입술 끝으로도 맛보지 못했다는 넉넉한 증거가 됩니다.

85. 그러나 어떤 말다툼꾼이 아직도 끼어들어, 왜 제가 바울에게서 그

토록 짧은 사이에 "믿음"이라는 이름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느냐고 묻는다면, 이 풀이에는 가볍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하는 그 선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라보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모두 요약하여(κατ' ἀνακεφαλαίωσιν)[485]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름 아래 묶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통역하는 은사도, 지식도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생에서 우리는 오직 소망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과 소망을 말할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남는다. 곧 선물들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모든 것이 여기로 돌아간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 등. 셋째 대목에서 그들은 이렇게 추론합니다. 사랑이 온전함의 띠라면 의의 띠이기도 하다. 의는 온전함 말고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바울이 거기서 잘 세워진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잘 결합되어 있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접어두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들이 무슨 새로운 것을 내놓습니까? 저는 언제나 거꾸로, 우리가 사랑을 다 채우지 않는 한 결코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고 반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다 채우는 데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그들에게서 온전함의 소망은 모두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86. 오늘날 어리석은 소르본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닥치는 대로, 먼저 눈에 띄는 대로 낚아채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증언들을 하나하나 다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제가 마땅히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고 싶지 않다면 언급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놀랍도록 흡족해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를

485. [원문의심] 그리스어 낱말이 OCR에서 깨져 있습니다("xor' avaxB^aXaCwaw"). κατ' ἀνακεφαλαίωσιν(요약하여)으로 읽었습니다.

풀고 나서 끝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율법 교사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 19:17)고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장본인 자신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으라고 명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상대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시고 그들에게 맞추어 대답하셨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교사에게서 복락을 얻는 길에 관한 질문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행함으로써 복락에 이르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와 그 질문 자체가 주님을 이끌어 그렇게 대답하시게 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에 대한 확신에 젖어 있어서 행위를 신뢰하는 데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또 그가 묻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의의 행위가 무엇이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땅히 율법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율법에는 의의 완전한 거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행위에서 찾는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한 목소리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길에서 떨어져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달아나겠습니까? 또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들이 생명의 길에서 얼마나 멀리 빗나갔는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담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삶 사이가 얼마나 크게 어긋나 있는지를 볼 때에 비로소, 구원을 되찾는 피난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움 받습니다. 요컨대 이것입니다. 구원을 행위에서 찾는다면, 우리를 완전한 의로 가르치는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경주 한가운데서 쓰러지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의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도움,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께서는 행위에 대한 헛된 신뢰로 부풀어 있는 줄 아신 율법 교사를 율법으로 돌려보내셔서 자기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배우게 하시듯이, 이와 같이 자기를 아는 그런 지식으로 이미 낮아진 자들은 다른 곳에서 율법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약속으로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마 11:28–29).

87. 마침내 그들은 성경을 뒤집다가 지치자 트집과 궤변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은 믿음이 어떤 곳에서(요 6:29) "일"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붙잡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행위와 맞세우는 것이 잘못이라고 결론짓습니다. 마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인 한에서 그 공로로 CO 801 우리에게 의를 얻어 주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음으로써, 그 자비가 복음의 전파로 우리에게 내미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마음에 인 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씻어 내는 데 머물러 있지 않더라도 독자들은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것들은 남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 자체의 약함으로 넉넉히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간 이치가 있어 보이는 반론 하나는, 그리 훈련되지 않은 이들이 그것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나가며 따져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은 반대되는 것들에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가르치고, 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불의로 돌려지므로, 선행 하나하나에도 의라는 칭찬이 돌려지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죄가 본디 개별적인 죄들에서가 아니라 오직 불신앙에서 나온다고 대답하는 이들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저도 불신이 모든 악의 샘이요 뿌리라는 데에는 그들에게 동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첫 배반이고, 그 뒤에 율법을 거스르는 개별적인 범법들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와 불의를 평가하는 데에서 선행과 악행에 같은 이치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서는, 저는 그들과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위의 의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생토록 이 순종을 곧은 줄처럼 따르지 않는 한, 행위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거기서 처음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불의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한두 가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굽힘 없이 지치지 않고 지키는 데서 온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불의를 판단하는 이치는 아주 다릅니다. 음행하거나 도둑질한 자는 죄 하나로 죽어 마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트집쟁이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야고보의 이 말씀(약 2:10)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에 죄를 범한 자는 이미 모든 것에 죄를 지은 자가 되었으니,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다” 등.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은 각각의 죄에 대한 마땅한 삯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터무니없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 하나하나가 주의 진노와 보응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꾸로, 많은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이 선행 하나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논리가가 될 것입니다.[486]

486. 원문에는 이 뒤에 제11장의 표제(“제11장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관하여”)가 시작되는데, 그 표제는 다음 편 첫머리에서 옮깁니다.

1539–1554년판 · 제11장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11장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관하여 1

CO 1:801–81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801 제11장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관하여.[487]

1.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구원의 교제에 이르게 하는 교리의 요점을, 저는 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풀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교리의 확실성을 세우는 데 적지 않게 중요한 것을 부록처럼 덧붙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 처음부터 당신 백성의 몫에 받아들이신 사람들은 누구나 이 법과 이 교리의 끈으로 그분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려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모은 증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경건(religion)과 경건(pietas)의 다른 규칙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환히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저술가들 사이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관해 많은 것이 자주 논의되고, 그것이 그다지 예리하지 못한 독자에게 의심을 던질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더 잘, 더 정확하게 다루려고 우리는 마땅히 따로 자리 하나를 마련하겠습니다. 더욱이 다른 때라면 매우 유익했을 이 일을, 재세례파 무리 가운데 미쳐 날뛰는 몇몇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돼지 떼에 대해서와 다르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백성은 하늘의 불멸에 대한 아무 소망도 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찌우신 무리일 뿐이라고 허튼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로운 오류를 경건한 마음들에게서 막아 내고, 아울러 구약

487. 장 번호 “제11장”(CAPUT UNDECIMUM)은 원문에서 앞 편의 끝에 걸쳐 있으므로 여기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과 신약의 차이를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곧 일어나곤 하는 모든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뒤 이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지나는 길에 살펴봅시다.

2. 이 둘은 참으로 한마디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조상의 언약은 실체와 사실 자체에서 우리의 언약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서, 전적으로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 시행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토록 짧은 말로는 아무도 확실한 이해에 이르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유익을 끼치려 한다면 더 긴 설명을 이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점, 아니 오히려 하나임을 보여 주는 데에, CO 803 다른 곳에서 이미 풀어 놓은 낱낱의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다루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항목에 특히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유대인들 앞에 놓인 목표, 곧 그들이 마침내 바라보며 나아갈 목표는 육적인 부요와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은 불멸의 소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리고 이 양자 삼으심의 계시가 신탁으로, 율법으로, 예언으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맡겨졌다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된 언약은 그들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떠받쳐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고 또 알았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되고 그분의 약속들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둘째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그토록 많고 그토록 뚜렷한 증언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언제든 베푸시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순전한 선하심과 너그러우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셋째도 여기저기에서 흐릿하지 않은 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째도 우리가 손대지 않고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3. 그러므로 이 첫째 것을 설명하는 데에 우리는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위에서 가볍게만 건드렸고, 또 이것을 두고 그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논쟁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의 설명에 모자란 것이 있으면 지나는 길에 채우겠습니다. 참으로 사도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을 한꺼번에 없애 줍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공포하신 복음을,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에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롬 1:2). 또 복음 자체가 가르치는 믿음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롬 3:21).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세 삶의 즐거움에 붙잡아 두지 않고, 불멸의 소망으로 들어올립니다. 땅의 쾌락에 붙박아 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알려 주어 이를테면 그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믿은 뒤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라. 얻으신 약속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엡 1:13–14).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이는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쌓아 둔 소망 때문이라. 너희가 이 소망에 관하여 복음의 참된 말씀으로 들었느니라” (골 1:4–5). 또 “그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살후 2:14).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의 말씀이라고도,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하늘나라라고도 불립니다. 복음의 교리가 영적인 것이고 썩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는 길을 열어 준다면, 복음을 약속받고 알림받은 사람들이 영혼의 돌봄은 지나쳐 버리고 저버린 채, 짐승처럼 육신의 쾌락을 붙잡는 데 넋을 잃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또 여기서 누구든,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복음에 관하여 기록된 약속들이 새 백성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트집 잡지 마십시오. 사도는 복음이 율법에 약속되었다는 말을 하고 나서 조금 뒤에,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할 것 없이 본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롬 3:19). 그가 그 말을 다른 논증에서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속한다고 말하면서, 몇 절 앞에서 복음이 율법에 약속되었다고 단언한 것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복음의 약속들이 구약 아래 담겨 있다고 말함으로써, 구약이 장차 올 생명을 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4. 같은 이치로, 구약은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에 서 있었고 그리스도의 중보로 확증되었다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복음의 선포는 죄인들이 자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너그러우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선언할 뿐이고, 그 전체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맺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초이신 복음의 언약이 유대인들과 맺어졌다는 말을 우리가 듣는데, 누가 감히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로 만들겠습니까? 믿음의 의의 교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졌다는 말을 우리가 듣는데, 누가 그들을 값없는 구원의 은택에서 낯선 자들로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일을 두고 오래 다투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주님의 뚜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 8:56).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 믿는 백성 가운데 보편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사도는 이렇게 말하여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신다” (히 13:8). 그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에 관하여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언제나 베풀어진 그분의 나타나심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동정녀도, 사가랴도 자기들의 노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구원은 주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눅 1:54–55, 72–73). 주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당신의 옛 맹세의 신실함을 지키셨다면, 그 맹세의 목적이 언제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더욱이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약의 은혜에서만이 아니라 성례의 의미에서도 우리와 같게 만듭니다. 그는 옛적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벌의 본보기들로 고린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겁을 주려고, 이런 머리말로 시작합니다(고전 10:1, 11). 곧 그들이 당한 하나님의 보응에서 우리를 건져 낼 어떤 특권을 우리가 내세울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같은 은택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같은 표징으로 그들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뚜렷이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받아 표를 얻은 세례와 너희가 날마다 받는 성찬이 뛰어난 약속들을 지니고 있으니 너희가 위험 밖에 있다고 믿고서, CO 805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업신여기고 방탕하게 날뛰고 있다면, 알아 두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표징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심판을 아주 엄하게 행하셨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는 일과, 햇볕의 뜨거움에서 그들을 가려 준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건넘이 육적인 세례였고, 이것이 어떤 비례를 따라 우리의 영적인 세례에 대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사도의 논증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라는 특권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뒤따르는 말도 이런 트집에 걸리지 않습니다. 곧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인데, 사도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풀이합니다.

6. 그들은 바울의 이 말을 깨뜨리려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내세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 6:49–51).[488] 이 두 말씀은 아무 어려움 없이 서로 조화됩니다. 주님께서는 배를 채울 양식만 구하고 참된

488. 원문에는 "요 6:31"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 이야기는 6:31에서 시작하지만, 인용한 말씀은 개역한글 6:49–51(58 참조)에 해당하므로 그 장절을 적었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돌보지 않는 청중에게 말씀하고 계셨으므로, 말씀을 그들의 수준에 얼마간 맞추셨고, 특히 만나와 당신의 몸을 비교하실 때 그들의 생각을 따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권위를 얻기 위해,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얻어 내어 행한 것과 같은 어떤 기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에서 그때 백성을 괴롭히던 육신의 굶주림에 대한 처방 말고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저 더 높은 비밀에는 꿰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모세가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었다고 자랑하는 은택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은택을 당신에게서 기대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시려고 이런 비교를 세우십니다. “너희 생각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셔서 잠시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리신 것이 크고 기억할 만한 기적이었다면, 이로써 불멸을 베푸는 양식이 얼마나 더 뛰어난지 헤아려 보라.” 주님께서 왜 만나에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치시고 그 가장 낮은 유익만 짚으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곧 유대인들이 꾸짖으려는 마음으로 만나라는 처방으로 백성의 궁핍을 도운 모세를 그분께 들이댔으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이 훨씬 더 높은 은혜의 일꾼이며,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긴 육적인 백성의 먹임은 그 은혜 앞에서 마땅히 하찮아져야 한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실 때 배를 먹이려고만 쏟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인 살리심을 보여 주시려고 영적인 비밀로서도 베푸셨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가장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생명의 같은 약속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뿐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성례들로 인쳐졌다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결론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도 파우스투스를

반박하며 풍성하게 논합니다.[489]

7. 그런데 독자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서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담겨 있다고 듣는 바로 그 영적 언약의 계시를 혹시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서 직접 보기를 더 원한다면, 이 바람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적들이 더 확실하게 논박되어 그 뒤로는 아무 핑계도 대지 못할 것이므로, 더욱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먼저 이런 증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증명이 재세례파의 거만한 눈에는 쓸데없고 거의 우스꽝스럽게 보이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을 줄 알고 건전한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큰 힘을 지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받아들이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을 전해 주셨으므로, 저는 이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은택도 그들에게 전해졌다고 결론짓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효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곧 영혼을 가장 확실하게 살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전해짐은,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두루 퍼지는 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각기 제 본성의 방식대로 살리기는 하지만, 썩어짐의 필연에서 건져 내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저 특별한 전해짐, 곧 경건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비추임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그분과 결합되는 전해짐입니다.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그 밖의 조상들이 이런 말씀의 비추심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므로,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멸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확고하게 참여하는 것이었고, 그런 참여는 영원한 생명의 복 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8. 그러나 이것이 조금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자, 언약의 문구 자체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온순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반대하려고 애쓰는 자들의 무지를 넉넉히 꾸짖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과

489. 파우스투스(Faustus)는 4세기 말 북아프리카의 마니교 감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도 파우스투스 반박』(Contra Faustum Manichaeum)을 썼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 생명과 구원과 복의 모든 총체가 담겨 있다고 선지자들도 풀이했습니다. 다윗이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되다(시 144:15), 그가 자기 기업으로 택하신 나라는 복되다(시 33:12) 고 자주 선언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땅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죽음에서 건져 내시고, 영원히 지키시며, 영원한 긍휼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합 1:12). “주는 우리 왕이시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사 33:22). “이스라엘이여, 너는 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복되도다”(신 33:29). 그러나 쓸데없는 일에 너무 수고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선지자들에게서는 이런 권고가 곳곳에 되풀이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의 넉넉함, 아니 구원의 확실성에 모자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말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비치자마자 그것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면, 그분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보화도 열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조건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렇게 증언하신 대로입니다(레 26:11–12). 그런데 그분의 이런 임재는 생명을 함께 소유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에서 영적 생명의 약속을 넉넉히 분명하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그들의 몸에만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알리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분에게서 떨어져 죽음 가운데 머뭅니다. 반대로 그 결합이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9. 여기에 이것이 더해집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셨을 뿐 아니라, 언제까지나 그러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망이 현재의 좋은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으로 뻗어 나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때를 가리키는 이 말이 그들 사이에서 힘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말씀이 보여 줍니다. 거기서 신자들은 현재의 악 속에서만이 아니라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들을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합니다. 더욱이 약속의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복이 땅의 삶의 경계를 넘어 그들에게 이어지리라는 것을 한층 더 분명하게 확증했습니다. "내가 너희 뒤에 너희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분께서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죽은 자들을 향한 당신의 호의를 선언하시려 했다면, 그들 자신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은 더더욱 그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호의를 품던 이들에게 도리를 다할 힘이 끊기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친구들의 자녀에게 옮깁니다. 그러나 그 선하심이 죽음에 막히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천 대에까지 부어 주시는 당신 긍휼의 열매를 결코 그들에게서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죽은 뒤에 느끼게 될 당신 선하심의 크기와 넉넉함을, 그것이 온 집안에 넘쳐흐르는 것으로 묘사하심으로써 뛰어난 증거로 그들에게 알리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오랜 뒤에 당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 때(출 3:6), 이 약속의 진실함을 인치셨고 이를테면 그 성취를 내보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멸망해 버렸다면 그 호칭은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나는 있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기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논증 하나로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 하게 하셔서,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모세에게서 증언되었다는 것을 부인조차 할 수 없게 하셨다고 전합니다(마 22:32; 눅

20:37). 그들은 바로 모세에게서 모든 성도가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신 33:3). 이로부터,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당신의 보호와 지키심과 돌보심 안에 받아들이신 자들은 죽음으로도 꺼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쉽게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0. 이제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 것을 살펴봅시다. 곧 신자들 자신도 주님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 더 나은 생명이 다른 곳에 자기들을 위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땅의 것은 버려두고 그 생명을 묵상했는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삶의 형편은 끊임없는 훈련이어서, 그들이 이 세상 삶에서만 행복하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아담은 잃어버린 행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불행한 사람인데, 고된 수고로 자기 궁핍을 힘겹게 버텨 냅니다. 그리고 손의 수고에서만 하나님의 저주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위로가 남아 있던 바로 그곳에서 극한 슬픔을 겪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형제의 끔찍한 살해로 그에게서 빼앗깁니다. 그에게 살아남은 것은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마땅히 미워하고 몸서리칠 아들입니다. 아벨은 나이의 꽃다운 때에 잔인하게 살해되어 사람의 비참함을 보여 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태평하게 쾌락을 즐기는 동안, 방주를 짓느라 큰 피로 가운데 생애의 좋은 부분을 닳게 합니다. 그가 죽음을 피한 것은 백 번 죽음을 겪어야 하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방주가 그에게 열 달 동안 무덤과 같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의 똥 속에 거의 잠긴 채 그토록 오래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역겨운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온 뒤에는 새로운 슬픔거리에 빠집니다. 자기 아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택으로 홍수에서 구해 받은 그 아들을 제 입으로 저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11. 아브라함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자마자 고국과 부모와 친구들에게서

떼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삶의 가장 큰 단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작정하신 뜻으로 그에게서 삶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으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살라고 명령받은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으로 거기서 쫓겨납니다. 도움을 구하러 피해 간 곳에서는 제 몸을 온전히 지키려고 아내를 내어 주어야 할 지경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 번 죽는 것보다 더 쓰라렸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거처의 땅으로 돌아오자 다시 기근으로 거기서 쫓겨납니다. 굶주려야 하고, 아니 피해 달아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 일이 그토록 잦은 땅에 산다는 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그는 아비멜렉에게서도 같은 궁지에 몰려, 아내를 잃는 것으로 제 목숨을 구해야 할 처지가 됩니다. 여러 해 동안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동안, 종들의 끊임없는 다툼 때문에 아들처럼 여기던 조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헤어짐을 그는 틀림없이 지체 하나가 잘려 나간 것과 다름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조금 뒤에는 조카가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기력이 다한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나이에 가장 역겹고 가장 쓰라린 일인 자식 없음의 벌을 받은 자신을 봅니다. 마침내 바라던 것 밖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출생의 값을 비싸게 치릅니다. 마치 여종의 방자함을 감싸 주어 그 자신이 집안 소란의 원인이 된 것처럼 사라의 비난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CO 809 맏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버려진 자처럼 거의 원수처럼 내던져집니다. 이삭 하나만 남아 이 선한 사람의 지친 노년이 그에게서 쉼을 얻으려 할 때, 조금 뒤에 그는 바로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사형 집행자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을 사람의 마음이 생각해 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병으로 죽었다 해도, 아들이 그에게 조롱거리로 주어져 자식 없는 고통을 곱절로 겪게 된 이 노인을 누가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어떤 낯선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억울함 때문에 재앙이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이것은 재앙의 모든 본보기를 넘어섭니다. 결국 그는 평생 동안 이렇게 흔들리고 시달렸으므로, 누가 그림판에 그리듯 비참한 삶의 본을 그리려 한다면 이보다 더 알맞은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또 누구든 그가 그 많고 큰 폭풍에서 마침내 무사히 헤어 나왔으니 완전히 불행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없는 어려움을 거쳐 오랜 기간 힘겹게 헤어 나온 사람을 복된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고, 악을 느끼지 않고 현재의 좋은 것들을 평온하게 누리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12. 이삭은 더 작은 악에 시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맛을 아주 조금 밖에 맛보지 못합니다. 그도 사람이 땅에서 복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괴로움들을 겪습니다. 기근이 그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냅니다. 아내가 그의 품에서 빼앗깁니다. 이웃들이 그를 거듭 괴롭히고 온갖 방법으로 짓눌러서, 물을 두고도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집에서는 며느리들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견딥니다. 아들들의 불화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큰 악을 고칠 길이 자기가 축복한 아들의 망명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극심한 불행의 뚜렷한 본보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맏형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 집에서 어린 시절을 매우 불안하게 보내다가, 마침내 그 위협에 밀려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모와 고향 땅을 떠나 도망한 그는, 망명이 쓰라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조금도 더 부드럽고 인정 있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일곱 해 동안 가장 혹독하고 가장 가혹한 종살이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내 문제에서 나쁜 속임수로 우롱당합니다. 다른 아내 때문에 새로운 종살이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그는 낮에는 종일 햇볕에 그을리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서리와 추위에 시달립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탄식하는 대로입니다. 이렇게 거친 삶을 스무 해 동안 견디는 동안, 날마다 장인의 새로운 불의에 시달립니다. 집에서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아내들의 미움과 다툼과 시샘으로 집안이 갈라지고

거의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부끄러운 도망과 같은 길떠남을 몰래 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의 불의를 피하지 못하여, 길 한가운데서 그의 비난과 모욕에 시달립니다. 곧이어 훨씬 더 사나운 어려움이 그를 맞습니다. 형에게 다가가는 동안, 잔인하고 적대적인 사람이 꾸밀 수 있는 만큼의 죽음을 눈앞에 둡니다. 그래서 형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끔찍한 공포로 한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찢깁니다. 형 앞에 나아갈 때는 반쯤 죽은 사람처럼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감히 바랄 수 있었던 것보다 형이 누그러진 것을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게다가 그는 그 땅에 들어서자마자 유달리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그 뒤에는 그녀에게서 얻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던 아들이 들짐승에게 찢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죽음으로 그가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는지는 그 자신이 드러냅니다. 오래 눈물을 흘린 뒤에도 모든 위로에 고집스럽게 길을 막고, 슬퍼하며 아들에게로 무덤에 내려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겨 두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딸이 납치되어 욕을 당한 일, 그리고 그 일을 갚으려 한 아들들의 무모함이 그를 그 지방 모든 주민에게 악취 나게 했을 뿐 아니라 몰살당할 위험을 바로 눈앞에 불러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의 원인이었겠습니까? 이어서 맏아들 르우벤의 저 끔찍한 악행이 따르는데, 이보다 더 무거운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더럽혀지는 일은 가장 큰 불행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그 죄를 자기 아들이 저질렀다면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얼마 뒤에는 또 다른 근친상간으로 집안이 더럽혀집니다. 다른 때라면 매우 굳세고 재앙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도 그 많은 수치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애 끝 무렵에는 자기와 식구들의 굶주림을 덜어 보려다가 새 불행의 소식에 맞습니다. 다른 아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되찾으려고 그는 자기의 유일한 그리움인 베냐민을 남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악이 쌓인 가운데 그에게 적어도

마음 놓고 숨 돌릴 한순간이라도 주어졌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자신이 자기에 대한 가장 좋은 증인으로서, 바로에게 자기 날들이 땅 위에서 짧고 험악했다고 단언합니다.[490] 끊임없는 비참 속에 생애를 보냈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번영을 느끼지 못했다고 분명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하고 배은망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땅 위에서 자기가 참으로 비참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단언이 참이었다면, 그가 자기 소망을 땅의 것들에 박아 두지 않았다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13. 이 거룩한 조상들이(이것은 참으로 의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된 삶을 주님의 손에서 기다렸다면, 그들은 땅의 삶의 복과는 다른 복을 생각했고 또 보았습니다. 사도도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의 땅에 있는 것같이 머물러, 같은 유업을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짓고 세우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믿고 자기들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고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CO 811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 11:9–10, 13–16). 땅에서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토록 끈질기게 약속들을 좇았으니, 그 약속들의 성취를 다른 곳에서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무토막보다 더 둔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보다 까닭이 있어 강조하는 것은, 모세도 전하는 대로(창 47:9) 그들이 이 삶을 나그넷길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490. 창 47:9 참조.

우거하는 자라면, 그들을 그 땅의 상속자로 세우는 주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유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이었다고 분명히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덤 말고는 발붙일 곳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죽은 뒤에야 약속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바란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이 그곳에 묻히는 것을 그토록 귀하게 여겨 아들 요셉에게 맹세로 그 약속을 하게 한 까닭이며, 요셉이 몇 세기 뒤에 이미 오래전에 재가되어 버린 자기 뼈를 옮겨 가기를 바란 까닭입니다.

14. 결국, 그들이 삶의 모든 일에서 장래 삶의 복을 앞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야곱이 더 높은 복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장자권을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큰 위험을 무릅쓰고 얻으려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망명과, 상속에서 거의 내쫓기는 일을 불러올 것이었고, 좋은 것은 조금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낸 말로 자기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겠나이다"(창 49:18). 자기가 숨을 거두고 있음을 알면서, 죽음에서 새 생명의 시작을 보지 않았다면 그가 어떤 구원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때에는 진리를 치려고 애쓴 자조차 이런 깨달음을 맛보지 않은 것이 아닌데,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다투겠습니까? 발람이 "내 영혼이 의인의 죽음을 죽고, 내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민 23:10)라고 말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이 뒤에 밝힌 것, 곧 성도의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죄인의 죽음은 가장 악하다는 것(시 116:15; 34:21)[491]을 그가 느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선과 목표가 죽음에 있다면,

491. 이 편의 시편 절수는 개역한글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칼빈이 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원문의 절수가 다릅니다. 원문 절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34:22(개역한글 34:21), 39:13(39:12), 102:26(102:25–28), 140:14(140:13), 34:23(34:22), 52:10(52:8), 92:13(92:12–14), 55:23(55:22–23), 49:7 이하(49:6 이하), 30:6(30:5), 69:29(69:28).

죽음에서 의인과 악인의 아무 차이도 짚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뒤에 저마다 서로 다르게 기다리는 운명으로 서로 구별됩니다.

15. 우리는 아직 모세를 넘어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모세에게 육적인 백성을 땅의 기름짐과 온갖 물자의 풍성함으로 꾀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말고는 아무 직무도 없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내비치는 빛을 일부러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영적 언약의 선언이 이미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에게로 내려가면, 거기서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장 충만한 광채로 나타납니다. 먼저 다윗은 시대로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앞섰으므로,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를 따라 하늘의 비밀들을 그들보다 더 흐릿하게 그려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큰 명료함과 확실성으로 자기의 모든 말을 그 목표로 향하게 합니까? 그가 땅의 거처를 어떻게 여겼는지는 이 말씀이 증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이오니, 나의 모든 조상과 같으니이다.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은 헛되며, 각 사람은 그림자처럼 돌아다니나이다. 주님, 이제 나의 기다림이 무엇이오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 39:12). 땅에는 굳고 든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소망의 굳셈은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다른 곳에 자기를 위해 쌓아 둔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신자들을 참으로 위로하려 할 때마다 그들을 그 바라봄으로 다시 불러들이곤 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시 103:17) 사람의 삶이 짧고 흘러가며 사라져 가는 그림자임을 말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 위에 영원까지 이르느니라."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102:25–28). "주님,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다함이 없으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거하고 그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늘과 땅

이 멸망하는데도 경건한 자들이 주님 앞에 굳게 서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이사야에게서 풀어 놓은 약속에 기대지 않으면 결코 설 수 없습니다(사 51:6).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해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도 그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의와 구원에 영속성이 돌려지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한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는 한에서입니다.

16. 그가 곳곳에서 신자들의 형통에 관해 노래하는 것도, 하늘 영광이 나타나는 데로 돌리지 않고는 달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러합니다. "주께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보전하사 죄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시 97:10). "의인을 위하여 빛이 뿌려지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이 뿌려졌도다"(시 97:11).[492] 또 "경건한 자의 의는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은 영광 중에 높아지리로다. 죄인들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시 112:9–10). 또 "의인들은 진실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은 주의 얼굴 앞에 거하리이다"(시 140:13). 또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리로다"(시 112:6). 또 "주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리로다"(시 34:22). 참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악인들의 방자함에 괴롭힘을 당할 뿐 아니라 찢기고 망하는 것도 자주 허용하십니다. 악인들이 거의 별들 사이에서 빛나는 동안 선한 자들은 어둠과 누추함 속에서 시들어 가게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 얼굴의 밝음으로 기쁘게 하셔서 오래 기쁨을 누리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도 감추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현재 형편에 눈을 박아 둔다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에는 아무 은혜도 상도 없는 것처럼 아주 무거운 시험에 맞아 쓰러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개는 불경건이 형통하고 CO 813 번성하며, 경건한 자들의 무리는 치욕과 가난과

492. 원문에는 "시 112:7"로 되어 있으나, 인용한 말씀은 시 97:11입니다.

멸시와 온갖 종류의 십자가에 눌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쏟아질 뻔하였으니, 내가 어리석은 자들의 운수에 속이 타고 악인들의 형통을 보았음이로다” (시 73:2–3). 그리고 이야기한 뒤에 마침내 결론짓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 하여 생각하였으나 그것이 내 영에 괴로움이 되었더니,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을 때까지였나이다” (시 73:16–17).

17.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으로라도 배웁시다. 구약 아래 있던 거룩한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드물게, 혹은 결코 보여 주지 않으시는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 올렸고, 현세 삶의 그림자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그곳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는 전혀 보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뢰에 기대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가 언젠가는 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시 17:15). 또 “나는 주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시 52:8). 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주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시 92:12–14). 이 세상의 얼굴이 하나님 나라의 나타나심으로 뒤집히는 곳이 아니라면, 신자들의 이 아름다움과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저 영원으로 눈을 돌릴 때, 현재 재앙의 순간적인 쓰라림을 업신여기고 태연히 이런 말을 터뜨렸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이 죽도록 영영히 버려두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악인들을 멸망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시 55:22–23).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삼킬 영원한 멸망의 웅덩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악인들의 행

복 가운데 이것도 꼽히는데, 그들이 오래 시달리지 않고 한순간에 마지막 날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성도들이 흔들릴 뿐 아니라 곳곳에서 짓눌리고 아주 부서진다고 탄식하는데, 성도들의 그 큰 굳셈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덧없고 썰물 밀물보다 더 오락가락하는 세상의 변천이 무엇을 가져오는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언젠가 하늘과 땅을 영원히 세우시려고 앉으실 때 무엇을 하실지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우아하게 묘사하는 대로입니다(시 49:6 이하).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많은 부를 자랑하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결코 자기 형제를 죽음에서 구속하지 못하며 아무도 하나님께 구속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사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도 함께 망하여 자기 재물을 남에게 남겨 두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집이 영원히 있고 자기 거처가 대대에 이르리라 생각하여 자기 이름을 땅에 떨치나, 사람은 존귀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니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나, 후손들은 그것을 열심히 본받는도다. 그들은 양 떼같이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빛이 떠오르면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모양은 멸망하고 음부가 그들의 거처가 되리로다.” 먼저, 어리석은 자들이 미끄럽고 변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에 안주한다고 조롱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른 행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는 저들이 망하고 꺼져 없어진 뒤에 경건한 자들의 나라를 세울 때, 부활의 비밀을 더 분명하게 엽니다. 묻건대, 현재 삶의 끝에 뒤따르는 새 생명의 계시가 아니라면 저 빛의 떠오름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18. 그리하여 신자들이 비참 가운데 위로로, 또 인내의 처방으로 쓰던 저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긍휼에 생명이 있도다”(시 30:5). 거의 평생 동안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한순간으로 끝맺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주 조금밖에 맛보지 못한 사람

들이 어디에서 그 인자하심이 그토록 오래 이어지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그들이 땅에 붙어 있었다면 이런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으므로, 주님께서 성도들을 십자가로 연단하시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들을 모으시는 긍휼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꿈결처럼 하루 동안 복되었던 악인들에게는, 영원하고 결코 끝나지 않을 멸망이 있으리라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잠 10:7). "성도의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죄인의 죽음은 가장 악하도다"(시 116:15; 34:21). 또 사무엘서에 "주께서 그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리라"(삼상 2:9). 이 말씀들은 그들이 이것을 잘 알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곧 성도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휘둘린다 해도 그들의 마지막 결말은 생명과 구원이며, 악인들의 행복은 그들을 죽음의 구렁으로 이끌어 가는 즐거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들의 죽음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멸망이라고 불렀습니다(겔 28:10; 31:18 등). 부활의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보다 더 무거운 저주를 생각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시 69:28).

19.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욥의 저 뛰어난 말씀이 있습니다(욥 19:25–27).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지막 날에 내가 땅에서 일어날 것이요, 내 육체로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보리라. 이 나의 소망이 내 품에 간직되었도다." 자기의 날카로움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지막 부활에 관한 말로 알아들어서는 안 되고,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너그러워지시리라고 기대한 어느 첫날에 관한 말로 알아들어야 한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얼마쯤 양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을 억지로라도 받아 낼 것입니다.

곧 욥이 생각을 땅에 머물러 두었다면 그토록 큰 소망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누워 있는 자기에게도 구속자가 곁에 계시리라는 것을 바라본 그는, 장차 올 불멸로 눈을 들어 올렸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493]

493. 이 문장의 끝부분(“무덤에 누워 있는 자기에게도 구속자가 곁에 계시리라는 것을 바라본”)은 다음 편 원문의 첫머리에 있으나, 문장을 끝맺으려고 여기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11장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관하여 2

CO 1:815–83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815 [494]현재의 삶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마지막 절망입니다. 그러나 죽음도 그의 소망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바라리라" (욥 13:15). 여기서 어떤 허튼소리꾼도, 이런 말은 몇 사람의 것이었을 뿐이니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교리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제게 시끄럽게 떠들지 마십시오. 그는 곧바로 제게서 이런 대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몇 사람은 이런 말씀으로,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만 따로 은밀히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감추어진 지혜를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세우신 백성의 교사들이었으므로, 모두가 함께 배워야 할 하나님의 비밀들, 곧 백성의 경건(religion)의 원리가 되어야 할 것들을 공공연히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영적 생명에 관하여 그토록 분명하고 환하게 말씀하신 성령의 공적인 신탁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그들을 땅과 땅의 부요만 언급되는 육적인 언약으로 쫓아 보낸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고집일 것입니다.

20. 제가 뒤의 선지자들에게로 내려간다면, 거기서는 참으로 우리 자신의 들판에서처럼 마음껏 거닐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욥과 사무엘에게서도 승리가 어렵지 않았다면, 거기서는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긍휼의 언약을 베푸시는 데에 이런 경륜과 이런 순서를 지키셨습니다. 곧 시간이 흐르면서 온전히 나타나시는 때에 가까워질수록, 계시를 날마다

494.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더 크게 늘리셔서 더 밝히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아담에게 구원의 첫 약속이 주어졌을 때는 가는 불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뒤에 더 해지면서 더 큰 빛의 넓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더 솟아올라 그 광채를 더 넓게 펼쳤습니다. 마침내 모든 구름이 걷히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가득히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선지자들의 지지를 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모자랄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거대한 자료의 숲이 되리라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머무르자면 이 책의 계획이 허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그것은 긴 책 한 권이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앞에서 말한 것들로 그다지 눈이 밝지 못한 독자에게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장황함은 삼가겠습니다. 다만 독자들에게 미리 일러, 우리가 앞서 그들의 손에 쥐여 준 그 열쇠로 길을 열어 가기를 기억하라고 하겠습니다. 곧 선지자들이 믿는 백성의 복을 말하는데 그 복의 흔적이 현재의 삶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런 구별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잘 알리려고 이를테면 몇 가지 윤곽선처럼 일시적인 은택들로 그 선하심을 백성에게 그려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하심의 모습을, 마음을 땅과 이 세상의 초등 원리와 멸망할 세대 밖으로 끌어내어 장래의 영적인 삶의 행복을 생각하도록 반드시 일깨우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21. 한 가지 본보기로 만족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흩어진 것이 죽음과 아주 비슷하다고 보았으므로, 에스겔이 그들의 회복에 관하여 예언한 것(겔 37장)을 꾸며 낸 이야기로 여기는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치 썩은 시체들이 되살아나리라고 알린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어려움도 당신이 은택을 베푸시는 데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환상 가운데 선지자에게 마른 뼈로 가득한 들판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 말씀의 능력으로 그 뼈들에게 한순간에 영과 힘을 돌려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참으로 그때의 불신앙을 바로잡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사이에 이 환상은 유대인들에게, 마르고 흩어진 뼈들을 고갯짓 하나로 그토록 쉽게 살려 내는 주님의 능력이 백성을 되돌려 보내는 일보다 얼마나 더 멀리 뻗치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말씀을 이사야의 다른 말씀과 마땅히 견주어 볼 것입니다(사 26:19–21).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푸른 들의 이슬이니, 주께서 거인들의 땅을 무너뜨려 폐허가 되게 하시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장막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주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2. 그렇지만 누가 모든 것을 이런 규칙으로 돌리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들을 기다리는 장래의 불멸을 아무 덮개 없이 보여 주는 구절들이 얼마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절 몇을 이미 들었고, 다른 많은 구절도 그러하지만, 특히 다음 둘이 그러합니다. 하나는 이사야에게 있습니다(사 66:22–24).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매월 삭일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경배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다른 하나는 다니엘의 말씀입니다(단 12:1–2). “그때에 자기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민족들이 있기 시작한 때부터 없던 환난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 네 백성 가운데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깨어나리니,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수치로 깨어나리라."

CO 817 23. 이제 남은 두 가지, 곧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언약의 보증으로 모셨고 그분 안에 복에 대한 모든 신뢰를 두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수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논쟁이 적고 명료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귀의 술책으로도 뽑아낼 수 없는 것을 안심하고 세웁시다. 곧 구약,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땅의 것들에 한정되지 않았고,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담고 있었으며, 참으로 언약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기다림이 새겨져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배부름, 육의 쾌락, 번성하는 재산, 바깥 세력, 자녀의 번성, 그리고 짐승 같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셨다거나, 그들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이 미치고 해로운 생각을 멀리 쫓아냅시다. 오늘날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하늘나라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될 나라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마 8:11).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자기 시대의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주님께서 옛적에 당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복음 은혜의 상속자라고 단언했습니다(행 3:25). 그리고 이것이 말로만 증언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행하심으로도 입증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에 많은 성도에게 당신 부활에 함께하는 영예를 베푸셨고, 그들이 성안에서 보이게 하셨습니다(마 27:52–53). 이렇게 확실한 보증을 주셔서, 그분께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시려고 행하시고 고난받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와 다르지 않게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속한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참으로 사도가 증언하는 대로, 그들도 우리를 생명으로 중생하게 하는 같은 믿음의 영을 받았습니다(행 15:8). 우리 안에 있는 불멸의 불꽃과 같으시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도 불리는(엡 1:14) 그 영께서 그들 안에도 똑같이 거하셨다고 우리가 듣는데, 어떻게 감히

그들에게서 생명의 기업을 빼앗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적에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영혼의 실체도 부인할 만큼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들은 이 둘을 성경의 그토록 뚜렷한 증언들로 인친 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그 온 민족이 땅의 그리스도 나라를 기다리는 우둔함도, 성경이 오래전에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 형벌을 받으리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그에 못지않게 괴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빛을 물리쳐 스스로 어둠을 불러들인 마음들을 눈멂으로 치시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를 읽고 끊임없이 펼쳐 봅니다. 그러나 수건이 가로막혀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고후 3:14). 그리고 모세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까지 그들에게 덮이고 감싸인 채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모세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 놓고 끌어내려 애씁니다.

24. 그대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 둘이 서로 아주 다른 것으로 비교되는 그 많은 구절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참으로 성경에서 언급되는 차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운 하나임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않도록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차이들을 차례로 다룰 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들은 제가 살펴볼 수 있었고 기억할 수 있는 한, 주요한 것이 네 가지입니다. 누가 다섯째를 더하고 싶다면 저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모두 실체보다는 시행의 방식에 속한다고 말하며, 그것을 보여 주겠다고 공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들은, 구약과 신약의 약속들이 같은 것으로 남고 그 약속들의 기초도 같은 그리스도로 남는 데 아무 걸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25. 그런데 첫째 차이는 이것입니다. 옛적에도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기업을 겨누고 그들의 영혼이 그리로 향하여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업의 소망으로 더 잘 길러지도록, 땅의 은택들 아래서 그 기업을 바라보고 이를테면 맛보게 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장래 생명의 은혜가 복음으로 더 분명하고 더 환하게 계시되었으므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시던 낮은 훈련은 그만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곧바로 그 생명의 묵상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이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 백성이 몸에 약속된 좋은 것들보다 더 높이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뛰어난, 아니 유일한 상으로 그토록 자주 이름 불리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같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그 땅의 소유에서 쫓겨나 낯선 지방으로 흩어지리라는 것보다 더 엄하게 위협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듣습니다. 모세가 알리는 복이나 저주는 무엇이든 거의 이 요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봅니다. 이로부터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서 따로 구별되었다고 정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들의 바깥 모습에서 영적인 것들의 증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형상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땅의 은택들을 그들을 이렇게 손잡아 하늘의 것들의 소망으로 이끄시려고 정하셨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 주므로, 이런 경륜을 헤아리지 않은 것은 지나친 무지, 아니 둔함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논쟁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마지막 복으로 여겨진 가나안 땅의 소유가,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뒤의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업을 상징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들이 누리던 땅의 소유 안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 CO 819 그들이 하늘에 자기들을 위해 예비되었다고 믿은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았다고 주장합니다.

26.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비유(갈 4:1 이하)에서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을 어린 상속자에 견줍니다. 그 상속자는

아직 자기를 다스릴 만하지 못하여, 자기를 맡아 지키는 후견인이나 몽학 선생의 인도를 따릅니다. 그가 이 비유를 의식(儀式)에 적용한다 해도, 이것을 여기에도 아주 알맞게 적용하는 데 아무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정해진 것과 같은 기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직 나이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아 다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교회의 나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런 몽학 선생 아래 두셔서, 영적인 약속들을 그렇게 벌거벗고 드러난 채로 주지 않으시고 땅의 것들로 이를테면 그림자처럼 그려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을 불멸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실 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기서 자기 소망을 끝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봄으로써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저 참된 기업의 소망으로 스스로를 연단하고 굳세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헛짚지 않도록, 그 땅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은택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는 더 높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을 받고서 거기에 굳어 있도록 내버려 두어지지 않고, 더 큰 약속으로 그의 마음이 주님께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1).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앞에 그의 상급의 목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놓인 것을 봅니다. 그가 그 상급을 이 세상의 초등 원리 안에서 흘러가고 미끄러지는 것으로 구하지 말고, 시들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님께서는 땅의 소유를 덧붙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의 표징이요 하늘 기업의 모형이 되는 조건으로만 덧붙이십니다.

27. 성도들의 생각이 이러했다는 것은 그들의 말이 선언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일시적인 복들에서 저 가장 높은 마지막 복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주를 사모하여 쇠약하나,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분깃이시라"(시 73:26). 또 "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기업을 지키시는 이는 주시니이다"(시 16:5). 또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시 142:5).[495] 이렇게 감히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소망으로 세상과 현재의 좋은 것은 무엇이든 넘어선다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장래 세대의 이 복을 주님께 받은 모형 아래 묘사하는 일이 더 잦습니다. 이런 말씀들도 그렇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고 악인들은 그 땅에서 끊어지리라는 것(잠 2:21–22), 예루살렘에 온갖 부가 넘치고 시온에 모든 것이 풍성히 흘러넘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나그넷길의 땅이나 땅의 예루살렘에 본디 들어맞지 않고, 신자들의 참된 고향, 곧 주님께서 복과 생명을 영원히 명하신 저 하늘의 도성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봅니다(시 133:3).

28. 이것이 구약 아래 성도들이 죽을 삶과 그 복들을 지금 마땅한 것보다 더 크게 여긴 것으로 읽히는 까닭입니다. 그들은 그 삶에서 마치 자기 경주의 결승점에서처럼 멈추어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여림에 맞추어 그들을 연단하시려고 그 삶에 새겨 두신 당신 은혜의 윤곽을 그들이 알아보았으므로, 그 삶을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보다 더 큰 단맛으로 그 삶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현재의 좋은 것들로 신자들을 향한 당신의 호의를 증언하심으로써 그때 이런 모형과 표징으로 영적인 행복을 그려 보이셨던 것처럼, 반대로 유기된 자들에게는 몸의 형벌로 당신 심판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이 땅의 것들에서 더 뚜렷했던 것처럼 형벌도 그러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형벌과 상급 사이의 이 유비와 어울림(이렇게 말해도 된다면)을 따져 보지 않으므로, 하나님 안에 그토록 큰 변화가 있다고 놀랍니다. 곧

495. 원문에는 "시 142:6"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개역한글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옛적에는 사람의 어떤 잘못이든 사납고 끔찍한 형벌로 갚으시려고 곧바로 나서셨던 분께서, 지금은 마치 예전의 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드물게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고 상상하는 데까지 거의 이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경륜에 마음을 돌리면 우리는 이런 의심에서 쉽게 벗어날 것입니다. 곧 그분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아직 얼마간 감싸인 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신 그 시대를 위하여, 장래의 영원한 행복의 은혜는 땅의 은택으로, 영적 죽음의 무거움은 몸의 형벌로 나타내시고 그려 보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29. 구약과 신약의 둘째 차이는 모형에 있다고 합니다. 구약은 진리가 없는 가운데 형상만, 몸 대신 그림자를 보였고, 신약은 현재의 진리와 단단한 몸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구약에 맞세워지는 곳에서는 거의 어디서나 이 차이가 언급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거기서 사도는 모세 율법의 의식들이 경건(religion) 전체의 무너짐을 함께 끌고 가지 않고는 폐지될 수 없다고 생각한 자들에 맞서 논합니다. 그는 이 오류를 반박하려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하여 선지자에게서 예언된 것을 끌어옵니다. 그리스도께 영원한 제사장직이 주어지므로, 날마다 다른 이들이 다른 이들의 뒤를 이어 세워지던 저 제사장직은 폐지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새 제사장의 세우심이 맹세로 굳게 세워진다는 것으로 그것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뒤에 그는 제사장직이 옮겨질 때 언약의 바뀜도 일어난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이 이유로 확증합니다. 곧 율법의 약함이 이러하여 아무것도 온전함으로 CO 821 이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는 그 약함이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풀어 갑니다. 율법은 육의 바깥 의식들을 지녔는데, 그것들은 섬기는 자들을 양심에 따라 온전하게 할 수 없었고, 짐승의 제물로는 죄를 지울 수도 참된

거룩함을 얻게 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 안에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가 있었을 뿐 사물의 살아 있는 모습은 없었으며, 그래서 율법에는 복음에서 내놓아지는 더 나은 소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 말고는 아무 직무도 없었다고 결론짓습니다(히 7:11, 19; 9:9; 10:1 등).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언약이 복음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과 어떤 면에서 비교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비교가 약속들의 실체에 관한 것이라면 두 언약 사이에 큰 불일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점이 우리를 다른 데로 이끄니, 참된 것을 찾으려면 그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단번에 세우신 영원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언약을 가운데 세웁시다. 그 언약이 마침내 굳고 확정되게 하는 그 완성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확증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의식들을 정하십니다. 그것들은 이를테면 확증의 엄숙한 표징입니다. 논쟁이 된 것은 율법에 정해진 의식들이 그리스도께 자리를 내주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들은 언약에 딸린 우연한 것들, 적어도 덧붙은 것과 부속물, 흔히 말하듯 부수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언약을 시행하는 도구였으므로, 다른 성례들에도 흔히 그렇게 하듯 언약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이곳에서 구약이라 불리는 것은, 의식과 제사로 이루어진, 언약을 확증하는 엄숙한 방식입니다.

30. 사도는 그 안에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단단한 것도 없으므로, 그것이 낡아 폐지되어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이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성화가 단번에 얻어졌고, 율법 아래 남아 있던 범죄들이 지워졌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구약은 그림자 같고 효력 없는 의식의 준수로 감싸여 전해진 주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굳고 실체 있는 확증으로 떠받쳐지기까지 이를테면 매달린 채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히 구별되고 굳게 세워진 뒤에야 비로소 새롭고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에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잔을 당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라고 부르십니다(마 26:28).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의 피로 인쳐질 때 비로소 그 진리가 참으로 서고, 그로써 새롭고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31. 이로써 사도가 어떤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몽학 선생에게 이끌려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고 말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갈 3:24; 4:1). 그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였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그들은 어려서 몽학 선생의 지킴 아래 두어야 했습니다. 의의 태양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으므로, 계시의 광채도 그토록 크지 않고 깨닫는 밝음도 그토록 크지 않은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당신 말씀의 빛을 아직 멀리서 흐릿하게 보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깨달음의 얕음을 어린 시절이라는 낱말로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빛나실 때까지, 이 어린 시절을 이 세상의 초등 원리와 바깥의 자잘한 준수 사항들로, 마치 어린아이 교육의 규칙들로 하듯 연단하려 하셨습니다. 믿는 백성의 지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구별을 표시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마 11:13). 율법과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것들은 언젠가 환히 드러날 지혜를 맛보게 했고, 멀리서 반짝이는 그 지혜를 미리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놓여 있어(골 2:3),[496] 우리는 그 보화로 하늘의 지성소 거의 그 안까지 꿰뚫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32.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믿음의 뛰어남으로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사

496. 원문에는 “골 2:9”로 되어 있으나, 지혜와 지식의 보화에 관한 말씀은 골 2:3입니다.

람을 거의 아무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온 세상을 비추는 영의 능력으로 뛰어났다는 것은 이에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주님께서 몇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가 아니라, 백성을 가르치시는 데에 어떤 일반적인 경륜을 따르셨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특별한 지식을 받았던 저 선지자들에게서도 그 경륜은 그러합니다. 그들의 선포도 먼 일에 관한 것처럼 흐릿하고 모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 안에 아무리 놀라운 지식이 뛰어났다 해도, 그들도 백성의 공동의 몽학 선생 아래 자기를 낮추어야 했으므로 그들 역시 어린아이 무리 가운데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아무에게도 그 시대의 어두움을 얼마간 풍기지 않을 만큼 큰 통찰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왕과 선지자가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 13:17).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심이 이런 특권을 지녀서, 그로부터 하늘 비밀들의 더 밝은 계시가 솟아나는 것은 참으로 마땅했습니다.

33. 이제 셋째 차이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서 가져온 것인데,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렘 31:31–34).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CO 823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을 다스렸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임이니라.” 사도는 이 말씀에서 율법과 복음 사이의 이 비교를 세울 계기를 얻었습니다(고후 3:6 이하). 그래서 율법은 문자의 교리라 부르고 복음은 영의 교리라 부르며,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고 복음은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며, 율법은 죽음의 선포이고 복음은 생명의 선포이며, 율법은 정죄의 선포이고 복음은 의의 선포이며, 율법은 없어지고 복음은 길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뜻은 선지자의 생각을 풀어 설명하는 데 있었으므로, 한 사람의 말을 따져 보면 둘의 뜻을 다 붙잡기에 넉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둘 사이에 얼마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는 선지자보다 율법에 관하여 더 미움 섞인 말투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단순히 율법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율법에 그릇된 열심을 내는 몇몇 불량배가 의식에 대한 비뚤어진 열심으로 복음의 밝음을 흐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오류와 어리석은 애착을 따라 율법의 본성에 관하여 논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는 이 특별한 점은 살펴볼 만합니다. 그러나 둘 다 구약과 신약을 서로 맞세워 견주고 있으므로, 율법에서 그 고유한 것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곳곳에 긍휼의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른 데서 빌려 온 것이므로, 율법의 순수한 본성을 말할 때는 율법의 성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돌리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곧 율법은 옳은 것을 명령하고, 악행을 금하며, 의를 섬기는 자들에게 상을 알리고, 범하는 자들에게 형벌로 위협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 본성으로 있는 마음의 비뚤어짐은 바꾸지도 고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34. 이제 사도의 비교를 하나하나 풀어 봅시다. 구약은 문자의 것입니다. 영의 효력 없이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영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대조는 이를테면 첫째 대조의 설명입니다. 구약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온 인류를 저주로 휘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생명의 도구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을 하나님과의 은혜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을 불의의 죄인으로 몰아세우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의의 직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대조는 율법의 의식들에 관련지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없는 것들의 형상을 지녔으므로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져야 했습니다. 복음은 몸 자체를 내놓으므로 굳고 영속하는 견고함을 지닙니다. 예레미야도 도덕법을 약하고 깨지기 쉬운 언약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곧 배은망덕한 백성이 갑자기 배반하여 곧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범함은 백성의 잘못에서 나온 것이므로 본디 언약 자체에 돌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식들은 그 자체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풀려 없어졌으므로, 약함의 원인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와 영의 저 차이는, 마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 열매 없이 당신의 율법을 주셔서 그들 가운데 아무도 당신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복음의 선포를 영예롭게 하신 은혜의 넘침을 드러내려고 비교로 세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선포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당신의 영으로 중생하게 하여 당신 교회의 교제 안으로 모으신 사람들의 무리를 헤아려 보면, 옛적 이스라엘에서 마음의 정성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언약을 껴안은 사람은 아주 적고 거의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교하지 않고 그들 자체의 수로 헤아리면 그들은 많았습니다.

35. 셋째 차이에서 넷째 차이가 나옵니다. 성경은 구약을 종살이의 언약이라 부르는데, 그것이 마음에 두려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자유의 언약이라 부르는데, 그것이 같은 마음을 신뢰와 평안으로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여기에 속합니다(히 12:18–22). 곧 이제 신자들이 나아간 곳은 만질 수 있는 산과 불붙는 불과 회오리바람과 흑암과 폭풍, 곧 마음을 공포로 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

에서는 무서운 소리가 울릴 때 모세 자신도 몹시 두려워했고, 모두가 그 소리 듣기를 거절하기를 구했습니다. 신자들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끌어온 말씀에서 짧게 건드린 것을,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갈 4:22 이하). 그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이런 방식으로 풍유로 끌어옵니다. 여종 하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시내산의 모형이고, 자유인 사라는 복음이 흘러나오는 하늘 예루살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씨가 종으로 태어나 결코 기업에 이르지 못하고 사라의 씨는 자유인으로 태어나 기업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으로는 종살이에 넘겨지고 오직 복음으로만 중생하여 자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은 양심에 두려움과 떨림을 던졌고, 신약의 은택으로 양심이 풀려나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양심을 종살이의 멍에로 묶어 두었고, 신약의 너그러움으로 양심이 자유로 놓여난다는 것입니다.

36.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조상들을 들어 반박한다고 합시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영을 CO 825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같은 자유와 같은 기쁨에도 참여했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둘 다 율법에서 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의 처지에 눌리고 양심의 불안에 지치는 것을 느꼈으므로 복음의 도움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약의 공동의 법 말고도 그런 악에서 벗어난 것은 신약의 고유한 열매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들이 자유와 평안의 영을 받아 율법에서 오는 두려움과 종살이를 얼마간도 겪지 않았을 만큼 그랬다는 것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은혜로 얻은 그 특권을 아무리 누렸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일반 백성과 함께 같은 준수의 끈과 짐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몽학선생의 종살이와 비슷한 표징이요 증서인 의식들을 마음 졸이며 지키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 의식들로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고백했으나, 그 빚에서 풀려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저 공동의 경륜을 볼 때, 그들은 우리와 견주어 종살이와 두려움의 언약 아래 있었다고 일컬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37. 우리가 뒤에 든 세 가지는 율법과 복음의 비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서는 율법이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첫째 것은 더 넓게 뻗칩니다. 율법 이전에 주어진 약속들도 그 아래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약속들을 구약이라는 이름 아래 꼽아서는 안 된다고 부인한 것은 아주 잘 생각한 것이며, 그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이 은혜와 긍휼의 말씀과 구별되는 예레미야와 바울의 저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같은 곳에서 이것도 매우 현명하게 덧붙입니다. 곧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께 중생한 약속의 자녀들은 신약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계명에 순종했고, 육적이고 땅에 속하고 일시적인 좋은 것들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영원한 좋은 것들을 소망했으며, 무엇보다 중보자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도록 영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주장하려던 것입니다. 곧 성경이 세상 처음부터 주님께 특별히 택함받았다고 기록하는 모든 성도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같은 복에 우리와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분과 그의 구분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분은(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마 11:13) 복음의 밝음과 그에 앞선 말씀의 더 흐릿한 경륜을 구별합니다. 그의 구분은 단순히 율법의 약함을 복음의 견고함에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조상들에 관해서도 짚어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구약 아래 살았으되 거기에 머물러 서 있지

않고, 언제나 신약을 사모했으며, 아니 신약과의 확실한 교제를 껴안았습니다. 사도는 현재의 그림자에 만족하여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뻗치지 않은 자들을 눈멂과 저주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잡아 바친 짐승에게서 죄의 속죄를 바라는 것, 물을 바깥에 뿌리는 것에서 영혼의 정결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차가운 의식들을 크게 기뻐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그분을 달래려 하는 것보다 더 큰 눈멂을 생각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율법의 준수에 붙어 있는 자들은 모두 이런 어리석음으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38. 덧붙일 수 있는 다섯째 차이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한 민족을 따로 구별하셔서, 그 안에 당신 은혜의 언약을 담아 두셨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신 32:8–9).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방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그의 백성이 그의 소유가 되었으니 야곱은 그 기업의 줄이로다.” 다른 곳에서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신 10:14–15). “보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주 너의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주께서 오직 너의 열조에게만 붙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마치 사람들 가운데 그 백성만이 당신께 속한 것처럼, 오직 그 백성에게만 당신 이름을 아는 지식을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이를테면 그 품에 맡기셨고, 당신 신성의 임재를 그 백성에게 나타내셨으며, 모든 특권으로 그 백성을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은택들은 그만두고 여기서 다루는 한 가지만 말하자면, 그분께서는 당신 말씀의 교제로 그 백성을 당신께 묶으셔서,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고 그렇게 여겨지게 하셨습니다. 그사이에 다른 민족들은 마치 당신과 아무 관계도 왕래도 없는 것처럼 헛되이 걸어가게 내버려 두셨고(행 14:16), 그들의 멸망을 고치는 유일한 처방, 곧 당신 말씀의 선포를 그들에게 가져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스라엘은 주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다른 이들은 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려졌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보호 안에 받아들여졌으며, 다른 이들은 자기 어둠에 버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다른 이들은 속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로 영예를 얻었고, 다른 이들은 모든 가까이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도록 정해진 때가 차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저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가두어 두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결합된 자들에게와 다르지 않게 멀리 있던 자들에게도 평화가 전해져,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엡 2:14). 그러므로 이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신 만유이십니다. 그분께 민족들이 기업으로, 땅끝이 소유로 주어져서, 그분께서 차별 없이 바다에서 CO 827 바다까지, 강에서 땅의 맨 끝까지 다스리십니다(시 2:8; 72:8 등).

39.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부르심은 신약의 뛰어남이 구약보다 높이 드러나는 뚜렷한 표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선지자들의 아주 많고 아주 분명한 신탁으로 앞서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는 메시아의 나라로 미루어지도록 증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선포의 맨 처음부터 곧바로 그 일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구속의 모든 부분을 다 이루시고 당신 낮아지심의 때를 마치셔서, 아버지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이름을 받으실 때까지(빌 2:9–10) 그 일을 미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그분께서는 가나안 여자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마 15:24). 그리고 사도들을 처음 보내실 때에도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마 10:5–6).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데

이방인들의 부르심은 그토록 많은 증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도, 사도들이 그 일을 시작해야 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새롭고 낯설게 보여서 마치 어떤 괴이한 일처럼 몸서리쳤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떨며, 거절하는 마음이 없지 않은 채로 마침내 그 일에 나섰습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토록 여러 세대 동안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별하여 택하신 주님께서, 마치 갑자기 계획을 바꾸신 것처럼 그 택하심을 없애신다는 것은 이치에 조금도 맞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예언으로 미리 말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닥친 일의 새로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예언에 마음을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옛적에 장차 있을 이방인의 부르심의 본보기로 보여 주신 것들도 그들을 움직이기에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적은 사람만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접붙이셔서 당신 백성에 더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부르심으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아졌을 뿐 아니라, 마치 죽은 자들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0. 저는 이 네다섯 항목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차이를, 단순히 가르치는 데 넉넉할 만큼 잘,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데 있는 이 다양함, 가르치시는 방식의 다름, 예식과 의식의 그토록 큰 바뀜을 큰 불합리라고 떠벌리므로,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에게도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론이 꼼꼼한 논박이 필요할 만큼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고 권하신 것을 뒤에 못마땅하게 여기실 만큼 큰 변화를 겪으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저마다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시고 그에 맞추어 여러 형식을 맞춰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변하는 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농부가 겨울에는 이런 일

을, 여름에는 저런 일을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변덕스럽다고 탓하거나 자연의 한결같은 질서와 결합된 농사의 바른 규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장이 자기 자녀들을 어릴 때와 소년일 때와 청년일 때에 저마다 다르게 가르치고 다스리고 대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경솔하다거나 자기 생각을 저버린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때의 다름을 알맞고 어울리는 표로 구별하셨다고 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변덕이라는 낙인을 찍습니까? 뒤의 비유가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젊은이들에게 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나이에 맞는 초보 가운데 붙들어 두시고, 우리는 더 굳고 이를테면 더 어른다운 훈련으로 가르치시는 이 다스림에 무슨 무질서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같은 교리를 전하셨다는 것, 처음부터 명령하신 당신 이름의 예배를 줄곧 요구하신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 빛납니다. 그분께서 바깥 형식과 방식을 바꾸셨다는 것에서, 그분은 당신이 변화에 매인 분임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이고 변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그만큼 당신을 맞추신 것입니다.

41.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이 다양함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도, 아무 모형 없이 분명한 말로 영원한 생명을 계시하시고, 적고 분명한 성례들로 당신 백성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베푸시고, 당신 은혜를 온 세상에 두루 퍼뜨리실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것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는데 그토록 늦게 창조하셨다고,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이 번갈아 오게 하셨다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경건한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든 지혜롭고 의롭게 하신 것임을 의심하지 맙시다. 왜 그렇게 되어야 했는지 그 까닭을 우리가 자주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추어진 당신 계획의 이유들을 가지실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기뻐하셨던 짐승의 제물과 레위 제사장직의 저 모든 도구를 지금은 물리치시고 혐오하신다는 것은 이상하다." 마치 이런 바깥의 덧없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께 영향을 끼치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그분께서는 이런 것 가운데 아무것도 당신 자신을 위해 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베푸셨습니다. 의사가 한 젊은이를 아주 좋은 방법으로 병에서 고쳤는데, 그 사람이 늙은 뒤에는 다른 치료법을 쓴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가 전에 좋게 여기던 치료 방법을 버린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방법을 한결같이 지키면서 나이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오지 않으셨을 때에는 어떤 표징들로 그려지고 오실 것이 미리 알려져야 했고, 이제 나타나신 뒤에는 다른 표징들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보다 모든 민족에게 더 넓게 퍼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더 넉넉히 부어진 것에 관해서 말하자면, 묻건대 누가 당신 은사들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손과 결정에 있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민족들을 비추시고, 원하시는 곳에서 당신 말씀의 선포를 일으키시고,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대로 당신 교리의 진보와 성공을 베푸시고, 원하시는 시대에 당신 이름의 지식을 세상의 배은망덕 때문에 CO 829 세상에서 거두어 가시고, 원하실 때에 당신의 긍휼 때문에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의나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려는 그 비방들이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을 봅니다.

1539–1554년판 · 제12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12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CO 1:829–84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829 제12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1.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루어야 합니다. 복음 교리의 요체를 간추려 담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 자유의 설명을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양심은 거의 아무 일도 의심 없이 감히 시작하지 못하고, 많은 일에서 머뭇거리며 뒷걸음질하고, 늘 흔들리며 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를 (앞에서 몇 차례 가볍게 건드리기는 했으므로) 이 자리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 조금이라도 언급하기만 하면 곧바로 거기서 정욕이 끓어오르거나 미친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에도 가장 좋은 것마다 가장 나쁘게 부패시키는 저 방자한 기질들을 일찍 막아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자유를 핑계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순종을 떨쳐 버리고 고삐 풀린 방종으로 뛰어들며, 어떤 이들은 모든 절제와 질서와 사물의 분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분개합니다. 이런 궁지에 둘러싸인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게 작별을 고하여 이런 위험이 생길 기회를 잘라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말한 대로, 이 자유를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복음의 진리도 바르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리의 이토록 필요한 부분이 억눌리지 않도록 힘쓰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흔히 생겨나는 저 터무니없는 반론들에 맞서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부분에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신자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칭의에 대한 신뢰를 찾아야 할 때에 율법 위로 자신을 일으켜 높이고 율법의 의 전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증명했듯이 율법은 아무도 의인으로 남겨 두지 않으므로, 우리는 칭의의 모든 소망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그것도 행위를 전혀 셈하지 않을 만큼 풀려나야 합니다. 의를 얻는 데 행위를 아주 조금이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한도나 끝을 정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을 온 율법의 빚진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다룰 때에는 율법에 대한 언급을 치우고 행위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제쳐 둔 채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잡고,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묻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가가 아니라, 우리가 불의하고 합당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의인으로 여겨지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이 일에 대해 어떤 확신이라도 얻고자 한다면 율법에 아무 자리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율법이 신자들에게 쓸데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양심 안에 자리를 갖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선으로 재촉하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아주 크게 다른 만큼, 우리는 이 둘을 바르고 부지런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일종의 경건의 연습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성화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엡 1:4; 살전 4:3). 율법의 직무는 여기에 있습니다. 곧 그들에게 그들의 본분을 일깨워 거룩함과 흠 없음을 향한 열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에게 은혜로우신 분으로 모실 수 있는지, 만일 그분의 심판대로 불려 간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고 무슨 신뢰로 설 수 있는지를 두고 괴로워할 때에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분은 율법의 모든 완전함을 넘어서십니다.

3. 갈라디아서의 논증은 거의 전부 이 돌쩌귀에서 돕니다. 바울이 이 서신에서 의식들의 자유만을 위해 싸운다고 가르치는 해석자들이 어리석다는 것은 논증이 담긴 대목들에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갈 3:13).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 서서, 다시 종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 자는 온 율법의 빚진 자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쓸데없게 되셨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졌다"(갈 5:1 이하). 이 말씀들에는 분명 의식들의 자유보다 더 높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바울이 거기서 의식들을 다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하여진 율법의 옛 그림자들을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다시 끌어들이려고 애쓰던 거짓 사도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CO 831 그러나 이 문제를 풀려면, 논쟁 전체가 걸려 있던 더 높은 주제들을 논해야 했습니다. 첫째, 저 유대적 그림자들로 복음의 밝음이 가려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모세의 의식들이 그림자로 나타내던 모든 것의 확실한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저 사기꾼들이 백성에게 가장 나쁜 생각, 곧 이런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내는 데 효력이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고 있었으므로, 그는 여기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하물며 저 하찮은 초등 원리들로는 더욱,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힘을 기울입니다. 동시에 그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른 경우라면 모든 사람에게 닥쳐 있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으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안심하고 쉬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대목이 바로 이 자리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자들의 양심에 그 자유를 되찾아 주어, 필요하지 않은 일들에서 어떤 종교적 의무(religio)

로도 매이지 않게 합니다.

4. 둘째 부분은 앞의 것에 달려 있습니다. 곧 양심이 율법의 강제에 억지로 몰린 듯이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의 멍에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동안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지내므로, 먼저 이런 자유를 선물로 받지 않으면 결코 기쁘고 선뜻 하나님께 순종할 채비를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한 가지 예로 더 짧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영혼이 다른 모든 감정과 생각에서 비워져야 하고, 마음이 모든 욕망에서 깨끗해져야 하며, 힘이 이 한 가지에 모이고 집중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주님의 길에서 많이 나아간 사람들도 이 목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의 진실한 정으로 사랑하지만, 마음과 영혼의 많은 부분이 아직 육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욕심에 끌려 물러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많이 애쓰며 힘쓰지만, 육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그 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무엇보다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때 그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원하고 갈망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마땅한 완전함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바라보면, 그들이 시도하거나 꾀하는 행위가 무엇이든 저주받은 것임을 봅니다. 그리고 누구도, 행위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바로 그 때문에 전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선한 부분은 그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결론지으며 자신을 속일 까닭이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므로 모든 불완전함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부분적으로는 선하게 보이기를 바랐던 자기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5.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율법의 잣대로 따져진다면 이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저주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어떻게 그 일을 위해 기꺼이 허리를 동이겠습니까? 반대로 그들이 율법의 이 엄격한 요구에서, 아니 율법의 엄격함 전체에서 풀려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너그러움으로 자기들을 부르시는 것을 듣는다면, 그들은 즐겁게, 큰 기쁨으로 부르시는 분께 응답하고 이끄시는 분을 따를 것입니다. 요컨대 율법의 멍에에 매인 사람들은 주인들에게서 날마다 정해진 일감을 받는 종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일의 분량을 다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다고 여기고 감히 주인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에게서 더 너그럽고 더 자유인답게 대우받는 아들들은, 시작만 했거나 반쯤 한 일, 더구나 얼마간 흠이 있는 일도 아버지들에게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던 것을 덜 정확하게 해냈더라도 자기의 순종과 마음의 기꺼움을 아버지들이 받아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서투르고 불완전하더라도 지극히 너그러우신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리라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말 3:17). 여기서 “아끼다”가 “너그러이 봐주다”의 뜻으로 쓰였음은 분명합니다. 섬김도 함께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에게 조금도 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헛되이 시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당신을 섬기려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당신이 섬김을 받으신다고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지 섬김을 받으시는지 의심하는 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6.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한 조상들에게 있었다고 기록된 선행을 무엇이든 믿음에 돌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평가합니다(히 11:2). 이 자유에 관해서는 로마서에 빛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고 추론합니다(롬 6:12).[497] 그는 신자들에게, 죄가 그들의 죽을 몸에서 왕 노릇 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들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자기들이 아직 정욕으로 가득한 육을 지니고 다니며 죄가 자기 안에 거한다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에서 오는 위로를 덧붙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직 죄가 소멸되지 않았고 의가 아직 자기 안에 온전히 살아 있지 않음을 느끼더라도, 남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노여워하신다고 여기듯이 두려워하고 낙심할 까닭이 없다. 그들은 은혜로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들의 행위가 율법의 규칙으로 심사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끌어내는 자들은, 이 자유가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유의 목적은 우리에게 선을 향한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셋째 부분은, 그 자체로 아무래도 좋은(ἀδιάφορα) 외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 의무에도 매이지 않고, 그것들을 때로는 쓰고 때로는 쓰지 않는 것을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O 833 이 자유를 아는 지식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양심에는 어떤 안식도 없을 것이고, 미신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일, 절기와 옷을 자유롭게 쓰는 일,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장난 같은 이런 비슷한

497. 이 말 자체는 롬 6:14에 있습니다. 원문은 이 대목이 시작되는 6:12를 적었으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들에 관해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에는 흔히 믿는 것보다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양심이 한번 올무에 걸려들면 길고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으로 들어가며, 그 뒤로는 거기서 나오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 홑이불과 속옷과 손수건과 냅킨에 아마포를 써도 되는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삼베에 관해서도 안심하지 못할 것이고, 마침내 삼 부스러기에 관해서도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는 냅킨 없이 식사할 수 없는지, 손수건 없이 지낼 수 없는지 속으로 곱씹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이 금지된 것으로 보이면, 마침내 그는 거친 빵과 흔한 먹을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편히 먹지 못할 것입니다. 더 값싼 음식으로도 몸을 지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더 단 포도주에서 머뭇거리면, 그다음에는 김빠진 포도주도 양심의 평안을 지니고 마시지 못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다른 물보다 더 달고 깨끗한 물에도 감히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끝내는 (속담에 이르듯) 가로놓인 지푸라기를 밟고 지나가는 것도 죄악으로 여기기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은 가벼운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쓰기를 원하시는지가 다투어지는 것이며, 그분의 뜻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절망으로 혼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내던진 채, 트인 길이 없는 곳에 파멸을 무릅쓰고 길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심에 얽힌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로 돌아서든 눈앞 어디에서나 양심의 거리낌을 보기 때문입니다.

8.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아무것도 속된(commune) 것이 없으되, 다만 무엇이든지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롬 14:14). (그는 “commune”를 “더러운 것” (profanum)의 뜻으로 씁니다.) 이 말로 그는 모든 외적인 일들을 우리의 자유 아래 둡니다. 다만 그 자유의 근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확고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거리낌을 던지면, 본디 깨끗하던 것들도 우리에게는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그는 덧붙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가 먹으면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다”(23절). 이런 궁지 속에서도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감행하여 더 대담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깊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들도 양심이 꺼리는데도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면, 두려움에 질려 쓰러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감사로만 모든 것이 우리가 쓰도록 거룩해진다고 증언합니다(딤전 4:5). 제가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선하심을 그분의 선물에서 알아보는 마음에서 나온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임을 알고 하나님을 그분의 일들로 찬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확신하지 못하니, 어떻게 주시는 분께 하듯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요컨대 우리는 이 자유가 어디를 향하는지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도대로, 양심의 아무 거리낌도 마음의 아무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쓰는 것입니다. 이 신뢰로 우리 영혼이 그분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너그러우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키는 일이 자유로운 모든 의식이 포함됩니다. 곧 양심이 어떤 강제로 그것들을 지키도록 매이지 않고, 그것들을 쓰는 일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자기들에게 맡겨졌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9.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것이며, 그 모든 힘은 두려워하는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양심이 죄 사함을 두고 불안하고 근심하든지, 우리 육의 흠으로 더러워진 불완전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염려하든지, 아무래도 좋은 일들의 사용을 두고 괴로워하든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자기 욕심의 핑계로 삼아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자기 정욕대로 남용하는 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쓰이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쓸 때 약한 형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들은 이 자유를 그릇되게 해석합니다. 이 시대에는 첫째 부류의 죄가 크게 저질러집니다. 재산이 넉넉하여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잔치 차림과 몸치장과 집 짓기에서 사치스러운 화려함을 즐기지 않는 사람, 온갖 호화로움으로 동료들 가운데 뛰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번쩍임에 놀랍도록 우쭐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변호합니다. 그들은 이것들이 아무래도 좋은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누가 그것들을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쓴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너무 탐하여 구하고, 교만하게 자랑하고, 사치스럽게 쏟아부으면, 그것들은 이런 악덕으로 더럽혀집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들 가운데서는 바울의 이 말이 가장 잘 구별해 줍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딛 1:15). 무엇 때문에 부자들이 저주를 받습니까(눅 6:24; 암 6:1, 4; 사 5:8)? 그들은 자기 위로를 이미 받은 자들,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 상아 침상에서 자는 자들, 밭에 밭을 잇는 자들, 잔치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가 있는 자들입니다. 분명 상아와 금과 재물은 하나님의 좋은 피조물이며, 사람들이 쓰도록 허락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정해진 것입니다. 웃거나, 배부르거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옛 소유에 새 소유를 더하거나, 음악의 화음을 즐기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어디에서도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CO 835 그러나 재물이 넉넉할 때 쾌락 속에 뒹굴며 실컷 배를 채우고, 눈앞의 즐거움으로 생각과 마음을 취하게 하며 늘 새것을 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바르게 쓰는 것과 아주 멀

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제 없는 욕심을 버리고, 지나친 낭비를 버리고, 허영과 오만을 버려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깨끗하게 써야 합니다. 마음이 이런 절제에 맞추어지면 그들은 바른 사용의 규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절제가 없으면, 평민의 흔한 즐거움도 지나친 것이 됩니다. "거친 베옷 속에 자주색 마음이 사는 일이 많고, 때로는 고운 베와 자주색 옷 아래 소박한 겸손이 숨어 있다"는 말은 참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자기 신분에 따라 가난하게든 적당하게든 화려하게든 살되,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시는 것은 사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배우고, 낮아질 줄도 알고 높아질 줄도 알며, 어디서나 모든 일에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며, 넉넉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는 법을 배웠다면(빌 4:11),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법으로 여겨야 합니다.

10. 또 많은 사람이 이 점에서 잘못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의 자유가 온전하고 안전하지 않기라도 한 듯이,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분별없이 씁니다. 이런 때 아닌 사용으로 그들은 약한 형제들을 자주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금요일에 고기를 먹어 자유를 손에 넣지 않으면 자기의 자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먹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된 생각은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자유로 사람들 앞에서 새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며, 쓰는 데 못지않게 삼가는 데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든 달걀을 먹든, 붉은 옷을 입든 검은 옷을 입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으로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이 자유의 은택을 받아야 했던 양심은 이미 풀려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고 한 가지 색 옷만 늘 입는다 해도 그들은 조금도

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양심으로 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형제들의 약함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가장 해로운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 약함을 감싸 주어, 그들을 넘어지게 할 일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부탁하신 약한 이들에 대한 돌봄을 내던지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여 절도를 지켜야 합니다.

11. 그러므로 여기서 걸림돌(scandala)에 관하여 조금 말하겠습니다. 걸림돌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며,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무시해야 하는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자유에 어떤 자리가 있는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걸림돌을 주어진 것과 받아들인 것으로 나누는 저 흔한 구분이 마음에 듭니다. 그 구분은 성경의 분명한 증언도 있고, 뜻하는 바를 서투르지 않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때 아니게, 또는 경박함이나 방자함이나 무모함으로, 질서 없이 제자리가 아닌 데서 행하여 배우지 못한 이들과 약한 이들이 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준 걸림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런 넘어짐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의 탓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어떤 일에서 그 탓이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그것을 준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인 걸림돌이란, 다른 면에서는 악하지도 때 아니지도 않게 행해진 일을 악의나 마음의 어떤 비뚤어진 심술로 넘어질 핑계로 낚아채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걸림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 비뚤어진 해석자들이 까닭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의 걸림돌로는 약한 이들만 넘어지지만, 이 둘째 걸림돌로는 모진 기질들과 바리새인의 거만한 눈썹들이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를 약한 이들의 걸림돌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를 바리새인들의 걸림돌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의 사용을 조절하여, 약한 형제들의 무지에는 양보하되 바리새인들의 엄격함에는 결코 양보하

지 않게 하겠습니다.

12. 약함에 무엇을 내주어야 하는지는 바울이 여러 곳에서 넉넉히 보여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롬 14:1). 또 "이제부터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넘어질 계기를 두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의 말이 많은데, 여기 옮겨 적기보다 그 대목에서 찾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며,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라."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이 자유가 어떻게든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전 8:9). 또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다"(고전 10:25).[498] 끝으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을 주지 않는 자들이 되라." 또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만 너희 자유를 육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갈 5:13).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약한 이웃을 거슬러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를 모든 일에서 그들의 종으로 세웁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화롭게 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걸려 넘어짐을 얼마나 중히 여겨야 하는지는 주님의 말씀에서 배웁니다(마 15:14). 주님께서는 그들이 소경이요 소경의 인도자이니 그대로 두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해야 하며 그들의 걸려 넘어짐에 마음 쓸 것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13. 그러나 누구를 약한 이로, 누구를 바리새인으로 여겨야 하는지를

498. 라틴어 원문은 "porro conscientiam vestram dico, non alterius"(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다)입니다. 고전 10:29("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와 뜻이 반대이므로 원문 조판의 잘못일 수 있으나,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습니다. 이 구별이 없어지면, 걸림돌들 사이에서 자유를 쓸 여지가 도대체 남아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용은 늘 아주 큰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CO 837 그러나 바울은 가르침으로도 본보기로도, 우리 자유를 어디까지 조절해야 하는지, 또는 걸림돌을 무릅쓰고 지켜 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히 정해 준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자기 동역자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설득될 수는 없었습니다(행 16:3; 갈 2:3). 행동은 달랐으나 계획이나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곧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웠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으며(고전 9:19),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으며, 그가 다른 곳에서 쓰듯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22절). 여기서 우리는 자유의 바른 조절을 봅니다. 곧 어떤 열매가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일에서 자유를 거두어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디도에게 할례 행하기를 단호히 거절했을 때 무엇을 고려했는지는 그 자신이 이렇게 쓰며 증언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려고 한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거짓 사도들의 부당한 요구로 약한 양심 속에서 자유가 위태로워질 때에는 자유를 지켜 내야 할 필요도 봅니다. 어디서나 사랑에 힘쓰고 이웃의 덕 세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남의 것을 구하

라"(고전 10:23). 이제 이 규칙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곧 이웃의 덕 세움에 이바지하면 우리의 자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삼가는 데에서 바울의 지혜를 흉내 내지만, 그것을 사랑의 의무에는 조금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편안함을 돌보려고 자유에 대한 모든 언급이 묻혀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웃의 선과 덕 세움을 위해 때로는 자유를 쓰는 것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제때에 자유를 조절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에게 중요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외적인 일들에서 자유로운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사랑의 의무에 더 거침없게 하려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14. 그런데 걸림돌을 피하는 일에 관해 제가 가르친 것은 무엇이든 중간의 일, 곧 아무래도 좋은 일들에 관한 것으로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어떤 걸림돌이 두렵다고 해서 빠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사랑에 굴복해야 하듯이, 사랑 자체도 다시 믿음의 순수함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사랑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단까지만입니다. 곧 이웃의 환심을 사려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데까지입니다.[499]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을 풀기보다 모든 것을 끊어 버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무절제를 옳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천 가지 불경건의 모양에서 앞장서 인도하면서도,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꾸며 대는 자들의 말도 저는 듣지 않습니다. 마치 그 사이에 그들이 이웃의 양심을 악으로 세우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그들이 빠져나올 아무 소망도 없이 늘 같은 진창에 박혀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냥한 사람들은, 가르침으로든 삶의 본보기로든 이웃을 가르쳐야 할 때에 그를 젖으로 먹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가장 악하고 치명적인 생각들을

499. "제단까지"(usque ad aras)는 "양심과 신앙이 허락하는 데까지"라는 뜻으로 쓰던 옛 속담입니다. 칼빈이 바로 뒤에서 그 뜻을 풀어 줍니다.

불어넣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젖으로 먹였다고 말합니다(고전 3:2). 그러나 만일 그때 그들 가운데 교황의 미사가 있었다면, 그가 그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미사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젖은 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첨의 겉모양 아래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먹인다는 그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 이런 숨김을 한동안 옳다고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까지 자기 아이들에게 같은 젖을 먹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아무리 가벼운 음식이라도 견딜 만큼 자라지 않는다면, 그들이 젖으로 길러진 적도 결코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15. 이제 앞에서 묘사한 이런 자유의 특권을 받은 신자들의 양심은, 주님께서 자유롭기를 원하신 일들에서 어떤 규례의 올무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는 이 일을 그리스도의 은택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양심이 모든 사람의 권세에서 벗어나 있다고 단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토록 큰 너그러움에 대한 감사를 잃으시거나, 양심 자체가 그 열매를 잃는다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그토록 큰 값이 든 것으로 우리가 보는 이것을 하찮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이것을 금이나 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로 값 매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람들에게 복종하도록 넘겨준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갈 5:1, 4). 그는 갈라디아서의 여러 장에서, 우리 양심이 자기 자유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려지시거나 오히려 꺼지신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사람의 마음대로 법과 규정의 사슬에 얽매일 수 있다면, 양심은 분명 그 자유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알 가치가 매우 큰 만큼 더 길고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규정을 폐지하는 일에 관해 한마디만 나와도, 곧바로 한편으로는 선동하는 자들에게서, 한편으로는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큰 소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에게 대한 모든 순종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뒤집히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16. 아무도 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먼저 사람 안에는 두 가지 통치가 있다는 것을 살펴봅시다. 하나는 영적인 통치로, 이것으로 양심이 경건과 하나님 섬김으로 훈련됩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통치로, 이것으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인간다움과 시민 생활의 의무를 배웁니다. CO 839 이 둘은 흔히 영적 관할권과 세속 관할권이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은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의 통치는 영혼의 생명에 관계되고, 뒤의 통치는 현재 삶에 속한 일들을 다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먹고 입는 일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절도 있게 삶을 꾸려 가도록 법을 정하는 일을 다룹니다. 앞의 것은 속마음 안에 자리 잡고, 뒤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만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영적 왕국, 다른 하나를 정치적 왕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대로 이 둘은 늘 따로따로 하나씩 살펴야 하며, 하나를 생각할 때에는 다른 하나에 대한 생각에서 마음을 불러내 돌려야 합니다. 사람 안에는 이를테면 두 세계가 있어서, 서로 다른 왕들과 서로 다른 법들이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로 말미암아, 복음이 영적 자유에 관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정치 질서에 그릇 끌어다 붙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풀려났으므로 외적인 통치에서 사람의 법에 덜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또 그들이 영으로는 자유로우므로 그 때문에 육의 모든 종노릇에서 면제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으로, 영적 왕국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들 가운데에도 어떤 미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니 정당하게 여겨야 할 것과,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자리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려야 합니다. 국가 통치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말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법에 관해서는 교회의 권세에 관해 쓸 때 이미 얼마간 말했습니다. 남은 것은 간단히 다루어야 합니다.

1539–1554년판 · 제13장 사람의 전통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13장 사람의 전통에 관하여 1

CO 1:839–85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839 제13장

사람의 전통에 관하여.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영적 왕국에 속하므로, 이 논의에서 우리는, 이미 말한 대로, 법과 입법자들의 정치 질서를 거슬러 아무 다툼도 하지 않습니다. 권징이나 공적인 단정함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는 교회의 거룩하고 유익한 규정들을 거슬러서도 조금도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투는 상대는 오직, 교회의 목자로 보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가장 잔인한 형리들인 자들이 스스로 빼앗아 쥔 저 비상한 권세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법이 영적인 것이며 영혼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영생에 필요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침범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양심에 주신 자유가 철저히 짓눌리고 흩어집니다. 그들이 자기 법을 지키는 일을 얼마나 큰 불경건으로 못 박는지는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 법을 지키는 데서 죄 사함과 의와 구원을 찾으라고 가르치고, 경건(religion)과 경건(pietas)의 요체 전체를 그 법에 둡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양심을 해방하신 일들에서는 양심에 강제를 지워서는 안 되며, 앞에서 가르친 대로 양심은 해방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유일한 왕, 곧 자기의 해방자 그리스도만을 인정해야 하고, 오직 하나의 자유의 법, 곧 복음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얻은 은혜를 지키려면

말입니다. 양심은 어떤 종노릇에도 붙잡히지 않고, 어떤 사슬에도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2. 물론 이 솔론들은 자기들의 규정이 자유의 법이요, 쉬운 멍에요, 가벼운 짐이라고 꾸며 댑니다.[500] 그러나 그것이 순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내던지고 자기들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 태연하고 힘차게 무시하는 자들은, 참으로 자기들 법의 무게를 조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구원에 대한 염려에 조금이라도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올무에 얽혀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자유롭다고 여기기는커녕 그와는 아주 멀리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처신했는지 봅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일에서도 감히 올무를 씌우지 않았습니다(고전 7:35). 거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남겨 두신 일들에 필연을 지운다면 양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게 될지 그는 분명히 내다보았습니다. 반대로 이자들이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며 가장 엄하게 못 박아 놓은 규정은 거의 셀 수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원에 필요한 것처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많은 것이 지키기가 몹시 어렵고, 모두를 한 무더기로 쌓아 놓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더미가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 이토록 큰 어려움의 덩어리가 덮쳐 오는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이런 종류의 규정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곧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묶고, 마치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명령하기라도 하는 듯이 종교적 의무(religio)를 지우려고 만들어진 규정들입니다.

3. 대부분의 사람은 이 문제에서 막힙니다. 그들이 이른바 외적 법정과 양심의 법정을 충분히 섬세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위정자에게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순종해야 한다고

500. 솔론(Solon)은 아테네의 입법자입니다. 칼빈은 스스로 입법자 노릇을 하는 교황제의 감독들을 비꼬아 이렇게 부릅니다.

명하는 것이 어려움을 더합니다. 여기서 양심이 정치적인 법에도 매인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앞 장에서 말한 것과 이제 영적 통치에 관해 말하려는 것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이 매듭을 풀려면 먼저 양심이 무엇인지 붙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정의는 낱말의 어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과 지성으로 사물에 대한 앎을 붙잡을 때 그로부터 "안다"(scire)는 말을 쓰고, 거기서 "지식"(scientia)이라는 이름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을 가질 때, 그것은 마치 그들 곁에 붙은 증인처럼 그들이 자기 죄를 숨기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피고로 심판자의 법정에 끌어내는데, 이 감각을 양심(conscientia)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중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 안에 눌러 두지 못하게 하고, 그를 유죄 판결에 이르게 할 때까지 뒤쫓습니다. 바울이 양심이 사람들에게 함께 증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한다고 가르칠 때(롬 2:15) 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단순한 앎은 사람 안에 갇힌 듯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우는 이 감각은 사람에게 붙여 둔 파수꾼과 같아서, 그의 모든 비밀을 지켜보고 살펴 아무것도 어둠 속에 묻혀 있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천 명의 증인"이라는 옛 속담도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을 마음의 평온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벧전 3:21).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여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설 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양심이 없다"는 말을, 해방되었거나 사면되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씁니다(히 10:2).

4. 그러므로 행위가 사람을 바라보듯이, 양심은 하나님께 관계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란 마음의 속 깨끗함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바울은 율법의 완성은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라고 씁니다(딤전 1:5). 다른 곳에서도 그는 어떤 이들이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말하여, 양심이 지성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 줍니다. 이 말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살아 있는 정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진실한 열심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양심이 사람들에게까지 넓혀지기도 합니다. 누가가 전하는 대로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힘썼다고 증언할 때가 그렇습니다(행 24:16). 그러나 이렇게 말한 것은 선한 양심의 열매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말했듯이 양심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고려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단순히 묶는 법을 두고 양심을 묶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결하게, 모든 정욕에서 깨끗하게 지키라고 명하실 뿐 아니라, 어떤 음란한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방탕도 금하십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다 해도 제 양심은 이 법을 지키는 데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종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나쁜 본을 보인다는 점에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책에 매인 양심을 지니게 됩니다. 그 자체로 중간인 일들에서는 이치가 다릅니다. 그것이 걸림돌을 낳는다면 우리는 삼가야 하지만, 양심은 자유로운 채로 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관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거리낌을 던지면, 양심을 위하여 손대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고전 10:28). 신자가 미리 경고를 받고도 그런 고기를 먹는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생각하여 삼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양심은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겉 행위를 묶으면서도 양심은 풀어 둔 채로 남겨 두는 것을 봅니다.

5. 이제 사람의 법으로 돌아갑시다. 만일 그 법이 마치 그것을 지키는 일이 그 자체로 필요하기라도 한 듯이 우리에게 종교적 의무를 지우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이 양심에 지워서는 안 될 것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양심은 사람들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법정과 양심의 법정 사이의 저 흔한 구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온 세상이 무지의 짙은 어둠에 싸여 있을 때에도, 사람의 양심이 사람의 모든 판단보다 높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작은 빛의 불꽃은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마디 말로 인정한 것을 나중에 실제로는 흔들어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양심을 사람의 폭정에서 건져 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증언이 남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에서 생기는 저 어려움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군주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거기서 군주들의 법이 양심까지 지배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이라면 교회의 법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먼저 여기서는 유(類)와 종(種)을 구별해야 합니다. 낱낱의 법은 양심에 닿지 않지만, 우리는 위정자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일반 계명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논의는,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존경해야 한다는 이 돌쩌귀에서 돕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위정자들이 쓰는 법이 영혼의 속 다스림에 속한다고는 조금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하나님 섬김과 의롭게 사는 영적 규칙을 사람의 어떤 결정보다도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앞의 것에 달려 있습니다. 곧 사람의 법은 위정자가 만든 것이든 교회가 만든 것이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바르고 의로운 법을 말합니다), 그 자체로 양심을 묶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필요 전체가 일반적인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지, 명령된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섬김의 형식을 정하고 자유로운 일들에 필연을 세우는 법들은 이 질서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6. 오늘날 교황제에서 교회의 규정이라고 불리며 참되고 필요한 하나님 섬김으로 강요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영혼을 사로잡아 옭아매는 사슬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앞에서 교회의 권세를 다룰 때 얼마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논의는 이 자리로 미루어 두었으므로, 저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순서로 그 요점 전체를 모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감독들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가르칠 방종에서 스스로 차지한 폭정에 관해서는 거기서 넉넉하다고 여겨질 만큼 설명했으므로, 그 부분은 모두 빼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가졌다고 말하는 입법권을 설명하는 데에만 머물겠습니다. 우리의 거짓 감독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영적 입법자로 세우셨으니 교회의 다스림이 자기들에게 맡겨졌다는 핑계로 새 법을 만들어 양심에 짐을 지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명하고 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리스도인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를 거역하는 것이니 이중의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참된 감독이라면, 저는 이 부분에서 그들에게 얼마간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요구하는 만큼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데 필요한 만큼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자들이므로, 조금만 스스로 차지해도 한도를 넘지 않을 수 없습니다. CO 843 그러나 이것도 다른 곳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참된 감독들이 가진 권세는 무엇이든 그들에게도 정당하게 속한다고 지금은 인정해 줍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삶의 규칙을 정하거나 자기들에게 맡겨진 백성을 자기들 뜻대로 강요할 수 있는 입법자로 신자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을 교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명령하는 일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이 권리는 사도들도 알지 못한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서 여러 번 빼앗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사도들의 본보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분명한 금지를 거슬러 감히 이 권리를 움켜쥐고, 오늘날까지 감히 그것을 변호하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7. 잘 사는 완전한 규칙에 속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율법에 그 전부를 담으셔서 사람들이 그 요체에 더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첫째로, 삶의 올바름 전체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분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재는 데 있으므로, 우리가 그분만을 삶의 유일한 선생이요 인도자로 모시게 하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순종보다 더 요구하시는 것이 없음을 증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치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요,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입법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약 4:11).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명령과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을 당신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사야도 조금 덜 분명하기는 하지만 일찍이 바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시요,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사 33:22). 두 대목 모두 분명히, 영혼에 대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 생명과 죽음의 결정자이심을 보여 줍니다. 아니, 야고보는 이것을 밝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이것을 스스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혼들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하시고 멸하시는 권세가 오직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사야의 저 말씀이 울리는 대로) 그분을 왕이시요 재판관이시요 입법자시요 구원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목자들에게 그 직무를 일깨우면서, 맡은 무리(cleri)를 거슬러 주인 노릇 하지 않도록 양 떼를 치라고 권합니다(벧전 5:2). 이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의 기업, 곧 신자들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바르게 헤아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만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을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죄악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명령하려고 스스로 높이려는 자들이 차지하려는 권세는 무엇이든 이렇게 잘려 나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8. 또 이 문제 전체가, 하나님께서 유일한 입법자이시라면 사람들이 이 영예를 스스로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달려 있으므로, 주님께서 왜 이것을 당신에게만 돌리시는지 우리가 앞에서 내놓은 저 두 가지 이유를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모든 의와 거룩함의 완전한 규칙이 되고, 그리하여 그분의 뜻을 아는 데에 잘 사는 완전한 지식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여겨지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매여 있어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이유를 지켜보면, 사람의 규정 가운데 어떤 것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지 가려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섬김에 속한다고 꾸며지는 규정, 그리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기라도 한 듯이 양심을 그 준수에 묶는 규정은 모두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확실한 검사를 갖고자 한다면, 사람의 모든 법을 이 저울로 달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첫째 이유로, 새 짐으로 교회들을 짓누르려던 거짓 사도들과 싸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비슷한 문제에서 둘째 이유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므로 그가 골로새서에서 밝혀 나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참된 하나님 섬김에 관한 교리를 사람들에게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를 신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그는 첫째 장에서, 복음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고 말합니다. 둘째 장 첫머리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거기서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신자들은 헛된 철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규정을 따라 그리스도의 양 떼에서 끌려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장 끝에서 그는 더 큰 확신으로 모든 ἐθελοθρησκεία, 곧 사람들이 스스로 꾸며 내거나 남에게서 받는 지어낸 숭배들과,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섬김에 관해 전하는 모든 계명을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데 하나님 섬김이 있다고 꾸며지는 규정은 모두 불경건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셔야 할 양심에 올무를 씌워서는 안 된다고 다그치는 대목들은 충분히 분명합니다. 특히 다섯째 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짚어 두는 것으로 넉넉할 것입니다.

9. 그러나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일 전체는 예를 들면 더 잘 드러날 것이므로, 이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맞추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황이 자기 무리와 함께 교회에 짐 지우는 이른바 교회의 규정들을 우리는 해롭고 불경건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거룩하고 유익하다고 변호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의식과 예식에 관한 것이고, 어떤 것은 주로 권징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공격하게 하는 정당한 까닭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정당한 까닭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그것들을 만든 자들 스스로가 그것들 안에 말하자면 하나님 섬김 바로 그 자체가 들어 있다고 큰 소리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의식들을 무슨 목적으로 행합니까? 그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배우지 못한 무리의 오류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인정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참을 수 없다고 가르친 것, 곧 하나님을 섬기는 정당한 예식을 사람의 뜻에 맡기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참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 것입니까? 더구나 그들은 이 세상의 초등 원리를 따라 섬기라고 명하는데,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거스른다고 증언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키도록 얼마나 단호한 필연으로

양심을 죄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반대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명분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양심이 사람의 종노릇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10. 게다가 가장 나쁜 것이 더해집니다. 이런 헛된 지어낸 것들로 경건(religion)을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 비뚤어짐에는 늘 또 하나의 가증한 패악이 뒤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그 패악, 곧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마 15:3). 저는 오늘날 우리의 입법자들(nomothetae)과 제 말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이 고발에서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다면, 이긴 것으로 해 두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해가 바뀔 때 귓속 고해를 빠뜨리는 것이 한 해 내내 가장 악한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한없이 더 큰 죄입니다. 금요일에 고기를 조금 맛보아 혀를 더럽히는 것이 날마다 음행하여 온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무슨 성자들인지 모를 자들에게 바쳐진 날에 정직한 일에 손을 대는 것이 날마다 온 지체를 가장 악한 짓에 쓰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사제가 한 사람의 정당한 혼인으로 맺어지는 것이 천 가지 간음에 얽히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서원한 순례를 갚지 않는 것이 모든 약속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괴이하고 쓸데없고 무익한 성당 사치에 얼마를 쏟아붓지 않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외면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우상을 공경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온갖 사람을 모욕하며 대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뜻 없는 긴 말을 중얼거리지 않는 것이 마음에 바른 기도를 한 번도 품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는 차갑게, 마지못해 권할 뿐이면서, 자기들의 계명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이 경건의 모든 힘을 담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정확한 순종을 열심히, 그리고 안달하며 다그칩

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은 가벼운 속죄 행위(satisfactio)의 벌금으로 벌하면서, 자기들의 법령 하나를 조금만 거슬러도 감옥이나 유배나 화형이나 칼보다 가벼운 형벌로는 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엄하지도 가차 없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누그러지지 않는 미움으로 끝까지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 단순함을 사로잡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길들여서, 그들이 이른바 교회의 계명에서 점 하나가 어겨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가 뒤집히는 것을 더 태연히 보게 만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다면 자유로운 하찮은 일들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내치는 데서 큰 죄가 저질러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작은 악이라도 되는 듯이, 이 세상의 저 시시한 초등 원리들이(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쓰며 그렇게 부르듯이, 갈 4:9) 하나님의 하늘 말씀보다 더 무겁게 달아집니다. 그리고 간음에서는 거의 사면받는 사람이 음식 때문에는 정죄를 받습니다. 창녀는 허락받는 사람이 아내는 금지당합니다. 사람에게로 기우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저 배반하는 순종으로 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1. 우리가 이 규정들에서 나무라는 가볍지 않은 악덕이 또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들이 대부분 쓸데없고 때로는 어리석은[501] 준수 사항을 명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엄청난 수에 경건한 양심이 짓눌리고, 일종의 유대교로 되돌아가 그림자에 들러붙어서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들이 어리석고 쓸데없다고 말하면 육의 지혜는 믿으려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육의 지혜는 그것들을 너무나 좋아하여, 그것들을 없애면 교회가 아주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것들은 지어낸 숭배와 겸손으로, 그리고 그 엄격함으로 육을 길들이는 데 효력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지혜의

501. [원문의심] OCR은 “imptas” 입니다. 바로 뒤에 “inutiles” (쓸데없는)와 짝지어 다시 나오므로 “ineptas” (어리석은)로 읽었습니다. “impias” (불경건한)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골 2:23). 참으로 가장 유익한 경고이며, 결코 우리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람의 전통이 지혜의 모양을 쓰고 속인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어디서 이런 빛깔을 얻습니까? 곧 그것들이 사람에게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재주는 거기서 자기 것을 알아보고, 알아본 것을, 자기 헛됨에 덜 맞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기꺼이 껴안습니다. 다음으로,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멍에로 눌러 땅에 붙들어 두므로 겸손에 알맞은 기초 훈련처럼 보이고, 여기서 또 하나의 칭찬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육의 쾌락을 억제하고 절제의 엄격함으로 육을 굴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지혜롭게 고안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는 단순한 사람들이 거짓 핑계에 속지 않도록 저 가면들을 벗깁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지어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반박하기에 넉넉하다고 여겼으므로,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반박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 안에서 지어낸 숭배는 모두 정죄되었으며, 사람의 재주를 즐겁게 할수록 신자들에게 더욱 의심스러운 것임을 알았고, 겉으로 꾸민 겸손의 저 거짓 형상이 참된 겸손과 너무나 멀어서 쉽게 분별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끝으로 저 몽학 선생의 훈련이 몸의 연습보다 더 값지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배우지 못한 이들 가운데서 사람의 전통을 칭찬받게 하던 바로 그것들이 신자들에게는 사람의 전통을 반박하는 것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12. 이처럼 오늘날 의식들의 구경거리에는 배우지 못한 무리만이 아니라, 세상 지혜로 가장 부풀어 오른 사람일수록 놀랍게 사로잡힙니다. 위선자들과 어리석은 여인네들은 이보다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경건의 규칙에 따라 이 많은 의식들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더 깊이 따지고 더 참되게 헤아리는 사람들은, 첫째로 그것들이 아무 유익도 없으니 시시한 장난이며, 다음으로 헛된 겉치레로 보는

이들의 눈을 속이니 요술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로마주의 선생들이 그 밑에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겪어 보니 순전한 놀음일 뿐인 그런 의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CO 847 그것들을 만든 자들이 시시한 어리석음으로 자기도 놀리고 남도 놀리는 데까지 떨어진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의 망상에서 본을 따왔고, 한편으로는 원숭이처럼 모세 율법의 옛 예식들을 무턱대고 흉내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식들은 짐승 제물과 그와 비슷한 나머지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다른 논거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토록 엉성하게 꿰맨 잡동사니에서 무슨 좋은 것을 바랄 제정신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 자체가 분명히 보여 주듯이, 대부분의 의식은 백성을 가르치기보다 얼빠지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쓸모가 없습니다. 권징을 지키기보다 뒤엎는 저 새로 생긴 교회법들에도 위선자들은 큰 무게를 둡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더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권징의 그림자 같고 사라져 버리는 유령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13. 이제 다른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들이 하나 위에 또 하나 쌓여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불어났다는 것을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식들에는 무슨 유대교 같은 것이 나타나고, 다른 준수 사항들은 경건한 영혼들에게 무거운 고문을 안겨 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되고 모든 것이 수많은 주제넘은 규정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팔일절 기간에 맨발로 땅을 밟은 사람이 술에 취해 정신을 파묻은 사람보다 더 엄하게 꾸중을 듣는다고 탄식했습니다.[502] 그는 하나님께서 긍휼로 자유롭기를 원하신 교회가 이렇게 짓눌려서 유대인들의 처지가 오히려 더 견딜 만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면, 지금 있는 이 종노릇을 어떤 탄식으로 슬퍼했겠습니까? 그 수는 열 배나 많고, 낱낱의 점 하나하나가

502. "팔일절"(octavae)은 세례를 받은 뒤 이어지는 여드레 동안을 말합니다. 새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기간에 맨발로 땅을 밟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백 배나 엄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렇게 됩니다. 이 비뚤어진 입법자들은 한번 지배권을 차지하면, 극도의 까다로움에 이를 때까지 명령하고 금지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말로 이것을 멋지게 보여 주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면,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처럼 규례에 매여 있느냐? 먹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냐?" (골 2:20). ἅπτεσθαι라는 낱말은 "먹다"와 "만지다"를 함께 뜻하는데, 여기서는 쓸데없는 되풀이가 되지 않도록 틀림없이 앞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거짓 사도들이 나아가는 단계를 아주 아름답게 그려 보입니다. 미신에서 시작합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입에 대는 것까지 금합니다. 이것을 얻어 내면, 이제는 맛보는 것까지 금합니다. 이것마저 허락받으면,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14.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규정에서 이 폭정을 나무라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폭정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법령과 그 지나친 요구로 불쌍한 양심들이 놀랍도록 고문을 당했습니다. 권징에 관한 교회법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말했습니다. 의식들에 관해서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반쯤 묻히시고 우리는 유대적 표상들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수가 아주 적고, 뜻이 아주 뛰어나고, 지키기가 아주 쉬운 성례들로 새 백성의 공동체를 묶으셨다."[503] 오늘날 교회가 얽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예식의 많음과 다양함이 이 단순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몇몇 영리한 사람들이 어떤 꾀로 이 비뚤어짐을 변명하는지 저는 압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만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주 많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이런 몽학 선생의 훈련이 마련되었으니, 더 강한 이들은 그것 없이 지낼

503. CO 편집자 각주: 아우구스티누스, 『서신』 118(54), 야누아리우스에게, 1장.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한 형제들에게 유익한 것을 보는 이상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의 약함에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의식의 큰 더미로 약한 이들을 덮어 버리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방법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옛 백성 사이에 이 차이를 두신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백성은 표징과 표상으로 어린아이처럼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그토록 많은 외적 장치 없이 더 단순하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몽학 선생에게서 나이에 맞게 다스림을 받고 감독 아래 있듯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갇혀 지켜졌습니다(갈 4:1). 그러나 우리는 후견과 돌봄에서 풀려나 어린아이의 초보가 필요 없는 어른들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교회에 어떤 무리가 있게 될지,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내다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와 유대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지 못한 이들을 돌보겠다고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유대교를 다시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실 때, 옛 백성과 새 백성의 이 차이를 당신의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예배는 물론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 예배자들이 옛 예배자들과 다른 점은, 모세 아래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많은 의식으로 그림자처럼 나타났고 어떤 식으로 그 안에 싸여 있었으나, 이제는 그 의식들이 폐하여졌으므로 더 단순하게 예배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차이를 뒤섞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확정하신 질서를 뒤엎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배우지 못한 이들의 무지를 돕기 위해 아무 의식도 주지 말자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종류의 도움이 그들에게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고 밝히 드러내는

방식을 써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을 적게, 그리고 조금도 수고롭지 않게 주신 것은 그것들이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 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은 그것들이 아직 오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식을 지키려면, 수의 적음과 지키기의 쉬움과, 밝음에서도 드러나는 뜻의 존귀함을 지켜야 합니다. CO 849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 하러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의 눈앞에 있는 일입니다.[504]

15. 여기서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해로운 생각에 물들어 있는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곧 이 의식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제사이며, 그것으로 죄가 씻기고, 그것으로 의와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좋은 것들이 이런 바깥의 오류 때문에 썩지는 않는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위에서도 이 점에서는 못지않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함부로 지어낸 행위에, 그것이 영생을 얻는 공로가 된다고 믿을 만큼 큰 영예를 돌리는 것은 더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위가 갚음을 받는 것은, 입법자이신 그분 자신이 순종을 보시고 그것을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는 자기의 존귀함이나 자기의 공로로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대한 우리의 순종을 그토록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값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행위의 완전함이지, 사람이 이루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율법의 행위도 하나님의 값없는 너그러움에서가 아니면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 안의 순종은 약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리스도 없는 행위가 무슨

504. 원문은 “Res enim est oculis.”로 끊겨 있고, 앞 쪽 끝에 “tn ommum”이라는 조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in omnium”으로 보아 “Res enim est in omnium oculis”(모든 사람의 눈앞에 있는 일입니다)로 읽었습니다.

가치가 있는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문제는 그만둡시다. 지금 논의에 고유한 것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행위가 칭찬받을 만한 것을 무엇이든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순종을 보시기 때문에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종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나는 제사와 희생에 관하여 명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가 듣고 들어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였다" (렘 7:22). 그러나 지어낸 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느냐" (사 55:2).[505] 또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섬긴다" (사 29:13; 마 15:9).[506] 그러므로 그들은 불쌍한 백성이 저 외적인 시시한 장난에서, 하나님께 맞세울 의와 하늘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지탱할 의를 찾도록 내버려 두는 이 일을 결코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의식들을 배우의 무대나 마술의 주문처럼 내보이는 것은 꾸짖어 마땅한 악덕이 아닙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지 않는 의식은 모두 부패하고 해롭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황제 아래 쓰이는 의식들은 가르침과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을 아무 뜻도 없는 표징들에 붙잡아 둡니다. 끝으로 배는 재주 많은 장인이므로, 그 가운데 많은 것이 탐욕스러운 사제 나부랭이들이 돈을 낚는 덫으로 고안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기원이 무엇이든, 그것들은 모두 더러운 이익을 위해 팔려나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속되고 신성을 더럽히는 장사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잘라 내야 합니다.

16. 사람의 규정에 관한 제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만 아주 맞추어져 있으므로, 제가 모든 시대에 통하는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 가운데 모든 시대에 유익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어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이 미신이 슬그머니 들어올 때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은 무엇

505. 원문에는 "사 29:13" 으로 되어 있으나, 인용한 말은 사 55:2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506. 원문에는 "사 9:13" 으로 되어 있으나, 인용한 말은 사 29:13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이든 곧바로 이런 조잡한 남용으로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어느 한두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경고하십니다. 곧 사람의 교훈으로 당신을 섬기는 자들을 눈멂과 얼빠짐으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사 29:13). 이 눈멂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많은 경고를 업신여기고 스스로 이 치명적인 올무에 걸려드는 자들은 어떤 어리석음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황을 모두 치우고, 교회가 물리치고 모든 경건한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해야 할 모든 시대의 사람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단순하게 알고 싶다면, 앞에서 내놓은 확실하고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이 세운 모든 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정하거나, 마치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명령하기라도 하는 듯이 양심을 종교적 의무로 묶으려고 세운 법입니다. 이 둘 가운데 하나나 둘 모두에 다른 악덕들이 더해진다면, 곧 그 수가 많아 복음의 밝음을 가리고, 아무 덕도 세우지 못하며, 참된 경건의 연습이라기보다 쓸데없는 장난 같은 일거리이고, 더러운 것과 부끄러운 이익에 내맡겨져 있고,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악한 미신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이것들은 그 안에 악이 얼마나 많은지 더 쉽게 알아차리게 해 주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17.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저는 듣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은 자기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므로 그릇될 수 없고, 교회의 권위는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어 내면 동시에, 자기들의 전통은 성령의 계시이며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는 그것을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권위자들 없이 무엇을 시도했다고 보이지 않으려고, 그들은 자기들의 준수 사항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도들에게서 흘러나왔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또 사도들이 다른 일들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한 가지 예로 넉넉히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곧 사도들이 한 회의에 모여 그 회의의 결정으로 모든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공포한 일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교회라는 이름을 얼마나 거짓되게 사칭하는지는 이미 다른 곳에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문제에 관한 한, 모든 가면과 겉칠을 벗겨 내고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 써야 하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곧 그리스도께서 어떤 교회를 가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참되게 바라본다면, 그리하여 그분의 규칙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빚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새 법을 만들어 내며 방자하게 날뛰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쉽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교회에게 한번 주어진 저 법이 영원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너는 지켜 행하라.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 (신 12:32). 또 다른 곳에서는 "주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노라. 너는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날 것이다" (잠 30:6). CO 851 이 말씀이 교회에게 하신 것임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런 금지가 있은 뒤에도 교회가 감히 하나님의 가르침에 제 것을 더하고 섞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교회의 고집을 떠벌리는 것밖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이토록 큰 모욕을 퍼붓는 그들의 거짓말에 우리가 동의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규정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날뛰며 자기 고안물로 뛰쳐나가는 사람의 무모한 방자함이 문제 될 때마다, 교회라는 이름은 거짓으로 내세워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8. 이 말씀에는 아무것도 싸여 있지 않고, 아무것도 모호하지 않고, 아무것도 애매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과 구원에 이르는 계명이 문제 될 때, 이 말씀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만 한 말이었고, 율법 뒤에 예언들과 복음의 시행 전체가 이어졌다."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들은 율법에 대한 덧붙임이나 잘라 냄이라기보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자면 많은 덮개로 가려진

모세의 사역에서조차,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마침내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더 밝은 가르침을 베푸실 때까지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참지 않으셨다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과 복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더하지 못하도록 훨씬 더 엄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고안한 것으로 섬김을 받는 것만큼 당신을 노엽게 하는 것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서 저 뛰어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귀에 끊임없이 울려야 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날에, 제사와 번제에 관한 말을 그들에게 하지 않았고, 오직 이 말을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너희는 듣고 들어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길로 걸을 것이다” (렘 7:22).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간곡히 경계하여 말하였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렘 11:7). 같은 종류의 말씀이 더 있지만, 다른 것들보다 이 말씀이 뛰어납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을 원하시겠느냐? 오히려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않겠느냐? 순종이 희생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따르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악과 같다” (삼상 15:22).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교회의 권위로 변호되는 사람의 고안물은 무엇이든, 불경건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것을 교회에 돌리는 것은 거짓임을 밝히기는 쉽습니다.

19. 이런 이치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아래 거만하게 우리에게 강요되는 사람의 전통의 이 폭정을 거리낌 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원수들이 우리에게 미움을 씌우려고 부당하게 거짓말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가 그보다 더 큰 것을 알지 못하는 순종의 칭찬을 교회에 돌립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된 것보다 더 나아갔다고 꾸며 대

어, 교회를 그 주님께 고집 부리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세에 관해서는 줄곧 떠들어 대면서, 그동안 주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명하셨는지,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어떤 순종을 바쳐야 하는지는 감추는 것이 그에 못지않은 악의와 결합된 지독한 뻔뻔함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우리가 교회와 한마음이 되려는 뜻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교회에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하여 한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교회와 가장 잘 한마음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20.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짓눌러 온 전통들의 기원을 사도들에게 돌리는 것은 순전한 속임수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전체가 힘쓰는 것은, 새 준수 사항으로 양심에 짐을 지우지 않고, 우리가 고안한 것으로 하나님 섬김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옛 기록에 조금이라도 믿음성이 있다면, 그들이 사도들에게 돌리는 것은 사도들이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들어 보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결정 가운데 상당수가 글로 전해지지 않았어도 관습과 풍습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곧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아직 살아 계실 때에는 깨달을 수 없었으나 그분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계시로 배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목의 해석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문제에 넉넉한 만큼만 말하자면, 그들은 참으로 스스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사도들이 알지 못했다는 저 엄청난 비밀들을, 그들은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준수 사항이나 이방인의 준수 사항이라고 꾸며 대는데, 앞의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뒤의 것은 모든 이방인 가운데 오래전에 이미 공포되어 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몸짓과 헛된 자잘한 의식이라고 꾸며 대는데, 헤엄칠 줄도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미련한 사제 나부랭이들이 아주 격식에 맞게 해내는 것이며, 아니 아이들과 어릿광대

들도 아주 그럴듯하게 흉내 내어, 이런 제의를 맡을 사람으로 그들보다 더 알맞은 자는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역사 기록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일 자체에서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예식과 준수 사항의 더미가 갑자기 교회에 터져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슬그머니 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시대가 가장 가까웠던 저 더 거룩한 감독들이 질서와 권징에 속한 몇 가지를 세웠는데, 그 뒤에 충분히 생각이 깊지 못하고 지나치게 호기심 많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잇달아 나왔습니다. 그들은 뒤에 올수록 새것을 고안하는 데 뒤지지 않으려고 앞사람들과 어리석은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서 칭찬을 얻으려던 자기 고안물이 곧 낡아 버릴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데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이 그릇된 열심(κακοζηλία)이 저들이 사도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팔아넘기는 이 예식들의 상당 부분을 낳았습니다. 역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21. 모든 것의 목록을 짜느라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 가지 예로 만족하겠습니다. 사도들 아래에서는 주의 성찬을 시행하는 데 큰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1539–1554년판 제13장 사람의 전통에 관하여 2

CO 1:853–86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853 [507]바로 뒤를 이은 계승자들은 신비의 존엄을 꾸미려고 무언가를 더했는데, 그것은 나무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저 어리석은 흉내쟁이들이 덧붙어 나타나서, 갖가지 자투리를 잇달아 꿰매어, 우리가 미사에서 보는 이 사제의 옷, 이 제단 장식, 이 몸짓들,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로 된 이 온갖 살림 도구를 우리에게 짜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교회에서 한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은 사도들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옛날부터의 확신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말에서 해답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서 지켜지는 것들은 사도들 자신이나, 교회에서 가장 유익한 권위를 지닌 총회들이 정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예컨대 주님의 수난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과 성령의 오심을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로 기념하는 것, 그리고 어디로 퍼져 있든 온 교회가 지키는 그 밖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합니다.” 그가 이토록 적은 예만 드는 것을 보면, 그가 그때 쓰이던 규례들을 믿음과 공경을 받을 만한 창시자들에게 돌리려 한 것은 오직 단순하고 드물고 절제된 규례들, 곧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데 유익한 것들뿐이라는 것을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선생들이 억지로 짜내려는 것, 곧 그들에게는 사도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자질구레한 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주장은 이것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507.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22.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들의 정결수(淨潔水)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곧 "사도들에게서"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역사서들이 이 고안을 어떤 로마 감독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감독이 사도들을 의논 상대로 불렀더라면, 결코 낯설고 때에 맞지 않는 상징으로 세례를 더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기야 저는 그 축성의 기원이 거기 적힌 만큼 오래되었다는 것도 그럴듯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시대에 어떤 교회들이, 그 의식이 세례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발 씻김에서 그리스도를 엄숙하게 본받는 일을 피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세례와 조금이라도 닮은 씻음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 줍니다. 어쨌든, 세례를 날마다 표징으로 기억에 되살려서 어떤 식으로 세례를 되풀이하는 이 일이 사도의 영에서 나왔다는 것을 저는 결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곳에서 다른 것들도 사도들에게 돌린다는 것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에게는 추측밖에 없으므로, 그런 것을 근거로 이토록 중대한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가 언급하는 것들이 사도들의 시대에서 흘러나왔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자들이 자유로운 양심으로 쓰고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는 어떤 경건의 연습을 제정하는 것과, 양심을 종노릇에 얽어매는 법을 만드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창시자에게서 나왔든, 그것들이 이토록 큰 오용으로 미끄러져 내려간 것을 보는 이상, 우리가 그 창시자를 조금도 모욕하지 않고 그것들을 폐지하는 것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바꿀 수 없어야 할 만큼 권장된 적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23. 그들이 자기들의 폭정을 변명하려고 사도들의 본을 내세우는 것도 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명령 밖에 법령을 정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명했다(행 15:20). 그들

에게 이것이 허락되었다면, 그 계승자들에게도 일이 요구할 때마다 같은 것을 본받는 것이 어찌 허락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다른 모든 일에서도, 이 일에서도 사도들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튼튼한 이치로 쉽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거기서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제정하거나 결정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 회의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얹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만일 나중에 무슨 멍에든 얹는 데 동의한다면 그는 자기 판결을 스스로 뒤엎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자기 권위로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에 손대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결정한다면, 멍에를 얹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럼에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문이 아직 남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법령 자체의 뜻을 더 가까이 살핀다면 그 의문은 쉽게 풀립니다. 그 법령의 순서로 첫째이고 무게로도 으뜸가는 조항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남겨 두어야 하며, 그들을 어지럽히거나 율법 준수 문제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편을 훌륭하게 변호해 줍니다. 그러나 바로 뒤따르는 예외는 사도들이 세운 새 법이 아니라, 사랑을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적이고 영원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저 자유에서 한 점도 깎아 내지 않고, 다만 이방인들이 자기 자유를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데 남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형제들에게 자신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일깨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조항은 이방인들이 해 없는 자유를 쓰되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무언가 정해진 것을 규정하지 않느냐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에 유익한 만큼, 그들은 이방인들이 어떤 일들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지적하여 그것을 조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그들은 자기 것으로 아무 새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24. 예컨대 아직 잘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을 맡은 신실한 목사들이, 함

께 사는 연약한 자들이 자라기까지는 금요일에 드러내 놓고 고기를 먹지 말라거나, 축일에 공공연히 일하지 말라거나, 그 비슷한 무엇을 자기 모든 사람에게 명한다고 합시다. 이런 일들은 미신을 제쳐 두면 그 자체로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지만,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더해지면 죄 없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러하여, 신자들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이런 광경을 보이면 그들의 양심에 아주 깊은 상처를 입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CO 855 주님께서 충분히 분명하게 금하신 걸림돌을 막을 뿐임이 분명한 그들이 새 법을 세운다고, 중상하는 자 말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사도들에 대해서도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걸림의 빌미를 없애면서 겨냥한 것은, 걸림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해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에게 바친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으면 연약한 형제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걸림이 되게 먹지 마십시오.” 사도들이 바로 이것을 겨냥했다는 것은 바울이 가장 좋은 증인입니다. 그는 분명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만 이렇게 씁니다(고전 8장).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관하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상을 의식하는 양심으로 그것을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먹으며, 그들의 양심이 약하므로 더럽혀집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것을 잘 따져 본 사람은 앞으로, 자기들의 폭정에 사도들을 핑계로 내세우며 마치 사도들이 자기들의 결정으로 교회의 자유를 깨뜨리기 시작한 것처럼 꾸미는 자들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고백으로도 이 해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이 무슨 권리로 바로 그 법령을 감히 폐지했는지 제게 대답해 보십시오. 물론, 사도들이 막고자 했던 그 걸림과 불화의 위험이 더는 없었기 때문이며, 법은 그 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사랑을 고려하여 세워졌으니, 그 법에서는 사랑에 관계되는 만큼만 규정됩니다. 그들이 이 법을 어기는 것이 사랑을 범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덧붙인 지어낸 첨가물이 아니라, 그 법이 겨냥한 시대와 풍습에 맞춘 참되고 단순한 적용임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25. 그러나 그들은, 이런 법들이 우리에게 백 번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오류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들의 가혹한 명령을 견디는 것일 뿐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님께서 당신 말씀의 진리로 가장 잘 맞서시고, 우리를 그런 종노릇에서 건져 당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에게 얻어 주신 자유로 되찾으십니다. 그분은 이 은택을 당신 말씀으로 한 번만 인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의로 꾸며 대듯이, 문제는 우리가 몸으로 무슨 무거운 압제를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심이 자기 자유, 곧 그리스도의 피의 은택을 빼앗기고 종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치 이 일에 별 상관이 없는 듯이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토록 엄하게 당신 것으로 주장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그분께서 빼앗기시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사람의 고안물로 된 법들로 섬김을 받으실 때마다 그 나라를 빼앗기십니다. 그분만이 당신 예배의 입법자로 여겨지기를 원하시는데도 말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는지 들어 봅시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사 29:13). “이 백성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나를 두려워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리니, 그들의 지혜자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장로들에게서 총명이 떠나리라.”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섬긴다” (마 15:9).

26.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사람의 명령으로 당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그토록 매섭게 위협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는 헛되이 섬김을 받는다고 선언하시는 까닭을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건(religion), 곧 하늘의 지혜의 문제에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만 매달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핀다면, 사람의 재능이 제멋대로 바치는 이런 비뚤어진 순종을 주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데에는 가벼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법들에 하나님 예배를 위해 따르는 자들이 그 순종에서 어떤 겸손의 겉모양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바로 그 법들을 하나님께 정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사람의 전통과 그가 에델로트레스케이아(ἐθελοθρησκεία), 곧 자의적 예배, 하나님의 가르침 밖에서 사람이 지어낸 예배라고 부르는 것에 속지 말라고 그토록 부지런히 조심시키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골 2:8, 23).[508]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도 모든 사람의 지혜도 어리석게 되어야, 우리가 오직 그분만 지혜로우시도록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지어낸 자질구레한 규례로 그분께 인정받으려고 꾀하는 자들은 결코 이 길을 지키지 않습니다. 몇 세기 전에도 그러했고, 우리 기억 속에서도 그러했으며, 오늘도 피조물의 명령이 창조주의 명령보다 더 중히 여겨지는 곳들에서 그러합니다. 거기서는 경건이(그것을 경건이라 부를 만하다면) 일찍이 어떤 이교보다도 더 많고 더 어리석은 미신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사람의 지각이 육적이고 어리석고 그 지은이를 참으로 닮은 것들 말고 무엇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27.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묶어 놓은 저 질 수 없는 짐을 지라고 하셨는가(마 23:3)?” 아니, 같은 그리스도께서 왜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508. 원문에는 “골 2:4”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에 관한 경고는 골 2:8에, “자의적 예배”는 골 2:23에 나오므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셨습니까? 그분은 (복음서 기자 마태의 해석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에 섞은 자기 고유의 가르침은 무엇이든 누룩이라고 부르십니다(마 16:6).[509] 그들의 가르침 전체를 피하고 조심하라고 명령받는 것보다 무엇을 더 분명히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양심이 바리새인들 고유의 전통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도 억지로 비틀지만 않으면 그런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매섭게 꾸짖기 시작하시면서, 먼저 듣는 이들을 단순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곧 그들이 저들의 삶에서 따를 만한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도, 저들이 모세의 자리, 곧 율법을 풀어 설명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말로 가르치는 것은 그만두지 말고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가르치는 자들의 나쁜 본보기 때문에 백성이 가르침을 업신여기게 되지 않도록 미리 막으려 하신 것 말고 다른 뜻이 없으셨습니다. CO 857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치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늘 권위를 요구하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그 말에서도 꼭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우리에는 책임자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삯꾼입니다. 아들인 책임자들은 참된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삯꾼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땅의 이익을 좇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양들은 삯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삯꾼을 통해 목자를 따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리키신 삯꾼들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행하지 말라.' 이것은 삯꾼들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

509.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 푸는 마태의 해석은 마 16:12에 나옵니다. 원문에는 16:6만 적혀 있습니다.

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것을 가르치려 하면, 듣지 말고 행하지 마십시오." 이상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28. 그런데 많은 무지한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양심이 불경건하게 묶이고 하나님께서 헛되이 섬김을 받으신다는 말을 들으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모든 법까지 한 줄로 같이 지워 버리므로, 여기서 그들의 오류에도 알맞게 맞서야 합니다. 여기서는 참으로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것들과 이것들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가 첫눈에 곧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닮음이 누구도 속이지 않도록 몇 마디로 이 일 전체를 아주 분명하게 풀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붙듭시다. 모든 사람의 사회에서 공동의 평화를 기르고 화합을 지키는 데 쓸모 있는 어떤 정치 질서가 필요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공적인 품위, 나아가 인간다움 자체에 속하는 어떤 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특히 교회들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들은 모든 일이 잘 짜인 질서로 가장 잘 유지되고, 화합 없이는 아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안녕을 잘 돌보려면, 바울이 명하는 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대로 하도록 반드시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고전 14:40). 그러나 사람들의 행실에는 그토록 큰 다양성이, 마음에는 그토록 큰 차이가, 판단과 기질에는 그토록 큰 충돌이 있으므로, 어떤 정치 질서도 정해진 법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충분히 튼튼하지 않고, 어떤 예식도 정해진 형식 없이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이바지하는 법들을 정죄하기는커녕, 그것들을 없애면 교회들이 힘줄이 풀려 온통 일그러지고 흩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 곧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대로 하는 것은, 질서와 품위 자체가 마치 어떤 끈처럼 덧붙인 규례들로 유지되지 않고는 달리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규례들에는 언제나 이 단서 하나를 붙여야 합니다.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믿어져서 양심을 종교적 의무로 얽어매지 않게 하고, 하나님 예배에 속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 안에 경건을 두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9.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주 좋고 아주 믿을 만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경건(religion)을 흐리고 양심을 무너뜨린다고 말한 저 불경건한 규정들과 교회의 정당한 규례들을 구별해 줍니다. 곧 이 둘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다가 언제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에서 모든 것이 품위 있게, 알맞은 위엄을 갖추어 행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가 이를테면 인간다움과 절제의 끈으로 질서 안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법이 공적인 품위를 위해 세워졌다고 이해되면, 사람의 고안물로 하나님 예배를 재는 자들이 빠지는 미신은 이미 없어집니다. 또 그것이 공동의 쓰임을 겨냥한다고 알려지면, 전통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양심에 큰 두려움을 던졌던, 의무와 필연에 관한 저 거짓 생각이 무너집니다. 여기서는 공동의 의무로 우리 사이에 사랑을 기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하는 그 품위 아래 무엇이 들어가고, 또 질서 아래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더 분명하게 정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품위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거룩한 일에 대한 공경을 불러일으키는 예식을 씀으로써 우리가 그런 도움으로 경건에 일깨워지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정직한 행위에서 보여야 할 겸손과 진중함이 거기서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질서에서는 첫째로, 다스리는 자들이 잘 다스리는 규칙과 법을 알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바른 권징에 길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상태가 잘 짜여서 평화와 고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30. 그러므로 헛된 즐거움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품위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제의에서 쓰는 저 연극 같은 장치에서 그런 예를 봅니다. 거기에는 쓸모없는 우아함의 탈과 열매 없는 사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품위란, 거룩한 신비들을 공경하기에 알맞아서 경건의 적절한 연습이 되거나,

적어도 그 행위에 어울리는 꾸밈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매 없이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겸손과 경외와 공경으로 거룩한 것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의식들이 경건의 연습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를 곧바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질서를, 사라져 버리는 광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 하찮은 행렬에 두지 않고, 모든 혼란과 야만과 고집과 모든 소란과 불화를 없애는 짜임새에 두겠습니다. 첫째 종류의 예는 바울에게 있습니다. 세속의 잔치를 주님의 거룩한 성찬과 섞지 말라는 것,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는 공중 앞에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쓰는 다른 많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성례를 지저분하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위엄을 갖추어 집행하는 것, 죽은 이를 묻을 때 어떤 품위를 갖추는 것, 그리고 같은 데 속하는 다른 일들이 그러합니다. CO 859 둘째 종류에는 공 기도와 설교와 거룩한 예식에 정해 둔 시간들, 설교 때의 고요와 침묵, 정해 둔 장소,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 주의 성찬을 거행하려고 미리 정한 날들, 바울이 금하는 대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그 밖에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권징을 지키는 것들, 곧 교리 문답 교육, 교회의 견책, 출교, 금식, 그리고 같은 목록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교회 규정은 두 항목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식과 의식에, 다른 하나는 권징과 평화에 관계됩니다.

31.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짓 감독들이 여기서 핑계를 잡아 자기들의 불경건하고 포악한 법을 변명하려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해악에 놀라 아무리 거룩한 법에도 자리를 남겨 두지 않는 지나치게 소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혀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사람의 규정은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를 두고 성경에서 끌어낸 것, 그리하여 온전히 신적인 것뿐입니다. 공

기도를 드릴 때 무릎을 꿇는 것을 예로 듭시다. 이것이 누구나 거부하거나 소홀히 해도 되는 사람의 전통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의 것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가 우리에게 돌보고 지키라고 권한 저 품위의 일부인 한 하나님의 것이고, 일반적으로 설명했다기보다 넌지시 가리킨 것을 특정하게 지정하는 한 사람의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예로 이런 종류 전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참된 의의 모든 요체와 당신 신성을 섬기는 예배의 모든 부분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신실하게 담으셨고 분명하게 풀어 주셨으므로, 이 일들에서는 오직 그분만을 선생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적 권징과 의식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낱낱이 정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형편에 달려 있음을 미리 보셨고, 한 가지 형식이 모든 세대에 맞는다고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분이 주신 일반 규칙들로 피해 가서, 교회의 필요가 질서와 품위를 위해 명하도록 요구할 모든 것을 그 규칙들에 비추어 재야 합니다. 끝으로, 그분이 아무것도 명시해 전하지 않으신 것은 이런 것들이 구원에 필요하지 않고, 각 민족과 시대의 풍습에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여러 가지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므로, 교회의 유익이 요구하는 대로 익숙한 것을 바꾸고 폐지하는 것도, 새것을 세우는 것도 알맞습니다. 물론 저는 함부로, 잦게, 가벼운 이유로 새것에 손대서는 안 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덕을 세우는지는 사랑이 가장 잘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면 모든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32. 이제 그리스도인 백성의 의무는, 이 기준에 따라 세워진 것들을 자유로운 양심으로, 아무 미신 없이, 그러나 경건하고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업신여기거나 게으른 소홀함으로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되며, 하물며 교만과 고집으로 공공연히 범해서는 더욱 안 됩

니다. 여러분은 이토록 지키고 조심하는 가운데 무슨 양심의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를 묶는 것이 고정되고 영구한 법규가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을 위한 외적인 초보임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그것을 씁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든 예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자의 머릿수건에 경건이 놓여 있어서, 머리를 드러내고 나가는 것이 죄악이란 말입니까? 여자의 침묵에 관한 법령이 거룩하여, 가장 큰 죄 없이는 어길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무릎 꿇는 것이나 시신을 묻는 것에, 속죄 없이는 빠뜨릴 수 없는 무슨 신비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웃을 돕는 데 머리를 가릴 틈도 없을 만큼 서둘러야 한다면, 머리를 드러낸 채 달려가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또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잠잠한 것 못지않게 알맞은 자리도 있습니다. 병 때문에 무릎을 굽힐 수 없는 사람이 서서 기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막지 않습니다. 끝으로, 수의가 없고 장례 행렬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묻지 않은 채 썩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죽은 이를 서둘러 묻는 편이 낫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에는 그 지역의 관습,[510] 제도, 나아가 인간다움과 겸손의 규칙 자체가 행하거나 피하라고 일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나 잊음으로 잘못했다면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아니지만, 업신여김으로 그랬다면 그 고집은 나무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날과 어떤 시간인지, 장소의 구조가 어떠한지, 어느 날 어떤 시편을 부르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는 일을 고려한다면, 정해진 날과 주어진 시간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기에 알맞은 장소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일들이 뒤죽박죽이 되고, 공동의 상태에 속한 것을 각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510. [원문의심] 원문은 “mos religionis”(경건의 관습)로 되어 있습니다. 뒤따르는 “제도, 나아가 인간다움과 겸손의 규칙”과 문맥으로 보아 “mos regionis”(지역의 관습)의 오식으로 보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다툼의 씨앗이 되겠습니까? 일들이 이를테면 가운데 놓여 각 사람의 판단에 맡겨지면, 같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이에 떠들며 반대하고 여기서 마땅한 것보다 더 지혜로우려 한다면, 그는 무슨 이치로 자기의 까다로움을 주님께 인정받을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의 저 말로 넉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다투는 관습이 없습니다" (고전 11:16).

33. 더 나아가, 이 순수한 쓰임을 더럽히거나 흐리는 오류가 스며들지 않도록 온갖 부지런함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규례든 분명한 유익을 드러내고, 아주 아껴서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신실한 목사의 가르침이 더해져 그릇된 생각의 길을 막는다면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이 모든 일에서 각 사람에게 자기 자유가 확고하게 서 있게 하면서도, 우리가 말한 그 품위(τὸ πρέπον)나 사랑의 이치가 요구하는 만큼 각 사람이 자기 자유에 스스로 어떤 필연을 지우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지키는 데 아무 미신에도 빠지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너무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으며, 의식이 많다고 하나님 예배를 더 낫게 여기지 않고, 외적 권징이 다르다고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CO 861 끝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아무 영구한 법도 세우지 않고, 규례의 모든 쓰임과 목적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로 돌려서, 교회의 덕이 요구할 때에는 무엇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전에 우리가 쓰던 규례를 무엇이든 뒤엎는 것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시대의 형편이 이러하여, 다른 면에서는 불경건하지도 품위 없지도 않은 어떤 예식들도 그때의 형편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알맞다는 것은, 이 시대가 눈앞의 경험으로 보여 줍니다. 앞선 시대의 눈멂과 무지가 그러하여, 교회들이 그토록 썩은 생각과 그토록 끈질긴 열심으로 전에 의식에 매달려 있었으므로, 아마도 옛날에 까닭 없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그 자체로는

아무 불경건으로도 얼룩지지 않은 많은 의식을 없애지 않고는 그 괴이한 미신에서 충분히 씻겨 깨끗해지기 어렵습니다.

34. 그것들을 고집스레 지키려고 버티는 것은 가장 해로운 열심일 것입니다. 누가 그것들을 그 자체로만 평가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들에 아무 악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으로 평가하면, 의식의 오용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오류가 너무 깊이 자리 잡아, 잇달아 새로 그릇될 빌미를 주는 그 광경들을 눈앞에서 치워 버리지 않고는 쉽게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성령의 증언으로 칭찬받았습니다(왕하 18:4). 그는 주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세웠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택의 기념물(μνημόσυνον)로 간직하는 것은, 백성이 그것을 우상 숭배에 쓰기 시작하지만 않았더라면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선한 왕은 불경건을 바로잡을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모세가 그것을 세울 때 가졌던 것 못지않게 정당한 이유로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뚤어진 판단은 병들고 약해진 위와 다르지 않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위에서는, 건강한 위에는 해가 없었을 음식이라도 소화하기 조금 어려우면 빼앗습니다.

1539–1554년판 · 제14장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14장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 1

CO 1:861–87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861 제14장.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

1. 그런데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파되지 않고, 그것이 전파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같은 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 바로 그 차이에서 하나님 심판의 놀라운 깊이가 드러납니다. 이 다양함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결정을 섬긴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거저 주어지고 다른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기서 곧 크고 어려운 물음들이 솟아오릅니다. 이 물음들은 경건한 마음들이 선택과 예정에 관하여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을 확고히 붙들지 않고는 달리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구원으로, 다른 이들은 정죄로 예정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풀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만물의 영원한 경륜도 하나님의 정하심에 달려 있으므로, 이 세상이 그분의 섭리로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 자체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두 가지로 머리말을 해야 합니다. 예정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로도 다소 얽혀 있는데, 사람들의 호기심이 그것을 아주 혼란스럽고 나아가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호기심은 어떤 빗장으로도 막을 수 없어서, 금지된 굽잇길로 헤매어 들어가고 높은 곳으로 치솟으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비밀로 남겨 둘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캐내어 펼쳐 놓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어떤 이들까지 곳곳에서 이런 대담함과 무례함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므로, 이 부분에서 그들의 본분의 한도가 무엇인지를 때맞추어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들은, 예정을 탐구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 지혜의 지성소에 뚫고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거기로 안심하고 자신만만하게 뛰어든다면, 자기 호기심을 채울 것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나갈 길을 찾지 못할 미궁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숨겨 두기를 원하신 것을 사람이 벌받지 않고 파헤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보다 경배하기를 원하셔서 이것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분이 되시려 한 그 지혜의 높음을 영원 자체에서부터 펼쳐 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뜻의 비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로 정하신 것은 당신 말씀에 맡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이 우리에게 관계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미리 보신 만큼 알려 주기로 정하셨습니다.

2.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 길을 꾸준히 붙듭시다. 그 길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왕의 방으로 이끌어 줍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 16:12 참조)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의 위대하고 가장 잘 뽑힌 제자들을 시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CO 863 우리는 걸어가야 하고 나아가야 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거기서 배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분에 관하여 붙드는 것이 옳은 모든 것을 탐구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유일한 길이며, 그분에 관하여 보아야 할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우리 앞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라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모든 무모함에서 쉽게 붙들어 막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자마자

우리의 걸음이 길 밖, 어둠 속에 있게 되어, 거기서 거듭 헤매고 미끄러지고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우리 눈앞에 둡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 주는 것 말고 다른 예정의 지식을 탐내는 것은, 길 없는 곳으로 걸어가려 하거나 어둠 속에서 보려 하는 것 못지않은 미친 짓입니다. 또 어떤 박식한 무지가 있는 이 일에서 무언가를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을 탐내는 것이 어리석을 뿐 아니라 위험하고, 나아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식의 탐구를 기꺼이 삼갑시다. 만일 재능의 방자함이 우리를 부추긴다면, 그것을 꺾을 이 말씀을 언제나 맞세웁시다. “위엄을 캐는 자는 영광에 짓눌릴 것이다” (잠 25:27). 우리를 파멸로 곤두박질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대담함에서 우리가 겁먹고 물러설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해악을 고치려다가 예정에 관한 모든 언급을 거의 땅에 묻어 버리라고 명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정에 관한 어떤 물음이든 암초를 피하듯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신비를 그토록 절제하여 맛보기만 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그들의 절제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지나치게 한도 아래로 내려가므로, 쉽사리 억제당하기를 참지 않는 사람의 재능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도 정당한 한계를 지키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깨달음의 확실한 규칙을 얻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알기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하나도 빠져 있지 않듯이, 알아서 유익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정에 관하여 전해지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신자들을 거기서 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그들 하나님의 은택을 악하게 빼앗는 것처럼, 또는 어떻게든 덮어 두는 것이 유익할 것을 널리 알렸다고 성령을 나무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도록

허락합시다. 다만 이런 절제를 지켜서,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입을 닫으시자마자 그 사람도 스스로 탐구의 길을 닫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일에서 언제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를 뿐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기를 마치실 때 우리도 더 알려는 것을 그친다면, 이것이 절제의 가장 좋은 경계가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두려워하는 위험이,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을 돌려야 할 만큼 크지도 않습니다.

4. 물론 저는 속된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주제에서 헐뜯거나 트집 잡거나 짖어 대거나 비웃을 거리를 곧장 움켜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뻔뻔함이 우리를 겁먹게 한다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모두 감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 자신이나 그들과 같은 자들이 신성 모독으로 더럽히지 않고 남겨 두는 것은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항하는 재능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셨다는 말을 들을 때 못지않게 오만하게 우쭐댈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지 오천 년이 조금 넘게 흘렀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도 그들은 비웃음을 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그토록 오래 놀고 잠들어 있었느냐고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그들이 자기들의 조롱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신성 모독을 누르려고 아들과 성령의 신성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창조를 잠잠히 지나쳐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부분에서나 어디에서나 너무도 강하여 불경건한 자들의 욕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견인의 선에 관하여』라는 소책자에서 이것을 힘 있게 주장합니다.[511]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참된 가르침을 헐뜯고 고발하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논의 전체가 경건한 마음에도 위험하다고 여기는

511. CO 편집자 각주에 따르면, 이 소책자는 아우구스티누스 저작의 최근 판들에서『견인의 은사에 관하여』(De dono perseverantiae)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것은, 그것이 권면을 거스르고, 믿음을 흔들며, 마음 자체를 어지럽히고 낙심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 이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예정을 너무 거리낌 없이 전파한다는 이유로 이런 까닭들 때문에 꾸지람을 듣곤 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512] 그러나 그는 그에게 쉬운 일이었던 대로 넉넉히 반박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많고 갖가지 불합리한 주장이 쏟아져 들어오므로, 그 하나하나를 제자리에서 씻어 내도록 미루어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들에게서 전체적으로 이것 하나를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숨겨진 곳에 감추어 두신 것은 우리가 캐지 말고, 드러내 놓으신 것은 소홀히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편으로는 지나친 호기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배은망덕으로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한 것도 슬기롭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안전하게 따를 수 있으니, 성경은 마치 어머니의 걸음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버려두지 않으려고 걸음을 낮추어 걷는다는 것입니다.

5. 옛사람들은 예지, 예정, 선택, 섭리라는 낱말을 여러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다툼은 그만두고 어원의 본뜻을 단순하게 따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지를 돌릴 때, 그것은 모든 것이 언제나 그분의 눈 아래 있었고 영원히 그 아래 머물러 있어서, 그분의 지식에는 아무것도 미래이거나 과거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현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분께 현재이되, 우리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분이 관념으로만 그려 보시는 식이 아니라, 마치 당신 앞에 놓인 것처럼 참으로 바라보시고 분간하시는 식으로 현재입니다. CO 865 그리고 이 예지는 세상의 온 둘레와 모든 피조물에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를 당신 안에 정해 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는

512. CO 편집자 각주는 『견인의 은사에 관하여』 14장과 『창세기 문자적 해설』 5권 3장을 듭니다.

영원한 정죄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이 두 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위해 지음받은 대로, 우리는 그가 생명으로 또는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데서 지니시는 경륜을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예정에 관하여 먼저 논합시다. 그러므로 성경이 분명히 보여 주는 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뜻으로, 장차 누구를 구원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누구를 멸망에 넘기실지를 단번에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구원에 참여하는 영예를 주시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가치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그분의 값없는 자비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죄에 넘기시는 자들에게는, 의롭고 나무랄 데 없으나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심판으로 생명의 문이 닫힌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에게서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로 둡니다. 그다음으로 칭의를 선택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지로 두는데, 이는 선택의 완성이 있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심과 칭의로 당신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표를 하시듯이, 유기된 자들은 당신 이름을 아는 지식에서나 당신 영의 성화에서 제외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를테면 이런 표지로 드러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정을 뒤엎으려고 꾸며 낸 많은 허구는 여기서 지나치겠습니다. 그것들은 내놓자마자 스스로 자기 거짓을 넉넉히 드러내므로 반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나, 단순한 이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나, 불경건이 하나님의 의를 헐뜯으려고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것들에만 머물겠습니다.

6. 신자들의 값없는 선택에 관하여 우리가 내세운 것은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 흔히들 주님께서 각 사람의 공로가 어떠할지를 미리 보시는 대로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미리 아시는 자들은 자녀의 자리에

받아들이시고, 그 성향이 악과 불경건으로 기울 것을 내다보시는 자들은 죽음의 정죄에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받아들여진 이 생각은 무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위대한 주창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맞세운다고 해서 우리 주장에 크게 해가 되리라고 누구도 믿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도 확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너무도 밝아서 사람의 권위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가르칠 때(엡 1:4),[513] 우리의 가치에 대한 모든 고려를 분명히 없앱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 가운데 당신의 선택에 합당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당신의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리셔서, 생명의 교제로 받아들이실 자들을 마치 그분의 몸에서 지체를 뽑듯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 사이에서는 이 이치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늘 유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아진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그토록 큰 탁월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지적합니다(골 1:12). 그는 골로새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데서 감사하라고 권합니다. 장차 올 생명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주님의 이 은혜보다 선택이 앞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도록 움직일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그의 다른 말씀은 제가 말하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당신 뜻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어떤 공로와도 맞세웁니다.

7.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이 다스리는 곳마다 행위는 전혀 고려에 들어

513. 원문에는 절 표시가 깨져 “Eph. 1,” 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4절로 적었습니다.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대조를 끝까지 펼치지는 않지만, 그가 다른 곳에서 친히 설명하는 그런 대조를 알아들어야 합니다(딤후 1:9). 그는 말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하심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따르는 말, 곧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모든 의문을 없앱니다. "그분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바울의 순서를 뒤집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안전하게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선택에서 얻는다는 것과, 행위 때문에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 이 둘은 서로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걸핏하면 피해 들어가는 궤변, 곧 주님께서 앞선 공로에 대해서는 선택의 은혜를 갚지 않으시지만 장차 올 공로에 대해서는 베푸신다는 말도 여기서는 힘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택함을 받았다고 할 때, 그들 안에 있을 거룩함이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함께 암시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선택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이 어떻게 들어맞겠습니까? 그는 나중에 "당신 안에 미리 세우신 당신 뜻의 뜻하심을 따라"라고 말할 때, 자기가 한 말을 더욱 확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미리 세우셨다는 것은, 그분이 결정하실 때 고려할 것을 당신 밖에서는 아무것도 살피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이어, 우리의 선택 전체의 요점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는 데 있다고 덧붙입니다. 선택이 값없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 우리의 선택에서 주님의 은혜만 찬양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택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가 장차 어떠할지를 헤아리신다면, 선택은 값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요 15:16)는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두루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그분은 지나간 공로만 배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가 앞서지 않았다면 그들 자신 안에는 택함받을 까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CO 867 바울의 저 말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롬 11:35).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들에게 앞서 가셔서, 그들에게서 그분의 호의를 얻게 할 무엇을 지나간 것이든 장차 올 것이든 찾지 못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8. 이제 로마서에서 그는 이 논증을 더 깊이 되풀이하고 더 넓게 펼치면서, 야곱과 에서의 예로 택함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의 형편을 함께 이렇게 다룹니다(롬 9:11).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선택을 따른 하나님의 뜻하심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도록,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행위에 선택의 어떤 자리를 주는 자들은 이것을 흐리려고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그것은 사도가 주장하는 것, 곧 형제의 차이가 아직 나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정해졌으므로 행위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완전히 피해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런 교묘함에 무슨 단단한 것이 있었다면 사도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의 은택으로 먼저 주기로 정하신 것 말고는 사람에게서 아무 선도 미리 보실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았으므로, 선행을 그 원인보다 앞세우는 저 뒤집힌 순서로 피해 가지 않습니다. 사도의 말에서 우리는, 신자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에 기초하고, 그 호의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부르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또 그 일을 이를테면 구체적인 예로 받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며, 같은 부모에게서

났고, 아직 같은 태 안에 갇혀 있었으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같았지만,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하나는 받아들이시고 다른 하나는 버리십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설 권리는 장자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지나쳐 버리시고, 큰 자에게 거절된 것이 작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니, 다른 이들에게서도 주님께서는 정해 두신 뜻으로 늘 장자권을 업신여기신 것으로 보이니, 이는 육에게서 자랑할 거리를 모두 끊어 버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마엘을 물리치시고 이삭에게 마음을 두셨고, 므낫세를 뒤로 미루시고 에브라임을 더 높이셨습니다.

9. 만일 누가 끼어들어, 이런 낮고 작은 은택에서 장차 올 생명의 요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곧 장자의 영예로 높여진 자가 그 때문에 하늘 유업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이 증언들을 인용하는 데서 바울이 성경을 엉뚱한 뜻으로 비틀었다는 듯이 바울조차 봐주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사도가 생각 없이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성경의 증언을 일부러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들이 차마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것, 곧 주님께서 다가갈 수 없는 당신 재판석 앞에 달리는 숨겨져 있던 야곱의 영적 선택을 땅의 상징으로 밝히려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장차 올 세상에 관련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되고 우스꽝스러운 복의 겉모양일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서 가장 큰 불행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께서 당신 나라에서 당신 종에게 마련하신 복을 외적인 복으로 증언하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보았으므로, 이것을 증명하려고 저것에서 논증을 끌어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버림받고 야곱이 택함을 받아, 공로로는 에서와 아무 차이가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별됩니다. 그대가 그 까닭을 묻는다면, 사도는 이것을 댑니다.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롬 9:15 참조). 묻건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까닭을 그들 자신 안에 두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자비에서 가져오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 백성의 구원은 당신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구원을 오직 당신 안에만 두시는데, 그대는 왜 그대 자신에게로 내려가려 합니까? 그분이 그대에게 오직 당신의 자비만을 정해 주시는데, 그대는 왜 그대 자신의 공로로 달려가려 합니까? 그분이 그대의 생각을 당신의 긍휼 안에 붙들어 두시는데, 그대는 왜 그 일부를 그대의 행위를 바라보는 데로 돌리려 합니까?

10. 그러나 암브로시우스, 오리게네스, 히에로니무스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당신 은혜를 잘 쓸 것을 미리 보신 대로 사람들 사이에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한때 그런 견해였다는 것을 덧붙이십시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더 나아간 뒤에, 그 견해가 분명히 거짓이라고 철회했을 뿐 아니라 힘차게 논박했습니다. 더욱이 철회한 뒤에는 그 오류를 고집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에게 이 지극히 날카로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직 나지 않은 자들에 관하여 놀라운 일을 내놓은 뒤 스스로 '그런즉 무엇이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공로를 미리 보셨다고 대답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자비로 피해 갑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선택 이전의 모든 공로를 없앤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분명, 하나님의 예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맞서 변호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것을 미리 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의 헛된 추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택하게 될 것도 함께 미리 아셨을 것이고, 그 일에 뒤따르는 것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교부들의 권위에 기꺼이 기대는 이들에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증언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 그가 말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일 자체에 마음을 쏟읍시다. 어려운 물음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행위에 대한 고려를 내세웠다면 한마디로 이 물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같은 어려움 속에 머무는 말을 왜 이어 갑니까? 그래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잊어버리는 결함에 시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 에두름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이며,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품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이유로도 긍휼을 베푸시도록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 말이 참되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받을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든다."

11. 또 우리는 토마스의[514] 저 궤변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공로에 대한 예지가, 예정하시는 이의 행위 쪽에서는 예정의 원인이 아니지만, 우리 쪽에서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불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곧 예정을 부분적으로 헤아리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니, 예컨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로에 따라 영광을 예정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그에게 영광을 얻을 공로를 쌓을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14.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경–1274)를 가리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을 대표하는 도미니코회 신학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택에서 순전한 선하심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시므로, 누가 여기서 무언가를 더 내다보려 한다면 그것은 뒤집힌 열망일 것입니다. 그래도 교묘함으로 겨루고 싶다면, 토마스의 이 하찮은 궤변을 꺾을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영광을 얻을 공로를 쌓을 은혜를 예정하시므로 그들에게 영광이 어떤 의미로 공로에 따라 예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거꾸로, 은혜로의 예정은 생명으로의 선택을 섬기며 이를테면 그 시종이라고, 주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선택에서 칭의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므로 영광의 소유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자들에게 은혜가 예정된다고 반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영광의 예정이 은혜의 예정의 원인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툼은 그만둡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에게 넉넉한 지혜가 있다고 여길 사람들 사이에서는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교회 저술가가 “하나님의 선택을 공로에 돌리는 자들은 마땅한 것보다 더 지혜로우려 한다”고 한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12. 이제 사도가 거기서 함께 묶어 다루는 유기된 자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직 아무 선행으로도 공로를 쌓지 않았는데 은혜로 받아들여지듯이, 에서는 아직 아무 죄로도 더럽혀지지 않았는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눈을 돌린다면, 마치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한 바로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듯이 사도에게 부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그들이 아직 아무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는 택함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여, 하나님의 예정의 기초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는 반론을 제기한 뒤에도, 그분의 의를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알맞게 변호해 주었을 말, 곧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의 악에 따라 갚으셨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해답, 곧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빛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끝으로 그는 결론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롬 9:18 참조). 그가 둘 다를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돌리는 것을 그대는 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까닭을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말고 댈 수 없다면, 다른 이들을 유기하시는 데서도 그분의 뜻 말고 다른 것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거나 긍휼로 대하신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분의 뜻 밖에서 아무 원인도 찾지 말라는 일깨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13. 그러나 사람의 재능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뻔뻔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마치 나팔 소리를 들은 듯이 여러 가지로 한도 없이 소란을 피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의 고발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붙잡기라도 한 듯이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들은, 주님께서 앞서 아무 잘못으로도 당신을 노엽게 한 적 없는 당신 피조물들에게 무슨 권리로 진노하시느냐고 묻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들을 멸망에 넘기는 것은 정당한 재판관의 판결보다는 폭군의 방자함에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순전한 결정으로 영원한 죽음에 예정된다면, 하나님께 따질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언제라도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른다면, 하나님의 뜻의 원인을 묻기만 하는 것도 얼마나 큰 무례인지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 충동을 꺾을 무장을 넉넉히 갖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며,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에 무슨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가가 그 뜻보다 앞서서 그 뜻이 이를테면 거기에 매여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상상하는 것조차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규칙이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이 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의로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물으면,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대가 더 나아가 그분이 왜 원하셨느냐고 묻는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고 더 높은 무엇을 찾는 것이니, 그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무모함은 스스로를 억제하고, 없는 것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있는 것을 찾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철학하려는 사람은 이 재갈로 잘 억제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놓고 저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의 대담함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 없이도 당신의 의로 넉넉히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의 양심에서 모든 핑계를 빼앗으시고 그 양심을 꼼짝 못하게 묶어 유죄로 판결하실 때 그러할 것입니다.

14.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들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벌받지 않고 조롱하는 것을 참고만 있지 않도록, 당신 말씀에서 그들에 맞설 무기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CO 871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이런 말로 공격하여,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어떤 이들을 죽음으로 예정하셨느냐, 그들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아직 죽음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었는데도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 대신 그들에게 거꾸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본성대로 평가하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빚지셨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폭군의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공평한 의의 이치 때문입니다. 본래의 형편으로 모두가 죽음의 심판 아래 있다면, 주님께서 죽음으로 예정하시는 자들이, 묻건대, 자기들에 대한 그분의 무슨 불의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담의 모든 자손이 와서, 자기들이 나기 전에 그분의 영원한 섭리로 영원한 불행에 넘겨졌다고 자기 창조주와 다투고 따져 보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거꾸로 그들을 불러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때, 그들이 이 변호에 맞서

무엇을 떠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썩은 덩어리에서 취해졌다면, 그들이 정죄 아래 놓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그들 자신의 본성이 스스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 죽음에 정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고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15. 그러나 지금 정죄의 원인으로 내세워지는 그 부패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앞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부패 속에서 멸망할 때, 그들은 아담이 그분의 예정으로 떨어져 자기 후손을 곤두박질치게 한 그 불행의 벌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피조물을 그토록 잔인하게 놀리시는 분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담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지금 얽매여 있는 이 비참한 형편에 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한 것, 곧 결국에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뜻의 결정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원인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 하나님께서 이런 비방을 받으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맞설 것입니다(롬 9:20).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따지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들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참으로 변호되지 않고, 정당한 변명이 없는 자들이 흔히 쓰는 그런 빠져나갈 구멍을 잡는 것이라고 부인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마음대로 무엇이든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보다 더 강한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분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불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심판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고유하게 속한다면, 그분은 본성으로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뒷구멍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이치가 너무 높아서 사람의 잣대로 잴 수도, 사람 재능의 얕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판단에, 사람의 모든 마음이 거기로 뚫고 들어가려 하면 삼켜지고 말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의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그것을 감히 나무라는 그런 법 아래 하나님의 일들을 묶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16. 자, 이제 하나님 섭리를 비방하는 어떤 마니교도나 켈레스티누스[515]가 나서 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바울과 함께, 그 섭리의 이유는 그 크기가 우리의 깨달음을 훨씬 넘어서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무엇이 불합리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마음이 헤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주님께서 멸망으로 갈 것을 의심 없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원하셨는지는,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이유를 따질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서 논쟁거리로 내려오는 것도 알맞지 않습니다. 그 뜻에 관하여 말할 때마다 그 이름 아래 의의 최고 규칙이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곳에서 왜 불의에 관한 물음이 제기됩니까? 바울의 본을 따라 불경건한 자들의 입을 이렇게 막고, 그들이 감히 짖어 댈 때마다 거듭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가련한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고발을 들이대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당신 일의 크기를 여러분의 우둔함에 맞추지 않으신다고 해서 고발을 들이대는 것입니까?" 마치 육에게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비뚤어진 것이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보아야 우리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

515. 원문은 "Coelestinus" 입니다. 펠라기우스의 동료로 그와 함께 정죄된 켈레스티우스(Caelestius)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 방자함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당신의 영으로 쓰신 변호 말고 다른 변호가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말하기를 그칠 때 바르게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17. 불경건에서 또 하나의 반론이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헐뜯는 것보다는 곧바로 죄인을 변명하는 것을 겨냥합니다. 하기야 하나님께 정죄받는 죄인은 재판관을 욕되게 하지 않고는 결국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속된 혀들은 이렇게 투덜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정으로 사람에게 필연을 지우신 일들을 왜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시는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의 작정과 씨름하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해 보아야 헛될 것이니, 그들은 아예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 주된 원인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일들 때문에 그들이 벌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여기서 저는 교회 저술가들이 흔히 의지하는 변호,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을 미리 보시는 것이지 당신의 악을 미리 보시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예지가 사람이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변호는 삼가겠습니다. 트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다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미리 보신 악을 막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 사람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도록 정해 둔 뜻으로 그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CO 873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로 나중에 무엇이든 그가 하는 일을 하도록 그런 형편으로 창조되었다면, 그가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떠맡은 일을 그의 죄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매듭을 어떻게 바르게 풀어야 하는지 봅시다. 무엇보다 먼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확고해야 합니다(잠 16:4).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물의 처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구원과 죽음의 결정이 그분께 있으므로, 그분은 당신

의 뜻과 뜻하심으로 이렇게 정하셔서, 태에서부터 정해진 죽음에 넘겨져 자기 멸망으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자들이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에게 아무 필연도 지워지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의 장차 올 악함을 미리 보셨으므로 그런 형편으로 창조되었다고 핑계 댄다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옛사람들도 때때로 이 해답을 쓰곤 했지만 이를테면 주저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나 스콜라 신학자들은 마치 거기에 아무 반론도 할 수 없다는 듯이 그 해답에 안주합니다. 저도 예지만으로는 피조물에게 아무 필연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겠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예지 자체도 사물의 원인이라고 보려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발라[516]가 더 날카롭고 더 슬기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예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이므로 이 다툼이 쓸데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결말을 미리 보시기만 하고 당신의 결정으로 처분하고 정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섭리가 그들의 필연에 무슨 힘이 있느냐는 물음을 따지는 것이 까닭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장차 올 것을 그것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보시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미리 보시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오히려 그분의 정하심과 뜻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예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헛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미리 아셨으며, 당신의 작정으로 그렇게 정해 두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예지를 공격한다면 그는 무모하고 생각 없이 부딪치는 것입니다. 묻건대,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모르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고발당하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의롭거나 그럴듯한 불평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예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

516. 로렌초 발라(Lorenzo Valla, 1407경–1457)를 가리킵니다. 이탈리아의 인문주의 학자입니다.

람의 타락과 그 안에서 그 후손의 파멸을 미리 보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결정으로 주관하셨다고 제가 말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장차 올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것이 그분의 지혜에 속하듯이, 모든 것을 당신 손으로 다스리고 조절하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18. 여기서 사람들은 뜻과 허용의 구별로 피해 가서, 이 구별에 따라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가 아니라 다만 허용하셔서 멸망한다는 것을 관철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면 왜 허용하신다고 말하겠습니까? 하기야 사람이 아무 정하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허용만으로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 피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것이 어떤 형편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정하지 않으셨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사물의 필연이며, 그분이 원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주저 없이 단순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이 미리 보신 것들이 참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마니교도들이나 재세례파나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이 주제에서 우리는 이 네 분파와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변명하려고, 하나님의 예정으로 그들이 묶이는 필연을 내세운다 해도, 그들은 이 문제에 알맞은 것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합니다. 예정이 숨겨져 있으나 흠 없는 하나님의 의의 경륜과 다른 것이 아니라면, 그 운명으로 예정된 자들이 그럴 만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하므로, 그들이 예정에 따라 당하는 멸망도 지극히 의롭다는 것이 똑같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되, 그 원인과 재료는 그들 자신 안에서 발견됩니다. 첫 사람이 타락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은 오직 그 일로 당신 이름의 영광이 마땅히 빛나리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기서 의를 생각하십시오. 찬양받을 만한 것은 의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정하시는 대로 넘어지지만, 자기 잘못으로 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조금 전에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이 매우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창 1:31 참조).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악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이 창조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온 것을 당신의 칭찬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악으로, 주님께 받은 순수한 본성을 부패시켰고, 자기 파멸로 모든 후손을 함께 멸망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서 감추어지고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정죄의 원인을 탐구하기보다, 인류의 부패한 본성에서 분명한 정죄의 원인을 바라봅시다. 또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이만큼 굴복시켜, 그분의 많은 비밀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것을 꺼리지 맙시다. 알도록 주어지지도 않았고 알아도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가 박식이고, 그것을 알려는 욕심은 일종의 광기이기 때문입니다.

19. 아마 누군가는 제가 아직 저 신성 모독적인 변명을 누를 것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불경건이 언제나 으르렁대고 투덜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할 수조차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헐뜯을 이유뿐 아니라 핑계까지 빼앗기에 넉넉한 것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된 자들은 죄짓는 필연을 피할 수 없으므로, 특히 그런 필연이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그들에게 지워지므로,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만한 자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517]

517. 이 문장의 끝부분은 다음 편 원문 첫머리에 이어지므로, 문장 끝까지 이 편에서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14장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 2

CO 1:875–88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875 [518]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이 정당하게 변명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멸망에 정해 두었다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에는 그 나름의 공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평함은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극히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악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운 심판으로 가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정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기들이 받을 정죄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의 감추어진 지성소에 눈을 고정하면서, 그 정죄가 참으로 솟아 나오는 본성의 부패에는 눈을 감는 자들이 거꾸로 행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부패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창조에 대하여 친히 증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 지금 그가 놓여 있는 그 비참에 이르도록 지음받았다 하더라도, 그 비참의 재료는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취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창조에서 순전한 패역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20. 하나님의 예정을 대적하는 자들은 셋째 불합리를 들어 예정에 오명을 씌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의 상속자로 받아들이시는 자들이 온 인류의 멸망에서 건짐받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결정 말고 다른 데로 돌리지 않으므로, 그들은 거기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있다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서나 그것을 부정합니

518.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다. 그러므로 성경이 스스로 모순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에 공로를 고려하심이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그들이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뜻에서입니다. 성경은 "외모"(persona)라는 낱말로 사람 자체를 가리키지 않고, 사람에게서 눈에 띄어 흔히 호의나 인기나 체면을 얻게 하거나, 반대로 미움이나 멸시나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재물, 부, 권세, 귀한 가문, 관직, 고국, 용모의 아름다움, 그 밖의 이런 것들이 그러합니다. 또 가난, 궁핍, 천한 신분, 더러움, 멸시받음,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도 그러합니다. 이런 뜻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를 차별하여 오직 민족만을 이유로 하나는 물리치시고 다른 하나는 품으시는 일이 없으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행 10:34; 롬 2:11; 갈 3:28).[519] 사도 야고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에서 재물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신다고 주장하려 할 때 같은 말을 씁니다(약 2:9).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자유인인지 종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골 3:11; 엡 6:9).[520]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의 결정에 따라 아무 공로 없이 당신이 좋게 여기시는 자들을 자녀로 택하시고, 다른 자들은 물리치시고 유기하신다고 말하더라도 조금도 모순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더 넉넉히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아무 공로로도 구별되지 않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는 당신의 선택에서 지나치시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시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거꾸로 묻습니다.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기울게 하는

519. 원문에는 "롬 2: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구절은 롬 2:11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520. 원문에는 "골 3:1"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인과 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에 맞추어 골 3:11로 읽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당신 자신의 선하심에서 찾으신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물리치시는 것은 사람을 고려하시는 데서 나오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에서 나옵니다. 그 긍휼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뻐하시는 만큼 자주, 자유롭게 드러내시고 펼치실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21.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을 지키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불공평한 의를 가진 분인 양 꾸며 대는 것은 거짓되고 지극히 악한 일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있는 자로 찾아내신다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벌하셔야 하고, 죄 없는 자로 찾아내신다면 모든 사람에게서 엄격한 심판을 거두셔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마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금지된 분이거나, 긍휼을 베푸시려 할 때는 심판을 아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인 양 대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면 모두가 함께 같은 형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모두에게 공통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이들을 구원해 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써 당신이 또한 공평한 재판장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니, 하나님에게서 긍휼을 베푸실 능력을 빼앗으려 하든지, 적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완전히 내려놓으시는 조건으로만 그 능력을 허락하려 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문장들이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521] 첫 사람 안에서 인류라는 덩어리 전체가 정죄에

521. CO 편집자 각주는 출처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서신 106(186), 『성도의 예정에 관하여』와 『은혜에 관하여』 여러 곳, 『견인의 은사에 관하여』 12장을 듭니다. 원문 조각은 "De praedest. et gratia. passim. De bono perseyerant c. 12." 이며 "bono" 는 "dono" 로 읽었습니다.

떨어졌으므로, 그 덩어리에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자기 자신의 의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천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불의가 아니라 심판으로 돌려야 합니다, 운운. 하나님께서 당신이 유기하시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형벌을 갚으시고, 당신이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발에서 벗어나십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는 빚을 면제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받아 내는 것이 자기 권한에 있는 채권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므로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의로운 재판장이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값없는 은혜를 보이실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아 마땅한지를 밝히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22. 그들은 예정을 뒤엎으려고 이런 말도 몰아붙입니다. 예정이 서 있으면 모든 조심과 선을 행하려는 열심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작정으로 자기에게 생명이나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곧바로 떠오르지 않겠는가?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의 예정이 조금도 방해받거나 앞당겨질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내던지고, 구제할 길 없는 자들처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든 곤두박질칠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닙니다. 예정의 교리를 이런 더러운 신성 모독으로 더럽히고, 바로 이것을 핑계 삼아 온갖 권고와 책망을 피해 가는 돼지 같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CO 877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하여 무엇을 하시기로 한 번 정하셨는지 아신다. 그분이 구원을 작정하셨다면 당신의 때에 우리를 그리로 이끄실 것이고, 죽음을 정하셨다면 우리가 거슬러 애써도 헛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큰 비밀을 얼마나 더 큰 경외와 경건(religion)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를 명령하면서, 경건한 자들을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저들의 악한 방종을 마땅하게 꾸짖기도 합니다. 성경이 예정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대담해져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악한 무모함으로 파헤치려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엎드려서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긍휼을 우러러보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과녁을 겨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더러운 돼지들의 꿀꿀거림은 바울이 마땅하게 막아 버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택함받은 자들의 수에 들어 있다면 악행이 자기들을 마침내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조금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니, 악행 가운데 안심하고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도록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택함받았다고 일깨웁니다(엡 1:4). 선택의 목적이 삶의 거룩함이라면, 선택은 게으름의 핑계가 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일깨우고 찔러서 그 거룩함을 힘써 추구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선택이 구원에 넉넉하니 선을 행하기를 그만두는 것과, 선택에 정해진 목적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쏟는 것이라는 것, 이 둘은 서로 얼마나 크게 어긋납니까? 그러므로 선택의 질서 전체를 그릇되게 뒤집어엎는 이런 신성 모독은 물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성 모독을 더 멀리 펼쳐서, 하나님께 유기된 사람은 삶의 무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써도 수고를 헛되이 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지극히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열심이 선택 말고 어디에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유기된 자들의 수에 드는 자들은 모두 천히 쓰도록 빚어진 그릇들이므로, 끊임없는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위에 불러들이기를 그치지 않고, 이미 자기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한 표지들로 확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헛되이 다툰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더 잘 밝혀지도록, 택함받은 자들의 부르심과 불경건한 자들의 눈멀게 됨과

완악하게 됨을 다루어야 합니다.

23. 주님께서는 다른 때에는 당신 안에 감추어 두시는 선택을 마침내 당신의 부르심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심을 선택의 증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당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롬 8:29–30).[522]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심으로써 이미 자녀의 자리로 양자 삼으셨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이 크나큰 복을 소유하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자기 선택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을 누립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그들이 받는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도, 인이라고도, 장차 올 기업의 보증이라고도 부릅니다(롬 8:15; 엡 1:13 등). 곧 성령께서 당신의 증언으로 그들의 마음에 장차 올 양자됨의 확신을 굳게 세우시고 인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정하시고 당신 자신을 그들의 아버지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집안에 받아들이시고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부르심을 선택에 이어 붙임으로써,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 말고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무슨 이유로 부르시느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택에 이르면 거기서는 어디를 보아도 오직 긍휼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바울의 말씀이 여기에 참으로 들어맞습니다(롬 9:16).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의지와 달음박질 사이에 몫을 나누는 자들이 흔히 받아들이는 뜻으로 읽어서는

522. 원문에는 "롬 8: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이 29절에서 시작하므로 29–30절로 적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원함과 애씀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무게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되게 해 주어야 한다고 풀이하지만, 그분의 복 주심으로 도움을 받으면 그것들도 구원을 얻는 데 자기 몫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들의 이 궤변을 제 말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 논박하고 싶습니다. "사도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원하는 자나 달음박질하는 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만을 말하려 했다면, 거꾸로 원함과 달음박질이 함께하지 않으면 긍휼만의 것이 아니라고 뒤집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게 불경건하다면, 사도가 모든 것을 주님의 긍휼에 돌리고 우리의 의지나 열심에는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자." 저 거룩한 사람은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끌어들이는 잔꾀, 곧 우리 안에 어떤 애씀과 어떤 의지가 있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주장은 제게 털끝만큼의 값어치도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따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이들이 구원의 한 부분을 사람의 노력에 돌리는 것을 보고, 앞 구절로 그들의 오류를 단순히 정죄했고, 이어서 구원 전체를 하나님의 긍휼에 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값없는 부르심을 끊임없이 널리 전하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24. 게다가 부르심이 베풀어지는 방식 자체도 이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조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지 선지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사 65:1). "나는 나를 찾지 않던 자들에게 찾아졌고, 내게 묻지 않던 자들에게 드러나게 나타났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백성에게 '내가 여기 있다' 고 말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너그러우심이 이방인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당신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를 어디에서 데려오셨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수 24:3). CO 879 곧 그가 자기 온 집안과 함께

잠겨 있던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서 데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당신 말씀의 빛을 먼저 비추심으로써,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을 충분히 뚜렷하게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육이, 부르시고 스스로 자기를 내어 주시는 분께 적어도 응답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귀 말고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고, 당신이 만드신 눈 말고는 볼 눈이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의 감사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따라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그 일의 두드러진 예를 누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행 13:48). 거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같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영생을 얻도록 미리 정해진 자들이 믿었다고 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오직 선택이 다스리는 부르심이 값없다는 것을 우리가 무슨 낯으로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증언으로 논박되는 것은 부르심을 완성하는 데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선택은 뒤에 오는 것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마치 선택이 부르심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매달려 있고 불확실한 것인 양 가르치는 자들도 논박됩니다. 선택이 부르심으로 확정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 낱말을, 선택이 확실한 증언으로 입증되고 이를테면 인으로 봉인된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야 비로소 효력을 가지며 그 힘을 거기서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25. 선택의 힘을, 우리를 선택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의 믿음에 매어 다는 자들은 그릇되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선택의 확신을 찾을 때 선택의 확실한 증언인 저 뒤에 오는 표지들에 붙어 있으면 가장 좋은 순서를 지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신자들을 치는 시험 가운데, 그들을 자기 선택에 대한 의심으로 불안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선택을 길 밖에서 찾으려는 그릇된 욕망으로 부추기는 것보다 더 무겁고 위험한 시험은 없습니다. 제가 길 밖에서 찾는다고 부르는

것은, 하찮은 사람이 하나님 지혜의 감추어진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가려 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에 관하여 무엇이 정해졌는지 알아내려고 지극히 높은 영원에까지 꿰뚫고 들어가려 하는 때입니다. 그때 그는 측량할 수 없는 소용돌이의 깊은 곳으로 자기를 던져 삼켜지게 하고, 셀 수 없고 풀 수 없는 올가미를 스스로 뒤집어쓰며, 눈먼 어둠의 심연에 자기를 파묻습니다. 사람의 지능이 제 힘으로 하나님 지혜의 높이에까지 올라가려 할 때, 그 어리석음이 끔찍한 몰락으로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더욱 치명적인 것은, 우리 거의 모두가 다른 어떤 시험보다 이 시험에 더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에 마음이 찔리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너의 구원이 주님의 선택에서가 아니면 어디에서 오겠느냐? 그런데 그 선택이 네게 어떻게 계시되었느냐?" 이 생각이 어떤 사람 안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비참한 사람을 끊임없이 무서운 고통으로 괴롭히든지, 아니면 그를 완전히 넋 나가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정을 얼마나 비뚤어지게 상상하는지를, 저는 이 경험 자체보다 더 확실한 논거로 확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와 평온에서 양심을 무너뜨리고 뒤흔드는 오류보다 더 해로운 오류로 정신이 물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선을 두려워한다면, 부딪히면 반드시 멸망하는 이 암초를 조심스럽게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에 관한 논의가 위험한 바다처럼 여겨지기는 하지만, 누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려 하지만 않는다면, 그 바다를 두루 다니는 일은 안전하고 평온하며 즐거운 항해이기도 합니다. 자기 선택을 더 확실히 알려고 말씀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캐묻는 자들이 치명적인 심연에 빠져 버리듯이, 선택을 말씀에 담겨 있는 그대로 바르고 순서 있게 탐구하는 자들은 거기서 뛰어난 위로의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탐구 방법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하여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관하여 알아도 되는 만큼을 이 부르심을 표처럼 삼아 우리에게 확증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이 약하다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도록, 이 증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밝음과 확실성을 가져다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26.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너그러우심과 은혜로우신 마음을 찾는다면, 눈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기뻐하며 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하늘나라의 불멸을 찾는다면, 그때에도 다른 데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의 샘이시고 구원의 닻이시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향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자녀의 자리로 받아들여져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구원과 불멸을 얻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대가 아무리 뒤집어 보고 살펴보아도, 선택의 마지막 목적이 이보다 더 멀리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그들 자신 안에서 택하셨다고 하지 않고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실 수 없었고,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자가 되지 않고는 당신 나라의 기업으로 그들을 영예롭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다면, 우리 선택의 확신을 우리 자신 안에서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을 떠나 아버지만을 상상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바라보아야 할 거울이시며, 속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원부터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시기로 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서 알아보시는 자들은 모두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충분히 분명하고 굳건한 증언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선포로 당신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며 당신의 모든 좋은 것과 함께 우리의 것이

되셨다고 증언하셨을 때, 당신과의 확실한 교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말하건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가 하늘 아버지께 자녀로 여겨지리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여겨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란다면, 그리스도를 넘어 올라가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라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그분 밖에서 찾는다면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게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이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며 굳건한 뜻이시므로,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것이 우리가 찾는 아버지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를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뜻을, 처음부터 있었고 언제나 있을 그대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열어 보이십니다.

27. 우리의 부르심과 결합된 선택의 견고함이 신뢰를 굳게 하는 데 더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이름을 아는 지식으로 비추셔서 당신 교회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자들을 당신의 신실하심과 보호 아래 맞아들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맞아들이시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생에 이르도록 지켜지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그분께 맡기시고 위탁하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모두 당신의 보호 아래 넘겨주셨다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요 6:37, 39; 17:6, 1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돌보시는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맡기셨는지를 물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당신 백성 모두의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보호 안에 받아들여졌는지 의심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목자로 스스로 내어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들으면 당신 양들의 수에 들게 되리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 의심을 막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그럽게 우리 앞에 내어 주신 바 되시고

우리를 맞으러 나오시는 그리스도를 품읍시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양 떼 가운데 세어 넣으시고 당신의 우리 안에 가두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태에 대한 염려가 스며듭니다. 바울이 먼저 택함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가르치듯이(롬 8:30),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마 22:14). 더 나아가 바울도 다른 곳에서 안일함을 경계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접붙여졌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를 다시 찍어 버리시고 다른 이들을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롬 11:20).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험 자체로도, 끝까지 견딤이 더해지지 않으면 부르심과 믿음이 별 값어치가 없으며 그 견딤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배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염려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다음의 약속들은 분명히 앞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7, 39).[523]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7).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가 한번 그분의 것이 되었으므로 영원히 구원받으리라고 확신하라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28.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이던 자들이 다시 그분을 떠나 넘어지는 일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단언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523. 원문에는 "요 6:37,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인용은 39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은 예외로 두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제가 선택의 확신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는 그런 마음의 신뢰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던 적이 결코 없다는 것도 똑같이 확실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요일 2:19). 저는 그들이 택함받은 자들과 비슷한 부르심의 표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에서 구하라고 명하는 선택의 저 확실한 굳건함을 그들에게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평온하게 기대어 쉬는 일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당신을 영접하는 모든 자가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이며, 당신이 지키는 이요 목자이시니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유다에 관해서는 곧 말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안심을 다 버리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경계하는 것은 육의 게으르고 해이한 안일함입니다. 그런 안일함은 오만과 거만과 남을 멸시함을 끌고 들어오고, 겸손을 꺼 버리며, 주님을 경외함과 받은 은혜를 잊게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섰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교만하고 무정하게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가 요구하는 두려움도 우리가 놀라서 흔들리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우러러보도록 가르치면서 그 은혜에 대한 신뢰를 조금도 줄이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이는 다른 곳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29.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주님의 저 말씀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된 뜻을 얻으려면 부르심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외적인 선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당신께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사망의 냄새와 더 무거운 정죄의 재료로 내놓으시는 자들까지도 초대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개 신자들에게만 이 부르심을 베푸시는데, 당신 성령의 내적인 조명으로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실 때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당신이 한동안만 비추시는 자들에게도 이 부르심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배은망덕에 마땅한 대로 그들을 버리시고 더 큰 눈멂으로 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이 널리 멀리 전파되지만 많은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대부분에게 멸시받으며 적은 사람들에게서만 마땅한 값을 얻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 보이십니다(마 22:1 이하). 그 왕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부르는 자들을 사방으로 보내 큰 무리를 초대하지만, 저마다 핑계를 대므로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서만 승낙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거절하자 네거리에서 만나는 아무나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비유를 외적인 부르심에 관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CO 883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다정하게 맞으려고 식탁 사이를 돌아다니는 좋은 잔치 주인처럼 행하신다고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예복으로 단장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면, 그가 자기 더러움으로 잔치의 즐거움을 욕되게 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에 들어오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결코 옷 입지 않은 자들에 관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교회의 이런 수치들, 이를테면 암 덩어리들을 영원히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추함이 받아 마땅한 대로 밖으로 내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큰 수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들이 자기 선택을 헤아려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 부르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저 부르심은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공통되지만, 이 부르심은 중생의 영을 함께 가져옵니다.

그 영은 장차 올 기업의 보증이요 인이시며, 그 영으로 우리 마음은 주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습니다.

30. 조금 전에 끌어온 예외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멸망의 자식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요 17:12).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양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또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그를 사도들과 함께 당신이 택하셨다고 단언하시는 것은 오직 직분에 관한 말입니다(요 6:70).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곧 주님께서는 그를 사도의 직분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선택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그를 택함받은 자들의 수에서 멀리 떼어 놓으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안다" (요 13:18). 누가 선택이라는 낱말을 두 곳에서 뒤섞는다면 비참하게 얽혀 들 것이고, 구별한다면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레고리우스가,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만 알 뿐 선택은 확신하지 못한다고 가르친 것은 아주 나쁘고 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고 떨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인지는 알더라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른다는 이유까지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대목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암초에 부딪혔는지를 충분히 드러냅니다. 그는 선택을 행위의 공로에 매어 달았으므로, 마음을 낙심시킬 이유는 넉넉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그들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로 옮겨 놓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굳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가 처음에 내세운 것을 여기서 어느 정도 맛보게 됩니다. 곧 예정을 바르게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장 잘 굳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31. 택함받은 자들은 모태에서부터 곧바로도 아니고 모두 같은 때도 아

니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는 대로,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모입니다. 그들은 저 으뜸 목자께로 돌아서기 전에는 세상의 공통된 광야에 흩어져 헤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로 보호를 받아 죽음의 마지막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그들 자신을 본다면, 그 덩어리 공통의 부패를 풍기는 아담의 자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극단적이고 구제할 길 없는 불경건에까지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타고난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켜보고 그분의 손이 뻗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택함받은 자들의 마음에 무슨 선택의 씨앗 같은 것이 심겨 있어서, 그 힘으로 그들이 언제나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울어 있다고 꿈꿉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권위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경험 자체로도 반박당합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자들이 조명받기 전에도 경건에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몇 가지 예를 내놓습니다. 바울이 바리새파로 살 때 흠잡을 데 없이 살았다는 것,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 밖에 비슷한 것들입니다. 바울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인정합니다. 고넬료에 관해서는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이미 그때 조명받고 중생해 있어서, 복음의 분명한 계시 말고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몇 안 되는 예들로 마침내 무엇을 억지로 끌어내겠습니까? 택함받은 자들이 모두 언제나 경건의 영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가 아리스테이데스, 소크라테스, 크세노크라테스, 스키피오, 쿠리우스, 카밀루스와 다른 이들의 올곧음을 증명하고 나서, 거기서 우상 숭배의 눈멂 속에 버려진 모든 사람이 거룩함과 정직함에 힘썼다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524] 더 나아가 성경은 한두 곳에서가 아니라 여러

524. 아리스테이데스(Aristeides)와 소크라테스, 크세노크라테스(Xenokrates)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와 철학자들이고, 스키피오(Scipio)와 쿠리우스(Manius Curius Dentatus), 카밀루

곳에서 그들에게 드러내 놓고 반대합니다. 바울이 그려 보이는 중생 이전 에베소 사람들의 상태에는 이 씨앗의 낟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엡 2:1 이하).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다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전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엡 2:12 참조). 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엡 5:8 참조). 그러나 그들은 아마 이 말씀들을 참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관한 것으로 돌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 무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들에서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끌어내므로 이것은 뻔뻔한 중상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구절들에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구절이 그러합니다(고전 6:9–11). 거기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선언한 다음, 곧바로 그들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바로 그 죄악들에 얽혀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피로 씻기고 성령으로 해방되었다고 덧붙입니다. 또 로마 사람들에게 쓴 다른 구절도 그러합니다(롬 6:19, 21).[525] CO 885 "여러분이 전에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는 그 지체를 의에 종으로 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운운.

스(Marcus Furius Camillus)는 청렴과 덕으로 이름난 고대 로마의 장군·정치가들입니다.
525. 원문에는 "롬 6:19" 로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문장은 21절입니다.

32. 묻겠습니다. 평생 여러 가지로 더럽혀져서 마치 구제할 길 없는 악에 빠진 듯 모든 죄악 가운데 가장 사악하고 가증한 죄악에서 뒹굴던 자들 안에서, 그때 무슨 선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저들의 생각대로 말하려 했다면, 그들이 그런 큰 추악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선택의 영속하는 씨앗 때문에 감사하라고 자기 사람들에게 권했어야 했을 것입니다(벧전 4:3). 그러나 그는 반대로, 지나간 때에 이방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한 것으로 넉넉하다고 일깨웁니다. 실례들로 가 보면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에게 믿음 이전에 무슨 의의 싹이 있었습니까?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선지자들의 피로 물들이고 거의 잠기게 할 때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둘 즈음에야 비로소 회개를 생각한 강도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없이 함부로 스스로 지어낸 이런 논증들은 물러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곧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린 양처럼 그릇 갔고, 저마다 자기 길, 곧 멸망으로 치우쳐 갔다는 것입니다(사 53:6).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 멸망의 소용돌이에서 건져 내기로 정하신 자들을 당신의 적절한 때까지 미루어 두십니다. 다만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신성 모독에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뿐입니다.

33. 주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당신의 부르심의 효력으로, 영원한 뜻으로 그들에게 정해 두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와 같이 유기된 자들을 향해서도 당신의 심판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 심판들로 그들에 관한 당신의 뜻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진노의 도구요 엄하심의 본보기가 되도록 생명의 수치와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창조하신 자들이 그 목적에 이르도록, 어떤 때는 당신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빼앗으시고, 어떤 때는 말씀의 선포로 그들을 더욱 눈멀게 하시고 둔하게 하십니다. 앞의 경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예가 있지만, 다른 것들보다 두드러지고

눈에 띄는 예 하나를 고릅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약 사천 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교리의 빛을 모든 민족에게 감추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으므로 그 큰 은택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고 대답한다면, 그 후손들이 조금도 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보다 저들에게 주어집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감추어지고 헤아릴 수 없는 뜻보다 더 높은 원인을 찾는 자는 헛되이 자기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르피리오스의 어떤 제자가 하나님의 의를 마음대로 물어뜯을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526] 우리가 아무도 받을 자격 없이 멸망하지는 않으며, 어떤 이들이 건짐받는 것은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우심 덕분이라고 주장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넉넉하고도 남을 만큼 말한 것이므로, 우리의 둘러대는 말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한번 유기하신 자들에게서 당신 빛의 나눔을 거두시고 그들을 눈멂 속에 버려두실 때, 당신의 예정에 길을 내십니다. 뒤의 경우에 관해서는 날마다 증거가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백 사람에게 거의 같은 설교가 전해지는데, 스무 사람은 기꺼이 믿음의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아무 값어치도 없이 여기거나, 비웃거나, 야유하여 쫓아내거나, 몹시 싫어합니다. 누가 이 차이가 그들의 악함과 패역에서 나온다고 대답한다면, 아직 충분히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바로잡지 않으셨다면, 저 다른 사람들의 성품도 같은 악함에 사로잡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4.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들은 지나치십니까? 저들에 관해서는 누가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미리 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행 13:48). 그렇다면 이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천히 쓰도록 정해진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 말고 무엇이

526. 포르피리오스(Porphyrios, 234경–305경)는『그리스도인들을 반박하여』를 써서 기독교를 공격한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입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말하기를 꺼리지 맙시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므로 악한 자들의 의지를 선으로 돌이키실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지 않으시는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왜 원하지 않으셨는지는 그분께 달려 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크리소스토무스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와 손을 내미는 자를 이끄신다고 둘러대어 그 차이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 않고 오직 사람의 결정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음 사실은 참으로 의문에 부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눈멂이 더 무거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사절을 거듭 보내면 그가 누그러지리라고 바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그 결말을 아셨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에게 내 뜻을 알려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따르지 않게 하리라”(출 4:21). 이와 같이 에스겔을 일으키실 때에도, 당신이 그를 패역하고 완고한 백성에게 보내신다고 미리 일러 두셔서, 그가 귀먹은 자들에게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겔 2:3; 12:2). 이와 같이 예레미야에게도, 그의 가르침이 불이 되어 백성을 지푸라기처럼 멸하고 흩어 버리리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렘 1:10).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이보다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보냄을 받기 때문입니다(사 6:9–10).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그 귀를 무겁게 하며 그 눈을 칠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성을 보내시지만 그들이 더 귀먹게 되게 하시려는

것이고, 빛을 켜시지만 그들이 더 눈멀게 되게 하시려는 것이며, 가르침을 내놓으시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더 둔해지게 하시려는 것이고, 치료책을 쓰시지만 그들이 고침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을 끌어와서, 유대인들 위에 하나님의 이 저주가 놓여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을 수 없었다고 단언합니다(요 12:39). 또 다음 사실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비추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자들에게, 그들이 거기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우둔함으로 떠밀려 가도록, 당신의 가르침을 수수께끼로 감싸서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무리에게 말씀하신 비유들을 오직 사도들에게만 풀어 주시는 까닭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무리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십니다(마 13:11). 그대는 묻겠지요.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애쓰시는 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잘못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묻기를 그칠 것입니다. 말씀에 어떤 어두움이 있든지, 거기에는 언제나 불경건한 자들의 양심을 깨우쳐 죄를 자백하게 할 만큼 넉넉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35.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그 일을 왜 하시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불경건과 악함과 배은망덕으로 그렇게 될 만하므로 그렇게 된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옳고 참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순종으로 굽혀지는데 이들은 왜 완악한 채로 남는지, 이 차이의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살피려면 바울이 모세에게서 끌어와 적어 둔 말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롬 9:17). 곧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일으키신 것은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려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기된 자들이 자기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들 마음의 악함과 패역으로 돌리는 것은 옳습니다. 다만 동시에, 그들이 이 패역에

넘겨진 것은 하나님의 의롭지만 헤아릴 수 없는 심판으로, 자기들의 정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일으켜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덧붙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의 아들들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으므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권고를 듣지 않았다고 전할 때(삼상 2:25), 그들의 완고함이 그들 자신의 악함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실 수 있었는데도 왜 그들이 완고함 속에 버려졌는지를 지적합니다. 곧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작정이 그들을 한번 멸망에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권세로 당신의 비참한 피조물들을 잔인한 장난감으로 함부로 쓰신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토록 많은 명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책임이 있어서, 천 가지를 물으면 그 하나에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운 심판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명백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을 거절하지 맙시다.

36. 그러나 성경의 몇몇 구절이 반론으로 제기됩니다. 그 구절들에서 주님께서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당신의 정하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반대하시는데도 그들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이는 한에서만 그렇다고 부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구절들을 짧게 풀이함으로써 그것들이 위의 주장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그들은 사도의 이런 문장들을 내놓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딤전 2:4).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다(롬 11:32). 또 주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시기를, 당신은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

십니다(겔 18:32; 33:11). 사도의 첫 구절은 여기에 엉뚱하게 끌어온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가 사람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의 계층에 관하여 말한다는 것은 문맥에서 아주 쉽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왕들과 통치자들을 위하여 공적인 기도를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구제할 길 없는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 놓는 것이 좀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과 남남이었을 뿐 아니라, 온 힘을 다해 그분의 나라를 짓밟으려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층이나 신분의 사람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지 않으셨고, 오히려 당신의 긍휼을 쏟아부으셔서 어떤 신분도 그 긍휼에서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일 뿐입니다. 다른 문장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감추어진 판단으로 모든 사람에 관하여 무엇을 정하셨는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려고 돌이키기만 하는 모든 죄인에게 용서가 마련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더 고집스럽게 몰아붙인다면, 저는 거꾸로 다른 곳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 반박할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시 115:3 참조).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말씀과 맞도록 풀이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출 33:19 참조).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지를 골라 정하시는 분은 그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십니다.

37. 그대는 말하겠지요. “그렇다면 복음의 약속들은 별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깨뜨릴 수 없는 작정에 어긋나는 것을 원하신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약속들이 아무리 보편적이라 하더라도, 우

리가 그 약속들의 성취에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그것들은 유기된 자들의 예정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들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반대로 믿음이 텅 비면 약속도 함께 폐기됩니다. 약속들의 본성이 이러하다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긋나는지 살펴봅시다. 곧 주님께서 영원부터 누구를 선하심으로 품으시고 누구에게 진노를 행하실지 정하셨다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둘이 아주 잘 들어맞는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심으로써, 당신의 긍휼이 그리로 피하기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추신 자들이 아니면 아무도 그리로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들을 비추십니다. 제가 말하건대, 이들에게 약속들의 진리가 확실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내미시는 당신 은혜의 증언 사이에 무슨 불일치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까? 곧 경건한 자들의 양심이 믿음이 있기만 하면 죄인들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안전하게 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불경건한 자들이, 자기에게 내밀어진 피난처를 자기들의 배은망덕으로 물리치면서, 자기들에게는 죄의 종노릇에서 피할 피난처가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복음을 통하여 양쪽 모두에게 제시되므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구별하는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조명입니다. 그리하여 앞의 사람들은 복음의 효력을 느끼고, 뒤의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조명 자체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규범으로 삼습니다.

38.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도 얼마간 다루어야 합니다. 섭리는 바르게 이해되면 믿음을 받쳐 주는 데 놀랍도록

유익하지만, 그것을 깨닫거나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순전한 예지만을 상상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다스리심으로 이루어진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돌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막연하고 뒤섞인 다스리심이어서, 세계라는 기계를 그 부분들과 함께 일반적인 움직임으로 돌리고 밀어 갈 뿐, 각 피조물의 행동을 하나하나 이끄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편적 섭리라고 부르며, 이 섭리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우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방해받지 않고, 사람도 의지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리저리 돌아서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특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몫을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움직임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본성의 이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은 자기 행동을 자발적인 계획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세상과 사람의 일과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되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다스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피쿠로스파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역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한가하고 게으른 분으로 꿈꿉니다. 또 그들보다 조금도 더 건전하지 않은 다른 이들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공기의 중간 영역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스리도록 돌리고 그 아래 것들은 운수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미친 생각에 대해서는 말 못 하는 피조물들 자체가 충분히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 섭리에 관하여 전한 저 견해가 흔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견해가 어느 정도 참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참되지도 않고 참을 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무슨 눈멀고 모호한 움직임만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 목적으로 이끄시고 배치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견해는 하나님께 다스리심

을 거부하므로, 하나님을 실제로가 아니라 말로만 세상의 통치자로 만듭니다. 묻겠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그대가 다스리는 것들을 정해진 질서로 이끌도록 그 위에 서 있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39.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토록 부지런히 가르치므로, 누가 그것을 망설일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도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행 17:28), 또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끊임없이 일하신다고 증언하시는 것(요 5:17)은 주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것들 안에서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하지만, 저 보편적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증언들은 너무 분명해서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렘 10:23). 솔로몬도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정할 수 있으랴"(잠 20:24). 이제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본성의 성향에 따라 움직여지되, 그 움직임을 자기가 좋게 여기는 쪽으로 돌린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말해진다면 사람의 길을 정하는 일이 사람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솔로몬이 하나님께 능력만이 아니라 택하심과 정하심도 돌린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들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목표를 미리 세워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는 것처럼 구는 사람들의 이 무모함을 멋지게 꼬집습니다(잠 16:1).[527] 그는 말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으나, 혀를 예비하심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말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는

527. 원문에는 장 번호 "Prov. 16"만 있고 절수가 깨져 있습니다. 인용 내용에 맞추어 16:1로 적었습니다.

것은 참으로 우스운 광기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의 정하심에서 나오지 않고는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뚜렷이 나타내려고, 가장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그분께 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나무에서 부러진 가지가 죽게 하는 것보다 더 우연으로 돌릴 만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를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고 고백하십니다(출 21:13).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를 누가 운수의 눈먼 손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판정을 당신께 돌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돌들이 품에 던져지고 꺼내어지는 것이 당신의 능력으로 된다고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돌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것조차 당신에게서 나온다고 증언하십니다(잠 16:33).

40. 이 교리에 미움을 씌우려는 자들은 이것이 스토아학파의 운명론이라고 중상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도 비난받은 일입니다. 우리는 낱말을 두고 다투기를 원하지 않지만, 운명이라는 낱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낱말은 바울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가르치는 속된 새 말들에 속하기 때문이고(딤전 6:20 참조), 또 그들이 그 낱말에 대한 미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짓누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 자체도 우리에게 거짓되고 악의적으로 덮어씌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스토아학파와 함께, 원인들의 영속하는 연결과 자연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얽힌 연쇄에서 나오는 필연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결정자요 다스리시는 분으로 세웁니다. 그분은 당신의 지혜로 아득한 영원부터 당신이 하실 일을 작정하셨고,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섭리로 하늘과 땅과 생명 없는 피조물들뿐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다스려져서 그 섭리가 정한 목표로 이끌린다고 주장합니다.

1539–1554년판 제14장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 3

CO 1:891–90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891 [528]그대는 묻겠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대 바실리우스가, 운수와 우연은 이방인들의 말이니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그 뜻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참으로 옳게 한 말입니다.[529] 모든 형통이 하나님의 복 주심이고 재앙과 역경이 그분의 저주라면, 사람의 일에 운수나 우연이 들어설 자리는 이제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말도 우리를 움직여야 마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카데미아학파를 반박하여』라는 책에서 내가 그토록 자주 운수(fortuna)를 들먹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그 이름으로 어떤 여신을 가리키려 한 것이 아니라, 바깥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우연한 결과를 가리키려 했지만 말이다. 그래서 어떤 경건(religion)도 말하기를 금하지 않는 저 낱말들, 곧 ‘혹시’, ‘어쩌면’, ‘아마’, ‘아마도’, ‘우연히’ 같은 말들이 나온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돌려야 한다. 나는 이것도 잠자코 넘기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흔히 운수라고 부르는 것도 감추어진 질서로 다스려지는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일들에서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유와 원인이 감추어져 있는 것일 뿐이다.’ 나는 참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다’ 고 말해야 할 때

528.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529. 바실리우스(Basilius, 330경–379)는 카파도키아 가이사랴의 감독으로, 흔히 “대 바실리우스”라고 불리는 교부입니다.

‘운수가 이것을 원했다’ 고 말하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진 것을 보니, 내가 거기서 운수라는 이름을 쓴 것이 후회스럽다.”

41.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섭리의 높이 앞에 무너지므로, 저는 구별 하나를 들어 그 연약함도 덜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합니다. 모든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경륜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우연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운수가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함부로 위아래로 굴린다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에서 멀리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일들의 순서와 이유와 목적과 필연은 대개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추어져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붙잡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확실한 일들이 말하자면 우연한 것이 됩니다. 그 일들은 그 본성대로 살펴보든, 우리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 헤아려 보든, 다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상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들과 일행이 되어 숲에 들어갔다가 부주의하여 동료들에게서 떨어져 헤매다가, 그 헤맴으로 강도들의 소굴에 이르러 강도들을 만나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미리 보였을 뿐 아니라 작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미리 보셨다고만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시고 고정하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욥 14:5). 그렇지만 우리 정신의 이해가 붙잡는 한에서는, 거기서 모든 것이 우연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이런 죽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그 본성상, 실제로 그러하듯이, 우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운수를 그 목적으로 이끄시려고 앞서 다스리셨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우발성도 같은 이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불확실하므로, 우리는 그 일들을 마치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 있는 것처럼 미결 상태로 둡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미 미리 보시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42. 그러므로 섭리를 생각할 때, 흔히 하는 말로 하늘과 땅을 뒤섞을 만큼 섭리에 관하여 더듬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죽음의 순간을 정해 두셨다면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심하려고 애쓰는 것은 헛수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들은 길에는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감히 나서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도우려고 의사들을 부르고 약으로 지친다. 어떤 사람은 약한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고 거친 음식을 삼간다. 어떤 사람은 무너질 듯한 집에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온갖 길을 생각해 내고 크게 마음을 기울여 짜낸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고치려고 붙잡는 이 모든 치료책이 헛되든지, 아니면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 평화와 전쟁,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거나 미워하는 대로 자기 수고로 얻으려 하거나 피하려 하는 다른 일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작정으로 정해지지 않든지 둘 중 하나다." 더 나아가 그들은, 주님께서 이미 영원부터 작정하신 일들을 돌보아 주시라고 구하는 신자들의 기도가 쓸데없을 뿐 아니라 비뚤어진 것이라는 결론까지 끌어냅니다. 요컨대 그들은 앞날을 위하여 세우는 모든 계획을, 그 계획들을 부르지도 않고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는 것인 양 없애 버립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이미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돌리면서, 그 일을 한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눈을 감습니다. 자객이 선량한 시민을 죽였습니까?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음행했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정하신 일을 했으므로 그분 섭리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치료를 소홀히 한 채 태연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렸습니까? 그는 영원부터 그렇게 정해 두신 하나님께 맞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악행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르는 것이라 하여 덕이라고

부릅니다.

43.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는, 솔로몬이 사람의 숙고를 하나님의 섭리와 쉽게 조화시킵니다. 그는 주님 없이 무엇이든 대담하게 시작하여 마치 그분의 손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듯이 구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과 같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길을 계획해야 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잠 16:9).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우리가 그분의 뜻 아래서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의 모든 일을 꾸려 가는 것을 조금도 막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 한계로 정하신 분이, 동시에 그 생명을 돌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지킬 방도와 도움을 갖추어 주셨고, 위험을 미리 알게 하셨으며, 위험이 우리를 방비 없는 채로 덮치지 않도록 조심할 방법과 치료책을 일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고, 도움을 내미신다면 그것을 써야 하며, 위험을 미리 보여 주신다면 함부로 뛰어들지 말아야 하고, 치료책을 주신다면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험도 운명적인 것이 아니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고, 운명적인 위험은 어떤 치료책으로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대에게 위험을 물리치고 이길 치료책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험이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그대의 추론이 하나님의 경륜의 질서와 어떻게 맞는지 보십시오. 그대는 위험이 운명적인 것이 아니면 조심하지 않아도 벗어날 것이므로 위험을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위험이 그대에게 운명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미친 자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곧 숙고하고 조심하는 기술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는 데 그분의 섭리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소홀함과 게으름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우신 악을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자기를 돌보면서 닥쳐오는 악에서도 벗어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는 무모함으로 멸망하는 것이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어리석음과 지혜가 모두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하나님의 경륜의 도구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감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일들을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맞서며, 그 일들이 이겨질 때까지, 아니면 그 일들이 모든 돌봄을 이겨 버릴 때까지, 마련된 치료책을 대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4. 이미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나쁘고 아주 부당하게 헤아립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를 바라본다. 그러므로 도둑질도 간음도 살인도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지 않고는 저질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난으로 징계하기를 원하신 사람을 털어 간 도둑이 왜 벌을 받는가? 주님께서 생명을 끝내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왜 벌을 받는가? 이런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면 왜 벌을 받는가?" 그러나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악한 마음에 이끌리는 사람이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섬김을 바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악한 욕망에 따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 뜻이 부르는 곳으로 힘써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서가 아니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행할 때 살펴야 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밝히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그분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거슬러 무엇을 꾀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완고함이요 범법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섬김을 바치려는 목적에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욕의 방종에 미쳐 날뛰어 일부러 그분을 거슬러 애쓰면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 그분의 의로운 정하심을 섬깁니다. 그분은 그 지혜의 측량할 수 없는 크기로 선을 행하시는 데 악한 도구를 잘 그리고 바르게 쓰실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십시오. 그들은 범죄가 오직 하나님의 경륜으로 저질러진다는 이유로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많이 인정합니다. 도둑과 살인자와 다른 악행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며,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정하신 심판을 실행하시려고 그들을 쓰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행에 무슨 변명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과 같은 불의에 끌어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패역을 그분의 의로 덮겠습니까? 그들은 어느 쪽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끗하다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양심이 그들을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악이 자기들 안에 있고 하나님께는 그들의 악을 정당하게 쓰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시체가 햇볕의 열로 썩고 터졌다면, 시체의 악취는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악취가 햇빛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다고 햇빛이 악취를 풍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람 안에 악의 재료와 죄책이 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정대로 그의 섬김을 쓰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더러움을 입으신다고 생각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멀리서 짖어 댈 수는 있으나 닿지는 못하는 이 개 같은 뻔뻔함은 물러가야 합니다.

45. 그러나 섭리를 바르게 헤아리고 묵상할 때 지켜야 할 경건의 규범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것보다 이 불합리들을 더 잘, 더 짧게 논박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일어나며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보다 확실히 확신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모든 일의 으뜸 원인이신 그분께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원인들도 그 자리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자기를 지키시려고 깨어 있으며, 자기에게 좋고 구원이 되는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사람들과, 다음으로 나머지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양쪽 모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린다고 스스로 확신할 것입니다.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그들의 계획과 의지와 애씀과 능력이 그분의 손 아래 있어서,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쪽으로 굽히시고 좋게 여기시는 만큼 자주 억누르시는 것이 그분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깨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아주 많고 아주 뚜렷한 CO 895 약속들이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55:22).[530]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벧전 5:7). "지극히 높으신 분의 도우심 안에 사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물리라" (시 91:1). "너희를 만지는 자는 내 눈동자를 만지는 것이라" (슥 2:8). "내가 네 방패, 놋 성벽이 되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리라" (사 26:2).[531]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사 49:15). 성경의 역사들이 가장 크게 겨냥하는 목표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길을 매우 세심하

530. 원문에는 "시 55:23" 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531. [원문의심] 원문에는 "사 26:2" 로 되어 있으나, 이 구절은 인용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씀은 창 15:1, 출 23:22, 렘 1:18 등에 있습니다.

게 지키셔서 그들이 돌에도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위에서, 각 피조물을 돌보는 데까지 하나하나 내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를 지어내는 자들의 견해를 물리친 것은 마땅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이 특별한 돌보심을 인정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값싼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신 다음(마 10:29), 곧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깊은 돌보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고 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을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만큼 넓히십니다(같은 곳 30절). 머리털 하나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46. 이런 약속들과 실례들로 굳세어진 하나님의 종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증언들을 더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얻어 주셔야 할 때든, 그들이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악함을 억누르셔야 할 때든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원수들의 악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꺾으실 줄 아십니다. 때로는 그들에게서 정신을 빼앗으셔서 건전하고 맑은 생각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탄을 보내셔서, 아합을 속이도록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채우게 하십니다(왕상 22:22). 르호보암을 젊은이들의 조언으로 어리석게 하셔서, 그가 자기 어리석음으로 왕국을 빼앗기게 하십니다(왕상 12:10, 15). 때로는 그들에게 정신을 허락하시지만, 그들을 놀라게 하고 기를 꺾으셔서 그들이 마음먹은 것을 원하지도 꾀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정욕과 광기가 부추기는 것을 시도하도록 허락하시다가도, 그들의 기세를 때맞추어 끊으셔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

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치명적이었을 아히도벨의 계략을 때가 되기 전에 흩으셨습니다(삼하 17:7, 14).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당신 백성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다스리시는 것을 돌보시며, 마귀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마귀는 그분의 허락과 명령 없이는 욥을 거슬러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욥 1:12). 이 앎에는 반드시 형통할 때의 감사하는 마음과 역경 가운데서의 인내, 그리고 앞날에 대한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평안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이 잘되고 마음먹은 대로 되면,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돌릴 것입니다.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느꼈든, 생명 없는 피조물들에게서 도움을 받았든 그러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게로 기울이시고 그들을 내게 붙여 주셔서, 그들이 나를 향한 당신 너그러우심의 도구가 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곡식이 풍성할 때에는, 하늘의 말을 들으셔서 하늘이 땅의 말을 듣고 땅도 자기 소산의 말을 듣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일들에서도 모든 것이 잘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복 주심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많은 까닭으로 일깨움을 받고서도 배은망덕하게 굴 수는 없을 것입니다.

47. 무슨 역경이 닥치면 그는 여기서도 곧바로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 올릴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에게 인내와 차분한 마음의 절제를 새기는 데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되새기는 데 머물렀다면, 결코 그들에게 형제다운 마음을 되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주님께로 돌렸으므로, 해 입은 것을 잊고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기울어서, 오히려 스스로 형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어졌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 45:8). 욥이 자기를 괴롭힌

갈대아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면 곧바로 복수심에 불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주님의 일을 알아보았으므로 저 매우 아름다운 말씀으로 자기를 위로합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1:21 참조). 이와 같이 다윗은 시므이에게 욕설과 돌을 맞았을 때, 그 사람에게 눈을 고정했다면 해를 되갚도록 자기 부하들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므이가 주님께서 움직이시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부하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를 내버려 두라. 주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삼하 16:10). 분노와 참지 못함에 이보다 더 효과 있는 치료책이 없다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묵상하기를 배워서 언제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게 된 사람은 분명히 적지 않은 진보를 이룬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셨으니 견뎌야 한다.” 이는 맞서 싸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은 의롭고 유익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48. 이것이 성경이 이 점을 증명하는 데 그토록 세심하게 힘을 쏟는 까닭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재앙이 성읍에 있지 않으리라고 선언하고(암 3:6),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명하지 않으셨는데도 무슨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자들을 날카롭게 꾸짖습니다(애 3:37). 악이 사람들을 통하여 가해지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실행하도록 구별되었다고 하고, 그분의 손이 이끄는 그물과 칼과 도끼라고 부르며, 또 그분의 휘파람 소리 하나로 일어나는 주님 진노의 도구라고 부릅니다(사 13:3; 겔 12:13; 17:20; 시 17:13; CO 897 사 10:15; 13:5; 렘 1:15).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손과 뜻이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려고 모였다고 합니다(행 4:27).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으로 넘겨지신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이루었다고 합니다(같은 책 2:23).

군인들에 관해서도, 그들이 성경을 이루는 데 속한 모든 일을 했다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틀림없이 이것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가 바깥에서 사람들의 악함으로 무슨 악을 당할 때마다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저지른 일이 그분의 의로운 경륜으로 허용되기도 했고 보내어지기도 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역경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일어나면, 성경은 땅의 불모와 기근과 모든 종류의 질병과 사람들의 생각에 우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적어도 징계라고 선언합니다(레 26:15; 신 28:20).

49.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은 그동안 아래의 원인들에도 눈을 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을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의 일꾼으로 여긴다고 해서, 마치 그들이 자기들의 친절로 아무 감사도 받을 만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지나쳐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매여 있다고 느끼고, 기꺼이 빚진 것을 인정하며, 힘과 형편이 닿는 대로 감사를 갚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요컨대 그는 좋은 일들에서 주님을 으뜸 장본인으로 공경하고 찬양하되, 사람들은 그분의 일꾼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듯이, 주님께서 그 손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 자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뜻으로 빚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가 소홀함이나 부주의로 무슨 손해를 입었다면,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셔서 일어났다고 마음속으로 단정하겠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돌릴 것입니다. 그가 직무상 돌보아야 했던 사람을 소홀히 다루어 그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면, 그 사람이 넘어갈 수 없었던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자기 죄를 가볍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기 직무를 신실하게 다하지 못했으므로, 마치 자기의 소홀함의 잘못으로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물며 살인이나 도둑질을 꾀하는 데 속임수와 마음에 품은

악의가 개입했다면,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결코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악행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악함을, 둘 다 분명히 드러나는 그대로, 구별하여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는 무엇보다 이런 아래의 원인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안전을 지키는 데 쓸 사람의 도움을 잃지 않는 것을 주님의 복 주심 가운데 하나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이며, 자기를 도울 만한 것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조물들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든 주님께서 자기 손에 건네주신다고 여기고, 그것들을 하나님 섭리의 정당한 도구로 삼아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손대는 일들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자기의 유익을 돌보시리라는 것을 알므로, 지성과 정신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만큼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열심히 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생각에 이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를 맡기고 내어 드려서, 그분의 인도로 바른 목표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뢰는 바깥의 도움에 기대어, 그 도움이 있으면 그 안에서 안심하고 쉬고, 없으면 버림받은 듯이 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고정할 것이며, 눈앞의 일들을 살피다가 그분을 굳게 바라보는 데서 끌려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50. 바로 이 부분에서 경건한 마음의 헤아릴 수 없는 복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악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몸은 천 가지 질병을 담는 그릇이요, 더 나아가 질병의 원인들을 안에 가두어 품고 있으므로, 사람은 자기 멸망의 여러 모습을 지니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지고 다닐 수 없으며, 말하자면 죽음과 얽힌 생명을 끌고 다닙니다. 추워도 위험하고 땀을 흘려도 위험한 터에 달리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그대가 어디로 돌아서든 그대 둘레의 모든

것은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의 드러내 놓고 위협하며 당장의 죽음을 들이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에 오르십시오. 그대는 죽음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말에 올라타십시오. 말발굽 하나가 미끄러지면 그대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도시의 거리를 걸어가십시오. 지붕에 기와가 있는 만큼 그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대나 친구의 손에 쇠붙이가 있으면 해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대가 보는 사나운 짐승들은 모두 그대를 해치도록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즐거움밖에 보이지 않는 잘 둘러막힌 정원에 들어박히려 해도, 거기에 때로 뱀이 숨어 있습니다. 집은 늘 불이 날 위험이 있어서, 낮에는 그대에게 가난을, 밤에는 압사까지 위협합니다. 밭은 우박과 서리와 가뭄과 다른 궂은 날씨에 드러나 있으므로 그대에게 흉년과 거기서 오는 기근을 알립니다. 저는 독살과 음모와 강도질과 드러난 폭력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집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어떤 것은 밖에서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런 곤경 가운데서 사람은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살아 있으면서도 반쯤 죽은 자로서 불안하고 힘없는 숨을 간신히 이어 가니, 마치 끊임없이 목에 칼이 걸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는 이런 일들이 드물게 일어나며, 적어도 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결코 한꺼번에 다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하겠지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보다 더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움 받으므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CO 899 이런 떨림보다 더 비참한 것을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운수의 눈멀고 무모한 온갖 타격에 내맡기셨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이 운수의 지배 아래 놓인다면 느끼게 될 비참에 관해서만 말하려는 것입니다.

51. 그러나 하나님 섭리의 저 빛이 경건한 사람에게 한번 비치면, 그는 전에 짓눌리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모든 근심에서 놓이고 풀려납니다. 그는 운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안심하고 주님께 자기를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건대, 그의 위로는 이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당신의 명령과 뜻하심으로 다스리시며, 지혜로 조절하셔서, 그분의 정하심에서 나오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가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 받아들여지고 천사들의 돌봄에 맡겨져 있어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물이나 불이나 칼에 자리를 내주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한 그것들의 해가 자기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시 91:3 이하). "그분이 너를 사냥꾼의 올무와 해로운 역병에서 건지시리라. 그분이 당신의 날개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그 깃 아래서 신뢰를 얻으리라. 그분의 진리가 방패가 되리니 너는 밤의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역병과 한낮에 덮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운운.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자랑하는 신뢰도 솟아납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 118:6; 56:4).[532] "주님은 나의 보호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가 사망의 그늘 골짜기 한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나는 좋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시 27:3). 묻겠습니다. 그들의 평안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이 겉보기에 함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그들은 주님께서 어디서나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일이 자기들에게 구원이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귀나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안전을 공격한다면, 그들이 섭리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굳세어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와 악인들의

532. 원문에는 "시 56:5"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온 무리가 사방에서 하나님의 손에 고삐로 매이듯 붙들려 있어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만큼, 아니 그분이 명하시는 만큼이 아니면, 우리를 거슬러 아무 악도 품을 수 없고, 품은 것을 꾀할 수도 없으며, 아무리 꾀한다 해도 그것을 저지르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자기들을 넉넉히 위로할 근거를 얻습니다. 그들의 광포를 무장시키시고 좋게 여기시는 곳으로 돌리시고 정하시는 것이 주님께 속한 것처럼, 그들이 제멋대로 방자하게 날뛰지 못하도록 한계와 끝을 정하시는 것도 주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르신과 이스라엘 왕이 힘을 합쳐 유다를 멸하려 할 때 그 땅을 멸하고 삼키려고 횃불을 붙인 것처럼 보였지만, 선지자는 그들을 연기 조금밖에 내뿜지 못하는 연기 나는 부지깽이라고 부릅니다(사 7:4).[533] 이와 같이 바로가 재물과 힘과 군대의 수로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였을 때, 그 자신은 바다의 괴물에, 그의 군대는 물고기에 비유됩니다(겔 29: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두머리와 군대를 당신의 갈고리로 잡아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더 오래 머물지 않겠습니다만, 그대가 잘 살펴보면 섭리를 모르는 것이 모든 비참 가운데 가장 큰 비참이고, 섭리를 아는 데 가장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52.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해서는, 신자들의 견고한 가르침과 위로에 도움이 되는 만큼은 충분히 말했을 것입니다(헛된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데에는 무엇으로도 충분할 수 없고, 그것을 만족시키기를 바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구절이 가로막지 않는다면 그러합니다. 그 구절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 굳고 견고한 뜻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일들의 형편에 따라 바뀌는 뜻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듯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몇 차례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창 6:6), 사울을 왕위에 올리신 것을

533. 원문에는 “사 7:1”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는 사 7:4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후회하셨다는 것(삼상 15:11),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기로 정하셨던 재앙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돌이키는 것을 보시자마자 후회하시리라는 것(렘 18:8)이 그러합니다. 다음으로 그분의 작정이 폐기된 몇 가지 일이 전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포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회개로 더 너그러운 판결 쪽으로 마음을 굽히셨습니다(욘 3:4, 10).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죽음을 선고하셨으나, 그의 눈물과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셔서 죽음을 미루셨습니다(사 38:1, 5; 왕하 20:1, 5). 많은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으로 사람의 일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공로에 따라, 각 사람에게 공평하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대로, 해와 날과 시간마다 나누어 정하신다고 논증합니다. 후회하심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후회는 무지나 오류나 무능이 하나님께 해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면서 일부러 자기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던져 넣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후회를 돌릴 때에는 그분이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신다고 하든지, 그것을 피하실 수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곧바로 후회할 일에 성급하고 생각 없이 뛰어드신다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뜻과 거리가 아주 멀어서, 성령께서는 바로 후회를 언급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후회하실 수 없으니 후회에 이끌리지 않으신다고 부정하십니다(삼상 15:29).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하심은 영원하며 모든 후회를 넘어서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으심이 의심받지 않도록, 그분의 대적들까지도 그분께 이 증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발람은 싫든 좋든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과 같지 않으시니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무엇이든 행하지 않으시고, 이르신 것을 무엇이든 이루지 않으시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민 23:19).

53. 그렇다면 후회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곧 하나님을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려 보이는 다른 모든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CO 901 그분의 높으심에 이르지 못하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분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추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려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격정의 동요 밖에 계시면서도 죄인들에게 노하신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그분 안에 무슨 감정의 움직임이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표현이 우리의 느낌에서 빌려 온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때마다 불타오르고 노한 사람의 얼굴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후회라는 낱말 아래에서도 행하심의 바뀜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바꿈으로써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증언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바뀜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바로잡음은 후회에서 나오므로, 후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에서 바꾸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분의 뜻과 의지는 뒤집히지 않고, 그분의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떻게 보이든, 그분은 영원부터 미리 보시고 옳다 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한결같이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54. 거룩한 역사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미 선포된 멸망이 거두어졌고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선고되었는데도 그의 생명이 늘어났다고 전하지만, 그로써 하나님의 작정이 폐기되었다고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그 선언들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 선언들은 단순하게 단언하지만, 그 안에 암묵적인 조건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 목적 자체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셔서 성의 멸망을 예고하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알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멸망의 소식 없이도 그들과 그를 멸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죽음을 미리 알고 그것이 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곧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고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니느웨가 사십 일 뒤에 무너지리라고 예언하는 것은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서 더 긴 생명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그가 더 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런 위협으로, 당신이 두렵게 하신 자들을 회개하도록 일깨우셔서, 그들이 자기 죄로 받아 마땅한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 했다는 것을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맞는다면, 일의 본성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 단순한 선언 속에 암묵적인 조건을 알아듣게 합니다. 이것은 비슷한 실례들로도 확증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일로 그를 꾸짖으실 때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창 20:3). “보라, 네가 데려간 여인 때문에 네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해명한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창 20:7 참조). “그 아내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니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네가 살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첫 포고로 그의 마음을 더 세차게 뒤흔드셔서 그가 배상하는 데 마음을 쏟게 하시고, 둘째 포고로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시지 않습니까? 다른 구절들의 이치도 이와 비슷하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공포하신 것을 무효로 하셨다고 해서, 그 구절들에서 그분의 앞선 뜻이 무엇인가 깎였다고 추론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형벌을 선고하심으로써 당신이 아끼려 하시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실 때, 오히려 당신의 영원한 정하심에 길을 닦으십니다. 그분은 뜻에서 무엇 하나 바꾸지 않으시며, 말씀에서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다만 알아듣기 쉬운 것을 한 음절 한 음절 표현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이사야의 저 말씀은 참되게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사 14:27).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폐하며, 그분의 손이 펴졌은즉 누가 능히 돌이키겠느냐?”

1539–1554년판 · 제15장 기도에 관하여 (주기도문 해설)

1539–1554년판 제15장 기도에 관하여 (주기도문 해설) 1

CO 1:901–91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901 제15장

기도에 관하여. 여기서 주기도문도 풀이합니다.

1. 지금까지 논한 것에서 우리는 사람이 모든 좋은 것에 얼마나 궁핍하고 빈털터리인지, 또 구원을 돕는 모든 것이 그에게 얼마나 없는지를 분명히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궁핍을 구제할 도움을 찾는다면, 자기 밖으로 나가 다른 데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풀이된 것은, 주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기꺼이 그리고 너그럽게 당신을 내보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비참 대신 모든 행복을, 우리의 궁핍 대신 부요함을 내놓으시고, 그분 안에서 하늘 보화를 우리에게 열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온 믿음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온 기대가 그분께 달려 있으며, 우리의 온 소망이 그분께 붙어 그분 안에서 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밀하고 감추어진 철학이며, 삼단논법으로 캐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당신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하신 사람들만이 이것을 철저히 배웁니다. CO 903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아, 우리에게 필요하나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너그러우심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모두가 가장 풍성한 샘에서 길어 내듯 거기서 길어 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분 안에 있다고 배운 것을 그분 안에서 찾고 기도로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요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당신께 구하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그분께 나아가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땅에 묻혀 있다고 일러 준 보화를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참된 믿음이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서 한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이런 순서를 세웠습니다. 곧 복음에서 믿음이 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빚어진다는 것입니다(롬 10:14). 이것이 바로 그가 조금 앞에서(롬 8:26) 말한 것입니다. 곧 복음의 증언을 우리 마음에 인 치시는 양자의 영께서 우리 영을 일으켜 감히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일으키시며, 신뢰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534] 그러므로 이 마지막 것은 앞에서 지나가며 말했을 뿐이고 가볍게 건드리기만 했으므로, 이제 더 자세히 다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2.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유익으로, 하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쌓여 있는 그 부요함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는 일종의 교통이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약속들을 두고 그분 앞에서 직접 그분께 아룁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말씀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을 뿐인데도 믿었던 그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필요가 그렇게 요구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기대하라고 우리 앞에 내놓인 것 가운데, 기도로 구하라고 명령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봅니다. 주님의 복음이 알려 주어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았던 보화를 기도로 캐낸다는 것은 그만큼 참됩니다. 이제 기도의 훈련이 얼마나 필요하며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유익한지는 어떤 말로도 넉넉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구원의 유일한 방패가 있다고 증언하시는 것은 참으로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름으로 우리는

534. 원문은 이 대목 전체에 롬 8:26만 적었습니다. 양자의 영과 "아빠,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은 롬 8:15–16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롬 8:26에 나옵니다.

그분의 임재를 불러들입니다. 곧 우리 일을 돌보려고 깨어 지키시는 그분의 섭리와, 연약하고 이제 곧 쓰러질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능력과, 죄에 비참하게 짓눌린 우리를 은혜 안으로 받아 주시는 그분의 선하심의 임재를 불러들입니다. 마침내 이 부름으로 우리는 그분 자신을 온전히 불러, 우리에게 당신을 가까이 나타내 보이시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 양심에 남다른 안식과 평온이 생깁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필요를 주께 아뢰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불행도 그분께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넉넉히 쉽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고 또 가장 좋게 돌보실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일러 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어디에서 짓눌리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치 눈감고 계시거나 잠들어 계시다가 우리 목소리에 깨어나시기라도 할 것처럼 우리 기도로 그분을 조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쓸데없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주께서 무슨 목적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기도를 제정하셨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비참에 무디고 둔해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깨어 지키시고, 때로는 부르지 않아도 도우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모든 필요 가운데 거룩한 닻에 피하듯 그분께 피하는 데 익숙해지는 동안, 우리 마음이 그분을 늘 찾고 사랑하고 섬기려는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불붙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그분의 눈앞에 내놓고 마음을 온통 쏟아 놓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분을 증인으로 삼지 못할 어떤 욕심도, 어떤 소원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손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기도로 깨닫게 되는 그분의 은택들을 참된 마음의 감사로, 또 감사의 말로 받을 준

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한 것을 얻었을 때 그분이 우리 소원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여 그분의 인자하심을 더 뜨겁게 묵상하게 되고, 동시에 기도로 얻었다고 깨닫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끌어안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필요가 닥친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을 부를 길을 스스로 열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동안, 그분의 섭리가 우리의 연약함의 분량에 맞추어 우리 마음에 굳게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주무시거나 무기력하지 않으시지만, 흔히 주무시고 무기력하신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우리의 큰 유익을 위해, 당신께 구하고 간청하고 조르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도에서 떼어 놓으려고, 만물을 지키며 깨어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조름으로 헛되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지껄이는 자들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주께서는 반대로, 당신은 진실하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헛되지 않게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시 145:18). 주께서 스스로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쓸데없다고 다른 이들이 떠드는 것도 조금도 낫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발적인 인자하심에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바로 그것들도 우리 기도에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 그런데 기도를 바르고 알맞게 드리기 위한 첫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울리게 정신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정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고 순수하게 바라보는 데서 정신을 불러내거나 끌어내릴 수 있는 육적인 걱정과 생각에서 벗어나, 정신이 온전히 기도에 쏠릴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자신을 넘어 들어 올려지고 높이 오를 때, 우리는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CO 905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어떤 염려에도 찔리거나 물리지 않을 만큼 풀려난 정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근심으로 기도의 열심이 우리 안에 불붙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깊은 구렁에서, 죽음의 아가리 한가운데서 주께 탄식하는 목소리를 올린다고 말할 때, 그들은 염려는 물론이고 엄청난 고통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신을 이리저리 떠돌게 하고 하늘에서 끌어내려 땅에 처박는 모든 낯설고 바깥의 걱정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신이 자기 자신을 넘어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것은, 눈멀고 어리석은 우리 이성이 늘 꾸며 내는 것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말고, 자기 헛됨의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순수함으로 솟아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곳곳에서 심하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많은 사람이 경솔하게, 염치도 없이, 경외심도 없이 자기의 어리석은 일로 하나님을 조르고, 꿈속에서 떠오른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재판석 앞에 뻔뻔하게 내놓을 뿐 아니라, 대부분은 너무나 어리석거나 둔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조차 몹시 부끄러울 가장 더러운 욕심까지 감히 하나님께 들이밉니다. 이제 마음도 온 힘을 다해 같은 곳을 바라고 따라가야 합니다. 정신의 눈이 하나님께 쏠렸듯이, 마음의 열의와 정서도 진지하게 그분께로 향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이런 완전함에 미치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한참 아래에 머물러 있으며, 더 정확히 말하면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므로(롬 8:26), 그분이 도우러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기도하시거나 탄식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힘으로는 결코 품을 수 없던 신뢰와 소원과 한숨을 우리 안에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직무를 하나님의 영께 떠넘기고 그동안 우리는 게으르게 손 놓고 있으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경건하게, 성령께서 딴 데 팔린 우리 생각을 앞서 이끄실 때까지 하품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싫어하여,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5. 둘째 법칙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존귀함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벗어 버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 영광을 주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돌린다면, 우리는 헛되이 부풀어 오른 채 그분의 얼굴 앞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이런 낮춤의 예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자주 봅니다. 그들 가운데 더 거룩한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만큼 더 크게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그토록 큰 칭찬으로 인정하신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단 9:18). “우리가 주 앞에 간구를 쏟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 자신을 위하여 이루소서. 주의 백성과 주의 거룩한 곳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이런 형식으로 기도합니다(사 64:5).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세상은 주의 길에 기대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함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워진 옷과 같으며, 우리는 모두 잎사귀처럼 시들었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흩어 버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일어나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 죄악의 손에 우리를 녹아내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주여, 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보소서, 돌아보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오직 이 하나, 곧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말고는 아무 신뢰에도 기대지 않으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들을 돌보시리라는 것을 절망하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다르지 않습니다(렘 14:7).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증언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또 누가 썼든지 간에, 지은이가 분명하지 않은 채 선지자 바룩의 것으로 돌려지는 글에 적힌 말은 참으로 지극히 참되고 거룩합니다(바룩서 2:18). "주여, 악의 크기 때문에 슬프고 황폐한 영혼, 굽고 연약한 영혼, 굶주린 영혼과 흐려진 눈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간구를 쏟고 주의 얼굴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것은 조상들의 의를 따라서가 아닙니다. 주는 긍휼이 많으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6. 그런데 성도들이 때때로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자기 의의 도움을 끌어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내 영혼을 지키소서. 나는 선합니다"라고 말하고(시 86:2), 히스기야도 "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하게 주 앞에서 행하고 주의 눈앞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왕하 20:3). 이런 말투로 그들이 뜻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중생 자체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눈이 의인들 위에 있고 당신의 귀가 그들의 기도에 기울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시 34:15).[535] 또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고 가르치십니다(요일 3:22). 이런 말씀들로 그분은 기도의 값을 행위의 공로에 따라 매기시는 것이 아니라, 꾸미지 않은 정직과 결백을 스스로 바르게 의식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굳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신자가 마땅히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CO 907 요한복음에서(요 9:31) 눈이 밝아진 맹인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자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들을, 의를 바라는 마음 없이 온통 자기 죄 속에 잠들어 안주하는 사람들로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경건을

535. 원문에는 "시 34: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는 절수이므로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함께 바라지 않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르는 데로 터져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기의 순수함이나 결백함을 언급하며 간청하는 것은 이런 약속들에 상응하는 것이며,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종이 기대해야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느끼고자 합니다. 또 그들이 이런 기도 형식을 쓴 것은 대개 주 앞에서 자기를 원수들과 견주며, 원수들의 불의에서 그분의 손으로 건져지기를 바랄 때였습니다. 이런 견줌에서 그들이 자기의 의와 마음의 순전함을 내세운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안 자체의 정당함으로 주께서 더욱 자기들을 도우시도록 움직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마음에서 이 좋은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곧 그가 주 앞에서 자기 순수함을 의식하는 것을 누려, 주께서 당신의 참된 예배자들을 위로하시는 약속들 안에서 자신을 굳게 하는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얻으리라는 신뢰가 자기 공로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기대기를 원합니다.

7. 셋째 법칙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궁핍을 참으로 느끼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참으로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 사함을 구하면서도 그동안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꾸밈보다 주께 더 가증하고 저주스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자신이 노골적으로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이런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저 의무를 치르려고 주께 많은 것을 자주 조르지만, 그것들이 다른 데서 자기에게 오거나 주님의 선하심 없이도 이미 자기에게 있다고 확실히 판단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진지한 마음의 소원으로 불타오르고 동시에 그분께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면, 주께 무엇을 구하는 듯이 보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들도 큰 열망의 뜨거움과 열기로 구해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할 때, 이를테면 그 거룩히 여김에 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 규칙으로 우리는 모든 위선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교활함이 기도에서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진실하게 당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온 마음으로 찾는 자들은 찾으리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렘 29:13).

8. 마지막 넷째 법칙은 들어주시리라는 확실한 소망으로 기도하도록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신뢰는 정신을 모든 근심의 느낌에서 풀어 완전한 고요 속에 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쉬는 것은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서 아무 열망에도 타오르지 않는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박차는, 그들이 자기의 필요에 얽매여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자기 안에서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를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은 지금의 불행의 무게에 지쳐 탄식하고 더 큰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시달리면서도,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견디기 어려움을 스스로 위로하고 결말과 건지심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이 두 정서에서 솟아나야 하고, 또 이 둘을 함께 담고 드러내야 합니다. 곧 자기 불행에 탄식하고 새로운 불행을 근심하며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이 도움의 손을 내미시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는 은혜를 그분께 구한다면, 우리의 불신이 주를 얼마나 노엽게 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에 이런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야고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든든히 여기지 못하여 그분의 진실하심을 의심하고, 그래서 들으실지 의심하고 망설이며 그분을 부르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며(약 1:6), 그들을 바람에 이

리저리 밀려 요동하는 물결에 견줍니다. 또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토록 자주 단언하시니,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 주십니다. 결국 기도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든 믿음이 얻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롬 10: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는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너그러우심이 먼저 친숙해진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9. 우리 대적들은 이 필연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로우시고 호의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한 마음의 신뢰로 굳게 붙들라고 명하면,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기도를 조금이라도 해 보았다면,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그 굳은 감각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경험으로 믿음의 힘을 느껴 본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그 힘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으니, 헛된 상상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놓고 보여 주는 이런 사람들과 논쟁해서 그대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그 확신이 얼마나 힘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몹시 무딘 양심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눈먼 자들을 내버려 두고, 바울의 저 말씀에 못 박힌 듯 붙어 있읍시다. 곧 복음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이 자기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확실히 확신하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 주여, 주께서 제 말을 들으실 뜻이 있으신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근심에 짓눌려 주께 피합니다. 제가 합당하다면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기도를 읽는 모든 성도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CO 909 또 성령께서도 사도를 통하여 우리

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하늘 보좌로 나아가라고 명하시고(히 4:16),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신뢰 가운데 나아감을 얻었다고 가르치십니다(엡 3:12).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명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기 본보기로 가르치는 이 안심, 곧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안심을, 우리가 열매 있게 기도하고자 한다면 두 손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결국,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믿음의 그런 담대한 기대(praesumptio)에서 나오고, 두려움 없는 소망의 확실함 위에 세워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10.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이 안심을 우리의 비참과 궁핍과 더러움을 깨닫는 것과 연결할 때, 그 안심이 이 깨달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넉넉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인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얻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음을 본다면, 이런 느낌이 우리를 겁주어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 자신을 그런 자로 생각하고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눅 17:10).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것을 대단히 여기라고 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앙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슬피 아뢰라고 제정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스스럼없이 자기 하소연을 털어놓듯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느낌은 우리를 더욱 기도하도록 재촉하는 박차와 막대기 같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본보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웁니다. 그는 말합니다(시 41:4).[536]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불행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찌르는 이 가시에,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도에 힘쓰도록 세차게 몰아가실 두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명령과, 우리가 구

536. 원문에는 "시 41:5"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는 절수이므로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으리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명령은 거듭거듭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내게로 오라”, “나를 찾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율법의 셋째 계명에서도 그렇습니다(출 20:7). 거기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금지를 받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금지받는 데서, 동시에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일컬으라는 명령도 받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능력과 선과 도움과 보호를 그분께 구하고 기대하면서, 그 모든 찬양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필요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그분께 피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신들을 만들거나 우상을 지어 내는 것과 다름없이 그분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모든 계명을 멸시하는 데서와 똑같이 그분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모든 망설임에서 풀어 주는 데 이 생각보다 더 강한 것을 생각해 낼 수 없었습니다. 곧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어떤 장애물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부르고 찾는 사람들은 큰 위로를 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그분의 뜻을 섬기고 따르며, 그래서 그분이 받으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순종보다 당신께 더 기쁜 것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11. 그러나 그들은 약속에서 더욱 달콤한 위로를 받습니다. 얻으리라는 신뢰는 온전히 이 약속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많고 지극히 너그러운 약속으로 우리를 거듭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마 7:7).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렘 29:12).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라.” 또(시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또(시 91:15) “그가 내게 부르짖었으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중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이런 종류의 약속은 셀 수 없이 많으므로, 맛보기만 보인 것으로 넉넉할 것입니다. 그래도 특별히 기억해 둘 만한 뚜렷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시 145:18). “주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자,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또(사 30:19) “네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이 들으시자마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그리고 듣는 데 더디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사 65: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요,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내가 들으리라.”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은 세상의 무서운 흔들림에 관한 예언 바로 뒤에 붙은 이 말씀입니다(욜 2:32).[537]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일은 이런 초대를 의지하여, 우리가 들어주심을 얻을 도움을 거기서 넉넉히 얻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구한 것을 얻어 내는 것은 기도의 공로나 존귀함이 아니라, 들어주시리라는 소망이 온전히 이런 약속들에 놓여 있고 그것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어느 성도가 들음을 받았던 것보다 우리가 조금도 덜 들음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삶의 거룩함을 지녔다 하더라도). 다만 우리가 같은 믿음, 똑같이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말입니다. 다른 점에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못하지만, 이 점에서는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도의 명령과 같은 들어주심의 약속으로 갖추어지고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부름받기만 하시면, 기도의 값을 사람의 존귀함으로 매기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 때문에 매기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신자들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삼하 7:27; 대상 17:25). “보소서, 주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그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537. 원문에는 “욜 3:5”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의 장 나눔이므로 개역한글의 장절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마음을 가다듬어 주 앞에서 드릴 기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의 말씀은 참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시작하시고 이루소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며 자기 기도를 든든히 한 것도 바로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CO 911 이 점에서 그들은 조상들, 특히 야곱의 본을 따랐습니다. 야곱은 주의 손에서 받은 그 많은 긍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한 뒤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더 큰 은택을 구할 용기를 얻었습니다(창 32:9).

12. 그런데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보이고 그분의 눈앞에 나아갈 만한 자는 아무도 없으므로,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마음을 꺾어 놓았어야 할 이 당혹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이십니다(딤전 2:5; 요일 2:1; 히 8:6; 9:15). 그분의 인도로 우리는 아버지께 안심하고 나아가며, 이런 간구하시는 분을 신뢰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거절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께 아무것도 거절하실 수 없듯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는 위엄의 보좌일 뿐 아니라 은혜의 보좌여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온전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타나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히 4:15–16). 또 하나님을 부르라는 법이 세워졌고 부르는 자들은 들음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듯이,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라는 명령을 받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요 14:13;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고집스럽게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그분의 뜻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요, 무엇을 얻으리라는 약속도 전혀 없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기 때문입니다(고후 1:20). 곧 굳게 서고 이루어집니다.

13. 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요(요 14:6) 유일한 나아감의 문이시므로, 이 길에서 벗어나 이 나아감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가는 어떤 길도 나아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좌에는 진노와 심판과 공포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끝으로, 아버지께서 그분을 우리의 머리요 인도자로 표시하셨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그분에게서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찍으신 표를 지우고 위조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로 세워지셨으니, 그분의 간구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물론 그동안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간구가 남겨져 있어서, 그들은 서로 다른 이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사도가 딤전 2:1에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들은 저 유일한 간구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그것에서 무엇을 덜어 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간구들은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끌어안는 사랑의 정서에서 솟아나듯이, 머리의 하나됨에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간구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모든 사람의 어떤 기도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간구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서로 변호해 주는 것을 막지 않으시듯이, 온 교회의 모든 간구는 저 유일한 간구로 향해야 한다는 것도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14. 또 궤변가들이 더듬거리며 하는 말, 곧 그리스도는 구속의 중보자이

시고 신자들은 간구의 중보자라는 말은 순전한 헛소리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인 중보직을 마치시고, 영원하며 결코 끝나지 않을 중보직은 당신의 종들에게 넘기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께 그 보잘것없는 영예의 몫을 떼어 드리는 자들은 참으로 그분을 친절하게도 대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기꾼들을 내버려 두고 성경의 단순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할 때(요일 2:1), 그는 그리스도께서 한때 우리의 변호자이셨다고 이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분께 영원한 간구를 돌리는 것입니까? 또 바울이 그분은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롬 8:34)? 또 다른 곳에서(딤전 2:5) 그분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부를 때, 그는 조금 앞에서 언급한 기도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야 한다고 먼저 말한 뒤, 그 말을 확증하려고 곧바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말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기도로 서로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위해 간구하지 않고 그 자신이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이, 그가 유일하고 참된 중보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 아래에서 으뜸가는 지체였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였으므로,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크고 가장 참된 제사장이 모형으로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뚜렷하고 굳은 진리로 하늘 깊은 곳, 상상이 아닌 영원한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자신도 신자들의 기도에 자기를 부탁합니다. 그는 자기를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지체들은 서로 돌아보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머지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고전

12:25). 이와 같이 아직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가 서로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앞서 가신 머리께 올라갑니다. 그분 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중보자라면 다른 사도들도 분명 중보자일 것이고, 그러면 중보자가 많을 것이며, 바울 자신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고 한 말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매는 줄로 믿음의 하나됨을 지키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CO 913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제사장을 찾는다면,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땅에서 그대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거기서 그대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의 무릎 앞에 엎드려 우리를 위해 간절히 비신다고 꿈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와 함께,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죽음의 능력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간구로 효력을 낸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세상 끝날까지 홀로, 멀리 뜰에 머물러 있는 백성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신다고 이해합니다.

15.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돌린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에게도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다른 길이 있다거나, 다른 이름으로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꿈꾸지 맙시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불러 돌이키고,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다시 모으기를 원하시는데도, 그분 없이는 성도들에게도 아무 나아갈 길이 열려 있지 않은데, 그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꾀하다가 그분에게서 끌려 나가게 된 것은, 미친 짓이라고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지나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몇 세기 동안 행해져 왔고 오늘날에도 교황제가 성한 곳마다 행해지고 있음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들의 공로가

거듭 들이밀어지고, 그리스도는 지나쳐 버린 채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묻건대,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그리스도께 돌린 저 유일한 간구의 직무를 그들에게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또 천사든 마귀든 누가 그들이 꾸며 내는 그런 성도들의 간구에 관해 사람에게 한 마디라도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꾸며 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사람의 재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갖추어지지 않은 이런 도움을 찾아다닐 때, 그것은 자기 불신을 환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간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의 양심에 물어보면, 그 일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들이 근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모자라시거나 너무 엄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당혹으로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유일한 중보자라는 칭호를 그분에게서 빼앗습니다. 이 칭호는 아버지께서 특별한 특권으로 그분께 주신 것이므로 다른 데로 옮겨져서는 안 됩니다. 또 바로 이 일로 그들은 그분의 나심의 영광을 흐리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며, 끝으로 그분이 행하시거나 당하신 모든 것에서 그 영예를 벗기고 빼앗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만이 중보자이시고 중보자로 여겨지시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던집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기 형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향해 형제의 정을 품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것을 아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다 더 부드럽고 다정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그분만을 우리에게 내놓고, 우리를 그분께 보내며, 그분 안에 우리를 세웁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께 말하는 우리의 입이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보는 우리의 눈이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오른손이십니다. 그분이 간구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6. 그런데 어리석음이 여기까지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미신의 본성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미신은 한번 고삐를 벗어던지면 방종에 끝이 없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의 간구를 바라보기 시작한 뒤로, 차츰 성도마다 저마다 맡은 일이 돌려져서, 일의 종류에 따라 이번에는 이 성도가, 다음에는 저 성도가 간구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성인을 모셔 들여, 마치 수호신들에게 하듯 그들의 보호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선지자가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처럼(렘 11:13) 성읍의 수대로 신들이 세워졌을 뿐 아니라, 머릿수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소원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뜻을 바라보며 그 뜻 안에서 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말고 다른 기도를 그들에게 돌리는 자는 그들에 관해 어리석고 육적으로, 또 욕되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덮어씌우는 것, 곧 성도마다 사사로운 정으로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더 기운다는 것은 이와 아주 거리가 멉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이 끔찍한 신성 모독도 삼가지 않고, 성도들을 이제 변호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구원의 주관자로서 불렀습니다. 보십시오, 가련한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한 자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헤맬 때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17. 어떤 이들은 이런 간구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지만, 헛수고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천사들의 기도가 자주 나오며, 그뿐 아니라 신자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삶을 마친 성도들을 천사들과 견주고 싶다면, 그들이 섬기는 영들이어서 우리 구원을 돌보는 직무를 맡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는 임무를 받았으며, 우리 둘레를 돌고, 우리에게 일깨우고 위로하며, 우리를 위해 파수 서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천사들에게는 돌려지지만, 성도들에게는 전혀 돌

려지지 않습니다. 또 주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렘 15:1).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그들이 산 자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죽은 자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반대로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도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므로, 그때 죽은 자들의 간구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아 있는 동안 이 일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멀찍이 앞질렀는데, 그 모세가 가만히 있는데도 어느 성도가 백성의 구원을 위해 애쓴다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CO 915 그러므로 그들이 이런 하찮은 궤변을 좇아 “주께서 ‘그들이 간구한다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으니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위해 간구한다”고 한다면, 저는 훨씬 더 그럴듯하게 이렇게 논증하겠습니다. “ ‘모세가 간구한다 할지라도’ 라는 말을 들은 그 모세가 백성의 극한 필요 가운데서 간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아무도 간구하지 않았을 것이 사리에 맞다. 모든 사람이 인정과 선함에서 모세에게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트집을 잡다가, 스스로 멋지게 무장했다고 여긴 바로 그 무기에 상처를 입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말씀을 이렇게 비트는 것은 몹시 우스운 일입니다. 주께서는 다만, 전에 그 기도를 그토록 너그러이 들어주셨던 모세나 사무엘 같은 변호자가 그 백성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에스겔의 비슷한 구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겔 14:14).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성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아들딸을 건지지 못하고 자기 목숨만 건지리라.” 여기서 그분이 그 가운데 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라는 뜻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사람, 곧 다니엘은 그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때 아직 젊음의 꽃다운 시절에 비할 데 없는 경건의 본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자기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분명히 보여 주는 사람들은 내버려 둡시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에 관해 말할 때(행 13:36), 그가 기도로 후손을 돕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다만 그가 자기 시대를 섬겼다고 가르칩니다.

18.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경건과 긍휼만을 숨 쉬던 그들에게서 경건의 모든 소원을 벗겨 버리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캐묻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개별적인 소원으로 이리저리 떠돈다는 것은 결코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그 나라는 신자들의 구원 못지않게 불경건한 자들의 혼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참이라면, 그들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에 담겨 있으며 그 교통의 본성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넓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렇다고 곧바로 우리가 그들을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들의 기도에 자기를 부탁할 수 있다는 데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 일은 그들 안에서 사랑을 기르는 직무에 이바지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이를테면 나누어 맡고 서로 떠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하며, 약속도 없지 않습니다. 이 둘은 기도에서 언제나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이런 이유들이 모두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사는 자리에서 데려가셨을 때, 우리에게 그들과 아무 교류도 남겨 두지 않으셨고, 우리가 추측으로 미칠 수 있는 한, 그들에게도 우리와 아무 교류를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묶여 있는 만큼 우리를 향한 같은 사랑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해도, 그들에게 우리 목소리에까지 닿을 만큼 긴 귀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의 필요를 지켜볼 만큼 밝은 눈이 있다는 것을 누가 계시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그늘진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성도들을 비추어 성도들이 그 광채 안에서 거울을 보듯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일을 내려다본다고 무언지 모를 소리를 지껄입니다. 그러나 특히 그들이 감히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으로 이것을 단언하는 것은, 우리 머리의 취한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심판에 뚫고 들어가 그것을 깨뜨리고, 성경을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육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원수라고 그토록 자주 선언하며, 우리 마음의 허망함을 통틀어 정죄하고, 우리의 모든 이성을 엎드러뜨린 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9. 그들이 이 거짓을 변호하려고 끌어대는 성경의 증언들은 몹시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자기 후손 위에 일컬어지기를 구합니다(창 48:16).”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 부름의 형식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그들은 조상들에게 자기를 도와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본보기는 성도들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자들을 전혀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통나무 같은 자들은 그 둔함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왜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므로, 그들이 그 형식에서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비틀거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말투는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남편으로 삼아 그들의 신의와 보호 아래 살 때, 그 남자들의 이름이 여자들 위에 일컬어진다고 말합니다(사 4:1).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일컬어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혈통의 시작을 그에게 돌리고, 그를 자기의 시조와 조상으로 높이 기억하여 기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의 명성을 퍼뜨리는 데 마음을 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후손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으신 언약의 유업에 달려 있음을 알았고, 그 언약이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 가운

데 최고가 되리라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자기 혈통으로 여겨지기를 빈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계승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손은 후손대로 기도에 그런 기억을 담을 때, 죽은 자들의 간구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아룁니다. 그 언약으로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아 그들에게 은혜롭고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조상들의 공로에 얼마나 기대지 않았는지는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교회의 공적인 목소리가 증언합니다(사 63: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라.”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주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사 63:17 참조)라고 덧붙이지만, 아무 간구도 생각하지 않고 언약의 은택에 마음을 둡니다.[538]

538. 이 문장의 끝부분은 다음 편 원문 첫머리에 이어집니다. 문장을 끊지 않으려고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15장 기도에 관하여 (주기도문 해설) 2

CO 1:917–93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917 [539]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주 예수께서 계시고, 그분의 손으로 영원한 긍휼의 언약이 우리에게 맺어졌을 뿐 아니라 굳게 세워졌으니, 우리가 기도에서 내세울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보다 나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20.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도들의 기도가 들음을 받았다는 기록을 자주 읽는다는 데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왜 들음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시 22:4–5).[540] "그들이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었고, 부르짖었으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의 본을 따라 기도하여, 그들처럼 들음을 받읍시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한 것과 반대로 거꾸로 따집니다. 한번 들음을 받은 자들 말고는 아무도 들음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얼마나 더 잘 말합니까? 그는 말합니다(약 5: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어떻습니까? 그가 엘리야의 어떤 특별한 특권을 끌어내어, 우리가 그 특권에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경건하고 순수한 기도의 변함없는 능력을 가르쳐,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도록 권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로 그분의 약속들을 더 확실히

539.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540. 원문에는 "시 22:5"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는 절수이므로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신뢰하도록 굳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성도들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기꺼우심과 인자하심을 나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에서 그분은 한두 사람이나 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1. 기도에는(지금 우리가 이 이름을 받아들이는 뜻으로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간구와 감사입니다. 바울이 열거하는 기도의 여러 종류(딤전 2:1)는 모두 이 나눔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그분의 선하심에 먼저 오직 그분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것을 구하고, 다음으로 우리의 쓰임에도 유익한 것을 구합니다. 감사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행을 알아보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어디에 있는 좋은 것이든 모든 좋은 것을 그분의 선하심 덕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써서 한 구절에 이 둘을 다 담았습니다(시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쓰여야 합니다(눅 18:1; 21:36; 엡 5:20). 우리의 궁핍이 그토록 크고, 그토록 큰 곤궁이 사방에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짓누르므로, 모든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한숨지으며 간절히 그분을 부를 까닭이 넉넉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행이 그토록 크고 넘치게 베풀어져 우리를 거의 덮어 버리고, 어디를 보든 그분의 기적이 그토록 많고 크게 보이므로,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의 이유와 재료가 모자랄 때는 결코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부요함이 하나님 안에 놓여 있어서(이것은 앞에서 넉넉히 증명했습니다) 그분의 복 주심 없이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도 형통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께 부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또 무엇을 계획하든, 말하든, 행하든, 그분의 손과 뜻 아래에서, 끝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소망 아래에서 계획하고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약

4:13). 자기나 다른 누구를 신뢰하여 계획을 꾸미고 정하는 자들, 그분의 뜻 밖에서 그분을 부르지도 않고 무엇을 꾀하거나 시작하려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선언되기 때문입니다(사 30:1; 31:1).

22. 그런데 그분을 모든 좋은 것의 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서 받되 끊임없는 감사로 응해야 한다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그분의 너그러우심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이르는 그분의 은택들을, 우리가 그분의 찬양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데에도 끊임없이 힘쓰지 않으면서 누릴 정당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증언하면서(딤전 4:5), 동시에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 줍니다. 그는 환유법으로 말씀이라는 말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맛본 뒤, 새 노래가 자기 입에 주어졌다고 멋지게 말합니다(시 40:3).[541] 이로써 그는 우리가 그분의 어떤 은택을 찬양 없이 지나친다면 그것은 악한 침묵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 줍니다. 그분은 선을 베푸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찬송할 재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살전 5:17; 딤전 2:1, 8)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는 까닭입니다. 곧 그는 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모든 때에,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져, 모든 것을 그분께 기대하고 모든 것의 찬양을 그분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이유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이 끊임없음은 특히 각 사람의 고유하고 사사로운 기도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교회의 공적인 기도와도 얼마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기도는 끊임없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의 공통된 합의로 정해진 질서를 따르는 것 말고 다르게 드려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 미리 두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541. 원문에는 “시 40:4”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는 절수이므로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사람들의 쓰임에는 필요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의 편의를 돌보고, 바울의 말대로 교회에서 모든 것이 적당하고 질서 있게 행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고전 14:40). 그러나 이것이, 각 교회가 기도를 더 자주 하도록 거듭 스스로 재촉하고, 또 더 큰 어떤 필요가 일깨울 때에는 더 뜨거운 열심으로 타오르는 것을 조금도 막지 않습니다. CO 919 끊임없음과 매우 가까운 끝까지 견딤에 관해서는 끝 무렵에 말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중언부언(battologia)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마 6:7). 그분은 오래, 자주, 많은 정성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설득되셔야 하는 분인 듯이 수다스러운 말로 그분의 귀를 먹먹하게 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억지로 얻어 낼 수 있다고 믿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23. 그런데 기도의 목표는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져 찬양을 고백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이것에서 기도의 으뜸가는 부분이 정신과 마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 자체가 본래 마음 깊은 곳의 정서여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아뢰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가장 좋은 법을 주시려 했을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마 6:6). 그분은 기도를 야심 차게 과시하여 사람들의 호의를 사냥하던 위선자들의 본에서 우리를 떼어 놓으신 뒤에, 곧 무엇이 더 나은지를 덧붙이십니다. 곧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려가 깊이 들어가도록 돕는 물러남을 찾으라고 가르치셨고, 그런 마음의 정서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그분의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유

익하다는 것을 부인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은밀한 어떤 것이어서 무엇보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온갖 걱정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음의 고요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더 힘써 기도에 전념하려 하실 때 사람들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도 까닭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으로, 우리 마음을 진지한 기도의 열심으로 더 쏠리게 하는 이런 도움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면 사람들의 무리 한가운데서도 기도를 삼가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필요할 때마다 모든 곳에서 깨끗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딤전 2:8).

24. 더 나아가 신자들의 공동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되었듯이, 그 기도를 드리도록 정해진 공적인 예배당도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기도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골방에 들어간다는 핑계를 잘못 쓸 까닭은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은(마 18:20), 공개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시와 사람의 하찮은 영광을 사냥하는 일이 물러가고, 마음의 은밀한 곳에 깃든 진실하고 참된 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당의 정당한 쓰임이라면(분명히 그렇습니다), 다시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곧 (몇 세기 전부터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했듯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거처로 여기거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만드는 무언지 모를 은밀한 거룩함을 예배당에 덮어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부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둔한 생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맡겨 둡시다. 우리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주를 부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요 4:23).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도와 제물을

드리도록 성전이 봉헌되었지만, 그때는 진리가 그런 그림자 아래 모형으로 숨어 있던 때였습니다. 이제 그 진리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드러났으므로, 우리가 어떤 물질의 성전에 매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도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벽 안에 가두라는 조건으로 맡겨진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의 형상을 바라보도록 훈련받게 하려고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사신다고 어떤 식으로든 생각한 자들은 이사야(사 66:1)와 스데반(행 7:48)에게 무겁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25. 또 여기서 더없이 분명한 것은, 목소리도 노래도(기도에 끼어든다면) 마음 깊은 정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무게도 없고 털끝만큼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술 끝과 목구멍에서만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남용하고 그분의 위엄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선지자를 통하여 단언하시는 대로입니다(사 29:13; 마 15:8 참조).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중에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장로들의 명철이 사라지리라.”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목소리나 노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서를 동반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크게 권합니다. 그것들은 정신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훈련시키고 집중하게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미끄럽고 잘 변하므로, 여러 도움으로 받쳐 주지 않으면 쉽게 느슨해지고 여러 데로 흩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의 각 부분에서 빛나야 하므로, 특히 혀가 노래로든 말로든 이 섬김에 바쳐지고 드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혀는 특별히 하나님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전파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혀를 가장 잘 쓰는 것은 신자들의 모임에서 드리는 공적인 기도에서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한 영과 같은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이를테면 한 입으로 함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받고, 그 본을 보고 초대받고 자극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26. 교회에서 노래하는 예식은(이것도 지나가며 말하자면) 매우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사도들도 썼다는 것이 분명하며, 바울의 이 말에서 그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전 14:15). 또 골로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골 3:16).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라.” 앞의 구절에서 그는 목소리와 마음으로 노래해야 한다고 명하고, 뒤의 구절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서로 덕을 세우는 신령한 노래를 권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이 모든 곳에 퍼져 있지는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암브로시우스 때에 와서야 밀라노 교회가 노래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그때 발렌티니아누스의 어머니 유스티나가 정통 신앙을 거슬러 사납게 날뛰어서 백성이 여느 때보다 더 끈질기게 밤샘 기도를 하고 있었으며,[542] 그 뒤 나머지 서방 교회들이 이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 앞에서 이 관습이 동방 교회들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재고록』 둘째 권에서 그의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이 관습을 받아들였다고 밝힙니다. 그는 말합니다. “호민관을 지낸 힐라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때 카르타고에서 시작된 관습, 곧 봉헌 전에나 봉헌된 것을 백성에게 나누어 줄 때에 시편에서 가져온 찬송을 제단에서 부르는 관습을, 할 수 있는 곳마다 악담하며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저는 형제들의 요청으로 그에게 답했습니다.” 분명히 노래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어울리는 진지함에 맞추어진다면, 거룩한 예식에 품위와 아름다움을 더할 뿐 아니라, 마음을 일깨워 참된 기도의

542. 유스티나(Iustina)는 서방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2세의 어머니로, 아리우스파를 편들어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와 맞섰습니다. 원문은 “lu^ina” 로 깨져 있습니다.

열심과 뜨거움으로 이끄는 데 매우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말씀의 영적인 뜻보다 가락에 더 쏠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디에선가 이 위험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하며, 때로는 아타나시우스가 지켰던 관습, 곧 낭독자에게 아주 적은 목소리의 굴곡으로 소리 내게 하여 노래하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에 더 가깝게 하라고 명했던 관습을 세우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래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를 떠올리면 다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제를 지킨다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고 매우 유익한 제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직 달콤함과 귀의 즐거움을 위해 지어진 노래는 무엇이든 교회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 이것으로도 분명한 것은, 공적인 기도를 (지금까지 곳곳에서 해 왔듯이) 라틴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어로, 프랑스 사람들이나 잉글랜드 사람들 사이에서 라틴어로 드려서는 안 되고, 온 회중이 두루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백성의 말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기도는 온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드려야 마땅한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에서는 아무 열매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나 인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적어도 바울의 권위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그의 말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고전 14:16).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자의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네 축복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 사도가 이토록 공공연히 반대하여 외치는데도 외국말로 장황한 기도를 우렁차게 울리기를 겁내지 않는 교황주의자들의 고삐 풀린 방종에 누가 넉넉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 기도에서 때로 자기들도 한 음절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다르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는 말합니

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 14:15 참조). 그는 영이라는 낱말로, 사람의 목구멍의 숨과 공기의 부딪침으로 만들어지는 입의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공적인 기도에서든 사사로운 기도에서든, 마음 없는 혀가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하지 않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정신은 생각의 뜨거움으로 불붙어서, 혀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넘어서야 합니다. 끝으로, 사사로운 기도에는 혀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속의 감정이 스스로를 일깨우기에 넉넉하지 못하거나, 감정이 거세게 일어나 혀의 움직임을 함께 끌고 갈 때는 다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때로 목소리가 없지만, 정신의 정서가 솟구칠 때 혀는 소리로, 다른 지체들은 몸짓으로 과시 없이 터져 나오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저 분명치 않은 중얼거림(삼상 1:13)도 바로 여기서 나왔고, 모든 성도는 끊어지고 토막 난 말로 터져 나올 때 그와 비슷한 것을 늘 자기 안에서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흔히 지키는 몸의 자세, 곧 무릎 꿇기와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공경하는 데로 오르려고 애쓰는 훈련입니다.

28. 이제 기도하는 더 확실한 방법뿐 아니라 그 형식 자체도 배워야 합니다. 곧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형식입니다(마 6:9 이하; 눅 11:2 이하).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필요 가운데 당신을 찾으라고 일깨우고 권하실 뿐 아니라(자녀들이 무슨 근심에 시달릴 때마다 부모의 보호에 피하곤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가난이 얼마나 궁색한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도 넉넉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보셨으므로, 우리의 이 무지에도 대처하셔서 우리의 이해에 모자란 것을 친히 당신의 것으로 채우고 보충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한 형식을 지어 주셔서, 당신께 구해도 되는 모든 것, 우리에

게 유익한 모든 것, 구해야 할 모든 것을 이를테면 한 판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이 인자하심에서 우리는 큰 위로의 열매를 얻습니다. 거의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로 구하는 우리는 어리석은 것도, 낯설거나 때에 맞지 않는 것도, 끝으로 그분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신께 소원을 아뢸 때 무지하여,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들에게 몹시 해로운 일이 자주 있는 것을 보고, 옛 시인에게서 가져온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라고 선언합니다. “유피테르 왕이시여,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악한 것은 우리가 구하더라도 멀리 물리쳐 주소서.” 이방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 욕심이 시키는 것을 주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지혜롭습니다. 동시에 그는 우리의 불행을 드러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바른 규범으로 가르치시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리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29. 기도의 이 형식 또는 규칙은 여섯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곱 항목으로 나누는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까닭은, 복음서 기자가 반대를 나타내는 말을 사이에 넣어 저 두 부분을 서로 묶으려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건지소서”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옛 저술가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일곱째 자리에 덧붙은 것은 풀이로서 여섯째 간구에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전체가 어디서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만, 앞의 세 간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바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구들에서 (흔히 말하듯) 우리 유익을 조금도 고려하지 말고 오직 그 영광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머지 세 간구는 우리를 돌보는 것으로서, 본래 우리 쓰임에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할 때, 그때에는 우리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앞에 두어 그것 하나만 뚫어지게 바라보아야 하며, 이런 간구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의 성화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익에 대해서는 (말한 대로) 우리 눈이 감기고 어떤 면에서 멀어 있어서, 그것을 전혀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사사로운 선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 거룩히 여김과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로 구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와 바울의 본에서 이것을 봅니다(출 32:32; 롬 9:3). 그들은 정신과 눈을 자기 자신에게서 돌려, 격렬하고 불타는 열심으로 자기 자신의 멸망을 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바라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구하지도 않을 만큼 말입니다. 이제 기도 자체를 풀이하는 데로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30. 먼저 바로 문턱에서 앞에서 말한 것이 나옵니다. 곧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기도를 그분께 부탁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부터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자녀로 양자 되지 않았다면, 누가 무슨 신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예를 자기 것으로 삼을 만큼 무모함으로 치닫겠습니까? 그분은 참된 아들이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형제로 주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본성으로 고유하게 가지신 것이 양자 삼으심의 은택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토록 큰 은혜를 확실한 믿음으로 끌어안는다면

말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대로입니다(요 1:12).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름의 그토록 큰 달콤함으로 우리를 모든 불신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보다 더 큰 사랑의 정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증언하실 수 없었습니다(요일 3:1).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분이 선하심과 긍휼에서 모든 사람을 넘어서시는 만큼, 우리 부모의 모든 사랑보다 더 크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정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녀를 버린다 해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시 27:10; 사 63:16). 그분은 당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딤후 2:13). 우리에게는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마 7: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또 선지자의 글에서 말씀하십니다(사 49:15).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자녀가 아버지의 잔인함이나 가난을 동시에 원망하지 않고서는 낯설고 남인 사람의 보호에 자기를 맡길 수 없듯이, 우리도 그분께 궁핍과 능력의 모자람을, 또는 잔인함과 지나친 엄함을 탓하지 않고서는 그분 말고 다른 데서 도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CO 925 31. 또 우리가 죄를 의식하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하게 된다고 핑계 대지 맙시다. 죄가 아버지를, 아무리 선하고 온유하신 분이라도, 우리에게 노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간절히 낮아져서 아버지의 자비를 비는 것보다 더 나은 변호자로 자기 사정을 변호할 수 없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호의를

되찾는 데 더 나은 중개인을 얻을 수 없다면(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간청에 움직이지 않는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고후 1:3)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다른 누구의 변호보다 오히려 당신께 간청하는 자녀들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특히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초대하시고 권하시는데)?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피하는 자들은 자기 아버지의 온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넘치는 아버지의 온유하심을 비유에서 우리에게 그려 보이십니다(눅 15:20). 거기서 아버지는 자기를 떠났던 아들, 자기 재산을 방탕하게 탕진한 아들, 온갖 방법으로 자기에게 크게 잘못한 아들을 두 팔 벌려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말로 용서를 구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스스로 달려가 맞이하고, 위로하며, 은혜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이 큰 온유함의 본을 내놓으셔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역하며 악한 자녀일지라도, 그저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아버지 가운데 단연 가장 좋고 가장 자비로우신 당신에게서 얼마나 더 넘치는 온유함을 기대해야 하는지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긍휼에 우리 자신을 던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더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그분은 아버지라고만 불리지 않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토록 큰 사랑과, 용서하시는 그토록 큰 너그러우심을 지니신 아버지시여, 주의 자녀인 우리가 주를 부르며 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께 아무리 합당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향해 아버지의 정 말고 다른 정을 품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심하고 온전히 확신합니다.”

32.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따로 부르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모두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는

데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공동 자녀인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형제 사랑의 정이 있어야 하는지를 일깨움 받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나오는 한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분이시라면, 우리 사이에 나누어져 있어서 필요가 요구하는 만큼 서로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 서로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형제들을 가장 좋으신 아버지의 돌보심과 섭리에 부탁하는 것보다 더 그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보이시면 아무것도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바로 이것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도 빚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의 아버지를 참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집 전체도 사랑과 호의로 끌어안듯이,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를 향해 품은 열심과 정을 그분의 백성, 그분의 가족, 끝으로 그분의 기업을 향해 보여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은 이 기업을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충만이라고 부르셨습니다(엡 1:23).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 법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곧 기도가 공동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제인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형제로 보고 아는 사람들뿐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들에 관해 무엇을 정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어떤 특별한 정으로 더 기울어야 마땅합니다. 사도는 모든 일에서 그들을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갈 6:10). 요컨대 모든 기도는 우리 주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집에 세우신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33. 그렇다고 우리 자신과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따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데서 떠나지 않고, 비켜 가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거기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기도는 따로 드려지더라도 그 목표로 향하므로 공동의 기도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유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의 궁핍을 덜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알거나 보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궁핍을 그 목적으로 돕는 사람들은, 그보다 가볍지 않은 필요에 짓눌린 많은 사람을 지나치더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베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이 공동 사귐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이런 개별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곧 공적인 마음으로 개별적인 말을 써서 자기나,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자기에게 더 가까이 알리기를 원하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와 재물을 베푸는 일이 모든 점에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베푸는 너그러움은 우리가 그 궁핍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에게만 행할 수 있지만, 기도로는 아무리 먼 땅에 떨어져 있는, 전혀 낯설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담고 있는 저 일반적인 기도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그들도 들어 있습니다.

34.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덧붙습니다. 여기서 곧바로 그분이 마치 어떤 울타리처럼 하늘의 둘레에 갇히고 둘러막혀 매여 계신다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담을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왕상 8:27). CO 927 그분 자신도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은 당신의 보좌요 땅은 당신의 발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사 66:1). 이로써 그분은 당신이 어떤 정해진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만물에 두루 퍼져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행 7:48; 17:24). 그러나 우리 정신은 그 둔함 때문에 달리는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생각해 낼 수 없었으므로, 그 영광이 하늘로 우리에게 표시되었습니다. 하늘보다 더 장엄하거나 위엄에 가득 찬 것은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각은

무엇이든 붙잡는 곳에 그것을 붙박아 두곤 하므로, 하나님은 모든 장소 밖에 계신 분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자 할 때 몸과 영혼의 모든 감각 위로 들어 올려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투로 그분은 썩어짐이나 변함의 모든 위험 위로 높여지십니다. 끝으로 그분이 온 세상을 품고 담으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이 무한히 크고 높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본질과 끝없는 능력과 영원한 불멸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 생각을 더 높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분에 관해 땅의 것이나 육의 것을 꿈꾸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작은 자로 재지 않으며, 그분의 뜻을 우리 정서에 맞추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로 높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그분의 섭리와 능력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첫째 간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35.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는 대로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분의 일에 걸맞아야 하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그분의 모든 능력이 마땅히 받을 명성, 곧 그분의 권능과 지혜와 의와 긍휼과 진실하심의 명성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 것은, 그분이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권능 있으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능력들 안에서 빛나는 이 위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더해지거나 덜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거룩히 여겨지기를, 곧 참으로 인정되고 높여지기를 구합니다. 먼저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일에 걸맞기를 구합니다. 그 이름의 위대함을 더해 주어야 마땅한 그분의 어떤 일도 어둠 속에 숨거나 악한 배은망덕으로 묻히지 않기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그분이 행하신다고 인정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모든 일이 있는 그대로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선지자의 저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시 48:10).[543] "주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나이다." 곧 그분이 벌하실 때에는 의로우신 분으로, 용서하실 때에는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는 진실하신 분으로 전파되시기를 구합니다. 끝으로 그분의 영광이 새겨져 빛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모든 마음과 모든 혀에서 그분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속되게 하는 모든 불경건, 곧 이 거룩히 여김을 흐리게 하거나 줄이는 모든 불경건이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이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엄이 더욱더 밝게 빛나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에는 감사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나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랄 때,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의 찬양을 그분께 돌리고,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모든 것을 그분 덕으로 돌림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택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간구.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36. 하나님의 나라는 특히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한편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그들의 모든 일에서 당신의 선하심과 긍휼의 풍성함을 뚜렷이 드러내실 때 다스리시고, 다른 한편으로 당신을 하나님과 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통치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유기된 자들을 멸하시고 꺾으시며 그들의 신성 모독적인 교만을 엎드러뜨리실 때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권세를 거스를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홀처럼 세워져 십자가 아래에서도, 세상의 멸시와 치욕 아래에서도 힘 있고, 다스리고,

543. 원문에는 "시 48:11"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는 절수이므로 개역한글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형통하고, 그 열매를 맺으므로,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서도 꽃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단언하시고(눅 17:21), 어떤 때는 당신이 참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당신의 교회를, 어떤 때는 당신의 주권을 세우시는 말씀의 전파를 천국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요 18:36). 첫째로 그 나라는 영적이며 영적인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요, 다음으로 썩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곧 주께서 날마다 신자들의 새 백성을 당신을 위해 늘리셔서 그들이 모든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기리게 하시기를, 또 당신의 나라의 경계 안으로 모으신 자들에게 당신의 은사의 풍성함을 늘 더 넉넉히 부어 주셔서 그 은사로 그들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사시고 다스리시다가, 마침내 그들을 당신께 완전히 결합하셔서 온전히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당신의 빛과 진리를 늘 새로 자라게 하여 밝히셔서, 사탄과 그 나라의 어둠과 거짓이 사라지고 흩어지고 꺼지고 망하기를 기도합니다. CO 929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동시에 그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곧 그분의 심판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날에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실 것입니다(고전 15:28). 그분의 백성은 모여 영광으로 받아들여지고,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엎드러질 것입니다.

셋째 간구.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37. 이 간구로 우리는, 하늘에서는 그분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듯이, 그분이 모든 고집과 반역을 꺼 버리시고 땅도 당신의 통치에 굴복시키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어디서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조절하고 정돈하시며, 모든 일의 결과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뜻대로 쓰시며, 모든 이의 모든 의지를 당신께 복종시

키셔서 그 의지들이 똑같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마귀와 유기된 자들의 악한 욕심이 아무리 고삐 풀린 광기로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피하며 순종에서 빠져나가려 애쓴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 욕심에도 법을 지우셔서 그들이 당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을 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서를 주께 내어 드리고 맡기며, 일이 우리 바람대로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그분이 내다보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께서 헛되고 무효하게 하시기를 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꺼 버리시고 새 정신과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기를 구합니다(겔 36:26). 그리하여 그분의 뜻과의 순전한 일치 말고는 어떤 욕심의 움직임도 우리 안에서 느껴지지 않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시기를 구합니다. 그 영께서 속에서 가르치셔서,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기를 배우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처음 세 항목입니다. 이것들을 구할 때에는 우리 자신은 제쳐 두고, 우리의 어떤 유익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눈앞에 두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오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작지 않은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임을 증언하고 고백하며, 우리 힘이 닿는 대로 그분의 영예(주님이시요 아버지이신 분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예)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가게 하려는 이런 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 가운데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들의 뜻을 거슬러 이루어질 것이듯이, 그 일들은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심판이 될 것입니다.

넷째 간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38. 이 간구로 우리는 이 세상의 원소들 아래에서 우리 몸이 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 구합니다. 먹고 입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평안히 우리 양식을 먹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내다보시는 모든 것을 구합니다. 이 간구로 우리는 간단히 말해 우리 자신을 그분의 돌보심에 맡기고 그분의 섭리에 부탁하여,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품으시고 지키시게 합니다.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몸까지도 당신의 보호와 지키심 아래 받아들이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런 작은 일들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빵 부스러기와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그분께 기대할 때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악함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영혼보다 육신을 더 크게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어 있으므로, 영혼에 관해서는 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육신에 관해서는 걱정합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망설이고,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이 손에 넉넉히 있지 않으면 떨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삶의 그림자가 저 영원한 불멸보다 우리에게 그만큼 더 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육신을 돌보는 저 근심을 한번 내던진 사람들은, 곧바로 더 큰 것들, 곧 구원과 영생도 그분께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그토록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믿음의 훈련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의 뼛속에 꽉 물고 박혀 있는 이 불신을 벗어 버릴 때 적지 않게 나아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이 '초실체적 빵' 에 관해 철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에 거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54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양식을 구합니다. 또 우리가 '일용할' 과 '오늘' , 또는 다른 복음서 기자에게 있는 대로 '날마다' 라고 말하는 데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 덧없는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불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타면 나중에 그것들을 야심 차게 쾌락이나 과시나 다른 종류의 사치에 쏟아붓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에 넉넉한 만큼만, 이를테면 하루하루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먹이셨으면 내일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말입니다.

39.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이 우리에게 넘쳐흐르더라도, 곳간이 가득 차고 창고가 넘칠 때에도,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복을 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만큼이 아니면 모든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손에 있는 것조차도 그분이 시간마다 작은 몫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쓰도록 허락하시는 만큼이 아니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545]

544. 라틴어 불가타 성경은 마 6:11의 "일용할" 을 supersubstantialis(초실체적)로 옮겼고, 이를 성찬의 빵이나 영적인 양식으로 풀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545. 이 문장의 끝부분("...생각하면서 말입니다")은 다음 편 원문의 첫머리에 있으나, 문장을 끝맺으려고 여기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15장 기도에 관하여 (주기도문 해설) 3

CO 1:931–93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931 [546]사람의 교만은 이것을 몹시 받아들이기 싫어하므로, 주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로 당신의 백성을 기르셨을 때 모든 세대를 위한 특별한 교훈을 보여 주셨다고 증언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신 8:3). 이로써 생명과 힘을 붙들어 주는 것은 오직 그분의 능력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비록 그분이 그 능력을 몸에 속한 도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반대되는 교훈으로도 우리를 가르치곤 하십니다. 곧 당신이 원하실 때마다 떡의 힘, 당신이 부르시는 대로 하면 떡의 지팡이를 꺾으셔서(겔 4:16; 14:13), 먹어도 굶주려 쇠약해지고 마셔도 목말라 마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고삐 풀린 탐욕으로 끝없는 것을 탐내는 자들이나, 자기의 넉넉함에 배부르고 쌓아 둔 재물로 안심하는 자들이 그런데도 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것은 그분을 조롱하는 것일 뿐입니다. 앞의 자들은 얻고 싶지 않은 것, 아니 가장 싫어하는 것, 곧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며, 할 수 있는 한 자기 탐욕의 정을 하나님께 숨깁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마음 전체와 속에 숨은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뒤의 자들은 그분에게서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 것, 곧 이미 자기 곁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마땅히

546.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돌아올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정당하고 해 없는 수고로 얻은 것을 가리키며 속임수나 약탈로 손에 넣은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저는 굳이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해를 끼치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든 늘 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디서 우리에게 오든 하나님의 순전하고 값없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술과 근면으로 얻고 우리 손으로 마련한 것처럼 가장 크게 보일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수고가 바르게 열매 맺는 것은 오직 그분의 복주심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소서.

40. 이 간구로 우리는 죄 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죄 사함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빚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 형벌을 마치 값처럼 하나님께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함으로 풀려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함은 그분의 값없는 긍휼의 용서입니다. 그분은 아무 값도 우리에게서 받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의 긍휼로 당신께 속상하시면서, 이 빚을 너그럽게 지워 버리시고 우리를 그 빚에서 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대가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공로나 다른 어떤 이들의 공로로 하나님께 속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속죄 행위(satisfactio)로 죄 사함이 값 치러지고 사들여진다고 믿는 자들은 이 값없는 용서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꼴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은 자기를 고발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자기 자신의 증언으로 자기의 정죄에 도장을 찍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함의 은택으로 풀려나지 않으면 자기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사함을 받지 않고 오히려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공로와 속죄 행위를 하나님께 떠밀어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분의 긍휼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41. 끝으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함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곧 어떤 일로든 우리를 해친 사람들, 행동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대했거나 말로 우리를 모욕한 사람들을 우리가 너그럽게 봐주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범죄와 잘못의 죄책을 사하는 것이 우리 몫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사 43:25). 우리의 사함은 이것입니다. 곧 진노와 미움과 보복하려는 욕망을 마음에서 스스로 내려놓고, 받은 해의 기억을 자원하는 잊음으로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거나 끼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신도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에 어떤 미움을 품고 보복을 꾀하며 해칠 기회를 궁리한다면, 아니 원수들과 화해하고 온갖 선한 일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 우리와 화목하게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지 마시라고 엄숙히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한 대로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하지 마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자기 간구로 더 무거운 심판 말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끝으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이 조건이 덧붙은 것은,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사함으로 그분의 사함을 공로로 얻어 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위로하려 하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얻도록 표로 덧붙이셨습니다. 곧 우리 마음이 모든 미움과 시기와 보복에서 비고 깨끗하기만 하다면, 우

리가 남에게 사함을 베푼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푸셨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이를테면 이 표로써, 보복에는 성급하고 용서에는 더디며 끈질기게 원한을 품고, 자기는 하나님께 거두어 주시기를 비는 그 분노를 남에게는 품는 자들을 자녀의 명부에서 지워 버리십니다. 그들이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CO 933 여섯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42. 시험의 모양은 많고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정욕이 우리에게 불어넣거나 마귀가 일으키는 마음의 모든 악한 생각, 곧 우리를 율법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것들이 시험입니다(약 1:2, 14; 마 4:1, 3; 살전 3:5).[547] 또 본성상 악하지 않은 것들도 마귀의 꾀로 시험이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들이밀려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끌려 나가거나 비켜 가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은 오른쪽에서 오기도 하고 왼쪽에서 오기도 합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것은 재물, 권세, 명예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대개 자기 광채와 겉에 내세우는 선의 모양으로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고 그 아첨으로 미끼를 던져,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사로잡히고 이런 단맛에 취하여 자기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왼쪽에서 오는 것은 가난, 치욕, 멸시, 고난, 그 밖에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의 쓰라림과 어려움에 걸려 넘어져 낙심하고, 신뢰와 소망을 내던지며, 마침내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정욕으로 불붙거나 사탄의 간계로 우리 앞에 놓여 우리와 싸우는 이 시험들에, 우리를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굳세어져, 악한 원수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던져 넣든 그의

547. 원문에는 “2 Thess. 3, 5”(살후 3:5)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를 말하는 곳은 살전 3:5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모든 공격을 맞서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든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선으로 돌리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곧 형통한 일로 교만해지지 않고 어려운 일로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43.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게을러 둔해지지 않도록, 시험으로 일깨워지고 찔리고 꼬집히는 것이 우리에게 몹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약 1).[548] 다윗이 시험받기를 바란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었고(시 26:2), 주께서 당신의 택함받은 자들을 날마다 시험하시며 치욕과 가난과 환난과 그 밖의 여러 모양의 십자가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과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탄은 멸망시키고 정죄하고 어지럽히고 거꾸러뜨리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셔서 그들의 진실함을 확인하시고, 단련하셔서 그들의 힘을 굳게 하시며, 그들의 육을 죽이시고 정련하시고 지지려고 시험하십니다. 육은 이런 식으로 억제되지 않으면 방종하고 한없이 날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탄은 무기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자들을 덮쳐서 방심한 자들을 짓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셔서(고전 10:13; 벧후 2:9), 당신의 백성이 그분이 보내시는 무엇이든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악한 자"라는 이름으로 마귀를 생각하든 죄를 생각하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탄 자신은 우리 생명을 노리는 원수이고, 그는 죄로 무장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지거나 짓눌리지 않고, 우리를 치는 모든 적대 세력에 맞서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서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보호와 신실하심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548. [원문의심] 원문의 장절 표기가 "lac. 1„" 로 깨져 절 번호를 읽을 수 없어 장만 적었습니다.

안전하여,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과 마귀의 나라 전체를 이기고 굳게 서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44. 여기서 또 부지런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토록 강한 용사인 마귀와 맞붙는 것도, 그의 힘과 공격을 견디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집에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헛되거나 조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를 믿고 이런 싸움을 준비하는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호전적이고 잘 무장한 원수를 상대하고 있는지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치고 사나운 어떤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듯이 그의 권세에서 구원받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죽음 한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곧 그의 이빨과 발톱에 찢기고 그의 목구멍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우리가 잠잠히 있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용감히 행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유의지의 능력과 힘(그들은 이것을 자기에게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을 믿으라고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고 힘을 얻는 것으로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탄과 끝까지 싸우는 싸움에서 우리 힘이라면,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해져 우리 육의 모든 연약함을 벗어 버리기 전에는 승리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죄에서 구원받기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이 자라나 우리가 거듭 부요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가득 채워져 모든 악을 이기고 개가를 부를 때까지 말입니다.

45.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세 간구는 앞에서 말한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공적인 것이어야 하고, 교회의 공적인 덕 세움과 신자들의 교제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사로이 자기에게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양식과 죄 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왜 이토록 담대하게 구하고 얻으리라고 이토록 신뢰하는지 그 까닭이 덧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 사본들에는 없지만, 빼 버려야 할 것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너무나 잘 들어맞습니다.

CO 935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무궁히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46.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굳고 고요한 안식입니다. 만일 우리 기도가 우리의 가치로 하나님께 추천되어야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입이라도 뻥긋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합당하지 않으며 아무 추천할 것도 없는 자라 해도, 기도할 이유가 결코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고 신뢰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에는 "아멘"이 덧붙어 있습니다. 이 말로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으려는 열망의 뜨거움이 표현되고, 이런 것이 모두 이미 얻어졌으며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지리라는 우리 소망이 굳게 됩니다. 그것들은 속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47.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또 도대체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형식문, 이를테면 지극히 선한 스승 그리스도께서 전해 주신 기도의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우리에게 선생으로 세우셨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마 17:5). 그분은 늘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이셨고, 사람이 되셔서는 큰 경륜의 사자로 사람들에게 주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여, 이 기도에 덧붙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서 이 기도에 돌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불경건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요약으로, 무엇이 당신께 합당하고 무엇이 당신께 기쁘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당신이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것을 넘어서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 것을 덧붙이려 합니다(이것은 미친 신성 모독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뜻을 멸시하여 탐욕으로 더 멀리 떠돌아다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믿음 없이 기도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모두 믿음 없이 드려진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지 않고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뿐 아니라, 온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만큼 그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러므로 테르툴리아누스가 이 기도를 "법에 맞는 기도"라고 부른 것은 참될 뿐 아니라 멋진 말입니다. 그는 넌지시 다른 모든 기도는 법 밖의 것이며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일러 준 것입니다.

48. 그렇다고 우리가 이 기도의 형식문에 얽매여서 한 낱말이나 한 음절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낱말로는 이 기도와 아주 다르지만 같은 영으로 쓰인 많은 기도가 있고, 그 기도들을 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같은 영이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는 많은 기도도, 낱말이 비슷하다는 점에서는 이 기도와 그리 많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서 이루려는 것은 다만 이것입니다. 곧 누구도 이 기도에 요약되어 담긴 것과 다른 것을 결코 찾거나 기대하거나 구하지 않게 하고, 낱말은 아무리 다르더라도 뜻은 다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기도, 곧 성경에 있는 기도와 경건한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가 이 기도에 견주어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기도의 완전함에 미치는 기도는, 하물며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는 참으로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마음에 떠올려야 할 것도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정확해서,

더 나은 것을 시도해 볼 소망은 모두에게서 마땅히 사라졌습니다. 요컨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지혜는 원한 것을 가르쳤고, 필요한 것을 원했습니다.

49. 앞에서 이미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늘 탄식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많은 버팀목으로 붙들어 주어야 하고, 우리의 둔함은 박차로 일깨워야 하므로, 우리 각 사람은 훈련을 위하여 특별한 시간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은 기도 없이 흘러가지 않고, 마음의 모든 정을 오롯이 기도에 쏟게 하는 시간입니다. 곧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식사하려고 앉을 때,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배불리 먹었을 때, 쉬러 물러갈 때입니다. 다만 이것이 미신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 시간에 하나님께 할당된 일을 바쳤으니 나머지 시간에는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그 연약함이 이렇게 훈련받고 거듭 자극받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염려하며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곤경에 짓눌리거나 다른 이들이 짓눌리는 것을 볼 때마다 곧바로 발이 아니라 마음을 재촉하여 그분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신의 형통이든 다른 이들의 형통이든, 찬양과 감사로 그분의 손길을 알아본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에서 부지런히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떤 정해진 형편에 묶어 두려 하지 않고, 그분이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하실지 그분께 지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우리는 그분께 아무 법도 정해 드리지 말고 아무 조건도 지우지 말며, 그분이 하실 일을 당신께 좋게 보이는 방식과 때와 곳에서 하시도록 그분의 뜻에 맡겨 드리라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어떤 간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로써 우리는 이미 우리 뜻을 그분의 뜻에 굴복시킵니다. 이렇게 이

를테면 고삐를 채워 억제된 우리 뜻이 하나님을 자기 질서 안에 몰아넣으려 하지 않고, 그분을 자기의 모든 소원의 판단자요 조절자로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CO 937 50. 만일 이렇게 순종하도록 다듬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쉽게 기도에 끈기 있게 머물기를 배우고, 소원을 매단 채 참고 주님을 기다리기를 배울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으셔도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사람들의 눈에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던 기도에 당신이 귀를 막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때에 밝히 드러내시리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장 가까운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소원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자기의 뜨거움에만 휩쓸리는 자들은 흔히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되, 그분이 처음 열정에 곧바로 함께하셔서 당장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그분이 자기에게 노하시고 적대하신다고 곧 상상하고, 간청하여 들어주시리라는 소망을 모두 내던진 채 부르기를 그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잘 다스린 마음의 평정으로 우리 소망을 미루어 두면서, 성경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권하는 그 끈기를 굳게 붙듭시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의 무례함으로 그분을 지치게 하여 우리를 거스르시도록 자극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이 늘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일정한 조건을 걸고서만 하나님과 흥정하고, 마치 그분이 자기 욕망의 종이기라도 한 듯이 자기 계약의 조항으로 그분을 묶어 둡니다. 그분이 즉시 그들을 따르지 않으시면 그들은 분개하고 으르렁거리고 대들고 불평하고 소란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진노하셔서 흔히 분노 가운데 들어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보기입니다(민 11:18, 33). 그들에게는 고기와 함께 그분의 진노를 삼키느니 차라리 주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51. 오랫동안 기다린 뒤에도 우리 감각이 기도로 무엇을 얻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아무 열매도 느끼지 못한다 해도, 감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 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유익한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이 한번 당신의 품에 맡겨지면 그것을 돌보시겠다고 그토록 자주, 그토록 확실하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가난 가운데서 풍족함을,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백성의 기다림과 인내를 헛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 한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신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좋은 것을 당신 안에 품고 계시고, 그것을 장차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이 인내로 붙들리는 것이 몹시 필요하여, 이 인내에 기대지 않는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벼운 시련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단련하지도 않으시며, 흔히 그들을 극한까지 몰아가시고, 몰린 그들을 그 진창에 오래 빠져 있게 내버려 두신 뒤에야 당신의 달콤함을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말하듯이(삼상 2:6),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이미 반쯤 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시며 지금의 괴로움에 끝이 오리라는 이 생각이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 그들이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소망의 안심 위에 아무리 굳게 서 있다 해도, 그들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에 끈기 있게 머무는 꾸준함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1539–1554년판 · 제16장 성례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16장 성례에 관하여

CO 1:937–95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937 제16장.

성례에 관하여.

1. 이제 성례의 본질에 관하여 말해야 하겠습니다. 성례에 관하여 어떤 확실한 가르침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에서 우리는 성례가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쓰임이 무엇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먼저 성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게는 이런 정의가 단순하고 알맞은 정의가 되리라고 보입니다. 곧 성례란 주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인자하심의 약속들을 우리 양심에 인치시어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외적인 상징이며, 또 우리 편에서는 그것으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짧게 달리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성례를 외적인 표로 확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며, 이와 함께 그분을 향한 우리의 공경을 서로 증언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CO 939 이 두 정의 가운데 어느 것을 고르든, 성례란 거룩한 것의 보이는 표, 또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라고 가르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와 뜻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들은 바로 그 내용을 더 낫고 더 확실하게 풀어 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는 짧아서 얼마간 모호한 데가 있고, 그 모호함 때문에 배움이 모자란 많은 이들이 헛갈리므로, 저는 의심이 남지 않도록 더 많은 말로 그 뜻을 더 온전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2. 옛사람들이 무슨 까닭으로 이 낱말을 이런 뜻으로 썼는지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옛 번역자는 그리스어 낱말 “뮈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을 라틴

어로 옮기려 할 때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다루는 곳에서는 "사크라멘툼"(sacramentum)으로 옮겼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엡 1:9; 3:2–3). "당신의 뜻의 사크라멘툼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대, 계시로 사크라멘툼이 내게 알려졌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골 1:26–27).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 주께서 이 사크라멘툼의 부요함을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렇습니다(딤전 3:16).[549] "크도다 경건의 사크라멘툼이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아르카눔"(arcanum, 비밀)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의 위대함에 비해 너무 낮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크라멘툼"을 비밀이라는 뜻으로, 그러나 거룩한 것의 비밀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이 뜻으로 이 낱말은 교회의 저술가들에게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낱말이, 높고 영적인 것들을 존엄하게 나타내 보이는 저 표들에 옮겨 쓰이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디선가 이것을 밝힙니다. 그는 말합니다. "표의 다양함을 논하자면 길 것이다. 표들은 하나님의 일에 속할 때 성례라고 불린다."

3. 그런데 우리가 내놓은 이 정의에서 우리는 앞서가는 약속 없이는 성례가 결코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성례는 약속에 이를테면 부록처럼 덧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 자체를 굳게 하고 인치며, 우리에게 더 분명히 증언되게, 아니 어떤 의미에서 확정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성의 무지와 육의 연약함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다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 자체를 굳게 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우리를 약속 안에서 굳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로 충분히 굳고 확실하며, 그 자체에서보다 더 나은 확증을 다른 데서 받을 수 없기

549. 원문에는 "2 Tim. 3, 16"(딤후 3: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딤전 3:16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너무나 작고 약해서, 사방에서 받쳐 주고 온갖 방법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곧 흔들리고 요동하고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주께서는 여기서 우리 깨달음의 분량에 당신을 맞추십니다. 우리는 늘 땅에 기어 다니고 육에 들러붙어 있어서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그려 보지도 못하는 혼적인 자들이므로, 그분은 이런 육적인 요소들로도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고, 영에 속한 것들을 육 안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크리소스토무스가 말하듯이, 만일 우리가 몸이 없는 자들이라면 그분은 이것들을 벌거벗은 채로, 몸 없이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몸에 심긴 영혼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분은 보이는 것들 아래 영적인 것들을 전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례에서 우리 앞에 놓이는 사물들의 본성에 그런 자질이 심겨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런 뜻을 지니도록 표하셨기 때문입니다.

4.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것, 곧 성례는 말씀과 외적인 표로 이루어진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뜻도 믿음도 없이 중얼거려 그저 소리만으로 마치 마술의 주문처럼 요소를 축성하는 힘을 지닌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선포되어 보이는 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폭정 아래에서 행해진 일은 신비를 엄청나게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깨닫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서 있는 동안 사제가 축성의 형식문을 중얼거리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거기서 어떤 가르침도 평민에게 미치지 않도록 일부러 조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라틴어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미신은 더 터져 나와, 몇 사람에게만 들리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지 않으면 축성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의 말씀에 관하여 아주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말씀이 요소에 더해지면 성례가 될 것이다. 물이 몸에 닿으면서 마음을

씻는 이 큰 능력이 말씀이 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디서 오겠는가? 말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말씀 자체에서도 지나가는 소리와 머무는 능력은 다르다. 사도는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고 말한다(롬 10:8 참조). 그러므로 사도행전에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라고 하였다(행 15:9 참조). 또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나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라고 하였다(벧전 3:21 참조).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 이 말씀으로 틀림없이 세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축성된다." 여러분은 그가 선포를 요구한다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그 선포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지, 사도들이 무엇을 따랐고 더 순수한 교회가 무엇을 지켰는지는 조금도 모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말씀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약속으로 이해합시다. 곧 사역자가 분명한 목소리로 선포하여, 표가 향하고 우리를 이끄는 그곳으로 백성의 손을 잡아 이끄는 약속입니다.

5. 견고하기보다 교묘한 딜레마로 이에 맞서 싸우려 하는 어떤 이들의 말은 들을 것이 못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성례에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둘 중 하나이다. 안다면, 뒤따르는 성례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모른다면, 성례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할 것이다. 성례의 모든 힘과 효력은 말씀에 있기 때문이다." CO 941 이들에게는 짧게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증서와 그 밖의 공문서에 붙는 인(印)은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피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면 헛되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이 쓰인 글에 덧붙을 때 쓰인 것을 확증하고 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은 이 비유가 우리가 최근에 지어낸 것이라고 떠벌릴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할례를 "인" (σφραγίς)이라고 부르며 이

비유를 썼기 때문입니다(롬 4:11). 거기서 그는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의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던 그 언약의 인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약속이 성례로 인쳐진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누구에게 크게 거슬릴 까닭이 무엇입니까? 약속들 자체에서도 한 약속이 다른 약속으로 확증된다는 것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곧 약속은 더 분명할수록 믿음을 받치기에 더 알맞습니다. 그런데 성례는 가장 분명한 약속들을 가져오며, 말씀에 견주어 이런 특별한 점을 지닙니다. 곧 그 약속들을 이를테면 판에 그린 듯 우리에게 생생하게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성례와 증서의 인 사이에 흔히 내세우는 구별도 우리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구별은 이렇습니다. 둘 다 이 세상의 육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증서의 인은 덧없고 썩어질 일에 관한 군주들의 칙령을 인치려고 붙지만, 성례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인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는 데 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례가 눈앞에 보일 때 그 육적인 광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가 가리킨 저 유비(類比)의 계단을 따라 경건한 묵상으로 성례 안에 숨어 있는 높은 신비에까지 올라갑니다.

6. 또 주께서는 당신의 약속들을 언약이라 부르시고 성례를 언약의 상징이라 부르시므로, 사람들의 언약 자체에서 비유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말이 사이에 끼지 않는다면, 아니 말이 앞서가지 않는다면, 암퇘지를 잡는 것이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암퇘지는 아무 속뜻이나 높은 신비 없이도 자주 잡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을 내미는 것이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손은 원수로서 맞붙을 때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이 앞서가면, 언약의 조항들은 이미 말로 정해지고 세워지고 결정되었을지라도 이런 상징들로 참으로 비준됩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해 주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자들이므로 성례는 육적인 것들 아래 베풀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성례가 우리의 둔함

의 분량에 맞추어 우리를 가르치고, 교사가 아이들의 손을 잡아 이끌듯이 우리를 이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를테면 판에 그린 듯 나타내 보이며, 그것을 그림처럼 형상으로(εἰκονικῶς) 새겨 눈앞에 세워 두기 때문입니다. 성례를 더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비유들도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례를 우리 믿음의 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자기 기초 위에 서고 기대어 있으면서도 밑에 받친 기둥들로 더 확실히 굳게 되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례가 더해지면 믿음은 이를테면 기둥에 기대듯 더욱 단단히 기댑니다. 또는 성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부요함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둔함이 알아볼 수 있는 만큼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7. 또 어떤 이들은 성례가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자주 받아지는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조금도 더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정죄를 불러들인다는 까닭을 들어,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추론은 그다지 알맞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이 듣고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자신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알려지셨지만, 그 가운데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아주 적었기 때문입니다. 증서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상당수는 그 공식 인(印)이 군주에게서 나와 그의 뜻을 인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비웃고 우롱합니다. 다른 이들은 자기와는 조금도 상관없는 일처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 둘의 처지가 이토록 같은 것을 보면, 제가 앞에서 쓴 저 비유가 더욱더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도, 성례로도 우리에게 긍휼과 당신의 선하신 뜻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과 성례를 확실한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만 붙잡힙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으로 베풀어지고 내세워지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아보아지고 영접받지는 않으신 것과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디선가 이것을 일러 주려고, 성례에서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말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자들에게 말할 때, 성례 안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담아 성례를 논합니다. 예컨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갈 3:27).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고전 12:12; 엡 4:4).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한 몸이요 한 영이다." 그러나 성례를 거꾸로 쓰는 것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그는 성례에 차갑고 헛된 형상보다 조금도 더 많은 것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로써 그는 이것을 뜻합니다. 불경건한 자들과 위선자들이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성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를 억누르거나 흐리거나 가로막더라도, 그것이 성례가 주께서 기뻐하실 때와 곳에서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에 대한 참된 증거를 가져오고, 약속하는 바로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조금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불리며, 이를테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인자하심의 인이라고 정합니다. 성례는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인치면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기르고 굳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CO 943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견해에 맞서 흔히 내세우는 논거들은 너무 하찮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믿음이 선하다면 더 나아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흔들림 없이, 굳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아무도 이 생에서 이른 적이 없고 이르지도 못할 그런 믿음의 완전함을 태평하게 내세우기보다, 차라리 사도들과 함께 주께서

자기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눅 17:5).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않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들은 대답해 보십시오(막 9:24). 그 믿음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지만 선한 믿음이었고, 믿지 않음이 없어지면 더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보다 더 확실한 논거로 반박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좋든 싫든 그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을 자기 믿음의 불완전함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8.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내시에게, 그가 온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아도 된다고 대답했다(행 8:37). 믿음이 온 마음을 채우는 곳에서 세례의 확증이 무슨 자리를 차지하겠는가?" 저는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상당 부분이 믿음 없이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이 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배우면서 늙어 간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채 늙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곱절이나 비참한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은 온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자랄 때까지 모든 나이의 단계를 거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엡 4:13).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온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배부르다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정으로 그분께 주리고 목마르며 그분을 향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진심으로 행해지는 것을 온 마음으로 행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관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나이다"(시 119:10). "내가 온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시 111:1; 138:1). 그 밖에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속이고 거짓된 자들을 꾸짖을 때, 그들에게 두 마음이 있다고 나무라곤 합니다

(시 12:2).[550] 이어서 그들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믿음이 성례로 자란다면, 성령께서 헛되이 주어지신 것이다. 믿음을 시작하고 지키고 완성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일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저는 참으로 믿음이 성령께서 하시는 고유하고 온전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조명을 받아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의 보화를 알아봅니다. 그분의 빛이 없으면 우리 지성은 너무 눈멀어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둔하여 아무것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하나님의 은택 하나 대신에 우리는 셋을 헤아립니다. 첫째, 주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세우십니다. 다음으로,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 지성을 비추시고, 말씀과 성례가 우리 마음에 들어갈 길을 여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성례는 귀를 울리고 눈앞에 보일 뿐, 속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9. 그러므로 믿음의 확증과 자람에 관하여, 저는 독자에게 이것을 일러두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조금도 모호하지 않은 말로 이것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곧 제가 성례에 이 직무를 돌리는 것은, 성례에 무언지 모를 숨은 힘이 늘 심겨 있어서 그 힘으로 성례가 스스로 믿음을 북돋우거나 굳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성례가 믿음을 굳게 세우고 자라게 하는 데 쓰이도록 주께서 이 목적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례는 저 안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에야 비로소 자기 직무를 바르게 다합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마음이 꿰뚫리고 정이 움직여지며, 성례가 우리 영혼에 들어갈 길이 열립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성례는 눈먼 눈에 해의 광채가 비치거나 귀먹은 귀에 목소리가 울리는 것보다 조금도 더 우리 지성에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과 성례 사이를 이렇게 나눕니다. 일하는 능력은 그분께 있고, 성례에는 직무만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직무는 성령의 작용이 없으면 헛되고 하찮지만, 그분이 안에서

550. 원문에는 “ibid. 12, 3”(시 12:3)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일하시고 당신의 힘을 펼치시면 많은 효력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제 생각에 경건한 지성이 어떻게 성례로 믿음 안에서 굳게 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곧 눈이 해의 광채로 보고 귀가 목소리의 소리로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스스로 빛을 받을 시력이 심겨 있지 않다면 어떤 빛으로도 아무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귀가 듣도록 나고 알맞게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외침도 헛되이 귀를 때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서 한번 정해 두기로 한 것이 참이라면, 곧 우리 눈에서 시각이 빛을 보는 데 하는 일, 귀에서 청각이 목소리를 알아듣는 데 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서는 믿음을 품고 붙들고 기르고 굳게 세우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참이라면, 두 가지가 똑같이 따라 나옵니다. 성례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털끝만큼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저 교사께 이미 가르침을 받은 마음에서 성례가 믿음을 더 굳세고 더 크게 하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 이로써 어떤 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반론들도 함께 풀립니다. 그들은 믿음의 자람이나 확증을 피조물에 돌린다면, 믿음의 유일한 근원으로 알아보아야 마땅한 주님의 영께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확증과 자람의 영예를 그분에게서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굳게 하는 바로 그것이, 그분이 안에서 비추셔서 우리 지성이 성례가 내놓는 그 확증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아직도 너무 모호하게 말해졌다면, 제가 내놓을 이 비유로 아주 밝아질 것입니다. CO 945 여러분이 누군가를 말로 설득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여러분은 그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끌어당기고 거의 굴복시켜 여러분의 권고를 따르게 할 모든 논거를 궁리해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편에서 여러분의 논거에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헤아릴 수 있는 밝고 날카로운 판단력을 지니지 않는다면, 또 가르침을 받을 만한 성품으로 가르침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실함과 지혜에 관하여, 동의하

는 데 이를테면 미리 내린 판단 구실을 할 만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다면,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논거로도 결코 굽힐 수 없는 완고한 머리가 많고, 신실함이 의심받고 권위가 멸시받는 곳에서는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에게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권고하는 사람은 다른 때 같으면 비웃었을 바로 그 권고를 틀림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말씀이 헛되이 귀를 울리지 않고 성례가 헛되이 눈을 때리지 않도록, 그분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부드럽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으로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마침내 그분은 저 외적인 말씀과 성례를 귀에서 영혼으로 옮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 눈앞에 둠으로써 우리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 뜻을 아는 지식에 우리 믿음의 모든 굳음이 있고 그 힘이 자랍니다. 성령께서는 그 확증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효력 있게 하심으로써 확증하십니다.

11. 주께서는 외적인 말씀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비유에서 그 말씀을 씨라고 부르셨을 때 가르치셨습니다(마 13:4 이하). 씨가 버려지고 돌보지 않은 밭 한쪽에 떨어지면 죽어 버릴 뿐이지만, 알맞게 갈고 가꾼 밭에 뿌려지면 가장 좋은 이자를 붙여 자기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도 어떤 굳은 목에 떨어지면 모래에 던져진 듯 열매 없이 말라 버리지만, 하늘의 영의 손으로 일구어진 영혼을 만나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씨와 말씀의 이치가 같다면, 씨에서 곡식이 나고 자라고 완성된다고 말하듯이, 믿음도 말씀에서 시작과 자람과 완성을 얻는다고 말하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여러 곳에서 아주 잘 풀어 줍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얼마나 효력 있게 쓰셨는지를 떠올리게 하려 할 때, 그는 자기가 영의 직분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고전 2:4). 마치 지성을 안에서 비추고 움직이는 성령의 힘이 끊을 수 없는 끈으로 그의 설교와 이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고전 3:6)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무슨 힘이 있는지를 일러 주려 할 때에는, 그는 사역자들을 농부에 견줍니다. 농부는 땅을 가꾸는 데 수고와 근면을 다 들이고 나면 더 할 일이 없습니다. 뿌린 것이 하늘의 은택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도구들을 당신의 영적인 은혜를 펼치시는 데 쓰시는 한에서, 그들의 설교에서 성령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이 구별은 지켜야 합니다. 곧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 성례는 이렇게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어서, 주께서는 때로 성례에서 약속된 것들 자체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자 하실 때 성례 자체를 거두어 가십니다. 아담에게서 불멸의 선물을 빼앗고 그를 내치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창 3:22). “그가 생명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그가 이미 잃어버린 썩지 않음을 그 열매가 아담에게 되돌려 줄 수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가 내 약속의 상징을 붙들고 헛된 신뢰를 누리지 않도록, 그에게 불멸에 대한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을 빼앗으라.” 이런 까닭에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언약들에 대하여 나그네였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할 때(엡 2:12), 그들이 할례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로 그는 환유법으로, 약속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약속 자체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또 다른 반론, 곧 이렇게 많은 힘을 피조물에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게로 흘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반론에는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안에 아무 힘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시기에 알맞은 수단과 도구를 쓰셔서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의 주님이시요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떡과 그 밖의 음식으로 우리 몸을 먹이시고, 해로 세상을 비추시고, 불로 덥히시지만, 떡이나 해나 불은 그분이 그런 도구들 아래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한에서만 무엇이듯이, 그분은 성례로 영적으로 믿음을 기르십니다. 성례의 유일한 직무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눈앞에 두어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 쓰임에 정해졌고 그분이 그것들의 섬김으로 당신의 선하심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다른 피조물들에, 우리가 아무 신뢰도 붙박아 두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 복의 원인처럼 우러르거나 기리지 않아야 하듯이, 우리의 신뢰도 성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례에 옮겨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과 고백은 모든 것을 제쳐 두고 성례와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13. 그런데 그들이 바로 성례라는 이름에서 자기 오류의 핑계를 찾는 것은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CO 947 그들은 말합니다.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은 인정받는 저자들에게서 여러 뜻을 지니지만, 표에 들어맞는 뜻은 하나뿐이다. 곧 병사가 군대에 들어갈 때 사령관에게 바치는 저 엄숙한 맹세를 뜻하는 것이다. 새 병사들이 저 군대의 사크라멘툼으로 사령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군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듯이, 우리는 우리 표들로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깃발 아래 싸운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들은 이것을 더 밝히려고 비유들을 덧붙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토가로 겉옷(팔리움)을 입은 그리스 사람들과 구별되었고, 로마 안에서도

신분들이 저마다 자기 표지로 서로 구별되었듯이(원로원 신분은 자주색 옷과 초승달 장식 신발로 기사 신분과, 기사 신분은 반지로 평민과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상징을 지니고 다니며 그것으로 세속 사람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저는 꿋꿋이 단언합니다. 표들에 성례라는 이름을 붙인 옛사람들은 이 낱말이 라틴 저술가들에게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편의를 위하여 이 새 뜻을 덧붙여 단순히 거룩한 표를 가리키게 했습니다. 더 날카롭게 따지고 싶다면, 그들은 믿음(fides)이라는 이름을 지금 쓰이는 뜻으로 옮긴 것과 같은 유비로 이 이름을 이런 뜻으로 옮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fides)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의 신실함이지만, 그들은 그 신실함에 대하여 품는 확실함, 곧 확실한 설득을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사크라멘툼은 병사가 자기 사령관에게 자기를 바치는 맹세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령관이 병사들을 대열에 받아들이는 맹세로 만들었습니다. 주께서는 성례로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궤변은 제쳐 둡니다. 옛사람들이 이 표들이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의 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많은, 그것도 분명한 논거로 증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는 비유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례에서 뒤에 오는 것을 그들이 첫째로, 아니 유일한 것으로 세우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성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섬기는 것이고, 뒤의 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고백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 비유들은 이 뒤의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14. 다시 우리가 일깨워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례의 힘을 빼고 그 쓰임을 아주 뒤엎듯이, 반대편에는 하나님께서 성례에 심어 두셨다는 말을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는 무언지 모를 숨은 힘을 성례에 지어 붙이는 다른 이들이 서 있습니다. 이 오류로 순박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이

위험하게 속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으라고 배우고,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끌려 나가 그분의 진리 대신 순전한 헛것을 품게 됩니다. 궤변가들의 학파는 큰 일치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새 법의 성례, 곧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쓰이는 성례는, 우리가 대죄(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무거운 죄)의 장애물을 놓지만 않으면 의롭다 하고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해로운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견해가 여러 세기 전부터 교회에 큰 손실을 끼치며 세상의 상당 부분에서 힘을 떨쳐 왔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분명히 마귀적입니다. 첫째, 이 견해는 믿음 없이 의를 약속하므로 영혼들을 혼란과 심판으로 곤두박질치게 합니다. 다음으로, 이 견해는 의의 원인을 성례에서 끌어내므로, 저절로도 넉넉히 넘치게 땅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들의 가련한 지성을 이 미신으로 얽어매어, 하나님 자신보다 몸에 속한 것의 광경에 머물러 안심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토록 잘 겪어 알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긴 증명이 필요하기는커녕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 없이 받은 성례가 교회의 가장 확실한 멸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례에서는 약속 밖의 것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약속은 신자들에게 은혜를 가져오는 것 못지않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로 위협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진 것을 참된 믿음으로 받는 것보다 무언가 더 많은 것이 성례로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또 다른 것이 결론지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례에 참여하는 데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마치 칭의가 거기에 놓여 있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두어져 있고, 성례의 인침 못지않게 복음의 선포로 우리에게 전해지며, 성례의 인침 없이도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것도 이토록 참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하게 하심은 보이는 표 없이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보이는 표는 참된 거룩하게 하심 없이도 있을 수 있다.” 그

자신이 다른 곳에서 쓰듯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되, 때로는 성례를 받는 데까지, 때로는 삶의 거룩하게 됨에까지 이릅니다. 앞의 것은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공통일 수 있지만, 뒤의 것은 선하고 경건한 자들에게만 고유합니다.

15. 바로 여기서, 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같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주 짚은 성례와 성례의 실체 사이의 구별이 나옵니다. 그 구별은 그저 형상과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둘이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붙어 있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둘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도 늘 실체를 표와 구별하여, 한쪽에 속한 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분리에 관하여 말할 때 이렇게 씁니다. "성례는 택함받은 자들에게서만 그것이 나타내는 것을 이룬다." 또 유대인들에 관하여 이렇게 씁니다. "성례는 모두에게 공통이었으나, 성례의 능력인 은혜는 공통이 아니었다. CO 949 이와 같이 지금도 중생의 씻음은 모두에게 공통이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들의 머리와 함께 거듭나게 하는 은혜 자체는 모두에게 공통이 아니다." 또 다른 곳에서 주의 성찬에 관하여 이렇게 씁니다. "우리도 오늘 보이는 음식을 받는다. 그러나 성례와 성례의 능력은 다르다. 많은 사람이 제단에서 받고도 죽으며, 받으면서 죽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주님의 빵 조각도 유다에게는 독이었다. 그가 악한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자가 선한 것을 악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조금 뒤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의 성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하나 됨의 성례는 어떤 곳에서는 날마다, 어떤 곳에서는 정해진 날의 간격을 두고 주님의 상에서 준비되고, 그 상에서 어떤 이들은 생명에 이르도록, 어떤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성례인 그 실체 자체는, 누구든지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생명이 되고, 아무에게도 멸망이 되지 않는다." 또 그보다 얼마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는 성례가 아니라 성례의 능력에 이르는

자,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먹는 자, 이로 씹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디서나, 받는 자가 합당하지 않으면 성례가 그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 헛되고 쓸모없는 형상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빠진 표가 아니라 표와 함께 실체를 가지려면, 여러분은 거기에 담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례로 그리스도와의 교통에서 나아가는 만큼, 성례에서 그만큼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16. 이것이 짧아서 좀 모호하다면, 더 많은 말로 풀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례의 질료, 또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실체라고 말합니다. 성례는 그분 안에 자기의 모든 견고함을 지니고 있고, 그분 밖의 것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례의 섬김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기르고 굳게 하고 자라게 하는데, 또 그분을 더 온전히 소유하고 그분의 부요함을 누리는 데 도움을 받는 만큼, 성례는 우리에게 그만큼 효력을 지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묻겠지요. "그렇다면 불경건한 자들이 자기들의 배은망덕으로 하나님의 제정을 헛되게 하여 없는 것이 되게 한단 말인가?"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말한 것을, 마치 성례의 힘과 진리가 받는 자의 형편이나 성품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굳게 남아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자기 본성을 지킵니다. 그러나 베푸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르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축성된 상징이 참으로 그것이 일컬어지는 그것이고 자기 힘을 간직하면서도,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게는 거기서 아무 유익도 미치지 않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물음을 몇 마디로 잘 풀어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네가 육적으로 받는다 해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를 그치지는 않는다. 다만 네게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앞에서 든 대목들에서 성례가 그

진리에서 떨어지면 아무 값어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듯이, 다른 곳에서는 둘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도 구별이 필요하다고 일깨웁니다. 외적인 표에 너무 들러붙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문자를 따르고 표를 실체로 받는 것이 종의 연약함이듯이, 표를 쓸모없게 해석하는 것은 악하게 떠도는 오류이다." 그는 여기서 피해야 할 두 가지 잘못을 듭니다. 하나는 우리가 표를 마치 헛되이 주어진 것처럼 받아, 우리의 악함으로 그 숨은 뜻을 지워 버리거나 깎아내려 표가 우리에게 아무 열매도 가져다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성을 보이는 표 너머로 들어 올리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의 영예를 표 자체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에게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17. 그러므로 이것을 굳게 붙듭시다. 성례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하늘 은혜의 보화를 우리에게 베풀고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례는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게다가 옛사람들이 성례의 존엄을 높이려고 조금 지나치게 거창하게 쓴 것들이 우리를 이것과 비슷한 오류로 이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곧 성례에 어떤 숨은 힘이 붙어 박혀 있어서, 포도주가 잔에 담겨 건네지듯이 성례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성례의 직무는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확증하는 것이며, 우리 지성과 마음을 열어 우리를 이 증언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성례는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은혜가 또렷이 드러납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주께서 주시는 성례는 우리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하는 일을 합니다. 성례는 스스로 무슨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리고 보여 줍니다. 성령은 성례가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실어 오는 분이 아니라 주께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시고 성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이 세우신 성례의 집행이 열매 없고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성령의 가장 가까운 능력으로 당신의 제정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은혜를, 외적인 직무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따로 헤아리고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례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치면, 성례의 존엄은 훌륭히 드러나고, 그 쓰임은 분명히 밝혀지며, 그 유익은 넉넉히 선포되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절도가 지켜집니다. 곧 성례에 돌려서는 안 될 것은 아무것도 돌리지 않고, 반대로 성례에 마땅한 것은 하나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칭의의 원인과 성령의 능력이 마치 작은 그릇이나 수레에 담기듯 요소들 안에 갇힌다는 저 꾸며 낸 생각은 없어지고, 다른 이들이 지나쳐 버린 저 으뜸가는 능력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CO 951 18. 지금까지 그 본질을 논한 대로, 성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약속의 진리를 더 확실하고 든든하게 해 주시려고 언제든 명하신 모든 표를 두루 담습니다. 그분은 그 표들을 때로는 자연의 사물들 안에 두기를 원하셨고, 때로는 기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앞의 종류의 예는 이러합니다. 그분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 나무를 불멸의 보증으로 주셔서(창 2:17; 3:3), 그 열매를 먹는 동안에는 그들이 불멸을 든든히 기대할 수 있게 하셨을 때입니다. 또 그분이 하늘의 무지개를 노아와 그 자손에게 기념으로 세우셔서, 이후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을 때입니다(창 9:13). 아담과 노아는 이것들을 성례로 여겼습니다. 나무가 그들에게 불멸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무는 자기 자신에게도 불멸을 줄 수 없었습니다. 또 무지개가 물을 막는 데 효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지개는 마주한 구름에 햇빛이 되비친 것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표를 지니고 있어서 그분의 언약의 증표와 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나무는 나무였고 무지개는 무지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에 새겨지자 새로운 형태가 주어져, 전에는 아니었던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헛된 말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무지개 자체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 약속, 곧 땅이 결코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이비 철학자가 우리 믿음의 단순함을 비웃으려고, 이런 색깔의 다양함은 되비친 햇빛과 마주한 구름에서 자연히 생긴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자연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의 어리석음은 비웃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요소를 당신의 영광을 섬기는 데 쓰십니다. 만일 그분이 해와 별과 땅과 돌에 이런 기념의 표를 새기셨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성례가 될 것입니다. 금속은 똑같은데 왜 다듬지 않은 은과 각인한 은은 값이 같지 않습니까? 앞의 것은 자연밖에 지니지 않았지만, 공적인 형상이 찍히면 주화가 되어 새로운 값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피조물에 표를 찍으셔서, 전에는 벌거벗은 요소였던 것이 성례가 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뒤의 종류의 예는 이러합니다. 그분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려고 땅은 마른 채 양털에만 이슬을 적시시고, 다시 양털은 건드리지 않은 채 땅에 이슬을 내리셨을 때입니다(삿 6:37). 또 히스기야에게 무사함을 약속하시려고 해시계의 그림자를 열 칸 뒤로 물리셨을 때입니다(왕하 20:9; 사 38:7). 이 일들은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일으키고 굳게 세우려고 일어난 것이므로, 이것들도 성례였습니다.

19.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은, 주께서 당신의 교회에서 정규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신 성례, 곧 당신의 백성을 한 믿음과 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기르시려고 세우신 성례를 특별히 논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리자면, “참된 것이든 거짓된 것이든 어떤 종교(religion)의 이름

안에서도, 보이는 표나 성례의 어떤 공동체로 묶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로 엉길 수 없다."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이런 필요를 내다보셨으므로, 처음부터 당신의 종들에게 일정한 경건의 훈련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뒤에 사탄은 이것을 불경건하고 미신적인 예배로 옮겨 여러 방식으로 비틀고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제의에 입문하는 의식과 그 밖의 타락한 예식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오류와 미신으로 가득했지만, 그러면서도 이것들 자체가 사람들은 종교를 고백하는 데 이런 외적인 표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지 않았고 모든 표에 앞에 내세워져야 할 그 진리에 맞추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주께서 제정하시고 자기 기초에서 벗어나지 않아 참된 경건의 도구가 되는 거룩한 상징들을 말할 때에는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들은 표에만 있지 않고 예식에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서 주어지는 표들은 예식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 상징들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증거이듯이,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공공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우리의 충성을 그분께 서약하는 고백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소스토무스가 어디선가 이것들을 약정이라고 부른 것은 적절합니다. 이 약정으로 우리의 빚 문서가 지워지고, 다시 이것들은 우리 편에서 써 주는 맞영수증(antapochae)이어서 이것으로 우리는 삶의 순결과 거룩함에 매입니다. 거기서 주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 불러들인 허물과 형벌이 있으면 그것을 지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듯이, 우리는 경건과 무죄함을 고백하여 그분께 서로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례는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시려는 예식으로서, 첫째로 안에서 믿음을 기르고 일깨우고 굳게 하고, 다음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건(religion)을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20. 이 성례들도, 주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기를 기뻐하신 시대의 여러 경륜에 따라 서로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는 할례가 명해졌고, 그 뒤에 모세의 율법으로 정결 의식과 제사가 더해졌습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의 성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들이 폐지되자,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쓰는 두 성례, 곧 세례와 주의 성찬이 제정되었습니다(마 28:19; 26:26). 그런데 저는 온 교회가 쓰도록 제정된 것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자기 직무에 들어설 때 받는 안수는, 저는 그것이 성례라고 불리는 것을 마지못해 참지는 않지만, 정규적인 성례 가운데 넣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CO 953 흔히 꼽는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옛 성례들도 지금 우리 성례가 향하는 바로 그 과녁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거의 손을 잡아 인도하는 것, 또는 오히려 그분을 형상처럼 나타내 보여 알도록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가르쳤듯이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치는 인이며,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는 결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 지극히 확실하므로(고후 1:20), 성례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치려면 그리스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른 점은 다만 하나입니다. 저 옛 성례들은 아직 기다리던 약속된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 주었고, 지금의 성례는 이미 오셔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21.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밝히면 훨씬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씨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곧 사람의 본성 전체가 부패하여 잘라 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상징이었습니다. 게다가 할례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복된 씨에 관한 약속에서 자기를 굳게 하는 교훈이요 기념이었습니다(창 22:18). 그들도 그 씨에게서 자기들의 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배우듯이(갈 3:16), 저 구원의 씨는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들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오직 그분 안에서 되찾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할례는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다고 전하는 것(롬 4:11), 곧 믿음의 의의 인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그 씨를 기다리던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증받는 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와 세례의 비교는 다른 더 나은 기회에 더 길게 다루겠습니다. 씻음과 정결 의식은 그들이 본성으로 더럽혀져 있던 부정함과 불결함과 더러움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씻음, 곧 그들의 모든 더러움이 닦이고 씻길 씻음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씻음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씻기고 그분이 맞으신 채찍으로 나았습니다(히 9:14; 요일 1:7; 계 1:5; 사 53:5; 벧전 2:24). 제사는 그들의 불의를 깨우쳐 주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치러야 할 어떤 속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어떤 대제사장이 있어, 피를 흘리고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것이며, 그 제물은 죄 사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그분 자신이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여 당신 자신을 드리셨고,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람의 불순종을 없애셨기 때문입니다(히브리서; 빌 2:8; 롬 5:19).

22. 우리 성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타나실수록, 곧 약속되셨던 그대로 아버지에게서 참으로 보내어지신 뒤로, 우리 성례는 그만큼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씻겼다는 것을, 감사의 성찬은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물에는 씻음이, 피에는 속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분은 (요한이 말하듯이, 요일 5:6)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곧 깨끗하게 하시고 구속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이 일의 증인이십니다. 아니, 증인이

셋이면서 하나이니,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물과 피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하심과 구속의 증거를 가지며, 으뜸 증인이신 성령께서는 이 증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높은 신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훌륭히 보여졌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을 때입니다(요 19:34).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을 우리 성례의 샘이라고 부른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넓게 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대와 시대를 견주어 보면, 여기서 성령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나라의 영광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대목, 특히 요한복음 7장에서 이것을 모아 압니다(요 7).

23. 그런데 (이것도 지나가며 잠깐 다루자면) 옛 법의 성례와 새 법의 성례 사이에 그토록 큰 차이를 두는 저 스콜라 신학자들의 교리, 곧 마치 옛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림자로 보여 주었을 뿐이고 새 성례는 그 은혜를 실제로 준다는 듯이 말하는 교리는 아주 쫓아내야 합니다. 사도는 옛 성례에 관하여 우리 성례에 관해서보다 조금도 덜 훌륭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상들이 우리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가르치고(고전 10:3), 그 음식을 그리스도라고 풀이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통을 베풀어 준 저 표를 누가 감히 빈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사도가 거기서 다루는 논의의 논점도 분명히 우리 편에 서서 싸웁니다. 그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심판을 감히 멸시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의 엄하심의 본보기들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같은 악에 빠지면 그들이 받은 것과 같은 형벌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들어맞으려면, 우리가 헛되이 자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저 좋은 것들에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성례에서 그들을 우리와 같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형벌을 면하리라는 소망을 줄

수 있는 특권은 한 조각도 우리에게 남겨 두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세례에, 사도 자신이 다른 곳에서 할례를 믿음의 의의 인이라고 부르며 할례에 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롬 4:11). 그러므로 오늘 성례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유대인들도 옛적에 자기들의 성례에서 받았습니다. CO 955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우리 성례가 지닌 능력을 그들도 자기들의 성례에서 느꼈습니다. 곧 그들에게 그 성례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인이었습니다.

24.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서 할례에 관하여 읽히는 말씀들을 내세웁니다(롬 2:25). 곧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며,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할례를 우리 세례보다 훨씬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세례에 관해서도 옳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말해졌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고전 10:5). 거기서 그는 마음이 안에서 깨끗해지고 끝까지 순결 가운데 견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에 입문하는 외적인 씻음을 조금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벧전 3:21). 그는 세례의 진리가 외적인 씻음에 있지 않고 선한 양심의 증언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골 2:11) 손으로 한 할례를 아주 멸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와 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거기서도 할례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할례가 이미 폐지되었는데도 그것을 꼭 필요한 것처럼 요구하던 자들에 맞서 논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자들에게 옛 그림자들은 버리고 진리에 머물러 서라고 권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선생들은 너희 몸에 할례를 받으라고 다그친다. 그러나 너희는 영혼과 몸에 따라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림자보다 훨씬 나은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형상을 멸시할 것은 아니다. 조상들에게도 그가 말하는 저 옛사람을 벗어 버림이 있었으나, 그들에게 외적인 할례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곧이어 골로새 사람들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덧붙임으로써 이 반론을 미리 막습니다. 이로써 그는 옛사람들에게 할례였던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라는 것을 뜻합니다.

25. 그러나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풀기가 더 어렵습니다. 곧 유대인의 모든 예식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히브리서의 여러 장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곧 짐승의 피는 양심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를 지녔을 뿐 그 일의 형상은 지니지 않았다는 것, 모세의 예식으로 예배하던 자들은 아무 온전함도 얻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바울이 예식들을 그림자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들에 아무 견고한 것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의 완성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 미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것을 효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타내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까지 모든 표는 이를테면 계시지 않는 그분을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당신의 능력, 아니 당신 자신의 임재를 신자들 안에서 드러내셨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살펴야 할 것은, 이 모든 대목에서 바울이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 속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예식 자체에 경건이 있다고 주장하던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논박하는 데에는 예식이 그 자체로 무슨 힘이 있는지만 다루면 넉넉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같은 과녁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참되고 본래의

뜻으로 받아들인 예식이 아니라 거짓되고 비뚤어진 해석으로 왜곡된 예식에 관하여, 예식의 바른 쓰임이 아니라 미신적인 남용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떼어 낸 예식이 모든 힘을 빼앗긴다고 해서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표가 나타내는 실체가 없어지면, 표는 무엇이든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만나가 배를 채우는 음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상대하셨을 때, 그들의 거친 생각에 말씀을 맞추시어 당신이 영혼을 불멸의 소망으로 먹이는 더 나은 음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6:27). 더 분명한 해답을 원한다면, 전체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첫째, 모세의 율법에 있던 저 모든 예식의 장치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면 덧없고 아무 값어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므로,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에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오시자 그것은 폐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림자가 해의 밝은 빛 속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해서는 세례를 할례와 견주기로 한 그 자리로 더 긴 논의를 미루므로, 지금은 짧게만 다룹니다.

26. 어쩌면 옛사람들에게서 읽히는, 우리 표에 대한 저 지나친 찬사가 이 가련한 궤변가들을 속였는지도 모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말이 그렇습니다. “옛 법의 성례는 구원을 약속했을 뿐이지만, 우리 성례는 구원을 준다.” 그들은 이런 말과 비슷한 말투가 과장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자기들도 과장된 역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들의 글과는 아주 다른 뜻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서, 그가 다른 곳에서 쓴 것, 곧 모세 율법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미리 알렸고 우리 성례는 그분을 알린다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또 『파우스투스 반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들은 이루어질 일들의 약속이었고, 이것들은 이루어진 일들의 표지이다.” 마치 저것들은 그분을 아직 기다릴 때 형상으로 보여 주었고, 우리 성례는 이미 오신 그분을 이를테면 현재

계신 분으로 보여 준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타내는 방식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도 일러 주듯이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장차 올 것을 미리 알리는 성례를 지녔으나, 우리 시대의 성례는 저것들이 오리라고 선포한 것이 왔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그가 실체와 효력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여러 곳에서 풀어 말합니다. CO 957 예컨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성례는 표에서는 달랐으나, 표가 나타내는 실체에서는 같았다. 보이는 모양은 달랐으나 영적인 능력은 같았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표는 달라도 믿음은 같다. 말이 다르듯이 표가 다른 것이다. 말은 시대에 따라 소리를 바꾸고, 말도 결국 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조상들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몸의 음료는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라,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표가 바뀌었다. 거기서는 반석이 그리스도였고, 우리에게는 제단에 놓인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들은 큰 성례로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셨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지는 신자들이 안다. 보이는 모양을 보면 다르지만, 깨달을 수 있는 뜻을 보면 그들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에서는 그들의 음식과 음료가 우리 것과 같다. 그러나 뜻에서 같은 것이지 모양에서 같은 것이 아니다. 같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는 반석으로 형상화되셨고, 우리에게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도 이 점에서 얼마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두 가지 성례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인자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증언하지만, 우리 성례는 그것을 더 밝고 더 또렷하게 증언합니다. 두 가지 모두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지시지만, 우리 성례에서는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게 베풀어지십니다. 곧 우리가 앞에서 논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끄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우리는 그를 온 옛 시대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신실한 증인으로 여겨 자주 인용합니다)가

뜻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뒤에 제정된 성례가 수는 더 적고, 뜻은 더 존엄하며, 능력은 더 뛰어나다고 전합니다.

1539–1554년판 · 제17장 세례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17장 세례에 관하여 1

CO 1:957–97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957 제17장

세례에 관하여

1. 세례는 입문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으로 우리는 교회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헤아려집니다. 그런데 세례는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에 쓰이고, 다음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쓰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정의 이유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우리 믿음에 세 가지를 가져다주는데, 이것들도 하나씩 다루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것으로, 세례가 우리가 깨끗하게 됨의 상징이요 증서라는 것입니다. 더 잘 설명하자면, 세례는 일종의 전령처럼 보내져서,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지고 말소되고 없어져서 다시는 결코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기억되지 않고,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가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군인들이 자기 직분의 표로 자기 장수의 휘장을 달고 다니듯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경건(religion)을 고백하는 표지와 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감히 쓴 자들은 세례에서 첫째가는 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첫째가는 것은 곧,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막 16:16).

2. 바울이 쓴 말도 이런 뜻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곧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과(엡 5:26),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딛 3:5). 또 베드로가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한 것도 그렇습니다(벧전 3:21). 그는 우리의 씻음과 구원이 물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거나, 물이 깨끗하게 하고 중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그 자체 안에 품고 있다고 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구원의 원인이 있다고 말하려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성례 안에서 그러한 선물들을 알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 자체로 넉넉히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과 물의 세례를 함께 묶습니다. 마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씻기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세례를 통해 그런 소식이 인쳐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도 곧바로 덧붙여, 그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는 것 말고 다른 깨끗하게 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하게 하고 씻는다는 유사성 때문에 물로 CO 959 형상화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가 참되고 유일한 우리의 씻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그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물의 능력에 돌리는 자들의 착각을 논박하는 데에 세례 자체가 의미하는 바보다 더 확실한 논거는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습니다.

3. 또 세례가 지나간 때에만 미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례 뒤에 우리가 다시 빠지는 새로운 타락들에 대해서는 무언지 모를 다른 성례들 안에서 다른 새로운 속죄의 치료책을 찾아야 할 것이고, 마치 세례의 힘이 낡아 없어진 것처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런 오류 때문에, 어떤 이들은 생애의 마지막 위기에, 더 나아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아니면 세례로 입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의

용서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옛 감독들은 그들의 글에서 이 뒤바뀐 조심성을 그토록 자주 꾸짖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세례를 받든지, 우리는 단번에 평생토록 씻기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세례를 기억해 내야 하고, 이것으로 마음을 무장하여 죄 사함에 관해 늘 확신하고 안심하게 해야 합니다. 세례는 한 번 베풀어져서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의 죄들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정결함은 언제나 힘이 있고, 어떤 얼룩에도 눌리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 버리고 씻어 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앞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방종을 낚아채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우리는 여기서 그런 뻔뻔함으로 무장되지 않습니다. 이 교리는 오직 죄를 지은 뒤에 자기 죄 아래에서 지치고 외로워 탄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들이 혼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일어서고 위로받을 근거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롬 3:25). 이 말로 그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고 한결같은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양심의 낙인에 상처를 입고 의사를 찾아 탄식하는 비참한 죄인들에게만 아버지께서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집니다. 처벌받지 않는 것을 노려 죄지을 거리와 방종을 사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말고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4. 물론 저는 흔히 다른 생각이 받아들여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곧 첫 중생 때에는 오직 세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 사함을, 세례 뒤에는 고해와 열쇠의 은택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어내는 자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열쇠의 권세가 세례에 매여 있어서 결코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교회의

사역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곧 복음의 선포 없이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선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씻음의 표징과 증언이 세례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죄 선언이 세례와 관련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오류가 우리에게 고해 성례라는 꾸며 낸 것을 낳았습니다. 마치 세례 자체가 회개의 성례가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회개가 평생토록 우리에게 권해진다면, 세례의 힘도 그와 같은 끝까지 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이들이 모두 생애의 모든 여정 동안, 자기 악덕을 의식하여 양심이 괴로울 때마다 담대히 세례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 가지고 있는 저 유일하고 영속하는 씻음에 대한 신뢰를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5. 세례는 또 다른 위로도 가져다줍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임과 그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롬 6:3). 이 말로 그는 우리에게 그분을 본받으라고만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의 정욕에 대해 죽고, 그분의 부활을 본보기로 삼아 의로 일으켜지라고 세례를 통해 깨우침을 받는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일을 훨씬 더 깊은 데서 끌어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죽으심에 접붙여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가지가 자기가 접붙여진 뿌리에서 진액과 양분을 끌어오듯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자기 육을 죽이는 일에서 느끼고, 동시에 그분의 부활의 효력도 영을 살리는 일에서 느낍니다. 여기서 바울은 권면의 재료를 얻습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논증을 씁니다. 곧 세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된 뒤에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는 것입니다(골 3:9). 또 바로 앞에서 인용한 대목에서 그가 세례를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이라고 부른 것도 이런 뜻에서입니다.

6. 끝으로, 우리 믿음은 세례에서 이런 위로도 받습니다. 곧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에 접붙여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결합되어 그분의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당신의 몸으로 봉헌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도(마 3:13) 그 때문입니다. 세례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셔서, 당신께서 우리와 맺기를 기꺼이 원하신 하나 됨과 교제의 가장 굳은 끈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갈 3:27). 이처럼 우리는 세례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례의 고유한 대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세례 안에서 내놓아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든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은 동시에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긍휼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너그러우심을 드러내시려고 CO 961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중생을 얻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새롭고 영적인 본성으로 물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됨과 중생함의 원인을 아버지 안에서, 그 재료를 아들 안에서, 그 효과를 성령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었고, 그 뒤에 사도들도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로 이렇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회개라는 말로 이런 중생을 뜻했고, 죄 사함이라는 말로 씻음을 뜻했습니다.

7. 이로써 요한의 사역이 뒤에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역과 온전히 같았다는 것도 아주 확실해집니다. 세례를 베푸는 손이 다르다고 해서 세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리가 그 세례가 같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요한과 사도들은 한 교리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양쪽 다 회개에 이르게, 양쪽 다 죄 사함에 이르게, 양쪽 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와 죄 사함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요 1:29).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 화목제물,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사도들이 이 고백에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들이 하나를 다른 하나와 구별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아무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판단이 성경의 확실성을 흔들 만큼 우리에게 무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의 세례에 죄 사함이 담겨 있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크리소스토무스의 말을, 요한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반대로 단언하는 누가의 말보다 누가 더 귀담아듣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로는 죄가 소망 가운데 사해졌고 그리스도의 세례로는 실제로 사해진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저 교묘한 말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 기자가 요한이 자기 세례에서 죄 사함을 약속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는데, 아무런 필요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이 칭호를 깎아내려야 합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차이를 찾는다면, 요한은 오실 분 안으로 세례를 주었고 사도들은 이미 당신을 나타내신 분 안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차이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눅 3:16; 행 19:4).

8. 그리스도의 부활 뒤에 성령의 은혜가 더 찬란하게 부어졌다는 것은

세례들 사이에 차이를 세우는 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땅에 계실 때 사도들이 베푼 세례는 그분의 세례라고 불렸지만, 요한의 세례보다 더 풍성한 성령의 부요함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승천 뒤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보내져 안수할 때까지는 이전 신자들의 통상적인 정도를 넘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행 8:14, 17). 제가 생각하기에 옛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그리스도의 세례에 이르는 준비일 뿐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요한의 세례를 한 번 받은 이들이 바울에게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읽었기 때문입니다(행 19:3, 5).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얼마나 착각했는지는 곧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한 말은 무엇입니까(마 3:11)? 이것은 몇 마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는 세례를 세례와 구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견주었습니다. 곧 자기는 물의 사역자이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며, 그분께서 성령을 불의 혀 모양으로 사도들에게 보내실 날에 이 능력을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이보다 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세례를 주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깥 표징의 사역자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안의 은혜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옛사람들도 곳곳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습니다.

9. 우리가 옛사람을 죽임과 씻음에 관해 말한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미리 그림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는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고전 10:2). 옛사람을 죽임은, 주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과 잔혹한 종살이에서 건지셔서 홍해를 지나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 주시고, 뒤에서 그들을 몰아붙이며 그들의 목덜미를 덮치려던 바로 자신과 원수인 이집트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하셨을 때 형상

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세례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표징으로 보여 주십니다. 곧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의 포로됨, 다시 말해 죄의 종노릇에서 이끌어 내시고 건지셨으며, 우리의 바로, 곧 마귀를 물에 잠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지치게 하기를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이집트 사람이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엎어져서 그 무서운 모습으로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먹게 하기는 했어도 해칠 수는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원수도 아직 위협하고 무기를 내보이며 그 존재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구름에는 깨끗하게 함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펼쳐 그들을 덮으시고 시원하게 해 주셔서 그들이 더 사나운 햇볕에 기진하여 쇠약해지지 않게 하셨듯이, 우리는 세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고 보호받아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불꽃인 하나님의 엄하심이 우리를 덮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10. 이제 어떤 이들이 가르친 것, 곧 우리가 세례로 원죄와, 아담에게서 그의 온 후손에게 퍼진 부패에서 풀려나고 벗어나며, 아담이 처음 창조된 온전함 가운데 서 있었더라면 얻었을 그 의와 본성의 정결함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인지 분명합니다. 이런 부류의 박사들은 원죄가 무엇인지, 원의(原義)가 무엇인지, 세례의 은혜가 무엇인지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CO 963 그런데 앞에서 이미 논했듯이, 원죄는 우리 본성의 악함과 부패로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있는 자로 만들고, 다음으로 성경이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본성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망가지고 뒤틀려 있으므로, 이런 부패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정죄받고 죄가 드러난 자로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의와 무죄와 정결함 말고는 아무것도 받으실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자기 정죄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지니고 나옵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 죄악의 열매를 내지 않았지만, 그 씨를 자기 안에 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본성 전체가 일종의 죄의 씨이므로, 하나님께 미움받고 가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 이 정죄가 없어지고 자기에게서 쫓겨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미 말했듯이) 주님께서 이 표징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할 죄책과 그 죄책 때문에 치러야 할 형벌 모두에 대해 완전하고 든든한 사함이 이루어졌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도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의, 곧 오직 전가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긍휼로 그들을 의롭고 무죄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11. 다음으로, 이 뒤틀림은 우리 안에서 결코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 열매들, 곧 앞에서 묘사한 육체의 일들을 낳습니다. 불붙은 화덕이 끊임없이 불꽃과 불티를 뿜어내고, 샘이 끝없이 물을 쏟아 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욕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벗어 버리기까지는 사람들 안에서 결코 완전히 죽거나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바로가 물에 잠겼다는 것과 죄를 죽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는 없다거나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죄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사는 동안에는 죄의 남은 것들이 우리 안에 살 것이지만, 세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그것들이 주인 노릇 하지도 다스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죄가 늘 우리 안에 산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악 가운데서 스스로 비위를 맞추지 마십시오. 이 말은 죄인들이 자기 죄 속에서 마음 놓고 잠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 육에게 간질여지고 시달리고 찔리는 이들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아직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자기 정욕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낄 때 자기가 많이 나아갔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향하여 가는

곳, 곧 자기 육의 마지막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멸망은 이 죽을 생명이 끝날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을 죽이기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이 죽임은 세례로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이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생에서 주님께로 떠나갈 때 완성될 것입니다.

12.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값없는 의를 논한 뒤에, 어떤 불경건한 자들이 우리가 행위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니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거기서 끌어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모든 사람은 동시에 성령으로 중생하며, 우리는 세례에서 이 중생의 보증을 가진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에게 죄가 그들의 지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권합니다. 또 그는 신자들 안에 늘 얼마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위로를 덧붙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방자해질 수 있다고 보일 수 있었으므로, 그는 그 폐지가 어떤 것인지, 동시에 율법의 쓰임이 무엇인지를 일러 줍니다. 이 문제를 그는 이미 두 번이나 미루어 두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율법의 엄격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직분은 우리가 우리 악함을 깨닫고 우리의 무능과 비참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본성의 그 악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자기 욕망을 마음대로 따르는 세속적인 사람에게서는 그리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는 중생한 사람, 곧 자기 자신에게서 본보기를 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자기 육의 남은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으며, 비참한 종살이에 매여 붙들려 있어서 자기 전부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바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음에 매인

몸에서 나를 건져 내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동안 감옥에 포로로 붙들려 있다면, 이 두려움을 막아 주지 않는 한, 자기 위험을 생각하며 몹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용도로 위로를 덧붙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한번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접붙이시고, 세례를 통해 교회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신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무는 동안에는, 비록 죄에게 에워싸이고 더 나아가 자기 안에 죄를 지니고 다닐지라도, 그럼에도 죄책과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단순하고 참된 해석이라면, 우리가 무슨 낯선 것을 가르친다고 보일 까닭이 없습니다.

13.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 고백에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헤아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고백하는 표입니다. 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한 경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표입니다. 끝으로 우리 믿음을 공적으로 확언하는 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찬양을 내쉴 뿐 아니라, 혀와 몸의 모든 지체도 할 수 있는 모든 표시로 하나님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땅히 그래야 하듯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데 바쳐지고(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켜 CO 965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도 우리의 본보기로 같은 열심을 품도록 자극받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고전 1:13)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로 자기를 그분께 바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 자기 신의를 맺었으므로, 세례에서 한 고백을 부인하려 하지 않는 한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를 더는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넌지시

일러 준 것입니다.

14.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무엇을 바라보셨는지를 이야기했으니, 우리가 세례를 쓰고 받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 믿음을 위로하고 굳게 하려고 주어지는 것인 만큼, 마치 하나님의 손에서 받듯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표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으시며 우리 허물의 기억을 없애 버리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 우리를 당신 아들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시고, 사탄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으시며, 우리 정욕의 힘을 꺾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로 옷 입히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해야 마땅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 몸이 밖에서 씻기고 물에 잠기고 물에 둘러싸이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것만큼이나 참되고 확실하게 이 일들을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십니다. 이 유비, 곧 이 유사성은 성례의 가장 확실한 규칙입니다. 곧 주님께서 이런 형상들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성례에 묶이고 갇혀 있어서 성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표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 곧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뿐입니다.

15. 그 증거로 백부장 고넬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전에 죄 사함과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는데도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10:48). 그는 세례에서 더 넉넉한 죄 사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의 훈련을 구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세례로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세례로 그의 죄를 씻으라고 말했습니까(행 22:16)?[551]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551. 원문에는 “행 9:17”로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죄를 씻으라고 한 말은 행 22:16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든지 전에 안 것을 더 확실히 확신하게 되든지, 우리는 그것을 받는다, 얻는다, 얻어 낸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뜻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바울이여, 그대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세례를 받으시오. 주님께서 세례에서 죄 사함을 약속하시니, 그것을 받고 안심하시오." 그런데 이 성례에서도 다른 모든 성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만큼만 얻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어진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례는 우리 고백의 상징인 만큼, 우리는 세례로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의 긍휼에 있고, 우리의 정결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 모든 신자와 함께 믿음과 사랑의 한 뜻으로 한마음이 되어 살려 한다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했을 때(고전 12:13)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16. 이제 우리가 세운 것, 곧 성례는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손에서가 아니라 의심 없이 그것을 보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손에서 받듯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참이라면, 여기서 성례를 건네주는 사람의 품위에 따라 성례에 무엇이 더해지거나 덜해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편지 한 통이 보내졌을 때 손 글씨와 인장만 넉넉히 알아볼 수 있으면 편지를 나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듯이, 우리도 주님의 성례가 어떤 전달자를 통해 오든지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손 글씨와 인장을 알아보는 것으로 넉넉해야 합니다. 이로써 성례의 힘과 가치를 사역자의 품위로 재던 도나투스파의 오류가 훌륭하게 논박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재세례파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황의 나라에서 불경건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바르게 세례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래서 다시 세례 받기를 미친 듯이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입문한 것이 어떤 사람의 이름 안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는 것, 그러므로 세례는 누가 베풀었든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어리석음에 맞서 넉넉히 튼튼한 논거로 무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준 자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모르고 멸시하는 자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자기 무지나 신성 모독의 동아리 안으로 물에 담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담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다른 이름 안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가 하나님의 세례였다면, 그것은 분명 죄 사함과 육을 죽임과 영적으로 살림과 그리스도께 참여함에 관한 약속을 그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17.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 세례 뒤에 몇 해가 지나서야 우리 믿음이 따라왔으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묻습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약속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니, 이로써 그 세례가 무효라는 것을 밝혀내려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눈멀고 믿지 않아서 오랫동안 세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으므로 언제나 확정되고 굳고 참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요 신의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멸망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CO 967 그 기간 동안에는 세례가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 없이는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그 약속이 소홀히 여겨진 채 내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뉘우치기 시작했으니, 우리는 그분의 그토록 큰 선하심에 그토록 오랫동안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의 눈멂과 마음의 완악함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약속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모든 이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세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것을 껴안읍시다. 그 약속은 불신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에게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대 백성을 뉘우침으로 부르실 때, 불경건하고 신성을 더럽히는 손으로 할례를 받고 얼마 동안 같은 불경건에 얽혀 살았던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의 돌이킴만을 재촉하십니다. 그들이 언약을 아무리 어겼더라도, 언약의 상징은 주님의 제정에 따라 언제나 굳고 깨뜨릴 수 없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뉘우침이라는 조건으로, 주님께서 할례에서 그들과 한번 맺으신 언약 안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긴 제사장의 손으로 그 할례를 받았고, 자기들 편에서는 그것을 다시 더럽혔는데도 그러했습니다.

18.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요한의 세례로 한 번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내세울 때(행 19:3, 5) 불화살을 쏘아 대는 줄로 여깁니다.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고백대로 요한의 세례가 지금 우리 세례와 온전히 같은 것이었다면, 앞서 그릇되게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배웠을 때 그 믿음 안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듯이, 참된 교리 없이 베풀어진 그 세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하고, 우리는 이제야 처음 배운 참된 경건 안으로 처음부터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을 그릇되게 흉내 낸 어떤 자[552]가 있어서, 그가 첫 세례로 그들을 오히려 헛된 미신 안으로 입문시켰다고 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다는 데서 이 추측을 끌어내는 듯합니다. 요한이라면 결코 그렇게 무지한 채로 제자들을 자기에게서 떠나보내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

552. [원문의심] 원문의 그리스어 낱말이 “xaxo^tj» Tiov”로 깨져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κακοζηλωτήν”(그릇된 모방자)으로 읽었습니다.

이라면 세례를 전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의 그토록 많은 증언으로 기려지는 성령에 대한 모든 지식이 없었다는 것도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묻던 성령의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지를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처럼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참된 요한의 세례였고 그리스도의 세례와 하나요 같은 것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들이 바울에게서 순수한 교리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더 단순하게, 성령의 세례, 곧 안수로 주어진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들로 알아듣고 싶습니다. 이 은사들을 세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순절에 사도들은 불과 성령의 세례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일컬어지고(행 1:5), 베드로도 고넬료와 그의 집안과 친척들에게 그 은사들이 부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같은 말씀이 기억났다고 이야기합니다(행 11:16). 그 뒤에 덧붙인 말, 곧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는 말도 이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누가는 서로 다른 두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일의 요점을 내놓고, 그다음에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말의 앞뒤 흐름 자체에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뒤의 말이 그 세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묘사합니다. 무지가 첫 세례를 망쳐서 둘째 세례로 고쳐야 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사도들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뒤 꼬박 세 해 동안 더 순수한 교리를 겨우 조금 맛보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긍휼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고쳐지는 그토록 많은 무지만큼 물에

담그기를 거듭하려면, 우리 가운데 어떤 강물이 넉넉하겠습니까?

19.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광신적인 영들이 유아 세례 때문에 교회 안에 큰 소동을 일으켰고, 지금도 소란 피우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저는 그들의 광기를 막으려고 여기에 부록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록이 누군가에게 너무 길어 보이거든, 그분은 교회의 평온이 우리에게 그만큼 귀해야 하므로 그 평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싫증 내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 논의를, 세례의 신비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데에 적잖이 중요한 것이 되도록 엮으려고 애쓰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겉보기에 그럴듯한 논증으로 공격받습니다. 곧 유아 세례가 하나님의 어떤 제정에도 근거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호기심으로 함부로 관습에 들어왔다고 떠벌리는 것입니다.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기초에 기대지 않으면 실 한 오라기에 매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을 잘 살펴보아 이런 중상이 주님의 거룩한 규례에 거짓되고 부당하게 찍힌 낙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그 기원을 캐 봅시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오직 사람들의 무모함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밝혀지면, 그것과는 작별하고 세례의 참된 시행을 오직 주님의 뜻으로 잽시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주님의 확실한 권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정들을 뒤흔들어 그 제정하신 분 자신까지 모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20. 먼저, 표징을 바르게 살피는 일이 바깥 의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약속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형상화하시려고 의식들 자체를 정하신 영적 신비들에 달려 있다는 것은 넉넉히 알려진 교리이고 모든 경건한 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CO 969 그러므로 세례가 무슨 힘이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마침내 도대체 무엇인지를 철저히 배우려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물질과 육체적인 볼거리에 멈추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거기서 우리에게 내놓아지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거기서 나타내어지는 안

쪽의 비밀들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붙드는 사람은 세례의 든든한 진리와, 말하자면 그 실체 전부를 얻은 것이고, 거기서 바깥의 뿌림이 무슨 이유로 있으며 어떤 쓰임이 있는지도 배울 것입니다. 거꾸로 이것들을 업신여겨 지나쳐 버리고 마음을 눈에 보이는 의식에 온통 붙박아 매어 둔 사람은 세례의 힘도 그 고유한 성질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슨 쓰임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생각은 성경의 더 많고 더 분명한 증언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지금 이것을 더 길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세례에서 주어진 약속들로부터 세례의 힘과 본성이 무엇인지를 캐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서 얻는 죄의 씻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육을 죽임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신자들이 새 생명으로 중생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전체와의 교제가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세례에 관해 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 요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밖에도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증언하는 표라는 점이 더해질 뿐입니다.

21. 그런데 세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례 대신 할례가 있었으므로, 이 두 표징이 서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유사성으로 일치하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키라고 명하실 때(창 17:10), 먼저 약속을 앞세우십니다. 곧 당신께서 그와 그의 씨에게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넉넉함과 충족함이 당신께 있다고 덧붙이셔서, 아브라함이 그분의 손을 자기에게 모든 좋은 것의 샘으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며, 여기서 신자들의 불멸과 부활을 증명하는 논거를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마 22:32; 눅 20:37). 그러므로 바울도 에베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떤 멸망에서 건지셨는지 보여 주면서, 그들이 할례의 언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데서 그들이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다고 결론짓습니다(엡 2:12). 이 모든 것을 언약 자체가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 불멸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는 죄 사함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세례의 약속에 대응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진실함과 무죄함 가운데 당신 앞에서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죽임, 곧 중생에 속합니다. 그리고 할례가 옛사람을 죽임의 표징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모세는 다른 곳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신 10:16).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주께 마음의 포피를 베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듯이, 모세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그 육체의 할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풀어 줍니다. 다음으로 아무도 자기 힘으로 거기에 이르려고 애쓰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선지자들이 이 모든 것을 그토록 자주 거듭 일깨우므로, 곳곳에서 저절로 마주치는 증언들을 여기에 많이 모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에서 조상들에게 주어진 영적 약속이 세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할례가 그들에게 죄 사함과 육을 죽임을 형상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세례의 기초이시고 그분 안에 이 둘이 다 있다고 가르쳤듯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기초이시기도 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민족의 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인치려고 할례의 표징이 더해졌습니다.

22. 이제 이 두 표징에서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징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설명한 약속은 양쪽에서 하나입니다. 곧 주님의 긍휼, 죄 사함,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다음으로 형상화된 것도 하나, 곧 중생입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기대는 기초도 양쪽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안쪽의 신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성례의 모든 힘과 고유한 성질은 이 신비로 평가해야 합니다. 남는 다른 점은 바깥 의식에 있는데, 그것은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속과 표징으로 나타낸 실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의식의 차이를 빼고는, 할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세례에도 해당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과 비교로 우리를 손잡아 이끄는 것은 사도의 규칙인데, 그 규칙은 성경의 모든 해석을 믿음의 분수에 맞추라고 명합니다(롬 12:3, 6). 그리고 참으로 이 부분에서는 진리가 거의 손으로 만져질 만큼 드러납니다. 할례가 유대 사람들에게 일종의 표여서,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집안으로 양자 삼아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들 편에서도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고백했으며, 그것이 그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첫걸음이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도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입문하여 그분의 백성 가운데 등록되고, 우리 편에서도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로써 세례가 할례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드러납니다.

23. 이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지 살펴보고자 한다면, 물이라는 물질과 바깥 의식에만 머물려 하고 영적 신비에는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는 사람을 너무 어리석다고, 아니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1539–1554년판 제17장 세례에 관하여 2

CO 1:971–98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971 [553]그 영적 신비를 얼마라도 헤아린다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며 세례가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심 없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옛날에 유아들을 할례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셨다면, 할례로 표시된 모든 것에도 그들을 참여하게 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거짓 상징으로 당신의 백성을 달래어 순전한 속임수로 그들을 놀리신 셈이 될 것이니, 이것은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할례가 언약의 약속을 인치는 인장 노릇을 하리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 언약이 굳고 확정되어 있다면, 그 언약은 옛 언약 아래에서 유대 사람들의 유아들에게 해당되었던 것 못지않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징으로 나타낸 실체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어찌 표징에서 쫓겨나겠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얻는다면, 어찌 형상에서 밀려나겠습니까? 성례에서 바깥 표징은 말씀과 떼어 놓을 수 없을 만큼 붙어 있지만, 그래도 둘을 구별한다면 묻건대 우리는 어느 쪽을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표징이 말씀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상, 우리는 분명 표징이 말씀 아래 있다고 말하고 더 낮은 자리에 두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말씀이 유아들을 위해 정해져 있는데, 어찌 표징, 곧 말씀에 딸린 것을 그들에게서 돌려 버리겠습니까? 다른 논거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 논거만으로 반대하려는 모든 자를 논박하기에 넉넉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할례에는 정해진 날이 있었다고 반박하는 것은 순전히 핑계입

553.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 사람들처럼 정해진 날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 날도 정해 주지 않으시면서도 유아들이 엄숙한 예식으로 당신의 언약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24. 그런데 성경은 이 진리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 줍니다. 주님께서 한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옛날 유대 백성에게 못지않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굳게 서 있으며, 따라서 그 말씀이 그때 유대 사람들에게 해당되었던 것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줄이거나 잘라내셨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가증한 신성 모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 불경건한 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씨라고 불렸듯이, 지금도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부모 가운데 한쪽만 신자여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룩하다고 여겨지고(고전 7:14), 성경의 증언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더러운 씨와 구별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바로 뒤에 그 언약을 유아들에게 바깥 성례로 인치라고 명하셨으니(창 17:12),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증언하고 인치지 못할 무슨 까닭을 대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폐지된 할례라는 상징 말고는 다른 것으로 당신의 언약을 확증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고 제게 반박하지 마십시오. 이에 대답하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옛 언약의 시대를 위해서는 당신의 언약을 확증하려고 할례를 제정하셨지만, 할례가 폐지되었어도 우리가 유대 사람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확증의 이유는 언제나 같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쪽에 공통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우리와 따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약은 공통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이유도 공통입니다. 확증하는 방식만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할례였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는 세례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대 사람들이 자기 씨의 구원에 관해 확증받았던 그 증언을 우리가 빼앗긴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 유대 사람들에게보다 우리에게 더 흐릿하고 덜 증언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극도로 모욕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끝없는 선하심이 일찍이 어느 때보다 더 찬란하고 더 너그럽게 땅에 부어지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선하심이 율법의 흐릿한 그림자 아래에서보다 더 인색하게 감추어지거나 더 작은 증언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5.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아버지의 긍휼을 제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히러 오셨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본보기를 보이시려고, 당신께 데려온 유아들을 다정하게 안아 주시고,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으려던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마 19:14). 제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인 그 아이들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그분에게서 떼어 놓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안아 주신 것이 세례와 무슨 비슷한 점이 있느냐? 그분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비셨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고 싶다면 유아들을 기도로 도울 것이지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유아들을 당신께 데려오라고 명하시면서 “이런 자의 것이 천국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덧붙이신 것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안으시고 기도와 축복으로 그들을 아버지께 맡기심으로 당신의 뜻을 행동으로 증언하십니다. 유아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것이 마땅하다면, 어찌 그들을 우리와 그리스도의 교제와 사귐의 상징인 세례

에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면, 이를테면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가 열리고, 교회에 받아들여져 하늘나라의 상속자들 가운데 등록되게 하는 그 표징을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초대하시는 이들을 우리가 쫓아낸다면, 그분께서 당신의 선물로 꾸미시는 이들을 우리가 벗겨 낸다면, 그분께서 몸소 기꺼이 들이시는 이들을 우리가 막아 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의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하신 일이 세례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따져 보고 싶다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셔서 그들이 당신의 것이며 당신에게서 거룩하게 된다고 선언하시는 받아들이심, 안으심, 안수, 기도보다, 유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 있다고 증언하는 세례를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CO 973 그들이 이 대목을 피하려고 애쓰며 내놓는 다른 트집들은 자기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데서, 그들이 이미 걸어올 수 있을 만큼 나이가 좀 든 아이들이었다고 따집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을 브레페(βρέφη)와 파이디아(παιδία)[554]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말로 젖을 빠는 어린아이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오다"라는 말은 그저 "나아오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보십시오, 진리에 맞서 마음을 굳힌 자들이 어떤 덫을 짤 수밖에 없는지를! 또 그들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지 "그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으니, 천국이 유아들에게 돌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비슷한 이들에게 돌려졌다고 떠벌리는데, 이것도 조금도 더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나이로 보아 유아들이 당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그리스도의 논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께서 유아들이 당신께 나아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명하실 때, 참으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신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지 않도록 그분께서는 "이런 자의 것이 천국이다"라고 덧붙이십니다.

554. [원문의심] 원문의 그리스어가 "Pgi^^ «a^ nMiCa"로 깨져 있습니다. 문맥과 복음서 본문(눅 18:15; 마 19:13)에 따라 "βρέφη καὶ παιδία"로 읽었습니다.

여기에 유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이런 자”라는 말로 유아들 자신과 그들과 비슷한 이들이 가리켜진다는 것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26. 성경의 그토록 큰 인정으로 떠받쳐지는 유아 세례가 결코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압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가 하나도 찾아지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자들의 헛소리도 그리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이름을 들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어떤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유아들이 빠져 있지도 않으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거기서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추론하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논증이 무슨 힘이 있다면, 여자들도 똑같이 주의 성찬에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 여자들이 성찬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규칙으로 만족합니다. 성찬의 제정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그 시행을 누구에게 나누어야 하는지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지킵니다. 세례가 무슨 목적으로 제정되었는지 살펴보면, 세례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에게서 세례를 빼앗는 것은 세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놓고 속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뒤 유아 세례가 알려지지 않았던 긴 세월이 지나갔다고 순박한 대중 사이에 퍼뜨리는데, 이 점에서 그들은 아주 추악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기원을 사도 시대에 돌리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저술가는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27. 이제 남은 일은, 아무도 이 시행을 쓸데없고 헛된 것으로 업신여기지 않도록, 이 시행에서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세워 세례를 받게 하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세례를 받는 유아들 자신에게 어떤 열매가 돌아오는지를 짧게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런 구실로 유아 세례를 조롱할

생각이 든다면,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할례의 계명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아 세례를 공격하려고 내놓는 것 가운데 할례에게로 되돌려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기 육의 감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곧바로 정죄하는 자들의 교만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꺾을 다른 무기로도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위로로 우리 믿음을 돕는다고 느껴지는 주님의 이 거룩한 제정은 쓸데없다는 말을 들을 까닭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나누어진 하나님의 표징은 찍힌 인장처럼, 경건한 부모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증하고 그것이 유효하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께서 그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씨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그 부모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천 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크게 드러나므로, 이것은 먼저 그분의 영광을 기릴 아주 넉넉한 재료를 주고, 경건한 마음들을 남다른 위로로 적셔 줍니다. 동시에 그 위로로 그들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돌보시는 것을 보는, 그토록 자애로운 아버지를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받습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데에는 약속으로 넉넉해야 한다고 이의를 단다 해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르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꿰뚫어 아시므로, 이 일에서 그만큼 그 연약함을 너그럽게 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약속을 껴안는 이들은, 자녀들을 긍휼의 상징으로 인치도록 교회에 바치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이 자기 자녀들의 몸에 새겨진 것을 눈앞에서 보므로, 거기서 더 확실한 신뢰를 품도록 자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거꾸로 아이들도 자기 세례에서 얼마간 유익을 얻습니다. 교회의 몸에 접붙여져서 다른 지체들에게 얼마쯤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자라면, 나이로 보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기도 전에 엄숙한 양자 삼으심의

상징으로 자기를 자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려는 열심으로 적잖이 자극받습니다. 끝으로 저 정죄의 말씀이 우리를 몹시 두렵게 해야 합니다(창 17:14). 곧 누구든지 언약의 상징으로 자기 아들에게 표하기를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업신여기면 주어진 은혜가 거절되고 이를테면 맹세코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28. 이제 어떤 미쳐 날뛰는 짐승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정을 공격하기를 그치지 않는 데 쓰는 논증들을 따져 봅시다. 먼저 그들은 세례와 할례의 유사성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나 몰리고 옥죄인다고 느끼므로, 이 두 표징을 먼 차이로 떼어 놓아 하나가 다른 하나와 아무 공통점도 없어 보이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표시되는 실체도 다르고, 언약도 아주 다르며, 자녀라는 이름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째 것을 증명하려 들면서, 할례가 세례의 형상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임의 형상이었다고 내세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기꺼이 그들에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CO 975 이것이 우리를 가장 잘 변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할례가 옛사람을 죽임의 표징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증명을 우리 견해에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가 할례 대신 들어서서, 옛날 할례가 유대 사람들에게 표시하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정합니다. 언약의 차이를 주장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야만스러운 대담함으로 성경을 찢어 놓고 망가뜨립니까? 그것도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성하거나 온전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유대 사람들을 너무나 육적인 자들로 그려서, 사람보다는 짐승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곧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이 한때의 생명을 넘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현재의 육체적인 좋은 것들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통한다면, 유대 민족은 사람들이 우리에서 돼지 떼를 살찌우는 것과 다르지 않게 한동안 하나님의 은택으로 배불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망해 버렸다는 것 말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할례와 할례에 붙은 약속들을 인용하기만

하면, 그들은 할례는 문자의 표징이었고 그 약속들은 육적인 것이었다고 대꾸하기 때문입니다.

29. 참으로 할례가 문자의 표징이었다면, 세례에 관해서도 조금도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조금도 더 영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골 2:11).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우리 육 안에 살던 죄의 몸을 벗어 버림으로써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 그는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로 그가 뜻하는 것이, 세례의 완성과 진리가 동시에 할례의 진리요 완성이라는 것, 두 표징이 한 실체를 형상화하기 때문이라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였던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두 표징의 약속들과 그 표징들로 나타내는 신비들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했으므로, 지금은 더 오래 머물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자들에게,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 말고는 그 밑에 아무것도 없는 표징을 땅에 속한 문자의 표징으로 여겨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일러 두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박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연기를 팔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 아주 뻔뻔한 거짓말을 덮어씌우는 데 쓰는 반박 하나를 지나가는 길에 씻어 버리겠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던 으뜸가는 약속들이 영적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무엇보다 확실합니다. 또 거꾸로 조상들도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그 약속들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장차 올 생명에 대한 신뢰를 품고 온 마음의 정성으로 그 생명을 사모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땅에 속한 육체적인 은택들로도 그들에게 당신의 호의를 증언하셨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택들로도 영적인 약속들에 대한 그 소망이 확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을 때, 당신 호의의 분명한 표를 그의 눈앞에 내놓으시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또 하나의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땅에 속한 약속들은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영적인 약속이 머리로서 언제나 으뜸 자리를 차지하고, 땅에 속한 약속들은 그 영적인 약속에 돌려져야 합니다.

30. 자녀라는 이름에서 그들은 이런 차이를 찾아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혈통을 이어받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그의 믿음을 본받는 이들이 이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통해 언약의 교제에 접붙여지던 저 육적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멸의 생명에 이르도록 중생한 신약의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진리의 작은 불티 하나를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경솔한 영들은 처음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움켜쥐고는, 더 나아가 많은 것을 서로 견주어 보아야 할 자리에서 낱말 하나에 고집스럽게 매달린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듭거듭 착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든든한 지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씨가 한동안 믿음으로 그에게 접붙여지는 영적인 씨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와 아무런 본성적 혈연이 없어도 그의 자녀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숨김없이 드러내듯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씨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약속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여기서 그들은 크게 속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아주 확실한 인도를 받아 더 나은 과녁을 겨냥합시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씨가 있으리니 그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시고, 동시에 당신께서 그와 그의

씨에게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맹세하십니다. 복을 지으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는 누구나 이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31.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뒤에, 주님의 작정을 따라 사방에서 신자들이 모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 영광 가운데 앉도록,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어느 민족에게든 구별 없이 멀리 넓게 펼쳐지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여러 세기 전에 이미 그토록 큰 긍휼로 유대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을 지나치시고 오직 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한동안 그 안에 당신의 은혜를 담아 두셨으므로, 그들을 당신의 소유요 얻으신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너그러우심을 증언하려고 할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상징으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수호자요 보호자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앎으로 그들의 마음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일으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당신의 보호 아래 받아들이신 사람에게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는 이방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롬 4:10). "아브라함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뒤에 그는 할례의 표징, 곧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무할례자와 할례자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할례만을 자랑하는 자들의 조상이 아니라, CO 977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가졌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조상이다." 우리는 양쪽이 품위에서 같게 된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정해진 동안에는 할례자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다른 곳에서 쓰듯이, 엡 2:14) 이방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과 갈라놓던 담이 허물어지자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할례의 표징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례 대신 세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가 아브라함이 할례에서 났을 뿐인 자들의 조상임을 굳이 이름을 들어 부정하는 것은, 경건에 대한 관심은 버려두고 의식만으로 자기를 내세우던 어떤 자들의 거만을 꺾으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례에서 물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않는 자들의 헛됨을 이와 같은 식으로 논박할 수 있습니다.

32. 그러나 그들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사도의 다른 대목을 반대로 내놓을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는 육에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며, 오직 약속의 자녀들만 씨로 여겨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무게를 두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일러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거기서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더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브라함의 씨에 얼마나 매여 있지 않은지, 더 나아가 그 씨가 그 자체로는 얼마나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지를 보여 주려고, 그 증거로 이스마엘과 에서를 듭니다. 이들은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친후손이었는데도 마치 외인인 것처럼 버림을 받았고, 복은 이삭과 야곱에게 머뭅니다. 여기서 그가 뒤에 단언하는 것, 곧 구원은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언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곧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만족하거나 자랑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거꾸로 그는 그들을 그들 혈통에 대한 헛된 신뢰에서 끌어내린 뒤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한번 맺으신 언약은 결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으므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연이 그 품위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논합니다. 그는 이 혈연의 은택으로 유대 사람들이 복음의 첫째가는 본디 상속자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그들이 자기 배은망덕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상속에서 끊어진 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복이 그들 민족에게서 완전히 떠나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아무리 완고하고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이어도 그들을 여전히 거룩하다고 부릅니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언약에 합당하게 여기셨던 거룩한 혈통에 그는 그만큼의 영예를 돌립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들과 견주면, 이를테면 아버지가 죽은 뒤에 태어난 자식이나 심지어 달이 차지 못하고 난 자식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그것도 본성으로가 아니라 양자 삼으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제 나무에서 꺾인 가지가 남의 줄기에 접붙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특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이를테면 맏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어진 복음을 물리치고 자기 배은망덕으로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옮겨 가게 하기까지는, 그들에게 이 영예가 돌려져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아무리 완고하게 복음과 계속 싸운다 해도, 그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이 지금도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사도도 그 복이 결코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으리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33.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떤 힘이 있으며, 어떤 저울로 달아야 하는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을 사생아들과 외인들에게서 가려내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만이 자유로운 권리로 다스린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특별히 당신의 긍휼로 품기를 기뻐하셨고, 그 긍휼이 더 확실히 증언되도록 할례로 인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민족의 경우도 아주 똑같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에게서 거룩하게 된다고 논하듯이, 다른 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도 부모에게서 같은 거룩함을 이어받는다고 가르칩니다(고전 7:14). 여기서 그들이 거꾸로 부정하다고 정죄받는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어서 덧붙이

는 것, 곧 옛날 할례받던 유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중생에서 생겨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형상화했을 뿐이라는 것이 아주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시려고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쓸 때(롬 15:8) 그렇게 교묘하게 철학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의 씨를 바라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한번 주신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시려고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 뒤에도 언약의 약속이 비유적으로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씨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긴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에게 언약의 권리로 복음의 은택이 그들과 그들의 씨에게 마땅히 주어진다고 선포하고(행 2:39), 바로 다음 장에서 그들을 언약의 자녀, 곧 상속자라고 부르는 것도(행 3:25) 같은 데로 향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사도의 다른 대목도 이와 멀지 않습니다(엡 2:11). 거기서 그는 유아들에게 새겨진 할례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가지는 교제의 증언으로 여기고 내세웁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들의 허튼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 당신 율법의 둘째 항목[555]에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씨에게 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유로 도망칠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하찮은 핑계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허물어질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유익이 되는 한 그 율법을 굳게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너무나 선하시고 너그러우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당신의 백성 가운데 헤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합시다.

555. 십계명의 둘째 계명(출 20:5–6)을 가리킵니다.

34. 그 밖에 그들이 세례와 CO 979 할례 사이에 끼워 넣으려고 애쓰는 차이들은 우스꽝스럽고 아무런 이치의 겉모양도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싸웁니다. 그들은 세례는 영적 싸움의 첫날을 바라보고 할례는 옛사람을 죽임이 이미 끝난 여덟째 날을 바라본다고 단언하고는, 곧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노래를 뒤집어서, 할례는 육을 죽임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세례는 이미 죽은 자들만 넘겨져야 할 장사라고 부릅니다. 미치광이들의 어떤 헛소리가 이토록 경솔하게 서로 어긋나겠습니까? 앞의 견해대로라면 세례가 할례보다 앞서야 하고, 뒤의 견해대로라면 세례가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머리가 자기들이 꿈꾼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말씀처럼 숭배할 때 이처럼 위아래로 굴러다니는 것은 새로운 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앞의 차이가 순전한 꿈이라고 말합니다. 여덟째 날을 두고 비유적으로 풀고[556] 싶었다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맞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옛사람들을 따라 여덟이라는 수를 여덟째 날에 일어난 부활에 돌리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이 그 부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는 그 수를 현재 생명의 온 여정에 돌리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임은 그 여정 동안 늘 나아가야 하고, 그 여정이 끝나면 그 죽임도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할례를 여덟째 날로 미루신 것은 나이의 여림을 헤아리려 하셨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나 아직 어머니에게서 나와 붉은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더 위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뒤에 세례로 장사된다는 저 말은 얼마나 더 힘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죽기 위하여, 그리고 그 뒤로 이 죽임을 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된다고 분명하게 반대로 외치는데 말입니다. 세례가 할례를 본떠야 한다면 여자들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트집 잡는 것도 같은 솜씨입니다. 할례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씨의 거룩하게 됨이 증언되었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다면,

556. [원문의심] 원문의 그리스어가 “aXhjYO’ ^/^«»v”로 깨져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ἀλληγορεῖν”(비유로 풀다)으로 읽었습니다.

그 표징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거룩하게 하려고 주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징은 본성상 그럴 수 있는 남자들의 몸에만 새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도 남자들을 통해 어떤 식으로 할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런 어리석은 말들은 멀리 내쫓아 버리고, 세례와 할례의 유사성을 붙듭시다. 우리는 그 유사성이 안쪽의 신비에서, 약속들에서, 쓰임에서, 효력에서 아주 넉넉히 들어맞는 것을 봅니다.

35. 그들은 아이들을 세례에서 막아야 할 아주 튼튼한 이유도 내세우는 줄로 여깁니다. 곧 아이들은 아직 나이로 보아 거기서 표시되는 신비를 깨달을 만하지 않다는 핑계입니다. 그 신비란 영적 중생인데, 이것은 갓난 어린 시절에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이 둘째 출생에 걸맞은 나이로 자라기까지는 아담의 자녀로밖에 여길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서나 이 모든 것에 맞섭니다. 아이들이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남겨진다면 그들은 죽음 가운데 버려집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거꾸로 아이들을 당신께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당신께 참여하는 자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그들을 멀리 쫓아내어 죽음에 넘겨 버립니다. 그들이 아이들이 아담의 자녀로 여겨진다고 해서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핑계를 댄다면, 그들의 오류는 성경의 증언으로 넉넉하고도 남게 논박됩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선언하므로(고전 15:22),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는 생명의 소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께 참여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곳에 우리가 다 본성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엡 2:3)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시 51:5)[557] 그 죄에는 정죄가 늘 붙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557. 원문에는 “시 51:8”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한글 절수에 따라 51:5로 옮겼습니다.

길이 우리에게 열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 본성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고전 15:50)? 그러므로 우리의 것은 무엇이든 없어져야 합니다(이것은 중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생명이시라고 선포하실 때 참되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에서 건져지려면 그분께 접붙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도 악도 알지 못하는 유아들이 어떻게 중생하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이해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유아들이 (분명 그 나이에서 어떤 이들은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에게서 중생한다는 것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36. 그들이 타고난 부패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지니고 나왔다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기 전에 그 부패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더럽거나 얼룩진 것은 아무것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바울이 단언하듯이 그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미움받고 싫어하심을 받는 채로 남아 있든지,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난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에게도 하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단언하시는데(요 3:3),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이런 부류의 비방자들을 누르시려고, 어머니의 태에서 거룩하게 하신 세례 요한에게서, 당신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증거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장난치듯 대는 핑계, 곧 그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이니 거기서 곧바로 주님께서 유아들에게 곳곳에서 늘 그렇게 하신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핑계도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추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여 주려는 것은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이 스스로 갇혀 있기를 견디지 못하는 그 좁은 테두리 안에 부당하고 악의적으로 가둔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도피처도 그만한 무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통상적인 어법에서는 "모태에서부터"라는 말이 "어릴 때부터"라고 말한 것과 같은 뜻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것을 사가랴에게 알렸을 때 다른 뜻으로 말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곧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법을 정해 주지 CO 981 맙시다. 그분께서는 이 아이를 거룩하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서 아무것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7.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갓난 어린 시절부터 거룩하게 되신 것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구별 없이 당신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육 안에서 저질러진 불순종의 죄책을 지우시려고 바로 그 육을 입으셔서, 그 육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입으신 육 안에 그 거룩함으로 가득 젖어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가장 완전한 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점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나이가 거룩하게 됨과 그렇게까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둡니다. 곧 택함받은 자들 가운데 누구도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고 중생하지 않고서 이생에서 불려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 맞서 성경의 진리는 썩지 않을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중생 말고는 다른 중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저 말씀(벧전 1:23)[558]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558. 원문에는 "벧전 1:18"로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을 씨에 관한 말씀은 벧전 1:23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말씀에서 복음의 선포로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영적 중생의 유일한 씨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유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분께는 그토록 쉽고 손쉬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유아들에게 당신을 알 수 있게 나타내지 못하신다고 주님에게서 이 일을 빼앗는 것은 그리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38. 그러나 그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유아들은 아직 들을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또 모세가 선악을 알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이들은(신 1:39)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가 들음을 믿음의 시작으로 삼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통 지키시는 통상적인 경륜과 시행을 묘사할 뿐이지, 주님께서 다른 방식을 쓰실 수 없도록 주님께 영원한 규칙을 미리 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부르실 때 다른 방식을 쓰셨습니다. 어떤 선포도 거치지 않고, 안쪽의 방식으로, 곧 성령의 조명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참되게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빼앗아 간 유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돌린다면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하므로, 부탁하건대 제게 대답해 보십시오. 유아들이 조금 뒤에 그 은혜를 가득 넘치게 누릴 것인데, 지금 그 은혜의 얼마를 받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생명의 충만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데 있다면, 갓난 어린 시절에 곧바로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가므로, 분명 주님의 얼굴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보도록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장차 당신 빛의 온전한 광채로 비추실 이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작은 불티 하나로 비추지 않으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들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믿음과 비슷한 지식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단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이 문제는 미결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자기 볼이 부풀어 오르는 대로 아무것이나 마음 놓고 부정하거나 단언하는 이자들의 어리석은 교만을 조금 누르려는 것입니다.

39. 그러나 그들은 이 점을 더 힘 있게 밀어붙이려고, 세례는 회개와 믿음의 성례인데 이 둘 가운데 어느 것도 연약한 갓난 시절에는 일어날 수 없으므로, 유아들을 세례의 교제에 받아들이면 세례의 의미가 헛되고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 화살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향해 겨누어진 것입니다. 할례도 회개의 표징이었다는 것은 성경의 많은 증언으로 아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할례를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라고 부릅니다(롬 4:11). 그러니 할례를 유아들의 몸에 새기라고 명하신 까닭을 하나님 자신께 따져 물어 보십시오. 세례와 할례는 같은 처지에 있으므로, 그들은 할례에 무엇을 인정하든지 동시에 세례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때 어린 나이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형상화되었다는 늘 쓰는 토끼 굴로 숨으려 한다면, 그 길은 이미 막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의 성례인 할례를 유아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제정을 드러내 놓고 짓밟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 유아들이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일에서도 불경건한 자들의 비방을 꺾기에 넉넉한 지혜와 의와 진리가 빛납니다. 유아들은 할례를 받던 그 순간에 그 표징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참으로 그들의 부패하고 더러워진 본성을 죽이도록 할례를 받았고, 자라서는 그 죽임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40. 이 대답으로, 그들이 세례의 의미에서 끌어와 우리에게 들이대는 것은 무엇이든 단번에 뒤집힙니다. 바울이 세례를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이라고 부르며(딛 3:5) 붙여 준 칭호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세례는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추론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반대로 이렇게 대꾸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 나타내던 할례도 중생한 이들 말고는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정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몇 번 말했듯이, 할례를 흔들려고 기우는 논증은 무엇이든 세례를 공격하는 데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곧 하나님의 CO 983 권위에 확실히 기대는 것은 아무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확정되고 굳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은 유아 세례나 그 비슷한 다른 것들에는 그런 경외가 마땅하지 않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이 양도 논법에 잡혀 언제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에게 할례를 주라는 주님의 계명은 정당하고 어떤 트집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었거나, 아니면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 계명에 어긋나거나 터무니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데에서도 터무니없는 것을 하나도 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41. 그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찍으려 애쓰는 터무니없다는 얼룩은 이렇게 씻어 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선택으로 합당하게 여기신 이들이 중생의 표징을 받고 자라기 전에 이생을 떠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당신 영의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오직 그분만이 살피십니다. 그들이 세례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나이로 자라게 된다면, 그들은 이로써 새롭게 됨을 향한 열심으로 더 불붙을 것입니다. 그들은 갓난 어린 시절부터 곧바로 그 새롭게 됨의 표를 받았다는 것을 배우고, 온 생애 동안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두 곳에서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고 가르치는 것(롬 6:4; 골 2:12)도 같은 데로 돌려야 합니다. 그는 이 말로 세례로 입

문할 사람이 이미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밑에 있는 교리를 그저 선언하는 것이며, 그것도 이미 세례 받은 이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친 사람이라도 이 대목을 근거로 장사됨이 세례보다 앞서야 한다고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도 이런 식으로 백성에게 할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유아 때 할례로 표를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쓴 것(갈 3:27)도 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곧 그들이 앞으로 그리스도께 살게 하려는 것이지, 그들이 그 전에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든 이들에게서는 표징을 받는 일에 신비를 깨닫는 일이 따라와야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다른 자리와 부류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곧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큰 방패로 삼는 베드로의 가르침(벧전 3:21)에 관해서도 다르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세례가 몸의 더러운 것을 씻어 내는 씻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의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유아 세례에는 헛된 연기밖에 남지 않는다고 우깁니다. 곧 이 진리가 유아 세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시간의 순서로 실체가 표징보다 앞서야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착각으로 거듭 잘못합니다. 할례의 진리도 같은 선한 양심의 증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반드시 앞서야 했다면, 유아들은 결코 주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한 양심의 증언이 할례의 진리 밑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도 동시에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하셨으므로, 그 점에서 할례가 장래의 때로 이어진다는 것을 넉넉히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에서는 주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굳게 하고 확정하는 것 말고 더 많은 현재의 효력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례의 나머지 의미는 주님께서 살피신 때에 나중에 따라올 것입니다.

42. 이제 이런 종류의 모든 논거가 순전히 성경을 뒤집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과 비슷한 남은 것들도 서둘러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세례가 죄 사함을 위하여 베풀어진다고 반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 견해를 넉넉히 변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므로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사함과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이에게서 긍휼의 소망을 끊어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는데, 실체보다 훨씬 못한 표징을 어찌 우리가 빼앗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쏘려고 애쓰는 이것을 우리는 그들 자신에게 이렇게 되돌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표징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동시에 에베소서의 말씀(엡 5:26), 곧 교회가 주님에게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내놓습니다. 그들의 오류를 뒤엎는 데 이보다 더 알맞은 말씀은 인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쉬운 증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씻음이 세례로 증언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불리므로 마땅히 교회의 일부로 여겨지는 어린아이들에게서 그 증언이 빠지는 것은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할 때 교회 전체를 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다고 그가 다른 곳에서 말하는 데서도(고전 12:13),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체로 헤아리시는 유아들이 그분의 몸에서 찢겨 나가지 않도록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그토록 많은 공성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기세 좋게 우리 요새로 돌격하는지를!

43. 이제 그들은 사도 시대의 실천과 관습으로 내려가서, 그 시대에는 먼저 믿음과 회개를 고백한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세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뉘우치려는 마음이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해

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고, 다음으로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권했기 때문입니다(행 2:37). 마찬가지로 빌립도 저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고 청했을 때, 온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행 8:37). 그들은 여기서 믿음과 회개가 앞서지 않으면 결코 세례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얻어 낼 수 있는 줄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 자리를 내준다면, 믿음에 관한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앞의 대목은 회개 하나로 넉넉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고, 회개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 다른 대목은 믿음 하나로 넉넉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한 대목이 다른 대목으로 도움을 받으므로 둘을 함께 이어야 한다고 대꾸할 것입니다. 저도 거꾸로 이 매듭을 푸는 데 얼마간 쓸모 있는 다른 대목들도 견주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 뜻이 대목의 앞뒤 사정에 달려 있는 말씀이 많기 때문입니다.

1539–1554년판 제17장 세례에 관하여 3

CO 1:985–99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985 [559]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예가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와 빌립이 이 말을 한 상대는 회개를 생각하고 믿음을 품기에 알맞은 나이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사람의 판단으로 살필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의 회심과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나 유아들은 다른 부류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더없이 분명합니다. 옛날에 누가 경건(religion)의 교제 안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오고자 하면, 할례로 인침을 받기 전에 먼저 주님의 언약을 배우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민족으로는 ἀλλόφυλος,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확증하던 언약은 바로 그 백성과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44.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당신께로 받아들이실 때 할례로 시작하지 않으셨고, 그동안에는 그 표징으로 무엇을 뜻하시는지 감추어 두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와 언약을 맺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리셨고, 그 다음에 그가 약속을 믿은 뒤에야 그를 성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아브라함에게서는 성례가 믿음 뒤에 따르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서는 모든 깨달음보다 앞서는 것입니까? 그때까지 언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 자란 나이에 언약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먼저 그 조건들을 철저히 배우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에게서 난 유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유아는 약속의 문구에 따라 상속의 권리로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언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는 이 일을 더 분명하고 짧게 말하자면

559.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이렇습니다. 신자들의 자녀가 깨달음의 도움 없이도 언약에 참여한다면, 그들이 언약의 약정에 맹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표징에서 물리칠 까닭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난 유아들을 당신께 낳아 준 자녀들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 까닭이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겔 16:20; 23:37).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의 씨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자들의 자녀를 의심할 것 없이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부모에게서 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까지는 언약의 교제에서 바깥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그가 표징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표징의 뜻은 그에게서는 거짓되고 헛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같은 뜻으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우상 숭배에 잠겨 있는 동안에는 언약 밖에 있었다고 씁니다(엡 2:12).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이 요약으로 모든 문제를 분명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나이가 더 들어서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언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믿음과 회개가 그 사이에 들어서지 않고서는 세례로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회개만이 그들에게 언약의 교제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난 유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주님께서 언약의 유업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세례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서 기자가 전하는 이야기, 곧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마 3:6)도 이 일과 관련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보기를 오늘날에도 지켜야 한다고 여깁니다. 튀르크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그가 교회를 만족시킬 만한 신앙고백을 하기 전에는 함부로 그를 물에 담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5. 이 밖에 그들은 요한복음 3장에 적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세우는데, 그 말씀이 세례에서 지금 일어나는 중생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말합니다. “보라, 주님의 입으로 세례가 중생이라고 불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중생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할 자들에게, 무슨 구실로 중생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세례를 베풀어 입문시키는가?” 먼저 저는 성경이 이토록 싱거운 지어낸 말로 뒤집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이 대목에는 세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비유로든, 몸에 속한 요소들에서 끌어온 비교로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일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곧이어 덧붙이시는 말씀으로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분은 니고데모에게 그 대화 전체에서 당신께서 육에 속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다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높고 어려운 신비를 다루고 계셨지만, 니고데모의 무지에 당신을 맞추시려고 그 신비를 육에 속한 표징들로 그려 내듯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육에 속한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이 본성의 성향 때문에 땅바닥을 기어 다니고 하늘을 조금도 우러르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난 뒤에, 그분은 이 물과 영의 중생으로, 옛 본성의 무거움과 둔함을 벗어 버리고 더 높고 더 날랜 본성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애쓰십니다.

46. 또 이것으로, 세례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자들의 풀이도 내쳐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례를 어른들에게만 베푼다고 해 봅시다. 경건의 초보를 바르고 착실하게 배우던 아이가 세례받을 날이 다가오는 동안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데려감을 당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들은 말하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요 5:24 참조). 주님께서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셨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CO 987 제가 이것을, 마치 세례를 업신여겨도 벌받지 않는다는 뜻을 비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업신여김으로 주님의 언약이 깨진다고 단언합니다. 그것을 변명해

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세례가, 세례받을 기회를 빼앗긴 사람이 곧바로 멸망했다고 여겨야 할 만큼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지어낸 말에 동의한다면, 어떤 사고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하게 하는 믿음을 아무리 갖추었더라도 예외 없이 모두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구원에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세례를 유아들에게 거절함으로써, 모든 유아를 영원한 죽음의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 나이에게 하늘나라를 내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기들이 얼마나 잘 맞는지 이제 그들 스스로 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대목의 이해에 관한 한 그들에게 무엇이든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이미 세워 둔 유아의 중생에 관한 교리를 먼저 뒤엎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47. 그러나 그들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가져오는 세례의 제정 자체에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튼튼한 보루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면서, 먼저 그들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다음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례를 주기 전에 가르쳐야 한다고 드러내 놓고 말하며, 세례에 믿음 다음의 둘째 자리를 주는데, 무엇을 더 찾겠는가? 주 예수께서도 서른 살이 되어서야 세례를 받고자 하셨으니, 당신 자신에게서 이 순서의 본을 보이셨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여기서 그들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속고 있습니까! 그들은 벌써 이 점에서 어린아이보다 더 심하게 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설교를 시작하실 때부터 사도들에게 베풀라고 명하셨던 세례의 첫 제정을 거기에서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치 이 두 대목에 첫 제정이 들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세례의 법과 규칙을 이 두 대목에서 찾아야 한다고 우길 까닭이 없습니다. 이 잘못을 그들에게 너그러이 봐준다 하더라도, 이

논증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정말이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고 싶다면, 숨을 곳 하나가 아니라 빠져나갈 아주 넓은 들판이 열립니다. 그들은 "가서 전파하고 세례를 주라",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세례를 주기 전에 전파해야 하고 세례를 구하기 전에 믿어야 한다고 따지면서 말의 순서에 그토록 악착같이 매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기 전에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대꾸하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해한다면, 조금 전에 인용한 물과 영의 중생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는 세례가 앞자리에 이름이 나오므로, 세례가 영적 중생보다 앞선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영과 물로가 아니라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48. 이제 그들이 그토록 믿는 이 난공불락의 논리가 얼마간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함 안에 넉넉한 방패를 가지고 있으므로, 저는 이런 가벼운 잔재주로 빠져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든든한 대답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령은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고, 세례를 베푸는 직무는 그 명령에 덧붙은 것처럼 이어 붙이십니다. 또 세례에 관한 말씀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 가르치는 직무 아래 놓이는 한에서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어 복음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널리 알리게 하시고, 전에 멸망해 있던 사람들을 구원의 교리로 사방에서 당신의 나라로 모으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언급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뒤에 그분은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이시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더하십니다. 그 말씀 전체에 유아에 관한 말이 한 음절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논증은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다 자란 나이의 사람들은 세례를 주기 전에 먼저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악이다.” 그들이 배가 터지도록 애써도, 이 대목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기 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 사람들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유아들을 세례에서 막을 빗장을 만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49. 그러나 눈먼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속임수가 손에 만져지도록, 아주 분명한 비유로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가 일하는 사람 말고는 먹지 못하게 한다는 구실로 유아들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트집을 잡는다면(살후 3:10 참조),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침 뱉음을 당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과 어떤 나이에 관해 한 말을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끌어다 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사람들의 솜씨도 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다 자란 나이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것을 유아들에게 끌어다 붙여서, 더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세운 규칙 아래 이 나이도 놓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그들의 주장을 조금도 돕지 않습니다. 그분은 서른 살 전에는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말입니다. 그러나 그 까닭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에야 그분은 당신의 설교로 세례의 든든한 기초를 놓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요한이 놓은 것을 굳게 세우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르침으로 세례를 제정하고자 하셨을 때, 당신의 제정에 더 큰 권위를 주시려고 당신 자신의 몸으로 세례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알맞은 때, 곧 당신의 설교를 시작하실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50. 마지막으로 그들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까닭이, 주의 성찬을 베풀 까닭보다 더 크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찬은 유아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이 모든 면에서 넓은 차이를 표시하

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CO 989 옛 교회에서 그런 일이 행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키프리아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관습은 마땅히 사라졌습니다. 세례의 본성과 고유한 성격을 생각해 보면, 세례는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이를테면 입문 예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름이 올려집니다. 세례는 우리의 영적 중생의 표징이며, 우리는 그 중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와 달리 성찬은 좀 더 자란 사람들, 곧 연약한 어린 시절을 지나 이제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구별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세례에 관한 한 나이를 전혀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찬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참여하도록 내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고, 자기 양심을 살피고, 주님의 죽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헤아리기에 알맞은 사람들에게만 내놓으십니다(고전 11:28). 사도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사도는 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따져 본 뒤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살피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유아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는 사람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함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 대신 독을 내밀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는 주님의 저 명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가 거기에서 이끌어 내는 또 다른 명령, 곧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노니, 유아들이 감각으로 한 번도 붙잡아 본 적이 없는 일을 기념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과 은택을 아직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그 십자가를 전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세례에서는 이런 것 가운데 아무

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표징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구약 아래의 비슷한 표징들에서도 봅니다. 우리의 세례에 대응한다고 알려진 할례는 유아들에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찬이 그 자리를 이어받은 유월절은 아무 손님이나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이로 보아 그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바르게 먹었습니다(출 12:26). 이 사람들에게 성한 머리가 한 조각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토록 분명하고 눈앞에 있는 일에 눈이 멀겠습니까?

51. 이제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아 세례 때문에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 얼마나 무모하게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토록 큰 교활함으로 무엇을 꾀하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여기에서 거두어야 할 위로의 열매를 우리에게서 빼앗고,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에서도 덜어 내려는 것입니다. 경건한 영혼들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광경으로도, 자기들이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기에 자기 자손까지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더없이 앞일을 잘 살피는 한 집의 아버지의 역할을 맡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우리를 향한 염려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미리 마련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본을 따라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뻐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이토록 선하심을 보여 주시는 증거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그토록 많은 군세로 유아 세례를 공격하면서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 분명히 이것입니다. 곧 유아 세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주님의 은혜의 이 증언을 없애 버려서, 약속이 마침내 조금씩 사라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를 거스르는 불경건한 배은망덕만이 아니라, 자녀를 경건으로 가르치는 일에서도 일종의 게으름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

리가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주님께 자녀로 여겨지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찌르는 막대기가 우리를 적잖이 재촉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기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악의로 가리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유아들을 그분께 바칩시다. 그분은 그들에게 당신의 가족과 식구들, 곧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자리를 주십니다.

CO 991 560

560. 원문에는 이 뒤에 제18장의 표제(“제18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가 시작되는데, 그 표제는 다음 편 첫머리에서 옮깁니다.

1539–1554년판 · 제18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18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

CO 1:991–100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991 제18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561]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제정하신 또 하나의 성례는 영적 잔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치로 당신께서 생명을 주는 떡이심을 증언하시며, 우리 영혼은 그 떡으로 참되고 복된 불멸에 이르도록 먹임을 받습니다. 표징은 떡과 포도주이며,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보이지 않는 교통을 나타내도록 그 몸과 피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의 교제 안에 접붙이시며,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좋은 집안 아버지의 직분대로 그 뒤에 양식을 대어 주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과의 교통으로 새 힘을 얻어 불멸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신비는 그 본성상 헤아릴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과 형상을 보이는 표징들로 보여 주십니다. 아니, 담보물이나 증표를 주시듯이 그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로운 축복이 어떤 목적을 바라보는지 알게 됩니다. 곧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물로 드려져서 이제 우리가

561. CO는 이 장의 1–3절에 두 본문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하나는 뒤의 판들에서 고쳐 쓴 본문이고, 다른 하나는 1539년판 본문입니다. 원문 OCR에서는 두 단이 뒤섞여 있어, 여기서는 고쳐 쓴 본문(1–3절)을 먼저 옮기고 1539년판 본문(1–3절)을 이어서 옮겼습니다. 고쳐 쓴 본문 3절은 원문에서 줄임표로 끝나며, 그 뒤는 1539년판 3절 뒷부분과 같은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몸을 먹고, 먹음으로써 저 유일한 제사의 효력을 우리 안에서 느끼게 되었다는 것, 또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흘려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은 약속의 말씀도 그렇게 울립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단번에 드려진 몸을 받아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을 주는 저 죽음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힘 있게 일한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잔을 당신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도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피로 단번에 확증하신 언약을, 우리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관한 한, 그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맛보라고 내미실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 경건한 영혼들은 이 성례에서 위로와 달콤함의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그렇게 하나가 되셨고, 우리도 거꾸로 그분께 그렇게 접붙여져서 그분과 한 몸으로 자라 붙었으므로, 그분의 것은 무엇이든 우리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증언을 거기서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상속자이신 영생이 우리 것이라고 우리 자신에게 안심하고 감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들어가신 하늘나라가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또 그분이 정죄받지 않으시는 동안에는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 죄들이 마치 당신의 것인 양 당신께 전가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당신의 끝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맺으신 놀라운 맞바꿈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인자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갈 길을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을 운명을 받으시고 당신의 불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당신께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우리 불의의 무게를 당신께 지시고 당신의 의로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3.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 성례에서 아주 든든한 증언을 얻으므로, 확실히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

1. 기독교회의 또 하나의 성례는,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떡과 그분의 피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 성찬 또는 감사(eucharistia)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적으로 먹임을 받고, 또 우리는 그분께 그 은덕에 감사드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덧붙은 약속은 이 성례가 무엇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어디를 바라보는지 분명히 밝혀 줍니다. 곧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내어 주신 바 되어서 이제 우리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것이리라는 것,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흘려져서 언제나 우리 것이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례가 믿음을 지키고 일깨우고 자라게 하려고 주신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감히 부인한 자들의 오류가 다시 논박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눅 22:20; 고전 11:25). 곧 약속의 문서이며 증언입니다. 약속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믿음은 기댈 것, 스스로 위로받을 것, 스스로 굳게 설 것을 얻습니다.

2. 우리 영혼은 이 성례에서 달콤함과 위로의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거꾸로 그분께 그렇게 접붙여져서, 그분의 것은 무엇이든 우리 것이라고 부르고 우리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이 우리 것이라는 것, 하늘나라가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 또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정죄받으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안심하고 감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죄들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어떤 허물이 정당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죄들의 빚진 자로 당신을 세우시고, 그 빚을 갚는 분으로 나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당신의 끝없는 선하심으로 우리와 맺으신 맞바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난을 당신께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을 운명을 받으시고 당신의 불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갈 길을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인자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3. 이 모든 것이 이 성례에서 아주 든든하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눈앞에 계시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놀리거나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받으라고 명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것임을 뜻합니다. CO 993 먹으라고 명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와 한 실체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몸에 관해서는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이라고, 피에 관해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이 그분의 것이라기보다 우리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 유익을 위해 취하셨고 또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례의 가장 중요한, 거의 모든 힘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이라는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 단번에 내놓아지지 않았다면, 그 몸과 피가 지금 나누어진다 해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아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것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일러 둔 것, 곧 성례에서 내놓아지는 몸에 속한 것들로부터 어떤 유비를 따라 영적인 것들로 이끌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이 그리스도의 몸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때, 곧바로 이런 비교를 떠올려야 합니다. 떡이 우리 몸의 생명을 먹이고 붙들고 지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영적 생명의 양식이며 지킴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피의 상징으로 놓인 것을 바라볼 때는, 포도주가 몸에 어떤 쓰임을 가져다주는지 생각하여, 같은 쓰임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진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 쓰임은 따뜻하게 하고, 새 힘을 주고, 굳세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몸을 내어 주신 것이,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는지를 충분히 헤아린다면, 떡과 포도주의 이런 성질들이 그러한 유비를 따라 그 몸과 피가 우리에게 나누어질 때 우리를 향한 그 몸과 피에 아주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성례의 주된 몫은 그리스도의 몸을 단순히, 더 높은 생각 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당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당신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증언하시는 약속, 우리가 그것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먹임을 받는 약속,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고 단언하시는 약속, 바로 그 약속을 인치고 확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내는 데 있습니다. 그 약속은 거기서 참으로 이행되었고 모든 점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효력을 살아 있는 감각으로 붙잡을 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구원에 이르도록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신 것은, 어떤 이들이 비뚤게 풀이하듯 성례에서 그 이름을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주셨

고, 그분이 그러한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은 우리 사람의 죽을 운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적 불멸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당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당신께 지시고 당신의 복으로 우리를 흠뻑 적시셨으며,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삼켜 없애셨고, 당신의 부활로 당신께서 입으셨던 우리의 이 썩을 육신을 영광과 썩지 않음으로 일으키셨습니다.

5. 이 생각은 다음 말씀으로 환히 증명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내 살이다" (요 6:51).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의심할 것 없이, 당신의 몸이 우리 구원을 위해 죽음에 내놓아질 것이었기 때문에 영혼의 영적 생명을 위한 떡이 되리라는 것을 비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속을 위해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놓으셨을 때, 그것이 떡이 되도록 한 번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내놓으실 때, 날마다 그것을 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례가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례는 그분이 우리가 늘 먹는 떡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에 되살려 주는 한에서, 그 떡의 맛과 향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가 그 떡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거나 겪으신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행하시고 겪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살리심은 영원하여 우리가 끝없이 먹임을 받고 붙들리고 생명 안에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셨을 것처럼, 그분의 나심과 죽음과 부활의 효력과 열매가 영원하고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도 결코 생명의 떡이 아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성례의 이 힘을 그 존귀함에 걸맞게 따져 보고 헤아렸다면, 거기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넉넉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떡 안에 어떻게 계시는지를 정의하려 하다가,

옛날에도, 우리 기억이 미치는 지금도 교회를 비참하게 괴롭혀 온 저 끔찍한 다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말과 마음을 그토록 다투어 따질 만한 일이로군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물었어야 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으로서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지, 피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것으로서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전체를 소유하고, 그분의 모든 CO 995 좋은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토록 중요한 것들은 빠뜨려 버리고, 아니 버려두고 거의 묻어 버리고,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삼키는가?"라는 가시 돋친 이 질문 하나만 놓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고 갖가지인 의견의 소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이며 확실한 진리가 우리에게 굳게 서도록, 먼저 성례는 영적인 것이며, 주님께서 성례로 우리 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먹이고자 하셨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성례에서 그리스도를 찾되, 우리 몸을 위해서나 우리 육의 감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찾지 말고, 영혼이 그분을 마치 자기에게 주어지고 베풀어지신 분으로서 눈앞에 계신 분으로 알아보도록 찾읍시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영적으로 얻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분을 생명에 이르도록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성례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든 거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각을 마음에 먼저 품고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쉽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서로 다른 의견들 가운데서 단순한 마음들이 걸려들지 않기 어려운 저 모든 얽힌 문제에서 단번에 벗어나도록, 먼저 어떤 뜻으로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고 포도주가 그분의 피라 불리는지를 설명합시다.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성찬에서 우리에게 어떤 당신의 몸과 피의 교통을 베푸시는지를 헤아려 봅시다.

7. 먼저 궤변가들이 저 괴상한 화체에 관해 늘어놓은 헛소리는 무엇이든

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손에 내미신 것을 당신의 몸이라고 증언하신 말씀을 누가 경외한다면, "이다"(EST)라는 낱말을 "화체되다" 대신 놓인 것으로 풀이하는 이 사람들의 지어낸 말은 그 말씀의 본뜻과 참으로 아주 동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화체가 한 실체가 다른 실체로 바뀌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라진다고 꿈꾸는 떡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서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손에 들고 떼어 사도들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고 떼신 것은 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떡을 가리키신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에 움직인다는 핑계를 대며, 이토록 억지스럽고 거칠게 비튼 풀이로 달아날 까닭이 없습니다. 실체를 나타내는 동사를 이런 뜻으로 쓰는 일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에서 들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그들을 쉽게 논박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근거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성찬에서 나타내고자 하신 신비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찬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분의 약속, 곧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라는 약속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증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이는 떡이 상징이 되어서 그것으로 저 영적인 떡이 그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붙드시려고 베푸시는 위로의 열매를 모두 잃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세례에서 몸을 씻는 것으로 나타난 영혼의 속 깨끗함이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에 훨씬 더 확실하게 인쳐지는 것처럼, 성찬에서도 그리스도의 살에서 받는 영적 양식을 증언하는 데 떡은 적잖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떡의 허깨비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성의 실재가 남아 있지 않다면, 바울이 무슨 근거로 한 떡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모두 한 떡이요 한 몸이라고 결론지었겠습니까(고전 10:17)? 떡과 포도주가 몸과 피의 상징이 된 뒤에도 여전히 제 이름을 지니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8. 그들이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내세우는 트집은 하찮습니다. 이미 뱀으로 바뀐 것을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출 7:12). 곧 본래의 지팡이 모양으로 돌아갈 것이었으므로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은 말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멋진 빗대는 말로 한 말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곧 마술사들의 지팡이들이 뱀에게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에게 삼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마술사들의 것을 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요술쟁이들은 거짓 재주로 구경꾼들의 눈에 어둠을 덮어씌운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참된 변화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떼는 떡",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떡을 떼는 일에 참여하였다" 같은 표현들과 이것이 무슨 닮은 데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주님의 분명한 말씀에 종종 감히 맞세우는 옛 시대의 후원을, 이 교리를 굳히는 데서는 얻지 못합니다. 이 교리는 그리 오래지 않은 때에 꾸며 낸 것이며, 경건(religion)의 교리가 아직 더 순수하게 꽃피던 저 더 나은 시대에는 분명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 가운데 성찬의 거룩한 상징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분명한 말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따금 신비의 존귀함을 드러내려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수식어로 꾸미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축성할 때 은밀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떡과 포도주와는 다른 것이 된다고 말할 때, 그것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배를 채우는 데만 쓰이는 보통 음식과는 이제 다르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들 안에서 영혼의 영적 양식과 음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변화가 있다면 한 것에서 다른 것이 생겨나야 한다." 그들이 전에 없던 무엇이 생겨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의 저 상상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 세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제게 대답해 보십시오. 교부들은 여기서도 썩을 요소에서 영혼의 영적 씻음이 생겨난다고 말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물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에는 성찬의 '이것은 내 몸이다' 와 같은 말씀이 없다." 마치 지금 다투는 것이 그 자체로 뜻이 충분히 분명한 그 말씀에 관한 것이지, CO 997 오히려 "변화"라는 저 낱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 낱말은 성찬에서도 세례에서보다 더한 것을 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메마름만 드러낼 뿐인 저 음절 사냥은 집어치우라고 하십시오.

9. 음절에 고집스럽게 매달리면서 비유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불합리에도 물러서지 않고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거듭 단언하는 자들의 생각도 조금도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떡을 가리키셨다는 이 한 가지 논거에 만족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이토록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비유로 이해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들에게 맞서 내놓는 모든 근거를 그렇게 물리칠 만큼 충분히 정당한 핑계가 아닙니다. 하기야 입을 열기만 하면 자기 교리의 불합리를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을 상대로 많은 근거를 들어 싸워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섞여서 본질로 하나라고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모든 사람의 상식뿐 아니라 경건의 감각 자체도 이것을 몹시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고 단순하게 읽히는 것을 함부로 수사나 비유로 감싸서는 안 된다." 누가 그것을 부인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는 이 하나뿐인 논거가 지금 문제에 얼마나 맞지 않는지는, 그 말씀에 참된 뜻을 되돌려 주면 누구나 쉽게 깨달을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표시된 실체들이 그 상징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체의 이름이 상징에 붙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엉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또 κατακρηστικῶς(전용하여) 한 말이

기는 하지만, 아주 알맞은 유비가 없지 않습니다. 상징은 본질에서 표시된 실체와 아주 다르지만, 곧 실체는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상징은 몸에 속하고 보이는 것이지만, 상징은 자기가 나타내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그 실체를 벌거벗은 헛된 증표처럼 그려 보일 뿐 아니라 참으로 주기도 하므로, 그 실체의 이름이 상징에 정당하게 붙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고안한 상징들은 눈앞에 있는 것의 표시라기보다 없는 것의 형상이고, 그것마저 아주 자주 거짓되게 그려 보이는데도 이따금 그 실체의 이름으로 꾸며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상징들은 훨씬 더 큰 까닭으로 실체의 이름을 빌려 옵니다. 그 상징들은 언제나 확실하고 조금도 거짓되지 않은 뜻을 지니며, 진리를 자기와 함께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떡이 몸이라든지, 떡을 떼는 것이 몸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하는 이런 말투를 만날 때마다, 그것은 성경의 흔한 방식대로 이름을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옮기는 환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며 지금 문제 밖으로 나간다고 트집 잡지 않도록, 풍유와 비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성례에서 이 표현법은 아주 흔합니다. 할례가 언약이라는 것, 어린양이 유월이라는 것, 율법의 제사들이 죄를 씻는 속죄라는 것,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물이 흘러나온 반석이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옮겨서 한 말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달리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표징과 표시된 실체 사이의 닮음과 가까움이 이토록 커서, 이것에서 저것으로 이렇게 옮겨 가기가 쉽습니다.

11. 또 성례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일치하지만, 이 환유에서도 그 모든 성례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음료가 솟아 나온 바위가 그리스도셨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고전 10:4), 그것은 그 바위가 보이는 상징이었고, 그 아래서 저 영적 음료를 참으로,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오늘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립니다. 떡은 주님께서 그것으로 당신 몸을

참으로 먹게 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달리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것을 새로 지어낸 말이라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례들이 그것들이 성례가 되는 그 실체들과 어떤 닮음을 지니지 않는다면, 결코 성례가 아닐 것이다. 이 닮음 때문에 성례들은 대개 그 실체들의 이름까지 얻는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성례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성례가 그리스도의 피인 것처럼, 믿음의 성례는 믿음이다." 그에게는 이와 비슷한 대목이 많은데, 이 하나로 넉넉하니 쌓아 올리는 것은 쓸데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까다로운 사람이 다른 모든 것에는 눈을 감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이 말씀에만 끈질기게 매달린다면, 그런 고집을 꺾을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주가 당신의 피라고 하시는 것과 다른 뜻으로 떡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주님께서 잔을 새 언약의 당신 피라고 부르셨다고 전하는 곳에서, 누가와 바울은 그 대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씁니다. 그가 누구든 "이것은 몸과 피다"라고 마음껏 외치라고 하십시오. 저는 거꾸로 이것이 몸과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새 언약의 피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이해하는 바울과 누가보다 더 충실하고 더 확실한 해석자로 여겨지기를 바라겠습니까?

12.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우는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거기서 신자들에게 내놓아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서 무엇을 덜어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표시된 실체를 그 상징과 구별해야 한다고 가르칠 뿐입니다. 이 구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보면서 겪어 알고 있습니다.[562] 사람의 마음은 그토록 쉽게 미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분명한 목소리로 거듭거듭

562. [원문의심] 원문 파일에는 CO 999단 표시가 빠져 있습니다. 쪽머리 줄의 자리로 보아 999단은 이 근처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며, 글은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불러 돌이키지 않으면, 진리를 지나쳐 곧바로 벌거벗은 표징으로 돌아서서 거기에 온통 붙박이고 맙니다. 하기야 여기서도 두 가지 잘못을 피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표징을 지나치게 낮추다가, 표징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신비들에서 표징을 떼어 놓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표징을 지나치게 높이다가, 그사이에 신비들 자체를 얼마간 흐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신자들이 그 떡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길러진다는 것을, 아주 경건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참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모든 사람 사이에 똑같이 합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마디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을 먹는 것을 우리에게 권하시는 저 훌륭한 설교에서, 그보다 더 분명하고 더 높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곧 우리가 그분께 참으로 참여함으로써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참여를 먹고 마신다는 말로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그분께 받는 생명을 단순한 지식으로 받는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3.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몸에 양분을 대어 주는 것처럼, 영혼도 참으로, 깊숙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영적 생명에 이르도록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믿음으로 먹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먹음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말과 이 사람들의 말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먹음은 믿음의 열매요 결과라고 말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먹는 것이 곧 믿음이고, 제게는 먹는 것이 오히려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는 차이가 작지만, 실체에서는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가르치지만, 아무도 그 계심을 믿음이라고 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거기서 믿음의 뛰어난 결과, 곧 신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머무시는 분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이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우리 구원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놓여 있다는 것만 가르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 참으로 참여함으로써 당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와서 우리 것이 된다는 것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떡을 양식으로 먹으면 몸에 힘을 대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4. 그들이 자기 편 후원자로 불러 대는 아우구스티누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다고 썼지만, 그것은 그 먹음이 입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뜻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안는 그리스도는 멀리서 나타나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 말투를 무조건 물리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려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풀이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뿐입니다. 그 밖에 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투를 꽤 자주 쓴 것을 봅니다. 『기독교 교리에 관하여』 제3권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은 "비유로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살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상처 입었다는 것을 달콤하고 유익하게 기억 속에 간직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또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한 저 삼천 명이, 자기들이 날뛰며 흘리게 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마셨다고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아주 많은 대목에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살과의 교통으로 새 힘을 얻는 것이 몸이 먹는 떡으로 새 힘을 얻는 것 못지

않다는, 믿음의 그 은택을 크게 칭송합니다. 크리소스토무스가 어디선가,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다고 쓴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그런 좋은 것을 믿음 말고 다른 데서 얻는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믿음이라는 말을 듣고 벌거벗은 상상을 떠올리는 일만은 막으려는 것입니다.

15.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교통을 가진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보여 주려 할 때 살과 피에 관한 언급은 지나쳐 버리고 우리를 영에만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들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이 모든 말씀이 아무 뜻 없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것, 그리고 같은 데로 향하는 다른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든든한 교통이 그들이 그려 보이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교통이 어디까지 열려 있고 뻗어 나가는지를 짧게 짚어 봅시다. 다만 이토록 큰 신비를 어떤 말로든 담아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 신비를 마음으로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 그 높음을 저의 어린아이 같은 말솜씨의 잣대로 재지 않도록 그것을 기꺼이 고백합니다. 오히려 저는 독자들에게 마음의 생각을 이 너무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말고, 제 안내로 오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오르기를 힘쓰라고 권합니다. 저 자신도 이 일에 관해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애쓴 뒤에도 그 존귀함에 비해 아직 너무 적게 말한 것 같습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데서 혀가 표현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지만, 마음도 이 일의 크기에 눌리고 압도당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남은 것은, 마음이 생각으로도, 혀가 설명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신비를 경탄하며 터져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의 요점을 어떻게든 내놓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또한 경건한 마음들이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16.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셨고, 생명의 샘이며 근원이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언제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분을 한 번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한 번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씁니다(요일 1:1; 요 1:4). CO 1001 그분이 그때에도 모든 피조물 안으로 흘러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숨 쉬고 살아갈 힘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요한이 뒤이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당신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내주셨을 때에야 생명이 나타났다고 덧붙입니다. 그분은 전에도 당신의 능력을 피조물에게 부어 주셨지만, 사람은 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생명의 교통을 잃고 사방에서 죽음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불멸의 소망을 되찾으려면 그 말씀과의 교통 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의 충만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 자신 안에서와 주위 사방에서는 죽음밖에 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얼마나 작은 신뢰를 품겠습니까? 그러나 저 생명의 샘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우리에게서 멀리 숨어 있지 않고 눈앞에서 당신을 참여하도록 내주십니다. 아니, 그 샘이 머무는 육신 자체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그 육신에 참여함으로써 불멸에 이르도록 먹임을 받게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내 살이다”(요 6:51). 이 말씀으로 그분은 당신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한에서 생명이실 뿐 아니라, 내려오심으로써 그 힘을 당신께서 입으신 육신에 부어 주셔서, 거기에서 생명의 교통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로부터 다음 말씀들도 따라 나옵니다. 그분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양식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길러집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뛰어난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육신 안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쉬운 길로 생명에 이를 뿐 아니라, 생명이 스스로 그들 앞에 펼쳐져 마중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생명을 끌어안도록 마음의 품을 벌리기만 하면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17. 그리스도의 살은 그 자체로는 우리를 살릴 만큼 큰 능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 살은 처음 상태에서는 죽을 운명에 매여 있었고, 지금은 불멸을 입었지만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살은 우리에게 옮겨 주도록 생명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므로 생명을 준다고 일컫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런 뜻으로 키릴루스와 함께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을 풀이합니다(요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분은 거기서 당신께서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니신 은사가 아니라, 당신께서 나타나신 그 육신 안에서 갖추신 은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의 인성 안에도 생명의 충만이 거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은 동시에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흔한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샘물은 때로는 마시고, 때로는 길어 올리고, 때로는 도랑으로 끌어다 밭에 대지만, 샘이 그토록 많은 쓰임에 넘치도록 스스로 솟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으로 늘 새로운 풍성함을 대어 주는 물줄기 자체에서 솟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살은 넉넉하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신성에서 당신 안으로 솟아 나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 보냅니다. 그러니 하늘의 생명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교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사도의 다음 말씀들이 이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충만이라는 것(엡 1:23), 그분은 머리이시며, 온 몸이 그분에게서 마디마디로 서로 맞추어지고 연결되어 몸을 자라게 한다

는 것(엡 4:16),[563]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고전 6:15)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영과 몸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붙어 계시지 않고서는 달리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가 그분의 살과 이어지는 그 더없이 긴밀한 교제를,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이며 그분의 뼈와 살에서 났다고 말할 때(엡 5:30), 그보다 더 빛나는 말로 밝혀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일이 모든 말보다 크다는 것을 증언하려고, 탄성으로 그 말을 맺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와 교통한다는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극도의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사도는 그 교통이 너무나 커서 설명하기보다 경탄하기를 더 바란다고 밝힙니다.

18. 주님께서는 거룩한 성찬에서 당신의 몸과 피의 이러한 교통을 증언하시며, 더 나아가 저 영적 잔치에 앉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내놓으시고 베푸십니다. 다만 그것을 열매 있게 받는 사람은 그토록 큰 인자하심을 마땅한 믿음과 마음의 감사로 받아들이는 신자들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잔은 그분의 피에 참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이 실체 자체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므로, 이것은 표시된 실체의 이름을 표징에 붙이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누가 반박할 까닭도 없습니다. 바울의 말에 이런 뜻이 들어 있다고 양보하더라도, 우리는 상징을 베푸는 데서 실체의 진리 자체가 베풀어진다고 바르게 결론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속이는 분이라고 부르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헛된 상징을 내놓으신다고 결코 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떡을 떼는 것으로 당신 몸에 참여함을 참으로 나타내신다면, 그분이 그것을 참으로 이루시고 베푸신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이 규칙을 반드시 붙들어야

563. 원문에는 "엡 4:15"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내용은 개역한글 4:16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합니다. 곧 주님께서 제정하신 상징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 표시된 실체의 진리가 함께 있다고 확실히 생각하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몸의 상징을 여러분 손에 내미시는 것이, 여러분이 그 몸에 참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서이겠습니까? CO 1003 보이지 않는 실체를 주시는 것을 인치려고 보이는 표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참이라면, 우리는 몸의 상징을 받았으니 그 몸 자체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합시다.

19. 그러므로 저는 교회에서 언제나 받아들여 왔고 오늘날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의 거룩한 신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몸에 속한 표징들인데, 이것들은 눈앞에 놓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연약함의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 진리인데, 이것은 상징들 자체로 그려지는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 쉽게 보여 주려 할 때 저는 흔히 세 가지를 내놓습니다. 곧 의미, 그 의미에 달린 내용, 그리고 그 둘에서 따라 나오는 능력 또는 효과입니다. 의미는 약속들 안에 있는데, 약속들은 어떤 방식으로 표징 안에 감겨 있습니다. 내용 또는 실체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지니신 그리스도라고 저는 부릅니다. 효과란 구속, 의, 성화, 영생, 그 밖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모든 은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트집이 들어설 자리를 조금도 남겨 두지 않습니다. 곧 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할 때, 그분을 오직 지성과 상상으로 떠올린다는 뜻이라는 트집입니다. 약속들이 그분을 내놓는 것은,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벌거벗은 지식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참으로 참여하는 것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저는 누가 무엇보다 그리스도 자신과의 참된 교통을 의지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과 의를, 그분의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스도께서 먼저 당신을 우리 것으로 삼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찬의 신비에서 떡과 포도주의 상징들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얻어 주시려고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신 그분의 몸과 피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곧 먼저 우리가 그분과 한 몸으로 자라 붙고, 그다음에 그분의 실체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받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도 느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0. 그렇지만 우리는 성례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학교에서 더 거친 궤변가들이 지어낸 것과 같은 것으로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이 장소적으로 계셔서 손으로 만져지고 이로 갈리고 입으로 삼켜지도록 놓인다는 식입니다. 우리는 그 몸이 사람 몸의 변함없는 본성대로 유한하며, 그 몸이 단번에 받아들여진 하늘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몸을 이 썩을 요소들 아래로 끌어내리거나 어디에나 계신다고 상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죄악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그분께 참여하는 것을 누리는 데 그런 일은 참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우리가 몸과 영과 혼으로 당신과 하나가 되는 이 은택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합의 띠는 주님의 영이시며, 우리는 그 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종의 수로이셔서,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존재와 소유 전부가 그 수로를 거쳐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우리가 해가 빛살로 땅에 비치면서, 땅의 소산을 내고 기르고 자라게 하려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 실체를 땅에 보내는 것을 본다면, 그리스도의 영의 비추심이 그분의 살과 피의 교통을 우리에게 옮겨 오는 데 그보다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함을 말할 때 그 모든 힘을 영께 돌립니다. 많은 대목 대신 한 대목이면 넉넉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달리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논

합니다(롬 8:9 참조). 그러나 바울은 그 말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살과 피의 교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전체를 소유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머무시는 분으로 모시는 일이 오직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21. 궤변가들이 자기들의 학교에서 더 교묘한 속임수로 장난친다는 것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한정적으로(circumscriptive) 담겨 계신다거나 몸의 방식으로 담겨 계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남에게 설명하지도 못하는 방식을 꾸며 내는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그들이 떡의 "형상"(species)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서 찾게 되는 데로 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떡의 실체가 그리스도로 바뀐다고 말할 때, 그들은 그분을 거기에 남아 있게 하는 흰빛에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머무시면서 성례 안에 담겨 계신다. 우리는 관계(habitudo)로 계심 말고는 다른 계심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겉치레를 꾸미려고 어떤 낱말을 내세우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은 이것입니다. 곧 축성으로 전에 떡이던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뒤로 그리스도께서 떡의 그 빛깔 아래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로 어떤 덫을 놓으려 했는지 알아내는 데 많은 짐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 자체가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세기 동안 무지한 무리뿐 아니라 지도자들 자신까지 얼마나 큰 미신에 붙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교황주의 교회들에서 얼마나 붙잡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직 그것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이르고 그분께 붙어 있게 되는 참된 믿음에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고, 말씀을 넘어서 자기들이 지어낸 그분의 육체적 계심만 얻으면 그분을 넉넉히 모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재치 있는 교묘함으로 이룬 것은 떡이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22. 그러나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계심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힘

써야 합니다. 첫째, 그분을 떡이라는 요소에 붙들어 매지도 않고, 떡 안에 가두지도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한정하지 않는 계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그분의 하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분에게서 그분 자신의 크기를 빼앗지도 않고, 그분을 여러 곳에 동시에 찢어 나누지도 않으며, 하늘과 땅에 두루 퍼지는 끝없는 크기를 그분에게 덧씌우지도 않는 계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 본성의 진리와 분명히 맞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단서를, 거듭 말하지만,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기지 맙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 세상의 썩을 요소들 아래로 끌어내리거나 땅에 속한 어떤 피조물에 매어 둘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그분의 몸에 사람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을 조금도 덧씌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몸이 무한하다고 말하거나 여러 곳에 동시에 있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539–1554년판 제18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2

CO 1:1005–101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005 [564]그러나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없앤 뒤라면, 성찬의 거룩한 상징들 아래에서 신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주님의 몸과 피의 참되고 실체적인 교통을 나타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저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그것을 상상이나 마음의 이해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실제로 누린다고 이해되도록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23.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일을 장소의 결합과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것 말고는 달리 생각하기를 견디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장소적 임재에 관해 불합리한 것을 많이 지어내므로, 그들의 오류에 짧게 맞서는 것도 쓸데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서 나실 때 우리의 참된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를 위해 속상하실 때 우리의 참된 육신으로 고난받으셨듯이, 부활하실 때에도 바로 그 참된 육신을 다시 받으셨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감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일으켜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소망은 얼마나 약하고 덧없겠습니까? 그런데 장소에 담기고, 자기 크기로 이루어지며, 자기 모양을 지니는 것, 이것이 몸의 변하지 않는 참됨입니다.

24. 그러나 그들은 성경으로는 만족하려 하지 않으니, 이것도 양보합시

564.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다. 그들은 우리를 교부들에게로 불러 갑니다. 좋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들어 봅시다. 우리는 교회의 교리에 관해 그를 옛 시대의 누구보다 충실한 해석자로 여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분이 오실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기억 속에 되새기고 충실하게 붙드십시오. 곧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른 어디가 아니라 그곳에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저 천사의 음성이 증언하는 대로, 하늘로 가시는 것이 보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곧 같은 보이는 형체와 실체로 오실 것인데, 그분은 그 형체에 불멸성을 주셨으나 그 본성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형체를 따라서는 그분이 어디에나 퍼져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신성을 세우다가 몸의 참됨을 없애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과 자기들의 교리가 얼마나 다른지는 그들 스스로 헤아리도록 맡겨 둡니다. 분명히 그들이 내놓는 것은 무엇이든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장소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로 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일을 장소의 결합과 접촉이나, 어떤 조잡한 가두어 넣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말고는 달리 생각하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5. 한번 받아들인 오류를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목이 곧은 어떤 자들이 무엇을 트집 잡는지 저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하늘과 땅이 넓고 멀리 펼쳐진 만큼의 크기 말고는 결코 다른 크기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이로 태에서 나신 것, 자라신 것, 십자가에 팔을 펴신 것, 무덤에 갇히신 것은 어떤 경륜으로 된 일인데, 나고 죽고 그 밖의 사람의 직분을 치르시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부활 뒤에 여느 몸의 모습으로 보이신 것,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 끝으로 승천하신 뒤에도 스데반과

바울에게 보이신 것도 같은 경륜으로 된 일인데, 하늘에서 왕으로 세워지셨음을 사람들의 눈에 밝히 드러내시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르키온을 지옥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565]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조건이었다면, 그것이 허깨비 몸이었음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끌어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요 3:13).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속성의 교류를 따라 한 말임을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감각이 무딘 것입니까? 바울이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하는 것도(고전 2:8) 같은 방식입니다. 그분이 신성을 따라 고난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으로 버림받고 멸시받으며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CO 1007 하나님이시요 영광의 주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하늘에 계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인자로서 땅에 사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 그분이 신성을 따라 바로 그곳에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신성이 하늘을 버리고 몸이라는 감옥에 숨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모든 것을 채우면서도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몸으로(골 2:9), 곧 본성적으로, 어떤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26. 다른 자들은 조금 더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성례에서 베풀어지는 이 몸은 영화롭고 불멸하는 몸이므로, 그것이 여러 곳에 있든, 아무 곳에도 없든, 아무 모양도 없이 성례 아래 담기든, 조금도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곧 내어 줄 저 죽을 몸을 주셨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분이 이미 그 전에 다볼산에서 세 제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마 17:1). 그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그분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불멸성을 맛보게

565. 마르키온(Marcion, 2세기)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육신을 입지 않고 겉모습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가르친 이단자입니다.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찬에서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맞으시고(사 53:4) 낮아지셔서 고운 모양도 없이 문둥이처럼 누워 계실 시간이 벌써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셨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한 곳에서는 죽을 몸이요 비천한 몸으로 보였는데 다른 곳에서는 불멸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계셨다면, 이로써 마르키온에게 얼마나 큰 창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큰 불합리에 눈을 감아 주겠습니다. 다만 영화로운 몸에 관해 저에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것은 몸이 아닙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몸이다. 그러나 크기 없고, 장소에 매이지 않고, 모양 없는 몸이다."[566] 이것은 한 낱말로는 아니지만 돌려 말하여 그것을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아예 부인하든지, 아니면 육신이 부활하면 그것이 육신일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육신은 장소의 공간에 갇히고, 보이고, 만져진다는 점에서 영과 다릅니다. 묻건대, 우리 몸이 하늘의 영광과 불멸성을 받으면 무한해질 것이라고 그들이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증언하는 대로(빌 3:21),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몸에 관해서도 같은 것을 고백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에도 여러 곳에 동시에 있고 아무 공간에도 담기지 않는다는 것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주 내세우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에게 들어오셨다는 것도(요 20:19) 그들을 조금도 편들어 주지 못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놀라운 방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힘으로 부수지도 않으셨고, 사람의 손이 문을 열어 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셨으며,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이 당신께 물러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어오신 뒤에 그분은

566. [원문의심] 이 그리스어 낱말들은 OCR이 크게 깨져 있습니다("owflrov, xoXvToarov, dcxfjfjuiikmwy afAnqcv"). 셋째 낱말은 "모양 없는"(ἀσχημάτιστον)으로 읽히지만, 나머지는 확실히 읽을 수 없어 문맥에 따라 뜻을 짐작해 옮겼습니다.

제자들에게 몸의 참됨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보고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이 만져지고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참된 몸임이 증명됩니다. 이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참된 몸이기를 그칠 것입니다.

27.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미움받게 하려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 악하게 말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 그릇되었거나 악의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졌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빼고는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아지시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정해진 크기로 이루어지고, 장소에 담기며, 만져지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같은 육신이 여러 다른 곳을 차지하고, 아무 장소에도 담기지 않으며, 크기와 모양이 없게 하시지 못하겠는가?” 어리석은 자여, 육신이 육신이면서 동시에 육신이 아니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빛이 빛이면서 동시에 어둠이 되게 하시라고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육신은 육신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원하실 때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빛과 어둠이 다르지 않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질서를 뒤엎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육신은 육신이어야 하고, 영은 영이어야 하며,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그 법과 조건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조건은 하나의 정해진 장소에, 자기 크기로, 자기 모양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조건으로 육신을 입으셨고, 그 육신에 썩지 아니함과 영광을 주셨으나, 그 본성과 참됨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고, 오르시는 것이 보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성경의 증언은 명백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행 1:11).[567]

28. 이 고집 센 자들이, 그분이 보이게 오르셨고 보이게 다시 오시겠지만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아직도 되받아칠 까닭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하심을 저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식에 관해 다투고 있으니, 이 논쟁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판가름해 줍니다. 그는 이 일에 관한 자기 생각을 아주 분명한 말로 밝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몸의 임재에 관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위엄을 따라, 섭리를 따라, 말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은혜를 따라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취하신 육신을 따라,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을 따라,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나무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세마포에 싸이시고, 무덤에 두어지시고, 부활하여 나타나신 것을 따라서는 '너희가 나를 항상 함께 두지 못하리라' 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몸의 임재를 따라 사십 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이 보면서 배웅하되 따라가지는 못하는 가운데 올라가셨으며,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CO 1009 그분은 거기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위엄의 임재로는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위엄의 임재를 따라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임재를 따라서는 '너희가 나를 항상 함께 두지 못하리라' 는 말씀이 옳습니다. 교회는 육신의 임재를 따라서는 며칠 동안만 그분을 모셨고, 이제는 믿음으로 붙들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는 세 가지 방식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합니다. 곧 위엄과 섭리와 말할 수 없는 은혜로입니다. 저는 그 은혜 아래 그분의 몸과 피의 이 놀라운 교통을 포함합

567. 원문에는 "Act. 1," 까지만 남고 절 번호가 떨어져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1장 11절로 적었습니다.

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요소 아래 그 몸 자체를 가두어 넣는다는 저 꾸며 낸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져지고 보일 수 있는 살과 뼈가 당신께 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신다는 것과 오르신다는 것은 오르시고 떠나시는 겉모양을 보이셨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참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늘의 어떤 정해진 구역을 배정할 것인가?" 그러나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이것은 지나치게 호기심 많고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이 하늘에 계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29. 자, 주님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에 붙들어 매고 싶다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반드시 떼어질 것입니다. 빵이 잔과 따로 건네지듯, 빵에 결합된 몸도 잔에 갇힌 피와 나뉘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몸은 빵에, 피는 잔에 있다고 단언하는데, 빵과 포도주는 공간상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몸이 피와 갈라져야 한다는 결론에서 어떤 핑계로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흔히 내세우는 것, 곧 그들이 지어내듯 수반(concomitantia)으로 몸에 피가 있고 거꾸로 피에 몸이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담겨 있다는 상징들이 그렇게 뚜렷이 구별되어 있으니 참으로 너무나 시시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과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려 그리스도를 그곳 당신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찾는다면, 우리는 빵의 상징 아래 그분의 몸으로 먹임을 받고, 포도주의 상징 아래 따로 그분의 피를 마시게 되어, 마침내 그분 전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육신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셨고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지만,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아버지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는 어떤 장소의 공간에도 제한되지 않고 어떤 크기에도 둘러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디든 기뻐하시는 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당신을

임재하게 보이시며,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계시고, 그들 안에 사시며, 마치 몸으로 함께 계신 것처럼 그들을 붙드시고, 굳게 하시고, 힘을 북돋우시고, 지키십니다. 끝으로 그분은 당신 자신의 몸으로 그들을 먹이시는데, 당신 영의 능력으로 그 몸의 교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런 이치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30. 누가 저에게 그 방식을 묻는다면, 그것은 제 머리로 깨닫거나 말로 다 풀어낼 수 있기에는 너무 높은 비밀이라고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터놓고 말하자면, 저는 그것을 이해한다기보다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논란 없이 끌어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살이 제 영혼의 양식이요 당신의 피가 음료라고 선언하십니다. 저는 제 영혼을 그분께 드려 이런 양식으로 먹임을 받게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의 상징 아래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고 저에게 명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참으로 내어 주시고 제가 참으로 받는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하늘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거나 그분의 인성의 참됨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불합리한 것들만 물리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나라의 영광으로 받아들여지셔서 세상의 모든 조건 위로 들려 오르셨다고 가르치며, 그에 못지않게 부지런히 그분의 인성에 참된 사람됨에 속한 것들을 돌립니다. 이것이 믿기지 않는다거나 이치에 어긋난다고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전체가 영적이듯이, 그분이 당신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이 세상의 이치에 맞추어 따져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 신비는 다른 일들처럼 사람을 통해 행해지지만 하나님에 의해 행해지고, 땅에서 행해지지만 하늘로부터 행해집니다.” 제가 말하거니와, 이것이 성례의 이치가 요구하는 몸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이 임재가 여기서 그토록 큰 능력과 효력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심 없는 신뢰를 줄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불멸성에 관해서도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우리 육신은 이미 그분의 불멸하는 육신으로 살아나고,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불멸성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넘어 자기들의 과장된 말로 높이 날아오르는 자들은 그런 덮개로 단순하고 평이한 진리를 가릴 뿐입니다.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례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성례의 모든 것은 믿음과 관련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풀어 말한 이 몸의 참여로, 그리스도 자신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자들 못지않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믿음을 먹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성경의 모든 해석을 맞추라고 명하는 믿음의 분수(analogia fidei)가 이 부분에서 제 편에 분명히 서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진리에 반대해 외치는 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믿음의 먹줄에 자신을 맞추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요일 4:3). 이 사람들은 아닌 체하지만, 그분에게서 그분 육신의 참됨을 빼앗습니다.

31. 이 지식은 우리를 육적인 경배에서도 쉽게 떼어 놓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성례에서 그 경배를 그릇된 무모함으로 세웠는데, 속으로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것이 몸이라면 영혼과 신성도 몸과 함께 있고, 이것들은 이제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거기서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 CO 1011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우리 머리의 꿈으로 헤매도록 스스로를 놓아 버리면, 이것이 우리가 낳는 훌륭한 소산입니다. 그러나 이런 추론을 지어낸 자들이 마땅한 겸손으로 자기 마음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붙들어 두었더라면, 그분이 친히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마 26:26) 하신 말씀을 분명히 귀담아들었을 것이고, 성례를 경배하라고가 아니라 받으라고 명하시는 이 계명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경배하지 않고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확신보다 더 큰 위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들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엎드려 경배했다고 읽지 않고, 앉아 있는 그대로 받아 먹었다고 읽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적 교회의 관행이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교회의 신자들은 경배로써가 아니라 떡을 뗌으로써 성찬에 참여했습니다(행 2:42). 그들에게는 사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훈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고, 자기가 전한 것을 주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고전 11:23). 경배하는 자들은 짐작과 자기들이 지어낸 무언지 모를 논증에만 기댈 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음절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들이 몸과 피라는 말을 아무리 강하게 내세운다 해도, 정신이 온전하고 맑은 사람이라면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 곧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믿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삼단 논법으로 그것을 멋지게 증명한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이 무언가 더 무거운 느낌으로 시달리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삼단 논법과 함께 쉽게 넘어지고 흩어지고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잃었음을 볼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심판대에 불려 갈 때 오직 그 말씀으로만 서며, 그 말씀이 없으면 첫 순간부터 흔들립니다. 또 사도들의 교훈과 본보기가 자기들을 거스르고, 자기들만이 자기들의 근거임을 볼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충격에 다른 가볍지 않은 가시들도 더해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지시된 것이 없는데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와 영광에 관한 일인데, 어디에서도 한마디 말씀도 없었던 것을 그토록 경솔하게 시도해야 했습니까?

32. 이것은 경건한 독자들이 이토록 어려운 일에서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벗어나 우리 머리의 꿈으로 헤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헤아려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이 이 일에서 우리를 모든 망설임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입니다. 경건한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으려면 하늘로 들어 올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례의 직분이 다른 때에는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도와, 영적 신비들의 높이를 깨닫도록 위로 솟아오르게 하는 것이라면, 바깥 표징에 붙잡혀 머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찾는 바른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빵 앞에 엎드려 거기서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그것이 미신적 예배임을 부인하겠습니까? 니케아 공의회가 우리 앞에 놓인 상징들에 낮게 엎드려 마음을 쏟지 말라고 금했을 때, 의심할 것 없이 바로 이 악을 막으려 했습니다. 옛날에 축성 전에 백성에게 큰 소리로 마음을 위로 두라고 일깨우도록 정한 것도 다른 까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이야기해 주었고, 그분은 승천으로 당신 몸의 임재를 우리 눈과 우리와의 사귐에서 거두어 가셔서 우리에게서 그분에 관한 모든 육적인 생각을 떨쳐 버리게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그분을 말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위로 들어 올리고, 그분을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찾으라고 권합니다(골 3:1).[568]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적으로 경배받으셔야 했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육적이고 조잡한 생각으로 가득한 저 위험한 종류의 경배를 지어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 경배를 지어낸 자들은 성경 없이 스스로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경배에 관한 언급을 하나도 보여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면 분명히 빠뜨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경에서 무엇을 빼는 것 못지않게 더하는 것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 정욕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내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주시는 분 자신 대신 섬겼기 때문입니

568. 원문에는 “Col. 3„” 으로 절 번호가 떨어져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3장 1절로 적었습니다.

다. 여기서 두 겹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예가 빼앗겨 피조물에게로 옮겨졌고, 하나님 자신도 더럽혀지고 속되게 된 당신의 은택 안에서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례가 가증한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같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귀와 눈과 마음과 생각과 혀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에 깊이 박아 둡시다. 그것은 가장 좋은 선생이신 성령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다른 데서 아무것도 끌어올 필요가 없을 만큼 배워 나아가며, 거기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모르고 지내야 합니다.

33. 그런데 미신은 한번 바른 경계를 넘어서면 죄짓기를 그칠 줄 모르므로, 그들은 훨씬 더 멀리 CO 1013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성찬 제정과 전혀 상관없는 예식들을 지어냈는데, 오직 표징에 하나님께 드릴 영예를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공경을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것이 성찬 안에서 행해진다면, 저는 표징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경배는 합당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 일에 관해 아무 약속도 없는데, 무슨 구실로 저 빵 안에서 그리스도를 공경한다고 자랑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호스티아라고 부르는 것을 축성하여, 그것을 행렬로 들고 돌아다니며, 엄숙한 구경거리로 내보여 바라보고 섬기고 부르게 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슨 능력으로 바르게 축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물론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저 말씀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같은 때에 "받아 먹으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맞서겠습니다. 이것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약속이 명령에 붙어 있으므로, 저는 약속이 명령 아래 담겨 있어서 떼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슷한 예로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라" 하시며 명령을 주셨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시 50:15) 하시며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누가 베드로나 바울을 부르고서 이 약속을 자랑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묻건대, 먹으라는 명령을 빼 버리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잘린 약속만 낚아채어, 그것을 그리스도의 제정과 거리가 먼 예식들에 남용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이것 말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은 그것과 이어진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성례를 다른 데로 옮기는 자들은 모든 말씀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34.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례에서 앞에서 풀어 말한 그토록 큰 당신 선하심의 너그러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넘치는 인자하심에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마땅한 찬양으로 기리고 감사로 높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도들에게 성례 제정 자체를 전하실 때, 당신을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눅 22:19). 바울은 이것을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고전 11:26). 이것은 우리 생명과 구원의 모든 신뢰가 주님의 죽으심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두 한 입으로 함께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본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권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성례의 목표가 무엇을 향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에 익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것은, 우리 믿음이 성례에서 깨달은 것,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입의 고백으로 선포하라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례의 둘째 쓰임새인데, 바깥으로 하는 고백과 관련됩니다.

35. 셋째로 주님께서는 이 성례가 우리에게 권면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권면도 이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삶의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또 사

랑과 평화와 일치로 북돋우고 불타오르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당신이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 우리도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께는 오직 한 몸이 있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 몸에 참여하게 하시므로, 우리 모두도 이런 참여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성례에서 베풀어지는 빵이 이 하나됨을 나타냅니다. 그 빵은 많은 낟알로 만들어졌으되, 그 낟알들이 하나를 다른 하나에서 가려낼 수 없을 만큼 섞이고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음의 큰 일치로 결합되고 이어져서 어떤 다툼이나 갈라짐도 끼어들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의 말로 풀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는 말합니다(고전 10: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요, 우리가 떼는 바 축복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그러므로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라.” 다음 생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아로새겨진다면, 우리는 성례에서 참으로 훌륭하게 자라 간 것입니다. 곧 우리가 형제 가운데 누구를 해치거나, 헐뜯거나,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마음 상하게 하면, 동시에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해치고, 헐뜯고, 비웃고,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갈라지면 동시에 그리스도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들 안에서 사랑받지 않고는 우리에게 사랑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는 만큼, 우리 몸의 지체인 형제들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어떤 부분도 아픔을 느끼면 그것이 다른 모든 부분으로 퍼지지 않을 수 없듯이, 형제가 어떤 불행을 당하는데 우리가 함께 아파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성례를 그토록 자주 사랑의 띠라고 부르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당신의 본으로 우리가 서로 자신을 바치고 내어 주도록 초대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모두에게 공통된 분으로 만드셔서 우리 모두도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때, 우리 사이의 서로 사랑을 일깨우는 데 이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36. 이로써 제가 다른 곳에서 말한 것, 곧 성례의 바른 집례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주 잘 확인됩니다. 성찬에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무엇이든 말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굳게 되어야 하든, 고백에서 훈련되어야 하든, 의무로 일깨워져야 하든,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말 없는 행위로 바꾸는 것보다 더 뒤틀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황의 폭정 아래에서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축성의 모든 힘이 사제의 의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는 무엇보다 백성에게 풀어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이 오류는 그들이 축성을 이루는 저 약속들이 CO 1015 요소 자체가 아니라 받는 사람들을 향한 것임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빵에게 당신의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명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의 교통을 약속하십니다. 바울도 빵과 잔과 함께 약속들이 신자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말고 다른 순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중얼거리기만 하면 된다는 듯이 어떤 마술적 주문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 말씀이 살아 있는 설교여서, 듣는 이들을 세우고,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며, 마음에 새겨지고 자리 잡으며, 약속하는 것을 이루는 데서 그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몇몇 사람이 병자들에게 정해진 때 밖에 나누어 주려고 고집하는 성례의 보관은 쓸모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병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정을 낭독하지 않은 채 받거나, 아니면 말씀의 사역자가 표징과 함께 신비의 참된 설명을 덧붙일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서는 남용과 잘못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전해지고 신비가 풀어 설명되어 받을 사람들이 열매 있게 받게 된다면, 이것이 참된 축성임을 의심할 까닭이 없

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병자들에게까지 이르지 않는 다른 축성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들은 옛 교회의 본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대하고 그르치면 큰 위험이 따르는 일에서는 진리 자체를 따르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37. 그런데 주의 만찬의 이 거룩한 빵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생명이심을 보여 주시고, 감사하도록 일으키시며, 서로 사랑하도록 권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달고 맛있는 영적 양식임을 우리가 보듯이, 반대로 그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찬양의 고백과 사랑으로 일깨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해로운 독으로 바뀝니다. 몸의 양식이 나쁜 체액으로 가득 찬 배에 들어가면 그 자신도 상하고 썩어서 영양이 되기보다 해를 끼치듯이, 이 영적 양식도 악의와 사악함으로 더럽혀진 영혼에 들어가면 그 영혼을 더 큰 파멸로 던져 넣습니다. 그것은 이 양식 자체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때에 주님의 복 주심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되었더라도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듯이(고전 11:29),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으므로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않는 것과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이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믿음의 불꽃 하나 없이, 사랑의 열심 하나 없이 돼지처럼 주의 만찬을 받으러 달려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몸을 결코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몸이 자기들의 생명임을 믿지 않으므로, 할 수 있는 모든 모욕으로 그 몸을 욕보이고 그 모든 존귀를 빼앗으며, 마침내 그렇게 받음으로써 그 몸을 속되게 하고 더럽힙니다. 또 그들이 형제들에게서 멀어지고 갈라져 있으면서도 감히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한 상징을 자기들의 다툼과 섞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갈기갈기 찢기지 않는 것은 그들 탓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토록 신성 모독적인 불경건으로 추하게 더럽히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합당하지 않은 먹음으로 자기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아무 믿음도 두지 않으면서도 성례를 받음으로써 자기 구원이 다른 데가 아니라 그분께 있다고 고백하고 다른 모든 신뢰를 버린다고 맹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고발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리며, 스스로 자기 정죄에 인을 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미움과 악의로 형제들,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서 나뉘고 떨어져 그리스도 안에 아무 몫도 없으면서도,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덧붙여 둘 것은, 이 대목을 몸의 장소적 임재를 위해 그토록 자주 내세우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는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더 길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38.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이 이 떡을 먹거나 이 잔을 마시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고 명합니다(고전 11:28). 이로써 (제가 풀이하는 바로는) 그는 각 사람이 자기 안으로 내려가 스스로 따져 보기를 원했습니다. 곧 마음속 신뢰로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알아보는지, 입의 고백으로 그분을 인정하는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열망하는지, 그분의 본을 따라 자기를 형제들에게 내어 주고, 그리스도를 자기와 함께 나누는 것을 보는 사람들과 자기를 나눌 준비가 되었는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여겨지듯 그도 모든 형제를 자기 몸의 지체로 여기는지, 그들을 자기 지체처럼 품고 지키고 돕기를 바라는지를 따져 보기를 원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이런 직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온전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온 소원으로 이것을 열망하여, 시작된 믿음을 날마다 더욱더 키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39. 어떤 자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합당하게 먹도록 준비시키려다가,

가련한 양심들을 무섭게 괴롭히고 들볶았지만, 이 일에 맞는 것은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교리로 지금까지 땅에 있었고 지금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성례를 쓰지 못하도록 막혔습니다. 우리가 우리 합당함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면, 우리는 끝장난 것이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파멸과 CO 1017 혼란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애쓴다 해도, 합당함을 찾으려고 가장 많이 수고했을 그때에 마침내 가장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될 뿐, 다른 것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종기를 고치려고, 합당함을 얻는 방법을 지어냈습니다.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살피고,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스스로 셈하여, 통회와 고해와 속죄 행위(satisfactio)로 우리의 합당하지 않음을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그것을 말하기에 더 알맞은 곳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것들이 놀라고 낙심하며 자기 죄의 두려움에 얻어맞은 양심들에게 너무나 빈약하고 덧없는 위로라고 저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금령으로 의롭고 흠 없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당신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들은 그 의에 관해 누군가를 안심하게 해 줄 가볍지 않은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심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굳게 주어집니까?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했다고 감히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합당함에 대한 확실한 안심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으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신다고 선포하는 저 무서운 금령으로 문은 여전히 늘 닫혀 있을 것입니다.

40. 이제 가련한 죄인들에게서 이 성례의 위로를 이렇게 빼앗고 벗겨 버리는 교리가 어떤 것이며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례에서 복음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귀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어, 가장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고자 하신 이런 양식의 맛과 향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로 그들을 멸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혼란과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이 거룩한 잔치가 병든 자들에게는 약이고, 죄인들에게는 위로이며, 가난한 자들에게는 베풂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건강하고 의롭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잔치가 아무 값어치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지시므로,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시들고 녹아내리고 쇠약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그분이 생명으로 주어지시므로,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합당함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비천함과,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우리의 합당하지 않음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당신의 긍휼로 우리를 당신께 합당한 자로 만드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낙심하여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우리를 낮추어 그분께 일으켜 세움을 받고, 우리를 고발하여 그분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당신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하나됨을 열망하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듯 우리 모두에게 한 영혼, 한 마음, 한 혀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헤아리고 묵상하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이 없고 헐벗은 우리, 죄의 더러움으로 얼룩진 우리, 반쯤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합당하게 먹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로서 너그럽게 베푸시는 분께, 병든 자로서 의사께, 죄인으로서 구주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합당함은 무엇보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에

게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합당함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없으니 그 사랑이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넉넉하며,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더 낫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1. 다른 자들은 합당함 자체가 믿음과 사랑에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지만, 합당함의 정도에서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믿음의 온전함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과 같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으로 그들은 앞의 자들과 다름없이 모든 사람을 이 지극히 거룩한 만찬에 나아오지 못하게 쫓아냅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불완전함의 죄책을 지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므로, 합당하지 않게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받는 데 성례를 헛되고 쓸데없게 만드는 그런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다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참으로 지나치게 둔한 일입니다. 성례는 온전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꼬집어 깨우고, 일깨우고, 자극하고, 훈련하며, 둘 다의 모자람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42.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례에 관해 논한 것은, 이 성례가 지금 공공연한 관습처럼 한 해에 한 번, 그것도 형식적으로 받도록 제정된 것이 아님을 넉넉히 보여 줍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주 그것을 써서, 자주 기억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게 하려고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억으로 그들은 자기 믿음을 붙들고 굳세게 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노래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전하도록 서로 권하고, 끝으로 서로 사랑을 기르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 안에서 보는 그 사랑의 띠를 서로에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의 상징에 참여할 때마다, 마치 증표를 주고받듯이 우리는 서로 모든 사랑의 직분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형제를 해칠 일을 저지르지 않고, 필요가 요구할 때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일을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적 교회의 관행이 이러했다고 전합니다(행 2:42). 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뗌과 기도에 꾸준히 힘썼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모임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 참여와 구제 없이는 결코 열리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순서가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에도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39–1554년판 제18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3

CO 1:1019–103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019 [569]그 뒤로도 여러 세기 동안 이것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나클레투스와 칼릭스투스의 것으로 돌리는 저 옛 교회법들도 여기서 나왔습니다.[570] 곧 축성이 끝난 뒤에는 교회 문 밖으로 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의 것이라고 부르는 저 옛 교회법들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머물지 않고 거룩한 성찬을 받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로 여겨 바로잡아야 한다.” 안티오키아 공의회에서도, 교회에 들어와 성경을 듣고도 성찬을 삼가는 자들은 이 잘못을 고칠 때까지 교회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제1차 톨레도 공의회에서 누그러졌거나 적어도 더 부드러운 말로 제시되었지만, 거기서도 설교를 듣고도 한 번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드러난 자들은 권고를 받아야 하고, 권고를 받은 뒤에도 삼가면 막아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43. 거룩한 사람들은 이런 규정들로, 사도들에게서 친히 전해진 잦은 성찬의 관행을 붙들고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 관행이 신자들에게 매우 유익한데도, 대중의 게으름 때문에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시대에 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일, 곧 주님의 몸의 하나됨의 성례는 어떤 곳에서는 날마다, 어떤 곳에서는 정해진 날의

569.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570. 아나클레투스(Anacletus)와 칼릭스투스(Calixtus)는 1–3세기의 로마 감독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교회법은 후대에 그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간격을 두고 주님의 상에서 준비되고 그 상에서 받아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받아집니다." 또 그는 야누아리우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어떤 이들은 정해진 날에 받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드리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고, 어떤 곳에서는 토요일과 주일에만, 어떤 곳에서는 주일에만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백성이 때때로 해이해졌으므로, 거룩한 사람들은 이 게으름을 눈감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엄한 책망으로 다그쳤습니다. 그런 예가 크리소스토무스의 에베소서 강해에 있습니다. "잔치를 욕되게 한 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앉았느냐? '고 하지 않고 '너는 어찌하여 들어왔느냐? '고 했습니다. 신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악하고 뻔뻔한 자입니다. 묻건대, 누가 잔치에 초대받아 와서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먹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무것도 맛보지 않는다면, 그는 잔치와 잔치를 베푼 이를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대도 이와 같습니다. 그대는 기도로 거룩한 양식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떠나지 않았다는 바로 그것으로 그대가 그들 가운데 하나임을 고백했는데, 끝내 참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나는 합당하지 않다' 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거룩한 신비를 받기 위한 준비인 기도의 교제에도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4. 그리고 한 해에 한 번 성찬에 참여하라고 명하는 이 관습은, 그것이 끝내 누구의 손을 거쳐 들어왔든, 참으로 마귀가 지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제피리누스가 그 법령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571] 그러나 그 법령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규정으로, 그때의 형편으로서는 아마 교회를 그리 나쁘게 돌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거룩한 성찬이 베풀

571. 제피리누스(Zephyrinus)는 3세기 초(199–217년경)의 로마 감독입니다.

어졌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했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속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섞여 사는 사람들은 어떤 바깥 상징으로 자기 믿음을 증언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거룩한 사람은 질서와 다스림을 위해 그날을 정하여, 그날에는 그리스도인 백성 전체가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만큼 덜 자주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리 오래지 않은 때에 아나클레투스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성찬에 참여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올바른 제피리누스의 규정을 후대가 나쁘게 비틀어, 한 해에 한 번 성찬에 참여하라는 정해진 법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 참여하고 나면, 마치 남은 한 해 동안 할 일을 훌륭하게 다 마친 듯이 두 귀를 베고 편히 잡니다. 전혀 다르게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주마다 한 번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주님의 상을 베풀어야 했고, 그 상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일 약속들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되었지만, 모든 사람을 권하고 북돋우며, 게으른 자들의 무기력도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굶주린 자들처럼 떼를 지어 이런 잔치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 이 관습이 마귀의 술수로 끼어들었다고 탄식한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습은 한 해에 하루를 정해 줌으로써 한 해 내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그릇된 남용이 크리소스토무스 시대에 이미 스며들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못마땅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가 방금 인용한 그 대목에서, 이 일이 매우 고르지 못하다고 무거운 말로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한 해의 다른 때에는 깨끗할 때에도 자주 나아오지 않으면서, 부활절에는 더러운데도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외칩니다. “오, 관습이여! 오, 주제넘음이여! 그렇다면 날마다 드리는 봉헌은 헛되고, 우리가 제단 앞에 서 있는 것도 헛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자기 권위를 내세워 그 관습을 승인했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45. 같은 대장간에서 또 다른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더 큰 무리에게서 성찬의 절반을 훔쳐 갔거나 빼앗아 갔습니다. 곧 피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평신도와 속된 자들에게는 금지되고(그들은 이런 칭호로 하나님의 기업을 꾸밉니다), 머리를 깎고 기름 부음받은 몇 사람의 사유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시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칙령입니다(마 26:27). 그런데 사람이 새롭고 반대되는 법으로 그것을 폐하고 없애기를 감히 하여, 모든 사람이 마시지는 말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법자들은 자기들이 까닭 없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이 거룩한 잔을 모든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내놓으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을 내세웁니다. CO 1021 마치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그런 것들을 미리 보지도 살피지도 못하셨다는 듯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참으로 교묘하게, 둘 대신 하나로 넉넉하다고 따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몸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의 몸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몸은 수반으로 피를 함께 품는다." 보십시오, 우리 감각이 고삐가 조금만 늦추어져 방자하고 사납게 날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이렇게나 잘 일치합니다. 주님께서는 빵을 보이시며 그것이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보이시면서는 그것을 피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의 이성의 대담함은 거꾸로, 빵이 피이고 포도주가 몸이라고 맞서 외칩니다. 마치 주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 말씀으로도 표징으로도 당신의 몸을 피와 구별하셨다는 듯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나 피를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라고 부른다는 말을 누가 들어 본 적이라도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분이 당신 전체를 가리키려 하셨다면,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던 대로(마 14:27; 눅 24:39; 요 18:5) "내니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46. 물론 사탄의 종들은 늘 하던 대로 성경을 놀림감으로 삼아, 여기서도 장난치고 트집 잡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먼저 그들은 단순한 사실에서 교회가 영구히 지키도록 매이는 규칙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사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잔을 건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는 말씀은 명령하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행해졌다고 전하면서 그것을 확실한 제정으로 권합니다. 또 하나의 빠져나갈 구멍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제사꾼들의 반열에 뽑아 넣으신 사도들만을 이 만찬에 참여하도록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다섯 가지 물음에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물음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그들의 거짓말과 함께 쉽게 논박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토록 거리가 먼 이 풀이를 그들은 어떤 신탁으로 계시받았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앉은 열두 사람을 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제사꾼들이라고 불러 그리스도의 존귀를 가릴 만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에 관해서는 나중에 알맞은 곳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분은 그때 열두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하라고, 곧 그렇게 서로 나누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왜 저 더 나은 시대에는 사도들로부터 그 뒤 천 년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두 상징 모두에 참여했습니까? 옛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만찬에 어떤 손님들을 들이셨는지 몰랐습니까? 여기서 버티고 얼버무리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뻔뻔한 일일 것입니다. 교회사들이 남아 있고,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전해 주는 옛 저자들의 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말합니다. "육신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먹임을 받으니, 이는 영혼이 하나님으로 살지게 하려는 것이다." 암브로시우스는 테오도시우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어떻게 이런 손

으로 주님의 거룩한 몸을 받겠습니까? 무슨 대담함으로 그대의 입으로 그 보배로운 피의 잔에 참여하겠습니까?" 히에로니무스는 말합니다. "성찬(eucharistia)을 집행하고 주님의 피를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사제들."[572] 크리소스토무스는 말합니다. "옛 율법에서처럼 제사장은 일부를 먹고 백성은 일부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한 몸과 한 잔이 주어집니다. 성찬에 속한 것은 모두 사제와 백성이 함께 나눕니다."[573] 아우구스티누스도 아주 여러 곳에서 바로 이것을 증언합니다.

47. 그러나 아주 잘 알려진 일을 두고 제가 왜 논쟁하겠습니까? 그리스와 라틴의 모든 저자를 읽어 보십시오. 어디서나 이런 증언들을 만날 것입니다. 교회에 순전함이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 관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감독이라고 해도 옳을 그레고리우스는 자기 시대에 이것이 지켜졌다고 가르칩니다. "어린양의 피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제 들음으로가 아니라 마심으로 배웠습니다. 그분의 피가 신자들의 입에 부어집니다." 아니, 그가 죽은 뒤 사백 년 동안, 이미 모든 것이 타락했을 때에도 이 관습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관습으로만이 아니라 범할 수 없는 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제정에 대한 경외가 살아 있었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떼어 놓는 것이 신성 모독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겔라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574] "우리가 알게 된 바로는, 어떤 이들은 거룩한 몸의 몫만 받고 잔은 삼간다고 합니다. 이들은 의심할 것 없이 무언지 모를 미신에 매여 있는 듯하니, 성례를 온전히 받든지 아니면 온전한 성례에서 막혀야 합니다. 이 신비를 나누는 것은 큰 신성 모독 없이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키프리아누스의 저 논증도 귀 기울여 들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움직여야 마땅합니다. 그는 말합니

572. CO 편집자 각주에 따르면 히에로니무스의 말라기 주석 2장의 말입니다.
573. CO 편집자 각주에 따르면 크리소스토무스의 고린도후서 강해 18편(8장)의 말입니다.
574. 겔라시우스 1세(Gelasius I)는 5세기 말(492–496년)의 로마 감독입니다.

다. “싸우러 나갈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피를 흘리라고 가르치거나 권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교통의 권리로 그들을 주님의 잔을 마시도록 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순교의 잔에 알맞은 자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법 학자들이 겔라시우스의 이 법령을 사제들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어린애 같은 트집입니다.

48. 셋째, 그분은 왜 빵에 관해서는 그냥 먹으라고 하시고, 잔에 관해서는 모두 마시라고 하셨습니까? 마치 사탄의 간교함에 일부러 미리 맞서려 하신 것 같습니다. 넷째,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당신의 만찬에 제사꾼들만을 합당히 여기셨다면, 주님께서 막으신 외인들을 감히 참여하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에게 권한이 없는 선물에, 그것을 홀로 주실 수 있는 분의 아무 명령도 없이 참여하라고 말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주님의 명령이나 본보기가 하나도 CO 1023 없다면, 그들은 오늘날 무슨 담력으로 하찮은 평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을 나누어 줍니까? 다섯째,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들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는 뒤이어 그 전해 준 것이 모든 사람이 가림 없이 두 상징 모두에 참여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 거의 전부를 쫓아내는 자들은 자기들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예와 아니오가 함께 있지 않으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그 근원으로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런 가증한 것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가리고, 이 구실로 변호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교리와 제정을 그토록 쉽게 짓밟고 흩어 버리고 폐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이거나, 아니면 경건(religion)의 모든 힘이 꽃피었던 사도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49. 사탄은 이런 것들과 비슷한 고안물들로, 어둠을 덮어씌우듯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찬을 어둡게 하고 더럽혀서, 적어도 그 순수함이 교회에 남아 있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가증함의 머리는, 사탄이 깃발을 들어 그 만찬이 어두워지고 뒤틀릴 뿐 아니라 아주 지워지고 없어져 사라지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때였습니다. 곧 사탄이 가장 해로운 오류로 거의 온 세상의 눈을 멀게 하여, 미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요 봉헌이라고 믿게 한 때였습니다. 이 교리를 더 건전한 스콜라 신학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시 돋친 교묘함과 함께 물러가라고 하십시오. 그 교묘함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변호될 수 있다 하더라도, 성찬의 밝음에 많은 어둠을 끌어들일 뿐이므로 모든 선한 사람이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물러가라 하고, 독자들은 제가 여기서 로마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들이 온 세상에 물들인 그 견해와 맞붙는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곧 미사는 그리스도를 바치는 사제와 그 봉헌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공로로 얻는 행위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대중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자체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종의 달램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말도 이렇게 들리며, 날마다의 관행에서도 다른 것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 역병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선의 겉모습 아래 얼마나 숨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지, 많은 사람이 미사라는 이름 하나로 믿음의 요체 전부를 끌어안는다고 얼마나 믿는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꾸미고 화려하더라도 이 미사가 그리스도를 크게 욕보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묻어 짓누르며, 그분의 죽으심을 잊음에 넘기고, 그 죽으심에서 우리에게 오던 열매를 없애며, 그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남겨 두신 성례를 무력하게 하고 흩어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분명하게 증명된다면, 이 가장 강한 도끼,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뽑아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깊은 뿌리가 있겠습니까? 이 빛이 그 밑에 숨은 악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럴듯한 얼굴이 있겠습니까?

50. 그러므로 먼저 앞에 내세운 것, 곧 거기서 그리스도께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과 모욕이 가해진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성별되셨는데, 구약에서 세워졌다고 읽는 저 제사장들처럼 한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이 죽을 것이었으므로 그 제사장직도 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히 5:5, 10; 7:17, 21; 9:11; 10:21). 그러므로 죽은 자들의 자리를 잇달아 채울 후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께는 대리자를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정해지셨습니다(시 110:4; 창 14:18). 영원히 머무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훨씬 전에 멜기세덱에게서 예표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한 번 등장시킨 뒤에는, 마치 그에게 생명의 끝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는 그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닮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봉헌을 맡을 사제들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후계자와 대리자처럼 그분 대신 세웁니다. 이렇게 대신 세움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영예를 빼앗고 영원한 제사장직의 특권을 앗아 갈 뿐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 우편에서 밀어내려 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머무시지 않고는 거기 불멸하는 분으로 앉아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제 나부랭이들이 마치 죽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듯 그분 대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보좌하는 자들일 뿐이며, 그러므로 그 제사장직은 그치지 않는다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단단히 사도의 말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곧 다른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 때문에 항상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히 7:23). 그러므로 죽음에 막히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이시고, 동료가 필요 없으십니다.

51. 앞에 내세운 미사의 둘째 "능력"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묻어 짓누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얻어 주셨다면(히 9:12), 그 제사의 힘과 효력은 의심할 것 없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희생된 소와 송아지보다 조금도 더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의 제사는 자주 되풀이되었다는 바로 그 점에서 효력 없고 약하다고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사에 영원한 정결의 힘이 없었다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세대를 위해 일을 다 이루셨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CO 1025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한 번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히 9:26; 10:10, 14, 18).[575] 그는 여기에 뛰어난 말씀을 덧붙입니다. 한 번 죄 사함을 얻었으니 더 이상 드릴 제사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요 19:30)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의 마지막 말을 신탁처럼 귀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한 번의 제사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그 완전함을 그토록 분명하게 드러내신 이런 제사에, 마치 그것이 불완전

575. 원문에는 마지막 장절이 "16"으로 되어 있으나, 이어지는 문장의 내용이 10장 18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하다는 듯이 날마다 수없는 제사를 덧대어 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이 이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 힘이 영원히 남는다고 단언할 뿐 아니라 외치고 엄숙히 증언하는데도, 다른 것을 요구하는 자들은 그 제사를 불완전하고 약하다고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십만 번의 제사를 드리라는 법으로 전해진 미사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유일한 희생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신 그 고난을 묻어 가라앉혀 버리는 것 말고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눈먼 자가 아니고서야, 이토록 명백하고 밝은 진리에 맞서 싸운 것이 사탄의 대담함이었음을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52. 저 거짓의 아비가 어떤 속임수로 자기의 이 기만을 가리곤 하는지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곧 여러 다른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의 제사가 자주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기는 손쉽게 흩어집니다. 사도는 논의 전체에서 다른 제사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저 하나의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고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써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더 교묘한 자들은 아직 더 숨겨진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되풀이가 아니라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궤변도 조금도 더 어렵지 않게 논박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봉헌으로 당신의 제사가 효력을 얻게 하시려고 단번에 당신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찬의 집례로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누어지게 하시려고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말하고(고전 5:7), 우리에게 잔치를 지키라고 명합니다. 제가 말하거니와,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에게 누리도록 나누어지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이것이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53. 그러나 그들이 미사의 제사를 어떤 기초로 떠받치는지 들어 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말라기의 예언(말 1:11)을 이리로 끌어

옵니다.[576] 거기서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에 분향과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이방인의 부르심을 말할 때, 그들에게 권하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배를 율법의 바깥 예식으로 가리켜서, 이방인들이 참된 경건에 참여하도록 부르심받을 것을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게 알려 주는 것이 새롭거나 낯선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복음으로 주어진 일들의 실체 전체도 대체로 자기 시대의 예표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대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대신 온갖 예물을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신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에 대한 더 넓은 지식 대신 꿈과 환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인용하는 것은 에스겔의 다른 예언과 비슷합니다. 거기서 선지자는 앗수르와 애굽과 유다에 세 제단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577] 먼저 저는 묻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그 제단들은 어디 있으며, 언제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셋째,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은 성전이 나라마다 하나씩 정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곰곰이 따져 본다면, 제 생각에 그들은 선지자가 자기 시대에 맞는 예표들 아래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배를 예언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의 예는 어디서나 쉽게 만나므로, 길게 늘어놓으려고 애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사의 제사 말고는 아무 제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비참하게 헛짚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신자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는데, 이에 관해서는 곧 말하겠습니다.

54. 이제 저는 미사의 셋째 역할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미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되고 유일한 죽으심을 지워 버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떨쳐

576. 원문에는 “1, 9”로 되어 있으나, 인용한 예언은 말라기 1장 11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577. 칼빈은 이것을 에스겔의 예언이라고 하지만, 애굽과 앗수르의 제단을 말하는 예언은 이사야 19장 19–25절에 있습니다.

내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언이 유언자의 죽음으로 확정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의를 주신 언약을 당신의 죽음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이 언약에서 무엇이든 바꾸거나 새롭게 하기를 감히 하는 자들은 그분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미사는 새롭고 전혀 다른 언약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미사 하나하나가 새로운 죄 사함과 새로운 의의 획득을 약속하여, 이제 미사의 수만큼 언약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또 한 번의 죽음으로 이 새 언약을, 아니 차라리 무수한 죽음으로 수없는 미사의 언약들을 확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 미사로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죽으심이 지워진다고 말한 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임을 당하시도록 곧바로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는 말합니다(히 9:16).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내세우니, 그분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죽임을 당하고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미사마다 희생되신다면, 그분은 순간마다 천 곳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 논증이 아니라 사도의 논증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자주 드리셔야 했다면, 세상 처음부터 자주 고난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같은 장 26절). 그들에게는 우리를 중상한다고 몰아세우는 대답이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CO 1027 그들은 자기들이 결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로 비난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이 결코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작정하는지는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불경건하고 사악한 교리에서 어떤 불합리가 따라 나오는지를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저는 사도의 입으로 증명합니다.

55. 이제 미사의 넷째 역할을 다루어야 합니다. 곧 미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던 열매를 우리에게서 가로채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사에서 새로운 구속을 보는데, 누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속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새로운 죄 사함을 보는데, 누가 자기 죄가 사해졌다고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미사에서 죄 사함을 얻는 것은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획득되었기 때문일 뿐이라고 말한다 해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속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자랑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종들은 이런 교리를 퍼뜨렸고, 오늘날 고함과 칼과 불로 그것을 지킵니다. 곧 우리가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드릴 때, 이 봉헌의 행위로 죄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속자임을 배우게 하는 구속의 본보기가 되는 것 말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56. 이제 마지막 대목에 이릅니다. 곧 주님께서 당신 고난의 기억을 새기고 빚어 남겨 두신 거룩한 성찬이, 미사가 세워짐으로써 치워지고 지워지고 잃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성찬 자체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속상(satisfactio)으로 받으실 값을 하나님께 치른다고 꾸며집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다른 만큼 제사는 성찬의 성례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너그러움을 알아보고 감사해야 할 바로 그 일에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빚진 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가장 비참한 배은망덕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 생명으로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원의 모든 몫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미사의 제사는 전혀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시려면 날마다 희생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나누어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 교통에 관해 우리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미사의 제사는 이 공동체를 풀어 흩어 버립니다.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릴 사제들이 있어야 한다는 오류가 힘을 얻은 뒤로, 마치 성찬이 그들에게로 밀려난 것처럼, 성찬은 주님의 명령대로 신자들의 교회에 나누어지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미사들에 문이 열렸고, 그 미사들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저 공동체라기보다 일종의 출교를 닮았습니다. 사제 나부랭이가 자기 희생 제물을 따로 삼키려고 신자들의 온 백성에게서 자기를 떼어 놓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저는 그것이 고함과 외침으로 울려 퍼지든 중얼거림과 속삭임으로만 소리 내든 사사로운 미사라고 부릅니다. 두 종류 모두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일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57. 그리고 미사라는 이름 자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는 제가 결코 확실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가져온 봉헌물에서 따왔다는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도 대개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름에 관한 논쟁은 접어 두고, 저는 사사로운 미사가 그리스도의 제정과 정면으로 부딪치며, 그러므로 거룩한 성찬을 불경건하게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받아서 우리끼리 나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고 가르칩니까? 몸과 피의 교통인 떡을 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이 나누지도 않고 받을 때, 무엇이 이와 비슷합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온 교회의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무슨 명령으로 그렇게 합니까? 여러 사람 사이에서만 행해야 했던 것을 한 사람이 사사로이 자기에게로 낚아채는 것은 드러내 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와 바울의 말씀은 넉넉히 분명하므로, 짧게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교통을 위한 떡을 뗌이 없는 곳에는 어디나 주의 성찬이 아니라 성찬의 거짓되고 뒤틀린 흉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짓 흉내는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신비의 타락은 불경건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미사에는 불경건한 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서 한 잘못이 곧 다른 잘못을 낳듯이, 성찬 참여 없이 봉헌하는 저 관습이 한번 스며든 뒤로, 그들은 차츰 예배당 구석구석에서 수없는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됨의 신비를 깨닫도록 한 모임으로 모여야 했던 백성을 이리저리 흩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서, 자기들의 미사에서 빵을 그리스도 대신 경배하라고 보여 주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부인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저 약속들을 헛되이 자랑합니다.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해하든, 그것들은 분명히 더럽고 속된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그리고 마음 내키는 어떤 남용을 위해서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성찬을 거행하며 그리스도의 명령을 경건하게 지켜 따를 때 그분께 참으로 참여하는 것을 누리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58. 게다가 이 뒤틀림은 더 순수했던 교회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대자들 가운데 더 뻔뻔한 자들이 여기서 아무리 겉치레를 하려 해도, 우리가 앞에서 보였듯이 모든 옛 시대가 그들을 거스른다는 것은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하며, 옛 저자들을 꾸준히 읽으면 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마치기 전에, 저는 우리의 미사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순종이 제물보다 하나님께 더 귀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압니다(삼상 15:22).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아무 명령도 없고 성경의 한 음절로도 증명될 수 없음을 아는 이런 제사 방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습니까? CO 1029 또 그들은 사도가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말고는 아무도 제사장의 이름과 존귀를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그리스도 자신도 그것을 스스로 차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히 5:4). 그러니 그들은 자기 제사장직을 세우시고 제정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내세우든지, 아니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채 악한 무모함으로 뛰어든 그

존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사제직을 편들어 줄 글자 한 획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제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들의 제사는 결국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59. 이제 눈먼 자들이 보고, 귀먹은 자들이 듣고, 어린아이들도 미사의 이 가증함을 깨닫는 것 말고 무엇이 남습니까? 이 가증함은 금잔에 담겨 건네져서, 땅의 모든 왕과 백성을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이렇게 취하게 하고, 이렇게 깊은 잠과 어지럼증으로 쳐서, 그들은 짐승보다 더 우둔해져 자기 구원의 뱃머리와 고물을 이 하나의 멸망의 소용돌이에 두었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치고 무너뜨리려고 이보다 더 강한 공격 무기를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헬레나입니다.[578] 진리의 원수들은 오늘날 이 여인을 위해 그토록 큰 광분과 격노와 잔혹함으로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참으로 헬레나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과 함께 영적 음행(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증한 것)으로 이렇게 음행합니다. 저는 여기서 저 조잡한 남용들에는 손가락 끝도 대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런 남용들로 자기들의 거룩한 미사의 순수함이 더럽혀졌다고 둘러댈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그들이 얼마나 추한 장사를 벌이는지, 자기들의 미사 드리기로 얼마나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지, 얼마나 큰 탐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몇 마디 단순한 말로, 미사가 여러 세기 동안 그토록 우러러보이고 그토록 큰 공경을 받을 만했다는 그 지극히 거룩한 미사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만 가리켜 보입니다. 이토록 큰 신비들을 그 존귀에 맞게 밝히는 것은 더 큰 저작이 할 일이며, 모든 사람의 눈과 입 앞에 오가는 저 음란한 더러움을 섞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미사를 그 가장 엄선된, 가장 내세워 자랑할 만한 순전함 그대로, 그 부속물 없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뿌리부터 꼭대기까지 온갖 종류의 불경건과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와 성물

578. 헬레나(Helena)는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여인입니다.

모독으로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60. 그런데 어떤 말다툼꾼이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않도록, 이것도 짧게 풀어 두겠습니다. 곧 이 논의 전체에서 제가 제사라는 말로, 또 제사장이라는 말로 무엇을 뜻했는지입니다. 제사라는 낱말을 모든 거룩한 의식과 경건한 행위로 넓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치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결같은 용법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때는 튀시아(θυσία), 어떤 때는 프로스포라(προσφορά), 어떤 때는 텔레테(τελετή)라고 부르는 것을 제사라고 부른다는 것을 압니다.[579] 이 말은 넓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 구분이 모세 율법의 제사들에서 그 유비를 끌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사들의 그림자 아래 제사의 실체 전체를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들의 형태는 여러 가지였지만, 모두 두 갈래로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봉헌은 죄를 위해 일종의 만족의 형식으로 드려져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서 허물을 대속했습니다. 다른 봉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상징이요 경건의 증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간구로, 어떤 때는 받은 은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증언하는 감사로, 어떤 때는 언약의 맹세를 새롭게 하는 단순한 경건의 훈련으로 드려졌습니다. 번제와 전제, 소제, 첫 열매, 화목제물이 이 뒤의 갈래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사를 두 종류로 나눕시다. 가르치기 위해 하나를 섬김의 제사(λατρευτικόν)와 공경의 제사(σεβαστικόν)라고 부릅시다. 그것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고 실제로 드리는 공경과 예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는 원한다면 감사의 제사(εὐχαριστικόν)라고 부릅시다. 그분의 헤아릴

579. [원문의심] 이 대목과 아래 대목의 그리스어 낱말들은 OCR이 크게 깨져 있습니다("anno &vaim, nuno x^oc^ie^av, nwnc itliti^v", "Xaigtmuiov et at^dal*iov", "f vjfo^HTTuidv"). 깨진 글자꼴과 문맥에 따라 θυσίαν, προσφοράν, τελετήν과 λατρευτικόν, σεβαστικόν, εὐχαριστικόν으로 읽었습니다.

수 없는 은택을 가득 받아 자기 자신 전부를 자기의 모든 행위와 함께 그분께 갚아 드리는 사람들만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화목의 제사, 곧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분의 심판을 만족시키며, 그로써 죄를 씻고 닦아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의의 순결로 회복되어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여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죄를 속하려고 드린 희생 제물들이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되찾거나 죄악을 지우기에 넉넉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서 실제로 이루신 이런 종류의 참된 제사를 그림자로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는 오직 그분 한 분께서 이루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저 하나의 제사의 효력과 힘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요 19:30) 다 이루었고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곧 아버지의 은혜를 되찾고, 죄 사함을 얻고, 의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당신의 그 유일한 봉헌으로 이루고 완성하셨으며,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아 그 뒤로는 다른 희생 제물이 들어설 자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1.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누구든지 봉헌을 되풀이하여 죄 용서를 대속하고 하나님을 달래고 의를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해서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제사에 대해서나, 가장 사악한 치욕이요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미사를 드림으로써 하는 일이, 새로운 봉헌의 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CO 1031 그리고 그들은 미친 짓에 아무 한도도 없게 하려고, 그것이 온 교회를 위해 똑같이 공동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모자라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따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아니 차라리 이런 상품을 값을 치르고 사려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다가 매긴 값에는 이를 수 없었으므로, 그래도 어떤 표로나마 자기들 창시자의 본을 드러내려고 수의 닮음은 지켰습니다. 유다는 은 서른 냥에 팔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프랑스식 셈으로 구리 동전 서른 닢에 팝니다. 그러나 유다는 한 번 팔았고, 이 사람들은 살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팝니다. 우리는 이런 뜻에서, 곧 이런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을 달래어 죄의 속죄를 이루는 자들이라는 뜻에서 그들이 사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시며, 모든 제사장직이 그분께로 옮겨졌고, 그분 안에서 닫히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설령 성경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옛 제사장직들을 폐하신 뒤 아무 제사장직도 세우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말고는 아무도 그 존귀를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사도의 논증(히 5:4)은 꺾이지 않고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형 집행인임을 자랑하는 이 신성 모독자들이 무슨 담력으로 감히 자기들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제라고 부릅니까?

62. 플라톤의『국가』제2권에 아주 멋진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옛 속죄 의식들을 논하면서, 악하고 사악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자신감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마치 휘장처럼 써서 자기 악행을 신들이 보지 못하게 가린다고 생각했고, 마치 신들과 계약이라도 맺은 듯이 더 마음 놓고 자기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미사 속죄의 쓰임새를 아예 빗대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을 속이고 등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압니다. 과부들을 해코지로 괴롭히고, 고아들을 털고, 가난한 자들을 못살게 굴고, 나쁜 술수로 남의 재산을 자기에게로 낚아채고, 거짓 맹세와 사기로 누구의 재산이든 덮치고,

폭력과 폭군 같은 위협으로 누구든 짓누르는 것이 불경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이 마치 벌받지 않을 것처럼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을 감히 합니까? 바르게 따져 보면, 그들에게 그토록 큰 배짱을 주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미사의 제사로 마치 값을 치른 것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믿거나, 적어도 이것이 그분과 셈을 끝내는 손쉬운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플라톤은 이런 속죄 의식으로 저승에서 받게 될 형벌을 대속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조잡한 우둔함을 비웃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일 미사와 대부분의 미사가, 평생 가장 잔인한 폭군이었거나 가장 탐욕스러운 강도였거나 온갖 악행에 몸을 내맡긴 자들이 마치 이 값으로 대속받은 것처럼 연옥 불을 피하게 하는 것 말고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63. 우리가 감사의 제사(εὐχαριστικόν)라고 부른 다른 종류의 제사 아래에는 사랑의 모든 직분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 직분으로 형제들을 품을 때 그분의 지체들 안에서 주님 자신을 공경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가 하는 무엇이든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더 큰 제사에 달려 있는데, 그 제사로 우리는 영혼과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바깥 행위가 그분을 섬기는 데 쓰이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바쳐지고 드려져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든 그분의 영광을 섬기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쉬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종류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죄 사함을 얻거나, 의를 공로로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일에만 관계됩니다. 이 제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아 다른 길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손에서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교회에 너무나 필요하여 교회에서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님의 백성이 서 있는 동안에는 이 제사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선지자에게서 이미 보았듯이 말입니다. 그 예언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기는커녕 받아들입니다(말 1:11).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내 이름이 크기 때문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에 분향과 깨끗한 제물이 드려진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내 이름이 두렵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바울도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하며,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라고 합니다(롬 12:1). 그는 이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예배라고 덧붙였을 때 아주 뜻깊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방식을 말했고, 그것을 모세 율법의 육적인 제사들과 은근히 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행과 나누어 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고 불립니다(히 13:16). 이렇게 바울의 궁핍을 덜어 준 빌립보 사람들의 너그러움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불립니다(빌 4:18). 이렇게 신자들의 모든 선행이 신령한 제물이라고 불립니다.

64. 제가 무엇 때문에 더 길게 늘어놓겠습니까? 이런 말투는 성경에 거듭거듭 나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율법의 바깥 몽학 선생 아래 있을 때에도, 선지자들은 저 육적인 제사들 아래 진리가 있으며 그 진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유대 민족에게 공통이라는 것을 넉넉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기도가 분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구했습니다(시 141:2). 그리고 호세아는 감사를 입술의 송아지라고 불렀는데(호 14:2),[580] 다윗은 다른 곳에서 이것을 찬양의 제사라고 부릅니다(시 50:23).

580. 원문에는 "호세아 14장 3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의 절수를 개역한글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1539–1554년판 제18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4, 1539년판 제14장 교회의 권세에 관하여 1

CO 1:1033–104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033 [581]사도는 그를 본받아 자기도 “찬미의 제사”라고 부르며(히 13:15), 이것을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풀이합니다. 주의 성찬에는 이런 종류의 제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전하고 감사를 드리니, 이것은 다름 아닌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직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립니다(벧전 2:9).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가 말하는 저 찬미의 제사, 곧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물을 들고 간구하시는 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간구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분이 제단이시니,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는 일은 무엇이든 그분 안에서 감히 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를 아버지께 대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계 1:6).

65. 누가 옛 사람들의 권위를 들어, 성찬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다툰다면, 그에게는 짧게 이렇게 대답해 둡니다. 교황주의자들이 미사에서 꾸며 낸 것 같은 제사의 허구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면, 옛 사람들은 그런 신성 모독을 결코 편들지

581.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제사라는 낱말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저 참되고 유일한 제사를 기념하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들 스스로 곳곳에서 외치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던 짐승 제물로써,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장차 올 제물의 예언을 기념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고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제사를 기념한다.” 이 말은 분명히, 『베드로 집사에게 보낸 믿음에 관하여』라는 책(그 저자가 누구이든)에 더 많은 말로 실린 것과 온전히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가장 굳게 붙들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신 독생자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구약 때에는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그분께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졌고, 이제는 거룩한 교회가 온 세상에서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그분께, 곧 이들과 한 신성이신 그분께 떡과 포도주의 제사를 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저 육적인 제물들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드리실 그 육체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실 그 피의 예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사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육체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에 대한 감사와 기념이 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여러 곳에서 이것을 다름 아닌 찬미의 제사라고 풀이합니다. 끝으로 그의 글 곳곳에서 여러분은, 주의 성찬이 제사라 불리는 까닭은 오직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저 하나뿐이고 참되며 유일한 제사의 기념이요 형상이요 증언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크리소스토무스도 같은 뜻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직의 영예를 그리스도께 돌리기를 이토록 철저히 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든 감독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구하는 자로 세운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582]

66.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되어 십자가의 광경이 거의 우리 눈앞에 세워진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한 것도(갈 3:1), 그들에게 십자가의 설교가 제시되었던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옛 사람들도 이 기념을 주의 제정에 맞는 것과는 다른 쪽으로 비틀었다는 것을 봅니다(그들의 성찬은 무언지 모를, 되풀이되거나 적어도 새롭게 된 희생의 모양을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순수하고 단순한 제정에 머무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만찬이라 불리는 것도, 여기서는 오직 그분의 권위만이 힘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그들이 이 신비 전체에 관해 경건하고 정통적인 생각을 지켰고, 주의 유일한 제사를 조금도 깎아내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기에, 그들을 어떤 불경건의 죄로 정죄하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식을 행하는 방식에서 얼마간 잘못했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나 복음의 이치가 허락하는 것보다 유대인의 제사 방식을 더 가까이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들을 마땅히 꾸짖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저 뒤틀린 비유 풀이(anagoge) 하나입니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단순하고 참된 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율법의 그림자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67. 누구든 부지런히 따져 보면, 주의 말씀으로 모세의 제사들과 우리의 성찬(eucharistia) 사이에 이런 차이가 세워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제사들은 오늘 성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같은 효력을 유대 백성에게 나타냈지만, 그 나타내는 모양은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제사를 형상으로

582. 원문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는 이 대목의 출처를 아우구스티누스, 『파르메니아누스 반박』 2권 8장으로 밝힙니다.

보여 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대신할 제물이 세워졌고, 그것을 잡을 제단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모든 일이,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의 모습을 눈앞에 두도록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이루어진 뒤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곧 아들이 당신께 드린 제사의 열매를 믿는 백성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식탁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먹게 하셨습니다. 제물을 그 위에 드리는 제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물을 잡을 사제들을 성별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잔치를 나누어 줄 사역자들을 성별하셨습니다. CO 1035 신비가 더 높고 거룩할수록, 그만큼 더 경건하게, 더 큰 경외로 다루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감각의 모든 대담함을 물리치고 오직 성경이 전하는 것에만 붙어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사람의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의 권위나 세월의 시효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손톱만큼이라도 밀려나기를 용납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미 스며든 모든 악폐를 성찬에서 씻어 내려 할 때, 그 일을 위한 가장 빠른 길로서 그들을 저 유일한 제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고전 11:20). 이로써 그는 거기서 영구한 규칙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68. 독자들은 이 두 성례에 관해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한 거의 모든 것을 요약으로 모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성례의 사용은 신약의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곧 세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고 믿음의 입문이 되며,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신자들의 가족을 영적으로 먹이시는 끊임없는 양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도 하나이듯이(엡 4:5), 세례도 하나뿐이며 자주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거듭 나누어집니다. 한 번 교회 안으로 이끌려 들어온 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먹임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둘 말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다른 성례가 하나도 없듯이, 신자들의 교회도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새 성례를 세우고 정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님은, 앞에서 넉넉히 분명하게 설명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면 쉽게 깨달을 것입니다. 곧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약속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려고 두신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는 아무 모사도 없었다는 것(사 40:13; 롬 11:34), 곧 우리에게 그분의 뜻에 관해 무엇을 확실히 보증하거나, 그분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며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거절하려 하시는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안심시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분의 뜻과 어떤 약속의 증언이 될 표징을 아무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도 확정됩니다. 표징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 자신에 관해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한 분이십니다. 더 짧게, 아마 더 투박하게, 그러나 더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성례는 구원의 약속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데 모인다 해도 우리 구원에 관해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성례를 내놓거나 세울 수도 없습니다.

69.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두 가지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셋째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런 것을 바라거나 기다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규적인 성례 말고도 시대의 여러 형편에 따라 몇 가지 다른 것이 주어졌는데(만나,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 놋뱀 따위), 그들은 이런 변화로써 이런 형상들에 머물지 말라는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형상들의 상태는 그리 굳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은 것, 곧 어떤 멸망도 끝도 없이 늘 서 있을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우리의 처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되(골 2:3 참조) 그토록 풍성하고 넉넉하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이 보화에 무슨 새로운 것이 더해지기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요 그분을 우리에게 맞서도록 도발하는 일입니다. 저 큰 날이 밝아 주께서 당신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당신을 계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실 때까지(요일 3:2),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리고 찾고 바라보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까닭에 성경에서 우리의 이 시대는 “마지막 때”, “말세”, “마지막 시대”로 일컬어집니다(요일 2:18; 벧전 1:20). 아무도 어떤 새로운 교리나 계시를 헛되이 기다리다가 자기를 속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히 1:2). 오직 그 아들만이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고(눅 10:22),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듯 그분을 보고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고전 13:12).

70.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교회에 새 성례를 세울 권한이 빼앗겼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례들 자체에도 사람의 고안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섞이기를 바랄 일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부으면 김이 빠지고 묽어지며, 누룩을 뿌리면 밀가루 반죽 전체가 시어지듯이, 사람이 자기 것을 무엇이든 더하면 하나님의 신비의 순수함은 더럽혀질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날 다루어지는 성례들이 그 참된 순수함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봅니다. 어디에나 화려한 행렬과 의식과 몸짓은 넘치도록 많은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고려도 언급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례 자체도 성례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 자체도 그토록 큰 혼잡 속에서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 눌린 듯이 누워 있습니다. 세례에서, 그곳에서 홀로 빛나고 보여야 했던 것, 곧 세례 자체가 얼마나 보입니까? 성찬은 미사로 바뀌었을 때 아주 묻혀 버렸습니다. 다만 한 해에 한 번, 그것도 찢기고 반 토막 나고 갈가리 찢긴 모양으로 보일 뿐

입니다. 그러나 누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를 신자들의 회중 앞에 세우고, 온 교회가 증인으로서 지켜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나았겠습니까? 학습자를 가르칠 신앙고백을 낭독하고, 세례에 담긴 약속들을 설명하고, 학습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끝으로 기도와 감사로 그를 돌려보내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일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빠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그 저자로 하여 나온 저 하나의 의식이 아무 낯선 더러움에도 덮이지 않고 가장 밝게 빛날 것입니다. CO 1037 그런데 씻기는 사람이 온몸을 물에 잠그는지, 그것도 세 번인지 한 번인지, 아니면 물을 붓기만 하여 뿌리는지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차이에 따라 교회들에 자유로 맡겨져야 합니다. 물론 "세례를 주다"라는 낱말 자체가 "잠그다"를 뜻하고, 옛 교회에서 잠그는 예식이 지켜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성찬에 관해서는, 아주 자주, 적어도 매주 한 번씩 교회에 베풀어진다면 가장 알맞게 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은 공중 기도로 하고,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다음 사역자가 식탁에 떡과 포도주를 차려 놓고 성찬의 제정을 낭독하고, 이어서 성찬에서 우리에게 남겨 주신 약속들을 설명하며, 동시에 주의 금지로 성찬에서 막혀 있는 모든 자를 출교합니다. 그 뒤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선하심으로 이 거룩한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믿음과 마음의 감사로 받도록 가르치고 빚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그럴 수 없으니 당신의 긍휼로 우리를 이런 잔치에 합당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시편을 노래하거나 무엇을 낭독하고, 신자들은 마땅한 순서대로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며, 사역자들은 떡을 떼고 잔을 건넵니다. 성찬이 끝나면 진실한 믿음과 믿음의 고백, 사랑과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품행을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교회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71. 다음 것을 아는 것도 이 일에 중요합니다. 개인들이 성찬이나 세례의

집행을 스스로 가로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 집행은 교회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자들이나 아무 사람에게나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사도로 세우신 이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성찬을 집행하실 때 정당한 집례자의 직무를 친히 행하셨으므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본 대로 행하라고 명하셨을 때, 의심할 것 없이 그들이 이 일에서 당신의 본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세기 전부터, 아니 거의 교회의 처음부터, 사역자가 제때 곁에 없으면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평신도가 세례를 베푸는 관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확고한 근거로 변호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관습을 지키거나 묵인하던 옛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옳게 행해지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할 때 이 의심을 드러냅니다. “평신도가 필요에 몰려 세례를 주었다면, 누가 그것을 되풀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경건한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 아무 필요도 몰아대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남의 직무를 가로채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가 다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죄도 아니거나 소죄(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벼운 죄)이다.” 여자들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아무 예외 없이, 여자들은 결코 세례를 주려고 나서지 말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이 세례 없이 죽으면 중생의 은혜를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뒤에 오는 우리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양자 삼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에 그들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그토록 모욕하여, 그분의 약속이 그 자체로 성취되기에 부족하다고 감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뒤에 성례가 인처럼 더해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체로는 무효하기라도 한 듯이 그것에 효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그 약속을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자녀인 아기

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전에는 교회에 낯선 자였다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의 은택으로 이미 전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었으므로 엄숙한 표징으로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징을 빠뜨린 것이 게으름이나 멸시나 소홀함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위험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정에 이런 경외를 드려, 주께서 성례를 맡겨 두신 곳이 아닌 다른 데서 성례를 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합니다. 교회에서 성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성례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 그 은혜를 얻지 못할 만큼 묶여 있지 않습니다.

72. 그런데 신자들이 떡을 손에 받든지 받지 않든지, 서로 나누든지 각자 받은 것을 먹든지, 잔을 집사의 손에 돌려주든지 옆 사람에게 건네든지, 떡이 누룩을 넣은 것이든 무교병이든, 포도주가 붉은 것이든 흰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며 교회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손에 받는 것이 옛 교회의 예식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서들은, 로마 감독 알렉산데르의 시대 전에는 누룩을 넣은 보통 떡이었다고 전합니다.[583] 그가 처음으로 무교병을 좋아했습니다. 무슨 까닭에서였는지, 저는 백성의 마음을 바른 경건(religion)으로 가르치려는 것보다 백성의 눈을 새로운 구경거리로 끌어 놀라게 하려는 것 말고는 알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경건에 열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엄숙히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며, 영적 위로의 단맛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신자들에게 돌아오는지를, 저 차갑고 광대 놀음 같은 시시한 짓들, 곧 얼이 빠진 백성의 감각을 속이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보다 분명히 보지 못합니까? 그들은 백성이 미신에 우둔해지고 얼이 빠져 아무 데로나 끌려다니는 것을 두고 백성을 경건 안에 붙들어 둔

583. 알렉산데르(Alexander) 1세는 2세기 초의 로마 감독입니다.

다고 부릅니다. 누가 이런 고안물을 오래됨으로 변호하려 한다면, 저 역시 세례에서 성유와 입김 불기의 사용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사도 시대에서 그리 멀지 않아 주의 성찬이 녹이 슬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사람의 자신감의 방자함이니, 이 방자함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장난하고 방탕하게 놉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셔서 그 순종으로 우리가 당신의 천사들과 온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CO 1039 제13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584]

제14장

교회의 권세에 관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은 이 영적 나라에 속하므로, 이 논의에서 우리는 법이나 입법자들의 국가 질서와는 아무 다툼도 없습니다. 우리가 맞서는 것은, 교회의 목자로 보이기를 원하지만 실은 가장 잔인한 망나니인 자들이 스스로 가로챈 권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법을 영적인 것, 영혼에 속한 것이라 하고, 그것이 영생에 필요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침범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양심에 주신 자유가 철저히 짓밟히고 흩어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불경건으로 자기들 법의 준수를 강요하는지, 곧 그 준수에서 죄 사함과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경건(religion)과 경건(pietas)의 요체 전체를 거기에 두는지는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양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일들에서는 양심에 필연성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양심은 (앞에서 가르쳤듯이) 해방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그리스도

584. 원문에는 CO 편집자의 말이 붙어 있습니다. 1539년판에서 이 자리에 있던 장은 뒤의 판들에서 다른 자리를 차지하며, 앞에서 제12장으로 매겨 실었다고 밝힙니다.

안에서 한 번 얻은 은혜를 지키려 한다면, 오직 한 분 왕, 곧 자기들의 해방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한 자유의 법, 곧 복음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종노릇에도 붙잡히지 말고 어떤 사슬에도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저 솔론들은 자기들 규정이 자유의 법이요 쉬운 멍에요 가벼운 짐이라고 꾸며 댑니다.[585] 그러나 그것이 순전한 거짓말임을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경외를 내던지고 자기들의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태연하고 부지런히 무시하는 자들은 자기들 법의 무거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구원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이 올무에 얽혀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자유롭다고 여기기는커녕 그와 아주 멉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처신했는지, 단 한 가지 일에서도 감히 올무를 씌우지 않으려 했는지를 봅니다(고전 7:35). 까닭 없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자유를 남겨 두신 일들에서 필연성이 양심에 지워진다면 양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게 될지 그는 분명히 내다보았습니다. 반대로 이 자들이 영원한 죽음의 위협으로 가장 엄하게 정해 놓고, 구원에 필요한 것처럼 가장 엄격히 요구하는 규정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중 많은 것은 지키기가 몹시 어렵고, 전부를 한 무더기로 모으면 그 더미가 너무 커서 아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토록 큰 어려움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심한 근심과 두려움에 얽혀 애태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가르친 것에서 짧게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묶고, 마치 구원에 필요한 일들에 관해 명령하듯 종교적 의무(religio)를 지우려고 내놓는 그런 규정들로는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규정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참되고 필요한 예배로 강요되는 것은 모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셀 수 없이 많듯이, 영혼을 사로잡아 올무에 얽어매는 사슬도 끝이 없습니다.

585. 솔론(Solon)은 아테네의 입법자입니다. 칼빈은 법을 만들어 내는 교황주의자들을 비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교회의 권세는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그들을 위하여 이 글을 쓰는 많은 순박한 사람들을 이런 생각이 불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증언하듯이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고후 10:8; 13:10).[586] 이 권세를 정당하게 쓰는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이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고전 4:1). 이 권세를 "하나님 말씀의 사역"이라 부르는 사람이 그것을 바르게 정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을 때(마 28:19–20), 이 권세는 그리스도께 이 경계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옛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렸고 지금도 다스리는 자들이 이 명령의 법이 자기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참 목자들에게는 그들의 위엄이 훌륭히 서 있었을 것이고, 폭군보다 더한 불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거짓되이 권세를 자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의 어떤 자리에서 지나가며 일러 둔 것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성경이 선지자들에게든 제사장들에게든 사도들에게든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든 부여하는 권위와 위엄은 모두 그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사역에,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이 그 사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것입니다. CO 1041 모두를 차례로 살펴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나 사도와 제자들이나, 주의 이름과 말씀으로가 아니고서는 명령하거나 가르치거나 대답할 아무 권세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선지자 가운데 첫째인 모세 자신의 말을 백성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께로부터 받지 않은 무엇을 명령하거나 도대체 전했습니까? 그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586. 원문에는 "고후 13:7"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10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서 그의 권위를 받아들인 백성이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합니다(출 14:31 참조). 주께서는 옛날 당신의 선지자들을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우셔서 뽑고 뿌리째 뽑으며 멸하고 무너뜨리며 세우고 심게 하셨습니다(렘 1:10). 그러나 곧이어, 그것은 주께서 이미 그들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셨기 때문이라는 말이 덧붙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누구도 주께서 말씀을 앞서 불러 주시지 않고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토록 자주 되풀이되는 말들, 곧 "주의 말씀", "주의 경고", "주의 입이 말씀하셨다", "주께로부터 온 묵시",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가 나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더럽다고 부르짖었고(사 6:5),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이여서 말할 줄 모른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렘 1:6). 그들이 자기 말을 했다면, 한 사람의 더러운 입과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입에서 더러운 것이나 맛없는 것 말고 무엇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기관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입술은 거룩하고 순결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직무 전체가 어떠했는지는 에스겔서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겔 3: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전하라." 주의 입에서 들으라고 명령받은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꾸며 내지 못하게 금지된 것이 아닙니까? 주께로부터 전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져온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고 확신 있게 내세울 수 있도록 말하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도 다른 말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렘 23:28).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참 말을 말하라. 겨가 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의 말이니라." 제사장들에 관해서도 주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까닭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말 2:7).

이제 사도들도 살펴봅시다. 그들은 많은 훌륭한 칭호로 꾸며져 있습니

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이며(마 5:13–14), 그리스도 대신 그 말을 들어야 할 자들이며(눅 10:16), 그들이 땅에서 매거나 푸는 것은 무엇이든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릴 것이라고 합니다(요 20:23; 마 18:18).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이름 자체로, 자기 직무에서 자기에게 얼마만큼 허락되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도라면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지껄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의 명령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보라,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20:21). 그런데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는지는 다른 말씀으로 증언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의 것이다"(요 7:16).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게도 지우신 이 법을 사도들과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거절하는 것은 분명 불경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그 처지는 훨씬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원하고 유일한 모사이시며 늘 아버지의 품에 계셨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시되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당신 안에 감추어 두실 만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골 2:3). 모든 선지자는 일찍이 내놓은 하늘 신탁을 무엇이든 이 샘에서 길어 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을 아는 지식을 주시기로 하신 다른 모든 사람도, 배운 하늘 교리를 무엇이든 같은 샘에서 길어 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 곧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요 1:18)과, 그리스도 자신의 다른 말씀, 곧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마 11:27)이 언제나 참되었다면(분명히 참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이 오직 그분께만 열려 있는 아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으로 깨닫거나 말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거룩한 사람들은 아들 안에서, 말하자면 거울로 보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으며, 선지자들도 같은 아들의 영으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관해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기를 더 좋아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곧 당신의 유일한 지혜와 빛과 진리를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 지혜는 전에도 여러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온전히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관해 깨달을 수 있는 것과 생각해야 할 것을 모두 온 입으로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가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썼을 때(히 1:1–2), 분명히 그는 평범한 무엇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전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거듭 말씀하시거나 예언에 예언을, 계시에 계시를 더하지 않으시고, 당신 아들 안에서 가르침의 모든 부분을 완성하셔서 이것을 그분에게서 받을 마지막이고 영원한 증언으로 삼게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분명히 선언합니다. CO 1043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복음의 설교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때부터 심판 날까지 이 신약의 시대 전체가 (다른 곳에서 지나가며 말했듯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 “말세”로 일컬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완전함에 만족하여, 그 밖에 어떤 새 교리도 우리 스스로 꾸며 내거나 남이 꾸며 낸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특별한 특권으로 그분을 우리의 선생으로 세우시고, 사람 가운데 누구가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신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마 17:5). 아버지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몇 마디 말로 그분의 가르치는 직분을 우리에게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게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

치 우리를 모든 사람의 가르침에서 떼어 내어 오직 이분 앞에 세우시고, 구원의 모든 가르침을 오직 이분에게서 구하고, 오직 이분에게 달려 있고, 오직 이분에게 붙어 있으며, 끝으로 (말 그대로) 오직 이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생명의 말씀 자체가 우리 육신 안에서 우리와 친밀히 지내셨으니, 이제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다리거나 구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혹시 있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아니, 하늘 아버지께서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그 안에 감추어 두기를 원하신 그분께서 한 번 말씀하신 뒤에는 모든 사람의 입이 닫히는 것이 마땅합니다(골 2:3).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어느 부분에서도 빈틈이 없는 지혜)와 메시아(모든 것의 계시를 그에게서 기다렸던 분, 요 4:25)에게 걸맞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당신 뒤에 다른 이들이 말할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실 만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잠잠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말씀하셔야 하며, 다른 모든 이를 제쳐 놓고 업신여기고서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권세 있는 자처럼 가르치시는 것(마 7:29)이 그분께만 있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마 23:8). 그다음 그분은 이 말씀을 그들 마음에 더 깊이 스며들게 하시려고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되풀이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남겨진 것, 그리고 그 후계자들에게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은 이 하나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되 그들이 제 마음대로 꾸며 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을 때(마 28:19–20) 그들의 사신 직무의 한계를 정하신 그 법을 부지런히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에게 얼마만큼 허락되었는지 스승에게서 가장 잘 배웠으므로,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다른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그는 말합니다(벧전

4:11). 이것은 사람 마음의 모든 고안을, 그것이 어떤 머리에서 나왔든 물리쳐서, 신자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워지게 하라는 것, 그리고 어떤 계급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결정을 치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작정만을 세우라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한 영적 무기입니다(고후 10:4).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들은 이 무기로 모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슬러 높아진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모든 불순종을 벌할 준비를 갖춥니다. 보십시오, 교회의 목자들이, 그들이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 지녀야 마땅한 권세가 분명하고 똑똑하게 정의되었습니다. 곧 그들은 자기들이 그 일꾼이요 청지기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확신 있게 감행하고, 세상의 모든 힘과 영광과 높음을 그 말씀의 위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며, 그 말씀으로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모든 이에게 명령하고,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고 사탄의 집을 무너뜨리며, 양을 먹이고 이리를 죽이며, 배우려는 자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며, 거역하고 완고한 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논박하며, 풀고 매고, 끝으로 번개를 치고 벼락을 내리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 권세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감독과 영혼의 인도자로 행세하며 자기를 내세워 온 저 영적 폭군들의 권세와 견주어 보면, 그 일치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보다 조금도 낫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우리 믿음이 자기들 마음대로 서고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쪽으로든 정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 마음에 굳고 확정된 것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인정하면 우리도 그것을 의심 없이 인정해야 하고, 그들이 무엇을 정죄하면 그것도 정죄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이런 공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항을 만드는 것은 교회의 권한이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같다. 긍정하는 것이든 부

정하는 것이든 그들의 모든 교리에, 암묵적 믿음(fides implicita)으로든 명시적 믿음으로든 확실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고 같은 꼴의 다른 몇 가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우리 양심도 자기들의 지배 아래 두어, 그들이 무슨 법을 내놓든 우리에게 순종할 필연성이 남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서 교리를 만들어 나중에 그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요구하며, 지키는 것을 필수로 만드는 법을 씁니다. 그러나 새 교리를 주장하고 믿음의 조항을 만드는 이 방자함은 방금 우리가 보였듯이 사도들 자신에게서도 빼앗긴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정당하게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아직 수긍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고후 1:24). 그는 주께로부터 그들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가르침의 자유가 자기에게 있다고 인정했다면, 그는 결코 그들의 교회에 이런 규율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 선지자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며(고전 14:29),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는 규율 말입니다. 이렇게 그는 누구도 아끼지 않고 그 권위를 하나님 말씀의 심판 아래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곳에서 훨씬 더 분명히 우리 믿음을 사람의 모든 전통과 꾸며 낸 것에서 해방시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할 때입니다(롬 10:17).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에만 기댄다면, 이제 사람의 말에 무슨 자리가 남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권세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것도 사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서 그토록 여러 번 빼앗겼는데, 저는 그들이 사도들의 본을 벗어나 하나님의 명백한 금지를 거슬러 어떻게 그 권세를 감히 자기 것으로 끌어오는지 놀랍습니다. 야고보가 쓴 것은 모호하지 않습니다(약 4:11–12).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같은 것이 이사야서에도, 조금 더 희미하게나마, 말해져 있었습니다(사 33:22). "주는 우리의 왕이시요, 주는 우리의 입법자이시요, 주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야고보에게서, 영혼에 대한 권한을 가진 분이 생명과 죽음의 결정권자라고 선언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아무도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구원하고 멸하는 권세가 오직 그분께만 있는 하나님을 영혼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는 (이사야의 저 말이 뜻하듯) 왕과 재판관과 입법자와 구원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목자들에게 그 직무를 일깨울 때, 양 떼를 치되 "맡은 자들"(cleros)에게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벧전 5:2–3). 그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업, 곧 신자들의 백성을 뜻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모든 권세가 잘려 나가고 아예 뿌리째 뽑혔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그들이 자기 교리와 자기 나라를 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리를 높일 만한 것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기를 변호하며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듣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은 자기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자기들은 스스로 지어낸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들이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말하자면 손에서 손으로 전할 뿐이다. 그들은 이것을 확증할 근거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영의 임재가 당신 교회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들이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예롭게 일컬어진 빛나는 칭호들이 있으니,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주름도 티도 없다는 것이다(엡 5:27). 그리고 같은 뜻으로 성경에서 끌어올 수 있는 다른 말씀들도

있다. 그러므로 누가 이제 교회의 권위를 의심한다면, 그는 교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도 불경건하고 모욕하는 자이다. 교회는 의심할 것 없이 그 영의 인도로 다스려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 사이에 이것이 한결같이 합의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에 필요한 일들에서 그릇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 관해 말해지는 것이 모두 자기들에게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전체가 무너졌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서 있어서 자기들의 어깨로 교회 자체가 떠받쳐지고 서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참으로 대표하는 교회의 공의회들도 교회에 있는 것과 같은 진리의 확실성을 지니며, 그릇될 수 없도록 성령께 직접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어 내고 나면, 동시에 그들의 전통이 성령의 계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멸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권위자 없이 무엇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들 준수 사항의 상당 부분이 사도들에게서 흘러나왔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들 의식의 거의 모든 규율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승천 뒤에 사도들에게 많은 것이 계시되었는데 그것이 글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놓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요 16:12).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이 다른 일들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 가지 예로 넉넉히 보여 준다고 주장합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공의회의 결정으로 모든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행 15:29).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찮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이므로, 저와 함께 하나하나 차례로 살펴보려는 사람들이 아무 수고 없이 꿰뚫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제가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 저는 그들이 이 일에 진지하게 마음을 기울이도록 권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이치는 제쳐 두고, 어떤 길로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일을 이루는 것 하나만을 목표로 삼으므로, 저는 그들과 상대할 일이 없다고 여기겠습니다. 다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가르치기로 맡은 선량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궤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일러 주어야 할 것은, 교회의 원수 가운데서도 더할 나위 없이 해롭고 치명적인 원수인 저 자들이 까닭 없이 뽐내는 교회라는 거짓 핑계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이 주의 선지자들에게 눈멂과 불경건과 우상숭배로 책망받을 때 내세운 것과 다르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의식과 제사장직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자기들 보기에는 큰 증거인 이것들로 교회를 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대신 어떤 바깥 가면들이 우리 앞에 내세워집니다. 그것들은 흔히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들 없이도 교회는 아주 잘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의 저 어리석은 자신감에 맞서 다툴 때 쓴 것과 다른 논증으로 논박할 필요가 없습니다(렘 7:4 이하). 곧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어디에서든 당신의 말씀이 들려지고 경건하게 지켜지는 곳이 아니면 아무것도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539년판 · 제14장 교회의 권세에 관하여 (77편 끝에서 시작)

1539년판 제14장 교회의 권세에 관하여 2

CO 1:1047–106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047 [587]이것이 우리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찍어 두신 영구한 표지입니다. 그분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요 18:37).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십니다(요 10:14, 26). 그리고 조금 앞에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지만, 낯선 자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니 이는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0:4–5).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표지로 교회를 가리켜 주셨는데, 우리는 왜 교회를 판별하는 일에서 제멋대로 미친 짓을 합니까? 이 표지는 어디에서 보이든 틀림없이 거기에 교회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 주고, 이 표지가 없는 곳에는 교회를 참되게 알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탄의 무리와, 그리스도께서 그 둘을 서로 구별하신 바로 이 차이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요 8:47). 요컨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분의 홀, 곧 그분의 거룩한 말씀 없이 있다고 꾸며 대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누구에게 모호하겠습니까?

모든 가면과 겉치레를 벗겨 내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곧 그리스도께서 어떤 교회를 당신의 것으로

587.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가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참되게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규칙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빚고 갖추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새 법을 만들고 새로운 경건(religion)의 모양을 생각해 내는 일에 방자하게 날뛰고 방탕하게 노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한 번 교회에 주어진 저 법이 영원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을 너는 지켜 행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며 빼지도 말라" (신 12:32).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주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네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 30:6).[588] 이것이 교회에 하신 말씀임을 그들도 부인할 수 없으니, 이런 금지가 있은 뒤에도 교회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것을 감히 더하고 섞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교회의 완고함을 떠벌리는 것 말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 그토록 큰 모욕을 덧씌우는 그 거짓말에 결코 동의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규정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방자하게 날뛰며 자기 고안으로 내닫는 저 사람의 무모한 정욕이 문제될 때마다, 교회의 이름이 거짓되이 내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에 관한 일에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하는 이 말씀에는 감추어진 것도, 모호한 것도, 애매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만 한 말이고, 그 뒤에 많은 예언과 복음의 경륜 전체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덧붙입니다. 그것들은 율법에 무엇을 더한 것이나 율법에서 무엇을 뺀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말하자면) 수많은 덮개로 가려진 모세의 사역에서조차,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더 밝은 가르침을 베푸실 때까지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는 것을 견디지 않으셨다면, 하물며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과 복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는

588. 원문은 "Deut. 13," 로 장 번호에서 끊겨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신 13:1에 있고, 개역한글로는 신 12:32입니다.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엄하게 금지되었다고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고안으로 섬김을 받는 것만큼 당신을 노엽게 하는 것이 없다고 오래 전에 선언하신 주께서는 당신 자신에게서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서 저 뛰어난 말씀들이 나오니, 이 말씀은 우리 귀에 늘 울려야 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하였노라" (렘 7:22).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간절히 경계하였노라" (렘 11:7 참조). 같은 종류의 다른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보다 뛰어난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을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따르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과 같습니다" (삼상 15:22).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교회의 권위를 내세워 변호되는 사람의 고안은 무엇이든, 불경건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것을 교회에 돌리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아래 거만하게 우리에게 들이밀어지는 저 사람의 전통의 폭정을 거리낌 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적대자들이 우리를 미움받게 하려고 부당하게 거짓말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가 무엇보다 큰 것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칭찬을 교회에 돌립니다. 도리어 교회를 크게 해치는 자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된 것보다 더 나아갔다고 꾸며 댐으로써 교회를 그 주님께 거역하는 자로 만듭니다. 교회의 권세를 끊임없이 외쳐 대면서도, 그동안 주께서 교회에 무엇을 명하셨는지, 교회

가 주의 명령에 어떤 순종을 바쳐야 하는지는 모르는 체하는 것이 똑같은 악의와 결합된 지독한 뻔뻔함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교회와 한마음이 되려 한다면, 주께서 우리와 온 교회에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살피고 기억하여 한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께 순종하는 자로 CO 1049 드러난다면, 우리가 교회와 가장 잘 한마음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영은 오류와 무지와 거짓과 어둠의 영이 아니라 계시와 진리와 지혜와 빛의 영이시니, 그들은 이 영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 곧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속임 없이 배웁니다(엡 1:18). 또 주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은사의 나눔을 두셔서, 교회를 세우는 데 특별한 은사로 뛰어난 이들이 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를 주셔서, 그들 모두가 서로 다른 직무로나 한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엡 4:13). 그러나 신자들은 이 육신에 있는 동안 그 영의 첫 열매와 어떤 맛보기만을 받을 뿐이므로, 저 더 뛰어난 은사를 다른 이들보다 더 받은 이들이라 해도, 자기 연약함을 알고서 하나님 말씀의 경계 안에 조심스럽게 머무는 것 말고 그들에게 남은 일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더 멀리 헤매면 곧바로 바른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비껴가면 많은 일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곧 그들에게 아직 그 영, 오직 그분이 가르치셔야만 하나님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그 영이 비어 있는 만큼은 그러합니다. 바울이 그리스

도께서 교회를 생명의 말씀 안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당신 앞에 세우시되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고 쓴 것은(엡 5:26),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엇을 완성하셨는지보다 날마다 당신 백성 안에서 무엇을 일하시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분이 그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티를 씻어 내신다면, 그들이 아직 어떤 점과 주름으로 얼룩져 있으며 그들의 성화에 아직 얼마간 모자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체가 얼룩지고 얼마간 더러운 교회를 벌써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곧 죄 사함으로 교회를 씻으셨다는 것은 참입니다. 이 씻음의 상징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당신께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화의 시작만이 여기서 보일 뿐이며, 그 끝과 견고한 완성은 거룩한 자들 가운데 거룩하신 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교회를 참되고 견고하게 채우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CO 1051 [589]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의 영에게서, 당신 가르침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마음을 비추시는 것 말고 다른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토무스는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가 성령을 자랑한다. 그러나 자기 것을 말하는 자들은 거짓되이 성령을 내세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셨듯이, 무엇이든 복음 밖의 것이 성령의 이름으로 들이밀어지면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시듯이 성령은 복음의 완성이시기 때문이다."

589. 원문 파일에는 1050단의 글이 빠져 있습니다. 1051단은 문장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읽히는 데서부터 옮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특별한 칭호로 당신 교회의 권위를 우리에게 추천하셔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신 것(마 18:17)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 평범하지 않은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당신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는 것입니다(마 18:20 참조). 그러나 이 불량배들이 그토록 염치가 없어서 거기서 감히 기세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이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어 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가 아니면 결코 합의하지 않는 교회의 합의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부인합니까? 교회는 주의 말씀에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그들의 요구를 조금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주어졌고, 그런 모임이 교회라 불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면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하신 그 명령(신 12:32; 잠 30:6)을 내던지고 제 마음대로 무엇이든 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끌어내는 결론, 곧 교회는 구원에 필요한 일들에서 그릇될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뜻에서 크게 갈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릇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교회가 자기의 모든 지혜를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께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논하는 것은 이런 데를 겨냥합니다. 교회는 주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으니 말씀 없이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고, 어디로 가든 참된 것 말고는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에 관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다 해도, 그들은 자기들 전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아직 그다지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들 사이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교회에 진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회 자체도 총공의회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에 관해 우리에게 참된 증언을 남겼다면, 이것이 언제나 참이었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사 56:10). “그 파수꾼들은 다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다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며, 다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며, 목자들 자신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다 제 길로 돌아갔도다.” 예레미야도 말합니다(렘 6:13).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노라” (렘 14:14). 그의 말을 인용하는 데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그가 제23장과 제40장 전체에 쓴 것을 읽어 보십시오. 에스겔도 말합니다(겔 22:25 이하).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먹이를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보배로운 것을 빼앗으며 그 가운데 과부를 많게 하였도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선지자들이 회칠한 것으로 그들에게 발라 주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술을 행하며,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어도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였도다.” 미가는 저 칭호들이 실상이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는 것인지를 넘치도록 겪었으므로, 주께서 당신 백성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립니다(미 3:6 이하). “밤이 너희에게 이상 대신 있을 것이요, 어둠이 너희에게 점술 대신 있을 것이라. 해가 선지자들 위에 져서 낮이 그들 위에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이니, 주의 응답이 없음이라.” 또 스바냐도 말합니다(습 3:4).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거짓된 사람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마 유대인들 사이에서나 있었을 것이고, 우리 시대는 그런 큰

악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벧후 2:1).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리라." 보십니까? 그는 위험이 평민들에게서가 아니라 선생과 목자라는 칭호로 자기를 내세울 자들에게서 닥쳐오리라고 예고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은 목자들에게서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 닥치리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예고했습니까?(마 24:24; 행 20:29; 살후 2:11; 딤전 4:1 이하; 딤후 3:1 이하; 4:3)[590] 그리고 하나하나 늘어놓느라 많은 종이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의 본보기로써, 진리가 늘 목자들의 품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안전이 그들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도록 세워진 교회의 평화와 구원의 수호자요 파수꾼이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CO 1053 그렇지만 아무도 우리의 이 말을, 마치 제가 목자들의 권위를 아무데서나 함부로, 아무 분별 없이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다만 그들 사이에서도 분별을 하여, 목자라 불리는 자들을 곧바로 목자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단연코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직무 전체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으로, 그들의 지혜 전체는 그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의 언변 전체는 그 말씀의 설교로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선지자든 감독이든 교사든, 아니 그보다 더 큰 무엇이든, 그들은 생각이 어리석고 둔하며, 혀가 더듬거리고, 모든 면에서 신실하지 못하며 직무를 버린 자들입니다. 저는 한두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의 족속 전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인다면 어리석어지는

590. 원문은 "2 Tim. ^, 1 seqq." 로 장 번호가 깨져 있습니다. 문맥상 "딤후 3:1 이하" 로 읽었습니다.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오직 자기들이 목자라는 까닭 하나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떨쳐 버리고 내던지고서 방종한 방자함에 몸을 맡깁니다. 마치 여호수아는 목자가 아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에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수 1:7).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의 빛을 잃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늘 자기들 안에 머무시며, 교회가 자기들 안에 서 있고 자기들과 함께 죽는다고 설득하려고 애씁니다. 마치 이제는 주의 심판이 전혀 없어서,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한 일들이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놀라고 선지자들이 두려워하리라" (렘 4:9). 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라" (겔 7:26). 마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예언이 거짓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 예언은 이렇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내 이름으로 오리라" (마 24:11, 24). 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행 20:29).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이리라" 등(벧후 2:1), 그리고 이런 종류의 다른 아주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극히 우둔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옛날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던 자들이 부르던 바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자들은 지금 이 자들이 기대는 것과 같은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렘 18:18 참조).

참으로 불경건하고 악한 감독들도, 선하고 바른 감독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과 꼭 같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공모할 수 있습

니다. 이런 공의회들에서 나온 아주 많은 결정이 이것을 우리에게 뚜렷이 증명해 줍니다. 그것들의 사악한 불경건을 분명한 논증으로 드러내 보이는 일은 제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작은 책에서는 그래야 하듯이) 저는 간결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조항으로 나머지가 어떠할지 짐작해도 된다면, 바울은 독신을 명령하고 음식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을 귀신의 외식이요 거짓말이라고 단언합니다(딤전 4:3). 그들이 자기를 깨끗이 하고 죄를 남에게 돌리려고, 이것은 마니교도들과 타티아노스파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끌어다 댈 까닭도 없습니다.[591] 저들은 혼인과 고기를 아예 정죄했으나,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혼인을 금하고 어떤 날에만 고기를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결정이 혼인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음식을 멀리하라고 명한다는 것을 변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신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탄의 신탁이 공의회들의 사역으로 퍼뜨려졌으니, 이제 각 사람은 사탄의 도구들에게서 그 밖의 일들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스스로 헤아려 보십시오. 더욱이 공의회들이 공의회들과 서로 다툰 것을 제가 무엇 하러 늘어놓겠습니까? 한 공의회에서 정한 것이 다른 공의회에서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도덕을 정하는 일에서는 이런 차이가 흔히 생기며, 도덕에 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법을 정하는 것을 막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공의회들은 때로 교리에서도 서로 싸우듯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레오 황제가 시작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그에 맞서 나중에 이레네가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가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는 형상을 뒤엎고 부수어야 한다고, 다른 하나는 다시 세워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592] 이른바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591. 마니교도는 3세기 마니(Mani)에게서 나온 이원론 종파이고, 타티아노스파(Tatiani)는 2세기 타티아노스(Tatianus)를 따라 혼인과 고기를 배척한 금욕파입니다.

592. 레오 3세(Leo, 717–741 재위)의 성상 파괴 정책에 이어 754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성상을 정죄했고, 이레네(Irene) 황후가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 성상 공경을 회복했습니다.

사이에는 일치가 참으로 드뭅니다. 이제 그들은 가서 성령께서 자기들의 공의회에 매이고 묶여 계시다고 늘 하던 대로 자랑해 보라고 하십시오.

CO 1055 [593] "...에도 마땅히 아쉬워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 자리에 있던 학식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눈앞의 일에 매여 다른 많은 것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더 무겁고 중대한 일에 몰두하느라 덜 중요한 몇 가지를 놓쳤기 때문이거나, 그냥 미숙함으로 속을 수 있었기 때문이거나, 지나친 감정에 휩쓸려 때때로 성급하게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혹해 보이는데, 그 뚜렷한 본보기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공의회의 권위는 모든 이의 동의로 최고의 존경을 받아 왔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믿음의 으뜸 조항이 위태로웠고, 맞붙어 싸워야 할 원수 아리우스가 싸움 채비를 하고 있었으며, 아리우스의 오류를 쳐부수려고 준비하여 온 사람들 사이의 일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토록 큰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위엄과 절제와 모든 인정을 잊어버린 듯이, 손에 쥐고 있던 싸움을 내버려 두고서, 마치 일부러 아리우스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리로 온 것처럼, 안에서 다툼으로 서로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우스를 향해 뽑아야 할 펜을 자기들끼리 겨누었습니다. 추악한 고발이 들려왔고, 고소장이 날아다녔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아서지 않았다면, 그들은 서로 상처를 입혀 찔러 쓰러뜨릴 때까지 다툼을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제는 그들의 삶을 조사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선다고 공언하고서, 이런 무절제를 꾸짖기보다 오히려 칭찬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진 다른 공의회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잘못했겠습니까?[594]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짓눌러 온 전통의 기원을 사도들에게 돌리는 것은

593. 원문 파일에는 이 앞의 글(1054단의 끝부분으로 보입니다)이 빠져 있고, 1055단은 낱말 중간("...ribus")에서 시작합니다. 읽히는 데서부터 옮깁니다.

594. 아리우스(Arius, 336년경 죽음)는 아들의 영원한 신성을 부인한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이고,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황제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한 로마 황제입니다.

순전한 사기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전체가 이것에 힘을 쏟기 때문입니다. 곧 새로운 준수 사항으로 양심에 짐을 지우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리의 고안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옛 기록에 조금이라도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사도들에게 돌리는 것은 사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들어 본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결정 가운데 많은 것이 글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관습과 풍습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곧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아직 살아 계실 때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그분의 승천 뒤에 성령의 계시로 배운 것들이라고 떠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무슨 뻔뻔함입니까? 제자들이 주께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직 미숙하고 배우기에 둔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가르침을 글로 남길 때에도 그토록 둔함에 붙잡혀 있어서, 무지의 허물로 글에서 빠뜨린 것을 나중에 산 목소리로 채워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미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모든 진리 가운데서 자기 글을 펴냈다면, 그들이 복음 교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자기 글에 담아 확정해 남기는 것을 무엇이 막았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스스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사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저 엄청난 신비들이 무엇이냐 하면, 한편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준수 사항인데, 그 앞의 것은 유대인 사이에서, 뒤의 것은 모든 이방인 사이에서 훨씬 전에 널리 퍼져 있던 것이라고 꾸며 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몸짓과 노파 같은 하찮은 의식들인데, 헤엄칠 줄도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미련한 사제 나부랭이들이 아주 격식대로 치르고, 아니 아이들과 광대들까지 그토록 그럴듯하게 흉내 내서, 이런 거룩한 예식의 주관자로는 그들보다 더 알맞은 이가 없어 보일 정도라고 꾸며 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폭정을 변호하려고 사도들의 본을 내세우는 것도 이보다 그리 더 솜씨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명령 밖에서 결정을 내려, 모든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명했다(행 15:29). 그들에게 이것이 허락되었다면, 왜 그 후계자들에게도, 일이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같은 것을 본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다른 일에서도 늘 그렇게 하고, 이 일에서도 사도들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거기서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제정하거나 결정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근거로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두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데(행 15:10), 나중에 어떤 멍에를 지우는 데 동의한다면 그는 자기 말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자기 권위로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손대지 못하게 하자고 결정한다면, 멍에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금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꺼림칙함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결정 자체의 뜻을 더 가까이 살펴보면 이것은 쉽게 풀릴 것입니다. 그 결정의 순서상 첫째이고 무게로도 으뜸인 조항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남겨 두어야 하며 그들을 어지럽히거나 CO 1057 율법의 준수 사항으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것이 우리를 훌륭하게 편들어 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예외는 사도들이 정한 새 법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며, 저 자유에서 조금도 덜어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에게, 자기 자유를 남용하여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형제들에게 자기를 맞추어야 하는지를 일깨울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둘째 조항이 되게 합시다. 이방인들은 해롭지 않은 자유를,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무엇을 정해 줍니다. 곧 그때 유익했던 만큼, 어떤 일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지정하여 그들이 그것을 삼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자기 것으로 새것을 하나도 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잘 세워지지 않은 교회를 맡은 신실한

목자들이 지금 자기 모든 사람에게, 함께 사는 연약한 이들이 자랄 때까지 금요일에 드러내 놓고 고기를 먹거나 축일에 사람들 앞에서 일하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하지 말라고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은 미신을 떼어 놓고 보면 그 자체로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지만,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더해지면 죄 없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러하여, 신자들은 연약한 형제들의 양심에 아주 심한 상처를 주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이런 광경을 보일 수 없습니다. 주께서 넉넉히 분명하게 금하신 걸림돌을 막을 뿐인 것이 분명한 이들을 두고, 그들이 새 법을 만든다고 말할 자가 중상하는 자 말고 누구이겠습니까? 사도들에 관해서도 조금도 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게 할 거리를 없앰으로써, 걸림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려는 것 말고는 아무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해치지 말라는 것이 주의 명령이다. 너희는 우상에게 바친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으면 연약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공포하니, 걸림돌이 되게 먹지 말라.” 사도들이 바로 이것을 겨냥했다는 것은 바울이 가장 좋은 증인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 공의회의 결정을 따라서 이렇게 씁니다(고전 8:4, 7, 9).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을 잘 헤아려 본 사람은 앞으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마치 자기 결정으로 교회의 자유를 허물기 시작한 것처럼 사도들을 자기 폭정의 구실로 내세우는 자들이 그런 속임수를 씁니다.

여기에 끌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말하지는 않았고, 말한 것조차 아주 짧게 훑었을 뿐이지만, 그래도 저는 싸움이 이미 끝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자기 왕국 전체와 함께 뽐내는 영적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경건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불의한 폭정이라는 것을 이제 누구도 의심할 까닭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권세라는 이름 아래, 그들이 새 교리를 내놓는 일에서 가로챈 대담함, 곧 가련한 백성을 하나님 말씀의 참되고 단순한 순수함에서 아주 돌아서게 하는 그 대담함과, 불행한 양심들을 잔인하게 괴롭혀 온 새 법을 내놓는 방자함과, 끝으로 그들이 보좌 주교들과 교구 재판관들을 통해 행사하는, 그들이 이른바 교회 재판권이라 부르는 것 전체를 함께 묶어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시도록 맡겨 드린다면, 이런 종류의 지배는 모두 쉽게 뒤엎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소유지와 큰 영지로 이루어진 다른 종류의 지배는 양심에 대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이 일에서 다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그들이 늘 자기 모습 그대로라는 것, 곧 그들이 불리고 싶어 하는 이름, 곧 교회의 목자와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제가 고발하는 것은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악덕이 아니라 그 계급 전체에 공통된 죄악이요, 아니 그 계급 자체의 역병입니다. 그들은 그 계급이 부와 거만한 칭호로 눈에 띄지 않으면 불구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재판 심리와 도시와 지방의 행정에 몸을 얽어매고,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을 아주 넓게 끌어안는 것이 감독들의 일이었습니까? 그들의 직무에는 그 일에 온전히, 쉼 없이 매달리고 아무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겨우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할 만큼 수고와 일이 많습니다. 호위병의 수와 저택의 화려함과 옷과 잔치의 사치로 제후들의 호사를 겨루는 것이 그들에게 어울렸습니까? 그들의 삶은 검소와 절제와 금욕과 겸손의 특별한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범할 수 없는 명령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와 탐욕스러운 자가 되지 말고 소박한 먹을 것에 만족하라고 명하는 이들이(딤전 3:3), 마을과 성채에 손을 뻗을 뿐 아니라 아주 넓은 영주령에까지 날아들고, 끝내는 나라들

자체를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직무와 얼마나 동떨어진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너무도 완고하여, 지금도 감히 핑계를 대며, 이런 화려함으로 교회의 위엄이 부적절하지 않게 유지되고, 그러는 동안에도 자기들이 부르심의 직무에서 그리 멀리 끌려나가지 않는다고 자랑합니다. 앞의 것에 관해서 말하자면, 가장 높은 군주들마다 자기들을 두려워할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들 위엄의 알맞은 장식이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따질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식으로 그들을 크게 욕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인의 임금들과 제후들은 그들을 주관하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마 20:25; 막 10:42; 눅 22:25–26). 그분은 이 말씀으로 그들의 사역을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높음에서 아주 멀리 떼어 놓으셨습니다. 뒤의 것에 관해서는, 그들이 말로 되풀이하기 쉬운 만큼 실제로도 증명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CO 1059 식탁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으니(행 6:2 참조), 이로써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감독이 되는 일과 좋은 제후가 되는 일이 같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받습니다. 그 사도들은 주께 받은 은사의 크기로 보아 그들 뒤에 난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고 무거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도, 말씀의 사역과 식탁의 사역에 동시에 매달리면 짐에 눌려 쓰러지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하찮은 자들이 어떻게 사도들의 근면을 백 배나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시도하는 것부터가 가장 뻔뻔하고 너무도 대담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행해진 것을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자기 자리를 버리고 남의 진영으로 옮겨 가는 것 말고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595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렘 23:16).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며,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묵시를 말하느니라."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 7:15). 요한도 우리에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권하는데(요일 4:1), 그렇다면 그 권면은 헛될 것입니다. 이 판단에서는 천사들조차 제외되지 않으니(갈 1:8), 하물며 마귀의 거짓말이겠습니까?596 그리고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 15:14)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자들의 말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하며, 아무나 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넉넉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칭호로 우리를 겁주어 자기들의 눈멂에 끌어들이려 해도 그럴 까닭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남의 오류가 어떤 이름의 가면 아래 숨어 있든 우리가 그 오류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를 겁주어 막으시는 일에 특별히 마음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참되다면, 눈먼 인도자들은 고위 성직자라 불리든 주교라 불리든 대사제라 불리든, 자기 동무들을 같은 낭떠러지로 끌어가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또 하나의 부분, 곧 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법들이 백 번 불의하고 우리를 해치는 것이라 해도 아무 예외 없이 그 법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오류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들의 가혹한 명령을 견디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께서는 당신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시고, 우리를 그런 종살

595. 원문 파일에는 이 자리에 1060단의 글이 빠져 있고, 다음 글은 낱말 중간("...moni auscultaremus?")에서 시작합니다. 읽히는 데서부터 옮깁니다.
596. 원문은 "Gal. 1," 로 절 번호에서 끊겨 있습니다. 천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이므로 갈 1:8로 읽었습니다.

이에서 건져 내어, 당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에게 얻어 주신 자유로 옮겨 주십니다. 그들이 악의로 꾸며 대듯이, 문제는 우리가 몸으로 어떤 무거운 억압을 견디느냐 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심이 자기 자유, 곧 그리스도의 피의 은택을 빼앗기고 종처럼 괴롭힘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치 이 일에 별로 상관없는 것인 양 제쳐 두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토록 엄하게 당신 것으로 주장하시는 그 나라를 주께서 빼앗기시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고안으로 만든 법으로 그분을 섬길 때마다 그 나라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만이 당신 예배의 입법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도록, 주께서 이것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는지 들어 봅시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사 29:13–14). "이 백성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나를 경외하였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크고 놀라운 기적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9).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당신을 섬기던 백성에게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토록 매섭게 위협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는 당신이 헛되이 섬김을 받는다고 선언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건(religion)의 일, 곧 하늘 CO 1061 지혜의 일에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만 달려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동시에 주께서 사람의 재주가 제멋대로 당신께 바치는 이런 뒤틀린 섬김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데에는 가볍지 않은 까닭이 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순종에서 어떤 겸손의 겉모양을 지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바로 그 법을 하나님께 정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사람의 전통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그가

"에델로트레스케이아"(ἐθελοθρησκεία), 곧 자의적 숭배,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람들이 생각해 낸 숭배라고 부르는 것에 속지 말라고 그토록 부지런히 조심시키는 까닭입니다(골 2:16 이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도, 모든 사람의 지혜도 어리석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직 그분만 지혜로우시게 해 드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꾸며 낸 하찮은 준수 사항으로 그분께 인정받으려고 꾀하는 자들은 결코 이 길을 지키지 않습니다. 몇 세기 전에도, 우리 기억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피조물의 명령이 창조주의 명령보다 더 존중되는 곳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는 종교(religion)가(그것이 종교라 불릴 만하다면 말입니다) 어떤 이교보다도 더 많고 더 어리석은 미신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이 육적이고 어리석으며 그 만든 자들을 참으로 닮은 것 말고 무엇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여기에 가장 나쁜 일이 더해집니다. 이런 헛된 고안물로 경건(religion)이 한번 규정되기 시작하면, 그 뒤틀림에는 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신 또 하나의 저주스러운 일이 뒤따릅니다. 곧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마 15:6).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입법자들(nomothetae)과 제 말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 고발이 자기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이긴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한 해가 바뀌는 동안 귓속 고해를 빼먹는 것이 꼬박 한 해 동안 가장 사악한 삶을 이어 온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죄입니다. 금요일에 고기를 조금 맛보아 혀를 더럽힌 것이, 날마다 음행으로 온몸을 더럽힌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축일에 정직한 일에 손을 댄 것이, 온 지체를 늘 가장 악한 짓에 쓴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사제가 정당한 혼인 하나로 맺어지는 것이, 천 가지 간음에 얽히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서원한 순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모든 약속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괴이하고 쓸데없고 무익한 성당의 사치에 무엇을 쏟아붓지 않은 것이, 가난한 이들의 가장 다급한 곤궁을 돌보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우상을 공경하지 않고 지나친 것이, 온갖 사람을 모욕하며 대한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뜻도 모르는 긴 말을 웅얼거리지 않은 것이, 참된 기도를 마음에 한 번도 품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차갑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만 권하면서도, 자기들 계명에는 마치 그것이 경건의 모든 힘을 담고 있기라도 한 듯이 정확한 순종을 열심히, 애태우며 다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가벼운 속죄 행위(satisfactio)의 벌로 갚게 하면서, 자기들의 결정을 조금이라도 어긴 것은 감옥이나 화형이나 칼보다 가벼운 벌로는 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다지 혹독하지도 무자비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누그러뜨릴 수 없는 미움으로 끝까지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 순박함을 사로잡아 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이른바) 교회의 계명에서 한 획이 범해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전체가 뒤엎어지는 것을 더 태연히 보게 만듭니다. 첫째로, 하찮은 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면 자유로운 일 때문에 서로 멸시하고 판단하고 배척한다는 데서부터 무겁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는 악이 모자라다는 듯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쓰면서 부르는 대로(갈 4:9), 이 세상의 저 하찮은 초등 학문이 하나님의 하늘 신탁보다 더 무겁게 달아집니다. 그리고 간음에서는 거의 무죄로 풀려나는 사람이 음식에서는 정죄됩니다. 창녀는 허락되는 사람에게 아내는 금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 배신하는 순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사람에게 기우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묶는 저 견딜 수

없는 짐을 지라고 하셨습니까?(마 23:3–4 참조) 아니, 같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에서는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마 16:6 이하) 복음서 기자 마태가 풀이하듯이,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에 섞는 자기 교리를 무엇이든 누룩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교리 전체를 피하고 조심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분명히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께서 다른 자리에서도(마 23:3 이하) 당신 백성의 양심이 바리새인들의 고유한 전통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가장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도, 비틀지 않는다면, 그런 뜻으로 울리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그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매섭게 공격하기 시작하시면서, 먼저 듣는 이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따를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곧 율법을 풀이하는 자리에 앉아 말로 가르치는 것은 행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많은 사람이, 사람의 전통으로 신자들의 양심이 불경건하게 묶이고 하나님이 헛되이 섬김을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같은 붓질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법까지 모조리 지워 버리므로, 여기서 그들의 오류에도 마침 맞서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속기는 참으로 아주 쉽습니다. 저것들과 이것들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가 첫눈에 곧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 전체를 몇 마디로 아주 분명하게 풀어서, 비슷함 때문에 아무도 속지 않게 하겠습니다.

CO 1063 먼저 이것을 붙듭시다. 사람의 모든 사회에서 공동의 평화를 기르고 화합을 지키는 데 쓸모 있는 어떤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일을 행하는 데 공공의 품위와, 아니 인간다움 자체에 속하는 어떤 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특히 교회들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들은 모든 일이 잘 짜인 질서로 가장 잘 유지되고, 화합 없이는 전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안전을 가장 잘

돌보려 한다면, 바울이 명하듯이(고전 14: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를 따라 하도록 부지런히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품성에는 그토록 큰 차이가 있고, 마음에는 그토록 큰 다양함이 있으며, 판단과 기질에는 그토록 큰 충돌이 있으므로, 어떤 질서도 일정한 법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넉넉히 굳건하지 않고, 어떤 예식도 어떤 정해진 형식 없이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도움이 되는 법들을 정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을 없애면 교회들이 그 힘줄이 풀려 온통 일그러지고 흩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 곧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를 따라 하는 것은, 준수 사항을 마치 어떤 끈처럼 덧붙여서 질서와 품위 자체가 서게 하지 않고서는 달리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준수 사항에서는 늘 조심스럽게 이것을 단서로 달아야 합니다. 곧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믿어지거나, 종교적 의무로 양심을 묶거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견주어지거나, 그것들에 경건이 놓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의 기준이, 참된 경건(religion)을 흐리고 양심을 뒤엎는다고 앞에서 말한 저 불경건한 규정들과, 교회의 정당한 법규들을 구별합니다. 교회의 정당한 법규들에는, 방금 일러 두었듯이, 늘 다음 둘 가운데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곧 신자들의 모임에서 모든 일이 마땅한 질서대로 행해지도록 오직 품위에 관계되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다움의 끈처럼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공공의 품위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한번 깨달으면, 사람의 고안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재는 자들이 빠지는 미신은 벌써 없어집니다. 또 그 법이 오직 사람들의 공동의 쓰임을 겨냥한다는 것을 알면, 전통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여겨졌을 때 양심에 엄청난 두려움을 던지던 저 의무와 필연성에 대한 거짓 생각도 무너집니다. 여기서는 공동의 의무로 우리 사이에 사랑이 길러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종류의 본보기는 바울에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고전 14:34), 머리에 쓴 것을 쓰고 나오라는 것(고전 11:2 이하) 입니다. 그리고 늘 있는 삶의 관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 사람의 시신을 벗은 채로 구덩이에 던지지 않는 것, 주의 성례를 속되고 지저분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같은 데에 속하는 다른 것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자의 머릿수건에 경건(religion)이 놓여 있어서, 머리를 드러내고 나가는 것이 불경한 죄가 됩니까? 여자가 잠잠하라는 결정이 거룩하여, 그것을 어기면 가장 큰 죄가 됩니까? 무릎 꿇는 것이나 시신을 덮는 것에 무슨 신비가 있어서, 그것을 빠뜨리면 속죄해야 할 죄가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웃을 도우려고 머리를 가릴 겨를도 없을 만큼 서둘러야 한다면, 머리를 드러낸 채로 달려가도 아무 죄가 아닙니다. 또 여자에게는 다른 곳에서 잠잠한 것 못지않게 말하는 것이 알맞은 때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 무릎을 굽힐 수 없는 사람이 서서 기도하는 것도 무엇이 막겠습니까? 끝으로 수의가 없을 때, 죽은 이를 묻지 않은 채로 썩도록 기다리는 것보다 일찍 묻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에서도, 지방의 관습과 제도, 끝으로 인간다움 자체와 절제의 규칙이 해야 할 것과 삼가야 할 것을 일러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서 부주의나 잊어버림으로 무슨 잘못이 있었다면 아무 죄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멸시로 그랬다면 그 완고함은 책망받아야 합니다. 누가 시끄럽게 반대하며 여기서 마땅한 것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려 한다면, 그는 자기의 까다로움을 무슨 근거로 주께 인정받을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울의 이 말로 충분해야 합니다(고전 11:16).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이런 다투는 관례가 없느니라.” 둘째 종류에 속하는 것은 공중 기도와 설교와 세례를 위해 정해진 시간, 설교 때의 정숙과 침묵, 정해진 장소,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 주의 성찬을 받기로 정한 날, 출교의 권징, 그리고 그 밖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입니다. 날 자체가 어느 날이고 시간이 몇 시인지, 장소의 구조가 어떠

한지, 어느 날에 어떤 시편을 노래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쓴다면, 일정한 날과 정해진 시간과 모두를 받아들이기에 알맞은 장소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동의 상태에 속하는 것을 각자 마음 내키는 대로 바꾸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런 일의 혼란이 얼마나 많은 다툼의 씨가 되겠습니까? 일들이 말하자면 한가운데 놓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맡겨진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좋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수한 쓰임을 물들이거나 흐리는 오류가 스며들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준수 사항이든 분명한 유익을 드러내야 하고, 아주 아껴서 받아들여야 하며, 무엇보다 신실한 목사의 가르침이 더해져 그릇된 생각에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이런 모든 일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자유가 서 있게 하면서도, 우리가 말한 저 "품위"(τὸ πρέπον)나 사랑의 이치가 요구하는 만큼은 각 사람이 자기 자유에 스스로 어떤 필연성을 지우게 합니다.[597] 다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일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 미신에도 빠지지 않고, 남에게서도 그것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으며, 의식이 많다고 CO 1065 하나님 섬기는 일이 더 낫다고 여기지 않고, 바깥 규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멸시하지 않게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아무 영구한 법도 세우지 않고, 준수 사항의 모든 쓰임과 목적을 교회를 세우는 데로 돌려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요구한다면 무엇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전에 우리가 쓰던 준수 사항을 무엇이든 뒤집는 것도 아무 언짢음 없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시대의 형편이 때로, 그 자체로 불경건하지도 않고 품위 없지도 않은 어떤 예식들을 일의 형편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게 만든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눈앞의 경험으로 보여 줍니다. 지난 시대의 눈멂과 무지가 그러했으므로, 교회들이

597. 원문의 그리스어는 OCR로 깨져 있습니다("zo nqinw"). 앞에서 말한 "품위 있게"(고전 14:40)와 맞추어 τὸ πρέπον(마땅함, 품위)으로 읽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부패한 생각과 그토록 끈질긴 열심으로 의식에 매달려서, 많은 의식을 없애지 않고서는 저 괴이한 미신에서 넉넉히 깨끗해질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 의식들은 아마 옛날에 까닭 없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아무 불경건의 흠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고집스럽게 변호하려고 매달리는 것은 가장 해로운 열심일 것입니다. 누가 그것들을 그 자체로 평가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들에 아무 악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으로 평가한다면, 의식의 남용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오류가 너무 깊이 자리 잡아서, 새로운 오류의 거리를 거듭 내놓는 구경거리들을 눈앞에서 치우지 않고서는 쉽게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수었다고 성령의 증언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왕하 18:4). 그 놋뱀은 주의 명령으로 모세가 세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택의 기념물(μνημόσυνον)로 간직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의 우상 숭배를 섬기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선한 왕은 불경건을 바로잡을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모세가 그것을 세울 때 가졌던 것 못지않은 까닭으로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사람들의 뒤틀린 판단은 병들고 약해진 위장과 다르지 않게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장에는, 건강한 위장에는 해롭지 않았을 음식이라도 소화하기에 조금 어려운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합니다.

1539–1554년판 · 제19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19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1

CO 1:1065–107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065 제19장.

거짓으로 성례라 불리는 다섯 가지에 관하여. 여기서는 지금까지 흔히 성례로 여겨져 온 나머지 다섯 가지가 성례가 아님을 밝히고, 이어서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보여 줍니다.

1. 앞에서 성례에 관해 논한 것은, 가르침을 잘 받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곧 그들이 호기심으로 그 이상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알고 있는 저 두 가지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다른 성례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성례에 관한 저 견해는 거의 모든 사람의 입에 닳도록 오르내리고, 모든 학교와 설교에 두루 퍼져서, 오래된 세월 그 자체로 뿌리를 내렸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참되고 진정한 성례들에 흔히 덧붙여 세어지는 나머지 다섯 가지를 따로, 그리고 더 가까이 살펴보고, 모든 겉치레를 벗겨 낸 다음, 그것들이 어떤 것이며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되게 성례로 여겨져 왔는지를 단순한 사람들이 보도록 내놓는다면 수고할 보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서 모든 경건한 이들에게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이름을 두고 이 다툼을 벌이는 것은 결코 말다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무거운 까닭들에 이끌려 그 이름의 남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주인이듯 모든 사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뜻만 지킨다면, 말하는 데 얼마간 부적절함이 있더라도, 자기 판단대로

낱말을 사물에 맞추어 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물론 사물이 말에 매이기보다 말이 사물에 매이는 편이 더 낫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례라는 이름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곱 가지를 세우는 자들은 동시에 그 모두에게 이런 정의를 돌립니다. 곧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시에 그 모두를 성령의 그릇, 의를 베푸는 도구, 은혜를 얻는 원인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명제집의 선생 자신은 모세 율법의 성례들이 엄밀한 뜻에서는 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고 부정합니다.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을 실제로 주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묻건대, 주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탁월한 약속들로 표시하신 표징들은 성례로 여겨지지 않고, 그사이에 이 영예가 사람들이 스스로 고안해 냈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없이 지키는 의식들로 옮겨진다는 것이 견딜 만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정의를 바꾸든지, 아니면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견해들을 뒤에 낳는 이 낱말의 오용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종부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형상이자 원인이다. CO 1067 그것이 성례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끌어내는 이 결론을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 적어도 바로 그 이름에서 막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이런 오류에 빌미를 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것이 성례임을 증명할 때 이런 까닭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깥 표징과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명령도 약속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맞서 외치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2. 이제 우리가 낱말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물 자체를 두고 쓸데없지 않은 논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꺾을 수 없는 이치로 확증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곧 성례를 세우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신자들의 양심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해야 하는데, 양심은 그런 확실성을 사람에게서는 결코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

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든 천사든 아무도 그 뜻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롬 11:34). 당신에 관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 또는 약속을 인 치는 인(印)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사물과 이 세상의 원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위해 빚어지고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것들로 인 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례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토록 하찮은 사물들 아래 하나님의 그토록 큰 비밀들이 숨어 있게 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가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잘 가르치듯, 말씀이 성례를 성례 되게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많은 터무니없는 일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성례와 다른 의식들 사이에 어떤 구별을 지키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례 없이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동쪽을 향해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성례로 삼읍시다. 바울은 남자들이 각처에서 깨끗한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딤전 2:8). 그리고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 일이 자주 언급됩니다. 손을 펴는 것도 성례가 되게 합시다. 끝으로 성도들의 모든 몸짓이 성례로 넘어가게 합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저 더 큰 해악들과 얽혀 있지만 않다면, 저는 이것들조차 그리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들이 옛 교회의 권위로 우리를 누르려 한다면, 저는 그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저술가들에게서는 이 일곱이라는 수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언제 처음 슬며시 들어왔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이 때때로 성례라는 낱말을 좀 더 느슨하게 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곧 모든 의식과 바깥 예식과 경건의 모든 연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표징들에 관해 말할 때에는, 그들은

저 둘, 곧 세례와 성찬으로 만족합니다. 아무도 제가 이것을 거짓으로 떠벌린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증언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그는『야누아리우스에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는 그대가 이 논의의 요점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에서 친히 말씀하시듯, 우리를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수로는 아주 적고, 지키기에는 아주 쉽고, 뜻으로는 아주 뛰어난 성례들로 새 백성의 교제를 묶으셨습니다. 삼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세례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정경 성경에 권해진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또『기독교 교리에 관하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로 주님 자신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많은 표징 대신 적은 표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행하기에 아주 쉽고, 깨닫기에 아주 존귀하며, 지키기에 아주 정결합니다. 세례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는 여기서 거룩한 수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때 그 수가 교회에 세워져 있었다면 그가 그것을 빠뜨렸으리라는 것이 그럴듯합니까? 더구나 그는 다른 곳에서는 수를 따지는 데 필요 이상으로 꼼꼼한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가 세례와 성찬을 이름으로 부르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것은, 이 두 비밀이 남다른 존엄에서 뛰어나고 다른 의식들은 그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앉는다는 것을 넉넉히 내비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저 성례 박사들이 이 구실을 아무리 크게 뽐낸다 해도,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옛 교회의 합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류들로 하나씩 내려가 봅시다.

견진에 관하여.

4. 옛날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자라면 감독 앞에 세워졌는데, 이는 어른이 되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던 그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비밀들을 제대로 배워 감독과 회중 앞에서 신앙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교리 문답 학습자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 세례로 입문한 사람들은 그때 교회 앞에서 신앙고백을 마치지 못했으므로, 어린 시절이 끝날 무렵이나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 부모가 다시 그들을 내보였고, 감독은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확정되고 공통된 교리 문답의 양식에 따라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에서도 마땅히 무겁고 거룩해야 했던 이 일이 더 큰 경외와 존엄을 지니도록, 안수 의식도 함께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는 자기 신앙을 인정받고 엄숙한 축복과 함께 돌려보내졌습니다. 옛 저술가들은 이 관습을 자주 언급합니다. 교황 레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단들에게서 돌아오면 다시 세례를 받게 하지 말고, 그곳에서 그에게 모자랐던 것, 곧 성령의 능력을 감독의 안수로 그에게 베풀게 하라." 여기서 우리의 대적들은 외칠 것입니다. 성령을 베푸는 것은 성례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레오 자신이 다른 곳에서 이 말로 CO 1069 무엇을 뜻하는지 풀어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단들에게서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지 말고, 성령을 부르며 안수함으로써 견고하게 하라. 그는 세례의 형식만 받았을 뿐 거룩하게 하심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히에로니무스도『루키페르파 반박』에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저는 히에로니무스가 이것이 사도들의 관습이라고 말한 점에서 얼마간 헛짚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축복이 율법의 필요에서라기보다 제사장직을 높이기 위해 감독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덧붙임으로써 그 말 자체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축복의 자리에서 행해지는 이런 안수라면 저는 칭찬하며, 오늘날 순수하게 쓰이도록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5. 그러나 뒷시대는 그 일을 거의 지워 버리고, 무엇인지 모를 꾸며 낸 견진을 하나님의 성례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견진의 능력이, 세례에서는 무죄함을 위해 베풀어진 성령을 은혜의 증가를 위해 베푸는

것이며, 세례에서 생명으로 중생한 사람들을 싸움을 위해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꾸며 냈습니다. 그런데 이 견진은 기름 바름과 다음과 같은 말의 양식으로 행해집니다. “나는 거룩한 십자가의 표로 너를 표시하고, 구원의 성유로 너를 견고하게 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한 점 한 획도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들의 성유가 성령의 그릇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겠습니까? 우리는 기름, 곧 걸쭉하고 기름진 액체를 볼 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말씀이 원소에 더해지면 성례가 될 것이다.” 제가 말하노니, 그들이 기름에서 기름 말고 다른 무엇을 우리가 보기를 바란다면, 이 말씀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자기들을 성례의 사역자로 인정한다면, 더 오래 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역자의 첫째 법은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직무에 대한 어떤 명령이든 내놓아 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명령이 없다면, 그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기들의 대담함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이치로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고 물으셨습니다(마 21:25). 그들이 “사람에게로서”라고 대답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찮고 헛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으셨을 것이고, “하늘로서”라고 대답했다면 그들은 요한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지나치게 모욕하지 않으려고, 그것이 사람에게로서라고 감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견진이 사람에게로서라면, 그것은 헛되고 하찮은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늘로서라고 설득하고 싶다면, 증명하라고 하십시오.

6. 그들은 사도들의 본보기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사도들은 아무것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사도들을 본받는 자임을 보여 준다면, 우리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행 8:15).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지 않으셨고, 그들은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친 뒤 그들은 그들에게 안수했고, 그 안수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이런 안수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저는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듣습니다. 곧 그들은 자기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 주시던 성령의 저 보이고 놀라운 은사들이 당신의 사도들의 안수로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안수 아래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이 이런 의식을 쓴 것은, 자기들이 손을 얹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를테면 드린다는 것을 바로 그 몸짓으로 나타내려 함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수행하던 이 직무가 아직 교회에 남아 있다면, 안수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는데, 안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언제까지나 굳게 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당신께로 부르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요 7:37). 그러나 안수로 나누어지던 저 능력의 기적들과 드러난 역사들은 그쳤고, 그것들은 한때만 있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새 나라는 들어 보지 못하고 흔하지 않은 기적들로 빛나고 높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적들을 그치셨을 때에도 곧바로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 나라의

위엄과 당신 말씀의 존엄이 넉넉히 뛰어나게 드러났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대들은 어떤 점에서 자기들이 사도들을 본받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안수로써 성령의 분명한 능력이 곧바로 드러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안수를 자기들의 근거로 내세웁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쓴 것은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7. 이것은 마치 누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신 그 내쉼(요 20:22)이 성령을 주는 성례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 행하셨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도들도 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하여 성령의 보이는 은사들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던 그때에 맞추어 안수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원숭이들이 하는 것처럼) 텅 비고 싸늘한 표징을 실체 없이 흉내만 내어 꾸며 내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수로 사도들을 본받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더라도(그 안수에서 그들은 무엇인지 모를 엉뚱한 흉내[κακοζηλία] 말고는 사도들과 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CO 1071 "구원의 기름"이라고 부르는 기름은 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기름에서 구원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것에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돌리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초등 원리에서 멀리 끌어내고(갈 4:9; 골 2:20), 이런 자잘한 준수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정죄하는 것이 없는 바울입니까? 저는 이것을 제 말로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담대히 선언합니다. 기름을 "구원의 기름"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저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몫이 없는 자들입니다. 기름은 배를 위하고 배는 기름을 위하나, 주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입니다. 쓰는 그 자체로 없어지는 이 모든 약한 원소들은, 영적이며 결코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세례받는 물과, 주의 성찬이 베풀어지는 떡과 포도주도 같은 자로 재는 것입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주님의 성례들에서는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놓인 육체적 사물의 실체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새겨 넣은 형식입니다. 모든 힘은 이 형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에서 우리 눈앞에 내놓이는 떡과 포도주와 물이 자기 실체를 지니고 있는 한, 바울의 저 말씀은 언제나 들어맞습니다(고전 6:13).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그것들은 이 세상의 외형과 함께 지나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성례가 되는 한, 그것들은 우리를 육에 붙들어 두지 않고 참으로 영적으로 가르칩니다.

8. 그러나 이 기름기가 얼마나 많은 괴물을 품고 기르는지 더 가까이 살펴봅시다. 이 기름 바르는 자들은, 세례에서는 무죄함을 위해 성령이 주어지고 견진에서는 은혜의 증가를 위해 주어지며, 세례에서는 우리가 생명으로 중생하고 견진에서는 싸움을 위해 무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세례가 견진 없이는 제대로 완성될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오, 이 사악함이여!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그분의 부활에도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롬 6:4)?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우리 육을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곧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싸움을 위해 무장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면, 적어도 그토록 어디서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려 했던 교회는 왜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이 교리에 맞서 밀레비스 공의회의 저 결정보다 더 무거운 것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가 죄 사함만을 위해 주어지고 장차 올 은혜의 도움을 위해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누가가 우리가 인용한 그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선물도 받지 못했다고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드러난 능력들과 보이는 은사들을 받게 하는 그런 성령 받음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훨씬 전에 그들에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20)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사탄의 악의에 찬 해로운 속임수를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세례에서 주어지던 것이 자기의 견진에서 주어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조심성 없는 사람들을 슬그머니 세례에서 떼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세례에 고유한 약속들을 세례에서 잘라 내어 다른 데로 돌려 옮기는 이 교리가 사탄의 교리라는 것을 이제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노니, 저 훌륭하다는 기름 바름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를 그분의 선물들과 함께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갈 3:27). 기름 바르는 자들의 말은, 그들이 세례에서 싸움을 위해 무장시켜 줄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진리의 음성이니, 뒤의 것은 거짓의 음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견진을 그들이 지금까지 정의한 것보다 더 참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곧 그것은 세례를 크게 모욕하여 세례의 쓰임을 흐리고 없애는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끌어내는 마귀의 거짓 약속입니다. 또 원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으로 더럽혀진 기름이며, 이를테면 어둠을 덮어씌워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9. 그들은 더 나아가, 모든 신자가 세례 뒤에 안수로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난다고 덧붙입니다. 감독의 견진으로 성유를 바르

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교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성경에 기록되고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 참된 경건(religion)의 모습은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찾고 배워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진리, 그리스도의 모든 교리는 그리스도인을 시작하게 할 뿐이고, 기름이 그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로 모든 사도와 그 많은 순교자가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이 결코 성유를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때에는 아직 거룩한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을 끼얹어야 그들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조목을 채울 수 있었을 터인데, 아니 오히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입을 다물어도, 그들은 스스로를 넉넉히 반박합니다. 그들은 세례 뒤에 자기 백성 가운데 몇 분의 일에게 기름을 바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기 양떼 가운데 이런 반쪽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둡니까? 그들의 불완전함은 쉽게 고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게으르게 내버려 두어, 무거운 죄책 없이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빠뜨리게 합니까? 그토록 필요하고, 그것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일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막힌 경우가 아니라면, 왜 더 엄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업신여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들이 떠벌려 파는 만큼 값진 것이 아님을 은근히 고백하는 셈입니다.

10. 끝으로 그들은 이 거룩한 기름 바름을 CO 1073 세례보다 더 큰 경외로 받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것은 대사제들의 손으로만 특별히 베풀어지는 데 비해, 세례는 모든 사제가 흔하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고안한 것에 그토록 흡족해서 그것에 비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정을 태연히 업신여기는 자들은 아주 미친 자들이라는 말 말고는 말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입이여, 너의

숨결의 악취로 더럽혀지고 중얼거리는 말로 주문을 건 기름기를 감히 그리스도의 성례에 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물과 견주려 하느냐? 그러나 너의 뻔뻔함에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것을 더 앞세우기까지 하는구나. 이것이 거룩한 좌의 대답이요, 사도좌 세발솥의 신탁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몇은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도 고삐 풀린 이 미친 짓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더 큰 경외로 받들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이 베푸는 능력과 유익이 더 커서가 아니라, 더 존귀한 이들이 베풀고 몸의 더 존귀한 부분, 곧 이마에 행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세례가 죄 사함에는 더 효력이 있지만 그것이 덕의 증가를 더 크게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첫째 이유로 그들은, 성례의 힘을 사역자의 존엄으로 평가하는 도나투스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감독의 손이 존귀하다는 데서 견진이 더 존귀하다고 불린다고 해 둡시다. 그러나 누가 그들에게, 감독들에게 그토록 큰 특권이 어디서 주어졌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제멋대로 하는 욕심 말고 무슨 이유를 대겠습니까? 그 권리는 사도들만 썼습니다. 성령을 나누어 준 이들은 사도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독들만이 사도입니까? 아니, 그들이 도대체 사도이기는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 왜 그들은 같은 논리로, 주의 성찬에서 피의 성례는 감독들만 손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주셨다는 이유로 평신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셨다면, 왜 “그러므로 감독들에게만”이라고 결론짓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사도들을 단순한 장로들로 만들더니, 이제는 머리가 어지러워 다른 데로 휩쓸려 가서 갑자기 그들을 감독으로 세웁니다. 끝으로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는데도, 바울은 그에게 보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행 9:17). 여기에 이것도 덧붙이겠습니다. 이 직무가 하나님의 법으로 감독들에게 고유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왜 감히 그것을 평범한

장로들에게 넘겼습니까? 그레고리우스의 어떤 서신에서 그렇게 읽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11. 둘째 이유는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자기들의 견진에서는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세례에서는 정수리에 바른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나님의 세례보다 더 존귀하다고 부르니 말입니다. 마치 세례가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행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경건한 이들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고 청합니다. 이 불한당들이 꾀하는 것은 오직 이것, 곧 자기들의 누룩으로 성례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다른 곳에서, 사람이 고안한 것들의 무리 가운데서 성례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겨우 틈새로나 비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누가 그 일을 제 말로 믿지 않았다면, 이제는 적어도 그들 자신의 선생들의 말로 믿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물은 지나쳐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세례에서 오직 기름만 크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세례에서 이마에 물을 적신다고 말합니다. 이에 비하면 여러분의 기름은, 세례에서든 견진에서든, 우리에게는 똥 한 덩이만 한 값어치도 없습니다. 누가 그것이 더 비싸게 팔린다고 내세운다면, 대답은 쉽습니다. 여러분의 그 팔아먹음은 사기요, 사악함이요, 도둑질입니다. 셋째 이유로 그들은 견진에서 세례에서보다 덕의 증가가 더 크게 베풀어진다고 지껄임으로써 자기들의 불경건을 드러냅니다. 사도들은 안수로 성령의 보이는 은사들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름기는 어떤 점에서 자기의 풍성함을 보여 줍니까? 그러나 하나의 신성 모독을 많은 신성 모독으로 덮는 이 누그러뜨리는 자들은 물러가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니, 그것을 푸느라 그토록 애쓰기보다 끊어 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12.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럴듯한 이유가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보고, 늘 하던 대로 구실을 내세웁니다. 이 관습은 아주 오래되었고 여러 세기의 합의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성례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견진을 성례로 여기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그 제정자이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옛 저술가들이 엄밀하게 말하려 할 때에는 어디에서도 두 가지보다 많은 성례를 세지 않는데, 그들은 왜 오래됨을 내세웁니까? 우리 신앙의 방패를 사람들에게서 구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채가 있습니다. 곧 이 사람들이 성례라고 거짓으로 꾸며 대는 것들은 옛 저술가들에게 결코 성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 저술가들은 안수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례라고 부릅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이 기도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기들의 썩은 구별을 들이대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말을 견진의 안수가 아니라 치유의 안수나 화해의 안수에 관해 했다고 투덜대지 말기 바랍니다. 그 책은 남아 있고 사람들 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쓴 것과 다른 뜻으로 그것을 비튼다면,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욕설로만 아니라 침을 뱉어 저를 덮어도 좋습니다. 그는 분열에서 교회의 하나 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관해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세례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띠로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시도록 안수로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보다 오히려 안수를 되풀이하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었으므로, 그는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안수가 사람 위에서 드리는 기도 말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그 뜻이라는 것은 다른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인 사랑의 결합 때문에, 바로잡힌 이단들에게 손을 얹는다.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거룩한 것도 CO 1075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다."

13. 이 낙태된 성례의 허깨비가 태어나기 전에 옛사람들에게 있었다고 제가 짐작하는 그 관습을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례를 해치지 않고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꾸며 내는 그런 견진이 아니라, 아이들이나 청소년기에 가까운 이들이 교회 앞에서 자기 신앙의 내용을 풀어 말하는 교리 교육 말입니다. 이 용도로 쓴 양식이 있어서, 신자들의 온 교회가 논란 없이 동의해야 하는 우리 경건(religion)의 거의 모든 조목의 요약을 담고 쉽게 풀어 준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교리 교육의 방법일 것입니다. 열 살 된 아이가 신앙고백을 하려고 교회 앞에 나섭니다. 아이는 조목마다 질문을 받고 하나하나에 대답합니다. 무엇을 모르거나 잘 깨닫지 못하면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교회가 증인이 되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자들의 백성이 한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고 참되고 순전한 신앙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 권징이 오늘날 힘을 가진다면, 자녀 교육을 자기와 아무 상관 없는 일처럼 태연히 소홀히 하는 몇몇 부모의 게으름이 분명히 깨어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공적인 수치 없이는 그것을 빠뜨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백성 가운데 신앙의 일치가 더 커질 것이고, 많은 사람의 그토록 큰 무지와 미숙함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롭고 낯선 교리들에 그렇게 함부로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며, 끝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교 교리의 일종의 체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고해에 관하여.

14. 그들은 다음 자리에 고해를 둡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관해 너무 뒤죽박죽 어지럽게 논하여서, 그들의 교리에서 양심에 확실하고 견고한 것을 아무것도 전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회개에 관해 성경에서 배운 것과 그다음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가벼운, 아니 오히려 아무 근거도 없는 이유로 그것을 성례로 만들었는지만 다루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옛 교회의 예식에 관해 짧게 무엇인가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예식을 구실로 삼아 자기들의 꾸며 낸 것을 세우는 데 남용했습니다. 옛 교회는 공적 회개에서

이런 순서를 지켰습니다. 자기에게 부과된 속죄 행위를 마친 사람들은 엄숙한 안수로 화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죄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신뢰하며 일어섰고, 교회는 그 범죄의 기억을 지우고 그를 너그럽게 다시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이것을 자주 "평화를 준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더 무겁고 회중 앞에서 더 존중받도록, 여기에는 언제나 감독의 권위가 개입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제2차 카르타고 공의회의 저 결정이 나왔습니다. "장로는 미사 가운데 회개하는 자를 공적으로 화해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랑주 공의회의 다른 결정이 있습니다. "회개 기간 중에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은 화해의 안수 없이도 성찬에 받아들인다. 그들이 병에서 회복되면 회개하는 자들의 반열에 서고, 기간을 다 채운 뒤 감독에게서 화해의 안수를 받으라." 또 제3차 카르타고 공의회의 결정도 있습니다. "장로는 감독의 권위 없이 회개하는 자를 화해시키지 말라." 이 모든 것은, 그 일에서 지키고자 했던 엄격함이 지나치게 쉽게 처리하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독이 심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감독이 심사하는 데 더 신중하리라는 것이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키프리아누스는 어떤 곳에서, 감독만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온 성직자단도 손을 얹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회개를 행하고, 그다음에 교제에 나아오며, 감독과 성직자단의 안수로 교제의 권리를 받는다." 그 뒤 세월이 흐르면서 일이 이렇게 흘러가서, 공적 회개 밖에서 사적인 사죄에서도 이 의식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라티아누스에게 있는 공적 화해와 사적 화해의 저 구별이 나왔습니다.[598] 저는 키프리아누스가 언급하는 저 옛 관습이 거룩하고 교회에 유익한 것이었다고 판단하며, 오늘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더 최근의 관습은, 비록 제가 감히 그것을 배척하거나 적어도

598. 원문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는 이 대목의 출처를 그라티아누스『교령집』제2부 제26사안 제6문(In decret. 26. quaest. 6)으로 적고 있습니다.

더 날카롭게 꾸짖지는 않겠지만, 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회개에서의 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의식이며, 아무래도 좋은 일과 바깥 연습 가운데 두어야 할 것임을 봅니다. 그것은 업신여길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해진 것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5. 그런데 모든 것을 그릇 해석하여 부패시키는 것이 몸에 밴 로마주의자들과 스콜라 신학자들은 여기서 성례를 찾아내려고 애태우며 진땀을 흘립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골풀에서 마디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조차, 그들은 그 일을 얽히고 흔들리고 불확실하며 견해들의 다양함으로 뒤섞이고 어지러운 채로 남겨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599] 바깥 고해가 성례이며, 그렇다면 그것은 안의 회개, 곧 마음의 통회의 표징으로 여겨져야 하고, 이 통회가 성례의 실체가 될 것이다. 또는 둘 다 함께 성례이며, 그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성례다. 그러나 바깥 고해는 성례일 뿐이고, 안의 회개는 실체이자 성례이다. 그리고 죄 사함은 실체일 뿐이고 성례가 아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운 성례의 정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례라고 말하는 것을 그 정의에 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믿음을 확증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바깥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CO 1077 제 정의는 자기들이 꼭 따라야 할 법이 아니라고 핑계한다면, 그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받드는 척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성례들은 육적인 사람들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세워졌다. 그들이 성례의 계단을 밟아 눈으로 보는 것들에서 깨닫는 것들로 옮겨 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고해의 성례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들 자신이 이런 것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그는 다른 곳에서도 말합니다. “그것이 성례라고 불리는 까닭은, 그 안에서 보이는

599. 원문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는 이 대목의 출처를 롬바르두스『명제집』제4권 제22구분 제2장(Libr. 4. sentent. dist. 22. c. 2)으로 적고 있습니다.

것과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몸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깨닫는 것은 영적 열매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들이 꾸며 내는 그런) 고해의 성례에는 조금도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적 열매를 나타내는 몸의 모양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16. 그러나 (이 짐승들을 그들 자신의 경기장에서 끝장내기 위해 말하자면) 여기에 무슨 성례가 있다면, 고해가 안의 것이든 바깥 것이든 성례라고 하기보다, 사제의 사죄가 성례라고 떠벌리는 편이 훨씬 더 그럴듯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죄 사함에 대한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의식이며, 그들이 부르는 대로 열쇠의 약속, 곧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이리라"는 약속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반박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제들에게서 사죄를 받지만, 그런 사죄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새 율법의 성례들은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그들은 성찬에서 두 가지 먹음을 세웁니다. 하나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공통된 성례적 먹음이고, 다른 하나는 선인에게만 고유한 영적 먹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죄도 두 가지로 받는다고 꾸며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들이 자기들의 저 교리로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껏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우리가 그 주제를 진지하게 다룰 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 걸림돌이 그들이 사제의 사죄를 성례라고 부르는 데 아무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대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성례 없이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 안의 거룩하게 하심 없이 보이는 성례가 있다. 또 성례들은 택함받은 자들에게서만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을 이룬다. 또 어떤 이들은 성례를 받는 데까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어떤 이들은 거룩하게 되는 데까지 옷 입는다. 앞의 것은 선인과 악인이 똑같이

행하고, 뒤의 것은 선인만 행한다. 참으로 그들은 어린아이보다 더 어리석게 헛짚었고 대낮에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으로 애를 태우면서도, 그토록 평탄하고 누구에게나 눈앞에 있는 일을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17. 그렇지만 그들이 기세를 올리지 않도록 말해 둡니다. 그들이 성례를 어느 부분에 두든, 저는 그것이 정당하게 성례로 여겨진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첫째,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례의 유일한 실체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어떤 의식을 내놓든 그것은 순전히 사람이 고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의 의식은 하나님만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해의 성례에 관해 꾸며 낸 것은 거짓이요 사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꾸며 낸 성례를 그것에 어울리는 찬사로 꾸몄습니다. 그것은 난파 뒤의 둘째 널빤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에서 받은 무죄의 옷을 죄를 지어 더럽혔다면, 고해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에로니무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든, 그것이 전적으로 불경건하다는 것은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세례가 죄로 지워지는 것이지, 오히려 죄인이 죄 사함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에 떠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죄인은 그 세례에서 스스로를 추스르고 용기를 되찾으며, 세례에서 자기에게 약속된 죄 사함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회개의 성례라고 부른다면 아주 알맞게 말한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꾸며 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이것은 성경 말씀에 맞을 뿐 아니라, 옛 교회에서 가장 확실한 공리처럼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이 붙은『베드로에게 보낸 믿음에 관한 소책자』에서 세례는 믿음과 회개의 성례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확실한 것에 기대겠습니까? 마치 복음서

기자가 전하는 것, 곧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막 1:4)보다 더 분명한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른바 종부에 관하여.

18. 셋째 꾸며 낸 성례는 종부입니다. 그것은 사제만 행하며, 그것도 (그들의 말대로) 임종 때에, 감독이 축성한 기름으로,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의 양식으로 행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 바름과 당신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긍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지는 것, 맛보는 것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그것에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꾸며 댑니다. 죄 사함과, 그것이 유익하다면 몸의 병을 덜어 주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정이 야고보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말은 이렇습니다 (약 5: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간구는 앓는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 기름 바름은 우리가 앞에서 안수에 관해 밝힌 것과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곧 아무 이치도 없고 열매도 없이 사도들을 흉내 내려는 광대 같은 위선입니다.

1539–1554년판 제19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2

CO 1:1079–109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079 [600]마가는 사도들이 처음 보냄을 받았을 때 주님께 받은 명령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병자를 고칠 때 기름을 썼다고 전합니다(막 6:13). 그는 말합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야고보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도록 장로들을 청하라고 명했을 때, 그는 이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이런 바깥 일들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행했는지를 살펴본 사람들은, 이런 의식들 아래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돌려주려 하실 때 흙과 침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요 9:6). 어떤 이들은 만지심으로, 어떤 이들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도 어떤 병은 말로만, 어떤 병은 손을 대어, 어떤 병은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바름이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함부로 쓰이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 그럴듯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그 상징으로 배우지 못한 이들의 미숙함이, 그토록 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일깨움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들이 그 찬양을 사도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성령과 그분의 선물들을 뜻한다는 것은 흔하고 닳도록 알려진 일입니다. 그런데 저 병 고치는 은사는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복음 전파를 영원히 놀라운

600.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적들이 한때만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바름이 그때 사도들의 손으로 베풀어지던 그 능력들의 성례였다고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능력을 베푸는 일을 맡지 않은 우리와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9.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되는 다른 어떤 상징들보다, 무슨 더 큰 이유로 이 기름 바름을 성례로 만듭니까? 왜 그들은 실로암 같은 못을 하나 정해 두고, 병든 자들이 정해진 때마다 그 속에 몸을 담그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헛된 일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기름 바름보다 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은 소년 위에 엎드려 그를 살렸으니(행 20:10 참조), 왜 그들은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침과 흙으로 만든 진흙은 성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른 것들은 단 한 번의 본보기였으나, 이것은 야고보가 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야고보는 교회가 아직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그때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기름 바름에 같은 힘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 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생명과 빛을 빼앗겨 둔하고 눈멀었다고 그들이 알고 있던 영혼들을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놀림감으로 삼았는지, 이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살아 있고 느끼는 몸의 감각마저 속이려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떠벌릴 때, 그들은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세대에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옛날 못지않게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저 드러난 능력들을 그와 같이 나타내지는 않으시며, 사도들의 손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습니다.

20. 그러므로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병 고치는 은사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기름의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 까닭 없는 일이 아니었듯이, 거꾸로 썩고 아무 효력도 없는 기름을 성령의 능력으로 만드

는 자들은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 성경에서 기름이 성령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모든 기름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해서 모든 비둘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넉넉한 것은, 그들의 기름 바름이 성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히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식도 아니고, 아무 약속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례에서 이 두 가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식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때, 동시에 우리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어야 하고 그 약속이 우리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요구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고 약속이 붙어 있었지만, 지금 아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명령되지 않았고, 그것에 붙어 있던 약속도 같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름 바름에 관해 사납게 떠벌리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증명했고, 그들 자신도 겪어 본 것으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 의식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써야 했습니다. 고치는 것보다 죽이고 도살하는 데 더 능한 이 백정들이 쓸 것이 아니었습니다.

21. 그렇지만 야고보가 기름 바름에 관해 명한 것이 이 시대에도 들어맞는다는 것을 그들이 얻어 낸다 하더라도(그들은 야고보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발라 온 자기들의 기름 바름을 인정받는 데 그것으로도 그리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병자가 아니라 반쯤 죽은 송장들에게, 곧 영혼이 벌써 입술 끝에서 허덕일 때, 또는 그들의 말대로 임종 때에 자기들의 기름기를 바릅니다. 그들의 성례 안에 병의 고통을 덜어 주거나 적어도 영혼에 얼마간 위로를 주는 효험 있는 약이 있다면,

제때에 결코 고쳐 주지 않는 그들은 잔인한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병자가 교회의 장로들에게서 기름 바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제 나부랭이 말고는 기름 바르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야고보의 "장로들"을 사제들로 해석하고 복수형은 꾸밈으로 쓴 것이라고 지껄이는 것은 너무 하찮은 말입니다. 마치 그때 교회들에 제사꾼들이 떼를 지어 넘쳐서, 거룩한 기름 그릇을 나르러 긴 행렬을 지어 나아갈 수 있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고보가 단순히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명할 때, 그것은 제게 보통 기름의 기름 바름 말고 다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이야기에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독이 축성한 기름, 곧 숨을 많이 불어 데우고, 중얼거림을 많이 하여 주문을 걸고, 무릎을 아홉 번 꿇어 인사한 기름이 아니면 기름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세 번 "거룩한 기름이여, 평안하라", 세 번 "거룩한 성유여, 평안하라", 세 번 "거룩한 향유여, 평안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구마 주문을 CO 1081 어디서 길어 왔습니까? 야고보는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약 5:15). 그것은 기름기로 죄가 지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겪는 형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신자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룩한, 아니 가증한 기름 바름으로 죄가 사해진다고 불경건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야고보의 증언을 제멋대로 길게 남용하도록 허락받으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더 오래 증명하느라 애쓰지 않도록, 그들 자신의 연대기도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줍니다. 그 연대기는,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로마 교회를 다스린 교황 인노켄티우스가, 장로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도 기름을 써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의 필요를 위해 기름을 바르게 정했다고 전합니다. 출처는 시게베르투스의 『연대기』입니다.[601]

601. 시게베르투스(Sigebertus Gemblacensis, 1030경–1112)는 벨기에 젬블루 수도원의 수도사로, 세계 연대기를 쓴 사람입니다.

교회의 품급에 관하여.

22. 그들의 목록에서 넷째 자리는 서품 성례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다산하는지 자기 몸에서 작은 성례 일곱을 낳습니다. 그들이 성례가 일곱이라고 단언해 놓고, 그것들을 세려고 하면 열셋을 꼽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그 모두가 하나의 사제직을 향하고 이를테면 그것에 이르는 계단들이므로 하나의 성례라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각 품급마다 의식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들 스스로 은혜가 다르다고 말하니,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그것들을 일곱 성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일곱이라고 밝히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모호한 일처럼 다투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의 품급을 성례로 우리에게 권하려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멋없는 터무니없는 것들을 떠안기는지 지나가며 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들이 사역자를 세울 때 쓰는 의식을 도대체 성례라고 불러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일곱 품급 또는 교회의 등급이라고도 불립니다. 곧 문지기, 독서자, 구마자, 시종, 부집사, 집사, 사제입니다. 그것들이 일곱인 까닭은 성령의 일곱 겹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품급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올라갈 때 그 은혜가 그들에게 더해지고 더 넉넉히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 자체가 성경을 비뚤게 해석하여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서(사 11:2)에서 성령의 일곱 능력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사야가 드는 것은 여섯 가지보다 많지 않으며, 선지자가 그 대목에서 모든 것을 다 담으려 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그곳에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불리시듯, 다른 곳에서는 생명의 영, 성결의 영, 아들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불리시기 때문입니다(겔 1:20; 롬 1:4; 8:15). 그런데 더 날카로운 다른 이들은 승리한 교회를 본떠서라고 하며 일곱이 아니라 아홉 품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직자의 삭발을 모든 품급 가운데 첫째로, 감독직을 마지막으로 삼으려 하고, 다른 이들은 삭발을 빼고 대감독직을 품급에 넣습니다. 이시도루스는 다르게 구별합니다. 그는 시편 낭송자와 독서자를 서로 다른 것으로 만듭니다. 앞의 것은 노래를 맡기고, 뒤의 것은 회중을 가르치도록 성경을 읽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교회법은 이 구별을 지킵니다. 이토록 갖가지인데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피하기를 바랍니까? 일곱 품급이 있다고 말할까요? 학교의 선생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장 밝으신 박사들은 다르게 정합니다. 또 그들은 그들끼리도 서로 다릅니다. 게다가 지극히 거룩한 교회법은 우리를 다른 데로 부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일을 논할 때 이렇게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품급의 기원을 논할 때에는 어린아이들에게조차 얼마나 웃음거리가 됩니까! 성직자(clerici)는 제비(sors)에서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비로 뽑힌 자들이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을 자기 몫으로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교회의 것이었던 이 칭호를 자기 것으로 가로챈 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들이 뻔뻔하게 꾸며 대듯 머리를 깎은 몇몇 사람들을 "기업"(cleri)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온 백성을 그렇게 부릅니다.[602]

26. 이제 그들이 쓰는 의식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그들은 자기들의 군대에 등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통의 상징으로 성직에 입문시킵니다. 성직자들은 정수리를 삭발합니다. 그 관 모양이 왕의 영예를 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602. 원문의 절 번호는 이 자리부터 22, 26, 27, 28, 23, 24, 25의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둡니다.

된 백성이니”(벧전 2:9). 보십시오, 저는 다시 그들의 거짓을 밝힙니다. 그러나 온 교회에 돌려진 것을 자기들에게만 가로채고, 신자들에게서 빼앗은 칭호를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온 교회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머리 깎은 몇몇 사람에게로 비틉니다. 마치 “거룩하라”는 말씀이 그들에게만 하신 것이고, 그들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으며, 그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다른 이유들도 댑니다. 머리 꼭대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자유로우며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는 입과 눈의 악덕을 잘라 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는 머리를 깎는 것은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고, 관 모양으로 둘러 남긴 머리카락은 CO 1083 생계를 위해 남겨 두는 재물의 나머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징 속에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아직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관 모양 삭발로 이런 것들을 상징했으니 자기 몫을 훌륭하게 다했다고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실제로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이런 겉치레와 속임수로 우리를 놀리겠습니까? 성직자들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깎음으로써, 세상 재물의 넉넉함을 내던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귀와 눈의 정욕을 죽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어리석고, 더 음탕한 부류의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는 표징으로 거룩함의 겉모양을 꾸미기보다, 차라리 거룩함을 참으로 보여 주지 않습니까?

27. 더욱이 그들이 성직자의 관 모양 삭발은 나실인들에게서 그 기원과 이유를 얻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들의 비밀이 유대인의 의식에서 생겨났다는 것, 아니 오히려 그것이 순전한 유대교라는 것 말고 무엇을 내놓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 자신이 서원을 하고

정결하게 되려고 머리를 깎았다고 덧붙일 때(행 18:18), 그들은 자기들의 무지막지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브리스길라에 관해서는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읽을 수 없고, 아굴라에 관해서도 불확실합니다. 그 삭발은 아굴라에게 돌릴 수도 있고 바울에게 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 곧 그들이 바울에게서 본보기를 얻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남겨 주지 않도록, 더 단순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결코 어떤 거룩하게 함을 위해 머리를 깎지 않았고, 다만 형제들의 연약함을 섬기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고전 9:20). 저는 이런 서원을 경건의 서원이 아니라 사랑의 서원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미숙함을 참아 주기 위해 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말하듯,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 등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동안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맞추려고 이것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쓸모도 없이 나실인들의 정결 의식을 흉내 내려 하니, 또 하나의 유대교를 세우는 것 말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같은 경건심으로 저 교령 서신도 지어졌습니다. 그 서신은 사도를 따라(고전 11:4) 성직자들이 머리를 기르지 말고 공 모양으로 깎으라고 금합니다. 마치 사도가 모든 남자에게 무엇이 단정한지를 가르치면서 성직자들의 공 모양 삭발을 염려하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입문을 거치는 뒤따르는 다른 품급들이 어떠한지는 이것으로 독자들이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28. 성직자의 삭발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아우구스티누스 한 사람에게서만도 넉넉히 드러납니다.[603] 그 시대에는 사치하는 자들과 사내답지 못한 멋과 우아함을 꾸미는 자들 말고는 머리를 기르지 않았으므로, 성직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여자 같은 몸치장의 모습을 조금도 드러내지

603. 원문에 남은 CO 편집자 각주의 끝부분은 “Item in retractat. 2, 21.” (또『재론고』2권 21장)입니다. 앞부분은 원문 파일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않도록 머리를 짧게 깎거나 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흔했던지, 어떤 수도사들은 남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차림으로 자기들의 거룩함을 더 내세우려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머리를 기르는 풍습이 다시 돌아오고, 언제나 머리를 길러 온 몇몇 민족, 곧 갈리아, 게르마니아, 브리타니아가 그리스도교로 나아오자, 성직자들이 머리를 길러 치장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어디서나 머리를 밀었으리라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마침내 더 부패한 시대에 옛 제도가 모두 뒤집히거나 미신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은 성직자의 삭발에서 아무 까닭도 보지 못했으므로(그들이 붙든 것이라고는 어리석은 흉내뿐이었으니까요) 비밀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금 미신적으로 자기들의 성례를 인정받는 근거로 우리에게 들이밉니다. 문지기들은 축성될 때 성전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에게 지키는 일이 맡겨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독서자들은 거룩한 성경책을, 구마자들은 귀신 들린 자들과 교리 문답 학습자들 위에 쓸 구마 문구를, 시종들은 촛대와 작은 물병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그 의식들입니다. 이 의식들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면) 숨은 능력이 그토록 많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표징과 표지일 뿐 아니라 그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성례로 여기려 할 때, 자기들의 정의에 따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3. 그러나 그들이 각 품급에서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동료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어리석음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으셨을 때 문지기의 직무를 수행하셨다. 그분은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이 문지기라는 것을 나타내신다.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을 때 독서자의 직무를 맡으셨다.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와 귀에 침을 대어 듣게 하셨을 때 구마자의 직무를 수행하셨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으로 당신이 시종임을 증언하셨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부집사의 직무를 수행하셨다. 성찬에서 사도들에게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을 때 집사의 역할을 맡으셨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셨을 때 사제의 몫을 다하셨다. 이런 말은 웃지 않고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이니, 저는 이것이 웃지 않고 쓰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쓴 자들이 사람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볼만한 것은 그들이 시종이라는 이름을 두고 철학을 하는 그 재치입니다. 그들은 시종을 "촛대 드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마술의 말이거나, 적어도 모든 민족과 언어에 들어 보지 못한 말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ἀκόλουθος는 단순히 뒤따르는 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반박하는 데 매달린다면, 저 자신도 마땅히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들은 하찮고 장난 같습니다.

24. 그렇지만 그들이 어리석은 여인네들을 더는 속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허황함을 지나가며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행렬과 엄숙함으로 자기들의 독서자, 시편 낭송자, 문지기, 시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직무들을 수행하는 일에는 아이들이나, 적어도 그들이 평신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대개 누가 초에 불을 붙입니까? 누가 작은 물병에 포도주와 물을 붓습니까? 아이가 아니면 평신도 가운데 그 일로 CO 1085 벌이를 하는 어떤 비천한 사람 아닙니까? 노래하는 것도 그들이 아닙니까? 성전 문을 닫고 여는 것도 그들이 아닙니까? 누가 그들의 성전에서 시종이나 문지기가 자기 몫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시종의 일을 해 온 아이는 시종의 품급에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 그것이기를 그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호를 받을 때 그 직무 자체를 공공연히 내던지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왜 성례로 축성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곧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저버리고 소홀히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비뚤어짐 탓이라고 핑계한다면, 동시에 그들이 그토록 놀랍게 칭송하는 자기들의 거룩한 품

급이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 쓸모도 열매도 없다는 것과, 그들의 온 교회가 저주로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의 교회는 시종으로 축성된 사람 말고는 아무도 만질 자격이 없는 초와 작은 물병을 아이들과 속인들이 만지도록 허락하고, 축성된 입에서가 아니면 들려서는 안 될 노래를 아이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25.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구마자를 축성합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자기들의 구마자가 있었다고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행하던 구마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는 것을 봅니다(행 19:13). 이 거짓 구마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자기 직분의 본보기를 단 하나라도 보였다는 말을 누가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와 교리 문답 학습자와 마귀 들린 자 위에 손을 얹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꾸며 댑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귀신들에게 설득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그들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귀신들이 그들에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자잘한 품급에 관해 더듬거리며 하는 말은 (그것을 여섯으로 세든 다섯으로 세든) 무지하고 멋없는 거짓말로 빚어진 것입니다. 옛날의 시종과 문지기와 독서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풀어 설명할 때 다른 곳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다만 교회 품급에 있는 일곱 겹 성례라는 저 새로 고안된 것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이 무식한 엉터리 변호사들, 소르본 신학자들과 교회법 학자들에게서 말고는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습니다.

29. 그리고 저는 이것들 가운데 부집사직도 포함시킵니다. 그것이 높은 품급으로 옮겨지기는 했지만, 그 뒤로 이 낮은 등급들의 무리가 우후죽순처럼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신의 고백으로도 이것들은 초대교회에 알려지지 않았고 여러 해 뒤에야 고안되었으니, 확실히 이것들을

성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으므로, 천사도 사람도 세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를 얻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들은 그것들을 영예롭게 하여 특별히 거룩한 품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구실을 얼마나 비뚤게 남용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장로직 또는 사제직의 품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두 이름으로 한 가지를 뜻하며,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제사를 이루고, 기도문을 외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축복하는 일이 자기들에게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품 때 제병을 얹은 잔과 성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달래는 제물을 드리는 권세가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는 상징입니다. 또 그들은 손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 상징으로 축성하는 권세가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보다 더 뻔뻔하게 뒤집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앞의 논의에서 주장한 것을 인정된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곧 화목의 제물을 드린다고 자기를 사제라고 부르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맹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성별되셨으니, 끝도 없고 뒤를 잇는 자도 없습니다(시 110:4; 히 5:6; 7:3). 그분은 영원한 속죄와 화목의 제물을 단번에 드리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지만, 그것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끝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달래시고 죄를 속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 한 분께만 고유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채니, 그들의 사제직이 불경건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 말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들이 감히 그것을 성례라는 칭호로 꾸미려

하니, 확실히 그들은 너무도 뻔뻔합니다.

30. 그리스도의 입으로 우리에게 권해진 참된 장로 직무에 관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그 자리에 둡니다. 거기에는 먼저 성경에서 취한 의식이 있고, 다음으로 바울이 증언하듯(딤전 4:14) 헛되거나 쓸데없지 않은, 영적 은혜의 신실한 상징인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셋째로 세지 않은 것은, 그것이 모든 신자에게 일상적이고 공통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무를 위한 특별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예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돌려진다고 해서, 교황주의 사제들이 그것으로 교만할 까닭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복음과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을 세우라고 명하셨지, CO 1087 제물 잡는 자들을 취임시키라고 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양 떼를 먹이라는 명령을 주셨지, 제물을 잡아 드리라는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마 28:19; 막 16:15; 요 21:15). 그분은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셨으나, 죄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다스림을 바르게 수행하고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제직의 품급 전반에 관해, 그것이 사도들의 직무와 얼마나 잘 맞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교회의 어떤 형태도 세워지지 않았을 때, 당신의 사도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막 16:15). 그보다 앞서 그분은 당신의 본을 따라 당신의 몸과 피의 거룩한 상징들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눅 22:17 이하). 제사를 드리는 일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사도들의 자리를 잇는 사람들에게 지워진 거룩하고 범할 수 없으며 영구한 법입니다. 그 법으로 그들은 복음 전파와 성례 집행에 관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와 성례 집행에 힘쓰지 않는 자들은 뻔뻔하게도 사도의 탈을 쓰는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자기들이 사도들과 같은 사역을 한다고 거짓으로 떠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지금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맡아야 하는 사

람들 사이에는 얼마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입니다. 낱말의 뜻과 어원으로 보면 양쪽 다 주님께서 보내셨으므로 사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로운 복음 전파를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저 열둘을 특별히 택하셨고, 그들이 특별히 사도라고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롭고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보내심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장로와 감독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은 직무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것은 양쪽에 공통되지만, 저 열둘에게는 아무 경계도 정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복음을 퍼뜨리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이 사람들에게는 각각 한 교회가 맡겨집니다. 그렇다고 한 교회를 맡은 사람이 다른 교회들을 돕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몸소 가야 할 어떤 소란이 일어났을 때나, 떨어져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글로 가르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평화를 지키려면 이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곧 각 사람에게 할 일이 정해져 있어서, 모두가 한꺼번에 소란을 피우거나, 부르심도 없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다니거나, 모두가 함부로 한곳에 몰려들거나, 제멋대로 교회들을 비워 버려두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써서 이 구별을 세웠습니다(딛 1: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같은 것을 보여 줍니다(행 20:28). 그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립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바울은 아킵보를 골로새 사람들의 감독으로 언급하고(골 4:17), 다른 곳에서는 빌립보 사람들의 감독들을 언급합니다(빌 1:1).

이것을 잘 살펴보면, 장로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누가 장로의 반열에 들어야 하는지, 아니 오히려 서품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직무는 복음을 CO 1089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얼마나 흠 없는 행실로 뛰어나야 하는지, 각 사람에게 사사로이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는 빼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일은 선한 목자의 모든 자질을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내세우는지만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말씀과 성례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독과 장로를 가리지 않고 교회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서품은 곧 부르심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르심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칠 차례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곧 감독 또는 장로를 누가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예식이나 어떤 의식으로 그들을 직분에 입문시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당한 세움의 본보기는 사도들의 세움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부르심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명령만으로 갖추어져 일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자신이 어떤 순서를 지켰는지도 충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인용한 그 대목(딛 1:5)에서, 각 성에 감독들을 세우게 하려고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 두었다고 전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권합니다(딤전 5:22).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고 전합니다(행 14:23). 그런데 주교관을 쓴 대사제들은 이 대목들을 크게 빚냈습니다. 자기들 밀가루 반죽에 쓸모 있어 보이는 대목이면 다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들의 말대로 장로를 서품하고 축성하는 권세가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축성이 무식한 사람들에게 어떤 화려한 탈로 존귀하고 경건해 보이게 하려고, 많은 의식으로 그것을 그늘지게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축성하고 서품하는 것이 교회의 감독과 목사를 세우는 것과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

한다면, 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지시대로 축성하고 서품한다면 말입니다. 그들이 다르게 행한다면, 그들은 바울의 이 대목들을 제멋대로 아주 나쁘게 비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들은 아주 다르게 행합니다. 그들은 감독직으로 서품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직으로 서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사역에 지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사역이 말씀의 사역과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우리 사제 나부랭이들이 교회의 사역자다"라는 이 노래를 거듭 부른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정신인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진리가 그것에 굳세게 맞섭니다. 성경은 교회를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 말고는 다른 교회의 사역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를 때로는 감독, 때로는 장로, 때로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들이 교회법은 아무도 직함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금한다고 반박한다면, 그것도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내세우는 직함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직함들의 대부분은 고위직, 직책록, 참사회원직과 성직록, 예배당 사제직, 수도원 부원장직, 심지어 수도사직이 아닙니까? 이것들은 일부는 주교좌 성당에서, 일부는 참사회 성당에서, 일부는 버려진 신당에서, 일부는 수도원에서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사탄의 사창가로 해석하며, 자신 있게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고 잡아 드리는 일 말고 무슨 직무로 서품됩니까? 결국 그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면 아무도 서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유일한 서품은, 삶과 교리가 검증된 사람을 교회를 다스리도록 부르고 그를 사역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저 대목들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그 대목들은 부르심 자체와 함께 부르는 의식과 예식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에 관해서는 곧 제자리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는 손에 든 것, 곧 교회의 사역

자를 누가 서품해야 하는지, 곧 누가 불러야 하는지를 다룹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주교관을 쓴 태수들이 가로채어 쓰는 것과 같은 성직 수여권을 디모데와 디도에게 넘겨주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 사람에게, 그들이 남아 있던 지방들의 교회를 세우고 정돈하라는 명령을 준 다음, 한 사람에게는 교회들이 버려진 채 있지 않게 하라고 권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일깨웁니다. 바울과 바나바나 어떤 대감독들이 교회의 재산을 수여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들 모두가 교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의논도 받지 못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교회에 떠맡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들과 의논하여, 형제들 가운데 더 순수한 교리와 더 흠 없는 삶으로 검증된 사람들을 그 직무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들이 온전히 서 있기를 원했다면, 참으로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또는 교회는 사역자를 뽑는 일을 의논하려 할 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웃에서 삶의 거룩함과 교리의 순전함으로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감독 한두 사람을 불러, 그들과 함께 누구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할지 의논해야 했습니다.[604] 그런데 감독을 온 교회의 회집으로 세우는 것이 나은지, 그 일을 맡은 몇 사람의 투표로 세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위정자의 판단으로 세우는 것이 나은지는 확정된 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사정과 민족의 풍습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온 회중의 공동 투표가 아니면 바르게 뽑힌 것이 아니라고 힘써 주장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시대에 많은 지역에서 이 관습이 힘을 가졌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머리가 한마음으로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변덕스러운 무리는 갈라져 서로 반대되는 열심에 빠진다"는 말이 대개 참이므로, 제게는 위정자나 의회나 몇몇 장로가

604. 원문은 "Ut ecclesia"이나, CO 편집자는 각주에서 "seu"(또는)로 읽으라고 합니다. 그 읽기를 따랐습니다.

그 뽑는 직무를 맡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CO 1091 다만 제가 말했듯이, 신실함과 정직함이 검증된 감독 몇 사람을 언제나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을 마음에 품은 군주들이나 자유 도시들이 일과 때에 맞추어 이것을 더 잘 살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감독들이 사람들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 전적으로 정당한 부르심의 질서에 속한다는 것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 그토록 많은 성경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자기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부정할 때(갈 1:1), 그는 이것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것, 곧 사람들에게서 보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경건한 말씀의 사역자에게 그와 공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이 직무를 바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의 것은 그에게 고유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자랑할 때, 그는 참되고 정당한 목사에게 걸맞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내세울 뿐 아니라, 자기 사도직의 표지도 내놓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그를 으뜸 사도들이 대신 세운 평범한 제자 하나로 만드는 자들이 있었으므로, 그는 이런 음모가 겨누어지고 있음을 알았던 자기 전파의 존엄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어느 모로 보나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감독들의 보통 방식처럼 사람들의 판단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입과 분명한 계시로 뽑혔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바울도 이처럼 특별한 특권으로 친히 지정하셨지만, 동시에 교회의 부르심의 규율을 쓰셨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전하기 때문입니다(행 13:2). 사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당신의 택하심을 증언하신 뒤에, 이 따로 세움과 안수가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을 통해

사역자를 지정하는 교회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정하셨다고 미리 말씀하시고서도 그를 교회가 지정하기를 원하신 것보다 더 뚜렷한 증거로 이런 질서를 인정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맛디아를 뽑을 때에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직무는 그토록 중요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으로 누구 하나를 그 자리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 사람을 가운데 세워 둘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제비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뽑힘이 하늘에서 온 확실한 증거를 얻고, 그러면서도 교회의 질서가 전혀 무시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뿔 달린 고위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수여권과 추천권과 그 밖의 이런 종류의 폭군 같은 지배권으로 바른 서품을 송두리째 부패시켰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부패가 그것을 요구했다. 감독을 세울 때 회중과 위정자들 사이에서는 바르고 건전한 판단보다 미움과 편애가 더 힘을 썼으므로, 그 일의 결정권을 몇몇 으뜸 감독에게 넘겨야 했다.” 물론 이것은 절망적인 형편에서 악에 대한 마지막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이 병 자체보다 더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는데, 왜 이 새로운 악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교회법이 감독들이 자기 권세를 남용하지 않도록 아주 꼼꼼히 막아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교회법 자체는 좋은 권징의 절도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기보다 오히려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붙인 횃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만든 자들 자신에게도 마음 내킬 때마다 순전한 놀잇감에 지나지 않는 교회법을 왜 제게 떠벌립니까? 옛날 회중이 감독을 뽑으려고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규칙이 자기 앞에 놓인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법에 매여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은 마땅히 수없이 많은 자잘한 교회법들보다 더 값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회중은 아주

나쁜 욕망에 부패하여 법도 공평도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아서, 아주 훌륭한 법들이 쓰여 있으나 문서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사이에 거의 이발사, 요리사, 노새몰이꾼, 사생아, 그리고 그런 찌꺼기 같은 사람들만 교회의 목사로 세워지는 것이 공공연한 관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니, 제 말은 약합니다. 감독직이 뚜쟁이 짓과 간음의 상급이 되었습니다. 감독직이 사냥꾼과 새 사냥꾼에게 주어질 때에는 일이 아주 잘 풀린 것으로 여겨야 할 정도입니다. 이토록 큰 부끄러운 일이 염치없이 교회법으로 변호됩니다. 제가 말하노니, 옛날 회중에게는 아주 좋은 교회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등등이어야 한다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딤전 3:2; 딛 1:6). 그러면 왜 사역자를 뽑는 일이 회중에게서 이 고위 성직자들에게로 넘어갔습니까? 회중의 소란과 파당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법을 어길 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내던지고 음란하게, 탐욕스럽게, 야심차게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뒤섞고 어지럽히는 감독들에게서는 왜 그것을 넘기지 않습니까? 자기 양 떼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본 적 없는 자들이 교회의 목사로 불린다는 것을 듣기만 해도 견딜 수 있습니까? 적의 땅에 쳐들어가듯 폭력으로 교회의 소유에 뛰어든 자들, 법정 소송으로 그것을 얻어 낸 자들, 값을 치르고 산 자들, 더러운 아첨으로 얻어 낸 자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일 때 그것을 숙부와 친척에게서 유산처럼 물려받은 자들이 말입니다. 회중이 아무리 부패하고 법이 없었다 해도, 그들의 방종이 언제 여기까지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대에 보이는 교회의 이런 모습을 눈물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잔인하고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1539–1554년판 제19장 거짓 성례 다섯 가지에 관하여 3

CO 1:1093–110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093 [605]그것을 고칠 수 있으면서도 내버려 두는 자들은 모든 비인간성을 넘어섭니다.

31. 이제 장로들의 부르심에서 둘째 것을 다루어 봅시다. 곧 그들이 어떤 종류의 예식으로 그 직분에 들어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복음 전파로 보내실 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습니다(요 20:22). 이 상징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선한 사람들은 이 숨 내쉼을 간직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령을 자기 목구멍에서 토해 내기라도 하는 듯이, 자기들이 만들어 내는 사제 나부랭이들 위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중얼거립니다. 이처럼 그들은 무엇 하나 거꾸로 흉내 내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없습니다. 기교 없이 몸짓하지 않고 뜻 없이 몸짓하지 않는 광대들처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분별도 없이 무엇이든 흉내 내는 원숭이들처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주님의 본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모든 죽은 자와 중풍병자에게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 그들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셨을 때 당신의 신적 능력의 표본을

605.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것을 해 보려 한다면, 그들은 주님과 겨루는 것이며 거의 싸움을 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효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어리석은 몸짓으로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너무나 뻔뻔하여, 자기들이 성령을 준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참된지는 경험이 가르쳐 줍니다. 경험은 사제로 축성되는 자는 누구든지 말이 나귀가 되고 바보가 미치광이가 된다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점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그 예식 자체를 정죄합니다. 그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뿐인 기적의 상징으로 쓰신 것이므로 본보기로 끌어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흉내 냈다는 핑계가 그들을 두둔해 줄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32. 그러면 기름 부음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그들은 자기 서품도 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아론의 아들들에게서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함부로 쓰는 것이 자기들이 꾸며 낸 것이라고 고백하기보다, 비뚤어진 본보기들로 늘 자기를 변호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아론의 아들들의 후계자라고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옛 제사장직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그림자로 보여 주고 미리 그려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되풀이해 말한 것이며, 히브리서도 아무 주석의 도움 없이 이를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예식을 그토록 좋아한다면, 왜 소와 송아지와 어린양을 제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옛 성막과 유대인의 예배 전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아지와 소를 잡아 바치지 않는다는 이것 하나가 그들의 종교(religion)에 모자랄 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준수가 할례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것을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특히

거기에 미신과, 행위의 가치에 대한 바리새인의 생각이 더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에 의의 신뢰를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에 영적 은사들을 둡니다.

33.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이것이 지울 수 없는 인호(character)를 새긴다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마치 기름이 먼지와 소금으로 닦이지 않는다는 듯이, 혹은 더 끈끈하게 들러붙었다면 비누로 닦이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인호가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영혼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따와 되풀이해 노래하는 말을 잊었습니까? 물에서 말씀을 떼어 내면 물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며, 물이 성례가 되는 것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그 말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 덩어리에서 어떤 말씀을 내보이겠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서는 또한 아론이 꾸며야 했던 속옷과 에봇과 관과 거룩한 금패에 관해서도, 그 아들들이 입어야 했던 속옷과 띠와 관에 관해서도 명령하셨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그 기름을 태우는 일, 숫양들을 각 뜨고 불사르는 일, 다른 숫양의 피로 귀와 옷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관해서도 명령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셀 수 없는 다른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쳐 버리면서 어째서 기름 부음 하나만 그들의 마음에 드는지 저는 놀랍습니다. 그들이 뿌림 받기를 좋아한다면, 왜 피보다 기름을 뿌림 받습니까? 물론 그들은 교묘한 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교에서 마치 누더기 조각을 기워 붙이듯 하여 하나의 종교(religion)를 만들어 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의 기름 부음은 썩은 냄새를 풍깁니다.

남은 것은 안수입니다. 사도들이 누군가를 교회의 사역에 세울 때마다 이것을 지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감독직에 세움을 받은 그 임직 자체를 "장로직의 안수"라고 부릅니다(딤전 4:14). 물론 어

떤 이들이 그 대목의 presbyterium을 장로들의 모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더 단순하게 그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여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디모데에게 안수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불일듯 하게 하라"(딤후 1:6). 그런데 저는 이 의식이 히브리인의 관습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을 빌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손을 얹어 이를테면 하나님께 CO 1095 내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빌려 할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창 48:14). 제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도 같은 뜻으로 율법의 규정을 따라 자기 제물에 손을 얹었습니다(레 1:4 등; 민 8:10; 27:23). 그러므로 사도들은 안수로써 자기들이 손을 얹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율법의 그림자를 좇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쓸모가 있는 곳에서 아무 미신 없이 이 상징을 썼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성령을 구하여 빌어 주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징으로 성령을 베풀어, 성령께서 자기들에게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컨대 그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빌어 주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께 맡기는 상징이었고, 그 은혜를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곧바로 성례로 여겨야 합니까? 사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성례 없이는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합니까? 제자들은 동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동쪽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에게 성례가 되게 합시다. 바울은 남자들이 각처에서 깨끗한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딤전 2:8 참조).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손을 펴는 것도 성례가 되게 합시다. 결국 성도들의 모든 몸짓을 성례로 넘깁시다. 그러므로 다툼은 그만두고, 이 예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 몇 마디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성령의 은사를 주려는 목적으로 이 예식을 쓴다면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지지도 않았고, 그 상징이 세워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황과 그 무리는, 우리가 그들의 견진을 논할 때 더 자세히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이런 표징들로 성령을 준다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쉬지 않고 이 돌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을 경건한 이들의 모임 한가운데 세우고, 그의 직무를 일깨우며, 장로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아무 미신적 의미 없이 다만 그 사람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께 사역자로 드려진다는 것을 느끼고, 교회는 함께 기도하여 그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북돋움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치고 그런 안수를 못마땅히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34. 집사직의 서품에 관해서도, 사도들 아래에서 그리고 더 순수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그 직분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면 저는 조금도 다투지 않겠습니다. διακονία라는 낱말은 넓은 뜻을 지니지만, 성경은 특별히, 교회가 구제를 나누어 주는 일을 맡기고 이를테면 가난한 이들의 공동 금고를 맡은 청지기로 세운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기원과 세움과 직무는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행 6장). 헬라파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원망하는 소리를 일으켰을 때, 사도들은 말씀 전파와 식탁 섬김이라는 두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해명하면서, 무리에게 인정받는 사람 일곱을 뽑아 그 일을 맡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집사들의 직무입니다. 곧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며, 그들의 이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그들을 세운 일을 덧붙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뽑은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집사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 거룩한 직무를 맡기고, 이런 예식, 곧 안수로 그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에 관해서는 충분하다고 여겨질 만큼 이미 말했습니다. 바울도 같은 사람들에 관하여 말합니다(딤전 3:8). 그는 그들이 단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침을 받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 집과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꾸며 보이는 집사들에게 이와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네 교리가 사람들의 악덕으로 부당하게 평가된다고 불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교리로 우리에게 내놓는 바로 그 집사들을 위하여, 사도 교회가 집사로 세운 이들의 본보기에서 증거를 끌어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집사들의 일이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제들 곁에 서서 성례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곧 세례와 성유와 성반과 성작에서 시중드는 것, 봉헌물을 가져와 제단 위에 벌여 놓는 것, 주님의 상을 차리고 덮는 것,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 백성에게 복음서와 서신을 읽어 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사들의 참된 직무에 관한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이제 그 세우는 의식을 들어 봅시다. 서품받는 집사에게는 감독 혼자 안수합니다. 감독은 그의 왼쪽 어깨 위에 오라리움과 영대(stola)를 걸쳐 줍니다. 그가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멍에로 왼쪽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복종시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독은 그에게 복음서 본문을 건네줍니다. 그가 자기를 복음의 전령으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사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은 마치 어떤 사람이 사도들을 세운다고 하면서, 향을 피우고 우상을 닦고 예배당을 쓸고 쥐를 잡고 개를 쫓는 일만 맡기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견주는 것을 참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는 자기네 광대놀음을 위해서만 세우는 자들을 집사라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레위인이라고도 부르고, 그들의 이치와 기원을 레위의 자손에게로 돌립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CO 1097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다만 참으로 그러하듯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레위 제도의 의식과 모세 율법의 그림자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말입니다.

35. 부집사(hypodiaconus)들에 관해서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옛날에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인지 모를 하찮은 직무를 맡깁니다. 성작과 성반, 물 단지, 수건을 제단으로 가져가고, 손 씻을 물을 붓는 일 따위입니다. 그들이 봉헌물을 받아 들여온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봉헌물(anathemata)로 바쳐진 것들처럼 자기들이 집어삼키는 그 봉헌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직분에 들어서는 의식도 이 직무에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는 감독에게서 성반과 성작을, 수석 집사(archidiaconus)에게서 물 단지와 수건과 이런 따위의 잡동사니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어리석은 것들 속에 성령께서 갇혀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요구합니다. 경건한 사람치고 누가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에 끝맺자면, 나머지에 관하여 내린 것과 같은 판단을 이들에 관해서도 내리면 됩니다.

이제 서품 성례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전체로 한 번에 정해 둡시다. 위에서 설명한 것을 멀리서 다시 끌어올 필요가 없도록, 겸손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저는 이런 이들을 가르치려고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곧 예식이 약속에 덧붙어 나타나는 곳, 아니 오히려 약속이 예식 안에서 보이는 곳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확실한 약속도 한 음절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확증할 예식을 찾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또한 그들이 쓰는 예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성례일 수 없습니다.

혼인에 관하여.

36. 마지막은 혼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혼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레고리우스의 시대까지는 아무도 혼인이 성례로 주어졌다고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치고 누구에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정은 선하고 거룩합니다. 농사와 건축과 갖바치 일과 이발 일도 하나님의 정당한 제정이지만, 그렇다고 성례는 아닙니다. 성례에서 요구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약속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신 바깥 예식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이들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인이 거룩한 일,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결합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표징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확신을 일으키시려고 우리에게 내놓으신 상징으로 이해한다면, 과녁에서 멀리 빗나갑니다. 그들이 표징을 단순히 비유로 끌어온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추론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리라” (고전 15:41–42). 보십시오, 성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 13:31). 보십시오, 둘째 성례입니다. 또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마 13:33). 보십시오, 셋째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리라” (사 40:11). 보십시오, 넷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리라” (사 42:13 참조). 보십시오, 다섯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한계입니까? 이런 식이라면 성례가 아닐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비유와 비교가 있는 만큼 성례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도둑질도 성례가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 (살전 5:2)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지껄이는 이

궤변가들을 참겠습니까? 물론 저는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 15:1, 5) 하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목자가 양 떼와 함께 있는 것을 만날 때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요 10:11)[606] 하신 말씀도 떠오르는 것이 좋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비교를 성례에 넣어 센다면, 그런 사람은 안티키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607]

37.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이밉니다. 그 말에서 혼인에 성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엡 5:28–32).[608]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곧 그의 살과 그의 뼈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성례가 크도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땅을 하늘과 뒤섞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각별한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품어야 하는지 보여 주려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본보기로 내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정혼하신 교회에 경건한 사랑의 심장을 쏟으셨듯이, 각 사람도 자기 아내를 향해 그런 마음을 품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셨는지, 아니 어떻게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하나가 되셨는지 가르치려고, 아담이 자기에 관하여 말했다고 모세가 전하는 말을

606. 이 인용의 뒷부분("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은 요 10:27의 말씀입니다.
607. 안티키라(Anticyra)는 광기를 다스리는 약초로 여겨진 헬레보어의 산지로 이름난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안티키라로 보내야 한다"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의 옛 속담입니다.
608. 원문에는 "엡 5:29"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범위에 맞추어 5:28–32로 적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아담은 자기 갈빗대로 지어진 줄 알고 있던 하와가 자기 앞에 이끌려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창 2:23)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요 그의 살과 뼈로부터 났으며, 나아가 그와 한 육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결론의 외침을 덧붙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아무도 말의 모호함에 속지 않도록, 자기가 남자와 여자의 육적 결합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혼인에 관하여 말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것은 큰 CO 1099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음 받도록 당신의 갈빗대가 떼어 내어지는 것을 참으셨다는 것, 곧 강하신 분이 약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강함으로 굳세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38. 성례라는 이름이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의 벌을 온 교회가 치러야 옳았겠습니까? 바울은 "비밀" (mysterium)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역자는 라틴 사람들의 귀에 드물지 않은 이 낱말을 그대로 둘 수도 있었고 "감추어진 것" 으로 옮길 수도 있었는데, "성례" (sacramentum)라고 놓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헬라어로 "비밀" 이라고 말한 것과 다른 뜻으로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가서, 쉽고 누구에게나 뻔한 일에서 이토록 추하게 헛짚은 바로 그 언어들의 지식을 시끄럽게 비난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한 대목에서만 "성례" 라는 작은 낱말을 그토록 밀어붙이고, 다른 몇 곳에서는 소홀히 지나칩니까? 디모데전서에서도(딤전 3:9), 그리고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도(엡 1:9) 라틴어 통속 번역자가 그 낱말을 놓았는데, 어디서나 "비밀" 대신에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수는 그들에게 너그러이 넘어가 줍시다. 적어도 거짓말쟁이라면 기억력이 좋아야 했습니다. 혼인을 성례라는 칭호로 높여 놓고

나서 나중에는 그것을 불결이요 더러움이요 육적 추잡함이라고 부르다니, 이 얼마나 어지러운 경솔함입니까? 사제들을 성례에서 막는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그들이 사제들을 성례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동침의 정욕에서만 막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제게서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동침 자체도 성례의 일부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는 연합이 본성의 같은 모양으로 바로 그 동침 안에서 그려진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육적 교합으로만 한 육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기서 성례를 둘이나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신랑과 신부에게서 그려지는 하나님과 영혼의 성례요, 다른 하나는 남편과 아내에게서 그려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례입니다. 어떻든 간에 동침은 성례이며, 그리스도인 누구도 거기서 막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례들이 서로 너무 맞지 않아 함께 설 수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교리에는 또 다른 터무니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례에서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단언합니다. 동침이 성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동침에는 성령께서 결코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부인합니다.

39.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한 번 우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려고, 이 오류 하나에 얼마나 긴 오류와 거짓말과 속임수와 사악함의 사슬을 엮어 붙였습니까? 그들이 혼인을 성례로 만들었을 때 가증한 것들의 은신처를 찾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할 만합니다. 일단 이것을 얻어내자, 그들은 혼인 소송의 심리를 자기들에게로 끌어갔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므로 세속 재판관들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법들을 정하여 자기들의 폭정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 법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러나게 불경건하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부당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부모의 허락 없이 젊은이들 사이에 맺은 혼인도 굳고 유효하게 남는다. 일곱 촌수까지의 친척 사이에서는 혼인이 정당하지 않으며, 이미 맺은 혼인도 풀어야 한다. 그런데 그 촌수 자체를

모든 민족의 법과 모세의 국법에도 어긋나게 꾸며 낸다. 간음한 아내를 내보낸 남자는 다른 아내를 맞아들일 수 없다. 영적 친척끼리는 혼인으로 맺어질 수 없다.[609] 칠순절 주일부터 부활절 팔일째까지, 세례 요한 탄생일 전 세 주 동안, 대림절부터 주현절까지는 혼인 잔치를 치를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셀 수 없는 법들이 있으나, 그것을 다 헤아리자면 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진창에서 빠져나와야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먹었던 것보다 이미 너무 오래 그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나귀들에게서 사자 가죽을 얼마쯤 벗겨 냈으니, 조금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610]

609. 세례 때 대부모 관계로 생긴 친족 관계를 말합니다.

610. 원문의 이 자리 끝에 걸쳐 있는 제20장 표제의 첫 낱말(“CAPUT”)은 다음 편 첫머리에서 장 표제와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 제20장 국가 통치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20장 국가 통치에 관하여 1

CO 1:1099–111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099 제20장

국가 통치에 관하여.

1.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사람 안에 이중의 통치가 있다고 정했고, 그 가운데 하나, 곧 영혼 또는 속사람 안에 자리 잡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통치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충분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하나, 곧 다만 시민적이고 외적인 행실의 의를 세우는 데 관계된 통치에 관해서도 얼마간 논할 자리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세운 구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듯이)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이 둘을 생각 없이 뒤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서 자유가 약속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자유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왕도 어떤 위정자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위에 어떤 권세가 솟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CO 1101 자기 자유의 열매를 조금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새 모습으로 고쳐 만들어져서, 재판도 법도 위정자도 없고, 그 밖에도 자기 자유를 가로막는다고 여기는 그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 사이를, 지금의 이 덧없는 삶과 장차 올 영원한 삶 사이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와 국가의 질서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세상의 초등 원리 아래에서 찾고 그

안에 가두는 것은 유대인의 헛된 생각이니, 우리는 오히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은택에서 거두는 열매는 영적인 것임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제시되는 이 자유 전체를 그 자체의 경계 안에 붙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명하는 바로 그 사도가(갈 5:1), 다른 곳에서는 종들에게 자기 처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고전 7:21; 골 3:22)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 자유는 국가의 종살이와 아주 잘 함께 설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런 말씀들도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다" (갈 3:28). 또 "거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할례나 할례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 3:11). 바울은 이 말씀들로, 그대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느 민족의 법 아래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그런 것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그렇지만 이 구별이, 국가 제도의 이치 전체를 더러운 것으로,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어떤 광신자들은 이렇게 떠벌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초등 원리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하늘에 있는 이들 가운데 앉았으니,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일들을 둘러싼 이 속되고 더러운 염려에 매이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우리의 탁월함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재판과 법정이 없다면 법이 무슨 소용인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재판과 무슨 상관인가? 아니, 죽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법과 재판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인가?"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이 종류의 통치가 저 영적이고 내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와 구별된다고 일러 두었듯이, 그 둘이 결코 서로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저 영적 통치는 하늘나라의 어떤 시작을 지금 이미 땅 위에서 우리 안에 일으키고, 이 죽을 덧없는 삶 속에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복락을 어느 정도 미리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 통치에 맡겨진 일은,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 삶을 사람들의 사귐에 맞추고, 우리 행실을 시민적 의에 맞게 빚으며, 우리를 서로 화해시키고, 공동의 평화와 평온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의 삶을 없애 버린다면,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본향을 사모하는 동안 땅 위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나그넷길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람에게서 빼앗는 자들은 사람에게서 그의 인간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 자체의 절제가 법을 대신하기에 충분할 만큼 큰 완전함이 있어야 한다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완전함을 어리석게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오만이 이토록 크고 그 사악함이 이토록 완고하여, 법의 엄격함을 많이 들이대어도 거의 억누를 수 없는 터에, 그들이 자기 악행에 벌받지 않는 방종이 열려 있는 것을 본다면 무슨 짓을 하리라고 우리는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은 강제로도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붙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3. 그러나 국가 제도의 쓸모에 관해서는 더 알맞은 다른 말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이것을 알아 두기를 바랍니다. 국가 제도를 없애 버리려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야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쓸모는 사람들 사이에서 빵과 물과 해와 공기보다 작지 않고, 그 품위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것은 (저 모든 것의 이로움이 그러하듯) 사람들이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물론 사람들이 함께 살게 해 줌으로써 이 모든 것도 분명히 포함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스르는 신성 모독과, 그분의 진리를 거스르는 모독과, 그 밖에 경건(religion)

을 해치는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 백성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하고, 공공의 평온이 어지럽혀지지 않게 하며, 각 사람의 것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지게 하고, 사람들이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 거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경건의 공적인 모습이 서고, 사람들 가운데 인간다움이 자리 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사람의 결정 밖에 두었던 것처럼 보이는 경건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지금 사람들의 국가 제도에 돌린다고 해서, 아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 결정대로 경건과 하나님 예배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참된 경건이 공공연하고 공적인 신성 모독으로 벌받지 않고 짓밟히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힘쓰는 국가의 질서를 옳다고 인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질서의 명료함에 도움을 받아, 우리가 국가 통치의 부분들을 따로따로 다룬다면 국가 통치 전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더 잘 깨달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셋입니다. 법의 수호자요 파수꾼인 위정자, 위정자가 그것을 따라 다스리는 법,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위정자의 직무 자체에 관하여, 그것이 정당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소명인지, 그 직무가 어떠하며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살펴봅시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국가는 어떤 법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이 백성에게 어떤 쓸모가 있으며 위정자에게 어떤 순종을 드려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4. 주님께서는 위정자들의 직무를 당신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고 증언하셨을 뿐 아니라, 그 품위를 더할 나위 없이 영예로운 칭호들로 높여 놀랍도록 우리에게 추천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위정자의 직분을 맡은 이들은 누구나 “신들”이라고 불립니다(출 22:8; 시 82:1, 6). 아무도 이 칭호에 가벼운 무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칭호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대신하여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일을 대신 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 낸 억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요 10:35).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셔서 그들이 자기 직무에서 그분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세와 여호사밧이 유다의 각 성읍에 세운 재판관들에게 말한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신 1:16; 대하 19:6)?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입으로 단언하는 말도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잠 8:15–16).[611] 왕들이 다스리고 모사들이 의를 결정하며, 방백들이 통치하고 땅의 모든 너그러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땅에서 왕들과 다른 다스리는 자들의 손에 모든 일의 결정권이 있는 것은 사람의 비뚤어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제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그렇게 다스리기를 좋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들고 재판의 공정을 행할 때 그들 곁에 계시고, 또한 그들을 앞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드러내 놓고 가르칩니다(롬 12:8). 그는 다스리는 직분을 하나님의 은사들 가운데 꼽는데, 그 은사들은 은혜의 다양함을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써야 할 것들입니다. 물론 바울은 거기서 본래 초대 교회에 세워져 공적인 권징을 바로잡는 일을 맡았던 무게 있는 사람들의 회에 관하여 말합니다(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직무를 κυβερνήσεις, 곧 "다스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고전 12:28)). 그렇지만 국가 권세의 목적도 같은 데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므로, 그가 모든 종류의 정당한 다스림을 우리에게 추천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문제를 바로 다루어 논하는

611. 원문에는 "잠 8:14"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에 맞추어 8:15–16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곳에서는 훨씬 더 분명합니다. 그는 권세가 하나님의 제정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권세는 하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롬 13:1). 그리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칭찬이 되고 악한 자들에게는 진노로 보응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거룩한 사람들의 본보기도 더해집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처럼 왕국을 다스렸고, 어떤 이들은 요셉과 다니엘처럼 총독의 자리를 맡았으며, 어떤 이들은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처럼 자유로운 백성 가운데서 국가의 다스리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직무를 당신께서 인정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도, 국가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당한 소명일 뿐 아니라 가장 거룩한 소명이며, 죽을 인생 전체에서 모든 소명 가운데 단연 가장 영예로운 것이라는 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5. 위정자들 자신은 이 생각으로 늘 자기를 단련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그들을 직무로 북돋우는 큰 박차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자기 직무의 어려움(그것은 참으로 많고 무겁습니다)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각별한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성실과 지혜와 온유와 절제와 흠 없음을 힘쓰도록 스스로에게 명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재판석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불의를 그 재판석에 들이겠습니까? 자기 입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관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무슨 대담함으로 그 입으로 불의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까? 자기 손이 하나님의 일을 써서 정하도록 세워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양심으로 그 손으로 불경건한 결정문에 서명하겠습니까? 요컨대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의의 어떤 형상을 자기 안에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사람들로서, 온갖 정성과 부지런함과 근면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이것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일을 속임으로 행하는 자들이 모두 저주를 받는다면(렘 48:10), 의로운 소명 안에서 속임수로 처신하는 자들은 훨씬 더 무겁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사밧은 자기 재판관들을 직무로 권면하려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말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 힘 있게 움직일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신 1:16; 대하 19:6–7). "너희가 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가 재판하는 것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함이니, 재판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그런즉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너희 위에 있게 하라. 삼가 행하라. 우리 주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고 말합니다(시 82:1).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절이며, 맡겨진 직무를 다스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직무로 힘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사 3:14). 그리고 이 권고는 마땅히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든 잘못을 저지르면, 자기들이 악독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도 모욕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재판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속된 일이나 하나님의 종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직무에 종사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사절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크게 위로받을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성경의 그 많은 증언에도 움직이지 않고, 이 거룩한 직무를 마치 그리스도인의 경건(religion)과 경건(pietas)에 맞지 않는 것인 양 감히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직무가 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도 욕을 당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정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 위에서 다스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 관하여 하신 이 말씀이(삼상 8:7) 참되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다스리는 직분을 향해 마구 날뛰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 사람들에 관해서도 그 말씀이 어찌 덜 참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첫째 된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눅 22:25–26), CO 1105 이 말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왕국이나 다스리는 직분을 맡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오, 참 솜씨 좋은 해석자들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다른 이보다 뛰어난가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헛된 야심을 누르시려고, 그들의 직무는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서는 왕국들과 같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비교가 왕의 품위를 욕되게 하는 데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 왕의 직무가 사도의 직무가 아니라는 것 말고 도대체 무엇을 증명합니까? 더욱이 위정자들 자체 사이에 여러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두를 하나님의 제정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고 말할 때(롬 13:1) 그 모두를 함께 아우릅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곧 한 사람의 권세가 다른 것들보다 뛰어난 증언으로 추천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권세는 모든 것을 자기 욕망에 복종시키는 그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에게 공적인 종살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옛날의 영웅적이고 더 뛰어난 정신들에게는 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불공정한 판단에 맞서려고, 왕들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특히 왕을 공경하라고 명합니다(잠 8:15; 벧전 2:17).

7. 그리고 참으로, 개인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국가의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 것이 될지를 논하는 것은 아주 한가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적인 일을 세우는 것에 관하여 의논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논의의 큰 부분이 상황에 달려 있으므로, 이것을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은 경솔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떠나 그 형태들 자체를 서로 견주어 보더라도, 어느 것이 유익에서 더 무거운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들은 서로 대등한 조건으로 겨룹니다. 왕정에서 폭정으로 떨어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의 권세에서 소수의 당파로 떨어지는 것도 그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지배에서 소요로 떨어지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참으로 철학자들이 내세우는 저 세 가지 통치 형태를 그 자체로 놓고 생각한다면, 저는 귀족정이나, 귀족정과 민주정(politia)을 섞어 조절한 상태가 다른 모든 형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경험 자체로 늘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도 당신의 권위로 확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좋은 처지에 두기를 원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민주정에 가까운 귀족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가 마땅한 절제에 맞추어지고 오래 가도록 바르게 세워진 곳보다 더 복된 통치 형태는 없다고 기꺼이 고백하듯이, 이런 처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붙들기 위하여 힘차고 꾸준하게 수고한다면, 그들은 자기 의무에서 벗어난 일을 조금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아니, 위정자들도 자기가 그 수호자로 세워진 자유가 어느 부분에서도 줄어들지 않게, 하물며 침해당하지 않게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이 일에 게으르고 소홀하다면, 그들은 직무에 신실하지 못한 자요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른 형태의 통치를 정해 주신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에게 옮겨 와서, 그것 때문에 변혁을 꾀하도록 부추김을 받는다면, 그런 생각은 어리석고 쓸데없을 뿐 아니라 아주 해롭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대가 한 도시에만 눈을 고정하지 않고 온 세계를 함께 둘러보고 살펴본다면, 아니면 적어도 더 넓은 지역들로 시선을 펼쳐 본다면, 여러 지역이 여러 형태의 국가로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까닭 없이 마련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원소들이 고르지 않게 섞여야만 서로 결합하듯이, 이 국가들도 자기 나름의 고르지 않음으로 가장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의 뜻으로 만족할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말이 쓸데없습니다. 주님께서 왕국에는 왕들을, 자유 도시에는 원로원이나 시의원들을 세우기를 좋게 여기셨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에 누구를 세우셨든지 그들에게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8.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하는 위정자들의 직무가 어떠하며 무엇에 있는지 여기서 지나가는 길에 밝혀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왕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렘 22:3).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며,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슬프게 하지 말고, 해를 끼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대신 세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신 1:16–17). 그들의 형제들의 송사를 듣고, 사람과 그 형제 사이와 나그네 사이를 재판하며,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작은 자의 말이나 큰 자의 말이나 듣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자기를 위하여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탐욕에 마음을 두지 말며, 자기 형제들 위에 높아지지 말고, 평생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부지런히 묵상하라는 말씀(신 17:16–19), 어떤 재판관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말씀(신 16:19),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읽히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정자들의 직무를 설명하는 저의 뜻은, 위정자들 자신을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정자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는지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공공의 흠 없음과 절제와 단정함과 평온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유일한 힘씀은 모든 사람의 공동의 안녕과 평화를 돌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이 선한 사람들을 악인들의 해코지에서 막아 주고, 억눌린 이들을 도움과 보호로 돕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으므로, 그들은 또한 권세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로 그들은 공공의 평온을 어지럽히고 뒤흔드는 사악함을 지닌, 드러난 악행자들과 범죄자들을 엄하게 억누릅니다(롬 13:3). CO 1107 참으로 우리는 솔론이 말한 것을 그대로 겪습니다. 모든 국가는 상과 벌로 서 있으며, 이것들을 없애면 나라의 질서 전체가 무너지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덕에 마땅한 영예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공평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식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방자함은 엄격함과 형벌의 처단이 아니면 억누를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왕들과 다른 다스리는 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명할 때 이 두 부분을 아울렀습니다(사 56:1).[612] 정의란 죄 없는 이들을 보호 아래 받아들이고, 품고, 지키고, 변호하고, 건지는 것입니다. 공평이란 불경건한 자들의 대담함에 맞서고, 폭력을 누르고, 범죄를 벌하는 것입니다.

9. 그러나 여기서 보기에 험하고 어려운 물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죽이는 것을 금하고(출 20:13; 신 5:17; 마 5:21),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교회에 관하여 거기서는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예언한다면(사 11:9; 65:25), 위정자들이 어떻게 경건하면서 동시에 피를 흘리는 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정자가 형벌을 집행할 때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거리낌에 조금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은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나 살인이 벌받지 않은 채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의 손에 칼을 주셔서 모든 살인자를 향하여 빼어 들게 하십니다. 괴롭히고 해하는 것은 경건한 이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경건한 이들이 당한 괴로움을 보응하는 것은 해하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늘 우리 마음

612. 원문에는 “les. 56,” 으로 절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사 56:1로 보았습니다.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사람의 경솔함으로 행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앞서 이끄는 동안에는 결코 바른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재갈이 물려 있어서 그 의가 범죄를 벌하지 못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법을 정해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면, 왜 우리가 그분의 사역자들을 헐뜯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진노하심을 따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자니라" (롬 13:4). 그러므로 통치자들과 다른 다스리는 자들은, 자기들의 순종보다 주님께 더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참으로 자기들의 경건과 의와 성실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쓴다면, 이 직무에 몸을 바쳐야 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해방자로 정해졌음을 알고 애굽 사람에게 손을 댔을 때(출 2:12) 이런 마음에 이끌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가 하루에 삼천 명을 죽여 백성의 신성 모독을 보응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출 32:27–28). 다윗도 삶의 끝 무렵에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했을 때 그러했습니다(왕상 2:5–9). 저 온유하고 차분한 모세의 성품이 어떻게 이토록 맹렬하게 타올라, 자기 형제들의 피를 뒤집어쓰고 피에 젖은 채 새로운 살육을 하러 진영을 달려 다니게 되었습니까? 평생 그토록 온유했던 다윗이 어떻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저 피로 물든 유언을 남겨, 아들이 요압과 시므이의 CO 1109 백발을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보응을 집행함으로써, 아꼈더라면 더럽혔을 자기 손을 이렇게 엄하게 행함으로써 거룩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잠 16:12). 또 "심판 보좌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잠 20:8). 또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잠 20:26). 또 "은에서 찌

끼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잠 25:4–5). 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잠 17:15). 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잠 17:11). 또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입으려니와"(잠 24:24). 이제 칼을 빼어 들고 죄 있는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뒤쫓는 것이 그들의 참된 의라면, 그들이 칼을 칼집에 넣고 손을 피에서 깨끗이 지키는 동안 버림받은 자들이 살인과 학살로 흉악하게 날뛴다면, 그들은 지극한 불경건의 죄에 스스로 얽매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선함과 의의 칭찬을 얻기는커녕 말입니다. 다만 모질고 사나운 가혹함은 물러가고, 마땅히 "피고인들의 암초"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재판석도 물러가야 합니다. 저는 무자비한 잔혹함을 편드는 사람이 아니며, 솔로몬이 단언하듯 왕의 보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것인 관용(잠 20:28), 곧 왕들의 가장 좋은 고문이 늘 곁에 앉아 있지 않고서도 공정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옛날 어떤 사람은 관용이 통치자의 첫째 덕목이라고 옳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정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살펴야 합니다. 지나친 엄격함으로 고치기보다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또한 관용을 미신적으로 꾸며 대다가 부드럽고 느슨한 너그러움으로 많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려 가장 잔인한 인정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 네르바의 통치 아래에서 사람들이 떠들어 댄 말도 까닭 없는 것이 아닙니다.[613]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는 통치자 아래 사는 것은 참으로 나쁘지만, 모든 것이 허락되는 통치자 아래 사는 것은 훨씬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10. 그런데 왕들과 백성들이 이런 공적인 보응을 행하기 위하여 때로는 무기를 들어야 하므로, 같은 이치로 이렇게 일으키는 전쟁이 정당하다는

613. 네르바(Nerva)는 로마 황제(재위 96–98년)입니다.

것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통치 영역의 평온을 지키고, 불온한 사람들의 소요를 누르고, 폭력으로 억눌린 이들을 돕고, 악행을 처벌할 권세가 주어졌다면, 개인 각자의 평안과 모든 사람의 공동의 평온을 어지럽히고, 소요를 일으키며, 폭력적 억압과 부당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의 광기를 누르는 것보다 그 권세를 내보일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법의 파수꾼이요 옹호자인 것이 마땅하다면, 그들은 그 범죄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자의 시도를 똑같이 뒤엎어야 합니다. 아니, 그들이 겨우 몇 사람에게만 해를 끼친 강도들을 정당하게 벌한다면, 온 지역이 약탈로 괴롭힘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무 권리도 없는 남의 땅에 쳐들어가 적대적으로 괴롭히는 자가 왕이든 가장 낮은 평민이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강도로 여겨지고 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의 공평과 직무의 이치가 이것을 일러 줍니다. 통치자들은 사적인 악행을 재판의 형벌로 억누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신실함에 맡겨진 통치 영역이 언제든 적의 공격을 받으면 전쟁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무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의 많은 증언으로 이런 전쟁이 정당하다고 밝히십니다.

11. 그런데 신약에는 전쟁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일이라고 가르치는 증언도 본보기도 없다는 반론이 제게 들어온다면, 저는 먼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전쟁 수행의 이치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반대로 위정자들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일을 막을 까닭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사도들의 글에서 이런 일들을 명시적으로 다룬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이 지나가는 길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 하자면, 만일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 모든 전쟁을 정죄한다면, 구원의 길을 묻는 군인들에게 차라리

무기를 내던지고 군대에서 아주 물러나라는 권고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눅 3:14). 자기 요가 족해야 한다고 명한 이는 분명히 군 복무를 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위정자는 자기 욕망을 조금이라도 따르지 않도록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형벌을 가해야 할 때에는, 성급한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며, 누그러지지 않는 가혹함으로 불타지 말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그 사람의 고유한 범죄를 벌하면서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공통된 본성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적, 곧 무장한 강도를 향하여 무기를 들어야 할 때에는, 가벼운 기회를 붙잡지 말고, 아니 주어진 기회라도 극한 필요에 몰리지 않는 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평화를 구하는 일로 보이기를 원했던 저 이방인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면, 무기로 결판을 내기 전에 분명히 모든 것을 먼저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에서, 그들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공적인 생각에 이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권세를 가장 악하게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섬김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수비대와 동맹과 그 밖의 국가 방비의 이치도 같은 전쟁 수행의 권리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비대라고 부르는 것은 지역의 경계를 지키려고 여러 도시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웃 통치자들이 자기 영토에 어떤 소란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고 힘을 모아 인류 공동의 원수들을 누르기로 하는 조건으로 맺는 것입니다. 국가 방비라고 부르는 것은 군사 기술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12. 마지막으로 이것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세와 관세는 통치자들의 정당한 수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엇보다 자기 직무의 공적인

짐을 감당하는 데 써야 하지만, 그들이 맡은 통치의 품위와 어떤 의미에서 이어져 있는 집안의 위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과 다른 거룩한 왕들, 또한 요셉과 다니엘도, 경건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자기가 맡은 인격에 걸맞게 공적인 비용으로 넉넉히 지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아주 넓은 땅이 왕들에게 주어진 것을 읽습니다(겔 48:21). 거기서 에스겔은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를 그리고 있지만, 그 그림의 본은 사람의 정당한 왕국에서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통치자들 자신도 반대로, 자기 금고가 사사로운 돈궤라기보다 온 백성의 공동 금고라는 것을(바울이 롬 13:6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낭비하거나 탕진하면 드러난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거의 백성의 피 자체이니, 그것을 아끼지 않는 것은 가장 무서운 비인간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부과하는 부담금과 헌납과 그 밖의 여러 종류의 조세가 다만 공적인 필요를 채우는 도움일 뿐이며, 까닭 없이 그것으로 가련한 백성을 지치게 하는 것은 폭군의 약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통치자들에게 낭비와 사치스러운 지출에 대한 배짱을 길러 주는 것이 아닙니다(이미 저절로 지나치게 타오른 그들의 욕망에 불쏘시개를 넣어 줄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감행하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감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경건한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 이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무엇이 얼마만큼 허락되는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개인들에게도 쓸데없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의 지출이 평범한 시민의 정도를 넘더라도, 그들이 그 지출을 모두 경솔하고 방자하게 헐뜯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국가에서 위정자 다음으로 오는 것은 법입니다. 법은 국가의 가장 강한 힘줄이며, 키케로가 부른 대로 하면 국가의 영혼입니다. 법 없이는 위정자가 설 수 없고, 반대로 법도 위정자 없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

므로 법은 말 없는 위정자요, 위정자는 살아 있는 법이라는 말보다 더 참된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의 국가가 어떤 법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말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누구도 CO 1111 가장 좋은 법의 종류에 관한 긴 논의를 기대할 까닭은 없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을 것이고, 지금의 주제에도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몇 마디로, 이를테면 지나가는 길에, 그리스도인의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쓸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바르게 다스려질 수 있는 법이 어떤 것인지 적어 두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위험하게 길을 잃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것마저 아예 말없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모세의 국법을 무시하고 여러 민족의 공통된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는 바르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가 얼마나 위험하고 소란스러운지는 다른 사람들이 살펴보라고 하십시오. 저로서는 그것이 거짓되고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도덕법과 의식법과 재판법으로 나누는 저 널리 알려진 구분을 지켜야 하고, 각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해당하고 무엇이 덜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재판법과 의식법도 도덕에 관계된다는 거리낌에 아무도 붙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구분을 전해 준 옛사람들은 뒤의 두 부분이 도덕을 다룬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도덕을 해치지 않고도 바뀌고 폐지될 수 있었으므로 도덕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첫째 부분만을 특별히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것 없이는 참된 도덕의 거룩함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 그러므로 먼저 도덕법부터 시작하자면, 도덕법은 두 강령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순전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른 하나는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으라고 단순하게 명합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은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정해진 참되고 영원한 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당신을 섬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법은 유대인들의 몽학 선생의 지킴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그 백성의 이를테면 어린 시절을 훈련하기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충만한 때가 와서,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땅에 온전히 나타내시고, 그때 모형으로 그림자처럼 보이던 것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까지였습니다. 재판법은 그들에게 국가 제도 대신 주어진 것으로서, 그들이 서로 흠 없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의 일정한 법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의식의 훈련은 본래 경건의 가르침에 속했지만(그것은 유대인들의 교회를 하나님 예배와 경건 안에 붙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경건 자체와는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판의 형식도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 명하는 바로 그 사랑을 가장 잘 지키게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사랑의 계명 자체와는 구별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 안전하고 온전히 남은 채로 의식들이 폐지될 수 있었듯이, 이 재판법의 규정들이 없어져도 사랑의 영원한 의무와 계명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이라면, 각 민족에게는 분명히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법을 만들 자유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들은 저 영원한 사랑의 규칙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다르더라도 이치는 같아야 합니다. 도둑을 영예롭게 대한 법, 문란한 동침을 허락한 법, 그 밖에 훨씬 더 추하고 터무니없는 법들 같은 저 야만스럽고 사나운 법들은, 저는 결코 법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정의뿐 아니라 인간다움과 온유함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5. 제가 말한 것은, 우리가 모든 법에서 마땅히 이 두 가지, 곧 법의 규정과, 그 규정 자체가 그 이치에 기대고 있는 공평을 살펴본다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공평은 본성적인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도 일의 종류에 따라 같은 공평을 목표로 삼아

야 합니다. 규정들은 부분적으로 거기에 달려 있는 어떤 상황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두가 똑같이 같은 공평의 과녁을 겨냥하기만 한다면 서로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율법은 본성의 법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기신 양심의 증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공평의 이치 전체가 그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만이 모든 법의 과녁이요 규칙이요 한계여야 합니다. 어떤 법이든지 그 규칙에 맞추어 만들어지고, 그 과녁을 향하며, 그 한계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과 다르든 서로 다르든, 우리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도둑질을 금합니다. 유대인들의 국가에서 도둑질에 어떤 벌이 정해졌는지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출 22장). 다른 민족들의 가장 오래된 법들은 도둑질을 갑절로 벌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법들은 현행범의 도둑질과 현행범이 아닌 도둑질을 구별했습니다. 어떤 법들은 추방에까지, 어떤 법들은 채찍질에까지, 또 어떤 법들은 마침내 사형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거짓 증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같은 것으로 갚는 벌로 처벌받았고, 다른 곳에서는 무거운 수치로만, 다른 곳에서는 교수형으로, 다른 곳에서는 십자가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살인은 모든 법이 똑같이 피로 보응하지만, 죽음의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간음한 자들에게는 어떤 곳에서는 더 엄한 벌이, 어떤 곳에서는 더 가벼운 벌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다양함 속에서도 모든 법이 같은 목적을 향한다는 것을 봅니다. 모든 법이 한목소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 정죄한 범죄들, 곧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 증언에 벌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벌의 정도에서 일치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살인자들에게 끔찍한 본보기로 엄하게 다루지 않으면 곧바로 살육과 강도질로 망하고 말 지역이 있습니다. 형벌의 혹독함을 더하기를 요구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악덕을 아주 엄하게 누르지

않으면 그쪽으로 더 기우는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가장 알맞은 이런 다양함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심술궂고 공공의 유익을 시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고 다른 새 법들을 그보다 앞세우면 그 율법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떠벌리는 말은 지극히 헛됩니다.[614]

614. 이 문장의 끝부분(“다른 새 법들을 그보다 앞세우면 … 지극히 헛됩니다”)은 다음 편 원문의 첫머리에 있으나, 문장을 끝맺으려고 여기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20장 국가 통치에 관하여 2

CO 1:1113–112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113 [615]다른 법들이 그것보다 앞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견주어서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와 민족의 형편에 따라 더 낫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또 그 법이 폐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 그 법을 모든 민족에게 공포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 민족을 당신의 보호와 비호와 돌봄 아래 받아들이셨을 때, 그 민족에게 특별히 입법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지혜로운 입법자에게 마땅한 대로 법을 주실 때 그 민족을 특별히 헤아리셨습니다.

16. 이제 남은 것은 맨 마지막 자리에 내놓았던 것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곧 법과 재판과 위정자들의 쓰임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 사회에 어떤 유익으로 돌아오는가, 개인들이 위정자들에게 얼마만큼 존경을 바쳐야 하는가, 어떤 순종이 마땅한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위정자의 직무가 쓸데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갚는 것, 법정에 고소하는 것, 소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경건하게는 위정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위정자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롬 13:4).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위정자의 손과 보호로 악한 자들의 사악함과 불의에 맞서 지킴을 받아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은택을 우리가 누려서는 안 된다면,

615.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위정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위정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호소하는 것도 불경건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넉넉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송하려는 광기에 얼마나 들끓는지, 남들과 싸우지 않고는 결코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송 자체를 치명적인 미움의 독기와, 원수를 갚고 해치려는 미친 욕망으로 벌이고, 누그러지지 않는 고집으로 상대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도 법에 따라서만 한다고 여겨지도록, 재판이라는 구실로 이런 비뚤어짐을 감쌉니다. 그러나 형제와 재판으로 다투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를 미워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해치려는 미친 열심으로 달려들어서도 안 되고, 고집스럽게 뒤쫓아서도 안 됩니다.

17.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판은 바르게 쓰기만 하면 정당합니다. 그리고 바른 쓰임이란 원고에게는 소송을 거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변호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날에 출두하여, 할 수 있는 항변으로 신랄함 없이 자기 사건을 변호하되, 오직 자기 것을 법으로 지키려는 마음으로만 해야 합니다. 원고는 목숨에서든 재산에서든 부당하게 억눌렸을 때 위정자의 신의에 자기를 맡기고, 자기 고충을 내놓고, 공평하고 선한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치거나 원수를 갚으려는 모든 욕심을 멀리하고, 가혹함과 미움을 멀리하고, 다툼의 열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원수 같은 마음으로 상대에게 달려들기보다는, 자기 것을 내주고 무엇이든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악의로 물들고, 시기로 썩고, 분노로 불타고, 보복을 내뿜거나, 마침내 다툼의 열기로 달아올라 사랑에서 얼마쯤이라도 물러서게 된다면, 가장 의로운 사건이라도 그 소송 전체가 불경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확정된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아무리 공평한 소송이라도, 다투는 일이 이미 우호적으로 타결되고 정리된

것처럼 상대를 똑같은 사랑과 호의로 대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소송을 의롭게 다룰 수 없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런 절제는 법정에 들어오는 일이 결코 없어서 만일 누가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이적과 같을 것이라고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풍속이 이러하니, 올바른 소송인의 본보기가 드물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 자체는 어떤 악이 덧붙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선하고 깨끗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정자의 도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고 들을 때, 우리는 그만큼 더 부지런히 그것이 우리의 허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8. 모든 법정 다툼을 딱 잘라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와 함께, 깨끗한 자들에게는 깨끗할 수 있는 것들에 속하는 선물을 물리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소자들의 중상을 물리쳤는데, 그들의 교활함과 악의를 드러내어 물리쳤습니다. 또 법정에서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자기에게 주장했고, 필요할 때에는 불의한 총독에게서 가이사의 법정으로 상소했습니다(행 22:1; 24:12; 25:10).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수 갚으려는 욕망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욕망을 그리스도인의 법정에서 가장 멀리 쫓아냅니다(마 5:39; 신 32:35; 롬 12:19). 민사로 다툴 때에는, 해 없는 단순함으로 자기 사건을 공적인 보호자에게 맡기듯 재판관에게 맡기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 곧 악을 악으로 되갚으려는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바른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소송이나 어떤 무거운 소송을 걸 때에는, 우리는 이런 고소자를 요구합니다. 곧 원수 갚으려는 열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입은 불의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은 채 법정에 나와서, 오직 해로운 사람의 시도를 막아 그것이 국가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만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없애면, 그리스도인

들에게 원수 갚는 것을 금하는 저 명령을 조금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수 갚기를 바라는 것만 금지당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리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손을 기다리라는 명령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위정자에게 자기나 남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원수 갚으심을 앞지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정자의 원수 갚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갚음을 사람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롬 13:4).

19.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조금도 더 부딪치지 않습니다(마 5:39).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고 금하시고,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 대며,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고 명하십니다. CO 1115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제자들의 마음이 보복하려는 욕심을 그토록 싫어하여, 앙갚음하려고 마음을 쓰기보다 차라리 자기에게 가해지는 불의가 두 배가 되는 것을 견디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이 인내에서 떼어 놓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욕과 불의를 견디도록 태어난 사람들이어야 하고, 가장 악한 자들의 사악함과 속임수와 조롱에 내맡겨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 모든 악을 참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곧 마음 전체가 이렇게 다스려져서, 한 고난을 겪고 나면 또 다른 고난에 대비하고, 평생 끊임없이 십자가를 견디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약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며, 그들의 유일한 승리인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힘써야 합니다(롬 12:21; 마 5:38).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기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원수 갚기를 바라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

가르침받는 대로, 자기 몸이 상하고 자기 것을 악의로 빼앗겨도, 그런 불의를 당하자마자 용서하고 스스로 기꺼이 놓아 줄 만큼 그렇게 견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의 공평함과 절제가, 그들이 원수들에게도 온전한 우정을 지키면서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위정자의 도움을 쓰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또 공공의 선을 위한 열심으로, 죽음 말고는 고쳐질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죄 있고 해로운 사람을 처벌하도록 고소하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계명이 이것을 겨냥한다고 참되게 해석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선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악의를 참을성 있게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선한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해야지, 자기도 똑같은 악의로 악한 자들의 수에 더해져서는 안 된다. 또 이 계명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안에 있는 마음의 준비에 더 관계된다. 그래서 마음속 은밀한 데서는 호의와 함께 인내를 지키고, 드러난 데서는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일을 해야 한다."

20. 바울이 소송을 모두 정죄했다고 흔히 내세우는 반론도 거짓입니다. 그의 말씀(고전 6)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소송하려는 지나친 광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기들의 경건(religion) 전체를 불경건한 자들의 트집과 욕설에 내맡길 지경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서 먼저 꾸짖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다툼에서 절제하지 못하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것, 곧 형제가 형제와 그런 식으로 서로 다투었다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참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서로 남의 재산을 탐욕스럽게 노리고, 먼저 건드리고,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소송의 광기를 공격하는 것이지, 어떤 다툼이든 단순히 모두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다툼에까지 애쓰기보다 차라리 자기 재산의 손해를 받지 않은 것

이 전적으로 허물이라고 선언합니다. 곧 그들이 어떤 손해에도 그토록 쉽게 흔들리고 아주 작은 일로도 법정과 소송으로 달려갔으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나치게 성마르고 인내에 덜 준비되어 있다는 표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으로 나아가기보다 늘 자기 권리에서 물러서기를 더 바라도록 힘써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마음이 더 흔들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데 불붙지 않고는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기 재산을 잃으면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될 터인데, 사랑을 잃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면, 그가 그렇게 해도 바울의 이 말씀을 조금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으로 (처음에 가르친 대로) 사랑이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줄 것입니다. 사랑 없이 시작하는 다툼은 무엇이든, 또 사랑을 넘어서 나아가는 다툼은 무엇이든, 불의하고 불경건하다는 것을 우리는 논란의 여지 없이 확정합니다.

21. 백성이 자기 위정자들에게 지는 첫째 의무는, 그들의 직무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그 직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권으로 인정하고, 그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요 사절로서 우러러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위정자들에게 매우 순순히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선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에 복종할 대상이 없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정자들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악쯤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왕을 존대하라고 명할 때(벧전 2:17), 솔로몬은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라고 명할 때(잠 24:21)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존대하다”라는 말로 진실하고 솔직한 존중을 담아냅니다. 솔로몬은 왕을 하나님과 함께 묶어, 왕이 어떤 거룩한 경외와 존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바울에게도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순종하라는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롬 13:5). 이로써 바울이 뜻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들과 관리들을 두려워해서만 그들에게 복종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무장한 원수에게 맞서면

곧바로 보복이 따를 줄 아는 자들이 그 원수에게 굴복하듯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바치는 복종은 하나님 자신께 바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22. 여기서 또 다른 것이 따라 나옵니다. 백성은 그들을 존중하려는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들의 순종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칙령에 따르는 일이든, 세금을 내는 일이든, 공동의 방위에 관계되는 공적인 직무와 짐을 지는 일이든, 그 밖의 어떤 명령을 받드는 일이든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롬 13:1). CO 1117 같은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씁니다. "너는 그들을 일깨워 정사와 권세에 복종하게 하고,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딛 3:1).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모든 제도에, 아니 (내가 해석하기로는) 규례에,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 위에 있는 왕에게나, 악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그가 보낸 총독들에게나 그리하라" (벧전 2:13).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이 복종하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복종한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자기들이 그 아래에서 사는 자들의 안녕과 번영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라고 덧붙입니다(딤전 2:1–2).[616] 그는 말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위정자를 거스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을 수는 없으니, 무장하지 않은 위정자는 벌받지 않고 업신여길 수 있을 듯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무장하고 계셔서 당신을 업신여기는 일을 힘 있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 아래 또 절제도 포함합니다. 개인들은 공적인 일에서 자기를 다스려, 스스로 나서

616. 원문에는 "딤전 2"까지만 있고 절수가 빠져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에 따라 2:1–2로 적었습니다.

서 공적인 일에 끼어들거나, 위정자의 몫에 함부로 뛰어들거나, 무엇이든 공적으로 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적인 질서에서 무엇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들 스스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그 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들 모두의 손이 묶여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정자의 판단에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는 위정자의 손만이 풀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뜻하는 것은, 그들이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감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리의 명령이 더해지면 그들도 이미 공적인 권위를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군주의 고문관들을 군주의 귀와 눈이라고 부르듯이, 군주가 자기 명령으로 일을 맡긴 사람들을 군주의 손이라고 불러도 어리석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23.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이름에 참으로 걸맞은 위정자를 묘사했습니다. 곧 나라의 아버지요, 시인이 말하듯 백성의 목자, 평화의 수호자, 공의의 보호자, 무죄한 자의 변호자인 위정자입니다. 이런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판단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시대에 이런 본보기가 있습니다. 군주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마땅히 힘써 돌보아야 했던 모든 것에 무관심하여, 모든 근심에서 멀리 떠나 게으르게 즐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이익에만 마음을 쏟아, 모든 권리와 특권과 판결과 증서를 팔려고 내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한 백성에게서 돈을 짜내어 뒤에 미친 듯한 낭비로 쏟아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집을 약탈하고, 처녀와 부인을 욕보이고, 어린아이들을 죽여 순전한 강도질을 일삼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군주로 인정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의 통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토록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서, 위정자의 직무만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와도 이토록 동떨어진 악행들 가운데서, 위정자에게서 빛나야 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조금도 보지 못합니다. 선한 자에게는 칭찬하고 악한 자에게는 보응하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자의 흔적을 조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존엄과 권위를 권하는 저 관리도 그들 안에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당한 왕들을 사랑과 공경으로 대하는 것 못지않게 폭군들을 미움과 저주로 공격하는 감정이 언제나 타고나 있었습니다.

24.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은 우리를 더 멀리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마땅한 신실함으로 자기 직무를 바르게 다하는 군주들의 통치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통치권을 쥔 모든 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군주의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것과 전혀 다르게 행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위정자가 사람들의 안녕을 보존하려는 당신의 은혜로운 베푸심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증언하시고, 위정자들 자신에게 그들의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이 어떤 자들이든 오직 당신께로부터만 통치권을 받는다고 선언하십니다. 곧 공공의 선을 위해 다스리는 자들은 당신의 은혜로운 베푸심의 참된 본보기요 표본이고, 불의하고 방자하게 지배하는 자들은 백성의 죄악을 벌하시려고 당신께서 일으키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당신께서 정당한 권세에 갖추어 주신 저 거룩한 위엄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증언 몇 가지를 덧붙이기 전에는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욥 34:30; 호 13:11; 사 3:4; 10:5; 신 28:29). 그렇지만 악한 왕이 땅 위에 내린 주님의 진노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의 재산을 약탈하는 강도나 그대의 잠자리를 더럽히는 간음한 자나 그대를 죽이려고 덮치는 자객에 대해 하는 말보다 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한 셈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재앙을 모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데 더 힘을 쏟읍시다. 곧 가장 악하고 모든 존귀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라도 공적인 권세가 그에게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공의와 심판의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그 뛰어나고 신적인 권세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공적인 순종에 관한 한, 가장 좋은 왕이 주어진다면 그에게 보일 존경과 똑같은 존경으로 그를 대해야 합니다.

25. 먼저 저는 독자들이 성경에서 까닭 없이 우리에게 그토록 자주 일러 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나라들을 나누어 주시고 당신께서 좋게 보시는 자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을 주의하고 부지런히 살피기를 바랍니다. CO 1119 다니엘서에서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며 세우십니다(단 2:21, 37). 또 "살아 있는 자들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617]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가득하지만, 특히 저 예언서에 넘쳐 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남의 땅을 거침없이 침략하고 약탈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그가 애굽을 황폐하게 하는 일로 당신을 섬긴 그 섬김의 대가로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다고 단언하십니다(겔 29:19). 다니엘도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에게 주셨다고 나는 말합니다. 또 사람의 아들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사는 모든 땅을 왕의 손에 넘기시고 왕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단 2:37). 또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나이다" (단 5:18).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는 말을 들을 때, 동시에 왕을 존대하고 경외하라는 저 하늘의 명령들을 마음에 되새깁시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617. 이 둘째 인용은 단 4:17에 있습니다. 원문은 이 대목 첫머리에 "단 2:21, 37"만 적었습니다.

악한 폭군이라도 주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 그 자리에 두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왕들에게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려 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에 두고 자기 기병으로 삼으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곡식을 거두게 하며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가장 좋은 감람원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자기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남종과 여종과 나귀를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 양 떼의 십분의 일도 거둘 것이요,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삼상 8:11). 분명히 왕들이 이런 일을 정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모든 절제로 가장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신 17:16). 그러나 이것은 백성에 대한 "권리" 라고 불렸습니다. 백성은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맞서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왕들의 욕심은 방자함으로 치달을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남는 것은 이 하나, 곧 명령을 받들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26. 그런데 특히 예레미야서에 뛰어나고 기억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렘 27:5). 꽤 길지만 이 문제 전체를 가장 분명하게 결론지어 주므로 옮겨 적기를 꺼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큰 능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사람과 지면에 있는 짐승들을 만들었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땅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나의 종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니, 모든 민족과 큰 왕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를 때까지 그러하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두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내가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므로 바벨론 왕을 섬기고 살라." 주님께서 저 흉

포하고 사나운 폭군이 얼마나 큰 순종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 까닭은 다름 아니라 그가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가 주님의 작정으로 왕좌에 앉혀지고 왕의 위엄에 올려졌다는 뜻이었고, 그 위엄은 범하는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들도 왕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바로 그 작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늘 우리 마음과 눈앞에 있다면, 왕은 그 공과대로 대해야 한다느니, 우리에게 왕 노릇을 다하지 않는 왕에게 우리가 백성 노릇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느니 하는 저 반역적인 생각들이 결코 우리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27. 누가 이 명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반박해도 헛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 명령을 세우시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그를 섬기고 살라" (렘 27:17). 그러므로 누구에게든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군가를 왕의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순간, 그분은 그가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이에 관해서는 성경의 일반적인 증언들이 있습니다. 욥기 28장에는 "땅의 죄악 때문에 주관자가 많다" 고 합니다.[618] 또 "그분은 왕들의 복종을 거두시고, 다시 그들의 허리에 띠를 띠우신다" 고 합니다(욥 12:18). 이것을 인정하면, 섬기고 사는 것 말고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는 주님의 또 다른 명령도 있습니다(렘 29:7).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곳을 위해 당신께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이 평안해야 그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집에서 끌려나와, 유배지로 쫓겨나, 비참한 종살이에 던져졌는데도, 정복자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박해하는 자들을

618. 이 말씀은 욥기가 아니라 잠 28:2에 있습니다.

위해 복을 빌라고 명령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존되어 그들도 그 아래에서 잘 지내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왕으로 지명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 받았는데도,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에게 부당하게 공격받았을 때, 자기를 노리는 자의 머리를 거룩하고 범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왕의 존귀로 그 머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내 주, 곧 주님의 메시아에게 이 일을 하여 그에게 내 손을 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삼상 24:6, 10).[619] 또 "내 마음이 그대를 아끼어 말하기를, 내 손을 내 주에게 대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였다"고 합니다(삼상 24:10).[620] CO 1121 또 "누가 손을 들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고 죄가 없겠느냐? 주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주님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가 죽을 날이 이르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28.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통치자에게, 그들이 결국 어떤 자들이든, 이런 존경의 마음, 아니 경건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주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자체를 따져 보지 말고, 그들이 주님의 뜻으로 그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으로 넉넉히 여기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 직분에 범할 수 없는 위엄을 찍으시고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말할 것입니다. "통치자들도 자기 백성에게 서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것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이로부터 정의로운 통치에만 복종으로 갚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면, 그대는 어리석게 추론하는 사람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619. 원문은 "삼상 24:7, 11"입니다. 불가타 성경의 절수이므로 개역한글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620. 원문은 이 인용에 "삼상 26:9"를 붙였습니다. 이 말은 삼상 24:10(불가타 24:11)에 있고, 뒤의 인용("누가 손을 들어 …")이 삼상 26:9–11에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서로의 의무로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남편이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합시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금지를 받았는데도(엡 6:4),[621] 자녀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다루기 힘든 사람이 되어 그 까다로움으로 그들을 지나치게 지치게 한다고 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연약한 그릇처럼 아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엡 5:25; 벧전 3:7), 아내를 가장 모욕적으로 대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덜 순종하겠습니까? 그들은 악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종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등 뒤에 매달린 자루를 돌아보지 않도록, 곧 서로 남의 의무를 캐묻지 않고 각자 자기 직분에 속한 것 하나만을 자기 앞에 두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남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잔인한 군주에게 잔인하게 고문당하거나, 탐욕스럽거나 방탕한 군주에게 약탈당하거나, 게으른 군주에게 버려지거나, 마침내 불경건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군주에게 경건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면, 먼저 우리의 죄를 떠올립시다. 이런 주님의 채찍으로 징계받는 것은 의심할 것 없이 그 죄들입니다(단 9:7). 다음으로 이런 생각도 떠올립시다. 이런 악을 고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왕들의 마음과 나라들의 기울어짐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잠 21:1). 그분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고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시 82:1).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지 않은 모든 왕과 땅의 재판관들은 넘어지고 부서질 것입니다(시 2:10). 불의한 법을 기록하여 재판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비천한 자들의 송사를 짓밟으며, 과부를 노략하고 고아를 약탈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사 10:1).

29. 그리고 여기서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과 섭리가 놀랍게 드러납니다.

621. 원문에는 “엡 6:1. 벧전 3”(절수 빠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엡 6:4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때에는 당신의 종들 가운데서 드러난 보응자들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명령으로 무장시키셔서, 그들이 악한 지배를 벌하고 불의하게 억눌린 백성을 비참한 재난에서 건지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꾀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그 일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바로의 폭정에서, 옷니엘을 통해 수리아 왕 구산의 폭력에서 해방하셨고, 다른 왕들이나 사사들을 통해 다른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애굽 사람들을 통해 두로의 교만을, 앗수르 사람들을 통해 애굽 사람들의 오만을,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앗수르 사람들의 포악을,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통해 바벨론의 자만을 꺾으셨습니다. 또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배은망덕과, 그토록 많은 당신의 은택에 맞선 불경건한 완고함을, 어떤 때에는 앗수르 사람들을 통해, 어떤 때에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쳐부수고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같은 방식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앞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정당한 부르심으로 불렸으므로, 왕들을 칠 때 하나님의 규례로 왕들에게 주어진 위엄을 조금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큰 권세로 더 작은 권세를 억제했습니다. 왕들이 자기 지방 장관들을 처벌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분이 좋게 보신 곳으로 정해졌고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일을 이루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직 악행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30. 그러나 사람들의 행위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께서는 그 행위를 통해 똑같이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만한 왕들의 피 묻은 홀을 꺾으시고 견딜 수 없는 지배를 뒤엎으실 때 그러셨습니다. 군주들은 듣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한 명령으로 확정하신, 공경할 위엄으로 가득한 위정자들의 권위를, 그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있고 그들이 자기의 사악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더럽힌다 하더라도, 업신여기거나 범하지 않도록 가장 크게 조심

해야 합니다. 고삐 풀린 지배를 바로잡는 것이 주님의 보응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고 참으라는 것 말고 다른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개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왕들의 방자함을 견제하도록 세워진 백성의 위정자들이 있다면(옛날 라케다이몬의 왕들에게 맞서 세워진 에포로이, 로마의 집정관들에게 맞선 호민관들, 아테네 사람들의 의회에 맞선 데마르코이가 그러했습니다. 또 지금 형편으로 보면, 각 나라에서 세 신분이 주요 회의를 열 때 아마 그런 권세를 행사할 것입니다),[622] 저는 그들이 자기 직무를 따라 왕들의 사나운 방자함에 맞서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왕들이 방자하게 날뛰며 비천한 백성을 짓밟는 것을 눈감아 준다면, 그들의 모르는 체함은 사악한 배신이 없지 않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백성의 자유를 지키는 보호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유를 속임수로 내주기 때문입니다.

31. 그러나 우리가 통치자들의 명령에 마땅하다고 정한 그 순종에는 언제나 이런 예외를 두어야 하고, 아니 무엇보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곧 그 순종이 우리를 그분께 대한 순종에서 떼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왕의 소원은 그분의 뜻 아래 있고, 그들의 명령은 그분의 작정에 물러서며, 그들의 권위의 상징은 그분의 위엄 앞에 숙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분 때문인데,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그분의 노여움을 사는 데 빠진다면, CO 1123 그것이 얼마나 앞뒤가 뒤바뀐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거룩한 입을 여시면, 그분만이 모든 사람 대신에, 또 모든 사람 위에서 들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622. 에포로이(ephori)는 스파르타(라케다이몬)에서 해마다 뽑아 왕을 견제한 다섯 감독관입니다. 데마르코이(demarchi)는 아테네의 구(區) 단위 행정관을 가리키는 말인데, 칼빈은 로마의 호민관에 견주어 썼습니다. 세 신분은 성직자·귀족·평민의 신분 회의를 말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거스르는 무엇을 명령한다면, 그것은 아무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아무것으로도 헤아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정자들이 지닌 그 모든 존엄에 조금도 마음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존엄이 하나님의 독특하고 참으로 가장 높은 권세 앞에서 제자리로 물러서게 될 때, 그것은 아무 불의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굳셈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까운 위험이 닥쳐 있는지 압니다. 왕들은 자기가 업신여김 받는 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잠 16:14). 그러나 하늘의 전령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는 명령을 선포했으므로, 이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합시다. 곧 우리가 경건에서 벗어나기보다 차라리 무엇이든 견딜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바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은 또 다른 자극을 줍니다(고전 7:23).[623] 곧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에 치르신 그토록 큰 값으로 구속받았으니, 사람들의 악한 욕심에 우리 자신을 종으로 넘겨주어서는 안 되고, 더구나 불경건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623. 원문에는 "고전 7:26"으로 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고전 7:23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1539–1554년판 · 제21장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1539–1554년판 제21장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1

CO 1:1123–113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123 제21장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1. 그리스도인의 삶을 빚어내는 일을 맡으면서, 저는 다양하고 풍부한 주제에 들어섭니다. 이 주제를 그 모든 부분까지 빠짐없이 다루고자 한다면, 그 크기만으로도 긴 책 한 권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의 권면이 덕목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지은 것인데도 얼마나 길게 퍼져 나가는지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지나친 수다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덕목이든 말로 권하려고 마음먹으면, 문체가 자료의 풍부함 때문에 저절로 그만큼 넓게 뻗어 나가게 되어,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논한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전하겠다고 밝히는 삶의 가르침을, 덕목을 하나하나 따로 다루고 권면으로까지 뻗어 나갈 만큼 늘이려는 생각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이들의 글, 특히 옛사람들의 설교에서 찾으십시오. 제게는 경건한 사람이 삶을 세우는 바른 목표로 이끌려 가는 방법을 보여 주고, 그가 자기 의무를 견주어 보아도 잘못되지 않을 어떤 보편적인 규칙을 간단히 정해 준다면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웅변을 펼칠 때는 아마 언젠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저작의 계획은 간단한 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훑을 것을 요구합니다. 철학자들은 옳고 고상한 것의 확실한 경계를 정해 두고, 거기서 개별 의무들과 덕목들의 온 무리를 이끌어 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 일에서 자기 질서를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경륜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철학자들의 모든 질서보다 훨씬 더 확실합니다. 다른 점은 이것뿐입니다. 철학자들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자기 재주의 능숙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정교하고 분명한 배열을 부지런히 꾸며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꾸밈없이 가르치셨으므로, 방법적인 순서를 그렇게 정밀하게, 또 줄곧 지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곳에서 그 순서를 내놓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넉넉히 내비치십니다.

2.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주로 두 부분에 힘을 쏟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본성으로는 조금도 기울지 않는 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심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의를 추구하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규범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를 권하는 이유가 매우 많고 매우 좋은데, 그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는 앞에서 여러 곳에서 짚었고, 몇 가지는 여기서 아직 짧게 다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므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고 일깨울 때(레 19:2; 벧전 1:16)보다 더 좋은 기초에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흩어진 양들처럼 흩어져 세상의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께 모으시려고 다시 거두어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거룩함이 그 결합의 끈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는 우리가 거룩함의 공로로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닙니다(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으로 적셔지려면 먼저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불의와 더러움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려면 늘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빠져 있던 세상의 사악함과 더러움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우리가 평생 그 안에서 뒹굴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함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 가운데 헤아려지려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살아야 한다고 일깨웁니다. 주님께서 그 도성을 당신께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그곳 주민들의 더러움으로 그 도성이 속되게 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는 흠 없이 행하고 의를 힘쓰는 자들이 머물 자리가 있으리라 하는 것 등입니다(사 35:8 그 밖의 곳; 시 15:2; 롬 6:18).[624]

3. 성경은 우리를 더 잘 깨우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 형상을 우리에게 새기셨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자, 도덕 철학이 오직 철학자들에게서만 바르고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뛰어난 경륜을 철학자들에게서 찾아 내게 보여 주십시오. 철학자들은 덕으로 훌륭하게 권하려 할 때, 본성에 맞게 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샘에서 권면을 이끌어 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 삶이 매여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명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창조의 참된 근원과 법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친 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본보기로 세워졌으니 우리 삶에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하나보다 더 효력 있는 것을 무엇에서 찾겠습니까? 아니, 이 하나 너머에 무엇을 더 찾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양자됨의 끈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이 조건으로 주님께 양자로 삼아졌다면, 우리가 의에 우리 자신을 바치고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가장 악한 배신으로 우리의 창조주에게서 떨어져 나갈 뿐 아니라 구원자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 주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과 우리 구원의 각 부분에서 권면의 재료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로 보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께 자녀

624. 원문은 “시 14:2”입니다. 불가타 성경의 시편 번호이므로 개역한글 시 15:2로 바꾸었습니다.

로 보여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극도의 배은망덕으로 책망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말 1:6; 엡 5:1; 요일 3:1).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이 씻음을 세례로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더러움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엡 5:26; 히 10:10; 고전 6:11, 15; 벧전 1:19).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에 접붙이셨으니, 그분의 지체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얼룩이나 흠도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요 15:3; 엡 5:23). 우리의 머리이신 바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으니, 우리가 땅의 애착을 벗어 버리고 온 마음으로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골 3:1).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바치셨으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힘써야 하고, 죄의 더러움으로 우리가 속되게 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고전 3:16; 6:19; 고후 6:16).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늘의 썩지 않음과 시들지 않는 면류관으로 정해졌으니, 그것들을 주님의 날까지 깨끗하고 썩지 않게 보존하도록 힘차게 애써야 한다고 합니다(살전 5:23). 이것들이야말로, 제가 말하건대, 삶을 바르게 세우는 가장 복된 기초입니다. 덕을 권할 때 사람의 본성적 품위 위로 한 번도 오르지 못하는 철학자들에게서는 이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4.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표 말고는 그리스도에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원하는 자들을 꾸짖을 자리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낯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합니까? 복음의 말씀에서 그분을 아는 바른 지식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고 배우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엡 4:22). 그러므로 그들은 그동안 복음에 대해 아무리 능란하고 유창하게 떠벌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거짓이요 그리스도께 대한 모욕

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 교리는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문처럼 지성과 기억으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혼 전체를 차지하고 마음의 가장 깊은 애정 속에 자리와 거처를 얻을 때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가 아닌 것을 자랑하기를 그치든지, 아니면 스승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은 제자가 아님을 보여 주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경건(religion)이 담긴 교리에 첫자리를 주었습니다. 우리 구원이 그 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우리에게 열매 없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가슴속으로 흘러들어 행실로 옮겨 가야 하고, 나아가 우리를 그 교리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삶의 스승이어야 할 학문을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궤변의 수다로 바꾸는 자들에게 정당하게 분노하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자기 무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입술 끝에서만 굴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저 실없는 궤변가들을 우리는 얼마나 더 정당한 이유로 혐오하겠습니까? 복음의 효력은 철학자들의 차가운 권면보다 백 배나 더 마음의 가장 깊은 애정 속으로 파고들어, 영혼에 자리 잡고, 사람 전체를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5.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완전한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풍기지 않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바라야 할 것이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적 완전함을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하여,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아직 먼 거리만큼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많은 사람은 아직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들을 내버리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목표를 우리 눈앞에 세워 두고, 우리의 열심을 그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우리가 힘쓰고 달려갈 저 결승점을 앞에 세웁시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대에게 정해진 것 가운데 일

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그대 마음대로 지나쳐 버리는 식으로 하나님과 나누어 가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첫째 자리에서 어디서나 온전함을 당신께 드리는 예배의 으뜸가는 부분으로 권하십니다(창 17:1 그 밖의 곳). 이 이름으로 그분이 뜻하시는 것은 꾸밈과 거짓이 없는 마음의 진실한 단순함이며, 그 반대는 두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몸이라는 감옥 안에서 마땅한 속도로 서둘러 달릴 만큼 힘을 넉넉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은 너무 큰 연약함에 눌려, 비틀거리고 절뚝거리며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 자기의 작은 능력의 분량대로 가며, 시작한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날마다 적어도 얼마쯤의 길을 가지 못할 만큼 불행하게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에서 끊임없이 얼마라도 나아가기를 그치지 맙시다. 성과가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도 맙시다. 성과가 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오늘이 어제를 이긴다면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한 단순함으로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고 결승점을 사모합시다. 우리 자신에게 아첨하며 비위를 맞추지도 말고 우리 악에 너그럽지도 말며,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나아지도록 끊임없이 힘을 쏟읍시다. 마침내 선함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평생 그것을 찾고 따르며, 육의 연약함을 벗고 그것과의 온전한 교제에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6. 주님의 율법은 삶을 세우는 가장 좋고 가장 알맞게 배열된 방법을 지니고 있지만, 하늘의 스승께서는 당신께서 율법에 정해 두신 규칙을 따라 당신의 백성을 더 정밀한 방식으로 빚어 가기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첫머리는 이것입니다. 신자들의 의무는 자기 몸을 살아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롬 12:1), 그분께 드리는 정당한 예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권면의 근거가 나옵니다. 곧 이 세대의 모양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고 바쳐졌으니, 이제부터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궁리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큰 일입니다. 거룩한 것을 속된 용도에 쓰는 것은 불의 없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면, 어떤 오류를 피해야 하고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어디로 향하게 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지배하지 않게 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찾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세우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잊읍시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읍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뜻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게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을 유일한 정당한 목적으로 삼아 그분께로 달려가게 합시다. 오,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자기에 대한 지배와 통치를 자기 이성에게서 빼앗아 주님께 넘겨드린 사람은 얼마나 크게 나아간 것입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효력 있는 역병이듯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원하지도 않고 오직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항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첫 단계로 삼읍시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 그 재능의 모든 힘을 주님께 대한 순종에 쏟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육의 고유한 감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의 뜻에 따라 온전히 돌아서는 순종입니다.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부르는 이 변화는(엡 4:23; 골 3:10) 생명에 들어가는 첫 입구인데도, 철학자들은 모두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성만을 사람의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 오직 이성만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결국 행실의 통치권을 오직 이성에게만 넘기고 맡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철학은 이성이 자리를 내주고 성령께 복종하고 굴복하라고 명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이제 더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7. 여기서 또 다른 것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서 나오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큰 진보입니다. 곧 우리 자신을 거의 잊고, 적어도 우리 자신에 대한 고려를 뒤로 미루고, 주님과 그분의 계명에 우리의 열심을 신실하게 쏟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사사로운 고려를 버리라고 명할 때, 성경은 소유욕과 권력에 대한 야심과 사람들의 환심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 없앨 뿐 아니라, 명예욕과 사람의 영광에 대한 모든 갈망과 그 밖의 더 은밀한 역병들도 뿌리째 뽑아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평생 자기가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다고 여기도록 다스려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의 판단과 셈에 맡길 것이고, 마음의 모든 지향을 경건하게 그분께로 돌릴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배운 사람은 동시에 모든 헛된 생각에서 돌아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첫 훈련 때부터 그토록 부지런히 명하시는 자기 부인입니다(마 16:24). 이 자기 부인이 한번 마음을 차지하면, 먼저 교만과 허세와 과시에, 다음으로 탐욕과 정욕과 사치와 나약함과 그 밖에 자기 사랑에서 생겨나는 악들에게 아무 자리도 남겨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부인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서는 가장 더러운 악덕들이 부끄러움 없이 퍼져 돌아다니거나, 어떤 덕의 겉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영광을 구하는 비뚤어진 욕심으로 더럽혀집니다. 할 수 있거든 한 사람이라도 보여 주십시오. CO 1129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도 사람들 가운데서 값없이 선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적어도 칭찬을 얻으려고 덕을 따랐습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덕은 그 자체를 위해 추구해야 한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한 자들은, 교만이 그토록 부풀어 있어서, 오직 자랑할 거리를 얻으려고 덕을 추구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기를 좇는 저 사람들이나 부풀어 오른 저 가슴들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셔서, 앞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시고, 창녀들과 세리들을 뒤의 사람들보다 하늘나라에 더 가깝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동안 옳은 것을 추구하는 데 무엇에, 또 얼마나 큰 장애물에 가로막히는지 우리는 아직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사람의 영혼 속에 악덕의 세계가 감추어져 있다고 한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대한 고려를 뒤로 하고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것도 오직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는 데 마음 전체를 쏟는 것 말고는 다른 치료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8.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선한 신의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쏟으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먼저 본성의 감정에서 비워지지 않으면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모두 눈이 먼 채 자기 사랑으로 내달리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는 자기를 높이고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와 견주어 업신여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부끄럽지 않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곧바로 그것을 믿고 마음을 높입니다. 부풀어 오를 뿐 아니라 교만으로 거의 터질 지경입니다. 우리에게 넘쳐 나는 악덕들은 남들에게 부지런히 감추고, 우리 자신에게는 아첨하며 그것이 가볍고 하찮다고 꾸며 대며, 아니 때로는 덕인 양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감탄하는 바로 그 재능들이 남들에게 나타나면, 아니 더 뛰어난 재능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심술로 깎아내리고 헐뜯습니다. 남들에게 무슨 악덕이 있으면, 엄하고 날카롭게 따져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밉살스럽게 부풀립니다. 여기서 저 오만이 나옵니다. 우리 각자는 마치 공통의 법에서 면제된 듯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고, 죽을 인생 가운데 누구든 거리낌 없이 사납게 업신여기거나 적어도 자기보다 못한 자로 깔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 평민들은 귀족들에게, 종들은 주인들에게, 배우지 못한 자들은 배운 자들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자기가 뛰어나다는 어떤 생각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자기에게 아첨하며 가슴속에 어떤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흡족하게 하려고 남들의 재능과 행실을 심판합니다. 그러다가 다툼에 이르면 거기서 독이 터져 나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이 부드럽고 상냥하게 흘러가는 동안에는 얼마쯤 온유함을 내보입니다. 그러나 찔리고 자극받을 때에도 같은 겸손의 결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다른 치료책은 없습니다. 이 가장 해로운 다툼 좋아함(φιλονεικία)과 자기 사랑(φιλαυτία)의 역병을 가장 깊은 속에서 뽑아내는 것뿐입니다.[625] 성경의 교리로도 그렇게 뽑힙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재능들은 우리 자신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하고, 누가 그것으로 교만하다면 자기의 배은망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악덕을 끊임없이 돌아보아 우리 자신을 겸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부풀어 오를 거리는 하나도 남지 않고, 낮아질 거리는 많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남들에게서 보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든 공경하고 우러러보아, 그 선물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존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높여 주신 그 존귀를 그들에게서 빼앗는 것은 큰 악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남의 악덕을 눈감아 주라고 배웁니다. 아첨하여 그 악덕을 키우라는

625. 원문의 그리스어는 OCR이 깨져 있습니다(“T^g g>$Xov€$xiag xal ^tXav- %Cag”). τῆς φιλονεικίας καὶ φιλαυτίας로 읽었습니다.

것이 아니라, 그 악덕 때문에 우리가 호의와 존중으로 감싸야 할 사람들을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을 인생 가운데 누구와 상대하든, 절제 있고 겸손하게 처신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다정하게 처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자기를 낮추는 마음과 남을 공경하는 마음이 밴 가슴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길로도 참된 온유함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9. 이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데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대가 자기에 대한 고려에서 떠나 어느 정도 자기를 벗어 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가 자기를 버리고 남들에게 자기 전체를 바치지 않는다면, 바울이 사랑의 일이라고 가르치는 일들을(고전 13:4) 어떻게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여 부풀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등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 이 한 가지만 요구된다 하더라도, 본성에 결코 작지 않은 힘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본성은 우리를 오직 자기 사랑으로만 기울게 하여, 우리가 남의 유익을 돌보려고 우리 자신과 우리 것을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것을, 아니 남에게 넘겨주려고 우리 권리에서 스스로 물러서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리로 손잡아 이끌려고, 우리가 주님께 받는 은사는 무엇이든 교회의 공동의 선에 바쳐지도록 이 법으로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미리 일러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의 정당한 쓰임은 남들과 너그럽고 친절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이웃의 선을 위해 나누어 주라는 이 법으로 우리의 신의에 맡겨졌다고 배울 때보다, 더 확실한 규칙도, 그 규칙을 지키게 하는 더 힘 있는 권면도 생각해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재능들을 사람 몸의 지체들이 갖춘 기능에 견줍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기능을 자기만을 위해 가지지 않고, CO 1131 사사로운 쓰임에 쓰지 않으며,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보냅니다. 또 온몸의 공동 유익에서 나오는 것 말고는 거기서 아무 유익도 얻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형제들을 위해 할 수 있어야 할 빚을 지고 있으며, 교회의 공동의 덕을 세우는 데 마음을 쏟는 방식으로만 자기를 사사로이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친절과 선행의 방법으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신 것은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이며 그 관리에 대해 셈을 해 드려야 할 의무에 매여 있습니다. 또 사랑의 규칙에 맞추어진 관리만이 비로소 바른 관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한 열심을 언제나 우리 자신의 유익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묶을 뿐 아니라, 자기 유익을 남의 유익 아래 두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선물을 바르게 관리하는 법이 이것이라는 것을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없도록, 그분은 옛날에 당신의 친절의 가장 작은 선물들에도 이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곡식의 첫 열매를 당신께 바치라고 명하셔서, 먼저 당신께 바치지 않은 재물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백성이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것을 바로 그 주신 분께 바친 뒤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거룩해진다면, 이런 바침의 향기가 없는 쓰임은 더러운 남용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대가 그대의 재물을 나누어 주님을 부요하게 하려고 애써도 헛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말하듯이(시 16:2) 그대의 친절이 그분께 이를 수 없으니, 그대는 땅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그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10. 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않으려면(그렇지 않으면 곧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가 내놓는 또 하나, 곧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는다는 것이 더해져야 합니다(고전 13:4).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선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는 그들

자신의 공로로 평가하면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가장 좋은 이유로 우리를 돕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을 받을 만한지를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야 하며, 그 형상에는 우리가 모든 존경과 사랑을 빚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그 같은 형상을 믿음의 가정들에게서는 더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갈 6:10). 그들에게서는 그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누구든 그대 앞에 나타나면, 그대는 그에게 그대를 쏟기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낯선 사람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친숙해야 할 표를 그에게 찍어 두셨습니다. 그가 업신여김 받을 만하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당신의 형상의 아름다움으로 높여 주신 사람임을 보여 주십니다. 그대가 그에게 아무 도움도 빚진 것이 없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치 당신의 자리에 대신 세우셔서, 그대가 그를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당신께 매어 놓으신 그 많고 큰 은택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가 그대가 조금도 수고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를 그대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가 그대 자신과 그대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 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의와 악행으로 그대를 자극하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대가 그를 사랑으로 품고 사랑의 도움으로 대하기를 그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는 말할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전혀 다르게 대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실 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그대에게 지은 죄를 무엇이든 용서하라고 명하시면서(눅 17:3), 분명히 그 용서가 당신께 돌려 셈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이 한 길로만 사람의 본성에 어려울 뿐 아니라 완전히 거스르는 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악을 선행으로 갚고, 욕설에 축복으로 답하는 일입니다

(마 5:44). 우리가 사람들의 악의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형상은 그들의 죄를 덮고 지워 버리며, 그 아름다움과 존엄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들을 사랑하고 품게 합니다.

11. 그러므로 이 옛사람을 죽임은 우리가 사랑의 도리를 다 채울 때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도리를 채우는 사람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의 모든 의무를 겉으로만 해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깥 의무에 관한 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빚진 것을 온전히 갚으면서도, 그동안 참된 갚음의 방식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너그러워 보이기를 바라면서도, 교만한 얼굴이나 오만한 말로 생색을 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시대에는 재앙이 여기까지 이르러,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모욕 없이 건네지는 구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비뚤어짐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참을 수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굴에 기쁨을 띠고 상냥한 말로 자기 도움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처지에 자기를 두어, 마치 자기가 그 형편을 느끼고 견디는 것처럼 그 형편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돕는 것과 다르지 않게, 긍휼과 인정의 마음으로 그를 도우러 나서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도우러 나서는 사람은, 오만이나 생색으로 자기 도움을 더럽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가 선을 베푸는 형제를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자기에게 빚진 자라고 굴복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몸의 나머지 부분이 애써 소생시키는 병든 지체를 우리가 모욕하지 않고, 그 지체가 갚은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끌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나머지 지체들에게 특별히 빚졌다고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체들 사이에서 서로 도움을 나누는 것은 값없이 베푸는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본성의 법에 따라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흔히 그러하듯 한 가지 의무를 해치운 사람이 자기는 이제 풀려났다고 생각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것에서 얼마를 내놓고 나면, 다른 짐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남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나 오히려 각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전부를 이웃에게 빚지고 있으며, 능력이 다할 때 말고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데 다른 끝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능력도 미치는 데까지 사랑의 규칙에 따라 그 한계가 정해져야 합니다.

12.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한 자기 부인의 으뜸가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것을 말했으니 되풀이하는 것은 쓸데없을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우리를 평정심과 인내로 빚어 가는 데까지만 다루면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은, 현재 삶의 편리함이나 평안을 구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 드리고, 우리 마음의 애착을 그분께 넘겨 길들여지고 굴복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재물과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탐하고, 부를 쌓고, 화려함과 허세에 도움이 될 듯한 온갖 어리석은 것들을 모으는 데 우리의 욕심은 미친 듯하고 우리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가난과 비천함과 낮음을 놀랍도록 두려워하고 놀랍도록 미워하여, 온갖 방법으로 그것들을 떨쳐 내려고 내몰립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으로 삶을 꾸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쉼 없는 마음을 지니고, 얼마나 많은 술수를 시도하고, 어떤 열심으로 자기를 지치게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곧 야심이나 탐욕의 애착이 이끄는 것을 얻고, 반대로 가난과 낮음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올무에 얽히지 않도록 이 길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그들은 주님의 복 말고 다른 데서 번영의 길을 바라거나 소망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러므로 그 복에 안심하고 확신 있게 자기를 맡기고 기대야 합니다. 육은 자기 근면으로 명예와 재물을 향해 달려가거나, 열심으로 애쓰거나, 사람들의 호의로 도움을 받을 때, 자기가 넉넉히 충분하다고 아무리 여긴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재능과 수고 둘 다를 형통하게 하시는 만큼이 아니면, 우리는 재능으로도 수고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주님의 복만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서도 길을 찾아,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결말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비록 우리가 그 복 없이도 얼마의 영광과 부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불경건한 자들이 날마다 큰 명예와 재물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저주가 덮인 자들은 행복의 가장 작은 조각도 맛보지 못하므로, 우리는 그 복 없이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구해서는 안 됩니다.

13.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번영의 모든 길이 오직 하나님의 복에 있고, 그 복이 없으면 온갖 비참과 재앙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믿는다면, 남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재능의 능숙함이나 부지런함을 믿거나,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거나, 운수라는 헛된 상상을 의지하여 재물과 명예를 탐욕스럽게 좇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보아, 그분의 인도로 그분께서 마련하신 어떤 몫으로든 이끌려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먼저, 우리는 죄악과 속임수와 악한 술수나 탐욕으로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면서 재물을 잡고 명예를 가로채려고 달려들지 않고, 우리를 무죄함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재산만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기와 강탈과 그 밖의 사악한 술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의 도우심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 복은 깨끗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만을 따르듯이, 그 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굽은 생각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고삐가 씌워져,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욕심으로 불타지 않고 명예를 야심으로 탐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바라는 것을 얻는 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리라고 누가 무슨 낯으로 확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저주하시는 것을 당신의 복의 도우심으로 뒤따르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끝으로 일이 소원과 소망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참지 못함과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 그것을 미워하는 데서 억제될 것입니다. 부와 가난, 멸시와 명예를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께 맞서 원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에 기대는 사람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구하는 것을 악한 술수로 낚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이 잘되더라도 그것을 자기에게나 자기의 부지런함이나 근면이나 운수에 돌리지 않고, 그 주신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남들의 형편은 번성하는데 자기는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뒤로 미끄러지더라도, 그는 어떤 속된 사람이 그저 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적당한 성과를 견디는 것보다 더 큰 평정과 절제로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견딜 것입니다. 그는 부나 권세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보다 더 평온하게 쉴 수 있는 위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주님께 다스림을 받되 자기 구원에 유익하도록 다스림을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14. 그런데 경건한 마음에 있어야 할 그 평온과 인내는 이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에도 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자기 전체를 주님께 맡겨 드린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자기를 바르게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스려진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를 비참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 몫을 불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드러날 것입니다. 갖가지 병이 잇달아 우리를 덮칩니다. 어떤 때에는 역병이 날뛰고, 어떤 때에는 전쟁의 재난으

로 잔인하게 시달립니다. 어떤 때에는 서리나 우박이 한 해의 소망을 삼켜 흉년을 불러와 우리를 궁핍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친척이 죽음으로 빼앗기고, 집이 불에 타 없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CO 1135 사람들은 자기 삶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미워하며, 하늘과 빛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들며, 신성 모독에 능란한 그대로 하나님을 불의하고 잔인하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참으로 아버지다운 관대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친척들을 잃어 자기 집이 쓸쓸하게 된 것을 보더라도, 그때에도 주님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래도 내 집에 머무는 주님의 은혜가 내 집을 황폐하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또 곡식이 서리에 타거나 얼음에 망가지거나 우박에 짓밟혀 굶주림이 닥쳐오는 것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신뢰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고, 그분의 목장에서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극심한 흉년에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또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그때에도 고통의 쓰라림에 꺾여 참지 못함으로 터져 나와 하나님께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매 속에 있는 의와 부드러우심을 생각하며 자기를 인내로 되돌릴 것입니다. 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정해졌음을 알 것이므로,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모든 것을 한번 그분의 권세에 맡겨 드렸으니, 그분의 명령에 고집스럽게 맞서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에서 이방인들의 저 어리석고 가장 비참한 위로가 떠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역경에 맞서 마음을 굳게 하려고 그 역경을 운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운수는 목적 없고 무모하여, 받을 만한 자와 받을 만하지 않은 자를 눈먼 눈으로 똑같이 상처 입히므로, 운수에 대해 분개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건의 규칙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좋은 형편과 나쁜 형편 양쪽의 결정자요 다스리는 자이며, 그 손은 생각 없는 충동으로 내달리지 않고, 가장 질서 있는 의로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15. 그뿐 아니라 경건한 마음은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각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시는 그곳까지입니다(마 16:24). 주님께서 택하여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백성과의 교제에 합당하게 여기신 자들은 누구나, 고되고 수고롭고 불안하며 많고 갖가지인 악으로 가득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러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확실히 시험해 보시려고 그들을 이런 식으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여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이 순서를 따라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들이셨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서 기뻐하셨는데도, 우리가 보듯이 그분은 결코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우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땅에 사시는 동안 끊임없는 십자가로 단련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가 끊임없는 십자가의 모습 말고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참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처지에서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빼내겠습니까? 더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 안에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보기를 보여 주시려고 그것을 겪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정해진 목적이 그분을 본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롬 8:29). 여기서 또한 큰 위로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불리하고 나쁘다고 여겨지는 어렵고 거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모든 악의 미로를 지나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여러 환난을 지나 같은 영광으로 이끌려 갑니다. 바울 자신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빌 3:10).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배울 때 동시에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게 될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도록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모든 쓰라림을 누그러뜨리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역경으로 더 괴로움을 당할수록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가 더 확실하게 굳어지고, 그분과의 교제로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16.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당신의 순종을 증언하고 입증하시려는 것 말고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 이유로 끊임없는 십자가 아래서 삶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육에 돌리는 데 너무나 기울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눈앞에 보이듯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힘을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쉽게 평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어려움에 맞서 그 힘이 꺾이지 않고 이기리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고 헛된 육의 자신감으로 들뜨고, 그것을 믿고서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 없이도 넉넉하다는 듯이 하나님 자신께까지 고집스럽게 교만해집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함뿐 아니라 깨지기 쉬움에도 얼마나 시달리는지를 경험으로 우리에게 입증하시는 것보다 이 오만을 더 잘 꺾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수치나 가난이나 자식 잃음이나 병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한, 우리는 그것들을 견디기에 너무나 부족하여 곧 쓰러집니다.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부르기를 배웁니다. 그 능력만이 고난의 무게 아래서 우리를 서 있게 합니다. 아니,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시험으로 그들을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아는 데로 이끄시지 않으면, 자기의 굳셈과 꿋꿋함에 대해 마땅한 것보다 더 안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이 평온할 때 더 큰 꿋꿋함과 인내를 지녔다는 생각으로 자기에게 아첨하다가,

일이 거칠어져 낮아지면 그것이 위선이었음을 배웁니다. 제가 말하건대, 신자들은 이런 가르침으로 자기의 병을 일깨움받아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육의 비뚤어진 자신감을 벗고 주님의 은혜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피하면, 넉넉하고도 남는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17.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롬 5:3).[626]

626. 이 문장의 끝부분("...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은 다음 편 원문 첫머리에 있으나, 문장이 끝나도록 여기서 함께 옮겼습니다.

1539–1554년판 제21장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2

CO 1:1137–115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CO 1137 [627]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신자들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참되다는 것을, 그들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인내로 버티는 동안 느낍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도움을 필요할 때에 실제로 베푸신다는 경험을 가져다줍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소망도 굳건해집니다. 그토록 한결같고 굳은 것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앞으로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배은망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한 줄로 이어져 나오는지 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자기 힘에 대하여 거짓되이 품는 생각을 뒤엎고, 우리를 즐겁게 하던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어, 육을 믿는 해로운 자신감을 떨쳐 버립니다. 그렇게 낮아진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도록 가르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짓눌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는 소망이 뒤따릅니다. 곧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도 당신의 진실하심을 굳게 세우시는 한에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런 이유들만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드러납니다. 그대 자신에 대한 눈먼 사랑이 씻겨 나가 그대가 그대의 연약함을 잘 알게 되는 것, 그대 자신의 연약함을 느껴 그대 자신을 믿지 않기를 배우는 것, 그대 자신을 믿지 않아 그대의 신뢰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마음의 신뢰로 하나님께 기대어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끝까지 굴하지

627. 앞 편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끝부분은 앞 편에서 함께 옮겼습니다.

않고 견디는 것, 그분의 은혜로 서서 그분이 당신의 약속에 참되신 분임을 깨닫는 것, 그분의 약속이 확실함을 경험으로 알아 그대의 소망이 그로써 굳세어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시고 그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서 주신 순종 말고 다른 순종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사들이 안에서 쓸모없이 숨어 있지 않도록, 그것들을 뚜렷한 증거로 입증하시고 환히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들에게 갖추어 주신 인내의 덕을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신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그의 경건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창 22:1, 12). 그러므로 베드로도, 금이 풀무 불에서 단련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우리 믿음이 환난으로 시험받는다고 가르칩니다(벧전 1:7). 신자가 자기 하나님께 받은 인내라는 지극히 뛰어난 선물이 쓰임으로 나와서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결코 그 선물을 마땅한 만큼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신자들에게 주신 덕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도록, 아니 쓸모없이 버려져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일깨울 거리를 대 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성도들의 고난에는 지극히 좋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들의 인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십자가로 순종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배우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모든 일이 그들의 생각대로 흘러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네카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역경을 견디라고 권할 때 "하나님을 따르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말로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매에 손과 등을 내어 드릴 때에야 비로소 참으로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라는 뜻을 넌지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면, 그분께서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께 순종하도록 길들이시는 것을 마다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19. 그러나 우리 육의 방자함이 조금이라도 부드럽고 너그럽게 다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 던지려고 얼마나 날뛰는지를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 순종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육에게는 고집 센 말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말들은 며칠 놀며 배불리 먹으면, 사나워져서 그 뒤에는 길들일 수 없고, 전에는 그럭저럭 그 명령에 따르던 기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탄식하신 일(신 32:15), 곧 살찌고 기름이 덮이자 자기를 먹이고 기르신 분께 발길질하는 일이 우리에게서도 늘 그대로 일어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마땅히 우리를 이끌어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함이 그분의 끊임없는 너그러우심 때문에 오히려 썩어 버리는 지경이므로, 우리가 그런 방자함으로 날뛰지 않도록 어떤 징계로 우리를 붙잡아 두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재물 때문에 사나워지지 않도록, 명예로 높아져 교만해지지 않도록, 영혼이나 몸이나 형편의 다른 좋은 것들로 우쭐해져 거만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유익하다고 보시는 대로 막아서시고, 십자가라는 치료약으로 우리 육의 사나움을 굴복시키시고 재갈을 물리십니다. 이 일을 여러 방법으로, 곧 각 사람에게 유익한 만큼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병을 똑같이 무겁게 앓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어려운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종류의 십자가로, 다른 이는 저런 종류의 십자가로 훈련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의사께서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돌보려 하시면서,

어떤 이들은 더 부드럽게 다루시고 다른 이들은 더 독한 약으로 깨끗하게 하시지만, 아무도 면제하여 건드리지 않고 지나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병들어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0. 게다가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께 대한 마땅한 순종 안에 붙들어 두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막으실 뿐 아니라 지난날의 허물도 자주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곧바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생각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런 CO 1139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라는 권면을 주로 죄를 깨닫는 데서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훨씬 더 나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주께서 역경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고전 11:32). 그러므로 환난의 쓰라림 자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하시거나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정죄에서 건지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이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물리치지 말고 그에게 책망을 받을 때에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품듯이 품으시기 때문이다" (잠 3:11). 우리가 아버지의 매를 알아본다면, 악행으로 굳어진 절망한 사람들의 고집을 흉내 내기보다 오히려 순종하고 잘 배우는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당신을 떠나 넘어진 우리를 징계로 다시 부르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옳게 말하듯이, 우리가 징계 밖에 있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닙니다(히 12:8).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호의와 우리 구원을 위한 돌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견디지 못한다

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비뚤어진 자들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신자들 사이의 차이가 이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앞의 사람들은 오래 묵고 찌든 악의 종들로서 채찍을 맞으면 더 나빠지고 더 완고해질 뿐이지만, 뒤의 사람들은 자유인의 품성을 지닌 아들들처럼 회개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대는 어느 쪽에 들기를 원하는지 골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곳에서 다루었으므로, 짧게 건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21. 더 나아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는 남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영예로 여기시는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군대의 특별한 표지를 새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지키다가 수고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의로운 일을 변호하다가 수고하는 사람들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거짓말에 맞서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다가, 또는 악한 자들의 해코지에 맞서 선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다가, 세상의 미움과 적대를 사서 우리의 목숨이나 재산이나 명예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무겁거나 귀찮게 여기지 맙시다. 그분이 친히 당신의 입으로 우리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일들에서(마 5:10) 우리 자신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맙시다. 가난은 그 자체로만 평가하면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추방, 멸시, 감옥, 치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죽음 자체는 모든 재앙 가운데 마지막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호의가 불어오면, 이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거짓된 평가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만족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때마다, 우리는 사도들의 본을 따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행 5:41).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도 불경건한 자들의 악행으로 재산을 빼앗긴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참으로 가난해지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로써 참된 부요가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 쫓겨난다면, 그만큼 더 깊이 하나님의 집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흔들린다면, 그만큼 더 굳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욕과 치욕의 낙인을 받는다면, 그만큼 더 높은 자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얻습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렇게 하여 복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주께서 그토록 큰 값을 매기신 것들을 현세의 그림자 같고 사라져 버리는 유혹거리보다 낮게 여긴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22. 그러므로 성경이 이런 권고와 이와 비슷한 권고로, 우리가 의를 지키다가 견디는 치욕이나 재앙을 넉넉히 위로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배은망덕한 자들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종류의 십자가는 신자들에게 가장 고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벧전 4:11).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즐거움은 쓰라림과 고통을 느끼는 마음을 모두 없애 버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움으로 시달리지 않는 한, 십자가에서 그들의 인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에 아무 쓰라림이 없고, 병에 아무 괴로움이 없고, 치욕에 아무 찔림이 없고, 죽음에 아무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무슨 굳셈이나 절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 하나하나가 저마다 타고난 쓴맛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본성적으로 물어뜯으므로, 신자의 굳셈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곧 그런 쓴맛을 느껴 시험을 받고 아무리 무겁게 괴로워하더라도, 굳세게 맞서서 끝내 헤쳐 나오는 것입니다. 인내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곧 날카롭게 찔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억제되어 어떤 무절제로 터져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여기서 빛납니다. 곧 슬픔과 근심으로 상처를 입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 안에서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23. 신자들이 인내와 절제에 힘쓰면서 고통을 느끼는 본성적인 감정에 맞서 치르는 이 싸움을 바울은 이런 말로 훌륭하게 그려 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눌려도 근심에 빠지지 않고, 수고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그 가운데 버려지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고후 4:8). 그대는 십자가를 인내로 진다는 것이 아주 무감각해져서 고통을 느끼는 마음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옛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큰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람다움을 벗어 버리고 역경에도 순경에도, 슬픈 일에도 기쁜 일에도 똑같이 반응하는 CO 1141 사람, 아니 돌처럼 아무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상한 지혜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혜의 허상을 그렸을 뿐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나치게 엄밀하고 깎아 낸 듯한 인내를 가지려 하다가, 인내의 힘을 사람의 삶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새로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신음하고 우는 것뿐 아니라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까지 잘못입니다. 이런 역설들은 대개 한가한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은 행하기보다 사변하는 데 몰두하므로, 이런 역설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낳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쇠붙이 같은 철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생이시요 주님이신 분께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본으로도 그것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불행과 다른 사람들의 불행 때문에 탄식하시고 우셨으며, 당신의 제자들도 다르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기뻐하겠으나 너희는 애통하고 울리라" (요 16:20)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잘못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공적인 선포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마 5:4).[628] 놀랄 일이 아닙니다. 모든 눈물이 배척받는다면, 그 몸에서 피 같은 눈물이 떨어진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628. 원문의 "마 5, 5"는 라틴어 성경의 절 배열을 따른 것입니다. 개역한글에서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 마 5:4에 있으므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판단하겠습니까(눅 22:44)? 모든 두려움이 불신앙으로 낙인찍힌다면, 그분이 적지 않게 놀라셨다고 우리가 읽는 그 두려움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모든 슬픔이 못마땅하다면, 그분이 당신의 영혼이 죽게 되도록 슬프다고 고백하신 것은 어떻게 마땅하게 여겨지겠습니까(마 26:38)?

24. 제가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은 경건한 마음들을 절망에서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본성적인 감정을 벗어 버릴 수 없다고 해서 곧바로 인내에 힘쓰기를 그만두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를 무감각으로, 굳세고 한결같은 사람을 통나무로 만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오래 참음의 칭찬을 돌리는데, 그것은 그들이 불행의 혹독함으로 시달리면서도 꺾이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쓴맛에 찔리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기쁨으로 흠뻑 젖고, 근심에 눌리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기운을 얻어 숨을 돌릴 때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맞섬이 있습니다. 본성의 감각은 자기에게 거스르는 것으로 느끼는 것을 피하고 무서워하지만, 경건의 마음은 이런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맞섬을 나타내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이가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8).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했을 때 억지로 버티면서 그리로 끌려갔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랬다면 그의 순교는 칭찬받을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의 더할 나위 없는 기꺼움으로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랐다 하더라도, 사람다움을 벗어 버린 것은 아니었으므로 두 가지 의지 사이에서 찢겼습니다. 그가 앞으로 당할 그 피 흘리는 죽음을 그 자체로 생각할 때에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꺼이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가 그 죽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떠오를 때에는, 두려움을 이기고 짓밟아 기꺼이, 아니 즐거이 그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토록 큰 경외와 순종으로 물들어, 그것이 거스르는 모든 감정을 길들이고 그분의 정하심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십자가로 괴롭힘을 당하든지, 마음이 극도로 답답할 때에도 인내를 꾸준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역경 자체는 우리를 물어뜯는 그 나름의 혹독함을 지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에 시달리면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건강을 구할 것입니다. 가난에 눌리면 근심과 슬픔의 가시에 찔릴 것입니다. 치욕과 멸시와 불의의 고통으로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장례에서는 본성에 마땅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이 맺음말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도 주께서 이렇게 원하셨으니, 그분의 뜻을 따르자." 아니, 고통에 찔리는 가운데서도, 신음과 눈물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생각이 끼어들어,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바로 그 일들을 기꺼이 견디도록 마음을 기울게 해야 합니다.

25. 우리는 십자가를 견디는 주된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데서 끌어냈으므로, 철학의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인내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몇 마디로 규정해야 합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극히 적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난으로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 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여기는 데까지 생각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그렇게 하는 것이 필연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대가 맞서 싸워 보아야 헛수고이니 하나님께 굴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필연이기 때문에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빠져나갈 수 있게 되면 순종하기를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서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라고 명합니다. 곧 첫째로 그분의 의와 공평이고, 다음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돌보심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권면은 이런 것입니다. 가난이든 추방이든 감옥이든 모욕이든 병이든 자식 잃음이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든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주님의 뜻하심과 섭리 없이는 일어나지 않으며,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의로운 질서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셀 수 없는 날마다의 허물은, 그분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보다 더 엄하고 더 무거운 매로 징계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이 길들여지고, 말하자면 멍에에 익숙해져서, 제 본성대로 정욕에 빠져 날뛰지 않게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수고할 만한 것이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의심 없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불의를 범하지 않고서는 불평하거나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필연이니 굴복해야 한다"는 저 맥 빠진 CO 1143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고 힘이 가득한 가르침을 듣습니다. "거스르는 것은 악하니 순종해야 한다.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고집이니 인내로 견뎌야 한다." 더욱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의 구원과 유익이 된다고 깨닫는 것뿐이므로,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이 점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바로 그 일로 우리 구원을 돌보고 계신다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견딤으로써 필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안에서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건대,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쓰라림을 느끼는 본성적 감각으로 움츠러드는 만큼, 영적인 기쁨으로 넓어집니다. 그리하여 감사도 뒤따릅니다. 감사는 기쁨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 마음에서가 아니면 흘러나올 수 없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로막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서 십자가의 쓴맛을 영적인 기쁨으로 누그러뜨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드러납니다.

26.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환난에 눌리든지, 늘 이 목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곧 우리가 현세의 삶을 멸시하는 데 익숙해지고, 그로써 장차 올 삶을 묵상하도록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눈멀고 짐승 같은 사랑에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가장 잘 아시므로, 우리가 그 사랑에 너무 끈질기게 들러붙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의 무감각을 떨쳐 내시는 데 가장 알맞은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 가운데 평생 하늘의 불멸을 바라고 그것을 향해 힘쓰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 못 하는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에 영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다면, 짐승의 처지가 우리 처지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계획과 목표와 열심과 행실을 살펴보면, 그대는 거기서 땅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 정신이 재물과 권력과 명예의 헛된 광채에 눈이 부셔 둔해져서 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마음도 탐욕과 야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무거워져서 더 높이 오르지 못합니다. 끝으로 영혼 전체가 육의 유혹에 얽혀 자기 행복을 땅에서 찾습니다. 주께서는 이 악을 막으시려고, 끊임없는 비참의 증거로 당신의 백성에게 현세 삶의 헛됨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현세에서 깊고 안전한 평화를 스스로 약속하지 않도록, 전쟁이나 소요나 강도나 그 밖의 해코지로 자주 불안하게 하시고 시달리게 하십니다. 그들이 덧없이 흘러가 사라지는 재물을 너무 탐내어 입을 벌리지 않도록, 또는 가진 재물에 안주하지 않도록, 때로는 추방으로, 때로는 땅의 흉년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가난하게 하시거나, 적어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들이 결혼의 좋은 것들을 너무 태평하게 즐기지 않도록, 아내의 악함으로 시달리게 하시거나, 나쁜 자식들로 그들을 낮추시거나, 자식을 잃는 일로 괴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더 너그러우시더라도, 그들이 어리석은 영광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자신만만하여 날뛰지 않도록, 병과 위험으로 그들의 눈앞에 죽을 운명에 매인 모든 좋은 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인지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훈련으로 참으로 바르게 자라 가는 것은, 이런 것을 배울 때입니다. 곧 이 삶은 그 자체로 평가하면 불안하고 어지럽고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비참하며, 어느 모로 보아도 온전히 복되지 않다는 것, 이 삶의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덧없고 헛되며, 섞여 든 많은 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배울 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로부터, 여기서는 싸움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거나 바라서는 안 되며, 면류관을 생각할 때에는 눈을 하늘로 들어야 한다고 정할 때입니다.[629]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현세의 삶을 멸시하는 데 물들지 않으면, 결코 진지하게 장차 올 삶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데로 일으켜지지 않습니다.

27. 이 둘 사이에는 아무 중간이 없습니다. 땅이 우리에게 하찮아지든지, 아니면 땅이 절제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붙잡아 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악한 족쇄에서 우리 자신을 풀어내는 데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현세의 삶은 우리를 꾀어내는 매우 많은 아첨거리와, 우리를 달래는 즐거움과 매력과 달콤함의 많은 겉모습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런 유혹에 홀리지 않도록 거듭거듭 불러 돌이켜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청컨대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불행의 가시에 찔리고도 이 삶의 비참함을 생각하도록 넉넉히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것과 행복을 끊임없이 잇달아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삶이 연기나 그림자 같다는 것은 배운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보다 더 닳도록 쓰는 속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특히 알아 두기에 유익한

629. [원문의심] 원문은 “nihil hic quaerendum aut sperandum uam ceji;amen; attollendos in coelum oculos, ubi e corona cogitamus” 로 깨져 있습니다. “nisi certamen” (싸움 말고는)과 “ubi de corona cogitamus” (면류관을 생각할 때에는)로 읽었습니다.

일임을 보았으므로, 많은 뛰어난 격언으로 이를 권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보다 더 소홀히 따져 보거나 덜 기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땅에서 우리 자신에게 불멸을 세우는 듯이 모든 일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장례 행렬이 나가거나 우리가 무덤 사이를 걸을 때에는, 그때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므로, 고백하건대 우리는 이 삶의 헛됨에 대하여 훌륭하게 철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줄 때에도 그것은 한순간의 철학이어서, 우리가 등을 돌리자마자 사라져 버리고, 뒤에 조금의 기억의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뿐 아니라 죽을 운명 자체까지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에 관해 한 번도 소문을 들어 본 적이 없는 듯이, 땅에서 죽지 않으리라는 태평한 안심 속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누가 사람은 하루살이 같은 동물이라는 속담을 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영원히 머물리라는 생각이 여전히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CO 1145 부인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말로 권고받는 것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으로 땅의 삶의 비참한 처지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확신하게 된 뒤에도 우리는 마치 이 삶이 좋은 것의 마지막 목표를 품고 있는 듯이 그것을 그릇되고 어리석게 감탄하며 넋을 잃는 일을 좀처럼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한다면, 우리 쪽에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무감각을 꼬집어 깨우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 세상을 멸시하고 온 마음을 다해 장차 올 삶을 묵상하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28. 그러나 신자들은 현세의 삶을 멸시하는 데 익숙해지되, 그 멸시가 삶에 대한 미움을 낳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을 낳지도 않는 그런 멸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삶은 셀 수 없는 비참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업신여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신께 대한 적지 않은 배은망덕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특히 신자들에게 이 삶은 하나님의 호의를 증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삶 전체가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시기 전에, 더 작은 증거들로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밝히고자 하십니다. 그 증거들은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데 이바지하는데도, 우리가 마치 그 안에 좋은 것이 한 조각도 없는 듯이 이 삶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곧 이 삶을 결코 물리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선물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그것은 매우 많고 매우 분명합니다)이 없다 하더라도, 본성 자체도 우리에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내셨고, 우리에게 이 삶을 누리게 하시며, 이 삶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넉넉히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떤 의미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그 이유는 훨씬 더 커집니다. 주께서는 장차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 먼저 땅에서 싸움을 치르도록 정하셨습니다. 전쟁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얻지 않고는 개선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 삶에서 여러 은택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그 인자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구하는 우리의 소망과 사모함이 날카로워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며, 그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빚진 자이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확정되면, 그때에야 우리는 알맞게 이 삶의 지극히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는 데로 내려갈 것입니다. 곧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스스로 기울어지는, 이 삶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29. 그런데 이 삶에 대한 그릇된 사랑에서 덜어 내는 것은 무엇이든 더 나은 삶을 사모하는 데로 더해져야 합니다.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다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참으로 옳게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빛과 참된 경건(religion)을 잃었으니, 이 삶에서 불길하고 끔찍한 것 말고 무엇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이 태어나면 슬픔과 눈물로 맞고 장례는 엄숙한 기쁨으로 치르던 사람들도 이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유익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바른 교리를 잃었으므로, 그 자체로는 복되지도 바랄 만하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경건한 이들에게 유익으로 바뀌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판단을 절망으로 끝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삶을 평가할 때 신자들의 목표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곧 이 삶이 그 자체로는 비참 말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만큼 더 기꺼이, 더 거침없이 온전히 저 장차 올 영원한 삶을 묵상하는 데로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에 이르면, 그때에는 이 삶을 마음 놓고 소홀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 삶에 견주어 철저히 멸시하고 싫어해야 합니다. 하늘이 우리 고향이라면, 땅은 유배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은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머무는 것은 죽음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몸에서 풀려나는 것이 온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면, 몸은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행복의 가장 높은 정점이라면, 그것을 갖지 못한 것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벗어날 때까지는 주와 따로 나그네로 있습니다(고후 5:6). 그러므로 땅의 삶을 하늘의 삶과 견주면, 땅의 삶을 쉽게 멸시하고 짓밟아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삶이 우리를 죄에 매여 있게 하는 한이 아니라면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미움조차 엄밀히 말하면

이 삶 자체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 삶에 대해 싫증이나 미움을 품되, 그 끝을 사모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삶에 머물 준비가 되어 있게 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싫증이 모든 불평과 조바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삶은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초소와 같아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들이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더 오래 몸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기 처지를 슬퍼하며, 구속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탄식합니다(롬 7:24; 빌 1:23).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가 어느 쪽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으로든 삶으로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빚진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당신의 영광에 가장 유익한지 정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 죽음과 삶의 끝을 그분의 뜻에 맡깁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죽음을 열렬히 바라고 늘 묵상하며, 이 삶은 장차 올 불멸에 견주어 멸시하고, 죄의 종노릇 때문에 주께서 기뻐하실 때마다 이 삶을 버리기를 바랍시다.

30.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바라기는커녕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여, 죽음 이야기만 나와도 마치 철저히 CO 1147 불길하고 흉한 일이라도 되는 듯이 벌벌 떤다는 것은 괴이한 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해체에 대해 들을 때 우리 안의 본성적인 감각이 소스라치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슴속에, 더 큰 위로로 그 어떤 두려움이든 이기고 누르는 경건의 빛이 없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이 불안정하고 흠 많고 썩고 무너지고 시들고 썩어 가는 장막이, 곧 굳고 온전하고 썩지 않는, 끝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새로 세워지기 위하여 해체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본성이 무서워하는 것을 열렬히 구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유배지에서 돌아와 고향, 그것도 하늘 고향에서 살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아무 위로도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존재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장차 올 불멸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서 땅에서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확고한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과, 나아가 나무와 돌에 이르기까지 생명 없는 피조물들까지도 자기의 지금의 허무함을 의식하여 마지막 부활의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허무함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릴 터인데(롬 8:19), 타고난 지성의 빛을 받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을 받은 우리가, 우리 존재가 걸린 일에서 이 땅의 썩음 너머로 마음을 들어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토록 큰 이 비뚤어짐에 맞서 논하는 것은 이 책의 계획에도, 이 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처음에 이 자리에서 일반 주제들을 길게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런 겁 많은 마음들에게 키프리아누스의『죽음에 관하여』라는 소책자를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철학자들에게나 보내져서, 철학자들이 내세우는 죽음에 대한 멸시를 보고 얼굴을 붉히기 시작해야 마땅한 자들이 아니라면 말입니다.[630] 그러나 이것을 확정해 둡시다. 죽음의 날과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잘 자라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표지로 모든 신자를 묘사하며(딛 2:13), 성경은 굳건한 기쁨의 이유를 내놓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그리로 돌이키는 것이 늘 하는 방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눅 21:28). 청컨대, 주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일으키는 데 그토록 힘이 있기를 원하신 것이 오히려 슬픔과 낙담만 낳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직도 그분을 마치 우리 선생인 듯이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건전한 생각을 품읍시다.

630. 원문의 "nisi digni essent qui ad philosophos ablegarentur"를, 그들이 키프리아누스의 글을 읽을 자격도 없어 철학자들에게 보내져야 할 자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권하겠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육의 눈멀고 어리석은 욕심이 거스르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복된 것으로 여겨 바람으로만이 아니라 신음과 탄식으로도 구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구속자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악과 비참의 이 끝없는 소용돌이에서 건져 내시고 저 복된 생명과 당신의 영광의 기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31. 참으로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온 무리는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도살할 양처럼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롬 8:36).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고 지금 보이는 일들의 겉모습을 뚫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가련한 자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한 번 머리를 땅의 모든 것 위로 들어 올리면, 불경건한 자들의 재물과 명예가 번성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이 깊은 평화를 누리고, 모든 것의 화려함과 사치로 뽐내고, 온갖 쾌락에 넘쳐 나는 것을 보더라도, 게다가 그들의 악함에 두들겨 맞고, 그들의 거만함에서 오는 모욕을 견디고, 그들의 탐욕에 약탈당하고, 그 밖의 어떤 방자함으로 시달리더라도, 이런 불행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버틸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신자들을 당신 나라의 안식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며, 영광과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당신의 즐거움의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함으로 먹이시며, 당신의 높으심에 참여하는 데까지 올리시고, 끝으로 당신의 행복에 참여하는 영예를 주실 그날이 그들의 눈앞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사 25:8; 계 7:17). 그러나 땅에서 번성했던 저 불경건한 자들은 극한 치욕 속으로 내던지실 것입니다. 그들의 쾌락을 혹독한 고통으로, 그들의 웃음과 기쁨을 울음과 이를 가는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를 양심의 무서운 고문으로 어지럽히실 것이며, 그들의 안락함을 꺼지지 않는 불로 벌하실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인내를 악용했던 경건한 이들 아래에 그들의 머리를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것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위로로 우리 자신을 달래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도 지금 불경건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생각하는 데 너무 오래 머무는 동안 자기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시 73:2). 그리고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경건한 이들과 악한 자들의 마지막 결국으로 눈을 돌리고서야 비로소 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짓자면, 신자들의 눈이 부활의 능력으로 향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가슴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와 육과 죄와 불경건한 자들을 이기고 개선합니다.

32. 성경은 이런 기초 가르침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땅의 좋은 것들을 바르게 쓰는 법이 무엇인지도 잘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을 세우는 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삶에 필요한 도움들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필요보다 즐거움에 더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요를 위해서든 즐거움을 위해서든 깨끗한 양심으로 쓰도록 절도를 지켜야 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그 절도를 정해 주십니다. 현세의 삶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나그넷길이라고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땅을 지나가야 할 뿐이라면, 땅의 좋은 것들을 우리 길을 늦추기보다 오히려 돕는 만큼 써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미끄럽고 어느 쪽으로든 넘어지기 쉬우므로,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곳에 발을 디디도록 힘씁시다. 다른 점에서는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던 어떤 이들은, 무절제와 사치가 더 엄하게 억제되지 않으면 고삐 풀린 방자함으로 끊임없이 제멋대로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CO 1149 그들은 이토록 해로운 악을 바로잡고 싶었으므로, 그들에게 떠오른 유일한 방법대로, 사람이 몸에 속한 좋은 것들을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경건한 의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위험하게도, 주님의 말씀이 양심을

묶는 것보다 더 좁은 올가미를 양심에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깥 것들을 쓰는 데서 육의 무절제를 변명할 구실을 찾고, 그러는 동안 방자함에 길을 닦아 주려고, 제가 결코 그들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정된 것으로 여깁니다. 곧 이 자유는 어떤 절도로도 제한해서는 안 되고, 각자의 양심이 자기에게 허락된다고 보는 만큼 쓰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양심을 정해진 딱 잘라 놓은 법조문으로 묶어서는 안 되고 묶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르게 쓰는 일반 규칙들을 전해 주므로, 우리는 분명히 그 규칙들에 따라 한계를 그어야 합니다.

33. 이것을 원리로 삼읍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정하신 그 목적에 맞추어 쓴다면, 그 쓰임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부지런히 바라보는 사람보다 더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무슨 목적으로 먹을거리를 창조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그분이 필요만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도 돌보려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옷에서도 필요 말고도 그분의 목적은 아름다움과 단정함이었습니다. 풀과 나무와 열매에서도 여러 쓰임 말고도 보기 좋음과 향기의 매력과 즐거움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참이 아니라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름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꼽지 않았을 것입니다(시 104:15). 성경이 곳곳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리려고, 그분이 이런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물의 본성적인 자질 자체도, 그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어디까지 누려도 되는지 넉넉히 보여 줍니다. 주께서 꽃에 저절로 눈에 들어오는 그토록 큰 아름다움을 넣어 주시고, 후각에 스며드는 그토록 큰 향기의 달콤함을 넣어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에 눈이 끌리거나 그 향기의 매력에 코가 끌리

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이 색깔들을 구별하셔서 어떤 색이 다른 색보다 더 보기 좋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금과 은과 상아와 대리석에 매력을 주셔서, 다른 금속이나 돌보다 귀하게 여겨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끝으로, 그분은 필요한 쓰임과 상관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귀히 여길 만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34. 그러므로 피조물에게서 필요한 쓰임 말고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 저 비인간적인 철학은 물러가라고 합시다. 그 철학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주는 정당한 열매를 심술궂게 우리에게서 빼앗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서 모든 감각을 빼앗아 통나무로 만들지 않고서는 관철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이에 못지않게 부지런히 육의 정욕을 막아야 합니다. 육의 정욕은 질서 안으로 억눌리지 않으면 한없이 넘쳐흐르며, 앞에서 말했듯이 허락된 자유를 구실로 그것에게 무엇이든 허락하는 지지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지어진 것은 우리가 그 지으신 분을 알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너그러우심에 감사로 보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정하면, 육의 정욕에 한 가지 재갈이 물려집니다. 그대가 진수성찬이나 포도주에 빠져서 정신이 멍해지거나, 경건과 그대의 소명의 의무에 쓸모없어진다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나친 풍요로 더러운 정욕으로 끓어오르는 육이 그 더러움으로 정신을 물들여 그대가 무엇이 바르고 단정한지 분간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드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값비싼 옷차림으로 우리 자신에게 감탄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면, 우아함과 화려함으로 음란할 채비를 한다면, 옷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옷의 화려함에 박혀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드림이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것들에서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으로도 남용하는 방종이 얼마큼 억제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35. 그러나 현세의 삶을 멸시하고 하늘의 불멸을 묵상하는 데서 우리에게 열리는 길보다 더 확실하고 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규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명하는 대로(고전 7:29), 이 세상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처럼, 아내를 얻는 자들은 얻지 않은 자처럼, 사는 자들은 사지 않은 자처럼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풍족함을 절제 있게 견딜 줄 아는 것 못지않게 궁핍도 평온하고 참을성 있게 견딜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쓰되 쓰지 않는 것처럼 하라고 명하는 이는, 먹고 마시는 데서의 식탐의 무절제와, 식탁과 집과 옷에서의 지나친 사치와 야망과 교만과 거만과 까다로움을 잘라 낼 뿐 아니라, 그대를 하늘의 삶을 생각하는 일과 영혼을 가꾸는 일에서 끌어내거나 가로막는 모든 염려와 애착을 잘라 냅니다. 옛날 카토는 옷차림에 크게 마음 쓰는 것은 덕에 크게 마음 쓰지 않는 것이라고 참으로 옳게 말했습니다. 또 오래된 속담도, 몸을 돌보는 데 많이 매달리는 사람들은 대개 영혼에는 소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깥 일에서 신자들의 자유를 어떤 정해진 법조문에 맞추어 따져서는 안 되지만, 그 자유는 분명히 이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곧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도리어 끊임없이 마음을 기울여 자기 자신을 다그쳐서, 사치를 억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쓸데없는 풍요의 모든 치장을 잘라 내야 하며, 도움이 되는 것을 스스로 방해물로 만들지 않도록 부지런히 조심해야 합니다.

36. 다른 규칙은 이것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들 없이 참고 지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의 학교에서 적지 않게 자라 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라도 자라 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할 거리를 거의 가질 수 없습니다. 땅의 것들을 탐하는 데에는 다른 많은 악덕이 뒤따를 뿐 아니라, 궁핍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풍족할 때에 반대되는 병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이런 뜻입니다. 허름한 옷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비싼 옷을 자랑할 것입니다. 변변찮은 식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호화로운 식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안해할 것이며, 그런 호화로운 것이 생기면 무절제하게 그것을 남용할 것입니다. 평범하고 낮은 처지를 어렵게, 불안한 마음으로 견디는 사람은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면 결코 거만함을 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대한 열심이 거짓이 아닌 모든 사람은, 사도의 본을 따라(빌 4:12)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며, 풍족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할 줄 알기를 배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땅의 것들을 쓰는 데 절도를 정해 주는 셋째 규칙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계명들을 다룰 때 얼마간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정해졌지만, 언젠가 셈을 해 드려야 할 맡긴 물건과 같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눅 16:2)는 저 음성이 늘 우리 귀에 울리도록 그것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런 셈을 누가 요구하시는지도 떠올려야 합니다. 곧 절제와 근신과 검소와 겸손을 그토록 권하셨듯이, 사치와 교만과 과시와 끝으로 허영을 몹시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결합된 관리 말고는 다른 어떤 재물 관리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정결과 순결에서 끌어내거나 정신을 어둠으로 둔하게 하는 모든 쾌락을 이미 당신의 입으로 정죄하셨습니다.

37. 끝으로 이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삶의 모든 행동에서 자기 소명을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기질이 얼마나 큰 불안으로 들끓는지, 얼마나 변덕스러운 경솔함으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지, 그 야망이 여러 다른 것을 한꺼번에 끌어안으려고 얼마나 탐내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으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 뒤섞이지 않도록, 삶의 종류를 나누시고 각 사람에게 그의 직무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무모하게 자기 경계를 뛰어넘지 않도록, 그런 삶의 종류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자기 삶의 종류는 말하자면 주께서 맡기신 초소와 같습니다. 평생

무모하게 이리저리 떠돌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매우 필요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그것도 자주 사람의 이성과 철학의 이성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조국을 폭군에게서 해방하는 것보다 더 빛나는 업적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개인으로서 폭군에게 손을 댄 사람은 주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예를 늘어놓는 데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소명이 모든 일에서 잘 행하는 일의 시작이요 기초라는 것을 알면 넉넉합니다. 자기를 소명에 비추어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직무에서 바른 길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때로 겉으로는 칭찬할 만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물리침을 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삶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도 아무 조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삶이 이 목표를 향할 때에야 가장 잘 짜인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난 위로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대가 그대의 소명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천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빛나지 않고 지극히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부록 1. 신학 쟁점과 적용안

CO 1 번역 가운데 신학적 판단이 필요한 용어·표현 38가지와, 이 책에 적용한 안입니다. 2026-11-25 사용자가 검토자 추천안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 교황제 사제를 낮춰 부르는 sacrificulus·sacrificus와 고위 성직자 pontifex를 어떻게 옮길지

칼빈은 교황제 사제를 sacerdos 대신 지소사 sacrificulus(하찮은 제사 드리는 자)나 sacrificus(제사 드리는 자)로 부르고, 고위 성직자는 pontifex(summi pontifices, mitrati pontifices)로 부릅니다. 원고 전체에서 sacrificulus는 "사제 나부랭이"(22곳)가 대부분이었으나 "미사 사제"(014·080, 5곳), "미사꾼"(016), "제사꾼"(076, 2곳)이 섞여 있었습니다. sacrificus는 "사제 계급"(001), "제사장 계급"(019), "사제"(010), "제사 드리는 자"(076·080), "제사꾼"(029·043)으로 갈렸습니다. 같은 문장이 1536년판과 1539년판에 거듭 나오는데(010↔076, 014↔080, 001↔019) 편마다 낱말이 달라 독자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019의 "제사장"은 구약 제사장과 그리스도께 쓰는 말이라 교황제 사제에게 쓰면 칼빈의 논증과 어긋납니다. pontifex도 "최고 성직자"(011), "주교"(014), "대사제"(017·078·079·080)로 갈렸습니다.

편 012 CO 1:159 non leguntur in aurem sacrificuli cuiuspiam confessi
→ 어떤 사제 나부랭이의 귀에 고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 010 CO 1:131 non ita Christi dignitatem obscurat, ut sacrificos eos appellet
→ 그들을 제사꾼이라고 불러 그리스도의 존엄을 흐리지 않습니다(고치기 전 "사제라고")

편 019 CO 1:261 de ordine sacrificorum loquor
→ 저는 제사꾼 계급을 말합니다(고치기 전 "제사장 계급")

편 014 CO 1:185 mitrati pontifices
→ 주교관을 쓴 대사제들(고치기 전 "관을 쓴 주교들", 080과 맞춤)

> **적용한 안: 나. sacrificulus = "사제 나부랭이", sacrificus = "제사꾼", pontifex(교황제 고위 성직자) = "대사제". 구약과 그리스도의 sacerdos만 "제사장".** 칼빈이 sacerdos를 일부러 피하고 경멸의 지소사를 쓴 논쟁 어조는 지침 3항에 따라 살려야 합니다. sacrificulus는 이미 가장 많이 쓴 "사제 나부랭이"로, 지소사가 아닌 sacrificus는 "제사꾼"으로 나누면 두 말의 어감 차이와 "제사 드리는 자"라는

뜻(칼빈은 “성경은 사도들을 sacrificos라 부르지 않는다”고 논증합니다)이 함께 남습니다. “미사 사제”는 원문에 없는 “미사”를 더하고, “제사장”은 구약 제사장직과 섞이므로 씁니다. pontifex는 다수 용례인 “대사제”로 맞추되, 교황 자신인 summus pontifex는 “최고 대사제”로 둡니다. 원고 20곳(001, 010, 011, 014, 016, 019, 076, 080)을 고쳤습니다.

다른 선택지: 가. 모두 “사제”(어조를 잃음) / 다. sacrificulus·sacrificus 모두 “사제 나부랭이” / 라. sacrificus = “제사 드리는 자”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2. presbyter·presbyterium·sacerdos·seniores를 문맥마다 어떻게 나눌지

CO 1 요령은 presbyter = 장로, sacerdos = 교황제 사제·구약 제사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① 교황·추기경·감독·수도원장과 나란히 나오는 교황제 위계의 presbyteri(헌정 서문)를 001은 “장로”, 같은 문장의 1539년판(019)은 “사제”로 옮겼습니다. ② 딤전 4:14 impositio manuum presbyterii는 칼빈이 “장로들의 모임이 아니라 직분으로 읽는다”고 밝히는데, 014는 “장로직의 안수”, 같은 문장의 081과 042는 “장로회의 안수”로 옮겨, 042에서는 “장로회의 안수를 … 장로들의 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어색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③ 고대 교회 교부 인용의 sacerdos(감독을 가리킴), 백성 가운데서 뽑힌 seniores와 각 교회의 senatus, 미사 논의에서 그리스도·구약·교황제를 함께 가리키는 sacerdos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편 001 CO 1:21 quidquid postea Paparum, Cardinalium, episcoporum, abbatum, presbyterorum fuit

→ 그 뒤에 있었던 교황, 추기경, 감독, 수도원장, 사제는(고치기 전 “장로는”, 019와 맞춤)

편 081 CO 1:1093 impositionem manuum presbyterii Paulus vocat ordinationem ipsam

→ 그 임직 자체를 “장로직의 안수”라고 부릅니다(고치기 전 “장로회의 안수”, 014와 맞춤)

편 042 CO 1:567 Gubernatores fuisse existimo seniores e plebe delectos … suum senatum

→ 백성 가운데서 뽑힌 장로들(seniores) … 장로회(senatus)

편 076 CO 1:1031 Hoc sensu et sacerdotes esse negamus … Christus unicus est novi testamenti pontifex et sacerdos

→ 우리는 이런 뜻에서 … 그들이 사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시며

적용한 안: 교황제 위계 목록의 presbyter = “사제”, 칼빈이 성경의 직분을 말하거나 교황제와 맞세우는 presbyter = “장로”, 딤전 4:14 presbyterium = “장로직”(칼빈의 해석), 다른 해석을 소개하는 곳은 원어 presbyterium. 교부 인용의 sacerdos = “사제(sacerdos)”, seniores = “장로들(seniores)”, senatus = “장로회(senatus)”. 그리스도·구약 = “제사장”, 교황제 = “사제”.
원문의 뜻이 용어 일관성보다 앞섭니다(3-6). 교황제 위계 목록의 presbyter를 “장로”로 두면 개혁교회 독자는 장로교의 장로를 떠올리므로 그 자리만 “사제”로 옮기고, 칼빈이 성경적 장로직을 세우는 논의(서품·장로 직무)에서는 용어표대로 “장로”를 지켜 교황제와 맞서는 논증을 살립니다. 딤전 4:14은 칼빈이 직접 “직분”으로 읽는다고 하므로 그 해석을 번역에 반영해야 문장이 서로 맞습니다. 원고 4곳(001, 042, 081 두 곳)을 고쳤습니다.
다른 선택지: 가. presbyter를 늘 “장로”(001처럼) / 다. 교황제 문맥은 “장로(사제)” 병기 / 라. 딤전 4:14은 개역한글대로 “장로의 회”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3. ordo를 “서품·품급·반열” 가운데 어느 말로 옮길지와, 장로 안수를 성례의 자리에 두는 칼빈의 단서

교황제의 sacramentum ordinis, 일곱 ordines, presbyterorum ordo, 그리고 칼빈의 정의 “Ordo est ipsa vocatio”가 한 논의 안에 나옵니다. 1536년판(014)은 칼빈의 정의를 “품급은 부르심 자체입니다”, “품급 자체가 무엇인지”, “장로의 품급”으로, 같은 문장의 1539년판(080)은 “서품은 곧 부르심 자체입니다”, “서품 자체가”, “장로의 반열”로 옮겨 두 판이 어긋났습니다. 또 칼빈은 참된 장로 직무의 안수를 “그 자리에 기꺼이 둔다”고 하면서도 셋째 성례로 세지 않으며,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을 “베풀었다”(administrabant)고 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단서를 답니다.

편 014 CO 1:185 Episcopos et presbyteros promiscue voco ecclesiae ministros. Ordo, est ipsa vocatio.
→ 감독과 장로를 가리지 않고 교회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서품은 부르심 자체입니다(고치기 전 “품급은”)

편 080 CO 1:1087 quinam in presbyterorum ordine censendi sint, imo quid omnino sit ordo ipse
→ 누가 장로의 반열에 들어야 하는지, 아니 오히려 서품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편 080 CO 1:1085 Quantum ad verum presbyterii munus attinet ... libenter eo loco habeo

→ 저는 기꺼이 그것을 그 자리에 둡니다 ... 셋째로 세지 않은 것은

편 081 CO 1:1095 quem huiusmodi symbolo administrabant, ut docerent non a se ipsis exire, sed e coelestibus descendere

→ 이런 상징으로 성령을 베풀어, 성령께서 자기들에게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적용한 안: 나. 성례 이름과 칼빈의 정의 = "서품", 교황제의 등급(ordines) = "품급", 사람의 무리·지위(presbyterorum ordo) = "반열". 안수 대목은 "성례"라는 말을 더하지 않고 칼빈의 단서를 그대로 옮김.

CO 1 요령은 다섯 거짓 성례의 ordo를 "서품"으로 정했습니다. 칼빈의 "Ordo est ipsa vocatio"는 교황제가 성례라 부르는 바로 그 ordo를 "부르심"으로 다시 정의하는 문장이므로, 성례 이름과 같은 "서품"으로 옮겨야 논박의 날이 섭니다. 등급과 무리는 뜻이 다르므로 갈라 둡니다. 014의 세 곳을 080에 맞추어 고쳤습니다.

다른 선택지: 가. 모두 "품급" (014 방식) / 다. 칼빈의 정의만 "직분은 부르심 자체" / 라. 모두 "서품"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4. 사도신경과 성경 인용의 inferi를 "음부"로, 칼빈의 지옥 고통 서술을 "지옥"으로 나눌지

사도신경 descendit ad inferos는 한국 교회 관용대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로 옮겼고, 칼빈이 그 조항을 풀며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을 말하는 inferorum abyssus·copiae·dolores는 "지옥의 심연·군대·고통"으로 옮겼습니다(039, 1536년판 004–005도 같음). 같은 inferi가 한 논증 안에서 두 말로 갈리므로 독자가 다른 대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인용(히스기야의 기도 inferorum portae, 시 49:14 apud inferos)은 편마다 "음부"(012), "지옥"(051), "스올"(059)로 갈렸습니다. 원고 전체에 inferi는 35곳 나오고, 번역어로 "음부"는 17곳, "지옥"은 30곳(gehenna와 일반 문맥 포함) 쓰였습니다.

편 039 CO 1:529 Ergo si ad inferos descendisse dicitur nihil mirum est, quum eam mortem pertulerit, quae sceleratis ab irato Deo infligitur

→ 그러므로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편 039 CO 1:529 haec valde est terribilis longeque miserrima inferorum abyssus
→ 이것이야말로 지옥의 가장 무섭고 가장 비참한 심연입니다

편 051 CO 1:707 inferorum portae circumdederunt me
→ 음부의 문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고치기 전 "지옥의 문들", 012와 맞춤)

편 059 CO 1:813 Instar gregis apud inferos collocabuntur
→ 그들은 양 떼같이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고치기 전 "스올")

적용한 안: 가. 사도신경 조항과 구약 인용(스올을 가리키는 inferi) = "음부", 칼빈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나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inferi = "지옥".
사도신경과 구약 인용은 개역한글과 한국 교회 신경 번역의 "음부"를 따르는 것이 독자의 성경과 맞습니다. 칼빈의 풀이는 음부 강하를 장소 이동이 아니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리시는 죽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으로 설명하므로, 그 고통의 실재를 말하는 낱말까지 "음부"로 두면 칼빈이 반대하는 장소설(림보)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같은 인용을 편마다 다르게 옮긴 곳(051 "지옥의 문들", 059 "스올")은 012와 개역한글에 맞추어 "음부"로 고쳤습니다(3곳).

다른 선택지: 나. 조항 해설 전체를 "지옥"으로 통일 / 다. 전체를 "음부"로 통일 / 라. "음부(지옥)" 병기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5. satisfactio를 그리스도께는 "속상", 교황제 고해에는 "속죄 행위", 미사·옛 교회 공적 회개에는 무엇으로 옮길지

CO 1 요령은 그리스도의 satisfactio = 속상, 교황제 고해의 셋째 부분 = "속죄 행위(satisfactio)"로 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정하지 않은 자리가 셋 있습니다. ① 미사를 하나님께서 satisfactio로 받으시는 값이라고 꾸민다는 교황제 주장: 1536년판(010)은 "속상(satisfactio)", 같은 문장의 1539년판(076)은 "만족(satisfactio)"이었습니다. ② 옛 교회 공적 회개에서 교회에 하는 satisfactio: 013·053은 "교회에 속죄 행위를 한다", 048은 "교회에 만족이 이루어질"로 갈렸습니다. ③ 동사 satisfacere(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다)는 명사와 다른 말로 옮겼습니다. 원고 전체에서 "속상" 52곳, "속죄 행위" 95곳이 쓰였습니다.

편 076 CO 1:1027 Sacrificium missae pretium Deo numerare fingitur, quod ipse in satisfactionem accipiat.
→ 미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속상(satisfactio)으로 받으실 값을 하나님께 치른다고 꾸며집니다(고치기 전 "만족(satisfactio)", 010과 맞춤)

편 006 CO 1:93 sua ipsius misericordia sibi satisfaciens in Christo … hisque satisfactionibus
→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의 긍휼로 당신께 속상을 이루시면서 … 이런 속죄 행위(satisfactio)로

편 039 CO 1:529 quo et irae ipsius intercederet et satisfaceret iusto iudicio
→ 진노를 막아서시고 그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시며

편 048 CO 1:661 satisfactum ecclesiae
→ 교회에 속죄 행위가 이루어질 만큼 다 치르고 나면(고치기 전 "만족이", 013·053과 맞춤)

적용한 안: 나.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스도의 속상을 가로챈다고 칼빈이 비판하는 미사의 satisfactio = "속상(satisfactio)". 사람이 하는 고해·공적 회개의 satisfactio = "속죄 행위(satisfactio)". 동사 satisfacere = "(의·심판을) 만족시키다".
칼빈이 미사를 비판하는 요점은 미사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상을 대신하는 값으로 꾸며진다는 것이므로, 같은 낱말 "속상"을 써야 그 침해가 드러납니다. "만족"으로 따로 옮기면 그리스도의 사역과의 맞섬이 흐려집니다. 옛 교회 공적 회개는 칼빈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교회에 한 satisfactio"라고 구별하는 사람의 행위이므로 고해와 같은 "속죄 행위"로 맞춥니다. 동사는 한국어에서 "속상하다"가 어색하고 "보속"은 금지어이므로 "만족시키다"로 둡니다. 076과 048을 고쳤습니다(2곳).
다른 선택지: 가. 미사 문맥은 "만족(satisfactio)"(076 방식) / 다. 미사 문맥은 "속죄 행위(satisfactio)" / 라. 동사도 "속상을 이루다"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6. reprobi를 ◆ 기준의 "유기된 자들"로 둘 자리와 "버림받은"으로 둘 자리

지침 6-2(◆)는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문맥만 "유기된", 사람의 판단·겉보기·일반 문맥은 "버림받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CO 1에서 칼빈은 reprobi를 거의 늘 electi(택함받은 자들)·filii Dei와 짝지은 신학 용어로 쓰고, 악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004),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갚으심(028), 율법의 첫째 직분(031), 영원한 형벌(049), 구약의 몸의 형벌(060)처럼 작정보다 심판의 결과를 말하는 곳에도 씁니다. 원고 전체에서 reprob- 55곳 가운데 고후 13:5 인용("버림받은 자")과 형용사 non reproba fides("버림받은 믿음")를 빼고 모두 "유기된"으로 옮겼고, 064는 reiicere·repudiare를 "버리다", reprobare를 "유기하다"로 원어별로 갈랐습니다.

편 004 CO 1:59 Dicitur Deus in reprobis operari, quorum opera damnata sunt. …

Hominem reprobum mali radicem in se habere fixam

→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 유기된 사람은 악의 뿌리를 자기 안에 박아 두고 있어서, 스스로 악을 생각하고,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꾀하고, 스스로 저지릅니다.

편 028 CO 1:397 quum patris iniquitatem semel in filio persequitur, docet quale reprobos omnes iudicium ob scelera propria maneat

→ 또 아버지의 죄악을 한 번 아들에게서 추궁하실 때, 그분은 모든 유기된 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는지를 가르치십니다.

편 031 CO 1:429 In hunc certe modum illinc exanimantur reprobi, sed ob animi obstinationem.

→ 유기된 자들은 분명 이런 식으로 거기서 넋을 잃지만, 그것은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편 049 CO 1:683 Tota scriptura clamat, nullum fore finem nec electorum beatitudini, nec reproborum supplicio

→ 또한 유기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보응의 무거움은 어떤 묘사로도 다 그려 낼 수 없으므로,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몸에 속한 것들로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 **적용한 안: 가. 칼빈이 electi와 맞세우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부르는 reprobi = "유기된 자들"(지금 원고). 성경 인용의 reprobus(고후 13:5)와 형용사, reiicere·repudiare = "버림받은/버리다".**
> ◆ 기준을 다시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CO 1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쟁점입니다. 칼빈의 reprobi는 사람의 겉보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본 구분(택함받은 자/유기된 자)이므로, 작정을 직접 말하지 않는 문장이라도 같은 낱말을 지켜야 칼빈의 짝말이 살아납니다. 다만 심판의 근거가 "그들 자신의 죄"라는 칼빈의 단서(028)와 "완고함 때문에"(031)는 빠짐없이 옮겼습니다. 이미 일관되어 있어 고친 곳은 없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작정을 직접 말하는 곳(064–065)만 "유기된", 나머지는 "버림받은" / 다. 심판 문맥은 "악인들"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7. religio를 "경건"과 "종교"로 나누는 경계와 원어 표기

CO 1 요령은 religio = 경건(religion), 이방·교황제 제의 문맥 = 종교(religion)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모든 민족에게 있는 religio의 씨앗, 꾸며 낸 제의, 불경건한 자들의 겉모양은 "종교", 칼빈이 규정하는 참된 religio(fides cum serio Dei timore

coniuncta)와 위정자가 지키는 vera religio는 "경건"으로 나누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는 ① 아우구스티누스 인용의 christiana religio(책 제목과 같은 짜임이라 "기독교"), ② 말씀을 대하는 solida verbi religio("말씀에 대한 견고한 경건"), ③ 국가 통치가 돌보는 publica religionis facies입니다. 또 원고의 원어 표기가 "경건(religion)" 59곳과 "경건(religio)" 18곳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편 020 CO 1:285 En quid sit pura germanaque religio: nempe fides, cum serio Dei timore coniuncta
→ 보십시오, 이것이 순수하고 참된 경건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과 결합된 믿음입니다

편 020 CO 1:277 quoddam tamen perpetuo religionis semen retinent
→ 종교의 어떤 씨는 언제나 간직합니다

편 023 CO 1:323 si me interroges de religionis christianae praeceptis
→ 당신이 기독교의 규칙에 관해 내게 묻는다면

편 082 CO 1:1101 ut inter christianos publica religionis facies existat
→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경건의 공적인 모습이 서고

> **적용한 안: 나. 칼빈이 긍정하는 참된 religio와 그 공적 모습 = "경건(religion)", 일반 현상·거짓 제의 = "종교(religion)", 책 이름 짜임의 christiana religio = "기독교". 원어 표기는 요령대로 "(religion)"으로 통일.**
> religio를 늘 "종교"로 옮기면 칼빈이 참된 경건과 거짓 종교를 맞세우는 1장의 논지가 사라지고, 늘 "경건"으로 옮기면 "이방인의 경건"처럼 칼빈이 부정하는 것을 긍정하는 말이 됩니다(3-6, 원문의 뜻 우선). 원어 표기는 요령 4항이 정한 꼴이 있으므로 그대로 맞추었습니다(6편 19곳: 034, 040, 062, 063, 077, 078). 양심을 매는 뜻의 religio는 다음 쟁점에서 따로 다룹니다.
> 다른 선택지: 가. 모두 "경건" / 다. 모두 "종교" / 라. 참된 religio는 "신앙"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8. 양심을 매는 religio(religione obstringi, religionem iniicere)를 "거리낌"과 "종교적 의무" 가운데 무엇으로 옮길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람의 전통을 다루는 대목에서 religio는 경건 일반이 아니라 아무래도 좋은 바깥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묶는 종교적 의무감을 뜻합니다. 1536년판은 "거리낌(religio)"(015), "양심에 거리낌을 지우려는"(015), "양심을 종교적 의무로 묶어서는"(017)으로 섞어 옮겼고, 1539년판은 같은 문장을 "종교적 의무

(religio)"(061·062·063), "거리낌(religio)을 지우려고"(077), "거리낌으로 양심을 묶거나"(078)로 옮겼습니다. 같은 문장이 판마다 다른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 015 CO 1:197 ut nulla rerum externarum, quae per se sunt *ἀδιάφορα*, religione coram Deo trahamur
→ 그 자체로 아무래도 좋은 바깥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종교적 의무(religio)에도 매이지 않고(고치기 전 "거리낌(religio)")

편 061 CO 1:831 ut nulla rerum externarum … religione coram Deo teneamur
→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 의무에도 매이지 않고

편 077 CO 1:1039 ut animas intus coram Deo ligent, et religionem iniiciant
→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묶고 … 종교적 의무(religio)를 지우려고(고치기 전 "거리낌(religio)")

> **적용한 안: 나. 양심을 묶거나 지우는 religio = "종교적 의무(religio)". scrupulus(양심의 망설임)와 "거리낌 없이"(sine scrupulo, libere)는 "거리낌"으로 둠.** 라틴어 obstringere·iniicere·teneri와 함께 쓰인 religio는 "지워지고 묶는" 의무의 뜻이 앞서므로 "종교적 의무"가 문장과 맞습니다. "거리낌"은 scrupulus의 번역으로 이미 같은 대목에 나오므로, 둘을 갈라야 칼빈이 쓴 두 낱말이 구분됩니다. 공통 용어대로 "경건"으로 옮기면 칼빈이 경건을 부정하는 듯 읽히므로 쓰지 않습니다. 015·077·078의 4곳을 고쳤습니다.
>
> 다른 선택지: 가. "거리낌(religio)"으로 통일 / 다. "양심의 구속" / 라. 공통 용어대로 "경건(religion)"
>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9. religio와 pietas가 한 구에 나란히 나올 때

두 낱말을 모두 "경건"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 "religionis et pietatis summa", "a religione et pietate christiana abhorrentem" 같은 구에서 같은 말이 겹칩니다. 원고는 059·062·077·082에서 "경건(religion)과 경건(pietas)"으로 원어를 밝혔으나, 같은 문장의 1536년판은 "종교(religion)와 경건"(015), "경건(religion)과 그리스도인의 경건"(017)으로 옮겨 판마다 달랐습니다.

편 059 CO 1:801 non aliam unquam fuisse in Dei populo religionis pietatisque regulam
→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경건(religion)과 경건(pietas)의 다른 규칙이 결코 없었다

편 015 CO 1:203 dum totam religionis et pietatis summam in ipsa statuunt
→ 경건(religion)과 경건(pietas)의 요체 전체를 그 안에 둡니다(고치기 전 "종교(religion)

와 경건의", 077과 맞춤)

편 017 CO 1:231 quasi rem a religione et pietate christiana abhorrentem
→ 마치 그리스도인의 경건(religion)과 경건(pietas)과는 동떨어진 일인 것처럼(082와 맞춤)

> **적용한 안: 가. "경건(religion)과 경건(pietas)"으로 원어를 밝혀 통일.**
> 칼빈은 두 말을 짝으로 써서 참된 경건 전체를 가리키며, 015의 교황제 문맥도 교황주의자들이 경건의 요체를 사람의 법에 둔다고 비판하는 것이지 그 경건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교"로 낮추지 않고 1539년판의 처리에 맞춥니다. 015·017의 2곳을 고쳤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religio를 "신앙"으로 옮겨 "신앙과 경건" / 다. "종교와 경건"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10. 성례·성찬의 exhibere를 "베풀다"로 통일할지("보여 주다·주다·내보이다"와 구별)

exhibere는 "보여 주다"와 "실제로 내어 주다"를 함께 뜻할 수 있어, 성례가 표시하는 것을 참으로 주는지에 관한 칼빈의 입장(단순한 표지설도 사효론도 아님)을 좌우합니다. 1536년판 성찬 대목(009)과 1539년판 성례론(070)은 "베풀다"로 옮겼는데, 같은 문장의 1539년판 성찬 대목(074–075)은 "주어지다", "내보이다", "내보여지다"로 옮겨, 009의 "주어지고 베풀어지신 분"(datum et exhibitum)이 074에서는 "주어지고 내보여진 분"이 되는 등 판마다 달랐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exhibitus est" 한 대목(008·070)은 "나타나셨다"로 옮겼습니다.

편 075 CO 1:1009 secundum hanc rationem corpus et sanguis Christi in sacramento nobis exhibetur
→ 이런 이치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고치기 전 "주어집니다", 009와 맞춤)

편 074 CO 1:1001 a symboli tamen exhibitione ipsam rei veritatem exhiberi rite colligemus
→ 우리는 상징을 베푸는 데서 실체의 진리 자체가 베풀어진다고 바르게 결론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고치기 전 "내보이는 데서 … 내보여진다고")

편 070 CO 1:941 et hoc ipsum quoque exhibeant quod promittunt
→ 약속하는 바로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

편 008 CO 1:107 haec iam praestitum et exhibitum testantur

→ 이미 오셔서 나타나신 그분을 증언합니다

적용한 안: 나. 성례에서 그리스도와 그 은택을 주시는 exhibere = "베풀다(베풀어지다)". dare는 "주다"로 남겨 datum et exhibitum은 "주어지고 베풀어지신". 그리스도의 오심(exhibitus est)·당신을 나타내심(se exhibere) = "나타나다/나타내다".

"내보이다", "보여 주다"는 칼빈이 곧이어 "참으로 내어 주시고 제가 받는다"고 하는 뜻을 약하게 하여 상징설로 읽히고, "주다"는 dare와 겹쳐 칼빈이 두 동사를 나란히 쓴 곳이 무너집니다. "베풀다"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그리스도)이라는 것과 실제 수여를 함께 담고, 이미 009·070에서 쓴 말입니다. 074·075의 11곳을 009에 맞추어 고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 나타나심은 뜻이 다르므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지: 가. 모두 "주다" / 다. "제시하다" / 라. 문맥에 따라 "보여 주다"와 "주다"를 섞음(074–075의 이전 상태)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11. 1536년판 성례론의 "알리고 보여 준다"·"도구가 아니다"와 성례를 계약 증서에 견주는 말

1536년판은 성례가 은혜를 "가져오지 않고 알리고 보여 주는" 사자와 같고(non afferunt, sed nuntiant), 은혜를 주는 "기관이요 도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수단과 도구"로 쓰신다고 하고, 1539년판은 성례가 약속하는 것을 "베풀어 준다"고 더 강조합니다. 또 1539년판 서원 장은 성례를 syngraphae(계약 증서)에 견주어 주님은 자비를 내어 주시고 우리는 순종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이 대목들을 츠빙글리적으로 좁히거나 후기 칼빈에 맞추어 넓히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편 008 CO 1:107 Sacramenta enim quasi nuntii quidam sunt, qui non afferunt quidem, sed nuntiant et ostendunt, quae divina largitate nobis data sunt.

→ 성례는 이를테면 어떤 사자(使者)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알리고 보여 줍니다.

편 009 CO 1:115 Non quia sacramento tales gratiae illigatae inclusaeque sint, aut quod sacramentum organum ac instrumentum sit, quo nobis conferantur

→ 이는 이런 은혜들이 성례에 묶이고 갇혀 있어서도 아니고, 성례가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는 기관이요 도구여서도 아니며, 다만 주님께서 이 표로 당신의 뜻, 곧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편 032 CO 1:439 Sunt enim sacramenta tanquam syngraphae, quibus Dominus misericordiam nobis suam atque ex ea vitam aeternam defert; nos vicissim illi obedientiam pollicemur.

→ 성례는 일종의 계약 증서와 같아서,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당신의 자비와 그 자비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우리는 거꾸로 그분께 순종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적용한 안: 가. 판마다 원문의 낱말 그대로("알리고 보여 줍니다", "기관이요 도구", "계약 증서") 옮기고, 판 사이의 차이를 번역으로 메우지 않음.
지침 3-6은 교리 체계에 맞추려고 칼빈의 문장을 고치거나 좁히거나 넓히지 말라고 합니다. 1536년판과 1539년판의 표현 차이는 칼빈 사상의 발전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instrumentum을 "방편"으로 바꾸면 008의 "수단과 도구"와의 맞섬이 사라져 칼빈의 구별(능력은 피조물에 있지 않다)이 오히려 흐려집니다. 계약 증서 비유는 주님께서 먼저 내어 주시는 원문 순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른 선택지: 나. instrumentum을 "방편"으로 / 다. nuntiant를 "전하다"로 약하게 / 라. syngrapha를 "증서·약정서"로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12. 성찬의 substantia·materia·res sacramenti·communicatio를 어떻게 옮길지와 1543년 이문 처리

1536년판은 성찬에서 "몸의 실체 자체"(substantia ipsa corporis)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베푸신 모든 은택이 주어진다고 하고, 1539년판은 "참되고 실체적인 교통"(vera substantialisque communicatio)을 받아들인다고 하며 그리스도를 성례의 materia vel substantia라 부르고 res sacramenti를 말합니다. 같은 substantia가 판에 따라 부정되고 긍정되므로, 번역 낱말을 바꾸면 이 차이가 가려지거나 과장됩니다. 또 1539년 헌정 서문의 교부 인용 두 문장은 1543년판부터 화체설 비판으로 바뀌었는데, CO는 이를 편집자 각주로만 실었습니다.

편 009 CO 1:123 non substantiam ipsam corporis, seu verum et naturale Christi corpus illic dari: sed omnia, quae in suo corpore nobis beneficia Christus praestitit

→ 이 말로 우리가 뜻하는 것은, 거기서 몸의 실체 자체, 곧 그리스도의 참되고 본성적인 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편 070 CO 1:949 Christum sacramentorum omnium materiam, vel, si mavis, sub-

stantiam esse dico
→ 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례의 질료, 또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실체라고 말합니다.

편 070 CO 1:947 inter sacramentum et rem sacramenti ab eodem Augustino saepius notata distinctio
→ 바로 여기서, 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같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주 짚은 성례와 성례의 실체 사이의 구별이 나옵니다.

편 075 CO 1:1005 quidquid ad exprimendam veram substantialemque corporis ac sanguinis Domini communicationem … facere potest, libenter recipio
→ 그러나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없앤 뒤라면, 성찬의 거룩한 상징들 아래에서 신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주님의 몸과 피의 참되고 실체적인 교통을 나타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저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 **적용한 안: 가. substantia = “실체”(판과 무관하게 같은 말), materia = “질료”, res sacramenti = “성례의 실체”, communicatio·communio = “교통”, participatio = “참여”(고전 10:16 인용은 개역한글 “참여함”), societas = “교제”. 1543년 이문은 본문에 넣지 않고 각주로 옮김.**
> 같은 낱말을 같은 말로 옮겨야 1536년판이 부정한 것과 1539년판이 긍정한 것이 같은 개념인지 아닌지를 독자가 원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체”는 화체설의 “실체 변화”와 혼동될 수 있으나 칼빈이 바로 앞뒤에서 장소적 임재를 물리치므로 문맥이 그 오해를 막습니다. 1543년 이문은 요령 3항(편집자 장치는 옮기지 않음)의 예외로, 성찬 교리상 중요하여 각주로만 밝혔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substantia를 “본질”로 / 다. materia·substantia를 “내용·알맹이”로 / 라. res sacramenti를 “표가 가리키는 것”으로 / 마. 이문을 버림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13. 성찬 순서에서 사역자가 excommunicare하는 것을 “출교”로 옮길지

칼빈이 제안하는 성찬 순서(1536년판 010, 1539년판 077)에서 사역자는 주의 금지로 성찬에서 막힌 자들을 excommunicare합니다. 권징 전체의 출교 판결이라기보다 성찬 상에서 물리침을 선언하는 것에 가깝고, 개혁교회 실무로는 “수찬 정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쪽에 교황제 사적 미사가 “일종의 출교(excommunicatio quaedam)”를 닮았다는 말이 있어 낱말의 연결도 있습니다. 두 판 모두 “출교합니다”로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편 010 CO 1:139 simul eos omnes excommunicaret, qui interdicto Domini ab ea arcentur

→ 먼저 공적인 기도로 시작하고,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다음 말씀의 사역자가 떡과 포도주를 상에 올려놓고 성찬의 제정을 낭독하며, 이어 성찬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들을 설명하고, 동시에 주님의 금지로 성찬에서 막힌 모든 자를 출교합니다.

편 077 CO 1:1037 simul eos omnes excommunicaret, qui interdicto Domini ab ea arcentur

→ 그다음 사역자가 식탁에 떡과 포도주를 차려 놓고 성찬의 제정을 낭독하고, 이어서 성찬에서 우리에게 남겨 주신 약속들을 설명하며, 동시에 주의 금지로 성찬에서 막혀 있는 모든 자를 출교합니다.

> **적용한 안: 가. "출교합니다" (CO 1 요령 excommunicatio = 출교 유지).**
> 요령 4항이 excommunicatio를 "출교"로 정했고, 칼빈이 같은 낱말로 미사를 "일종의 출교"라 비꼬는 말놀이가 있으므로 같은 말을 지킵니다. "수찬 정지"는 후대 교회 질서의 용어여서 원문에 없는 제도를 넣게 됩니다.
> 다른 선택지: 나. "수찬 정지를 선언합니다" / 다. "성찬에서 물리친다고 선언합니다"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14. 히브리서 9장 논증의 testamentum을 "유언"과 "언약"으로 나눌지

칼빈은 사람 사이의 testamentum이 testator의 죽음으로 확정된다는 히 9:16–17의 논리로 미사를 반박합니다. 한 낱말이 유언과 언약을 함께 뜻해야 논증이 서는데, 한국어에서는 한 낱말로 둘을 담기 어렵습니다. 두 판 모두 사람 사이는 "유언",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확정하신 것은 "언약"으로 나누었으나, 히 9:16 인용이 1536년판(010)은 "언약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로, 1539년판(076)은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로 갈렸습니다.

편 076 CO 1:1025 ut inter homines testamenti confirmatio a morte testatoris pendet, ita etiam testamentum … morte sua confirmavit Dominus noster

→ 사람들 사이에서 유언이 유언자의 죽음으로 확정되듯이

편 010 CO 1:133 ubi testamentum est, inquit apostolus (Hebr. 9, 16), mortem testatoris intercedere illic necesse est (076 CO 1:1025와 같은 문장)

→ 사도는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고치기 전 "언약이 있는 곳에는")

적용한 안: 나. 사람 사이와 히 9:16 인용 = “유언”, testator = “유언자”,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신 것 = “언약”, 첫 자리에 원어(testamentum) 병기.
히 9:16 인용은 개역한글(“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과 칼빈의 논리 모두 “유언”이어야 문장이 섭니다. 010의 인용은 앞 절반만 “언약”이어서 한 문장 안에서 낱말이 어긋났으므로 076에 맞추었고, testator는 010의 “유언자”로 통일했습니다(3곳).
다른 선택지: 가. 모두 “언약”으로 통일하고 각주로 유언의 뜻 설명 / 다. “언약(유언)” 병기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15. confessio를 성경적 “고백”과 교황제 “고해”로 나눌지, privata absolutio의 번역

칼빈은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고백과 교황제의 귓속 고해를 같은 낱말 confessio로 부르며 맞세웁니다. 1536년판(012)은 성경적 고백 = “고백”, 교황제 제도 = “고해”로 갈랐는데, 같은 문장의 1539년판(051)은 교황제 제도까지 거의 모두 “고백”으로 옮겨 CO 1 요령의 “귓속 고해”(confessio auricularis)도 “귓속 고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칼빈이 목사에게 하는 자발적 사적 고백과 privata absolutio를 “효력과 열매가 못하지 않다”고 권하는 대목에서 absolutio를 로마 교회의 사제적 사면으로 읽지 않게 할지가 갈립니다.

편 012 CO 1:159 non leguntur in aurem sacrificuli cuiuspiam confessi. Nec sane confiteri poterant, ubi nec sacrificuli confessionarii erant
→ 어떤 사제 나부랭이의 귀에 고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고해를 듣는 사제 나부랭이도 없고 고해 자체도 없던 때에

편 051 CO 1:709 non leguntur in aurem sacrificuli cuiuspiam confessi
→ 그들이 어느 사제 나부랭이의 귀에 고해했다고 기록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고치기 전 “고백했다고”)

편 051 CO 1:705 Nec minoris efficaciae atque fructus est privata absolutio
→ 사적인 사죄 선언도 효력과 열매가 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적용한 안: 나. 성경적·자발적 고백 = “고백”, 교황제의 의무 제도(귓속 고해, 고해 서원, 고해 듣는 사제) = “고해”, absolutio = “사죄 선언”.
요령 4항이 confessio auricularis = “귓속 고해”로 정했고, 칼빈이 두 confessio

를 맞세우므로 낱말을 갈라야 칼빈이 고백 자체가 아니라 교황제 고해를 정죄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051의 34–35절(012와 같은 문장) 9곳을 012에 맞추어 고쳤습니다. 다만 051의 나머지 절은 성경적 고백과 교황제 주장이 한 문장에 얽혀 있어 일괄로 고치지 않았고, 신학 감수 때 절마다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absolutio는 "사면" 이 법적·사제적 권한으로 들리므로 "사죄 선언" 으로 두고 칼빈의 단서(말씀에 매임)를 빠짐없이 옮겼습니다.

다른 선택지: 가. 모두 "고백" 으로 통일하고 귓속 고해만 "고해" / 다. absolutio = "죄 사함의 선포"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16. poenitentia를 "회개"와 "고해"로 나누는 경계: 공적 회개, "회개의 성례", 회개의 훈련

CO 1 요령은 poenitentia = 회개, 교황제의 성사 문맥 = 고해로 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① 옛 교회의 공적 권징(poenitentia publica, poenitentes), ② 칼빈이 "세례야말로 poenitentiae sacramentum이라 부를 만하다"고 되받는 말, ③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벌을 지우는 서원(exercitia poenitentiae)이 있습니다. 원고는 ①을 "공적 회개/회개하는 자"(079), ②를 "회개의 성례"(013·071·079), ③을 "회개의 훈련"(032)으로 옮겼는데, 1539년판 회개 장(051·052)의 키프리아누스 인용과 옛 권징 대목 4곳만 "참회"로 옮겨 낱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편 079 CO 1:1075 Hunc ordinem in publica poenitentia observabant, ut qui iniunctis sibi satisfactionibus defuncti erant, solenni manus impositione reconciliarentur.

→ 옛 교회는 공적 회개에서 이런 순서를 지켰습니다. 자기에게 부과된 속죄 행위를 마친 사람들은 엄숙한 안수로 화해를 받았습니다

편 079 CO 1:1077 Aptissime itaque dixeris, si baptismum vocaveris poenitentiae sacramentum

→ 그러므로 세례를 회개의 성례라고 부른다면 아주 알맞게 말한 것입니다

편 051 CO 1:705 Poenitentiam, inquit, agunt iusto tempore

→ "그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회개합니다"(고치기 전 "참회합니다")

적용한 안: 가. 교황제 성례 이름 = "고해(의 성례)", 그 밖의 poenitentia(옛 교회 공적 권징, 칼빈의 되받는 말, 서원) = "회개". "참회"는 쓰지 않음.
"참회"는 한국어에서 가톨릭 고해와 불교 용어로 함께 읽혀, 요령이 정한 두 말(회개/고해) 밖의 셋째 말이 됩니다. 칼빈은 옛 교회의 공적 권징을 교황제 고해와 구별하므로(079) 그 권징을 "회개"로 두어야 구별이 남고, "세례를 회개의 성례라 부른다면"은 고해 성례를 부정하는 칼빈 자신의 말이므로 "회개"가 맞습니다. 051·052의 "참회" 4곳을 "회개"로 고쳤습니다.
다른 선택지: 나. 옛 교회 공적 권징만 "공적 참회/참회자"(한국어 강요 번역 관례) / 다. 모두 "고해"로 통일하고 각주로 말놀이 설명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17. 신자의 죄가 venialia라는 칼빈 자신의 말을 "소죄"로 옮길지

지침 6-2(◆)는 péchés véniels = "소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스콜라의 소죄·대죄 구별을 배격한 직후, 신자들의 죄는 "죽음을 받아 마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정죄가 없기 때문에 venialia"라고 말합니다. 이 칼빈 자신의 진술을 "소죄"로 옮기면 칼빈이 소죄 개념을 인정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원고는 013·052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옮겼으나, 같은 논리의 1539년판 율법 장(030)은 "성도들의 허물이 소죄인 것은 그 본성 때문이 아니라"로 옮겨 어긋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인용의 veniale delictum(077)은 "소죄(...)"로 옮겼습니다.

편 052 CO 1:721 fidelium peccata venialia esse: non quia non mortem mereantur, sed quia Dei misericordia nulla est condemnatio
→ 신자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사망을 받아 마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편 030 CO 1:423 sanctorum delicta venialia esse, non ex suapte natura, sed quia ex Dei misericordia veniam consequuntur
→ 성도들의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것은 그 본성 때문이 아니라(고치기 전 "소죄인 것은")

편 077 CO 1:1035 aut nullum, aut veniale delictum est
→ 그것은 아무 죄도 아니거나 소죄(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벼운 죄)이다

적용한 안: 나. 스콜라의 구별을 소개·비판하는 곳과 교부 인용 = "소죄(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벼운 죄)", 칼빈 자신이 신자의 죄를 venialia라 하는 곳 = "용서받을 수 있는 죄".
◆ 항목의 낱말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같은 낱말을 비틀어 쓰는 자리에서 원문의 뜻(3-6)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칼빈의 단서("본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얻기 때문")와 낱말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030의 1곳을 013·052에 맞추어 고쳤습니다.
다른 선택지: 가. 모든 곳을 "소죄"로 통일하고 칼빈의 단서로 구별되게 둠(각주로 말놀이 설명) / 다. 아우구스티누스 인용도 "용서받을 만한 허물"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18. 하나님의 매를 가리키는 castigatio·correctio와 poena·supplicium·vindicta의 구별, 고전 5:5의 damnatio temporanea

칼빈은 신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매를 보응(vindicta)·징벌(supplicium)이 아니라 징계(castigatio)·바로잡음(correctio)이라고 구별하면서도, 같은 대목에서 poena를 신자에게도 씁니다(사 40:2 풀이, 아우구스티누스 인용). 또 고전 5:5의 사탄에게 내줌을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일시적인 damnatio에 넘겼다"고 합니다. 원고는 1536·1539년판 모두 castigatio = 징계, correptio = 책망, correctio = 바로잡음, poena = 형벌(벌), supplicium = 징벌, vindicta = 보응, ultio = 보복, damnatio = 정죄로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편 013 CO 1:171 iudicium unum, docendi causa, vocemus vindictae, alterum castigationis
→ 가르치기 위해 하나는 보응의 심판, 다른 하나는 징계의 심판이라고 부릅시다.

편 052 CO 1:723 Unde non est supplicium proprie aut vindicta, sed correctio et admonitio. Alterum iudicis est, alterum patris.
→ 그러므로 그것은 엄밀히 말해 징벌이나 보응이 아니라 바로잡음과 경고입니다. 앞의 것은 재판관의 일이고, 뒤의 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편 041 CO 1:551 concessisse in damnationem temporaneam, ut in aeternum salvus fieret
→ 이것은, 적어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가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일시적인 정죄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적용한 안: 가. 원어마다 한 낱말을 지켜(위 목록) 칼빈의 구별이 낱말에서 드러나게 함. 신자 문맥의 poena도 "형벌"로 두고, damnatio temporanea는 "일시적인 정죄".

지침 6-2(6)은 고난·징계를 "벌"과 구분하라고 합니다. 칼빈 자신이 poena를 신자에게 쓰는 곳까지 "징계"로 바꾸면 칼빈이 구별을 세우는 과정(낱말을 어떻게 쓰는지)이 지워지므로, 낱말은 원어대로 두고 칼빈의 단서("재판관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를 살렸습니다. damnatio를 "징계"로 옮기면 출교가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는 칼빈의 논지가 오히려 약해집니다.

다른 선택지: 나. 신자 문맥의 poena를 "매"나 "징계"로 / 다. castigatio를 "훈계"로 / 라. damnatio temporanea를 "일시적인 징계"로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19. 회개의 두 부분 mortificatio·vivificatio와 "회개를 중생으로 해석한다"는 말

지침 6-2는 mortification/vivification을 "옛사람을 죽임 / 새사람으로 살림"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소개하는 "어떤 학식 있는 사람들"은 mortificatio를 죄를 깨달은 영혼의 고통으로, vivificatio를 믿음에서 나오는 위로로 정의하고, 칼빈 자신은 mortificatio carnis, vivificatio spiritus(육을 죽임, 영을 살림)라고 하며 1539년판에서는 "회개를 한마디로 regeneratio로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원고는 1536·1539년판(011·050) 모두 남의 정의는 "죽임(mortificatio)/살림(vivificatio)", 칼빈의 정의는 원문대로 "육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 "육을 죽임과 영을 살림"으로, regeneratio는 "중생"으로 옮겨 판 사이가 일관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내미실 때 돌이킴을 조건으로 "다짐받으신다"(stipulari)는 말도 있습니다.

편 011 CO 1:147 dixerunt constare duabus partibus: mortificatione et vivificatione … poenitentia carnis nostrae veterisque hominis mortificatio

→ 회개가 두 부분, 곧 죽임(mortificatio)과 살림(vivificatio)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편 050 CO 1:689 Uno ergo verbo poenitentiam interpretor, regenerationem

→ 그러므로 저는 한마디로 회개를 중생으로 해석합니다.

편 050 CO 1:693 ubi peccatorum remissionem offert Deus, resipiscentiam vicissim stipulari fere solet … non eam conditionem sic apponi, quasi emerendae veniae fundamentum sit nostra resipiscentia

→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내미실 때 대개 그 대신 돌이킴을 조건으로 다짐받으십

니다.

> **적용한 안: 가. 원문이 carnis·spiritus나 vetus homo를 밝히면 그 말을 살려 옮기고, 낱말만 나오는 곳은 6-2대로 "옛사람을 죽임/새사람으로 살림", 남의 정의를 소개하는 곳은 "죽임(mortificatio)/살림(vivificatio)". regeneratio = "중생".** 6-2의 풀이형은 원문이 목적어를 밝히지 않은 곳의 기본값이고, 칼빈이 "육"과 "영"을 밝힌 곳에서 "옛사람/새사람"으로 바꾸면 원문을 바꾸게 됩니다(3-6). 회개를 "중생"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후대 교의학의 좁은 중생 개념과 다르지만, 원문대로 옮기고 해설을 넣지 않았습니다. stipulari도 "조건"을 약하게 하지 않고 칼빈의 단서(돌이킴은 용서를 공로로 얻는 기초가 아니다)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
> 다른 선택지: 나. 모든 곳을 6-2 풀이형으로 통일 / 다. regeneratio를 "거듭남(새로워짐)"으로 풀기 / 라. stipulari를 "함께 요구하십니다"로
>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20. disciplina·politicus·politia를 문맥마다 어떻게 옮길지(권징, 훈련, 국가적, 제도적, 민주정)

CO 1 요령은 disciplina = 권징, politica administratio = 국가 통치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① 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던 옛 교리 교육 제도의 disciplina(011), ② 칼빈의 두 다스림 구분 regnum spirituale / regnum politicum(015), ③ 감독들이 교회 안에 세운 고백 제도를 가리키는 politica disciplina(050), ④ 아리스토텔레스적 정체 이름인 politia(082)는 각각 뜻이 다릅니다. 원고는 ① "훈련(disciplina)", ② "영적 나라 / 국가적 나라", ③ "제도적 규율(politica disciplina)", ④ "민주정(politia)"으로 옮겼습니다.

편 011 CO 1:147 Haec disciplina si hodie valeret, profecto parentum quorundam ignavia acueretur

→ 이 훈련(disciplina)이 오늘날 힘이 있다면

편 015 CO 1:203 Alterum vocare nobis liceat regnum spirituale, alterum regnum politicum.

→ 하나를 영적 나라, 다른 하나를 국가적 나라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편 050 CO 1:697 hanc fuisse politicam disciplinam, ab episcopis institutam, non legem a Christo aut apostolis positam

→ 또 역사책에서나 다른 옛 저술가들에게서나 뚜렷한 증언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이것

이 감독들이 세운 제도적 규율(politica disciplina)이었지,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정한 법이 아니었다고 가르칩니다.

편 082 CO 1:1105 vel aristocratiam, vel temperatum ex ipsa et politia statum … aristocratiam politiae vicinam

→ 참으로 철학자들이 내세우는 저 세 가지 통치 형태를 그 자체로 놓고 생각한다면, 저는 귀족정이나, 귀족정과 민주정(politia)을 섞어 조절한 상태가 다른 모든 형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좋은 처지에 두기를 원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민주정에 가까운 귀족정을 세우셨습니다.

> **적용한 안: 가. 요령의 기본값(권징, 국가 통치·국가적)을 지키되, 위 네 자리는 문맥의 뜻으로 옮기고 원어를 병기(지금 원고).**
> 같은 원어라도 뜻이 다른 문맥을 일부러 구분한 경우입니다(3-6, 원문의 뜻 우선). "권징"을 교리 교육에 쓰면 징계로 읽히고, "국가적 규율"을 감독들이 세운 교회 제도에 쓰면 칼빈의 논점(그리스도나 사도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제도)과 어긋납니다. 원어를 병기하여 같은 낱말임을 독자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disciplina를 늘 "권징", politicus를 늘 "국가적" / 다. regnum politicum = "정치적 나라" 또는 "시민적 나라" / 라. politia = "공화정·민중 정체"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21. 위정자 장의 표현: Dei personam sustinere, Christus Domini, 하급 위정자의 intercedere

칼빈은 위정자가 "신들"로 불리는 까닭을 그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대리한다"(Dei personam sustinere, cuius vices quodammodo agunt)고 풀이합니다. 사울을 가리키는 삼상 24·26장 인용의 Christus Domini는 1536년판(018)이 "주의 그리스도", 같은 인용의 1539년판(083)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옮겨 달랐습니다. 또 칼빈은 사사로운 사람에게는 순종과 인내만 명하면서, 백성의 위정자들(에포로스·호민관·삼부회)이 직무에 따라 왕의 방자함에 intercedere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non veto)"고 하고 눈감으면 "극악한 배신"이라 합니다.

편 018 CO 1:245 quoniam Christus Domini est … Quis mittet manum suam in Christum Domini et innocens erit?

→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라 … 누가 손을 들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고 죄가 없겠느냐(고치기 전 "주의 그리스도")

편 083 CO 1:1121 quis mittet manum suam in christum Domini, et innocens erit?
→ 누가 손을 들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고 죄가 없겠느냐?

편 017 CO 1:229 ac omnino Dei personam sustinere, cuius vices quodammodo agunt
→ 참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대신 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대리한다

편 083 CO 1:1121 adeo illos ferocienti regum licentiae pro officio intercedere non veto
→ 자기 직무를 따라 왕들의 사나운 방자함에 맞서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적용한 안: 나. persona는 "인격"으로 두고 quodammodo("어떤 방식으로")를 살림. Christus Domini =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intercedere = "맞서다", non veto = "막지(금하지) 않습니다"로 원문의 강도를 그대로.
Christus Domini는 라틴어 낱말 그대로는 "그리스도"이지만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개역한글 삼상 24:6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한국 독자는 "주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로 읽습니다. 칼빈의 문장을 옮기는 원칙은 낱말의 뜻을 옮기는 것이므로, 083에 맞추어 018의 4곳을 고쳤습니다. non veto는 "의무"로 넓히거나 "묵인"으로 좁히지 않고 원문대로 두었습니다.

다른 선택지: 가. "주의 그리스도"(018 이전 상태) 또는 "그리스도(기름 부음 받은 자)" 병기 / 다. non veto를 "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무로 봅니다"로 / 라. intercedere를 로마 호민관의 "거부권으로 막아서다"로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22. schisma·schismaticus를 "분열·분열주의자"로 통일할지

대적들이 개혁 교리를 schismatica라 부르는 대목과, 칼빈이 에우게니우스 일파를 schismatici라 되받는 대목은 헌정 서문 1536년판(001)과 1539년판(019)에 거듭 나옵니다. 001은 "분리주의(자)", 019는 "분파적인/분파주의자", 032(수도원)는 "분리주의자들의 비밀 집회", 041(교회의 하나 됨)은 "분열주의자"로 옮겨 네 갈래였습니다. 같은 문장에서 schisma는 이미 "분열"(분열과 반역과 완고함의 죄)로 옮겼습니다.

편 001 CO 1:13 urgent ut schismaticam esse fateamur
→ 이 교리가 교회를 거슬러 싸움을 일으키니 분열적인 것임을 우리더러 고백하라고(고치기 전 "분리주의임을")

편 019 CO 1:273 habebuntur a nobis schismatici
→ 모두 우리에게 분열주의자로 여겨질 것입니다(고치기 전 "분파주의자")

편 032 CO 1:447 quot sunt hodie monasteria, tot esse dico schismaticorum con-

venticula
→ 오늘날 수도원의 수만큼 분열주의자들의 비밀 집회가 있다(고치기 전 "분리주의자들의")

적용한 안: 나. schisma = "분열", schismaticus = "분열주의자", 형용사 = "분열적인". secta(분파)는 "분파"로 둠.
한 낱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로 옮긴다는 6-2 원칙에 따라, 이미 쓰는 schisma = "분열"과 짝이 맞는 "분열주의자"를 택했습니다. "분파"는 같은 대목의 secta(sectarum acervus = "분파 더미")와 겹치므로 schismaticus에 쓰지 않습니다. 001·019·032의 9곳을 고쳐 041과 맞추었습니다. 칼빈의 되받아치기(그들이 우리를 부르는 말로 그들을 부름)는 같은 말을 쓰므로 그대로 살아납니다.
다른 선택지: 가. "분리주의자" / 다. "분파주의자" / 라. 교회론 용어 "열교(裂敎)"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23. meritum·mereri·demereri를 그리스도와 사람에게 모두 "공로"로 옮길지

지침 6-2는 mérite = 공로, "자격"으로 흐리지 말라고 정했습니다. CO 1에서는 ①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mortis suae merito), ② 칼빈이 부정하는 "사함을 공로로 얻어 냄"(remissionem mereamur), ③ 꾸며 낸 예배로 "하나님께 공로를 세우다"(demereri Deum), ④ 율법 순종이 영생의 갚음을 신뢰할 만한 "공로가 되는" 순종인지(cuius merito)를 묻는 가정 문맥이 함께 나옵니다. 원고는 네 곳 모두 "공로"로 옮겼습니다.

편 002 CO 1:29 Hic mortis etiam suae merito, iustitiae Dei debita nostra persolvit
→ 그분은 또한 당신의 죽음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빚을 갚으셨고, 우리가 매여 있던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죄의 형벌을 당신의 몸에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편 007 CO 1:97 non hanc conditionem ideo adiici … propterea quod nostra, quam aliis facimus, remissione, eius remissionem mereamur. Verum hoc verbo solari duntaxat voluit Dominus fidei nostrae imbecillitatem.
→ 끝으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이 조건이 덧붙은 것은,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사함으로 그분의 사함을 공로로 얻어 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 027 CO 1:373 ad varios identidem excogitandos cultus, quibus illum demereatur; frustra igitur novas operum formas ad demerendum Deum tentari
→ 사람의 정신은 방종하여, 그분께 공로를 세우려고 갖가지 예배를 거듭 꾸며 내는 데 더욱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 곧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의 말고는 다른 의를 가르치지 않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공로를 세우려고 새로운 행위의 형식을 시도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편 030 CO 1:423 ecquid eam obedientiam praestemus, cuius merito concipienda sit illius remunerationis fiducia

→ 그러나 다시, 그 보상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공로가 되는 순종을 우리가 과연 바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적용한 안: 가. 그리스도께도 사람에게도 meritum = “공로”, demereri = “공로를 세우다”, 칼빈이 부정하거나 가정하는 문맥은 부정·가정을 문장에 살림.**
> 칼빈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세우면서 사람의 공로를 부정하므로, 같은 낱말을 써야 “우리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맞섬이 드러납니다. demereri를 “환심을 사다”로 옮기면 칼빈의 공로 사상 비판이 흐려집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그리스도께는 “죽음으로 얻으신 값” / 다. demereri = “환심을 사다·은혜를 얻어 내다” / 라. ④를 “그 순종 덕분에”로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24. remuneratio를 “갚음”으로, compensatio를 “보상”으로 나눌지

칼빈은 영생을 성경의 본을 따라 remuneratio라 부를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행위의 공로를 따진 것이 아니라 성도의 압제와 고난에 대한 compensatio임을 보여 준다고 합니다. 1536년판(003)은 remuneratio = “갚음”, compensatio = “보상”으로 갈랐는데, 같은 문장의 1539년판(058)은 둘 다 “보상”으로 옮겨 칼빈의 두 낱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고 전체에서도 remuneratio가 “갚음”(003·024·055·056 등)과 “보상”(027·054·057·058·062)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praemium·merces·retributio(상, 삯, 상급)도 함께 나옵니다.

편 003 CO 1:55 nihil obest, quominus vitam aeternam, remunerationem scripturae exemplo vocemus

→ 우리가 성경의 본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갚음이라고 부르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편 058 CO 1:795 non operum aestimans meritum, sed compensationem esse significans … quominus vitam aeternam, remunerationem, scripturae exemplo, vocemus

→ 이와 같이 삶의 거룩함을 길이라고 여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나라의

나타남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편 062 CO 1:849 Ideo enim opera a Deo mandata remunerationem habent, quod legislator ipse obedientiae respectu ea accepta habet

→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위가 갚음을 받는 것은(고치기 전 "보상을")

적용한 안: 나. remuneratio = "갚음"(동사 remunerari = "갚아 주다"), compensatio = "보상", merces = "삯"(성경 인용은 "상"), praemium = "상".
칼빈이 한 문장에서 remuneratio와 compensatio를 다른 낱말로 쓰므로 번역도 둘을 갈라야 원문의 뜻(3-6)이 남습니다. "갚음"은 1536년판이 이미 정한 말이고, "갚아 주심이 값없는 호의에서 나온다"(024)는 칼빈의 단서와도 잘 맞습니다. "보상"을 remuneratio에 쓰면 공로에 따른 대가로 읽힐 우려가 더 큽니다. 1539년판의 remuneratio 5곳(027, 054, 057, 058, 062)을 "갚음"으로 고쳤습니다. 다만 praemium·merces와 얽힌 나머지 "보상"은 원어를 하나하나 대조해야 하므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지: 가. 모두 "보상"(1539년판 다수 용례) / 다. 모두 "상급"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25. 칭의를 말하는 1536·1539년판의 표현(의인이 됨, 부분적으로 의롭다 하심, 성령의 일, acceptio, declaratio, 행위가 의로 전가됨)

1536년판은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iusti fimus), 교회 조항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iam ex parte iustificati), 롬 8:30 해설에서 의롭다 하심을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심과 성령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하심을 함께 묶어 말합니다. 1539년판은 "우리의 칭의는 성령의 일"이라 하고, 칭의를 acceptio("받아들이심")로 정의하며, 약 2장을 의의 declaratio로 풀고, 칭의 뒤의 선행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덮여 "의로 전가된다"고 말합니다. 후대 개혁파의 법정적 칭의 용어와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곳들입니다.

편 003 CO 1:47 cuius deinde iustitia, iusti ipsi et legis impletores fimus

→ 그러나 그 뒤에 그분의 의로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고 율법을 이룬 자가 됩니다.

편 005 CO 1:75 cum caeteris Dei electis, cum quibus vocati, et iam ex parte iustificati sumus, perfecte iustificatum ac glorificatum iri confidamus

→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우리도 그 교회에 속해 있음을 확실하게 여기고, 우리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이미 부분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다른 택함받은 자들과 함께 우리도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편 005 CO 1:73 Iustificat, dum eos Christi iustitia vestit … ac sancti sui spiritus benedictionibus eos irrigat, quibus de die in diem a carnis suae corruptione expurgentur et in vitae novitatem regenerentur

→ 그분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셔서, 그들이 그 의를 자기들의 완전함으로 삼아 꾸며지고 자기들의 불완전함을 덮게 하실 때,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영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 적셔 주셔서, 그 복으로 그들이 날마다 자기 육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되고 생명의 새로움으로 중생하여 마침내…

편 035 CO 1:487 Iustificatio nostra eius opus est.

→ 우리의 칭의는 그분의 일입니다.

> **적용한 안: 가. iustificare = “의롭다 하시다”, iustificatio = “칭의”, imputare = “전가하다”, acceptio = “받아들이심”, declaratio = “선언”으로 지침의 낱말을 지키고, 문장은 원문대로 옮김. iusti fimus만 “의인이 된다”(성화로 읽히는 “의롭게 된다”를 피함).**
> 지침 3-6은 교리 체계에 맞추려고 칼빈의 문장을 좁히거나 넓히지 말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의롭다 하심”이나 “칭의는 성령의 일”을 풀어 옮기면 원문을 넓히게 되고, 낱말을 바꾸면 칼빈의 1536년 어법을 후대 체계로 덮게 됩니다. 반대로 지침이 금하는 “의롭게 만드시다”는 쓰지 않았습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ex parte를 “얼마간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으로 풀기 / 다. acceptio = “용납하심” / 라. declaratio = “의를 드러내 보임” / 마. 행위에는 “의로 여겨진다”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26. 칭의 뒤 행위의 자리: fiducia operum, causae inferiores, via, salutem operari, 불완전한 순종을 받아 주심

칼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를 둔 뒤 행위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증거로 보아 “행위의 신뢰”로 양심이 굳어진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선행을 영생의 “하위 원인”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며, 거룩한 삶을 “길”이라 부르고, 신자들이 “자기 구원을 이룬다”(빌 2:12)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자의 반쪽짜리 순종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모자란 것을 용서하셔서 율법 약속의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모두 낱말만 보면 공로 신학이나 사람의 협력으로 읽힐 수 있으나, 칼빈은 바로 곁에 단서를 붙입니다.

편 056 CO 1:767 Quando igitur istaec operum fiducia locum non habet, nisi totam prius animi fiduciam in misericordiam Dei reieceris, non debet illi videri contraria, unde pendet.

→ 그러므로 이런 행위의 신뢰는, 그대가 먼저 마음의 신뢰 전체를 하나님의 자비에 던져

놓지 않으면 자리를 얻지 못하므로, 그것이 기대고 있는 그 자비와 반대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편 056 CO 1:767 Istis nihil obstat quominus opera Dominus, tanquam causas inferiores, amplectatur

→ 그렇다고 주님께서 행위를 하위 원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 058 CO 1:795 si vitae sanctitatem existimemus esse viam; non quidem quae aditum aperiat in gloriam coelestis regni, sed qua electi a Deo suo in eius manifestationem ducantur

→ 이와 같이 삶의 거룩함을 길이라고 여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나라의 나타남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편 058 CO 1:793 apposite dicuntur salutem suam operari (Phil. 2, 12)

→ 참으로 이런 이치로, 그들이 선행에 힘쓰면서 영원한 생명을 묵상할 때 자기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적절합니다(빌 2:12).

> **적용한 안: 가. 낱말을 바꾸지 않고 칼빈의 단서("자비에 달려 있고 그것 없이는 서지 못한다", "경륜의 순서상 앞선 것을 원인이라 부를 뿐",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의 장본인이 아니다")를 빠짐없이 옮김. 하나님이 주어인 문장은 하나님을 주어로 둠.**
> 지침 3-6과 6-2(4)는 낱말을 약하게 바꾸기보다 원문의 단서를 살려 오해를 막으라고 합니다. "원인"을 "부차적 요소"로, "길"을 "과정"으로 바꾸면 칼빈이 스스로 풀이하는 대상이 사라집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fiducia operum = "행위에서 얻는 확신" / 다. causae inferiores = "부차적 원인" / 라. salutem operari = "자기 구원을 위해 일한다"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27. 믿음의 확실성을 말하는 securitas를 "안심"으로 통일할지

칼빈은 믿음의 확실성을 securitas(양심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라앉히고 맑게 하는 것)로 거듭 말하고, 그것이 의심과 싸움이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지침은 fiducia = 신뢰, certitudo = 확신만 정했습니다. 원고는 믿음 장(033–034)과 칭의 장(055·057)에서 "안심", 기도 장(067·069)에서 "든든함"으로 옮겨, 같은 개념이 장마다 달랐습니다. 한편 육적 방심을 뜻하는 나쁜 securitas(051·055·057의 일부)도 있습니다.

편 033 CO 1:457 Est autem securitas quae conscientiam coram Dei iudicio sedat et serenat

→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양심을 가라앉히고 맑게 하는 안심입니다

편 067 CO 1:909 Hanc ergo obtinendi quod petimus securitatem … Porro dum hanc fidei securitatem

→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믿음의 그런 담대한 기대(praesumptio)에서 나오고

> **적용한 안: 나. 믿음·기도의 securitas = "안심", 육적 태만을 꾸짖는 securitas = "방심·태평", 정치적 안전 = "안전".**
> 칼빈은 기도의 securitas를 믿음의 securitas와 같은 것으로 말하며(067 "이 믿음의 securitas"), 둘 다 같은 단서(모든 근심이 없는 평온은 아님)를 붙입니다. 같은 개념을 한 말로 옮겨야 독자가 기도의 담대함을 믿음의 확실성과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확신"은 certitudo와 겹치므로 쓰지 않습니다. 067·069의 4곳을 "안심"으로 고쳤습니다.
> 다른 선택지: 가. "든든함"으로 통일 / 다. "평안" / 라. "확신"(certitudo와 겹침)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28. 칼빈이 좋은 뜻으로 쓰는 praesumere·praesumptio를 어떻게 옮길지

라틴어 praesumptio는 흔히 "주제넘음"이고, 로마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바로 그 말로 비판했습니다. 칼빈은 이를 뒤집어 믿음의 토대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미리 품은 확신"(praesumpta persuasio)이라 하고, 롬바르두스가 공로 없이 바라는 것을 praesumptio라 한 데 맞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그만큼 praesumamus"라고 맺으며, 기도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믿음의 praesumptio"라고 합니다. 원고는 033·034에서 "미리 품다", 롬바르두스 쪽은 "주제넘음", 067에서는 "믿음의 담대한 기대(praesumptio)"로 옮겼습니다.

편 033 CO 1:455 Huius autem fundamentum est praesumpta de veritate Dei persuasio; indubitatam salutis exspectationem praesumit

→ 그런데 이 지식의 토대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 미리 품은 확신입니다.

편 034 CO 1:477 libenter tantum praesumamus de veritate Dei, ut sola eius misericordia freti, abiecta operum fiducia, bene sperare audeamus

→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소망을 품으라는 명을 받는 것을 보므로, 기꺼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그만큼 미리 품읍시다.

편 067 CO 1:909 quae ex tali, ut ita loquar, praesumptione fidei nascitur
→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믿음의 그런 담대한 기대(praesumptio)에서 나오고

적용한 안: 가. 칼빈의 긍정적 동사·분사 = "미리 품다", 롬바르두스와 대적들의 비난 = "주제넘음", 기도 장의 명사는 "담대한 기대(praesumptio)"로 원어 병기(지금 원고).
한국어 한 낱말로 "주제넘음"과 "미리 품음"을 함께 담을 수 없어 말놀이는 약해지지만, 칼빈이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정당한 기대로 말한다는 뜻(3-6의 첫째 기준)이 약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067은 칼빈이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인 명사라 원어를 밝혔습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 나. 모든 곳을 "미리 품다"로(067은 "믿음의 미리 품음") / 다. "담대히 기대하다"로 통일 / 라. 각주로 말놀이 설명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29. 믿음을 정의하는 대목의 affectus·persuasio·in fidem se conferre

칼빈은 동의가 "머리보다 마음의 것, 깨달음보다 affectus의 것"이라 하고(스콜라의 pia affectio와 맞섬), 성경 권위의 확신을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 persuasio이며 가장 좋은 이유가 함께 서 있는 지식"이라 하며, 경건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어 in fidem eius se confert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일시적 기분으로, persuasio를 "논증이 필요 없는 확신"으로 옮기면 반지성주의로, fides를 칭의의 "믿음"으로 옮기면 관용구의 뜻(신실·보호에 맡김)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편 034 CO 1:471 assensionem ipsam cordis esse magis quam cerebri, et affectus magis quam intelligentiae
→ 동의 자체가 머리보다 마음의 것이며, 깨달음보다 감정의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편 021 CO 1:295 Talis ergo est persuasio, quae rationes non requirat; talis notitia, cui optima ratio constet
→ 그러므로 이것은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 확신이요, 가장 좋은 이유가 함께 서 있는 지식입니다.

편 020 CO 1:285 tutorem sibi esse confidit, et protectorem, ideoque in fidem eius se confert
→ 이렇게 그분을 알므로, 그분이 당신의 섭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 그분이

자기의 보호자이시요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자기를 맡깁니다.

> **적용한 안: 가. affectus·affectio = “감정”(스콜라 문구와 같은 말로 통일), persuasio = “확신”(두 구절을 나란히 그대로), in fidem se conferre = “그분의 신실하심에 자기를 맡긴다”.**
> 칼빈이 스콜라의 pia affectio와 맞서는 문맥이므로 두 쪽에 같은 말을 써야 논쟁이 보입니다. 성경 권위의 확신 문장은 앞 구절만 옮기거나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두 구절을 함께 살렸습니다. in fidem se conferre는 라틴어 관용구의 뜻을 옮긴 것이며, 같은 절 끝의 religio 정의의 fides는 “믿음”으로 두었습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affectus = “정서·마음의 움직임” / 다. persuasio 구절을 “논증이 필요 없는 확신이요 가장 합당한 근거를 지닌 지식”으로 / 라. “믿음으로 그분께 자기를 맡깁니다”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30. 자유의지 논의의 낱말: liberum arbitrium, necessitas와 coactio, efficaciter, 바깥일의 arbitrium

칼빈은 롬바르두스가 자유의지를 “강제에서 풀려남”으로만 정의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름이 거만하다고 비판하고, 타락한 의지가 “원하여” 죄를 짓되 “죄짓는 필연” 아래 있다고 하며(강제는 부정), 은혜가 의지에 “효력 있게 작용하여” 원함 자체를 지어 낸다고 말합니다. 또 몸의 삶에 관계되는 바깥일에서 사람의 arbitrium이 하나님의 특별한 움직이심 아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자유의지”로 옮기면 구원론의 논쟁과 섞입니다.

편 023 CO 1:319 non liberi arbitrii ideo nos esse, quod ad bonum et malum … peraeque polleamus, sed duntaxat quod coactione soluti sumus

→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행하거나 생각하는 데 똑같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강제에서 풀려나 있기 때문이다.

편 024 CO 1:339 hominem … volentem quidem peccare, non invitum nec coactum … non posse nisi ad malum moveri et agi. Quod si verum est, peccandi certe necessitati subiacere

→ 사람은 타락으로 손상된 대로, 원하여 죄를 짓는 것이지 마지못해서나 강제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 이것이 참이라면, 사람이 죄짓는 필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편 024 CO 1:343 Ac voluntatem movet, non qualiter … ut nostrae postea sit electionis, motioni aut obtemperare aut refragari; sed illam efficaciter afficiendo
→ 그분께서는 의지에 효력 있게 작용하심으로써 움직이십니다.

편 025 CO 1:355–357 arbitrium ipsum speciali Dei motioni subiiciemus … quin eius libertati Dei arbitrium dominetur
→ 참으로 우리가 우리 감각으로 바깥일의 운영을 헤아린다면, 그것이 그 범위에서는 사람의 결정(arbitrium) 아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적용한 안: 가. liberum arbitrium = "자유의지"(칼빈이 낱말 사용을 삼가자는 문맥 그대로), necessitas = "필연", coactio = "강제", voluntarie = "원하여·자원하여", efficaciter = "효력 있게"(adiuvare "돕다"와 구별), 바깥일의 arbitrium = "결정(arbitrium)".**
> 지침 6-2(1)은 자유의지를 칼빈이 부정하는 문맥 그대로 살리라고 하고, 6-2(4)는 하나님이 주어인 은혜의 문장을 약하게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necessitas를 "불가피성"으로, efficaciter를 "실제로"로 옮기면 칼빈의 필연/강제 구별과 은혜의 효력이 약해집니다. 바깥일의 arbitrium만 "결정"으로 옮긴 것은 뜻이 다른 문맥을 일부러 구분한 것입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롬바르두스 문장의 arbitrium을 "자유로운 결정" / 다. necessitas =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 / 라. 바깥일도 "자유의지"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31. 원죄와 본성의 부패를 말하는 낱말: reos irae Dei, naturalis/a natura, naturalia corrupta·gratuita detracta

칼빈은 원죄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책 있는 자로 만들고" 육의 열매를 낳는다고 정의하고, 악덕이 "본성적"(naturalis)이지만 "본성에서 흘러나온 것은 아니다"(a natura non fluxerit)라고 구별하며,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값없는 은사는 거두어졌고 본성적 은사는 부패했다"고 합니다. 각 구별이 한국어에서 흐려지기 쉽습니다.

편 022 CO 1:309 quae primum facit reos irae Dei, tum etiam opera in nobis profert quae scriptura vocat opera carnis
→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책 있는 자로 만들고, 다음으로 성경이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우리 안에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갈 5:19).

편 022 CO 1:311 Dicimus ergo naturali hominem vitiositate corruptum, sed quae a natura non fluxerit

→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본성적인 악덕으로 부패했다고 말하지만, 그 악덕이 본성에서 흘러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편 023 CO 1:327 ut gratuita homini dona post lapsum detracta esse, ita naturalia haec, quae restabant, corrupta fuisse docet

→ 타락 뒤에 사람에게서 값없는 은사들은 거두어졌고, 남아 있던 이 본성적인 은사들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 **적용한 안: 가. reos = “죄책 있는 자”, naturalis = “본성적인”, a natura = “본성에서”, substantialis proprietas / adventitia qualitas = “실체적 속성 / 외래의 성질”, corrupta = “부패했다”(약해졌다 아님), gratuita dona = “값없는 은사”.**
> 지침 6-2(1)은 corruption을 “약해짐”처럼 정도를 낮추는 말로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옮기면 법정적 죄책이 사라지고, “타고난/창조된 본성”으로 바꾸면 칼빈이 세운 “본성적이되 본성에서 나오지 않음”의 구별이 흐려집니다. 칼빈이 원죄를 전가만이 아니라 각자 안의 부패로 설명하는 문맥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reos irae Dei =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 / 다. naturalis = “타고난” / 라. gratuita = “초자연적”, corrupta = “손상되었다”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32. 예정과 섭리를 말하는 동사·명사: propositum beneplaciti, statuere, dispensare, expedire, permissum et immissum

선택의 근거 propositum beneplaciti Dei(1536년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주께서 그들에 관해 무엇을 정하셨는지(quid statuerit)”, 첫 사람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결정으로 dispensasse”, 타락은 “주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expedire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 사람의 악함으로 당하는 악이 하나님의 의로운 경륜으로 “허용되기도 했고 보내어지기도 했다(permissum et immissum)”는 말이 나옵니다. 지침은 décret만 “작정”, conseil은 “뜻·계획”으로 정했습니다.

편 003 CO 1:51 in eo electi ab aeterno sumus ante mundi constitutionem, nullo nostro merito, sed secundum propositum beneplaciti Dei

→ 우리는 세상의 창조 전에 영원부터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목적을 따라 택함을 받았습니다.

편 006 CO 1:91 De quibus quid statuerit Dominus, extra notitiam nostram est, nisi

quod illis optima optare et sperare debemus.
→ 주께서 그들에 관해 무엇을 정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편 064 CO 1:873 Deum, non modo primi hominis casum et in eo posterorum ruinam praevidisse, sed arbitrio quoque suo dispensasse
→ 하나님께서 첫 사람의 타락과 그 안에서 그 후손의 파멸을 미리 보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결정으로 주관하셨다고 제가 말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편 064 CO 1:873 Lapsus est enim primus homo, quia Dominus ita expedire censuerat
→ 첫 사람이 타락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 **적용한 안: 가. propositum = “목적”, statuere = “정하다”, dispensare = “주관하다”, expedire = “유익하다”, permissum et immissum = “허용되기도 했고 보내어지기도 했다”. 원문에 decretum·electio가 없으면 “작정·선택”으로 좁히지 않음.**
> 지침 6-2(2)는 décret만 “작정”으로 정했으므로 propositum·statuere를 “작정”으로 옮기면 원문에 없는 낱말을 만드는 셈입니다(3-6). 반대로 dispensare를 “허용”으로 누그러뜨리면 칼빈의 단서(“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6-2(6))를 거스르게 됩니다. expedire는 뒤따르는 “당신 이름의 영광” 문맥을 살려 원문대로 두었습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propositum = “계획(작정)” / 다. statuere = “작정하다” / 라. dispensare = “정하셨다·처분하셨다” / 마. expedire = “마땅하다”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33. 하나님께 쓰인 사람의 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주의 악한 영”, 하나님의 poenitentia, 우리 연약함에 맞춘 말

칼빈은 “주께서 날마다 택함받은 자들을 시험하신다”(tentat)고 쓰면서 사탄의 시험과 목적이 다르다고 구분하고, 사울을 괴롭힌 영이 “주의 악한 영”(삼상 16:14)이라 불리는 것을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증거로 들며, 하나님의 poenitentia(창 6:6, 삼상 15:11)는 하나님께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방식의 표현이라고 논합니다. 또 화목 전의 하나님을 원수로 말하는 성경 표현이 “우리 이해력의 연약함에 맞춘 말이지만 거짓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편 007 CO 1:97 nec citra causam electos suos quotidie tentat Dominus ... Sed aliter

Deus tentat, aliter satan

→ 다윗이 시험받기를 바란 것도 까닭이 없지 않았고(시 26), 주께서 날마다 당신의 택함받은 자들을 시험하시는 것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과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편 036 CO 1:503 spiritus Domini malus dicitur (1 Sam. 16, 14 et 18, 10), qui torquebat Saul

→ 이런 까닭에 사울을 괴롭힌 영도 주의 악한 영이라고 불립니다(삼상 16:14; 18:10).

편 066 CO 1:899 De poenitentia sic habendum: non magis eam in Deum cadere, quam vel ignorantiam, vel errorem, vel impotentiam.

→ 후회는 무지나 오류나 무능이 하나님께 해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해당하지 않습니다.

편 038 CO 1:525 Atque hoc tametsi pro captus nostri infirmitate dicitur, non tamen falso.

→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해력의 연약함에 맞추어 하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거짓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 **적용한 안: 가. tentare = “시험하다”(하나님이 주어여도), spiritus Domini malus = “주의 악한 영”, 하나님의 poenitentia = “후회(하심)”, 사람의 poenitentia = “회개”, pro captus nostri infirmitate … non tamen falso = “연약함에 맞추어 하는 말이지만 거짓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시련을 주시다”로 바꾸면 칼빈이 약 1:13과의 긴장을 풀어가는 논증이 미리 지워집니다.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은 원문에 없는 동사를 더합니다. poenitentia는 칼빈이 한 낱말로 논증하므로 말놀이가 일부 흐려지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쓰면 한국어에서 죄를 뉘우침으로 읽혀 더 큰 오해가 생깁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하나님이 주어일 때 “시련을 주시다·단련하시다” / 다. 하나님의 poenitentia를 개역한글대로 “한탄”이나 “뜻을 돌이키심” / 라. “우리 수준에 맞춘 표현이지만 사실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34. 삼위일체와 그리스도론의 낱말: hypostasis·subsistentia·persona, 부활의 hypostasis, secundum/ratione humanitatis, propitiator

칼빈은 그리스 교부의 “한 우시아, 세 휘포스타시스”를 “한 본체 안의 세 subsistentia”

로 풀고 라틴 교부의 "세 persona"와 나란히 놓으며, 히 1:3의 hypostasis를 위격으로 읽습니다. 한편 그리스도를 "우리 부활의 hypostasis요 exemplar"라고 부르는 곳은 삼위일체의 위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따라서도(secundum humanitatem) 참 아들이시되 인성 때문에(ratione humanitatis) 그러하신 것은 아니라는 구별, 그리스도를 frater ac propitiator로 부르는 말도 있습니다.

편 036 CO 1:491 dixerunt unam esse *οὐσίαν*, tres *ὑποστάσεις*: id est, substantiam unam, tres in una substantia subsistentias

→ 한 우시아(οὐσία)와 세 휘포스타시스(ὑποστάσεις)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한 본체와, 그 한 본체 안의 세 실재(subsistentia)입니다.

편 049 CO 1:681 in Christum semper respiciendum est, illius hypostasin et exemplar

→ 그분이 부활의 실체(hypostasis)요 본이시기 때문입니다.

편 038 CO 1:521 Dominum nostrum verumque Dei filium esse constituimus, etiam secundum humanitatem, etsi non ratione humanitatis.

→ 인성을 따라서도 그러하시되, 인성 때문에 그러하신 것은 아닙니다.

편 001 CO 1:13 ubi Christus frater ac propitiator agnoscitur

→ 또 그리스도를 형제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자기에게 약속하는 것, 우리를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당신의 친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기까지 이르신 그분께 기쁘고 형통한 모든 것을 안심하고 기대하는 것, 그토록 큰 보화…

> **적용한 안: 가. οὐσία · ὑπόστασις는 음역에 원어 병기("우시아", "휘포스타시스"), subsistentia = "실재(subsistentia)", persona = "위격", 부활의 hypostasis = "실체(hypostasis)", secundum = "따라서도", ratione = "때문에", propitiator = "화목하게 하시는 분".**
> 세 말을 모두 "위격"으로 옮기면 칼빈의 낱말 논의 자체가 사라지므로 원어별로 갈랐습니다(CO 8 쟁점 1과 같은 방향: 삼위일체가 아닌 뜻은 문맥의 뜻으로 옮기고 원어 병기). propitiator는 6-2의 "화목제물"을 행위자 명사로 바꾸기 어려워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두었고, 6-2 표에 항목 신설을 권합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subsistentia = "자존(自存) · 존재 방식" / 다. 부활의 hypostasis = "기초 · 보증" / 라. propitiator = "화목제물이 되신 분"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35. 율법을 말하는 낱말: 자연법의 증언일 뿐(duntaxat), 육에게 채찍

(flagrum), 갚으심(visitatio), 우리 탓으로 돌려야 함(imputandum)

칼빈은 기록된 율법이 "자연법의 증언일 뿐"(testimonium duntaxat legis naturalis)이라 하고, 신자의 육에게 율법은 "게으른 나귀를 다그치는 채찍"이라 하며, 둘째 계명의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갚는다"(visitare)를 은혜와 진리의 빛을 거두어 가시는 일로 풀이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탓으로 돌려야 한다"(nobis imputandum)고 말합니다.

편 002 CO 1:29 Proprioque haec ipsa scripta lex, testimonium est duntaxat legis naturalis

→ 그리고 이 기록된 율법은 본디 자연법의 증언일 뿐입니다.

편 031 CO 1:433 Huic carni lex flagrum est, quo, instar inertis tardique asini, ad opus urgeatur.

→ 이 육에게 율법은 채찍입니다.

편 028 CO 1:395 Nam si visitatio, de qua nunc sermo est, adimpletur, quum ab impiorum familia gratiam, lumen suae veritatis, reliqua salutis adiumenta aufert Dominus

→ 지금 말하는 갚으심이, 주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의 가족에게서 은혜와 당신 진리의 빛과 그 밖의 구원의 도움을 거두어 가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자녀들이 눈멀고 주님께 버림받아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는 바로 그 일로 그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편 027 CO 1:373 cuius malum et intra nos est, et nobis imputandum

→ 그 악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적용한 안: 가. duntaxat = "~일 뿐", flagrum = "채찍", visitare/visitatio = "갚다/갚으심"(출 20:5 개역한글 "갚되"), nobis imputandum = "우리 탓으로 돌려야 할 것"(법정적 "전가"와 구별).**
> duntaxat를 약하게 옮기거나 flagrum을 "회초리"로 누그러뜨리면 원문을 바꾸게 됩니다. "매"는 6-2의 "하나님의 매"(verges de Dieu)와 섞이므로 쓰지 않았습니다. imputare는 6-2가 "전가하다"로 정했으나, 이 자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무관한 일상적 "탓을 돌림"이므로 뜻이 다른 문맥으로 구분했습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 다른 선택지: 나. "자연법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 다. visitatio = "벌하심·죄를 물으심" / 라. imputandum =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할 것"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36. 유아 세례와 언약 자녀: 유아의 믿음, 택함받은 유아의 중생, 아브라

함의 씨에 대한 특별한 긍휼, 믿음 안에 머무는 동안

1536년판은 세례가 유아에게 속하는 근거를 "어른들과 공통된 믿음"과 주님의 뜻·할례의 계명 둘로 들고, 1539년판은 구원받을 유아들이 먼저 주님께 중생한다고 하면서 유아의 믿음 문제를 미결로 남깁니다. 또 하나님 나라 상속자를 가리는 데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만이 자유로운 권리로 다스린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씨와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특별히 긍휼로 품기를 기뻐하셨다"고 하고, 정죄가 없는 이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무는 동안"(dum perseverant)으로 한정합니다.

편 009 CO 1:117 Ideo et baptismus ad infantes iure pertinet, quorum cum adultis communis est fides.

→ 그러므로 세례도 마땅히 어린아이들에게 속합니다.

편 072 CO 1:979 infantes qui servandi sint, ut certe ex ea aetate omnino aliqui servantur, ante a Domino regenerari minime obscurum est

→ 그런데 구원받을 유아들이 (분명 그 나이에서 어떤 이들은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에게서 중생한다는 것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편 072 CO 1:977 unam Dei electionem libero iure dominari … placuisse Domino, semen Abrahae peculiariter misericordia sua complecti

→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을 사생아들과 외인들에게서 가려내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만이 자유로운 권리로 다스린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특별히 당신의 긍휼로 품기를 기뻐하셨고, 그 긍휼이 더 확실히 증언되도록 할례로 인치기…

편 071 CO 1:963 dum in Christi fide perseverant, etiamsi a peccato obsideantur

→ 주님께서 한번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접붙이시고, 세례를 통해 교회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신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무는 동안에는, 비록 죄에게 에워싸이고 더 나아가 자기 안에 죄를 지니고 다닐지라도, 그럼에도 죄책과 정죄에…

적용한 안: 가. 판마다 원문의 논리를 그대로 두고, 1536년판의 "유아의 믿음"을 후기의 언약 논증으로 바꾸지 않음. 두 진술의 긴장(선택과 언약 자녀)을 해소하는 설명을 넣지 않음. dum perseverant = "끝까지 머무는 동안에는".

지침 3-6과 3항의 "더하지 않는다"에 따라, 유아 구원의 범위나 견인 교리에 맞추어 원문의 조건절과 유보를 좁히거나 넓히지 않았습니다. "견인하는 동안"으로 옮기면 원문에 없는 교리 이름표를 넣게 됩니다(3-2). 고친 곳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 나. "어른들과 공통된 믿음" 대신 "어른들과 함께 지닌 믿음" / 다. "하나님의 선택만이 주권적으로 결정한다" / 라. dum perseverant = "믿음 안에서

> 견인하는 동안”
>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37. 교회의 표지와 교회의 권위: 성례의 legitima 시행, 말씀을 듣는 표지, “잘못할 수 없다”, 어머니인 교회, 사랑의 판단

헌정 서문은 교회의 표지를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설교와 성례의 legitima 시행”이라 하는데, 1536년판(001)은 “합법적인 시행”, 같은 문장의 1539년판(019)은 “합당한 시행”으로 옮겨 달랐습니다. 1536년판 교회의 권세 장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를 “의심할 수 없는 표지”로 들고, 교회가 “잘못할 수 없다”는 명제에 동의하면서 그 근거를 말씀을 따라서만 판단함과 성령께 가르침을 받음에 둡니다. 1539년판은 교회를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하고 “교회의 하나 됨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며, 교회가 아직 얻지 못한 깨끗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려진다(tribuitur)”고 하고, 지체 판단에는 믿음의 확실성 대신 “사랑의 판단”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편 001 CO 1:21 pura verbi Dei praedicatione et legitima sacramentorum administratione
→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설교와 성례의 합당한 시행(고치기 전 “합법적인”, 019와 맞춤)

편 012 CO 1:163 errare autem non possunt nec a Dei iudicio dissentire, quia non nisi ex lege Dei iudicant
→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만 판단하므로 잘못할 수 없고 하나님의 판단과 어긋날 수 없습니다

편 040 CO 1:539 quando extra ecclesiae unitatem nullam esse salutem scriptura pronuntiat
→ 교회의 하나 됨 밖에는 아무 구원도 없다

편 040 CO 1:541 quoddam caritatis iudicium eius loco substituit
→ 사랑의 어떤 판단을 두셨습니다

> **적용한 안: 나. legitima administratio = “합당한 시행”. 교회의 무오·구원 문장은 칼빈의 조건(ideo … quod, non nisi ex lege Dei)을 그대로 살리고, tribuitur는 “돌려진다”(imputatur와 구별), 1536년판의 표지 하나를 뒤의 판의 두 표지 공식으로 바꾸지 않음.**
> “합법적인”은 교회법·국가법의 적법성으로 들려 칼빈이 말하는 “주님의 제정대로”의 뜻과 거리가 있고, 1539년판이 이미 “합당한”을 썼으므로 001을 맞추었습니다

(1곳). 교회론 문장들은 로마 교회의 제도적 무오나 구원의 확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낱말을 누그러뜨리기보다 칼빈 자신의 단서를 빠짐없이 옮기는 것이 3-6에 맞습니다.

다른 선택지: 가. “합법적인 시행”(001 이전 상태) / 다. “바른(정당한) 시행”(벨기에 신앙고백 29조 한국어 번역 관례) / 라. “잘못하지 않습니다”로 약하게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38. 그 밖에 한 번씩 판단한 낱말(아디아포라, 거룩한 신비, 예배당과 성전, 신의 성품, 외모로 사람을 취함, 낮아짐의 gratia, 성령이 비어 있음, cooptare, 첫째 간구의 sanctificatio)

편마다 한 번씩 판단한 낱말들입니다. ① res indifferentes·ἀδιάφορα = “아무래도 좋은 일”(015, 061에도 같음). ② 말씀 설교와 나란히 놓인 sanctorum mysteriorum celebratio = “거룩한 신비들의 거행”(성례로 바꾸지 않음). ③ 그리스도인의 templa publica = “예배당”, 구약과 “참된 성전”인 신자 = “성전”. ④ 벧후 1:4 divinae consortes naturae =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지침이 “신”을 쓰지 않게 함). ⑤ acceptio personarum = “외모로 사람을 취함”, 칼빈이 풀이하는 persona = “외모(persona)”. ⑥ humiliationis nostrae gratia = “낮아짐이 귀히 여김을 받음”(각주로 해석 밝힘). ⑦ 신자가 아직 성령에 vacui = “그 영이 비어 있는 만큼은”(quatenus 살림). ⑧ 주님께서 cooptavit한 자들 = “택하여 받아들이신 자들”. ⑨ 첫째 간구에서 이름의 sanctificatio = “거룩히 여김”, 우리의 sanctificatio = “성화”(006·068 같음).

편 015 CO 1:199 Aiunt res esse indifferentes. Fateor, modo iis indifferenter quis utatur.

→ 양심이 죄 사함을 두고 불안하고 괴로워하든지, 불완전하고 우리 육의 허물로 더럽혀진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근심하든지, 아무래도 좋은 일들을 쓰는 문제로 괴로워하든지 말입니다.

편 027 CO 1:383 Verbi sui praedicationem et sanctorum mysteriorum celebrationem communem illic omnibus doctrinam proponi iussit

→ 그분은 그곳에서 당신 말씀의 설교와 거룩한 신비들의 거행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가르침으로 내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편 068 CO 1:919 sic et templa publica iis peragendis destinata esse oportet … Vera enim Dei templa quum simus ipsi

→ 그 기도를 드리도록 정해진 공적인 예배당도 있어야 합니다. …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므로

편 049 CO 1:681 in hoc vocatos fideles, ut divinae fiant consortes naturae … imo se ipsum illis quodammodo communicabit

→ 그런데 베드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벧후 1:4).

적용한 안: 가. 위 목록대로(지금 원고). 1536·1539년판의 같은 문장은 같은 말로 옮겨져 있음을 확인함.

각각 원문의 뜻을 우선하고(3-6), 6-2의 금지어("신", "성사")와 후대 용어("비본질적인 것")를 피했습니다. ③은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옮기면 칼빈이 부정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거처" 관념을 번역이 거들게 되어 나누었고, ⑨는 말놀이가 약해지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6-2의 "성화"를 지켰습니다. ⑧은 cooptare가 "동료로 받아들이다"의 뜻이 강하여 선택 교리의 eligere로 읽히지 않게 할지 감수에서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고친 곳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 ① "비본질적인 일·중립적인 일" / ② "거룩한 성례들의 거행" / ③ 모두 "성전" / ④ 개역한글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 / ⑤ "사람을 차별함" / ⑥ "큰 은혜를 입는지" / ⑦ "그 영을 아직 온전히 받지 못한 만큼은" / ⑧ "당신의 무리에 받아들이신 자들" / ⑨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사용자 결정으로 확정 적용 (2026-11-25)

부록 2. 용어 대조표

번역지침(v3.3) 6-2의 개혁주의 용어 기준표, CO 1 공통 용어, 그리고 이 책을 옮기며 새로 정한 용어입니다.

6-2 (1) 죄와 인간: 전적 부패와 무능

원어	번역	비고
péché originel / peccatum originale	원죄	
corruption (de nature) / corruptio	(본성의) 부패	"약해짐" 처럼 정도를 낮추는 말
franc arbitre / liberum arbitrium	자유의지	칼빈이 부정하는 문맥이면 부정을 살린다
servitude du péché	죄의 종노릇	
concupiscence	정욕	단순한 "욕구"
chair / caro	육, 육신	"몸" (문맥상 몸일 때만 몸)
mérite / meritum	공로	"자격" 으로 흐리지 않는다
bonnes œuvres	선행	

6-2 (2) 선택과 예정: 무조건적 선택

원어	번역	비고
élection / electio	선택	
élus / electi	택함받은 자들, 택자	"뽑힌 사람"
prédestination	예정	
réprobation / réprouvés	유기 / 유기된 자들	(결정)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문맥만 "유기된" . 사람의 판단·겉보기·일반 문맥은 "버림받은" . 롬 1:28 sens reprouvé는 "버림받은 마음"

conseil / décret de Dieu	하나님의 뜻(conseil), 작정(décret)	(결정) conseil이 같은 문장에서 volonté와 나란히 나오면 conseil= “계획” , volonté= “뜻” . “계략” 은 하나님께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논 자리는 “회의” 허용
choisir (구원의 선택 문맥)	택하다	(결정) 일반 문맥은 “고르다”
prescience / praescientia	예지	
bon plaisir / beneplacitum	기뻐하시는 뜻	
gratuit / gratuitement	값없는, 값없이	

6-2 (3) 그리스도의 사역: 속죄

원어	번역	비고
Médiateur / moyenneur	중보자	“중재자”
Intercesseur (그리스도)	간구하시는 분	(결정) “중보자” 와 겹치지 않게
Advocat (그리스도)	대언자	(결정) 개역한글 요일 2:1
arbitre (사람 사이, 욥 9:33 등)	중재자	(결정) 그리스도에게는 쓰지 않는다
Rédempteur / rédemption	구속자 / 구속	
satisfaction	속상(贖償), 만족	“보속” (가톨릭 고해 용어)
sacrifice / oblation	제사 / 제물	
réconciliation	화목	
propitiation	화목제물, 화목	
expiation / purger les péchés	속죄 / 죄를 씻음	
imputer / imputation	전가하다 / 전가	(결정) “간주하다” 만 쓰지 않는다. “죄를 묻지 않으신다” 문맥은 “돌리지 않으신다”
intercession	간구, 중보	

6-2 (4) 은혜와 부르심: 유효한 은혜

원어	번역	비고
grâce / gratia	은혜	“은총” (가톨릭 관용)

grâces (복수, 사람이 받은 선물)	은사	(결정)
bénéfices de Dieu	은택	(결정) “은혜”와 섞지 않는다
vertu (하나님·그리스도·성령)	능력	(결정) “덕”은 사람의 vertu에만
vocation	부르심, 소명	
régénération	중생	
conversion	회심, 돌이킴	
illumination	조명, 비추심	
Saint-Esprit	성령	“성신”은 쓰지 않는다
esprit	영	문맥상 사람의 마음이면 “마음”

6-2 (5) 구원의 적용과 견인

원어	번역	비고
justification / justifier	칭의 /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시다)	“의롭게 만드시다”(성화와 혼동)
justice (de Dieu, de Christ)	의	“정의”는 사람 사이 공의 문맥에서만
foi / fides	믿음	칭의 문맥에서 “신앙심”
fiance / confiance	신뢰	(결정) “믿음”과 섞지 않는다
religion	경건(religion)	(결정) 한 편에서 처음 나올 때 원어를 괄호로 밝힌다. devotion은 “경건심”. 교황제·이방 제의 문맥은 “종교(religion)” 허용
repentance / pénitence (돌이킴)	회개	
pénitence (가톨릭 성사)	고해	
péchés véniels / mortels	소죄 / 대죄	(결정) 한 편에서 처음 나올 때 “소죄(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벼운 죄)”, “대죄(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무거운 죄)” 처럼 뜻을 푼다
sanctification	성화	
adoption	양자 삼으심, 양자됨	

mortification / vivification	옛사람을 죽임 / 새사람으로 살림
persévérance	견인, 끝까지 견딤
assurance / certitude	확신
fidèles	신자들, 믿는 이들

6-2 (6) 섭리

원어	번역	비고
providence	섭리	
fortune / hasard	운수 / 우연	칼빈이 부정하는 문맥을 살린다
permission de Dieu	하나님의 허용	칼빈의 단서("단순한 허용이 아니라")를 빠뜨리지 않는다
affliction / châtiment	고난 / 징계	"벌"과 구분한다
verges de Dieu	하나님의 매	

6-2 (7) 교회와 성례

원어	번역	비고
Église	교회	
sacrement	성례	"성사"
Baptême / Cène	세례 / 성찬	"영성체"
messe	미사	
ministre / pasteur	말씀의 사역자, 목사	"신부" (사제 문맥이 아니면)
prêtre (교황제)	사제	
ancien / diacre	장로 / 집사	
papauté / Pape	교황제 / 교황	
purgatoire / indulgences	연옥 / 면벌부	"면죄부"는 쓰지 않는다
idolâtrie / superstition	우상 숭배 / 미신	
Écriture / Évangile / Loi	성경 / 복음 / 율법	
alliance / testament	언약 / 언약(성경 이름일 때만 구약·신약)	

6-2 (8) 그 밖

원어	번역	비고
conscience	양심	
ennemi	원수	
vengeance	원수 갚음, 보응	
gloire de Dieu	하나님의 영광	
majesté	위엄	

CO 1 공통 용어

원어	번역	비고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기독교 강요	
pietas	경건	
religio	경건(religion)	지침 6-2대로 한 편에서 처음 나올 때만 원어. 이방·교황제 제의 문맥은 종교(religion)
cognitio Dei / nostri	하나님을 아는 지식 /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Decalogus / praeceptum	십계명 / 계명	
Symbolum (Apostolicum)	사도신경	
Oratio dominica / petitio	주기도문 / 간구(첫째 간구 …)	
liberum arbitrium	자유의지	
gratia	은혜	
iustificatio / iustificare	칭의 / 의롭다 하시다	
imputatio	전가	
meritum / opera	공로 / 행위(문맥상 선행)	
poenitentia	회개 (교황제의 성사 문맥은 고해)	
confessio auricularis	귓속 고해	
contritio / attritio	통회 / 불완전한 통회 (attritio)	
satisfactio (그리스도)	속상	
satisfactio (교황제 고해의 셋째 부분)	속죄 행위(satisfactio)	“보속”은 쓰지 않는다

indulgentiae / purgatorium	면벌부 / 연옥
fides implicita	암묵적 믿음(fides implicita)
sacramentum	성례
baptismus / coena (Domini)	세례 / 성찬(coena Domini는 “주의 성찬”)
transsubstantiatio	화체
missa	미사
confirmatio, poenitentia, extrema unctio, ordo, matrimonium (다섯 거짓 성례)	견진, 고해, 종부, 서품, 혼인
sacerdos	교황제는 사제, 구약은 제사장
episcopus / presbyter / diaconus	감독 / 장로 / 집사
ecclesia catholica	보편 교회 (사도신경 본문 인용은 “거룩한 공교회”)
claves / excommunicatio / disciplina	열쇠 / 출교 / 권징
traditiones humanae	사람의 전통
vota / monachatus / monachi	서원 / 수도 생활 / 수도사
magistratus	위정자
politica administratio	국가 통치
potestas ecclesiastica	교회의 권세
foedus / testamentum vetus·novum	언약 / 구약·신약
sophistae (스콜라 신학자를 가리킬 때)	궤변가들
scholastici / Sorbonici / papistae	스콜라 신학자들 / 소르본 신학자들 / 교황주의자들
Lombardus (Magister sententiarum)	롬바르두스(명제집의 선생)

Augustinus, Chrysostomus, Ambrosius, Hieronymus, Origenes, Tertullianus, Cyprianus, Bernardus, Gregorius, Pelagius	아우구스티누스, 크리소스토무스,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베르나르두스, 그레고리우스, 펠라기우스
Franciscus rex	프랑수아 왕(프랑수아 1세)

CO 1에서 새로 정한 용어: 교회와 직분

원어	번역	비고
Cardinales / galerus cardinalitius	추기경 / 추기경 사제 / 추기경단 / 추기경 모자	
antistites / praesules / pontifices	고위 성직자 / 주교 / 대사제	눈먼 인도자들의 칭호 나열
pontifex romanus / papa	로마 교황 / 교황	pontifex를 '대사제'로 옮기지 않고 교황으로 통일. 그레고리우스 인용의 pontificatus는 '대사제직'
summus pontifex	최고 대사제(summus pontifex)	구약의 summus pontifex는 대사제. 다른 번역: 최고 교황(편 44)
vicarius Christi	그리스도의 대리자	
primatus / primas	수위권 / 수석 감독	
sedes apostolica / sedes romana	사도좌 / 로마 좌	
patriarcha / patriarchia	총대주교 / 총대주교 관할구	다른 번역: 총대감독(편 42)
metropolitanus / metropolita / metropolites	관구장, 관구장 감독	다른 번역: 대주교(편 43), 대감독(편 80). archiepiscopus는 대감독(편 42)

suffraganei	보좌 감독들	다른 번역: 보좌 주교들(편 78), 보좌하는 자들(편 76)
officiales, datarii, bullarii	교구 재판관 / 교황청 서기 / 칙서 관리	officiales는 감독 재판소의 대리 재판관. 다른 번역: 관리인들(편 47), 교회 법정 관원, 교황청 서기관(편 51), 교구 법관, 교황청 문서 담당자, 칙서 담당자(편 53)
seniores (e plebe delecti)	장로들(seniores)	presbyteri도 장로. 처음 나올 때만 원어
senatus (ecclesiae) / consessus seniorum	장로회(senatus) / 장로들의 회의	
presbyterium (딤전 4:14)	장로회	칼빈은 직분 자체로 이해(편 81)
clerus / clerici / clericatus	성직자단 / 성직자 / 성직의 반열	clerus와 plebs가 짝을 이룰 때는 성직자 / 평신도(문맥상 백성)
cleros, cleri (벧전 5:3)	맡은 자들(cleros)	칼빈이 하나님의 기업, 곧 신자들로 풀이. 다른 번역: 맡겨진 자들(편 16)
archidiaconus	수석 집사	다른 번역: 대집사(편 81), 대부제(편 28). hypodiaconus는 부집사, archipresbyter는 수석 장로
diaconissae / moniales	여집사 / 수녀	
hierarchia	위계제(hierarchia)	다른 번역: 로마 위계(편 46)
beneficium (ecclesiasticum) / beneficiarii	성직록(beneficium) / 성직록 수혜자	72절에서는 말놀이를 살려 '은전'
titulus (ordinationis)	명의(titulus)	교회법의 서품 명의. 다른 번역: 직함(편 14, 80)
mendicantes (monachi)	탁발 수도사(들)	
canonistae	교회법학자들	다른 번역: 교회법 학자들(편 76)
canones	교회법	다른 번역: 법규(편 42), 교회법 조항(편 49)
concilium (generale / universale / provinciale)	보편 공의회 / 관구 회의	concilium universale / synodus provincialis. 다른 번역: 총회(편 16, concilia generalia), 지방 공의회(편 47), 관구 노회(편 49)

synodus	공의회(문맥상 회의)	니케아 공의회 등 고유 명칭은 공의회. 다른 번역: 노회(편 49)
iurisdictio ecclesiastica / spiritualis / temporalis	교회 재판권 / 영적 재판권 / 세속 재판권	다른 번역: 영적 관할권 / 세속 관할권(편 61), 관할권(편 45)
Constantini donatio	콘스탄티누스의 기증	
schismatici	분열주의자(들)	다른 번역: 분리주의자(편 1, 32), 분파주의자(편 19)
Romanenses	로마주의자들	papistae(교황주의자들)와 구분. 다른 번역: 로마 사람들(편 44)
ecclesia visibilis / invisibilis	보이는 교회 / 보이지 않는 교회	
notae ecclesiae	(교회의) 표지	symbola, tesserae도 표지·증표
anathema	저주(anathema)	출교(excommunicatio)와 대비. 다른 번역: 아나테마(저주)(편 48)
exomologesis	고백(exomologesis)	키프리아누스 인용. 다른 번역: 공적 고백(편 51)
legatio / legatus Christi	사신의 직무 / 그리스도의 사신	고후 5:20. evangelii nuncii는 복음의 사신들
status perfectionis (adipiscendae)	완전함의 신분 / 완전함을 얻는 신분	

CO 1에서 새로 정한 용어: 성례와 교황제 의식

원어	번역	비고
sigillum / obsignare	인, 인장 / 인치다	띄어 쓴 “인 치다”도 섞여 있음 (편 8, 9, 34, 39, 49, 58, 67, 79)
res sacramenti	성례의 실체(res)	sacramentum(성례)과 구별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verbum visibile	보이는 말씀	아우구스티누스
sacramentum (맹세의 뜻)	맹세	성례가 아님. 군대의 맹세는 “사크라멘툼, 군대의 맹세” (편 70)
paedobaptismus	유아 세례	다른 번역: 유아 세례(편 73)

catechumenus / catechesis	학습자 / 교리 교육 (catechesis)	세례 전 교육받는 사람. 다른 번역: 교리 문답 학습자(편 79, 80)
chrisma / oleum salutis	성유 / 구원의 기름	exsufflatio는 숨 내뿜기(편 10), 입김 불기(편 77)
eucharistia	성찬(eucharistia)	coena Domini는 주의 성찬. 다른 번역: 감사(편 74), 유카리스트(감사)(편 9)
exhibere (성찬 문맥)	베풀다, 주다	
realiter ac substantialiter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significatio / materia (substantia) / virtus seu effectus	의미 / 내용(실체) / 능력 또는 효과	성찬의 세 요소
praesentia localis	장소적 임재	다른 번역: 장소적 계심(편 74)
concomitantia	수반(concomitantia)	한 형상 안에 몸과 피가 함께 있다는 스콜라 주장
hostia	호스티아	축성된 빵을 가리키는 교황제 용어
consecratio / consecrare	축성 / 축성하다	교황제 의식
mirifica commutatio	놀라운 맞바꿈	
missa privata	사사로운 미사	다른 번역: 사적인 미사(편 10)
sacrificulus / sacrificuli	사제 나부랭이(들)	칼빈의 경멸적 지소어. 다른 번역: 미사 사제(들)(편 14, 80), 미사꾼들(편 16)
sacrifici / sacrificus	제사꾼(들)	sacerdos(사제)와 구분하는 경멸어. 다른 번역: 제사 드리는 자(편 76, sacrificus)
sacrificium propitiatorium / expiationis	화목의 제사 / 속죄의 제사	
oblatio	봉헌	미사 문맥. 율법 제사 목록의 oblationes는 소제
sacrilegium / sacrilegi	독성(瀆聖) / 독성자	blasphemia(신성 모독)와 구분
ordo (서품 성례) / ordines (품급)	서품 / 품급	서품 성례(sacramentum ordinis)는 “서품 성례”. ordines minores / sacri ordines는 낮은 품급 / 거룩한 품급

ordinatio / ordinare	서품 / 서품하다	참된 임직을 말할 때는 '임직', 그들의 의식은 '서품'. 다른 번역: 임직 / 임직하다(편 42)
ostiarius, lector, exorcista, acoluthus, subdiaconus, diaconus, sacerdos	문지기, 독서자, 구마자, 시종, 부집사, 집사, 사제	서품의 일곱 품급. diaconus는 요령 4항대로 집사. 다른 번역: subdiaconus 부집사(편 14, 80), acoluthus 복사(편 14)·시종자(편 42), lector 독경자(편 42), exorcista 구마사(편 14)
character indelebilis	지워지지 않는 표지(character indelebilis)	가톨릭 용어 '인호'를 피함. 다른 번역: 지울 수 없는 인호(편 81)
impositio manuum	안수	정규 성례에 넣지 않음
mysterium (엡 5:32)	비밀	Vulgata의 sacramentum과 대비. arcanum은 숨겨진 것
confessio (교황제)	고해	귓속 고해와 그 제도
absolutio / absolvere (사제)	사죄 / 사죄하다	사제의 사죄 선언. 다른 번역: 사죄(의 선언) / 사하다(편 51), (사제의) 사죄(편 79)
contritio cordis, confessio oris, satisfactio operis	마음의 통회, 입의 고백, 행위의 속죄 행위(satisfactio)	교황제 고해의 세 부분
satisfactionarii	속죄 행위꾼들	칼빈의 조어
culpa / poena	죄과 / 벌	스콜라의 구분. 다른 번역: 죄책 / 형벌(편 52)
thesaurus ecclesiae	교회의 보화	면벌부 교리. 다른 번역: 교회의 보물(편 52)
indulgentiae plenariae	완전 면벌부	
indulgentia (고대 교회의 감면)	관용(indulgentia)	면벌부의 기원 설명 대목
limbus	림보(limbus)	

CO 1에서 새로 정한 용어: 스콜라 신학 용어

원어	번역	비고
praeparationes	준비	은혜를 위한 준비(스콜라). 다른 번역: (꾸며 낸) 준비(편 19)

fides implicita / explicita	암묵적 믿음 / 명시적 믿음	다른 표기: 명시적인 믿음(편 1), 명시적으로 아는 앎(편 34)
fides formata / informis	형성된 믿음 / 형성되지 않은 믿음	스콜라 구별. 다른 번역: 형성된 믿음(편 56), 형태 없는 믿음(편 5)
opera supererogationis / supererogationes	의무 이상의 행위(opera supererogationis)	처음만 원어 병기. 다른 번역: 여공(餘功)(편 19)
consilia (evangelica)	권고(consilia)	원수 사랑을 계명이 아닌 권고로 만든 스콜라 구분. 다른 번역: 복음의 권고들(편 32)
facere quod in se est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하다	스콜라 신학 표어. 다른 번역: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행하다(편 9),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하다(편 11), 자기 안에 있는 만큼(편 12)
status gratiae	은혜의 상태	스콜라 용어
in puris naturalibus	순수한 본성적인 것들 가운데서	스콜라 용어
gratia operans / cooperans	역사하는 은혜 / 협력하는 은혜	롬바르두스의 은혜 구분
gratia praeveniens / subsequens	앞서는 은혜 / 뒤따르는 은혜	
gratia acceptans	받아들이시는 은혜 (gratia acceptans)	스콜라 용어. 처음 한 번 원어 병기. 다른 번역: 받아 주시는 은혜(편 57)
demereri / promereri (Deum)	(하나님께) 공로를 세우다	promereri는 히 13:16 라틴어 번역의 낱말로 원어 병기(편 56)
coniectura moralis	도덕적 추측	스콜라 교리
obex peccati mortalis	대죄라는 장애물(obex)	스콜라 성례론. 다른 번역: 대죄의 장애물(편 70)
sacramenta novae / veteris legis	새 법의 성례 / 옛 법의 성례	스콜라 용어
fomes (peccati)	(죄의) 불씨(fomes)	정욕의 병을 가리키는 스콜라 용어. 처음 한 번 원어 병기
iustitia originalis	원의(原義)	원죄 정의의 "원의의 결여"
reatus	죄책	죄의 재료(materia peccati)와 구분
praesumptio	주제넘음	롬바르두스 인용
theologia speculativa	사변 신학	

Sorbonistae / Sorbonicae scholae	소르본 신학자들 / 소르본의 학파	다른 번역: 소르본 학파들(편 56)
causa efficiens / materialis / formalis / finalis	작용인 / 질료인 / 형상인 또는 도구인 / 목적인	철학자들의 네 원인. 다른 번역: 작용인(편 40)
necessitas / coactio	필연 / 강제	칼빈이 구별을 요구함
posse non peccare / non posse peccare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 / 죄를 지을 수 없음	아우구스티누스
latria / dulia	라트리아 / 둘리아	λατρεία=예배, δουλεία=종노릇

CO 1에서 새로 정한 용어: 율법과 계명

원어	번역	비고
lex naturalis	자연법	기록된 율법은 자연법의 증언
tabula (legis) / tabula prima, secunda	(첫째 / 둘째) 돌판	
lex moralis, caeremonialis, iudicialis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모세 율법의 삼분. 안식일 계명의 caeremoniale / morale은 의식에 속하는 것 / 도덕에 속하는 것(편 2)
usus legis / tertius usus	율법의 쓰임(용도) / 셋째 용도	officium은 “직분”, usus는 “용도”(편 31). 편 3은 “쓰임”
paedagogus / paedagogia (갈 3:24)	몽학 선생 / 몽학 선생의 훈련	개역한글 갈 3:24. 붙여 쓴 “몽학선생”도 섞여 있음(편 29, 31, 32)
chirographum	증서	골 2:14
decretum (골 2:14, 엡 2:15)	조문	개역한글 ‘의문/법조문’ 문맥
sanctio (율법)	형벌 규정	약속(promissio)과 짝
legislator / nomothetae	입법자 / 입법자들 (nomothetae)	nomothetae는 교황제 법 제정자들을 비꼬는 말
sculptile / similitudo	새긴 우상 / 형상	둘째 계명
libri idiotarum	무식한 사람들의 책	그레고리우스의 말
εἰδωλοδουλεία / εἰδωλολατρεία	우상 섬김 / 우상 숭배	그리스어 음역 병기
adoratio / fiducia / invocatio / gratiarum actio	경배 / 신뢰 / 기도 / 감사	첫째 계명의 네 항목
sabbathum / dies dominicus	안식일 / 주일	다른 번역: 주의 날(편 2)

caelibatus / virginitas / continentia	독신 / 동정 / 절제	다른 번역: 독신 생활(편 2)
concupiscentia / cupiditas	정욕 / 욕심	열째 계명 본문의 concupisces는 '탐내다'. 다른 번역: 계획 / 정욕(편 30)
aequitas / constitutio (legis)	공평 / (법의) 제정	다른 번역: 공평 / (법의) 규정(편 82)
ἐθελοθρησκεία (voluntarius cultus)	에델로트레스케이아, 자의적 숭배	골 2:23. 다른 번역: 자의적 예배(편 63), 스스로 지어낸 숭배(편 32), 지어낸 숭배(편 62)
traditiones humanae / constitutiones	사람의 전통 / (교회의) 규정	
observationes	의식(들)	사람이 만든 지킬 거리. 다른 번역: 규례(편 63), 준수 사항(편 62)
libertas christiana	그리스도인의 자유	
res indifferentes / ἀδιάφορα / res mediae	아무래도 좋은 일들 / 아디아포라 / 중간의 일들	다른 번역: 아무래도 좋은 일들 / 중간의 일(편 61), 중간의 일들(편 22)
scandalum datum / acceptum	준 걸림돌 / 받은 걸림돌	scandalum 일반은 걸림돌, offensio·offendiculum은 걸림. 다른 번역: 준 걸림돌 / 받아들인 걸림돌(편 61)
religio (거리낌·의무의 뜻)	거리낌(religio)	경건(religion)과 다른 뜻. 다른 번역: 종교적 의무(religio)(편 61)
forum externum / forum conscientiae	외적 법정 / 양심의 법정	terrenum forum은 땅의 법정
aedificatio	덕 세움	개역한글 고전 10:23·롬 14:19
τὸ πρέπον / decorum	품위	다른 번역: 어울림(편 17). 고전 14:40의 decorum / ordo는 품위 / 질서

CO 1에서 새로 정한 용어: 기도

원어	번역	비고
petitio / gratiarum actio	간구 / 감사	기도의 두 부분

sanctificetur nomen tuum / sanctificatio (nominis)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 거룩히 여김	이름에 관해서는 '거룩히 여김' , 우리에 관해서는 '성화'
prima/secunda/tertia/quarta petitio	첫째/둘째/셋째/넷째 간구	
a maligno	악한 자에게서	여섯째 간구. 칼빈이 마귀와 연결해 풀이하므로 인격으로 옮김
tentatio a dextris / a sinistris	오른쪽에서 오는 시험 / 왼쪽에서 오는 시험	
panis supersubstantialis	초실체적 빵	
battologia	중언부언(battologia)	개역한글 마 6:7
templa / templum (예배 장소)	성전(templa)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 과 말놀이가 있어 성전으로 통일. 다른 번역: 예배당(편 68)
intercessio / intercessor (그리스도)	간구 / 간구하시는 분	지침 6-2 (결정). 중보자 (mediator)와 구분
patronus (성도 숭배 문맥)	수호자	성도 숭배 문맥. 다른 번역: 변호자 / 변호하다(편 67)
praesumptio fidei	믿음의 담대한 기대 (praesumptio)	부정적 '주제넘음' 이 아님
securitas (fidei, obtinendi)	든든함	certitudo '확신' , fiducia '신뢰' 와 구분
perseverantia (기도의)	끝까지 견딤	

CO 1에서 새로 정한 용어: 그 밖

원어	번역	비고
Rex Christianissimus	지극히 그리스도인다우신 왕	프랑스 왕 칭호. 다른 번역: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왕(편 19)
analogia fidei	믿음의 분수(analogia)	롬 12:6 개역한글 '믿음의 분수' . 다른 번역: 믿음의 유비 (편 9)
sensus divinitatis	신성에 대한 감각	
numen	신성(일반 문맥은 '신적인 존재')	'신' 을 하나님 지칭으로 쓰지 않으려 함

testimonium (interius) spiritus sancti	성령의 (내적) 증언	
beneficentia (Dei)	선을 베푸심, 선하심	37절. ‘은혜’ (gratia)와 구분. 다른 번역: 선을 베푸심(편 21)
essentia / substantia / subsistentia	본질 / 실체 / 실재	히 1:3 substantia는 본체. 다른 번역: 본질 / 본체(편 35), 실재 / 실재하다(편 36)
οὐσία / ὑπόστασις / hypostasis	우시아 / 휘포스타시스, 위격(hypostasis)	교부 용어를 소개하는 곳과 히 1:3 논의는 휘포스타시스로 음역(편 36)
persona (삼위일체·그리스도)	위격	
proprietas (위격의)	고유성	한 편에서 처음 나올 때 원어 병기
consubstantialis / ὁμοούσιος	동일 본질(의) / 호모우시오스	다른 번역: 본질이 같으시다(편 4), 동일 본체의(편 36)
oeconomia / dispensatio	경륜	재물·은사의 dispensatio는 “관리” (편 84, 85)
communicatio idiomatum	속성의 교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사이. ἰδιωμάτων κοινωνία는 고유성의 교류(편 4, 38)
propitiator (Christus)	화목하게 하시는 분	propitiatio(화목제물)와 구분
descendit ad inferos (사도신경)	음부에 (내려가셨다)	다른 문맥의 inferi는 지옥
αὐτεξούσιον	아우텍수시온	그리스어 음역 병기
animalis homo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	개역한글 고전 2:14. 다른 번역: 혼적(魂的)인 사람들(편 8)
cor lapideum / carneum	돌로 된 마음 / 살로 된 마음	52·54절 돌이 살로 바뀌는 비유를 살리려 개역한글 ‘굳은 마음/부드러운 마음’ 대신 씀
certitudo / persuasio	확실성 / 확신	
securitas / securus	안심 / 안심하는, 든든한	
acceptio (칭의의 정의)	받아들이심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받아들이시어 의인으로 여기심
absolutio (칭의 문맥)	무죄 선언	법정 용어
poenitentia legalis / evangelica	율법적 회개 / 복음적 회개	
resipiscentia / resipiscere	돌이킴 / 돌이키다	poenitentia(회개)와 구별

administratio (언약의)	시행	substantia(실체)와 대비. '실체와 사실 자체에서는 같고 시행이 다르다'
nutus Dei	하나님의 뜻하심	voluntas(뜻)와 구분
ordinatio Dei	하나님의 정하심	decretum(작정)과 구분
propositum	뜻하심	딤후 1:9, 롬 9:11, 엡 1:11
fatum (Stoicorum)	운명, 운명론	칼빈이 받아들이지 않는 낱말
causae inferiores	아래의 원인들	하나님이 으뜸 원인(praecipua causa). 다른 번역: 하위 원인(편 56)
providentia universalis / peculiaris (specialis)	보편적 섭리 / 특별한 섭리	
vocatio universalis / specialis	보편적인 부르심 / 특별한 부르심	
poenitentia Dei	하나님의 후회하심	사람의 poenitentia(니느웨)는 회개
permissum et immissum	허용되기도 했고 보내어지기도 했다	단순한 허용으로 줄이지 않음
acceptio personarum / personarum acceptor	외모로 사람을 취함 /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	개역한글 행 10:34, 롬 2:11
regimen spirituale / politicum	영적 통치 / 정치적인 통치	regnum spirituale / politicum은 영적 왕국(나라) / 정치적 왕국. 다른 번역: 영적인 다스림 / 국가적인 다스림(편 15)
politia	질서, 국가 질서 (politia)	다른 번역: 국가, 국가 제도 / 민주정(편 82, 통치 형태 논의). politia / oeconomia는 국가 통치 / 집안 살림(편 23)
praefectus	관리	magistratus(위정자)와 구분. princeps는 군주. 다른 번역: 관리, 통치자(편 83)
vindicta / ultio	보응 / 보복	사사로운 vindicta·ultio는 복수·보복
iudicium et iustitia (렘 22:3)	공평과 정의	개역한글 렘 22:3. 다른 번역: 의 / 공의(편 17)
allegoria	풍유	다른 번역: 비유적 해석(편 50), 알레고리(편 26), 비유(편 72)

κακοζηλία	그릇된 열심(κακοζηλία)	원문 OCR ‘xaxol^j;Xiay’. 다른 번역: 그릇된 흉내 내기(편 49), 서툰 흉내(편 11), 엉뚱한 흉내(편 79)
Anabaptistae / Catabaptistae	재세례파	anabaptismus는 다시 세례 받기(편 71)
Donatistae	도나투스파	
anthropomorphitae	신인동형론자	

부록 3. 성경 구절 색인

본문과 각주에 장절로 밝힌 성경 구절을 성경 차례대로 모았습니다. 숫자는 이 책의 쪽이며, 누르면 그 자리로 갑니다.

창세기
창 1:26 812
창 1:27 612
창 1:28 808
창 1:31 1403
창 2:1 786
창 2:17 717, 1525
창 2:22 642
창 2:23 1752
창 3:3 1525
창 3:15 801
창 3:22 1518
창 4:4 1217
창 4:7 570
창 4:10 717
창 4:13 1099
창 6:3 512, 1209
창 6:5 512
창 6:6 1445
창 7:1 413
창 8:21 512, 515, 1209
창 9:2 808
창 9:13 1525
창 12:17 616
창 14:18 1641
창 15:1 1313, 1437
창 15:4 1271
창 16:9 789
창 17:1 1271, 1799
창 17:2 824
창 17:7 618
창 17:10 1554
창 17:12 1558
창 17:14 1563
창 18:1 789
창 18:18 1271
창 18:20 1271
창 18:27 427
창 20:3 616, 1448
창 20:7 1448
창 22:1 1816
창 22:3 1271
창 22:12 1816
창 22:16 1271
창 22:18 824, 1528
창 24:7 789, 796
창 26:4 824
창 28:12 795
창 28:20 689
창 31:19 604
창 31:53 626
창 32:1 789
창 32:9 1464
창 32:28 789
창 34:25 1078
창 35:22 1079
창 37:18 1078
창 37:26 1078
창 38:16 1079
창 45:8 1439
창 47:9 1299
창 48:14 908, 1746

창 48:16 790, 1472
창 49:10 453
창 49:18 1300

출애굽기
출 2:12 1767
출 3:6 592, 1294
출 3:19 546
출 4:11 770
출 4:16 762
출 4:21 546, 1423
출 7:3 546
출 7:12 1598
출 10:1 546
출 11:3 548
출 12:26 1587
출 14:19 790
출 14:31 1003, 1667
출 17:15 764
출 19:6 818
출 20:5 1569
출 20:7 1462
출 20:13 1766
출 21:13 1430
출 21:17 635
출 22:8 1759
출 23:1 653
출 23:4 661
출 23:7 653
출 23:12 631
출 23:13 622
출 23:20 790
출 23:22 1437
출 31:2 501
출 31:13 628
출 32:1 605
출 32:4 416
출 32:27 1767
출 32:32 1484
출 33:19 1426
출 33:20 599
출 34:6 463
출 34:28 1071
출 35:2 628
출 35:30 501

레위기
레 1:4 1746
레 8:6 907
레 16:21 1124
레 16:22 1124
레 18:5 580, 1250
레 19:2 591, 1795
레 19:12 621
레 19:16 653
레 19:18 662
레 20:9 635
레 26:3 562
레 26:4 580, 811
레 26:11 1293
레 26:15 1441
레 26:19 811

민수기
민 8:10 1746
민 11:18 1504
민 11:33 1504
민 14:18 616
민 14:43 563
민 15:32 628
민 20:26 907
민 23:10 1300
민 23:19 1447
민 27:23 1746

신명기
신 1:16 1760, 1762, 1765
신 1:39 1574
신 2:30 546

신 4:9 581
신 4:15 598
신 5:14 631
신 5:17 1766
신 6:13 622
신 6:25 1255
신 7:6 591
신 7:9 1253
신 7:12 1248
신 8:3 811, 1495
신 10:12 657
신 10:14 1323
신 10:16 1555
신 10:20 622
신 11:14 811
신 11:26 1248
신 12:28 581
신 12:32 1364, 1678, 1682
신 13:1 1678
신 14:2 591
신 16:19 1765
신 17:8 1115
신 17:10 1004
신 17:12 1003
신 17:16 1765, 1786
신 18:11 1170
신 21:18 635
신 21:23 837
신 24:13 1255
신 26:18 591
신 27:26 668
신 28:1 562, 580
신 28:12 811
신 28:20 1441
신 28:23 811
신 28:29 1784
신 29:2 504
신 29:3 504
신 30:3 1079
신 30:6 560
신 30:11 565
신 30:19 666
신 32:8 1323
신 32:15 1817
신 32:17 705
신 32:25 662
신 32:35 662, 1778
신 32:40 678
신 32:46 678
신 33:3 1295
신 33:29 1293

여호수아

수 1:7 1031, 1685
수 5:14 789
수 7:19 621
수 24:3 1410

사사기

삿 2:1 790
삿 6:11 790
삿 6:13 789
삿 6:37 1526
삿 13:10 790
삿 13:22 426, 789

룻기

룻 3:13 626
룻 4:3 626

사무엘상

삼상 1:13 1482
삼상 2:6 153, 1505
삼상 2:9 1305
삼상 2:25 1425
삼상 7:6 1067
삼상 8:7 1763
삼상 8:11 388, 1786
삼상 15:11 1446

삼상 15:20 1099
삼상 15:22 1365, 1648, 1679
삼상 15:24 1099
삼상 15:29 1446
삼상 16:14 547, 800
삼상 18:10 547, 800
삼상 19:9 547
삼상 24:6 1788
삼상 24:7 1788
삼상 24:10 1788
삼상 24:11 1788
삼상 26:9 1788
삼상 26:23 1267
삼상 31:13 1067

사무엘하
삼하 1:12 1067
삼하 7:14 1160
삼하 7:27 1463
삼하 12:1 1157
삼하 12:13 1079, 1100, 1123
삼하 12:16 1100
삼하 16:10 1440
삼하 17:7 1439
삼하 17:14 549, 1439
삼하 24:10 1099
삼하 24:15 1163

열왕기상
왕상 2:5 1767
왕상 8:23 1253
왕상 8:27 138, 1488
왕상 8:46 668, 1080, 1218
왕상 8:58 526
왕상 12:10 549, 1438
왕상 12:15 1438
왕상 18:10 627
왕상 18:12 627
왕상 19:8 1071
왕상 19:10 414
왕상 19:13 427
왕상 22:5 1025
왕상 22:8 416
왕상 22:20 800
왕상 22:22 1025, 1438

열왕기하
왕하 6:17 791, 795
왕하 18:4 1381, 1701
왕하 19:35 790
왕하 20:1 1446
왕하 20:2 1099
왕하 20:3 1457
왕하 20:5 1446
왕하 20:9 1526

역대상
대상 17:25 1463

역대하
대하 19:6 1760, 1762

느헤미야
느 1:4 1066
느 1:5 1253
느 9:14 628

욥기
욥 1:6 799, 804
욥 1:12 1439
욥 1:21 1440
욥 2:1 799, 804
욥 4:17 1195
욥 5:17 1158
욥 9:2 1196
욥 9:20 1199
욥 10:15 1225
욥 12:18 1787
욥 12:20 546
욥 12:24 546
욥 13:15 725, 1307
욥 14:4 473, 1199

욥 14:5 1432
욥 14:17 1155
욥 15:5 1199
욥 15:15 1195
욥 15:16 1199
욥 19:25 1305
욥 25:6 1199
욥 28:28 731
욥 34:30 1784
욥 38:41 811
욥 41:2 1212
욥 41:11 1212

시편

시 1:1 1260
시 1:2 678
시 2:8 1324
시 2:10 1789
시 4:6 613
시 5:7 727
시 5:8 727
시 6:1 1159
시 6:2 1159
시 7:8 1265
시 7:9 1265
시 12:2 1515
시 12:3 1515
시 14:2 1209, 1796
시 15:1 1254
시 15:2 1796
시 16:1 1254
시 16:2 659, 1805
시 16:3 613
시 16:5 1314
시 17:1 1265
시 17:3 1265
시 17:13 1440
시 17:15 1303
시 18:20 1265
시 18:27 1200
시 18:28 1200
시 19:1 434, 445
시 19:7 677
시 19:8 677
시 19:12 1130, 1133
시 19:13 1130
시 22:1 844
시 22:2 844
시 22:4 1474
시 22:5 1474
시 22:25 689
시 22:26 689
시 23:4 725
시 24:4 1254
시 25:10 1249
시 26:1 1266
시 26:2 1499
시 26:8 613
시 27:3 1444
시 27:10 1485
시 30:5 1304
시 32:1 1154, 1220, 1260
시 32:5 1123
시 33:12 1293
시 34:7 789
시 34:8 789
시 34:14 1103
시 34:15 1103, 1457
시 34:16 1457
시 34:21 1300, 1305
시 34:22 1300, 1302
시 36:9 504
시 36:10 504
시 38:1 1159
시 38:4 1130
시 38:6 1130
시 39:12 1301

시 40:3 1476
시 40:4 1476
시 41:4 1461
시 41:5 1461
시 42:4 1122
시 42:5 1122
시 45:6 762
시 45:7 762, 816
시 45:8 816
시 45:10 409
시 45:11 409
시 45:12 613
시 46:5 862
시 48:8 613
시 48:10 1490
시 48:11 1490
시 49:6 1304
시 50:15 1462, 1475, 1623
시 50:23 1654
시 51:1 1123
시 51:3 1123
시 51:5 472, 1571
시 51:7 472
시 51:8 1571
시 51:10 527
시 51:12 527
시 52:8 1303
시 55:22 1303, 1437
시 55:23 1437
시 56:4 1444
시 56:5 1444
시 56:12 689
시 61:8 689
시 62:9 517
시 62:10 517
시 63:3 733, 1267
시 63:4 733
시 68:35 613
시 69:2 982
시 69:4 837
시 69:5 837
시 69:28 1305
시 72:8 1324
시 72:10 942
시 73:2 1303, 1833
시 73:16 1303
시 73:26 1314
시 78:49 800
시 80:1 592
시 80:2 592
시 80:3 732
시 80:4 732
시 82:1 1759, 1762, 1789
시 82:6 789, 1759
시 86:2 1457
시 86:5 734
시 88:16 1162
시 88:17 1162
시 89:3 860
시 89:4 860
시 89:30 1081, 1160
시 89:31 1081, 1160
시 90:7 1162
시 91:1 1437
시 91:3 1444
시 91:11 789
시 91:15 1462
시 92:12 1303
시 94:11 512, 1209
시 94:12 1163
시 97:10 1302
시 97:11 1302
시 99:1 592
시 99:5 613
시 99:9 613
시 103:8 734

시 103:17 1301
시 104:15 1834
시 105:25 547
시 106:3 1260
시 106:30 1255
시 110:3 761
시 110:4 1641, 1734
시 111:1 1514
시 111:10 731
시 112:1 1260
시 112:6 1302
시 112:7 1302
시 112:9 1302
시 113:7 437
시 115:3 784, 1426
시 116:14 689
시 116:15 1300, 1305
시 116:18 689
시 118:6 1444
시 118:18 1159
시 119:1 1260
시 119:10 1514
시 119:18 507
시 119:34 512
시 119:71 1159
시 119:105 677
시 130:3 1195
시 130:4 1245
시 132:11 824
시 132:13 860
시 133:3 1314
시 138:1 1514
시 140:13 1302
시 141:2 1654
시 142:5 1314
시 142:6 1314
시 143:2 668, 1196, 1225, 1267
시 144:15 1293
시 145:8 734
시 145:9 436
시 145:18 1454, 1463
시 147:10 495

잠언

잠 1:7 731
잠 2:21 1314
잠 3:11 1158, 1818
잠 8:14 1760
잠 8:15 1760, 1763
잠 8:22 760
잠 9:10 731
잠 10:7 1305
잠 10:12 1157, 1164
잠 12:14 1269
잠 12:28 1267
잠 13:13 1269
잠 14:21 1260
잠 14:26 1228
잠 15:8 1217
잠 15:33 731
잠 16:1 1429
잠 16:2 1198
잠 16:4 1400
잠 16:6 1157, 1165
잠 16:9 1434
잠 16:12 1767
잠 16:14 1792
잠 16:33 1430
잠 17:11 1768
잠 17:15 1768
잠 18:10 769
잠 19:17 1277
잠 20:7 618, 1267
잠 20:8 1767
잠 20:9 1205
잠 20:12 549
잠 20:20 635

잠 20:24 1429
잠 20:26 1767
잠 20:28 1768
잠 21:1 549, 1789
잠 21:2 1198
잠 22:28 408
잠 24:21 1781
잠 24:24 1768
잠 25:4 1768
잠 25:21 661
잠 25:27 1385
잠 28:2 1787
잠 28:14 727
잠 29:18 401
잠 30:6 1364, 1678, 1682

전도서

전 3:19 741
전 7:29 478, 573
전 9:1 740, 1208

아가

아 2:14 612
아 5:3 1245

이사야

사 1:3 405
사 1:6 873
사 1:12 634, 1216, 1224
사 1:16 1103
사 1:18 1154
사 1:19 562
사 3:4 1784
사 3:14 1762
사 4:1 1472
사 5:8 1337
사 5:25 771
사 5:26 547
사 6:1 765
사 6:5 426, 1004, 1667
사 6:9 771, 1423
사 7:1 1445
사 7:4 1445
사 7:14 821
사 7:18 547
사 8:12 413
사 8:14 764
사 8:17 750, 1094
사 9:6 763, 818
사 9:13 1362
사 10:1 1789
사 10:5 1784
사 10:15 547, 1440
사 11:2 816, 1727
사 11:9 1766
사 11:10 768
사 12:1 1159
사 13:3 1440
사 13:5 1440
사 14:27 1449
사 19:18 620
사 24:23 427
사 25:8 1832
사 26:2 1437
사 26:19 1309
사 28:16 768
사 29:13 1362, 1363, 1372, 1479, 1694
사 30:1 1476
사 30:19 1463
사 30:33 1090
사 31:1 1476
사 33:14 1195, 1255
사 33:22 1293, 1352, 1673
사 33:24 1074
사 34:8 1090
사 35:8 859, 1796
사 37:16 592
사 37:36 790

사 38:1 1446
사 38:5 1446
사 38:7 1526
사 38:17 1154
사 39:7 616
사 40:2 1161
사 40:3 1097
사 40:11 302, 1750
사 40:13 1659
사 40:18 598
사 40:29 495
사 41:7 598
사 41:29 598
사 42:8 81, 763
사 42:9 455
사 42:13 302, 1750
사 42:24 1159
사 43:11 1129
사 43:25 767, 1129, 1149, 1497
사 44:3 495, 853
사 45:1 454
사 45:4 827
사 45:9 598
사 45:23 764
사 45:25 1205
사 46:5 598
사 46:13 858
사 46:24 764
사 47:6 1159
사 48:10 1160
사 49:15 1437, 1485
사 51:6 1302
사 52:1 942
사 52:7 894
사 53:4 1151, 1615
사 53:5 837, 843, 1155, 1529
사 53:6 838, 1151, 1199, 1421
사 53:8 761
사 53:10 837
사 53:11 836
사 53:12 836
사 54:13 505
사 55:1 495, 853, 1235
사 55:2 1225, 1362
사 55:6 1109
사 56:1 1109, 1766
사 56:2 628
사 56:10 1023, 1683
사 57:15 1200
사 58:5 1070
사 58:6 1102
사 58:13 630, 634
사 59:1 1190
사 59:15 1213
사 59:20 1109
사 60:2 517
사 60:6 942
사 60:19 495
사 61:1 1109, 1202
사 63:4 1090
사 63:16 1473, 1485
사 63:17 546, 1473
사 64:5 1456
사 65:1 1410
사 65:16 620
사 65:24 1463
사 65:25 1766
사 66:1 1479, 1488
사 66:2 1200
사 66:14 1090
사 66:22 1309
사 66:23 629
사 66:24 1090

예레미야

렘 1:6 1004, 1667
렘 1:10 1005, 1423, 1667

렘 1:15 1440
렘 1:18 1437
렘 2:13 402
렘 3:1 1079
렘 3:12 1079
렘 4:1 562
렘 4:4 1102
렘 4:9 342, 1025, 1685
렘 5:7 621
렘 6:13 1023, 1683
렘 7:3 1248
렘 7:4 882, 1675
렘 7:13 564
렘 7:22 1362, 1365, 1679
렘 7:23 1248
렘 7:27 565
렘 7:28 564
렘 9:23 464, 1204
렘 9:24 769
렘 10:2 810
렘 10:8 601
렘 10:23 1429
렘 10:24 1159
렘 11:7 1365, 1679
렘 11:13 1469
렘 12:16 620
렘 14:7 1456
렘 14:14 1023, 1683
렘 15:1 1470
렘 17:1 1155
렘 17:5 495
렘 17:9 517, 1209
렘 17:21 628
렘 17:27 628
렘 18:8 1446
렘 18:18 416, 1025, 1685
렘 22:3 1765
렘 23:6 763
렘 23:16 1031, 1693
렘 23:28 1004, 1667
렘 24:7 505
렘 25:11 454
렘 27:5 1786
렘 27:17 1787
렘 29:7 1787
렘 29:12 1462
렘 29:13 1459
렘 31:11 522
렘 31:18 522, 560
렘 31:31 461, 1154, 1318
렘 31:34 1154
렘 31:35 860
렘 32:18 616
렘 32:23 564
렘 32:32 564
렘 32:39 526
렘 32:40 526
렘 33:8 1075
렘 33:16 764
렘 48:10 1762
렘 50:20 1155
렘 50:23 547

예레미야애가

애 3:37 1440

에스겔

겔 1:20 1727
겔 1:28 426
겔 2:3 1423
겔 3:17 899, 1004, 1667
겔 4:16 1495
겔 7:26 1025, 1685
겔 11:19 526
겔 12:2 1423
겔 12:13 547, 1440
겔 13:9 858
겔 14:13 1495

겔 14:14 1470
겔 16:20 889, 1581
겔 17:20 547, 1440
겔 18:9 1267
겔 18:20 580, 616, 617, 665, 1152
겔 18:21 1133, 1154, 1267
겔 18:23 1080
겔 18:24 1154, 1218
겔 18:31 1101
겔 18:32 1080, 1426
겔 20:11 1250
겔 20:12 628
겔 20:43 1204
겔 22:8 628
겔 22:25 1023, 1683
겔 23:37 1581
겔 23:38 628
겔 28:10 1305
겔 29:4 1445
겔 29:19 1785
겔 31:18 1305
겔 33:11 1426
겔 33:15 1267
겔 34:4 1049
겔 36:22 1157
겔 36:25 854
겔 36:26 524, 560, 1492
겔 36:32 1157
겔 48:21 1771
겔 48:35 763

다니엘

단 2:21 1785
단 2:37 1785
단 4:17 1785
단 4:24 1157
단 4:27 1157, 1164
단 5:18 1785
단 7:10 788, 792
단 7:25 996
단 9:5 1123
단 9:7 1789
단 9:18 1456
단 9:27 890
단 10:13 790
단 10:20 790
단 12:1 790, 791, 1309

호세아

호 2:18 1075
호 2:19 1214
호 2:20 1075
호 2:23 1214
호 5:15 566
호 13:9 551
호 13:11 1784
호 13:12 1155
호 14:2 1156, 1654
호 14:3 1156, 1654
호 14:4 1214
호 14:5 1214

요엘

욜 2:12 1106
욜 2:13 1069
욜 2:15 1067
욜 2:28 743
욜 2:32 769, 858, 1463
욜 3:1 743
욜 3:5 858, 1463
욜 3:17 859, 861
욜 3:21 861
욜 4:17 859, 861
욜 4:21 861

아모스

암 1:2 592
암 3:6 1440
암 5:14 562

암 6:1 1337
암 6:4 1337

요나
욘 3:4 1446
욘 3:5 1067, 1099
욘 3:10 1446

미가
미 3:6 1025, 1683
미 5:2 820
미 7:19 1154

하박국
합 1:12 784, 1293
합 2:3 750, 1094
합 2:4 1220
합 2:18 601
합 3:2 1159
합 3:13 815

스바냐
습 1:5 621
습 3:4 1683
습 3:11 1200

학개
학 2:13 1215

스가랴
슥 1:3 561
슥 2:8 1437
슥 3:9 1208
슥 7:13 1087
슥 9:11 842
슥 13:7 773

말라기
말 1:6 591, 731, 1797
말 1:11 1643, 1644, 1654
말 2:4 1004
말 2:6 1004
말 2:7 816, 1007, 1022, 1667
말 2:8 1002
말 3:17 1333

마태복음
마 1:1 824
마 1:21 815, 818
마 1:23 821
마 3:2 1108
마 3:3 1097
마 3:6 1117, 1581
마 3:7 1101
마 3:8 1101
마 3:11 854, 1543
마 3:12 869, 1090
마 3:13 1541
마 3:16 817
마 3:17 737
마 4:1 1498
마 4:2 1071
마 4:3 1498
마 4:4 811
마 4:10 596
마 4:11 790
마 4:17 1108
마 5:3 1260
마 5:4 1821
마 5:10 1819
마 5:12 1269
마 5:13 894, 1005, 1668
마 5:15 613
마 5:17 679
마 5:18 665
마 5:19 665
마 5:21 584, 1766
마 5:22 638
마 5:23 1127
마 5:25 1171
마 5:34 623
마 5:38 1779

마 5:39 1778, 1779
마 5:44 1807
마 5:46 662
마 6:6 1477
마 6:7 1477
마 6:9 1482
마 6:11 1494
마 6:12 1078
마 6:23 729
마 7:7 1462
마 7:11 1485
마 7:12 659
마 7:15 1031, 1693
마 7:29 1670
마 8:4 1114
마 8:11 1310
마 8:12 1090
마 8:25 724
마 8:29 804
마 9:2 1164
마 9:4 767
마 9:6 767, 828
마 9:13 1109, 1213
마 9:15 1067, 1107
마 10:5 1324
마 10:8 767
마 10:18 1116
마 10:20 1712
마 10:29 811, 1438
마 10:33 1081
마 11:5 1109
마 11:13 1317, 1322
마 11:25 738
마 11:27 754, 1006, 1668
마 11:28 1202, 1283
마 12:24 1085
마 12:31 1084
마 12:32 1171
마 12:43 797
마 13:4 1517
마 13:11 1424
마 13:17 1318
마 13:24 869
마 13:28 798
마 13:31 302, 1750
마 13:33 302, 1750
마 13:47 869
마 14:27 1636
마 15:3 1355
마 15:4 635
마 15:6 1695
마 15:8 1479
마 15:9 1362, 1372, 1694
마 15:14 1031, 1340, 1693
마 15:24 1324
마 15:34 1271
마 16:6 1374, 1697
마 16:12 1374
마 16:17 504, 738
마 16:18 948
마 16:19 878, 1005, 1054, 1076, 1135
마 16:23 999
마 16:24 1801, 1812
마 17:1 1614
마 17:5 737, 1002, 1008, 1501, 1669
마 18:10 790
마 18:15 1053
마 18:17 1053, 1682
마 18:18 875, 878, 1061, 1076, 1135, 1137, 1169, 1668
마 18:20 864, 1021, 1138, 1478, 1682
마 18:22 1078
마 19:12 640
마 19:13 1560
마 19:14 1559
마 19:15 908

마 19:16 699
마 19:17 699, 1282
마 19:18 658
마 19:19 590
마 19:25 669
마 20:1 1272
마 20:25 1042, 1692
마 21:25 1708
마 22:1 1417
마 22:13 1090
마 22:14 1415
마 22:23 591
마 22:30 792
마 22:32 591, 1294, 1554
마 22:37 588
마 23:3 1373, 1697
마 23:8 1009, 1670
마 23:23 658
마 24:11 1023, 1685
마 24:14 1116
마 24:24 407, 1023, 1684, 1685
마 24:30 849
마 24:36 792
마 25:21 530, 1235
마 25:23 530
마 25:29 530
마 25:31 792
마 25:32 1090
마 25:34 1269, 1271, 1273
마 25:40 1277
마 25:41 797, 804
마 26:26 1528, 1620
마 26:27 1636
마 26:28 1317
마 26:38 1822
마 26:53 792
마 26:75 1100
마 27:4 1099
마 27:46 844
마 27:52 1310
마 28:5 790
마 28:19 771, 1005, 1528, 1666, 1670, 1735
마 28:20 414, 847, 1009, 1012

마가복음

막 1:4 1108, 1722
막 1:15 1108
막 3:15 767
막 3:28 1084, 1171
막 6:7 767
막 6:13 1723
막 9:24 1514
막 9:43 1090
막 10:30 1273
막 10:42 1692
막 11:24 1459
막 13:32 827
막 15:28 836
막 16:9 797
막 16:15 895, 1735
막 16:16 1537
막 16:19 847
막 16:20 406

누가복음

눅 1:6 1256
눅 1:31 815
눅 1:32 830
눅 1:43 830
눅 1:54 1289
눅 1:72 1289
눅 1:74 1243
눅 1:77 1191
눅 2:37 1066
눅 2:52 827
눅 3:3 1108
눅 3:8 1101

눅 3:14 1770
눅 3:16 1542
눅 4:18 1109
눅 5:14 1114
눅 5:34 1067
눅 6:23 1269
눅 6:24 1337
눅 7:36 1166
눅 7:47 1157
눅 8:7 715
눅 8:13 715
눅 8:14 715
눅 8:18 1235
눅 8:30 797
눅 9:23 1240
눅 9:26 792
눅 10:16 894, 1005, 1668
눅 10:18 801
눅 10:21 738
눅 10:22 754, 1660
눅 10:26 699
눅 10:27 588, 660
눅 11:2 1482
눅 11:21 803
눅 12:10 1084, 1171
눅 12:14 1043
눅 15:7 790
눅 15:20 1486
눅 16:2 1837
눅 16:9 1276
눅 16:15 1196
눅 16:22 791
눅 16:23 791
눅 17:3 1806
눅 17:5 1514
눅 17:7 1224
눅 17:10 1223, 1233, 1461
눅 17:14 1114
눅 17:21 1491
눅 18:1 1475
눅 18:13 1132, 1201
눅 18:14 1164, 1182
눅 18:15 1560
눅 18:18 699
눅 19:17 530
눅 19:26 530
눅 20:37 1295, 1554
눅 21:28 1831
눅 21:36 1475
눅 22:17 1735
눅 22:19 1624
눅 22:20 1592
눅 22:25 1042, 1692, 1763
눅 22:32 998
눅 22:43 790
눅 22:44 1822
눅 22:61 1164
눅 22:62 1100
눅 24:5 790
눅 24:26 1108
눅 24:27 462, 739
눅 24:39 827, 1636
눅 24:44 1173
눅 24:45 739
눅 24:46 1108

요한복음

요 1:1 760
요 1:4 503, 768, 1605
요 1:12 1485
요 1:13 504
요 1:14 765, 826
요 1:16 816, 817
요 1:18 773, 1668
요 1:29 1151, 1542
요 1:32 817
요 1:39 953

요 1:40 953
요 1:42 953
요 2:2 642
요 2:9 642
요 2:25 767
요 3:3 534, 1572
요 3:5 534
요 3:6 516
요 3:7 534
요 3:13 828, 1614
요 3:16 757, 835, 1226
요 3:27 504
요 3:33 744
요 3:34 816
요 3:35 754
요 4:22 445
요 4:23 1478
요 4:24 777
요 4:25 1009, 1670
요 5:17 766, 1429
요 5:20 754
요 5:22 851
요 5:23 828
요 5:24 534, 1237, 1582
요 5:25 574
요 5:26 1606
요 5:29 1090, 1269
요 5:32 773
요 5:36 767
요 6:27 1533
요 6:29 744, 1283
요 6:31 1290
요 6:37 1414, 1415
요 6:38 827
요 6:39 1414, 1415
요 6:40 1237, 1415
요 6:44 505, 739
요 6:45 525, 529
요 6:47 768
요 6:49 1290
요 6:51 1595, 1605
요 6:70 1418
요 7:16 1005, 1668
요 7:18 406
요 7:37 853, 1709
요 8:12 754
요 8:16 773
요 8:32 534
요 8:34 515
요 8:36 534
요 8:44 798, 799, 803, 804
요 8:47 883, 1677
요 8:50 406, 827
요 8:56 1289
요 8:58 827
요 9:5 754
요 9:6 1723
요 9:24 622
요 9:31 1457
요 10:4 1677
요 10:7 754, 828
요 10:11 302, 1751
요 10:14 828, 883, 1677
요 10:26 1677
요 10:27 302, 883, 1415, 1751
요 10:35 1760
요 10:37 767
요 11:41 767
요 11:44 1116
요 11:47 1025
요 12:19 416
요 12:39 1424
요 12:41 765
요 12:46 754
요 13:18 1418
요 14:1 768

요 14:3 848
요 14:6 754, 1465
요 14:9 754
요 14:10 827
요 14:11 767
요 14:13 1464
요 14:16 774, 1013
요 14:17 743
요 14:26 507, 1009, 1017
요 14:28 827
요 15:1 302, 527, 828, 1751
요 15:3 1797
요 15:4 527
요 15:5 302, 554, 1751
요 15:10 1244
요 15:16 1391
요 15:26 774
요 16:2 885
요 16:12 1018, 1384, 1674
요 16:13 460, 739, 1009, 1017
요 16:20 1821
요 16:24 1464
요 17:3 403, 434, 746, 753
요 17:5 761
요 17:6 1414
요 17:9 818
요 17:12 1414, 1418
요 17:19 819
요 18:5 1636
요 18:36 1491
요 18:37 883, 1677
요 19:30 1642, 1651
요 19:34 1530
요 20:19 1615
요 20:21 1668
요 20:22 1710, 1743
요 20:23 948, 1005, 1054, 1076, 1135, 1169, 1668
요 20:28 766
요 21:15 948, 1735
요 21:18 1822

사도행전

행 1:3 847
행 1:5 1552
행 1:10 790
행 1:11 847, 849, 1617
행 1:23 905
행 2:24 843
행 2:30 848
행 2:37 1100, 1579
행 2:38 1110
행 2:39 1569
행 2:42 1621, 1632
행 3:6 767
행 3:21 848
행 3:25 1310, 1569
행 3:26 1109
행 3:27 1109
행 4:12 97, 815
행 4:19 394
행 4:27 1440
행 5:4 771
행 5:29 394, 1792
행 5:31 1108, 1109
행 5:41 1819
행 6:1 902
행 6:2 1043, 1692
행 6:10 1085
행 7:48 1479, 1488
행 7:53 792
행 7:56 848
행 7:59 769
행 8:13 715
행 8:14 955, 1543
행 8:15 1709
행 8:17 1543

행 8:18 715
행 8:22 1081
행 8:37 1514, 1579
행 9:6 895
행 9:13 769
행 9:17 1548, 1714
행 10:3 895
행 10:4 1252
행 10:34 1251, 1405
행 10:42 850
행 10:43 1144, 1149
행 10:48 1548
행 11:4 955
행 11:16 1552
행 12:15 791
행 13:2 906, 1740
행 13:3 1066
행 13:36 1471
행 13:38 1181, 1192
행 13:43 560
행 13:48 1411, 1422
행 14:3 406
행 14:16 441, 1323
행 14:23 900, 904, 906, 907, 1066, 1737
행 14:27 900
행 15:7 954
행 15:8 1310
행 15:9 1217, 1510
행 15:10 1689
행 15:11 1147
행 15:20 1369
행 15:29 1674, 1689
행 16:3 1341
행 17:24 1488
행 17:27 438, 441
행 17:28 811, 1429
행 17:29 598
행 17:30 1102
행 17:34 787
행 18:18 1730
행 19:3 1543, 1551
행 19:4 1542
행 19:5 1543, 1551
행 19:6 908
행 19:13 1733
행 20:10 1724
행 20:18 900, 901
행 20:20 899, 1053, 1077
행 20:21 1097, 1100
행 20:26 1053
행 20:28 766, 827, 1144, 1736
행 20:29 1024, 1684, 1685
행 22:1 1778
행 22:16 1548
행 23:8 792
행 24:12 1778
행 24:15 1090
행 24:16 1349
행 25:10 1778
행 28:15 962
행 28:16 962
행 28:25 771

로마서

롬 1:1 820
롬 1:2 1288
롬 1:3 824
롬 1:4 1727
롬 1:5 734, 744
롬 1:17 736, 1187
롬 1:19 434, 441
롬 2:6 1269
롬 2:10 1405
롬 2:11 1405
롬 2:13 1264
롬 2:14 508
롬 2:15 1348

롬 2:25 1531
롬 3:8 28
롬 3:9 1118
롬 3:10 517
롬 3:19 672, 1118, 1204, 1288
롬 3:20 558, 671
롬 3:21 1288
롬 3:23 1226
롬 3:24 1155
롬 3:25 1204, 1539
롬 3:26 1181, 1205
롬 3:27 1183
롬 4:1 1183
롬 4:2 1187
롬 4:3 1220
롬 4:4 1190
롬 4:6 1182, 1189, 1191
롬 4:10 1566
롬 4:11 1511, 1529, 1531, 1575
롬 4:13 1220
롬 4:14 1206
롬 4:15 671, 1188
롬 4:16 1187, 1207
롬 4:17 1212
롬 4:25 405, 845
롬 5:1 720
롬 5:3 1814
롬 5:6 1214
롬 5:8 823, 835, 1190
롬 5:10 835, 1190
롬 5:12 473, 476
롬 5:15 1147, 1149
롬 5:19 473, 831, 1193, 1529
롬 5:20 558, 671
롬 6:2 534
롬 6:3 1540
롬 6:4 630, 1101, 1576, 1711
롬 6:5 839, 845
롬 6:12 540, 1334
롬 6:14 1334
롬 6:15 28
롬 6:18 1243, 1796
롬 6:19 1420
롬 6:21 1420
롬 6:23 665, 1152, 1230
롬 7:6 542
롬 7:7 558, 671
롬 7:14 584
롬 7:15 514
롬 7:19 514
롬 7:24 1830
롬 7:25 535
롬 8:1 1152
롬 8:3 669, 737, 838, 1151, 1193
롬 8:4 536
롬 8:6 516, 1103
롬 8:7 1103
롬 8:9 774, 1610
롬 8:10 474, 728
롬 8:14 742
롬 8:15 1320, 1409, 1452, 1727
롬 8:17 784
롬 8:18 1273
롬 8:19 1831
롬 8:23 1273
롬 8:24 748, 749, 1093
롬 8:26 1452, 1455
롬 8:29 534, 1241, 1409, 1812
롬 8:30 552, 858, 1269, 1409, 1415
롬 8:32 737, 757
롬 8:33 851, 1181
롬 8:34 849, 1466
롬 8:36 1832
롬 8:38 721, 743, 1241
롬 8:39 737
롬 9:3 1484

롬 9:5 765, 824
롬 9:7 1567
롬 9:11 1391
롬 9:15 1393
롬 9:16 554, 571, 1409
롬 9:17 1424
롬 9:18 1396
롬 9:20 1398
롬 9:32 764
롬 10:3 1183
롬 10:5 1186, 1250
롬 10:8 565, 734, 736, 1186, 1510
롬 10:10 746
롬 10:11 768
롬 10:14 1452, 1460
롬 10:17 1011, 1672
롬 11:6 1213
롬 11:20 726, 1415
롬 11:32 672, 1425
롬 11:33 738
롬 11:34 1659, 1705
롬 11:35 1212, 1391
롬 11:36 591
롬 12:1 1244, 1654, 1799
롬 12:3 687, 1556
롬 12:4 1243
롬 12:6 402, 1556
롬 12:8 901, 1035, 1760
롬 12:19 1778
롬 12:21 1779
롬 13:1 1761, 1763, 1782
롬 13:3 1766
롬 13:4 1767, 1776, 1779
롬 13:5 1781
롬 13:6 1771
롬 13:8 659
롬 13:9 662
롬 14:1 1340
롬 14:5 632
롬 14:10 764, 1172
롬 14:14 1335
롬 14:23 687, 709, 1176, 1237
롬 15:8 1569
롬 15:12 768
롬 15:19 895
롬 16:7 898
롬 16:20 801

고린도전서

고전 1:12 702
고전 1:13 1144, 1547
고전 1:20 506
고전 1:30 1155, 1242
고전 2:2 769
고전 2:4 451, 1518
고전 2:7 719
고전 2:8 827, 1614
고전 2:10 719, 738, 770
고전 2:11 738
고전 2:12 741
고전 2:14 501, 506, 738
고전 2:16 738, 770, 1208
고전 3:2 1343
고전 3:6 1518
고전 3:7 555
고전 3:8 1269
고전 3:11 954, 1236
고전 3:12 1173
고전 3:16 770, 1243, 1797
고전 3:17 770
고전 3:19 437
고전 3:21 408
고전 4:1 899, 1002, 1666
고전 4:4 1196, 1267
고전 4:5 1197
고전 4:7 553
고전 5:2 870

고전 5:4 1054
고전 5:5 877, 1056
고전 5:6 876, 1038, 1056
고전 5:7 1643
고전 5:11 1056
고전 6:9 1420
고전 6:11 852, 1215, 1797
고전 6:13 695, 1711
고전 6:15 1607, 1797
고전 6:19 770, 1797
고전 7:2 641
고전 7:7 640
고전 7:9 641, 705
고전 7:14 1558, 1568
고전 7:21 1757
고전 7:23 1792
고전 7:26 1792
고전 7:29 1836
고전 7:34 642
고전 7:35 1347, 1665
고전 8:4 1690
고전 8:5 766
고전 8:6 820
고전 8:7 1690
고전 8:9 1340, 1690
고전 9:1 1223
고전 9:5 645
고전 9:16 899
고전 9:19 1341
고전 9:20 1730
고전 10:1 1290
고전 10:2 1543
고전 10:3 1530
고전 10:4 1600
고전 10:5 726, 1531
고전 10:9 761
고전 10:11 1290
고전 10:12 726, 743, 1415
고전 10:13 1499
고전 10:16 1625
고전 10:17 1597
고전 10:23 1342
고전 10:25 1340
고전 10:28 1349
고전 10:29 1340
고전 11:2 1699
고전 11:4 1730
고전 11:16 1380, 1699
고전 11:20 1658
고전 11:23 1621
고전 11:25 1592
고전 11:26 1624
고전 11:28 871, 1586, 1628
고전 11:29 871, 1627
고전 11:32 1161, 1818
고전 12:3 504
고전 12:4 860, 904
고전 12:6 528
고전 12:8 770
고전 12:10 770
고전 12:11 688, 770, 772, 861
고전 12:12 1513
고전 12:13 1549, 1578
고전 12:25 1467
고전 12:28 901, 1035, 1760
고전 12:31 745
고전 13:2 745, 1279
고전 13:3 699
고전 13:4 1804, 1805
고전 13:5 660
고전 13:9 723
고전 13:12 723, 1660
고전 13:13 1279
고전 14:15 1480, 1482
고전 14:16 1481
고전 14:29 1011, 1032, 1672

고전 14:30 867
고전 14:34 1699
고전 14:40 631, 902, 1375, 1477, 1698, 1700
고전 15:10 531
고전 15:13 826
고전 15:19 1274
고전 15:22 473, 1571
고전 15:24 828
고전 15:28 629, 829, 1491
고전 15:39 1088
고전 15:41 1750
고전 15:47 825
고전 15:50 1087, 1572
고전 15:51 850, 1088
고전 16:2 632

고린도후서

고후 1:3 1486
고후 1:6 1146
고후 1:12 1267
고후 1:20 736, 1465, 1528
고후 1:21 740
고후 1:22 853
고후 1:24 1011, 1672
고후 2:6 1083, 1127
고후 2:7 1058
고후 2:8 1060
고후 3:5 511, 515
고후 3:6 461, 1318
고후 3:7 671
고후 3:8 461
고후 3:14 1311
고후 3:17 534
고후 3:18 471, 723, 1104
고후 4:4 543, 803
고후 4:6 753
고후 4:7 892
고후 4:8 1240, 1821
고후 4:10 1278
고후 5:5 740
고후 5:6 719, 1829
고후 5:10 765, 1269
고후 5:18 734, 948, 1148, 1183, 1220
고후 5:19 1150, 1191
고후 5:20 1076
고후 5:21 838, 1144, 1192
고후 6:16 770, 1243, 1797
고후 6:18 784
고후 7:10 1102
고후 7:11 1104
고후 9:6 1277
고후 9:7 1244
고후 10:4 1010, 1039, 1044, 1671
고후 10:6 948
고후 10:8 1002, 1666
고후 11:14 407
고후 12:2 788
고후 12:7 542, 801
고후 12:21 1081
고후 13:5 742
고후 13:7 1666
고후 13:10 1002, 1666
고후 13:13 757

갈라디아서

갈 1:1 905, 1740
갈 1:8 1031, 1693
갈 1:12 905
갈 2:3 1341
갈 2:7 963
갈 2:14 1054
갈 2:16 768, 1249
갈 2:19 839
갈 3:1 604, 1657
갈 3:8 1181
갈 3:10 668, 680, 1188
갈 3:11 1186

갈 3:12 1188
갈 3:13 680, 838, 1331
갈 3:16 1528
갈 3:17 1189
갈 3:18 1186
갈 3:19 558
갈 3:21 1188
갈 3:22 1118
갈 3:24 676, 1317
갈 3:27 1513, 1541, 1577, 1712
갈 3:28 1405, 1757
갈 4:1 1312, 1317, 1360
갈 4:4 680, 824
갈 4:7 1271
갈 4:8 431, 596
갈 4:9 1356, 1696, 1710
갈 4:10 632
갈 4:22 1321
갈 4:30 1271
갈 5:1 1331, 1343, 1757
갈 5:4 1343
갈 5:5 1252
갈 5:13 1340
갈 5:14 659
갈 5:17 514, 668
갈 5:19 476, 1209
갈 6:10 1487, 1806
갈 6:14 839
갈 6:17 1278

에베소서

엡 1:3 1238
엡 1:4 834, 1268, 1330, 1389, 1408
엡 1:5 1182
엡 1:6 1205
엡 1:7 1155
엡 1:9 1508, 1752
엡 1:13 740, 1288, 1409
엡 1:14 1310
엡 1:17 506
엡 1:18 721, 1013, 1270, 1680
엡 1:20 848
엡 1:21 788
엡 1:22 848, 957
엡 1:23 861, 1487, 1606
엡 2:1 1420
엡 2:2 543, 803
엡 2:3 478, 1571
엡 2:4 1212
엡 2:5 534, 574, 1205
엡 2:6 848, 1238
엡 2:8 1205, 1221
엡 2:10 1212, 1239
엡 2:11 1569
엡 2:12 431, 1420, 1518, 1555, 1581
엡 2:14 681, 732, 737, 1324, 1566
엡 2:20 447, 879, 883, 953
엡 2:21 1243
엡 3:2 1508
엡 3:12 720, 1461
엡 3:15 784
엡 3:18 718
엡 3:19 659
엡 4:4 892, 958, 1513
엡 4:5 771, 884, 1658
엡 4:7 860, 958
엡 4:8 765, 849
엡 4:10 846, 958
엡 4:11 958, 1015
엡 4:12 861
엡 4:13 1514, 1680
엡 4:15 848, 957, 1607
엡 4:16 1607
엡 4:22 1797
엡 4:23 471, 516, 1104, 1800
엡 4:27 801
엡 4:30 560

엡 5:1 1797
엡 5:6 732
엡 5:8 1243, 1420
엡 5:14 574
엡 5:20 1475
엡 5:23 957, 1797
엡 5:25 859, 957, 1789
엡 5:26 338, 1014, 1538, 1578, 1681, 1797
엡 5:27 1673
엡 5:28 1751
엡 5:29 1751
엡 5:30 1607
엡 6:1 635, 637, 1789
엡 6:4 1789
엡 6:9 1405
엡 6:10 560
엡 6:12 796
엡 6:16 725

빌립보서
빌 1:1 901, 1736
빌 1:4 513
빌 1:6 523, 1270
빌 1:23 1830
빌 2:6 766
빌 2:7 825, 829
빌 2:8 831, 1529
빌 2:9 829, 848, 1324
빌 2:10 1172
빌 2:12 727, 1270
빌 2:13 528, 530
빌 2:20 962
빌 3:7 1183
빌 3:10 1241, 1812
빌 3:12 1013
빌 3:13 1222
빌 3:15 867
빌 3:21 1088, 1615
빌 4:11 1338
빌 4:12 1837
빌 4:18 1654

골로새서
골 1:4 1272, 1288
골 1:9 513
골 1:12 1389
골 1:14 1155
골 1:15 827
골 1:16 788, 793
골 1:17 827
골 1:18 957
골 1:20 793
골 1:21 1214
골 1:24 1055, 1145, 1147
골 1:25 1147
골 1:26 719, 1508
골 2:3 1009, 1317, 1659, 1668, 1670
골 2:4 1373
골 2:8 1373
골 2:9 769, 1317, 1614
골 2:10 957
골 2:11 957, 1531, 1564
골 2:12 1576
골 2:13 534, 681, 1149
골 2:16 630, 632, 1695
골 2:20 1359, 1710
골 2:23 686, 1357, 1373
골 3:1 1405, 1622, 1797
골 3:3 839
골 3:5 846
골 3:6 732
골 3:9 471, 1541
골 3:10 1104, 1800
골 3:11 1405, 1757
골 3:14 699, 1279
골 3:16 1480
골 3:20 635, 1271

골 3:22 1271, 1757
골 4:17 900, 1736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3:5 1498
살전 3:13 1268
살전 4:3 1243, 1330
살전 4:16 791, 850
살전 4:17 1088
살전 5:2 302, 1750
살전 5:4 1243
살전 5:9 1243
살전 5:17 1476
살전 5:19 462
살전 5:23 1797

데살로니가후서
살후 1:5 1278
살후 1:9 1091
살후 1:10 1089
살후 1:11 561
살후 2:3 1026
살후 2:4 890, 996, 1023
살후 2:9 407, 800
살후 2:10 407
살후 2:11 546, 800, 1684
살후 2:14 1288
살후 3:5 1498
살후 3:10 1585
살후 3:14 877, 1056, 1081
살후 3:15 879, 1061

디모데전서
딤전 1:5 657, 1349
딤전 1:9 675
딤전 1:13 1085
딤전 1:17 765
딤전 2:1 1465, 1475, 1476, 1782
딤전 2:4 1425
딤전 2:5 822, 1464, 1466
딤전 2:6 1155
딤전 2:8 1476, 1478, 1705, 1746
딤전 2:9 1155
딤전 3:1 904
딤전 3:2 643, 927, 1742
딤전 3:3 1691
딤전 3:8 1748
딤전 3:9 1752
딤전 3:15 861, 880, 1014
딤전 3:16 765, 1508
딤전 4:1 1684
딤전 4:3 643, 1034, 1686
딤전 4:5 1336, 1476
딤전 4:10 403
딤전 4:14 909, 1735, 1745
딤전 5:9 902
딤전 5:12 706
딤전 5:17 634, 1035
딤전 5:20 1053
딤전 5:21 793
딤전 5:22 904, 906, 1737
딤전 6:16 445, 753
딤전 6:17 1276
딤전 6:20 1430

디모데후서
딤후 1:6 908, 1746
딤후 1:9 1080, 1213, 1238, 1390
딤후 2:10 1146
딤후 2:11 1240
딤후 2:13 1485
딤후 2:19 415, 863
딤후 2:20 1240
딤후 3:1 1684
딤후 3:16 1508
딤후 4:1 850
딤후 4:8 552, 1275
딤후 4:16 962

디도서
딛 1:5 900, 901, 906, 1736, 1737
딛 1:6 643, 1742
딛 1:7 901
딛 1:9 899, 904
딛 1:15 695, 1337
딛 2:12 1243
딛 2:13 1831
딛 3:1 1782
딛 3:4 572, 1080, 1213
딛 3:5 1238, 1538, 1576

히브리서
히 1:1 1008, 1669
히 1:2 1660
히 1:3 754, 766, 781, 847, 848
히 1:4 793
히 1:6 765
히 1:10 765
히 2:4 406
히 2:9 829, 839
히 2:11 825
히 2:14 825, 839
히 2:16 793, 825
히 2:17 825
히 3:13 629
히 3:14 721
히 4:4 629
히 4:15 822, 825, 1464
히 4:16 1461
히 5:4 1648, 1652
히 5:5 1641
히 5:6 1734
히 5:10 1641
히 6:4 1083
히 6:10 1278
히 6:16 623, 625
히 7:3 1734
히 7:11 1316
히 7:12 1115
히 7:17 1641
히 7:19 1316
히 7:21 1641
히 7:23 1642
히 7:25 849
히 8:6 1464
히 9:9 1316
히 9:11 849, 1641
히 9:12 1642
히 9:14 1243, 1529
히 9:15 682, 1464
히 9:16 1645
히 9:26 1642
히 9:27 850
히 10:1 1316
히 10:2 1348
히 10:10 1642, 1797
히 10:14 1144, 1642
히 10:18 1642
히 10:21 1641
히 10:26 1083
히 11:1 747
히 11:2 1334
히 11:3 434, 441, 810
히 11:6 1184, 1211
히 11:7 413, 735
히 11:9 1299
히 11:13 1299
히 12:5 1158
히 12:8 1818
히 12:12 1087
히 12:14 1144
히 12:16 1087
히 12:18 1320
히 12:22 793
히 13:2 1234
히 13:4 642, 645, 1034

히 13:8 761, 1289
히 13:15 1655
히 13:16 1234, 1654

야고보서
약 1:2 1498
약 1:6 1459
약 1:12 1260
약 1:14 1498
약 1:15 540
약 1:17 507
약 2:9 1405
약 2:10 1218, 1284
약 2:14 1262
약 2:19 715, 1262
약 2:21 1261, 1263
약 4:6 495
약 4:11 1352, 1672
약 4:13 1476
약 5:14 1722
약 5:15 1726
약 5:16 1117, 1125
약 5:17 1474

베드로전서
벧전 1:2 1215
벧전 1:3 845
벧전 1:5 750, 1094
벧전 1:7 1816
벧전 1:11 759
벧전 1:16 1795
벧전 1:18 1573
벧전 1:19 1797
벧전 1:20 1660
벧전 1:23 1573
벧전 2:5 953
벧전 2:9 1655, 1729
벧전 2:13 1782
벧전 2:17 1763, 1781
벧전 2:24 1151, 1155, 1529
벧전 3:7 1789
벧전 3:19 843
벧전 3:21 1348, 1510, 1531, 1538, 1577
벧전 4:3 1240, 1421
벧전 4:8 1157, 1165
벧전 4:11 327, 1010, 1671, 1820
벧전 4:17 1162
벧전 5:1 955
벧전 5:2 948, 1352, 1673
벧전 5:3 917
벧전 5:5 1199
벧전 5:6 744
벧전 5:7 1437
벧전 5:8 796, 801

베드로후서
벧후 1:4 1089
벧후 1:21 774
벧후 2:1 342, 1023, 1684, 1685
벧후 2:4 799, 804
벧후 2:9 1499
벧후 3:3 1094
벧후 3:4 750
벧후 3:16 420

요한일서
요일 1:1 819, 1605
요일 1:7 832, 1144, 1529
요일 1:9 1123
요일 2:1 1150, 1464, 1466
요일 2:12 1150
요일 2:18 1660
요일 2:19 1416
요일 2:27 854
요일 3:1 1485, 1797
요일 3:2 719, 1660
요일 3:3 1243
요일 3:4 731
요일 3:8 798, 803, 804, 1240
요일 3:10 804

요일 3:15 638
요일 3:16 828
요일 3:22 1457
요일 3:23 768
요일 4:1 1031, 1693
요일 4:3 1620
요일 4:7 1243
요일 4:10 1214
요일 4:13 742
요일 4:18 731
요일 5:6 1529
요일 5:12 1211, 1237
요일 5:20 766
요일 5:21 611

유다서

유 1:9 804

요한계시록

계 1:5 1529
계 1:6 1655
계 3:10 996
계 5:3 1172
계 5:13 1172
계 7:14 1144
계 7:17 1832
계 13:5 996
계 14:13 1176
계 19:10 794

부록 4. 인명 색인

본문과 각주에 나오는 인물을 가나다순으로 모았습니다. 하나님·그리스도·성령과 천사는 넣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이 책의 쪽이며, 누르면 그 자리로 갑니다.

가인 (Cain) 231, 570, 1099
갈레노스 (Galenus) 435
게바 (Cephas) 910, 979
겔라시우스 (Gelasius I) 19, 410, 915, 1638, 1639
고넬료 (Cornelius) 176, 894, 1252, 1419, 1548, 1552
고라 (Core) 453
고레스 (Cyrus) 454
구산 (Chusan) 392, 1790
그라티아누스 (Gratianus) 19, 919, 923, 977, 979, 982, 988, 1718
그레고리우스 (Gregorius I) 228, 301, 600, 663, 773, 911, 913, 915, 921, 922, 924, 937, 970, 971, 974, 980, 981, 982, 984, 985, 988, 990, 991, 992, 993, 1000, 1001, 1046, 1048, 1051, 1418, 1638, 1715, 1750
그레고리우스 7세 (Gregorius VII (Hildebrandus)) 1047, 1048
그레고리우스 9세 (Gregorius IX) 990
그릴루스 (Grylus) 433
기드온 (Gedeon) 165, 1526
나단 (Nathan) 231, 245, 268, 1100, 1123, 1157
나사로 (Lazarus) 239, 296, 791, 1116, 1122, 1743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Gregorius Nazianzenus) 692, 772, 1030
네로 (Nero) 961
네르바 (Nerva) 373, 1768
네스토리우스 (Nestorius) 829, 830, 1033
네포티아누스 (Nepotianus) 944, 965
넥타리우스 (Nectarius) 243, 920, 1119, 1135
노바투스 (Novatus) 1077, 1078, 1081
노바티아누스 (Novatianus) 1015, 1077
노아 (Noah) 22, 164, 413, 1295, 1525, 1526
누가 (Lucas) 179, 191, 201, 222, 291, 300, 906, 962, 1192, 1542, 1552, 1601, 1632, 1709, 1737, 1747
느부갓네살 (Nebuchadnezar) 85, 268, 271, 387, 388, 389, 1157, 1164, 1785, 1786, 1787
느헤미야 (Nehemias) 1066, 1124, 1253
니고데모 (Nicodemus) 1582
니콜라우스 (Nicolaus (papa)) 921
다니엘 (Daniel) 244, 268, 271, 366, 375, 388, 455, 564, 788, 790, 792, 890, 1123, 1157, 1164, 1309, 1456, 1470, 1761, 1771, 1785
다단 (Dathan) 453
다마수스 (Damasus) 781, 782
다윗 (David) 96 외 책 전체(84쪽)
도마 (Thomas) 766
도미티아누스 (Domitianus) 1209
동방 사절 요한 (Ioannes legatus Orientalium) 612, 614
디도 (Titus) 290, 291, 293, 318, 384, 572, 896, 900, 901, 906, 907, 1341, 1736, 1737, 1739, 1782

디모데 (Timotheus) 291, 293, 298, 318, 792, 850, 896, 902, 904, 906, 907, 908, 962, 1015, 1035, 1053, 1054, 1341, 1426, 1508, 1737, 1739, 1745, 1746
디오니시우스 (Dionysius) 787, 910
디오스코루스 (Dioscorus) 496, 966, 984, 1033
라반 (Laban) 626
라우렌티우스 (Laurentius Mediolanensis) 492, 974, 1168
라합 (Rahab) 1421
라헬 (Rachel) 604, 1298
락탄티우스 (Lactantius) 431, 601
레오 (Leo I) 919, 920, 921, 926, 966, 967, 971, 973, 979, 980, 983, 984, 988, 993, 995, 998, 1030, 1144, 1707
레오 10세 (Leo X) 995, 998
레오 황제 (Leo III (Leo imperator)) 343, 344, 1028, 1686
레위 (Levi) 237, 238, 301, 628, 644, 645, 887, 907, 1002, 1003, 1022, 1078, 1115, 1327, 1657, 1749
로렌초 발라 (Valla) 1401
롬바르두스 (Petrus Lombardus) 273, 287, 296, 486, 490, 750, 1094, 1149, 1168, 1184, 1239, 1719
루키아노스 (Lucianus) 998
루키우스 (Lucius I) 982
룻 (Ruth) 626
르신 (Rasim) 1445
르우벤 (Ruben) 1078, 1298
르호보암 (Rehabeam) 549, 886, 1438
리누스 (Linus) 963
리쿠르고스 (Lycurgus) 692
마가 (Marcus) 191, 277, 280, 406, 910, 961, 1601, 1723, 1726
마니 (Mani (Manichaeus)) 448, 694, 819, 1070, 1686
마르켈루스 (Marcellus) 960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 (Marcus Terentius Varro) 602
마르키아누스 (Marcianus) 967
마르키온 (Marcion) 187, 188, 824, 825, 1614, 1615
마르티누스 (Martinus) 990
마리아 (Maria) 89, 821
마술사 시몬 (Simon magus) 715, 963
마우리키우스 (Mauricius (칼빈은 Martianus)) 985, 1051
마케도니우스 (Macedonius) 772, 1033
마태 (Matthaeus) 191, 357, 1084, 1097, 1374, 1601, 1697
막달라 마리아 (Maria Magdalena) 797
막시미누스 (Maximinus) 1026
말라기 (Malachias) 1001, 1638, 1643
맛디아 (Matthias) 906, 907, 1741
메나스 (Menas) 968
멜기세덱 (Melchisedec) 205, 206, 288, 1641, 1734
모세 (Moses) 45 외 책 전체(136쪽)
몬타누스 (Montanus) 20, 411, 643
뮈라의 감독 테오도시우스 (Theodosius Myrensis) 613
므낫세 (Manasse) 298, 790, 908, 1392, 1421, 1746
미가 (Micha) 416, 888, 1025, 1683
미가야 (Michaias) 24
밀티아데스 (Miltiades) 978
바나바 (Barnabas) 291, 293, 560, 900, 906, 908, 1066, 1411, 1737, 1740
바로 (Pharao) 38, 85, 171, 392, 546, 571, 593, 616, 762, 1299, 1423, 1543, 1628, 1638, 1790
바룩 (Baruch) 1457
바실리우스 (Basilius) 692, 805, 1033, 1431

바울 (Paulus) 12 외 책 전체(505쪽)
발람 (Balaam) 1300, 1446
발렌티누스 (Valentinus) 532, 533, 673
발렌티니아누스 (Valentinianus) 921, 1049, 1050, 1480
베냐민 (Beniamin) 453, 1298
베드로 (Petrus) 28 외 책 전체(122쪽)
베르나르두스 (Bernardus) 486, 490, 522, 729, 938, 986, 987, 992, 993, 1045, 1196, 1207, 1232
베스파시아누스 (Vespasianus) 1209
벨릭스 (Felix) 1090
벨사살 (Belsazar) 1785
보니파키우스 (Bonifacius) 492, 533, 589, 933, 1145, 1275
보니파키우스 3세 (Bonifacius III) 985
보아스 (Booz) 626
브리스길라 (Priscilla) 284, 1729, 1730
브사렐 (Beseleel) 501
비느하스 (Phinees) 1255, 1257
비투스 (Vitus) 966
빅토르 (Victor I) 974, 975
빈켄티우스 (Vincentius) 966
빌라도 (Pontius Pilatus) 89, 99, 835, 836, 837, 1440
빌립 (Philippus) 158, 1514, 1579, 1580
사가랴 (Zacharias) 1191, 1256, 1289, 1573
사라 (Sara) 1296, 1321
사르다나팔루스 (Sardanapalus) 26, 418
사무엘 (Samuel) 367, 388, 389, 453, 1470, 1763, 1786
사벨리우스 (Sabellius) 86, 87, 777, 780, 783
사울 (Saul) 231, 269, 390, 453, 547, 800, 1067, 1099, 1161, 1266, 1267, 1445, 1788
산헤립 (Sennacherib) 85, 547
세네카 (Seneca) 599, 1816
세례 요한 (Ioannes Baptista) 170, 171, 264, 305, 325, 504, 744, 1191, 1572, 1668, 1754
소조메누스 (Sozomenus) 242, 243, 782, 911, 1072, 1119
소크라테스 (Socrates Scholasticus) 782, 911, 975, 1072, 1419
솔로몬 (Salomon) 18, 71, 138, 268, 271, 365, 371, 372, 373, 384, 394, 408, 498, 526, 549, 573, 618, 668, 727, 741, 760, 887, 1080, 1157, 1160, 1164, 1198, 1205, 1228, 1245, 1253, 1267, 1400, 1429, 1434, 1488, 1760, 1767, 1768, 1781, 1792
솔론 (Solon) 159, 322, 370, 1347, 1665, 1766
스가랴 (Zacharias) 773, 842, 1208
스데반 (Stephanus) 187, 769, 792, 848, 1085, 1479, 1613
스바냐 (Zephanias) 340, 1200, 1683
스키피오 (Scipio) 1211, 1419
스타티우스 (Statius) 431
스테파누스 (Stephanus I) 968, 975
스피리돈 (Spyridon) 18
시게베르투스 (Sigebertus Gemblacensis) 1726
시므온 (Simeon) 1078
시므이 (Semei) 371, 1440, 1767
아간 (Achan) 621
아굴라 (Aquila) 284, 1729, 1730
아나니아 (Ananias) 176, 227, 769, 771, 1548, 1549, 1714
아나스타시우스 (Anastasius Antiochenus) 491, 970, 971, 974, 982, 989
아나클레투스 (Anacletus) 201, 202, 919, 979, 1633, 1635

아담 (Adam) 33, 58, 64, 91, 93, 102, 107, 159, 160, 164, 166, 172, 180, 237, 303, 325, 442, 471, 473, 474, 475, 476, 477, 518, 532, 541, 717, 821, 823, 825, 848, 860, 1006, 1104, 1114, 1209, 1221, 1231, 1267, 1292, 1295, 1308, 1319, 1389, 1397, 1398, 1419, 1518, 1525, 1529, 1544, 1571, 1668, 1751, 1752
아론 (Aaron) 24, 210, 296, 297, 416, 606, 1648, 1744, 1745
아르켈라오스 (Archelaus) 649
아리스테이데스 (Aristides) 1419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482, 509, 551
아리우스 (Arius) 86, 87, 344, 345, 779, 783, 911, 1019, 1029, 1032, 1034, 1687
아마데우스 (Amadeus VIII (Felix V)) 25, 417
아모리움의 감독 테오도시우스 (Theodosius Amorii) 614
아모스 (Amos) 1440
아벨 (Abel) 570, 1217, 1292, 1295
아브라함 (Abraham) 19 외 책 전체(62쪽)
아비람 (Abiron) 453
아비멜렉 (Abimelech) 616, 626, 1448
아셀리우스 (Asellius) 673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us) 16 외 책 전체(207쪽)
아우렐리우스 (Aurelius Carthaginensis) 693, 918, 968, 977, 1063
아카키우스 (Acacius) 18, 409, 916
아키텐의 프로스페르 (Prosper Aquitanus) 487, 553
아킬레우스 (Achilles) 1261
아킵보 (Archippus) 290, 900, 1736
아타나시우스 (Athanasius) 920, 966, 972, 1033, 1481
아틸리우스 레굴루스 (Atilius Regulus) 550
아폴로니우스 (Apollonius) 20
아합 (Ahab) 24, 416, 799, 886, 887, 1025, 1438
아히도벨 (Achitophel) 548, 1439
안나 (Anna) 1066
안드레 (Andreas) 953, 991
안드로니고 (Andronicus) 898
안셀무스 (Anselmus) 486
안티오코스 (Antiochus) 456, 457
알렉산데르 (Alexander (romanus episcopus)) 217, 1663
알베르트 피기우스 (Albertus Pighius) 735
암브로시우스 (Ambrosius) 18, 19, 127, 270, 273, 409, 410, 487, 540, 553, 649, 805, 851, 914, 916, 921, 942, 968, 1038, 1039, 1042, 1049, 1058, 1164, 1168, 1182, 1193, 1264, 1272, 1273, 1393, 1468, 1480, 1637
압살롬 (Absalom) 548
야고보 (Iacobus) 59, 124, 128, 240, 241, 245, 277, 278, 279, 280, 281, 330, 540, 541, 746, 961, 991, 1117, 1118, 1125, 1218, 1260, 1261, 1262, 1263, 1264, 1284, 1352, 1405, 1459, 1474, 1672, 1673, 1722, 1723, 1724, 1725, 1726
야곱 (Iacob) 298, 325, 453, 591, 613, 626, 689, 750, 789, 790, 795, 824, 851, 908, 1006, 1094, 1109, 1155, 1193, 1294, 1297, 1299, 1300, 1310, 1313, 1323, 1391, 1392, 1395, 1464, 1472, 1473, 1566, 1567, 1668, 1746
야누아리우스 (Ianuarius) 1072, 1359, 1634, 1706
에라클리우스 (Eraclius) 920
에브라임 (Ephraim) 298, 790, 908, 1392, 1746

에서 (Esau) 878, 1087, 1167, 1391, 1392, 1395, 1533, 1590, 1706
에스겔 (Ezechiel) 340, 455, 526, 628, 763, 1023, 1157, 1267, 1308, 1423, 1470, 1644, 1683, 1771
에스라 (Esdras) 1124
에우게니우스 3세 (Eugenius III) 987
에우게니우스 4세 (Eugenius IV) 25, 417, 987, 1045
에우노미우스 (Eunomius) 1033
에우세비우스 (Eusebius) 20, 601, 961, 997
에우케리우스 (Eucherius) 494
에우티케스 (Eutyches) 830, 966, 973, 1028, 1033
에울로기우스 (Eulogius Alexandrinus) 970, 985, 991
에피파니우스 (Epiphanius) 16, 19, 1028
엑수페리우스 (Exuperius Tolosanus) 916
엘리 (Heli) 1425
엘리사 (Elisaeus) 791, 794, 795
엘리야 (Elias) 23, 27, 128, 414, 419, 427, 627, 888, 1071, 1474
여로보암 (Ierobeam) 886, 887, 888
여호사밧 (Iosaphat) 365, 367, 375, 1760, 1762, 1771
여호수아 (Iosue) 341, 366, 621, 1031, 1685, 1761
예레미야 (Ieremias) 16, 24, 324, 333, 340, 342, 369, 407, 416, 454, 455, 522, 526, 565, 600, 616, 620, 763, 764, 873, 882, 1004, 1023, 1025, 1079, 1102, 1159, 1204, 1318, 1320, 1322, 1429, 1440, 1456, 1470, 1667, 1675, 1683, 1685, 1765, 1787
오디세우스 (Ulysses) 433
오리게네스 (Origenes) 48, 486, 514, 571, 589, 1188, 1393
오바댜 (Abdias) 626, 627
오컴 (Guilelmus de Ockham) 529
오홀리압 (Oliab) 501
옷니엘 (Othniel) 392, 1790
요나 (Ionas) 1067, 1446, 1447, 1448
요세푸스 (Flavius Josephus) 590
요셉 (Ioseph) 366, 375, 613, 1078, 1300, 1439, 1761, 1771
요시야 (Iosias) 366, 375, 455, 1761, 1771
요압 (Ioab) 371, 1767
요엘 (Ioel) 873, 1067, 1069
요한 (Ioannes (apostolus)) 19 외 책 전체 (67쪽)
요한 칼빈 (Ioannes Calvinus) 7, 8, 32, 396, 397
요한네스 (Ioannes IV Constantinopolitanus) 970, 984, 985
요한네스 22세 (Ioannes XXII) 999
욥 (Iob) 85, 426, 544, 668, 725, 799, 804, 1199, 1225, 1305, 1306, 1307, 1439, 1470
유니아 (Iunias) 898
유다 (Iudas) 118, 365, 392, 819, 886, 904, 1078, 1079, 1155, 1652, 1760, 1790
유스티나 (Iustina) 1050, 1480
유피테르 (Iupiter) 1483
율리아누스 (Iulianus (Eclanensis)) 413, 540, 545
율리우스 (Iulius I) 966, 972, 975, 998
율리우스 2세 (Iulius II) 998
율리우스 카이사르 (Iulius Caesar) 1048
이레나이우스 (Irenaeus) 880, 974, 975
이레네 (Irene) 343, 344, 612, 1028, 1686
이사야 (Iesaias) 21, 46, 264, 267, 281, 302, 324, 331, 340, 413, 427, 454, 495, 505, 517, 598, 616, 620, 629, 761, 764,

765, 768, 771, 818, 873, 1004, 1022, 1070, 1097, 1101, 1149, 1151, 1155, 1159, 1161, 1190, 1204, 1213, 1302, 1309, 1352, 1423, 1446, 1448, 1449, 1456, 1472, 1479, 1667, 1673, 1683, 1727, 1750
이삭 (Isaac) 325, 591, 626, 1006, 1193, 1263, 1271, 1294, 1296, 1297, 1299, 1310, 1313, 1392, 1472, 1473, 1566, 1567, 1668
이새 (Iesse) 768
이스마엘 (Ismael) 1263, 1296, 1392, 1567
이시도루스 (Isidorus) 282, 979, 1728
인노켄티우스 (Innocentius I) 673, 933, 983, 1726
인노켄티우스 3세 (Innocentius III) 242, 1118
자카리아스 (Zacharias) 985, 986
제피리누스 (Zephyrinus) 201, 202, 1634, 1635
카롤루스 대제 (Carolus Magnus) 612, 986
카밀루스 (Camillus) 520, 521, 1419
카사이 니그라이의 도나투스 (Donatus a Casis Nigris) 978
카시오도루스 (Cassiodorus) 782, 911, 1072
카이킬리아누스 (Caecilianus) 978
카토 (Cato) 1211, 1836
카틸리나 (Catilina) 520
칼리굴라 (Gaius Caligula) 428
칼릭스투스 (Calixtus) 1633
케레스 (Ceres) 931
켈레스티누스 (Coelestinus) 966, 1399
켈레스티우스 (Coelestius) 523, 525, 1268, 1399
코르넬리우스 (Cornelius) 968
콘스탄스 황제 (Constans) 972
콘스탄티누스 (Constantinus Magnus) 345, 612, 972, 978, 1020, 1029, 1045, 1046, 1047, 1048, 1049, 1687
콘스탄티아 감독 콘스탄티누스 (Constantinus Constantiae Cypri) 614
콘스탄티우스 (Constantius Mediolanensis) 921, 974
콘스탄티우스 황제 (Constantius II) 972
쿠리우스 (Curius) 1419
크리소스토무스 (Chrysostomus) 19, 48, 273, 484, 485, 494, 496, 525, 528, 551, 553, 590, 648, 662, 692, 758, 914, 1017, 1055, 1060, 1111, 1116, 1119, 1121, 1122, 1158, 1161, 1163, 1167, 1168, 1224, 1232, 1423, 1509, 1527, 1542, 1604, 1634, 1635, 1638, 1656, 1681
크세노크라테스 (Xenocrates) 1419
클레멘스 (Clemens I) 963, 982, 990, 995, 998
클레멘스 7세 (Clemens VII) 995, 998
키리아쿠스 (Cyriacus Constantinopolitanus) 974, 985
키릴루스 (Cyrillus) 916, 966, 1033, 1606
키케로 (Cicero) 376, 451, 455, 481, 483, 1771
키프리아누스 (Cyprianus) 19, 20, 293, 413, 493, 706, 856, 874, 884, 907, 918, 924, 926, 952, 965, 968, 975, 990, 1039, 1057, 1059, 1062, 1127, 1173, 1586, 1638, 1718, 1739, 1831
타티아누스 (Tatianus) 343
테르툴리아누스 (Tertullianus) 1502, 1637
테미스티오스 (Themistius) 509
테오도레투스 (Theodoretus) 782, 911, 920, 1020, 1072

테오도루스 (Theodorus) 613
테오도시우스 (Theodosius I) 942, 1037, 1058, 1637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 487, 1394, 1395
토비트 (Tobias) 791
트라야누스 (Traianus) 1209
티베리우스 (Tiberius) 961, 1209
티코니우스 (Tyconius) 560
티투스 (Titus) 1209
파리의 기욤 (Guilielmus Parisiensis) 282
파브리키우스 (Fabricius) 1211
파우스투스 (Faustus Manichaeus) 449, 1291, 1292, 1533
파울루스 3세 (Paulus III) 995, 998
파프누티우스 (Paphnutius) 20, 646
펠라기우스 (Pelagius) 523, 525, 532, 533, 550, 1268, 1399
포르피리오스 (Porphyrius) 1422
포카스 (Phocas) 985
풀케리아 (Pulcheria) 967
프랑수아 1세 (Franciscus I (François I)) 7, 397
프로테리우스 (Proterius) 984
플라비아누스 (Flavianus) 966, 973, 1033
플라톤 (Plato) 234, 433, 440, 451, 455, 481, 483, 500, 508, 511, 796, 1110, 1483, 1652, 1653
플루타르코스 (Plutarchus) 433
피타고라스 (Pythagoras) 1239
피핀 (Pipinus) 985, 986
하갈 (Agar) 789, 1321
하박국 (Habacuc) 601, 873, 1159
하와 (Eva) 164, 303, 1525, 1752
하인리히 4세 (Henricus IV) 1048
학개 (Haggaeus) 1216
한나 (Hanna) 133, 153, 1482, 1505
헤라클라스 (Heraclas) 910
헤롯 (Herodes) 1440
헬레나 (Helena) 211, 1649
호르미스다스 (Hormisdas) 979
호메로스 (Homerus) 956, 1261
호세아 (Oseas) 1156, 1654
후고 (Hugo (de Sancto Victore)) 282
히스기야 (Ezechias) 165, 231, 361, 366, 375, 616, 1099, 1381, 1446, 1447, 1448, 1457, 1526, 1701, 1761, 1771
히에로니무스 (Hieronymus) 18, 19, 273, 277, 407, 409, 485, 551, 571, 648, 667, 781, 782, 910, 911, 913, 914, 916, 933, 944, 965, 969, 1001, 1035, 1073, 1168, 1173, 1393, 1638, 1707, 1721
힐라리우스 (Hilarius) 415, 673, 758, 781, 782, 844, 1480